

**THE BOOK OF  
MORMON**

**KOREAN – ENGLISH  
PARALLEL EDITION**

Version 1, published April 2023. [bencrowder.net/book-of-mormon-parallel-edition/](http://bencrowder.net/book-of-mormon-parallel-edition/)

This parallel edition © 2023 Benjamin Crowder. All rights reserved. You have permission to print this document for your own use. For other uses, send requests to [ben.crowder@gmail.com](mailto:ben.crowder@gmail.com).

Text of the Book of Mormon © 2023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The text of this edition is licensed fro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ith the following disclaimer: *The Product offered by Benjamin Crowder is neither made, provided, approved, nor endorsed by, Intellectual Reserve, Inc. 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ny content or opinions expressed, implied, or included in or with the Product offered by Benjamin Crowder are solely those of Benjamin Crowder and not those of Intellectual Reserve, Inc. 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 몰몬경

### 니파이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

그러한즉,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의 기록의 요약이니—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맨인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요—계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나니—이는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하려 함이요—모로나이가 손수 인봉하여 주께로 감추었으니, 이는 장차 정한 때에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이 기록의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이더서에서 취한 요약이니, 이는 야렛 백성의 기록이요, 야렛 백성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때에 흩어진 백성이라—이 기사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고, 또 그들로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이요—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니라—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 The Book of Mormon

### An Account Written by the Hand of Mormon upon Plates Taken from the Plates of Nephi

Wherefore, it is an abridgment of the record of the people of Nephi, and also of the Lamanites—Written to the Lamanites,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and also to Jew and Gentile—Written by way of commandment, and also by the spirit of prophecy and of revelation—Written and sealed up, and hid up unto the Lord, that they might not be destroyed—To come forth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unto the interpretation thereof—Sealed by the hand of Moroni, and hid up unto the Lord, to come forth in due time by way of the Gentile—The interpretation thereof by the gift of God.

An abridgment taken from the Book of Ether also, which is a record of the people of Jared, who were scattered at the time the Lord confounded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en they were building a tower to get to heaven—Which is to show unto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what great things the Lord hath done for their fathers; and that they may know the covenants of the Lord, that they are not cast off forever—And also to the convincing of the Jew and Gentil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ETERNAL GOD, manifesting himself unto all nations—And now, if there are faults they are the mistakes of men; wherefore, condemn not the things of God, that ye may be found spotless at the judgment-seat of Christ.

# 니파이전서

##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리하이와 그의 아내 새라이아 및 (말이로부터 시작하여) 레이맨, 레뮤엘, 샘 그리고 니파이라 하는 그의 네 아들에 관한 기사. 리하이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예언하매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멸하려 하므로, 주께서 리하이에게 예루살렘 땅 밖으로 떠나도록 경고하심. 리하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사흘 길을 여행해 광야로 들어감. 니파이가 그의 형들과 함께 유대인의 기록을 찾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감. 그들의 고난의 기사. 그들이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남.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난과 고통. 그들의 여행 경로. 그들이 큰 물에 이룸.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 반항함. 니파이가 형들을 설복하고 배를 지음. 그들은 그 곳 이름을 풍요라 함. 그들이 큰 물을 건너 약속된 땅에 들어감. 그리고 그 후의 일들. 이것은 니파이의 기사에 따른 것이니 달리 말하자면 나 니파이가 이 기록을 썼음.

### 니파이전서 1

- 1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 생애에 행한 바를 기록으로 만드노라.
- 2 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드나니,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 3 또 나는 내가 만드는 기록이 참됨을 아노니, 나는 나 자신의 손으로 이를 만들며, 또 내가 아는 바를 따라 이를 만드노라.

# The First Book of Nephi

## His Reign and Ministry

*An account of Lehi and his wife Sariah, and his four sons, being called, (beginning at the eldest) Laman, Lemuel, Sam, and Nephi. The Lord warns Lehi to depart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because he prophesieth unto the people concerning their iniquity and they seek to destroy his life. He taketh three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with his family. Nephi taketh his brethren and returneth to the land of Jerusalem after the record of the Jews. The account of their sufferings. They take the daughters of Ishmael to wife. They take their families and depart into the wilderness. Their sufferings and afflictions in the wilderness. The course of their travels. They come to the large waters. Nephi's brethren rebel against him. He confoundeth them, and buildeth a ship. They call the name of the place Bountiful. They cross the large waters into the promised land, and so forth. This is according to the account of Nephi; or in other words, I, Nephi, wrote this record.*

### 1 Nephi 1

I, Nephi, having been born of goodly parents, therefore I was taught somewhat in all the learning of my father; and having seen many afflictions in the course of my days, nevertheless, having been highly favored of the Lord in all my days; yea, having had a great knowledge of the goodness and the mysteries of God, therefore I make a record of my proceedings in my days.

Yea, I make a record in the language of my father, which consists of the learning of the Jews and the language of the Egyptians.

And I know that the record which I make is true; and I make it with mine own hand; and I make it according to my knowledge.

- 4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첫해 초에 그리되  
 었음이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의 평생을 예루  
 살렘에서 사셨느니라) 그 같은 해에 많은 선지자  
 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성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되리  
 라고 예언하였느니라.
- 5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나아가 주께 기도하였으며, 참으로 그의 온 마음  
 을 다하여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 기도했을 때  
 불기둥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의 앞에 있는 바위  
 위에 머물렀고,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며, 보  
 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흔들리며 떨었느니  
 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  
 기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 보았던 일과 영에 압도  
 되어 그의 침상 위에 자신을 내던졌느니라.
- 8 그리고 이같이 영에 압도되어 있으면서 그는 시  
 현 속에 이끌려 가서 참으로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노  
 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늘 가운데에서 한  
 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보매 그의  
 광채가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뛰어났더라.
- 10 또한 다른 열둘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밝기가 궁창의 별들의 밝기보다 더욱 뛰어  
 났더라.
- 11 또 그들이 내려와서 지면 위에 나아가더니, 첫  
 번째 분이 와서 내 부친 앞에 서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주고는 읽으라 하셨느니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읽어 나아감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더라.

For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Zedekiah, king of Judah, (my father, Lehi, having dwelt at Jerusalem in all his days); and in that same year there came many prophets, prophesying unto the people that they must repent, or the great city Jerusalem must be destroyed.

W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my father, Lehi, as he went forth prayed unto the Lord, yea, even with all his heart, in behalf of 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as he prayed unto the Lord, there came a pillar of fire and dwelt upon a rock before him; and he saw and heard much; and because of the things which he saw and heard he did quake and tremble exceedingly.

And it came to pass that he returned to his own house at Jerusalem; and he cast himself upon his bed, being overcome with the Spirit and the things which he had seen.

And being thus overcome with the Spirit, he was carried away in a vision, even that he saw the heavens open, and he thought he saw God sitting upon his throne, surrounded with numberless concourses of angels in the attitude of singing and praising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w One descending out of the midst of heaven, and he beheld that his luster was above that of the sun at noon-day.

And he also saw twelve others following him, and their brightness did exceed that of the stars in the firmament.

And they came down and went forth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 first came and stood before my father, and gave unto him a book, and bade him that he should read.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read, he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Lord.

13 이에 그가 읽으며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화,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너의 가증함을 보았음이니라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많은 것을 나의 부친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읽었나니, 곧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멸망당할 것과 많은 자들이 칼에 멸망할 것과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읽었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많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읽고 보고 난 후, 참으로 많은 것을 주께 부르짖었나니, 예컨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고, 주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땅의 모든 주민 위에 있나이다. 또 주께서는 자비로우사 주께 나아오는 자들이 멸망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15 또 나의 부친이 그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그가 본 것, 참으로 주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그의 온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느니라.

16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기록해 두신 것을 모두 기술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시현과 꿈에서 보신 것을 많이 기록해 두셨음이었,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말했던 많은 것들 역시 많이 기록해 두셨으나, 이를 나는 모두 기술하지는 아니하노라.

17 그러나 나는 내 생애 동안 내가 행한 바를 기술하리라. 보라, 나는 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판에 나의 부친의 기록의 요약을 만드노니, 그러므로 나의 부친의 기록을 요약한 후에 나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기술하리라.

18 그런즉 나는 너희가 알기 바라노니, 주께서 나의 부친 리하이에게 참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고 나서, 보라, 그는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보고 들은 일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며 선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And he read, saying: Wo, wo, unto Jerusalem, for I have seen thine abominations! Yea, and many things did my father read concerning Jerusalem—that it should be destroyed, and the inhabitants thereof; many should perish by the sword, and many should be carried away captive into Babylo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y father had read and seen many great and marvelous things, he did exclaim many things unto the Lord; such as: Great and marvelous are thy works, O Lord God Almighty! Thy throne is high in the heavens, and thy power, and goodness, and mercy are over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because thou art merciful, thou wilt not suffer those who come unto thee that they shall perish!

And after this manner was the language of my father in the praising of his God; for his soul did rejoice, and his whole heart was filled, because of the things which he had seen, yea, which the Lord had shown unto him.

And now I, Nephi, do not make a full account of the things which my father hath written, for he hath written many things which he saw in visions and in dreams; and he also hath written many things which he prophesied and spake unto his children, of which I shall not make a full account.

But I shall make an account of my proceedings in my days. Behold, I make an abridgment of the record of my father, upon plates which I have made with mine own hands; wherefore, after I have abridged the record of my father then will I make an account of mine own life.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know, that after the Lord had shown so many marvelous things unto my father, Lehi, yea,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ehold he went forth among the people, and began to prophesy and to declare unto them concerning the things which he had both seen and heard.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유대인들에 관하여 증거한 바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를 조롱 하였으니, 이는 그가 진실로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라. 또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들과 또한 그가 책에서 읽은 것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세상의 구속에 대해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증거하였느니라.

20 이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듣고 그에게 화를 내었나니, 참으로 그들이 내어 쫓고 돌로 치며 살해한 옛 선지자들에게 그러하였던 것같이 화를 내었으며, 또한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Jews did mock him because of the things which he testified of them; for he truly testified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and he testified that the things which he saw and heard, and also the things which he read in the book, manifested plainly of the coming of a Messiah, and also the redemption of the world.

And when the Jews heard these things they were angry with him; yea, even as with the prophets of old, whom they had cast out, and stoned, and slain; and they also sought his life, that they might take it away. But behold, I, Nephi, will show unto you that the tender mercies of the Lord are over all those whom he hath chosen, because of their faith, to make them mighty even unto the power of deliverance.

## 니파이전서 2

- 1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주께서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시되, 참으로 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리하이야,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네가 충실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들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음으로 인하여, 보라,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참으로 꿈에 나의 부친에게 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났느니라.
- 5 그리고 그는 홍해 해안에 가까운 변경으로 따라 내려왔고, 홍해에 더 가까운 변경의 광야를 여행하였으며, 나의 모친 새라이아와, 나의 형들인 레이맨, 레뮤엘, 그리고 샘으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느니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흘을 여행하고 나서, 그는 물이 흐르는 강 옆에 있는 한 골짜기에 장막을 쳤느니라.
-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돌 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며,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니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 강의 이름을 레이맨이라 하였으며, 그 강은 홍해로 흘러들었고 그 골짜기는 강어귀에 가까운 변경에 있었느니라.
- 9 또 나의 부친은 강물이 홍해의 근원으로 흘러들어감을 보시고는 레이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 네가 이 강을 닦아서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 1 Nephi 2

Fo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pake unto my father, yea, even in a dream, and said unto him: Blessed art thou Lehi, because of the things which thou hast done; and because thou hast been faithful and declared unto this people the things which I commanded thee, behold, they seek to take away thy lif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commanded my father, even in a dream, that he should take his family and depart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as obedient unto the word of the Lord, wherefore he did as the Lord commanded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nd he left his house, and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nd his gold, and his silver, and his precious things, and took nothing with him, save it were his family, and provisions, and tents, and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nd he came down by the borders near the shore of the Red Sea; and he traveled in the wilderness in the borders which are nearer the Red Sea; and he did travel in the wilderness with his family, which consisted of my mother, Sariah, and my elder brothers, who were Laman, Lemuel, and Sa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traveled three days in the wilderness, he pitched his tent in a valley by the side of a river of water.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uilt an altar of stones, and made an offering unto the Lord, and gave thanks unto the Lord ou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lled the name of the river, Laman, and it emptied into the Red Sea; and the valley was in the borders near the mouth thereof.

And when my father saw that the waters of the river emptied into the fountain of the Red Sea, he spake unto Laman, saying: O that thou mightest be like unto this river, continually running into the fountain of all righteousness!



10 또 그는 레뮤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 네가 이 골짜기를 닮아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11 이제 이 말을 그가 하신 것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완고함 때문이었더라. 이는 보라, 그들은 부친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며,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의 기업의 땅과 그들의 금과 그들의 귀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는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하여,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부친이 그 마음의 어리석은 상상으로 인해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하였느니라.

12 이같이 레이맨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13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저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 있음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나의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았느니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영으로 충만하시어 권능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그들의 몸이 참으로 그 앞에서 떨어지며, 또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매, 그들이 감히 부친을 거스려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15 그리고 나의 부친은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몹시 어렸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 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7 또 나는 샘에게 말하여,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그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의 말을 믿더라.

And he also spake unto Lemuel: O that thou mightest be like unto this valley, firm and steadfast, and immovable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Now this he spake because of the stiffneckedness of Laman and Lemuel; for behold they did murmur in many things against their father, because he was a visionary man, and had led them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to leave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and their gold, and their silver, and their precious things, to perish in the wilderness. And this they said he had done because of the foolish imaginations of his heart.

And thus Laman and Lemuel, being the eldest, did murmur against their father. And they did murmur because they knew not the dealings of that God who had created them.

Neither did they believe that Jerusalem, that great city, could be destroyed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they were like unto the Jews who were at Jerusalem, who sought to take away the life of my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my father did speak unto them in the valley of Lemuel, with power,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until their frames did shake before him. And he did confound them, that they durst not utter against him; wherefore, they did as he commanded them.

And my father dwelt in a tent.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being exceedingly young, nevertheless being large in stature, and also having great desires to know of the mysteries of God, wherefore, I did cry unto the Lord; and behold he did visit me, and did soften my heart that I did believe all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my father; wherefore, I did not rebel against him like unto my brothers.

And I spake unto Sam, making known unto him the things which the Lord had manifested unto me by his Holy Spiri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lieved in my words.

- 18 그러나,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하여진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느니라.
-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니파이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
- 20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둔 땅이라, 참으로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니라.
- 21 또 네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 22 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네 형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리라.
- 23 이는 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 날, 나는 그들을 심한 저주로 저주할 것이요, 네 자손들이 역시 나를 거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네 자손들을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임이니라.
- 24 또 만일 네 자손들이 나를 거역한다 할진대, 그들은 네 자손들에게 채찍이 되어 그들을 깨우쳐 기억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behold, Laman and Lemuel would not hearken unto my words; and being grieved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I cried unto the Lord fo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pake unto me, saying: Blessed art thou, Nephi, because of thy faith, for thou hast sought me diligently, with lowliness of heart.

And inasmuch as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and shall be led to a land of promise; yea, even a land which I have prepared for you; yea, a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And inasmuch as thy brethren shall rebel against thee, they shall b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inasmuch as thou shalt keep my commandments, thou shalt be made a ruler and a teacher over thy brethren.

For behold, in that day that they shall rebel against me, I will curse them even with a sore curse, and they shall have no power over thy seed except they shall rebel against me also.

And if it so be that they rebel against me, they shall be a scourge unto thy seed, to stir them up in the ways of remembrance.

### 니파이전서 3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주와 말씀하던 데서 돌이켜,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느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이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그 꿈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네 형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셨느니라.
- 3 이는 보라, 라반이 유대인의 기록과 내 조상의 족보를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놋쇠판에 새겨져 있느니라.
- 4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와 네 형들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기록을 찾아 이 곳 광야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 5 그리고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 6 그런즉 같지어다, 나의 아들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으리니,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이니이다 하였더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이 말을 듣고는 심히 기뻐하셨으니, 내가 주께 복 받았음을 아셨음이라.
- 9 그리하여 나 니파이와 나의 형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려고,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였느니라.
-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올라갔을 때, 나와 나의 형들이 서로 의논하였느니라.
- 11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야 할지 제비를 뽑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뽑히매, 레이맨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 집에 앉았을 때 그와 이야기하였느니라.

### 1 Nephi 3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returned from speaking with the Lord, to the tent of my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pake unto me, saying: Behold I have dreamed a dream, in the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me that thou and thy brethren shall return to Jerusalem.

For behold, Laban hath the record of the Jews and also a genealogy of my forefathers, and they are engraven upon plates of brass.

Wherefore, the Lord hath commanded me that thou and thy brothers should go unto the house of Laban, and seek the records, and bring them down hither into the wilderness.

And now, behold thy brothers murmur, saying it is a hard thing which I have required of them; but behold I have not required it of them, but it is a commandment of the Lord.

Therefore go, my son, and thou shalt be favored of the Lord, because thou hast not murmured.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said unto my father: I will go and do the things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for I know that the Lord giveth no commandments unto the children of men, save he shall prepare a way for them that they may accomplish the thing which he commandeth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y father had heard these words he was exceedingly glad, for he knew that I had been blessed of the Lord.

And I, Nephi, and my brethren took our journey in the wilderness, with our tents, to go up to the land of Jerusal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we had gone up to the land of Jerusalem, I and my brethren did consult one with another.

And we cast lots—who of us should go in unto the house of Laba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t fell upon Laman; and Laman went in unto the house of Laban, and he talked with him as he sat in his house.

12 그리고 라반에게 나의 부친의 족보를 포함하고 있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달라고 요청하였느니라.

13 이에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노하여 레이맨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로 그 기록을 갖게 하려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레이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도적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14 그러나 레이맨이 그의 앞에서 도망해 나와서 라반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고하였고, 이에 우리는 심히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의 형들은 광야에 계신 나의 부친께 바야흐로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15 그러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16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충실하사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사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금과 은과 온갖 종류의 재물을 버려 두셨음이라. 또 그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모두 주의 명령으로 인함이었나이다.

17 이는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그가 아셨음이라.

18 이는 보소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한 연고니, 그런즉 만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도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 땅에 머물러 사신다면, 보소서 그도 역시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서 도망함은 꼭 필요한 일이다.

19 또 보소서, 우리가 이 기록을 얻어야 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요,

20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전달되어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에 전해진 말씀들을 보존하여, 그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And he desired of Laban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which contained the genealogy of my father.

And behold, it came to pass that Laban was angry, and thrust him out from his presence; and he would not that he should have the records. Wherefore, he said unto him: Behold thou art a robber, and I will slay thee.

But Laman fled out of his presence, and told the things which Laban had done, unto us. And we began to be exceedingly sorrowful, and my brethren were about to return unto my father in the wilderness.

But behold I said unto them that: As the Lord liveth, and as we live, we will not go down unto our father in the wilderness until we have accomplished the thing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us.

Wherefore, let us b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therefore let us go down to the land of our father's inheritance, for behold he left gold and silver, and all manner of riches. And all this he hath done because of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For he knew that Jerusalem must be destroyed,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For behold, they have rejected the words of the prophets. Wherefore, if my father should dwell in the land after he hath been commanded to flee out of the land, behold, he would also perish. Wherefore, it must needs be that he flee out of the land.

And behold, it is wisdom in God that we should obtain these records, that we may preserve unto our children the language of our fathers;

And also that we may preserve unto them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by the mouth of all the holy prophets, which have been delivered unto them by the Spirit and power of God, since the world began, even down unto this present time.

-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말로 나는 나의 형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도록 하였느니라.
-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한데 모았느니라.
- 23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은 후, 우리는 다시 라반의 집으로 올라갔느니라.
-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들어가 라반에게로 가서, 그에게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신 우리가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우리의 소유물을 보고, 또 그것이 막대함을 보고는 그에 대해 탐을 내더니, 급기야 우리를 쫓아내고는 우리의 소유를 손에 넣고자 우리를 죽이려 그의 종들을 보내었느니라.
-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라반의 종들에게서 도망하였고, 우리의 소유는 뒤에 버려 둘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라반의 수중에 떨어졌느니라.
-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로 도망하였으며, 라반의 종들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우리는 바위굴에 몸을 숨겼느니라.
-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나에게 노하였고, 또 나의 부친에게도 노하였으며, 레뮤엘도 그러하였으니, 이는 그가 레이맨의 말을 들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들의 동생인 우리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하였고, 심지어 막대기로 우리를 치기까지 하였느니라.
-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막대기로 우리를 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와서 그들 앞에 서더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동생을 막대기로 치느냐? 주께서 그를 택하시라 너희를 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함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니 주께서 라반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하였더라.
- 30 이에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난 후 떠났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did I persuade my brethren, that they might b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we went down to the land of our inheritance, and we did gather together our gold, and our silver, and our precious things.

And after we had gathered these things together, we went up again unto the house of Laban.

And it came to pass that we went in unto Laban, and desired him that he would give unto us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for which we would give unto him our gold, and our silver, and all our precious th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Laban saw our property, and that it was exceedingly great, he did lust after it, insomuch that he thrust us out, and sent his servants to slay us, that he might obtain our property.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flee before the servants of Laban, and we were obliged to leave behind our property, and it fell into the hands of Laban.

And it came to pass that we fled into the wilderness, and the servants of Laban did not overtake us, and we hid ourselves in the cavity of a rock.

And it came to pass that Laman was angry with me, and also with my father; and also was Lemuel, for he hearkened unto the words of Laman. Wherefore Laman and Lemuel did speak many hard words unto us, their younger brothers, and they did smite us even with a rod.

And it came to pass as they smote us with a ro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came and stood before them, and he spake unto them, saying: Why do ye smite your younger brother with a rod? Know ye not that the Lord hath chosen him to be a ruler over you, and this because of your iniquities? Behold ye shall go up to Jerusalem again, and the Lord will deliver Laban into your hands.

And after the angel had spoken unto us, he departed.

31 그러나 천사가 떠난 후에, 레이맨과 레뮤엘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라반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리요? 보라, 그는 힘센 자요, 오십을 명할 수 있나니, 참으로 오십을 죽일 수도 있거늘 어찌 우리인들 죽이지 못하랴 하니라.

And after the angel had departed, Laman and Lemuel again began to murmur, saying: How is it possible that the Lord will deliver Laban into our hands? Behold, he is a mighty man, and he can command fifty, yea, even he can slay fifty; then why not us?

## 니파이전서 4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사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보소서 주는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시니 어찌 라반과 그의 오십보다, 혹 참으로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아니하시리이까?
- 2 그러하니 올라가사이다. 모세처럼 강하게 되사이다. 이는 그가 진실로 홍해 물에 말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마른 땅을 딛고 지나왔으며, 바로의 군대는 뒤따르다가 홍해 물에 빠져 죽었음이라.
- 3 이제 보소서 당신들은 이것이 사실인 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천사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음도 아나이다. 어찌 의심할 수 있나이까? 올라가사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하신 것같이 우리도 구하실 수 있으며, 애굽인들을 멸하신 것같이 라반도 멸하실 수 있나이다.
- 4 이제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은 아직 노하여 있었고 여전히 계속하여 불평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따라왔으며, 이윽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이르렀느니라.
- 5 이에 때는 밤이었나니, 나는 그들로 하여금 성벽 바깥에 몸을 숨기게 하였으며, 그들이 몸을 숨기고 난 후에, 나 니파이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느니라.
- 6 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 7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내가 라반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한 사람을 보았나니, 그는 내 앞에서 땅에 쓰러져 있었느니라. 이는 그가 술에 취하였음이다.
- 8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르렀을 때 나는 그것이 라반임을 알았느니라.
- 9 또 나는 그의 칼을 보았으며, 내가 그것을 그 집에서 뽑아내었더니, 그 손잡이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만든 솜씨는 심히 정교하였으며, 또 나는 그 칼날이 극히 귀한 강철로 되었음을 알았느니라.

## 1 Nephi 4

And it came to pass that I spake unto my brethren, saying: Let us go up again unto Jerusalem, and let us b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for behold he is mightier than all the earth, then why not mightier than Laban and his fifty, yea, or even than his tens of thousands?

Therefore let us go up; let us be strong like unto Moses; for he truly spake unto the waters of the Red Sea and they divided hither and thither, and our fathers came through, out of captivity, on dry ground, and the armies of Pharaoh did follow and were drowned in the waters of the Red Sea.

Now behold ye know that this is true; and ye also know that an angel hath spoken unto you; wherefore can ye doubt? Let us go up; the Lord is able to deliver us, even as our fathers, and to destroy Laban, even as the Egyptians.

Now when I had spoken these words, they were yet wroth, and did still continue to murmur; nevertheless they did follow me up until we came without the walls of Jerusalem.

And it was by night; and I caused that they should hide themselves without the walls. And after they had hid themselves, I, Nephi, crept into the city and went forth towards the house of Laban.

And I was led by the Spirit, not knowing beforehand the things which I should do.

Nevertheless I went forth, and as I came near unto the house of Laban I beheld a man, and he had fallen to the earth before me, for he was drunken with wine.

And when I came to him I found that it was Laban.

And I beheld his sword, and I drew it forth from the sheath thereof; and the hilt thereof was of pure gold, and the workmanship thereof was exceedingly fine, and I saw that the blade thereof was of the most precious steel.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라반을 죽여야 한다는 영의 강권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언제 어느 때든지 결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도다 하고 뒤로 물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려 하였느니라.

11 이에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셨고, 또한 나는 그가 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과 더욱이 그가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가 또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았음을 알았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그를 죽이라, 주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13 보라 주께서 그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고자 악인을 죽이심이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느니라.

14 또 이제 나 니파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나니, 곧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거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신 것이라.

15 또한 나는 그들이 율법을 갖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였느니라.

16 또한 나는 율법이 놋쇠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17 또 나는 주께서 그의 명대로 내가 그 기록을 얻게 하려는 이 이유로, 라반을 나의 손에 붙이셨음을 알았느니라.

18 그리하여 나는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 라반의 머리털을 잡고 그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쳐 떨어뜨렸느니라.

19 또 그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쳐 떨어뜨린 후, 나는 라반의 옷을 취하여 참으로 하나도 빠짐 없이 나 자신의 몸에 걸치고 그의 갑옷을 나의 허리에 둘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was constrained by the Spirit that I should kill Laban; but I said in my heart: Never at any time have I shed the blood of man. And I shrunk and would that I might not slay him.

And the Spirit said unto me again: Behold the Lord hath delivered him into thy hands. Yea, and I also knew that he had sought to take away mine own life; yea, and he would not hearken unto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he also had taken away our propert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pirit said unto me again: Slay him, for the Lord hath delivered him into thy hands;

Behold the Lord slayeth the wicked to bring forth his righteous purposes. It is better that one man should perish than that a nation should dwindle and perish in unbelief.

And now, when I, Nephi, had heard these words, I remembered the words of the Lord which he spake unto me in the wilderness, saying that: Inasmuch as thy seed shall keep my commandments, they shall prosper in the land of promise.

Yea, and I also thought that they could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save they should have the law.

And I also knew that the law was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And again, I knew that the Lord had delivered Laban into my hands for this cause—that I might obtain the records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Therefore I did obey the voice of the Spirit, and took Laban by the hair of the head, and I smote off his head with his own sword.

And after I had smitten off his head with his own sword, I took the garments of Laban and put them upon mine own body; yea, even every whit; and I did gird on his armor about my loins.



20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라반의 보물고로 나아갔나니, 내가 라반의 보물고로 나아가다가 보라, 나는 보물고의 열쇠를 가진 라반의 종을 보았느니라. 이에 나는 라반의 목소리로 나와 함께 보물고로 들어가도록 그에게 명하였느니라.

21 이에 그는 나를 그의 주인 라반인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옷과 또한 나의 허리에 찬 칼을 보았음이라.

22 또 그는 그의 주인 라반이 밤에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나가 있는 줄을 알았던지라, 나에게 유대인 장로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23 이에 나는 마치 라반인 것처럼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24 그리고 또한 그에게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성벽 바깥에 있는 나의 형들에게 가져가야겠노라고 말하였느니라.

25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였더라.

26 이에 그는 내가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참으로 내가 죽인 그 라반이라고 생각하였던지라 나를 따라왔느니라.

27 또 그는 내가 성벽 바깥에 있는 나의 형들에게로 나아가는 동안, 유대인 장로들에 관하여 여러 번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나를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고, 레뮤엘과 샘도 그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이는 라반이라 생각하였음이었요, 그가 나를 죽이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으려 한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뒤에서 부른즉, 그들이 내 소리를 들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기를 멈추었느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의 종이 나의 형들을 보고는 떨기 시작하더니, 바야흐로 내 앞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31 이제 나 니파이는 체격이 큰 사람이었고, 또한 주께로부터 많은 힘을 받았던지라, 나는 라반의 종을 붙잡아,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느니라.

And after I had done this, I went forth unto the treasury of Laban. And as I went forth towards the treasury of Laban, behold, I saw the servant of Laban who had the keys of the treasury. And I commanded him in the voice of Laban, that he should go with me into the treasury.

And he supposed me to be his master, Laban, for he beheld the garments and also the sword girded about my loins.

And he spake unto me concerning the elders of the Jews, he knowing that his master, Laban, had been out by night among them.

And I spake unto him as if it had been Laban.

And I also spake unto him that I should carry the engravings, which were upon the plates of brass, to my elder brethren, who were without the walls.

And I also bade him that he should follow me.

And he, supposing that I spake of the brethren of the church, and that I was truly that Laban whom I had slain, wherefore he did follow me.

And he spake unto me many times concerning the elders of the Jews, as I went forth unto my brethren, who were without the wall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Laman saw me he was exceedingly frightened, and also Lemuel and Sam. And they fled from before my presence; for they supposed it was Laban, and that he had slain me and had sought to take away their lives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I called after them, and they did hear me; wherefore they did cease to flee from my presenc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servant of Laban beheld my brethren he began to tremble, and was about to flee from before me and return to the city of Jerusalem.

And now I, Nephi, being a man large in stature, and also having received much strength of the Lord, therefore I did seize upon the servant of Laban, and held him, that he should not flee.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와 말하기를,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주께서 살아 계시고 또 내가 살아 있음같이 바로 그와 같이, 만일 내가 우리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하였느니라.

33 또 내가 참으로 맹세로써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만일 내가 우리와 함께 광야에 내려가면 우리처럼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34 내가 또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녕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하셨거늘,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에 있어 부지런하지 않아야 하겠느냐? 그러한즉 만일 내가 광야로 내려가 나의 부친께 간다면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렘은 내가 한 말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조렘이란 그 종의 이름이니, 그는 광야로 내려가서 우리 부친께로 가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로부터 이후로는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우리에게 맹세하였느니라.

36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이유로 인함이었나니, 곧 유대인들이 우리가 광야로 도망한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와서 우리를 멸할까 염려하였음이니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렘이 우리에게 맹세할 때, 그에 관한 우리의 두려움은 그쳤느니라.

3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놋쇠판과 라반의 종을 취하고 광야로 떠나,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여행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spake with him, that if he would hearken unto my words, as the Lord liveth, and as I live, even so that if he would hearken unto our words, we would spare his life.

And I spake unto him, even with an oath, that he need not fear; that he should be a free man like unto us if he would go down in the wilderness with us.

And I also spake unto him, saying: Surely the Lord hath commanded us to do this thing; and shall we not be diligent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Therefore, if thou wilt go down into the wilderness to my father thou shalt have place with us.

And it came to pass that Zoram did take courage at the words which I spake. Now Zoram was the name of the servant; and he promised that he would go down into the wilderness unto our father. Yea, and he also made an oath unto us that he would tarry with us from that time forth.

Now we were desirous that he should tarry with us for this cause, that the Jews might not know concerning our flight into the wilderness, lest they should pursue us and destroy u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Zoram had made an oath unto us, our fears did cease concerning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e took the plates of brass and the servant of Laban, and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nd journeyed unto the tent of our father.

## 니파이전서 5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야로 내려와 우리 부친께 이른 후, 보라,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나의 모친 새라이아 역시 심히 기뻐하셨나니, 이는 모친이 우리로 인해 진실로 슬퍼하셨었음이라.
- 2 이는 모친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셨음이라. 또한 모친은 나의 부친에게 그가 환상의 사람이라 말하며 불평하셨었나니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우리를 우리 기업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이제 내 아들들은 없어졌고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하리이다 하셨더라.
- 3 그리고 이 같은 말로 나의 모친은 나의 부친에게 불평하셨느니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모친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환상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 이는 만일 내가 시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나의 형제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 5 그러나 보라 내가 약속의 땅을 얻었으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기뻐하노라. 더욱이 나는 주께서 나의 아들들을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사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데려다 주실 것임을 아노라 하셨더라.
- 6 이러한 말로 우리가 유대인의 기록을 얻으려 예루살렘 땅까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나의 부친 리하이는 우리에게 관하여 나의 모친 새라이아를 위로하셨더라.
- 7 이에 우리가 나의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보라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였으며 나의 모친은 위로를 받으셨느니라.
- 8 그리하여 모친이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남편에게 광야로 도망하도록 명하셨음을 분명히 아노라. 또한 주께서 나의 아들들을 보호하사 라반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아노라 하셨나니, 이같이 모친은 진정으로 말씀하셨느니라.

## 1 Nephi 5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we had come down into the wilderness unto our father, behold, he was filled with joy, and also my mother, Sariah, was exceedingly glad, for she truly had mourned because of us.

For she had supposed that we had perished in the wilderness; and she also had complained against my father, telling him that he was a visionary man; saying: Behold thou hast led us forth from the land of our inheritance, and my sons are no more, and we perish in the wilderness.

And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had my mother complained against my father.

And it had come to pass that my father spake unto her, saying: I know that I am a visionary man; for if I had not seen the things of God in a vision I should not have known the goodness of God, but had tarried at Jerusalem, and had perished with my brethren.

But behold, I have obtained a land of promise, in the which things I do rejoice; yea, and I know that the Lord will deliver my sons out of the hands of Laban, and bring them down again unto us in the wilderness.

And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did my father, Lehi, comfort my mother, Sariah, concerning us, while we journeyed in the wilderness up to the land of Jerusalem, to obtain the record of the Jews.

And when we had returned to the tent of my father, behold their joy was full, and my mother was comforted.

And she spake, saying: Now I know of a surety that the Lord hath commanded my husband to flee into the wilderness; yea, and I also know of a surety that the Lord hath protected my sons, and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Laban, and given them power whereby they could accomplish the thing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them. And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did she speak.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심히 기뻐하여 주께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니라.
- 10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후, 나의 부친 리하이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취하여 처음부터 살펴보셨느니라.
- 11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창조와, 또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 관한 기사를 전하고 있는 모세의 다섯 책이 들어 있음을 보셨느니라.
- 12 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 13 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한 예레미야의 입으로 전해진 많은 예언이 들어 있음을 보셨느니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또한 놋쇠판에서 그의 조상의 족보를 발견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그가 요셉의 후손임을 아셨나니, 진실로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써 애굽으로 팔려 가서 주의 손으로 보전되어 그의 부친 야곱과 그의 모든 권속을 보전하여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였던 바로 그 요셉이라.
- 15 또한 그들은 그들을 보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 16 이같이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의 조상의 족보를 찾아 내셨으며, 또한 라반도 역시 요셉의 후손이었나니, 그런 연유로 그와 그의 조상들이 기록을 해 왔던 것이더라.
- 17 그리고 이제 나의 부친이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자손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셨으니—
- 18 이 놋쇠판은 그의 자손에게서 나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라 하셨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rejoice exceedingly, and did offer sacrifice and burnt offerings unto the Lord; and they gave thanks unto the God of Israel.

And after they had given thanks unto the God of Israel, my father, Lehi, took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and he did search them from the beginning.

And he beheld that they did contain the five books of Moses, which gave an account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also of Adam and Eve, who were our first parents;

And also a record of the Jews from the beginning, even down to the commencement of the reign of Zedekiah, king of Judah;

And also the prophecies of the holy prophets, from the beginning, even down to the commencement of the reign of Zedekiah; and also many prophecies which have been spoken by the mouth of Jeremiah.

And it came to pass that my father, Lehi, also found upon the plates of brass a genealogy of his fathers; wherefore he knew that he was a descendant of Joseph; yea, even that Joseph who was the son of Jacob, who was sold into Egypt, and who was preserved by the hand of the Lord, that he might preserve his father, Jacob, and all his household from perishing with famine.

And they were also led out of captivity and out of the land of Egypt, by that same God who had preserved them.

And thus my father, Lehi, did discover the genealogy of his fathers. And Laban also was a descendant of Joseph, wherefore he and his fathers had kept the records.

And now when my father saw all these things, he was filled with the Spirit, and began to prophesy concerning his seed—

That these plates of brass should go forth unto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who were of his seed.

19 그리하여 그는 이 놋쇠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할 것이며, 세월에 의해 더 이상 흐려지지도 아니 할 것이라 하시고, 또 그의 자손에 관하여 많은 것을 예언하셨느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제까지 나와 나의 부친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켰느니라.

21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록을 얻어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기록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았나니,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22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고 가게 하신 것은 주 안에 있는 지혜였느니라.

Wherefore, he said that these plates of brass should never perish; neither should they be dimmed any more by time. And he prophesied many things concerning his se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far I and my father had kept the commandments wherewith the Lord had commanded us.

And we had obtained the records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us, and searched them and found that they were desirable; yea, even of great worth unto us, insomuch that we could preserve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unto our children.

Wherefore, it was wisdom in the Lord that we should carry them with us, as we journeyed in the wilderness towards the land of promise.

## 니파이전서 6

- 1 이제 나 니파이는 내 기록의 이 부분에서는 나의 조상의 족보를 기술하지 아니하며, 이후 어느 때라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판에는 그것을 기술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나의 부친이 적고 계시는 기록에 나와 있음이라. 그리한즉 나는 이 책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 2 이는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게는 족함이라.
- 3 또한 내가 각별히 나의 부친의 일을 모두 전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는 그러한 것을 이 판에 쓸 수 없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쓸 공간을 원함이라.
- 4 왜냐하면 오직 나의 뜻하는 바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임이라.
- 5 그러므로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나는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쓰노라.
- 6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이 판을 채우지 않게 하리라.

## 1 Nephi 6

And now I, Nephi, do not give the genealogy of my fathers in this part of my record; neither at any time shall I give it after upon these plates which I am writing; for it is given in the record which has been kept by my father; wherefore, I do not write it in this work.

For it sufficeth me to say that we are descendants of Joseph.

And it mattereth not to me that I am particular to give a full account of all the things of my father, for they cannot be written upon these plates, for I desire the room that I may write of the things of God.

For the fulness of mine intent is that I may persuade men to come unto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be saved.

Wherefore, the things which are pleasing unto the world I do not write, but the things which are pleasing unto God and unto those who are not of the world.

Wherefore, I shall give commandment unto my seed, that they shall not occupy these plates with things which are not of worth unto the children of men.

## 니파이전서 7

- 1 또 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의 자손들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마치고 난 후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라 그 곧 리하이가 그의 가족만을 데리고 홀로 광야로 들어감이 좋지 아니하매, 그의 아들들이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약속의 땅에서 주를 위해 자손을 생육하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에게 명하시라, 나 니파이와 나의 형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을 광야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셨느니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느니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스마엘의 집으로 올라가 이스마엘의 호감을 얻게 된지라, 우리는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이스마엘과 또한 그의 권속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신지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 광야로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오게 되었느니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두 명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나 니파이와 샘과 그들의 부친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와 그의 다른 세 딸에게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켰느니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반의 와중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였느니라.
- 8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해졌나니, 그런고로 그들에게, 참으로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나의 형들이니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동생인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을 만큼, 당신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어두움은 어쩐이니까?
- 9 당신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어쩐이니까?

## 1 Nephi 7

And now I would that ye might know, that after my father, Lehi, had made an end of prophesying concerning his see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pake unto him again, saying that it was not meet for him, Lehi, that he should take his family into the wilderness alone; but that his sons should take daughters to wife, that they might raise up seed unto the Lord in the land of promis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commanded him that I, Nephi, and my brethren, should again return unto the land of Jerusalem, and bring down Ishmael and his family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again, with my brethren, go forth into the wilderness to go up to Jerusalem.

And it came to pass that we went up unto the house of Ishmael, and we did gain favor in the sight of Ishmael, insomuch that we did speak unto him the words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soften the heart of Ishmael, and also his household, insomuch that they took their journey with us down into the wilderness to the tent of our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as we journeyed in the wilderness, behold Laman and Lemuel, and two of the daughters of Ishmael, and the two sons of Ishmael and their families, did rebel against us; yea, against me, Nephi, and Sam, and their father, Ishmael, and his wife, and his three other daughters.

And it came to pass in the which rebellion, they were desirous to return unto the land of Jerusalem.

And now I, Nephi, being grieved for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therefore I spake unto them, saying, yea, even unto Laman and unto Lemuel: Behold ye are mine elder brethren, and how is it that ye are so hard in your hearts, and so blind in your minds, that ye have need that I, your younger brother, should speak unto you, yea, and set an example for you?

How is it that ye have not hearkened unto the word of the Lord?

10 당신들이 주의 천사를 본 것을 잊어버렸음은 어쩐이니까?

11 참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라반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을 얻게 하시고 자,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당신들이 잊어버렸음은 어쩐이니까?

12 참으로 더욱이 사람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진대, 주께서는 능히 그들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만사를 행하실 수 있으심을 당신들이 잊어버렸음은 어쩐이니까? 그러한즉 우리는 주께 충실하사이다.

13 또 우리가 주께 충실할진대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장차 어느 시기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이다.

14 이는 보소서, 주의 영이 그들과 애쓰시기를 곧 그치심이니, 이는 보소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음이니이다. 또 그들은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고, 끝내 그를 그 땅에서 몰아 내었나이다.

15 이제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만일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당신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니이다. 이제 당신들이 원할진대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들께 하는 말, 곧 당신들이 가면 당신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소서. 이는 이같이 주의 영이 말하라고 내게 강권 하심이니이다.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이 말을 나의 형들에게 하자 그들이 내게 화를 내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였던 지라, 그 손을 내게 대었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나를 줄로 묶었으니, 이는 나를 광야에 버려 두어 들짐승들에게 삼키우게 하려 함이더라.

17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느니라.

How is it that ye have forgotten that ye have seen an angel of the Lord?

Yea, and how is it that ye have forgotten what great things the Lord hath done for us, in delivering us out of the hands of Laban, and also that we should obtain the record?

Yea, and how is it that ye have forgotten that the Lord is able to do all things according to his will, for the children of men, if it so be that they exercise faith in him? Wherefore, let us be faithful to him.

And if it so be that we are faithful to him, we shall obtain the land of promise; and ye shall know at some future period that the word of the Lord shall be fulfilled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for all things which the Lord hath spoken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must be fulfilled.

For behold, the Spirit of the Lord ceaseth soon to strive with them; for behold, they have rejected the prophets, and Jeremiah have they cast into prison. And they have sought to take away the life of my father, insomuch that they have driven him out of the l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ye will return unto Jerusalem ye shall also perish with them. And now, if ye have choice, go up to the land, and remember the words which I speak unto you, that if ye go ye will also perish; for thus the Spirit of the Lord constraineth me that I should speak.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 Nephi, had spoken these words unto my brethren, they were angry with m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lay their hands upon me, for behold, they were exceedingly wroth, and they did bind me with cords, for they sought to take away my life, that they might leave me in the wilderness to be devoured by wild beasts.

But it came to pass that I prayed unto the Lord, saying: O Lord, according to my faith which is in thee, wilt thou deliver me from the hands of my brethren; yea, even give me strength that I may burst these bands with which I am bound.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결박이 내 손과 발에서 풀렸으며 내가 내 형들 앞에 서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 had said these words, behold, the bands were loosed from off my hands and feet, and I stood before my brethren, and I spake unto them again.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나에게 노하여 내게 손을 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스마엘의 딸 중 하나와 또한 그의 모친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가 나의 형들에게 간청하였던지라, 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던 것을 멈추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ngry with me again, and sought to lay hands upon me; but behold, one of the daughters of Ishmael, yea, and also her mother, and one of the sons of Ishmael, did plead with my brethren, insomuch that they did soften their hearts; and they did cease striving to take away my life.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내 앞에 절하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용서해 주도록 나에게 간청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sorrowful, because of their wickedness, insomuch that they did bow down before me, and did plead with me that I would forgive them of the thing that they had done against me.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바를 모두 흔쾌히 용서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여로에 올라 우리 부친의 장막을 향해 여행하여 갔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frankly forgive them all that they had done, and I did exhort them that they would pray unto the Lord their God for forgive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o. And after they had done praying unto the Lord we did again travel on our journey towards the tent of our father.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에 이르렀고, 나와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의 온 집이 내려와 나의 부친의 장막에 이른 후,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또 그에게 희생과 번제를 드렸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come down unto the tent of our father. And after I and my brethren and all the house of Ishmael had come down unto the tent of my father, they did give thanks unto the Lord their God; and they did offer sacrifice and burnt offerings unto him.

## 니파이전서 8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온갖 종류의 갖가지 씨앗을 다 모았으며, 온갖 종류의 곡식 씨앗과 온갖 종류의 과일 씨앗을 모두 모았느니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광야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한 시현을 본 것이니라.
- 3 또 보라 내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와 또한 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할 까닭을 내가 가졌나니,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많은 자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까닭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니라.
- 4 그러나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아, 너희로 인하여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이는 보라, 내 생각으로는 내 꿈에 내가 어둡고 황량한 광야를 보았음이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흰 옷을 입었더니 그가 와서 내 앞에서더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말하여, 나에게 그를 따라오라 하였느니라.
-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를 따라가다가, 나 자신이 어둡고 황량한 황무지에 있음을 알았느니라.
- 8 또 내가 어둠 속을 여러 시간 동안 여행하고 나서, 나는 주께서 그의 친절하신 자비를 좇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주께 간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기도하고 나서 나는 크고 광활한 벌판을 보았느니라.
-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느니라.
-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우니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우심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 1 Nephi 8

And it came to pass that we had gathered together all manner of seeds of every kind, both of grain of every kind, and also of the seeds of fruit of every ki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ile my father tarried in the wilderness he spake unto us, saying: Behold, I have dreamed a dream; or, in other words, I have seen a vision.

And behold, because of the thing which I have seen, I have reason to rejoice in the Lord because of Nephi and also of Sam; for I have reason to suppose that they, and also many of their seed, will be saved.

But behold, Laman and Lemuel, I fear exceedingly because of you; for behold, methought I saw in my dream, a dark and dreary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a man, and he was dressed in a white robe; and he came and stood before m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pake unto me, and bade me follow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as I followed him I beheld myself that I was in a dark and dreary waste.

And after I had traveled for the space of many hours in darkness, I began to pray unto the Lord that he would have mercy on me,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his tender mercies.

And it came to pass after I had prayed unto the Lord I beheld a large and spacious field.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a tree, whose fruit was desirable to make one happy.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go forth and partake of the fruit thereof; and I beheld that it was most sweet, above all that I ever before tasted. Yea, and I beheld that the fruit thereof was white, to exceed all the whiteness that I had ever seen.

- 12 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 이는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 13 그리하여 나는 혹시 나의 가족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이 흐르는 강을 하나 보았나니, 그 강은 흘러가며 내가 열매를 먹고 있던 나무 가까이에 있더라.
- 14 이에 나는 그 강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보려고 살피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강의 발원지를 보았고, 그 강의 발원지에서 너희 어머니 새라이아와 샘과 니파이를 보았는데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또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르기를, 내게로 와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 도 그 열매를 먹었느니라.
-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레이맨과 레뮤엘도 와서 그 열매를 먹기를 바라, 혹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여 강의 발원지를 향하여 나의 눈길을 던졌느니라.
-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 19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라.
- 20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협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나니, 이 길은 또한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서, 마치 하나의 세상이거나 한 듯한 크고 광활한 별판으로 이어지더라.
- 21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라.
-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와,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

And as I partook of the fruit thereof it filled my soul with exceedingly great joy; wherefore, I began to be desirous that my family should partake of it also; for I knew that it was desirable above all other fruit.

And as I cast my eyes round about, that perhaps I might discover my family also, I beheld a river of water; and it ran along, and it was near the tree of which I was partaking the fruit.

And I looked to behold from whence it came; and I saw the head thereof a little way off; and at the head thereof I beheld your mother Sariah, and Sam, and Nephi; and they stood as if they knew not whither they should go.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ckoned unto them; and I also did say unto them with a loud voice that they should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which was desirable above all other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I was desirous that Laman and Lemuel should come and partake of the fruit also; wherefore, I cast mine eyes towards the head of the river, that perhaps I might see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them, but they would not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And I beheld a rod of iron, and it extended along the bank of the river, and led to the tree by which I stood.

And I also beheld a strait and narrow path, which came along by the rod of iron, even to the tree by which I stood; and it also led by the head of the fountain, unto a large and spacious field, as if it had been a world.

And I saw numberless concourses of people, many of whom were pressing forward, that they might obtain the path which led unto the tree by which I sto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ome forth, and commence in the path which led to the tree.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  
매,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  
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나아와서 쇠막대  
의 끝을 붙잡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  
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

25 또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  
러운 듯 주위에 그들의 눈길을 던지더라.

26 이에 나 또한 내 눈길을 던져 주위를 둘러보고  
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나니,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더라.

27 또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  
였느니라.

28 이에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  
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

29 또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의 말씀을 모두  
다 이야기하지는 아니하노라.

30 그러나 간략히 쓰자면, 보라, 부친은 또 다른 수  
많은 무리가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셨나니, 그  
들이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  
아오더니, 드디어 나아와 엎드려져서 나무의 열매  
를 먹었느니라.

31 그리고 부친은 다른 수많은 무리가 저 크고 넓  
은 건물을 향해서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을 또한 보  
셨더라.

3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가 깊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은 자가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  
다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arose a mist of dark-  
ness; yea, even an exceedingly great mist of dark-  
ness, insomuch that they who had commenced in the  
path did lose their way, that they wandered off and  
were lost.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others pressing  
forward, and they came forth and caught hold of the  
end of the rod of iron; and they did press forward  
through the mist of darkness, clinging to the rod of  
iron, even until they did come forth and partake of  
the fruit of the tree.

And after they had partaken of the fruit of the tree  
they did cast their eyes about as if they were  
ashamed.

And I also cast my eyes round about, and beheld,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of water, a great and  
spacious building; and it stood as it were in the air,  
high above the earth.

And it was filled with people, both old and young,  
both male and female; and their manner of dress was  
exceedingly fine; and they were in the attitude of  
mocking and pointing their fingers towards those  
who had come at and were partaking of the fruit.

And after they had tasted of the fruit they were  
ashamed, because of those that were scoffing at  
them; and they fell away into forbidden paths and  
were lost.

And now I, Nephi, do not speak all the words of  
my father.

But, to be short in writing, behold, he saw other  
multitudes pressing forward; and they came and  
caught hold of the end of the rod of iron; and they  
did press their way forward, continually holding fast  
to the rod of iron, until they came forth and fell  
down and partook of the fruit of the tree.

And he also saw other multitudes feeling their way  
towards that great and spacious building.

And it came to pass that many wer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fountain; and many were lost from  
his view, wandering in strange roads.

33 또 저 이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이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34 나의 부친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그들에게 주의 를 기울인 자마다 모두 떨어져 나갔음이라.

35 그리고 레이맨과 레뮤엘은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부친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 곧 시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모두 하시고 나서, 그가 시현에서 보신 일들로 인해 레이맨과 레뮤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 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셨느니라.

37 그리하여 부친은 그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혹은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쫓아 내지 않으시도록,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때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진실로 나의 부친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느니라.

38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시고 난 후, 그들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셨느니라.

And great was the multitude that did enter into that strange building. And after they did enter into that building they did point the finger of scorn at me and those that were partaking of the fruit also; but we heeded them not.

These are the words of my father: For as many as heeded them, had fallen away.

And Laman and Lemuel partook not of the fruit, said my father.

And it came to pass after my father had spoken all the words of his dream or vision, which were many, he said unto us, because of these things which he saw in a vision, he exceedingly feared for Laman and Lemuel; yea, he feared lest they should be cas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e did exhort them then with all the feeling of a tender parent, that they would hearken to his words, that perhaps the Lord would be merciful to them, and not cast them off; yea, my father did preach unto them.

And after he had preached unto them, and also prophesied unto them of many things, he bade them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he did cease speaking unto them.

## 니파이전서 9

- 1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부친은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보고, 듣고, 말씀하셨으며,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그리하셨으나, 이 판에는 기록할 수 없도다.
- 2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판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보라, 이 판은 그 위에 내가 내 백성의 역사에 관한 완전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내 백성에 관한 완전한 기사를 작성하는 판에 니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음이니, 그러므로 그 판은 나 자신의 이름을 따라 니파이의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 또 이 판 역시 니파이의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의 성역에 관하여 새겨진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께로부터 받았느니라.
- 4 다른 판에는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이 새겨져야 하리라. 그러한즉 이 판은 주로 성역을 위한 것이요, 다른 판은 주로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을 위한 것이니라.
- 5 그러한즉, 주께서는 주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이 판을 만들도록 나에게 명하셨거니와, 그 목적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 6 그러나 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그러한즉 그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나니, 이는 보라,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 1 Nephi 9

And all these things did my father see, and hear, and speak, as he dwelt in a tent, in the valley of Lemuel, and also a great many more things, which cannot be written upon these plates.

And now, as I have spoken concerning these plates, behold they are not the plates upon which I make a full account of the history of my people; for the plates upon which I make a full account of my people I have given the name of Nephi; wherefore, they are called the plates of Nephi, after mine own name; and these plates also are called the plates of Nephi.

Nevertheless, I have received a commandment of the Lord that I should make these plates, for the special purpose that there should be an account engraven of the ministry of my people.

Upon the other plates should be engraven an account of the reign of the kings, and the wars and contentions of my people; wherefore these plates are for the more part of the ministry; and the other plates are for the more part of the reign of the kings and the wars and contentions of my people.

Wherefore, the Lord hath commanded me to make these plates for a wise purpose in him, which purpose I know not.

But the Lord knoweth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wherefore, he prepareth a way to accomplish all his works among the children of men; for behold, he hath all power unto the fulfilling of all his words. And thus it is. Amen.

## 니파이전서 10

- 1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계속하여 이 판에 나의 행한 바와, 나의 다스림과 성역에 관한 기사를 기술해 나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기사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나는 나의 부친과 또한 나의 형들의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말해야만 하느니라.
- 2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함을 다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을 마치신 후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음이라—
- 3 저들이 멸망되리니, 즉 저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많은 자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를 따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니, 참으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 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된 후,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 4 참으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육백 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시라.
- 5 또한 그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가 말씀하신 이 메시아, 곧 세상의 구속주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였는지를 말씀하셨느니라.
- 6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이 구속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 7 또한 그는 메시아에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나니—
- 8 참으로 그가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행로를 곧게 하라. 이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심이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의 부친은 이 일에 관하여서 실로 많은 말씀을 하셨느니라.

## 1 Nephi 10

And now I, Nephi, proceed to give an account upon these plates of my proceedings, and my reign and ministry; wherefore, to proceed with mine account, I must speak somewhat of the things of my father, and also of my brethren.

For behold, it came to pass after my father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he words of his dream, and also of exhorting them to all diligence, he spake unto them concerning the Jews—

That after they should be destroyed, even that great city Jerusalem, and many be carried away captive into Babylon, according to the own due time of the Lord, they should return again, yea, even be brought back out of captivity; and after they should be brought back out of captivity they should possess again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Yea, even six hundred years from the time that my father left Jerusalem, a prophet would the Lord God raise up among the Jews—even a Messiah, or, in other words, a Savior of the world.

And he also spake concerning the prophets, how great a number had testified of these things, concerning this Messiah, of whom he had spoken, or this Redeemer of the world.

Wherefore, all mankind were in a lost and in a fallen state, and ever would be save they should rely on this Redeemer.

And he spake also concerning a prophet who should come before the Messiah,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Yea, even he should go forth and cry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and make his paths straight; for there standeth one among you whom ye know not; and he is mightier than I, whose shoe's latchet I am not worthy to unloose. And much spake my father concerning this thing.

- 9 또 나의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 건너편 베타바라에서 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는 물로 침례를 줄 것이며, 참으로 그가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 10 또 그는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준 후에, 그가 세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알고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
-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나의 형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될 복음에 관하여, 또한 유대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나니,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죽인 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신 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성신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셨느니라.
- 12 참으로 나의 부친은 이방인들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집에 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들이 그 가지가 꺾여 온 지면에 흩어질 감람나무에 비유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 13 그리하여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같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셨느니라.
- 14 또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즉 요컨대 이방인들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후,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에게로 접목될 것이니, 즉 그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 15 이에 이 같은 말로써 나의 부친은 나의 형들에게 예언하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이를 나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중에서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만큼을 내가 나의 다른 책에 기록해 두었음이니라.
- 16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은 나의 부친이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에 이루어졌느니라.

And my father said he should baptize in Bethabara, beyond Jordan; and he also said he should baptize with water; even that he should baptize the Messiah with water.

And after he had baptized the Messiah with water, he should behold and bear record that he had baptized the Lamb of God, who should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And it came to pass after my father had spoken these words he spake unto my brethren concerning the gospel which should be preached among the Jews, and also concerning the dwindling of the Jews in unbelief. And after they had slain the Messiah, who should come, and after he had been slain he should rise from the dead, and should make himself manifest, by the Holy Ghost, unto the Gentiles.

Yea, even my father spake much concerning the Gentiles, and also concerning the house of Israel, that they should be compared like unto an olive tree, whose branches should be broken off and should b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Wherefore, he said it must needs be that we should be led with one accord into the land of promise, unto the fulfilling of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should b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after the house of Israel should be scattered they should be gathered together again; or, in fine, after the Gentiles had received the fulness of the Gospel, the natural branches of the olive tree, or the remnants of the house of Israel, should be grafted in, or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e Messiah, their Lord and their Redeemer.

And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did my father prophesy and speak unto my brethren, and also many more things which I do not write in this book; for I have written as many of them as were expedient for me in mine other book.

And all these things, of which I have spoken, were done as my father dwelt in a tent, in the valley of Lemuel.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부친이 시현에서 보신 것들과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었으니, 이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신 것이요—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야라—나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있어서도 역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

18 이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에게 나아올진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만인을 위해 길이 예비 되어 있음이라.

19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며, 장차 올 시대에서와 같이 고대에도 역시 그러하였음이라. 그러한즉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20 그러므로 사람아, 너희 모든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21 그러한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시험의 날 동안 간악하게 행하기를 구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나니,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22 또 성신께서 권세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after I, Nephi, having heard all the words of my father, concerning the things which he saw in a vision, and also the things which he spake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ich power he received by faith on the Son of God—and the Son of God was the Messiah who should come—I, Nephi, was desirous also that I might see, and hear, and know of these th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ich is the gift of God unto all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as well in times of old as in the time that he should manifest himself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the way is prepared for all m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f it so be that they repent and come unto him.

For he that diligently seeketh shall find; and the mysteries of God shall be unfolded unto them,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s well in these times as in times of old, and as well in times of old as in times to come; wherefore, the course of the Lord is one eternal round.

Therefore remember, O man, for all thy doings thou shalt be brought into judgment.

Wherefore, if ye have sought to do wickedly in the days of your probation, then ye are found unclean before the judgment-seat of God; and no unclean thing can dwell with God; wherefore, ye must be cast off forever.

And the Holy Ghost giveth authority that I should speak these things, and deny them not.

## 니파이전서 11

- 1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리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발을 디어 본 적이 없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
- 2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 3 이에 내가 이르되,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 4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버지가 말한 그 나무를 보았다고 믿느냐?
- 5 이에 내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모두 믿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 6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자, 영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호산나로다. 이는 그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참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 또 너 니파이에게 복이 있나니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라. 그러즉,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내게 보여 주리라.
- 7 또 보라, 이것이 네게 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곧 네 아버지가 맛 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네가 보고 난 후,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네가 또한 보게 되리니, 그를 네가 목격할지며 네가 그를 목격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하리라 하시더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나니, 그것은 나의 부친이 보신 나무와 흡사하더라. 또 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여 참으로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뛰어났으며, 그 희기는 쌓인 눈의 희기보다 더 희더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를 본 후에 영께 이르되,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무를 내게 보여 주셨음을 내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 10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 1 Nephi 11

For it came to pass after I had desired to know the things that my father had seen, and believing that the Lord was able to make them known unto me, as I sat pondering in mine heart I was caught away in the Spirit of the Lord, yea, into an exceedingly high mountain, which I never had before seen, and upon which I never had before set my foot.

And the Spirit said unto me: Behold, what desirest thou?

And I said: I desire to behold the things which my father saw.

And the Spirit said unto me: Believest thou that thy father saw the tree of which he hath spoken?

And I said: Yea, thou knowest that I believe all the words of my father.

And when I had spoken these words, the Spirit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Hosanna to the Lord, the most high God; for he is God over all the earth, yea, even above all. And blessed art thou, Nephi, because thou believest in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wherefore, thou shalt behold the things which thou hast desired.

And behold this thing shall be given unto thee for a sign, that after thou hast beheld the tree which bore the fruit which thy father tasted, thou shalt also behold a man descending out of heaven, and him shall ye witness; and after ye have witnessed him ye shall bear record that it is the Son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pirit said unto me: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a tree; and it was like unto the tree which my father had seen; and the beauty thereof was far beyond, yea, exceeding of all beauty; and the whiteness thereof did exceed the whiteness of the driven snow.

And it came to pass after I had seen the tree, I said unto the Spirit: I behold thou hast shown unto me the tree which is precious above all.

And he said unto me: What desirest thou?

11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  
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  
에게 말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어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일러, 보라 하  
시기로 내가 마치 그를 쳐다보려는 듯 보았으나,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앞에서  
떠나가셨음이다.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큰 성 예루살  
렘과 또한 다른 성읍들을 보았고,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  
니 그 처녀는 심히 곱고 희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  
고 한 천사가 내려와 내 앞에 서서 내게 이르되,  
니파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15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모든 처녀들  
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 하나를  
보나이다 하였더라.

16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

17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  
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하였  
더라.

18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  
려 감을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  
려 가 있는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20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  
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21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  
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  
이 본 나무의 의미를 이제 네가 알겠느냐?

And I said unto him: To know the interpretation  
thereof—for I spake unto him as a man speaketh; for  
I beheld that he was in the form of a man; yet never-  
theless, I knew that it was the Spirit of the Lord; and  
he spake unto me as a man speaketh with ano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me: Look!  
And I looked as if to look upon him, and I saw him  
not; for he had gone from before my presence.

And it came to pass that I looked and beheld the  
great city of Jerusalem, and also other cities. And I  
beheld the city of Nazareth; and in the city of  
Nazareth I beheld a virgin, and she was exceedingly  
fair and white.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the heavens open;  
and an angel came down and stood before me; and  
he said unto me: Nephi, what beholdest thou?

And I said unto him: A virgin, most beautiful and  
fair above all other virgins.

And he said unto me: Knowest thou the conde-  
scension of God?

And I said unto him: I know that he loveth his  
children; nevertheless, I do not know the meaning of  
all things.

And he said unto me: Behold, the virgin whom  
thou seest is the mother of the Son of God, after the  
manner of the flesh.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at she was car-  
ried away in the Spirit; and after she had been car-  
ried away in the Spirit for the space of a time the an-  
gel spake unto me,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the virgin again, bearing  
a child in her arms.

And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the Lamb of  
God, yea, even the Son of the Eternal Father!  
Knowest thou the meaning of the tree which thy fa-  
ther saw?

22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

23 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그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24 또 그가 이 말들을 하고 난 후, 나에게 일러,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내가 본즉, 많은 자들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쇠막대가 생수의 근원, 곧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나니,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또 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도 알았느니라.

26 또 천사가 다시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볼 지어다!

27 이에 내가 보고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세상의 구속주를 보았고, 또한 그의 앞에서 길을 예비할 선지자도 보았나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아가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또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머무르더라.

28 또 내가 보니 그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아가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매, 허다한 무리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그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 내더라.

29 또 나는 다른 열둘이 그를 따르는 것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의 면전에서 영에 이끌려 가더니 보이지 아니하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 하늘들이 다시 열린 것을 보았고, 또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And I answered him, saying: Yea, it is the love of God, which sheddeth itself abroad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wherefore, it is the most desirable above all things.

And he spake unto me, saying: Yea, and the most joyous to the soul.

And after he had said these words, he said unto me: Look! And I looked, and I beheld the Son of God going forth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I saw many fall down at his feet and worship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at the rod of iron, which my father had seen, was the word of God, which led to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or to the tree of life; which waters are a representation of the love of God; and I also beheld that the tree of life was a representation of the love of God.

And the angel said unto me again: Look and behold the condescension of God!

And I looked and beheld the Redeemer of the world, of whom my father had spoken; and I also beheld the prophet who should prepare the way before him. And the Lamb of God went forth and was baptized of him; and after he was baptized, I beheld the heavens open, and the Holy Ghost come down out of heaven and abide upon him in the form of a dove.

And I beheld that he went forth ministering unto the people, in power and great glory; and the multitudes were gathered together to hear him; and I beheld that they cast him out from among them.

And I also beheld twelve others following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carried away in the Spirit from before my face, and I saw them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pake unto me again,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I beheld the heavens open again, and I saw angels descending upon the children of men; and they did minister unto them.

31 또 그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시더라.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고 보여 주었느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고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나니 그가 사람들에게 잡히셨더라.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심판을 받으시매 내가 보고 증거하였노라.

33 또 나 니파이가 보니, 그가 십자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더라.

34 또 그가 죽임을 당하신 후에 내가 본즉, 땅의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사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라. 어린 양의 사도라 함은 주의 천사가 열둘을 이같이 일컬었음이라.

35 또 땅의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였는데 내가 보니, 그들이 나의 부친이 보신 것과 흡사한 한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더라.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세상과 그 지혜를 보라. 참으로, 보라 이스라엘의 집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였도다 하더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증거하였으되,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요, 또 그것이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히 크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멸망이 이러하리라 하더라.

And he spake unto me again,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I beheld the Lamb of God going forth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I beheld multitudes of people who were sick, and who were afflicted with all manner of diseases, and with devils and unclean spirits; and the angel spake and showed all these things unto me. And they were healed by the power of the Lamb of God; and the devils and the unclean spirits were cast ou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pake unto me again,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the Lamb of God, that he was taken by the people; yea, the Son of the everlasting God was judged of the world; and I saw and bear record.

And I, Nephi, saw that he was lifted up upon the cross and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after he was slain I saw the multitudes of the earth, that they were gathered together to fight against the apostles of the Lamb; for thus were the twelve called by the angel of the Lord.

And the multitude of the earth was gathered together; and I beheld that they were in a large and spacious building, like unto the building which my father saw. And the angel of the Lord spake unto me again, saying: Behold the world and the wisdom thereof; yea, behold the house of Israel hath gathered together to fight against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and bear record, that the great and spacious building was the pride of the world; and it fell, and the fall thereof was exceedingly great. And the angel of the Lord spake unto me again, saying: Thus shall be the destruction of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that shall fight against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 니파이전서 12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네 자손과 네 형제들의 자손을 불지어다 하기로, 내가 보고 약속의 땅을 보았고, 또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더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이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여러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칼로 행하여지는 큰 살육들을 보았느니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땅에서 전쟁과 분쟁의 와중에 많은 세대가 지나감을 보았고, 또 많은 성읍들을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많은 고로 내가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의 땅 위에 어둠의 안개를 보았으며, 또 번개를 보았으며, 또 천둥과 지진과 온갖 종류의 요란한 소리를 들었으며, 또 땅과 바위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산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짐을 보았으며, 또 땅의 평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땅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땅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러한 것을 본 후에 나는 어둠의 연무가 땅에서 걷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보라 나는 크고 두려운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 아니한 허다한 많은 무리를 보았느니라.
- 6 또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그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더라.
- 7 또한 내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성신이 다른 열둘 위에 내리시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성임을 받고 택하심을 입더라.
- 8 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자손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택하심을 입은 어린 양의 열두 제자를 보라 하더라.

## 1 Nephi 12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aid unto me: Look, and behold thy seed, and also the seed of thy brethren. And I looked and beheld the land of promise; and I beheld multitudes of people, yea, even as it were in number as many as the sand of the sea.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multitudes gathered together to battle, one against the other; and I beheld wars, and rumors of wars, and great slaughters with the sword among my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many generations pass away, after the manner of wars and contentions in the land; and I beheld many cities, yea, even that I did not numb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a mist of darkness on the face of the land of promise; and I saw lightnings, and I heard thunderings, and earthquakes, and all manner of tumultuous noises; and I saw the earth and the rocks, that they rent; and I saw mountains tumbling into pieces; and I saw the plains of the earth, that they were broken up; and I saw many cities that they were sunk; and I saw many that they were burned with fire; and I saw many that did tumble to the earth, because of the quaking thereof.

And it came to pass after I saw these things, I saw the vapor of darkness, that it passed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and behold, I saw multitudes who had not fallen because of the great and terrible judgments of the Lord.

And I saw the heavens open, and the Lamb of God descending out of heaven; and he came down and showed himself unto them.

And I also saw and bear record that the Holy Ghost fell upon twelve others; and they were ordained of God, and chosen.

And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Behold the twelve disciples of the Lamb, who are chosen to minister unto thy seed.

- 9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기억하느냐? 보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자들이라. 그러한즉 네 자손의 열두 성역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속하였음이니라.
- 10 또 네가 보는 이 열두 성역자들은 너의 자손들을 심판하리라. 또 보라, 그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이 그의 피로 희게 되었음이라 하더라.
- 11 또 천사가 내게 일러,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 세 세대가 의로운 가운데 지나감을 보았나니 그들의 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희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어린 양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것이니라 하더라.
- 12 또 나 니파이는 또한 네 번째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의로운 가운데 지나감을 보았느니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땅의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였더라.
- 14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의 자손들과 네 형제들의 자손들을 보라 하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나의 자손들의 백성이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함께 모인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라.
- 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부친이 본 더러운 물의 근원을 보라, 곧 그가 말한 강이니 그 깊이는 지옥의 깊이니라.
- 17 또 어둠의 안개는 악마의 유혹이니, 이것이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을 넓은 길로 이끌어 낸즉 그들이 멸망하며 잃은 바 되느니라.
- 18 또 너의 부친이 본 크고 넓은 건물은 사람의 자녀들의 헛된 상상과 교만이라. 크고 두려운 심연이 이를 갈라 놓나니, 실로 크고 두려운 심연이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이때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성신이 증거하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라.

And he said unto me: Thou rememberest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Behold they are they who shall judge the twelve tribes of Israel; wherefore, the twelve ministers of thy seed shall be judged of them; for ye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these twelve ministers whom thou beholdest shall judge thy seed. And, behold, they are righteous forever; for because of their faith in the Lamb of God their garments are made white in his blood.

And the angel said unto me: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three generations pass away in righteousness; and their garments were white even like unto the Lamb of God. And the angel said unto me: These are made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because of their faith in him.

And I, Nephi, also saw many of the fourth generation who passed away in righteous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the multitudes of the earth gathered together.

And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thy seed, and also the seed of thy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I looked and beheld the people of my seed gathered together in multitudes against the seed of my brethren; and they were gathered together to battle.

And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Behold the fountain of filthy water which thy father saw; yea, even the river of which he spake; and the depths thereof are the depths of hell.

And the mists of darkness are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which blindeth the eyes, and hardeneth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and leadeth them away into broad roads, that they perish and are lost.

And the large and spacious building, which thy father saw, is vain imaginations and the pride of the children of men. And a great and a terrible gulf divideth them; yea, even the word of the justice of the Eternal God, and the Messiah who is the Lamb of God, of whom the Holy Ghost beareth recor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and from this time henceforth and forever.

19 또 천사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내가 보니, 천사의 말대로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다투더라. 또 나의 자손들의 교만과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나는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의 백성을 이기는 것을 보았느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의 백성이 나의 자손들을 정복하였고, 또 그들은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그 땅의 지면 위에 나아가더라.

21 또 내가 보니 그들이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 여러 세대가 지나가더라.

22 천사가 또 내게 이르기를, 보라 이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리라 하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들은 게으름과 온갖 가증함이 가득하며 어둡고 혐오스러우며 더러운 백성이 되더라.

And while the angel spake these words, I beheld and saw that the seed of my brethren did contend against my see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angel; and because of the pride of my seed, and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I beheld that the seed of my brethren did overpower the people of my seed.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and saw the people of the seed of my brethren that they had overcome my seed; and they went forth in multitudes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I saw them gathered together in multitudes; and I saw wars and rumors of wars among them; and in wars and rumors of wars I saw many generations pass away.

And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these shall dwindle in unbelief.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after they had dwindled in unbelief they became a dark, and loathsome, and a filthy people, full of idleness and all manner of abominations.



## 니파이전서 13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많은 나라와 왕국들을 보았더라.
- 2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많은 나라와 왕국들을 보나 이다 하였더니,
-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이방인들의 나라와 왕국들이니라 하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이방인들의 나라 가운데서 한 큰 교회가 형성됨을 보았느니라.
- 5 이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한 가장 가증한 교회의 형성됨을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해하며, 또 그들을 고문하며 그들을 결박하며, 쇠 멍에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며, 그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하는도다 하더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보았고, 또 내가 악마를 보았나니 그가 그 교회의 설립자더라.
- 7 또한 나는 금과 은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세마포와 온갖 값진 옷을 보았으며, 또 나는 많은 창녀들을 보았느니라.
- 8 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금과 은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세마포와 값진 옷과 창녀들은 이 크고 가증한 교회가 바라는 것들이라.
- 9 또한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하는도다 하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또 많은 물들을 보았나니, 그 물들이 이방인들과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갈라 놓았더라.
-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도다 하더라.

## 1 Nephi 13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many nations and kingdoms.

And the angel said unto me: What beholdest thou? And I said: I behold many nations and kingdoms.

And he said unto me: These are the nations and kingdoms of the Gentiles.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among the nations of the Gentiles the formation of a great church.

And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the formation of a church which is most abominable above all other churches, which slayeth the saints of God, yea, and tortureth them and bindeth them down, and yoketh them with a yoke of iron, and bringeth them down into captivity.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is great and abominable church; and I saw the devil that he was the founder of it.

And I also saw gold, and silver, and silks, and scarlets, and fine-twined linen, and all manner of precious clothing; and I saw many harlots.

And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Behold the gold, and the silver, and the silks, and the scarlets, and the fine-twined linen, and the precious clothing, and the harlots, are the desires of this great and abominable church.

And also for the praise of the world do they destroy the saints of God, and bring them down into captivity.

And it came to pass that I looked and beheld many waters; and they divided the Gentiles from the seed of my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the wrath of God is upon the seed of thy brethren.

- 12 또 내가 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많은 물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매,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매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더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의 땅 위에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들을 많이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흩어지며 괴로움을 당하더라.
- 15 또 나는 주의 영이 이방인들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참으로 번성하며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얻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 전의 나의 백성들처럼 희며, 심히 곱고, 아름답더라.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본즉,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이 참으로 주 앞에 겸손하매,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 17 또 내가 보니, 그들의 어미 이방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물들 위와 또한 그 땅 위에 함께 모였더라.
- 18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과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함께 모인 자들 모두의 위에 있더라.
- 19 또 나 니파이가 보니,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심을 입더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더라. 또 내가 한 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 그들 중에 널리 퍼지더라.
- 21 이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그 책의 의미를 아느냐 하기로,
- 22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되,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And I looked and beheld a man among the Gentiles, who was separated from the seed of my brethren by the many waters; and I beheld the Spirit of God, that it came down and wrought upon the man; and he went forth upon the many waters, even unto the seed of my brethren, who were in the promised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e Spirit of God, that it wrought upon other Gentiles; and they went forth out of captivity, upon the many waters.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many multitudes of the Gentiles upon the land of promise; and I beheld the wrath of God, that it was upon the seed of my brethren; and they were scattered before the Gentiles and were smitten.

And I beheld the Spirit of the Lord, that it was upon the Gentiles, and they did prosper and obtain the land for their inheritance; and I beheld that they were white, and exceedingly fair and beautiful, like unto my people before they were slain.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beheld that the Gentiles who had gone forth out of captivity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I beheld that their mother Gentiles were gathered together upon the waters, and upon the land also, to battle against them.

And I beheld that the power of God was with them, and also that the wrath of God was upon all those that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m to battle.

And I, Nephi, beheld that the Gentiles that had gone out of captivity were delivered by the power of God out of the hands of all other nat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beheld that they did prosper in the land; and I beheld a book, and it was carried forth among them.

And the angel said unto me: Knowest thou the meaning of the book?

And I said unto him: I know not.

23 또 그가 이르되, 보라 그것은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오느니라 하기로, 나 니파이가 그것을 보니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보고 있는 책은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이 들어 있는 유대인의 기록이니라. 그 책에는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많이 들어 있나니, 그 책은 곧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과 흡사한 기록이나, 다만 그만큼 많지는 아니하니라. 그러할지라도 거기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이 들어 있나니, 그런즉 이방인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

24 또 주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그 책이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옴을 보았거니와, 그 책이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왔을 때, 거기에는 열두 사도가 증거한 이, 곧 주의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증거하였느니라.

25 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유대인들로부터 순수한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느니라.

26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음이었요,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음이라.

27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이라.

28 그러한즉 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네가 보느니라.

And he said: Behold i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a Jew. And I, Nephi, beheld it; and he said unto me: The book that thou beholdest is a record of the Jews, which contains the covenants of the Lord, which he hath made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it also containeth many of the prophecies of the holy prophets; and it is a record like unto the engravings which are upon the plates of brass, save there are not so many; nevertheless, they contain the covenants of the Lord, which he hath made unto the house of Israel; wherefore, they are of great worth unto the Gentiles.

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unto me: Thou hast beheld that the book proceeded forth from the mouth of a Jew; and when it proceeded forth from the mouth of a Jew it contained the fulness of the gospel of the Lord, of whom the twelve apostles bear record; and they bear record according to the truth which is in the Lamb of God.

Wherefore, these things go forth from the Jews in purity unto the Gentiles, according to the truth which is in God.

And after they go forth by the hand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from the Jews unto the Gentiles, thou seest the formation of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which is most abominable above all other churches; for behold, they have taken away from the gospel of the Lamb many parts which are plain and most precious; and also many covenants of the Lord have they taken away.

And all this have they done that they might pervert the right ways of the Lord, that they might blind the eyes and harde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Wherefore, thou seest that after the book hath gone forth through the hands of the great and abominable church, that there are many plain and precious things taken away from the book, which is the book of the Lamb of God.

29 또 이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후에, 그 책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나니, 그것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며, 참으로 네가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과 함께 본 그 많은 물들을 건너서까지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명백함을 좇아, 사람의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명백했던 것들, 곧 그 책에서 제하여진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로 인해, 즉 어린 양의 복음에서 제하여진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실로 심히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 위에 큰 권능을 가짐을 네가 보느니라.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들리운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그 땅 위에 있음을 네가 보나니, 이 땅은 주 하나님께서 너의 부친과 성약을 맺어, 그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갖게 하리라 하신 땅이라. 그러한즉 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네 형제 중에 있는 바 너의 자손의 피가 섞인 자들을 온전히 멸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네가 보느니라.

31 또한 그는 이방인들이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멸하도록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32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형성됨을 본 저가증한 교회에 의하여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의 그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네가 보는 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눈먼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33 그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에게 보응을 내리리라.

And after these plain and precious things were taken away it goeth forth unto all the nations of the Gentiles; and after it goeth forth unto all the nations of the Gentiles, yea, even across the many waters which thou hast seen with the Gentiles which have gone forth out of captivity, thou seest—because of the many plain and precious things which have been taken out of the book, which were plain un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 plainness which is in the Lamb of God—because of these things which are taken away out of the gospel of the Lamb, an exceedingly great many do stumble, yea, insomuch that Satan hath great power over them.

Nevertheless, thou beholdest that the Gentiles who have gone forth out of captivity, and have been lifted up by the power of God above all other nations, upon the face of the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which is the land that the Lord God hath covenanted with thy father that his seed should have for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wherefore, thou seest that the Lord God will not suffer that the Gentiles will utterly destroy the mixture of thy seed, which are among thy brethren.

Neither will he suffer that the Gentiles shall destroy the seed of thy brethren.

Neither will the Lord God suffer that the Gentiles shall forever remain in that awful state of blindness, which thou beholdest they are in, because of the plain and most precious parts of the gospel of the Lamb which have been kept back by that abominable church, whose formation thou hast seen.

Wherefore saith the Lamb of God: I will be merciful unto the Gentiles, unto the visiting of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in great judgment.

3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에게 보응을 내리고 나서—내가 말하는 이 남은 자는 너의 부친의 자손들이라—그런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들에게 보응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들을 친 후, 또 창녀들의 어미가 되는 저 가증한 교회에 의해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의 극히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실로 심히 실족하여 넘어진 후,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그 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권능으로 명백하고 귀한 바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많이 가져다 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35 이는 보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니,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줄 명백하고 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멸망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역시 그리된 후, 보라, 이러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나오게 되리라.

36 또 그 가운데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37 그 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 받으리니, 누구든지 평화 곧 큰 기쁨의 소식을 공포할 자들이여, 그들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을 보았고, 또한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 이방인들에게서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오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of the Lord spake unto me, saying: Behold, saith the Lamb of God, after I have visited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and this remnant of whom I speak is the seed of thy father—wherefore, after I have visited them in judgment, and smitten them by the hand of the Gentiles, and after the Gentiles do stumble exceedingly, because of the most plain and precious parts of the gospel of the Lamb which have been kept back by that abominable church, which is the mother of harlots, saith the Lamb—I will be merciful unto the Gentiles in that day, insomuch that I will bring forth unto them, in mine own power, much of my gospel, which shall be plain and precious, saith the Lamb.

For, behold, saith the Lamb: I will manifest myself unto thy seed, that they shall write many things which I shall minister unto them, which shall be plain and precious; and after thy seed shall be destroyed, and dwindle in unbelief, and also the seed of thy brethren, behold, these things shall be hid up, to come forth unto the Gentiles, by the gift and power of the Lamb.

And in them shall be written my gospel, saith the Lamb, and my rock and my salvation.

And blessed are they who shall seek to bring forth my Zion at that day, for they shall have the gift and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nd if they endure unto the end they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and shall be saved in the everlasting kingdom of the Lamb; and whoso shall publish peace, yea, tidings of great joy,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shall they be.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e remnant of the seed of my brethren, and also the book of the Lamb of God, which had proceeded forth from the mouth of the Jew, that it came forth from the Gentiles unto the remnant of the seed of my brethren.

39 또 그 책이 그들에게로 나아온 후에 나는 다른 책들을 보았나니, 그 책들이 어린 양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에게로 나아와서는, 이방인들과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와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기록들이 참됨을 확신시키더라.

40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본 이 마지막 기록들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첫번 기록들이 참됨을 입증할 것이요, 거기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알려 줄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리라.

41 또 그들은 어린 양의 입으로 확립될 말씀에 따라 나아와야 하나니, 어린 양의 말씀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기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자손들의 기록들 가운데에서도 알려질 것이라. 그런즉 그 둘은 하나로 확립되리니, 이는 온 땅 위에 한 하나님과 한 목자가 계심이라.

42 또 그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이르나니,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모두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와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니,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리라.

And after it had come forth unto them I beheld other books, which came forth by the power of the Lamb, from the Gentiles unto them, unto the convincing of the Gentiles and the remnant of the seed of my brethren, and also the Jews who wer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that the records of the prophets and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are true.

And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These last records, which thou hast seen among the Gentiles, shall establish the truth of the first, which are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and shall make known the plain and precious things which have been taken away from them; and shall make known to all kindreds, tongues, and people, that the Lamb of God is the Son of the Eternal Father, and the Savior of the world; and that all men must come unto him, or they cannot be saved.

And they must come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the mouth of the Lamb; and the words of the Lamb shall be made known in the records of thy seed, as well as in the records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wherefore they both shall be established in one;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Shepherd over all the earth.

And the time cometh that he shall manifest himself unto all nations, both unto the Jews and also unto the Gentiles; and after he has manifested himself unto the Jews and also unto the Gentiles, then he shall manifest himself unto the Gentiles and also unto the Jews, and the last shall be first, and the first shall be last.

## 니파이전서 14

- 1 또 이렇게 되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방인들에게 진정 말씀으로 또한 권능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하여 주실 그 날에,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귀를 기울이면—
- 2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너의 부친의 자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 받은 백성이 되리니, 그들이 더 이상 사로잡힘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 3 또 악마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 내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도록, 악마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 설립된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그들을 위해 파 놓았던 저 큰 구덩이—참으로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파 놓았던 저 큰 구덩이는, 그것을 판 자들로 가득 채워지리니, 그들이 온전히 멸망될 것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영혼의 멸망이 아니요, 이는 다만 영혼을 끝이 없는 저 지옥으로 던져 넣음을 의미하니라.
- 4 이는 보라, 이것은 악마의 사로잡음에 따른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악한 일과 가증한 일을 행할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임이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나 니파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잘 되리라는 것을 보았고, 너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하신 주의 성약에 관해서도 알고 있으며, 너는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 6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1 Nephi 14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f the Gentiles shall hearken unto the Lamb of God in that day that he shall manifest himself unto them in word, and also in power, in very deed, unto the taking away of their stumbling blocks—

And harden not their hearts against the Lamb of God, they shall be numbered among the seed of thy father; yea, they shall be numbered among the house of Israel; and they shall be a blessed people upon the promised land forever; they shall be no more brought down into captivity; and the house of Israel shall no more be confounded.

And that great pit, which hath been digged for them by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which was founded by the devil and his children, that he might lead away the souls of men down to hell—yea, that great pit which hath been digged for the destruction of men shall be filled by those who digged it, unto their utter destruction, saith the Lamb of God; not the destruction of the soul, save it be the casting of it into that hell which hath no end.

For behold, this is according to the captivity of the devil, and also according to the justice of God, upon all those who will work wickedness and abomination before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pake unto me, Nephi, saying: Thou hast beheld that if the Gentiles repent it shall be well with them; and thou also knowest concerning the covenants of the Lord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thou also hast heard that whoso repenteth not must perish.

Therefore, wo be unto the Gentiles if it so be that they harden their hearts against the Lamb of God.

- 7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할 때가 오나니, 그 일은 이편으로나 저편으로나 모두 영원하여, 혹 그들에게 화평과 영생을 확신시키거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데로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내가 말한 바 악마의 사로잡음에 따라 사로잡힘과 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 맺으신 아버지의 성약을 기억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리하오이다 하였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악마가 그 설립자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불지어다.
- 10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보라 단지 두 개의 교회가 있을 따름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교회라. 그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저 큰 교회에 속한 것이니 이는 온 땅의 창녀니라 하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온 땅의 창녀를 보았더니, 그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았으며, 그가 온 땅을 다스리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더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창녀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적더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내가 본 큰 창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지면 위에서의 그들의 다스림이 작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가증한 것들의 큰 어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온 땅 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를 함께 모으더라.

For the time cometh, saith the Lamb of God, that I will work a great and a marvelous work among the children of men; a work which shall be everlasting, either on the one hand or on the other—either to the convincing of them unto peace and life eternal, or unto the deliverance of them to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 blindness of their minds unto their being brought down into captivity, and also into destruction, both temporally and spiritually, according to the captivity of the devil, of which I have spoke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angel had spoken these words, he said unto me: Rememberest thou the covenants of the Father unto the house of Israel? I said unto him, Yea.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me: Look, and behold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which is the mother of abominations, whose founder is the devil.

And he said unto me: Behold there are save two churches only; the one is the church of the Lamb of God, and the other is the church of the devil; wherefore, whoso belongeth not to the church of the Lamb of God belongeth to that great church, which is the mother of abominations; and she is the whore of all the earth.

And it came to pass that I looked and beheld the whore of all the earth, and she sat upon many waters; and she had dominion over all the earth, among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e church of the Lamb of God, and its numbers were few,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of the whore who sat upon many waters; nevertheless, I beheld that the church of the Lamb, who were the saints of God, were also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ir dominions upon the face of the earth were small,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great whore whom I saw.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at the great mother of abominations did gather together multitudes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Gentiles, to fight against the Lamb of God.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흠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진노가 저 크고 가증한 교회에 쏟아지더니,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

16 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에게 속한 모든 나라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기 시작하매,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창녀들의 어머니 위에 있나니, 보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보느니라.

17 또 악마가 그 설립자인 온 땅의 크고 가증한 교회 곧 창녀들의 어머니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이르면, 그 날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되어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게 되리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더라.

19 이에 내가 보고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흰 옷을 입었더라.

20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중의 하나를 보라.

21 보라 그가 이러한 일들의 나머지를 보고 기록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는 일 또한 많이 보고 기록할 것이요,

22 그가 또한 세상의 끝에 관하여 기록하리라.

23 그러한즉 그가 기록할 것들이 바르고 참되도다. 또 보라 이러한 것들은 네가 본 바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온 그 책에 기록되어 있나니,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그때 곧 그 책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그때에는, 기록된 것들이 명백하고 순수하며 지극히 귀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깨달을 수 있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beheld the power of the Lamb of God, that it descended upon the saints of the church of the Lamb, and upon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who wer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y were armed with righteousness and with the power of God in great glory.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that the wrath of God was poured out upon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insomuch that there were wars and rumors of wars among all the nations and kindreds of the earth.

And as there began to be wars and rumors of wars among all the nations which belonged to the mother of abominations,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Behold, the wrath of God is upon the mother of harlots; and behold, thou seest all these things—

And when the day cometh that the wrath of God is poured out upon the mother of harlots, which is the great and abominable church of all the earth, whose founder is the devil, then, at that day, the work of the Father shall commence, in preparing the way for the fulfilling of his covenants, which he hath made to his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ngel spake unto me, saying: Look!

And I looked and beheld a man, and he was dressed in a white robe.

And the angel said unto me: Behold one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Behold, he shall see and write the remainder of these things; yea, and also many things which have been.

And he shall also write concerning the end of the world.

Wherefore, the things which he shall write are just and true; and behold they are written in the book which thou beheld proceeding out of the mouth of the Jew; and at the time they proceeded out of the mouth of the Jew, or, at the time the book proceeded out of the mouth of the Jew,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were plain and pure, and most precious and easy to the understanding of all men.

24 또 보라, 이 어린 양의 사도가 기록하게 될 것은  
네가 본 많은 것들이라. 또 보라, 그 나머지를 네  
가 보게 되리라.

25 그러나 이후로 네가 보게 될 것은 기록하지 말  
지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  
도를 성임하사 그 일을 기록하게 하셨음이니라.

26 또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자들, 그들에게도 그  
는 모든 것을 보이셨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였으  
며, 기록된 것들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를 따  
라,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순수한 그대로 이스  
라엘 집으로 나아오도록 인봉되어 있느니라.

27 그리고 나 니파이는 천사의 말에 따를진대, 어  
린 양의 사도의 이름이 요한임을 듣고 증거하였노  
라.

28 또 보라, 나 니파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들의 나  
머지를 기록하지 말도록 금하심을 받았나니, 그런  
즉 내가 기록한 것들로 내게는 족하도다. 또 나는  
내가 본 것들 가운데 단지 작은 부분을 기록하였  
을 따름이니라.

29 또 내가 증거하노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  
을 보았으며, 주의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였느니라.

30 이에 이제 나는 내가 영에 이끌려 갔을 동안 본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니, 비록 내가 본 모  
든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록한  
것은 참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And behold, the things which this apostle of the  
Lamb shall write are many things which thou hast  
seen; and behold, the remainder shalt thou see.

But the things which thou shalt see hereafter thou  
shalt not write; for the Lord God hath ordained the  
apostle of the Lamb of God that he should write  
them.

And also others who have been, to them hath he  
shown all things, and they have written them; and  
they are sealed up to come forth in their purity, ac-  
cording to the truth which is in the Lamb, in the own  
due time of the Lord,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I, Nephi, heard and bear record, that the  
name of the apostle of the Lamb was Joh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angel.

And behold, I, Nephi, am forbidden that I should  
write the remainder of the things which I saw and  
heard; wherefore the things which I have written  
sufficeth me; and I have written but a small part of  
the things which I saw.

And I bear record that I saw the things which my  
father saw, and the angel of the Lord did make them  
known unto me.

And now I make an end of speaking concerning  
the things which I saw while I was carried away in  
the Spirit; and if all the things which I saw are not  
written, the things which I have written are true.  
And thus it is. Amen.

## 니파이전서 15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영으로 이끌려 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느니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을 본즉, 나의 부친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로 논쟁하고 있더라.
- 3 이는 그가 진실로 사람이 주께 묻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큰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이고, 또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 4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또한 내가 본 일들로 인해 비통하여졌으며, 사람의 자녀들의 큰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느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인해 기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몰락을 보았으므로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하여 나의 고난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하였음이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힘을 얻은 후에,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논쟁의 원인을 알고자 하였더라.
- 7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에 관해서와 또 이방인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더라.
- 8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주께 물어보았나이까?
- 9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더라.
- 10 보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은 어찌이니이까?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려 함은 어찌이니이까?

## 1 Nephi 15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Nephi, had been carried away in the Spirit, and seen all these things, I returned to the tent of my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my brethren, and they were disputing one with another concerning the things which my father had spoken unto them.

For he truly spake many great things unto them, which were hard to be understood, save a man should inquire of the Lord; and they being hard in their hearts, therefore they did not look unto the Lord as they ought.

And now I, Nephi, was grieved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also, because of the things which I had seen, and knew they must unavoidably come to pass because of the great wickedness of the children of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I was overcome because of my afflictions, for I considered that mine afflictions were great above all,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my people, for I had beheld their fall.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had received strength I spake unto my brethren, desiring to know of them the cause of their disputations.

And they said: Behold, we cannot understand the words which our father hath spoken concerning the natural branches of the olive tree, and also concerning the Gentiles.

And I said unto them: Have ye inquired of the Lord?

And they said unto me: We have not; for the Lord maketh no such thing known unto us.

Behold, I said unto them: How is it that ye do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How is it that ye will perish, because of the hardness of your hearts?

11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12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집이 우리 부친 안에 있던 주의 영에 의하여 한 감람나무에 비유된 것이다. 또 보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꺾어져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한 가지가 아니니이까?

13 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원가지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 접목되어 들어옴에 관하여 뜻하시는 것은, 후일에 곧 우리의 자손들이 참으로 여러 해 동안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간 후, 그리고 메시아가 육신으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많은 세대가 지난 후, 그때 메시아의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올 것이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나아오리라 함이라—

14 또 그 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이다.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

15 또 그렇다면 그 날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반석이시며 그들의 구원이신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 날에 참 포도나무에서 힘과 영양을 받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무리에게로 나아오지 않으리이까?

16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그러하리이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기억되리니 감람나무의 원가지인지라,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목되리이다.

Do ye not remember the things which the Lord hath said?—If ye will not harden your hearts, and ask me in faith,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with diligence in keeping my commandments, surely these things shall be made known unto you.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house of Israel was compared unto an olive tree, by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was in our father; and behold are we not broken off from the house of Israel, and are we not a branch of the house of Israel?

And now, the thing which our father meaneth concerning the grafting in of the natural branches through the fulness of the Gentiles, is, that in the latter days, when our seed shall have dwindled in unbelief, yea, for the space of many years, and many generations after the Messiah shall be manifested in body unto the children of men, then shall the fulness of the gospel of the Messiah come unto the Gentiles, and from the Gentiles unto the remnant of our seed—

And at that day shall the remnant of our seed know that they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that they are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and then shall they know and come to the knowledge of their forefathers, and also to the knowledge of the gospel of their Redeemer, which was ministered unto their fathers by him; wherefore, they shall come to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and the very points of his doctrine, that they may know how to come unto him and be saved.

And then at that day will they not rejoice and give praise unto their everlasting God, their rock and their salvation? Yea, at that day, will they not receive the strength and nourishment from the true vine? Yea, will they not come unto the true fold of God?

Behold, I say unto you, Yea; they shall be remembered again among the house of Israel; they shall be grafted in, being a natural branch of the olive tree, into the true olive tree.

17 이제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이요, 또 그가 뜻하시는 바는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흩어진 이후가 되기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함이며, 또 그가 뜻하시는 바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오게 되리라 함이니, 이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곧 이스라엘 집에게 버림을 받으시리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함이니이다.

18 그런 연유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성약은 곧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에게 후일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20 나는 또 그들에게 유대인 곧 이스라엘 집의 회복에 관하여 말한 이사야의 말을 들려주었나니, 그들이 회복된 후 그들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또다시 흩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매 그들이 누그러져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께서 꿈에서 보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보신 나무는 무엇을 뜻하느냐?

22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생명나무를 나타내는 것이었나이다.

23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바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24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And this is what our father meaneth; and he meaneth that it will not come to pass until after they are scattered by the Gentiles; and he meaneth that it shall come by way of the Gentiles, that the Lord may show his power unto the Gentiles, for the very cause that he shall be rejected of the Jews, or of the house of Israel.

Wherefore, our father hath not spoken of our seed alone, but also of all the house of Israel, pointing to the covenant which should be fulfilled in the latter days; which covenant the Lord made to our father Abraham, saying: In thy seed shall all the kindreds of the earth be blessed.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spake much unto them concerning these things; yea, I spake unto them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Jews in the latter days.

And I did rehearse unto them the words of Isaiah, who spake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Jews, or of the house of Israel; and after they were restored they should no more be confounded, neither should they be scattered again.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speak many words unto my brethren, that they were pacified and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peak unto me again, saying: What meaneth this thing which our father saw in a dream? What meaneth the tree which he saw?

And I said unto them: It was a representation of the tree of life.

And they said unto me: What meaneth the rod of iron which our father saw, that led to the tree?

And I said unto them that it was the word of God; and whoso would hearken unto the word of God, and would hold fast unto it, they would never perish; neither could the temptations and the fiery darts of the adversary overpower them unto blindness, to lead them away to destruction.

25 이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또 내가 지닌 능력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였느니라.

26 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보신 물이 흐르는 강은 무엇을 뜻하느냐?

27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보신 물은 더러움이며, 그의 생각이 다른 일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었던지라 그가 그 물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셨다 하였느니라.

28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은 악인을 생명 나무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갈라놓는 가공할 심연이라 하였더라.

29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 되어 있다고 천사가 나에게 말한 저 가공할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더라.

30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 역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을 보셨나니, 그 밝기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밝기와 같았고, 이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끝이 없었다 하니라.

31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것은 시험의 날에 있어서의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최종 상태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일에 대해 말하느냐?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 곧 참으로 그들의 시험의 날에 현세적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날이 올 것임이라.

Wherefore, I, Nephi, did exhort them to give heed unto the word of the Lord; yea, I did exhort them with all the energies of my soul, and with all the faculty which I possessed, that they would give heed to the word of God and remember to keep his commandments always in all things.

And they said unto me: What meaneth the river of water which our father saw?

And I said unto them that the water which my father saw was filthiness; and so much was his mind swallowed up in other things that he beheld not the filthiness of the water.

And I said unto them that it was an awful gulf, which separated the wicked from the tree of life, and also from the saints of God.

And I said unto them that it was a representation of that awful hell, which the angel said unto me was prepared for the wicked.

And I said unto them that our father also saw that the justice of God did also divid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and the brightness thereof was like unto the brightness of a flaming fire, which ascendeth up unto God forever and ever, and hath no end.

And they said unto me: Doth this thing mean the torment of the body in the days of probation, or doth it mean the final state of the soul after the death of the temporal body, or doth it speak of the things which are temporal?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id unto them that it was a representation of things both temporal and spiritual; for the day should come that they must be judged of their works, yea, even the works which were done by the temporal body in their days of probation.

33 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그들의 간악함 가운데서 죽을진대, 의에 관한 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버림을 받아야만 하나이다. 그러한즉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와 서야만 하나니, 만일 그들의 행위가 이제까지 더러움이었다면 그들이 필연 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으리니,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도 역시 더러워야 하리이다.

34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더럽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즉 더러운 것을 위해 예비된 더러움의 장소가 있어야만 하리이다.

35 이에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나니 참으로 곧 내가 말한 저 비참한 지옥이요, 그것을 예비하는 자는 악마라. 그러한즉 사람의 영혼의 종국의 상태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저 공의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이라.

36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또한 저 생명나무로부터 배척되나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가장 귀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니이다. 이같이 나는 나의 형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멘.

Wherefore, if they should die in their wickedness they must be cast off also, as to the things which are spiritual, which are pertaining to righteousness; wherefore, they must be brought to stand before God, to be judged of their works; and if their works have been filthiness they must needs be filthy; and if they be filthy it must needs be that they cannot dwell in the kingdom of God; if so, the kingdom of God must be filthy also.

But behold, I say unto you, the kingdom of God is not filthy, and there cannot any unclean thing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wherefore there must needs be a place of filthiness prepared for that which is filthy.

And there is a place prepared, yea, even that awful hell of which I have spoken, and the devil is the preparator of it; wherefore the final state of the souls of men is to dwell in the kingdom of God, or to be cast out because of that justice of which I have spoken.

Wherefore, the wicked are rejected from the righteous, and also from that tree of life, whose fruit is most precious and most desirable above all other fruits; yea, and it is the greatest of all the gifts of God. And thus I spake unto my brethren. Amen.

## 니파이전서 16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도다 하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리를 좇아 악인에게 심한 것을 말한 줄 아나이다. 또 의인을 내가 의롭다 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라고 증거하였나이다. 그런즉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 바로 그 중심까지 베기 때문이니이다.
- 3 또 이제 나의 형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의롭고 기꺼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며, 그에 유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려 하였더라면, 당신들은 진리로 인하여 불평하여 내가 우리에게 심한 것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부지런함을 다하여, 나의 형들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였느니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지라, 나는 그들이 의의 길을 걸으리라는 큰 희망과 기쁨을 그들에게 가졌느니라.
- 6 이제 이 말하고 행한 모든 일은, 나의 부친이 그가 레뮤엘이라 칭한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이루어졌느니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또한 나의 형들도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으며, 또한 조람도 이스마엘의 맏딸을 아내로 취하였느니라.
- 8 이리하여 나의 부친은 그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고, 또한 나 니파이도 주께 심히 많은 복을 받았느니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밤에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여, 다음 날 광야로 여행을 떠나라 명하시니라.

## 1 Nephi 1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Nephi,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o my brethren, behold they said unto me: Thou hast declared unto us hard things, more than we are able to bear.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id unto them that I knew that I had spoken hard things against the wicked, according to the truth; and the righteous have I justified, and testified that they should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wherefore, the guilty taketh the truth to be hard, for it cutteth them to the very center.

And now my brethren, if ye were righteous and were willing to hearken to the truth, and give heed unto it, that ye might walk uprightly before God, then ye would not murmur because of the truth, and say: Thou speakest hard things against u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exhort my brethren, with all diligenc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the Lord; insomuch that I had joy and great hopes of them, that they would walk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Now, all these things were said and done as my father dwelt in a tent in the valley which he called Lemuel.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took one of the daughters of Ishmael to wife; and also, my brethren took of the daughters of Ishmael to wife; and also Zoram took the eldest daughter of Ishmael to wife.

And thus my father had fulfilled all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hich had been given unto him. And also, I, Nephi, had been blessed of the Lord exceedingl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Lord spake unto my father by night, and commanded him that on the morrow he should take hi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 장막 문으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땅 위에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한 둥근 공이 있음을 보셨나니, 그것은 순 놋으로 된 것이더라. 또 공 안에는 지침 두 개가 있었으며, 그 하나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키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로 가지고 들어 갈 것은 무엇이든지 한데 모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남은 것을 모두 모았으며, 또 광야로 가지고 들어 갈 온갖 종류의 씨앗을 취하였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취하고 떠나 레이만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느니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거의 남남동 방향으로 나흘 동안을 여행하고 다시 장막을 쳤으며, 그 곳 이름을 세이저라 하였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활과 우리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양식을 잡으러 나아가 광야로 들어갔으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잡은 후에 광야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세이저라 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같은 방향을 따라, 홍해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광야의 가장 비옥한 지역을 따라 광야를 나아갔느니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도중에 우리의 활과 우리의 화살과 우리의 돌과 우리의 물매로 양식을 잡아가며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하였느니라.

16 또 우리는 공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랐으며, 공은 광야의 보다 비옥한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17 또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하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얻고자 한동안 장막을 쳤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s my father arose in the morning, and went forth to the tent door, to his great astonishment he beheld upon the ground a round ball of curious workmanship; and it was of fine brass. And within the ball were two spindles; and the one pointed the way whither we should go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gather together whatsoever things we should carry into the wilderness, and all the remainder of our provisions which the Lord had given unto us; and we did take seed of every kind that we might carry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take our tents and depart into the wilderness, across the river Laman.

And it came to pass that we traveled for the space of four days, nearly a south-southeast direction, and we did pitch our tents again; and we did call the name of the place Shazer.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take our bows and our arrows, and go forth into the wilderness to slay food for our families; and after we had slain food for our families we did return again to our families in the wilderness, to the place of Shazer. And we did go forth again in the wilderness, following the same direction, keeping in the most fertile parts of the wilderness, which were in the borders near the Red Sea.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travel for the space of many days, slaying food by the way, with our bows and our arrows and our stones and our slings.

And we did follow the directions of the ball, which led us in the more fertile parts of the wilderness.

And after we had traveled for the space of many days, we did pitch our tents for the space of a time, that we might again rest ourselves and obtain food for our families.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양식을 잡으러 나아갔다가, 보라, 나는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나의 활을 부러뜨렸느니라. 내가 내 활을 부러뜨리고 난 후, 보라, 내 활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이 내게 성을 내었나니 이는 우리가 아무 양식도 얻지 못하였음이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양식이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왔으며, 여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친 그들은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워하였느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겪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몹시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나의 부친도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이 모두 심히 슬퍼던지라, 결국은 그들이 주께 대하여 불평을 하였느니라.

2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활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였고, 그들의 활은 그 탄력을 잃은지라, 일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는 아무 양식도 얻을 수 없었느니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불평을 토하는 고로,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느니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무로 활을, 곧은 막대로 화살을 만들고 그리하여 활과 화살로 물매로 또 돌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의 부친께 말씀드리기를, 양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였느니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 물으셨으니, 이는 나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졌기 때문이요, 이는 내가 내 영혼의 힘을 기울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였고, 그는 주께 불평한 일로 인해 진실로 질책을 받았나니,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기더라.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공 위를 살펴 적혀 있는 것을 보라 하시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s I, Nephi, went forth to slay food, behold, I did break my bow, which was made of fine steel; and after I did break my bow, behold, my brethren were angry with me because of the loss of my bow, for we did obtain no food.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return without food to our families, and being much fatigued, because of their journeying, they did suffer much for the want of food.

And it came to pass that Laman and Lemuel and the sons of Ishmael did begin to murmur exceedingly, because of their sufferings and afflictions in the wilderness; and also my father began to murmur against the Lord his God; yea, and they were all exceedingly sorrowful, even that they did murmur against the Lord.

Now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having been afflicted with my brethren because of the loss of my bow, and their bows having lost their springs, it began to be exceedingly difficult, yea, insomuch that we could obtain no food.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speak much unto my brethren, because they had hardened their hearts again, even unto complaining against the Lor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make out of wood a bow, and out of a straight stick, an arrow; wherefore, I did arm myself with a bow and an arrow, with a sling and with stones. And I said unto my father: Whither shall I go to obtain foo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inquire of the Lord, for they had humbled themselves because of my words; for I did say many things unto them in the energy of my sou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my father; and he was truly chastened because of his murmuring against the Lord, insomuch that he was brought down into the depths of sorrow.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Lord said unto him: Look upon the ball, and behold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공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떠서였으며,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우리의 아내들도 그러하였느니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공 안에 있는 지침들을 보았더니, 그 지침들은 우리가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작동하더라.

29 또한 그 위에는 읽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나니,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씌어지며 시시로 바뀌더라.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느니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공 위에 주신 지시에 따라 나아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느니라.

3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들짐승들을 잡아, 그로써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얻었느니라.

3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오매, 이제 내가 양식을 얻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니라.

3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나 처음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한 후 한동안 머무르고자 다시 장막을 쳤느니라.

3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마엘이 죽어 네이훔이라 하는 곳에 묻히니라.

3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마엘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잃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고, 이에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친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많이 방황하였으며, 우리는 많은 고난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함을 당하였나니, 이 모든 것을 당한 후에 우리가 필경은 광야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y father beheld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upon the ball, he did fear and tremble exceedingly, and also my brethren and the sons of Ishmael and our wive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beheld the pointers which were in the ball, that they did work according to the faith and diligence and heed which we did give unto them.

And there was also written upon them a new writing, which was plain to be read, which did give us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ways of the Lord; and it was written and changed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the faith and diligence which we gave unto it. And thus we see that by small means the Lord can bring about great th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go forth up into the top of the mountain, according to the directions which were given upon the ball.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slay wild beasts, inasmuch that I did obtain food for our families.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return to our tents, bearing the beasts which I had slain; and now when they beheld that I had obtained food, how great was their jo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did give thanks unto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again take our journey, traveling nearly the same course as in the beginning; and after we had traveled for the space of many days we did pitch our tents again, that we might tarry for the space of a time.

And it came to pass that Ishmael died, and was buried in the place which was called Naho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daughters of Ishmael did mourn exceedingly, because of the loss of their father, and because of their afflictions in the wilderness; and they did murmur against my father, because he had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saying: Our father is dead; yea, and we have wandered much in the wilderness, and we have suffered much affliction, hunger, thirst, and fatigue; and after all these sufferings we must perish in the wilderness with hunger.

36 이와 같이 그들이 나의 부친에게와 또한 나에게 불평하였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37 이에 레이맨이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 아버지와 또한 스스로 떠맡아 자기의 형들인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교사가 된 우리 동생 니파이를 죽여 버리자.

38 이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와 이야기 하셨다 하며, 또한 천사들이 자기에게 성역을 베풀어 주었다 하나, 보라,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을 아노라.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간교한 술수로 여러 일을 행하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자 함은, 아마도 우리를 어떤 낯선 광야로 이끌어 내고자 생각함이라. 또 그가 우리를 이끌어 낸 후에는 그 스스로 우리 위에 왕과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가지고 그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행하려고 생각하였도다 하였으니, 이같이 나의 형 레이맨은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3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심히 질책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의 음성으로 질책을 받은 후 그 분노를 돌이키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던지라, 주께서 다시 양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매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thus they did murmur against my father, and also against me; and they were desirous to return again to Jerusalem.

And Laman said unto Lemuel and also unto the sons of Ishmael: Behold, let us slay our father, and also our brother Nephi, who has taken it upon him to be our ruler and our teacher, who are his elder brethren.

Now, he says that the Lord has talked with him, and also that angels have ministered unto him. But behold, we know that he lies unto us; and he tells us these things, and he worketh many things by his cunning arts, that he may deceive our eyes, thinking, perhaps, that he may lead us away into some strange wilderness; and after he has led us away, he has thought to make himself a king and a ruler over us, that he may do with us according to his will and pleasure. And after this manner did my brother Laman stir up their hearts to ang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was with us, yea, even the voice of the Lord came and did speak many words unto them, and did chasten them exceedingly; and after they were chastened by the voice of the Lord they did turn away their anger, and did repent of their sins, insomuch that the Lord did bless us again with food, that we did not perish.

## 니파이전서 17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광야에서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때부터는 거의 동쪽으로 여행하였느니라. 또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헤치며 여행해 나아갔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느니라.
- 2 또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여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으며, 참으로 남자들처럼 강건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3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나니,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도다. 그리한즉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는 우리를 위하여 방편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 4 그리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참으로 팔 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렀더라.
- 5 또 우리는 과실과 또한 들꿀이 풍성하여, 우리가 풍요라 칭한 땅에 이르렀나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더라. 또 우리는 바다를 보았으며, 이를 이르레안툼이라 칭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많은 물이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닷가 곁에 우리의 장막을 쳤으며, 우리는 참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이르러 심히 기뻐하였고, 그 곳에 과실이 많았던지라, 우리는 그 곳을 풍요라 불렀느니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여러 날 동안을 풍요 땅에 있는 후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산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서 주께 부르짖었더라.

## 1 Nephi 17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again take our journey in the wilderness; and we did travel nearly eastward from that time forth. And we did travel and wade through much affliction in the wilderness; and our women did bear children in the wilderness.

And so great were the blessings of the Lord upon us, that while we did live upon raw meat in the wilderness, our women did give plenty of suck for their children, and were strong, yea, even like unto the men; and they began to bear their journeyings without murmurings.

And thus we see that the commandments of God must be fulfilled. And if it so be that the children of men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he doth nourish them, and strengthen them, and provide means whereby they can accomplish the thing which he has commanded them; wherefore, he did provide means for us while we did sojourn in the wilderness.

And we did sojourn for the space of many years, yea, even eight years in the wilderness.

And we did come to the land which we called Bountiful, because of its much fruit and also wild honey; and all these things were prepared of the Lord that we might not perish. And we beheld the sea, which we called Irreantum, which, being interpreted, is many water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pitch our tents by the seashore; and notwithstanding we had suffered many afflictions and much difficulty, yea, even so much that we cannot write them all, we were exceedingly rejoiced when we came to the seashore; and we called the place Bountiful, because of its much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Nephi, had been in the land of Bountiful for the space of many days,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me, saying: Arise, and get thee into the mountain. And it came to pass that I arose and went up into the mountain, and cried unto the Lord.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 백성을 이 물 건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 줄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할지니라 하시더라.
- 9 이에 내가 여쭙오되, 주여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 이까?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어디로 가야 내가 광석을 찾아 연장을 만들 수 있겠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짐승 가죽으로 불을 부칠 풀무를 만들었으며, 내가 가지고 불을 부치기 위해 풀무를 만든 다음, 나는 불을 만들기 위해 돌 두 개를 마주쳤느니라.
- 12 이는 주께서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이제까지 용납하지 아니하셨음이니, 이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가 음식을 요리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음식을 달게 하리라.
- 13 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하셨음이라.
- 14 이뿐 아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약속된 땅에 도착하고 난 후, 너희는 나 주가 하나님이요, 나 주가 너희를 멸망에서 건져 낸 줄을, 참으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 15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하였고, 나의 형제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였느니라.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바위에서 녹여 낸 광석으로 연장을 만들었도다.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pake unto me, saying: Thou shalt construct a ship, after the manner which I shall show thee, that I may carry thy people across these waters.

And I said: Lord, whither shall I go that I may find ore to molten, that I may make tools to construct the ship after the manner which thou hast shown unto m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told me whither I should go to find ore, that I might make tools.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make a bellows wherewith to blow the fire, of the skins of beasts; and after I had made a bellows, that I might have wherewith to blow the fire, I did smite two stones together that I might make fire.

For the Lord had not hitherto suffered that we should make much fire, as we journeyed in the wilderness; for he said: I will make thy food become sweet, that ye cook it not;

And I will also be your light in the wilderness; and I will prepare the way before you, if it so be that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wherefore, inasmuch as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be led towards the promised land; and ye shall know that it is by me that ye are led.

Yea, and the Lord said also that: After ye have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ye shall know that I, the Lord, am God; and that I, the Lord, did deliver you from destruction; yea, that I did bring you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Wherefore, I, Nephi, did striv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I did exhort my brethren to faithfulness and diligence.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make tools of the ore which I did molten out of the rock.

17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내가 바야흐로 배를 지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동생은 바보로다, 이는 그가 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큰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도다 하였더라.

18 또 이같이 나의 형제들은 나에게 불평하며 일하지 않으려 하였으니, 이는 내가 배를 지을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음이요, 또한 내가 주께 지시를 받았음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9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히 슬펐고, 이제 그들은 내가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기뻐하였나니,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네가 배를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나니, 이는 네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이니라. 그런즉 너는 그렇게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느니라.

20 또 너는 그 마음의 어리석은 상상에 이끌려 나온 우리 아버지와 같도다.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예루살렘 땅에서 이끌어 내었고, 우리는 이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수고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며 죽음이 아닐 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나니,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21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였나니,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또 우리는 행복했었으리라.

22 또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있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었음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의 규례와 법도와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켰음이라. 그리한즉 우리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임을 아노라. 그러하거늘 우리 아버지는 그들을 비판하였으며 우리가 부친의 말을 들으려 하였으므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나니, 과연 우리 동생은 부친을 닮았도다. 이 같은 말로 참으로 나의 형제들은 우리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였느니라.

And when my brethren saw that I was about to build a ship, they began to murmur against me, saying: Our brother is a fool, for he thinketh that he can build a ship; yea, and he also thinketh that he can cross these great waters.

And thus my brethren did complain against me, and were desirous that they might not labor, for they did not believe that I could build a ship; neither would they believe that I was instructed of the Lor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was exceedingly sorrowful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now when they saw that I began to be sorrowful they were glad in their hearts, insomuch that they did rejoice over me, saying: We knew that ye could not construct a ship, for we knew that ye were lacking in judgment; wherefore, thou canst not accomplish so great a work.

And thou art like unto our father, led away by the foolish imaginations of his heart; yea, he hath led us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we have wandered in the wilderness for these many years; and our women have toiled, being big with child; and they have borne children in the wilderness and suffered all things, save it were death; and it would have been better that they had died before they came out of Jerusalem than to have suffered these afflictions.

Behold, these many years we have suffered in the wilderness, which time we might have enjoyed our possessions and the land of our inheritance; yea, and we might have been happy.

And we know that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Jerusalem were a righteous people; for they kept the statutes and judgments of the Lord, and all his commandment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wherefore, we know that they are a righteous people; and our father hath judged them, and hath led us away because we would hearken unto his words; yea, and our brother is like unto him. And after this manner of language did my brethren murmur and complain against us.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도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나 이끌려 나왔으리라고 믿나이까?

24 참으로 당신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속박에서 인도해 낼 것을 명하지 아니하셨어도 그들이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나이까?

25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박되어 있었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짐 지워져 있었음을 아나이다. 그러한즉 당신들은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26 이제 당신들은 모세가 저 큰 일을 행하도록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의 말에 의해 홍해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갔음을 아나이다.

27 그러나 당신들은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음을 아나이다.

28 또한 당신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었음을 아나이다.

29 참으로 또한 당신들은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말씀으로 바위를 치매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일도 아나이다.

30 또 그들이 인도함을 받되 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낮으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으로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생각을 눈멀게 하여, 모세에게 또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였나이다.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 말씀을 좇아 그들을 멸하시고,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spake unto them, saying: Do ye believe that our fathers, who were the children of Israel, would have been led away out of the hands of the Egyptians if they had not hearkened unto the words of the Lord?

Yea, do ye suppose that they would have been led out of bondage, if the Lord had not commanded Moses that he should lead them out of bondage?

Now ye know that the children of Israel were in bondage; and ye know that they were laden with tasks, which were grievous to be borne; wherefore, ye know that it must needs be a good thing for them, that they should be brought out of bondage.

Now ye know that Moses was commanded of the Lord to do that great work; and ye know that by his word the waters of the Red Sea were divided hither and thither, and they passed through on dry ground.

But ye know that the Egyptians were drowned in the Red Sea, who were the armies of Pharaoh.

And ye also know that they were fed with manna in the wilderness.

Yea, and ye also know that Moses, by his word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which was in him, smote the rock, and there came forth water, that the children of Israel might quench their thirst.

And notwithstanding they being led, the Lord their God, their Redeemer, going before them, leading them by day and giving light unto them by night, and doing all things for them which were expedient for man to receive, they hardened their hearts and blinded their minds, and reviled against Moses and against the true and living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according to his word he did destroy them; and according to his word he did lead them; and according to his word he did do all things for them; and there was not any thing done save it were by his word.



32 또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넌 후, 그가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 땅의 자손들을 몰아 내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을 흩어 멸하게 하셨거니와,

33 이제 당신들은 이 땅의 자손들 곧 약속의 땅에 있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쫓겨난 그들이,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다고 생각하나이까?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아니이다.

34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더 택함 받을 만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이까?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아니이다.

35 보소서,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여기시나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라. 그러나 보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날이 거절하였고, 그들이 죄악으로 무르익은지라,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나이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복하셨나니, 참으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사 그들로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복하사 그 땅을 다스릴 권능을 얻게 하셨나이다.

36 보소서, 주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사 거할 곳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37 또 그는 의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며 악인들의 나라는 멸망시키시나이다.

38 또 그는 의인들을 인도해 가사 귀한 땅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그들로 인해 그들에게는 땅을 저주하시나이다.

39 그는 하늘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나니, 이는 하늘이 그의 보좌임이요,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40 또 그는 그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나니, 보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성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성약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And after they had crossed the river Jordan he did make them mighty unto the driving out of the children of the land, yea, unto the scattering them to destruction.

And now, do ye suppose that the children of this land, who were in the land of promise, who were driven out by our fathers, do ye suppose that they were righteous? Behold, I say unto you, Nay.

Do ye suppose that our fathers would have been more choice than they if they had been righteous? I say unto you, Nay.

Behold, the Lord esteemeth all flesh in one; he that is righteous is favored of God. But behold, this people had rejected every word of God, and they were ripe in iniquity; and the fulness of the wrath of God was upon them; and the Lord did curse the land against them, and bless it unto our fathers; yea, he did curse it against them unto their destruction, and he did bless it unto our fathers unto their obtaining power over it.

Behold, the Lord hath created the earth that it should be inhabited; and he hath created his children that they should possess it.

And he raiseth up a righteous nation, and destroyeth the nations of the wicked.

And he leadeth away the righteous into precious lands, and the wicked he destroyeth, and curseth the land unto them for their sakes.

He ruleth high in the heavens, for it is his throne, and this earth is his footstool.

And he loveth those who will have him to be their God. Behold, he loved our fathers, and he covenanted with them, yea, even Abraham, Isaac, and Jacob; and he remembered the covenants which he had made; wherefore, he did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41 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로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당신들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이었요, 또 주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셨더라. 그가 나는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이 물린 후에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더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이 간단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쉬웠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나이다.

42 또 그들이 시시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참으로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인도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당신들이 아나이다.

43 또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그들이 간악하게 된 때가 이르렀나니, 참으로 거의 무르익었나이다. 또 그들은 아마 지금쯤 바야흐로 멸망당하게 되었으리니, 이는 끌려가 사로잡히게 될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날이 정녕 이를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44 그리하여 주께서 나의 부친에게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거니와, 유대인들 또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뿐 아니라 당신들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나니, 그런즉 당신들은 마음에 살인한 자들이며 당신들은 그들과 같나이다.

45 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우레 소리처럼 당신들에게 말하매, 그로 인해 땅이 마치 갈라질 듯 진동하였나이다.

46 또한 당신들은 그가 그의 전능한 말씀의 권능으로 땅으로 하여금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도 아나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은 그의 말씀으로 그가 거친 곳들로 편편하게 되게 하실 수 있으며, 편편한 곳들은 일구어지리라는 것을 아나이다. 오 그러하거늘 당신들 마음이 그토록 완악할 수 있음은 무슨 연고니까?

And he did straiten them in the wilderness with his rod; for they hardened their hearts, even as ye have; and the Lord straitened them because of their iniquity. He sent fiery flying serpents among them; and after they were bitten he prepared a way that they might be healed; and the labor which they had to perform was to look; and because of the simplicity of the way, or the easiness of it, there were many who perished.

And they did harden their hearts from time to time, and they did revile against Moses, and also against God; nevertheless, ye know that they were led forth by his matchless power into the land of promise.

And now, after all these things, the time has come that they have become wicked, yea, nearly unto ripeness; and I know not but they are at this day about to be destroyed; for I know that the day must surely come that they must be destroyed, save a few only, who shall be led away into captivity.

Wherefore, the Lord commanded my father that he should depart into the wilderness; and the Jews also sought to take away his life; yea, and ye also have sought to take away his life; wherefore, ye are murderers in your hearts and ye are like unto them.

Ye are swift to do iniquity but slow to remember the Lord your God. Ye have seen an angel, and he spake unto you; yea, ye have heard his voice from time to time; and he hath spoken unto you in a still small voice, but ye were past feeling, that ye could not feel his words; wherefore, he has spoken unto you like unto the voice of thunder, which did cause the earth to shake as if it were to divide asunder.

And ye also know that by the power of his almighty word he can cause the earth that it shall pass away; yea, and ye know that by his word he can cause the rough places to be made smooth, and smooth places shall be broken up. O, then, why is it, that ye can be so hard in your hearts?

47 보소서, 당신들로 인한 번민으로 내 영혼은 찢겼고 내 마음은 괴롭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영원히 쫓겨나지나 않을까 두렵나이다.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매 내 사지에 기력이 없나이다.

4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그들은 나에게 노하여 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고자 하더라. 이에 그들이 내게 손을 대려고 나아올 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노니, 당신들은 나를 다치지 마소서. 이는 내가 나의 육신을 소멸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이니, 누구든지 그 손을 내게 대는 자는 마른 갈대처럼 말라 버릴 것이라. 또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임이니이다 하였더라.

4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부친에게 더 이상 불평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를 짓도록 명하셨으며, 나를 도와 일하기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느니라.

50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내가 능히 행할 수 있으리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명하사 이 물더러 이르기를, 너는 육지가 되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육지가 되리니, 내가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

51 그러면 이제 주께서 것처럼 큰 권능을 가지셨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셨을진대, 어찌하여 나를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배를 짓게 하실 수 없으리이까 하였더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매,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나와 다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감히 나에게 손을 대려 하거나 그 손가락으로 나를 다치려 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 앞에서 말라 버릴까 두려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토록 강하였고 이같이 그들 위에 역사하였더라.

Behold, my soul is rent with anguish because of you, and my heart is pained; I fear lest ye shall be cast off forever. Behold, I am full of the Spirit of God, insomuch that my frame has no strength.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I had spoken these words they were angry with me, and were desirous to throw me into the depths of the sea; and as they came forth to lay their hands upon me I spake unto them, saying: In the name of the Almighty God, I command you that ye touch me not, for I am filled with the power of God, even unto the consuming of my flesh; and whoso shall lay his hands upon me shall wither even as a dried reed; and he shall be as naught before the power of God, for God shall smite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said unto them that they should murmur no more against their father; neither should they withhold their labor from me, for God had commanded me that I should build a ship.

And I said unto them: If God had commanded me to do all things I could do them. If he should command me that I should say unto this water, be thou earth, it should be earth; and if I should say it, it would be done.

And now, if the Lord has such great power, and has wrought so many miracles among the children of men, how is it that he cannot instruct me, that I should build a ship?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said many things unto my brethren, insomuch that they were confounded and could not contend against me; neither durst they lay their hands upon me nor touch me with their fingers, even for the space of many days. Now they durst not do this lest they should wither before me, so powerful was the Spirit of God; and thus it had wrought upon them.

5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네 형제들에게 내뻗으라. 그들이 네 앞에서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들에게 충격을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은 그들로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손을 그들에게 내뻗으니, 그들이 내 앞에서 마르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흔들어 주셨으니 곧 그가 하신 말씀과 같더라.

55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분명히 아노니, 이는 우리를 흔든 것이 주의 권능인 줄 우리가 압이로다 하고, 그들이 내 앞에 엎드려 내게 경배하려 하더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 곧 참으로 당신들의 동생이니이다. 그러한즉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 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실 땅에서 당신들의 날이 길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aid unto me: Stretch forth thine hand again unto thy brethren, and they shall not wither before thee, but I will shock them, saith the Lord, and this will I do, that they may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I stretched forth my hand unto my brethren, and they did not wither before me; but the Lord did shake them, even according to the word which he had spoken.

And now, they said: We know of a surety that the Lord is with thee, for we know that it is the power of the Lord that has shaken us. And they fell down before me, and were about to worship me, but I would not suffer them, saying: I am thy brother, yea, even thy younger brother; wherefore,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i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shall give thee.

## 니파이전서 18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경배하고 나와 함께 나아갔으며, 우리는 정교한 솜씨로 재목을 다듬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의 재목을 다듬어야 하는지를 시시로 나에게 보여 주시더라.
- 2 이제 나 니파이는 사람들이 알게 된 방식으로 재목을 다듬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배를 짓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따라 배를 지었나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느니라.
- 3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나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 주셨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좇아 배를 완성하고 난 후 나의 형제들이 본즉, 그것이 좋으며 그 솜씨가 심히 훌륭하였던지라, 그들은 다시 주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하였느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시니, 우리에게 일어나 배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우리는 모든 것, 곧 광야에서 거둔 많은 과실과 고기와 풍부한 양의 꿀과 식량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좇아 준비한 후, 각기 그 나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씨앗과 또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배로 내려갔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모두 다 배로 내려갔느니라.
- 7 그리고 이제 나의 부친은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으셨으니, 형은 야곱, 아우는 요셉이라 하였더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양식과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가지고 모두 배로 내려간 후, 우리는 바다로 출항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갔느니라.

## 1 Nephi 18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worship the Lord, and did go forth with me; and we did work timbers of curious workmanship. And the Lord did show me from time to time after what manner I should work the timbers of the ship.

Now I, Nephi, did not work the timbers after the manner which was learned by men, neither did I build the ship after the manner of men; but I did build it after the manner which the Lord had shown unto me; wherefore, it was not after the manner of men.

And I, Nephi, did go into the mount oft, and I did pray oft unto the Lord; wherefore the Lord showed unto me great th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had finished the ship,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my brethren beheld that it was good, and that the workmanship thereof was exceedingly fine; wherefore, they did humble themselves again before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my father, that we should arise and go down into the ship.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after we had prepared all things, much fruits and meat from the wilderness, and honey in abundance, and provisions according to that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us, we did go down into the ship, with all our loading and our seeds, and whatsoever thing we had brought with us, every one according to his age; wherefore, we did all go down into the ship, with our wives and our children.

And now, my father had begat two sons in the wilderness; the elder was called Jacob and the younger Joseph.

And it came to pass after we had all gone down into the ship, and had taken with us our provisions and things which had been commanded us, we did put forth into the sea and were driven forth before the wind towards the promised land.

- 9 그리고 우리가 여러 날 동안을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간 후에, 보라 나의 형제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흥청거리기 시작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대단히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무슨 힘으로 그 곳까지 인도되어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고하여 심히 무례하게 되었더라.
- 10 이에 나 니파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사, 우리로 깊은 바다에 삼키우게 하시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사뭇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나에게 성을 내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과 레뮤엘이 나를 잡아 줄로 묶고 나를 몹시 혹독하게 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를 용납하셨으니, 이는 그의 권능을 보이사 악인에 관하여 하신 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였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 묶어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주께서 마련해 주셨던 나침반이 작동하기를 멈추었더라.
- 13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알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큰 폭풍이 일어났나니, 참으로 크고 무서운 폭풍우라, 그리하여 우리는 물위를 사흘 동안 뒤로 밀려났느니라. 이에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을까 심히 놀라 무서워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풀어 주지는 아니하였더라.
- 14 이에 우리가 계속하여 뒤로 밀려나던 넷째 날, 폭풍우가 심히 격렬해졌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물 위에서 나흘 동안 뒤로 밀려난 후,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내 손목에 있던 결박을 풀어 주었나니, 보라 손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또한 나의 발목도 많이 부었으며 그 통증이 대단히 심하였느니라.

And after we had been driven forth before the wind for the space of many days, behold, my brethren and the sons of Ishmael and also their wives began to make themselves merry, insomuch that they began to dance, and to sing, and to speak with much rudeness, yea, even that they did forget by what power they had been brought thither; yea, they were lifted up unto exceeding rudeness.

And I, Nephi, began to fear exceedingly lest the Lord should be angry with us, and smite us because of our iniquity, that we should be swallowed up in the depths of the sea; wherefore, I, Nephi, began to speak to them with much soberness; but behold they were angry with me, saying: We will not that our younger brother shall be a ruler over us.

And it came to pass that Laman and Lemuel did take me and bind me with cords, and they did treat me with much harshness; nevertheless, the Lord did suffer it that he might show forth his power, unto the fulfilling of his word which he had spoken concerning the wicke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had bound me insomuch that I could not move, the compass, which had been prepared of the Lord, did cease to work.

Wherefore, they knew not whither they should steer the ship, insomuch that there arose a great storm, yea, a great and terrible tempest, and we were driven back upon the waters for the space of three days; and they began to be frightened exceedingly lest they should be drowned in the sea; nevertheless they did not loose me.

And on the fourth day, which we had been driven back, the tempest began to be exceedingly sor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were about to be swallowed up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after we had been driven back upon the waters for the space of four days, my brethren began to see that the judgments of God were upon them, and that they must perish save that they should repent of their iniquities; wherefore, they came unto me, and loosed the bands which were upon my wrists, and behold they had swollen exceedingly; and also mine ankles were much swollen, and great was the soreness thereof.

-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7 이제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들에게와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보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말하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크게 위협하는 말을 하였나니, 이에 나의 부모는 연로하시고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비애를 겪으셨던지라, 참으로 병석에 눕게 되셨느니라.
- 18 그들의 비탄과 많은 슬픔과 나의 형제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의 이 생을 벗어나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율기울 지경에 이르렀나니, 참으로 그들의 흰 머리가 바야흐로 내리워 티끌 속에 눕게 되었으며, 참으로 그들은 슬픔을 지니고 물 무덤으로 거의 던져질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 19 또 어리고 많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곱과 요셉 역시, 그들의 어머니의 고난으로 인하여 비통하여졌으며, 나의 아내의 눈물과 기도도, 또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풀어 주게 하지는 못하였느니라.
- 20 이에 그들을 멸망으로 위협한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이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키우게 되었음을 보자, 그들은 그 행한 일을 회개하였고 마침내 나를 풀어 주었느니라.
-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 풀어 준 다음, 보라 내가 나침반을 잡으매 나침반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작동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한즉, 내가 기도하고 나자 바람이 멎고, 폭풍이 멎었으며, 크게 고요해졌느니라.
-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배를 인도하여, 우리는 다시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항해하였느니라.
-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날 동안 항해하고 난 후에 우리는 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으며, 우리는 땅 위로 나아가서 우리의 장막을 치고 그곳을 약속된 땅이라 불렀느니라.

Nevertheless, I did look unto my God, and I did praise him all the day long; and I did not murmur against the Lord because of mine afflictions.

Now my father, Lehi, had said many things unto them, and also unto the sons of Ishmael; but, behold, they did breathe out much threatenings against anyone that should speak for me; and my parents being stricken in years, and having suffered much grief because of their children, they were brought down, yea, even upon their sick-beds.

Because of their grief and much sorrow, and the iniquity of my brethren, they were brought near even to be carried out of this time to meet their God; yea, their grey hairs were about to be brought down to lie low in the dust; yea, even they were near to be cast with sorrow into a watery grave.

And Jacob and Joseph also, being young, having need of much nourishment, were grieved because of the afflictions of their mother; and also my wife with her tears and prayers, and also my children, did not soften the hearts of my brethren that they would loose me.

And there was nothing save it were the power of God, which threatened them with destruction, could soften their hearts; wherefore, when they saw that they were about to be swallowed up in the depths of the sea they repented of the thing which they had done, insomuch that they loosed me.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y had loosed me, behold, I took the compass, and it did work whither I desired it. And it came to pass that I prayed unto the Lord; and after I had prayed the winds did cease, and the storm did cease, and there was a great calm.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guide the ship, that we sailed again towards the promised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we had sailed for the space of many days we did arrive at the promised land; and we went forth upon the land, and did pitch our tents; and we did call it the promised land.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고 또 씨앗을 심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서 가져온 우리의 씨앗을 모두 땅에 심어 넣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풍성히 복을 받았느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면서 약속의 땅에 갖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숲 속에 있음을 알았나니, 곧 사람들에게 유용한 암소와 수소 그리고 당나귀와 말 그리고 염소와 들염소 그리고 온갖 종류의 들짐승들이라. 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광석들을, 금과 은과 구리의 광석을 발견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begin to till the earth, and we began to plant seeds; yea, we did put all our seeds into the earth, which we had brought from the land of Jerusal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row exceedingly; wherefore, we were blessed in abundanc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find upon the land of promise, as we journeyed in the wilderness, that there were beasts in the forests of every kind, both the cow and the ox, and the ass and the horse, and the goat and the wild goat, and all manner of wild animals, which were for the use of men. And we did find all manner of ore, both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copper.



## 니파이전서 19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므로, 그로 인해 나는 내 백성의 기록을 새기고자 광석으로 판을 만들고, 내가 만든 판 위에 나는 부친의 기록과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여행하던 일과 부친의 예언을 새겼으며, 나 자신의 예언 또한 그 위에 많이 새겼느니라.
- 2 또 내가 그 판을 만들 때에 주께로부터 이 판을 만들도록 명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나니, 그런즉 나의 부친의 기록과 그의 조상들의 족보와 광야에서 우리가 행한 바의 대부분은, 내가 말한 그 첫번 판에 새겨져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 판을 만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진실로 첫번 판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느니라.
- 3 또 내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판을 만들고 나서, 나 니파이는 성역과 예언, 그 중에서 보다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을 이 판에 기록해야 하며, 기록된 것은 이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주께서 아시는 다른 현명한 목적들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 4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 다른 판에 나의 백성의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기사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기사를 전하는 기록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 버린 후에, 그들이 하여야 할 바를 명하고, 또 이 판은 주께로부터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다시 말하자면 한 선지자에게서 다른 선지자에게로 전해져 내려가야 한다고 명하였느니라.
- 5 그리고 내가 이 판을 만든 경위는 이후에 전할 것이니라. 그러면, 보라, 나는 내가 말한 바를 따라 계속하노니,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더욱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여 나의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 1 Nephi 19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commanded me, wherefore I did make plates of ore that I might engraven upon them the record of my people. And upon the plates which I made I did engraven the record of my father, and also our journeyings in the wilderness, and the prophecies of my father; and also many of mine own prophecies have I engraven upon them.

And I knew not at the time when I made them that I should be commanded of the Lord to make these plates; wherefore, the record of my father, and the genealogy of his fathers, and the more part of all our proceedings in the wilderness are engraven upon those first plates of which I have spoken; wherefore, the things which transpired before I made these plates are, of a truth, more particularly made mention upon the first plates.

And after I had made these plates by way of commandment, I, Nephi, received a commandment that the ministry and the prophecies, the more plain and precious parts of them, should be written upon these plates; and that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should be kept for the instruction of my people, who should possess the land, and also for other wise purposes, which purposes are known unto the Lord.

Wherefore, I, Nephi, did make a record upon the other plates, which gives an account, or which gives a greater account of the wars and contentions and destructions of my people. And this have I done, and commanded my people what they should do after I was gone; and that these plates should be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or from one prophet to another, until further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an account of my making these plates shall be given hereafter; and then, behold, I proceed according to that which I have spoken; and this I do that the more sacred things may be kept for the knowledge of my people.

- 6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기록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진대 옛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였나니,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나 자신을 변명하려 함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노라.
- 7    이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이나 영혼에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이들은 무시하며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음이라. 참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하나 내가 다른 말로 하리니, 곧 그들은 그를 무시하며 그의 권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 8    또 보라, 그는 천사의 말대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 후에 오시느니라.
- 9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 10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그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전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손에 내어 주사, 지노크의 말대로 들리우실 것이요, 니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하여 말한 지노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리라.

Nevertheless, I do not write anything upon plates save it be that I think it be sacred. And now, if I do err, even did they err of old; not that I would excuse myself because of other men, but because of the weakness which is in me, according to the flesh, I would excuse myself.

For the things which some men esteem to be of great worth, both to the body and soul, others set at naught and trample under their feet. Yea, even the very God of Israel do men trample under their feet; I say, trample under their feet but I would speak in other words—they set him at naught, and hearken not to the voice of his counsels.

And behold he cometh,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angel, in six hundred years from the time my father left Jerusalem.

And the world, because of their iniquity, shall judge him to be a thing of naught; wherefore they scourge him, and he suffereth it; and they smite him, and he suffereth it. Yea, they spit upon him, and he suffereth it, because of his loving kindness and his long-suffering towards the children of men.

And the God of our fathers, who were led out of Egypt, out of bondage, and also were preserved in the wilderness by him, yea, the God of Abraham, an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yieldeth himself,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angel, as a man, into the hands of wicked men, to be lifted up, according to the words of Zenock, and to be crucified, according to the words of Neum, and to be buried in a sepulchre, according to the words of Zenos, which he spake concerning the three days of darkness, which should be a sign given of his death unto those who should inhabit the isles of the sea, more especially given unto thos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11 이는 이같이 선지자가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정녕 이스라엘의 온 집을 방문하시리니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음성과 함께 방문하사 그들로 큰 기쁨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의 권능의 우레와 번개와 함께 폭풍우로, 불로, 또 연기로, 또 어둠의 안개로, 또 땅이 열림으로, 또 솟아오르게 될 산들로 방문하시리라.

12 또 이 모든 일이 기필코 반드시 임하리라, 선지자 지노스의 말이니라. 또 땅의 바위들이 반드시 깨어질 것이요, 땅이 신음함으로 인하여 바다 섬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 소리지르기를, 자연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도다 하리라.

13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로 말하자면, 선지자의 말이니라, 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영광을 배척하는 연고라.

14 또 그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방황하며 멸망할 것이요,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리라.

15 그러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이니라,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스르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 그때 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성약을 기억하시리라.

16 참으로 그때 그는 바다의 섬들을 기억하실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선지자 지노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백성을 땅 사방으로부터 내가 모아들이리라,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17 또한 온 땅이 주의 구원을 볼 것이요, 선지자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이 있으리라.

18 이에 나 니파이가 이것들을 나의 백성을 위하여 기록한 것은, 혹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속주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19 그러한즉 만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것들을 얻는다 할진대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는 도다.

For thus spake the prophet: The Lord God surely shall visit all the house of Israel at that day, some with his voice,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unto their great joy and salvation, and others with the thunderings and the lightnings of his power, by tempest, by fire, and by smoke, and vapor of darkness, and by the opening of the earth, and by mountains which shall be carried up.

And all these things must surely come, saith the prophet Zenos. And the rocks of the earth must rend; and because of the groanings of the earth, many of the kings of the isles of the sea shall be wrought upon by the Spirit of God, to exclaim: The God of nature suffers.

And as for those who are at Jerusalem, saith the prophet, they shall be scourged by all people, because they crucify the God of Israel, and turn their hearts aside, rejecting signs and wonders, and the power and glory of the God of Israel.

And because they turn their hearts aside, saith the prophet, and have despised the Holy One of Israel, they shall wander in the flesh, and perish, and become a hiss and a byword, and be hated among all nations.

Nevertheless, when that day cometh, saith the prophet, that they no more turn aside their hearts against the Holy One of Israel, then will he remember the covenants which he made to their fathers.

Yea, then will he remember the isles of the sea; yea, and all the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will I gather in, saith the Lord,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 Zenos,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Yea, and all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saith the prophet;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shall be blessed.

And I, Nephi, have written these things unto my people, that perhaps I might persuade them that they would remember the Lord their Redeemer.

Wherefore, I speak unto all the house of Israel, if it so be that they should obtain these things.

20 이는 보라, 내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영으로 역사하는 바가 있음이니,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여 나의 온 뼈마디가 약하도다. 이는 주께서 자비로우사 옛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 관하여 나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셨던들 나 또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21 또 그는 정녕 옛 선지자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보여 주셨으며, 또한 그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 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들에 관하여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이는 그러한 것이 놋쇠판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22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주께서 다른 땅에서 옛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에 관하여 알도록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느니라.

23 또 나는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읽어 주되, 그들을 더욱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나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읽어 주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니라.

24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집의 한 남은 자들, 꺾어져 나온 가지인 당신들이여, 당신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기록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당신들 자신에게 비유하여 당신의 형제들, 곧 당신이 꺾어져 나온 바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당신들도 소망을 갖도록 하소서. 이는 이 같이 선지자가 기록하였음이니이다 하였느니라.

For behold, I have workings in the spirit, which doth weary me even that all my joints are weak, for those who are at Jerusalem; for had not the Lord been merciful, to show unto me concerning them, even as he had prophets of old, I should have perished also.

And he surely did show unto the prophets of old all things concerning them; and also he did show unto many concerning us; wherefore, it must needs be that we know concerning them for they are written upon the plates of brass.

Now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teach my brethren these th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read many things to them,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that they might know concerning the doings of the Lord in other lands, among people of old.

And I did read many things unto them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of Moses; but that I might more fully persuade them to believe in the Lord their Redeemer I did read unto them that which was written by the prophet Isaiah; for I did liken all scriptures unto us, that it might be for our profit and learning.

Wherefore I spake unto them, saying: Hear ye the words of the prophet, ye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a branch who have been broken off; hear ye the words of the prophet, which were written unto all the house of Israel, and liken them unto yourselves, that ye may have hope as well as your brethren from whom ye have been broken off; for after this manner has the prophet written.

## 니파이전서 20

- 1 야곱의 집이여, 귀를 기울여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들이 진리나 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 2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그들이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실로 만군의 주는 그의 이름이니라.
- 3 보라 내가 이전 일들을 처음부터 선포하였나니,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고, 내가 그 일들을 보아 되, 홀연히 보였느니라.
- 4 또 내가 그같이 행한 것은 네가 완고하며, 네 목은 무쇠로 된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임을 내가 알았음이라.
- 5 또 내가 실로 처음부터 네게 선포하였으며,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그것들을 네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보였음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행한 바요, 나의 새긴 신상과 나의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할까 염려하였음이니라.
- 6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네가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 곧 감추어졌던 일도 보였던 것과 네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느냐?
- 7 그 일들은 이제 창조되었고 태초부터가 아니라 네가 이를 듣지 아니하던 날 이전에 그것들이 네게 선포되었나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를 알고 있었다 말했어야 하리라.
- 8 또한 네가 듣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네가 알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그때로부터 네 귀가 열리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네가 몹시 불충하게 행하는 것과 네가 모태에서부터 범법자라 칭함을 입은 줄 내가 알았음이라.
- 9 그러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노여움을 미룰 것이요, 내 찬송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끊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 10 이는 보라 내가 너를 정제하였으되,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음이라.

## 1 Nephi 20

Hearken and hear this, O house of Jacob, who are called by the name of Israel, and are come forth out of the waters of Judah, or out of the waters of baptism, who swear by the name of the Lord, and make mention of the God of Israel, yet they swear not in truth nor in righteousness.

Nevertheless, they call themselves of the holy city, but they do not stay themselves upon the God of Israel, who is the Lord of Hosts; yea,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Behold, I have declared the former things from the beginning; and they went forth out of my mouth, and I showed them. I did show them suddenly.

And I did it because I knew that thou art obstinate, and thy neck is an iron sinew, and thy brow brass;

And I have even from the beginning declared to thee; before it came to pass I showed them thee; and I showed them for fear lest thou shouldst say—Mine idol hath done them, and my graven image, and my molten image hath commanded them.

Thou hast seen and heard all this; and will ye not declare them? And that I have showed thee new things from this time, even hidden things, and thou didst not know them.

They are created now, and not from the beginning, even before the day when thou heardest them not they were declared unto thee, lest thou shouldst say—Behold I knew them.

Yea, and thou heardest not; yea, thou knewest not; yea, from that time thine ear was not opened; for I knew that thou wouldst deal very treacherously, and wast called a transgressor from the womb.

Nevertheless, for my name's sake will I defer mine anger, and for my praise will I refrain from thee, that I cut thee not off.

For, behold, I have refined thee, I have chosen thee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 11 나 스스로를 위하여 참으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이를 행할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더럽히게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12 야곱아, 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그임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라.
-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중에 누가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나니 또한 그가 그들로 선포한 자기의 말을 이를 것이라. 또 그가 자기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하리라.
- 15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 주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불러 선포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나는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처음부터 그것이 선포되던 때부터 내가 말하였나니, 주 하나님과 그의 영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 17 또 이같이 주, 네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냈으며,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 18 오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그리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네 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요,
-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으리라.
-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아가며 갈대아인에게서 도망하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여 이를 고하며 땅 끝까지 공표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For mine own sake, yea, for mine own sake will I do this, for I will not suffer my name to be polluted, and I will not give my glory unto another.

Hearken unto me, O Jacob, and Israel my called, for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also the last.

Mine hand hath also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my right hand hath spanned the heavens. I call unto them and they stand up together.

All ye, assemble yourselves, and hear; who among them hath declared these things unto them? The Lord hath loved him; yea, and he will fulfil his word which he hath declared by them; and he will do his pleasure on Babylon, and his arm shall come upon the Chaldeans.

Also, saith the Lord; I the Lord, yea, I have spoken; yea, I have called him to declare, I have brought him, and he shall make his way prosperous.

Come ye near unto me; I have not spoken in secret; from the beginning, from the time that it was declared have I spoken; and the Lord God, and his Spirit, hath sent me.

And thus saith the Lord, thy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I have sent him, the Lord thy God who teacheth thee to profit, who leadeth thee by the way thou shouldst go, hath done it.

O that thou hadst hearkened to my commandments—then had thy peace been as a river, and thy righteousness as the waves of the sea.

Thy seed also had been as the sand; the offspring of thy bowels like the gravel thereof; his name should not have been cut off nor destroyed from before me.

Go ye forth of Babylon, flee ye from the Chaldeans, with a voice of singing declare ye, tell this, utter to the end of the earth; say ye: The Lord hath redeemed his servant Jacob.

21 또 그들은 목마르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사막을 지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으며, 그가 또한 바위를 가른즉 물이 솟아 나왔느니라.

22 그가 이 모두를 행하셨고 더 큰 일도 행하셨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And they thirsted not; he led them through the deserts; he caused the waters to flow out of the rock for them; he clave the rock also and the waters gushed out.

And notwithstanding he hath done all this, and greater also, there is no peace, saith the Lord, unto the wicked.

## 니파이전서 21

- 1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곧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나를 들으라. 또 너희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 2 그리고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으며, 나로 연마된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
- 3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 4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허무하고 헛되이 나의 힘을 다하였도다. 정녕 나의 심판은 주께 있사오며,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께 있는도다 하였느니라.
- 5 이제—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로 그의 종이 되게 하사 야곱을 다시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신—주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하시느니라.
- 6 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전된 자를 회복함은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주어 이방인들의 빛을 삼고, 너로 하여금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 7 이스라엘의 구속주, 그의 거룩한 자이신 주께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들이 싫어하는 자에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군주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로 인함이니라 하시느니라.
- 8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으며, 바다의 섬들아,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 종을 네게 주어 백성의 성약을 삼으며, 땅을 일으켜 황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 1 Nephi 21

And again: Hearken, O ye house of Israel, all ye that are broken off and are driven ou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astors of my people; yea, all ye that are broken off, that are scattered abroad, who are of my people, O house of Israel. Listen, O isles, unto me, and hearken ye people from far; the Lord hath called me from the womb; from the bowels of my mother hath he made mention of my name.

And he hath made my mouth like a sharp sword; in the shadow of his hand hath he hid me, and made me a polished shaft; in his quiver hath he hid me;

And said unto me: Thou art my servant, O Israel, in whom I will be glorified.

Then I said, I have labored in vain, I have spent my strength for naught and in vain; surely my judgment is with the Lord, and my work with my God.

And now, saith the Lord—that formed me from the womb that I should be his servant, to bring Jacob again to him—though Israel be not gathered, yet shall I be glorious in the eyes of the Lord, and my God shall be my strength.

And he said: It is a light thing that thou shouldst be my servant to raise up the tribes of Jacob, and to restore the preserved of Israel. I will also give thee for a light to the Gentiles, that thou mayest be my salv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Thus saith the Lord, the Redeemer of Israel, his Holy One, to him whom man despiseth, to him whom the nations abhorreth, to servant of rulers: Kings shall see and arise, princes also shall worship, because of the Lord that is faithful.

Thus saith the Lord: In an acceptable time have I heard thee, O isles of the sea, and in a day of salvation have I helped thee; and I will preserve thee, and give thee my servant for a covenant of the people, to establish the earth, to cause to inherit the desolate heritages;



- 9 그리하여 너로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가라 하게 할 것이요,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게 하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풀밭은 모든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
- 10 그들은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그들을 이끌되, 물이 솟는 샘가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이니라.
- 11 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돋우어질 것임이니라.
- 12 그때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라. 또 보라, 이들은 북방에서와 서방에서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는 동쪽에 있는 자들의 발이 굳게 세움을 입을 것임이니라. 또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치심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주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임이니라.
- 14 그러나 보라,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이시리라.
- 15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이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16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 17 너의 자녀들은 너를 멸하던 자들에게 급히 대항할 것이요,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 18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이 모든 자가 다 함께 모이나니 그들이 네게로 오리라. 내가 살아있음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옷 입기를 장식들로 꾸밈같이 할 것이며 그들을 띠기를 마치 신부처럼 하리라.
- 19 이는 너의 버려진 곳들과 너의 황폐한 곳들과 네 멸망의 땅이 이제는 주민들로 말미암아 너무 좁게 될 것이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임이라.

That thou mayest say to the prisoners: Go forth; to them that sit in darkness: Show yourselves. They shall feed in the ways, and their pastures shall be in all high places.

They shall not hunger nor thirst, neither shall the heat nor the sun smite them; for he that hath mercy on them shall lead them, even by the springs of water shall he guide them.

And I will make all my mountains a way, and my highways shall be exalted.

And then, O house of Israel, behold, these shall come from far; and lo, these from the north and from the west; and these from the land of Sinim.

Sing, O heavens; and be joyful, O earth; for the feet of those who are in the east shall be established; and break forth into singing, O mountains; for they shall be smitten no more; for the Lord hath comforted his people, and will have mercy upon his afflicted.

But, behold, Zion hath said: The Lord hath forsaken me, and my Lord hath forgotten me—but he will show that he hath not.

For can a woman forget her sucking child, that she should not have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Yea, they may forget, yet will I not forget thee, O house of Israel.

Behold, I have graven thee upon the palms of my hands; thy walls are continually before me.

Thy children shall make haste against thy destroyers; and they that made thee waste shall go forth of thee.

Lift up thine eyes round about and behold; all these gather themselves together, and they shall come to thee. And as I live, saith the Lord, thou shalt surely clothe thee with them all, as with an ornament, and bind them on even as a bride.

For thy waste and thy desolate places, and the land of thy destruction, shall even now be too narrow by reason of the inhabitants; and they that swallowed thee up shall be far away.

20 첫 자녀들을 잃고 나서 네가 갖게 될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이르기를, 이 곳이 나에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할 곳을 주소서 하리라.

21 그때에 네가 네 마음 속에 이르기를, 나는 내 자녀를 잃었으며 외로웠으며 사로잡힌 바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거늘, 누가 나에게 이들을 낳아 주었는고? 또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보라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고 하리라.

22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어 올 것이니라.

23 또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그 왕비들은 너의 양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티끌을 핥으리니, 내가 나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4 강한 자에게서 그 노략물을 빼앗으며, 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낼 수 있으리요?

25 그러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강한 자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리니, 이는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다투는 것이며,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26 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이며 그들로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주요 네 구속주요 야곱의 능한 자인 줄 알리라.

The children whom thou shalt have, after thou hast lost the first, shall again in thine ears say: The place is too strait for me; give place to me that I may dwell.

Then shalt thou say in thine heart: Who hath begotten me these, seeing I have lost my children, and am desolate, a captive, and removing to and fro? And who hath brought up these? Behold, I was left alone; these, where have they been?

Thus saith the Lord God: Behold, I will lift up mine hand to the Gentiles, and set up my standard to the people; and they shall bring thy sons in their arms, and thy daughters shall be carried upon their shoulders.

And kings shall be thy nursing fathers, and their queens thy nursing mothers; they shall bow down to thee with their face towards the earth, and lick up the dust of thy feet; and thou shalt know that I am the Lord; for they shall not be ashamed that wait for me.

For shall the prey be taken from the mighty, or the lawful captives delivered?

But thus saith the Lord, even the captives of the mighty shall be taken away, and the prey of the terrible shall be delivered; for I will contend with him that contendeth with thee, and I will save thy children.

And I will feed them that oppress thee with their own flesh; they shall be drunken with their own blood as with sweet wine; and all flesh shall know that I, the Lord, am thy Savior and thy Redeemer, the Mighty One of Jacob.

## 니파이전서 22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놋쇠판에 새겨진 이러한 것들을 읽어 주고 나자, 나의 형제들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네가 읽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보라, 이를 육이 아닌 영에 관련하여 임하게 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하더라.
- 2 이에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소서 그러한 것들은 영의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이는 육에 관련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할 모든 일이 영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알려짐이나이다.
- 3 그러한즉 내가 읽은 것은 현세의 일과 영적인 일 모두에 관련된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이 조만간 온 땅 위에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듯함이나이다.
- 4 또 보소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지식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많나이다. 참으로 모든 지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끌려 가 버렸으며 바다의 섬들 위에 여기저기 흩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이 이끌려 가 버렸다는 것을 알 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 5 또 그들이 이끌려 간 이래로, 그들에 관하여 또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흩어지며 혼란하게 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 왔나니, 이는 그를 대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임이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이다.
- 6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고, 주께서 이방인들 위에 그의 손을 드사 그들을 세워 기호를 삼으시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팔에 안기어 오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이 온 후, 보소서 말한 바 이러한 일들은 현세의 일이니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성약이 그러함이요, 또 이것은 장래의 우리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뜻하나이다.

## 1 Nephi 22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Nephi, had read these things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my brethren came unto me and said unto me: What meaneth these things which ye have read? Behold, are they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ings which are spiritual, which shall come to pass according to the spirit and not the flesh?

And I, Nephi, said unto them: Behold they were manifest unto the prophet by the voice of the Spirit; for by the Spirit are all things made known unto the prophets, which shall come upon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 flesh.

Wherefore, the things of which I have read are things pertaining to things both temporal and spiritual; for it appears that the house of Israel, sooner or later, will b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also among all nations.

And behold, there are many who are already lost from the knowledge of those who are at Jerusalem. Yea, the more part of all the tribes have been led away; and they are scattered to and fro upon the isles of the sea; and whither they are none of us knoweth, save that we know that they have been led away.

And since they have been led away, these things have been prophesied concerning them, and also concerning all those who shall hereafter be scattered and be confounded, because of the Holy One of Israel; for against him will they harden their hearts; wherefore, they shall be scattered among all nations and shall be hated of all men.

Nevertheless, after they shall be nursed by the Gentiles, and the Lord has lifted up his hand upon the Gentiles and set them up for a standard, and their children have been carried in their arms, and their daughters have been carried upon their shoulders, behold these things of which are spoken are temporal; for thus are the covenants of the Lord with our fathers; and it meaneth us in the days to come, and also all our brethren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 7 또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흩어지고 혼란하게 된 후에, 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이 땅 위에 한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때가 이룸을 뜻하나니, 그들에 의해 우리의 자손들이 흩어지리이다.
- 8 이에 우리의 자손들이 흩어진 후에,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이방인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양육 받고 그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나아오에 비유되는 것이나이다.
- 9 그 일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방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그러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성약을 알게 하리니,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 10 또 나의 형님들이여, 나는 그가 열국의 눈 앞에 그 팔을 드러내시지 않고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 바라나이다.
- 11 그러한즉 주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만국의 목전에 그의 팔을 드러내사,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을 위한 그의 성약과 그의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 12 그러한즉 그가 다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인도해 내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함께 모일 것이요, 그들이 희미한 데서와 캄캄한 데서 인도되어 나와서 주께서 그들의 구주시요, 그들의 구속주 곧 이스라엘의 능한 자인 줄 알게 되리이다.
- 13 또 온 세상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의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며 그들 자신의 손에 든 검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자기 피에 취하게 될 것임이라.

And it meaneth that the time cometh that after all the house of Israel have been scattered and confounded, that the Lord God will raise up a mighty nation among the Gentiles, yea, even upon the face of this land; and by them shall our seed be scattered.

And after our seed is scattered the Lord God will proceed to do a marvelous work among the Gentiles, which shall be of great worth unto our seed; wherefore, it is likened unto their being nourished by the Gentiles and being carried in their arms and upon their shoulders.

And it shall also be of worth unto the Gentiles; and not only unto the Gentiles but unto all the house of Israel, unto the making known of the covenants of the Father of heaven unto Abraham, saying: In thy seed shall all the kindreds of the earth be blessed.

And I would, my brethren, that ye should know that all the kindreds of the earth cannot be blessed unless he shall make bare his arm in the eyes of the nations.

Wherefore, the Lord God will proceed to make bare his arm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in bringing about his covenants and his gospel unto thos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Wherefore, he will bring them again out of captivity, and they shall be gathered together 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and they shall be brought out of obscurity and out of darkness; and they shall know that the Lord is their Savior and their Redeemer, the Mighty One of Israel.

And the blood of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which is the whore of all the earth, shall turn upon their own heads; for they shall war among themselves, and the sword of their own hands shall fall upon their own heads, and they shall be drunken with their own blood.

14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를 대적하여 전쟁할 모든 나라는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백성을 빠뜨리려고 파 놓은 구덩이에는 스스로가 빠지게 될 것이라. 또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 저 큰 창녀, 참으로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무너져 흙먼지가 되리니 그 무너짐이 크리이다.

15 이는 보소서, 선지자의 말씀이나이다,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더 이상 갖지 못할 날이 속히 이룸이니, 이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처럼 되는 날이 곧 이룸이며 그들이 반드시 불살라질 날이 이룸이라.

16 이는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사람의 자녀들 모두의 위에 쏟아질 때가 곧 이룸이니, 악인이 의인을 멸함을 그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17 그러한즉, 그의 가득한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권능으로 의인들을 보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들이 불로 멸망당할지라도 의인들은 보전되리이다. 그런즉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선지자가 이같이 말함이라, 설혹 불로 말미암음 같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이다.

18 보라 나의 형님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르리이다. 참으로 피와 불과 연기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육체를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나이다.

19 이는 보라 의인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다 끊어질 날이 정녕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20 또 주께서는 진실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사 모세의 말을 이루시리니, 그가 일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을지니라. 또 이렇게 되리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였나이다.

And every nation which shall war against thee, O house of Israel, shall be turned one against another, and they shall fall into the pit which they digged to ensnare the people of the Lord. And all that fight against Zion shall be destroyed, and that great whore, who hath perverted the right ways of the Lord, yea,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shall tumble to the dust and great shall be the fall of it.

For behold, saith the prophet, the time cometh speedily that Satan shall have no more power over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for the day soon cometh that all the proud and they who do wickedly shall be as stubble; and the day cometh that they must be burned.

For the time soon cometh that the fulness of the wrath of God shall be poured out upon all the children of men; for he will not suffer that the wicked shall destroy the righteous.

Wherefore, he will preserve the righteous by his power, even if it so be that the fulness of his wrath must come, and the righteous be preserved, even unto the destruction of their enemies by fire. Wherefore, the righteous need not fear; for thus saith the prophet, they shall be saved, even if it so be as by fire.

Behold, my brethren, I say unto you, that these things must shortly come; yea, even blood, and fire, and vapor of smoke must come; and it must needs be upon the face of this earth; and it cometh unto men according to the flesh if it so be that they will harden their hearts against the Holy One of Israel.

For behold, the righteous shall not perish; for the time surely must come that all they who fight against Zion shall be cut off.

And the Lord will surely prepare a way for his people, unto the fulfilling of the words of Moses, which he spake, saying: A prophet shall the Lord your God raise up unto you, like unto me; him shall ye hear in all things whatsoever he shall say unto you.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all those who will not hear that prophet shall be cut off from among the people.

21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당신들에게 선포하노니,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 시나이이다. 그런즉 그가 의 가운데 심판을 집행하시리이다.

22 또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그들은 진멸당하지 아니할 자들임이라. 그러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악마의 왕국은 그러하니, 그 왕국은 육체로 있는 자들 가운데 세워지나이다.

23 이는 때가 속히 이를 것임이니, 이익을 얻으려 세워진 모든 교회와 육체를 다스릴 권력을 얻으려 세워진 모든 자들과 세상의 눈에 들기 위해 세워진 자들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온갖 죄악 행하기를 구하는 자들, 참으로 요컨대 악마의 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흔들려야 할 자들이다. 그들은 반드시 흠먼지 가운데 내려져야 할 자들이요, 그들은 반드시 그루터기처럼 타 없어져야 할 자들이니, 이는 선지자의 말씀대로이나이다.

24 또 의인들이 반드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인도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반드시 주권과 능력과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스리실 때가 속히 오나이다.

25 또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땅 사방에서 모으시고, 그는 자기 양을 헤아리시며, 그들은 그를 아나니,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양을 먹이시리니 그 안에서 그들이 풀밭을 찾을 것이라.

26 또 그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가 여러 해 동안 풀려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함이니, 이는 그들의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다스리심이나이다.

27 또 이제 보소서, 나 니파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육체를 따라 반드시 임하리이다.

28 그러나, 보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회개할진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이다.

And now I, Nephi, declare unto you, that this prophet of whom Moses spake was the Holy One of Israel; wherefore, he shall execute judgment in righteousness.

And the righteous need not fear, for they are those who shall not be confounded. But it is the kingdom of the devil, which shall be built up among the children of men, which kingdom is established among them which are in the flesh—

For the time speedily shall come that all churches which are built up to get gain, and all those who are built up to get power over the flesh, and those who are built up to become popular in the eyes of the world, and those who seek the lusts of the flesh and the things of the world, and to do all manner of iniquity; yea, in fine, all those who belong to the kingdom of the devil are they who need fear, and tremble, and quake; they are those who must be brought low in the dust; they are those who must be consumed as stubble; and this is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

And the time cometh speedily that the righteous must be led up as calves of the stall, and the Holy One of Israel must reign in dominion, and might, and power, and great glory.

And he gathereth his children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nd he numbereth his sheep, and they know him;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and he shall feed his sheep, and in him they shall find pasture.

And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of his people, Satan has no power; wherefore, he cannot be loosed for the space of many years; for he hath no power over the hearts of the people, for they dwell in righteousness, and the Holy One of Israel reigneth.

And now behold, I, Nephi, say unto you that all these things must come according to the flesh.

But, behold,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shall dwell safely in the Holy One of Israel if it so be that they will repent.

29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끝맺노니, 이는 내가 아직은 이러한 일에 관하여 감히 더 말하고자 아니함이나이다.

30 그러한즉 나의 형님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놋쇠판에 기록된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노니, 그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증거하나이다.

31 그러한즉 당신들은 나와 나의 부친만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친 유일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한즉 만일 당신이 계명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당신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리이다. 참으로 그러하리이다. 아멘.

And now I, Nephi, make an end; for I durst not speak further as yet concerning these things.

Wherefore, my brethren, I would that ye should consider that the things which have been written upon the plates of brass are true; and they testify that a man must be obedient to the commandments of God.

Wherefore, ye need not suppose that I and my father are the only ones that have testified, and also taught them. Wherefore, if ye shall be obedient to the commandments, and endure to the end, ye shall be saved at the last day. And thus it is. Amen.

# 니파이후서

리하이의 죽음의 기사.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 모반함. 주께서 니파이에게 광야로 떠나도록 경고 하심. 광야에서 그가 여행한 일 등.

## 니파이후서 1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마친 후, 우리 부친 리하이도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였나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사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느니라.
- 2 또 그는 그들이 물 위에서 모반하였던 일과,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사 그들로 바다에 삼켜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
- 3 그리고 그는 또한 그들이 얻은 약속의 땅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나니—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사, 우리에게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해 나오라고 경고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
- 4 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내가 한 시현을 보았음이라. 그 시현에서 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줄을 아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우리 역시 멸망하였으리라.
- 5 그가 이르되,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었나니,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이요, 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기업을 위한 땅이 되리라고 나와 성약하신 땅이라. 참으로 주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성약하셨으며, 또한 주의 손에 의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인도되어 나올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셨느니라.
- 6 그러한즉 나 리하이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 하심을 따라 예언하노니,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 하고는 아무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The Second Book of Nephi

*An account of the death of Lehi. Nephi's brethren rebel against him. The Lord warns Nephi to depart into the wilderness. His journeyings in the wilderness, and so forth.*

## 2 Nephi 1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Nephi, had made an end of teaching my brethren, our father, Lehi, also spake many things unto them, and rehearsed unto them, how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them in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he spake unto them concerning their rebellions upon the waters, and the mercies of God in sparing their lives, that they were not swallowed up in the sea.

And he also spake unto them concerning the land of promise, which they had obtained—how merciful the Lord had been in warning us that we should flee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For, behold, said he, I have seen a vision, in which I know that Jerusalem is destroyed; and had we remained in Jerusalem we should also have perished.

But, said he, notwithstanding our afflictions, we have obtained a land of promise, a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a land which the Lord God hath covenanted with me should be a land for the inheritance of my seed. Yea, the Lord hath covenanted this land unto me, and to my children forever, and also all those who should be led out of other countries by the hand of the Lord.

Wherefore, I, Lehi, prophesy according to the workings of the Spirit which is in me, that there shall none come into this land save they shall be brought by the hand of the Lord.



- 7 그런즉 이 땅은 그가 인도하여 올 자를 위하여 성별되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가 주신 계명을 좇아 그를 섬길진대 이 땅은 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결코 사로잡히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 된다 하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것이리니, 이는 죄악이 가득할진대 그들이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의인에게는 이 땅이 영원토록 복되리다.
- 8 또 보라, 이 땅이 아직 다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함은 지혜니, 이는 보라, 많은 국민이 이 땅에 넘쳐 유업을 위한 장소가 없었을 것임이라.
- 9 그리하여 나 리하이이는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요,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보호되어 이 땅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얻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 위에서 복될 것이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기업의 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그들이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라.
- 10 그러나 보라, 주의 손에서 그토록 큰 축복을 받은 후 땅과 모든 사람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창세로부터 주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며,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태초로부터의 모든 계명을 가지며, 한량없는 그의 선하심으로 이 귀한 약속의 땅에 인도되어 들고 나서—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 때가 이르면, 보라 내가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참 메시야요 그들의 구속주시오 그들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저버리는 날이 이른다면, 보라, 공의로 우신 그의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게 되리라.
- 11 참으로 그가 다른 국민들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여 오실 것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는 그들 소유의 땅을 빼앗으실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하실 것이라.

Wherefore, this land is consecrated unto him whom he shall bring. And if it so be that they shall serve him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which he hath given, it shall be a land of liberty unto them; wherefore, they shall never be brought down into captivity; if so, it shall be because of iniquity; for if iniquity shall abound cursed shall be the land for their sakes, but unto the righteous it shall be blessed forever.

And behold, it is wisdom that this land should be kept as yet from the knowledge of other nations; for behold, many nations would overrun the land, that there would be no place for an inheritance.

Wherefore, I, Lehi, have obtained a promise, that inasmuch as those whom the Lord God shall bring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shall keep his commandments, they shall prosper upon the face of this land; and they shall be kept from all other nations, that they may possess this land unto themselves. And if it so be that they shall keep his commandments they shall be blessed upon the face of this land, and there shall be none to molest them, nor to take away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and they shall dwell safely forever.

But behold, when the time cometh that they shall dwindle in unbelief, after they have received so great blessings from the hand of the Lord—having a knowledge of the creation of the earth, and all men, knowing the great and marvelous works of the Lord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having power given them to do all things by faith; having all the commandments from the beginning, and having been brought by his infinite goodness into this precious land of promise—behold, I say, if the day shall come that they will reject the Holy One of Israel, the true Messiah, their Redeemer and their God, behold, the judgments of him that is just shall rest upon them.

Yea, he will bring other nations unto them, and he will give unto them power, and he will take away from them the lands of their possessions, and he will cause them to be scattered and smitten.

- 12 참으로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뀔 때 따라 그들 가운데 유혈과 큰 징벌이 있으리라. 그러한즉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노라.
- 13 오 너희가 깨어나기를, 깊은 잠에서, 참으로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묶고 있는 무서운 사슬을 떨쳐 버리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는 사슬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의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느니라.
- 14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곧 그의 사지를 차갑고 적막한 무덤에 누어야만 하나니, 그 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며칠 더 있으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느니라.
- 15 그러나 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나니, 나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나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
- 16 그리고 나는 너희가 주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기 원하노니, 보라, 이는 처음부터 나의 영혼의 근심이었던도다.
- 17 나의 마음은 시시로 슬픔으로 무거워졌었나니, 이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오사, 그의 가득한 진노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시므로, 너희가 영원히 끊어져 멸망당할까 내가 두려워하였음ियो,
- 18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세대 동안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칼과 기근으로 징벌을 받으며 미움을 받고, 악마의 뜻과 사로잡음에 따라 이끌리게 됨을 내가 두려워하였음이라.
- 19 오 나의 아들들아,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빼어나고 총애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보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니, 그의 길은 영원토록 의로움임이니라.
- 20 또 그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Yea, as one generation passeth to another there shall be bloodsheds, and great visitations among them; wherefore, my sons, I would that ye would remember; yea, I would that ye would hearken unto my words.

O that ye would awake; awake from a deep sleep, yea, even from the sleep of hell, and shake off the awful chains by which ye are bound, which are the chains which bind the children of men, that they are carried away captive down to the eternal gulf of misery and woe.

Awake! and arise from the dust, and hear the words of a trembling parent, whose limbs ye must soon lay down in the cold and silent grave, from whence no traveler can return; a few more days and I go the way of all the earth.

But behold, the Lord hath redeemed my soul from hell; I have beheld his glory, and I am encircled about eternally in the arms of his love.

And I desire that ye should remember to observe the statutes and the judgments of the Lord; behold, this hath been the anxiety of my soul from the beginning.

My heart hath been weighed down with sorrow from time to time, for I have feared, lest for the hardness of your hearts the Lord your God should come out in the fulness of his wrath upon you, that ye be cut off and destroyed forever;

Or, that a cursing should come upon you for the space of many generations; and ye are visited by sword, and by famine, and are hated, and are led according to the will and captivity of the devil.

O my sons, that these things might not come upon you, but that ye might be a choice and a favored people of the Lord. But behold, his will be done; for his ways are righteousness forever.

And he hath said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but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be cut off from my presence.

- 21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도록, 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나도록, 그리하여 내가 비통함과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리우지 않도록, 나의 아들들아, 티끌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며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굳건히 되며 모든 일에 단합하여, 너희가 사로잡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 22 심한 저주로 저주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 위에 자초하여 멸망, 곧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 23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주를 입으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 일어나라.
- 24 더 이상 너희 아우를 거스려 모반하지 말라. 그의 시현은 영화로웠으며 그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날로부터 계명을 지켰으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왔나니,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나니, 참으로 그는 너희로 인하여 많은 슬픔을 겪었느니라.
- 25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떠노니, 그가 다시 고난을 겪을까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는 그가 너희를 다스릴 권력과 권세를 추구한다고 그를 비난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알게 되니, 그는 너희를 다스릴 권력이나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영원한 복리를 구하였느니라.
- 26 또 그가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였도다. 너희는 그가 날카롭게 말하였다 하며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노하여 왔었다 하나, 보라, 그의 날카로움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날카로움이었으며, 너희가 노여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따른 진리였으니, 이를 그가 억제할 수 없었던지라, 너희의 죄악에 관하여 담대히 드러낸 것이었느니라.

And now that my soul might have joy in you, and that my heart might leave this world with gladness because of you, that I might not be brought down with grief and sorrow to the grave, arise from the dust, my sons, and be men, and be determined in one mind and in one heart, united in all things, that ye may not come down into captivity;

That ye may not be cursed with a sore cursing; and also, that ye may not incur the displeasure of a just God upon you, unto the destruction, yea, the eternal destruction of both soul and body.

Awake, my sons; put on the armor of righteousness. Shake off the chains with which ye are bound, and come forth out of obscurity, and arise from the dust.

Rebel no more against your brother, whose views have been glorious, and who hath kept the commandments from the time that we left Jerusalem; and who hath been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God, in bringing us forth into the land of promise; for were it not for him, we must have perished with hunger in the wilderness; nevertheless, ye sought to take away his life; yea, and he hath suffered much sorrow because of you.

And I exceedingly fear and tremble because of you, lest he shall suffer again; for behold, ye have accused him that he sought power and authority over you; but I know that he hath not sought for power nor authority over you, but he hath sought the glory of God, and your own eternal welfare.

And ye have murmured because he hath been plain unto you. Ye say that he hath used sharpness; ye say that he hath been angry with you; but behold, his sharpness was the sharpness of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which was in him; and that which ye call anger was the truth, according to that which is in God, which he could not restrain, manifesting boldly concerning your iniquities.

27 또 그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기까지 하나님  
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여야 함은 반드시 필요  
한 일이라. 그러나 보라, 그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것이 그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주의 영이었  
으므로, 그가 입을 다물 수 없었느니라.

28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 레이맨아, 그리고 또한  
레뮤엘과 셈아,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인  
나의 아들들아, 보라, 너희가 니파이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일진대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  
리라. 또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일진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남기노니 참으로 곧 나의 첫  
번째 축복이라.

29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면, 내가 나의 첫 번째 축복, 참  
으로 곧 나의 축복을 거두나니, 이것은 그의  
위에 머물게 되리라.

30 그리고 이제 조램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보라, 너는 라반의 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되어 나왔나니,  
나는 네가 영원토록 나의 아들 니파이에  
게 참된 벗인 줄을 아노라.

31 그런즉 네가 충실하였으므로, 네 자손은  
그의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아 이 땅 위  
에서 오래도록 번성하는 가운데 거할 것  
이요, 그들 가운데 있을 죄악을 제외하  
고는, 이 땅 위에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  
을 해하거나 방해할 만한 것이 영원히 없  
으리라.

32 그러한즉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킬진  
대, 주께서는 내 아들의 자손과 함께 네  
자손의 안전을 위하여 이 땅을 성별하  
셨느니라.

And it must needs be that the power of God must be with him, even unto his commanding you that ye must obey. But behold, it was not he, but it was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was in him, which opened his mouth to utterance that he could not shut it.

And now my son, Laman, and also Lemuel and Sam, and also my sons who are the sons of Ishmael, behold, if ye will hearken unto the voice of Nephi ye shall not perish. And if ye will hearken unto him I leave unto you a blessing, yea, even my first blessing.

But if ye will not hearken unto him I take away my first blessing, yea, even my blessing, and it shall rest upon him.

And now, Zoram, I speak unto you: Behold, thou art the servant of Laban; nevertheless, thou hast been brought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I know that thou art a true friend unto my son, Nephi, forever.

Wherefore, because thou hast been faithful thy seed shall be blessed with his seed, that they dwell in prosperity long upon the face of this land; and nothing, save it shall be iniquity among them, shall harm or disturb their prosperity upon the face of this land forever.

Wherefore, if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the Lord hath consecrated this land for the security of thy seed with the seed of my son.

## 니파이후서 2

- 1 그리고 이제 야곱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아들이니라. 또 보라, 너의 어릴 적에 너는 네 형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도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 3 그런즉 네 영혼이 복될 것이며, 너는 네 형 니파이와 함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네 날들은 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나는 네 구속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네가 구속되었음을 아노니, 이는 때가 차매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러 오심을 네가 보았음이라.
- 4 또 너는 네 젊었을 때에 그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런즉 너는 그가 육체로 성역을 베푸실 자들처럼 복되도다. 이는 영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또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이 예비 되었으며,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라.
- 5 또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곧 율법으로는 사람이 끊어지느니라. 참으로 현세에 속한 율법으로 그들은 끊어졌으며, 또한 영에 속한 율법으로 선한 것에서 멸망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되느니라.
- 6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 7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

## 2 Nephi 2

And now, Jacob, I speak unto you: Thou art my firstborn in the days of my tribulation in the wilderness. And behold, in thy childhood thou hast suffered afflictions and much sorrow, because of the rudeness of thy brethren.

Nevertheless, Jacob, my firstborn in the wilderness, thou knowest the greatness of God; and he shall consecrate thine afflictions for thy gain.

Wherefore, thy soul shall be blessed, and thou shalt dwell safely with thy brother, Nephi; and thy days shall be spent in the service of thy God. Wherefore, I know that thou art redeemed,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of thy Redeemer; for thou hast beheld that in the fulness of time he cometh to bring salvation unto men.

And thou hast beheld in thy youth his glory; wherefore, thou art blessed even as they unto whom he shall minister in the flesh; for the Spiri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the way is prepared from the fall of man, and salvation is free.

And men are instructed sufficiently that they know good from evil. And the law is given unto men. And by the law no flesh is justified; or, by the law men are cut off. Yea, by the temporal law they were cut off; and also, by the spiritual law they perish from that which is good, and become miserable forever.

Wherefore, redemption cometh in and through the Holy Messiah; for he is full of grace and truth.

Behold, he offereth himself a sacrifice for sin, to answer the ends of the law, unto all those who have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and unto none else can the ends of the law be answered.

- 8     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는 육체를 따라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영의 권능으로 그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일어날 자의 첫째가 되사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 9     그런즉 그는 하나님께 첫열매니, 그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이라. 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 10    또 모두를 위한 중재로 말미암아 만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나니, 그런즉 그들이 그의 면전에 서서 그의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한즉 거룩하신 이가 주신 율법의 목적은, 부가된 형벌을 가하는 데 이르나니 부가된 이 형벌은 부가된 행복과 반대가 되는 것인 바, 이는 속죄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니—
- 11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아,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한즉 만일 한 몸이 된대 할진대,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썩음도 썩지 아니함도 없고, 행복이나 비참도 없으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도 없이, 죽은 채로 그저 있어야만 하리라.
- 12    그런즉 창조된 것이 허사임이 분명하니, 그런즉 그 창조의 목적에 아무 목적 하는 바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 그런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Wherefore, how great the importance to make these things known unt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that they may know that there is no flesh that can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save it be through the merits, and mercy, and grace of the Holy Messiah, who layeth down his life according to the flesh, and taketh it again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he may bring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eing the first that should rise.

Wherefore, he is the firstfruits unto God, inasmuch as he shall make intercession for all the children of men; and they that believe in him shall be saved.

And because of the intercession for all, all men come unto God; wherefore, they stand in the presence of him, to be judged of him according to the truth and holiness which is in him. Wherefore, the ends of the law which the Holy One hath given, unto the inflicting of the punishment which is affixed, which punishment that is affixed is in opposition to that of the happiness which is affixed, to answer the ends of the atonement—

For it must needs be, that there is an opposition in all things. If not so, my firstborn in the wilderness, righteousness could not be brought to pass, neither wickedness, neither holiness nor misery, neither good nor bad. Wherefore, all things must needs be a compound in one; wherefore, if it should be one body it must needs remain as dead, having no life neither death, nor corruption nor incorruption, happiness nor misery, neither sense nor insensibility.

Wherefore, it must needs have been created for a thing of naught; wherefore there would have been no purpose in the end of its creation. Wherefore, this thing must needs destroy the wisdom of God and his eternal purposes, and also the power, and the mercy, and the justice of God.

13 또 너희가 말하기를, 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다.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 창조가 없었을 것임이라. 그런즉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리라.

14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의 유익과 배움이 되도록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행하는 것들과 행함을 받는 것들 모두를 창조하셨음이라.

15 또 그가 우리의 첫 부모와,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요컨대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사람의 종말에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였나니, 곧 생명의 나무에 반대되는 금단의 열매라. 하나는 달고 다른 하나는 쓴 것이니라.

16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17 그리고 나 리하이는 내가 읽은 바에 따라,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곧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악마가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구하였음이라.

18 이에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브에게 일렀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저 옛 뱀이라. 그런즉 그가 이르기를,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9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갈게 되었느니라.

And if ye shall say there is no law, ye shall also say there is no sin. If ye shall say there is no sin, ye shall also say there is no righteousness. And if there be no righteousness there be no happiness. And if there be no righteousness nor happiness there be no punishment nor misery. And if these things are not there is no God. And if there is no God we are not, neither the earth; for there could have been no creation of things, neither to act nor to be acted upon; wherefore, all things must have vanished away.

And now, my sons, I speak unto you these things for your profit and learning; for there is a God, and he hath created all things, both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in them are, both things to act and things to be acted upon.

And to bring about his eternal purposes in the end of man, after he had created our first parents, and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fowls of the air, and in fine, all things which are created, it must needs be that there was an opposition; even the forbidden fruit in opposition to the tree of life; the one being sweet and the other bitter.

Wherefore, the Lord God gave unto man that he should act for himself. Wherefore, man could not act for himself save it should be that he was enticed by the one or the other.

And I, Lehi, according to the things which I have read, must needs suppose that an angel of God, according to that which is written, had fallen from heaven; wherefore, he became a devil, having sought that which was evil before God.

And because he had fallen from heaven, and had become miserable forever, he sought also the misery of all mankind. Wherefore, he said unto Eve, yea, even that old serpent, who is the devil, who is the father of all lies, wherefore he said: Partake of the forbidden fruit, and ye shall not die, but ye shall be as God, knowing good and evil.

And after Adam and Eve had partaken of the forbidden fruit they were driven out of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earth.

- 20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나니, 참으로 곧 온 세상의 가족이라.
- 21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의 날이 연장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는 시험의 상태가 되었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그들의 때가 길어졌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음이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잃은 바 되었음을 보여 주셨음이라.
- 22 그리고 이제, 보라,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영원히 머물러 끝이 없었으리라.
- 23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
- 24 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 25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 26 그리고 메시야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 27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And they have brought forth children; yea, even the family of all the earth.

And the days of the children of men were prolonge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at they might repent while in the flesh; wherefore, their state became a state of probation, and their time was lengthen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which the Lord God gave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he gave commandment that all men must repent; for he showed unto all men that they were lost, because of the transgression of their parents.

And now, behold, if Adam had not transgressed he would not have fallen, but he would have remained in the garden of Eden. And all things which were created must have remained in the same state in which they were after they were created; and they must have remained forever, and had no end.

And they would have had no children; wherefore they would have remained in a state of innocence, having no joy, for they knew no misery; doing no good, for they knew no sin.

But behold, all things have been done in the wisdom of him who knoweth all things.

Adam fell that men might be; and men are, that they might have joy.

And the Messiah cometh in the fulness of time, that he may redeem the children of men from the fall. And because that they are redeemed from the fall they have become free forever, knowing good from evil; to act for themselves and not to be acted upon, save it be by the punishment of the law at the great and last day,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which God hath given.

Wherefore, men are free according to the flesh; and all things are given them which are expedient unto man. And they are free to choose liberty and eternal life, through the great Mediator of all men, or to choose captivity and death, according to the captivity and power of the devil; for he seeketh that all men might be miserable like unto himself.



28 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크신 중 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그의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하고,

29 또 육체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악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지 않기 바라노니, 그러한 것은 악마의 영에게 너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그로 자기의 왕국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느니라.

30 나의 아들들아, 나는 나의 시험의 날의 마지막 때에 너희 모두에게 이 몇 마디 말을 하였노니, 나는 선지자의 말을 좇아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나는 너희 영혼의 영원한 복리 이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And now, my sons, I would that ye should look to the great Mediator, and hearken unto his great commandments; and be faithful unto his words, and choose eternal life, according to the will of his Holy Spirit;

And not choose eternal death,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flesh and the evil which is therein, which giveth the spirit of the devil power to captivate, to bring you down to hell, that he may reign over you in his own kingdom.

I have spoken these few words unto you all, my sons, in the last days of my probation; and I have chosen the good part,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 And I have none other object save it be the everlasting welfare of your souls. Amen.

## 니파이후서 3

- 1 그리고 이제 나의 막내아들 요셉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내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나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
- 2 또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계명을 지킬 진대, 주께서 가장 귀한 땅인 이 땅을 너를 위하여 또한 성별하시, 네 형들과 함께 네 기업과 네 자손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너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 3 또 이제 내가 내 고난의 광야에서 인도해 나온 나의 막내아들 요셉아, 주께서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네 자손이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4 이는 보라, 너는 내 허리의 열매요, 나는 애굽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던 요셉의 후손이니, 요셉에게 맺으신 주의 성약이 참으로 컸도다.
- 5 그리하여 요셉은 진실로 우리의 날을 보았으며 그는 주께 한 약속을 얻었나니, 곧 그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라. 메시야가 아니요, 꺾어져 나올 가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약 안에서 기억되리니, 곧 메시야가 후일에 권능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참으로 숨겨진 어둠에서와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움으로 인도해 내셨다 하신 것이라.
- 6 이는 요셉이 진실로 증거하여 이르되,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 7 진실로 요셉이 말하기를, 이같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키리니, 그가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그에게 내가 명령을 주어 네 허리의 열매,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인즉 이는 그들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과 맺은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기에 이르리라.

## 2 Nephi 3

And now I speak unto you, Joseph, my last-born. Thou wast born in the wilderness of mine afflictions; yea, in the days of my greatest sorrow did thy mother bear thee.

And may the Lord consecrate also unto thee this land, which is a most precious land, for thine inheritance and the inheritance of thy seed with thy brethren, for thy security forever, if it so be that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Holy One of Israel.

And now, Joseph, my last-born, whom I have brought out of the wilderness of mine afflictions, may the Lord bless thee forever, for thy seed shall not utterly be destroyed.

For behold, thou art the fruit of my loins; and I am a descendant of Joseph who was carried captive into Egypt. And great were the covenants of the Lord which he made unto Joseph.

Wherefore, Joseph truly saw our day. And he obtained a promise of the Lord, that out of the fruit of his loins the Lord God would raise up a righteous branch unto the house of Israel; not the Messiah, but a branch which was to be broken off, nevertheless, to be remembered in the covenants of the Lord that the Messiah should be made manifest unto them in the latter days, in the spirit of power, unto the bringing of them out of darkness unto light—yea, out of hidden darkness and out of captivity unto freedom.

For Joseph truly testified, saying: A seer shall the Lord my God raise up, who shall be a choice seer unto the fruit of my loins.

Yea, Joseph truly said: Thus saith the Lord unto me: A choice seer will I raise up out of the fruit of thy loins; and he shall be esteemed highly among the fruit of thy loins. And unto him will I give commandment that he shall do a work for the fruit of thy loins, his brethren, which shall be of great worth unto them, even to the bringing of them to the knowledge of the covenants which I have made with thy fathers.

- 8 또 나는 그에게 명령을 주어 내가 그에게 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눈에 크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임이니라.
- 9 또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말한 자니라.
- 10 또 모세를 내가 일으켜 너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리라.
- 11 그러나 한 선견자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 중에서 일으켜,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 나의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나아갔을 나의 말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2 그런즉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다. 네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과 또한 유다의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이 함께 자라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 다툼을 가라앉히며,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후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3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곧 나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시작될 날에 너를 회복하기에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4 또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선견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니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좌절될 것이다. 이는 내 허리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주께 얻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 15 또 그의 이름은 나를 따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또 그는 나와 같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일이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하였느니라.

And I will give unto him a commandment that he shall do none other work, save the work which I shall command him. And I will make him great in mine eyes; for he shall do my work.

And he shall be great like unto Moses, whom I have said I would raise up unto you, to deliver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Moses will I raise up, to deliver thy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But a seer will I raise up out of the fruit of thy loins; and unto him will I give power to bring forth my word unto the seed of thy loins—and not to the bringing forth my word only, saith the Lord, but to the convincing them of my word, which shall have already gone forth among them.

Wherefore, the fruit of thy loins shall write; and the fruit of the loins of Judah shall write; and that which shall be written by the fruit of thy loins, and also that which shall be written by the fruit of the loins of Judah, shall grow together, unto the confounding of false doctrines and laying down of contentions, and establishing peace among the fruit of thy loins, and bringing them to the knowledge of their fathers in the latter days, and also to the knowledge of my covenants, saith the Lord.

And out of weakness he shall be made strong, in that day when my work shall commence among all my people, unto the restoring thee, O house of Israel, saith the Lord.

And thus prophesied Joseph, saying: Behold, that seer will the Lord bless; and they that seek to destroy him shall be confounded; for this promise, which I have obtained of the Lord, of the fruit of my loins, shall be fulfilled. Behold, I am sure of the fulfilling of this promise;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after me; and it shall be after the name of his father. And he shall be like unto me; for the thing, which the Lord shall bring forth by his hand, by the power of the Lord shall bring my people unto salvation.

- 16 참으로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되, 내가 모세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같이 나는 이 일에 관하여 확신하노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하셨음이라.
- 17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라 하는 자를 일으키고 권능을 막대기에 실어 그에게 줄 것이며, 기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그에게 주리라. 그러할 지라도 내가 그의 혀를 풀어 말을 많이 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말에 능한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친히 내 손가락으로 나의 율법을 적어 그에게 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대변자를 만들어 주리라 하셨더라.
- 18 주께서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대변자를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보라, 내가 그로 하여금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네 허리의 대변자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리라.
- 19 또 그가 기록할 말은 나의 지혜 안에서 네 허리의 열매에게 나아가기에 합당한 말일 것이며, 이는 마치 네 허리의 열매가 티끌에서 그들에게 외친 것과 같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신앙을 앎이니라.
- 20 또 그들이 티끌에서 참으로 회개를 그들의 형제들에게 외치리니, 곧 그들에게 있어 여러 세대가 지난 후일 것이며,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말의 단순함을 좇아 나아갈 것이라.
- 21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내 입에서 나와, 네 허리의 열매인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를 것이요, 그들의 말의 연약함을 내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강하게 하여, 내가 네 조상들과 맺은 나의 성약을 기억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 22 이제 보라, 나의 아들 요셉아, 참으로 이와 같이 나의 옛 조상이 예언하였느니라.
- 23 그런즉 이 성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 씨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이 그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임이니라.

Yea, thus prophesied Joseph: I am sure of this thing, even as I am sure of the promise of Moses; for the Lord hath said unto me, I will preserve thy seed forever.

And the Lord hath said: I will raise up a Moses; and I will give power unto him in a rod; and I will give judgment unto him in writing. Yet I will not loose his tongue, that he shall speak much, for I will not make him mighty in speaking. But I will write unto him my law, by the finger of mine own hand; and I will make a spokesman for him.

And the Lord said unto me also: I will raise up unto the fruit of thy loins; and I will make for him a spokesman. And I, behold, I will give unto him that he shall write the writing of the fruit of thy loins, unto the fruit of thy loins; and the spokesman of thy loins shall declare it.

And the words which he shall write shall be the words which are expedient in my wisdom should go forth unto the fruit of thy loins. And it shall be as if the fruit of thy loins had cried unto them from the dust; for I know their faith.

And they shall cry from the dust; yea, even repentance unto their brethren, even after many generations have gone by them.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ir cry shall go, even according to the simplicity of their words.

Because of their faith their words shall proceed forth out of my mouth unto their brethren who are the fruit of thy loins; and the weakness of their words will I make strong in their faith, unto the remembering of my covenant which I made unto thy fathers.

And now, behold, my son Joseph, after this manner did my father of old prophesy.

Wherefore, because of this covenant thou art blessed; for thy seed shall not be destroyed, for they shall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book.

24 또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하나 일어나, 말과 행사로 많은 선을 행하리니, 심히 큰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놀라운 기사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저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집과 네 형제의 자손들에게 많은 회복을 가져오리라.

25 또 이제 요셉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보라, 너는 어리니 그런즉 너의 형 니파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내가 한 말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죽어 가는 네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라. 아멘.

And there shall rise up one mighty among them, who shall do much good, both in word and in deed, being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God, with exceeding faith, to work mighty wonders, and do that thing which is great in the sight of God, unto the bringing to pass much restoration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unto the seed of thy brethren.

And now, blessed art thou, Joseph. Behold, thou art little; wherefore hearken unto the words of thy brother, Nephi, and it shall be done unto thee even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Remember the words of thy dying father. Amen.

## 니파이후서 4

- 1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바,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 말하노라.
- 2 이는 보라, 그가 진실로 그의 모든 자손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록한 예언으로 말하자면 더 큰 예언이 많지 아니하도다. 또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장래 세대에 관하여 예언하였나니, 그러한 것은 놋쇠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 3 그리하여 나의 부친은 요셉의 예언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레이만의 자녀들 곧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맏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노라.
- 4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 5 그러나 보라,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아, 내가 너희 위에 축복을 남기지 않고서는 나의 무덤에 내려갈 수 없나니, 이는 보라,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에서 양육을 받으면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앎이라.
- 6 그런즉 만일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면,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축복을 남기노니, 그 저주가 너희에게서 거두어져 너희 부모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라.
- 7 그런즉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망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런즉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레이만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레뮤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에게 데려오게 하시더라.

## 2 Nephi 4

And now, I, Nephi, speak concerning the prophecies of which my father hath spoken, concerning Joseph, who was carried into Egypt.

For behold, he truly prophesied concerning all his seed. And the prophecies which he wrote, there are not many greater. And he prophesied concerning us, and our future generations; and they are written upon the plates of brass.

Wherefore, after my father had made an end of speaking concerning the prophecies of Joseph, he called the children of Laman,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said unto them: Behold, my sons, and my daughters, who are the sons and the daughters of my firstborn, I would that ye should give ear unto my words.

For the Lord God hath said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be cut off from my presence.

But behold, my sons and my daughters, I cannot go down to my grave save I should leave a blessing upon you; for behold, I know that if ye are brought up in the way ye should go ye will not depart from it.

Wherefore, if ye are cursed, behold, I leave my blessing upon you, that the cursing may be taken from you and be answered upon the heads of your parents.

Wherefore, because of my blessing the Lord God will not suffer that ye shall perish; wherefore, he will be merciful unto you and unto your seed forever.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y father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o the sons and daughters of Laman, he caused the sons and daughters of Lemuel to be brought before him.

- 9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보라, 나의 둘째 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레이만의 아들과 딸들에게 남겨 준 것과 똑같은 축복을 남기노라. 그런즉 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나서, 보라, 그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또한 참으로 그의 모든 권속에게 말씀하셨느니라.
- 11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그는 샘에게 일러 이르되, 너와 네 자손이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네 아우 니파이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또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는 참으로 너의 아우와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같을 것이요, 너는 네 모든 날 동안 복을 받으리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자기 마음의 느낌과 그의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따라, 그의 모든 권속에게 말씀하신 후 부친은 노쇠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이 죽어 장사되니라.
-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의 죽음 이후 여러 날 되지 아니하여, 레이만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주의 훈계로 인하여 내게 성을 내었더라.
- 14 이는 나 니파이가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았음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였음이요, 나의 부친도 그가 죽기 이전에 역시 그리하셨음이니, 그 말한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은 나의 다른 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는 보다 역사에 관한 부분은 나의 다른 판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 15 그리고 이 판에는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놋쇠 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 16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And he spake unto them, saying: Behold, my sons and my daughters, who are the sons and the daughters of my second son; behold I leave unto you the same blessing which I left unto the sons and daughters of Laman; wherefore, thou shalt not utterly be destroyed; but in the end thy seed shall be blesse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y father had made an end of speaking unto them, behold, he spake unto the sons of Ishmael, yea, and even all his household.

And after he had made an end of speaking unto them, he spake unto Sam, saying: Blessed art thou, and thy seed; for thou shalt inherit the land like unto thy brother Nephi. And thy seed shall be numbered with his seed; and thou shalt be even like unto thy brother, and thy seed like unto his seed; and thou shalt be blessed in all thy days.

And it came to pass after my father, Lehi, had spoken unto all his household, according to the feelings of his heart and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was in him, he waxed ol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ed, and was buried.

And it came to pass that not many days after his death, Laman and Lemuel and the sons of Ishmael were angry with me because of the admonitions of the Lord.

For I, Nephi, was constrained to speak unto them, according to his word; for I had spoken many things unto them, and also my father, before his death; many of which sayings are written upon mine other plates; for a more history part are written upon mine other plates.

And upon these I write the things of my soul, and many of the scriptures which a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For my soul delighteth in the scriptures, and my heart pondereth them, and writeth them for the learning and the profit of my children.

Behold, my soul delighteth in the things of the Lord; and my heart pondereth continually upon the things which I have seen and heard.

- 17 그러나 주께서 크게 선을 베푸사, 나에게 그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셨음에도 나의 마음은 부르짖기를,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 18 나는 나를 것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도다.
- 19 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 20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큰 깊음의 물 위에서 나를 보전하셨도다.
- 21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
- 22 그는 나의 원수들을 파하시, 그들로 내 앞에서 크게 떨게 하셨도다.
- 23 보라, 그는 낮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밤에는 시현으로 내게 지식을 주셨도다.
- 24 또 낮으로 내가 그의 앞에 힘있는 기도로써 담대해지되, 참으로 나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 보내었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도다.
- 25 또 그의 영의 날개 위에 내 몸이 실려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이르렀고, 내 눈이 큰 일들을 목격하였나니, 참으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일이라. 그런 고로 내가 그것을 기록하지 말도록 명하심을 받았도다.
- 26 오 그러면 내가 그토록 큰 일을 보았을진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낮추어 내려오사 그토록 많은 자비로 사람들을 찾아 주셨을진대, 어찌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울며, 내 영혼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며, 내 육신이 소진되며, 내 힘이 풀려야 하느냐?
- 27 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죄에 굴복해야 하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내가 유혹에 저서 저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자리잡고 내 평화를 깨뜨리며 내 영혼을 괴롭히게 하여야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원수로 인하여 노하느냐?

Nevertheless, notwithstanding the great goodness of the Lord, in showing me his great and marvelous works, my heart exclaimeth: O wretched man that I am! Yea, my heart sorroweth because of my flesh; my soul grieveth because of mine iniquities.

I am encompassed about, because of the temptations and the sins which do so easily beset me.

And when I desire to rejoice, my heart groaneth because of my sins; nevertheless, I know in whom I have trusted.

My God hath been my support; he hath led me through mine afflictions in the wilderness; and he hath preserved me upon the waters of the great deep.

He hath filled me with his love, even unto the consuming of my flesh.

He hath confounded mine enemies, unto the causing of them to quake before me.

Behold, he hath heard my cry by day, and he hath given me knowledge by visions in the night-time.

And by day have I waxed bold in mighty prayer before him; yea, my voice have I sent up on high; and angels came down and ministered unto me.

And upon the wings of his Spirit hath my body been carried away upon exceedingly high mountains. And mine eyes have beheld great things, yea, even too great for man; therefore I was bidden that I should not write them.

O then, if I have seen so great things, if the Lord in his condescension unto the children of men hath visited men in so much mercy, why should my heart weep and my soul linger in the valley of sorrow, and my flesh waste away, and my strength slacken, because of mine afflictions?

And why should I yield to sin, because of my flesh? Yea, why should I give way to temptations, that the evil one have place in my heart to destroy my peace and afflict my soul? Why am I angry because of mine enemy?



- 28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  
지 말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내  
영혼의 원수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  
다.
- 29 내 원수로 인하여 다시는 노하지 말지어다. 나  
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힘을 풀리게 말지어다.
- 30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주께 부르짖  
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참으로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반  
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할지어다.
- 31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구속해 주시겠나이까?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나이까? 나  
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  
까?
- 32 내 마음이 상하였고 나의 심령이 통회하오니,  
지옥의 문이 내 앞에서 내내 닫혀 있기를 원하나  
이다! 주여, 주의 의의 문을 내 앞에서 닫지 마시  
어, 나로 낮은 골짜기 길로 행하게 하시옵고 나로  
평탄한 길에 바로 있게 하시옵소서!
- 33 주여, 나를 주의 의의 옷 안에 감싸주시겠나이  
까! 주여, 내 원수들 앞에서 나의 피할 길을 내 주  
시겠나이까! 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여 주시  
겠나이까! 나의 길에 거치는 돌을 두지 마시옵고,  
도리어 나의 길을 내 앞에서 치워 주시오며, 나의  
길을 막지 마시옵고 나의 원수의 길을 막아 주시  
옵소서.
- 34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  
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  
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육신의 팔에 자기  
의 신뢰를 두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앎이니  
이다. 참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신뢰를 두는 자, 곧  
육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았나이  
다.
- 35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리이다. 참으로 내가 잘못 구하지  
아니할진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니 그러므  
로 내가 주께 나의 음성을 높이리이다. 참으로 내  
가 주께 곧 나의 하나님 내 의의 반석에게 부르짖  
으리이다. 보소서, 나의 음성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께 영원토록 올라가  
리이다. 아멘.

Awake, my soul! No longer droop in sin. Rejoice,  
O my heart, and give place no more for the enemy of  
my soul.

Do not anger again because of mine enemies. Do  
not slacken my strength because of mine afflictions.

Rejoice, O my heart, and cry unto the Lord, and  
say: O Lord, I will praise thee forever; yea, my soul  
will rejoice in thee, my God, and the rock of my sal-  
vation.

O Lord, wilt thou redeem my soul? Wilt thou de-  
liver me out of the hands of mine enemies? Wilt thou  
make me that I may shake at the appearance of sin?

May the gates of hell be shut continually before  
me, because that my heart is broken and my spirit is  
contrite! O Lord, wilt thou not shut the gates of thy  
righteousness before me, that I may walk in the path  
of the low valley, that I may be strict in the plain  
road!

O Lord, wilt thou encircle me around in the robe  
of thy righteousness! O Lord, wilt thou make a way  
for mine escape before mine enemies! Wilt thou  
make my path straight before me! Wilt thou not  
place a stumbling block in my way—but that thou  
wouldst clear my way before me, and hedge not up  
my way, but the ways of mine enemy.

O Lord, I have trusted in thee, and I will trust in  
thee forever. I will not put my trust in the arm of  
flesh; for I know that cursed is he that putteth his  
trust in the arm of flesh. Yea, cursed is he that put-  
teth his trust in man or maketh flesh his arm.

Yea, I know that God will give liberally to him that  
asketh. Yea, my God will give me, if I ask not amiss;  
therefore I will lift up my voice unto thee; yea, I will  
cry unto thee, my God, the rock of my righteousness.  
Behold, my voice shall forever ascend up unto thee,  
my rock and mine everlasting God. Amen.

## 니파이후서 5

- 1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제들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주 나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더라.
- 2 그러나 보라, 나에게 대한 그들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 이윽고 그들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 3 참으로 그들은 나에게 불평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아우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생각하는도다.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그런즉 이제 그를 죽여 더 이상 그의 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는 보라, 우리는 그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형들인 우리에게 속해 있음이니라 하더라.
- 4 이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불평한 말들을 모두 이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나로서는 그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나에게 경고하사,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서 떠나 광야로 도망하고,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들도 모두 그리하라 하셨느니라.
- 6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가족과 또한 조램과 그의 가족과 나의 형 샘과 그의 가족과 나의 동생 야곱과 요셉과 또한 나의 누이들과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 모두를 취하였느니라. 또 나와 함께 가려 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믿는 자들이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 7 이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과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취하고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나니,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여행하고 난 후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쳤느니라.
- 8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 곳 이름을 니파이라 부르기 원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곳을 니파이라 불렀느니라.
- 9 또 나와 함께 한 자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니파이 백성이라 칭하기로 하였더라.

## 2 Nephi 5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cry much unto the Lord my God, because of the anger of my brethren.

But behold, their anger did increase against me, insomuch that they did seek to take away my life.

Yea, they did murmur against me, saying: Our younger brother thinks to rule over us; and we have had much trial because of him; wherefore, now let us slay him, that we may not be afflicted more because of his words. For behold, we will not have him to be our ruler; for it belongs unto us, who are the elder brethren, to rule over this people.

Now I do not write upon these plates all the words which they murmured against me. But it sufficeth me to say, that they did seek to take away my lif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warn me, that I, Nephi, should depart from them and flee into the wilderness, and all those who would go with me.

W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take my family, and also Zoram and his family, and Sam, mine elder brother and his family, and Jacob and Joseph, my younger brethren, and also my sisters, and all those who would go with me. And all those who would go with me were those who believed in the warnings and the revelations of God; wherefore, they did hearken unto my words.

And we did take our tents and whatsoever things were possible for us, and did journey in the wilderness for the space of many days. And after we had journeyed for the space of many days we did pitch our tents.

And my people would that we should call the name of the place Nephi; wherefore, we did call it Nephi.

And all those who were with me did take upon them to call themselves the people of Nephi.

10 그리고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일에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더라.

11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시 거두었음이라. 또 우리는 양 떼와 소 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였느니라.

12 또한 나 니파이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과 또한 기록된 대로 나의 부친을 위하여 주의 손으로 예비되었던 공, 곧 나침반도 가져왔느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 땅에서 심히 번성하며 불어나기 시작하였느니라.

14 또 나 니파이는 라반의 검을 취하여 그 방식을 따라 검을 많이 만들었나니, 혹 이제 레이맨인이라 일컫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닥쳐 우리를 멸할까 염려하였음이라. 이는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증오를 내가 알고 있었음이라.

15 또 나는 나의 백성들을 가르쳐 건물을 짓게 하였고, 대단히 풍부하게 있던 나무와 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과 금과 은과 귀한 광물들을 온갖 방식으로 다루게 하였느니라.

16 또 나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나니, 내가 이를 솔로몬 성전의 방식을 따라 건축하였으되 다만 그것이 것처럼 많은 귀한 것들로 지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지어질 수는 없었으나, 그 건축 방식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으며 그 솜씨가 심히 정교하였느니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근면하게 하였고,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였느니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그러나 나 니파이는 그들이 왕을 두지 않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능력 안에 있는 바를 따라 그들을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And we did observe to keep the judgments, and the statutes, and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in all thing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the Lord was with us; and we did prosper exceedingly; for we did sow seed, and we did reap again in abundance. And we began to raise flocks, and herds, and animals of every kind.

And I, Nephi, had also brought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brass; and also the ball, or compass, which was prepared for my father by the hand of the Lord, according to that which is written.

And it came to pass that we began to prosper exceedingly, and to multiply in the land.

And I, Nephi, did take the sword of Laban, and after the manner of it did make many swords, lest by any means the people who were now called Lamanites should come upon us and destroy us; for I knew their hatred towards me and my children and those who were called my people.

And I did teach my people to build buildings, and to work in all manner of wood, and of iron, and of copper, and of brass, and of steel, and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precious ores, which were in great abundance.

And I, Nephi, did build a temple; and I did construct it after the manner of the temple of Solomon save it were not built of so many precious things; for they were not to be found upon the land, wherefore, it could not be built like unto Solomon's temple. But the manner of the construction was like unto the temple of Solomon; and the workmanship thereof was exceedingly fine.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cause my people to be industrious, and to labor with their han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ould that I should be their king. But I, Nephi, was desirous that they should have no king; nevertheless, I did for them according to that which was in my power.

- 19 또 보라, 주께서 나의 형제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 곧 내가 그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될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었나니,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을 때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었던 것이더라.
- 20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곧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기를, 그들이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것이라. 그런즉 보라,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 21 또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혹독한 저주라. 이는 보라, 그들이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이 마치 부싷돌같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회고 심히 곱고 기뻐할 만하였던지라,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꾀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는 검은 빛깔의 피부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더라.
- 22 또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로 하여금 네 백성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하리라.
- 23 또 그들의 씨와 섞는 자의 씨도 저주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똑같은 저주로 저주받을 것임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 24 또 그들에게 임한 그들의 저주로 인하여, 그들은 악행과 간교가 가득한 게으른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사냥 짐승을 찾아다니더라.
- 25 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네 자손에게 채찍이 되어 저들을 일깨워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요, 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저들을 채찍질하여 멸망하게 하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그들로 내 백성의 땅의 제사와 교사가 되게 하였느니라.
-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And behold, the words of the Lord had been fulfilled unto my brethren, which he spake concerning them, that I should be their ruler and their teacher. Wherefore, I had been their ruler and their teacher,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until the time they sought to take away my life.

Wherefore, the word of the Lord was fulfilled which he spake unto me, saying that: Inasmuch as they will not hearken unto thy words they shall b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behold, they were cut off from his presence.

And he had caused the cursing to come upon them, yea, even a sore cursing, because of their iniquity. For behold, they had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him, that they had become like unto a flint; wherefore, as they were white, and exceedingly fair and delightsome, that they might not be enticing unto my people the Lord God did cause a skin of blackness to come upon them.

And thus saith the Lord God: I will cause that they shall be loathsome unto thy people, save they shall repent of their iniquities.

And cursed shall be the seed of him that mixeth with their seed; for they shall be cursed even with the same cursing. And the Lord spake it, and it was done.

And because of their cursing which was upon them they did become an idle people, full of mischief and subtlety, and did seek in the wilderness for beasts of prey.

And the Lord God said unto me: They shall be a scourge unto thy seed, to stir them up in remembrance of me; and inasmuch as they will not remember me, and hearken unto my words, they shall scourge them even unto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I, Nephi, did consecrate Jacob and Joseph, that they should be priests and teachers over the land of my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lived after the manner of happiness.

28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는 삼십 년이 지나갔더라.

29 또 나 니파이는 내가 만든 나의 판에 나의 백성에 대하여 기록을 계속하여 왔었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다른 판을 만들라. 그리고 너는 네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나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위에 많이 새길지니라 하시더라.

31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가서 이 판을 만들어 그 위에 이러한 것들을 새겼느니라.

32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새겼나니, 만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들은 이 판에 내가 새긴 것들을 기쁘게 여기리라.

33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의 역사의 더 상세한 부분을 알기 원한다면, 그들은 나의 다른 판을 찾아보아야만 하리라.

34 그리고 나로서는 사십 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니,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형제들과 전쟁과 다툼을 가졌느니라.

And thirty years had passed away from the time we left Jerusalem.

And I, Nephi, had kept the records upon my plates, which I had made, of my people thus fa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God said unto me: Make other plates; and thou shalt engraven many things upon them which are good in my sight, for the profit of thy people.

Wherefore, I, Nephi, to be obedient to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ent and made these plates upon which I have engraven these things.

And I engraved that which is pleasing unto God. And if my people are pleased with the things of God they will be pleased with mine engravings which are upon these plates.

And if my people desire to know the more particular part of the history of my people they must search mine other plates.

And it sufficeth me to say that forty years had passed away, and we had already had wars and contentions with our brethren.

## 니파이후서 6

- 1 니파이의 동생 야곱의 말이니, 곧 그가 니파이의 백성에게 말한 것이라.
- 2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좇아 성임되었고, 너희가 왕이요 보호자로 바라보며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나의 형 니파이에 의하여 성별되었나니, 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심히 많은 것을 말하였음을 아느니라.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영혼의 복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이라. 참으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염려가 크니 항상 그러하여 왔음을 너희 스스로가 또한 아느니라. 이는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고, 나의 부친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세상의 창조로부터 기록된 모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라.
- 4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노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사야의 말을 읽어 주리라. 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기를 나의 형이 원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로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 5 또 이제 내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런즉 그것을 너희에게 비유함이 가하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이라. 또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이사야가 말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많으니라.
- 6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이여 올 것이니라.

## 2 Nephi 6

The words of Jacob, the brother of Nephi, which he spake unto the people of Nephi: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Jacob, having been called of God, and ordained after the manner of his holy order, and having been consecrated by my brother Nephi, unto whom ye look as a king or a protector, and on whom ye depend for safety, behold ye know that I have spoken unto you exceedingly many things.

Nevertheless, I speak unto you again; for I am desirous for the welfare of your souls. Yea, mine anxiety is great for you; and ye yourselves know that it ever has been. For I have exhorted you with all diligence; and I have taught you the words of my father; and I have spoken unto you concerning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now, behold, I would speak unto you concerning things which are, and which are to come; wherefore, I will read you the words of Isaiah. And they are the words which my brother has desired that I should speak unto you. And I speak unto you for your sakes, that ye may learn and glorify the name of your God.

And now, the words which I shall read are they which Isaiah spake concerning all the house of Israel; wherefore, they may be likened unto you, for ye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there are many things which have been spoken by Isaiah which may be likened unto you, because ye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now, these are the words: Thus saith the Lord God: Behold, I will lift up mine hand to the Gentiles, and set up my standard to the people; and they shall bring thy sons in their arms, and thy daughters shall be carried upon their shoulders.

- 7 또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그들의 왕후들은 네 양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으리니, 네가 나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8 이제 나 야곱은 이 말씀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이는 보라, 주께서 우리가 떠나온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갔음을 나에게 보여 주셨음이라.
-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으며, 또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육신으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나니, 그가 자기를 나타내신 후에 나에게 이를 말해 준 천사의 말에 따를진대,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 10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한 후에, 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이에 그들이 치심을 입으며 고난을 당할 날이 임하느니라.
- 11 그런즉 그들이 이리저리로 쫓기고 난 후, 이는 이같이 천사가 말함이라. 많은 자들이 육체로 고난을 당할 것이나, 충실한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멸망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되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리라.
- 12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보라, 그들이 회개하여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며, 저 크고 가증한 교회와 연합하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자기의 성약을 이루실 것임이니, 이 연고로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였느니라.

And kings shall be thy nursing fathers, and their queens thy nursing mothers; they shall bow down to thee with their faces towards the earth, and lick up the dust of thy feet; and thou shalt know that I am the Lord; for they shall not be ashamed that wait for me.

And now I, Jacob, would speak somewhat concerning these words. For behold, the Lord has shown me that those who were at Jerusalem, from whence we came, have been slain and carried away captive.

Nevertheless, the Lord has shown unto me that they should return again. And he also has shown unto me that the Lord God, the Holy One of Israel, should manifest himself unto them in the flesh; and after he should manifest himself they should scourge him and crucify him,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angel who spake it unto me.

And after they have hardened their hearts and stiffened their necks against the Holy One of Israel, behold, the judgments of the Holy One of Israel shall come upon them. And the day cometh that they shall be smitten and afflicted.

Wherefore, after they are driven to and fro, for thus saith the angel, many shall be afflicted in the flesh, and shall not be suffered to perish, because of the prayers of the faithful; they shall be scattered, and smitten, and hated; nevertheless, the Lord will be merciful unto them, that when they shall come to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they shall be gathered together again 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And blessed are the Gentiles, they of whom the prophet has written; for behold, if it so be that they shall repent and fight not against Zion, and do not unite themselves to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they shall be saved; for the Lord God will fulfil his covenants which he has made unto his children; and for this cause the prophet has written these things.

13 그런즉 시온과 주의 성약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그들의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요, 주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의 백성은 그를 기다리는 자들임이라. 이는 그들이 아직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14 또 보라, 선지자의 말에 따르건대, 메시아가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사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믿는 날이 이를 때, 그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15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불로, 또 폭풍우로, 또 지진으로, 또 유혈로, 또 역병으로, 또 기근으로, 멸망당하리니 그들이 주는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 것이라.

16 강한 자에게서 어찌 그 노략물을 빼앗으며 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를 어찌 건져 낼 수 있으리요?

17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강한 자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리라 하시나니, 이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약의 백성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다투는 자들과 다툴 것이요—

18 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일 것인즉, 그들은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주요, 네 구속주, 곧 야곱의 능한 자인 줄 알리라 하심이니라.

Wherefore, they that fight against Zion and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shall lick up the dust of their feet; and the people of the Lord shall not be ashamed. For the people of the Lord are they who wait for him; for they still wait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behold,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 the Messiah will set himself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them; wherefore, he will manifest himself unto them in power and great glory, unto the destruction of their enemies, when that day cometh when they shall believe in him; and none will he destroy that believe in him.

And they that believe not in him shall be destroyed, both by fire, and by tempest, and by earthquakes, and by bloodsheds, and by pestilence, and by famine. And they shall know that the Lord is God, the Holy One of Israel.

For shall the prey be taken from the mighty, or the lawful captive delivered?

But thus saith the Lord: Even the captives of the mighty shall be taken away, and the prey of the terrible shall be delivered; for the Mighty God shall deliver his covenant people. For thus saith the Lord: I will contend with them that contendeth with thee—

And I will feed them that oppress thee, with their own flesh; and they shall be drunken with their own blood as with sweet wine; and all flesh shall know that I the Lord am thy Savior and thy Redeemer, the Mighty One of Jacob.



## 니파이후서 7

- 1 참으로 그러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렸느냐, 혹 내가 너를 영원히 쫓아버렸느냐?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너희 어머니의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버렸느냐? 혹 나의 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참으로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스로 팔렸고, 너희의 범법으로 인하여 너희 어머니는 버리웠느니라.
- 2 그리하여 내가 왔을 때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 참으로 대답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손이 도무지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혹 내게 건질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내 꾸짖음으로 바다를 마르게 하며, 내가 그 강들로 광야가 되게 하고 물들이 말랐으므로 물고기가 갈증으로 인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하느니라.
- 3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입히며 굵은 베로 그 덮개를 삼느니라.
- 4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네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게 하셨나니, 너희가 피곤할 때에 그가 아침마다 깨우시되, 그가 나의 귀를 깨워 학자처럼 듣게 하시도다.
- 5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매,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돌아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 6 내가 때리는 자에게 나의 등을,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주었으며, 내가 모욕과 침 뱀음에서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 7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나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 8 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이다. 누가 나의 대적이냐? 그는 내게 가까이 올지니, 내가 내 입의 기운으로 그를 치리로다.
- 9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임이라. 또 나를 정죄할 자들은 모두, 보라, 그들은 모두 옷감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어 없애리라.

## 2 Nephi 7

Yea, for thus saith the Lord: Have I put thee away, or have I cast thee off forever? For thus saith the Lord: Where is the bill of your mother's divorcement? To whom have I put thee away, or to which of my creditors have I sold you? Yea, to whom have I sold you? Behold, for your iniquities have ye sold yourselves, and for your transgressions is your mother put away.

Wherefore, when I came, there was no man; when I called, yea, there was none to answer. O house of Israel, is my hand shortened at all that it cannot redeem, or have I no power to deliver? Behold, at my rebuke I dry up the sea, I make their rivers a wilderness and their fish to stink because the waters are dried up, and they die because of thirst.

I clothe the heavens with blackness, and I make sackcloth their covering.

The Lord God hath given me the tongue of the learned, that I should know how to speak a word in season unto thee, O house of Israel. When ye are weary he waketh morning by morning. He waketh mine ear to hear as the learned.

The Lord God hath opened mine ear, and I was not rebellious, neither turned away back.

I gave my back to the smiter, and my cheeks to them that plucked off the hair. I hid not my face from shame and spitting.

For the Lord God will help me, therefore shall I not be confounded. Therefore have I set my face like a flint, and I know that I shall not be ashamed.

And the Lord is near, and he justifieth me.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together. Who is mine adversary? Let him come near me, and I will smite him with the strength of my mouth.

For the Lord God will help me. And all they who shall condemn me, behold, all they shall wax old as a garment, and the moth shall eat them up.

10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11 보라 불을 켜고 불꽃으로 스스로를 두르는 너희 모두여, 너희의 불빛과 너희가 켜 불꽃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이 이것이라—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Who is among you that feareth the Lord, that obeyeth the voice of his servant, that walketh in darkness and hath no light?

Behold all ye that kindle fire, that compass yourselves about with sparks, walk in the light of your fire and in the sparks which ye have kindled. This shall ye have of mine hand—ye shall lie down in sorrow.

## 니파이후서 8

- 1 의를 좇는 너희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의 구멍을 생각해 보라.
-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그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는 내가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었음이니라.
- 3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인즉, 그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며, 그의 광야로 에덴 같게 또 그의 사막으로 주의 정원 같게 하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 4 내 백성이여, 내게 귀 기울여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이요, 내가 내 공의로 하여금 머물러 백성을 위한 빛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 5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내 팔에 그들이 의지하리라.
- 6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바라보라. 이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임이여니와,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 7 내게 귀 기울여 들으라, 의를 아는 너희여, 그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기록한 백성이여, 너희는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 8 이는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어 치울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 9 깨소서, 깨소서! 주의 팔이여, 힘을 입으소서, 옛날에 깨신 것처럼 하소서. 주는 라합을 베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그이가 아니시니이까?
- 10 주는 바다를 큰 깊음의 물들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사, 속함을 받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그이가 아니시니이까?

## 2 Nephi 8

Hearken unto me, ye that follow after righteousness. Look unto the rock from whence ye are hewn, and to the hole of the pit from whence ye are digged.

Look unto Abraham, your father, and unto Sarah, she that bare you; for I called him alone, and blessed him.

For the Lord shall comfort Zion, he will comfort all her waste places; and he will make her wilderness like Eden, and her desert like the garden of the Lord. Joy and gladness shall be found therein, thanksgiving and the voice of melody.

Hearken unto me, my people; and give ear unto me, O my nation; for a law shall proceed from me, and I will make my judgment to rest for a light for the people.

My righteousness is near; my salvation is gone forth, and mine arm shall judge the people. The isles shall wait upon me, and on mine arm shall they trust.

Lift up your eyes to the heavens, and look upon the earth beneath; for the heavens shall vanish away like smoke, and the earth shall wax old like a garment; and they that dwell therein shall die in like manner. But my salvation shall be forever, and my righteousness shall not be abolished.

Hearken unto me, ye that know righteousness, the people in whose heart I have written my law, fear ye not the reproach of men, neither be ye afraid of their revilings.

For the moth shall eat them up like a garment, and the worm shall eat them like wool. But my righteousness shall be forever, and my salv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wake, awake! Put on strength, O arm of the Lord; awake as in the ancient days. Art thou not he that hath cut Rahab, and wounded the dragon?

Art thou not he who hath dried the sea, the waters of the great deep; that hath made the depths of the sea a way for the ransomed to pass over?

- 11 그러므로 주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거룩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 12 나는 그니, 참으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그라. 보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 13 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은 자, 곧 너를 지은 자, 주를 잊으며 억압자의 분노로 인하여, 마치 그가 멸할 준비를 다 갖추거나 한 것처럼 매일 쉬지 않고 두려워하였느냐? 억압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 14 사로잡힌 유배자가 서두르나니 이는 그가 놓이려 함이라.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 15 그러나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 그 물결이 소리치게 한 자라 만군의 주가 나의 이름이니라.
- 16 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음은, 내가 하늘들을 세우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 17 주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네가 비틀어 짠 떨림의 잔의 찌끼를 다 마셨도다—
- 18 또 그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을 잡는 자도 없도다.
- 19 이 두 아들이 네게로 왔으니 이들이 너로 인하여 민망해 하리라. 곧 너의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니, 누구로 내가 너를 위로하랴?
- 20 이 둘 외에 네 아들들은 기진하였도다. 그들이 온 거리의 머리에 있으리니, 그물에 든 들소같이 그들에게 주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 21 그러므로 너 고난을 당하고 취하되 포도주로 말미암지 않고도 취한 자여, 이제 이를 들으라.

Therefore, the redeemed of the Lord shall return, and come with singing unto Zion; and everlasting joy and holiness shall be upon their heads; and they shall obtain gladness and joy; sorrow and mourning shall flee away.

I am he; yea, I am he that comforteth you. Behold, who art thou, that thou shouldst be afraid of man, who shall die, and of the son of man, who shall be made like unto grass?

And forgettest the Lord thy maker, that hath stretched forth the heavens, 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hast feared continually every day, because of the fury of the oppressor, as if he were ready to destroy? And where is the fury of the oppressor?

The captive exile hasteneth, that he may be loosed, and that he should not die in the pit, nor that his bread should fail.

But I am the Lord thy God, whose waves roared; the Lord of Hosts is my name.

And I have put my words in thy mouth, and have covered thee in the shadow of mine hand, that I may plant the heavens and lay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say unto Zion: Behold, thou art my people.

Awake, awake, stand up, O Jerusalem, which hast drunk at the hand of the Lord the cup of his fury—thou hast drunken the dregs of the cup of trembling wrung out—

And none to guide her among all the sons she hath brought forth; neither that taketh her by the hand, of all the sons she hath brought up.

These two sons are come unto thee, who shall be sorry for thee—thy desolation and destruction, and the famine and the sword—and by whom shall I comfort thee?

Thy sons have fainted, save these two; they lie at the head of all the streets; as a wild bull in a net, they are full of the fury of the Lord, the rebuke of thy God.

Therefore hear now this, thou afflicted, and drunken, and not with wine:

22 이같이 너의 주께서 이르시며 주 곧 네 하나님  
이 그의 백성을 위해 변호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떨림의 잔을, 나의 분노의 잔의 찌끼를 네 손에서  
취하였나니, 네가 다시는 더 이상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23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니, 그들은 네 영혼더러 이르기를, 굽히라, 우  
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이에 네가 넘어  
가는 그들에게 네 몸을 뉘어 땅 같게 그리고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24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  
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  
정한 자들이 더 이상 네게로 들어오지 아니할 것  
임이니라.

25 티끌에서 스스로를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  
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  
여, 네 목의 줄에서 스스로를 풀지어다.

Thus saith thy Lord, the Lord and thy God plead-  
eth the cause of his people; behold, I have taken out  
of thine hand the cup of trembling, the dregs of the  
cup of my fury; thou shalt no more drink it again.

But I will put it into the hand of them that afflict  
thee; who have said to thy soul: Bow down, that we  
may go over—and thou hast laid thy body as the  
ground and as the street to them that went over.

Awake, awake, put on thy strength, O Zion; put on  
thy beautiful garments, O Jerusalem, the holy city;  
for henceforth there shall no more come into thee  
the uncircumcised and the unclean.

Shake thyself from the dust; arise, sit down, O  
Jerusalem; loose thyself from the bands of thy neck,  
O captive daughter of Zion.

## 니파이후서 9

- 1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읽었음은, 너희로 하여금 주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 맺으신 바 주의 성약에 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 2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니, 곧 태초부터 내려와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게로 회복될 때가 이르기까지, 곧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확립될 때까지라.
- 3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 위에 내리실 축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영원토록 너희 머리를 들게 하려 함이니라.
- 4 이는 너희 곧 너희 많은 이가 장차 이를 일을 알고자 많이 탐구하였음을 내가 앎이라. 그런즉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죽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 내가 아노라.
- 5 참으로 그가 친히 우리가 떠나 온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함이니, 이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만인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육체로 자신을 사람에게 붙이사 복종하시고 만인을 위하여 죽으심이 마땅함이라.
- 6 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라. 또 타락은 범법의 연고로 왔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 2 Nephi 9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have read these things that ye might know concerning the covenants of the Lord that he has covenanted with all the house of Israel—

That he has spoken unto the Jews,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even from the beginning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until the time comes that they shall be restored to the true church and fold of God; when they shall be gathered home 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and shall be established in all their lands of promise.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speak unto you these things that ye may rejoice, and lift up your heads forever, because of the blessings which the Lord God shall bestow upon your children.

For I know that ye have searched much, many of you, to know of things to come; wherefore I know that ye know that our flesh must waste away and die; nevertheless, in our bodies we shall see God.

Yea, I know that ye know that in the body he shall show himself unto those at Jerusalem, from whence we came; for it is expedient that it should be among them; for it behooveth the great Creator that he suffereth himself to become subject unto man in the flesh, and die for all men, that all men might become subject unto him.

For as death hath passed upon all men, to fulfil the merciful plan of the great Creator, there must needs be a power of resurrection, and the resurrection must needs come unto man by reason of the fall; and the fall came by reason of transgression; and because man became fallen they wer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 7 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필연코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 8 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여! 이는 보라,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임이라.
- 9 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니,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짓의 아비와 함께 머물며 그 자신처럼 비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참으로 우리의 첫째 부모를 속인 존재에게니,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에 가깝게 변형시켜,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살인 비밀 결사를 만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도다.
- 10 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니, 이를 내가 육신의 사망이요 또한 영의 사망이라 일컫는도다.
- 11 이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구제의 방편으로 인하여 내가 말한 바, 현세적 사망인 이 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 사망은 곧 무덤이니라.
- 12 또 내가 말한 바 영적 사망인 이 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 영적 사망은 곧 지옥이니라. 그런즉 사망과 지옥이 그 죽은 자를 반드시 내놓으리니, 지옥이 그 사로잡은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그 사로잡은 육신을 반드시 내놓으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의 육신과 영은 서로에게로 회복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한 것이니라.

Wherefore, it must needs be an infinite atonement—save it should be an infinite atonement this corruption could not put on incorruption. Wherefore, the first judgment which came upon man must needs have remained to an endless duration. And if so, this flesh must have laid down to rot and to crumble to its mother earth, to rise no more.

O the wisdom of God, his mercy and grace! For behold, if the flesh should rise no more our spirits must become subject to that angel who fell from before the presence of the Eternal God, and became the devil, to rise no more.

And our spirits must have become like unto him, and we become devils, angels to a devil, to be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our God, and to remain with the father of lies, in misery, like unto himself; yea, to that being who beguiled our first parents, who transformeth himself nigh unto an angel of light, and stirreth up the children of men unto secret combinations of murder and all manner of secret works of darkness.

O how great the goodness of our God, who prepareth a way for our escape from the grasp of this awful monster; yea, that monster, death and hell, which I call the death of the body, and also the death of the spirit.

And because of the way of deliverance of 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this death, of which I have spoken, which is the temporal, shall deliver up its dead; which death is the grave.

And this death of which I have spoken, which is the spiritual death, shall deliver up its dead; which spiritual death is hell; wherefore, death and hell must deliver up their dead, and hell must deliver up its captive spirits, and the grave must deliver up its captive bodies, and the bodies and the spirits of men will be restored one to the other; and it is b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of the Holy One of Israel.

13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의인들의 몸을 반드시 내놓을 것임이라. 그리하여 영과 육신이 그 자체로 다시 회복되어, 만인은 썩지 않을 것과 불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라, 육체로 있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느니라.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이니라.

14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들은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겹옷으로 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15 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런 후에 심판이 임하나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라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16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또 이는 그의 영원한 말씀이라 사라질 수 없나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리라. 그런즉 더러운 자들은 악마요 그의 사자들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리니, 그들의 고통은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며, 끝이 없는 불과 유향의 못과 같으니라.

17 오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로우심이어! 이는 그가 그의 모든 말씀을 시행하심이며,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아갔고, 그의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음이라.

18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믿는 자들,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

O how great the plan of our God! For on the other hand, the paradise of God must deliver up the spirits of the righteous, and the grave deliver up the body of the righteous; and the spirit and the body is restored to itself again, and all men become incorruptible, and immortal, and they are living souls, having a perfect knowledge like unto us in the flesh, save it be that our knowledge shall be perfect.

Wherefore, we shall have a perfect knowledge of all our guilt, and our uncleanness, and our nakedness; and the righteous shall have a perfect knowledge of their enjoyment, and their righteousness, being clothed with purity, yea, even with the robe of righteousnes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 all men shall have passed from this first death unto life, insomuch as they have become immortal, they must appear before the judgment-seat of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n cometh the judgment, and then must they be judged according to the holy judgment of God.

And assuredly, as the Lord liveth, for the Lord God hath spoken it, and it is his eternal word, which cannot pass away, that they who are righteous shall be righteous still, and they who are filthy shall be filthy still; wherefore, they who are filthy are the devil and his angels; and they shall go away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for them; and their torment is as a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ose flame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and has no end.

O the greatness and the justice of our God! For he executeth all his words, and they have gone forth out of his mouth, and his law must be fulfilled.

But, behold, the righteous, the saints of the Holy One of Israel, they who have believed in the Holy One of Israel, they who have endured the crosses of the world, and despised the shame of it, they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which was prepared for them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heir joy shall be full forever.



- 19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큼이여! 이는 그가 그의 성도들을 저 끔찍한 괴물 악마와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인 저 불과 유황의 못에서 건지심이라.
- 20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
- 21 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
- 22 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인에게 임하게 하사, 모두가 큰 심판의 날에 그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 23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느니라.
- 24 또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끝까지 견디려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라.
- 25 그런즉 그는 율법을 주셨나니, 주어진 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 형벌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으며, 정죄가 없는 곳에는 속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자비가 그들을 요구할 수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구제 받음이라.
- 26 이는 속죄가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그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저 끔찍한 괴물,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부터 구제 받으며,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회복됨이니라.

O the greatness of the mercy of 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For he delivereth his saints from that awful monster the devil, and death, and hell, and that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ich is endless torment.

O how great the holiness of our God! For he knoweth all things, and there is not anything save he knows it.

And he cometh into the world that he may save all men if they will hearken unto his voice; for behold, he suffereth the pains of all men, yea, the pains of every living creature, both men, women, and children, who belong to the family of Adam.

And he suffereth this that the resurrection might pass upon all men, that all might stand before him at the great and judgment day.

And he commandeth all men that they must repent, and be baptized in his name, having perfect faith in the Holy One of Israel, or they cannot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And if they will not repent and believe in his name, and be baptized in his name, and endure to the end, they must be damned; for the Lord God, the Holy One of Israel, has spoken it.

Wherefore, he has given a law; and where there is no law given there is no punishment; and where there is no punishment there is no condemnation; and where there is no condemnation the mercies of the Holy One of Israel have claim upon them, because of the atonement; for they are delivered by the power of him.

For the atonement satisfieth the demands of his justice upon all those who have not the law given to them, that they are delivered from that awful monster, death and hell, and the devil, and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ich is endless torment; and they are restored to that God who gave them breath, which is the Holy One of Israel.

- 27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참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화 있나니, 이는 그의 처지가 참담함이라.
- 28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매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 29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
- 30 그러나 세상의 것에 대하여 부유한 부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부유하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온유한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재물에 있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라. 보라, 그들의 재물이 또한 그들과 함께 멸망하리로다.
- 31 또 듣지 않으려는 귀먹은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 32 보지 않으려는 맹인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역시 멸망할 것임이라.
- 33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 34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지옥에 던지울 것임이라.
- 35 고의로 죽이는 살인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죽을 것임이라.
- 36 음행을 범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옥에 던지울 것임이라.
- 37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모든 악마 중의 악마가 그들을 기뻐함이라.
- 38 그리고 요컨대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얼굴을 보나, 자기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임이니라.

But wo unto him that has the law given, yea, that has all the commandments of God, like unto us, and that transgresseth them, and that wasteth the days of his probation, for awful is his state!

O that cunning plan of the evil one! O the vainness, and the frailties, and the foolishness of men! When they are learned they think they are wise, and they hearken not unto the counsel of God, for they set it aside, supposing they know of themselves, wherefore, their wisdom is foolishness and it profiteth them not. And they shall perish.

But to be learned is good if they hearken unto the counsels of God.

But wo unto the rich, who are rich as to the things of the world. For because they are rich they despise the poor, and they persecute the meek, and their hearts are upon their treasures; wherefore, their treasure is their god. And behold, their treasure shall perish with them also.

And wo unto the deaf that will not hear; for they shall perish.

Wo unto the blind that will not see; for they shall perish also.

Wo unto the uncircumcised of heart, for a knowledge of their iniquities shall smite them at the last day.

Wo unto the liar, for he shall be thrust down to hell.

Wo unto the murderer who deliberately killeth, for he shall die.

Wo unto them who commit whoredoms, for they shall be thrust down to hell.

Yea, wo unto those that worship idols, for the devil of all devils delighteth in them.

And, in fine, wo unto all those who die in their sins; for they shall return to God, and behold his face, and remain in their sins.

39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함이 무서움을 기억하고, 또한 저 교활한 자의 꾀에 굴복함이 무서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는 바가 육신에 속한즉 사망이요,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한즉 영원한 생이니라.

40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크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거스려 욕하게 됨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지으신 이의 말씀을 고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는 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41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 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42 또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에게는 그가 열어 주실 것이로되,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들로서,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부로 인하여 부풀어 오른 자들—참으로 그들은 그가 경멸히 여기시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 지극히 겸손하여지지 아니할진대, 그는 그들에게 열어 주지 아니하시리라.

43 도리어 지혜로운 자와 분별 있는 자들의 것이 그들에게서 영원토록 감추어지리니—곧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행복이라.

O, my beloved brethren, remember the awfulness in transgressing against that Holy God, and also the awfulness of yielding to the enticings of that cunning one. Remember, to be carnally-minded is death, and to be spiritually-minded is life eternal.

O, my beloved brethren, give ear to my words. Remember the greatness of the Holy One of Israel. Do not say that I have spoken hard things against you; for if ye do, ye will revile against the truth; for I have spoken the words of your Maker. I know that the words of truth are hard against all uncleanness; but the righteous fear them not, for they love the truth and are not shaken.

O then, my beloved brethren, come unto the Lord, the Holy One. Remember that his paths are righteous. Behold, the way for man is narrow, but it lieth in a straight course before him, and the keeper of the gate is the Holy One of Israel; and he employeth no servant there; and there is none other way save it be by the gate; for he cannot be deceived, for the Lord God is his name.

And whoso knocketh, to him will he open; and the wise, and the learned, and they that are rich, who are puffed up because of their learning, and their wisdom, and their riches—yea, they are they whom he despiseth; and save they shall cast these things away, and consider themselves fools before God, and come down in the depths of humility, he will not open unto them.

But the things of the wise and the prudent shall be hid from them forever—yea, that happiness which is prepared for the saints.

44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내 옷을 벗어 너희 앞에 흔드노라.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의 눈으로 나를 보아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만인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혼으로부터 너희의 죄악을 떨쳐 버리는 것을 목격하셨음과 내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며, 내가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45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를 단단히 결박하려는 자의 사슬을 떨쳐 버리라.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신 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46 공의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저 영화로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여 너희가 무서운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며, 너희의 참담한 죄를 완전히 기억하여,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나이다—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가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범법은 나의 것이오며, 악마가 나를 얻었으며, 나는 그의 끔찍한 비참의 희생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게 하라.

47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일들이 끔찍한 현실임을 너희에게 일깨움이 필요하나? 만일 너희 마음이 순결하였더라면 내가 너희 영혼을 썩레질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더라면 내가 진리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에게 명백하게 대하겠느냐?

48 보라, 만일 너희가 거룩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말할 것이나,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되 나를 교사로 보는지라, 너희에게 죄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라.

49 보라, 나의 영혼은 죄를 혐오하며, 나의 마음은 의를 기뻐하나니, 내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50 나의 형제들아, 오라, 목마른 자여, 너희는 다 물로 오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O, my beloved brethren, remember my words. Behold, I take off my garments, and I shake them before you; I pray the God of my salvation that he view me with his all-searching eye; wherefore, ye shall know at the last day, when all men shall be judged of their works, that the God of Israel did witness that I shook your iniquities from my soul, and that I stand with brightness before him, and am rid of your blood.

O, my beloved brethren, turn away from your sins; shake off the chains of him that would bind you fast; come unto that God who is the rock of your salvation.

Prepare your souls for that glorious day when justice shall be administered unto the righteous, even the day of judgment, that ye may not shrink with awful fear; that ye may not remember your awful guilt in perfectness, and be constrained to exclaim: Holy, holy are thy judgments, O Lord God Almighty—but I know my guilt; I transgressed thy law, and my transgressions are mine; and the devil hath obtained me, that I am a prey to his awful misery.

But behold, my brethren, is it expedient that I should awake you to an awful reality of these things? Would I harrow up your souls if your minds were pure? Would I be plain unto you according to the plainness of the truth if ye were freed from sin?

Behold, if ye were holy I would speak unto you of holiness; but as ye are not holy, and ye look upon me as a teacher, it must needs be expedient that I teach you the consequences of sin.

Behold, my soul abhorreth sin, and my heart delighteth in righteousness; and I will praise the holy name of my God.

Come, my brethren, every one that thirsteth, come ye to the waters; and he that hath no money, come buy and eat; yea,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 51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 52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낮으로는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고, 밤으로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라.
- 53 또 주의 성약이 얼마나 크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대한 그의 낮추어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또 그의 크심과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이 육신으로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그들을 보전하실 것이며, 장래 세대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 5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하기를 원하나, 내일 내가 내 말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공표하리라. 아멘.

Wherefore, do not spend money for that which is of no worth, nor your labor for that which cannot satisfy. Hearken diligently unto me, and remember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and come unto the Holy One of Israel, and feast upon that which perisheth not, neither can be corrupted, and let your soul delight in fatness.

Behold, my beloved brethren, remember the words of your God; pray unto him continually by day, and give thanks unto his holy name by night. Let your hearts rejoice.

And behold how great the covenants of the Lord, and how great his condescensions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because of his greatness, and his grace and mercy, he has promised unto us that our seed shall not utterly be destroyed, according to the flesh, but that he would preserve them; and in future generations they shall become a righteous branch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now, my brethren, I would speak unto you more; but on the morrow I will declare unto you the remainder of my words. Amen.

## 니파이후서 10

- 1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라, 이는 내가 말한 이 의로운 가지에 관한 것이라.
- 2 이는 보라, 우리가 얻은 약속들은 우리의 육체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임이라. 그런즉 나에게 보이신 바로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체로 멸망할 것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의 자손들은 회복되어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이르게 되리라.
- 3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그리스도 가—이는 간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음이라—유대인 가운데 세상의 보다 간악한 편인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는 그같이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불가피함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민족이 땅 위에 달리 없음이니라.
- 4 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큰 기적이 행하여지면, 그들이 회개하여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겠음이라.
- 5 그러나 사제술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목을 뺏뺏하게 하리니, 이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 6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기근과 역병과 유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멸망당하지 아니할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 7 그러나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성약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지상에서 육체로 회복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 8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요, 이방의 나라들은 내 눈에 크게 되어 그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데리고 나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2 Nephi 10

And now I, Jacob, speak unto you again, my beloved brethren, concerning this righteous branch of which I have spoken.

For behold, the promises which we have obtained are promises unto us according to the flesh; wherefore, as it has been shown unto me that many of our children shall perish in the flesh because of unbelief, nevertheless, God will be merciful unto many; and our children shall be restored, that they may come to that which will give them the tru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Wherefore, as I said unto you, it must needs be expedient that Christ—for in the last night the angel spake unto me that this should be his name—should come among the Jews, among those who are the more wicked part of the world; and they shall crucify him—for thus it behooveth our God, and there is none other nation on earth that would crucify their God.

For should the mighty miracles be wrought among other nations they would repent, and know that he be their God.

But because of priestcrafts and iniquities, they at Jerusalem will stiffen their necks against him, that he be crucified.

Wherefore, because of their iniquities, destructions, famines, pestilences, and bloodshed shall come upon them; and they who shall not be destroyed shall be scattered among all nations.

But behold, thus saith the Lord God: When the day cometh that they shall believe in me, that I am Christ, then have I covenanted with their fathers that they shall be restored in the flesh, upon the earth, un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y shall be gathered in from their long dispersion, from the isles of the sea, and from the four parts of the earth; and the nations of the Gentiles shall be great in the eyes of me, saith God, in carrying them forth 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 9 참으로 이방의 왕들은 그들에게 양부가 될 것이요, 그들의 왕후는 양모가 될 것인즉 이방인들에게 대한 주의 약속이 크도다. 이는 그가 이것을 말씀하셨음이니 누가 논박할 수 있느냐?
- 10 그러나 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네 기업의 땅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으리라.
- 11 또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며, 이 땅 위에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려 일어나는 왕이 없으리라.
- 12 또 내가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이 땅을 견고하게 하리니,
- 13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4 대저 나를 거스려 왕을 일으키는 자는 멸망하리니, 이는 나 주 하늘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되겠고,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 나라.
- 15 그런즉 이를 위하여 곧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나의 성약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은밀한 어둠의 일과 살인의 일과 가증한 일들을 반드시 멸해야만 하리라.
- 16 그런즉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멸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 땅의 창녀인 자들임이라. 이는 나를 위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7 이는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이를 것임이니라—
- 18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의 손으로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같이 될 것이라. 그런즉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Yea, the kings of the Gentiles shall be nursing fathers unto them, and their queens shall become nursing mothers; wherefore, the promises of the Lord are great unto the Gentiles, for he hath spoken it, and who can dispute?

But behold, this land, said God, shall be a land of thine inheritance, and the Gentiles shall be blessed upon the land.

And this land shall be a land of liberty unto the Gentiles, and there shall be no kings upon the land, who shall raise up unto the Gentiles.

And I will fortify this land against all other nations.

And he that fighteth against Zion shall perish, saith God.

For he that raiseth up a king against me shall perish, for I, the Lord, the king of heaven, will be their king, and I will be a light unto them forever, that hear my words.

Wherefore, for this cause, that my covenants may be fulfilled which I have made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I will do unto them while they are in the flesh, I must needs destroy the secret works of darkness, and of murders, and of abominations.

Wherefore, he that fighteth against Zion, both Jew and Gentile, both bond and free, both male and female, shall perish; for they are they who are the whore of all the earth; for they who are not for me are against me, saith our God.

For I will fulfil my promises which I have made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I will do unto them while they are in the flesh—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thus saith our God: I will afflict thy seed by the hand of the Gentiles; nevertheless, I will soften the hearts of the Gentiles, that they shall be like unto a father to them; wherefore, the Gentiles shall be blessed and numbered among the house of Israel.

19 그런즉 내가 이 땅을 네 자손과 네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의 기  
업의 땅으로 성별하리니, 이는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하시느니라. 그런즉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20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그  
토록 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고개를 늘  
어뜨리지 말자. 이는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였음  
이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땅으로 인도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바다로 우리의 길을 삼으  
셨고, 우리가 바다의 한 섬 위에 있음이라.

21 그러나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크도다. 섬들이라 말하고 있는즉 이  
것 말고 더 있음에 틀림없나니, 그 곳에도 역시 우  
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느니라.

22 이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으로부터 시시로 인도해  
내셨음이라. 또 이제 보라, 주께서는 꺾어져 나간  
자들을 모두 기억하시나니, 그런즉 그가 우리 역  
시 기억하시느니라.

23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영원한 죽  
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  
라.

24 그러한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  
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

25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죽  
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너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에 영접되게 하시고, 너희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하여,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라. 아멘.

Wherefore, I will consecrate this land unto thy  
seed, and them who shall be numbered among thy  
seed, forever, for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for it  
is a choice land, saith God unto me, above all other  
lands, wherefore I will have all men that dwell  
thereon that they shall worship me, saith God.

And now, my beloved brethren, seeing that our  
merciful God has given us so great knowledge con-  
cerning these things, let us remember him, and lay  
aside our sins, and not hang down our heads, for we  
are not cast off; nevertheless, we have been driven  
out of the land of our inheritance; but we have been  
led to a better land, for the Lord has made the sea our  
path, and we are upon an isle of the sea.

But great are the promises of the Lord unto them  
who are upon the isles of the sea; wherefore as it says  
isles, there must needs be more than this, and they  
are inhabited also by our brethren.

For behold, the Lord God has led away from time  
to time from the house of Israel, according to his will  
and pleasure. And now behold, the Lord remem-  
bereth all them who have been broken off, where-  
fore he remembereth us also.

Therefore, cheer up your hearts, and remember  
that ye are free to act for yourselves—to choose the  
way of everlasting death or the way of eternal life.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reconcile your-  
selves to the will of God, and not to the will of the  
devil and the flesh; and remember, after ye are rec-  
onciled unto God, that it is only in and through the  
grace of God that ye are saved.

Wherefore, may God raise you from death b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and also from everlasting  
death by the power of the atonement, that ye may be  
received into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at ye  
may praise him through grace divine. Amen.



## 니파이후서 11

- 1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때에 나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이야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이러한 것만 기록되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기록한 것으로 내게는 족함이라.
- 2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 영혼이 그의 말을 기뻐함이라. 이는 내가 그의 말을 나의 백성에게 비유할 것임이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같이 그가 진실로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니라.
- 3 또 내가 그를 본 것같이 나의 동생 야곱 역시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들의 말을 나의 자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의 참됨을 증명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말을 확립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증인을 보내시나니,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시는도다.
- 4 보라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참됨을 내 백성에게 증명하기를 기뻐하나니, 이는 이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음이요,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예표이니라.
- 5 또한 내 영혼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을 기뻐하나니, 참으로 나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그의 은혜를, 또 그의 공의와 권능과 자비를 기뻐하느니라.
- 6 또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고는 만인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나의 백성에게 증명하기를 기뻐하느니라.
- 7 이는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 할진대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없다 할진대 우리가 있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아무 창조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자기의 때가 차면 오시느니라.
- 8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야의 말의 얼마를 기록하노니, 나의 백성 중 누구든지 이 말을 볼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어올리고 만인을 위해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 너희가 이를 너희에게와 만인에게 비유함이 가하니라.

## 2 Nephi 11

And now, Jacob spake many more things to my people at that time; nevertheless only these things have I caused to be written, for the things which I have written sufficeth me.

And now I, Nephi, write more of the words of Isaiah, for my soul delighteth in his words. For I will liken his words unto my people, and I will send them forth unto all my children, for he verily saw my Redeemer, even as I have seen him.

And my brother, Jacob, also has seen him as I have seen him; wherefore, I will send their words forth unto my children to prove unto them that my words are true. Wherefore, by the words of three, God hath said, I will establish my word. Nevertheless, God sendeth more witnesses, and he proveth all his words.

Behold, my soul delighteth in proving unto my people the truth of the coming of Christ; for, for this end hath the law of Moses been given; and all things which have been given of Go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o man, are the typifying of him.

And also my soul delighteth in the covenants of the Lord which he hath made to our fathers; yea, my soul delighteth in his grace, and in his justice, and power, and mercy in the great and eternal plan of deliverance from death.

And my soul delighteth in proving unto my people that save Christ should come all men must perish.

For if there be no Christ there be no God; and if there be no God we are not, for there could have been no creation. But there is a God, and he is Christ, and he cometh in the fulness of his own time.

And now I write some of the words of Isaiah, that whoso of my people shall see these words may lift up their hearts and rejoice for all men. Now these are the words, and ye may liken them unto you and unto all men.

## 니파이후서 12

-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 2 또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리니 그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 3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임이니라.
- 4 또 그가 열방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 5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참으로 오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릇갔으며, 모두가 각각 자기의 악한 길로 갔음이니라.
- 6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방에서 채워지며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의 말을 들으며, 외인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함이니이다.
- 7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 그들의 보화 또한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 또한 끝이 없느니라.
- 8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의 손가락이 만든 바 자기의 손이 지은 것을 경배하니라.
- 9 또 천한 자도 절하지 아니하고 큰 자도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 10 너희 간악한 자들아, 바위 속으로 들어가며 흙먼지에 숨으라, 이는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이 너를 칠 것임이니라.

## 2 Nephi 12

The word that Isaiah, the son of Amoz, saw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when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top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exalt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shall flow unto it.

And many people shall go and say, Come y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and he will teach us of his ways, and we will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And he shall judge among the nations, and shall rebuke many people: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hooks—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 more.

O house of Jacob, come ye and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yea, come, for ye have all gone astray, every one to his wicked ways.

Therefore, O Lord, thou hast forsaken thy people, the house of Jacob, because they be replenished from the east, and hearken unto soothsayers like the Philistines, and they please themselves in the children of strangers.

Their land also is full of silver and gold, neither is there any end of their treasures; their land is also full of horses, neither is there any end of their chariots.

Their land is also full of idols; they worship the work of their own hands, that which their own fingers have made.

And the mean man boweth not down, and the great man humbleth himself not, therefore, forgive him not.

O ye wicked ones, enter into the rock, and hide thee in the dust, for the fear of the Lord and the glory of his majesty shall smite thee.

11 또 이렇게 되리니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길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곧 모든 국민에게 참으로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와 모든 자고한 자에게 임한즉 그들이 낮아지겠노라.

13 참으로 또한 주의 날이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에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높고 자고함이며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

14 또 모든 높은 산에, 또 모든 언덕에, 또 자고한 모든 국민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15 또 모든 높은 망대에, 또 모든 견고한 성벽에,

16 또 바다의 모든 배에, 또 다시스의 모든 배에, 또 모든 아름다운 풍경 위에 임하리니,

17 또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함은 굴복되며, 사람들의 거만함은 낮아지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18 또 우상들을 그가 온전히 없애시리라.

19 또 그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에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이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20 그 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바위의 갈라진 틈과 험한 바위 위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에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이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22 너희는 사람 의지하기를 그치라. 그 호흡이 그의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fty looks of man shall be humbled, and the haughtiness of men shall be bowed down, and the Lord alone shall be exalted in that day.

For the day of the Lord of Hosts soon cometh upon all nations, yea, upon every one; yea, upon the proud and lofty, and upon every one who is lifted up, and he shall be brought low.

Yea, and the day of the Lord shall come upon all the cedars of Lebanon, for they are high and lifted up; and upon all the oaks of Bashan;

And upon all the high mountains, and upon all the hills, and upon all the nations which are lifted up, and upon every people;

And upon every high tower, and upon every fenced wall;

And upon all the ships of the sea, and upon all the ships of Tarshish, and upon all pleasant pictures.

And the loftiness of man shall be bowed down, and the haughtiness of men shall be made low; and the Lord alone shall be exalted in that day.

And the idols he shall utterly abolish.

And they shall go into the holes of the rocks, and into the caves of the earth, for the fear of the Lord shall co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his majesty shall smite them, when he ariseth to shake terribly the earth.

In that day a man shall cast his idols of silver, and his idols of gold, which he hath made for himself to worship, to the moles and to the bats;

To go into the clefts of the rocks, and into the tops of the ragged rocks, for the fear of the Lord shall come upon them and the majesty of his glory shall smite them, when he ariseth to shake terribly the earth.

Cease ye from man, whose breath is in his nostrils; for wherein is he to be accounted of?

## 니파이후서 13

- 1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시나니—
-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 3 오십 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변한 연사를 그리하실 것이다.
- 4 또 내가 아이들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방백이 되게 하리니,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 5 또 백성들이 각기 서로에게, 또 각기 그 이웃에게 학대를 받을 것이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히 행할 것이다.
- 6 그때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의 그 형제를 붙잡고 이르기를, 너는 의복이 있으니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멸망이 네 손 아래 들지 않게 하라 할 것이면—
- 7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이는 나의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음이니,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 8 이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유다가 몰락하였음이니,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거스려 그의 영광의 눈을 격노하게 하였음으로 인함이라.
- 9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들의 죄가 실로 소돔 같음을 선포하나니 그들이 그것을 숨길 수 없도다. 그들의 영혼에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보응으로 취하였음이다!
- 10 의인들에게는 일러 그들은 잘된다 하라, 이는 그들이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 11 악인들에게는 화 있도다,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의 손의 보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임이니라!
- 12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가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망치느니라.

## 2 Nephi 13

For behold, the Lord, the Lord of Hosts, doth take away from Jerusalem, and from Judah, the stay and the staff, the whole staff of bread, and the whole stay of water—

The mighty man, and the man of war, the judge, and the prophet, and the prudent, and the ancient;

The captain of fifty, and the honorable man, and the counselor, and the cunning artificer, and the eloquent orator.

And I will give children unto them to be their princes, and babes shall rule over them.

And the people shall be oppressed, every one by another, and every one by his neighbor; the child shall behave himself proudly against the ancient, and the base against the honorable.

When a man shall take hold of his brother of the house of his father, and shall say: Thou hast clothing, be thou our ruler, and let not this ruin come under thy hand—

In that day shall he swear, saying: I will not be a healer; for in my house there is neither bread nor clothing; make me not a ruler of the people.

For Jerusalem is ruined, and Judah is fallen, because their tongues and their doings have been against the Lord, to provoke the eyes of his glory.

The show of their countenance doth witness against them, and doth declare their sin to be even as Sodom, and they cannot hide it. Wo unto their souls, for they have rewarded evil unto themselves!

Say unto the righteous that it is well with them; for they shall eat the fruit of their doings.

Wo unto the wicked, for they shall perish; for the reward of their hands shall be upon them!

And my people, children are their oppressors, and women rule over them. O my people, they who lead thee cause thee to err and destroy the way of thy paths.

- 13 주께서 변호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 14 주께서 그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 방백들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 치웠음이었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이 너희 집에 있음이니라.
- 15 너희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나? 너희가 나의 백성을 쳐 산산조각이 되게 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멧돌질 하는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6 더욱이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여 늘인 목과 음란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그 발로는 짚랑짚랑 소리를 내므로—
-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치사 딱지가 앉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실 것이라.
- 18 그 날에 주께서 화려한 그들의 짚랑거리는 장식물과 망사 모자와 달 같은 둥근 장식을,
- 19 사슬과 팔찌와 목도리를,
- 20 끈 달린 모자와 다리의 장식물과 머리띠와 향합과 귀고리를,
- 21 반지와 코걸이를,
- 22 갈아입는 여러 벌의 의복과 망토와 너울과 머리를 곱슬하게 하는 핀을,
- 23 거울과 세마포와 두건과 면박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24 또 이렇게 되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 잘 가꾸어진 머리를 대신하여 벗어진 머리가,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이, 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으리라.
- 25 너의 남자들은 칼에, 너의 용사들은 전쟁 중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 26 또 시온의 문들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The Lord standeth up to plead, and standeth to judge the people.

The Lord will enter into judgment with the ancients of his people and the princes thereof; for ye have eaten up the vineyard and the spoil of the poor in your houses.

What mean ye? Ye beat my people to pieces, and grind the faces of the poor, saith the Lord God of Hosts.

Moreover, the Lord saith: Because the daughters of Zion are haughty, and walk with stretched-forth necks and wanton eyes, walking and mincing as they go, and making a tinkling with their feet—

Therefore the Lord will smite with a scab the crown of the head of the daughters of Zion, and the Lord will discover their secret parts.

In that day the Lord will take away the bravery of their tinkling ornaments, and caul, and round tires like the moon;

The chains and the bracelets, and the mufflers;

The bonnets, and the ornaments of the legs, and the headbands, and the tablets, and the ear-rings;

The rings, and nose jewels;

The changeable suits of apparel, and the mantles, and the wimples, and the crisping-pins;

The glasses, and the fine linen, and hoods, and the veils.

And it shall come to pass, instead of sweet smell there shall be stink; and instead of a girdle, a rent; and instead of well set hair, baldness; and instead of a stomacher, a girding of sackcloth; burning instead of beauty.

Thy men shall fall by the sword and thy mighty in the war.

And her gates shall lament and mourn; and she shall be desolate, and shall sit upon the ground.

## 니파이후서 14

- 1 또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 2 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요,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울 것이니라.
- 3 또 이렇게 되리니 시온에 남아 있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서 산 자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 4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사름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셨을 때라.
- 5 또 주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 위에와, 그 집회 위에 낮으로는 구름과 연기를, 밤으로는 타오르는 불의 비춤을 창조하시리니, 이는 시온의 모든 영광 위에 보호가 있을 것임이니라.
- 6 또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 2 Nephi 14

And in that day, seven women shall take hold of one man, saying: We will eat our own bread, and wear our own apparel; only let us be called by thy name to take away our reproach.

In that day shall the branch of the Lord be beautiful and glorious; the fruit of the earth excellent and comely to them that are escaped of Israel.

And it shall come to pass, they that are left in Zion and remain in Jerusalem shall be called holy, every one that is written among the living in Jerusalem—

When the Lord shall have washed away the filth of the daughters of Zion, and shall have purged the blood of Jerusalem from the midst thereof by the spirit of judgment and by the spirit of burning.

And the Lord will create upon every dwelling-place of mount Zion, and upon her assemblies, a cloud and smoke by day and the shining of a flaming fire by night; for upon all the glory of Zion shall be a defence.

And there shall be a tabernacle for a shadow in the daytime from the heat, and for a place of refuge, and a covert from storm and from rain.

## 니파이후서 15

- 1 그때 내가 나의 몹시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되, 그의 포도원을 두고 내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몹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언덕에로다.
- 2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돌을 걷어내고, 그 곳에 가장 뛰어난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 3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 4 내가 거기에 행한 것 외에 나의 포도원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음은 어쩔인고.
- 5 그런즉 이제 기다리라. 내가 나의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 버리리니 그것이 먹힐 것이며, 내가 그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힐 것이니라.
- 6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것이 가지 침이나 일곱을 받지 못하여 찢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 7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임이라. 그가 공평을 바라셨더니, 보라, 학대요, 의로움을 바라셨으나, 보라, 부르짖음이었도다.
- 8 집에 집을 연하여 자리가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처하려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 9 내 귀에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할 것이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주민이 없게 되리라.
- 10 참으로 열 에이커의 포도원이 한 밧을 내겠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하시도다.
- 11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좇으며, 밤까지 계속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태우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 2 Nephi 15

And then will I sing to my well-beloved a song of my beloved, touching his vineyard. My well-beloved hath a vineyard in a very fruitful hill.

And he fenced it, and gathered out the stones thereof, and planted it with the choicest vine, and built a tower in the midst of it, and also made a wine-press therein; and he looked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and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And now, O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men of Judah, judge, I pray you, betwixt me and my vineyard.

What could have been done more to my vineyard that I have not done in it? Wherefore, when I looked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And now go to; I will tell you what I will do to my vineyard—I will take away the hedge thereof, and it shall be eaten up; and I will break down the wall thereof, and it shall be trodden down;

And I will lay it waste; it shall not be pruned nor digged; but there shall come up briars and thorns; I will also command the clouds that they rain no rain upon it.

For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is the house of Israel, and the men of Judah his pleasant plant; and he looked for judgment, and behold, oppression; for righteousness, but behold, a cry.

Wo unto them that join house to house, till there can be no place, that they may be placed alone in the midst of the earth!

In mine ears, said the Lord of Hosts, of a truth many houses shall be desolate, and great and fair cities without inhabitant.

Yea, ten acres of vineyard shall yield one bath, and the seed of a homer shall yield an ephah.

Wo unto them that rise up early in the morning, that they may follow strong drink, that continue until night, and wine inflame them!

12 또 비파와 현금과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그들의 연회에 있으나, 그들이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간 바 되었으니,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으로 인함이며 그들의 귀인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수많은 무리는 갈증으로 말랐느니라.

14 그러므로 지옥이 스스로 크게 하여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그들의 화려함과 기뻐하는 자가 내려가서 그리로 들어가리라.

15 또 천한 자는 낮추어질 것이요,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이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니라.

16 그러나 만군의 주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라.

17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습성대로 먹을 것이요, 살진 자들의 황폐한 곳을 외인들이 먹으리라.

18 헛된 것으로 줄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밧줄로 함같이 죄를 끄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신속함을 내어 그의 일을 서둘러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권고로 가까이 이르고 임하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21 자기 스스로의 눈에 현명한 자들과 자기 스스로의 보기에 명철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2 포도주 마시기에 강한 자와, 독주를 혼합하기에 유력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23 그들이 샅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24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또 불꽃이 겨를 소멸함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음이 되겠고, 그들의 핀 꽃은 티끌처럼 올라가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으로 인함이니라.

And the harp, and the viol, the tabret, and pipe, and wine are in their feasts; but they regard not the work of the Lord, neither consider the operation of his hands.

Therefore, my people are gone into captivity, because they have no knowledge; and their honorable men are famished, and their multitude dried up with thirst.

Therefore, hell hath enlarged herself, and opened her mouth without measure; and their glory, and their multitude, and their pomp, and he that rejoiceth, shall descend into it.

And the mean man shall be brought down, and the mighty man shall be humbled, and the eyes of the lofty shall be humbled.

But the Lord of Hosts shall be exalted in judgment, and God that is holy shall be sanctified in righteousness.

Then shall the lambs feed after their manner, and the waste places of the fat ones shall strangers eat.

Wo unto them that draw iniquity with cords of vanity, and sin as it were with a cart rope;

That say: Let him make speed, hasten his work, that we may see it; and let the counsel of the Holy One of Israel draw nigh and come, that we may know it.

Wo unto them that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that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that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Wo unto the wise in their own eyes and prudent in their own sight!

Wo unto the mighty to drink wine, and men of strength to mingle strong drink;

Who justify the wicked for reward, and take away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from him!

Therefore, as the fire devoureth the stubble, and the flame consumeth the chaff, their root shall be rottenness, and their blossoms shall go up as dust; because they have cast away the law of the Lord of Hosts, and despised the word of the Holy One of Israel.



- 25 그러므로 주의 노여움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붙었고, 그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 손을 내뻗어 그들을 치신지라, 언덕들은 떨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가운데서 찢기어졌었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 26 또 그가 먼 나라들에게 기를 드시고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시리니, 보라, 그들이 빨리 신속히 올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 27 아무도 졸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울 것이며, 그들의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그들의 차바퀴는 회리바람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같이 여겨질 것이라.
- 29 그들이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잡은 것을 움켜쥐고 안전하게 가져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 30 또 그 날에 그들이 바다의 노호함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이라. 그 곳 하늘에 빛이 어두워졌도다.

Therefore, is the anger of the Lord kindled against his people, and he hath stretched forth his hand against them, and hath smitten them; and the hills did tremble, and their carcasses were torn in the midst of the streets.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And he will lift up an ensign to the nations from far, and will hiss unto them from the end of the earth; and behold, they shall come with speed swiftly; none shall be weary nor stumble among them.

None shall slumber nor sleep; neither shall the girdle of their loins be loosed, nor the latchet of their shoes be broken;

Whose arrows shall be sharp, and all their bows bent, and their horses' hoofs shall be counted like flint, and their wheels like a whirlwind, their roaring like a lion.

They shall roar like young lions; yea, they shall roar, and lay hold of the prey, and shall carry away safe, and none shall deliver.

And in that day they shall roar against them like the roaring of the sea; and if they look unto the land, behold, darkness and sorrow, and the light is darkened in the heavens thereof.

## 니파이후서 16

-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 2 그 위로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더라.
- 3 또 서로 소리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더라.
- 4 이에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이 움직이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 5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게 화 있도다! 이는 내가 망하게 되었음이라.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인함이니, 이는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 6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집게로 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 하나를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 7 또 그것을 내 입에 놓으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 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 9 이에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너희가 과연 듣거니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과연 보거니와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 11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말씀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이 온전히 황폐하게 되며,

## 2 Nephi 16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also the Lor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and his train filled the temple.

Above it stood the seraphim; each one had six wings; with twain he covered his face, and with twain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ain he did fly.

And one cried un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And the posts of the door moved at the voice of him that cried,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smoke.

Then said I: Wo is unto me! for I am undone;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ine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Then flew one of the seraphim unto me, having a live coal in his hand, which he had taken with the tongs from off the altar;

And he laid it upon my mouth, and said: Lo, this has touched thy lips; and thine iniquity is taken away, and thy sin purged.

Also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And he said: Go and tell this people—Hear ye indeed, but they understood not; and see ye indeed, but they perceived not.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fat, and make their ears heavy, and shut their eyes—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be converted and be healed.

Then said I: Lord, how long? And he said: Until the cities be wasted without inhabitant, and the houses without man, and the land be utterly desolate;

12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 가셨을 때까지, 이는 이 땅 가운데 큰 저버림이 있을 것임이 나라.

13 그러나 그래도 십분의 일이 있어 그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보리수같이 또 상수리나무같이 먹을 것이나, 그것들이 그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 본체는 그들 안에 있나니,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본체가 되리라.

And the Lord have removed men far away, for there shall be a great forsaking in the midst of the land.

But yet there shall be a tenth, and they shall return, and shall be eaten, as a teil tree, and as an oak whose substance is in them when they cast their leaves; so the holy seed shall be the substance thereof.

## 니파이후서 17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웃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수리아의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2 흑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기를, 수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는지라, 그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느니라.
- 3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이제 나아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윗 못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 4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삼가며 조용하라. 이 연기 나는 부지깥이 두 꼬리로 인하여 수리아가 함께 한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약하게 되지 말라.
- 5 수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꾀를 내어 이르기를,
-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파하고 그 가운데 한 왕을 세우자, 바로 다브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 7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꾀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리라.
- 8 이는 수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깨어져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 9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을진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 10 더욱이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일러 이르시되,
- 1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한 가지 표적을 구하라. 그것을 깊은 데서든지 아니면 위로 높은 데서 구하라.
- 12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 2 Nephi 17

And it came to pass in the days of Ahaz the son of Jotham, the son of Uzziah, king of Judah, that Rezin, king of Syria, and Pekah the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went up toward Jerusalem to war against it, but could not prevail against it.

And it was told the house of David, saying: Syria is confederate with Ephraim. And his heart was moved, and the heart of his people, as the trees of the wood are moved with the wind.

Then said the Lord unto Isaiah: Go forth now to meet Ahaz, thou and Shearjashub thy son, at the end of the conduit of the upper pool in the highway of the fuller's field;

And say unto him: Take heed, and be quiet; fear not, neither be faint-hearted for the two tails of these smoking firebrands, for the fierce anger of Rezin with Syria, and of the son of Remaliah.

Because Syria, Ephraim, and the son of Remaliah, have taken evil counsel against thee, saying:

Let us go up against Judah and vex it, and let us make a breach therein for us, and set a king in the midst of it, yea, the son of Tabeal.

Thus saith the Lord God: It shall not stand, neither shall it come to pass.

For the head of Syria is Damascus, and the head of Damascus, Rezin; and within threescore and five years shall Ephraim be broken that it be not a people.

And the head of Ephraim is Samaria, and the head of Samaria is Remaliah's son. If ye will not believe surely ye shall not be established.

Moreover, the Lord spake again unto Ahaz, saying:

Ask thee a sign of the Lord thy God; ask it either in the depths, or in the heights above.

But Ahaz said: I will not ask, neither will I tempt the Lord.

- 13 이에 그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함이 작은 일 이기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 역시 괴롭히려 하려느냐?
-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시리라—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15 버터와 꿀을 그가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니,
- 16 이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땅이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 17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나던 날로부터 이르지 아니한 날들을 네 위에, 그리고 네 백성 위에,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라.
- 18 또 그 날에 이같이 되리니, 주께서 휘파람 소리로 애굽의 맨 끝에 있는 파리와 앗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 19 이에 그것들이 와서는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에, 바위틈에와, 모든 가시나무 위에와 모든 덤불 위에 앉으리라.
- 20 그 같은 날에 주께서는 세내어 온 삭도를 가지시고, 하수 저편에 있는 자들로 앗수르 왕으로 그 머리와 발의 털을 미시리니, 그것이 수염도 소멸하리라.
- 21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와 양 둘을 기를 것이며,
- 22 또 이렇게 되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라. 이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임이니라.
- 2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천 주에 은 천 개 하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이 될 것이라.
- 24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오리니,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으로 인함이라.
- 25 또 곡괭이로 일구어질 모든 산, 그리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소를 보내며 작은 가축이 밟는 곳이 되리라.

And he said: Hear ye now, O house of David; is it a small thing for you to weary men, but will ye weary my God also?

Therefore, the Lord himself sha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shall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Butter and honey shall he eat, that he may know to refuse the evil and to choose the good.

For before the child shall kn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the land that thou abhorrest shall be forsaken of both her kings.

The Lord shall bring upon thee, and upon thy people, and upon thy father's house, days that have not come from the day that Ephraim departed from Judah, the king of Assyria.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Lord shall hiss for the fly that is in the uttermost part of Egypt, and for the bee that is in the land of Assyria.

And they shall come, and shall rest all of them in the desolate valleys, and in the holes of the rocks, and upon all thorns, and upon all bushes.

In the same day shall the Lord shave with a razor that is hired, by them beyond the river, by the king of Assyria, the head, and the hair of the feet; and it shall also consume the beard.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a man shall nourish a young cow and two sheep;

And it shall come to pass, for the abundance of milk they shall give he shall eat butter; for butter and honey shall every one eat that is left in the land.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every place shall be, where there were a thousand vines at a thousand silverlings, which shall be for briers and thorns.

With arrows and with bows shall men come thither, because all the land shall become briers and thorns.

And all hills that shall be digged with the mattock, there shall not come thither the fear of briers and thorns; but it shall be for the sending forth of oxen, and the treading of lesser cattle.

## 니파이후서 18

- 1 더욱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두 루마리를 취하여 그 안에 사람의 붓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기록하라 하시니라.
- 2 이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진실한 증인을 취하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라.
- 3 그리고 내가 여선지에게로 갔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 4 이는 보라,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 5 주께서 다시 또 내게 일러 이르시되,
- 6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거절하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 7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앗수르 왕과 그 모든 영광을 그들 위에 이끌어 올리리니, 그가 그의 모든 수로를 넘어 올라오고 그의 모든 독을 넘어갈 것이니라.
- 8 또 그가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그가 넘치고 넘어갈 것이며, 그가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퍼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 9 너희 백성들아, 서로 연합하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또 먼 나라의 너희는 모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 10 함께 꺾하라, 그것이 허사가 되리라. 말을 해 보아라, 그것이 서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 11 이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시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도록 하셨음이니 이르시되,
- 12 이 백성이 동맹하자 말할 모든 자에게 너희는 동맹하자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움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라.

## 2 Nephi 18

Moreover, the word of the Lord said unto me: Take thee a great roll, and write in it with a man's pen, concerning Maher-shalal-hash-baz.

And I took unto me faithful witnesses to record, Uriah the priest, and Zechariah the son of Jeberechiah.

And I went unto the prophetess; and she conceived and bare a son. Then said the Lord to me: Call his name, Maher-shalal-hash-baz.

For behold, the child shall not have knowledge to cry, My father, and my mother, before the riches of Damascus and the spoil of Samaria shall be taken away before the king of Assyria.

The Lord spake also unto me again, saying:

Forasmuch as this people refuseth the waters of Shiloah that go softly, and rejoice in Rezin and Remaliah's son;

Now therefore, behold, the Lord bringeth up upon them the waters of the river, strong and many, even the king of Assyria and all his glory; and he shall come up over all his channels, and go over all his banks.

And he shall pass through Judah; he shall overflow and go over, he shall reach even to the neck; and the stretching out of his wings shall fill the breadth of thy land, O Immanuel.

Associate yourselves, O ye people, and ye shall be broken in pieces; and give ear all ye of far countries; gird yourselves, and ye shall be broken in pieces; gird yourselves, and ye shall be broken in pieces.

Take counsel together, and it shall come to naught; speak the word, and it shall not stand; for God is with us.

For the Lord spake thus to me with a strong hand, and instructed me that I should not walk in the way of this people, saying:

Say ye not, A confederacy, to all to whom this people shall say, A confederacy; neither fear ye their fear, nor be afraid.

- 13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하며,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 14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덫과 올무가 되시리라.
- 15 그리하여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걸리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덫에 빠지며, 잡힐 것이니라.
- 16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 인봉하라.
- 17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 18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기사가 되나니, 이는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19 또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신접한 자들에게와 주절거리며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하면—백성이 죽은 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산 자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맞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는 연고니라.
- 21 이에 그들이 곤고하고 굶주려서 그것을 통과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되리니, 그 주릴 때에 그들이 안달하여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볼 것이니라.
- 22 또 그들이 땅을 바라보고, 환난과 흑암과 고뇌의 어둠을 목격하리니,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리라.

Sanctify the Lord of Hosts himself, and let him be your fear, and let him be your dread.

And he shall be for a sanctuary; but for a stone of stumbling, and for a rock of offense to both the houses of Israel, for a gin and a snare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many among them shall stumble and fall, and be broken, and be snared, and be taken.

Bind up the testimony,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And I will wait upon the Lord, that hideth his face from the house of Jacob, and I will look for him.

Behold, I and the children whom the Lord hath given me are for signs and for wonders in Israel from the Lord of Hosts, which dwelleth in Mount Zion.

And when they shall say unto you: Seek unto them that have familiar spirits, and unto wizards that peep and mutter—should not a people seek unto their God for the living to hear from the dead?

To the law and to the testimony; and if they speak not according to this word, it is because there is no light in them.

And they shall pass through it hardly bestead and hungry;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 they shall be hungry, they shall fret themselves, and curse their king and their God, and look upward.

And they shall look unto the earth and behold trouble, and darkness, dimness of anguish, and shall be driven to darkness.

## 니파이후서 19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은 그의 고통 중에 그  
러하였던 것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때 그가 처  
음에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벼이 괴롭게 하  
시고, 그 후에 열국의 갈릴리 요단 저편 홍해 길  
지경을 더욱 혹심히 괴롭게 하셨더라.
- 2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취  
였도다.
- 3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셨사온즉—그들이 추수 때의 즐거움을 따라, 또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때 기뻐함같이 주 앞에  
서 기뻐하오니이다.
- 4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그 어깨의 몽둥  
이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음이니이다.
- 5 이는 전사의 모든 싸움은 혼란한 소음과 피에  
구른 옷으로 행하여지나, 이것은 불사름과 불의  
연료로 행하여질 것임이니이다.
- 6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 우리에게 한 아  
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  
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보좌 위에서와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  
며, 이제로부터 곧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  
을 굳게 세우실 것이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 8 주께서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매 그 말씀  
이 이스라엘에 임하였으니
- 9 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이르기를,
-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  
이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  
목으로 바꾸리라 하느니라.
- 11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  
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연합시키시리라.

## 2 Nephi 19

Nevertheless, the dimness shall not be such as was in her vexation, when at first he lightly afflict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s did more grievously afflict by the way of the Red Sea beyond Jordan in Galilee of the nations.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ey that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hath the light shined.

Thou hast multiplied the nation, and increased the joy—they joy before thee according to the joy in harvest, and as men rejoice when they divide the spoil.

For thou hast broken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of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For every battle of the warrior is with confused nois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but this shall be with burning and fuel of fire.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government and peace there is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with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The Lord sent his word unto Jacob and it hath lighted upon Israel.

And all the people shall know, even Ephraim and the inhabitants of Samaria, that say in the pride and stoutness of heart:

The bricks are fallen down, but we will build with hewn stones; the sycamores are cut down, but we will change them into cedars.

Therefore the Lord shall set up the adversaries of Rezin against him, and join his enemies together;



12 앞에는 수리아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  
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  
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13 이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이  
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14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머  
리와 꼬리 가지와 갈대를 끊어 버리시리라.

15 원로인 그는 머리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인 그는 꼬리라.

16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로 가르치게 하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 아니  
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  
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각기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함이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18 대저 사악함은 불같이 태우는 것이라. 그것이  
짚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우거진 숲에 붙으리  
니, 그것들이 연기가 위로 치솟음같이 오르리라.

19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어두워졌으  
며, 백성은 불을 지필 땔감과 같으리니, 아무도 자  
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20 또 그가 오른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릴 것이며,  
그가 왼편으로 먹을지라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리  
니—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낫  
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대적하  
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  
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The Syrians before and the Philistines behind;  
and they shall devour Israel with open mouth.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For the people turneth not unto him that smiteth  
them, neither do they seek the Lord of Hosts.

Therefore will the Lord cut off from Israel head  
and tail, branch and rush in one day.

The ancient, he is the head; and the prophet that  
teacheth lies, he is the tail.

For the leaders of this people cause them to err;  
and they that are led of them are destroyed.

Therefore the Lord shall have no joy in their  
young men, neither shall have mercy on their father-  
less and widows; for every one of them is a hypocrite  
and an evildoer, and every mouth speaketh folly.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For wickedness burneth as the fire; it shall devour  
the briars and thorns, and shall kindle in the thickets  
of the forests, and they shall mount up like the lifting  
up of smoke.

Through the wrath of the Lord of Hosts is the land  
darkened, and the people shall be as the fuel of the  
fire; no man shall spare his brother.

And he shall snatch on the right hand and be hun-  
gry; and he shall eat on the left hand and they shall  
not be satisfied; they shall eat every man the flesh of  
his own arm—

Manasseh, Ephraim; and Ephraim, Manasseh;  
they together shall be against Judah.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 니파이후서 20

- 1 불의한 법령을 공포하며 자기가 규정한 가혹함을 기록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 2 그들은 궁핍한 자를 물리쳐 공평을 얻지 못하게 하며, 내 백성의 가난한 자에게서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도다.
- 3 너희는 별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황폐 속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려느냐? 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려느냐?
- 4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한즉 그들이 갇힌 자의 아래에 절하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지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 5 오 나의 분노의 막대기 앓수르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그들의 분노라.
- 6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의 나라를 치게 하되,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 7 그러하거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적지 않은 나라를 멸하며 끊어 버리려 하는 것이라.
- 8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모두 다 왕이 아니냐?
-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 10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세웠고, 그들의 새긴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것보다 우세하였나니,
-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행한 것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들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함이라.

## 2 Nephi 20

Wo unto them that decree unrighteous decrees, and that write grievousness which they have prescribed;

To turn away the needy from judgment, and to take away the right from the poor of my people, that widows may be their prey, and that they may rob the fatherless!

And what will ye do in the day of visitation, and in the desolation which shall come from far? to whom will ye flee for help? and where will ye leave your glory?

Without me they shall bow down under the prisoners, and they shall fall under the slain. For all this his anger is not turned away, but his hand is stretched out still.

O Assyrian, the rod of mine anger, and the staff in their hand is their indignation.

I will send him against a hypocritical nation, and against the people of my wrath will I give him a charge to take the spoil, and to take the prey, and to tread them down like the mire of the streets.

Howbeit he meaneth not so, neither doth his heart think so; but in his heart it is to destroy and cut off nations not a few.

For he saith: Are not my princes altogether kings?

Is not Calno as Carchemish? Is not Hamath as Arpad? Is not Samaria as Damascus?

As my hand hath founded the kingdoms of the idols, and whose graven images did excel them of Jerusalem and of Samaria;

Shall I not, as I have done unto Samaria and her idols, so do to Jerusalem and to her idols?

12 그런즉 이렇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 산 위에와 예루살렘 위에 다 행하셨을 때, 내가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별하리니,

13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이 일들을 행하였나니, 이는 내가 총명함이라. 또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겼고, 그들의 보화를 약탈하였으며, 또 내가 용감한 자같이 주민들을 굴복시켰으며,

14 또 나의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같이 발견하였고, 사람이 버려진 알을 모음같이 내가 온 세계를 모았으나, 날개를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함이라.

15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그것을 켜는 자를 대하여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치켜드는 자에게 스스로를 휘두르려 하거나, 마치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듯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함과 같도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께서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 여움을 보내실 것이요, 그의 영광의 아래에 불붙게 하사, 불이 타는 것같이 타게 하실 것이라.

17 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어 탈 것인즉,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그의 찔레를 삼킬 것이며,

18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밭의 영광을 영혼과 몸을 아울러 소멸하시리니, 그들이 기를 든 자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19 또 그의 삼림의 나무의 나머지가 희소하여, 어린아이라도 능히 기록할 수 있으리라.

20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집의 도피한 자 같은 자들이 다시는 더 이상 그들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주를 진실히 의지하리라.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22 이는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임이니, 명하신 소멸이 의로 가득차게 할 것임이니라.

Wherefore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 the Lord hath performed his whole work upon Mount Zion and upon Jerusalem, I will punish the fruit of the stout heart of the king of Assyria, and the glory of his high looks.

For he saith: By the strength of my hand and by my wisdom I have done these things; for I am prudent; and I have moved the borders of the people, and have robbed their treasures, and I have put down the inhabitants like a valiant man;

And my hand hath found as a nest the riches of the people; and as one gathereth eggs that are left have I gathered all the earth; and there was none that moved the wing, or opened the mouth, or peeped.

Shall the ax boast itself against him that heweth therewith? Shall the saw magnify itself against him that shaketh it? As if the rod should shake itself against them that lift it up, or as if the staff should lift up itself as if it were no wood!

Therefore shall the Lord, the Lord of Hosts, send among his fat ones, leanness; and under his glory he shall kindle a burning like the burning of a fire.

And the light of Israel shall be for a fire, and his Holy One for a flame, and shall burn and shall devour his thorns and his briars in one day;

And shall consume the glory of his forest, and of his fruitful field, both soul and body; and they shall be as when a standard-bearer fainteth.

And the rest of the trees of his forest shall be few, that a child may write them.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remnant of Israel, and such as are escaped of the house of Jacob, shall no more again stay upon him that smote them, but shall stay upon the Lord, the Holy One of Israel, in truth.

The remnant shall return, yea, even the remnant of Jacob, unto the mighty God.

For though thy people Israel be as the sand of the sea, yet a remnant of them shall return; the consumption decreed shall overflow with righteousness.

23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실로 온 땅에 정해진 소멸을 행하실 것임이니라.

24 그러므로 이같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인을 두려워 말라. 그가 애굽의 방식을 따라 막대기로 너를 치며 너를 대적하여 그의 몽둥이를 들리라.

25 대저 아주 잠깐 동안이면 분노가 그칠 것이요, 나의 노여움은 그들의 멸망 중에 그치리라 하시도다.

26 또 만군의 주께서 그를 칠 채찍을 흔들어 일으키시되, 오렙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살육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요,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있었던 것같이 그가 애굽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드실 것이라.

27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어지고 그의 멩에가 네 목에서 벗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멩에가 부서지리라.

28 그가 아얏에 이르렀고 지나서 미그론으로 갔으며, 믹마스에 그 수레를 멈추었도다.

29 그들이 통로를 넘어 게바에 그 숙소를 잡았으니, 라맛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였도다.

30 갈림의 딸이여,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가련한 아나돗이여, 그것으로 라이사에게 들리게 할지어다.

31 맛메나는 옮기웠고 게빔의 주민은 도망하려고 서로 모이도다.

32 아직은 그 날에 그가 늪에 머물 것이며, 그가 시온 딸의 산 예루살렘의 언덕에 대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33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무섭게 가지를 자르시리니, 그 장대한 자들이 찍힐 것이요, 거만한 자가 낮아질 것이니라.

34 또 그가 쇠로 뾰뾰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능한 자에 의하여 무너지리라.

For the Lord God of Hosts shall make a consumption, even determined in all the land.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God of Hosts: O my people that dwellest in Zion, be not afraid of the Assyrian; he shall smite thee with a rod, and shall lift up his staff against thee, after the manner of Egypt.

For yet a very little while, and the indignation shall cease, and mine anger in their destruction.

And the Lord of Hosts shall stir up a scourge for him according to the slaughter of Midian at the rock of Oreb; and as his rod was upon the sea so shall he lift it up after the manner of Egypt.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his burden shall be taken away from off thy shoulder, and his yoke from off thy neck, and the yoke shall be destroyed because of the anointing.

He is come to Aiath, he is passed to Migron; at Michmash he hath laid up his carriages.

They are gone over the passage; they have taken up their lodging at Geba; Ramath is afraid; Gibeah of Saul is fled.

Lift up the voice, O daughter of Gallim; cause it to be heard unto Laish, O poor Anathoth.

Madmenah is removed; the inhabitants of Gebim gather themselves to flee.

As yet shall he remain at Nob that day; he shall shake his hand against the mount of the daughter of Zion, the hill of Jerusalem.

Behold, the Lord, the Lord of Hosts shall lop the bough with terror; and the high ones of stature shall be hewn down; and the haughty shall be humbled.

And he shall cut down the thickets of the forests with iron, and Lebanon shall fall by a mighty one.

## 니파이후서 21

- 1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라.
- 2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또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
- 3 또 그로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꾸짖지 아니하리라.
- 4 그러나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 5 또 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의 띠가 되리라.
- 6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 7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 8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라.
-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 10 또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기호로 설 것이라. 이를 이방인들이 구하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 11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다시 펴사, 남아 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앗수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드로스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그리고 엘람에서, 그리고 시날에서, 그리고 하맛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니라.

## 2 Nephi 21

And there shall come forth a rod out of the stem of Jesse, and a branch shall grow out of his roots.

An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he shall not judge after the sight of his eyes, neither reprove after the hearing of his ears.

But with righteousness shall he judge the poor, and reprove with equity for the meek of the earth; and he shall smit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shall he slay the wicked.

And righteousness shall be the girdle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a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And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their young ones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And the sucking child shall play on the hole of the asp,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cockatrice's den.

They shall not hurt n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And in that day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which shall stand for an ensign of the people; to it shall the Gentiles seek; and his rest shall be glorious.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Lord shall set his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ich shall be left, from Assyria, and from Egypt, and from Pathros, and from Cush, and from Elam, and from Shinar, and from Hamath, and from the islands of the sea.

- 12 또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 13 에브라임의 시기가 또한 떠나겠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 14 오히려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어깨 위에 날고, 함께 동쪽에 있는 자들을 노략할 것이며, 그들이 에돔과 모압에 그 손을 대리니, 암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 15 또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 손을 강 위에 흔들어 그것을 쳐서 일곱 갈래가 되게 하사, 사람이 마른 신으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 16 또 남아 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가 앓수르에서부터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And he shall set up an ensign for the nations, and shall assemble the outcasts of Israel, and gather toge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 envy of Ephraim also shall depart, and the adversaries of Judah shall be cut off; Ephraim shall not envy Judah, and Judah shall not vex Ephraim.

But they shall fly upon the shoulders of the Philistines towards the west; they shall spoil them of the east together; they shall lay their hand upon Edom and Moab; and the children of Ammon shall obey them.

And the Lord shall utterly destroy the tongue of the Egyptian sea; and with his mighty wind he shall shake his hand over the river, and shall smite it in the seven streams, and make men go over dry shod.

And there shall be a highway fo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ich shall be left, from Assyria, like as it was to Israel in the day that he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 니파이후서 22

- 1 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여움이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할 것이니라.
-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심이라.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 3 그러므로 기쁨으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 4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고 하라.
- 5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심히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니, 이것은 온 땅에 알려져 있도다.
- 6 너 시온의 주민아, 크게 외치며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네 가운데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 2 Nephi 22

And in that day thou shalt say: O Lord, I will praise thee; though thou wast angry with me thine anger is turned away, and thou comfortedst me.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for the Lord JEHOVAH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also has become my salvation.

Therefore, with joy shall ye draw water out of the wells of salvation.

And in that day shall ye say: Praise the Lord, call upon his name, declare his doings among the people, make mention that his name is exalted.

Sing unto the Lord; for he hath done excellent things; this is known in all the earth.

Cry out and shout, thou inhabitant of Zion; for great is the Holy One of Israel in the midst of thee.

## 니파이후서 23

-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 2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기를 올리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 3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나니, 이는 나의 노여움은 나의 높음을 기뻐하는 자들 위에 있지 아니함 이니라.
- 4 산에서 수많은 무리의 떠드는 소리가 남이여, 큰 백성에게로 말미암음 같으니, 여러 민족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소란스러이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쟁의 군대를 소집하시도다.
-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저 끝에서 옴이여, 참으로 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 이로다.
- 6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같이 임할 것임이로다.
-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 8 또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요,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으리로다.
- 9 불지어다, 주의 날이 임하나니, 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잔혹하게 되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는 그 곳의 죄인들을 거기에서 멸하실 것 이라.
- 10 이는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해가 그 나아가는 중에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그 빛을 비치게 아니할 것임이로다.
- 11 또 내가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며,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 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을 오빌의 금괴보다 더 귀하게 하리로다.
- 13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군의 주의 진노 중에와 그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땅이 그 자리에서 옮기우리라.

## 2 Nephi 23

The burden of Babylon, which Isaiah the son of Amoz did see.

Lift ye up a banner upon the high mountain, exalt the voice unto them, shake the hand, that they may go into the gates of the nobles.

I have commanded my sanctified ones, I have also called my mighty ones, for mine anger is not upon them that rejoice in my highness.

The noise of the multitude in the mountains like as of a great people, a tumultuous noise of the kingdoms of nations gathered together, the Lord of Hosts mustereth the hosts of the battle.

They come from a far country, from the end of heaven, yea, the Lord, and the weapons of his indignation, to destroy the whole land.

Howl ye, for the day of the Lord is at hand; it shall come as a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Therefore shall all hands be faint, every man's heart shall melt;

And they shall be afraid; pangs and sorrows shall take hold of them; they shall be amazed one at another; their faces shall be as flames.

Behold, the day of the Lord cometh, cruel both with wrath and fierce anger, to lay the land desolate; and he shall destroy the sinners thereof out of it.

For the stars of heaven and the constellations thereof shall not give their light; the sun shall be darkened in his going forth, and the moon shall not cause her light to shine.

And I will punish the world for evil, and the wicked for their iniquity; I will cause the arrogancy of the proud to cease, and will lay down the haughtiness of the terrible.

I will make a man more precious than fine gold; even a man than the golden wedge of Ophir.

Therefore,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shall remove out of her place, in the wrath of the Lord of Hosts, and in the day of his fierce anger.



- 14 이는 마치 쫓긴 노루와 같고 아무도 모으지 아니하는 양 같을 것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리라.
- 15 교만한 자는 모두 꺾일 것이요, 또한 악인과 연합한 자는 모두 칼에 쓰러지리라.
- 16 그들의 자녀 또한 그들의 눈 앞에서 메어침을 입어 산산조각이 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 17 보라 내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할 메대 사람을 격노하게 하여 그들을 치게하리라.
- 18 그들의 활은 또한 청년들을 메어쳐 산산조각이 나게 할 것이며, 그들은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 19 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엮으신 때와 같이 되리라.
- 20 그 곳에 결코 사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 곳에 거할 자가 대대로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겠고,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우리를 짓지 아니할 것이로다.
- 21 그러나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 누울 것이며, 그들의 가옥에는 음울한 피조물이 가득할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 거하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펄 것이니라.
- 22 또 섬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가옥에서 부르짖고, 용들이 그들의 화려한 궁전에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을 속히 멸할 것임이니라. 과연 그러하니 이는 내가 내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이나, 악인은 멸망할 것임이니라.

And it shall be as the chased roe, and as a sheep that no man taketh up; and they shall every man turn to his own people, and flee every one into his own land.

Every one that is proud shall be thrust through; yea, and every one that is joined to the wicked shall fall by the sword.

Their children also shall be dashed to pieces before their eyes; their houses shall be spoiled and their wives ravished.

Behold, I will stir up the Medes against them, which shall not regard silver and gold, nor shall they delight in it.

Their bows shall also dash the young men to pieces; and they shall have no pity on the fruit of the womb; their eyes shall not spare children.

And Babylon, the glory of kingdoms, the beauty of the Chaldees' excellency, shall be as when God overthrew Sodom and Gomorrah.

It shall never be inhabited, neither shall it be dwelt i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neither shall the Arabian pitch tent there; neither shall the shepherds make their fold there.

But wild beasts of the desert shall lie there; and their houses shall be full of doleful creatures; and owls shall dwell there, and satyrs shall dance there.

And the wild beasts of the islands shall cry in their desolate houses, and dragons in their pleasant palaces; and her time is near to come, and her day shall not be prolonged. For I will destroy her speedily; yea, for I will be merciful unto my people, but the wicked shall perish.

## 니파이후서 24

- 1 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라, 그들을 그들 자신의 땅에 두시리니, 외인들이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야곱의 집에 가입할 것이라.
- 2 또 백성들이 그들을 취하고 참으로 멀리 땅 끝에서부터 그들의 처소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 땅을 소유하겠고, 주의 땅은 남종과 여종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들은 자기의 압제자들을 다스리리라.
- 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네 슬픔에서와, 네 두려움에서, 그리고 네가 섬기게 되었던 고된 속박에서 안식을 네게 주실 것이라.
- 4 그리고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네가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속담을 취하여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금빛 찬란하던 도성이 어찌 그리 그쳤는고!
- 5 주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통치자들의 홀을 꺾으셨도다.
- 6 분노하여 백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않던 자, 노하여 열국을 다스리던 자가 꺾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는 자가 없도다.
- 7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니 그들이 노래를 발하는도다.
- 8 참으로 전나무가 너를 보고 기뻐하며,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리하여 이르기를, 네가 눕히웠은즉 올라와 우리를 벨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 9 지옥이 아래에서 너로 인하여 요동하여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되, 그것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두령들을 너를 위해 흔들어 일으키고, 열국의 모든 왕들로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였도다.
- 10 그들이 모두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처럼 되었느냐 하리로다.
- 11 네 영화가 무덤에 내리웠음이여, 네 비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다. 벌레가 네 밑에 깔렸음이여 벌레들이 너를 덮도다.

## 2 Nephi 24

For the Lord will have mercy on Jacob, and will yet choose Israel, and set them in their own land; and the strangers shall be joined with them, and they shall cleave to the house of Jacob.

And the people shall take them and bring them to their place; yea, from far unto the ends of the earth; and they shall return to their lands of promise. And the house of Israel shall possess them, and the land of the Lord shall be for servants and handmaids; and they shall take them captives unto whom they were captives; and they shall rule over their oppressors.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Lord shall give thee rest, from thy sorrow, and from thy fear, and from the hard bondage wherein thou wast made to serve.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ou shalt take up this proverb against the king of Babylon, and say: How hath the oppressor ceased, the golden city ceased!

The Lord hath broken the staff of the wicked, the scepters of the rulers.

He who smote the people in wrath with a continual stroke, he that ruled the nations in anger, is persecuted, and none hindereth.

The whole earth is at rest, and is quiet; they break forth into singing.

Yea, the fir trees rejoice at thee, and also the cedars of Lebanon, saying: Since thou art laid down no feller is come up against us.

Hell from beneath is moved for thee to meet thee at thy coming; it stirreth up the dead for thee, even all the chief ones of the earth; it hath raised up from their thrones all the kings of the nations.

All they shall speak and say unto thee: Art thou also become weak as we? Art thou become like unto us?

Thy pomp is brought down to the grave; the noise of thy viols is not heard; the worm is spread under thee, and the worms cover thee.

- 12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국을 약하게 한 네가 짝하여 땅에 떨어졌는고!
- 13 이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 14 내가 구름보다 높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되리라 하였음이나라.
- 15 그러나 네가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내리우리라.
-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너를 곱곰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진동시키고 못 왕국을 뒤흔든 그 자이나?
- 17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 곳의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의 사로잡힌 자들의 옥을 열지 않던 그 사람이냐 하리로다.
- 18 열국의 모든 왕들, 참으로 그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웠도다.
- 19 그러나 너는 네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가지 같고 칼에 찔려 살육당하여 구덩이의 돌로 내려가는 자들의 남은 자 같으니, 밭 아래 밟히는 주검과 같도다.
- 20 너는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땅을 멸하고 네 백성을 죽인 연고니라. 행악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 21 그들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땅을 소유하지도, 성읍들로 세상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 22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바벨론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을 것임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23 내가 또한 그것으로 해오라기 차지가 되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멸망의 비로 그것을 소제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24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고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며, 내가 작정한 대로 서리라—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 weaken the nations!

For thou hast said in thy heart: I will ascend into heaven,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also up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in the sides of the north;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Yet thou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to the sides of the pit.

They that see thee shall narrowly look upon thee, and shall consider thee, and shall say: Is this the man that made the earth to tremble, that did shake kingdoms?

And made the world as a wilderness, and destroyed the cities thereof, and opened not the house of his prisoners?

All the kings of the nations, yea, all of them, lie in glory, every one of them in his own house.

But thou art cast out of thy grave like an abominable branch, and the remnant of those that are slain, thrust through with a sword, that go down to the stones of the pit; as a carcass trodden under feet.

Thou shalt not be joined with them in burial, because thou hast destroyed thy land and slain thy people; the seed of evil-doers shall never be renowned.

Prepare slaughter for his children for the iniquities of their fathers, that they do not rise, nor possess the land, nor fill the face of the world with cities.

For I will rise up against them, saith the Lord of Hosts, and cut off from Babylon the name, and remnant, and son, and nephew, saith the Lord.

I will also make it a possession for the bittern, and pools of water; and I will sweep it with the besom of destruction, saith the Lord of Hosts.

The Lord of Hosts hath sworn, saying: Surely as I have thought, so shall it come to pass; and as I have purposed, so shall it stand—

25 곧 내가 앓수르 사람을 내 땅에 데려와 내 산 위에서 그를 밭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날 것이라.

26 이것이 온 땅 위에 의도된 목적이요, 이것이 모든 나라 위에 뻗어있는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주께서 작정하셨은즉 누가 폐하겠느냐? 또 그의 손이 뻗어있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있었느니라.

29 너 온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겠음이라.

30 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안전한 가운데 누울 것이로되, 내가 기근으로 너의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도륙하리라.

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온 블레셋이 해체되었도다. 이는 한 연기가 북쪽에서 올 것이요, 그의 정한 시간에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을 것임이니라.

32 무엇이 그러면 열국의 사신들에게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의뢰하리라 함이니라.

That I will bring the Assyrian in my land, and upon my mountains tread him under foot; then shall his yoke depart from off them, and his burden depart from off their shoulders.

This is the purpose that is purposed upon the whole earth; and this is the hand that is stretched out upon all nations.

For the Lord of Hosts hath purposed, and who shall disannul? And his hand is stretched out, and who shall turn it back?

In the year that king Ahaz died was this burden.

Rejoice not thou, whole Palestina, because the rod of him that smote thee is broken; for out of the serpent's root shall come forth a cockatrice, and his fruit shall be a fiery flying serpent.

And the firstborn of the poor shall feed, and the needy shall lie down in safety; and I will kill thy root with famine, and he shall slay thy remnant.

Howl, O gate; cry, O city; thou, whole Palestina, art dissolved; for there shall come from the north a smoke, and none shall be alone in his appointed times.

What shall then answer the messengers of the nations? That the Lord hath founded Zion, and the poor of his people shall trust in it.

## 니파이후서 25

- 1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것, 곧 내가 기록한 말씀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라. 이는 보라, 이사야가 나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깨닫기 힘든 것을 많이 말하였음이니, 이는 유대인 가운데 예언하는 방식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 2 이는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일이 어둠의 일이요, 그들의 행위가 가증함의 행위였음이라.
- 3 그리하여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 또 내가 기록하는 이것들을 이후에 받게 될 모든 자를 위하여 기록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곧 그것이 그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나라에 임함을 알게 하고자 하노라.
- 4 그런즉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너희에게 명백하지 아니한 연고니라. 그러할 지라도 그 말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자 모두에게는 명백하도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너희에게 한 예언을 주노니, 그런즉 나는 내가 나의 부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나와 함께 있어 온 명백함을 좇아 예언하리라. 이는 보라, 나의 영혼이 내 백성들을 위하여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는 그들로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 5 참으로 또한 나의 영혼은 이사야의 말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으며, 나의 눈이 유대인의 것을 보았고, 유대인들이 참으로 선지자들의 것을 이해하는 줄을 내가 앎이며, 또 유대인의 것의 방식을 좇아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처럼 이해하는 백성이 달리 없음이라.

## 2 Nephi 25

Now I, Nephi, do speak somewhat concerning the words which I have written, which have been spoken by the mouth of Isaiah. For behold, Isaiah spake many things which were hard for many of my people to understand; for they know not concerning the manner of prophesying among the Jews.

For I, Nephi, have not taught them many things concerning the manner of the Jews; for their works were works of darkness, and their doings were doings of abominations.

Wherefore, I write unto my people, unto all those that shall receive hereafter these things which I write, that they may know the judgments of God, that they come upon all nations, according to the word which he hath spoken.

Wherefore, hearken, O my people, which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give ear unto my words; for because the words of Isaiah are not plain unto you, nevertheless they are plain unto all those that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prophecy. But I give unto you a prophecy, according to the spirit which is in me; wherefore I shall prophesy according to the plainness which hath been with me from the time that I came out from Jerusalem with my father; for behold, my soul delighteth in plainness unto my people, that they may learn.

Yea, and my soul delighteth in the words of Isaiah, for I came out from Jerusalem, and mine eyes hath beheld the things of the Jews, and I know that the Jews do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prophets, and there is none other people that understand the things which were spoken unto the Jews like unto them, save it be that they are taught after the manner of the things of the Jews.

- 6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유대인의 방식을 좇아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 자신으로는 예루살렘에 거하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주변의 지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또 나는 이사야가 말한 모든 것을 좇아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진 바, 나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언급하였으되,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 7 그러나 보라, 나는 나의 명백함을 좇아 나 스스로의 예언으로 계속하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를 아무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그리할지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곧 그것이 이루어질 날에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되리라.
- 8 그런즉 이사야의 말씀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말하고, 말씀을 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국한시키리니, 이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가치 있을 줄을 내가 앎이라. 이는 그 날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것임이니, 이러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를 기록하였노라.
- 9 또 죄악으로 인하여 유대인 가운데 한 세대가 멸망당한 것같이 대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나니,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0 그리하여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 그들에게 임할 멸망에 관하여 그들에게 고한 바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나의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멸망당하였느니라.
- 11 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말함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리라.

But behold, I, Nephi, have not taught my children after the manner of the Jews; but behold, I, of myself, have dwelt at Jerusalem, wherefore I know concerning the regions round about; and I have made mention unto my children concerning the judgments of God, which hath come to pass among the Jews, unto my children, according to all that which Isaiah hath spoken, and I do not write them.

But behold, I proceed with mine own prophecy, according to my plainness; in the which I know that no man can err; nevertheless, in the days that the prophecies of Isaiah shall be fulfilled men shall know of a surety, at the times when they shall come to pass.

Wherefore, they are of worth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he that supposeth that they are not, unto them will I speak particularly, and confine the words unto mine own people; for I know that they shall be of great worth unto them in the last days; for in that day shall they understand them; wherefore, for their good have I written them.

And as one generation hath been destroyed among the Jews because of iniquity, even so have they been destroy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ccording to their iniquities; and never hath any of them been destroyed save it were foretold them by the prophets of the Lord.

Wherefore, it hath been told them concerning the destruction which should come upon them, immediately after my father left Jerusalem; nevertheless, they hardened their hearts; and according to my prophecy they have been destroyed, save it be those which are carried away captive into Babylon.

And now this I speak because of the spirit which is in me. And notwithstanding they have been carried away they shall return again, and possess the land of Jerusalem; wherefore, they shall be restored again to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12 그러나 보라, 그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참으로 곧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그 날이 이르면, 보라,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를 저버리리라.

13 보라,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는 사흘 동안 무덤에 누인 후, 그의 날개를 고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그런즉 내 영혼이 그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날을 보았음이요, 내 마음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함이라.

14 또 보라 이렇게 되리니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난 후, 보라,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당하리니, 이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15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또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인즉, 유대인들은 다른 국민들에 의하여 흩어지리라.

16 또 그들이 흩어지고, 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여러 세대 동안 참으로 곧 대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설득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모든 인류를 위한 무한한 속죄를 믿게 될 때까지 그들을 채찍질하신 후—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더 이상 고대하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 그때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날이 이를 것이니라.

17 또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 잃은 바 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회복하시려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리니, 그런즉 그는 나아가사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But, behold, they shall have wars, and rumors of wars; and when the day cometh that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yea, even the Father of heaven and of earth, shall manifest himself unto them in the flesh, behold, they will reject him, because of their iniquities, and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 stiffness of their necks.

Behold, they will crucify him; and after he is laid in a sepulchre for the space of three days he shall rise from the dead,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all those who shall believe on his name shall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Wherefore, my soul delighteth to prophesy concerning him, for I have seen his day, and my heart doth magnify his holy name.

And behold it shall come to pass that after the Messiah hath risen from the dead, and hath manifested himself unto his people, unto as many as will believe on his name, behold, Jerusalem shall be destroyed again; for wo unto them that fight against God and the people of his church.

Wherefore, the Jews shall be scattered among all nations; yea, and also Babylon shall be destroyed; wherefore, the Jews shall be scattered by other nations.

And after they have been scattered, and the Lord God hath scourged them by other nations for the space of many generations, yea, even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until they shall be persuaded to believe in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 atonement, which is infinite for all mankind—and when that day shall come that they shall believe in Christ, and worship the Father in his name, with pure hearts and clean hands, and look not forward any more for another Messiah, then, at that time, the day will come that it must needs be expedient that they should believe these things.

And the Lord will set his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store his people from their lost and fallen state. Wherefore, he will proceed to do a marvelous work and a wonder among the children of men.

18 그리하여 그는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내시  
리니,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이 저버린 참된 메시아를 그들에게  
확신시킬 목적으로, 또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더 이상 고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  
신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이는  
사람들을 속일 거짓 메시아 외에는 어떤 메시아도  
오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메  
시아는 오직 하나뿐이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  
게 버림을 받을 그임이라.

19 이는 선지자들의 말에 따를진대, 메시아는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 후에  
오시며, 선지자들의 말과 또한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따르건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이니라.

20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올리셨고, 모세에게 능  
력을 주사 민족들을 고치게 하시되, 그들이 독뱀  
에게 물린 후 그가 그들 앞에 들어올린 뱀에 만일  
그들이 그 눈길을 던지면 그리하게 하셨으며, 또  
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바위를 치게 하시고  
물을 나오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 참으  
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21 그러한즉 이러한 연유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  
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  
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 이는 땅이 있는 동안은  
그의 자손이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  
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22 그런즉 이러한 것들은 땅이 있는 동안은 대대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따라 가게  
되리니, 이를 소유하게 될 국민들은 이로 말미암  
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Wherefore, he shall bring forth his words unto  
them, which words shall judge them at the last day,  
for they shall be given them for the purpose of con-  
vincing them of the true Messiah, who was rejected  
by them; and unto the convincing of them that they  
need not look forward any more for a Messiah to  
come, for there should not any come, save it should  
be a false Messiah which should deceive the people;  
for there is save one Messiah spoken of by the  
prophets, and that Messiah is he who should be re-  
jected of the Jews.

For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the  
Messiah cometh in six hundred years from the time  
that my father left Jerusalem; and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also the word of the angel  
of God, his name shall b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now, my brethren, I have spoken plainly that  
ye cannot err. And as the Lord God liveth that  
brought Israel up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gave  
unto Moses power that he should heal the nations  
after they had been bitten by the poisonous serpents,  
if they would cast their eyes unto the serpent which  
he did raise up before them, and also gave him  
power that he should smite the rock and the water  
should come forth; yea, behold I say unto you, that  
as these things are true, and as the Lord God liveth,  
there is none other name given under heaven save it  
be this Jesus Christ, of which I have spoken,  
whereby man can be saved.

Wherefore, for this cause hath the Lord God  
promised unto me that these things which I write  
shall be kept and preserved, and handed down unto  
my se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at the  
promise may be fulfilled unto Joseph, that his seed  
should never perish as long as the earth should  
stand.

Wherefore, these things shall go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long as the earth shall stand; and  
they shall go according to the will and pleasure of  
God; and the nations who shall possess them shall be  
judged of them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are  
written.



23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

24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느니라.

25 이는 이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음이라. 그런즉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바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을지라도,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26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27 그런즉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앎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대하고, 무슨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후 율법이 마땅히 폐하여져야 할 때, 그들이 그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8 또 이제 보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너희가 오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내가 한 그 말은 너희를 대하는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 말이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기에 족함이라. 이는 바른 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임이니, 이는 그를 부인함으로써 너희는 또한 선지자와 율법을 부인하게 됨이니라.

29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그의 앞에 절하며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과 너희 온 영혼을 다하여 그를 예배하여야 하나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는 결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For we labor diligently to write, to persuade our children, and also our brethren, to believe in Christ, and to be reconciled to God; for we know that it is by grace that we are saved, after all we can do.

And, notwithstanding we believe in Christ, we keep the law of Moses, and look forward with steadfastness unto Christ, until the law shall be fulfilled.

For, for this end was the law given; wherefore the law hath become dead unto us, and we are made alive in Christ because of our faith; yet we keep the law because of the commandments.

And we talk of Christ, we rejoice in Christ, we preach of Christ, we prophesy of Christ, and we write according to our prophecies, that our children may know to what source they may look for a remission of their sins.

Wherefore, we speak concerning the law that our children may know the deadness of the law; and they, by knowing the deadness of the law, may look forward unto that life which is in Christ, and know for what end the law was given. And after the law is fulfilled in Christ, that they need not harden their hearts against him when the law ought to be done away.

And now behold, my people, ye are a stiffnecked people; wherefore, I have spoken plainly unto you, that ye cannot misunderstand. And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shall stand as a testimony against you; for they are sufficient to teach any man the right way; for the right way is to believe in Christ and deny him not; for by denying him ye also deny the prophets and the law.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right way is to believe in Christ, and deny him not; and Christ is the Holy One of Israel; wherefore ye must bow down before him, and worship him with all your might, mind, and strength, and your whole soul; and if ye do this ye shall in nowise be cast out.

30     또 그리할 필요가 있는 한, 너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And, inasmuch as it shall be expedient, ye must keep the performances and ordinances of God until the law shall be fulfilled which was given unto Moses.

## 니파이후서 26

- 1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너희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하실 말씀은 너희가 행할 율법이 되리라.
- 2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세대가 지나갈 것과 내 백성 중에 큰 전쟁과 다툼들이 있을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 3 또 메시야가 오신 후에 그의 탄생에 대하여 또 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표적이 있을 것이요,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또 그들이 멸망함은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쫓아 내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는 연고니, 그런즉 성도들의 피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대하여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 4 그런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사르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루터기같이 될 것임이니라.
- 5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이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산들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회리바람이 그들을 휩쓸어 가 버릴 것이며, 건물들이 그들 위에 무너져 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그들을 갈아 가루로 만들 것이라.
- 6 또 그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온갖 형태의 멸망으로 응징을 받으리니, 이는 주의 분노의 불길이 그들에게 대하여 불붙을 것임이요, 그들은 그루터기같이 될 것이며,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소멸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7 오 나의 백성의 살육당한 자들을 잃음으로 인한 내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며, 이는 나 니파이가 그것을 보았음이니, 그것은 주의 면전에서 나를 거의 소멸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느니라.

## 2 Nephi 26

And after Christ shall have risen from the dead he shall show himself unto you, my children, and my beloved brethren; and the words which he shall speak unto you shall be the law which ye shall do.

For behold, I say unto you that I have beheld that many generations shall pass away, and there shall be great wars and contentions among my people.

And after the Messiah shall come there shall be signs given unto my people of his birth, and also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great and terrible shall that day be unto the wicked, for they shall perish; and they perish because they cast out the prophets, and the saints, and stone them, and slay them; wherefore the cry of the blood of the saints shall ascend up to God from the ground against them.

Wherefore, all those who are proud, and that do wickedly, the day that cometh shall burn them up, saith the Lord of Hosts, for they shall be as stubble.

And they that kill the prophets, and the saints, the depths of the earth shall swallow them up, saith the Lord of Hosts; and mountains shall cover them, and whirlwinds shall carry them away, and buildings shall fall upon them and crush them to pieces and grind them to powder.

And they shall be visited with thunderings, and lightnings, and earthquakes, and all manner of destructions, for the fire of the anger of the Lord shall be kindled against them, and they shall be as stubble, and the day that cometh shall consume them, saith the Lord of Hosts.

O the pain, and the anguish of my soul for the loss of the slain of my people! For I, Nephi, have seen it, and it will nigh consumeth me before the presence of the Lord; but I must cry unto my God: Thy ways are just.

- 8 그러나 보라,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표적으로 인하여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의인들은—보라,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자들이라.
- 9 도리어 의의 아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고치시리니, 그들은 그와 화목하여 세 세대가 지나고, 넷째 세대의 많은 자들이 의 가운데 지나가기 까지 이르리라.
- 10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신속한 멸망이 나의 백성에게 임하나니, 이는 내 영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음이라. 그런즉 나는 그 일이 이를 줄을 아노라. 또 그들은 헛된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파나니, 이는 그들이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에 대한 보응으로 멸망을 거들 것임이요, 악마에게 굴종하여 빛보다는 어둠의 일을 택하므로, 그로 인해 그들이 반드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임이니라.
- 11 이는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나니, 이것이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 12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킴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야 하며,
- 13 또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아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 14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관하여 예언하노니, 곧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실 날에 관하여서라.

But behold, the righteous that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destroy them not, but look forward unto Christ with steadfastness for the signs which are given, notwithstanding all persecution—behold, they are they which shall not perish.

But the Son of Righteousness shall appear unto them; and he shall heal them, and they shall have peace with him, until three generations shall have passed away, and many of the fourth generation shall have passed away in righteousness.

And when these things have passed away a speedy destruction cometh unto my people; for, notwithstanding the pains of my soul, I have seen it; wherefore, I know that it shall come to pass; and they sell themselves for naught; for, for the reward of their pride and their foolishness they shall reap destruction; for because they yield unto the devil and choose works of darkness rather than light, therefore they must go down to hell.

For the Spirit of the Lord wi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And when the Spirit ceaseth to strive with man then cometh speedy destruction, and this grieveth my soul.

And as I spake concerning the convincing of the Jews, that Jesus is the very Christ, it must needs be that the Gentiles be convinced also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Eternal God;

And that he manifesteth himself unto all those who believe in him,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yea, unto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working mighty miracles, signs, and wonders, among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ir faith.

But behold, I prophesy unto you concerning the last days; concerning the days when the Lord God shall bring these things forth unto the children of men.

15 내 자손과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이방인들에게 매맞고 난 후,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둘러 진 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산으로 에워싸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요새를 세우신 후, 그리고 그들이 티끌에 낮게 내리워서 참으로 그들이 없어진 후, 그럼에도 의인들의 말은 기록될 것이며 성실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될 것이며,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 모두는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16 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그들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일 것임이니라.

17 이는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심이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할 것이요, 그것은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인봉될 것으로되,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멸하기를 꾀함이라.

18 그런즉 멸망당한 자들이 속히 멸망당하였고, 그들의 무서운 자들의 무리가 불러 가는 겨같이 될 것처럼—참으로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19 또 이렇게 되리니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매맞을 것이니라.

20 또 이방인들은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졌고, 그들의 걸림돌이 크므로 인하여 거쳐 넘어졌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학식을 전파하니, 이는 이익을 얻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려 함이라.

21 또 시기와 다툼과 원한을 일으키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느니라.

After my seed and the seed of my brethren shall have dwindled in unbelief, and shall have been smitten by the Gentiles; yea, after the Lord God shall have camped against them round about, and shall have laid siege against them with a mount, and raised forts against them; and after they shall have been brought down low in the dust, even that they are not, yet the words of the righteous shall be written, and the prayers of the faithful shall be heard, and all those who have dwindled in unbelief shall not be forgotten.

For those who shall be destroyed shall speak unto them out of the ground, and their speech shall be low out of the dust, and their voice shall be as one that hath a familiar spirit; for the Lord God will give unto him power, that he may whisper concerning them, even as it were out of the ground; and their speech shall whisper out of the dust.

For thus saith the Lord God: They shall write the things which shall be done among them, and they shall be written and sealed up in a book, and those who have dwindled in unbelief shall not have them, for they seek to destroy the things of God.

Wherefore, as those who have been destroyed have been destroyed speedily; and the multitude of their terrible ones shall be as chaff that passeth away—yea, thus saith the Lord God: It shall be at an instant, suddenly—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ose who have dwindled in unbelief shall be smitten by the hand of the Gentiles.

And the Gentiles ar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eyes, and have stumbl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stumbling block, that they have built up many churches; nevertheless, they put down the power and miracles of God, and preach up unto themselves their own wisdom and their own learning, that they may get gain and grind upon the face of the poor.

And there are many churches built up which cause envyings, and strifes, and malice.

22 또 참으로 옛적에와 같이 비밀 결사들 또한 있나니 곧 악마의 결사를 따른 것이라. 이는 그가 이 모든 것의 창시자임이니, 참으로 살인과 어둠의 일의 창시자라. 또한 그는 아마 줄로 목을 매어 그들을 이끌기를 그의 강한 줄로 그들을 영원히 결박하기까지 하느니라.

23 이는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일하지 아니하심이라.

24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심이라.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5 보라, 누구에게 그가 소리쳐 이르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이르시기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하시느니라.

26 보라,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회당에서, 혹은 경배의 집에서 떠나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27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거저 주셨으며, 그의 백성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회개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28 보라, 누구에게 주께서 명하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9 그가 명하시기를 사제술이 없을 것이라 하시나니, 이는 보라,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And there are also secret combinations, even as in times of ol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s of the devil, for he is the founder of all these things; yea, the founder of murder, and works of darkness; yea, and he leadeth them by the neck with a flaxen cord, until he bindeth them with his strong cords forever.

For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say unto you that the Lord God worketh not in darkness.

He doeth not anything save it be for the benefit of the world; for he loveth the world, even that he layeth down his own life that he may draw all men unto him. Wherefore, he commandeth none that they shall not partake of his salvation.

Behold, doth he cry unto any, saying: Depart from me? Behold, I say unto you, Nay; but he saith: Come unto me all ye ends of the earth, buy milk and honey,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Behold, hath he commanded any that they should depart out of the synagogues, or out of the houses of worship? Behold, I say unto you, Nay.

Hath he commanded any that they should not partake of his salvation? Behold I say unto you, Nay; but he hath given it free for all men; and he hath commanded his people that they should persuade all men to repentance.

Behold, hath the Lord commanded any that they should not partake of his goodness? Behold I say unto you, Nay; but all men are privileged the one like unto the other, and none are forbidden.

He commandeth that there shall be no priestcrafts; for, behold, priestcrafts are that men preach and set themselves up for a light unto the world, that they may get gain and praise of the world; but they seek not the welfare of Zion.

30 보라 주께서는 이 일을 금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 또 그들에게 자애가 없을진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즉 만일 그들에게 자애가 있을진대 그들은 시온에 있는 일꾼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31 그러나 시온에 있는 일꾼은 시온을 위하여 일하리니, 이는 만일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하면 멸망할 것임이라.

32 그리고 또 주 하나님께서 명하사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원한을 갖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음행을 범하지 말며, 또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임이라.

33 이는 이 모든 죄악 중 아무것이라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Behold, the Lord hath forbidden this thing; wherefore, the Lord God hath given a commandment that all men should have charity, which charity is love. And except they should have charity they were nothing. Wherefore, if they should have charity they would not suffer the laborer in Zion to perish.

But the laborer in Zion shall labor for Zion; for if they labor for money they shall perish.

And again, the Lord God hath commanded that men should not murder; that they should not lie; that they should not steal; that they should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eir God in vain; that they should not envy; that they should not have malice; that they should not contend one with another; that they should not commit whoredoms; and that they should do none of these things; for whoso doeth them shall perish.

For none of these iniquities come of the Lord; for he doeth that which is good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he doeth nothing save it be plain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he inviteth them all to come unto him and partake of his goodness; and he denieth none that come unto him, black and white, bond and free, male and female; and he remembereth the heathen; and all are alike unto God, both Jew and Gentile.

## 니파이후서 27

- 1 그러나 보라, 마지막 날에 곧 이방인의 날에—참으로 보라, 이방인의 모든 나라와, 또한 유대인들 곧 이 땅 위에 오게 될 자들과 다른 땅 위에 참으로 곧 지구의 모든 땅 위에 있게 될 자들이, 보라, 그들이 죄악과 온갖 가증함에 취할 것이라—
- 2 그리하여 그 날이 이를 때, 그들은 만군의 주에게서 천동으로, 또 지진으로, 또 크게 요란한 소리로, 또 폭풍으로, 또 태풍으로, 또 삼키는 화염으로 징벌을 받으리라.
- 3 또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는 밤 환상의 꿈과 같이 될 것이라. 참으로 그들은 주린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그가 깰즉 그의 영혼이 비어 있고, 곧 목마른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그가 깰즉 지쳐 있고 그의 영혼에는 갈증이 있는 것같이, 참으로 시온 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국민들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 4 대저 불지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모두 멈추어 서서 놀라워 할지어다. 이는 너희가 크게 부르짖고 울게 될 것임이라. 참으로 너희가 취하나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너희가 비틀걸음을 치나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니라.
- 5 이는 보라,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셨음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너희 눈을 감았고 너희가 선지자들을 저버렸으며, 너희의 통치자들과 선견자들을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가리우셨음이니라.
- 6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한 책의 말씀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인즉, 그것은 잠든 자들의 말일 것이라.
- 7 또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그 책에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으리라.
- 8 그러한즉 인봉된 것들로 인하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날에 전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책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것이라.

## 2 Nephi 27

But, behold, in the last days, or in the days of the Gentiles—yea, behold all the nations of the Gentiles and also the Jews, both those who shall come upon this land and those who shall be upon other lands, yea, even upon all the lands of the earth, behold, they will be drunken with iniquity and all manner of abominations—

And when that day shall come they shall be visited of the Lord of Hosts, with thunder and with earthquake, and with a great noise, and with storm, and with tempest, and with the flame of devouring fire.

And all the nations that fight against Zion, and that distress her, shall be as a dream of a night vision; yea, it shall be unto them, even as unto a hungry man which dreameth, and behold he eateth but he awaketh and his soul is empty; or like unto a thirsty man which dreameth, and behold he drinketh but he awaketh and behold he is faint, and his soul hath appetite; yea, even so shall the multitude of all the nations be that fight against Mount Zion.

For behold, all ye that doeth iniquity, stay yourselves and wonder, for ye shall cry out, and cry; yea, ye shall be drunken but not with wine, ye shall stagger but not with strong drink.

For behold, the Lord hath poured out upon you the spirit of deep sleep. For behold, ye have closed your eyes, and ye have rejected the prophets; and your rulers, and the seers hath he covered because of your iniquity.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rd God shall bring forth unto you the words of a book, and they shall be the words of them which have slumbered.

And behold the book shall be sealed; and in the book shall be a revelation from Go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ending thereof.

Wherefore, because of the things which are sealed up, the things which are sealed shall not be delivered in the day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of the people. Wherefore the book shall be kept from them.



- 9 그러나 그 책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리니, 그가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의 말인 그 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는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전하리라.
- 10 그러나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책도 그가 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책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봉해질 것이며, 봉해진 계시는 그것이 나아오도록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에 보존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밝혀 줄 것임이니라.
- 11 또 봉해졌던 바 책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읽혀질 날이 오나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읽혀질 것이며, 또 이제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고, 장차 지구의 종말까지 있을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질 것이라.
- 12 그런즉 내가 말한 그 사람에게 책이 전해질 그 날에, 그 책은 세상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라. 그리하여 아무의 눈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 것이로되, 다만 책을 전해 받을 자 외에, 세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은 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참됨을 증거하리라.
- 13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말씀을 증거 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 14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 15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실 자에게 이르시기를, 봉해지지 아니한 이 말씀을 취하여 다른 자에게 전하여 그로 그것을 학자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학자가 말하기를, 책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읽겠노라 하리라.

But the book shall be delivered unto a man, and he shall deliver the words of the book, which are the words of those who have slumbered in the dust, and he shall deliver these words unto another;

But the words which are sealed he shall not deliver, neither shall he deliver the book. For the book shall be sealed by the power of God, and the revelation which was sealed shall be kept in the book until the own due time of the Lord, that they may come forth; for behold, they reveal all things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unto the end thereof.

And the day cometh that the words of the book which were sealed shall be read upon the house tops; and they shall be read by the power of Christ; and all things shall be revealed unto the children of men which ever have bee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which ever will be even unto the end of the earth.

Wherefore, at that day when the book shall be delivered unto the man of whom I have spoken, the book shall be hid from the eyes of the world, that the eyes of none shall behold it save it be that three witnesses shall behold it, by the power of God, besides him to whom the book shall be delivered; and they shall testify to the truth of the book and the things therein.

And there is none other which shall view it, save it be a few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o bear testimony of his word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the Lord God hath said that the words of the faithful should speak as if it were from the dead.

Wherefore, the Lord God will proceed to bring forth the words of the book; and in the mouth of as many witnesses as seemeth him good will he establish his word; and wo be unto him that rejecteth the word of God!

But behol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rd God shall say unto him to whom he shall deliver the book: Take these words which are not sealed and deliver them to another, that he may show them unto the learned, saying: Read this, I pray thee. And the learned shall say: Bring hither the book, and I will read them.

- 16 그러나 이제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익을 얻고자 그들이 이 말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 17 이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그 책을 가져 올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봉해져 있음이라 하리라.
- 18 그러면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다 하리라.
- 19 그러한즉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다시 책과 그 말씀을 학자가 아닌 자에게 전하시면 학자가 아닌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학자가 아니라 하리로다.
- 20 그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음이어니와,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그런즉 너는 내가 네게 줄 말씀을 읽을지니라.
- 21 봉해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들을 드러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 22 그런즉 내가 네게 명한 그 말씀을 네가 읽고 내가 네게 약속한 증인들을 얻고 나서, 너는 그 책을 다시 인봉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이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힘이 적합하다 여길 때까지, 네가 읽지 아니한 말씀을 내가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 23 이는 보라, 나는 하나님이요 또 기적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동일함과 나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면 역사하지 아니함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하시리라.
- 24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그 곧 자기에게 전해질 말씀을 읽을 자에게 주께서 이르시기를,
- 25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며,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옮겨 갔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경외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인즉—

And now, because of the glory of the world and to get gain will they say this, and not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man shall say: I cannot bring the book, for it is sealed.

Then shall the learned say: I cannot read it.

Wherefore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rd God will deliver again the book and the words thereof to him that is not learned; and the man that is not learned shall say: I am not learned.

Then shall the Lord God say unto him: The learned shall not read them, for they have rejected them, and I am able to do mine own work; wherefore thou shalt read the words which I shall give unto thee.

Touch not the things which are sealed, for I will bring them forth in mine own due time; for I will show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I am able to do mine own work.

Wherefore, when thou hast read the words which I have commanded thee, and obtained the witnesses which I have promised unto thee, then shalt thou seal up the book again, and hide it up unto me, that I may preserve the words which thou hast not read, until I shall see fit in mine own wisdom to reveal all things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behold, I am God; and I am a God of miracles; and I will show unto the world that I am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I work not among the children of men save it be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again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rd shall say unto him that shall read the words that shall be delivered him:

Forasmuch as this people draw near unto me with their mouth, and with their lips do honor me, but have removed their hearts far from me, and their fear towards me is taught by the precepts of men—

- 26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 이 백성 가운데 한 기이 한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일 것이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 위질 것임이니라.
- 27 또 자기의 피를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알리요 하며, 그들이 또한 이르기를, 정녕 네가 사물을 뒤집음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거니와,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느냐? 혹 빛어진 것이 그것을 빛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총명이 없다 할 수 있느냐?
- 28 그러나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레바논이 결실 많은 밭으로 되며, 결실 많은 밭이 삼림같이 여김을 받을 것을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리라.
- 29 또 그 날에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두운 데서와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임이니라.
- 30 또 온유한 자가 또한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이 주께 있을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뻐하리라.
- 31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을 그들이 볼 것임이니라.
- 32 또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위하여 올무를 놓으며, 의인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 옆으로 물리치는 자들 또한 끊어졌음을 그들이 보리로다.
- 33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Therefore, I will proceed to do a marvelous work among this people, yea, a marvelous work and a wonder, for the wisdom of their wise and learned shall perish, and the understanding of their prudent shall be hid.

And wo unto them that seek deep to hide their counsel from the Lord! And their works are in the dark; and they say: Who seeth us, and who knoweth us? And they also say: Surely, your turning of things upside down shall be esteemed as the potter's clay. But behold, I will show unto them, saith the Lord of Hosts, that I know all their works. For shall the work say of him that made it, he made me not? Or shall the thing framed say of him that framed it, he had no understanding?

But behold, saith the Lord of Hosts: I will show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it is yet a very little while and Lebanon shall be turned into a fruitful field; and the fruitful field shall be esteemed as a forest.

And in that day shall the deaf hear the words of the book, and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 out of obscurity and out of darkness.

And the meek also shall increase, and their joy shall be in the Lord, and the poor among men shall rejoice in the Holy One of Israel.

For assuredly as the Lord liveth they shall see that the terrible one is brought to naught, and the scorner is consumed, and all that watch for iniquity are cut off;

And they that make a man an offender for a word, and lay a snare for him that reproveth in the gate, and turn aside the just for a thing of naught.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who redeemed Abraham, concerning the house of Jacob: Jacob shall not now be ashamed, neither shall his face now wax pale.

34 그가 내 손으로 지은 그의 자손들을 그의 가운데서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35 또한 영으로 그릇하였던 자들도 깨달게 되며, 원망하였던 자들은 교리를 배우리라.

But when he seeth his children, the work of my hands, in the midst of him, they shall sanctify my name, and sanctify the Holy One of Jacob, and shall fear the God of Israel.

They also that erred in spirit shall come to understanding, and they that murmured shall learn doctrine.

## 니파이후서 28

- 1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일들이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아노라.
- 2 또 그 책으로부터 기록될 것들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지파의 한 남은 자들인 우리의 자손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라.
- 3 이는 그 날에 이렇게 될 것임이니, 곧 세워지되 주를 위하여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들이 있어, 그 때에 하나가 다른 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 하리니, 교회를 세우되 주를 위하여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이같이 말하리라—
- 4 또 그들이 서로 다툴 것이며, 그들의 제사가 서로 다툴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학식으로 가르치며 말씀하게 하시는 성신을 부인할 것이다.
- 5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없는 연고니 이는 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이가 그의 일을 다하셨고, 그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이라.
- 6 보라, 너희는 나의 교훈에 귀 기울이라. 설혹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오늘날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심이라. 그는 그의 일을 마치셨느니라 하느니라.
- 7 참으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 하리라.

## 2 Nephi 28

And now, behold, my brethren, I have spoken unto you, according as the Spirit hath constrained me; wherefore, I know that they must surely come to pass.

And the things which shall be written out of the book shall be of great worth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especially unto our seed, which is a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For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churches which are built up, and not unto the Lord, when the one shall say unto the other: Behold, I, I am the Lord's; and the others shall say: I, I am the Lord's; and thus shall every one say that hath built up churches, and not unto the Lord—

And they shall contend one with another; and their priests shall contend one with another, and they shall teach with their learning, and deny the Holy Ghost, which giveth utterance.

And they deny the power of God,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y say unto the people: Hearken unto us, and hear ye our precept; for behold there is no God today, for the Lord and the Redeemer hath done his work, and he hath given his power unto men;

Behold, hearken ye unto my precept; if they shall say there is a miracle wrought by the hand of the Lord, believe it not; for this day he is not a God of miracles; he hath done his work.

Yea, and there shall be many which shall say: Eat, drink, and be merry, for tomorrow we die; and it shall be well with us.

- 8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그러하니 거짓말도 조금하고 어떤 이를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
- 9 참으로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마음이 부풀어올라, 그들의 꾀를 주에게서 깊이 숨기려 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니라.
- 10 이에 성도들의 피가 그들에게 대하여 땅에서부터 부르짖으리라.
- 11 참으로 그들이 모두 길에서 벗어났음이며, 그들은 부패하여졌도다.
- 12 교만으로 인하여 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그들의 교회는 부패하여졌고, 그들의 교회가 자고하여졌음이며,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풀어 올랐도다.
- 13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성소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며,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의복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고, 그들은 자기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올랐음으로 인하여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도다.
- 14 그들은 뻣뻣한 목과 치켜든 고개를 가졌나니, 또한 교만과 간악함과 가증함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그릇 갔도다. 다만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몇몇이 그렇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도되어 많은 경우 실로 잘못을 범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연고라.
- 15 오 자기 마음의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모든 자와 음행을 범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자여, 그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옥으로 밀쳐 내려질 것임이로다!

And there shall also be many which shall say: Eat, drink, and be merry; nevertheless, fear God—he will justify in committing a little sin; yea, lie a little, take the advantage of one because of his words, dig a pit for thy neighbor; there is no harm in this; and do all these things, for tomorrow we die; and if it so be that we are guilty, God will beat us with a few stripes, and at last we shall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Yea, and there shall be many which shall teach after this manner, false and vain and foolish doctrines, and shall be puffed up in their hearts, and shall seek deep to hide their counsels from the Lord; and their works shall be in the dark.

And the blood of the saints shall cry from the ground against them.

Yea, they have all gone out of the way; they have become corrupted.

Because of pride, and because of false teachers, and false doctrine, their churches have become corrupted, and their churches are lifted up; because of pride they are puffed up.

They rob the poor because of their fine sanctuaries; they rob the poor because of their fine clothing; and they persecute the meek and the poor in heart, because in their pride they are puffed up.

They wear stiff necks and high heads; yea, and because of pride, and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whoredoms, they have all gone astray save it be a few, who are the humble followers of Christ; nevertheless, they are led, that in many instances they do err because they are taught by the precepts of men.

O the wise, and the learned, and the rich, that are puff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and all those who preach false doctrines, and all those who commit whoredoms, and pervert the right way of the Lord, wo, wo, wo be unto them, saith the Lord God Almighty, for they shall be thrust down to hell!

16 의인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 옆으로 몰리치며 선한 것에 대하여 욕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들을 속히 징벌하실 날이 임할 것이요, 그들이 죄악으로 무르익는 그 날에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보라, 만일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할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온 땅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반드시 땅에 무너져 내리리니, 그 무너짐이 반드시 크리로다.

19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이며, 거기 속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도록 일깨움을 받을 것임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가 그의 영원한 사슬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은 충동을 받아 노하게 되어 멸망할 것임이라.

20 이는 보라, 그 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임이라.

21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22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

23 참으로 그들은 사망과 지옥으로써 붙잡힌 바 되었나니,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이로써 붙잡힌 바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곳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 곧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향의 못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24 그러므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25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외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Wo unto them that turn aside the just for a thing of naught and revile against that which is good, and say that it is of no worth! For the day shall come that the Lord God will speedily visit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in that day that they are fully ripe in iniquity they shall perish.

But behold, if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shall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they shall not be destroyed, saith the Lord of Hosts.

But behold, that great and abominable church, the whore of all the earth, must tumble to the earth, and great must be the fall thereof.

For the kingdom of the devil must shake, and they which belong to it must needs be stirred up unto repentance, or the devil will grasp them with his everlasting chains, and they be stirred up to anger, and perish;

For behold, at that day shall he rage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and stir them up to anger against that which is good.

And others will he pacify, and lull them away into carnal security, that they will say: All is well in Zion; yea, Zion prospereth, all is well—and thus the devil cheateth their souls, and leadeth them away carefully down to hell.

And behold, others he flattereth away, and telleth them there is no hell; and he saith unto them: I am no devil, for there is none—and thus he whispereth in their ears, until he grasps them with his awful chains, from whence there is no deliverance.

Yea, they are grasped with death, and hell; and death, and hell, and the devil, and all that have been seized therewith must stand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from whence they must go into the place prepared for them, even a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ich is endless torment.

Therefore, wo be unto him that is at ease in Zion!

Wo be unto him that crieth: All is well!

26 참으로 사람의 교훈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7 참으로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8 요컨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떨며, 노하는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보라,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이나,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는 그가 쓰러질까 염려하여 떨이니라.

2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니, 우리가 넉넉히 가졌은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30 이는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 우리는 넉넉히 가졌노라 할 자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임이니라.

31 사람을 신뢰하는 자, 곧 육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 곧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아닌 사람들의 교훈에 귀 기울일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32 이방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 팔을 펼칠 것임에도 그들이 나를 부인하려 함이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내게로 올진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니, 이는 내 팔이 종일토록 펼쳐져 있음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Yea, wo be unto him that hearkeneth unto the precepts of men, and denieth the power of God, and the gift of the Holy Ghost!

Yea, wo be unto him that saith: We have received, and we need no more!

And in fine, wo unto all those who tremble, and are angry because of the truth of God! For behold, he that is built upon the rock receiveth it with gladness; and he that is built upon a sandy foundation trembleth lest he shall fall.

Wo be unto him that shall say: We have received the word of God, and we need no more of the word of God, for we have enough!

For behold, thus saith the Lord God: I will give unto the children of men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here a little and there a little;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ken unto my precepts, and lend an ear unto my counsel, for they shall learn wisdom; for unto him that receiveth I will give more; and from them that shall say, We have enough, from them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they have.

Cursed is he that putteth his trust in man, or maketh flesh his arm, or shall hearken unto the precepts of men, save their precepts shall be given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o be unto the Gentiles, saith the Lord God of Hosts! For notwithstanding I shall lengthen out mine arm unto them from day to day, they will deny me; nevertheless, I will be merciful unto them, saith the Lord God, if they will repent and come unto me; for mine arm is lengthened out all the day long, saith the Lord God of Hosts.



## 니파이후서 29

- 1 그러나 보라 많은 자들이 있어—내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한 기이한 일을 행하여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자 하며, 내가 두 번째로 다시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을 회복하려 하며,
- 2 그리고 또한 내가 너 니파이에게와 또한 네 아비에게 맺은 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기억하겠다 한 것과 너희 자손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너희의 자손에게로 나아가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려 하며, 내 말이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에게 기호가 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울려 나아갈 그 날에,
- 3 또 나의 말이 울려 나아감으로 인하여—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하겠노라.
- 4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성경을 가지리라마는 이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나아갈 것이 어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성경에 대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참으로 이방인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라 겪는 유대인들의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내게 대한 그들의 부지런함을 기억하느냐?
- 5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기억하였느냐?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을 회복하려 애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나 주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6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너 어리석은 자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지 않았던들 너희가 성경을 얻었겠느냐?

## 2 Nephi 29

But behold, there shall be many—at that day when I shall proceed to do a marvelous work among them, that I may remember my covenants which I have made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I may set my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my people, which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also, that I may remember the promises which I have made unto thee, Nephi, and also unto thy father, that I would remember your seed; and that the words of your seed should proceed forth out of my mouth unto your seed; and my words shall hiss forth unto the ends of the earth, for a standard unto my people, which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because my words shall hiss forth—many of the Gentiles shall say: A Bible! A Bible! We have got a Bible, and there cannot be any more Bible.

But thus saith the Lord God: O fools, they shall have a Bible; and it shall proceed forth from the Jews, mine ancient covenant people. And what thank they the Jews for the Bible which they receive from them? Yea, what do the Gentiles mean? Do they remember the travails, and the labors, and the pains of the Jews, and their diligence unto me, in bringing forth salvation unto the Gentiles?

O ye Gentiles, have ye remembered the Jews, mine ancient covenant people? Nay; but ye have cursed them, and have hated them, and have not sought to recover them. But behold, I will return all these things upon your own heads; for I the Lord have not forgotten my people.

Thou fool, that shall say: A Bible, we have got a Bible, and we need no more Bible. Have ye obtained a Bible save it were by the Jews?

7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하였음과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8 그러하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느냐?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두 민족이 함께 할 때 두 민족의 증거 또한 함께 하리라.

9 또 내가 이를 행함은, 내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과 내가 나 스스로 기뻐하는 바를 좇아 나의 말을 고한다는 것을 많은 자에게 증명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말을 하였다 하여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아니하였음이요,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임이라.

10 그런즉 너희는 성경을 가졌다 하여 거기에 나의 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더 기록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11 이는 내가 동에와 서에와, 북에와 남에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

12 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니파이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내가 인도해 낸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Know ye not that there are more nations than one? Know ye not that I, the Lord your God, have created all men, and that I remember those who are upon the isles of the sea; and that I rule in the heavens above and in the earth beneath; and I bring forth my word unto the children of men, yea, even upon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herefore murmur ye, because that ye shall receive more of my word? Know ye not that the testimony of two nations is a witness unto you that I am God, that I remember one nation like unto another? Wherefore, I speak the same words unto one nation like unto another. And when the two nations shall run together the testimony of the two nations shall run together also.

And I do this that I may prove unto many that I am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that I speak forth my words according to mine own pleasure. And because that I have spoken one word ye need not suppose that I cannot speak another; for my work is not yet finished; neither shall it be until the end of man, neither from that time henceforth and forever.

Wherefore, because that ye have a Bible ye need not suppose that it contains all my words; neither need ye suppose that I have not caused more to be written.

For I command all men, both in the east and in the west, and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nd in the islands of the sea, that they shall write the words which I speak unto them; for out of the books which shall be written I will judge the world, every man according to their works, according to that which is written.

For behold, I shall speak unto the Jews and they shall write it; and I shall also speak unto the Nephites and they shall write it; and I shall also speak unto the other tribes of the house of Israel, which I have led away, and they shall write it; and I shall also speak unto all nations of the earth and they shall write it.

13 또 이렇게 되리니 장차 유대인들은 니파이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

14 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은 그들 소유의 땅으로 본향으로 모이겠고,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 내가 내 말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임과, 내가 아브라함과 성약하기를, 내가 영원토록 그의 자손을 기억하겠다고 하였음을 보여 주리로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Jews shall have the words of the Nephites, and the Nephites shall have the words of the Jews; and the Nephites and the Jews shall have the words of the lost tribes of Israel; and the lost tribes of Israel shall have the words of the Nephites and the Jew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my people, which are of the house of Israel, shall be gathered home unto the lands of their possessions; and my word also shall be gathered in one. And I will show unto them that fight against my word and against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that I am God, and that I covenanted with Abraham that I would remember his seed forever.

## 니파이후서 30

- 1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이는 나 니파이는 너희가 장래의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고자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도 다 한가지로 멸망할 것임이라. 또 앞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들이 온전히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 2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할 이방인들은 모두 주의 성약의 백성이며, 회개하지 아니할 유대인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아무와도 성약하지 아니하심이니라.
- 3 또 이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하여 얼마간 더 예언하고자 하노라. 내가 말한 그 책이 나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고 나서 주께 인봉된 후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이라.
- 4 또 그때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이 우리에게 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는지와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 5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리니,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복되리라.
- 6 또 그때 그들이 기뻐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임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어둠의 비늘이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많은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은 정결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 7 또 이렇게 되리니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 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또한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 2 Nephi 30

And now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would speak unto you; for I, Nephi, would not suffer that ye should suppose that ye are more righteous than the Gentiles shall be. For behold, except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all likewise perish; and because of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ye need not suppose that the Gentiles are utterly destroyed.

For behold, I say unto you that as many of the Gentiles as will repent are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and as many of the Jews as will not repent shall be cast off; for the Lord covenanteth with none save it be with them that repent and believe in his Son, who is the Holy One of Israel.

And now, I would prophesy somewhat more concerning the Jews and the Gentiles. For after the book of which I have spoken shall come forth, and be written unto the Gentiles, and sealed up again unto the Lord, there shall be many which shall believe the words which are written; and they shall carry them forth unto the remnant of our seed.

And then shall the remnant of our seed know concerning us, how that we came out from Jerusalem, and that they are descendants of the Jews.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shall be declared among them; wherefore, they shall be restored unto the knowledge of their fathers, and also to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which was had among their fathers.

And then shall they rejoice; for they shall know that it is a blessing unto them from the hand of God; and their scales of darkness shall begin to fall from their eyes; and many generations shall not pass away among them, save they shall be a pure and a delightful peopl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Jews which are scattered also shall begin to believe in Christ; and they shall begin to gather in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as many as shall believe in Christ shall also become a delightful people.

- 8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 9 이에 주 하나님께서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 10 이는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큰 나뉘이 있게 하실 때가 속히 이룸이니, 악인들을 그가 멸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은 그가 아끼시리니 참으로 불로써 악인들을 멸하셔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시리라.
- 11 또 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의 띠가 되리라.
- 12 또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 13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 14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다.
- 15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니라.
- 16 그런즉 모든 나라의 일이 알려지리니, 참으로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 17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어둠의 일이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땅 위에서 인봉된 것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 18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졌던 모든 것이 그 날에 밝혀질 것이며, 사탄이 오랫동안 더 이상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을 마치노라.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ord God shall commence his work among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to bring about the restoration of his people upon the earth.

And with righteousness shall the Lord God judge the poor, and reprove with equity for the meek of the earth. And he shall smit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shall he slay the wicked.

For the time speedily cometh that the Lord God shall cause a great division among the people, and the wicked will he destroy; and he will spare his people, yea, even if it so be that he must destroy the wicked by fire.

And righteousness shall be the girdle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And then shall the wolf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a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And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their young ones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And the sucking child shall play on the hole of the asp,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cockatrice's den.

They shall not hurt n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Wherefore, the things of all nations shall be made known; yea, all things shall be made known unto the children of men.

There is nothing which is secret save it shall be revealed; there is no work of darkness save it shall be made manifest in the light; and there is nothing which is sealed upon the earth save it shall be loosed.

Wherefore, all things which have been revealed unto the children of men shall at that day be revealed; and Satan shall have power over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no more, for a long time.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make an end of my sayings.

## 니파이후서 31

- 1 이제 나 니파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인 너희에게 하는 바 나의 예언함을 마치노니, 나는 내가 반드시 될 줄로 아는 일들을 몇 가지밖에 기록할 수 없으며, 나의 동생 야곱의 말도 조금밖에는 적을 수 없노라.
- 2 그러한즉 내가 기록한 것이 내게는 족하나, 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몇 마디 말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나의 예언함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리라.
- 3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
- 4 그러한즉 나는 주께서 내게 보이신 선지자,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베풀 저 선지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 5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대, 오 그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
- 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셨느냐?
- 7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 8 그리하여 그가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느니라.
- 9 그리고 또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이니라.

## 2 Nephi 31

And now I, Nephi, make an end of my prophesying unto you, my beloved brethren. And I cannot write but a few things, which I know must surely come to pass; neither can I write but a few of the words of my brother Jacob.

Wherefore, the things which I have written sufficient me, save it be a few words which I must speak concerning the doctrine of Christ; wherefore, I shall speak unto you plainly, according to the plainness of my prophesying.

For my soul delighteth in plainness; for after this manner doth the Lord God work among the children of men. For the Lord God giveth light unto the understanding; for he speaketh unto men according to their language, unto their understanding.

W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I have spoken unto you concerning that prophet which the Lord showed unto me, that should baptize the Lamb of God, which should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And now, if the Lamb of God, he being holy, should have need to be baptized by water, to fulfil all righteousness, O then, how much more need have we, being unholy, to be baptized, yea, even by water!

And now, I would ask of you, my beloved brethren, wherein the Lamb of God did fulfil all righteousness in being baptized by water?

Know ye not that he was holy? But notwithstanding he being holy, he showeth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according to the flesh he humbleth himself before the Father, and witnesseth unto the Father that he would be obedient unto him in keeping his commandments.

Wherefore, after he was baptized with water the Holy Ghost descended upon him in the form of a dove.

And again, it showeth unto the children of men the straitness of the path, and the narrowness of the gate, by which they should enter, he having set the example before them.

- 10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 11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
- 12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 13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써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리할진대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그때 너희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느니라.
- 14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물의 침례로써 아버지께 증거하고,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고, 새 방언으로, 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그리고 난 연 후에 나를 부인할진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너희에게 더 나았으리라 하셨느니라.
- 15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 1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

And he said unto the children of men: Follow thou me.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can we follow Jesus save we shall be willing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Father?

And the Father said: Repent ye, repent ye,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my Beloved Son.

And also, the voice of the Son came unto me, saying: He that is baptized in my name, to him will the Father give the Holy Ghost, like unto me; wherefore, follow me, and do the things which ye have seen me do.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I know that if ye shall follow the Son, with full purpose of heart, acting no hypocrisy and no deception before God, but with real intent, repenting of your sins, witnessing unto the Father that ye are willing to take upon you the name of Christ, by baptism—yea, by following your Lord and your Savior down into the water, according to his word, behold, then shall ye receive the Holy Ghost; yea, then cometh the baptism of fire and of the Holy Ghost; and then can ye speak with the tongue of angels, and shout praises unto the Holy One of Israel.

But, behold, my beloved brethren, thus came the voice of the Son unto me, saying: After ye have repented of your sins, and witnessed unto the Father that ye are willing to keep my commandments, by the baptism of water, and have received the baptism of fire and of the Holy Ghost, and can speak with a new tongue, yea, even with the tongue of angels, and after this should deny me,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you that ye had not known me.

And I heard a voice from the Father, saying: Yea, the words of my Beloved are true and faithful. He that endureth to the end, the same shall be saved.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know by this that unless a man shall endure to the end, in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Son of the living God, he cannot be saved.

17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

18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19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20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21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지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아멘.

Wherefore, do the things which I have told you I have seen that your Lord and your Redeemer should do; for, for this cause have they been shown unto me, that ye might know the gate by which ye should enter. For the gate by which ye should enter is repentance and baptism by water; and then cometh a remission of your sins by fire and by the Holy Ghost.

And then are ye in this strait and narrow path which leads to eternal life; yea, ye have entered in by the gate; ye have don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ye have received the Holy Ghost, which witnesses of the Father and the Son, unto the fulfilling of the promise which he hath made, that if ye entered in by the way ye should receive.

And now, my beloved brethren, after ye have gotten into this strait and narrow path, I would ask if all is done? Behold, I say unto you, Nay; for ye have not come thus far save it were by the word of Christ with unshaken faith in him, relying wholly upon the merits of him who is mighty to save.

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with a steadfastness in Christ, having a perfect brightness of hope, and a love of God and of all men. Wherefore, if ye shall press forward, feasting upon the word of Christ, and endure to the end, behold, thus saith the Father: Ye shall have eternal life.

And now, behold, my beloved brethren, this is the way; and there is none other way nor name given under heaven whereby man can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And now, behold, this is the doctrine of Christ, and the only and true doctrin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which is one God, without end. Amen.



## 니파이후서 32

- 1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짐작컨대 너희는 길로 말미암아 들어선 후에 너희가 해야 할 바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도다. 그러나 보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느냐?
- 2 너희가 성신을 받은 후에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이제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요?
- 3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
- 4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만일 너희가 이를 깨달을 수 없다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때문일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필코 멸망하리로다.
- 5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
- 6 보라, 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더 이상의 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가 너희에게 이르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 7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더 말할 수 없노라. 영이 나의 말함을 그치게 하시나니, 나는 홀로 사람들의 믿지 않음과 사악함과 무지와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게 되었고도다. 이는 명백한 중에, 곧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명백하게 그들에게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지식을 깨달으려 하지 아니함이라.

## 2 Nephi 32

And now,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suppose that ye ponder somewhat in your hearts concerning that which ye should do after ye have entered in by the way. But, behold, why do ye ponder these things in your hearts?

Do ye not remember that I said unto you that after ye had received the Holy Ghost ye could speak with the tongue of angels? And now, how could ye speak with the tongue of angels save it were by the Holy Ghost?

Angels speak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erefore, they speak the words of Christ. Wherefore, I said unto you, feast upon the words of Christ; for behold, the words of Christ will tell you all things what ye should do.

Wherefore, now after I have spoken these words, if ye cannot understand them it will be because ye ask not, neither do ye knock; wherefore, ye are not brought into the light, but must perish in the dark.

For behold, again I say unto you that if ye will enter in by the way, and receive the Holy Ghost, it will show unto you all things what ye should do.

Behold, this is the doctrine of Christ, and there will be no more doctrine given until after he shall manifest himself unto you in the flesh. And when he shall manifest himself unto you in the flesh, the things which he shall say unto you shall ye observe to do.

And now I, Nephi, cannot say more; the Spirit stoppeth mine utterance, and I am left to mourn because of the unbelief, and the wickedness, and the ignorance, and the stiffneckedness of men; for they will not search knowledge, nor understand great knowledge, when it is given unto them in plainness, even as plain as word can be.

8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보니 너희가 아직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해야만 함이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임이라. 이는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

9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하며,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행함이 네 영혼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너의 행함을 너를 위해 성별하시리로다.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perceive that ye ponder still in your hearts; and it grieveth me that I must speak concerning this thing. For if ye would hearken unto the Spirit which teacheth a man to pray, ye would know that ye must pray; for the evil spirit teacheth not a man to pray, but teacheth him that he must not pray.

But behold, I say unto you that ye must pray always, and not faint; that ye must not perform any thing unto the Lord save in the first place ye shall pray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that he will consecrate thy performance unto thee, that thy performance may be for the welfare of thy soul.

## 니파이후서 33

- 1 또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 가운데서 가르친 바 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기에 능하지도 못하니, 이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
- 2 그러나 보라, 성령에게 대하여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로 자기 안에 있을 곳이 없게 하는 자가 많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기록된 것을 많이 던져 버리며 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느니라.
- 3 그러나 내가 기록한 바를 나 니파이는 기록하였나니, 나는 이를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특히 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으로 여기노라. 이는 내가 낮으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으로는 그들로 인하여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심이라. 또 나는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나는 그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 4 또 나는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별하실 것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기록한 말들이 그들에게 강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 주며,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그를 믿고 끝까지, 곧 영생에 이르기까지 견디게 함이라.
- 5 또 그것은 진리의 명백함을 좇아 죄를 거스려 엄하게 말하나니, 그런즉 악마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닐진대, 아무도 내가 기록한 말씀으로 하여 노하지 아니하리라.
- 6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
- 7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며, 주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영혼을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큰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노라.
- 8 나는 유대인을 사랑하노라—유대인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곳의 그들을 내가 뜻하는 까닭이라.

## 2 Nephi 33

And now I, Nephi, cannot write all the things which were taught among my people; neither am I mighty in writing, like unto speaking; for when a man speaketh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carrieth it unto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But behold, there are many that harden their hearts against the Holy Spirit, that it hath no place in them; wherefore, they cast many things away which are written and esteem them as things of naught.

But I, Neph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and I esteem it as of great worth, and especially unto my people. For I pray continually for them by day, and mine eyes water my pillow by night, because of them; and I cry unto my God in faith, and I know that he will hear my cry.

And I know that the Lord God will consecrate my prayers for the gain of my people. And the words which I have written in weakness will be made strong unto them; for it persuadeth them to do good; it maketh known unto them of their fathers; and it speaketh of Jesus, and persuadeth them to believe in him, and to endure to the end, which is life eternal.

And it speaketh harshly against sin, according to the plainness of the truth; wherefore, no man will be angry at the words which I have written save he shall be of the spirit of the devil.

I glory in plainness; I glory in truth; I glory in my Jesus, for he hath redeemed my soul from hell.

I have charity for my people, and great faith in Christ that I shall meet many souls spotless at his judgment-seat.

I have charity for the Jew—I say Jew, because I mean them from whence I came.

- 9 나는 또한 이방인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화합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로 행하며, 시험의 날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그 길에서 행하지 아니할진대, 이들 중 아무도 내가 바랄 수 없느니라.
- 10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를 그가 내게 주셨음이며 이것은 만민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이니라.
- 11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 너희와 내가 그의 심판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설 것이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도록 주께로부터 명하심을 받았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임이니라.
- 12 또 나는 저 큰 마지막 날에, 비록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자들이 그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노라.
- 13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자와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가 티끌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큰 날이 이르기까지 잘 있으라.
- 14 또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의 말과 또한 나의 말과 하나님의 어린양의 입에서 나아올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할 자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노니 이는 이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임이라.
- 15 이는 내가 땅에서 인봉하는 것이 심판대에서 너희를 거스려 제출될 것임이니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음이니 내가 순종해야만 하리라. 아멘.

I also have charity for the Gentiles. But behold, for none of these can I hope except they shall be reconciled unto Christ, and enter into the narrow gate, and walk in the strait path which leads to life, and continue in the path until the end of the day of probation.

And now, my beloved brethren, and also Jew, and all ye ends of the earth, hearken unto these words and believe in Christ; and if ye believe not in these words believe in Christ. And if ye shall believe in Christ ye will believe in these words, for they are the words of Christ, and he hath given them unto me; and they teach all men that they should do good.

And if they are not the words of Christ, judge ye—for Christ will show unto you, with power and great glory, that they are his words, at the last day; and you and I shall stand face to face before his bar; and ye shall know that I have been commanded of him to write these things, notwithstanding my weakness.

And I pray the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that many of us, if not all, may be saved in his kingdom at that great and last day.

And now, my beloved brethren, all thos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all ye ends of the earth, I speak unto you as the voice of one crying from the dust: Farewell until that great day shall come.

And you that will not partake of the goodness of God, and respect the words of the Jews, and also my words, and the words which shall proceed forth out of the mouth of the Lamb of God, behold, I bid you an everlasting farewell, for these words shall condemn you at the last day.

For what I seal on earth, shall be brought against you at the judgment bar; for thus hath the Lord commanded me, and I must obey. Amen.

# 야곱서

##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전파한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뒤엎으려 하는 사람을 설복함. 니파이 백성의 역사에 관한 몇 말씀.

### 야곱서 1

- 1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오십오 년이 지나갔느니라. 그리하여 니파이는 나 야곱에게 이러한 것들이 새겨진 작은판에 관하여 한 가지 명령을 주었느니라.
- 2 또 그가 나 야곱에게 준 명령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이 판에 기록하되, 니파이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의 역사에 관해서는, 가벼운 정도 이외에는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었느니라.
- 3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의 백성의 역사는 그의 다른 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판을 보전하여 대대로 나의 후손에게 내려 줄 것이니라.
- 4 또 만일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함이 있거든, 그 골자를 이 판에 새기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우리 백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이 언급하라 하였음이라.
- 5 이는 신앙과 크나큰 염려로 인하여, 우리 백성에 관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진실로 우리에게 밝혀졌었음이라.
- 6 또한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많은 예언의 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올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알았음이라.

# The Book of Jacob

## the Brother of Nephi

*The words of his preaching unto his brethren. He confoundeth a man who seeketh to overthrow the doctrine of Christ. A few words concerning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Nephi.*

### Jacob 1

Fo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fifty and five years had passed away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wherefore, Nephi gave me, Jacob, a commandment concerning the small plates, upon which these things are engraven.

And he gave me, Jacob, a commandment that I should write upon these plates a few of the things which I considered to be most precious; that I should not touch, save it were lightly, concerning the history of this people which are called the people of Nephi.

For he said that the history of his people should be engraven upon his other plates, and that I should preserve these plates and hand them down unto my se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f there were preaching which was sacred, or revelation which was great, or prophesying, that I should engraven the heads of them upon these plates, and touch upon them as much as it were possible, for Christ's sake, and for the sake of our people.

For because of faith and great anxiety, it truly had been made manifest unto us concerning our people, what things should happen unto them.

And we also had many revelations, and the spirit of much prophecy; wherefore, we knew of Christ and his kingdom, which should come.

- 7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그들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시험의 날에 격노하시게 했을 때처럼, 그가 그 진노 중에 맹세하사 그들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까 염려하였음이라.
- 8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를 격노하시게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런즉 나 야곱은 나의 형 니파이의 명령을 맡아 이루려 하노라.
- 9 이제 니파이가 늙게 되어 자기가 반드시 곧 죽을 것임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그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이제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였더라.
- 10 백성들이 니파이를 심히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위대한 보호자가 되어, 라반의 검을 휘둘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그의 평생을 일해 왔음이라—
- 11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기념으로 간직하려 하였고, 그의 대신에 다스리게 되는 자는 누구나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백성들에 의해 이대 니파이, 삼대 니파이 등으로 일컬어졌나니,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가졌든 지를 가리지 않고, 이같이 백성들에 의해 일컬어졌더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죽으니라.
- 13 이제 레이맨인이 아닌 백성들은 니파이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파이인, 야곱인, 요셉인, 조람인, 레이맨인, 레뮤엘인 그리고 이스마엘인으로 일컬어졌느니라.
- 14 그러나 나 야곱은 이후로 그들을 이러한 명칭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꾀하는 자들을 레이맨인이라 할 것이요, 니파이에게 우호적인 자들을 니파이인 또는 니파이 백성이라 칭하리라.

Wherefore we labored diligently among our people, that we might persuade them to come unto Christ, and partake of the goodness of God, that they might enter into his rest, lest by any means he should swear in his wrath they should not enter in, as in the provocation in the days of temptation while the children of Israel were in the wilderness.

Wherefore, we would to God that we could persuade all men not to rebel against God, to provoke him to anger, but that all men would believe in Christ, and view his death, and suffer his cross and bear the shame of the world; wherefore, I, Jacob, take it upon me to fulfil the commandment of my brother Nephi.

Now Nephi began to be old, and he saw that he must soon die; wherefore, he anointed a man to be a king and a ruler over his people now, according to the reigns of the kings.

The people having loved Nephi exceedingly, he having been a great protector for them, having wielded the sword of Laban in their defence, and having labored in all his days for their welfare—

Wherefore, the people were desirous to retain in remembrance his name. And whoso should reign in his stead were called by the people, second Nephi, third Nephi, and so forth, according to the reigns of the kings; and thus they were called by the people, let them be of whatever name they would.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died.

Now the people which were not Lamanites were Nephites; nevertheless, they were called Nephites, Jacobites, Josephites, Zoramites, Lamanites, Lemuelites, and Ishmaelites.

But I, Jacob, shall not hereafter distinguish them by these names, but I shall call them Lamanites that seek to destroy the people of Nephi, and those who are friendly to Nephi I shall call Nephites, or the people of Nephi, according to the reigns of the kings.

-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대 왕의 치세 하에서, 니파이 백성들은 그 마음이 점차 완악하여지며, 옛적의 다윗과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많은 처와 첩들을 원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관행에 얼마간 탐닉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16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많은 금과 은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느 정도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기 시작하였느니라.
- 17 그리하여 나 야곱은 먼저 주의 일을 얻어,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 18 이는 나 야곱과 나의 아우 요셉이 니파이의 손으로, 이 백성의 제사와 교사로 성별되었음이라.
- 19 또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책임을 맡으며, 만일 우리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지 않게 하고자 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 없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under the reign of the second king, began to grow hard in their hearts, and indulge themselves somewhat in wicked practices, such as like unto David of old desiring many wives and concubines, and also Solomon, his son.

Yea, and they also began to search much gold and silver, and began to be lifted up somewhat in pride.

Wherefore I, Jacob, gave unto them these words as I taught them in the temple, having first obtained mine errand from the Lord.

For I, Jacob, and my brother Joseph had been consecrated priests and teachers of this people, by the hand of Nephi.

And we did magnify our office unto the Lord, taking upon us the responsibility, answering the sins of the people upon our own heads if we did not teach them the word of God with all diligence; wherefore, by laboring with our might their blood might not come upon our garments; otherwise their blood would come upon our garments, and we would not be found spotless at the last day.

## 야곱서 2

- 1 니파이가 죽은 후,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니파이 백성에게 한 말이다.
- 2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지고 있는 바, 진지하게 나의 직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을 좇아, 그리고 나의 옷을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자, 오늘 성전 안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 하노라.
- 3 또 내가 지금까지 나의 부름 받은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온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거니와, 나는 오늘 이제까지 그랬던 것보다 너희 영혼의 복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소망과 염려로 짓눌리고 있느니라.
- 4 이는 보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준 주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왔느니라.
- 5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도움으로 너희의 생각에 관하여,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있음을 알지니, 그 죄는 내게 심히 가증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증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 6 참으로 내가 너희 마음의 간악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일은 나의 영혼을 슬프게 하며,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신 이의 면전에서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게 하는도다.
- 7 또한 내가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 앞에서 너희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 8 또 생각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올라왔도다.

## Jacob 2

The words which Jacob, the brother of Nephi, spake unto the people of Nephi, after the death of Nephi:

Now, my beloved brethren, I, Jacob,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which I am under to God, to magnify mine office with soberness, and that I might rid my garments of your sins, I come up into the temple this day that I might declare unto you the word of God.

And ye yourselves know that I have hitherto been diligent in the office of my calling; but I this day am weighed down with much more desire and anxiety for the welfare of your souls than I have hitherto been.

For behold, as yet, ye have been obedient un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I have given unto you.

But behold, hearken ye unto me, and know that by the help of the all-powerful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can tell you concerning your thoughts, how that ye are beginning to labor in sin, which sin appeareth very abominable unto me, yea, and abominable unto God.

Yea, it grieveth my soul and causeth me to shrink with shame before the presence of my Maker, that I must testify unto you concerning the wickedness of your hearts.

And also it grieveth me that I must use so much boldness of speech concerning you, before your wives and your children, many of whose feelings are exceedingly tender and chaste and delicate before God, which thing is pleasing unto God;

And it supposeth me that they have come up hither to hear the pleasing word of God, yea, the word which healeth the wounded soul.



- 9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격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불 너희의 범죄를 따라 너희를 훈계하여,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 더 크게 하며, 상처를 입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에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하는 대신, 단검을 맞아 그들의 영혼이 찢림을 받고 그들의 섬세한 마음이 상처를 입게 하여야 함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도다.
- 10 그러나 과제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엄격하신 명대로 행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면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길 아래서,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고해야만 하느니라.
- 11 그러한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함을 좇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보라, 내가 주께 여쭈었더니, 이같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너는 내일 성전에 올라 내가 네게 줄 말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라 하셨음이니라.
- 12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이니라. 곧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금속을 구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러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인, 이 땅에 극히 풍부하니라.
- 13 또 은총의 손길이 너희 위에 극히 기쁜 미소를 지은지라, 너희가 많은 부를 얻었도되, 너희 중 몇몇이 너희 형제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너희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목을 뻗뻗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낫다 생각하여 그들을 핍박 하는도다.
- 1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줄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너희를 징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고집하면 그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Wherefore, it burdeneth my soul that I should be constrained, because of the strict commandment which I have received from God, to admonish you according to your crimes, to enlarge the wounds of those who are already wounded, instead of consoling and healing their wounds; and those who have not been wounded, instead of feasting upon the pleasing word of God have daggers placed to pierce their souls and wound their delicate minds.

But, notwithstanding the greatness of the task, I must do according to the strict commands of God, and tell you concerning you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in the presence of the pure in heart, and the broken heart, and under the glance of the piercing eye of the Almighty God.

Wherefore, I must tell you the truth according to the plainness of the word of God. For behold, as I inquired of the Lord, thus came the word unto me, saying: Jacob, get thou up into the temple on the morrow, and declare the word which I shall give thee unto this people.

And now behold, my brethren, this is the word which I declare unto you, that many of you have begun to search for gold, and for silver, and for all manner of precious ores, in the which this land, which is a land of promise unto you and to your seed, doth abound most plentifully.

And the hand of providence hath smiled upon you most pleasingly, that you have obtained many riches; and because some of you have obtained more abundantly than that of your brethren ye are lifted up in the pride of your hearts, and wear stiff necks and high heads because of the costliness of your apparel, and persecute your brethren because ye suppose that ye are better than they.

And now, my brethren, do ye suppose that God justifieth you in this thing? Behold, I say unto you, Nay. But he condemneth you, and if ye persist in these things his judgments must speedily come unto you.

15 오 그가 너희를 꿰뚫을 수 있으시며, 그 눈으로 한 번 쳐다보심으로써 너희를 티끌에 쳐버리실 수 있으심을 너희에게 보이시면 좋겠도다!

16 오 그가 너희를 이 죄악과 가증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좋겠도다. 그리고 오 너희가 그의 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면 좋겠도다!

17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모든 이와 친숙하며,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그들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하라.

18 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19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라.

20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교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 이웃을 괴롭게 하며 그를 핍박한 자들아, 너희가 그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1 너희는 그러한 일이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이에게 가증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생명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며, 모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나니, 그들로 그의 계명을 지켜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느니라.

22 이에 이제 나는 이 교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노라. 그리고 내가 더 큰 범죄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다면, 내 마음은 너희로 인하여 심히 기뻐할 것이다.

23 그러나 너희의 더 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이 백성의 죄악이 자라기 시작하여, 그들이 경전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하여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음행을 범함에 있어 스스로를 변명하려 함이니라.

O that he would show you that he can pierce you, and with one glance of his eye he can smite you to the dust!

O that he would rid you from this iniquity and abomination. And, O that ye would listen unto the word of his commands, and let not this pride of your hearts destroy your souls!

Think of your brethren like unto yourselves, and be familiar with all and free with your substance, that they may be rich like unto you.

But before ye seek for riches, seek ye for the kingdom of God.

And after ye have obtained a hope in Christ ye shall obtain riches, if ye seek them; and ye will seek them for the intent to do good—to clothe the naked, and to feed the hungry, and to liberate the captive, and administer relief to the sick and the afflicted.

And now, my brethren, I have spoken unto you concerning pride; and those of you which have afflicted your neighbor, and persecuted him because ye were proud in your hearts, of the things which God hath given you, what say ye of it?

Do ye not suppose that such things are abominable unto him who created all flesh? And the one being is as precious in his sight as the other. And all flesh is of the dust; and for the selfsame end hath he created them, that they should keep his commandments and glorify him forever.

And now I make an end of speaking unto you concerning this pride. And were it not that I must speak unto you concerning a grosser crime, my heart would rejoice exceedingly because of you.

But the word of God burdens me because of your grosser crimes. For behold, thus saith the Lord: This people begin to wax in iniquity; they understand not the scriptures, for they seek to excuse themselves in committing whoredoms, because of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concerning David, and Solomon his son.

- 24 보라, 다윗과 솔로몬이 진실로 많은 처와 첩을 두었거니와, 그 일은 내 앞에 가증하였느니라, 주의 말이니라.
- 25 그런즉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내 팔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낸 것은, 요셉의 허리의 열매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나를 위하여 일으키려 함이었느니라.
- 26 그런즉 나 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옛적의 그들 처럼 행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 27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희 중 아무라도 오직 한 아내를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임이니,
- 28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그리고 음행은 내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29 그런즉 이 백성은 내 계명을 지키지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연고로 땅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 30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일지니라.
- 31 이는 보라, 나 주가 예루살렘 땅에서 참으로 내 백성의 모든 땅에서, 그 남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내 백성의 딸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 슬퍼함을 들었음이니라.
- 32 또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이 백성의 고운 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 백성의 남자들을 고발하여 내게로 올라오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 33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의 딸들을 그 마음 고움으로 인하여 사로잡아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이니, 혹 그리하면 내가 혹심한 저주로 그들을 벌하여, 필경 멸망하게 할 것임이라. 이는 그들이 옛적의 그들처럼,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Behold, David and Solomon truly had many wives and concubines, which thing was abominable before me, saith the Lord.

Wherefore, thus saith the Lord, I have led this people forth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by the power of mine arm, that I might raise up unto me a righteous branch from the fruit of the loins of Joseph.

Wherefore, I the Lord God will not suffer that this people shall do like unto them of old.

Wherefore, my brethren, hear me, and hearken to the word of the Lord: For there shall not any man among you have save it be one wife; and concubines he shall have none;

For I, the Lord God, delight in the chastity of women. And whoredoms are an abomination before me;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Wherefore, this people shall keep my commandments, saith the Lord of Hosts, or cursed be the land for their sakes.

For if I will, saith the Lord of Hosts, raise up seed unto me, I will command my people; otherwise they shall hearken unto these things.

For behold, I, the Lord, have seen the sorrow, and heard the mourning of the daughters of my people in the land of Jerusalem, yea, and in all the lands of my people,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of their husbands.

And I will not suffer, saith the Lord of Hosts, that the cries of the fair daughters of this people, which I have led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shall come up unto me against the men of my people, saith the Lord of Hosts.

For they shall not lead away captive the daughters of my people because of their tenderness, save I shall visit them with a sore curse, even unto destruction; for they shall not commit whoredoms, like unto them of old, saith the Lord of Hosts.

34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 조상 리하이에게 주어졌음을 아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전에 이를 알았느니라. 이에 너희는 큰 정죄를 받기에 이르렀나니, 이는 너희가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35 보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보다 더 큰 죄악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 고운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또 너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찢려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

And now behold, my brethren, ye know that these commandments were given to our father, Lehi; wherefore, ye have known them before; and ye have come unto great condemnation; for ye have done these things which ye ought not to have done.

Behold, ye have done greater iniquities than the Lamanites, our brethren. Ye have broken the hearts of your tender wives, and lost the confidence of your children, because of your bad examples before them; and the sobbings of their hearts ascend up to God against you. And because of the strictness of the word of God, which cometh down against you, many hearts died, pierced with deep wounds.

### 야곱서 3

- 1 그러나 보라, 나 야곱은 마음이 청결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 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사, 너희의 멸망을 꾀하는 자들 위에 공의를 내려보내실 것이라.
- 2 오 너희, 마음이 청결한 모든 자여,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흠족히 취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이는 만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임이니라.
- 3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날 더러운 너희에게는 화, 화가 있다. 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땅은 너희의 연고로 저주를 받으며, 너희처럼 더럽지 아니한 레이맨인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혹심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너희를 매질하여 필경은 멸할 것임이라.
- 4 또 그때가 속히 이르나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기업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자들을 인도해 가시리라.
- 5 보라, 너희가 그 더러움과 그 피부에 임한 저주로 인하여 미워하는 너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너희보다 더 의로우니라. 이는 그들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주의 계명—곧 그들이 오직 한 아내만을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이며, 그들 중에 음행을 범함이 없을 것이라 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6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그들이 지켜 준행하고 있느니라. 그런즉 이 계명 지키기를 준행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언젠가는 그들이 복 받은 백성이 되리라.

### Jacob 3

But behold, I, Jacob, would speak unto you that are pure in heart. Look unto God with firmness of mind, and pray unto him with exceeding faith, and he will console you in your afflictions, and he will plead your cause, and send down justice upon those who seek your destruction.

O all ye that are pure in heart, lift up your heads and receive the pleasing word of God, and feast upon his love; for ye may, if your minds are firm, forever.

But, wo, wo, unto you that are not pure in heart, that are filthy this day before God; for except ye repent the land is cursed for your sakes; and the Lamanites, which are not filthy like unto you, nevertheless they are cursed with a sore cursing, shall scourge you even unto destruction.

And the time speedily cometh, that except ye repent they shall possess the land of your inheritance, and the Lord God will lead away the righteous out from among you.

Behold, the Lamanites your brethren, whom ye hate because of their filthiness and the cursing which hath come upon their skins, are more righteous than you; for they have not forgotten the commandment of the Lord, which was given unto our father—that they should have save it were one wife, and concubines they should have none, and there should not be whoredoms committed among them.

And now, this commandment they observe to keep; wherefore, because of this observance, in keeping this commandment, the Lord God will not destroy them, but will be merciful unto them; and one day they shall become a blessed people.

- 7 보라, 그들의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며,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나니, 그들의 믿지 않음과 너희를 향한 그들의 증오심은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즉 너희의 위대하신 창조자의 보시기에, 그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나은가?
- 8 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나올 때에, 그들의 피부가 너희의 것보다 더 흰 것을 내가 두려워하노라.
- 9 그런즉 한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곧 너희는 그들의 피부가 어두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하여 욕하지 말지며,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도 그들에게 대하여 욕하지 말 것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더러움을 기억하며, 그들의 더러움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왔음을 기억할지니라.
- 10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녀를 기억하되, 곧 너희가 그들 앞에 보인 본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가를 기억하며, 또한 너희가 너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죄가 마지막 날에 너희 머리 위에 쌓이게 됨을 기억할지이다.
- 11 오 나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영혼의 능력을 일깨우라. 너희 스스로를 떨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스스로를 지옥의 고통에서 풀어 너희가 악마의 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둘째 사망인 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
- 12 그리고 이제 나 야곱은 니파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말해 주며, 음행과 호색과 온갖 죄를 경고하고, 그러한 것의 끔찍한 결말을 그들에게 일렀느니라.
- 13 또 이제 수효가 많아진, 이 백성의 행한 바를 이 판에는 백분의 일도 기록하지 못하나, 그들의 행한 바 중 많은 것이 또한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열왕의 다스림이 더 큰 판에 기록되니라.

Behold, their husbands love their wives, and their wives love their husbands; and their husbands and their wives love their children; and their unbelief and their hatred towards you is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ir fathers; wherefore, how much better are you than they, in the sight of your great Creator?

O my brethren, I fear that unless ye shall repent of your sins that their skins will be whiter than yours, when ye shall be brought with them before the throne of God.

Wherefore, a commandment I give unto you, which is the word of God, that ye revile no more against them because of the darkness of their skins; neither shall ye revile against them because of their filthiness; but ye shall remember your own filthiness, and remember that their filthiness came because of their fathers.

Wherefore, ye shall remember your children, how that ye have grieved their hearts because of the example that ye have set before them; and also, remember that ye may, because of your filthiness, bring your children unto destruction, and their sins be heaped upon your heads at the last day.

O my brethren, hearken unto my words; arouse the faculties of your souls; shake yourselves that ye may awake from the slumber of death; and loose yourselves from the pains of hell that ye may not become angels to the devil, to be cast into that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ich is the second death.

And now I, Jacob, spake many more things unto the people of Nephi, warning them against fornication and lasciviousness, and every kind of sin, telling them the awful consequences of them.

And a hundredth part of the proceedings of this people, which now began to be numerous, cannot be written upon these plates; but many of their proceedings are written upon the larger plates, and their wars, and their contentions, and the reigns of their kings.

14 이 판은 야곱의 판이라 하며, 니파이의 손으로  
만들어졌나니, 이에 나는 이 말 하기를 마치노라.

These plates are called the plates of Jacob, and  
they were made by the hand of Nephi. And I make an  
end of speaking these words.

## 야곱서 4

- 1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이 말씀으로 나의 백성에 대한 봉사의 일을 많이 행하였으되, (우리의 말을 판에 새기기가 어려운 고로, 내 말의 조금 밖에는 내가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는 우리가 판에 기록하는 것이 반드시 남으리라는 것을 아노라.
- 2 그러나 판이 아닌 여하한 것에라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리라. 그러나 우리는 판에 몇 마디 말을 기록할 수 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관한 지식, 곧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우리의 자손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줄 것이라—
- 3 이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 보고, 슬픔이나 경멸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첫 부모에 관하여 배우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이 말씀들을 판에 새기노라.
- 4 이는, 바로 이러한 의도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하였음이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고, 그의 오시기 수백 년 전 우리가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스스로만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또한 그러하였도다.
- 5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으며, 또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노라. 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노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향하게 함이라. 이 까닭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 의로움이 되나니,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이니라.

## Jacob 4

Now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 Jacob, having ministered much unto my people in word, (and I cannot write but a little of my word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engraving our words upon plates) and we know that the things which we write upon plates must remain;

But whatsoever things we write upon anything save it be upon plates must perish and vanish away; but we can write a few words upon plates, which will give our children, and also our beloved brethren, a small degree of knowledge concerning us, or concerning their fathers—

Now in this thing we do rejoice; and we labor diligently to engraven these words upon plates, hoping that our beloved brethren and our children will receive them with thankful hearts, and look upon them that they may learn with joy and not with sorrow, neither with contempt, concerning their first parents.

For, for this intent have we written these things, that they may know that we knew of Christ, and we had a hope of his glory many hundred years before his coming; and not only we ourselves had a hope of his glory, but also all the holy prophets which were before us.

Behold, they believed in Christ and worshiped the Father in his name, and also we worship the Father in his name. And for this intent we keep the law of Moses, it pointing our souls to him; and for this cause it is sanctified unto us for righteousness, even as it was accounted unto Abraham in the wilderness to be obedient unto the commands of God in offering up his son Isaac, which is a similitude of God and his Only Begotten Son.



- 6 이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기록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이 있어, 이 모든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게 되나니, 바로 그 나무들이나, 산들이나, 바다의 물결이 우리에게 순종하느니라.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그의 은혜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낮추어 오심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 8 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 그의 비밀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일러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냄은 불가능하니라.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 9 이는 보라,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이 땅은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되었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능하시 말씀하시매 세상이 있었고, 말씀하시매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오 그러하다면 어찌 능히 그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땅이나 그 위에 있는 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 10 그런즉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 이는 보라,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권고하심이라.
- 11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와 화목하게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좇아 부활을 얻고,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신앙을 가져 그의 안에 있는 영광의 좋은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의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될 수 있을 것이니라.
- 12 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대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진대,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여,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아니하랴.

Wherefore, we search the prophets, and we have many revelations and the spirit of prophecy; and having all these witnesses we obtain a hope, and our faith becometh unshaken, insomuch that we truly can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and the very trees obey us, or the mountains, or the waves of the sea.

Nevertheless, the Lord God showeth us our weakness that we may know that it is by his grace, and his great condescensions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we have power to do these things.

Behold, great and marvelous are the works of the Lord. How unsearchable are the depths of the mysteries of him; and it is impossible that man should find out all his ways. And no man knoweth of his ways save it be revealed unto him; wherefore, brethren, despise not the revelations of God.

For behold, by the power of his word man came upon the face of the earth, which earth was created by the power of his word. Wherefore, if God being able to speak and the world was, and to speak and man was created, O then, why not able to command the earth, or the workmanship of his hands upon the face of it, according to his will and pleasure?

Wherefore, brethren, seek not to counsel the Lord, but to take counsel from his hand. For behold, ye yourselves know that he counseleth in wisdom, and in justice, and in great mercy, over all his works.

Wherefore, beloved brethren, be reconciled unto him through the atonement of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and ye may obtain a resurrection,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which is in Christ, and be presented as the first-fruits of Christ unto God, having faith, and obtained a good hope of glory in him before he manifesteth himself in the flesh.

And now, beloved, marvel not that I tell you these things; for why not speak of the atonement of Christ, and attain to a perfect knowledge of him, as to attain to the knowledge of a resurrection and the world to come?

13 불지어다,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는 자 그는 사 람들이 깨달도록 예언할지니, 이는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 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 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러한 일에 우리가 홀로 증인인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 들에게도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14 그러나 보라,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 던지라, 그들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꺾대를 지나쳐 바 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으며,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 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 주셨음이라. 그들이 이를 원하였으 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사, 그들로 걸려 넘어 지게 하신 것이니라.

15 또 이제 나 야곱은 영에 이끌려 예언하노니, 이 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그들이 그 위에 세워 안전한 기초를 가질 수 있는 돌을 버릴 것임 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 앎이라.

16 그러나 보라, 경전에 의하건대, 이 돌이 유대인 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크고 마지막이며 유일 하고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니라.

17 그러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이 그 견 고한 기초를 버린 후에, 언젠가 그 위에 세워, 그 것으로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 수 있 음이 어찌 가능하냐?

18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밝혀 주리니, 만일 내가 어찌하든지, 너 희를 위한 나의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흔들려, 성 령 안에 있는 나의 공고함에서 떨어져 실족하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리로다.

Behold, my brethren, he that prophesieth, let him prophesy to the understanding of men; for the Spirit speaketh the truth and lieth not. Wherefore, it speaketh of things as they really are, and of things as they really will be; wherefore, these things are mani- fested unto us plainly, for the salvation of our souls. But behold, we are not witnesses alone in these things; for God also spake them unto prophets of old.

But behold, the Jews were a stiffnecked people; and they despised the words of plainness, and killed the prophets, and sought for things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erefore, because of their blind- ness, which blindness came by looking beyond the mark, they must needs fall; for God hath taken away his plainness from them, and delivered unto them many things which they cannot understand, because they desired it. And because they desired it God hath done it, that they may stumble.

And now I, Jacob, am led on by the Spirit unto prophesying; for I perceive by the workings of the Spirit which is in me, that by the stumbling of the Jews they will reject the stone upon which they might build and have safe foundation.

But behol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is stone shall become the great, and the last, and the only sure foundation, upon which the Jews can build.

And now, my beloved, how is it possible that these, after having rejected the sure foundation, can ever build upon it, that it may become the head of their corner?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will unfold this mystery unto you; if I do not, by any means, get shaken from my firmness in the Spirit, and stumble because of my over anxiety for you.

## 야곱서 5

- 1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말한, 선지자 지노스의 말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 2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의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들으라.
  - 3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를 사람이 취하여 자기 포도원에 기른,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하리니, 그것이 자라 점차 고목이 되매, 썩기 시작하였느니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그의 감람나무가 썩기 시작함을 보고 이르되, 내가 그 가지를 치고, 그 돌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혹 그것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말대로 그 가지를 치고, 그 돌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었느니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약간의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다소 얼마간 내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나무의 주된 가지 끝이 죽기 시작하는지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이를 보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그런즉 가서 들감람나무에서 가지를 떼어, 그것을 이리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는 말라 죽기 시작하는, 저 주된 가지들을 꺾어 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져 살라지게 하리라.
  - 8 또 보라, 포도원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많이 가져다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니, 설혹 이 나무의 뿌리가 죽을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열매를 보전할 수 있으리이다. 그런즉 나는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취하여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라.

## Jacob 5

Behold, my brethren, do ye not remember to have read the words of the prophet Zenos, which he spake unto the house of Israel, saying:

Hearken, O ye house of Israel, and hear the words of me, a prophet of the Lord.

For behold, thus saith the Lord, I will liken thee, O house of Israel, like unto a tame olive tree, which a man took and nourished in his vineyard; and it grew, and waxed old, and began to deca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master of the vineyard went forth, and he saw that his olive tree began to decay; and he said: I will prune it, and dig about it, and nourish it, that perhaps it may shoot forth young and tender branches, and it perish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pruned it, and digged about it, and nourished it according to his wor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any days it began to put forth somewhat a little, young and tender branches; but behold, the main top thereof began to peris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master of the vineyard saw it, and he said unto his servant: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is tree; wherefore, go and pluck the branches from a wild olive tree, and bring them hither unto me; and we will pluck off those main branches which are beginning to wither away, and we will cast them into the fire that they may be burned.

And behold, saith the Lord of the vineyard, I take away many of these young and tender branches, and I will graft them whithersoever I will; and it mattereth not that if it so be that the root of this tree will perish, I may preserve the fruit thereof unto myself; wherefore, I will take these young and tender branches, and I will graft them whithersoever I will.

- 9 너는 들감람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그 대신에 접목하라. 내가 꺾어낸 이것들은 내 포도원 땅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불에 던져 넣어 태워 버리리라 하였느니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주의 말대로 행하여, 들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이니라.
- 11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 둘레를 파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게 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그런즉 그 뿌리를 보전하여 그것으로 죽지 않게 하여, 나를 위하여 그 뿌리를 보전하려, 내가 이를 행하였노라.
- 12 그런즉 네 길을 가서, 내 말대로 나무를 살피며, 그것에 거름을 주라.
- 13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내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에 들지라,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이에요, 네게는 상관이 없나니, 내가 그리 행함은 나무의 원가지들을 나를 위하여 보전하려 함이며,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이 나무와 그 열매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임이라 하니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자기 길을 가서,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들에 가꾼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기되, 그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따라, 얼마는 이 곳에 얼마는 다른 곳에 숨기니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포도원의 주가 그의 종에게 이르되, 오라,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자.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또한 그의 종이 일하러 포도원에 내려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이 나무를 보소서.
-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눈을 들어 들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여졌던 나무를 보니,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더라. 또 그가 보니 그 나무가 좋았고, 그 열매는 원열매와 같은지라.

Take thou the branches of the wild olive tree, and graft them in, in the stead thereof; and these which I have plucked off I will cast into the fire and burn them, that they may not cumber the ground of my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rvant of the Lord of the vineyard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of the vineyard, and grafted in the branches of the wild olive tree.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caused that it should be digged about, and pruned, and nourished, saying unto his servant: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is tree; wherefore, that perhaps I might preserve the roots thereof that they perish not, that I might preserve them unto myself, I have done this thing.

Wherefore, go thy way; watch the tree, and nourish it, according to my words.

And these will I place in the nethermost part of my vineyard, whithersoever I will, it mattereth not unto thee; and I do it that I may preserve unto myself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and also, that I may lay up fruit thereof against the season, unto myself; for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is tree and the fruit thereof.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went his way, and hid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ame olive tree in the nethermost parts of the vineyard, some in one and some in another, according to his will and pleasure.

And it came to pass that a long time passed away,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s servant: Come, let us go down into the vineyard, that we may labor in the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and also the servant, went down into the vineyard to labo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rvant said unto his master: Behold, look here; behold the tre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looked and beheld the tree in the which the wild olive branches had been grafted; and it had sprung forth and begun to bear fruit. And he beheld that it was good; and the fruit thereof was like unto the natural fruit.

18 그가 종에게 이르되 보라, 들나무의 가지들이 그 뿌리의 수분을 붙들었으므로, 그 뿌리가 많은 힘을 내었고, 그 뿌리의 힘이 많음으로 인하여 들 가지들이 가꾼 열매를 맺었도다. 이제 우리가 만일 이 가지들을 접붙이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는 죽었으리라. 이제 보라, 나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많이 쌓아 두리니, 그것의 열매를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쌓아두리라 하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나무의 원가지들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는가 보자. 그럴진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의 열매를 쌓아 둘 수 있으리라 하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인이 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긴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더니, 그가 종에게 이르되, 이들을 보라 하고, 이에 그가 첫번 것을 본즉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좋은 것을 그가 또한 보았더라. 이에 그가 종에게 이르되, 이의 열매를 취하고,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을 쌓아 두어, 나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것을 보전하게 하라 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이 오랜 세월을 내가 그것에게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이니라 하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어찌 이 나무를 또는 이 나뭇가지를 심으러 이리로 오시나이까? 보소서, 이는 주인의 포도원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척박한 곳이었음이니이다 하니라.

22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권고하지 말라. 나도 이 곳이 척박한 땅인 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다 하였노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네가 보느니라 하니라.

And he said unto the servant: Behold, the branches of the wild tree have taken hold of the moisture of the root thereof, that the root thereof hath brought forth much strength; and because of the much strength of the root thereof the wild branches have brought forth tame fruit. Now, if we had not grafted in these branches, the tree thereof would have perished. And now, behold, I shall lay up much fruit, which the tree thereof hath brought forth; and the fruit thereof I shall lay up against the season, unto mine own self.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 servant: Come, let us go to the nethermost part of the vineyard, and behold if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have not brought forth much fruit also, that I may lay up of the fruit thereof against the season, unto mine own self.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forth whither the master had hid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and he said unto the servant: Behold these; and he beheld the first that it had brought forth much fruit; and he beheld also that it was good. And he said unto the servant: Take of the fruit thereof, and lay it up against the season, that I may preserve it unto mine own self; for behold, said he, this long time have I nourished it, and it hath brought forth much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rvant said unto his master: How comest thou hither to plant this tree, or this branch of the tree? For behold, it was the poorest spot in all the land of thy vineyard.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m: Counsel me not; I knew that it was a poor spot of ground; wherefore, I said unto thee, I have nourished it this long time, and thou beholdest that it hath brought forth much fruit.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보라 내가 그 나무의 다른 가지를 또 심었나니, 네가 알거니와 이 곳 땅은 첫 번 곳보다도 더 척박했었도다. 그러나 나무를 보라.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아 절기에 대비하여 쌓아 두어, 나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것을 보전하게 하라 하니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다시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 내가 심은 다른 가지도 보라, 내가 이것도 역시 거름을 주며 가꾸었음을 볼지니, 그것이 열매를 맺었도다.

25 그가 또 종에게 이르되, 여기 맨 나중 것을 보라. 보라, 이것을 내가 땅의 좋은 곳에 심고,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거늘, 나무의 한 부분만이 가꾼 열매를 맺었고, 나무의 다른 부분은 들열매를 맺었도다. 보라, 내가 다른 나무들처럼 이 나무를 가꾸었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들을 꺾어 내어 불에 던지라 하였느니라.

27 그러나 보라, 종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조금 더 거름을 주며 가꾸사이다. 혹 그것이 주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므로, 주께서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을 쌓아 둘 수 있으시리이다.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모든 열매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느니라.

2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포도원으로 내려가 다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자. 이는 보라, 때가 가까워 옵시오, 끝이 곧 이름이니라. 그런즉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열매를 쌓아 두어야 하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s servant: Look hither; behold I have planted another branch of the tree also; and thou knowest that this spot of ground was poorer than the first. But, behold the tree. I have nourished it this long time, and it hath brought forth much fruit; therefore, gather it, and lay it up against the season, that I may preserve it unto mine own self.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again unto his servant: Look hither, and behold another branch also, which I have planted; behold that I have nourished it also, and it hath brought forth fruit.

And he said unto the servant: Look hither and behold the last. Behold, this have I planted in a good spot of ground; and I have nourished it this long time, and only a part of the tree hath brought forth tame fruit, and the other part of the tree hath brought forth wild fruit; behold, I have nourished this tree like unto the other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 servant: Pluck off the branches that have not brought forth good fruit, and cast them into the fire.

But behold, the servant said unto him: Let us prune it, and dig about it, and nourish it a little longer, that perhaps it may bring forth good fruit unto thee, that thou canst lay it up against the seas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and the servant of the Lord of the vineyard did nourish all the fruit of the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a long time had passed away,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s servant: Come, let us go down into the vineyard, that we may labor again in the vineyard. For behold, the time draweth near, and the end soon cometh; wherefore, I must lay up fruit against the season, unto mine own self.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종이 포도원으로 내려가, 원가지들이 꺾여 나가고 들가지들이 접목된 나무에 이르렀더니, 보라 온갖 열매가 나무를 시달리게 하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수대로 각종 열매를 맛보니라.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이르되, 보라, 이 오랜 세월을 우리가 거름을 주며 이 나무를 가꾸었고, 내가 많은 열매를 절기에 대비하여 나를 위해 쌓아 두었노라.

32 그러나 보라, 이번에 많은 열매를 맺기는 하였으되, 좋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또 보라, 있는 것은 온갖 종류의 나쁜 열매이니, 우리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함이 없도다. 이제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로다 하니라.

33 또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무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이 나무의 좋은 열매를 다시 보전할 수 있겠느냐?

34 이에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인께서 들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셨으므로 그 가지들이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여, 뿌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뿌리가 아직 좋은 것을 주인께서 보시나이대 하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못된 열매를 맺는 한 나무가 내게 유익함이 없고, 그 뿌리도 내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36 그러할지라도 그 뿌리가 좋은 줄을 내가 알며,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내가 보전하였노니, 그 많은 힘으로 인하여 뿌리가 이제까지 들가지들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도다.

37 그러나 보라, 들가지들이 자라 그 뿌리를 앞질렀고, 들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음으로 인하여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며, 못된 열매를 이처럼 많이 맺었음으로 인하여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네가 보나니, 우리가 나무를 보전하고자 이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아니할진대, 곧 시들어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and the servant went down into the vineyard; and they came to the tree whose natural branches had been broken off, and the wild branches had been grafted in; and behold all sorts of fruit did cumber the tre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did taste of the fruit, every sort according to its number.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Behold, this long time have we nourished this tree, and I have laid up unto myself against the season much fruit.

But behold, this time it hath brought forth much fruit, and there is none of it which is good. And behold, there are all kinds of bad fruit; and it profiteth me nothing, notwithstanding all our labor; and now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is tree.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 servant: What shall we do unto the tree, that I may preserve again good fruit thereof unto mine own self?

And the servant said unto his master: Behold, because thou didst graft in the branches of the wild olive tree they have nourished the roots, that they are alive and they have not perished; wherefore thou beholdest that they are yet go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s servant: The tree profiteth me nothing, and the roots thereof profit me nothing so long as it shall bring forth evil fruit.

Nevertheless, I know that the roots are good, and for mine own purpose I have preserved them; and because of their much strength they have hitherto brought forth, from the wild branches, good fruit.

But behold, the wild branches have grown and have overrun the roots thereof; and because that the wild branches have overcome the roots thereof it hath brought forth much evil fruit; and because that it hath brought forth so much evil fruit thou beholdest that it beginneth to perish; and it will soon become ripened, that it may be cast into the fire, except we should do something for it to preserve it.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 가지들도 못된 열매를 맺었는지 보도록 하자 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본즉 원가지의 열매도 역시 못 쓰게 되었으니, 곧 첫째와 둘째와 나중 된 것까지라, 이들이 모두 못 쓰게 되었더라.

40 또 나중 된 것의 들열매는 그 나무의 좋은 열매 맺던 부분을 이겨, 그 가지가 말라 죽어 버렸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울며 종에게 말하되,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42 보라, 이것들 외에는 포도원의 모든 열매가 못 쓰게 된 줄 내가 알았었고, 이제는 한때 좋은 열매를 맺었던 이것들도 못 쓰게 되었으니, 이제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가 다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도다.

43 또 이 나중 된 것을 보라, 그 가지가 시들어 버렸도다. 내가 땅의 좋은 곳, 참으로 내게 있어 내 포도원 땅의 다른 모든 곳보다 뛰어난 곳에 심었었노라.

44 또 네가 보았거니와 이 나무를 대신 심고자, 내가 또 이 곳의 땅을 버리고 있던 것들을 베어 버렸으며,

45 또 네가 보았거니와 그 한 부분은 좋은 열매를 맺었고, 또 한 부분은 들열매를 맺었었더니, 내가 그 가지들을 꺾어 불에 던지지 아니한 까닭에, 보라 이들이 좋은 가지를 이겨 좋은 가지가 시들어 버렸도다.

46 또 이제 보라, 나의 포도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못 쓰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니와, 이들을 나는 보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기를 소망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들감람나무처럼 되어 버렸으니, 이들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도다. 이에 내가 이들을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his servant: Let us go down into the nethermost parts of the vineyard, and behold if the natural branches have also brought forth evil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down into the nethermost parts of the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held that the fruit of the natural branches had become corrupt also; yea, the first and the second and also the last; and they had all become corrupt.

And the wild fruit of the last had overcome that part of the tree which brought forth good fruit, even that the branch had withered away and di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wept, and said unto the servant: What could I have done more for my vineyard?

Behold, I knew that all the fruit of the vineyard, save it were these, had become corrupted. And now these which have once brought forth good fruit have also become corrupted; and now all the trees of my vineyard are good for nothing save it be to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And behold this last, whose branch hath withered away, I did plant in a good spot of ground; yea, even that which was choice unto me above all other parts of the land of my vineyard.

And thou beheldest that I also cut down that which cumbered this spot of ground, that I might plant this tree in the stead thereof.

And thou beheldest that a part thereof brought forth good fruit, and a part thereof brought forth wild fruit; and because I plucked not the branches thereof and cast them into the fire, behold, they have overcome the good branch that it hath withered away.

And now, behold, notwithstanding all the care which we have taken of my vineyard, the trees thereof have become corrupted, that they bring forth no good fruit; and these I had hoped to preserve, to have laid up fruit thereof against the season, unto mine own self. But, behold, they have become like unto the wild olive tree, and they are of no worth but to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and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em.



47 그러나 내가 내 포도원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내 손을 게을리하여 그것을 가꾸지 아니하였더냐? 아니라, 내가 이를 가꾸었으며, 내가 그 돌레를 팠었으며, 내가 그 가지를 쳤으며, 내가 그것에 거름을 주었으며, 내가 거의 온종일 내 손을 뻗쳤거늘 이제 끝이 가까워 오니, 내가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태워야 함은 내게 슬픈 일이다. 나의 포도원을 못 쓰게 한 것이 누구냐?

4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인의 포도원이 웃자라 있음이 아니니이까—그 가지들이 좋은 뿌리를 이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으므로, 보소서, 그것들이 뿌리의 힘보다 더 빨리 자라 힘을 빼앗았으니, 보소서, 내가 여짜옵거니와 이것이 주인의 포도원 나무들이 못 쓰게 된 까닭이 아니니이까 하니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가서 포도원의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 그것들이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하자. 이는 내가 할 바를 다 하였음이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50 그러나 보라, 종이 포도원의 주께 이르되, 이를 조금 더 두고 보소서 하는지라.

51 이에 주가 이르되, 그러하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인즉, 내가 이를 조금 더 두고 보리라.

52 그런즉 나의 포도원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심은 이것들의 가지를 우리가 취하자. 그리고 이들을 그 원래의 나무에 접붙이자. 그리고 그 열매가 가장 쓴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떼어 내고, 그 대신에 그 나무의 원가지들을 접목하자.

53 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은 그 나무가 죽지 않게 하여, 혹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나를 위하여 보전할까 함이라.

But what could I have done more in my vineyard? Have I slackened mine hand, that I have not nourished it? Nay, I have nourished it, and I have digged about it, and I have pruned it, and I have dunged it; and I have stretched forth mine hand almost all the day long, and the end draweth nigh. And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hew down all the trees of my vineyard, and cast them into the fire that they should be burned. Who is it that has corrupted my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rvant said unto his master: Is it not the loftiness of thy vineyard—have not the branches thereof overcome the roots which are good? And because the branches have overcome the roots thereof, behold they grew faster than the strength of the roots, taking strength unto themselves. Behold, I say, is not this the cause that the trees of thy vineyard have become corrupt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 servant: Let us go to and hew down the trees of the vineyard and cast them into the fire, that they shall not cumber the ground of my vineyard, for I have done all. What could I have done more for my vineyard?

But, behold, the servant said unto the Lord of the vineyard: Spare it a little longer.

And the Lord said: Yea, I will spare it a little longer, for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e trees of my vineyard.

Wherefore, let us take of the branches of these which I have planted in the nethermost parts of my vineyard, and let us graft them into the tree from whence they came; and let us pluck from the tree those branches whose fruit is most bitter, and graft in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in the stead thereof.

And this will I do that the tree may not perish, that, perhaps, I may preserve unto myself the roots thereof for mine own purpose.

54 또 보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 둔 나무의 원가지들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나니, 그런즉 내가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 역시 보전하고자, 이 나무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것에 접붙이리라. 참으로 나는 그 어미 나무의 가지들을 그것에 접붙이리니, 이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뿌리 역시 보전하여, 뿌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내가 내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광을 누리려 함이니라.

5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에서 취하여, 역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 접붙였느니라.

56 그리고 그들이 또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서 취하여,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니라.

57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가장 쓴 것이 아니거든 나무들에게서 들가지들을 떼어 내지 말고, 그것들에 너희는 내가 이른 대로 접을 붙일지니라.

58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들을 다시 가꿀 것이요, 우리는 그 가지들을 손질할 것이며, 우리는 또 시들어 필히 죽을 가지들을 나무들에게서 떼내어 불에 던질 것이라.

59 이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혹 그들의 뿌리가 그 좋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 함이요, 가지들을 바꿈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못된 것을 이기게 하려 함이라.

60 그리고 내가 원가지들과 그 뿌리를 보전하였고, 또 내가 원가지들을 다시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고, 그 어미 나무의 뿌리를 보전하여, 혹 내 포도원의 나무들이 또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며, 내가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얻으며, 혹 내가 처음 열매의 뿌리와 가지들을 보전하였음을 크게 기뻐하고자 하였은즉—

61 그런즉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게 할지니, 이 원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좋고 지극히 귀한 것이니라.

And, behold, the roots of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which I planted whithersoever I would are yet alive; wherefore, that I may preserve them also for mine own purpose, I will take of the branches of this tree, and I will graft them in unto them. Yea, I will graft in unto them the branches of their mother tree, that I may preserve the roots also unto mine own self, that when they shall be sufficiently strong perhaps they may bring forth good fruit unto me, and I may yet have glory in the fruit of my viney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ook from the natural tree which had become wild, and grafted in unto the natural trees, which also had become wild.

And they also took of the natural trees which had become wild, and grafted into their mother tree.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 servant: Pluck not the wild branches from the trees, save it be those which are most bitter; and in them ye shall graft according to that which I have said.

And we will nourish again the trees of the vineyard, and we will trim up the branches thereof; and we will pluck from the trees those branches which are ripened, that must perish,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is I do that, perhaps, the roots thereof may take strength because of their goodness; and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branches, that the good may overcome the evil.

And because that I have preserved the natural branches and the roots thereof, and that I have grafted in the natural branches again into their mother tree, and have preserved the roots of their mother tree, that, perhaps, the trees of my vineyard may bring forth again good fruit; and that I may have joy again in the fruit of my vineyard, and, perhaps, that I may rejoice exceedingly that I have preserved the roots and the branches of the first fruit—

Wherefore, go to, and call servants, that we may labor diligently with our might in the vineyard, that we may prepare the way, that I may bring forth again the natural fruit, which natural fruit is good and the most precious above all other fruit.

62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 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 옴이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

63 가지들을 접붙이라. 나중 된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들로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것으로 나중 되게 하며, 나무를 둘러 파되, 묵은 것과 어린 것,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 그리고 나중 된 것과 먼저 된 것을 다 그리하여, 모두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꾸도록 하라.

64 그런즉 그 둘레를 파고, 그 가지를 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름을 주라. 이는 끝이 가까워 옴이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접목들이 자라, 원열매를 맺거든 그때 너희는 그것들이 자랄 길을 예비할지니라.

65 또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너희는 좋은 것의 힘과 그 크기를 따라, 쓴 열매 맺는 가지들을 쳐 버리되, 너희는 그 나쁜 것을 한번에 다 쳐 버리는 말라. 두렵건대 그 뿌리가 접목에 비해 너무 강하여 그 접목이 죽으므로,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들을 잃을까 하노라.

66 이는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들을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임이라. 그런즉 너희는 좋은 것이 자라는데 따라서 나쁜 것을 쳐 버려서, 뿌리와 줄기 끝의 힘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되,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이기고, 나쁜 것은 찍혀 불에 던지워,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되기까지 그리하라. 이 같이 내가 내 포도원에서 나쁜 것들을 일소할 것이요,

67 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원나무에 다시 접붙일 것이며,

68 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나무의 원가지들에 접붙이리니, 이같이 내가 그들을 다시 합하게 하여 그들로 원열매를 맺게 한즉,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

69 또 나쁜 것은 참으로 내 포도원의 모든 땅 밖으로 버려지리니, 이는 보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내 포도원을 손질할 것임이로다.

Wherefore, let us go to and labor with our might this last time, for behold the end draweth nigh, and this is for the last time that I shall prune my vineyard.

Graft in the branches; begin at the last that they may be first, and that the first may be last, and dig about the trees, both old and young,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ast and the first, that all may be nourished once again for the last time.

Wherefore, dig about them, and prune them, and dung them once more, for the last time, for the end draweth nigh. And if it be so that these last grafts shall grow, and bring forth the natural fruit, then shall ye prepare the way for them, that they may grow.

And as they begin to grow ye shall clear away the branches which bring forth bitter fruit,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good and the size thereof; and ye shall not clear away the bad thereof all at once, lest the roots thereof should be too strong for the graft, and the graft thereof shall perish, and I lose the trees of my vineyard.

For it grieveth me that I should lose the trees of my vineyard; wherefore ye shall clear away the bad according as the good shall grow, that the root and the top may be equal in strength, until the good shall overcome the bad, and the bad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that they cumber not the ground of my vineyard; and thus will I sweep away the bad out of my vineyard.

And the branches of the natural tree will I graft in again into the natural tree;

And the branches of the natural tree will I graft into the natural branches of the tree; and thus will I bring them together again, that they shall bring forth the natural fruit, and they shall be one.

And the bad shall be cast away, yea, even out of all the land of my vineyard; for behold, only this once will I prune my vineyard.

7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을 보내매, 종이 가서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종들을 데려왔으나, 그들의 수가 적더라.

71 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힘을 다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는 보라, 이번이 나의 포도원을 가꾸는 마지막임이니, 이는 끝이 가까웠고, 절기가 속히 이룸이라. 또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 힘을 다하여 일하면 곧 이를 때를 대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 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을 누리리라.

7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들이 나아가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포도원의 주도 그들과 함께 일하더니, 그들은 법사에 포도원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73 이에 포도원에 다시 원열매가 있게 되었고, 원가지들은 심히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들가지들은 뽑혀 버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 뿌리와 줄기 끝을 그 힘에 따라, 동등하게 유지하였더라.

74 이에 이같이 그들이 포도원의 주의 명령대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일하되, 곧 나쁜 것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그리하였고, 주가 자기를 위하여 보전하매 나무들이 다시 원열매가 되고, 이들이 한 몸같이 되며, 그 열매가 고르니, 포도원의 주가 처음부터 그에게 가장 귀하던 원열매를 자기를 위하여 보전하였느니라.

7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의 열매가 좋고, 그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었으되, 네가 보거니와 내가 내 뜻대로 행하였노니, 내가 원열매를 보전하매, 그것이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좋도다. 또 네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나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웠으므로,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f the vineyard sent his servant; and the servant went and did as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brought other servants; and they were few.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unto them: Go to, and labor in the vineyard, with your might. For behold, this is the last time that I shall nourish my vineyard; for the end is nigh at hand, and the season speedily cometh; and if ye labor with your might with me ye shall have joy in the fruit which I shall lay up unto myself against the time which will soon com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rvants did go and labor with their might;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labored also with them; and they did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of the vineyard in all things.

And there began to be the natural fruit again in the vineyard; and the natural branches began to grow and thrive exceedingly; and the wild branches began to be plucked off and to be cast away; and they did keep the root and the top thereof equal, according to the strength thereof.

And thus they labored, with all diligenc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of the vineyard, even until the bad had been cast away out of the vineyard, and the Lord had preserved unto himself that the trees had become again the natural fruit; and they became like unto one body; and the fruits were equal;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had preserved unto himself the natural fruit, which was most precious unto him from the beginning.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ord of the vineyard saw that his fruit was good, and that his vineyard was no more corrupt, he called up his servants, and said unto them: Behold, for this last time have we nourished my vineyard; and thou beholdest that I have done according to my will; and I have preserved the natural fruit, that it is good, even like as it was in the beginning. And blessed art thou; for because ye have been diligent in laboring with me in my vineyard, and have kept my commandments, and have brought unto me again the natural fruit, that my vineyard is no more corrupted, and the bad is cast away, behold ye shall have joy with me because of the fruit of my vineyard.

76 이는 보라, 속히 이르는 절기에 대비하여, 내가 오랫동안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 포도원의 열매를 쌓아 둘 것임이라. 또 마지막으로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었으니,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바대로, 오랫동안 열매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리라.

77 못된 열매가 나의 포도원에 다시 들어올 때가 이르면, 그때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으게 하고, 좋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보전하고, 나쁜 것은 내가 제자리에 던져 버리리라. 그리고 나면 절기와 끝이 오나니, 내가 나의 포도원을 불에 살라지게 하리라 하니라.

For behold, for a long time will I lay up of the fruit of my vineyard unto mine own self against the season, which speedily cometh; and for the last time have I nourished my vineyard, and pruned it, and dug about it, and dunged it; wherefore I will lay up unto mine own self of the fruit,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at which I have spoken.

And when the time cometh that evil fruit shall again come into my vineyard, then will I cause the good and the bad to be gathered; and the good will I preserve unto myself, and the bad will I cast away into its own place. And then cometh the season and the end; and my vineyard will I cause to be burned with fire.

## 야곱서 6

- 1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예언하겠다고 너희에게 일렀음같이, 보라,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이 선지자 지노스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바, 그들을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이 정녕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 2 또 그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펼칠 그 날이, 곧 주의 종들이 그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의 포도원을 가꾸며 가지를 칠 날이니, 참으로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이며, 그 후에 끝이 곧 오느니라.
- 3 또 그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한 자들의 복됨이 그 어떠하며, 또한 제 자리로 내어쫓길 자들의 저주받음이 그 어떠하냐! 그리고 세상은 불에 살라지리라.
- 4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그 어떠하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 집을 기억하시되, 뿌리와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며, 온종일 그들에게 그 손을 내뻗으시며, 그들이 목이 뻗뻗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것임이라.
- 5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지한 말로써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와서, 하나님께 합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합하심같이 하고, 그의 자비하신 팔이 낮의 빛 가운데 너희를 향하여 펴져 있는 동안,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 6 참으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 7 보라, 너희가 온종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 받고 나서, 너희가 못된 열매를 맺음으로 찍혀 불에 던지워야만 하겠느냐?

## Jacob 6

And now, behold, my brethren, as I said unto you that I would prophesy, behold, this is my prophecy—that the things which this prophet Zenos spake, concerning the house of Israel, in the which he likened them unto a tame olive tree, must surely come to pass.

And the day that he shall set his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his people, is the day, yea, even the last time, that the servants of the Lord shall go forth in his power, to nourish and prune his vineyard; and after that the end soon cometh.

And how blessed are they who have labored diligently in his vineyard; and how cursed are they who shall be cast out into their own place! And the world shall be burned with fire.

And how merciful is our God unto us, for he remembereth the house of Israel, both roots and branches; and he stretches forth his hands unto them all the day long; and they are a stiffnecked and a gainsaying people; but as many as will not harden their hearts shall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I beseech of you in words of soberness that ye would repent, and come with full purpose of heart, and cleave unto God as he cleaveth unto you. And while his arm of mercy is extended towards you in the light of the day, harden not your hearts.

Yea, today,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for why will ye die?

For behold, after ye have been nourished by the good word of God all the day long, will ye bring forth evil fruit, that ye must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 8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저버리겠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했음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모든 말을 저버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너희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겠느냐?
- 9 만일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데려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죄책감으로 서게 하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10 또 공의는 거부할 수 없은즉, 공의의 능력을 좇아 너희는 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야 하나니,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이 불과 유황의 못은 끝없는 고통이니라.
- 11 오 그러할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라.
- 12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 13 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날 때까지, 너희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하나님의 심판대는 간악한 자들을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으로 치느니라. 아멘.

Behold, will ye reject these words? Will ye reject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will ye reject all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concerning Christ, after so many have spoken concerning him; and deny the good word of Christ, and the power of God, and the gift of the Holy Ghost, and quench the Holy Spirit, and make a mock of the great plan of redemption, which hath been laid for you?

Know ye not that if ye will do these things, that the power of the redemption and the resurrection, which is in Christ, will bring you to stand with shame and awful guilt before the bar of God?

And according to the power of justice, for justice cannot be denied, ye must go away into that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ose flames are unquenchable, and whose smoke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which lake of fire and brimstone is endless torment.

O then, my beloved brethren, repent ye, and enter in at the strait gate, and continue in the way which is narrow, until ye shall obtain eternal life.

O be wise; what can I say more?

Finally, I bid you farewell, until I shall meet you before the pleasing bar of God, which bar striketh the wicked with awful dread and fear. Amen.

## 야곱서 7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수년이 지난 후, 이름이 시렘이라 하는 사람이 니파이 백성 가운데 오니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가운데 전파하며,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아침이 되는 것을 많이 전파하니,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었더라.
- 3 또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고자 부지런히 일하더니,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었고, 또 나 야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고, 내게로 오고자 많은 기회를 찾았더라.
- 4 또 그는 유식하여 백성들의 언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의 능력을 좇아 많은 아침과 많은 언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던지라.
- 5 이러한 일에 관하여 내가 본 많은 것들과 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흔들여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소망을 가졌었나니, 이는 내가 진실로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은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음이라. 그러나 또한 나는 시시로 다름 아닌 말씀으로 내게 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었나니, 그런고로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와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제 야곱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기회를 많이 찾았노니, 이는 내가 들었고 또한 알고 있거니와 당신이 많이 다니며, 당신이 칭하기를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교리라 하는 것을 전파함이라.
- 7 또 당신은 이 백성을 많이 이끌어 내어 그들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바른 길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어 당신이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후에 오리라 하는 자를 경배하게 하였으니, 이제 보라, 나 시렘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당신에게 선언하노라, 이는 아무도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 사람이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없음이니라 하였나니, 이러한 모양으로 시렘이 참으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 Jacob 7

And now it came to pass after some years had passed away, there came a man among the people of Nephi, whose name was Shere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n to preach among the people, and to declare unto them that there should be no Christ. And he preached many things which were flattering unto the people; and this he did that he might overthrow the doctrine of Christ.

And he labored diligently that he might lead away the hearts of the people, insomuch that he did lead away many hearts; and he knowing that I, Jacob, had faith in Christ who should come, he sought much opportunity that he might come unto me.

And he was learned, that he had a perfect knowledge of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erefore, he could use much flattery, and much power of speech,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devil.

And he had hope to shake me from the faith, notwithstanding the many revelations and the many things which I had seen concerning these things; for I truly had seen angels, and they had ministered unto me. And also, I had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peaking unto me in very word, from time to time; wherefore, I could not be shaken.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me unto me, and on this wise did he speak unto me, saying: Brother Jacob, I have sought much opportunity that I might speak unto you; for I have heard and also know that thou goest about much, preaching that which ye call the gospel, or the doctrine of Christ.

And ye have led away much of this people that they pervert the right way of God, and keep not the law of Moses which is the right way; and convert the law of Moses into the worship of a being which ye say shall come many hundred years hence. And now behold, I, Sherem, declare unto you that this is blasphemy; for no man knoweth of such things; for he cannot tell of things to come. And after this manner did Sherem contend against me.



- 8 그러나 보라,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의 영혼에 부어 넣으시매, 내가 그의 모든 말에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 9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그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있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하는지라.
- 10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경전을 믿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는지라.
- 11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전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거니와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기록하거나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느니라.
- 12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 일은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이는 내가 듣고 보았음이며, 그 일은 또한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그런즉, 내가 알거니와 만일 속죄가 이루어짐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잃어 버린 바 되리라 하였느니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네가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바, 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더라.
- 14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시험하여 네가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일에 내게 표적을 보이시게 하겠느냐? 이제도 내가 이를 부인할 것은, 네가 악마에게 속한 연고니라.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되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너를 치실진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권능을 가지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리라는 표적이 될지이다. 그리고 주여, 나의 뜻이 아니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매 그가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 날 동안 요양을 받더라.

But behold, the Lord God poured in his Spirit into my soul, insomuch that I did confound him in all his words.

And I said unto him: Deniest thou the Christ who shall come? And he said: If there should be a Christ, I would not deny him; but I know that there is no Christ, neither has been, nor ever will be.

And I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e scriptures? And he said, Yea.

And I said unto him: Then ye do not understand them; for they truly testify of Christ. Behold, I say unto you that none of the prophets have written, nor prophesied, save they have spoken concerning this Christ.

And this is not all—it has been made manifest unto me, for I have heard and seen; and it also has been made manifest unto me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erefore, I know if there should be no atonement made all mankind must be los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me: Show me a sign by this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hich ye know so much.

And I said unto him: What am I that I should tempt God to show unto thee a sign in the thing which thou knowest to be true? Yet thou wilt deny it, because thou art of the devil. Nevertheless, not my will be done; but if God shall smite thee, let that be a sign unto thee that he has power, both in heaven and in earth; and also, that Christ shall come. And thy will, O Lord, be done, and not min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 Jacob, had spoken these words, the power of the Lord came upon him, insomuch that he fell to the earth.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as nourished for the space of many days.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일 함께 모이라. 이는 내가 죽을 것임이라. 그런즉 내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이매, 그가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여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바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신의 권능과 천사들의 성역을 시인하였더라.

18 또 그가 악마의 능력에 속았음을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니라. 또 그가 지옥과 영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19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내가 혹 사함 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두렵도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경전을 믿는다 하였음이라. 그러나 경전은 진실로 그를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하였으므로 내 처지가 참혹하게 될까 심히 두려우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노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더 말하지 못하고 혼이 떠나더라.

21 또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리가 목격하고 심히 놀라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내려 임하매, 그들이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지더라.

22 이제 이는 나 야곱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였음이요, 아버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이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 가운데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그들이 경전을 상고하며, 이 간악한 자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을 돌이켜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하고자 여러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그 모두가 헛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전쟁과 유혈을 즐기며, 그들의 형제 우리를 대하여 영원한 증오를 가졌음이라. 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무장의 힘으로 우리를 멸하기를 구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the people: Gather together on the morrow, for I shall die; wherefore, I desire to speak unto the people before I shall die.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 multitude were gathered together; and he spake plainly unto them and denied the things which he had taught them, and confessed the Christ, and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nd the ministering of angels.

And he spake plainly unto them, that he had been deceived by the power of the devil. And he spake of hell, and of eternity, and of eternal punishment.

And he said: I fear lest I have committed the unpardonable sin, for I have lied unto God; for I denied the Christ, and said that I believed the scriptures; and they truly testify of him. And because I have thus lied unto God I greatly fear lest my case shall be awful; but I confess unto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he could say no more, and he gave up the ghost.

And when the multitude had witnessed that he spake these things as he was about to give up the ghost, they were astonished exceedingly; insomuch that the power of God came down upon them, and they were overcome that they fell to the earth.

Now, this thing was pleasing unto me, Jacob, for I had requested it of my Father who was in heaven; for he had heard my cry and answered my prayer.

And it came to pass that peace and the love of God was restored again among the people; and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and hearkened no more to the words of this wicked man.

And it came to pass that many means were devised to reclaim and restore the Lamanites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but it all was vain, for they delighted in wars and bloodshed, and they had an eternal hatred against us, their brethren. And they sought by the power of their arms to destroy us continually.

25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기들의 무장과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방비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아직은 그들의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니라.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은 늙게 되었고, 이 백성의 기록은 니파이의 다른 판에 기록되고 있나니, 그런즉 나는 이 기록을 끝맺으면서, 최대한 내가 아는 바를 좇아 기록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또 말하노니 세월이 우리와 더불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는 마치 한 조각 꿈처럼 지나갔으나, 우리는 외롭고 엄숙한 백성이요, 방황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며, 환난 중에 광야에서 태어나 우리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나니, 미움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켰도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슬퍼하며 보내었느니라.

27 그리고 나 야곱은 내가 반드시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아, 나의 아들 이노스에게 이르기를, 이 판을 맡으라 하고, 또 나의 형 니파이가 나에게 명한 것을 그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명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이 판에 나의 기록함을 마치노니, 그 기록한 것이 작았을지라도 많은 나의 형제들이 내 말을 읽기를 바라며, 읽는 자에게 작별을 고하노라. 형제들아 잘 있으라.

Wherefore, the people of Nephi did fortify against them with their arms, and with all their might, trusting in the God and rock of their salvation; wherefore, they became as yet, conquerors of their ene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I, Jacob, began to be old; and the record of this people being kept on the other plates of Nephi, wherefore, I conclude this record, declaring that I have written according to the best of my knowledge, by saying that the time passed away with us, and also our lives passed away like as it were unto us a dream, we being a lonesome and a solemn people, wanderers, cast out from Jerusalem, born in tribulation, in a wilderness, and hated of our brethren, which caused wars and contentions; wherefore, we did mourn out our days.

And I, Jacob, saw that I must soon go down to my grave; wherefore, I said unto my son Enos: Take these plates. And I told him the things which my brother Nephi had commanded me, and he promised obedience unto the commands. And I make an end of my writing upon these plates, which writing has been small; and to the reader I bid farewell, hoping that many of my brethren may read my words. Brethren, adieu.

## 이노스서

- 1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 2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리라.
- 3 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 들었느니라.
- 4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 5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 6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 7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 8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가나니,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 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형제 니파이인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온 영혼을 쏟아 내었느니라.

## The Book of Enos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 Enos, knowing my father that he was a just man—for he taught me in his language, and also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and blessed be the name of my God for it—

And I will tell you of the wrestle which I had before God, before I received a remission of my sins.

Behold, I went to hunt beasts in the forests; and the words which I had often heard my father speak concerning eternal life, and the joy of the saints, sunk deep into my heart.

And my soul hungered; and I kneeled down before my Maker, and I cried unto him in mighty prayer and supplication for mine own soul; and all the day long did I cry unto him; yea, and when the night came I did still raise my voice high that it reached the heavens.

And there came a voice unto me, saying: Enos, thy sins are forgiven thee, and thou shalt be blessed.

And I, Enos, knew that God could not lie; wherefore, my guilt was swept away.

And I said: Lord, how is it done?

And he said unto me: Because of thy faith in Christ, whom thou hast never before heard nor seen. And many years pass away before he shall manifest himself in the flesh; wherefore, go to,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I had heard these words I began to feel a desire for the welfare of my brethren, the Nephites; wherefore, I did pour out my whole soul unto God for them.

10 또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 되, 나는 너의 형제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에 따라 그들을 찾아가겠노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거룩한 땅이라. 죄악의 까닭이 아니고는 내가 이를 저주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너의 형제들을 찾아가겠고, 그들의 범법은 내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슬픔과 더불어 내려오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1 이에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많이 오랫동안 진력하며 그에게 기도하였느니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소원대로 네게 허락하리라 하시더라.

13 그리고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주께 원하였던 소원이니—곧 만일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범법에 빠져 어떻게든 멸망당하고, 레이맨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진대,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보존하여 주시되, 그의 거룩한 팔의 힘에 의해서일지라도 그리하사, 그것이 장차 어느 날엔가 레이맨인들에게 전해져서, 혹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라—

14 이는 현재로는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우리의 힘겨운 노력이 헛되었음이니, 그들은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록과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멸하겠다고 그들의 분노 중에 맹세하였느니라.

15 그리하여 나는 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기록을 보존하실 수 있으심을 알았던지라, 그에게 쉬지 않고 부르짖었나니 이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라 하셨었음이라.

16 그리고 내게 신앙이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록을 보존해 주실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정하신 때에 그것을 레이맨인들에게 전하시겠다고 나와 성약하시니라.

And while I was thus struggling in the spirit, behold, the voice of the Lord came into my mind again, saying: I will visit thy brethren according to their diligence in keeping my commandments. I have given unto them this land, and it is a holy land; and I curse it not save it be for the cause of iniquity; wherefore, I will visit thy brethren according as I have said; and their transgressions will I bring down with sorrow upon their own heads.

And after I, Enos, had heard these words, my faith began to be unshaken in the Lord; and I prayed unto him with many long strugglings for my brethren,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I had prayed and labored with all diligence, the Lord said unto me: I will grant unto thee according to thy desires, because of thy faith.

And now behold, this was the desire which I desired of him—that if it should so be, that my people, the Nephites,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and by any means be destroyed, and the Lamanites should not be destroyed, that the Lord God would preserve a record of my people, the Nephites; even if it so be by the power of his holy arm, that it might be brought forth at some future day unto the Lamanites, that, perhaps, they might be brought unto salvation—

For at the present our strugglings were vain in restoring them to the true faith. And they swore in their wrath that, if it were possible, they would destroy our records and us, and also all the traditions of our fathers.

Wherefore, I knowing that the Lord God was able to preserve our records, I cried unto him continually, for he had said unto me: Whatsoever thing ye shall ask in faith,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in the name of Christ, ye shall receive it.

And I had faith, and I did cry unto God that he would preserve the records; and he covenanted with me that he would bring them forth unto the Lamanites in his own due time.

17 이에 나 이노스는 그가 맺으신 성약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내 영혼은 쉬를 얻었느니라.

18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조상들도 이 일을 내게 구하였나니,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들의 신앙도 네 것과 같았음이니라 하시더라.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니파이 백성 중으로 다니면서,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20 또 나는 니파이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였음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헛되었고, 그들의 증오는 굳어졌으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악한 본성에 이끌려 거칠고 흉포하며, 피에 굶주리고, 우상 숭배와 더러움이 가득한 백성이 되어, 사냥 짐승을 먹고 살아가며, 장막에 거하며, 허리에 짧은 가죽띠를 두르고, 머리를 민 채 광야를 방황하였으며, 그들의 능숙함은 활과 신월도와 도끼에 있었느니라. 또 그들 중의 많은 자가 날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하려 노력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은 땅을 경작하여, 온갖 곡식과 과일과 가축 무리의 떼와 각종류의 온갖 소 떼와 염소와 들염소와 또한 많은 말을 길렀더라.

22 또 우리 중에는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느니라.

23 그리고 심히 엄격함과 또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함과 또 사망과 영원의 기간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아무것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내가 말하노니 이러한 것과 극히 명백히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무것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히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었느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노라.

And I, Enos, knew it would be according to the covenant which he had made; wherefore my soul did rest.

And the Lord said unto me: Thy fathers have also required of me this thing; and it shall be done unto them according to their faith; for their faith was like unto thin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 Enos, went about among the people of Nephi, prophesying of things to come, and testifying of the things which I had heard and seen.

And I bear record that the people of Nephi did seek diligently to restore the Lamanites unto the true faith in God. But our labors were vain; their hatred was fixed, and they were led by their evil nature that they became wild, and ferocious, and a blood-thirsty people, full of idolatry and filthiness; feeding upon beasts of prey; dwelling in tents, and wandering about in the wilderness with a short skin girdle about their loins and their heads shaven; and their skill was in the bow, and in the cimeter, and the ax. And many of them did eat nothing save it was raw meat; and they were continually seeking to destroy 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did till the land, and raise all manner of grain, and of fruit, and flocks of herds, and flocks of all manner of cattle of every kind, and goats, and wild goats, and also many horses.

And there were exceedingly many prophets among us. And the people were a stiffnecked people, hard to understand.

And there was nothing save it was exceeding harshness, preaching and prophesying of wars, and contentions, and destructions, and continually reminding them of death, and the duration of eternity, and the judgments and the power of God, and all these things—stirring them up continually to keep them in the fear of the Lord. I say there was nothing short of these things, and exceedingly great plainness of speech, would keep them from going down speedily to destruction. And after this manner do I write concerning them.

- 24 또 나는 살아오면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간의 전쟁을 보았느니라.
-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연로하여졌고,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는 백 칠십구 년이 지나갔노라.
- 26 또 나는 내가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노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받아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예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했었도다. 이에 나는 나의 평생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세상의 것 이상으로 이를 기뻐하였노라.
- 27 이제 내가 곧 나의 안식의 처소로 가노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라. 이는 내가 그의 안에서 쉴 것을 앎이로다. 또 나는 나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뻐하노니,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And I saw wars between the Nephites and Lamanites in the course of my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gan to be old, and an hundred and seventy and nine years had passed away from the time that our father Lehi left Jerusalem.

And I saw that I must soon go down to my grave, having been wrought upon by the power of God that I must preach and prophesy unto this people, and declare the word according to the truth which is in Christ. And I have declared it in all my days, and have rejoiced in it above that of the world.

And I soon go to the place of my rest, which is with my Redeemer; for I know that in him I shall rest. And I rejoice in the day when my mortal shall put on immortality, and shall stand before him; then shall I see his face with pleasure, and he will say unto me: Come unto me, ye blessed, there is a place prepared for you in the mansions of my Father. Amen.

## 예이롬서

- 1 이제 보라, 나 예이롬은 나의 부친 이노스의 명을 좇아 몇 마디 말을 기록하여 우리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게 하노라.
- 2 또 이 판은 작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의 유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인즉, 그러므로 내가 조금 기록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의 예언함에 관한 것이나 나의 계시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조상들이 기록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록할 수 있으랴?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였도다. 그런즉 이것으로 내가 족하게 여기노라.
- 3 보라,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들의 귀가 먹었으며 그들의 생각이 눈이 멀며, 그들의 목이 뻣뻣한 연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긍휼히 여기사, 아직은 이 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 4 또 우리 중에 계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는 아니함인즉,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이라.
- 5 또 이제 보라, 이백 년이 지나갔고, 니파이 백성은 땅에서 점차 강대하여졌더라. 그들이 모세의 율법 지키기와 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행하였고,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땅의 법은 심히 엄격하였더라.
- 6 또 그들은 지면에 널리 흩어졌고, 레이맨인들도 그러하였나니, 저들은 니파이인들보다 그 수가 심히 더 많았으며, 저들은 살인을 좋아하고 짐승의 피를 마셨느니라.

## The Book of Jarom

Now behold, I, Jarom, write a few word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my father, Enos, that our genealogy may be kept.

And as these plates are small, and as these things are written for the intent of the benefit of our brethren the Lamanites, wherefore, it must needs be that I write a little; but I shall not write the things of my prophesying, nor of my revelations. For what could I write more than my fathers have written? For have not they revealed the plan of salvation? I say unto you, Yea; and this sufficeth me.

Behold, it is expedient that much should be done among this people,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 deafness of their ears, and the blindness of their minds, and the stiffness of their necks; nevertheless, God is exceedingly merciful unto them, and has not as yet swept them off from the face of the land.

And there are many among us who have many revelations, for they are not all stiffnecked. And as many as are not stiffnecked and have faith, have communion with the Holy Spirit, which maketh manifest unto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now, behold, two hundred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people of Nephi had waxed strong in the land. They observed to keep the law of Moses and the sabbath day holy unto the Lord. And they profaned not; neither did they blaspheme. And the laws of the land were exceedingly strict.

And they were scattered upon much of the face of the land, and the Lamanites also. And they were exceedingly more numerous than were they of the Nephites; and they loved murder and would drink the blood of beasts.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여러 번 우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었으나,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지도자들은 주께 대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던지라, 그들이 주의 길을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그로 인해 우리가 레이맨인들에 맞서서 저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성읍들 또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곳들을 방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8 또 우리는 심히 번성하여, 지면에 퍼졌고, 금과 은과 귀한 것과 목세공품과 건물과 기계류와 또한 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이 심히 풍부해져서, 땅을 가는 온갖 종류의 각종 연장과 전쟁 무기를 만들었나니—참으로 끝이 날카로운 화살과 화살통과 단창과 창 및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라.
- 9 이같이 레이맨인들을 만날 준비를 갖추매, 저들이 우리를 거스려 형통하지 못하였나니, 이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확증되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 위협하되, 만일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법에 떨어지면, 지면에서 멸절되리라 하였더라.
- 11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부지런함을 다하여 오래 참음으로 백성들을 권면하여 부지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가르치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같이 장차 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느니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을 지켜 지면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였음이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삼십팔 년이 지나갔되—그 중 많은 세월 동안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many times against us, the Nephites, to battle. But our kings and our leaders were mighty men in the faith of the Lord; and they taught the people the ways of the Lord; wherefore, we withstood the Lamanites and swept them away out of our lands, and began to fortify our cities, or whatsoever place of our inheritance.

And we multiplied exceedingly, and spread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became exceedingly rich in gold, and in silver, and in precious things, and in fine workmanship of wood, in buildings, and in machinery, and also in iron and copper, and brass and steel, making all manner of tools of every kind to till the ground, and weapons of war—yea, the sharp pointed arrow, and the quiver, and the dart, and the javelin, and all preparations for war.

And thus being prepared to meet the Lamanites, they did not prosper against us. But the word of the Lord was verified, which he spake unto our fathers, saying that: Inasmuch as ye wi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rophets of the Lord did threaten the people of Nephi,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at if they did not keep the commandments, but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they should be destroyed from off the face of the land.

Wherefore, the prophets, and the priests, and the teachers, did labor diligently, exhorting with all long-suffering the people to diligence; teaching the law of Moses, and the intent for which it was given; persuading them to look forward unto the Messiah, and believe in him to come as though he already was. And after this manner did they teach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by so doing they kept them from being destroyed upon the face of the land; for they did prick their hearts with the word, continually stirring them up unto repentance.

And it came to pass that two hundred and thirty and eight years had passed away—after the manner of wars, and contentions, and dissensions, for the space of much of the time.

14 나 예이롬은 더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판이 작음이라.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니파이의 다른 판으로 갈 수 있나니, 이는 보라, 그 위에 열왕의 기록하는 바, 혹은 그들이 기록하게 한 바를 좇아, 우리의 전쟁의 기록이 새겨져 있음이니라.

15 이제 나는 이 판을 나의 아들 옴나이의 손에 넘겨, 그것이 나의 조상들의 명령대로 기록되게 하노라.

And I, Jarom, do not write more, for the plates are small. But behold, my brethren, ye can go to the other plates of Nephi; for behold, upon them the records of our wars are engraven, according to the writings of the kings, or those which they caused to be written.

And I deliver these plates into the hands of my son Omni, that they may be kept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my fathers.

## 옵나이서

- 1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옵나이는 우리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판에 얼마간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나의 부친 예이롬에게서 받았으며—
- 2 그런즉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내 백성 니파이인들을 보전하여, 그들의 원수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칼로 많이 싸운 줄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그러나 보라, 나 스스로는 간악한 사람이요, 마땅히 했어야 할 대로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칠십육 년이 지나갔으며,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기도 많았고, 치열한 전쟁과 유혈의 시기도 많았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느니라. 또 요컨대 이백팔십이 년이 지나갔으며, 나는 조상들의 명을 좇아 이 판들을 보존하였다가, 이를 나의 아들 애메이론에게 내려 주었노니,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 4 그리고 이제 나 애메이론은, 적으나마 내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부친의 책에 기록하노라.
- 5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이십 년이 지나갔고, 니파이인들 가운데 더 간악한 자들이 멸망당하였으니,
- 6 이는 주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전하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신 후에, 참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입증되지 아니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자 하심이라.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 7 그리하여 주께서 큰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살려 두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이 판을 나의 형제 케미시에게 넘겨주었노라.

## The Book of Omni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 Omni, being commanded by my father, Jarom, that I should write somewhat upon these plates, to preserve our genealogy—

Wherefore, in my days, I would that ye should know that I fought much with the sword to preserve my people, the Nephites,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the Lamanites. But behold, I of myself am a wicked man, and I have not kept the statutes and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s I ought to have done.

And it came to pass that two hundred and seventy and six years had passed away, and we had many seasons of peace; and we had many seasons of serious war and bloodshed. Yea, and in fine, two hundred and eighty and two years had passed away, and I had kept these plate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my fathers; and I conferred them upon my son Amaron. And I make an end.

And now I, Amaron, write the things whatsoever I write, which are few, in the book of my fathe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ree hundred and twenty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more wicked part of the Nephites were destroyed.

For the Lord would not suffer, after he had led them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kept and preserved them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yea, he would not suffer that the words should not be verified, which he spake unto our fathers, saying that: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not prosper in the land.

Wherefore, the Lord did visit them in great judgment; nevertheless, he did spare the righteous that they should not perish, but did deliver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deliver the plates unto my brother Chemish.

- 9 이제 나 케미시는 내가 기록하는 약간의 것을 나의 형제와 같은 책에 기록하노라. 보라,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나니,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기록하였고, 나에게 넘겨 주던 날에 그것을 기록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록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명령에 따른 것임이니라.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 10 보라, 나 아빈아돔은 케미시의 아들이니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백성 곧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의 전쟁과 다툼을 많이 보았고, 또 나는 내 자신의 칼로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레이맨인들의 목숨을 빼앗았느니라.
- 11 또 보라, 이 백성의 기록은 대대로 열왕이 가지고 있는 판에 새겨져 있으며, 나는 이미 기록된 것 이외의 계시나 예언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런즉 족한 만큼 기록되었도다.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 12 보라, 나는 아빈아돔의 아들 아멜레카이니라. 보라, 내가 제이라헤물라 땅의 왕이 된 모사이야에 관하여 얼마간 너희에게 말하리니, 보라, 그는 니파이 땅에서 도망하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자도 그와 함께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는 경고를 주께로부터 받고—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들 곧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는 모든 자가 그 땅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으로 인도되었으며 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며, 그의 팔의 힘으로 인도되어 광야를 지나 제이라헤물라 땅이라 하는 땅으로 내려왔느니라.
- 14 그리고 그들은 제이라헤물라 백성이라 칭하는 백성을 발견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유대인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 놋쇠판과 함께 모사이야의 백성을 보내 주셨음으로 인하여, 제이라헤물라 백성 중에는 크게 기쁨함이 있었고 제이라헤물라 역시 심히 기뻐하였더라.

Now I, Chemish, write what few things I write, in the same book with my brother; for behold, I saw the last which he wrote, that he wrote it with his own hand; and he wrote it in the day that he delivered them unto me. And after this manner we keep the records, for it i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our fathers. And I make an end.

Behold, I, Abinadom, am the son of Chemish.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 saw much war and contention between my people,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nd I, with my own sword, have taken the lives of many of the Lamanites in the defence of my brethren.

And behold, the record of this people is engraven upon plates which is had by the kings, according to the generations; and I know of no revelation save that which has been written, neither prophecy; wherefore, that which is sufficient is written. And I make an end.

Behold, I am Amaleki, the son of Abinadom. Behold, I will speak unto you somewhat concerning Mosiah, who was made king over the land of Zarahemla; for behold, he being warned of the Lord that he should flee out of the land of Nephi, and as many as would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should also depart out of the land with him,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according as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hey departed out of the land into the wilderness, as many as would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and they were led by many preachings and prophesyings. And they were admonished continually by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led by the power of his arm, through the wilderness until they came down into the land which is called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y discovered a people, who were called the people of Zarahemla. Now, there was great rejoicing among the people of Zarahemla; and also Zarahemla did rejoice exceedingly, because the Lord had sent the people of Mosiah with the plates of brass which contained the record of the Jews.

- 15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는 제이라헤믈라의 백성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갈 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 16 또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주의 손으로 인도 되어 큰 물을 건너,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한 땅에 이르렀고, 그때로부터 그 곳에 거하였더라.
- 17 또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수효가 심히 많아졌었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쟁과 심한 다툼이 많이 있었고, 이에 그들은 시시로 칼에 쓰러졌었으며 그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가져온 기록도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였나니, 모사이야도 모사이야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었더라.
- 1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사이야의 언어를 배운 후에, 제이라헤믈라가 자기의 기억을 좇아 그 조상의 족보를 진술하매, 그것이 기록되었으나 이 판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라헤믈라와 모사이야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였고, 모사이야를 지명하여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시대에, 그에게로 가져온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새긴 것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새겨진 것을 해석하였더라.
- 21 이에 그것은 코리안투머라 하는 자와 죽임을 당한 그의 백성에 대한 기사더라. 또 코리안투머는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그는 그들과 함께 아홉 달 동안 거하였더라.
- 22 그것은 또 그의 조상들에 관하여서도 몇 마디 말해 주었나니, 그의 첫 조상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에, 탑으로부터 나왔으며 주의 엄하심이 의로우신 그의 심판을 좇아 그들에게 내린지라, 그들의 뼈가 북방 땅에 흩어져 있느니라.
- 23 보라, 나 아멜레카이는 모사이야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의 죽음을 보았고, 이제 그의 아들 베나민이 그 대신에 다스렸더라.

Behold, it came to pass that Mosiah discovered that the people of Zarahemla came out from Jerusalem at the time that Zedekiah, king of Judah, was carried away captive into Babylon.

And they journeyed in the wilderness, and were brought by the hand of the Lord across the great waters, into the land where Mosiah discovered them; and they had dwelt there from that time forth.

And at the time that Mosiah discovered them, they had become exceedingly numerous. Nevertheless, they had had many wars and serious contentions, and had fallen by the sword from time to time; and their language had become corrupted; and they had brought no records with them; and they denied the being of their Creator; and Mosiah, nor the people of Mosiah, could understand them.

But it came to pass that Mosiah caused that they should be taught in his language.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were taught in the language of Mosiah, Zarahemla gave a genealogy of his fathers, according to his memory; and they are written, but not in these pla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Zarahemla, and of Mosiah, did unite together; and Mosiah was appointed to be their king.

And it came to pass in the days of Mosiah, there was a large stone brought unto him with engravings on it; and he did interpret the engravings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And they gave an account of one Coriantumr, and the slain of his people. And Coriantumr was discovered by the people of Zarahemla; and he dwelt with them for the space of nine moons.

It also spake a few words concerning his fathers. And his first parents came out from the tower, at the time the Lord confounded the language of the people; and the severity of the Lord fell upon them according to his judgments, which are just; and their bones lay scattered in the land northward.

Behold, I, Amaleki, was born in the days of Mosiah; and I have lived to see his death; and Benjamin, his son, reigneth in his stead.

24 또 보라, 나는 베냐민 왕의 시대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격심한 한 전쟁과 많은 유혈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이 훨씬 우세하게 되어 그들을 이기매, 마침내 베냐민 왕이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 밖으로 몰아내었느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늙었도다. 또 내가 후손이 없고, 베냐민 왕이 주 앞에 의인인줄 아노니, 그런즉 내가 이 판을 그에게 넘겨주리라. 그리하면서 내가 만민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와서 예언과 계시와 천사의 성역과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와 언어를 통변하는 은사와 모든 선한 것을 믿으라. 이는 선한 것으로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음이니라.

26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27 또 이제 나는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려고 광야로 올라간 몇몇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그들의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았음이라.

28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로 올라갔으나, 그들의 지도자가 힘이 센 용사요, 목이 뻣뻣한 자였던지라, 이에 그가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매, 그들이 광야에서 오십 인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한지라, 그들이 다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왔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또한 다른 자들을 상당수 취하여, 다시 광야로 여행을 떠났더라.

30 또 나 아멜레카이에게도 형제가 하나 있어 그도 그들과 함께 갔으나, 그 후로는 그들에 관하여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곧 나의 무덤에 눕게 되었고, 이 판은 가득 찼도다. 이에 내가 나의 말함을 마치노라.

And behold, I have seen, in the days of king Benjamin, a serious war and much bloodshed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But behold, the Nephites did obtain much advantage over them; yea, insomuch that king Benjamin did drive them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gan to be old; and, having no seed, and knowing king Benjamin to be a just man before the Lord, wherefore, I shall deliver up these plates unto him, exhorting all men to come unto God, the Holy One of Israel, and believe in prophesying, and in revelations, and in the ministering of angels, and in the gift of speaking with tongues, and in the gift of interpreting languages, and in all things which are good; for there is nothing which is good save it comes from the Lord: and that which is evil cometh from the devil.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would that ye should come unto Christ, who is the Holy One of Israel, and partake of his salvation, and the power of his redemption. Yea, come unto him, and offer you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continue in fasting and praying, and endure to the end; and as the Lord liveth ye will be saved.

And now I would speak somewhat concerning a certain number who went up into the wilderness to return to the land of Nephi; for there was a large number who were desirous to possess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Wherefore, they went up into the wilderness. And their leader being a strong and mighty man, and a stiffnecked man, wherefore he caused a contention among them; and they were all slain, save fifty, in the wilderness, and they returned again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lso took others to a considerable number, and took their journey again into the wilderness.

And I, Amaleki, had a brother, who also went with them; and I have not since known concerning them. And I am about to lie down in my grave; and these plates are full. And I make an end of my speaking.

## 몰몬의 말씀

- 1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오던 기록을 나의 아들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려 하매, 보라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들이 거의 다 멸망하였음을 목격하였노라.
- 2 또 내가 이 기록들을 내 아들의 손에 넘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수백 년 후이니, 내 생각에 그는 내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목격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그들 뒤에 살아남게 하사, 그들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게 하사, 혹 언젠가 그 기록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 3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기록한 바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니, 아멜레카이가 언급한 이 베냐민 왕의 치세에 이르기까지의 요약은 내가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만들고 나서, 나는 내 손에 넘겨진 기록들을 살피다가, 야곱으로부터 이 베냐민 왕의 치세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이 작은 기사가 실려 있고, 니파이의 말이 또한 많이 실려 있는 이 판을 발견하였느니라.
- 4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로 말미암아 이 판에 있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며, 또 나의 조상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고, 그뿐 아니라 나 또한 우리에게 관하여 이 날까지 예언된 것이 모두 이루어졌고, 이 날 이후에 관한 것은 반드시 기필코 이를 것임을 아노니—
- 5 그런즉 나는 이러한 것들을 택하여 그 위에 나의 기록을 완성하고자 하되, 내 기록의 나머지는 니파이의 판에서 취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백성에 대한 일을 백분의 일도 기록할 수 없도다.
- 6 그러나 보라, 나는 이 예언과 계시들이 실려 있는 이 판을 취하여, 이를 내 기록의 나머지와 함께 두리니, 이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임이요, 또 그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소중한 것이 될 줄을 내가 압이라.

## The Words of Mormon

And now I, Mormon, being about to deliver up the record which I have been making into the hands of my son Moroni, behold I have witnessed almost all the destruction of my people, the Nephites.

And it is many hundred years after the coming of Christ that I deliver these records into the hands of my son; and it supposeth me that he will witness the entire destruction of my people. But may God grant that he may survive them, that he may write somewhat concerning them, and somewhat concerning Christ, that perhaps some day it may profit them.

And now, I speak somewhat concerning that which I have written; for after I had made an abridgment from the plates of Nephi, down to the reign of this king Benjamin, of whom Amaleki spake, I searched among the records which had been delivered into my hands, and I found these plates, which contained this small account of the prophets, from Jacob down to the reign of this king Benjamin, and also many of the words of Nephi.

And the things which are upon these plates pleasing me, because of the prophecies of the coming of Christ; and my fathers knowing that many of them have been fulfilled; yea, and I also know that as many things as have been prophesied concerning us down to this day have been fulfilled, and as many as go beyond this day must surely come to pass—

Wherefore, I chose these things, to finish my record upon them, which remainder of my record I shall take from the plates of Nephi; and I cannot write the hundredth part of the things of my people.

But behold, I shall take these plates, which contain these prophesyings and revelations, and put them with the remainder of my record, for they are choice unto me; and I know they will be choice unto my brethren.

- 7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 나는 만사를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도다.
- 8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나의 형제들에 관한 것이니, 그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기에 이르러 그들이 다시 한 번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니라.
- 9 그러면 이제 나 몰몬은 계속하여 니파이의 판에서 취하는 바 내 기록을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노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총명을 좇아 이를 만드노라.
- 10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레카이가 이 판을 베냐민 왕의 손에 넘겨 준 후, 그는 이를 취하여 이를 베냐민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열왕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실려 있는 다른 판과 함께 두었더라.
- 11 그리고 이것이 베냐민 왕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나의 수중에 들어왔나니, 나 몰몬은 이때로부터 이후로 이 판들이 보전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또 나는 이 판들이 보전될 줄을 아노니, 이는 그 위에 위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백성과 그들의 형제들이 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도다.
- 12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왕에 관하여—그의 때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다소 다툼이 있었느니라.
- 1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니파이 땅에서 내려왔더라. 그러나 보라, 베냐민 왕이 그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그들에 맞서 라반의 검을 들고 그 자신의 팔의 힘으로 싸웠더라.
- 14 또 주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이 그 대적과 싸워 이기고 레이맨인 수천을 도륙하였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기업의 모든 땅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내었더라.

And I do this for a wise purpose; for thus it whispereth me, according to the workings of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is in me. And now, I do not know all things; but the Lord knoweth all things which are to come; wherefore, he worketh in me to do according to his will.

And my prayer to God is concerning my brethren, that they may once again come to the knowledge of God, yea, the redemption of Christ; that they may once again be a delightsome people.

And now I, Mormon, proceed to finish out my record, which I take from the plates of Nephi; and I make it according to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which God has given me.

W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after Amaleki had delivered up these plates into the hands of king Benjamin, he took them and put them with the other plates, which contained records which had been handed down by the king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until the days of king Benjamin.

And they were handed down from king Benjami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until they have fallen into my hands. And I, Mormon, pray to God that they may be preserved from this time henceforth. And I know that they will be preserved; for there are great things written upon them, out of which my people and their brethren shall be judged at the great and last d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hich is written.

And now, concerning this king Benjamin—he had somewhat of contentions among his own people.

And it came to pass also that the armies of the Lamanites came down out of the land of Nephi, to battle against his people. But behold, king Benjamin gathered together his armies, and he did stand against them; and he did fight with the strength of his own arm, with the sword of Laban.

And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ey did contend against their enemies, until they had slain many thousands of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ontend against the Lamanites until they had driven them out of all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입이 닫혀지고 그들이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16 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그리고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자들이 이반하여 레이맨인들에게로 가는 일이 있는 후,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도움을 얻어—

17 이는 보라, 베냐민 왕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가 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스렸고, 또 그 땅에 거룩한 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였으며, 백성들의 목이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날카로움을 많이 사용하였음이라—

18 그리하여 이들의 도움과 함께 베냐민 왕은 그의 육신의 모든 힘과 그의 온 영혼의 능력을 다해 일하고, 또한 선지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한 번 더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re had been false Christs, and their mouths had been shut, and they punished according to their crimes;

And after there had been false prophets, and false preachers and teachers among the people, and all these having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ir crimes; and after there having been much contention and many dissensions away unto the Lamanites, behold, it came to pass that king Benjamin, with the assistance of the holy prophets who were among his people—

For behold, king Benjamin was a holy man, and he did reign over his people in righteousness; and there were many holy men in the land, and they did speak the word of God with power and with authority; and they did use much sharpness because of the stiffneckedness of the people—

Wherefore, with the help of these, king Benjamin, by laboring with all the might of his body and the faculty of his whole soul, and also the prophets, did once more establish peace in the land.

# 모사이야서

## 모사이야서 1

- 1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플라 온 땅에서 베냐민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 중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던 지라, 베냐민 왕이 그의 남은 모든 날 동안 내내 화평을 누리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아들 셋이 있더니, 그가 그들의 이름을 모사이야, 그리고 헬로룸, 그리고 헬라맨이라 칭하였더라.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조상들의 모든 언어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그로써 그들로 명철한 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달된 바, 곧 그들 조상들의 입으로 말한 바 된 예언에 관해 알게 하였더라.
- 3 또한 그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가르쳤나니 이르기를, 나의 아들들아, 나는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계명이 들어 있는 이 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필연 무지한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 4 이는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 리하이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이는 그가 애굽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던 지라, 이 새긴 것들을 읽고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므로, 지금 이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왔음이라.
- 5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우리로 그의 비밀에 대해 읽고 깨닫게 하며, 그의 계명을 항상 우리 눈 앞에 가지고 있게 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갔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같이 되었으리니, 그들은 이러한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는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 조상의 옳지 아니한 전통으로 인하여 이를 믿지도 아니하느니라.

# The Book of Mosiah

## Mosiah 1

And now there was no more contention in all the land of Zarahemla, among all the people who belonged to king Benjamin, so that king Benjamin had continual peace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had three sons; and he called their names Mosiah, and Helorum, and Helaman. And he caused that they should be taught in all the language of his fathers, that thereby they might become men of understanding; and that they might know concerning the prophecies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mouths of their fathers, which were delivered them by the hand of the Lord.

And he also taught them concerning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on the plates of brass, saying: My sons,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were it not for these plates, which contain these records and these commandments, we must have suffered in ignorance, even at this present time, not knowing the mysteries of God.

For it were not possible that our father, Lehi, could have remembered all these things, to have taught them to his children, except it were for the help of these plates; for he having been taught in the language of the Egyptians therefore he could read these engravings, and teach them to his children, that thereby they could teach them to their children, and so fulfilling the commandments of God, even down to this present time.

I say unto you, my sons, were it not for these things, which have been kept and preserved by the hand of God, that we might read and understand of his mysteries, and have his commandments always before our eyes, that even our fathers would have dwindled in unbelief, and we should have been like unto our brethren, the Lamanites, who know nothing concerning these things, or even do not believe them when they are taught them, because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which are not correct.

- 6 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이 참 되며, 또한 이 기록들이 참됨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그리고 보라, 또한 니파이의 판에는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기록과 말씀하신 것이 들어 있으니, 이 역시 참되니라. 또 우리가 그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있음이라.
- 7 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를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기 바라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 8 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을, 참으로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더 가르쳤더라.
-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친 후, 그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줄을 알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더라.
- 10 그리하여, 그는 모사이야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가 그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내 아들아, 바라노니 너는 이 온 땅에 걸쳐 이 온 백성, 곧 제이라헤물라 백성과 이 땅에 거하는 모사이야 백성 가운데 포고를 내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내일 나 자신의 입으로 네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임을 나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임이니라.
- 11 그리고 더욱이 내가 이 백성에게 이름 하나를 주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모든 백성들 위에 구별되게 하려 하노니, 이를 내가 행함은 그들이 주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온 백성이었음이라.
- 12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름은 범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코 지워져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O my sons,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these sayings are true, and also that these records are true. And behold, also the plates of Nephi, which contain the records and the sayings of our fathers from the time they left Jerusalem until now, and they are true; and we can know of their surety because we have them before our eyes.

And now, my sons,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o search them diligently, that ye may profit thereby; and I would that ye should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that ye may prosper in the land according to the promises which the Lord made unto our fathers.

And many more things did king Benjamin teach his son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king Benjamin had made an end of teaching his sons, that he waxed old, and he saw that he must very soon go the way of all the earth; therefore, he thought it expedient that he should confer the kingdom upon one of his sons.

Therefore, he had Mosiah brought before him;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pake unto him, saying: My son, I would that ye should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this land among all this people, or the people of Zarahemla, and the people of Mosiah who dwell in the land, that thereby they may be gathered together; for on the morrow I shall proclaim unto this my people out of mine own mouth that thou art a king and a ruler over this people, whom the Lord our God hath given us.

And moreover, I shall give this people a name, that thereby they may be distinguished above all the people which the Lord God hath brought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this I do because they have been a diligent people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I give unto them a name that never shall be blotted out, except it be through transgression.

13 이뿐 아니라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주께 크게 은혜를 입은 이 백성이 범법에 떨어져, 간악하고 음란한 백성이 되면,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지게 하실 것이요, 그는 더 이상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 주신 것같이, 그의 비길데 없는 기이한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리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가 그의 팔을 펴사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져, 그들의 증오의 희생이 되었으리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말하기를 마친 후, 그는 왕국의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을 그에게 맡겼더라.

16 그리고 더욱이 그는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이의 판과 또한 라반의 검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한 공, 곧 지시기에 관한 책임을 또한 그에게 맡겼나니, 이 공 곧 지시기는 주의 손으로 예비된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기 그에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한 것이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충실하지 못한즉 그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형통하지 못하였고 나아가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뒤로 밀려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들 위에 초래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느니라.

1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아가 가서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포고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 그의 부친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듣게 하였더라.

Yea,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if this highly favored people of the Lord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and become a wicked and an adulterous people, that the Lord will deliver them up, that thereby they become weak like unto their brethren; and he will no more preserve them by his matchless and marvelous power, as he has hitherto preserved our fathers.

For I say unto you, that if he had not extended his arm in the preservation of our fathers they must have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become victims to their hatre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king Benjamin had made an end of these sayings to his son, that he gave him charge concerning all the affairs of the kingdom.

And moreover, he also gave him charge concerning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on the plates of brass; and also the plates of Nephi; and also, the sword of Laban, and the ball or director, which led our fathers through the wilderness, which was prepared by the hand of the Lord that thereby they might be led, every one according to the heed and diligence which they gave unto him.

Therefore, as they were unfaithful they did not prosper nor progress in their journey, but were driven back, and incurred the displeasure of God upon them; and therefore they were smitten with famine and sore afflictions, to stir them up in remembrance of their duty.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Mosiah went and did as his father had commanded him, and proclaimed unto all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Zarahemla that thereby they might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go up to the temple to hear the words which his father should speak unto them.

## 모사이야서 2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온 땅에 널리 포고를 내린 후, 백성들이 온 땅에 두루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더라.
- 2 이에 모인 무리가 큰 수를 이루매, 그 수가 심히 많아 그들을 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번성하여 그 땅에서 크게 늘어났음이라.
- 3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양 떼의 처음 난 것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희생과 번제를 드리려 함이었으며,
- 4 또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의인들을 그들의 교사로, 또한 한 의인을 그들의 왕으로 임명하사, 그로 제이라헤물라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 함이었더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주위에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된 자기 가족을 따라,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아래로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각기 서로 따로 하였더라.
- 6 또 그들이 성전을 둘러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장막 문으로 성전을 향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으니,
- 7 이는 무리가 심히 커 베냐민 왕이 성전 경내에서 그들을 모두 가르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한 대를 세우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였더라.

## Mosiah 2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osiah had done as his father had commanded him, and had mad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the land, that the people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throughout all the land, that they might go up to the temple to hear the words which king Benjamin should speak unto them.

And there were a great number, even so many that they did not number them; for they had multiplied exceedingly and waxed great in the land.

And they also took of the firstlings of their flocks, that they might offer sacrifice and burnt offering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also that they might give thanks to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who had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had appointed just men to be their teachers, and also a just man to be their king, who had established peace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who had taught them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that they might rejoice and be filled with love towards God and all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came up to the temple, they pitched their tents round about, every man according to his family, consisting of his wife,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from the eldest down to the youngest, every family being separate one from another.

And they pitched their tents round about the temple, every man having his tent with the door thereof towards the temple, that thereby they might remain in their tents and hear the words which king Benjamin should speak unto them;

For the multitude being so great that king Benjamin could not teach them all within the walls of the temple, therefore he caused a tower to be erected, that thereby his people might hear the words which he should speak unto them.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대로부터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였으나, 무리가 큰 연고로 그들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하는 말을 기록하게 하여 그의 음성 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게 하여, 그들도 그의 말을 받게 하였더라.

9 이것이 그가 말하고 기록하게 한 말이니 일렀으되, 나의 형제들, 함께 모인 너희 모두 곧 이 날 너희에게 할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소홀히 다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로 하여금 내게 귀를 기울이게 하며,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하며, 너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며, 너희 생각을 열게 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펼쳐지게 하려 함이니라.

10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어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11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이 백성에 의해 택함을 받고,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으며, 주의 손의 용납하심을 받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되었고,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까지도 너희를 섬기며 나의 날을 보내었으되 금이나 은이나 너희의 여하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음같이,

13 나는 너희가 감옥에 갇히거나, 서로를 노비로 삼거나 살인하거나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여하한 간악함도 범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가르쳐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n to speak to his people from the tower; and they could not all hear his words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multitude; therefore he caused that the words which he spake should be written and sent forth among those that were not under the sound of his voice, that they might also receive his words.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pake and caused to be written, saying: My brethren, all ye that have assembled yourselves together, you that can hear my words which I shall speak unto you this day; for I have not commanded you to come up hither to trifle with the words which I shall speak, but that you should hearken unto me, and open your ears that ye may hear, and your hearts that ye may understand, and your minds that the mysteries of God may be unfolded to your view.

I have not commanded you to come up hither that ye should fear me, or that ye should think that I of myself am more than a mortal man.

But I am like as yourselves, subject to all manner of infirmities in body and mind; yet I have been chosen by this people, and consecrated by my father, and was suffered by the hand of the Lord that I should be a ruler and a king over this people; and have been kept and preserved by his matchless power, to serve you with all the might, mind and strength which the Lord hath granted unto me.

I say unto you that as I have been suffered to spend my days in your service, even up to this time, and have not sought gold nor silver nor any manner of riches of you;

Neither have I suffered that ye should be confined in dungeons, nor that ye should make slaves one of another, nor that ye should murder, or plunder, or steal, or commit adultery; nor even have I suffered that ye should commit any manner of wickedness, and have taught you that ye should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in all things which he hath commanded you—

14 또 나 자신조차도 내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여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며, 지기 힘든 일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였노니—내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오늘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니라.

15 그러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자랑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야기함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난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답할 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름임이니라.

17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18 보라, 너희는 나를 너희 왕이라 칭하였도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일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9 그리고 또한 보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일컫는 바 내가 너희를 섬기느라 그 날들을 보내었으되,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온 내가 만일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면,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감사드림이 얼마나 마땅하냐!

20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켜 보전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하여 주신 저 하나님께 너희 온 영혼이 가질 능력이 있는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And even I, myself, have labored with mine own hands that I might serve you, and that ye should not be laden with taxes, and that there should nothing come upon you which was grievous to be borne—and of all these things which I have spoken, ye yourselves are witnesses this day.

Yet, my brethren, I have not done these things that I might boast, neither do I tell these things that thereby I might accuse you; but I tell you these things that ye may know that I can answer a clear conscience before God this day.

Behold, I say unto you that because I said unto you that I had spent my days in your service, I do not desire to boast, for I have only been in the service of God.

And behold, I tell you these things that ye may learn wisdom; that ye may learn that when ye are in the service of your fellow beings ye are only in the service of your God.

Behold, ye have called me your king; and if I, whom ye call your king, do labor to serve you, then ought not ye to labor to serve one another?

And behold also, if I, whom ye call your king, who has spent his days in your service, and yet has been in the service of God, do merit any thanks from you, O how you ought to thank your heavenly King!

I say unto you, my brethren, that if you should render all the thanks and praise which your whole soul has power to possess, to that God who has created you, and has kept and preserved you, and has caused that ye should rejoice, and has granted that ye should live in peace one with another—

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나 날이 너희를 보전하사, 너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며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너희를 지탱해 주기까지 하고 계시는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내가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것이니라.

22 또 보라,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두이며, 그는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나니, 그는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 결코 변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느니라.

23 그리고 이제 먼저 그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로 인해 너희가 그에게 빚졌느니라.

24 그리고 둘째로 그는 과연 그가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로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갚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그에게 빚지고 있으며,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니,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25 그리고 이제 내가 묻노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랴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땅의 티끌만큼 된다고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땅의 티끌로 창조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이에겐 속한 것이니라.

26 그리고 나, 곧 너희가 왕이라 일컫는 나도, 너희 자신보다 나을 것이 없나니, 이는 나 역시 티끌로 지어졌음이라. 또 너희가 보거니와 내가 늙었고, 곧 이 죽어야 할 육신을 그 어미 되는 땅에게 내어 주려 하고 있느니라.

I say unto you that if ye should serve him who has created you from the beginning, and is preserving you from day to day, by lending you breath, that ye may live and move and do according to your own will, and even supporting you from one moment to another—I say, if ye should serve him with all your whole souls yet ye would be unprofitable servants.

And behold, all that he requires of you is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he has promised you that if ye would keep his commandments ye should prosper in the land; and he never doth vary from that which he hath said; therefore, if ye do keep his commandments he doth bless you and prosper you.

And now, in the first place, he hath created you, and granted unto you your lives, for which ye are indebted unto him.

And secondly, he doth require that ye should do as he hath commanded you; for which if ye do, he doth immediately bless you; and therefore he hath paid you. And ye are still indebted unto him, and are, and will be, forever and ever; therefore, of what have ye to boast?

And now I ask, can ye say aught of yourselves? I answer you, Nay. Ye cannot say that ye are even as much as the dust of the earth; yet ye were created of the dust of the earth; but behold, it belongeth to him who created you.

And I, even I, whom ye call your king, am no better than ye yourselves are; for I am also of the dust. And ye behold that I am old, and am about to yield up this mortal frame to its mother earth.



27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행하며, 너희를 섬겼다고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이때에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내게 명하신 일에 대해 내가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때, 내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나타나게 하며, 너희의 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바야흐로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려 하는 이 시기에,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내려가고, 나의 불멸의 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합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9 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교사도, 너희의 왕도 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려 함이니라.

30 이는 이 시간에도 너희에게 말하려 하는 동안 나의 온 몸이 참으로 심히 떨고 있음이라.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받들어 주고 계시며, 나를 용납하사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고, 내게 명하사 나의 아들 모사야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임을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31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과 또한 나의 부친의 명령을 지켜 번성하고, 너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심을 입은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만일 너희가 나의 아들의 명령, 곧 그에 의해 너희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실대 너희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다스릴 능력을 갖지 못하리라.

32 그러나 나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주의하고, 나의 부친 모사야가 말씀하신 악한 영에게 즐겨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Therefore, as I said unto you that I had served you, walking with a clear conscience before God, even so I at this time have caused that ye should assemble yourselves together, that I might be found blameless, and that your blood should not come upon me, when I shall stand to be judged of God of the things whereof he hath commanded me concerning you.

I say unto you that I have caused that ye should assemble yourselves together that I might rid my garments of your blood, at this period of time when I am about to go down to my grave, that I might go down in peace, and my immortal spirit may join the choirs above in singing the praises of a just God.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I have caused that ye should assemble yourselves together, that I might declare unto you that I can no longer be your teacher, nor your king;

For even at this time, my whole frame doth tremble exceedingly while attempting to speak unto you; but the Lord God doth support me, and hath suffered me that I should speak unto you, and hath commanded me that I should declare unto you this day, that my son Mosiah is a king and a ruler over you.

And now, my brethren, I would that ye should do as ye have hitherto done. As ye have kept my commandments, and also the commandments of my father, and have prospered, and have been kept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your enemies, even so if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my son, or the commandments of God which shall be delivered unto you by him,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your enemies shall have no power over you.

But, O my people, beware lest there shall arise contentions among you, and ye list to obey the evil spirit, which was spoken of by my father Mosiah.

33 이는 보라, 그 영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 위에 화가 선포되어 있음이니, 이는 만일 그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여 자기 죄 안에 머물다가 죽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시는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의 아는 바에 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기의 샅으로 받음이니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빚진 자로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모두를 그에게 돌려야 함을 알지 못하는 자 없으며, 또한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들어 있는 기록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나니,

35 거기에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도 모두 들어 있느니라. 또한 보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말하였나니, 그러므로 그 말씀이 바르고 참되니라.

36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또 가르침 받은 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에 상반되게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너희가 복 받으며, 번영하며, 보존되도록 너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진대—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러내어 거역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즐겨 악한 영에게 순종하며,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할 곳이 없으시니, 이는 그가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이라.

38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죄과를 통렬히 느끼게 하나니, 이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For behold, there is a wo pronounced upon him who listeth to obey that spirit; for if he listeth to obey him, and remaineth and dieth in his sins, the same drinketh damnation to his own soul; for he receiveth for his wages an everlasting punishment, having transgressed the law of God contrary to his own knowledge.

I say unto you, that there are not any among you, except it be your little children that have not been taught concerning these things, but what knoweth that ye are eternally indebted to your heavenly Father, to render to him all that you have and are; and also have been taught concerning the records which contain the prophecies which have been spoken by the holy prophets, even down to the time our father, Lehi, left Jerusalem;

And also, all that has been spoken by our fathers until now. And behold, also, they spake that which was commanded them of the Lord; therefore, they are just and true.

And now, I say unto you, my brethren, that after ye have known and have been taught all these things, if ye should transgress and go contrary to that which has been spoken, that ye do withdraw yourselves from the Spirit of the Lord, that it may have no place in you to guide you in wisdom's paths that ye may be blessed, prospered, and preserved—

I say unto you, that the man that doeth this, the same cometh out in open rebellion against God; therefore he listeth to obey the evil spirit, and becometh an enemy to all righteousness; therefore, the Lord has no place in him, for he dwelleth not in unholy temples.

Therefore if that man repenteth not, and remaineth and dieth an enemy to God, the demands of divine justice do awaken his immortal soul to a lively sense of his own guilt, which doth cause him to shrink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oth fill his breast with guilt, and pain, and anguish, which is like an unquenchable fire, whose flame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 39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운명은 결코 그침이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되리라.
- 40 오 모든 너희 늙은 자들 그리고 또한 너희 젊은 자들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 어린 아이들아, 이는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하였음이니, 나는 너희가 깨어 범법에 빠진 자들의 무서운 처지를 기억하기를 비노라.
- 41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And now I say unto you, that mercy hath no claim on that man; therefore his final doom is to endure a never-ending torment.

O, all ye old men, and also ye young men, and you little children who can understand my words, for I have spoken plainly unto you that ye might understand, I pray that ye should awake to a remembrance of the awful situation of those that have fallen into transgression.

And moreover, I would desire that ye should consider on the blessed and happy state of those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For behold, they are blessed in all things, both temporal and spiritual; and if they hold out faithful to the end they are received into heaven, that thereby they may dwell with God in a state of never-ending happiness. O remember, remember that these things are true; for the Lord God hath spoken it.

### 모사이야서 3

- 1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얼마간 더 말할 것이 있음이라. 이는 보라, 내가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고할 것이 있음이니라.
- 2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에 의해 나에게 알려졌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깨어나라 하기로 내가 깨었더니, 보라 그가 내 앞에 섰느니라.
- 3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깨어 내가 네게 고할 말을 들으라. 이는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하러 왔음이니라.
- 4 이는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의에 대해 판단하시고, 나를 보내사 네게 선포하게 하셨음이니, 이는 너로 기뻐하게 하시며, 또 너로 네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여 그들 역시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5 불지어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곧 모든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흠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 6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악마,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리라.
- 7 또 보라,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옴이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것처럼 크리라.
- 8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

### Mosiah 3

And again my brethren, I would call your attention, for I have somewhat more to speak unto you; for behold, I have things to tell you concerning that which is to come.

And the things which I shall tell you are made known unto me by an angel from God. And he said unto me: Awake; and I awoke, and behold he stood before me.

And he said unto me: Awake, and hear the words which I shall tell thee; for behold, I am come to declare unto you the glad tidings of great joy.

For the Lord hath heard thy prayers, and hath judged of thy righteousness, and hath sent me to declare unto thee that thou mayest rejoice; and that thou mayest declare unto thy people, that they may also be filled with joy.

For behold, the time cometh, and is not far distant, that with power, the Lord Omnipotent who reigneth, who was, and is from all eternity to all eternity, shall come down from heave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shall dwell in a tabernacle of clay, and shall go forth amongst men, working mighty miracles, such as healing the sick, raising the dead, causing the lame to walk, the blind to receive their sight, and the deaf to hear, and curing all manner of diseases.

And he shall cast out devils, or the evil spirits which dwell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And lo, he shall suffer temptations, and pain of body, hunger, thirst, and fatigue, even more than man can suffer, except it be unto death; for behold, blood cometh from every pore, so great shall be his anguish for the wickedness and the abominations of his people.

And he shall be calle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Father of heaven and earth, the Creator of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and his mother shall be called Mary.

- 9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그를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가 귀신 들렸다 말할 것이요, 그를 채찍질 할 것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 10 그리고 그는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이요. 보라,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서시나니, 보라, 이 모든 일이 행하여짐은 의로운 심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 11 이는 보라, 또한 그의 피는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 곧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함이라.
- 12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있는 자에게는 화, 화가 있도다! 이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 13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사,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하게 하사,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마치 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
- 14 그러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목이 뿔뿔한 백성임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율법을 정해 주셨으니, 곧 모세의 율법이라.
- 15 또 그의 오심에 관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예표와 그림자를 그가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도 그의 오심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율법이 그의 피의 속죄를 통하여서 가 아니고는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 16 또 설혹 어린아이들이 죄지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들은 복되도다. 이는 보라, 아담 안에서 곧 본디부터 그들이 타락한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줌이라.

And lo, he cometh unto his own, that salvation might come unto the children of men even through faith on his name; and even after all this they shall consider him a man, and say that he hath a devil, and shall scourge him, and shall crucify him.

And he shall rise the third day from the dead; and behold, he standeth to judge the world; and behold, all these things are done that a righteous judgment might come upon the children of men.

For behold, and also his blood atoneth for the sins of those who have fallen by the transgression of Adam, who have died not knowing the will of God concerning them, or who have ignorantly sinned.

But wo, wo unto him who knoweth that he rebelleth against God! For salvation cometh to none such except it be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rd God hath sent his holy prophets among all the children of men, to declare these things to every kindred, nation, and tongue, that thereby whosoever should believe that Christ should come, the same might receive remission of their sins, and rejoice with exceedingly great joy, even as though he had already come among them.

Yet the Lord God saw that his people were a stiff-necked people, and he appointed unto them a law, even the law of Moses.

And many signs, and wonders, and types, and shadows showed he unto them, concerning his coming; and also holy prophets spake unto them concerning his coming; and yet they hardened their hearts, and understood not that the law of Moses availeth nothing except it were through the atonement of his blood.

And even if it were possible that little children could sin they could not be saved; but I say unto you they are blessed; for behold, as in Adam, or by nature, they fall, even so the blood of Christ atoneth for their sins.

17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  
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  
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

18 이는 보라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매,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며 그 유아기에 죽는 유아는 멸망하지 아  
니하되,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구원이 전에나, 지금에나, 장차  
에나,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리  
고 그 피를 통하여 임함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들 스스로의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마심이 됨이니  
라.

19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  
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  
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  
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  
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  
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  
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20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지  
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

21 또 보라, 그때가 이르면 회개와 전능하신 주 하  
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하리라.

22 그리고 이때라 할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것을 네 백성에게 가르친 후에는, 이  
미 그때는 내가 네게 고한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하느니라.

23 이제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말하였노라.

24 또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심판 날에  
그 말씀이 이 백성에게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리  
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되,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그 행위가 악하든지, 각 사람은 자  
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there shall be  
no other name given nor any other way nor means  
whereby salvation can come unto the children of  
men, only in and through the name of Christ, the  
Lord Omnipotent.

For behold he judgeth, and his judgment is just;  
and the infant perisheth not that dieth in his infancy;  
but men drink damnation to their own souls except  
they humble themselves and become as little chil-  
dren, and believe that salvation was, and is, and is to  
come, in and through the atoning blood of Christ,  
the Lord Omnipotent.

For the natural man is an enemy to God, and has  
been from the fall of Adam, and will be, forever and  
ever, unless he yields to the enticings of the Holy  
Spirit, and putteth off the natural man and becometh  
a saint through the atonement of Christ the Lord,  
and becometh as a child, submissive, meek, humble,  
patient, full of lov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hi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the time shall  
come when the knowledge of a Savior shall spread  
throughout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  
ple.

And behold, when that time cometh, none shall be  
found blameless before God, except it be little chil-  
dren, only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on the name  
of the Lord God Omnipotent.

And even at this time, when thou shalt have taught  
thy people the things which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even then are they found no more  
blameless in the sight of God, only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unto thee.

And now I have spoken the words which the Lord  
God hath commanded me.

And thus saith the Lord: They shall stand as a  
bright testimony against this people, at the judgment  
day; whereof they shall be judged, every man ac-  
cording to his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whether they be evil.

25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가증함의 참담함을 목도하게 되고, 이는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하여 비참과 끝없는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나니, 그 곳에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신 것이다.

26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마신 것이니, 공의가 이를 그들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함을 거부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영원토록 자비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27 또 그들의 고통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솟아오르는 불과 유황의 못 같으니라.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아멘.

And if they be evil they are consigned to an awful view of their own guilt and abominations, which doth cause them to shrink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into a state of misery and endless torment, from whence they can no more return; therefore they have drunk damnation to their own souls.

Therefore, they have drunk out of the cup of the wrath of God, which justice could no more deny unto them than it could deny that Adam should fall because of his partaking of the forbidden fruit; therefore, mercy could have claim on them no more forever.

And their torment is as a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ose flames are unquenchable, and whose smoke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Thus hath the Lord commanded me. Amen.

## 모사이야서 4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주의 천사에 의해 그에게 전달된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고,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았더니, 보라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 2 또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속된 상태에 있어, 실로 땅의 티끌보다 못함을 보았고,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 하였더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한 말씀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
- 4 이에 베냐민 왕이 다시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르기를,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들, 나의 혈족이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니, 너희에게 할 내 말의 나머지를 너희가 듣고 깨닫기 바라노라.
- 5 이는 보라, 만일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아무 가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면—
-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비길 데 없는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내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속죄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되어 그로써 주를 신뢰하며 부지런히 그의 계명을 지키며, 자기의 생명이, 내가 뜻하는 것은 죽어야 할 육신의 생명이라, 끝나기까지 신앙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속죄의 지식에 이르렀다면—

## Mosiah 4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king Benjamin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he words which had been delivered unto him by the angel of the Lord, that he cast his eyes round about on the multitude, and behold they had fallen to the earth, for the fear of the Lord had come upon them.

And they had viewed themselves in their own carnal state, even less than the dust of the earth. And they all cried aloud with one voice, saying: O have mercy, and apply the atoning blood of Christ that we may receiv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our hearts may be purified; for we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and all things; who shall come dow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had spoken these words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joy, having received a remission of their sins, and having peace of conscience, because of the exceeding faith which they had in Jesus Christ who should come,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king Benjamin had spoken unto them.

And king Benjamin again opened his mouth and began to speak unto them, saying: My friends and my brethren, my kindred and my people, I would again call your attention, that ye may hear and understand the remainder of my words which I shall speak unto you.

For behold, if the knowledge of the goodness of God at this time has awakened you to a sense of your nothingness, and your worthless and fallen state—

I say unto you, if ye have come to a knowledge of the goodness of God, and his matchless power, and his wisdom, and his patience, and his long-suffering towards the children of men; and also, the atonement which has been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thereby salvation might come to him that should put his trust in the Lord, and should be diligent in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continue in the faith even unto the end of his life, I mean the life of the mortal body—



- 7 내가 말하노니, 이가 바로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니, 이 속죄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있던 자나, 지금 있는 자나, 장차 곧 세상의 끝까지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니라.
- 8 또 이제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방도이니, 이미 말한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은 도무지 없으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조건을 제외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도 없느니라.
- 9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 10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
- 11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한 것같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이르렀은즉, 곧 너희가 그의 선하심을 알았고 그의 사랑을 맛보았고, 너희 영혼에 그토록 심히 큰 기쁨을 있게 하는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면, 바로 것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너희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과 합당하지 아니한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그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에 간직하며, 지극히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입으로 이야기 된 바, 장차 이를 일을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노라.
- 12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영광의 지식 안에서, 곧 바르고 참된 것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되리라.

I say, that this is the man who receiveth salvation, through the atonement which w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or all mankind, which ever were since the fall of Adam, or who are, or who ever shall be,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nd this is the means whereby salvation cometh. And there is none other salvation save this which hath been spoken of; neither are there any conditions whereby man can be saved except the conditions which I have told you.

Believe in God;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created all things, both in heaven and in earth; believe that he has all wisdom, and all power, both in heaven and in earth; believe that man doth not comprehend all the things which the Lord can comprehend.

And again, believe that ye must repent of your sins and forsake them, and humble yourselves before God; and ask in sincerity of heart that he would forgive you; and now, if you believe all these things see that ye do them.

And again I say unto you as I have said before, that as ye have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or if ye have known of his goodness and have tasted of his love, and have received a remission of your sins, which causeth such exceedingly great joy in your souls, even so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and always retain in remembrance, the greatness of God, and your own nothingness, and his goodness and long-suffering towards you, unworthy creatures, and humble yourselves even in the depths of humility,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daily, and standing steadfastly in the faith of that which is to come, which was spoken by the mouth of the angel.

And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ye do this ye shall always rejoice, an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and always retain a remission of your sins; and ye shall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him that created you, or in the knowledge of that which is just and true.

13 또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며, 각 사람에게 그에게 당연한 것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14 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게 되도록 그들을 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며 죄의 주인이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악한 영인 악마를 섬기도록 버려 두지도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원수라.

15 오히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16 또한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할 것이요, 너희는 궁핍에 처한 자에게 너희의 재물을 베풀 것이며, 너희는 구걸하는 자가 너희에게 올리는 간청이 헛되도록 버려 두고, 그를 쫓아내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17 혹 네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자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금하여, 그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식에서 그에게 주거나, 나의 재물에서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벌이 마땅한 것임이라 하리라.

1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 사람아,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 그는 크게 회개해야 하느니라. 또 그가 자기의 행한 바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19 대저 보라,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양식과 의복에 대해, 또 금에 대해, 또 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온갖 종류의 모든 부에 대해, 동일한 존재 곧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냐?

20 그리고 보라, 이 시간에도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죄 사함을 간구하고 있었도다. 그런데 너희의 간구가 헛되도록 그가 버려 두셨느냐? 아니라, 그는 너희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 입이 막혀 너희로 말할 바를 찾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의 기쁨이 그토록 심히 컸느니라.

And ye will not have a mind to injure one another, but to live peaceably, and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that which is his due.

And ye will not suffer your children that they go hungry, or naked; neither will ye suffer that they transgress the laws of God, and fight and quarrel one with another, and serve the devil, who is the master of sin, or who is the evil spirit which hath been spoken of by our fathers, he being an enemy to all righteousness.

But ye will teach them to walk in the ways of truth and soberness; ye will teach them to love one another, and to serve one another.

And also, ye yourselves will succor those that stand in need of your succor; ye will administer of your substance unto him that standeth in need; and ye will not suffer that the beggar putteth up his petition to you in vain, and turn him out to perish.

Perhaps thou shalt say: The man has brought upon himself his misery; therefore I will stay my hand, and will not give unto him of my food, nor impart unto him of my substance that he may not suffer, for his punishments are just—

But I say unto you, O man, whosoever doeth this the same hath great cause to repent; and except he repenteth of that which he hath done he perisheth forever, and hath no interest in the kingdom of God.

For behold, are we not all beggars? Do we not all depend upon the same Being, even God, for all the substance which we have, for both food and raiment, and for gold, and for silver, and for all the riches which we have of every kind?

And behold, even at this time, ye have been calling on his name, and begging for a remission of your sins. And has he suffered that ye have begged in vain? Nay; he has poured out his Spirit upon you, and has caused that your hearts should be filled with joy, and has caused that your mouths should be stopped that ye could not find utterance, so exceedingly great was your joy.

21 또 이제 만일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라고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재물에서 서로 나누어 줌이 얼마나 마땅하냐.

22 그리고 만일 죽지 않으려고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너희에게 간청을 올리는 자를 너희가 판단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재물을 나누지 않는 데 대한 너희의 정죄는 얼마나 더 마땅하겠느냐. 그에게는 너희 생명도 속해 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 간청도 드리지 아니하며, 네가 행한 일을 뉘우치지도 아니하는도다.

23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화 있을 진저. 이는 그의 재물이 그와 함께 멸망할 것이므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관하여 부유한 자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노라.

24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가진 것이 없으나 매일 지내기에 족할 만큼은 가진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노라. 나는 구걸하는 자에게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너희 모두를 뜻하노라.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까닭이나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리라 하기를 바라노라.

25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이를 말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없으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정죄받나니 너희의 정죄가 마땅함은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탐함이니라.

26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일을 위하여—즉 매일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

And now, if God, who has created you, on whom you are dependent for your lives and for all that ye have and are, doth grant unto you whatsoever ye ask that is right, in faith,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O then, how ye ought to impart of the substance that ye have one to another.

And if ye judge the man who putteth up his petition to you for your substance that he perish not, and condemn him, how much more just will be your condemnation for withholding your substance, which doth not belong to you but to God, to whom also your life belongeth; and yet ye put up no petition, nor repent of the thing which thou hast done.

I say unto you, wo be unto that man, for his substance shall perish with him; and now, I say these things unto those who are rich as pertaining to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again, I say unto the poor, ye who have not and yet have sufficient, that ye remain from day to day; I mean all you who deny the beggar, because ye have not; I would that ye say in your hearts that: I give not because I have not, but if I had I would give.

And now, if ye say this in your hearts ye remain guiltless, otherwise ye are condemned; and your condemnation is just for ye covet that which ye have not received.

And now, for the sake of these things which I have spoken unto you—that is, for the sake of retaining a remission of your sins from day to day, that ye may walk guiltless before God—I would that ye should impart of your substance to the poor, every man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th, such as feeding the hungry, clothing the naked, visiting the sick and administering to their relief, both spiritually and temporally, according to their wants.

27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

28 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그가 합의하는 대로,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네가 네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하리라.

29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30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아,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

And see that all these things are done in wisdom and order; for it is not requisite that a man should run faster than he has strength. And again, it is expedient that he should be diligent, that thereby he might win the prize; therefore, all things must be done in order.

And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whosoever among you borroweth of his neighbor should return the thing that he borroweth, according as he doth agree, or else thou shalt commit sin; and perhaps thou shalt cause thy neighbor to commit sin also.

And finally, I cannot tell you all the things whereby ye may commit sin; for there are divers ways and means, even so many that I cannot number them.

But this much I can tell you, that if ye do not watch yourselves, and your thoughts, and your words, and your deeds, and observe the commandments of God, and continue in the faith of what ye have heard concerning the coming of our Lord, even unto the end of your lives, ye must perish. And now, O man, remember, and perish not.

## 모사이야서 5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이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이 믿는지 그의 백성에게 알아보려 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 3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그의 영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장차 이를 일에 대한 위대한 식견을 가졌나니,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으리이다.
- 4 또 우리로 이 큰 지식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은 그 신앙이오니, 이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나이다.
- 5 이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가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천사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우리 자신 위에 초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하더라.
- 6 그리고 이제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바라던 말인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바라던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맺은 성약은 의로운 성약이니라.
- 7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 Mosiah 5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king Benjamin had thus spoken to his people, he sent among them, desiring to know of his people if they believed the words which he had spoken unto them.

And they all cried with one voice, saying: Yea, we believe all the words which thou hast spoken unto us; and also, we know of their surety and truth, because of the Spirit of the Lord Omnipotent, which has wrought a mighty change in us, or in our hearts, that we have no more disposition to do evil, but to do good continually.

And we, ourselves, also, through the infinite goodness of God, and the manifestations of his Spirit, have great views of that which is to come; and were it expedient, we could prophesy of all things.

And it is the faith which we have had on the things which our king has spoken unto us that has brought us to this great knowledge, whereby we do rejoice with such exceedingly great joy.

And we are willing to enter into a covenant with our God to do his will, and to be obedient to his commandments in all things that he shall command us, all the remainder of our days, that we may not bring upon ourselves a never-ending torment, as has been spoken by the angel, that we may not drink out of the cup of the wrath of God.

And now, these are the words which king Benjamin desired of them; and therefore he said unto them: Ye have spoken the words that I desired; and the covenant which ye have made is a righteous covenant.

And now, because of the covenant which ye have made ye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Christ, his sons, and his daughters; for behold, this day he hath spiritually begotten you; for ye say that your hearts are changed through faith on his name; therefore, ye are born of him and have become his sons and his daughters.

8 그리고 이 머리 아래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머리가 없느니라.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곧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9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 이는 그가 어떤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우는지 알 것임이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이니라.

1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야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왼편에 있게 되느니라.

11 그리고 나는 이것이 범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이름임을 너희가 또한 기억하기 바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범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 이름이 너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지 않게 하고, 너희를 부를 음성과 또한 그가 너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 바라노라.

13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14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이웃에게 속한 나귀를 취하여 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이 자기 떼 가운데서 먹는 것조차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몰아 내며 내어 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 가운데서 참으로 그러하리라.

And under this head ye are made free, and there is no other head whereby ye can be made free.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whereby salvation cometh;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take upon you the name of Christ, all you that have entered into the covenant with God that ye should be obedient unto the end of your liv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doeth this shall be found at the right hand of God, for he shall know the name by which he is called; for he shall be called by the name of Christ.

And now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not take upon him the name of Christ must be called by some other name; therefore, he findeth himself on the left hand of God.

And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also, that this is the name that I said I should give unto you that never should be blotted out, except it be through transgression; therefore, take heed that ye do not transgress, that the name be not blotted out of your hearts.

I say unto you,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o retain the name written always in your hearts, that ye are not found on the left hand of God, but that ye hear and know the voice by which ye shall be called, and also, the name by which he shall call you.

For how knoweth a man the master whom he has not served, and who is a stranger unto him, and is far from the thoughts and intents of his heart?

And again, doth a man take an ass which belongeth to his neighbor, and keep him? I say unto you, Nay; he will not even suffer that he shall feed among his flocks, but will drive him away, and cast him out. I say unto you, that even so shall it be among you if ye know not the name by which ye are called.

15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 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 치 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 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하나님이 되시 는 이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자비를 통하여 영 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 멘.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be steadfast and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good works, that Christ, the Lord God Omnipotent, may seal you his, that you may be brought to heaven, that ye may have everlasting salvation and eternal life, through the wisdom, and power, and justice, and mercy of him who created all things, in heaven and in earth, who is God above all. Amen.

## 모사이야서 6

- 1 그리고 이제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모든 자의 이름을 취해 둬야 마땅하다 생각하였느니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 3 그리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의 아들 모사이야를 성별하여 그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와 왕이 되게 하고, 그에게 나라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기고, 또한 제사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가르치게 하여, 그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을 일깨워 그들이 맺은 맹세를 기억하게 하도록 한 후, 무리를 보내니, 그들이 각자 그 가족대로 그들의 본집으로 돌아갔더라.
- 4 이에 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그가 그 나이 삼십 세 때 다스리기 시작하니,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도합 약 사백칠십육 년이 되었더라.
- 5 그리고 베냐민 왕이 삼 년을 살고 죽으니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를 준행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그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의 명령을 지켰더라.
- 7 또 모사이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갈아, 그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며, 범사에 그의 부친이 행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였더라. 이에 삼 년 동안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으니라.

## Mosiah 6

And now, king Benjamin thought it was expedient, after having finished speaking to the people, that he should take the names of all those who had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God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not one soul, except it were little children, but who had entered into the covenant and had taken upon them the name of Christ.

And again, it came to pass that when king Benjamin had made an end of all these things, and had consecrated his son Mosiah to be a ruler and a king over his people, and had given him all the charges concerning the kingdom, and also had appointed priests to teach the people, that thereby they might hear and know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o stir them up in remembrance of the oath which they had made, he dismissed the multitude, and they returned, every on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to their own houses.

And Mosiah began to reign in his father's stead. And he began to reign in the thirtieth year of his age, making in the whole, about four hundred and seventy-six years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And king Benjamin lived three years and he died.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Mosiah did walk in the ways of the Lord, and did observe his judgments and his statutes, and did keep his commandments in all things whatsoever he commanded him.

And king Mosiah did cause his people that they should till the earth. And he also, himself, did till the earth, that thereby he might not become burdensome to his people, that he might do according to that which his father had done in all things. And there was no contention among all his people for the space of three years.



## 모사이야서 7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삼년 동안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고 나서, 그는 리하이-니파이 땅 곧 리하이-니파이 성에 거하고자 올라간 백성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제이라헤물라 땅을 떠난 때로부터 그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강침함으로 왕을 피곤하게 하였더라.
- 2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그들의 용사 중 열여섯에게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그들의 형제에 관하여 알아 볼 것을 허락하나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올라가려고 출발하매, 암몬이라 하는 자가 함께 하였으니, 그는 힘이 세고 강한 자요, 제이라헤물라의 후손이라. 그는 또한 그들의 지도자더라.
- 4 그런데 이제 그들이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여행해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날을 방황하였으니, 곧 사십 일을 참으로 그들이 방황하였더라.
- 5 이에 그들이 사십 일을 방황하고 나서, 샤일롬 땅의 북방에 있는 한 작은 산에 이르러, 거기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 6 그리고 암몬이 그 형제 중 셋을 취하니, 그들의 이름은 아멜레카이, 힐렘, 그리고 험이라. 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내려갔더라.
- 7 그리고 보라, 그들이 니파이 땅과 샤일롬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을 만나매, 그들이 왕의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사로잡히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니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틀을 옥에 있던 후 그들이 다시 왕 앞에 끌려 나와,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서서 그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허락함을 아니 그보다는 명함을 받았느니라.

## Mosiah 7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king Mosiah had had continual peace for the space of three years, he was desirous to know concerning the people who went up to dwell in the land of Lehi-Nephi, or in the city of Lehi-Nephi; for his people had heard nothing from them from the time they left the land of Zarahemla; therefore, they wearied him with their teas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Mosiah granted that sixteen of their strong men might go up to the land of Lehi-Nephi, to inquire concerning their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y started to go up, having with them one Ammon, he being a strong and mighty man, and a descendant of Zarahemla; and he was also their leader.

And now, they knew not the course they should travel in the wilderness to go up to the land of Lehi-Nephi; therefore they wandered many days in the wilderness, even forty days did they wander.

And when they had wandered forty days they came to a hill, which is north of the land of Shilom, and there they pitched their tents.

And Ammon took three of his brethren, and their names were Amaleki, Helem, and Hem, and they went down into the land of Nephi.

And behold, they met the king of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Nephi, and in the land of Shilom; and they were surrounded by the king's guard, and were taken, and were bound, and were committed to prison.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had been in prison two days they were again brought before the king, and their bands were loosed; and they stood before the king, and were permitted, or rather commanded, that they should answer the questions which he should ask them.

- 9 이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노아의 아들 립하이니, 노아는 지니프의 아들이었고, 지니프는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 온 자요, 백성의 소리에 의해 왕이 되었던 자니라.
- 10 또 이제 나는 내가 친히 나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올 만큼 그처럼 담대하였는지 그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 11 또 이제 너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이 이유로 내가 너희를 살려 두었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너희를 죽이게 하였으리라. 너희의 말함을 허락하노라 하는지라.
- 12 이에 이제 암몬이 말하도록 허락되었음을 보고는, 나아가 왕 앞에 절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말하되, 왕이시여, 내가 아직 살아 있고 말함이 허락되었음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감사하오며, 내가 담대히 말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 13 이는 만일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 줄을 두르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였을 줄로 내가 확신함이니, 나는 암몬이요 제이라헤믈라의 후손으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인도해 올린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왔음이니이다 하니라.
- 1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립하이기가 암몬의 말을 듣고 난 후, 심히 기뻐하여 이르되, 이제야 내가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던 나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명백히 알았도다. 이에 이제 내가 기뻐할 것이요, 내일은 내 백성들도 기뻐하게 하리 로다.
- 15 이는 보라,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부과 받고 있음이라. 이제 보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우리의 속박에서, 곧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져 내리니,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리라. 이는 우리가 니파이인들의 종이 됨이 레이맨인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이라 하니라.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I am Limhi, the son of Noah, who was the son of Zeniff, who came up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to inherit this land, which was the land of their fathers, who was made a king by the voice of the people.

And now, I desire to know the cause whereby ye were so bold as to come near the walls of the city, when I, myself, was with my guards without the gate?

And now, for this cause have I suffered that ye should be preserved, that I might inquire of you, or else I should have caused that my guards should have put you to death. Ye are permitted to speak.

And now, when Ammon saw that he was permitted to speak, he went forth and bowed himself before the king; and rising again he said: O king, I am very thankful before God this day that I am yet alive, and am permitted to speak; and I will endeavor to speak with boldness;

For I am assured that if ye had known me ye would not have suffered that I should have worn these bands. For I am Ammon, and am a descendant of Zarahemla, and have come up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to inquire concerning our brethren, whom Zeniff brought up out of that lan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Limhi had heard the words of Ammon, he was exceedingly glad, and said: Now, I know of a surety that my brethren who were in the land of Zarahemla are yet alive. And now, I will rejoice; and on the morrow I will cause that my people shall rejoice also.

For behold, we are in bondage to the Lamanites, and are taxed with a tax which is grievous to be borne. And now, behold, our brethren will deliver us out of our bondage, or out of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we will be their slaves; for it is better that we be slaves to the Nephites than to pay tribute to the king of the Lamanites.

16 이에 이제 림하이 왕이 그의 호위병들을 명하여 더 이상 암몬이나 그의 형제들을 결박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샤일롬 북방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가서, 그들의 형제들을 성으로 인도해 들이게 하여, 그로써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니, 이는 그들이 많은 일을 당하였음이라.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당하였더라.

17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이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로써 그들이 성전으로 함께 모여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듣게 하였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가 이같이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오 너희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고 위로를 받으라. 이는 보라, 헛되었던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원수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할 때가 가까워, 곧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 나는 아직 해 볼만한 한 가지 효과적인 노력이 남아 있다고 믿노라.

19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위를 걸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사 그들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이외에도 실로 그는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느니라.

20 그리고 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실로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전해 주셨거니와, 보라, 그가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해 들이셨음은 우리의 죄악과 가증함의 연고니라.

21 그리고 너희 모두가 오늘 증인인 바, 이 백성들 위에 왕이 되었던 지니프는 그의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열의가 지나쳤고, 그리하여 레이맨 왕의 간사함과 간교함에 속임을 당하였나니, 저는 지니프 왕과 조약을 맺고, 그 땅의 일부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과 샤일롬 성과 그 주변 땅의 영토를 그의 손에 내어 주었느니라—

And now, king Limhi commanded his guards that they should no more bind Ammon nor his brethren, but caused that they should go to the hill which was north of Shilom, and bring their brethren into the city, that thereby they might eat, and drink, and rest themselves from the labors of their journey; for they had suffered many things; they had suffered hunger, thirst, and fatigue.

And now, it came to pass on the morrow that king Limhi sent a proclamation among all his people, that thereby they might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the temple, to hear the words which he should speak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that he spake unto them in this wise, saying: O ye, my people, lift up your heads and be comforted; for behold, the time is at hand, or is not far distant, when we shall no longer be in subjection to our enemies, notwithstanding our many strugglings, which have been in vain; yet I trust there remaineth an effectual struggle to be made.

Therefore, lift up your heads, and rejoice, and put your trust in God, in that God who was the God of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so, that God who brought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caused that they should walk through the Red Sea on dry ground, and fed them with manna that they might not perish in the wilderness; and many more things did he do for them.

And again, that same God has brought our fathers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has kept and preserved his people even until now; and behold, it is because of our iniquities and abominations that he has brought us into bondage.

And ye all are witnesses this day, that Zeniff, who was made king over this people, he being overzealous to inherit the land of his fathers, therefore being deceive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king Laman, who having entered into a treaty with king Zeniff, and having yielded up into his hands the possessions of a part of the land, or even the city of Lehi-Nephi, and the city of Shilom; and the land round about—

22 그러나 저가 이를 행한 것은, 다 이 백성을 복종 곧 속박 당하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함이 없느니라. 또 보라,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우리의 옥수수와 우리의 보리와 참으로 우리의 온갖 곡식 전부의 절반과 우리의 양 떼와 우리의 소 떼 증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레이맨인의 왕에게 공세로 바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참으로 레이맨인의 왕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니, 곧 우리의 생명까지라.

23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짊어지기에 고통스럽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이 혹심하지 아니하냐? 이제 보라,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얼마나 크냐.

24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참으로 크니라. 이는 보라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피가 헛되이 흘린 바 되었는고, 그것도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되었느니라.

25 이는 만일 이 백성이 범법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주께서 이 큰 악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 결국은 그들끼리 피를 흘렸느니라.

26 그리고 주의 한 선지자를 그들이 죽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사악함과 가증함을 그들에게 고하고, 장차 임할 많은 일, 곧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그들이 죽였도다.

27 또 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만물의 아버지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리니, 그것은 사람이 태초에 그를 따라 창조된 그 형상이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바꾸어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살과 피를 입으시고 지면에 나가시리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And all this he did, for the sole purpose of bringing this people into subjection or into bondage. And behold, we at this time do pay tribute to the king of the Lamanites, to the amount of one half of our corn, and our barley, and even all our grain of every kind, and one half of the increase of our flocks and our herds; and even one half of all we have or possess the king of the Lamanites doth exact of us, or our lives.

And now, is not this grievous to be borne? And is not this, our affliction, great? Now behold, how great reason we have to mourn.

Yea, I say unto you, great are the reasons which we have to mourn; for behold how many of our brethren have been slain, and their blood has been spilt in vain, and all because of iniquity.

For if this people had not fallen into transgression the Lord would not have suffered that this great evil should come upon them. But behold, they would not hearken unto his words; but there arose contentions among them, even so much that they did shed blood among themselves.

And a prophet of the Lord have they slain; yea, a chosen man of God, who told them of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prophesied of many things which are to come, yea, even the coming of Christ.

And because he said unto them that Christ was the God, the Father of all things, and said that he should take upon him the image of man, and it should be the image after which man was created in the beginning; or in other words, he said that man w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and that God should come dow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take upon him flesh and blood, and go forth upon the face of the earth—

- 28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들이 그를 죽였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초래하게 한 일을 그들이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속박당하여 있는 것과 또 그들이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입고 있는 것을 누가 놀라워하겠느냐?
- 29 이는 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백성이 범법하는 날에 나는 그들을 구제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아 그들로 행통하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행위가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리라 하셨음이라.
- 30 그리고 또 그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만일 더러움을 뿌릴진대 그들은 회리바람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겨를 거두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독이라.
- 31 또 그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만일 더러움을 뿌릴진대 그들은 즉시로 멸망을 가져오는 동풍을 거두게 되리라 하셨음이라.
- 32 또 이제 볼지어다,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 너희가 치심을 입으며 고난을 받는도다.
- 3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좇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시리라.

And now, because he said this, they did put him to death; and many more things did they do which brought down the wrath of God upon them. Therefore, who wondereth that they are in bondage, and that they are smitten with sore afflictions?

For behold, the Lord hath said: I will not succor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transgression; but I will hedge up their ways that they prosper not; and their doings shall be as a stumbling block before them.

And again, he saith: If my people shall sow filthiness they shall reap the chaff thereof in the whirlwind; and the effect thereof is poison.

And again he saith: If my people shall sow filthiness they shall reap the east wind, which bringeth immediate destruction.

And now, behold, the promise of the Lord is fulfilled, and ye are smitten and afflicted.

But if ye will turn to the Lord with full purpose of heart, and put your trust in him, and serve him with all diligence of mind, if ye do this, he will, according to his own will and pleasure, deliver you out of bondage.

## 모사이야서 8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립하이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이는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그 가운데 조금만을 내가 이 책에 기록하였음이라, 그의 백성에게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 관한 것을 모두 고하였더라.
- 2 또 암몬으로 하여금 무리 앞에 일어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올라간 때로부터 그 자신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까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게 하니라.
- 3 이에 그는 또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말씀도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이를 립하이 왕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깨닫게 하였더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모두를 행하고 난 후, 립하이 왕이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의 백성의 기록 곧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의 기록을 담고 있는 판들을 암몬 앞에 가져오게 하여, 그로 그것을 읽게 하였느니라.
- 6 이제 암몬이 그 기록을 읽고 나자마자, 왕이 그에게 물어 혹 그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매, 암몬이 그에게 고하기를 할 수 없다 하였더라.
- 7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의 고난으로 인해 비통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 마흔셋으로 하여금 광야로 여행을 떠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도록 하여,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 줄 것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호소하고자 하였느니라.

## Mosiah 8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king Limhi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o his people, for he spake many things unto them and only a few of them have I written in this book, he told his people all the things concerning their brethren who were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he caused that Ammon should stand up before the multitude, and rehearse unto them all that had happened unto their brethren from the time that Zeniff went up out of the land even until the time that he himself came up out of the land.

And he also rehearsed unto them the last words which king Benjamin had taught them, and explained them to the people of king Limhi, so that they might understand all the words which he spake.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 had done all this, that king Limhi dismissed the multitude, and caused that they should return every one unto his own hous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used that the plates which contained the record of his people from the time that they left the land of Zarahemla, should be brought before Ammon, that he might read them.

Now, as soon as Ammon had read the record, the king inquired of him to know if he could interpret languages, and Ammon told him that he could not.

And the king said unto him: Being grieved for the afflictions of my people, I caused that forty and three of my people should take a journey into the wilderness, that thereby they might find the land of Zarahemla, that we might appeal unto our brethren to deliver us out of bondage.

- 8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럼에도 그들은 부지런하였으나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많은 물들 가운데 있는 한 땅을 지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여 있고, 또한 온갖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는 한 땅을 발견하였나니, 곧 이스라엘의 만군과도 같은 수많은 백성이 살았던 한 땅을 발견하였더라.
- 9 그리고 그들이 말한 바가 참이라는 증거로서 그들은 새긴 것이 가득 차 있는 스물넉 장의 판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더라.
- 10 그리고 보라, 또한 그들이 가슴판도 여러 개 가져왔으니, 그것들은 크고 놋과 구리로 되어 있으며 아주 온전하니라.
- 11 그리고 또 그들이 검들을 가져왔는데, 그 손잡이는 없어지고, 그 날은 녹으로 부식되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 판에 있는 언어 혹은 새겨진 것들을 능히 해석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번역할 수 있느냐 한 것이라.
- 12 이에 내가 다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누구 번역할 수 있는 자를 알고 있느냐? 이는 내가 이 기록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음이니, 아마도 이 기록은 우리에게 이 기록의 출처가 되는 멸망당한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해 알려 줄 것이요, 아니면 아마도 이 기록은 바로 이 멸망당한 백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임이라. 또 나는 그들이 멸망당한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하는지라.
- 13 이제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시여,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이는 그가 고대의 모든 기록을 보고 번역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해석기라 하며, 명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것들을 들여다 볼 수 없음은, 보려 해서는 안될 것을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함이요. 누구든지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명하심을 받은 이, 그는 선견자라 일컬어지나이다.

And they were lost in the wilderness for the space of many days, yet they were diligent, and found not the land of Zarahemla but returned to this land, having traveled in a land among many waters, having discovered a land which was covered with bones of men, and of beasts, and was also covered with ruins of buildings of every kind, having discovered a land which had been peopled with a people who were as numerous as the hosts of Israel.

And for a testimony that the things that they had said are true they have brought twenty-four plates which are filled with engravings, and they are of pure gold.

And behold, also, they have brought breastplates, which are large, and they are of brass and of copper, and are perfectly sound.

And again, they have brought swords, the hilts thereof have perished, and the blades thereof were cankered with rust; and there is no one in the land that is able to interpret the language or the engravings that are on the plates. Therefore I said unto thee: Canst thou translate?

And I say unto thee again: Knowest thou of any one that can translate? For I am desirous that these records should be translated into our language; for, perhaps, they will give us a knowledge of a remnant of the people who have been destroyed, from whence these records came; or, perhaps, they will give us a knowledge of this very people who have been destroyed; and I am desirous to know the cause of their destruction.

Now Ammon said unto him: I can assuredly tell thee, O king, of a man that can translate the records; for he has wherewith that he can look, and translate all records that are of ancient date; and it is a gift from God. And the things are called interpreters, and no man can look in them except he be commanded, lest he should look for that he ought not and he should perish. And whosoever is commanded to look in them, the same is called seer.

14 또 보소서,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높은 은사를 가진 이니이다 하더라.

15 이에 왕이 이르되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하는지라.

16 또 암몬이 이르되 선견자는 계시자요 또한 선지자니, 아무도 지닐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나이다.

17 그러나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나이다.

18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되나이다 하니라.

19 이에 이제 암몬이 이 말하기를 마치매 왕이 심히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르되, 의심할 여지없이 큰 비밀이 이 판 안에 들어 있으며, 해석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든 비밀을 밝혀 줄 목적으로 예비되었도다.

20 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기이하며, 그는 그의 백성을 어찌 그리 오래 참으시시고, 그뿐 아니라 사람의 자녀들의 이해력이 어찌 그리 맹목적이며 우둔한고, 이는 그들이 지혜를 찾으려 아니하며 지혜가 그들을 다스림을 바라지도 아니함이로다!

21 참으로 그들은 목자에게서 도망하여 흩어지고 숲의 짐승들에게 쫓기며 삼김을 당하는 들양 떼 같도다.

And behold, the king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land of Zarahemla is the man that is commanded to do these things, and who has this high gift from God.

And the king said that a seer is greater than a prophet.

And Ammon said that a seer is a revelator and a prophet also; and a gift which is greater can no man have, except he should possess the power of God, which no man can; yet a man may have great power given him from God.

But a seer can know of things which are past, and also of things which are to come, and by them shall all things be revealed, or, rather, shall secret things be made manifest, and hidden things shall come to light, and things which are not known shall be made known by them, and also things shall be made known by them which otherwise could not be known.

Thus God has provided a means that man, through faith, might work mighty miracles; therefore he becometh a great benefit to his fellow beings.

And now, when Ammon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hese words the king rejoiced exceedingly, and gave thanks to God, saying: Doubtless a great mystery is contained within these plates, and these interpreters were doubtles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unfolding all such mysteries to the children of men.

O how marvelous are the works of the Lord, and how long doth he suffer with his people; yea, and how blind and impenetrable are the understandings of the children of men; for they will not seek wisdom, neither do they desire that she should rule over them!

Yea, they are as a wild flock which fleeth from the shepherd, and scattereth, and are driven, and are devoured by the beasts of the forest.



지니프의 기록—그의 백성의 기사니,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게 될 때까지라.

## 모사이야서 9

- 1 나 지니프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파이 땅 곧 우리 조상들의 첫번 기업의 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더니, 레이맨인들 가운데 정탐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 군대가 그들을 습격하여 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력을 탐지하게 되었느니라—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선한 바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느니라.
- 2 그리하여 나는 광야에서 나의 형제들과 다투었나니, 이는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그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는 엄하고 피에 목마른 사람이라 내가 죽임을 당하도록 명하였으나,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나는 구출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워서, 우리 군대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절되기에 이르렀음이라. 이에 우리, 곧 우리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해주었느니라.
- 3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땅을 상속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그 땅을 소유하러 올라가기 원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였음이라.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방황한 후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우리의 장막을 쳤나니, 이는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까운 곳이었다.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다시 나의 사람 넷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로 들어가 왕의 의향을 알고 혹 내가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평안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느니라.

*THE RECORD OF ZENIFF—An account of his people, from the time they left the land of Zarahemla until the time that they were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the Lamanites.*

## Mosiah 9

I, Zeniff, having been taught in all the language of the Nephites, and having had a knowledge of the land of Nephi, or of the land of our fathers' first inheritance, and having been sent as a spy among the Lamanites that I might spy out their forces, that our army might come upon them and destroy them—but when I saw that which was good among them I was desirous that they should not be destroyed.

Therefore, I contended with my brethren in the wilderness, for I would that our ruler should make a treaty with them; but he being an austere and a blood-thirsty man commanded that I should be slain; but I was rescued by the shedding of much blood; for father fought against father, and brother against brother, until the greater number of our army was destroyed in the wilderness; and we returned, those of us that were spared, to the land of Zarahemla, to relate that tale to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yet, I being over-zealous to inherit the land of our fathers, collected as many as were desirous to go up to possess the land, and started again on our journey into the wilderness to go up to the land; but we were smitten with famine and sore afflictions; for we were slow to remember the Lord our God.

Nevertheless, after many days' wandering in the wilderness we pitched our tents in the place where our brethren were slain, which was near to the land of our fathers.

And it came to pass that I went again with four of my men into the city, in unto the king, that I might know of the disposition of the king, and that I might know if I might go in with my people and possess the land in peace.

- 6 이에 내가 왕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나와 언약하여 내가 리하이-니파이 땅과 샤일롬 땅을 소유하도록 하였느니라.
- 7 그리고 그가 또한 명하여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매, 나와 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느니라.
- 8 이에 우리가 건물들을 지으며, 성의 벽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과 샤일롬 성의 벽을 중수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9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온갖 종자를 가지고, 곧 옥수수과 밀과 보리의 종자를 가지고 또 니애스를 가지고 또 시음을 가지고 또 온갖 실과의 종자를 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나니, 이에 우리는 그 땅에서 번성하며 번영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10 이제 레이맨 왕이 그 땅을 내어 주어 우리로 그것을 소유하게 한 것은, 나의 백성을 속박으로 끌어들이려는, 그의 간사함과 간교함이었더라.
- 11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십이 년 동안 그 땅에 거한 후에 레이맨 왕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으니, 어떻게라도 나의 백성이 강하여져, 그들이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속박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음이라.
- 12 이제 그들은 게으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속박으로 끌어들이기 원했던 것은, 우리 손의 수고로 실컷 배불리려 하며, 참으로 우리 들판의 양 떼로 성찬을 벌이고자 함이었더라.
- 13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왕이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나의 백성과 다투게 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느니라.
- 14 이는 니파이 땅에서의 나의 치세 제십삼년에, 멀리 샤일롬 땅 남쪽에서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양 떼를 먹이며 그것들에게 물을 주며 그들의 땅을 갈고 있을 때, 수많은 레이맨인의 한 무리가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죽이며, 그들의 양 떼와 그들 밭의 옥수수를 빼앗기 시작하였음이라.
- 15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붙잡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니파이 성으로 도망하여, 나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느니라.

And I went in unto the king, and he covenanted with me that I might possess the land of Lehi-Nephi, and the land of Shilom.

And he also commanded that his people should depart out of the land, and I and my people went into the land that we might possess it.

And we began to build buildings, and to repair the walls of the city, yea, even the walls of the city of Lehi-Nephi, and the city of Shilom.

And we began to till the ground, yea, even with all manner of seeds, with seeds of corn, and of wheat, and of barley, and with neas, and with sheum, and with seeds of all manner of fruits; and we did begin to multiply and prosper in the land.

Now it was the cunning and the craftiness of king Laman, to bring my people into bondage, that he yielded up the land that we might possess it.

T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after we had dwelt in the land for the space of twelve years that king Laman began to grow uneasy, lest by any means my people should wax strong in the land, and that they could not overpower them and bring them into bondage.

Now they were a lazy and an idolatrous people; therefore they were desirous to bring us into bondage, that they might glut themselves with the labors of our hands; yea, that they might feast themselves upon the flocks of our fields.

T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king Laman began to stir up his people that they should contend with my people; therefore there began to be wars and contentions in the land.

For, in the thirteenth year of my reign in the land of Nephi, away on the south of the land of Shilom, when my people were watering and feeding their flocks, and tilling their lands, a numerous host of Lamanites came upon them and began to slay them, and to take off their flocks, and the corn of their fields.

Yea,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led, all that were not overtaken, even into the city of Nephi, and did call upon me for protection.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활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곤봉과 물매와 우리가 고안해 낼 수 있  
었던 온갖 무기로 나의 백성들을 무장시켰으며,  
그러고 나서 나와 나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을 대  
적하여 싸우러 나아갔더라.

17 참으로 주의 힘을 입고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대  
적하여 싸우러 나아갔으니, 이는 나와 나의 백성  
이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가 우리를 우리 원수  
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 우리 조상들을 건지신 일을  
기억하였음이니라.

18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  
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힘을 입  
고 나아갔나니, 참으로 우리는 레이맨인들을 대적  
하여 나아가,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에 삼천사십  
삼 명을 죽이되, 우리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  
내기까지 그들을 죽였느니라.

19 또 나 자신 친히 내 손으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묻는 것을 도왔느니라. 그리고 보라, 우리의 형제  
이백칠십구 명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는 크게 슬  
퍼하고 애통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arm them with bows,  
and with arrows,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with clubs, and with slings, and with all manner  
of weapons which we could invent, and I and my  
people did go forth against the Lamanites to battle.

Yea, in the strength of the Lord did we go forth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for I and my people did  
cry mightily to the Lord that he would deliver us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for we were awakened  
to a remembrance of the deliverance of our fathers.

And God did hear our cries and did answer our  
prayers; and we did go forth in his might; yea, we did  
go forth against the Lamanites, and in one day and a  
night we did slay three thousand and forty-three; we  
did slay them even until we had driven them out of  
our land.

And I, myself, with mine own hands, did help to  
bury their dead. And behold, to our great sorrow and  
lamentation, two hundred and seventy-nine of our  
brethren were slain.

## 모사이야서 10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왕국을 확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다시 평안히 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여, 그로써 레이맨인들이 나의 백성을 치러 다시 올라올 때를 대비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한 무기를 갖고자 하였느니라.
- 2 내가 또 이 땅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 레이맨인들이 불시에 다시 우리를 습격하여 와서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같이 나는 나의 백성과 나의 양 떼를 지켜, 그들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곧 이십이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누렸느니라.
- 4 또 나는 남자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온갖 곡식과 각종 온갖 과일을 재배하게 하였느니라.
- 5 나는 또 여자들로 하여금 길쌈을 하며, 수고하며, 일하며, 온갖 세마포와, 또한 각종 옷감을 짜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있게 하였나니, 이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하였고—이리하여 우리는 이십이 년 동안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느니라.
-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나의 백성을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오기 시작하였느니라.
- 7 그러나 나는 그들의 준비를 알아내어, 그들에게 대하여 방비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습격하여 멸하지 못하게 하고자, 셜론 땅 주위에 나의 정탐들을 내보내 두었었느니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샤일롬 땅 북방으로 올라왔으니, 곧 활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돌과 물매로 무장을 한 자들이라. 그들은 머리를 밀어 그 머리로 벗어지게 하였으며,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더라.

## Mosiah 10

And it came to pass that we again began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we again began to possess the land in peace. And I caused that there should be weapons of war made of every kind, that thereby I might have weapons for my people against the time the Lamanites should come up again to war against my people.

And I set guards round about the land, that the Lamanites might not come upon us again unawares and destroy us; and thus I did guard my people and my flocks, and keep them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inherit the land of our fathers for many years, yea, for the space of twenty and two years.

And I did cause that the men should till the ground, and raise all manner of grain and all manner of fruit of every kind.

And I did cause that the women should spin, and toil, and work, and work all manner of fine linen, yea, and cloth of every kind, that we might clothe our nakedness; and thus we did prosper in the land—thus we did have continual peace in the land for the space of twenty and two years.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Laman died, and his son began to reign in his stead. And he began to stir his people up in rebellion against my people; therefore they began to prepare for war, and to come up to battle against my people.

But I had sent my spies out round about the land of Shemlon, that I might discover their preparations, that I might guard against them, that they might not come upon my people and destro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up upon the north of the land of Shilom, with their numerous hosts, men armed with bows, and with arrows, and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with stones, and with slings; and they had their heads shaved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were girded with a leathern girdle about their loins.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내 백성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광야에 숨게 하였고, 내가 또한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의 모든 늙은이들과 또한 능히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하되, 나는 그들을 각자 그 나이를 따라 그들의 대열에 배치하였느니라.
-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고, 나, 곧 나도 내 늙은 나이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참으로 주의 힘을 입고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 11 이제 레이맨인들은 주에 관하여서나, 주의 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하였더라.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강한 백성이었느니라.
- 12 그들은 거칠고, 흉포하며, 피에 목마른 백성으로, 그들 조상의 전통을 믿었나니, 그 전통은 이것이라—곧 믿기를 그들은 그들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났으며, 또 그들은 광야에서 그 형제들에게 불의를 당하였으며, 또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도 불의를 당하였으며,
- 13 그리고 또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 그들은 그들의 첫번 기업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불의를 당하였다 하는 것이니, 이는 다 니파이가 주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더 충실하였던 연고라—그러므로 그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셨고, 그는 광야에서 그들 여행의 인도자 노릇을 하였음이니라.
- 14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한 연고요, 또한 그들은 물 위에서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연고였음이라.
- 15 그리고 또 그들은 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손에서 백성 다스림을 빼앗았다 하는 연고라, 이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caused that the women and children of my people should be hid in the wilderness; and I also caused that all my old men that could bear arms, and also all my young men that were able to bear arms,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go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and I did place them in their ranks, every man according to his ag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go up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and I, even I, in my old age, did go up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go up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o battle.

Now, the Lamanites knew nothing concerning the Lord, nor the strength of the Lord, therefore they depended upon their own strength. Yet they were a strong people, as to the strength of men.

They were a wild, and ferocious, and a blood-thirsty people, believing in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which is this—Believing that they were driven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because of the iniquities of their fathers, and that they were wronged in the wilderness by their brethren, and they were also wronged while crossing the sea;

And again, that they were wronged while in the land of their first inheritance, after they had crossed the sea, and all this because that Nephi was mor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therefore he was favored of the Lord, for the Lord heard his prayers and answered them, and he took the lead of their journey in the wilderness.

And his brethren were wroth with him because they understood not the dealings of the Lord; they were also wroth with him upon the waters because they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the Lord.

And again, they were wroth with him when they had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because they said that he had taken the ruling of the people out of their hands; and they sought to kill him.

16 그리고 또 그들은 그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광야로 떠나며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들을 취한 까닭에 그에게 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하였음이라.

17 이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이의 자손들에 대한 영원한 증오를 가지고 있느니라.

18 바로 이 까닭에 레이맨 왕은 그의 간사함과 간교한 거짓과 그럴듯한 약속으로 나를 속여, 내가 나의 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올려 들이도록 하였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였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여러 해를 이 땅에서 고생해 왔느니라.

19 이에 이제 나 지니프는 레이맨인들에 관하여 나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 주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주를 신뢰하고, 그들의 힘을 다해 가서 싸우도록 격려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싸웠느니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들을 다시 몰아 내었으며, 그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니, 그 수가 심히 많아 우리가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으며, 나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양 떼를 치며, 그들의 땅을 갈기 시작하였느니라.

22 그리고 이제 내가 늙었으므로, 나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And again, they were wroth with him because he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s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on the plates of brass, for they said that he robbed them.

And thus they have taught their children that they should hate them, and that they should murder them, and that they should rob and plunder them, and do all they could to destroy them; therefore they have an eternal hatred towards the children of Nephi.

For this very cause has king Laman, by his cunning, and lying craftiness, and his fair promises, deceived me, that I have brought this my people up into this land, that they may destroy them; yea, and we have suffered these many years in the land.

And now I, Zeniff, after having told all these things unto my people concerning the Lamanites, I did stimulate them to go to battle with their might, putting their trust in the Lord; therefore, we did contend with them, face to fac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drive them again out of our land; and we slew them with a great slaughter, even so many that we did not numb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e returned again to our own land, and my people again began to tend their flocks, and to till their ground.

And now I, being old, did confer the kingdom upon one of my sons; therefore, I say no more. And may the Lord bless my people. Amen.

## 모사이야서 11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지니프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노아에게 나라를 넘겨준지라, 그러므로 노아가 그 부친을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그 부친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 2 이는 보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욕망을 좇아 행하였음이라. 또 그는 많은 처와 첩을 두었고, 또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며, 주의 보시기에 가증한 바를 행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였더라.
- 3 또 그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부과하였으니,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오분의 일과 그들의 지프와 그들의 구리와 그들의 놋과 그들의 철의 오분의 일과 그들의 가축의 오분의 일과 또한 그들의 모든 곡물의 오분의 일이라.
- 4 그리고 이 모두를 실로 그가 취하여 자기와 자기의 처들과 자기의 첩들과 또한 자기의 제사들과 그들의 처들과 그들의 첩들을 부양하였나니, 이같이 그가 나라의 정사를 바꾸었더라.
- 5 이는 그가 그의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던 모든 제사들을 폐하고, 그들 대신에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진 자들 같은 새로운 자들을 성별하였음이라.
- 6 참으로 이와 같이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이, 노아 왕이 그의 백성에게 지운 세금으로 지원되었나니, 이리하여 실로 백성들은 죄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히 일을 많이 하였더라.
- 7 그뿐 아니라 그들도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왕과 제사들의 헛되고 아첨하는 말에 속은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아첨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음이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우아하고 넓은 건물을 많이 짓고, 나무와 온갖 귀한 것과,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지프와 구리의 세공으로 그것들을 꾸몄으며,

## Mosiah 11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Zeniff conferred the kingdom upon Noah, one of his sons; therefore Noah began to reign in his stead; and he did not walk in the ways of his father.

For behold, he did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he did walk after the desires of his own heart. And he had many wives and concubines. And he did cause his people to commit sin, and do that which was abominable in the sight of the Lord. Yea, and they did commit whoredoms and all manner of wickedness.

And he laid a tax of one fifth part of all they possessed, a fifth part of their gold and of their silver, and a fifth part of their ziff, and of their copper, and of their brass and their iron; and a fifth part of their fatlings; and also a fifth part of all their grain.

And all this did he take to support himself, and his wives and his concubines; and also his priests, and their wives and their concubines; thus he had changed the affairs of the kingdom.

For he put down all the priests that had been consecrated by his father, and consecrated new ones in their stead, such as wer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Yea, and thus they were supported in their laziness, and in their idolatry, and in their whoredoms, by the taxes which king Noah had put upon his people; thus did the people labor exceedingly to support iniquity.

Yea, and they also became idolatrous, because they were deceived by the vain and flattering words of the king and priests; for they did speak flattering things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Noah built many elegant and spacious buildings; and he ornamented them with fine work of wood, and of all manner of precious things,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iron, and of brass, and of ziff, and of copper;

- 9 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를 위하여 넓은 궁궐을 짓고, 그 가운데 보좌를 만들었으니 이 모두는 좋은 목재로 되었고 금과 은과 귀한 것으로 꾸몄더라.
- 10 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의 장인들로 하여금 성전 경내에서, 좋은 목재와, 구리와, 놋으로 온갖 세공 일을 하게 하였더라.
- 11 그리고 대제사들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좌석들은, 다른 모든 좌석들보다 위에 있었는데 그가 순금으로 꾸몄고, 또 그것들 앞에 흉벽을 쌓게 하여, 그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팔을 그 위에 편히 두도록 하였더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성전 가까이에 망대를 하나 세웠으니, 참으로 대단히 높은 망대라. 어찌 높은지 그가 그 꼭대기에 서서 샤일롬 땅과 또한 레이맨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셸론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주변의 모든 땅을 살펴볼 수도 있었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샤일롬이라 하는 땅에 많은 건물을 짓게 하였고, 샤일롬이라 하는 땅 북쪽 언덕에 큰 망대를 세우게 하였으니, 이 곳은 니파이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도망하여 나갈 때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라.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얻은 재물로 이같이 행하였더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마음을 그의 재물에 두었고, 또 그 처들과 첩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로 그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의 제사들도 그 같이 창녀들과 더불어 그들의 시간을 보내었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땅 도처에 포도원을 세웠고, 또 그가 포도주 틀을 짓고 포도주를 풍부히 제조하였나니, 그러므로 그와 또한 그의 백성이 술꾼이 되었느니라.
-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들어와 그의 백성을 습격하기 시작하되, 소수를 습격하여, 그들이 양 떼를 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들에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And he also built him a spacious palace, and a throne in the midst thereof, all of which was of fine wood and was ornamented with gold and silver and with precious things.

And he also caused that his workmen should work all manner of fine work within the walls of the temple, of fine wood, and of copper, and of brass.

And the seats which were set apart for the high priests, which were above all the other seats, he did ornament with pure gold; and he caused a breast-work to be built before them, that they might rest their bodies and their arms upon while they should speak lying and vain words to 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uilt a tower near the temple; yea, a very high tower, even so high that he could stand upon the top thereof and overlook the land of Shilom, and also the land of Shemlon, which was possessed by the Lamanites; and he could even look over all the land round abou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used many buildings to be built in the land Shilom; and he caused a great tower to be built on the hill north of the land Shilom, which had been a resort for the children of Nephi at the time they fled out of the land; and thus he did do with the riches which he obtained by the taxation of 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placed his heart upon his riches, and he spent his time in riotous living with his wives and his concubines; and so did also his priests spend their time with harlot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planted vineyards round about in the land; and he built wine-presses, and made wine in abundance; and therefore he became a wine-bibber, and also 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began to come in upon his people, upon small numbers, and to slay them in their fields, and while they were tending their flocks.



- 17 이에 노아 왕이 이 땅 주위로 수비대를 보내어 저들을 막게 하였으나 그가 충분한 수를 보내지 아니한지라,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 떼를 많이 이 땅에서 몰아가니라. 이와 같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죽이며, 저들의 증오심을 그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그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대적하게 하매, 저들이 잠시 밀려나니 곧 그들이 잠시 저들을 몰아낸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탈취물을 기뻐하며 돌아왔더라.
- 19 이에 이제 이 큰 승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졌나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여, 그들의 오십이 레이맨인 수천을 당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그들이 자랑하며 피를 기뻐하며 그들 형제들의 피 흘리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왕과 제사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이었더라.
-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아빈아다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더니, 그가 그들 중에 나아가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나아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라—이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음행을 보았음이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 중에 그들을 벌하리라.
- 21 또 그들이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붙이리니, 참으로 그들이 속박에 들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원수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리라.
- 22 그리한즉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내 백성의 죄악을 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 23 또 이렇게 되리니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속박에 들게 될 것이요, 주 곧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And king Noah sent guards round about the land to keep them off; but he did not send a sufficient number, and the Lamanites came upon them and killed them, and drove many of their flocks out of the land; thus the Lamanites began to destroy them, and to exercise their hatred upo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Noah sent his armies against them, and they were driven back, or they drove them back for a time; therefore, they returned rejoicing in their spoil.

And now, because of this great victory they wer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they did boast in their own strength, saying that their fifty could stand against thousands of the Lamanites; and thus they did boast, and did delight in blood, and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their brethren, and this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ir king and pries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a man among them whose name was Abinadi; and he went forth among them, and began to prophesy, saying: Behold, thus saith the Lord, and thus hath he commanded me, saying, Go forth, and say unto this people, thus saith the Lord—Wo be unto this people, for I have seen their abominations, and their wickedness, and their whoredoms; and except they repent I will visit them in mine anger.

And except they repent and turn to the Lord their God, behold, I will deliver them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yea, and they shall be brought into bondage; and they shall be afflicted by the hand of their enemi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an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ies of my peopl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xcept this people repent and turn unto the Lord their God, they shall be brought into bondage; and none shall deliver them, except it be the Lord the Almighty God.

24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할 것이요, 또한 내가 그들로 그 원수들에게 매맞도록 버려 두리라.

25 또 그들이 굶은 베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내지도 아니하리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하니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였을 때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주께서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니라.

27 이제 노아 왕이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도 역시 노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아빈아다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그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요, 아니면 주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에게 그러한 큰 고난을 가져오겠느냐?

28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아빈아다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니, 이는 그가 내 백성을 선동하여 서로 분노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자 이러한 것을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니라.

29 이제 백성들의 눈이 멀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빈아다이의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를 잡고자 하니라. 또 노아 왕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Yea,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 they shall cry unto me I will be slow to hear their cries; yea, and I will suffer them that they be smitten by their enemies.

And except they repent in sackcloth and ashes, and cry mightily to the Lord their God, I will not hear their prayers, neither will I deliver them out of their afflictions; and thus saith the Lord, and thus hath he commanded me.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binadi had spoken these words unto them they were wroth with him, and sought to take away his life; but the Lord delivered him out of their hands.

Now when king Noah had heard of the words which Abinadi had spoken unto the people, he was also wroth; and he said: Who is Abinadi, that I and my people should be judged of him, or who is the Lord, that shall bring upon my people such great affliction?

I command you to bring Abinadi hither, that I may slay him, for he has said these things that he might stir up my people to anger one with another, and to raise contentions among my people; therefore I will slay him.

Now the eyes of the people were blinded; therefore they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the words of Abinadi, and they sought from that time forward to take him. And king Noah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word of the Lord, and he did not repent of his evil doings.

## 모사이야서 12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년 후에 아빈아다이가 변장하고 그들 가운데 오매,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더니,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이르시되—아빈아다이야, 가서 나의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분노 중에 그들을 벌하리라, 참으로 나의 맹렬한 노여움 중에 내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리라.
- 2 참으로 이 세대에게 화 있을진저!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뻗고 예언하라 이르기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속박에 들게 될 것이요, 뺨을 맞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쫓길 것이며 또 죽임을 당하리니, 공중의 독수리들과 개들과 또한 들짐승들이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
- 3 또 이렇게 되리니 노아 왕의 목숨은 뜨거운 풀무 속의 옷같이 값 매겨질 것이라. 이로써 그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
- 4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심한 고난으로, 참으로 기근과 역병으로 나의 이 백성을 칠 것이며, 또 내가 그들로 온종일 애곡하게 하리라.
- 5 참으로 그뿐 아니라 내가 그들로 그 등에 짐을 매게 하리니, 그들이 말 못하는 나귀처럼 앞에 내몰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 6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 중에 우박을 보내리니, 그것이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또한 동풍으로 치심을 입을 것이며, 곤충이 또한 그들의 땅을 괴롭히며 그들의 곡식을 삼킬 것이라.
- 7 또 그들은 심한 역병으로 치심을 입으리니—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이 모두를 내가 행할 것이라.

## Mosiah 12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space of two years that Abinadi came among them in disguise, that they knew him not, and began to prophesy among them, saying: Thus has the Lord commanded me, saying—Abinadi, go and prophesy unto this my people, for they have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my words; they have repented not of their evil doings; therefore, I will visit them in my anger, yea, in my fierce anger will I visit them in their iniquities and abominations.

Yea, wo be unto this generation! And the Lord said unto me: Stretch forth thy hand and prophesy, saying: Thus saith the Lor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is generation, because of their iniquities, shall be brought into bondage, and shall be smitten on the cheek; yea, and shall be driven by men, and shall be slain; and the vultures of the air, and the dogs, yea, and the wild beasts, shall devour their flesh.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life of king Noah shall be valued even as a garment in a hot furnace; for he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 will smite this my people with sore afflictions, yea, with famine and with pestilence; and I will cause that they shall howl all the day long.

Yea, and I will cause that they shall have burdens lashed upon their backs; and they shall be driven before like a dumb as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 will send forth hail among them, and it shall smite them; and they shall also be smitten with the east wind; and insects shall pester their land also, and devour their grain.

And they shall be smitten with a great pestilence—and all this will I do because of their iniquities and abominations.

- 8 또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로 한 기록을 그들 뒤에 남기게 하리니, 이 땅을 차지할 다른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그것들을 보존하리라. 참으로 이를 내가 행할 것은 내가 이 백성의 가증함을 다른 국민들에게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 실로 많은 것을 아빈아다이가 예언하였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왕 앞으로 끌고 가서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리라 하는 자를 왕의 앞에 끌어 왔나이다.
- 10 또한 그가 왕의 생명에 관하여서도 화를 예언하며 말하기를, 왕의 목숨이 불의 풀무 속에 든 옷과 같으리라 하나이다.
- 11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줄기같이, 곧 짐승들이 그 위로 달리며 발 아래 짓밟는 들판의 마른 줄기같이 되리라 하나이다.
- 12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엉겅퀴의 꽃 같으리니,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땅 위에 불려다닌다 하며, 그가 주장하기를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다 하며,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모두가 왕에게 임하리니 이는 왕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하나이다.
- 13 또 이제 왕이시여, 왕이 무슨 큰 악을 행하였기에 또는 왕의 백성이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이까?
- 14 이에 이제 왕이시여, 보소서, 우리가 무죄하고, 왕이시여 왕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왕께 관하여 거짓을 말하였고 그는 헛되이 예언하였나이다.
- 15 또 보소서, 우리는 강하온즉 우리가 속박에 들게 되거나, 우리 원수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뿐 아니라 왕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번영하였나니, 앞으로도 왕은 번영하리이다.
- 16 보소서, 여기 그 사람이 있사온즉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기오니, 왕은 왕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xcept they repent I will utterly destroy them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yet they shall leave a record behind them, and I will preserve them for other nations which shall possess the land; yea, even this will I do that I may discover the abominations of this people to other nations. And many things did Abinadi prophesy against t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ngry with him; and they took him and carried him bound before the king, and said unto the king: Behold, we have brought a man before thee who has prophesied evil concerning thy people, and saith that God will destroy them.

And he also prophesieth evil concerning thy life, and saith that thy life shall be as a garment in a furnace of fire.

And again, he saith that thou shalt be as a stalk, even as a dry stalk of the field, which is run over by the beasts and trodden under foot.

And again, he saith thou shalt be as the blossoms of a thistle, which, when it is fully ripe, if the wind bloweth, it is driven forth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he pretendeth the Lord hath spoken it. And he saith all this shall come upon thee except thou repent, and this because of thine iniquities.

And now, O king, what great evil hast thou done, or what great sins have thy people committed, that we should be condemned of God or judged of this man?

And now, O king, behold, we are guiltless, and thou, O king, hast not sinned; therefore, this man has lied concerning you, and he has prophesied in vain.

And behold, we are strong, we shall not come into bondage, or be taken captive by our enemies; yea, and thou hast prospered in the land, and thou shalt also prosper.

Behold, here is the man, we deliver him into thy hands; thou mayest do with him as seemeth thee good.

-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아빈아다이를 옥에 던져 넣게 하고, 명하여 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할지 그들과 회의를 가지려 함이었더라.
-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그를 이리로 데려와 우리로 그를 심문하게 하소서 한지라, 왕이 명하여 그를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더라.
- 19 이에 그들이 그를 심문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를 책잡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담대히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의 모든 질문을 물리쳐 참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모든 심문에 있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모든 말에 있어 그들을 파하였음이라.
-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바 기록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렀으되,
- 2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22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 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로다.
- 23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 24 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였느니라.
- 25 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제사로서 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영을 깨닫는다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자 하느냐?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Noah caused that Abinadi should be cast into prison; and he commanded that the priests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hat he might hold a council with them what he should do with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said unto the king: Bring him hither that we may question him; and the king commanded that he should be brought before them.

And they began to question him, that they might cross him, that thereby they might have wherewith to accuse him; but he answered them boldly, and withstood all their questions, yea, to their astonishment; for he did withstand them in all their questions, and did confound them in all their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one of them said unto him: What meaneth the words which are written, and which have been taught by our fathers, saying: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that bringeth good tidings; that publisheth peace; that bringeth good tidings of good; that publisheth salvation; that saith unto Zion, Thy God reigneth;

Thy watchmen shall lift up the voice; with the voice together shall they sing; for they shall see eye to eye when the Lord shall bring again Zion;

Break forth into joy; sing together ye waste places of Jerusalem; for the Lord hath comforted his people, he hath redeemed Jerusalem;

The Lord hath made bare his holy arm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And now Abinadi said unto them: Are you priests, and pretend to teach this people, and to understand the spirit of prophesying, and yet desire to know of me what these things mean?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길을 굽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이는 혹 너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다 하여도 너희가 이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굽게 하였느니라.

27 너희가 깨닫고자 너희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28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노라.

29 다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재물에 너희 마음을 두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음행을 범하며 창기들과 더불어 너희 힘을 소비하며, 더욱이 이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주로 하여금 나를 보내사, 이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되 참으로 이 백성에 대하여 큰 재앙을 예언하게 하실 까닭이 있게 하였느냐?

30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아나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마땅하니라.

31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심을 입을 것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너희는 무엇이 라 하느냐?

32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니라.

33 그러나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으리라. 참으로 너희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계명을 지키면 그러하리라 이르시되,

34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35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36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아무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I say unto you, wo be unto you for perverting the ways of the Lord! For if ye understand these things ye have not taught them; therefore, ye have perverted the ways of the Lord.

Ye have not applied your hearts to understanding; therefore, ye have not been wise. Therefore, what teach ye this people?

And they said: We teach the law of Moses.

And again he said unto them: If ye teach the law of Moses why do ye not keep it? Why do ye set your hearts upon riches? Why do ye commit whoredoms and spend your strength with harlots, yea, and cause this people to commit sin, that the Lord has cause to send me to prophesy against this people, yea, even a great evil against this people?

Know ye not that I speak the truth? Yea, ye know that I speak the truth; and you ought to tremble before God.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ye shall be smitten for your iniquities, for ye have said that ye teach the law of Moses. And what know ye concerning the law of Moses? Doth salvation come by the law of Moses? What say ye?

And they answered and said that salvation did come by the law of Moses.

But now Abinadi said unto them: I know if ye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be saved; yea, if ye keep the commandments which the Lord delivered unto Moses in the mount of Sinai, saying:

I am the Lord thy God, who hath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 thing in heaven above, or things which are in the earth beneath.

37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모두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이 백성을 가르쳐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Now Abinadi said unto them, Have ye done all this? I say unto you, Nay, ye have not. And have ye taught this people that they should do all these things? I say unto you, Nay, ye have not.

## 모사이야서 13

- 1 이에 이제 왕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제사들에게 이르되, 이 자를 끌어내어 죽이라. 그가 미쳤거늘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 무엇이나 하더라.
- 2 이에 그들이 나서서 그에게 손을 대려 하였으나, 그가 그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 3 나를 다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나를 보내사 전하게 하신 전갈을 내가 아직 전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도록 요구한 바도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에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 4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받드시 이루어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고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는 내게 노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판단하였도다.
- 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난 후 노아 왕의 백성들이 감히 그에게 그 손을 대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있어, 실로 모세의 얼굴이 시내 산에 있는 동안 주와 말씀할 동안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의 얼굴에서 심히 밝은 광채가 났음이라.
- 6 또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능과 권세로 말하였나니, 그가 그의 말을 계속하여 이르되,
- 7 너희에게 나를 죽일 능력이 없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전할 말을 다 마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죄악에 관하여 진실을 너희에게 고하는 까닭에 그것이 너희 마음을 가르치는 듯한 줄 내가 알겠노라.
- 8 더욱이 내 말이 너희를 경이와 놀라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 9 그러나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내가 다 마치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을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도다.
- 10 그러나 이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장차 올 일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리라.

## Mosiah 13

And now when the king had heard these words, he said unto his priests: Away with this fellow, and slay him; for what have we to do with him, for he is mad.

And they stood forth and attempted to lay their hands on him; but he withstood them, and said unto them:

Touch me not, for God shall smite you if ye lay your hands upon me, for I have not delivered the message which the Lord sent me to deliver; neither have I told you that which ye requested that I should tell; therefore, God will not suffer that I shall be destroyed at this time.

But I must fulfil the commandments wherewith God has commanded me; and because I have told you the truth ye are angry with me. And again, because I have spoken the word of God ye have judged me that I am mad.

Now it came to pass after Abinadi had spoken these words that the people of king Noah durst not lay their hands on him, for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his face shone with exceeding luster, even as Moses' did while in the mount of Sinai, while speaking with the Lord.

And he spake with power and authority from God; and he continued his words, saying:

Ye see that ye have not power to slay me, therefore I finish my message. Yea, and I perceive that it cuts you to your hearts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concerning your iniquities.

Yea, and my words fill you with wonder and amazement, and with anger.

But I finish my message; and then it matters not whither I go, if it so be that I am saved.

But this much I tell you, what you do with me, after this, shall be as a type and a shadow of things which are to come.



11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읽어 주리니, 이는 내가 보건대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보건대 너희는 너희 생의 대부분 동안 죄악을 연 구하고 가르쳐 왔도다.

12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나니, 곧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13 그리고 또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조상들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14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임이니라.

15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6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7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8 제칠일,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9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음이라. 그런즉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0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니라.

21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22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23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And now I read unto you the remainder of the commandments of God, for I perceive that they are not written in your hearts; I perceive that ye have studied and taught iniquity the most part of your lives.

And now, ye remember that I said unto you: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things which are in heaven above, or which are in the earth beneath, or which are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And again: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unto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ie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em that hate me;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Six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cattle, nor thy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24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지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였느냐?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와서 이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27 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 오리라.

28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가 아닐진대,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2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율법, 곧 참으로 심히 엄격한 율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목이 뻗뻗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나,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더디 하였음이라.

30 그러므로 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나니, 참으로 의례와 의식의 율법이었도다, 그들이 매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31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든 것은 장차 올 일의 예표였느니라.

32 그러하거늘 이제, 그들이 율법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모두 율법을 깨달지는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음이니라.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s.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Abinadi had made an end of these sayings that he said unto them: Have ye taught this people that they should observe to do all these things for to keep these commandments?

I say unto you, Nay; for if ye had, the Lord would not have caused me to come forth and to prophesy evil concerning this people.

And now ye have said that salvation cometh by the law of Moses. I say unto you that it is expedient that ye should keep the law of Moses as yet; but I say unto you, that the time shall come when it shall no more be expedient to keep the law of Moses.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salvation doth not come by the law alone; and were it not for the atonement, which God himself shall make for the sins and iniquities of his people, that they must unavoidably perish, notwithstanding the law of Moses.

And now I say unto you that it was expedient that there should be a law given to the children of Israel, yea, even a very strict law; for they were a stiffnecked people, quick to do iniquity, and slow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Therefore there was a law given them, yea, a law of performances and of ordinances, a law which they were to observe strictly from day to day, to keep them in remembrance of God and their duty towards him.

But behold, I say unto you, that all these things were types of things to come.

And now, did they understand the law? I say unto you, Nay, they did not all understand the law; and this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for they understood not that there could not any man be saved except it were through the redemption of God.

33 대저 보라, 모세가 그들에게 메시야의 오심에 관하여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뿐 아니라 참으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예언하였던 모든 선지자들—그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많은 적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34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능하신 권능으로 지면 위에 나아가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참으로 이뿐 아니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가 친히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For behold, did not Moses prophesy unto them concern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at God should redeem his people? Yea, and even all the prophets who have prophesied ever since the world began—have they not spoken more or less concerning these things?

Have they not said that God himself should come dow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take upon him the form of man, and go forth in mighty power upon the face of the earth?

Yea, and have they not said also that he should bring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at he, himself, should be oppressed and afflicted?

## 모사이야서 14

- 1 참으로 이사야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며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 2 이는 그가 그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을 것임이라. 그는 모양도 없으며 고운 용모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 3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나니, 슬픔의 사람이요, 비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이를 테면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었나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4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로 여겼도다.
- 5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6 우리는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 7 그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니, 마치 도살당하리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가 끌려가되,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8 그가 옥에서와 또 심판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음이라.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도다.
- 9 또 그가 그 무덤을 악인과 함께 하였고,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하였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아무 거짓도 없었음으로 인함이라.

## Mosiah 14

Yea, even doth not Isaiah say: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For he shall grow up before him as a tender plant, and as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th no form nor comeliness; and when we shall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did esteem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 one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th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he is brought as a lamb to the slaughter, and as a sheep before her shearers is dumb so he opened not his mouth.

He was taken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and who sha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s of my people was he stricken.

And he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evil, neithe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10 그럼에도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라, 그로 비통함을 당하게 하셨은즉,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가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그의 손에서 번성 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자를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음이니라.

Yet it pleased the Lord to bruise him; he hath put him to grief; when thou shalt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he shall see his seed, he shall prolong his days, and the pleasure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He shall see the travail of his soul, and shall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my righteous servant justify many; for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Therefore will I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because he hath poured out his soul unto dea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and he bore the sins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 모사이야서 15

- 1 그리고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 2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으므로,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니—
- 3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으로 인함ियो. 아들인 것은 육체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나니—
- 4 또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바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니라.
- 5 또 이와 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사, 유혹을 받으시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시며, 조롱 받음과 채찍질 당함과 쫓겨남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 당함을 참으시느니라.
- 6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신 후에, 참으로 이사야가 말한 것같이 그가 끌려가시리니,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7 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 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
- 8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 주시나니—
- 9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심정을 지니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친히 짚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느니라.

## Mosiah 15

And now Abinadi said unto them: I would that ye should understand that God himself shall come dow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shall redeem his people.

And because he dwelleth in flesh he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and having subjected the flesh to the will of the Father, being the Father and the Son—

The Father, because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God; and the Son, because of the flesh; thus becoming the Father and Son—

And they are one God, yea, the very Eternal Father of heaven and of earth.

And thus the flesh becoming subject to the Spirit, or the Son to the Father, being one God, suffereth temptation, and yieldeth not to the temptation, but suffereth himself to be mocked, and scourged, and cast out, and disowned by his people.

And after all this, after working many mighty miracles among the children of men, he shall be led, yea, even as Isaiah said, as a sheep before the shearer is dumb, so he opened not his mouth.

Yea, even so he shall be led, crucified, and slain, the flesh becoming subject even unto death, the will of the Son being swallowed up in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us God breaketh the bands of death, having gained the victory over death; giving the Son power to make intercession for the children of men—

Having ascended into heaven, having the bowels of mercy; being filled with compassion towards the children of men; standing betwixt them and justice; having broken the bands of death, taken upon himself their iniquity and their transgressions, having redeemed them, and satisfied the demands of justice.

- 10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씨를 볼지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랴 하겠느냐? 누가 그의 씨가 되겠느냐?
- 11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선지자들 참으로 주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 날을 고대한 자들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그의 씨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니라.
- 12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음이요, 바로 이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 이제 그들이 그의 씨가 아니겠느냐?
- 13 이뿐 아니라 그 입을 열어 예언하며, 범법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선지자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의 씨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의 씨니라.
- 14 또 이들은 평화를 공포한 자들이요, 선한 것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들이요,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한 자들이라.
- 15 오 그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웠던고!
- 16 또 아직도 평화를 공포하고 있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17 그리고 또 이후로 참으로 이때로부터 영원을 두고 평화를 공포할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18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이시요, 화평을 세우신 이 곧 참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시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이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And now I say unto you, who shall declare his generation? Behold, I say unto you, that when his soul has been made an offering for sin he shall see his seed. And now what say ye? And who shall be his seed?

Behold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has heard the words of the prophets, yea, all the holy prophets who have prophesied concerning the coming of the Lord—I say unto you, that all those who have hearkened unto their words, and believed that the Lord would redeem his people, and have looked forward to that day for a remission of their sins, I say unto you, that these are his seed, or they are th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For these are they whose sins he has borne; these are they for whom he has died, to redeem them from their transgressions. And now, are they not his seed?

Yea, and are not the prophets, every one that has opened his mouth to prophesy, that has not fallen into transgression, I mean all the holy prophets ever since the world began? I say unto you that they are his seed.

And these are they who have published peace, who have brought good tidings of good, who have published salvation; and said unto Zion: Thy God reigneth!

And O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were their feet!

And again,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that are still publishing peace!

And again,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shall hereafter publish peace, yea, from this time henceforth and forever!

And behold, I say unto you, this is not all. For O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that bringeth good tidings, that is the founder of peace, yea, even the Lord, who has redeemed his people; yea, him who has granted salvation unto his people;

19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20 그러나 보라, 사망의 줄이 끊어질 것이요, 아들이 다스리시며 죽은 자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느니라.

21 이에 부활, 곧 첫째 부활이 오나니, 참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들과 지금 있는 자들과 장차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 있을 자들의 부활이라—그리스도라 함은 그렇게 그가 칭함을 받으시겠음이라.

22 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부활이니,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첫째 부활이니라.

23 그들은 일으킴을 받아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사망의 줄을 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느니라.

24 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하여 무지한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들의 회복을 이루시나니, 이에 그들이 주께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곧 영생을 얻느니라.

25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갖느니라.

26 그러나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는 너희가 떨어야 마땅함이니, 주께서는 그를 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구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참으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한 자,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를 지키려 하지 아니한 모든 자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For were it not for the redemption which he hath made for his people, which w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 say unto you, were it not for this, all mankind must have perished.

But behold, the bands of death shall be broken, and the Son reigneth, and hath power over the dead; therefore, he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re cometh a resurrection, even a first resurrection; yea, even a resurrection of those that have been, and who are, and who shall be, even until the resurrection of Christ—for so shall he be called.

And now, the resurrection of all the prophets, and all those that have believed in their words, or all those that have kept the commandments of God, shall come forth in the first resurrection; therefore, they are the first resurrection.

They are raised to dwell with God who has redeemed them; thus they have eternal life through Christ, who has broken the bands of death.

And these are those who have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and these are they that have died before Christ came, in their ignorance, not having salvation declared unto them. And thus the Lord bringeth about the restoration of these; and they have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r have eternal life, being redeemed by the Lord.

And little children also have eternal life.

But behold, and fear, and tremble before God, for ye ought to tremble; for the Lord redeemeth none such that rebel against him and die in their sins; yea, even all those that have perished in their sins ever since the world began, that have wilfully rebelled against God, that have known the commandments of God, and would not keep them; these are they that have no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27 그러므로 너희가 떨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는 구원이 그러한 자에게 오지 아니함이니, 이  
는 주께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뿐 아니라 주께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실 수도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  
요, 공의가 그 요구를 가질 때 공의를 부인할 수  
없으심이니라.

28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될 때가  
이르리라.

29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의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임이니이다.

30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여,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  
이라.

31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  
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  
다.

Therefore ought ye not to tremble? For salvation  
cometh to none such; for the Lord hath redeemed  
none such; yea, neither can the Lord redeem such;  
for he cannot deny himself; for he cannot deny jus-  
tice when it has its claim.

And now I say unto you that the time shall come  
that the salvation of the Lord shall be declared to ev-  
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Yea, Lord, thy watchmen shall lift up their voice;  
with the voice together shall they sing; for they shall  
see eye to eye, when the Lord shall bring again Zion.

Break forth into joy, sing together, ye waste places  
of Jerusalem; for the Lord hath comforted his peo-  
ple, he hath redeemed Jerusalem.

The Lord hath made bare his holy arm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 모사이야서 16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손을 내밀고 이르되, 만인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인정할 것이요,
- 2 또 그때 악인들이 쫓겨 나리니, 그들이 통곡하며, 울며, 애곡하며, 이를 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속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이니라.
- 3 이는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악마 같으며, 악마가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졌음이니, 참으로 곧져 옛 뱀이라. 그는 우리의 첫 부모를 속인 자니, 이로 인해 그들이 타락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며 악마에게 복종하게 되었느니라.
- 4 이리하여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나니,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된 상태로부터 구속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끝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리라.
- 5 그러나 기억하라 곧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본성을 고집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악마가 그를 다스릴 권능을 온전히 갖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한 악마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 6 그리고 이제 장차 올 일을 마치 이미 임한 것같이 말할진대,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속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 7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는 사망의 줄을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 8 그러나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

## Mosiah 1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binadi had spoken these words he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said: The time shall come when all shall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en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shall see eye to eye and shall confess before God that his judgments are just.

And then shall the wicked be cast out, and they shall have cause to howl, and weep, and wail, and gnash their teeth; and this because they would not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therefore the Lord redeemeth them not.

For they are carnal and devilish, and the devil has power over them; yea, even that old serpent that did beguile our first parents, which was the cause of their fall; which was the cause of all mankind becoming carnal, sensual, devilish, knowing evil from good, subjecting themselves to the devil.

Thus all mankind were lost; and behold, they would have been endlessly lost were it not that God redeemed his people from their lost and fallen state.

But remember that he that persists in his own carnal nature, and goes on in the ways of sin and rebellion against God, remaineth in his fallen state and the devil hath all power over him. Therefore he is as though there was no redemption made, being an enemy to God; and also is the devil an enemy to God.

And now if Christ had not come into the world, speaking of things to come as though they had already come, there could have been no redemption.

And if Christ had not risen from the dead, or have broken the bands of death that the grave should have no victory, and that death should have no sting, there could have been no resurrection.

But there is a resurrection, therefore the grave hath no victory, and the sting of death is swallowed up in Christ.

- 9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시니, 죽음이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 10 참으로 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어야 할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혹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 11 만일 그 행위가 선하다면, 끝없는 생명과 행복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끝없는 저주의 부활로 나아와, 그들을 굴복시킨 악마에게 넘기우리니, 이는 곧 저주라—
- 12 그들 스스로의 육신의 뜻과 욕망을 좇아가서,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펴져 있는 동안 결코 주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퍼졌으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심을 받음에도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려 아니하였으며, 회개하도록 명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회개하려 아니하였음이라.
- 13 그러하거늘 이제 너희가 마땅히 떨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 14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임을 또한 가르치라—
- 15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He is the light and the life of the world; yea, a light that is endless, that can never be darkened; yea, and also a life which is endless, that there can be no more death.

Even this mortal shall put on immortality, and this corruption shall put on incorruption, and shall be brought to stand before the bar of God, to be judged of him according to their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whether they be evil—

If they b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endless life and happiness; and if they b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endless damnation, being delivered up to the devil, who hath subjected them, which is damnation—

Having gone according to their own carnal wills and desires; having never called upon the Lord while the arms of mercy were extended towards them; for the arms of mercy were extended towards them, and they would not; they being warned of their iniquities and yet they would not depart from them; and they were commanded to repent and yet they would not repent.

And now, ought ye not to tremble and repent of your sins, and remember that only in and through Christ ye can be saved?

Therefore, if ye teach the law of Moses, also teach that it is a shadow of those things which are to come—

Teach them that redemption cometh through Christ the Lord, who is the very Eternal Father. Amen.

## 모사이야서 17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치자, 왕은 제사들에게 그를 잡아 그로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을 명하였더라.
- 2 그러나 그들 중에 이름이 엘마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또한 니파이의 후손이라.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또 그가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믿었으니, 이는 그가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한 죄악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아빈아다이에게 노하지 말고, 그로 평안히 떠나게 할 것을 간청하기 시작하였더라.
- 3 그러나 왕이 더욱 노하여 엘마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를 뒤따라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게 하니라.
- 4 그러나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몸을 숨기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엘마가 여러 날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아빈아다이가 한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아빈아다이를 에워싸고 그를 잡게 하매, 그들이 그를 결박하여 옥에 던져 넣으니라.
- 6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그의 제사들과 의논을 하고 나서, 그가 다시 그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더라.
- 7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아빈아다이야 우리가 너에 대한 죄과를 발견하였나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 8 이는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시리라 하였음이니, 이제 네가 나와 나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이야기한 그 모든 말을 취소하지 아니할진대, 이 이유로 네가 사형에 처하여지리로다.
- 9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진실함이요, 또 너희로 그 확실함을 알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를 너희 수중에 떨어지게 하였음이라.

## Mosiah 17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binadi had finished these sayings, that the king commanded that the priests should take him and cause that he should be put to death.

But there was one among them whose name was Alma, he also being a descendant of Nephi. And he was a young man, and he believed the words which Abinadi had spoken, for he knew concerning the iniquity which Abinadi had testified against them; therefore he began to plead with the king that he would not be angry with Abinadi, but suffer that he might depart in peace.

But the king was more wroth, and caused that Alma should be cast out from among them, and sent his servants after him that they might slay him.

But he fled from before them and hid himself that they found him not. And he being concealed for many days did write all the words which Abinadi had spok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caused that his guards should surround Abinadi and take him; and they bound him and cast him into prison.

And after three days, having counseled with his priests, he caused that he should again be brought before him.

And he said unto him: Abinadi, we have found an accusation against thee, and thou art worthy of death.

For thou hast said that God himself should come down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now, for this cause thou shalt be put to death unless thou wilt recall all the words which thou hast spoken evil concerning me and my people.

Now Abinadi said unto him: I say unto you, I will not recall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concerning this people, for they are true; and that ye may know of their surety I have suffered myself that I have fallen into your hands.

10 그뿐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려니와,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로다.

11 이에 이제 노아 왕이 바야흐로 그를 놓으려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을 두려워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까 그가 두려워하였음이다.

12 그러나 제사들이 그를 대적하여 그 소리를 높여서, 그를 참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가 왕을 욕하였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그를 넘겨주어 그로 죽임을 당하게 하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고 결박하여, 참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나뭇단으로 그의 살갓을 매질하였더라.

14 그리고 이제 불길이 그를 태우기 시작하자, 그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15 보라, 너희가 내게 행한 것같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너의 자손의 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곧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요, 이는 저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인함일 것이니라.

16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요,

17 참으로 또한 너희는 사방으로 치심을 당할 것이요, 또 들양 떼가 사납고 흉포한 짐승들에게 쫓김같이, 쫓기며 이리저리 흠음을 당할 것이니라.

18 또 그 날에 너희가 수색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요, 또 그때 너희가, 내가 겪는 것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하리라.

19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멸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라.

Yea, and I will suffer even until death, and I will not recall my words, and they shall stand as a testimony against you. And if ye slay me ye will shed innocent blood, and this shall also stand as a testimony against you at the last day.

And now king Noah was about to release him, for he feared his word; for he feared that the judgments of God would come upon him.

But the priests lifted up their voices against him, and began to accuse him, saying: He has reviled the king. Therefore the king was stirred up in anger against him, and he delivered him up that he might be slai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ook him and bound him, and scourged his skin with faggots, yea, even unto death.

And now when the flames began to scorch him, he cried unto them, saying:

Behold, even as ye have done unto me, so shall it come to pass that thy seed shall cause that many shall suffer the pains that I do suffer, even the pains of death by fire; and this because they believe in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ir God.

And it will come to pass that ye shall be afflicted with all manner of diseases because of your iniquities.

Yea, and ye shall be smitten on every hand, and shall be driven and scattered to and fro, even as a wild flock is driven by wild and ferocious beasts.

And in that day ye shall be hunted, and ye shall be taken by the hand of your enemies, and then ye shall suffer, as I suffer, the pains of death by fire.

Thus God executeth vengeance upon those that destroy his people. O God, receive my soul.

20     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쓰러졌으니, 불에 타 죽음을 당함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지 않으려 한 연고로 죽임을 당함이니,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말의 참됨을 인봉함이었더라.

And now, when Abinadi had said these words, he fell, having suffered death by fire; yea, having been put to death because he would not deny the commandments of God, having sealed the truth of his words by his death.

## 모사이야서 18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의 종들에게서 도망한 엘마는, 자기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백성들 가운데로 은밀히 다니면서, 아빈아다이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나니—
- 2 참으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과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죽은 자의 부활과 백성의 구속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라.
- 3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를 그가 가르치되, 왕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매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으니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몰몬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니, 이곳은 그 이름을 왕으로부터 받았고, 그 땅의 경계에 있어 때가 되면 혹은 철따라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더라.
- 5 이제 몰몬에 맑은 물의 수원이 있어, 엘마가 늘 그리로 갔으니 거기 물 가까이에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 그 곳에서 그가 낮 동안 왕의 수색을 피하여 몸을 숨겼더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로 가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몰몬의 장소에 엘마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수가 꽤 많았으니, 참으로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가르치며, 회개와 구속과 주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니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몰몬의 물이 있으니 (이는 그 물이 그렇게 일컬어졌음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 Mosiah 1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who had fled from the servants of king Noah, repented of his sins and iniquities, and went about privately among the people, and began to teach the words of Abinadi—

Yea, concerning that which was to come, and also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redemption of the people, which was to be brought to pass through the power, and sufferings, and death of Christ, and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into heaven.

And as many as would hear his word he did teach. And he taught them privately, that it might not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king. And many did believe his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as many as did believe him did go forth to a place which was called Mormon, having received its name from the king, being in the borders of the land having been infested, by times or at seasons, by wild beasts.

Now, there was in Mormon a fountain of pure water, and Alma resorted thither, there being near the water a thicket of small trees, where he did hide himself in the daytime from the searches of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as many as believed him went thither to hear his words.

And it came to pass after many days there were a goodly number gathered together at the place of Mormon, to hear the words of Alma. Yea, all were gathered together that believed on his word, to hear him. And he did teach them, and did preach unto them repentance, and redemption, and faith on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them: Behold, here are the waters of Mormon (for thus were they called) and now, as ye are desirous to come into the fold of God, and to be called his people, and are willing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that they may be light;

- 9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 즉—
- 1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 11 이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
- 1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첫 무리 중 하나인 힐람을 취하여, 물에 들어가 서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저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 13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이르되, 힐람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나는 네가 필멸의 육신으로 죽기까지 그를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네게 침례를 주노니, 주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빌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가 예비해 두신 자,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가 네게 영생을 주시기를 비노라 하더라.
- 14 또 엘마가 이 말을 한 후 엘마와 힐람 둘 다 물에 잠기더니,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여 일어나 기뻐하며 물에서 나오니라.
- 15 그리고 또 엘마가 다른 자를 취하여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가 처음대로 그에게 침례를 주되, 그 자신은 다시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더라.
- 16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물몬의 장소에 나아간 각 사람 모두에게 침례를 주니, 그들은 수효가 대략 이백네 명이라. 참으로 그들은 물몬의 물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Yea, and are willing to mourn with those that mourn; yea, and comfort those that stand in need of comfort, and to stand as witnesses of God at all times and in all things, and in all places that ye may be in, even until death, that ye may be redeemed of God, and be numbered with those of the first resurrection, that ye may have eternal life—

Now I say unto you, if this be the desire of your hearts, what have you against being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as a witness before him that ye have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him, that ye will ser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that he may pour out his Spirit more abundantly upon you?

And now when the people had heard these words, they clapped their hands for joy, and exclaimed: This is the desire of our heart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took Helam, he being one of the first, and went and stood forth in the water, and cried, saying: O Lord, pour out thy Spirit upon thy servant, that he may do this work with holiness of heart.

And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he said: Helam, I baptize thee, having authority from the Almighty God, as a testimony that ye have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rve him until you are dead as to the mortal body; and may the Spirit of the Lord be poured out upon you; and may he grant unto you eternal life,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whom he h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after Alma had said these words, both Alma and Helam were buried in the water; and they arose and came forth out of the water rejoicing,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And again, Alma took another, and went forth a second time into the water, and baptized him according to the first, only he did not bury himself again in the water.

And after this manner he did baptize every one that went forth to the place of Mormon; and they were in number about two hundred and four souls; yea, and they were baptized in the waters of Mormon, and were filled with the grace of God.



- 17 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제사를 성임하되, 그들의 수의 오십마다 한 명의 제사를 성임하여,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게 하였더라.
- 19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여 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 20 참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게 하였더라.
- 21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 22 또 이같이 그가 그들을 명하여 전파하게 하였고,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 23 그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를 거룩히 지키게 하고, 또한 매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 24 또한 그들에게 명하여 그가 성임한 제사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게 하였더라.
- 25 또 매주 정해진 날 하루가 있어, 그들이 함께 모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자주 함께 모이더라.
- 26 또 제사들은 자기의 생계를 백성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니되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더라.

And they were called the church of God, or the church of Christ, from that time for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was baptized by the power and authority of God was added to his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having authority from God, ordained priests; even one priest to every fifty of their number did he ordain to preach unto them, and to teach them concerning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ach nothing save it were the things which he had taught, and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mouth of the holy prophets.

Yea, eve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preach nothing save it were repentance and faith on the Lord, who had redeemed his people.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re should be no contention one with another, but that they should look forward with one eye, having one faith and one baptism, having their hearts knit together in unity and in love one towards another.

And thus he commanded them to preach. And thus they became the children of God.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observe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and also every day they should give thanks to the Lord their God.

And he also commanded them that the priests whom he had ordained should labor with their own hands for their support.

And there was one day in every week that was set apart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teach the people, and to worship the Lord their God, and also, as often as it was in their power, to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nd the priests were not to depend upon the people for their support; but for their labor they were to receive the grace of God, that they might wax strong in the Spirit, having the knowledge of God, that they might teach with power and authority from God.

27 그리고 또 엘마가 명하여 교회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자신의 재물에서 나누어 주게 하되, 만일 더욱 풍족하게 가졌다면 그는 더욱 풍족하게 나누어 주게 하고, 조금 밖에 갖지 못한 자에게는 조금 밖에 요구하지 않게 하고, 갖지 못한 자에게는 주게 하였더라.

28 그리고 이같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사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소망으로 그들의 재물에서 나누어, 궁핍에 처한 제사들과 또한 궁핍하고 헐벗은 모든 영혼에게 주도록 하였더라.

29 그리고 이를 그가 그들에게 이른 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에 따라 서로 나누었더라.

3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은 물몬에서 참으로 물몬의 물가, 물몬의 물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이루어졌더라. 참으로 물몬의 장소, 물몬의 물, 물몬의 숲이여, 이 곳들이 거기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른 자들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는 그들이 영원토록 그의 찬송을 부를 것임이로다.

31 또 이 일들은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 땅의 변경에서 행하여졌더라.

32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성들 가운데 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살피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이던 날에 왕에게 발각되니라.

33 이에 이제 왕이 말하기를 엘마가 백성을 선동하여 나를 모반하게 한다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게 하니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주의 백성은 왕의 군대가 오에 대해 통지를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가족을 취하고 떠나 광야로 들어갔느니라.

35 이에 그들은 수효가 대략 사백오십 인 가량 되었더라.

And again Alma commanded that the people of the church should impart of their substance, every one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d; if he have more abundantly he should impart more abundantly; and of him that had but little, but little should be required; and to him that had not should be given.

And thus they should impart of their substance of their own free will and good desires towards God, and to those priests that stood in need, yea, and to every needy, naked soul.

And this he said unto them, having been commanded of God; and they did walk uprightly before God, imparting to one another both temporally and spiritually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their want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l this was done in Mormon, yea, by the waters of Mormon, in the forest that was near the waters of Mormon; yea, the place of Mormon, the waters of Mormon, the forest of Mormon, how beautiful are they to the eyes of them who there came to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yea, and how blessed are they, for they shall sing to his praise forever.

And these things were done in the borders of the land, that they might not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king.

But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having discovered a movement among the people, sent his servants to watch them. Therefore on the day that they were assembling themselves together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they were discovered unto the king.

And now the king said that Alma was stirring up the people to rebellion against him; therefore he sent his army to destro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the people of the Lord were apprised of the coming of the king's army; therefore they took their tents and their families and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were in number about four hundred and fifty souls.

## 모사이야서 19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의 군대가 주의 백성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라.
- 2 그리고 이제 보라, 왕의 군세가 줄어들어 작았고,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간에는 분열이 생겼더라.
- 3 그리고 적은 편이 무리가 왕에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기 시작하매, 그들 가운데 큰 다툼이 생겼더라.
- 4 이에 이제 그들 중 이름이 기드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강한 자요 왕의 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칼을 뽑아 분노 중에 맹세하기를 내가 왕을 죽이리라 하니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과 싸우매, 왕이 바야흐로 그가 자기를 이기게 되었음을 보고는 도망하며 달음질하여 성전 가까이에 있는 망대에 올랐더라.
- 6 이에 기드온이 그의 뒤를 따르더니 왕을 죽이려고 바야흐로 망대에 오르려 할 새, 왕이 그 눈길을 주위로 던져 썸튼 땅을 향하였더니, 보라, 레이맨인의 군대가 그 땅 경계 내에 들어왔더라.
- 7 이에 이제 왕이 그 영혼의 고뇌 중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기드온아, 나를 살려 두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니 그들이 우리를 멸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리라 하니라.
- 8 이제 왕이 자기 목숨에 대한 것만큼 그의 백성에 대해 염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의 목숨을 살려 주니라.
- 9 이에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고, 그 자신 그들에 앞서 가매, 그들이 자기의 여자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더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잡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니라.
- 1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려 두고,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였더라.

## Mosiah 19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y of the king returned, having searched in vain for the people of the Lord.

And now behold, the forces of the king were small, having been reduced, and there began to be a division among the remainder of the people.

And the lesser part began to breathe out threatenings against the king, and there began to be a great contention among them.

And now there was a man among them whose name was Gideon, and he being a strong man and an enemy to the king, therefore he drew his sword, and swore in his wrath that he would slay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he fought with the king; and when the king saw that he was about to overpower him, he fled and ran and got upon the tower which was near the temple.

And Gideon pursued after him and was about to get upon the tower to slay the king, and the king cast his eyes round about towards the land of Shemlon, and behold, the army of the Lamanites were within the borders of the land.

And now the king cried out in the anguish of his soul, saying: Gideon, spare me, for the Lamanites are upon us, and they will destroy us; yea, they will destroy my people.

And now the king was not so much concerned about his people as he was about his own life; nevertheless, Gideon did spare his life.

And the king commanded the people that they should flee before the Lamanites, and he himself did go before them, and they did flee into the wilderness, with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pursue them, and did overtake them, and began to slay them.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commanded them that all the men should leave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flee before the Lamanites.

12 이제 저들을 떠나지 않고 차라리 머물러 저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많았으며, 나머지는 그들의 여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머문 자들이 그들의 고운 딸들로 하여금 나서서, 레이맨인들에게 저들을 죽이지 말도록 간청하게 하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을 붙잡히 여기니, 이는 저들이 그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음이라.

15 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저들을 사로잡고 저들을 니파이 땅으로 다시 옮겨 와서, 그들이 노아 왕을 레이맨인들의 손에 넘길 것과 그들의 소유 곧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한 것의 절반을 바치고, 이같이 그들이 매년 레이맨인의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그 땅을 소유할 것을 저들에게 허락하였더라.

16 그리고 이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림하이더라.

17 그리고 이제 림하이는 자기의 부친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하이가 자기 부친의 죄악을 모르지 아니하였나니 그 자신은 의인이었음이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온이 은밀히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어 왕과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을 찾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과 그의 제사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니라.

19 이제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 만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복수를 구하고 역시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을 그 마음에 맹세하였더라.

20 왕이 저들에게 명하기를 돌아가지 말라 하므로, 그들이 왕에게 노하여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되 참으로 불에 타 죽음에 이르게 하였더라.

21 또 그들이 바야흐로 제사들도 잡아서 죽이려 하였으나, 저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Now there were many that would not leave them, but had rather stay and perish with them. And the rest left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fl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who tarried with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caused that their fair daughters should stand forth and plead with the Lamanites that they would not sla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had compassion on them, for they were charmed with the beauty of their women.

Therefore the Lamanites did spare their lives, and took them captives and carried them back to the land of Nephi, and granted unto them that they might possess the land,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y would deliver up king Noah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deliver up their property, even one half of all they possessed, one half of their gold, and their silver, and all their precious things, and thus they should pay tribute to the king of the Lamanites from year to year.

And now there was one of the sons of the king among those that were taken captive, whose name was Limhi.

And now Limhi was desirous that his father should not be destroyed; nevertheless, Limhi was not ignorant of the iniquities of his father, he himself being a just man.

And it came to pass that Gideon sent men into the wilderness secretly, to search for the king and those that were with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met the people in the wilderness, all save the king and his priests.

Now they had sworn in their hearts that they would return to the land of Nephi, and if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were slain, and also those that had tarried with them, that they would seek revenge, and also perish with them.

And the king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return; and they were angry with the king, and caused that he should suffer, even unto death by fire.

And they were about to take the priests also and put them to death, and they fled before them.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바야흐로 니파이 땅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기드온의 사람들을 만났더라. 이에 기드온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레이맨인들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그 땅을 소유해도 좋다고 레이맨인들이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고하였더라.

23 이에 백성들은 기드온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왕을 죽였으며, 그의 제사들은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광야로 더 멀리 들어갔음을 고하였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식을 끝내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기뻐하며, 니파이 땅으로 돌아와 기드온에게 그들이 왕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고하니라.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6 이에 립하이도 왕의 아들로서 백성들에 의해 왕국을 수여받아, 레이맨인의 왕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바치리라 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립하이가 왕국을 세우며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더라.

28 또 레이맨인의 왕은 그 땅을 둘러 파수꾼들을 세워 립하이의 백성들을 그 땅에 억류하여 그들이 광야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 받은 조공에서 그의 파수꾼들을 유지하였더라.

29 그리고 이제 립하이 왕이 이 년 동안 그의 왕국에서 계속하여 화평을 누리매,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bout to return to the land of Nephi, and they met the men of Gideon. And the men of Gideon told them of all that had happened to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that the Lamanites had granted unto them that they might possess the land by paying a tribute to the Lamanites of one half of all they possessed.

And the people told the men of Gideon that they had slain the king, and his priests had fled from them farther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had ended the ceremony, that they returned to the land of Nephi, rejoicing, because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were not slain; and they told Gideon what they had done to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of the Lamanites made an oath unto them, that his people should not slay them.

And also Limhi, being the son of the king, having the kingdom conferred upon him by the people, made oath unto the king of the Lamanites that his people should pay tribute unto him, even one half of all they possessed.

And it came to pass that Limhi began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to establish peace among his people.

And the king of the Lamanites set guards round about the land, that he might keep the people of Limhi in the land, that they might not depart into the wilderness; and he did support his guards out of the tribute which he did receive from the Nephites.

And now king Limhi did have continual peace in his kingdom for the space of two years, that the Lamanites did not molest them nor seek to destroy them.

## 모사이야서 20

- 1 이제 셸론에 레이맨인들의 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곳이 있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하루는 그들의 적은 수가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 함께 모였더라.
- 3 또 이제 노아왕의 제사들은 니파이 성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럽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고로, 그들이 감히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였더라.
- 4 이에 광야에 머물러 있더니, 레이맨인들의 딸들을 발견하고는 엿드려 그들을 지켜 보다가,
- 5 또 그들의 몇 명이 춤을 추러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나와 그들을 잡아 광야로 데려갔으니, 참으로 레이맨인들의 딸 스물넷을 그들이 광야로 데려갔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딸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림하이의 백성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림하이의 백성의 소행이라 생각하였음이라.
- 7 그리하여 그들이 그 군대를 보내었으니 참으로 왕이 친히 그의 백성 앞에서 행하였고, 이에 그들이 림하이의 백성을 멸하려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니라.
- 8 그런데 이제 림하이는 망대에서 그들을 발견했나니, 곧 전쟁을 위한 그들의 모든 준비를 그가 발견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들에서와 숲에서 엿드려 그들을 기다렸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올라왔을 때, 림하이의 백성들은 그 기다리던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그 먹이를 놓고 다투는 사자들처럼 싸웠음이라.

## Mosiah 20

Now there was a place in Shemlon where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sing, and to dance, and to make themselves merr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one day a small number of them gathered together to sing and to dance.

And now the priests of king Noah, being ashamed to return to the city of Nephi, yea, and also fearing that the people would slay them, therefore they durst not return to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having tarried in the wilderness, and having discovered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they laid and watched them;

And when there were but few of them gathered together to dance, they came forth out of their secret places and took them and carried them into the wilderness; yea, twenty and four of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they carried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found that their daughters had been missing, they were angry with the people of Limhi, for they thought it was the people of Limhi.

Therefore they sent their armies forth; yea, even the king himself went before his people; and they went up to the land of Nephi to destroy the people of Limhi.

And now Limhi had discovered them from the tower, even all their preparations for war did he discover; therefore he gathered his people together, and laid wait for them in the fields and in the forest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had come up, that the people of Limhi began to fall upon them from their waiting places, and began to sla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attle became exceedingly sore, for they fought like lions for their prey.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립하이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 내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수는 레이맨인들의 절반도 못되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또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싸웠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치 용처럼 그들은 싸웠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의 왕을 그들의 죽은 자들의 수 가운데서 발견하였으나, 그가 죽지는 아니하였고 부상을 당하고 땅 위에 버려져 있었나니, 그의 백성의 도망함이 이처럼 급속하였더라.

13 이에 그들이 그를 잡아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립하이 앞으로 데려와 이르되, 보소서 여기 레이맨인의 왕이 있나이다. 그가 부상을 입고 저희의 죽은 자 가운데 엎드러졌거늘, 저희가 버리고 갔으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그를 왕 앞에 데려왔사온즉, 이제 우리로 그를 죽이게 하소서 하였더라.

14 그러나 립하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이리로 데려와 나로 그를 보게 하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를 데려오매, 립하이가 그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을 치러 올라왔느냐? 보라, 내가 네게 한 맹세를 나의 백성이 깨뜨리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의 백성에게 한 맹세를 네가 깨뜨려야 하느냐?

15 이에 이제 왕이 이르되, 내가 맹세를 깨뜨린 것은 네 백성이 내 백성의 딸들을 데려간 연고니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네 백성을 치러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16 이에 이제 립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했었나니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백성 중에 찾아보리니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백성들 중에 조사를 행하게 하였더라.

17 이제 기드온이 이 일을 듣고, 그는 왕의 대장인지라, 나아가 왕에게 말하되, 청컨대 그리 마시옵고 이 백성을 조사하지 마시오며, 이 일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Limhi began to drive the Lamanites before them; yet they were not half so numerous as the Lamanites. But they fought for their lives, and for their wives, and for their children; therefore they exerted themselves and like dragons did they figh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nd the king of the Lamanites among the number of their dead; yet he was not dead, having been wounded and left upon the ground, so speedy was the flight of his people.

And they took him and bound up his wounds, and brought him before Limhi, and said: Behold, here is the king of the Lamanites; he having received a wound has fallen among their dead, and they have left him; and behold, we have brought him before you; and now let us slay him.

But Limhi said unto them: Ye shall not slay him, but bring him hither that I may see him. And they brought him. And Limhi said unto him: What cause have ye to come up to war against my people? Behold, my people have not broken the oath that I made unto you; therefore, why should ye break the oath which ye made unto my people?

And now the king said: I have broken the oath because thy people did carry away the daughters of my people; therefore, in my anger I did cause my people to come up to war against thy people.

And now Limhi had heard nothing concerning this matter; therefore he said: I will search among my people and whosoever has done this thing shall perish. Therefore he caused a search to be made among his people.

Now when Gideon had heard these things, he being the king's captain, he went forth and said unto the king: I pray thee forbear, and do not search this people, and lay not this thing to their charge.

- 18 왕은 이 백성들이 멸하려 했던 왕의 부친의 제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레이맨인의 딸들을 도적질한 자들이 아니니까?
- 19 하온즉 이제 보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그 왕에게 고하고, 그로 자기 백성에게 고하게 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소서. 이는 보소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치러 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소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아니함이다.
- 20 또 보소서, 그들은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오나니, 그 왕이 그들로 우리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반드시 멸망하리이다.
- 21 대저 우리에게 대하여 예언한 아빈아다이의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니까—또한 이 모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니까?
- 22 하온즉 이제 그 왕을 달래고,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한 맹세를 이행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나음이다. 그러므로 이토록 많은 피흘림을 멈추게 하사이다 하니라.
- 23 이에 이제 림하이 가 자기의 부친과 광야로 도망한 제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왕에게 고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간 일을 그들에게 돌리니라.
-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들에게 이르되, 무기를 지니지 말고 나의 백성을 맞으러 나아가자.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서약하거니와 나의 백성이 네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을 따라서 무기를 지니지 않고 레이맨인들을 맞으러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만나매, 레이맨인의 왕이 그들 앞에 절하고, 림하이의 백성을 위하여 간청하니라.
- 26 이에 레이맨인들이 림하이의 백성을 본즉 그들이 무기를 지니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들의 왕과 함께 평안히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니라.

For do ye not remember the priests of thy father, whom this people sought to destroy? And are they not in the wilderness? And are not they the ones who have stolen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And now, behold, and tell the king of these things, that he may tell his people that they may be pacified towards us; for behold they are already preparing to come against us; and behold also there are but few of us.

And behold, they come with their numerous hosts; and except the king doth pacify them towards us we must perish.

For are not the words of Abinadi fulfilled, which he prophesied against us—and all this because we would not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Lord, and turn from our iniquities?

And now let us pacify the king, and we fulfil the oath which we have made unto him; for it is better that we should be in bondage than that we should lose our lives; therefore, let us put a stop to the shedding of so much blood.

And now Limhi told the king all the things concerning his father, and the priests that had fled into the wilderness, and attributed the carrying away of their daughters 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was pacified towards his people; and he said unto them: Let us go forth to meet my people, without arms; and I swear unto you with an oath that my people shall not slay thy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llowed the king, and went forth without arms to meet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meet the Lamanites; and the king of the Lamanites did bow himself down before them, and did plead in behalf of the people of Limhi.

And when the Lamanites saw the people of Limhi, that they were without arms, they had compassion on them and were pacified towards them, and returned with their king in peace to their own land.



## 모사이야서 21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와 그의 백성들이 니파이 성으로 돌아와, 다시 평안히 그 땅에 거하기 시작하였더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이인들에게 대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그 땅 주변의 경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라.
- 3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왕이 림하이에게 한 맹세로 인하여, 감히 저들을 죽이려 하지는 아니하였어도,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권세 부리기를 일삼으며, 저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말 못하는 나귀를 부리듯 저들을 부리기 시작하였으니—
- 4 참으로 이같이 된 것은 모두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 5 이에 이제 니파이인들의 고난이 크고 저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낼 길이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사방으로 저들을 에워쌌음이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저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왕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기를 바라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저들이 저들의 불평으로 왕을 심히 괴롭게 한 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허락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원대로 하게 하였더라.
- 7 이에 저들이 다시 함께 모여, 갑주를 입고, 레이맨인들을 쳐서 그들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고자 나아가니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로 패하게 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한지라.
- 9 이에 이제 림하이의 백성들 가운데 큰 애통과 애곡이 있었나니, 과부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애통하며, 형제들은 그 형제들로 인하여 애통하였더라.
- 10 이제 그 땅에 과부가 심히 많았고, 저들이 매일 같이 크게 부르짖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였음이라.

## Mosiah 21

And it came to pass that Limhi and his people returned to the city of Nephi, and began to dwell in the land again in peace.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any days the Lamanites began again to be stirred up in anger against the Nephites, and they began to come into the borders of the land round about.

Now they durst not slay them, because of the oath which their king had made unto Limhi; but they would smite them on their cheeks, and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and began to put heavy burdens upon their backs, and drive them as they would a dumb ass—

Yea, all this was done that the word of the Lord might be fulfilled.

And now the afflictions of the Nephites were great, and there was no way that they could deliver themselves out of their hands, for the Lamanites had surrounded them on every sid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began to murmur with the king because of their afflictions; and they began to be desirous to go against them to battle. And they did afflict the king sorely with their complaints; therefore he granted unto them that they should do according to their desires.

And they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gain, and put on their armor, and went forth against the Lamanites to drive them out of their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beat them, and drove them back, and slew many of them.

And now there was a great mourning and lamentation among the people of Limhi, the widow mourning for her husband, the son and the daughter mourning for their father, and the brothers for their brethren.

Now there were a great many widows in the land, and they did cry mightily from day to day, for a great fear of the Lamanites had come upon them.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림하이의 남은 백성들을 일으켜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다시 싸우러 갔으나 많은 손실을 입고 다시 격퇴당하니라.
- 12 참으로 저들이 다시 곧 세 번째 갔으나 같은 모양으로 패하였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니파이 성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 13 이에 저들이 스스로 티끌에까지 겸손하게 되어, 속박의 멍에를 지며 스스로를 내어맡겨, 저들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리저리 내몰림을 당하며 짐을 지니라.
- 14 이에 저들이 실로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참으로 저들의 고난으로부터 저들을 건지시기를 저들의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었더라.
- 15 이에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셨으므로 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지는 아니하셨더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여, 곡식을 더욱 풍성히 기르기 시작하고, 양 떼와 소 떼도 그리하매, 저들이 굶주림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 17 이제 여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 남자들의 수보다 더욱 많은지라, 그러므로 림하이 왕이 명하여 모든 남자들은 각각 과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나누어 주어, 그들로 주려 죽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죽임을 당한 그들의 수가 컸던 까닭이었더라.
- 18 이제 림하이 백성들은 가능한 한 한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양 떼를 안전하게 지켰고,
- 19 또 왕 자신도 어찌다가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그의 호위병들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성벽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ir continual cries did stir up the remainder of the people of Limhi to anger against the Lamanites; and they went again to battle, but they were driven back again, suffering much loss.

Yea, they went again even the third time, and suffered in the like manner; and those that were not slain returned again to the city of Nephi.

And they did humble themselves even to the dust, subjecting themselves to the yoke of bondage, submitting themselves to be smitten, and to be driven to and fro, and burdened,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ir enemies.

And they did humble themselves even in the depths of humility; and they did cry mightily to God; yea, even all the day long did they cry unto their God that he would deliver them out of their afflictions.

And now the Lord was slow to hear their cry because of their iniquities; nevertheless the Lord did hear their cries, and began to soften the hearts of the Lamanites that they began to ease their burdens; yet the Lord did not see fit to deliver them out of bondag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gan to prosper by degrees in the land, and began to raise grain more abundantly, and flocks, and herds, that they did not suffer with hunger.

Now there was a great number of women, more than there was of men; therefore king Limhi commanded that every man should impart to the support of the widows and their children, that they might not perish with hunger; and this they di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 that had been slain.

Now the people of Limhi kept together in a body as much as it was possible, and secured their grain and their flocks;

And the king himself did not trust his person without the walls of the city, unless he took his guards with him, fearing that he might by some means fall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 20 또 그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주변을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광야로 달아나 레이맨인의 딸들을 도적질하여 그들에게 그토록 큰 멸망을 임하게 한 그 제사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함이었던더라.
- 21 이는 그들이 저들을 벌하기 위하여 저들을 잡기 원하였음이니, 이는 저들이 밤에 니파이 땅으로 들어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많은 귀한 물건들을 훔쳐 갔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서 저들을 기다렸더라.
-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 올 때까지, 레이맨인들과 림하이의 백성들 간에는 더 이상의 소요가 없었더라.
- 23 이에 왕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바깥에 있다가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노아의 제사인 줄로 생각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던져 넣게 하였나니, 그들이 노아의 제사였던들 그들로 죽음을 당하게 하였을 것이라.
- 24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요,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 25 이제 암몬이 오기 전에, 림하이 왕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내어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게 하였었는데, 그들이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더라.
-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살았던 한 땅을 발견하였으니, 참으로 마른 뼈들로 뒤덮인 땅이라. 참으로 그 곳은 사람들이 살았었던 땅이요 멸망을 당한 땅이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제이라헤믈라 땅이라 생각하고 니파이 땅으로 돌아오되, 암몬이 오기보다 여러 날 앞서지 아니하여 그 땅 경계에 도착하였더라.
- 27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왔나니, 곧 그들이 그 뼈를 발견한 백성의 기록이라. 그것이 금속판에 새겨져 있더라.

And he caused that his people should watch the land round about, that by some means they might take those priests that fled into the wilderness, who had stolen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and that had caused such a great destruction to come upon them.

For they were desirous to take them that they might punish them; for they had come into the land of Nephi by night, and carried off their grain and many of their precious things; therefore they laid wait fo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no more disturbance between the Lamanites and the people of Limhi, even until the time that Ammon and his brethren came into the land.

And the king having been without the gates of the city with his guard, discovered Ammon and his brethren; and supposing them to be priests of Noah therefore he caused that they should be taken, and bound, and cast into prison. And had they been the priests of Noah he would have caused that they should be put to death.

But when he found that they were not, but that they were his brethren, and had come from the land of Zarahemla, he was fill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Now king Limhi had sent, previous to the coming of Ammon, a small number of men to search for the land of Zarahemla; but they could not find it, and they were lost in the wilderness.

Nevertheless, they did find a land which had been peopled; yea, a land which was covered with dry bones; yea, a land which had been peopled and which had been destroyed; and they, having supposed it to be the land of Zarahemla, returned to the land of Nephi, having arrived in the borders of the land not many days before the coming of Ammon.

And they brought a record with them, even a record of the people whose bones they had found; and it was engraven on plates of ore.

- 28 이에 이제 림하이 왕이 암몬의 입으로부터 모사야 왕이 그러한 새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암몬 역시 기뻐하였더라.
- 29 그럼에도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처럼 많이 죽임을 당한 때문이요,
- 30 또한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 이처럼 많은 죄와 악을 범하게 한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아빈아다이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또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엘마와 그와 함께 간 백성들이 떠났음을 또한 슬퍼하였더라.
- 31 참으로 그들은 저들이 떠났음을 슬퍼하였나니, 이는 저들이 어디로 도피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제 그들은 기쁘게 저들과 합하였으리니, 이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였음이라.
- 32 또 이제 암몬이 온 이후로, 림하이 왕도 또한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고,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였더라.
-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땅에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지닌 자가 아무도 없었고, 암몬은 스스로를 합당하지 못한 종으로 생각하여 이 일 행하기를 거절한지라.
- 34 그러므로 그때에는 그들이 자신들로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고 주의 영을 기다렸나니, 이제 그들은 광야로 도망한 엘마와 그의 형제들 같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 35 그들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침례 받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미루었나니 그들의 침례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지리라.

And now Limhi was again filled with joy on learning from the mouth of Ammon that king Mosiah had a gift from God, whereby he could interpret such engravings; yea, and Ammon also did rejoice.

Yet Ammon and his brethren were filled with sorrow because so many of their brethren had been slain;

And also that king Noah and his priests had caused the people to commit so many sins and iniquities against God; and they also did mourn for the death of Abinadi; and also for the departure of Alma and the people that went with him, who had formed a church of God through the strength and power of God, and faith on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Abinadi.

Yea, they did mourn for their departure, for they knew not whither they had fled. Now they would have gladly joined with them, for they themselves had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God to ser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now since the coming of Ammon, king Limhi had also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God, and also many of his people, to ser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Limhi and many of his people were desirous to be baptized; but there was none in the land that had authority from God. And Ammon declined doing this thing, considering himself an unworthy servant.

Therefore they did not at that time form themselves into a church, waiting upon the Spirit of the Lord. Now they were desirous to become even as Alma and his brethren, who had fled into the wilderness.

They were desirous to be baptized as a witness and a testimony that they were willing to serve God with all their hearts; nevertheless they did prolong the time; and an account of their baptism shall be given hereafter.

36 이에 이제 암몬과 그의 무리와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은, 스스로를 레이맨인들의 손에서와 속박에서 건져 내고자 온갖 연구를 하였더라.

And now all the study of Ammon and his people, and king Limhi and his people, was to deliver themselves out of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from bondage.

## 모사이야서 22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림하이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지 의논하기 시작하였는데, 실로 그들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 일에 관한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음이다.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여자와 자녀들과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광야로 떠나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 길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효가 너무 많아, 림하이 백성들로서는 검으로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 생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라.
- 3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온이 나아가 왕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싸워 오매 있어 왕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 4 하온즉 이제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나를 무익한 종으로 알게 되지 아니하셨거나, 혹은 왕께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왕께 도움이 되었삽거든, 그와 같이 왕께서 이번에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리하시오면 내가 왕의 종이 되어 이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리이다.
- 5 이에 왕이 그에게 허락하여 그로 말하게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 6 성 뒤편에 뒷벽을 통하여 난 뒷길을 보소서. 레이맨인들, 곧 레이맨인들의 수비대가 밤에는 술에 취하오니, 그러므로 이 온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함께 모아, 밤에 그것들을 광야로 몰고 가게 하사이다.
- 7 그리고 나는 왕의 명을 좇아 가서 레이맨인들에게 마지막 술 조공을 바칠 것이요, 그들은 취하리니, 우리는 그들이 취하여 잠들었을 때 그들의 진지 왼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과할 것이다.

## Mosiah 22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mmon and king Limhi began to consult with the people how they should deliver themselves out of bondage; and even they did cause that all the people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and this they did that they might have the voice of the people concerning the matt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ould find no way to deliver themselves out of bondage, except it were to take their women and children, and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their tents, and depart into the wilderness; for the Lamanites being so numerous, it was impossible for the people of Limhi to contend with them, thinking to deliver themselves out of bondage by the sword.

Now it came to pass that Gideon went forth and stood before the king, and said unto him: Now O king, thou hast hitherto hearkened unto my words many times when we have been contending with our brethren, the Lamanites.

And now O king, if thou hast not found me to be an unprofitable servant, or if thou hast hitherto listened to my words in any degree, and they have been of service to thee, even so I desire that thou wouldst listen to my words at this time, and I will be thy servant and deliver this people out of bondage.

And the king granted unto him that he might speak. And Gideon said unto him:

Behold the back pass, through the back wall, on the back side of the city. The Lamanites, or the guards of the Lamanites, by night are drunken; therefore let us send a proclamation among all this people that they gather together their flocks and herds, that they may drive them into the wilderness by night.

And I will go according to thy command and pay the last tribute of wine to the Lamanites, and they will be drunken; and we will pass through the secret pass on the left of their camp when they are drunken and asleep.

- 8 이같이 우리는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 떼와, 우리의 소 떼들과 함께 떠나 광야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샤일롬 땅을 돌아서 여행할 것이니이다 하니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기드온의 말을 들으니라.
- 10 이에 립하이 왕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게 하였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술 조공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대한 선물로 술을 더 보내매, 그들이 립하이 왕이 그들에게 보낸 술을 마음껏 마시니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립하이 왕의 백성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함께 밤에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은 광야에서 샤일롬 땅을 돌아가서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의 진로를 돌려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였더라.
- 12 또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금과 은과 그들의 귀한 것들과 또한 그들의 양식을 광야로 가져갔었더라. 이에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더라.
- 13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있은 후에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매, 모사이야의 백성들과 합하여 그의 백성이 되니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가 또한 그들의 기록과 또한 립하이의 백성들에 의해 발견되었던 기록도 받으니라.
-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립하이의 백성이 밤에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광야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뒤쫓게 하였으나,
- 16 저들이 이틀동안 그들을 뒤쫓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의 자취를 따를 수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길을 잃으니라.

Thus we will depart with our women and our children, our flocks, and our herds into the wilderness; and we will travel around the land of Shilo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hearkened unto the words of Gideon.

And king Limhi caused that his people should gather their flocks together; and he sent the tribute of wine to the Lamanites; and he also sent more wine, as a present unto them; and they did drink freely of the wine which king Limhi did send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king Limhi did depart by night into the wilderness with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they went round about the land of Shilom in the wilderness, and bent their course towards the land of Zarahemla, being led by Ammon and his brethren.

And they had taken all their gold, and silver, and their precious things, which they could carry, and also their provisions with them,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pursued their journey.

And after being many days in the wilderness they arrived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joined Mosiah's people, and became his subjects.

And it came to pass that Mosiah received them with joy; and he also received their records, and also the records which had been found by the people of Limhi.

And now it came to pass when the Lamanites had found that the people of Limhi had departed out of the land by night, that they sent an army into the wilderness to pursue them;

And after they had pursued them two days, they could no longer follow their tracks; therefore they were lost in the wilderness.

노아 왕의 백성에 의해 광야로 쫓겨 들어간 엘마와 주의 백성의 기사.

## 모사이야서 23

- 1 이제 엘마는 주께로부터 노아 왕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이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린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일부를 취하여 노아 왕의 군대보다 앞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더라.
- 2 또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노아 왕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잡아 멸하지 못하니라.
- 3 이에 그들이 팔 일의 여정을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니라.
- 4 그리하여 그들이 한 땅에 이르니, 참으로 매우 아름답고 쾌적한 땅, 맑은 물의 땅이라.
- 5 이에 그들이 그들의 장막을 치고 땅을 갈기 시작하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근면하였고 열심히 일을 하였더라.
- 6 그리고 백성들은 엘마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원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음이라.
- 7 그러나 엘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항상 의인으로 너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너희가 왕을 가짐이 좋으리라.
- 9 그러나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의 죄악을 기억하라. 나 자신 올무에 잡혀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였나니, 그로 인해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되었느니라.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후에,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나로 그의 손에 있는 도구를 삼으사 그토록 많은 너희에게 그의 진리를 알게 하셨도다.

*An account of Alma and the people of the Lord, who were driven into the wilderness by the people of King Noah.*

## Mosiah 23

Now Alma, having been warned of the Lord that the armies of king Noah would come upon them, and having made it known to his people, therefore they gathered together their flocks, and took of their grain, and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before the armies of king Noah.

And the Lord did strengthen them, that the people of king Noah could not overtake them to destroy them.

And they fled eight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came to a land, yea, even a very beautiful and pleasant land, a land of pure water.

And they pitched their tents, and began to till the ground, and began to build buildings; yea, they were industrious, and did labor exceedingly.

And the people were desirous that Alma should be their king, for he was beloved by his people.

But he said unto them: Behold, it is not expedient that we should have a king; for thus saith the Lord: Ye shall not esteem one flesh above another, or one man shall not think himself above another; therefore I say unto you it is not expedient that ye should have a king.

Nevertheless, if it were possible that ye could always have just men to be your kings it would be well for you to have a king.

But remember the iniquity of king Noah and his priests; and I myself was caught in a snare, and did many things which were abominable in the sight of the Lord, which caused me sore repentance;

Nevertheless, after much tribulation, the Lord did hear my cries, and did answer my prayers, and has made me an instrument in his hands in bringing so many of you to a knowledge of his truth.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내가 자랑하지 아니 하노니, 이는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함이라.

12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노아 왕에게 학대받았으며, 그와 그의 제사들에게 속박 되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죄악으로 이끌려 갔나 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악의 줄로 결박되어 있었 느니라.

13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러한 결박에서, 참으로 곧 노아 왕과 그의 백성의 손에서와, 또한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 내심을 입 었으니, 그와 같이 나는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이 자유 안에 굳게 설 것과 너희가 아무 사람이라도 믿고 너희 위에 왕이 되게 하지 말기를 원하 노라.

14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길로 행하며 그 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 를 가르치는 자나 너희에게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15 이같이 참으로 엘마가 그의 백성을 가르쳐,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 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라 하니라.

16 그리고 이제 엘마는 그들의 대제사였으니, 그는 그들의 교회의 설립자였음이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권세를 받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전파하거나 가르칠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 가 그들의 모든 제사들과 그들의 모든 교사들을 성별하였나니, 이에 의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별 되지 아니하였더라.

18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그 땅을 헬람이라 칭하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헬람 땅에서 심히 번성하고 번영하였으며, 그들이 성을 세워 이를 헬람 성이라 하였더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 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Nevertheless, in this I do not glory, for I am unworthy to glory of myself.

And now I say unto you, ye have been oppressed by king Noah, and have been in bondage to him and his priests, and have been brought into iniquity by them; therefore ye were bound with the bands of iniquity.

And now as ye have been delivered by the power of God out of these bonds; yea, even out of the hands of king Noah and his people, and also from the bonds of iniquity, even so I desire that ye should stand fast in this liberty wherewith ye have been made free, and that ye trust no man to be a king over you.

And also trust no one to be your teacher nor your minister, except he be a man of God, walking in his ways and keeping his commandments.

Thus did Alma teach his people, that every man should love his neighbor as himself, that there should be no contention among them.

And now, Alma was their high priest, he being the founder of their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none received authority to preach or to teach except it were by him from God. Therefore he consecrated all their priests and all their teachers; and none were consecrated except they were just men.

Therefore they did watch over their people, and did nourish them with things pertaining to righteous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gan to prosper exceedingly in the land; and they called the land Hela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multiply and prosper exceedingly in the land of Helam; and they built a city, which they called the city of Helam.

Nevertheless the Lord seeth fit to chasten his people; yea, he trieth their patience and their faith.

- 22 그럼에도 불구하고—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
- 23 이는 보라, 그들이 속박되었으되, 주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을 건지셨고 그가 또 그의 능한 권능을 보이신지라, 그들의 기쁨이 참으로 컸느니라.
- 25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그들이 힐람 땅에, 곧 힐람 성에 있던 때에, 주위의 땅을 갈고 있을 때, 보라 레이맨인의 한 군대가 그 땅 경계 안에 있는지라.
-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의 형제들이 그 밭에서 도망하여, 힐람 성 안에 함께 모이니, 그들은 레이맨인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랐더라.
- 27 그러나 엘마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너희는 놀라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 28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주께서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을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니라.
-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매,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나아가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 넘기니 이에 레이맨인들이 힐람 땅을 차지하니라.
- 30 이제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의 뒤를 쫓았던 레이맨인의 군대가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었었더라.
- 31 그리고 보라, 저희가 노아 왕의 그 제사들을 그들이 앰울론이라 칭하는 곳에서 발견하매, 그들은 앰울론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었고 땅을 갈기 시작했었더라.
- 32 이제 그 제사들을 이끄는 자의 이름은 앰울론이 었더라.

Nevertheless—whosoever putteth his trust in him the same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Yea, and thus it was with this people.

For behold, I will show unto you that they were brought into bondage, and none could deliver them but the Lord their God, yea, even the God of Abraham and Isaac and of Jacob.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deliver them, and he did show forth his mighty power unto them, and great were their rejoicings.

Fo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while they were in the land of Helam, yea, in the city of Helam, while tilling the land round about, behold an army of the Lamanites was in the borders of the l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brethren of Alma fled from their fields, and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in the city of Helam; and they were much frightened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the Lamanites.

But Alma went forth and stood among them, and exhorted them that they should not be frightened, but that they should remember the Lord their God and he would deliver them.

Therefore they hushed their fears, and began to cry unto the Lord that he would soften the hearts of the Lamanites, that they would spare them,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soften the hearts of the Lamanites. And Alma and his brethren went forth and delivered themselves up into their hands; and the Lamanites took possession of the land of Helam.

Now the armies of the Lamanites, which had followed after the people of king Limhi, had been lost in the wilderness for many days.

And behold, they had found those priests of king Noah, in a place which they called Amulon; and they had begun to possess the land of Amulon and had begun to till the ground.

Now the name of the leader of those priests was Amulon.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울론이 레이맨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가 또한 레이맨인의 딸들인 그들의 아내들을 내보내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을 멸하지 않도록 간청하게 하였더라.

34 이에 레이맨인들이 앰울론과 그의 형제들을 그들의 아내들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35 이에 앰울론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에게 합류하였고, 그들이 니파이 땅을 찾아 광야를 여행하다가,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힐람 땅을 발견하였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엘마와 그의 형제들에게 만일 그들이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리라고 약속하였더라.

37 그러나 엘마가 그들에게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보여 준 후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아니하고, 힐람 땅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 엘마와 그의 형제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38 또 그들 중 나머지는 니파이 땅으로 갔으며, 그들 중 일부가 힐람 땅으로 돌아오며, 그 땅에 남아 있던 파수꾼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데려왔더라.

39 이에 레이맨인의 왕이 앰울론에게 허락하여 힐람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이맨인 왕의 뜻에 반하여서는 아무 일도 행할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mulon did plead with the Lamanites; and he also sent forth their wives, who were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to plead with their brethren, that they should not destroy their husbands.

And the Lamanites had compassion on Amulon and his brethren, and did not destroy them, because of their wives.

And Amulon and his brethren did join the Lamanites, and they were traveling in the wilderness in search of the land of Nephi when they discovered the land of Helam, which was possessed by Alma and his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promised unto Alma and his brethren, that if they would show them the way which led to the land of Nephi that they would grant unto them their lives and their liberty.

But after Alma had shown them the way that led to the land of Nephi the Lamanites would not keep their promise; but they set guards round about the land of Helam, over Alma and his brethren.

And the remainder of them went to the land of Nephi; and a part of them returned to the land of Helam, and also brought with them the wives and the children of the guards who had been left in the land.

And the king of the Lamanites had granted unto Amulon that he should be a king and a ruler over his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Helam; nevertheless he should have no power to do anything contrary to the will of the king of the Lamanites.

## 모사이야서 24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울론이 레이맨인의 왕의 눈에 호의를 얻은지라, 그러므로 레이맨인의 왕이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허락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되게 하였으니, 곧 셜론 땅과 샤일롬 땅과 앰울론 땅에 있는 백성이라.
- 2 이는 레이맨인들이 이 땅들을 모두 차지했었음이라. 그러므로 레이맨인의 왕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왕들을 임명했었더라.
- 3 그리고 이제 레이맨인의 왕의 이름은 레이맨이었나니,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 일컬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레이맨 왕이라 일컬어졌고, 그는 허다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 4 이에 그가 자기 백성들이 소유한 각 땅에 앰울론의 형제들 중에서 교사를 임명하였나니, 이리하여 레이맨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니파이의 언어가 가르쳐지기 시작하니라.
- 5 또 그들은 서로 우호적인 백성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앰울론의 형제들도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빈아다이의 말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라.
- 6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 기록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서로 편지할 수 있게 하였더라.
- 7 이리하여 레이맨인들은 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서로 교역하여 강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교활하고 세상의 지혜에 있어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심히 교활한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갖 간악함과 약탈을 기뻐하였더라.
- 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울론이 엘마와 그 형제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여, 그를 핍박하며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 Mosiah 24

And it came to pass that Amulon did gain favor in the eyes of the king of the Lamanites; therefore, the king of the Lamanites granted unto him and his brethren that they should be appointed teachers over his people, yea, even over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Shemlon, and in the land of Shilom, and in the land of Amulon.

For the Lamanites had taken possession of all these lands; therefore, the king of the Lamanites had appointed kings over all these lands.

And now the name of the king of the Lamanites was Laman, being called after the name of his father; and therefore he was called king Laman. And he was king over a numerous people.

And he appointed teachers of the brethren of Amulon in every land which was possessed by his people; and thus the language of Nephi began to be taught among all the people of the Lamanites.

And they were a people friendly one with another; nevertheless they knew not God; neither did the brethren of Amulon teach them anything concerning the Lord their God, neither the law of Moses; nor did they teach them the words of Abinadi;

But they taught them that they should keep their record, and that they might write one to another.

And thus the Lamanites began to increase in riches, and began to trade one with another and wax great, and began to be a cunning and a wise people, as to the wisdom of the world, yea, a very cunning people, delighting in all manner of wickedness and plunder, except it were among their own brethren.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mulon began to exercise authority over Alma and his brethren, and began to persecute him, and cause that his children should persecute their children.

- 9 이는 앰울론이 엘마를, 곧 그가 왕의 제사들 중 하나였음과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고 왕 앞에서 쫓겨난 것이 그인 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노여움을 품었음이라. 이는 그가 레이맨 왕에게 복종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여 그들에게 부역을 지우고, 그들 위에 감독자들을 두었음이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고난이 심히 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 11 이에 앰울론이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할 보초를 그들 위에 두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게 하였더라.
- 12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 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 14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 15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는 내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For Amulon knew Alma, that he had been one of the king's priests, and that it was he that believed the words of Abinadi and was driven out before the king, and therefore he was wroth with him; for he was subject to king Laman, yet he exercised authority over them, and put tasks upon them, and put taskmasters ov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so great were their afflictions that they began to cry mightily to God.

And Amulon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stop their cries; and he put guards over them to watch them, that whosoever should be found calling upon God should be put to death.

And Alma and his people did not raise their voices to the Lord their God, but did pour out their hearts to him; and he did know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Lord came to them in their afflictions, saying: Lift up your heads and be of good comfort, for I know of the covenant which ye have made unto me; and I will covenant with my people an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And I will also ease the burdens which are put upon your shoulders, that even you cannot feel them upon your backs, even while you are in bondage; and this will I do that ye may stand as witnesses for me hereafter, and that ye may know of a surety that I, the Lord God, do visit my people in their affliction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burdens which were laid upon Alma and his brethren were made light; yea, the Lord did strengthen them that they could bear up their burdens with ease, and they did submit cheerfully and with patience to all the will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so great was their faith and their patience that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them again, saying: Be of good comfort, for on the morrow I will deliver you out of bondage.

17 또 엘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에 앞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이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리라 하신지라.

1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백성이 밤에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또한 일부 그리하되, 참으로 온 밤 동안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더라.

19 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깊은 잠을 레이맨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매, 참으로 그들의 감독자들 모두가 깊은 잠에 든지라.

20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이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이 온종일 여행하고 나서 한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골짜기를 엘마라 칭했으니,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까닭이라.

21 참으로 그뿐 아니라 엘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를 쏟았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을진대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음이라.

22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와 그들의 모든 여자와 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23 그런 후 이제 주께서 엘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둘러 너와 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 레이맨인들이 깨어나 너를 뒤쫓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벗어나라. 내가 레이맨인들을 이 골짜기에서 막아 그들로 이 백성을 더 멀리 뒤쫓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떠나 광야로 여행해 들어가더라.

25 그리고 십이 일을 광야에 있을 후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매, 모사이야 왕이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니라.

And he said unto Alma: Thou shalt go before this people, and I will go with thee and deliver this people out of bondage.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his people in the night-time gathered their flocks together, and also of their grain; yea, even all the night-time were they gathering their flocks together.

And in the morning the Lord caused a deep sleep to come upon the Lamanites, yea, and all their task-masters were in a profound sleep.

And Alma and his people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and when they had traveled all day they pitched their tents in a valley, and they called the valley Alma, because he led their way in the wilderness.

Yea, and in the valley of Alma they poured out their thanks to God because he had been merciful unto them, and eased their burdens, and had delivered them out of bondage; for they were in bondage, and none could deliver them except it were the Lord their God.

And they gave thanks to God, yea, all their men and all their women and all their children that could speak lifted their voices in the praises of their God.

And now the Lord said unto Alma: Haste thee and get thou and this people out of this land, for the Lamanites have awakened and do pursue thee; therefore get thee out of this land, and I will stop the Lamanites in this valley that they come no further in pursuit of t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eparted out of the valley, and took their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after they had been in the wilderness twelve days they arrived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king Mosiah did also receive them with joy.

## 모사이야서 25

- 1 이에 이제 모사이야 왕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니라.
- 2 이제 니파이의 자손들 곧 니파이의 후손인 자들은, 물레크와 그와 함께 광야로 들어온 자들의 후손인 제이라헤믈라 백성만큼 많지 아니하였더라.
- 3 또 니파이 백성과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은 레이맨인들만큼 많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 절반도 채 못 되었더라.
- 4 이에 이제 니파이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였고, 제이라헤믈라 백성들도 모두 함께 모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 두 무리를 이루었더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지니프의 기록을 읽어 주었고, 또 읽어 주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가 지니프 백성의 기록을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읽어 주었느니라.
- 6 또 엘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고난의 기사를,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읽어 주었느니라.
- 7 이에 이제 모사이야가 기록 읽기를 마쳤을 때, 그 땅에 머물렀던 그의 백성들이 경이와 놀라움에 사로잡혔느니라.
- 8 이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바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속박에서 건져 내심을 입은 자들을 보았을 때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이요,
- 9 그리고 또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형제들을 생각하였을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음이요,
- 10 그리고 또 그들이 엘마와 그의 형제들을 레이맨인들의 손과 속박의 손아귀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음이요,

## Mosiah 25

And now king Mosiah caused that all the people should be gathered together.

Now there were not so many of the children of Nephi, or so many of those who were descendants of Nephi, as there were of the people of Zarahemla, who was a descendant of Mulek, and those who came with him into the wilderness.

And there were not so many of the people of Nephi and of the people of Zarahemla as there were of the Lamanites; yea, they were not half so numerous.

And now all the people of Nephi were assembled together, and also all the people of Zarahemla, and they were gathered together in two bodies.

And it came to pass that Mosiah did read, and caused to be read, the records of Zeniff to his people; yea, he read the records of the people of Zeniff, from the time they left the land of Zarahemla until they returned again.

And he also read the account of Alma and his brethren, and all their afflictions, from the time they left the land of Zarahemla until the time they returned again.

And now, when Mosiah had made an end of reading the records, his people who tarried in the land were struck with wonder and amazement.

For they knew not what to think; for when they beheld those that had been delivered out of bondage they were fill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And again, when they thought of their brethren who had been slain by the Lamanites they were filled with sorrow, and even shed many tears of sorrow.

And again, when they thought of the immediate goodness of God, and his power in delivering Alma and his brethren out of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of bondage, they did raise their voices and give thanks to God.

11 그리고 또 그들의 형제인 레이맨인들에 대해 그들의 죄 많고 더럽혀진 상태를 생각하였을 때, 그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는 고통과 고뇌로 가득차게 되었음이다.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앰울론과 그 형제들의 자녀인 자들이 그 아버지들의 행위를 싫어하여, 더 이상 그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니파이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아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고자 하여 니파이의 이름을 취하니라.

13 이제 제이라헤플라의 온 백성은 니파이인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나니, 이는 니파이의 후손인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나라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음이라.

1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와 읽어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엘마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였더라.

15 이에 그들이 여러 큰 무리를 이루어 모였을 때 엘마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무리에게서 다른 무리로 다니며, 회개와 주를 믿는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더라.

16 또 림하이의 백성과 그의 형제들, 곧 속박에서 건져 내심을 입었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 낸 것이 주였음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림하이 왕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고, 그의 모든 백성도 자기들 역시 침례 받기를 원하니라.

18 그러므로 엘마가 나아가서 물에 들어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니, 참으로 그가 물몬의 물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던 방식을 좇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또한 그가 침례를 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엘마의 말을 믿은 연고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엘마에게 허락하여 제이라헤플라 온 땅에 두루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각 교회를 관리할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임할 권능을 그에게 주었더라.

And again, when they thought upon the Lamanites, who were their brethren, of their sinful and polluted state, they were filled with pain and anguish for the welfare of their souls.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who were the children of Amulon and his brethren, who had taken to wife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were displeased with the conduct of their fathers, and they would no longer be called by the names of their fathers, therefore they took upon themselves the name of Nephi, that they might be called the children of Nephi and be numbered among those who were called Nephites.

And now all the people of Zarahemla were numbered with the Nephites, and this because the kingdom had been conferred upon none but those who were descendants of Nephi.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siah had made an end of speaking and reading to the people, he desired that Alma should also speak to the people.

And Alma did speak unto them, when they were assembled together in large bodies, and he went from one body to another, preaching unto the people repentance and faith on the Lord.

And he did exhort the people of Limhi and his brethren, all those that had been delivered out of bondage, that they should remember that it was the Lord that did deliv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had taught the people many things, and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o them, that king Limhi was desirous that he might be baptized; and all his people were desirous that they might be baptized also.

Therefore, Alma did go forth into the water and did baptize them; yea, he did baptize them after the manner he did his brethren in the waters of Mormon; yea, and as many as he did baptize did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this because of their belief on the words of Alma.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Mosiah granted unto Alma that he might establish churches throughout all the land of Zarahemla; and gave him power to ordain priests and teachers over every church.



- 20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모두 한 명의 교사에 의해 관리될 수가 없고, 그들 모두가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까닭이라.
- 21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 다른 무리를 이루어 함께 모여 교회라 일컬어졌고, 각 교회에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가 있어, 각 제사들은 엘마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대로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 22 그리하여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참으로 한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였나니, 이는 이 모든 교회에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23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믈라 땅에 일곱 교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 24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매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Now this was done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they could not all be governed by one teacher; neither could they all hear the word of God in one assembly;

Therefore they di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in different bodies, being called churches; every church having their priests and their teachers, and every priest preaching the word according as it was delivered to him by the mouth of Alma.

And thus, notwithstanding there being many churches they were all one church, yea, even the church of God; for there was nothing preached in all the churches except it were repentance and faith in God.

And now there were seven churches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were desirous to take upon them the name of Christ, or of God, they did join the churches of God;

And they were called the people of God. And the Lord did pour out his Spirit upon them, and they were blessed, and prospered in the land.

## 모사이야서 26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 2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 3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 4 이에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에 관하여는 별개의 백성이었고, 후에도 언제까지나 그러하여, 그 속되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나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 않았음이라.
- 5 그리고 이제 모사이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절반만큼도 그 수가 많지 아니하였으나, 형제들 중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많아졌더라.
- 6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그들이 그 아침하는 말로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죄를 범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죄를 범한 자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긴지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교사들이 이들을 제사들 앞에 데려와 제사들에게 넘겨주었고, 제사들은 그들을 대제사인 엘마 앞에 데려가니라.
- 8 이제 모사이야 왕은 엘마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는 그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많았으니, 참으로 백성들이 서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허다히 증거하였더라.
- 10 이제 교회에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었나니, 그러므로 엘마가 그 영에 곤혹함을 느껴 그들을 왕 앞에 데려가게 하였더라.

## Mosiah 26

Now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of the rising generation that could not understand the words of king Benjamin, being little children at the time he spake unto his people; and they did not believe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They did not believe what had been said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either did they believe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And now because of their unbelief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word of God; and their hearts were hardened.

And they would not be baptized; neither would they join the church. And they were a separate people as to their faith, and remained so ever after, even in their carnal and sinful state; for they would not call upon the Lord their God.

And now in the reign of Mosiah they were not half so numerous as the people of God; but because of the dissensions among the brethren they became more numerous.

For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deceive many with their flattering words, who were in the church, and did cause them to commit many sins; therefore it became expedient that those who committed sin, that were in the church, should be admonished by the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brought before the priests, and delivered up unto the priests by the teachers; and the priests brought them before Alma, who was the high priest.

Now king Mosiah had given Alma the authority over the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did not know concerning them; but there were many witnesses against them; yea, the people stood and testified of their iniquity in abundance.

Now there had not any such thing happened before in the church; therefore Alma was troubled in his spirit, and he caused that they should be brought before the king.

11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그들의 형제들에게 고소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왕 앞에 데려온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더욱이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잡혔거늘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왕께서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왕 앞에 데려 왔나이다 하였더라.

12 그러나 모사야 왕이 엘마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판단 받게 하노라 하는 지라.

13 이에 이제 엘마의 영이 다시 곤혹하게 되었더니, 그가 가서 이 일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주께 여쭙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할 것을 두려워하였음이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께 그 온 영혼을 쏟아 낸 후,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 엘마야, 네가 복이 있으며, 물몬의 물에서 침례 받은 자들도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된 것은 나의 종 아빈아다이의 그 말만을 믿는 너의 심히 큰 신앙으로 인함이요,

16 또 그들이 복됨은 내가 그들에게 한 그 말만을 믿는 그들의 심히 큰 신앙으로 인함이요,

17 또 네가 복됨은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교회를 세웠음으로 인함이니, 그들은 굳게 세워질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8 참으로 기꺼이 내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이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

19 또 네가 범법자에 관하여 나에게 물었으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20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성약하노니 너로 영생을 갖게 하리라. 그런즉 너는 나를 섬기며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양을 함께 모을지니라.

21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내 양이 될 것이요, 그를 너희가 교회에 받아들일지니, 그를 내가 또한 영접하리라.

And he said unto the king: Behold, here are many whom we have brought before thee, who are accused of their brethren; yea, and they have been taken in divers iniquities. And they do not repent of their iniquities; therefore we have brought them before thee, that thou mayest judge them according to their crimes.

But king Mosiah said unto Alma: Behold, I judge them not; therefore I deliver them into thy hands to be judged.

And now the spirit of Alma was again troubled; and he went and inquired of the Lord what he should do concerning this matter, for he feared that he should do wrong in the sight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 had poured out his whole soul to God, the voice of the Lord came to him, saying:

Blessed art thou, Alma, and blessed are they who were baptized in the waters of Mormon. Thou art blessed because of thy exceeding faith in the words alone of my servant Abinadi.

And blessed are they because of their exceeding faith in the words alone which thou hast spoken unto them.

And blessed art thou because thou hast established a church among this people; and they shall be establishe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Yea, blessed is this people who are willing to bear my name; for in my name shall they be called; and they are mine.

And because thou hast inquired of me concerning the transgressor, thou art blessed.

Thou art my servant; and I covenant with thee that thou shalt have eternal life; and thou shalt serve me and go forth in my name, and shalt gather together my sheep.

And he that will hear my voice shall be my sheep; and him shall ye receive into the church, and him will I also receive.

- 22 이는 보라, 이는 내 교회라. 침례 받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임이라. 또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이는 자는 내 이름을 믿을지니, 그를 내가 널리 용서하리라.
- 23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나임이니, 이는 그들을 창조한 자가 나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내 우편에 처소를 허락하는 자도 나임이라.
- 24 이는 보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일컬음을 받으며, 만일 그들이 나를 알면 나아와, 내 우편에 영원히 처소를 갖게 될 것임이라.
- 25 또 이같이 되리니 둘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나를 결코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아와 내 앞에 설 것이라.
- 26 그때 그들이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그들의 구속주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이 구속되지 아니할 것이라.
- 27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들이 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 2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음성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 그를 너희는 내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지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대하여 범법하는 자, 그를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너희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
- 30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 31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
- 32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할지니, 이때로부터 앞으로 이를 지킬지니라.

For behold, this is my church; whosoever is baptized shall be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whomsoever ye receive shall believe in my name; and him will I freely forgive.

For it is I that taketh upon me the sins of the world; for it is I that hath created them; and it is I that granteth unto him that believeth unto the end a place at my right hand.

For behold, in my name are they called; and if they know me they shall come forth, and shall have a place eternally at my right hand.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 the second trump shall sound then shall they that never knew me come forth and shall stand before me.

And then shall they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that I am their Redeemer; but they would not be redeemed.

And then I will confess unto them that I never knew them; and they shall depart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Therefore I say unto you, that he that will not hear my voice, the same shall ye not receive into my church, for him I will not receive at the last day.

Therefore I say unto you, Go; and whosoever transgresseth against me, him shall ye judge according to the sins which he has committed; and if he confess his sins before thee and me, and repenteth in the sincerity of his heart, him shall ye forgive, and I will forgive him also.

Yea, and as often as my people repent will I forgive them their trespasses against me.

And ye shall also forgive one another your trespasses; for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forgiveth not his neighbor's trespasses when he says that he repents, the same hath brought himself under condemnation.

Now I say unto you, Go; and whosoever will not repent of his sins the same shall not be numbered among my people; and this shall be observed from this time forward.

-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 고자 함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 교회의 백 성을 판단하고자 함이었더라.
- 3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죄악 중에 잡힌 자들을 판단하였더라.
- 35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고 백하는 자들, 그들은 그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 아렸으나,
- 36 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지 워졌더라.
-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교회의 제반 일을 바로잡으매,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며 교회의 일에 있어 심히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행하며, 많은 자들을 받아들이며 많은 자 들에게 침례를 주니라.
- 38 이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엘마와 교회를 돌보는 그의 동역자들이 행하되, 부지런함을 다하는 중에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온갖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리하였더라.
- 39 또 그들은 그 형제들을 권고하였고, 그들은 또 한 각자 자기의 죄, 곧 자기가 범한 죄에 따라 하 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받았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았더라.

And it came to pass when Alma had heard these words he wrote them down that he might have them, and that he might judge the people of that church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went and judged those that had been taken in iniquit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And whosoever repented of their sins and did confess them, them he did number among the people of the church;

And those that would not confess their sins and repent of their iniquity, the same were not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the church, and their names were blotted out.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did regulate all the affairs of the church; and they began again to have peace and to prosper exceedingly in the affairs of the church, walking circumspectly before God, receiving many, and baptizing many.

And now all these things did Alma and his fellow laborers do who were over the church, walking in all diligence, teaching the word of God in all things, suffering all manner of afflictions, being persecuted by all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they did admonish their brethren; and they were also admonished, every one by the word of God, according to his sins, or to the sins which he had committed, being commanded of God to pray without ceasing, and to give thanks in all things.

## 모사이야서 27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 너무 커진지라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불평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엘마에게 불평을 호소하였더라. 그리고 엘마가 그 문제를 그들의 왕 모사이야 앞에 제출하니 모사이야가 그의 제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그 땅 주변에 두루 포고를 보내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 아무라도 핍박하지 말 것이라 하니라.
- 3 또 모든 교회에는 두루 엄한 명령이 있어 그들 가운데 핍박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평등이 있을 것이며,
- 4 교만이나 거만이 그들의 화평을 어지럽히게 말 것이며,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여기며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였더라.
- 5 참으로 또한 그들의 모든 제사와 교사들도 병이나 심한 궁핍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 6 이에 그 땅에 다시 많은 화평이 있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수가 심히 많아지기 시작하여, 지면에 널리 참으로 북에 그리고 남에, 또 동에 그리고 서에 흩어져 그 땅 각지에 큰 성읍과 마을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 7 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매, 그들이 크고 부강한 백성이 되니라.
- 8 이제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또한 엘마의 아들 중 하나도 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는 그 부친을 따라 엘마라 불리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또 그는 말을 잘 하는 자였던지라,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가 백성 중 많은 자들을 이끌어 그의 죄악을 좇아 행하게 하였더라.

## Mosiah 27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persecutions which were inflicted on the church by the unbelievers became so great that the church began to murmur, and complain to their leaders concerning the matter; and they did complain to Alma. And Alma laid the case before their king, Mosiah. And Mosiah consulted with his priests.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Mosiah sent a proclamation throughout the land round about that there should not any unbeliever persecute any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church of God.

And there was a strict command throughout all the churches that there should be no persecutions among them, that there should be an equality among all men;

That they should let no pride nor haughtiness disturb their peace; that every man should esteem his neighbor as himself, laboring with their own hands for their support.

Yea, and all their priests and teachers should labor with their own hands for their support, in all cases save it were in sickness, or in much want; and doing these things, they did abound in the grace of God.

And there began to be much peace again in the land; and the people began to be very numerous, and began to scatter abroad upon the face of the earth, yea, on the north and on the south, on the east and on the west, building large cities and villages in all quarters of the land.

And the Lord did visit them and prosper them, and they became a large and wealthy people.

Now the sons of Mosiah were numbered among the unbelievers; and also one of the sons of Alma was numbered among them, he being called Alma, after his father; nevertheless, he became a very wicked and an idolatrous man. And he was a man of many words, and did speak much flattery to the people; therefore he led many of the people to do after the manner of his iniquities.

- 9 이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에 큰 방해거리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며, 백성 가운데 많은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그 권능을 그들에게 행사할 기회를 주었다.
- 1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이는 그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은밀히 다니며 하나님의 계명, 또는 실로 왕의 명령에 반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을 길 잃게 하려고 꾀하였음이라—
- 11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그가 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듯 하강하여 마치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말한지라, 그 음성으로 인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진동하였더라.
- 12 이에 그들의 놀라움이 심히 커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엘마야, 일어나 앞으로 나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리니, 내 백성의 범법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를 전복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 14 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버지인 그 종 엘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
- 15 또 이제 불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논박할 수 있느냐? 보라, 내 음성이 땅을 진동시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한 너희 앞에 나를 볼 수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And he became a great hinderment to the prosperity of the church of God; stealing away the hearts of the people; causing much dissension among the people; giving a chance for the enemy of God to exercise his power over them.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ile he was going about to destroy the church of God, for he did go about secretly with the sons of Mosiah seeking to destroy the church, and to lead astray the people of the Lord, contrary to the commandments of God, or even the king—

And as I said unto you, as they were going about rebelling against God, behol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them; and he descended as it were in a cloud; and he spake as it were with a voice of thunder, which caused the earth to shake upon which they stood;

And so great was their astonishment, that they fell to the earth, and understood not the words which he spake unto them.

Nevertheless he cried again, saying: Alma, arise and stand forth, for why persecutest thou the church of God? For the Lord hath said: This is my church, and I will establish it; and nothing shall overthrow it, save it is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And again, the angel said: Behold, the Lord hath heard the prayers of his people, and also the prayers of his servant, Alma, who is thy father; for he has prayed with much faith concerning thee that thou mightest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erefore, for this purpose have I come to convince thee of the power and authority of God, that the prayers of his servants might be answered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now behold, can ye dispute the power of God? For behold, doth not my voice shake the earth? And can ye not also behold me before you? And I am sent from God.

16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가라, 가서 힐람 땅에서와 니파이 땅에서 네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그가 그들을 건지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 앨마에게 이르노니, 네 길을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되, 설혹 네 스스로는 버림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리하라 하니라.

1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것이 천사가 앨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라, 이에 그가 떠나니라.

18 이에 이제 앨마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다시 땅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그들의 놀라움이 실로 컸음이라. 이는 그들 스스로의 눈으로 그들이 주의 천사를 보았으며, 그의 음성이 우레 같아 땅을 진동하게 하였고, 땅을 진동하게 하여 그것으로 마치 갈라질 듯 요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19 그리고 이제 앨마의 놀라움은 너무 컸던지라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또한 그가 약해져서 그 손도 움직일 수 없게 되매, 이러므로 그가 함께 한 자들에 의해 들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옮겨져 이윽고 그 부친 앞에 누이우니라.

20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의 부친에게 다 고하매, 그의 부친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그가 알았음이라.

21 이에 그가 허다한 무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또한 그와 함께 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들로 목격하게 하니라.

22 또 그가 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매,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주께서 앨마의 입을 여시어 그로 말하게 하실 것과 또한 그의 사지가 힘을 얻기를—그리하여 백성들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고 알게 되기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Now I say unto thee: Go, and remember the captivity of thy fathers in the land of Helam, and in the land of Nephi; and remember how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them; for they were in bondage, and he has delivered them. And now I say unto thee, Alma, go thy way, and seek to destroy the church no more, that their prayers may be answered, and this even if thou wilt of thyself be cast off.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se were the last words which the angel spake unto Alma, and he departed.

And now Alma and those that were with him fell again to the earth, for great was their astonishment; for with their own eyes they had beheld an angel of the Lord; and his voice was as thunder, which shook the earth; and they knew that there was nothing save the power of God that could shake the earth and cause it to tremble as though it would part asunder.

And now the astonishment of Alma was so great that he became dumb, that he could not open his mouth; yea, and he became weak, even that he could not move his hands; therefore he was taken by those that were with him, and carried helpless, even until he was laid before his father.

And they rehearsed unto his father all that had happened unto them; and his father rejoiced, for he knew that it was the power of God.

And he caused that a multitude should be gathered together that they might witness what the Lord had done for his son, and also for those that were with him.

And he caused that the priests shoul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nd they began to fast, and to pray to the Lord their God that he would open the mouth of Alma, that he might speak, and also that his limbs might receive their strength—that the eyes of the people might be opened to see and know of the goodness and glory of God.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 엘마의 사지가 그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안심하기를 구하니라.

24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속함을 받았음이라. 보소서 내가 영으로 났나이다.

25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과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26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7 내가 여러분께 이르거니와,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그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요, 이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버림받을 듯하였던 까닭이라.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헤쳐 지나며, 죽음 가까이에 이르도록 회개하고 나서, 주께서 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영원히 타는 것에서 빼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나니, 이에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나이다.

29 내 영혼이 쓰디쓴 담즙과 죄악의 결박에서 구속함을 받았나이다. 내가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나이다.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내가 빼내심을 입어, 내 영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하나이다.

30 내가 내 구속주를 배척하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바를 부인하였으나, 이제 그가 오실 것을 그들이 미리 볼 수 있음과 그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만민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리라.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for the space of two days and two nights, the limbs of Alma received their strength, and he stood up and began to speak unto them, bidding them to be of good comfort:

For, said he, I have repented of my sins, and have been redeemed of the Lord; behold I am born of the Spirit.

And the Lord said unto me: Marvel not that all mankind, yea, men and women,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must be born again; yea, born of God, changed from their carnal and fallen state, to a state of righteousness, being redeemed of God, becoming his sons and daughters;

And thus they become new creatures; and unless they do this, they can in nowise inherit the kingdom of God.

I say unto you, unless this be the case, they must be cast off; and this I know, because I was like to be cast off.

Nevertheless, after wading through much tribulation, repenting nigh unto death, the Lord in mercy hath seen fit to snatch me out of an everlasting burning, and I am born of God.

My soul hath been redeemed from the gall of bitterness and bonds of iniquity. I was in the darkest abyss; but now I behold the marvelous light of God. My soul was racked with eternal torment; but I am snatched, and my soul is pained no more.

I rejected my Redeemer, and denied that which had been spoken of by our fathers; but now that they may foresee that he will come, and that he remembereth every creature of his creating, he will make himself manifest unto all.

31 참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고백할 것이라. 곧 마지막 날, 만인이 서서 그에게 심판받게 될 때, 그때 그들이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고백하리니, 그들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의 눈길 아래 심히 떨며, 전율하며, 움츠러지리이다.

3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때로부터 엘마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엘마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리하여, 그들이 그 온 땅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공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히 핍박을 받고 그들 중 많은 자들에게 매를 맞았더라.

33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많은 위로를 주었나니,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오래 참음과 많은 노고로써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였더라.

34 그리고 그들 중 넷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암몬과 아론과 움너와 힘나이였으니, 이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이름이었더라.

35 이에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온 땅과 모사이야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들이 본 모든 것을 공포하며, 그들의 말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예언과 경전을 설명하니라.

36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37 이에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느냐! 이는 그들이 평화를 공포하였으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였으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음이니라.

Yea,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before him. Yea, even at the last day, when all men shall stand to be judged of him, then shall they confess that he is God; then shall they confess, who live without God in the world, that the judgment of an everlasting punishment is just upon them; and they shall quake, and tremble, and shrink beneath the glance of his all-searching ey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began from this time forward to teach the people, and those who were with Alma at the time the angel appeared unto them, traveling round about through all the land, publishing to all the people the things which they had heard and seen,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in much tribulation, being greatly persecuted by those who were unbelievers, being smitten by many of them.

But notwithstanding all this, they did impart much consolation to the church, confirming their faith, and exhorting them with long-suffering and much travail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four of them were the sons of Mosiah; and their names were Ammon, and Aaron, and Omner, and Himni; these were the names of the sons of Mosiah.

And they traveled throughout all the land of Zarahemla, and among all the people who were under the reign of king Mosiah, zealously striving to repair all the injuries which they had done to the church, confessing all their sins, and publishing all the things which they had seen, and explaining the prophecies and the scriptures to all who desired to hear them.

And thus they were instruments in the hands of God in bringing many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yea, to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And how blessed are they! For they did publish peace; they did publish good tidings of good; and they did declare unto the people that the Lord reigneth.

## 모사이야서 28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적은 수를 데리고 그들의 부친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들이 택한 바 이들과 함께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그들이 들은 것을 전파하며,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해 줄 것을 구하니—
- 2 그리함으로써 혹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며, 그들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혹 니파이인들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치료하여, 그들 역시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서로 친근하게 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땅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려 함이라.
- 3 이제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했나니, 이는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음이라.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하며 전율하게 하였더라.
- 4 이에 이같이 참으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들이 바로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음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을 아끼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더라. 그러할 지라도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뇌를 많이 겪었으니, 많은 고난을 겪으며 영원히 버림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고자 여러 날을 그 부친에게 간청하는지라.
- 6 모사이야 왕이 가서 그 아들들을 말씀을 전파하도록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올라가게 해야 할지 주께 여쭙었더라.
- 7 그리고 주께서 모사이야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올라가게 하라, 이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요,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네 아들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시는지라.

## Mosiah 28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sons of Mosiah had done all these things, they took a small number with them and returned to their father, the king, and desired of him that he would grant unto them that they might, with these whom they had selected, go up to the land of Nephi that they might preach the things which they had heard, and that they might impart the word of God to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That perhaps they might bring them to the knowledge of the Lord their God, and convince them of the iniquity of their fathers; and that perhaps they might cure them of their hatred towards the Nephites, that they might also be brought to rejoice in the Lord their God, that they might become friendly to one another, and that there should be no more contentions in all the land which the Lord their God had given them.

Now they were desirous that salvation should be declared to every creature, for they could not bear that any human soul should perish; yea, even the very thoughts that any soul should endure endless torment did cause them to quake and tremble.

And thus did the Spirit of the Lord work upon them, for they were the very vilest of sinners. And the Lord saw fit in his infinite mercy to spare them; nevertheless they suffered much anguish of soul because of their iniquities, suffering much and fearing that they should be cast off forev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plead with their father many days that they might go up to the land of Nephi.

And king Mosiah went and inquired of the Lord if he should let his sons go up among the Lamanites to preach the word.

And the Lord said unto Mosiah: Let them go up, for many shall believe on their words, and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deliver thy sons out of the hands of the Lamanites.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들의 요청대로 행할 것을 허락하니라.
- 9 이에 그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러 올라가려고 광야로 여행을 떠났으니, 이후에 내가 그들의 행한 바를 이야기하리로다.
- 10 이제 모사이야 왕에게는 왕국을 넘겨 줄 자가 없었나니, 이는 그의 아들 중 아무도 왕국을 받으려 하는 자가 없었음이라.
- 11 그러므로 그가 림하이의 백성에 의해 발견되었고, 림하이의 손으로 그에게 전달된 금판에 있는 기록을 번역하여 이를 기록하게 한 후,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이의 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지키고 보존해 온 모든 것을 취하니라.
- 12 또 이렇게 그가 행한 것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열망으로 인함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한 그 백성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여 마지 아니하였음이라.
- 13 그리고 이제 그는 활 모양의 두 테에 박힌 돌 두 개를 사용하여 그 기록을 번역하였더라.
- 14 이제 이러한 것은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태초로부터 예비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 15 또 이러한 것이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온 것은, 그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을 드러내시려 하심이라.
- 16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옛적 방식을 따라 선견자라 일컫느니라.
- 17 이제 모사이야가 이 기록 번역하기를 마치고 나니, 보라, 그것은 멸망당한 그 백성의 기사를, 그들이 멸망당한 때로부터 거슬러 저 큰 탑을 쌓기까지, 곧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매 그들이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던 때까지 이르고, 또한 그때로부터 거슬러 아담의 창조 때까지, 말해 주고 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Mosiah granted that they might go and do according to their request.

And they took their journey into the wilderness to go up to preach the word among the Lamanites; and I shall give an account of their proceedings hereafter.

Now king Mosiah had no one to confer the kingdom upon, for there was not any of his sons who would accept of the kingdom.

Therefore he took the records which were engraven on the plates of brass, and also the plates of Nephi, and all the things which he had kept and preserved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after having translated and caused to be written the records which were on the plates of gold which had been found by the people of Limhi, which were delivered to him by the hand of Limhi;

And this he did because of the great anxiety of his people; for they were desirous beyond measure to know concerning those people who had been destroyed.

And now he translated them by the means of those two stones which were fastened into the two rims of a bow.

Now these things were prepared from the beginning, and wer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or the purpose of interpreting languages;

And they have been kept and preserved by the hand of the Lord, that he should discover to every creature who should possess the land the iniquities and abominations of his people;

And whosoever has these things is called seer, after the manner of old times.

Now after Mosiah had finished translating these records, behold, it gave an account of the people who were destroyed, from the time that they were destroyed back to the building of the great tower, at the time the Lord confounded the language of the people and they wer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yea, and even from that time back until the creation of Adam.

18 이제 이 기사가 모사이야의 백성들로 심히 슬퍼 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으매, 그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19 그리고 이 기사는 이후에 기록되리니, 이는 보라, 이 기사에 기록된 것을 만백성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니라.

20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모사이야 왕이 이 일들을 행하고 난 후, 놋쇠판과 그가 간직해 왔던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엘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곧 엘마의 아들이라. 참으로 모든 기록과 또한 해석기니, 이를 그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이를 지키고 보전하며, 백성들에 관하여 기록하며, 이러한 것이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후대에 전해 내려왔던 것같이, 이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후대에 전할 것을 명하였더라.

Now this account did cause the people of Mosiah to mourn exceedingly, yea, they were filled with sorrow; nevertheless it gave them much knowledge, in the which they did rejoice.

And this account shall be written hereafter; for behold, it is expedient that all people should know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is account.

And now, as I said unto you, that after king Mosiah had done these things, he took the plates of brass, and all the things which he had kept, and conferred them upon Alma, who was the son of Alma; yea, all the records, and also the interpreters, and conferred them upon him, and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keep and preserve them, and also keep a record of the people, handing them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even as they had been handed down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 모사이야서 29

- 1 이제 모사이야가 이를 행하고 나서 온 땅에, 모든 백성 가운데 두루 내보내어, 누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할지 그들의 뜻을 알고자 하니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왕의 아들 아론이 우리의 왕과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 3 이제 아론은 니파이 땅으로 올라갔으므로, 왕이 그에게 나라를 넘겨 줄 수 없었고, 아론도 나라를 맡고자 아니하였으며, 모사이야의 아들들 중 아무도 기꺼이 나라를 맡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 4 이러므로 모사이야 왕이 다시 백성 가운데로 보내되, 참으로 기록한 말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었으니, 이것이 기록된 말이라 일렀으되,  
5 보라, 너희 내 백성, 곧 내 형제들이여, 이는 내가 너희를 그리 여김이어니와, 나는 너희가 생각해 보도록 청함을 받은 의제를 너희가 생각해 볼 것을 원하노니—이는 너희가 왕을 갖기 원함이라.
- 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거니와 나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양하고, 나라를 맡고자 아니하느니라.
- 7 그리고 이제 만일 그의 대신에 다른 이가 임명된다면, 보라 염려컨대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하노니, 참으로 나라에 대한 권리를 가진 나의 아들이 돌아서서 노하고, 이 백성 중 일부를 끌어내어 그를 따르게 하여, 그로 인해 너희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리며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또한 많은 백성의 영혼을 멸망하게 할지 누가 아느냐.
- 8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이 일을 생각하자. 이는 나의 아들을 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자가 만일 그의 대신에 임명된다 하여도 그를 멸할 아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이라.
- 9 또 만일 나의 아들이 다시 그의 교만과 헛된 것으로 돌아선다면 그가 말했던 것을 취소하고, 나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리니, 이로 인해 그와 또한 이 백성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되리다.

## Mosiah 29

Now when Mosiah had done this he sent out throughout all the land, among all the people, desiring to know their will concerning who should be their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came, saying: We are desirous that Aaron thy son should be our king and our ruler.

Now Aaron had gone up to the land of Nephi, therefore the king could not confer the kingdom upon him; neither would Aaron take upon him the kingdom; neither were any of the sons of Mosiah willing to take upon them the kingdom.

Therefore king Mosiah sent again among the people; yea, even a written word sent he among the people. And these were the words that were written, saying:

Behold, O ye my people, or my brethren, for I esteem you as such, I desire that ye should consider the cause which ye are called to consider—for ye are desirous to have a king.

Now I declare unto you that he to whom the kingdom doth rightly belong has declined, and will not take upon him the kingdom.

And now if there should be another appointed in his stead, behold I fear there would rise contentions among you. And who knoweth but what my son, to whom the kingdom doth belong, should turn to be angry and draw away a part of this people after him, which would cause wars and contentions among you, which would be the cause of shedding much blood and perverting the way of the Lord, yea, and destroy the souls of many people.

Now I say unto you let us be wise and consider these things, for we have no right to destroy my son, neither should we have any right to destroy another if he should be appointed in his stead.

And if my son should turn again to his pride and vain things he would recall the things which he had said, and claim his right to the kingdom, which would cause him and also this people to commit much sin.

10 그러한즉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이 일들을 내다보고, 이 백성들의 화평에 도움이 될 바를 행 하자.

11 그러므로 나의 남은 날 동안은 내가 너희 왕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우리가 판사들을 임명하여, 우리의 법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하게 하자. 또 우리는 이 백성의 일을 새로이 정비하리니, 이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할 판사가 되게 할 것임이 나라.

12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판단 받는 것이 나오니, 이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되, 사람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지는 아니함이라.

13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며, 그의 계명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할 의인들로 너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으로 만일 너희가 너희 왕으로 곧 나의 부친 베냐민이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같이 행할 사람을 둘 수 있다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항상 이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항상 왕을 두어 너희를 다스리게 함이 합당하리라.

14 또 나 자신도 내가 지닌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 해 일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땅에 두루 화평을 이루어, 전쟁이나 다툼 도적질이나 약탈함이나 살인함이나 여하한 죄악도 있지 못하게 하려 하였고,

15 그리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한 자는 그가 범한 범죄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내가 벌하였노라.

1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는 아니한즉, 너희를 다스릴 왕이나 왕들을 너희에게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17 이는 보라, 간악한 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게 하며, 또한 그 패망은 어찌 그리 크지!

18 참으로 노아 왕을, 곧 그의 사악함과 그의 가증함과 또한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을 기억하라. 얼마나 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보라,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속박당하게 되었느니라.

And now let us be wise and look forward to these things, and do that which will make for the peace of this people.

Therefore I will be your king the remainder of my days; nevertheless, let us appoint judges, to judge this people according to our law; and we will newly arrange the affairs of this people, for we will appoint wise men to be judges, that will judge this peopl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Now it is better that a man should be judged of God than of man, for the judgments of God are always just, but the judgments of man are not always just.

Therefore, if it were possible that you could have just men to be your kings, who would establish the laws of God, and judge this people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yea, if ye could have men for your kings who would do even as my father Benjamin did for this people—I say unto you, if this could always be the case then it would be expedient that ye should always have kings to rule over you.

And even I myself have labored with all the power and faculties which I have possessed, to teach you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o establish peace throughout the land, that there should be no wars nor contentions, no stealing, nor plundering, nor murdering, nor any manner of iniquity;

And whosoever has committed iniquity, him have I punished according to the crime which he has committed, according to the law which has been given to us by our fathers.

Now I say unto you, that because all men are not just it is not expedient that ye should have a king or kings to rule over you.

For behold, how much iniquity doth one wicked king cause to be committed, yea, and what great destruction!

Yea, remember king Noah, his wickedness and his abominations, and also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of his people. Behold what great destruction did come upon them; and also because of their iniquities they were brought into bondage.

- 19 그리고 그들의 전지하신 창조주의 중재가 아니었더라면, 이는 그들의 진실한 회개로 인한 것이었거니와,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피할 수 없이 속박된 채로 있을 것이라.
- 20 그러나 보라, 그가 그들을 건지셨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앞에 겸손한 까닭이라. 그들이 그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으므로 그가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도다. 참으로 주는 모든 경우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권능으로 이같이 역사하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팔을 펴시느니라.
- 21 또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많은 다툼과 많은 유혈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불의한 왕을 폐위시킬 수 없느니라.
- 22 이는 보라, 그에게는 그의 불의한 벗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자기의 호위병들을 두며, 자기 앞서 의 가운데 다스린 이들의 법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발 아래 짓밟으며,
- 23 또 법을 제정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내보내되, 참으로 그 자신의 사악함에 따른 법을 내보내며, 누구든지 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하며, 누구든지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멸하리니, 이같이 한 불의한 왕이 모든 의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 24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같은 가증함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 25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의 소리로써 판사들을 뽑아, 우리 조상들이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 너희가 판단을 받도록 하라. 그 법은 올바르며, 주의 손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 26 이제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하되, 백성 중 적은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니, 그러므로 백성의 소리에 의해 너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를 너희가 준수하고 그것으로 너희 법을 삼으라.

And were it not for the interposition of their all-wise Creator, and this because of their sincere repentance, they must unavoidably remain in bondage until now.

But behold, he did deliver them because they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him; and because they cried mightily unto him he di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and thus doth the Lord work with his power in all cases among the children of men, extending the arm of mercy towards them that put their trust in him.

And behold, now I say unto you, ye cannot dethrone an iniquitous king save it be through much contention, and the shedding of much blood.

For behold, he has his friends in iniquity, and he keepeth his guards about him; and he teareth up the laws of those who have reigned in righteousness before him; and he trampleth under his feet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e enacteth laws, and sendeth them forth among his people, yea, laws after the manner of his own wickedness; and whosoever doth not obey his laws he causeth to be destroyed; and whosoever doth rebel against him he will send his armies against them to war, and if he can he will destroy them; and thus an unrighteous king doth pervert the ways of all righteousness.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it is not expedient that such abominations should come upon you.

Therefore, choose you by the voice of this people, judges, that ye may be judged according to the laws which have been given you by our fathers, which are correct, and which were given them by the hand of the Lord.

Now it is not common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desireth anything contrary to that which is right; but it is common for the lesser part of the people to desire that which is not right; therefore this shall ye observe and make it your law—to do your business by the voice of the people.



27 그리고 만일 백성의 소리가 정녕 죄악을 택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참으로 그때가 바로 그가 큰 멸망으로 너희를 벌하실 때니 곧 그가 이제까지 이 땅에 벌을 내리신 대로니라.

28 또 이제 만일 너희에게 판사들이 있고, 그들이 주어진 법에 따라 너희를 판단하지 않거든,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상급 판사에게 판단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29 만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이 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거든, 너희는 너희의 하급 판사 소수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할 것이요, 그들은 백성의 소리에 따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을 판단할지니라.

30 또 나는 너희에게 주를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기를 명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할 것과 너희가 왕을 두지 말 것을 명하노니, 만일 이 백성이 죄와 악을 범하면 그 죄악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다.

31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많은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그 왕들의 머리 위에 응답되느니라.

32 이에 이제 나는 이러한 불평등이 이 땅에, 특히 나의 이 백성 중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또 나는 주께서 우리가 살며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합당히 여기시는 동안, 참으로 곧 우리의 후손 중 아무라도 이 땅 위에 남아 있는 동안, 이 땅이 자유의 땅이 되며 각 사람이 동일하게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3 그리고 모사이야 왕이 이 외에도 많은 것을 그들에게 써서 의로운 왕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걱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나니, 참으로 그들의 백성을 위하는 영혼의 모든 노고와,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게 호소하는 모든 불평들이라. 그가 이 모두를 그들에게 설명하였더라.

34 또 그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짐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각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할 것을 그들에게 이르더라.

35 또 불의한 왕이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이 어떤 불리한 여건 하에서 고초를 겪었는지를 그들에게 모두 알게 하였으니,

And if the time comes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doth choose iniquity, then is the time that the judgments of God will come upon you; yea, then is the time he will visit you with great destruction even as he has hitherto visited this land.

And now if ye have judges, and they do not judge you according to the law which has been given, ye can cause that they may be judged of a higher judge.

If your higher judges do not judge righteous judgments, ye shall cause that a small number of your lower judges should be gathered together, and they shall judge your higher judges, accord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 command you to do these things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 command you to do these things, and that ye have no king; that if these people commit sins and iniquities they shall be answered upon their own heads.

For behold I say unto you, the sins of many people have been caused by the iniquities of their kings; therefore their iniquities are answered upon the heads of their kings.

And now I desire that this inequality should be no more in this land, especially among this my people; but I desire that this land be a land of liberty, and every man may enjoy his rights and privileges alike, so long as the Lord sees fit that we may live and inherit the land, yea, even as long as any of our posterity remains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many more things did king Mosiah write unto them, unfolding unto them all the trials and troubles of a righteous king, yea, all the travails of soul for their people, and also all the murmurings of the people to their king; and he explained it all unto them.

And he told them that these things ought not to be; but that the burden should come upon all the people, that every man might bear his part.

And he also unfolded unto them all the disadvantages they labored under, by having an unrighteous king to rule over them;

36 참으로 그의 모든 죄악과 가증함과 모든 전쟁과 다툼과 유혈과 도적질함과 약탈함과 음행을 범함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라—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더라.

3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이러한 것을 백성들 가운데 내보낸 후 그들이 그의 말의 참됨을 깨닫게 되었더라.

38 그러므로 그들이 왕을 가지려는 소망을 버리고, 그 온 땅을 통하여 각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심히 열망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죄의 보응을 기꺼이 받고자 하였더라.

39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누가 그들의 판사가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지에 대하여, 그들의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땅 각처에 무리로 함께 모였고, 그들은 그들에게 허가된 자유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40 또 그들은 모사이야 왕에 대한 사랑이 정녕 강해졌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존경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를 이익, 곧 영혼을 더럽히는 저 이득을 추구하는 폭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부를 억지로 거두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는 일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에 화평을 이룩하였고, 그의 백성들을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를 측량할 수 없이 크게 존경하였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을 다스릴, 곧 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 판사를 임명하되, 이를 그 온 땅 전체를 통하여 행하였더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초대 대판사에 임명되니라. 그는 또한 대제사라, 그의 부친이 그 직분을 그에게 수여하고, 교회의 제반사에 관한 책임을 그에게 맡겼더라.

4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내리매, 그 땅에 두루 화평이 지속되니라.

Yea, all his iniquities and abominations, and all the wars, and contentions, and bloodshed, and the stealing, and the plundering, and the committing of whoredoms, and all manner of iniquities which cannot be enumerated—telling them that these things ought not to be, that they were expressly repugnant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now it came to pass, after king Mosiah had sent these things forth among the people they were convinced of the truth of his words.

Therefore they relinquished their desires for a king, and became exceedingly anxious that every man should have an equal chance throughout all the land; yea, and every man expressed a willingness to answer for his own sins.

T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they assembled themselves together in bodies throughout the land, to cast in their voices concerning who should be their judges, to judge them according to the law which had been given them; and they were exceedingly rejoiced because of the liberty which had been granted unto them.

And they did wax strong in love towards Mosiah; yea, they did esteem him more than any other man; for they did not look upon him as a tyrant who was seeking for gain, yea, for that lucre which doth corrupt the soul; for he had not exacted riches of them, neither had he delighted in the shedding of blood; but he had established peace in the land, and he had granted unto his people that they should be delivered from all manner of bondage; therefore they did esteem him, yea, exceedingly, beyond measur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appoint judges to rule over them, or to judge them according to the law; and this they did throughout all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was appointed to be the first chief judge, he being also the high priest, his father having conferred the office upon him, and having given him the charge concerning all the affairs of the church.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did walk in the ways of the Lord, and he did keep his commandments, and he did judge righteous judgments; and there was continual peace through the land.

44 이같이 제이라헤믈라의 온 땅을 통하여, 니파이 인이라 일컫는 모든 백성 가운데 판사 치세가 시작되었으니, 엘마가 그 첫 번째 재판사이었더라.

4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부친이 죽으매, 나이 팔십이 세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었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도 그의 치세 제삼십삼년에 역시 죽으매, 나이 육십삼 세라. 모두 합하여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오백구년이 되니라.

4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같이 그들 교회의 설립자인 엘마의 생애가 끝났느니라.

And thus commenced the reign of the judges throughout all the land of Zarahemla, among all the people who were called the Nephites; and Alma was the first and chief judg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his father died, being eighty and two years old, having lived to fulfil the commandments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Mosiah died also, in the thirty and third year of his reign, being sixty and three years old; making in the whole, five hundred and nine years from the time Lehi left Jerusalem.

And thus ended the reign of the king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d the days of Alma, who was the founder of their church.

# 엘마서

## 엘마의 아들

엘마의 아들이자, 니파이 백성의 초대 대판사요, 또한 교회의 대제사였던 엘마의 기사. 판사 치세와, 백성 중의 전쟁과 다툼의 기사. 또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의 전쟁의 기사, 곧 초대 대판사 엘마의 기록에 따른 것임.

### 엘마서 1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첫해에, 이때 이후로는, 모시아야 왕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릴 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갔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을 제정하였었고, 그 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가 만든 법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었더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판사석에서 다스린 첫해에, 재판을 받으러 그의 앞에 끌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크고, 힘이 세기로 유명한 자이었더라.
- 3 또 그가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바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교회를 압박하며,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모든 제사와 교사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아야 하고, 백성들에 의해 부양되어야 한다 하였더라.
- 4 그가 또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머리를 들고 기뻐해도 좋으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 The Book of Alma

## the Son of Alma

*The account of Alma, who was the son of Alma, the first and chief judge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also the high priest over the Church. An account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the wars and contentions among the people. And also an account of a war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ccording to the record of Alma, the first and chief judge.*

### Alma 1

Now it came to pass that in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from this time forward, king Mosiah having gone the way of all the earth, having warred a good warfare, walking uprightly before God, leaving none to reign in his stead; nevertheless he had established laws, and they were acknowledged by the people; therefore they were obliged to abide by the laws which he had made.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Alma in the judgment-seat, there was a man brought before him to be judged, a man who was large, and was noted for his much strength.

And he had gone about among the people, preaching to them that which he termed to be the word of God, bearing down against the church; declaring unto the people that every priest and teacher ought to become popular; and they ought not to labor with their hands, but that they ought to be supported by the people.

And he also testified unto the people that all mankind should be saved at the last day, and that they need not fear nor tremble, but that they might lift up their heads and rejoice; for the Lord had created all men, and had also redeemed all men; and, in the end, all men should have eternal life.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매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더니, 그 수가 많았던지라 그들이 그를 부양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더라.
- 6 이에 그가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져서, 매우 값진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전파하는 바를 좇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곧 그 교사들 중 하나를 만나매, 그가 교회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고자 저와 더불어 격렬히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에게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계하였더라.
- 8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니, 저는 림히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냄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던 자더라.
- 9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맞서매 그가 기드온에게 노하여, 자기의 칼을 뽑아 저를 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 기드온이 나이 많아, 그의 공격에 능히 맞서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저가 칼에 죽임을 당하니라.
- 10 이에 저를 죽인 그 사람이 교회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그가 범한 범죄대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엘마 앞으로 끌려왔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엘마 앞에 서서 매우 담대히 스스로를 변호하였더라.
- 12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사제술이 이 백성 가운데 도입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니라. 또 보라, 너는 사제술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였나니, 사제술이 이 백성 중에 강제된다 할진대 그로 인해 이들은 온전히 멸망되리로다.
- 13 또 너는 한 의로운 사람, 참으로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선을 행한 한 사람의 피를 흘렸나니, 우리가 너를 살려둘진대 그의 피가 보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teach these things so much that many did believe on his words, even so many that they began to support him and give him money.

And he began to be lifted up in the pride of his heart, and to wear very costly apparel, yea, and even began to establish a church after the manner of his preaching.

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going, to preach to those who believed on his word, he met a man who belonged to the church of God, yea, even one of their teachers; and he began to contend with him sharply, that he might lead away the people of the church; but the man withstood him, admonishing him with the words of God.

Now the name of the man was Gideon; and it was he who w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God in delivering the people of Limhi out of bondage.

Now, because Gideon withstood him with the words of God he was wroth with Gideon, and drew his sword and began to smite him. Now Gideon being stricken with many years, therefore he was not able to withstand his blows, therefore he was slain by the sword.

And the man who slew him was taken by the people of the church, and was brought before Alma,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 crimes which he had committe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tood before Alma and pled for himself with much boldness.

But Alma said unto him: Behol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priestcraft has been introduced among this people. And behold, thou art not only guilty of priestcraft, but hast endeavored to enforce it by the sword; and were priestcraft to be enforced among this people it would prove their entire destruction.

And thou hast shed the blood of a righteous man, yea, a man who has done much good among this people; and were we to spare thee his blood would come upon us for vengeance.

14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왕, 모사이야가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네게 사형을 언도하노니, 그 법은 이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야 하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으매, 그의 이름은 니허라. 그들이 그를 맨타이 언덕 꼭대기에 끌고 갔고, 거기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으니, 아니 그보다는 그가 스스로 인정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욕된 죽음을 당하니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땅 도처에 사제술이 퍼지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많아, 그들이 나아가 거짓 교리를 전파하였음이었요, 그들이 이를 행한 것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였더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알려질 경우 감히 거짓말하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전파하는 체하였으니, 이제 법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미칠 수 없었더라.

18 또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도적질하려 아니하였으니, 그러한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었요, 또한 그들이 감히 강탈하거나 살인하려고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음이라.

1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더라.

20 참으로 그들을 핍박하며, 온갖 말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함이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눈에 교만하지 아니한 연고요, 그들이 참으로 돈 없이 값 없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연고더라.

21 이제 교회의 백성 가운데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핍박해서는 아니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 핍박이 있어선 아니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더라.

Therefore thou art condemned to die, according to the law which has been given us by Mosiah, our last king; and it has been acknowledged by this people; therefore this people must abide by the law.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ook him; and his name was Nehor; and they carried him upon the top of the hill Manti, and there he was caused, or rather did acknowledge, between the heavens and the earth, that what he had taught to the people was contrary to the word of God; and there he suffered an ignominious death.

Nevertheless, this did not put an end to the spreading of priestcraft through the land; for there were many who loved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and they went forth preaching false doctrines; and this they did for the sake of riches and honor.

Nevertheless, they durst not lie, if it were known, for fear of the law, for liars were punished; therefore they pretended to preach according to their belief; and now the law could have no power on any man for his belief.

And they durst not steal, for fear of the law, for such were punished; neither durst they rob, nor murder, for he that murdered was punished unto death.

But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of God began to persecute those that did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had taken upon them the name of Christ.

Yea, they did persecute them, and afflict them with all manner of words, and this because of their humility; because they were not proud in their own eyes, and because they did impart the word of God, one with another,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Now there was a strict law among the people of the church, that there should not any man, belonging to the church, arise and persecute those that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and that there should be no persecution among themselves.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대적들과 뜨겁게 다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주먹다짐에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들은 주먹으로 서로 치곤 하였더라.

23 이제 이 일이 엘마의 치세 제이년에 있었고, 그 일은 교회에 많은 고난의 원인이 되었나니, 참으로 그 일은 교회에 있어 많은 시험의 원인이 되었더라.

24 이는 많은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였음이라. 또한 많은 자들이 스스로 그들 중에서 물러갔더라.

25 이제 이 일이 신앙 안에 굳게 선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들 위에 임하는 핍박을 인내로써 견디었더라.

26 또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저들의 일을 떠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의 일을 떠났으며, 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들 모두가 부지런히 그들의 일에 다시 돌아갔으니, 제사가 스스로를 그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지 아니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낮지 아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하였고,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일하였더라.

27 또 그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그 재물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그들은 값비싼 의복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깨끗하고 단정하였더라.

28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참으로 교회의 제반사를 확립하였고,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하여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더라.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among them who began to be proud, and began to contend warmly with their adversaries, even unto blows; yea, they would smite one another with their fists.

Now this was in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Alma, and it was a cause of much affliction to the church; yea, it was the cause of much trial with the church.

For the hearts of many were hardened, and their names were blotted out, that they were remembered no more among the people of God. And also many withdrew themselves from among them.

Now this was a great trial to those that did stand fast in the faith; nevertheless, they were steadfast and immovable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y bore with patience the persecution which was heaped upon them.

And when the priests left their labor to impart the word of God unto the people, the people also left their labors to hear the word of God. And when the priest had imparted unto them the word of God they all returned again diligently unto their labors; and the priest, not esteeming himself above his hearers, for the preacher was no better than the hearer, neither was the teacher any better than the learner; and thus they were all equal, and they did all labor, every man according to his strength.

And they did impart of their substance, every man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d, to the poor, and the needy, and the sick, and the afflicted; and they did not wear costly apparel, yet they were neat and comely.

And thus they did establish the affairs of the church; and thus they began to have continual peace again, notwithstanding all their persecutions.

29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부유하게 되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으니—양 떼와 소 떼와, 온갖 살진 짐승이 풍부하였으며, 또한 곡식과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이 풍부하였으며, 비단과 세마포와 온갖 좋은 검소한 옷감이 풍부하였느니라.

30 또 이같이, 그들이 번영하는 가운데, 그들이 벗은 자나 주린 자나 목마른 자나 병든 자나 양육 받지 못한 자를 아무도 보내어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재물에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간에, 늙은 자와 젊은 자 매인 자와 자유로운 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더라.

31 이에 이같이 그들은 번영하여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다.

32 이는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마술과 우상 숭배 또는 게으름과 수다와 시기와 다툼에 탐닉하며,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그들 스스로의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져서 핍박하며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강탈하며 음행과 살인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였음이라. 그러나 법은 가능한 대로 그것을 범하는 자 모두에게 시행되었더라.

3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에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바대로 벌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더욱 잠잠해져서, 알려질 경우 감히 아무 간악함도 범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판사 치세 제오년에 이르기까지 니파이 백성 가운데 많은 평화가 있으니라.

And now, because of the steadiness of the church they began to be exceedingly rich, having abundance of all things whatsoever they stood in need—an abundance of flocks and herds, and fatlings of every kind, and also abundance of grain, and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precious things, and abundance of silk and fine-twined linen, and all manner of good homely cloth.

And thus, in their prosperous circumstances, they did not send away any who were naked, or that were hungry, or that were athirst, or that were sick, or that had not been nourished; and they did not set their hearts upon riches; therefore they were liberal to all, both old and young, both bond and free, both male and female, whether out of the church or in the church, having no respect to persons as to those who stood in need.

And thus they did prosper and become far more wealthy than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ir church.

For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ir church did indulge themselves in sorceries, and in idolatry or idleness, and in babblings, and in envyings and strife; wearing costly apparel; being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own eyes; persecuting, lying, thieving, robbing, committing whoredoms, and murdering, and all manner of wickedness; nevertheless, the law was put in force upon all those who did transgress it, inasmuch as it was possible.

And it came to pass that by thus exercising the law upon them, every man suffering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d done, they became more still, and durst not commit any wickedness if it were known; therefore, there was much peace among the people of Nephi until the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 엘마서 2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치세 제오년 초에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으니, 이는 애플리싸이라 하는 어떠한 자로 인함이라. 그는 매우 간교한 자요,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현명한 자라, 그는 기드온을 칼로 죽이고, 법에 따라 처형된 자의 반차를 따른 자더니—
- 2 이제 이 애플리싸이가 그의 간교함으로 많은 백성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매, 그 수효가 많아 그들이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들이 애플리싸이를 세워 백성들의 왕을 삼고자 힘쓰기 시작하였더라.
- 3 이제 이는 교회의 백성들과 또한 애플리싸이의 설득에 끌려가지 아니한 모든 이에게 놀라운 것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알기로 법에 의하건대 그러한 일은 백성들의 소리로 확립되어야만 하였음이라.
- 4 그러므로 만일 애플리싸이가 백성의 소리를 얻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는 간악한 자인지라, 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와 교회의 특권을 박탈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음이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 전역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애플리싸이에게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 따로 무리를 이루어, 서로 많은 논쟁과 경악스러운 다툼을 가졌더라.
- 6 이에 이리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그 문제에 관하여 투표하고, 이를 판사들 앞에 제출하였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애플리싸이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지라, 애플리싸이가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 8 이제 이는 그를 반대하던 자들의 마음에 많은 기쁨을 안겨 주었으나, 애플리싸이는 자기에게 찬성하는 자들을 선동하여 자기에게 찬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노하게 하였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함께 모여 애플리싸이를 구별하여, 저들의 왕이 되게 하였더라.

## Alma 2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fifth year of their reign there began to be a contention among the people; for a certain man, being called Amlici, he being a very cunning man, yea, a wise man as to the wisdom of the world, he being after the order of the man that slew Gideon by the sword, who was executed according to the law—

Now this Amlici had, by his cunning, drawn away much people after him; even so much that they began to be very powerful; and they began to endeavor to establish Amlici to be a king over the people.

Now this was alarming to the people of the church, and also to all those who had not been drawn away after the persuasions of Amlici; for they knew that according to their law that such things must be established by the voice of the people.

Therefore, if it were possible that Amlici should gain the voice of the people, he, being a wicked man, would deprive them of their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hurch; for it was his intent to destroy the church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assembled themselves together throughout all the land, every man according to his mind, whether it were for or against Amlici, in separate bodies, having much dispute and wonderful contentions one with another.

And thus they di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to cast in their voices concerning the matter; and they were laid before the judg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came against Amlici, that he was not made king over the people.

Now this did cause much joy in the hearts of those who were against him; but Amlici did stir up those who were in his favor to anger against those who were not in his favo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nd did consecrate Amlici to be their king.

10 이제 애플리싸이가 저들의 왕이 되었을 때 저들을 명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게 하였으니, 이렇게 그가 한 것은 저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함이었더라.

11 이제 애플리싸이의 백성들은 애플리싸이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애플리싸이인이라 일컬어졌고, 나머지는 니파이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더라.

12 그러므로 니파이인 백성들은 애플리싸이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저들을 만날 준비를 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칼과 신월도와 활과 화살과 돌과 물매와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스스로 무장하였더라.

13 이에 이리하여 그들은 애플리싸이인들이 올 때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그들의 수효에 따라, 대장들과 상급대장들과 총대장들이 임명되어 있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애플리싸이가 자기 사람들을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켰고, 그도 자기 백성들 위에 통솔자들과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형제를 치게 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애플리싸이인들은 제이라헤물라 땅 곁으로 흐르는 시돈 강 동편 앰나이 후 언덕에 올라와, 거기서 니파이인들과 싸우기 시작하였더라.

16 이제 엘마는 니파이 백성의 대판사요 통치자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그의 대장들과 상급대장들과 함께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애플리싸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17 그리고 그들이 시돈 동편 언덕 위에서 애플리싸이인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애플리싸이인들이 큰 힘을 내어 니파이인들과 싸웠던지라, 니파이인들이 많이 애플리싸이인들 앞에 쓰러졌느니라.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니파이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매, 그들이 애플리싸이인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니, 저들이 니파이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느니라.

Now when Amlici was made king over them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ake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and this he did that he might subject them to him.

Now the people of Amlici were distinguished by the name of Amlici, being called Amlicites; and the remainder were called Nephites, or the people of God.

Therefore the people of the Nephites were aware of the intent of the Amlicites, and therefore they did prepare to meet them; yea, they did arm themselves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with bows, and with arrows, and with stones, and with slings, and with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of every kind.

And thus they were prepared to meet the Amlicites at the time of their coming. And there were appointed captains, and higher captains, and chief captains, according to their numbers.

And it came to pass that Amlici did arm his men with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of every kind; and he also appointed rulers and leaders over his people, to lead them to war against their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mlicites came upon the hill Amnihu, which was east of the river Sidon, which ran by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re they began to make war with the Nephites.

Now Alma, being the chief judge and the governor of the people of Nephi, therefore he went up with his people, yea, with his captains, and chief captains, yea, at the head of his armies, against the Amlicites to battle.

And they began to slay the Amlicites upon the hill east of Sidon. And the Amlicites did contend with the Nephites with great strength, insomuch that many of the Nephites did fall before the Amlicites.

Nevertheless the Lord did strengthen the hand of the Nephites, that they slew the Amlicites with great slaughter, that they began to flee before them.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이 그 날 종일토록 애클리싸이인들을 추격하여, 저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매, 애클리싸이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만 이천오백삼십이 인이요, 니파이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육천오백육십이 인이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애클리싸이인들을 더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드온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으니, 이 골짜기는 니허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한 기드온의 이름을 따라 불리우는 곳이라, 이 골짜기에서 니파이인들은 밤 동안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21 그리고 엘마는 정탐들을 보내어 애클리싸이인들의 남은 자들을 따르게 하여, 저들의 계획과 책략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던더라.

22 이제 그가 내보내어 애클리싸이인들의 진영을 살피게 한 자들은 지렘과 앰노어와 맨타이와 림허라 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애클리싸이인들의 진영을 살피러 나간 자들이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크게 놀라고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니파이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24 보라, 우리가 애클리싸이인들의 진영을 따르는데, 니파이 땅으로 가는 길에, 제이라헤믈라 땅 위쪽, 미논 땅에서, 우리가 레이맨인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크게 놀랐느니라. 또 보라, 애클리싸이인들이 저들과 합류하였더라.

25 또 저들은 그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공격하고 있어,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저들 앞에서 도망하여 우리 성을 향하여 오고 있나니,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면 저들이 우리 성을 점령하여, 우리의 부친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지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떠나 그들의 성을 향하였나니, 이는 제이라헤믈라 성이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did pursue the Amlicites all that day, and did slay them with much slaughter, insomuch that there were slain of the Amlicites twelve thousand five hundred thirty and two souls; and there were slain of the Nephites six thousand five hundred sixty and two soul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could pursue the Amlicites no longer he caused that his people should pitch their tents in the valley of Gideon, the valley being called after that Gideon who was slain by the hand of Nehor with the sword; and in this valley the Nephites did pitch their tents for the night.

And Alma sent spies to follow the remnant of the Amlicites, that he might know of their plans and their plots, whereby he might guard himself against them, that he might preserve his people from being destroyed.

Now those whom he had sent out to watch the camp of the Amlicites were called Zeram, and Amnor, and Manti, and Limher; these were they who went out with their men to watch the camp of the Amlic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y returned into the camp of the Nephites in great haste, being greatly astonished, and struck with much fear, saying:

Behold, we followed the camp of the Amlicites, and to our great astonishment, in the land of Minon, above the land of Zarahemla, in the course of the land of Nephi, we saw a numerous host of the Lamanites; and behold, the Amlicites have joined them;

And they are upon our brethren in that land; and they are fleeing before them with their flocks,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towards our city; and except we make haste they obtain possession of our city, and our fathers, and our wives, and our children be slai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took their tents, and departed out of the valley of Gideon towards their city, which was the city of Zarahemla.

27 그런데 보라, 그들이 시돈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거의 마치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레이맨인들과 애틀리싸이인들이 그들을 멸하고자 그들을 공격하였더라.

28 그럴지라도, 니파이인들은 주의 손으로 강하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레이맨인들과 애틀리싸이인들이 그들 앞에서 엎드러졌느니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애틀리싸이와 더불어 대면하여 칼로 싸우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다하여 싸웠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두터운 신앙으로 역사되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자비를 베푸사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하며 보전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31 이제 엘마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애틀리싸이와 더불어 싸우더니, 그가 강하게 되어 애틀리싸이를 칼로 죽였더라.

32 그가 또한 레이맨인의 왕과 더불어 싸웠으나, 레이맨인의 왕이 엘마 앞에서 뒤로 도망하여 자기의 호위병들을 보내어 엘마와 더불어 싸우게 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엘마는, 자기의 호위병들과 함께, 레이맨인의 왕의 호위병들과 더불어 싸워 마침내 그들을 죽이고 물리쳤더라.

34 또 이리하여 그는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의 시체를 시돈 물에 던져, 시돈 강 서편에 있는 땅 곧 다시 말해 그 독을 말끔히 치웠으니, 이는 그리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건너와 시돈 강 서편에서 레이맨인들 및 애틀리싸이인들과 더불어 싸울 공간을 갖게 하고자 함이라.

35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시돈 강을 건너매 레이맨인들과 애틀리싸이인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And behold, as they were crossing the river Sidon,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being as numerous almost, as it were, as the sands of the sea, came upon them to destroy them.

Nevertheless, the Nephites being strengthened by the hand of the Lord, having prayed mightily to him that he would deliver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therefore the Lord did hear their cries, and did strengthen them, and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did fall before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fought with Amlici with the sword, face to face; and they did contend mightily, one with ano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being a man of God, being exercised with much faith, cried, saying: O Lord, have mercy and spare my life, that I may be an instrument in thy hands to save and preserve this people.

Now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he contended again with Amlici; and he was strengthened, insomuch that he slew Amlici with the sword.

And he also contended with the king of the Lamanites; but the king of the Lamanites fled back from before Alma and sent his guards to contend with Alma.

But Alma, with his guards, contended with the guards of the king of the Lamanites until he slew and drove them back.

And thus he cleared the ground, or rather the bank, which was on the west of the river Sidon, throwing the bodies of the Lamanites who had been slain into the waters of Sidon, that thereby his people might have room to cross and contend with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on the west side of the river Sido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all crossed the river Sidon that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began to flee before them, notwithstanding they were so numerous that they could not be numbered.

36 또 이에 저들이 니파이인들 앞에서 서편과 북편의 광야를 향하여 그 땅 경계를 넘어 도망하매, 니파이인들이 힘을 다하여 저들을 따라가서 저들을 도륙하였더라.

37 실로 저들은 사방으로 만난 바 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쫓기어 서편과 북편에 흩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이윽고 허어모운츠라 하는 광야에 미치기에 이르렀으니, 이 곳은 광야에서 굶주린 들짐승들이 들끓는 지역이더라.

38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들이 그 부상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어, 저 짐승들과 또한 공중의 수리들에게 먹히매, 저들의 뼈가 드러나 땅 위에 무더기로 쌓이니라.

And they fled before the Nephites towards the wilderness which was west and north, away beyond the borders of the land; and the Nephites did pursue them with their might, and did slay them.

Yea, they were met on every hand, and slain and driven, until they were scattered on the west, and on the north, until they had reached the wilderness, which was called Hermounts; and it was that part of the wilderness which was infested by wild and ravenous beasts.

And it came to pass that many died in the wilderness of their wounds, and were devoured by those beasts and also the vultures of the air; and their bones have been found, and have been heaped up on the earth.

### 앨마서 3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의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니파이인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을 묻고 나서—이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가 큰 연고라—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묻기를 마치고 나서 모두 자기 땅으로, 자기 집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가더라.
- 2 이제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도 많이 그리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곡식 밭도 많이 무너졌으니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음이라.
- 3 또 이제 시돈 강 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과 애플리싸이인들은 모두 시돈 물에 던져졌나니, 보라 그들의 뼈가 바다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수가 많으니라.
- 4 또 애플리싸이인들은 니파이인들과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방식을 따라 자기의 이마에 붉은 표를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처럼 그 머리를 깎지는 아니하였더라.
- 5 이제 레이맨인들의 머리는 깎였으며, 그 허리에 두른 가죽과 또한 허리에 두른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돌과 그들의 물매 등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 6 또 레이맨인들의 피부는 그 조상들에게 두신 표시대로 어두웠으니, 이는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형제들을 대적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저주였더라. 그 형제들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인 니파이, 야곱 그리고 요셉과 샘이었던라.
- 7 또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을 멸하려 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저들, 곧 레이맨과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족의 여인들에게 표를 두셨더라.
- 8 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씨가 그 형제들의 씨와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섞여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그릇된 전통을 믿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 Alma 3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who were not slain by the weapons of war, after having buried those who had been slain—now the number of the slain were not number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after they had finished burying their dead they all returned to their lands, and to their houses,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Now many women and children had been slain with the sword, and also many of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so many of their fields of grain were destroyed, for they were trodden down by the hosts of men.

And now as many of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who had been slain upon the bank of the river Sidon were cast into the waters of Sidon; and behold their bones are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y are many.

And the Amlicite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Nephites, for they had marked themselves with red in their foreheads after the manner of the Lamanites; nevertheless they had not shorn their heads like unto the Lamanites.

Now the heads of the Lamanites were shorn; and they were naked, save it were skin which was girded about their loins, and also their armor, which was girded about them, and their bows, and their arrows, and their stones, and their slings, and so forth.

And the skins of the Lamanites were dark, according to the mark which was set upon their fathers, which was a curse upon them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and their rebellion against their brethren, who consisted of Nephi, Jacob, and Joseph, and Sam, who were just and holy men.

And their brethren sought to destroy them, therefore they were cursed; and the Lord God set a mark upon them, yea, upon Laman and Lemuel, and also the sons of Ishmael, and Ishmaelitish women.

And this was done that their seed might be distinguished from the seed of their brethren, that thereby the Lord God might preserve his people, that they might not mix and believe in incorrect traditions which would prove their destruction.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 씨를 레이맨인들의 씨와 섞는 자는 동일한 저주를 그 씨에 초래 하였더라.
- 10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레이맨인들에게 이 끌려 가는 자는 그 칭호하에 일컬음을 받았고, 그에게는 두신 표가 있었더라.
-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레이맨인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록과 또한 그 조상들의 올바른 전통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이를 지키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니파이인들, 곧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나니—
- 12 자기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 백성에 관한 참된 기록을 해온 자들이 이들이라.
- 13 이제 우리는 앰리싸이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에게도 그들 위에 둔 표가 있었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위에 그 표를 두었으니, 곧 그 이마에 붉은 표를 둔 것이라.
- 14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는 그가 니파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함이라. 보라, 레이맨인들을 내가 저주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 표를 두어, 이때로부터 이후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씨가 너와 네 씨에게서 나뉘게 하리라.
- 15 또 그 씨를 네 형제들과 혼합하는 자에게는 내가 표를 두어, 그들로도 저주를 입게 하리라.
- 16 또 너와 네 씨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에게는 내가 표를 두리라.
- 17 또 거듭 내가 말하노니 네게서 떠나는 자는 더 이상 네 씨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너와, 누구든지 네 씨라 칭함을 받게 될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나니, 니파이에게와 그의 씨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이러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did mingle his seed with that of the Lamanites did bring the same curse upon his seed.

Therefore, whosoever suffered himself to be led away by the Lamanites was called under that head, and there was a mark set upon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would not believe in the tradition of the Lamanites, but believed those records which were brought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also in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which were correct, who believed in the commandments of God and kept them, were called the Nephites, or the people of Nephi, from that time forth—

And it is they who have kept the records which are true of their people, and also of the people of the Lamanites.

Now we will return again to the Amlicites, for they also had a mark set upon them; yea, they set the mark upon themselves, yea, even a mark of red upon their foreheads.

Thus the word of God is fulfilled, for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aid to Nephi: Behold, the Lamanites have I cursed, and I will set a mark on them that they and their seed may be separated from thee and thy seed, from this time henceforth and forever, except they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turn to me that I may have mercy upon them.

And again: I will set a mark upon him that minglenth his seed with thy brethren, that they may be cursed also.

And again: I will set a mark upon him that fighteth against thee and thy seed.

And again, I say he that departeth from thee shall no more be called thy seed; and I will bless thee, and whomsoever shall be called thy seed, henceforth and forever; and these were the promises of the Lord unto Nephi and to his seed.

18 이제 앰리싸이인들은 스스로 그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온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19 이제 나는 그들이 저주를 자초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저주를 받는 각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죄를 자초하느니라.

2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리싸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물라 땅에서 싸운 지 여러 날 되지 아니하여, 첫번 군대가 앰리싸이인들을 만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들어와 니파이 백성을 공격하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도록 한 군대가 보냄을 받았더라.

22 이제 얼마 자신은 부상을 입었던지라 이때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23 저들을 대적하도록 수가 많은 한 군대를 올려 보내매, 그들이 올라가서 레이맨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 중 남은 자들을 그들의 땅 경계 밖으로 몰아 내었더라.

24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그들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 이제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년에 이루어졌나니, 참으로 이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 해에 시작되어 그 해에 끝났더라.

26 이리하여 한 해 동안에 수천수만의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졌나니, 그 행위가 착했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나빴든지, 그 행위를 따라 그들이 자기의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착한 영이든지 나쁜 영이든지, 그들은 순종하기를 원한 영에 따라,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비참을 거두게 되리라.

27 이는 각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한 자에게 삿을 받음이요, 이는 예언의 영의 말씀대로인즉, 그러므로 진리대로 될지이다. 이같이 판사 치세 제오년이 끝나니라.

Now the Amlicites knew not that they were fulfilling the words of God when they began to mark themselves in their foreheads; nevertheless they had come out in open rebellion against God; therefore it was expedient that the curse should fall upon them.

Now I would that ye should see that they brought upon themselves the curse; and even so doth every man that is cursed bring upon himself his own condemnation.

Now it came to pass that not many days after the battle which was fought in the land of Zarahemla, by the Lamanites and the Amlicites, that there was another army of the Lamanites came in upon the people of Nephi, in the same place where the first army met the Amlic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an army sent to drive them out of their land.

Now Alma himself being afflicted with a wound did not go up to battle at this time against the Lamanites;

But he sent up a numerous army against them; and they went up and slew many of the Lamanites, and drove the remainder of them out of the borders of their land.

And then they returned again and began to establish peace in the land, being troubled no more for a time with their enemies.

Now all these things were done, yea, all these wars and contentions were commenced and ended in the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n one year wer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souls sent to the eternal world, that they might reap their rewards according to their works, whether they were good or whether they were bad, to reap eternal happiness or eternal misery, according to the spirit which they listed to obey, whether it be a good spirit or a bad one.

For every man receiveth wages of him whom he listeth to obey, and this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spirit of prophecy; therefore let it be according to the truth. And thus endeth the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 앨마서 4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년에, 제이라헤믈라 땅에 다툼이나 전쟁이 없었으나,
- 2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되, 참으로 그들의 형제들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밭 아래 짓밟혀 레이 맨인들에 의해 훼손된 바, 그들의 곡식밭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난을 당하였더라.
- 3 이에 그들의 고난이 어찌나 컸던지 모든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었고,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일깨움을 받아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되었더라.
- 4 이에 그들이 더욱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자들이 시돈 물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 부친 앨마의 손으로, 교회의 백성 위에 대제사로 성별된 앨마의 손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칠년에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대략 삼천 오백 인 가량 있었으며,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칠년이 끝났나니, 그 기간 동안 내내 평화가 있었더라.
- 6 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의 백성들이 그들의 근면함으로 얻은 바, 그들의 심히 큰 부와 그들의 상품 비단과 그들의 세마포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많은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의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하여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대단히 값비싼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음이라.
- 7 이제 이것은 앨마에게, 또한 앨마가 성별하여 교회에 교사와, 제사와, 장로가 되게 한 무리 중 많은 이들에게 많은 고난의 원인이었나니,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이 본 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기 시작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비통하게 되었더라.

## Alma 4

Now it came to pass in the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ere were no contentions nor wars in the land of Zarahemla;

But the people were afflicted, yea, greatly afflicted for the loss of their brethren, and also for the loss of their flocks and herds, and also for the loss of their fields of grain, which were trodden under foot and destroyed by the Lamanites.

And so great were their afflictions that every soul had cause to mourn; and they believed that it was the judgments of God sent upon them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therefore they were awakened to a remembrance of their duty.

And they began to establish the church more fully; yea, and many were baptized in the waters of Sidon and were joined to the church of God; yea, they were baptized by the hand of Alma, who had been consecrated the high priest over the people of the church, by the hand of his father Alma.

And it came to pass in the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ere about three thousand five hundred souls that united themselves to the church of God and were baptized. And thus ended the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ere was continual peace in all that time.

And it came to pass in the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the people of the church began to wax proud, because of their exceeding riches, and their fine silks, and their fine-twined linen, and because of their many flocks and herds, and their gold and their silver, and all manner of precious things, which they had obtained by their industry; and in all these things were they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eyes, for they began to wear very costly apparel.

Now this was the cause of much affliction to Alma, yea, and to many of the people whom Alma had consecrated to be teachers, and priests, and elders over the church; yea, many of them were sorely grieved for the wickedness which they saw had begun to be among their people.

- 8 이는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 하며, 그 마음을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두기 시작하여, 서로 조소하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큰 슬픔을 지닌 채 보고 또 보았음이라.
- 9 또 이리하여 이 판사 치세 제팔년에 교회의 백성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겼으니, 참으로 시기함과 다툼과 악의와 핍박과 교만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교만보다 더하였더라.
- 10 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년이 끝났으니, 교회의 간악함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리하여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 갔느니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년 초에, 엘마는 교회의 간악함을 보았고, 또한 교회의 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한 가지 죄악에서 또 한 가지 죄악으로 인도하여, 백성의 멸망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더라.
- 12 참으로 그가 백성 가운데 큰 불평등을 보았으니, 어떤 이들이 그 교만으로 자고하여, 다른 자들을 멸시하며,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병들고 고난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등을 돌림이라.
- 13 이제 이것이 백성 가운데 슬피 울게 하는 큰 원인이었으나, 한편으로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낮추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나니, 예컨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주린 자를 먹이며, 예언의 영에 따를진대 장차 오실 이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며,
- 14 그 날을 고대하며, 이같이 하여 그들의 죄 사함을 간직하며, 사망의 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권능과 건지심에 따른 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For they saw and beheld with great sorrow that the people of the church began to b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eyes, and to set their hearts upon riches and upo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that they began to be scornful, one towards another, and they began to persecute those that did not believe according to their own will and pleasure.

And thus, in this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began to be great contentions among the people of the church; yea, there were envyings, and strife, and malice, and persecutions, and pride, even to exceed the pride of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thus ended the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the wickedness of the church was a great stumbling-block to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and thus the church began to fail in its progress.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ninth year, Alma saw the wickedness of the church, and he saw also that the example of the church began to lead those who were unbelievers on from one piece of iniquity to another, thus bringing on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Yea, he saw great inequality among the people, some lifting themselves up with their pride, despising others, turning their backs upon the needy and the naked and those who were hungry, and those who were athirst, and those who were sick and afflicted.

Now this was a great cause for lamentations among the people, while others were abasing themselves, succoring those who stood in need of their succor, such as imparting their substance to the poor and the needy, feeding the hungry, and suffering all manner of afflictions, for Christ's sake, who should come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Looking forward to that day, thus retaining a remission of their sins; being filled with great joy because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ccording to the will and power and deliverance of Jesus Christ from the bands of death.

15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의 고난과 나머지 그의 백성들에 의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을 보고 나서, 또 그들의 모든 불평등을 보고 대단히 비통하여졌으나 그럼에도 주의 영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6 이에 그가 교회의 장로 중에 있는 현명한 사람 하나를 골라, 백성의 소리에 따라 그에게 권능을 주어, 그로 이미 주어진 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며, 백성들의 간악함과 범죄를 좇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였더라.

17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니파이하라, 그가 대판사로 임명되어, 판사직에 앉아 백성들을 판단하며 다스리게 되니라.

18 이제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 되는 직분은 엘마가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대제사 직분은 스스로 유지하였으나, 판사직은 니파이하에게 넘겨주었더라.

19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신 그의 백성 가운데, 곧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만과 간교함과 그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다툼을 끌어내리고자 함이었으니, 순수한 간증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20 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년 초에, 엘마는 니파이하에게 판사직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직에, 계시와 예언의 영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더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having seen the afflictions of the humble followers of God, and the persecutions which were heaped upon them by the remainder of his people, and seeing all their inequality, began to be very sorrowful; nevertheless the Spirit of the Lord did not fail him.

And he selected a wise man who was among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gave him power accord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that he might have power to enact laws according to the laws which had been given, and to put them in force according to the wickedness and the crimes of the people.

Now this man's name was Nephiah, and he was appointed chief judge; and he sat in the judgment-seat to judge and to govern the people.

Now Alma did not grant unto him the office of being high priest over the church, but he retained the office of high priest unto himself; but he delivered the judgment-seat unto Nephiah.

And this he did that he himself might go forth among his people, or among the people of Nephi, that he might preach the word of God unto them, to stir them up in remembrance of their duty, and that he might pull down, by the word of God, all the pride and craftiness and all the contentions which were among his people, seeing no way that he might reclaim them save it were in bearing down in pure testimony against them.

And thus in the commencement of the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lma delivered up the judgment-seat to Nephiah, and confined himself wholly to the high priesthood of the holy order of God, to the testimony of the word, according to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prophecy.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른 대제사 엘마가 그 땅 여러 성읍과 마을에서 두루 백성들에게 전한 말.

## 엘마서 5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되, 먼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시작하니라.
- 2 그리고 이는 그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 그 자신의 기록에 따른 것이라 일렀으되,  
3 나 엘마는 나의 부친 엘마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로 성별되었나니, 그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니파이의 변경에 있는 땅, 참으로 몰몬의 땅이라 일컫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는 또한 몰몬의 물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
- 4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노아 왕의 백성의 손에서 건져 내심을 입었느니라.
- 5 보라, 그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레이맨인들의 손으로 속박에 들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사로잡힌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 주께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매,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되었고,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두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느니라.
- 6 또한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곧 이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또한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더욱이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그가 지옥에서 건지셨음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The words which Alma, the High Priest according to the holy order of God, delivered to the people in their cities and villages throughout the land.*

## Alma 5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began to deliver the word of God unto the people, first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from thence throughout all the land.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pake to the people in the church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ity of Zarahemla, according to his own record, saying:

I, Alma, having been consecrated by my father, Alma, to be a high priest over the church of God, he having power and authority from God to do these things, behold, I say unto you that he began to establish a church in the land which was in the borders of Nephi; yea, the land which was called the land of Mormon; yea, and he did baptize his brethren in the waters of Mormon.

And behold, I say unto you, they were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the people of king Noah, by the mercy and power of God.

And behold, after that, they were brought into bondage by the hands of the Lamanites in the wilderness; yea, I say unto you, they were in captivity, and again the Lord di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by the power of his word; and we were brought into this land, and here we began to establish the church of God throughout this land also.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my brethren, you that belong to this church, have you sufficiently retained in remembrance the captivity of your fathers? Yea, and have you sufficiently retained in remembrance his mercy and long-suffering towards them? And moreover, have ye sufficiently retained in remembrance that he has delivered their souls from hell?

- 7 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 보라,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졌나니, 참으로 그들은 사망의 줄과 지옥의 사슬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 8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그들이 멸망당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9 또다시 내가 묻노니, 사망의 줄이 끊어졌으며, 그들을 둘러쌌던 지옥의 사슬이 풀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그 사슬이 풀렸고, 그들의 영혼은 부풀었나니,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구원받았느니라.
- 10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바랄 무슨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느냐? 사망의 줄과 또한 지옥의 사슬에서 그들이 놓인 까닭이 무엇이나?
- 1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나의 부친 엘마가 아빈아다이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는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나의 부친 엘마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 12 이에 그의 신앙을 좇아 그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모두 사실이니라.
- 13 또 보라, 그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또 보라,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느니라.
- 14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Behold, he changed their hearts; yea, he awakened them out of a deep sleep, and they awoke unto God. Behold, they were in the midst of darkness; nevertheless, their souls were illuminated by the light of the everlasting word; yea, they were encircled about by the bands of death, and the chains of hell, and an everlasting destruction did await them.

And now I ask of you, my brethren, were they destroyed? Behold, I say unto you, Nay, they were not.

And again I ask, were the bands of death broken, and the chains of hell which encircled them about, were they loosed? I say unto you, Yea, they were loosed, and their souls did expand, and they did sing redeeming love. And I say unto you that they are saved.

And now I ask of you on what conditions are they saved? Yea, what grounds had they to hope for salvation? What is the cause of their being loosed from the bands of death, yea, and also the chains of hell?

Behold, I can tell you—did not my father Alma believe in the words which were delivered by the mouth of Abinadi? And was he not a holy prophet? Did he not speak the words of God, and my father Alma believe them?

And according to his faith there was a mighty change wrought in his heart.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is is all true.

And behold, he preached the word unto your fathers, and a mighty change was also wrought in their hearts, and they humbled themselves and put their trust in the true and living God. And behold, they were faithful until the end; therefore they were saved.

And now behold, I ask of you, my brethren of the church, have ye spiritually been born of God? Have ye received his image in your countenances? Have ye experienced this mighty change in your hearts?

15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느냐?

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날에, 너희 복 받은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는 보라, 지상에서 너희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이니라 라고, 너희에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느냐?

17 아니면 너희가 그 날에, 주께 거짓말하여 고하기를—주여, 지상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나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스스로 상상하느냐?

18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되 참으로 너희의 모든 간악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였음을 기억하여, 너희의 영혼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려 나오게 됨을 상상할 수 있느냐?

1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너희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얼굴에 새기고,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에게 예속된 자가 되었어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날에 너희가 알리라. 이는 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참으로 그의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이,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실 이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22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옷을 피와 온갖 더러움으로 더럽힌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너희 중 아무라도 어찌 느끼겠느냐?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를 쳐서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Do ye exercise faith in the redemption of him who created you? Do you look forward with an eye of faith, and view this mortal body raised in immortality, and this corruption raised in incorruption, to stand before God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 deeds which have been done in the mortal body?

I say unto you, can you imagine to yourselves that ye hear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unto you, in that day: Come unto me ye blessed, for behold, your works have been the works of righteousness upon the face of the earth?

Or do ye imagine to yourselves that ye can lie unto the Lord in that day, and say—Lord, our works have been righteous works upon the face of the earth—and that he will save you?

Or otherwise, can ye imagine yourselves brought before the tribunal of God with your souls filled with guilt and remorse, having a remembrance of all your guilt, yea, a perfect remembrance of all your wickedness, yea, a remembrance that ye have set at defiance the commandments of God?

I say unto you, can ye look up to God at that day with a pure heart and clean hands? I say unto you, can you look up, having the image of God engraven upon your countenances?

I say unto you, can ye think of being saved when you have yielded yourselves to become subjects to the devil?

I say unto you, ye will know at that day that ye cannot be saved; for there can no man be saved except his garments are washed white; yea, his garments must be purified until they are cleansed from all stain, through the blood of him of whom it has been spoken by our fathers, who should come to redeem his people from their sins.

And now I ask of you, my brethren, how will any of you feel, if ye shall stand before the bar of God, having your garments stained with blood and all manner of filthiness? Behold, what will these things testify against you?

23 보라 그러한 것이 너희가 살인자인 것과 또한 너희가 온갖 간악한 죄를 범하였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느냐?

24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한 자가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 흠도 없으며 정결하고 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앉을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창조주를 태초로부터 거짓말하시는 이로 만들거나, 그가 태초로부터 거짓말하시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자가 하늘 나라에 처소를 가질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없으리니, 그들이 내어 쫓길 것은 그들이 악마의 나라 자녀들임이라.

26 또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27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 없이 스스로를 지켜 행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로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옷이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회개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28 보라, 너희는 교만을 벗어 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속히 준비해야만 하나니, 이는 천국이 곧 가까이 임이요,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이니라.

29 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에 시기심을 벗어 버리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한 자는 준비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속히 준비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그 시각이 가까우나, 그때가 언제 임할는지 그가 알지 못함이요, 그가 죄 없다 함을 얻지 못함이라.

3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있느냐?

Behold will they not testify that ye are murderers, yea, and also that ye are guilty of all manner of wickedness?

Behold, my brethren, do ye suppose that such an one can have a place to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and also all the holy prophets, whose garments are cleansed and are spotless, pure and white?

I say unto you, Nay; except ye make our Creator a liar from the beginning, or suppose that he is a liar from the beginning, ye cannot suppose that such can have place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y shall be cast out for they ar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of the devil.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my brethren, if ye have experienced a change of heart, and if ye have felt to sing the song of redeeming love, I would ask, can ye feel so now?

Have ye walked, keeping yourselves blameless before God? Could ye say, if ye were called to die at this time, within yourselves, that ye have been sufficiently humble? That your garments have been cleansed and made white through the blood of Christ, who will come to redeem his people from their sins?

Behold, are ye stripped of pride? I say unto you, if ye are not ye are not prepared to meet God. Behold ye must prepare quickly;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soon at hand, and such an one hath not eternal life.

Behold, I say, is there one among you who is not stripped of envy? I say unto you that such an one is not prepared; and I would that he should prepare quickly, for the hour is close at hand, and he knoweth not when the time shall come; for such an one is not found guiltless.

And again I say unto you, is there one among you that doth make a mock of his brother, or that heapeth upon him persecutions?

- 31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이요, 또 그때가 가까웠으며 그가 회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 32 참으로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 33 보라, 그는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 하리라.
- 34 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리라.
- 35 참으로 내게 와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라. 그리하면 너희가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 36 이는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곧 누구든지 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슬피 울며 애통할 일이 있음이라.
- 37 오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희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 너희 의의 길을 안다고 고백하였으나 그럼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벗어나, 목자가 너희를 불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아니하는 자들아!
- 38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참으로 그가 자기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시나니, 만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에, 너희가 일컬음을 받는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니라.
- 39 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면, 무슨 무리에 너희가 속하였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마가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그의 무리에 속하였느니라. 이제 누가 이를 부인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악마의 자녀이니라.

Wo unto such an one, for he is not prepared, and the time is at hand that he must repent or he cannot be saved!

Yea, even wo unto all ye workers of iniquity; repent, repent, for the Lord God hath spoken it!

Behold, he sendeth an invitation unto all men, for the arms of mercy are extended towards them, and he saith: Repent, and I will receive you.

Yea, he saith: Come unto me and ye shall partake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yea, ye shall eat and drink of the bread and the waters of life freely;

Yea, come unto me and bring forth works of righteousness, and ye shall not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For behold, the time is at hand that whosoever bringeth forth not good fruit, or whosoever doeth not the works of righteousness, the same have cause to wail and mourn.

O ye workers of iniquity; ye that are puffed up i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ye that have professed to have known the ways of righteousness nevertheless have gone astray, as sheep having no shepherd, notwithstanding a shepherd hath called after you and is still calling after you, but ye will not hearken unto his voice!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good shepherd doth call you; yea, and in his own name he doth call you, which is the name of Christ; and if ye will not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to the name by which ye are called, behold, ye are not the sheep of the good shepherd.

And now if ye are not the sheep of the good shepherd, of what fold are ye?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devil is your shepherd, and ye are of his fold; and now, who can deny this? Behold, I say unto you, whosoever denieth this is a liar and a child of the devil.



40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무엇이든지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옴이니라.

41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그를 따르거니와, 누구든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는 악마의 자녀가 되나니, 이는 그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를 따름이니라.

42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자기 삯을 받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삯으로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받아,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죽음이 되느니라.

43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에게서 듣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말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하였음이니라.

44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 따라, 이러한 모양으로 말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음이니, 참으로 내가 서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명을 받았느니라.

45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라. 너희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4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이니라.

47 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이같이 내게 계시되었나니, 곧 내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좇아서요,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나타내심에 의해서니라.

For I say unto you that whatsoever is good cometh from God, and whatsoever is evil cometh from the devil.

Therefore, if a man bringeth forth good works he hearkeneth unto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and he doth follow him; but whosoever bringeth forth evil works, the same becometh a child of the devil, for he hearkeneth unto his voice, and doth follow him.

And whosoever doeth this must receive his wages of him; therefore, for his wages he receiveth death, as to things pertaining unto righteousness, being dead unto all good works.

And now, my brethren, I would that ye should hear me, for I speak in the energy of my soul; for behold, I have spoken unto you plainly that ye cannot err, or have spoken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For I am called to speak after this manner, according to the holy order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yea, I am commanded to stand and testify unto this people the things which have been spoken by our fathers concerning the things which are to come.

And this is not all. Do ye not suppose that I know of these things myself? Behold, I testify unto you that I do know that these things whereof I have spoken are true. And how do ye suppose that I know of their surety?

Behold, I say unto you they are made known unto me by the Holy Spirit of God. Behold, I have fasted and prayed many days that I might know these things of myself. And now I do know of myself that they are true; for the Lord God hath made them manifest unto me by his Holy Spirit; and this is the spirit of revelation which is in me.

And moreover, I say unto you that it has thus been revealed unto me, that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by our fathers are true, even so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which is in me, which is also by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God.

4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할 것은 다 참된 줄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시요,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려 오시는 이가 그이시니라.

4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반차는 이것이니, 곧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각 사람에게 전파하되, 참으로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년과 또한 중년과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며, 참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이것이니라.

50 참으로 이같이 영이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곧 가까이 이룸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중에,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다스림 중에 오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 말씀하시되, 보라, 온 땅의 왕이요, 또한 하늘의 왕의 영광이 머지 아니하여 곧 모든 인류의 자녀들 가운데 비치리라 하시느니라.

51 영이 또 내게 이르시되, 참으로 큰 음성으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나아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회개하라, 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하라 하시느니라.

52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 말씀하시되, 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참으로 소멸될 수 없는 불이요, 곧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거룩하신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I say unto you, that I know of myself that whatsoever I shall say unto you, concerning that which is to come, is true; and I say unto you, that I know that Jesus Christ shall come, yea, the Son,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mercy, and truth. And behold, it is he that cometh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yea, the sins of every man who steadfastly believeth on his name.

And now I say unto you that this is the order after which I am called, yea, to preach unto my beloved brethren, yea, and every one that dwelleth in the land; yea, to preach unto all, both old and young, both bond and free; yea, I say unto you the aged, and also the middle aged, and the rising generation; yea, to cry unto them that they must repent and be born again.

Yea, thus saith the Spirit: Repent, all ye ends of the earth,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soon at hand; yea, the Son of God cometh in his glory, in his might, majesty, power, and dominion. Yea, my beloved brethren, I say unto you, that the Spirit saith: Behold the glory of the King of all the earth; and also the King of heaven shall very soon shine forth among all the children of men.

And also the Spirit saith unto me, yea, crieth unto me with a mighty voice, saying: Go forth and say unto this people—Repent, for except ye repent ye can in nowise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And again I say unto you, the Spirit saith: Behold, the ax is laid at the root of the tree; therefore every tree that bringeth not forth good fruit shall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yea, a fire which cannot be consumed, even an unquenchable fire. Behold, and remember, the Holy One hath spoken it.

53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항할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신 자를 너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아직도 고집하여 값비싼 옷을 입으며 너희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의 재물에 두려느냐?

54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다른 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를 계속하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형제 핍박하기를 계속하려느냐,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나니, 이 반차로 그들은 이 교회에 인도되어 들어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내느니라—

55 또한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희의 등을 돌리며,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지 아니하기를 계속하려느냐?

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악함을 고집하려는 너희 모두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자들이 바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찍혀 불에 던져질 자들이니라.

57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원하는 너희 모두여, 너희는 악인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보라,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악인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이르시기를, 악인의 이름이 내 백성의 이름과 섞이지 아니할 것이라.

58 이는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내가 내 오른편에서 한 기업을 줄 것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를 거스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say unto you, can ye withstand these sayings; yea, can ye lay aside these things, and trample the Holy One under your feet; yea, can ye be puffed up in the pride of your hearts; yea, will ye still persist in the wearing of costly apparel and setting your hearts upo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upon your riches?

Yea, will ye persist in supposing that ye are better one than another; yea, will ye persist in the persecution of your brethren, who humble themselves and do walk after the holy order of God, wherewith they have been brought into this church, having been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and they do bring forth works which are meet for repentance—

Yea, and will you persist in turning your backs upon the poor, and the needy, and in withholding your substance from them?

And finally, all ye that will persist in your wickedness, I say unto you that these are they who shall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except they speedily repent.

And now I say unto you, all you that are desirous to follow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come ye out from the wicked, and be ye separate, and touch not their unclean things; and behold, their names shall be blotted out, that the names of the wicked shall not be numbered among the names of the righteous, that the word of God may be fulfilled, which saith: The names of the wicked shall not be mingled with the names of my people;

For the names of the righteous shall b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nd unto them will I grant an inheritance at my right hand. And now, my brethren, what have ye to say against this? I say unto you, if ye speak against it, it matters not, for the word of God must be fulfilled.

59 대저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어와 자기 양 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또 보라, 이리가 자기 양 떼에 들어오면 그가 그것을 몰아 내지 아니하느냐? 그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멸하리라.

60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너희를 자기의 무리에 인도해 들이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양이라. 또 그는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굶주린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명하시느니라.

61 이제 나 엘마는 나에게 명하신 이의 말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할지어다.

62 내가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는 명령으로 말하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권유로 말하노니,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리하여 너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For what shepherd is there among you having many sheep doth not watch over them, that the wolves enter not and devour his flock? And behold, if a wolf enter his flock doth he not drive him out? Yea, and at the last, if he can, he will destroy him.

And now I say unto you that the good shepherd doth call after you; and if you will hearken unto his voice he will bring you into his fold, and ye are his sheep; and he commandeth you that ye suffer no ravenous wolf to enter among you, that ye may not be destroyed.

And now I, Alma, do command you in the language of him who hath commanded me, that ye observe to do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I speak by way of command unto you that belong to the church; and unto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 church I speak by way of invitation, saying: Come and be baptized unto repentance, that ye also may be partakers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 앨마서 6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그의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교회를 감리하고 감독할 제사와 장로를 성임하였더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받아들여졌더라.
- 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에 속한 자로서 누구든지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들—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 하여진 자들을 내가 뜻하노라—그들은 거부되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니라.
- 4 이같이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성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 5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자유로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이는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 6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같이 질서를 바로잡고 나서 그들에게서,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성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 시돈 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기드온 골짜기로 들어가니, 거기 기드온 성이라 하는 한 성읍이 세워져 있음이라. 이는 니허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기드온이라 불리우는 골짜기에 있더라.

## Alma 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had made an end of speaking unto the people of the church,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ity of Zarahemla, he ordained priests and elders, by laying on his hands according to the order of God, to preside and watch over the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whosoever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who repented of their sins were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were received into the church.

And it also came to pass that whosoever did belong to the church that did not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humble themselves before God—I mean those who wer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the same were rejected, and their names were blotted out, that their names were not numbered among those of the righteous.

And thus they began to establish the order of the church in the city of Zarahemla.

Now I would that ye should understand that the word of God was liberal unto all, that none were deprived of the privilege of assembling themselves together to hear the word of God.

Nevertheless the children of God were commanded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oft, and join in fasting and mighty prayer in behalf of the welfare of the souls of those who knew not Go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had made these regulations he departed from them, yea, from the church which was in the city of Zarahemla, and went over upon the east of the river Sidon, into the valley of Gideon, there having been a city built, which was called the city of Gideon, which was in the valley that was called Gideon, being called after the man who was slain by the hand of Nehor with the sword.

8 이에 엘마가 가서 그의 조상들이 하신 말씀의 참됨에 대한 계시를 좇아, 또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좇아, 그의 안에 있는 예언의 영과 그가 부름 받은 거룩한 반차를 따라, 기드온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니, 기록된 바가 이러하니라. 아멘.

And Alma went and began to declare the word of God unto the church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valley of Gideon,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truth of the word which had been spoken by his fathers, and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which was in him,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should come to redeem his people from their sins, and the holy order by which he was called. And thus it is written. Amen.

기드온에 있는 백성에게 전한 엘마의 말씀이니,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한 것이니라.

## 엘마서 7

- 1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허락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말로써 참으로 내 입으로 친히 너희에게 고하고자 하노라. 내가 내 입의 말로,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내가 온전히 판사직에 매여 있었으므로, 일이 많아 너희에게 올 수 없었음이니라.
- 2 또 만일 판사직이 나를 대신하여 다스릴 다른 이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주께서 많은 자비로써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올 수 없었으리라.
- 3 보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음과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왔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앞에서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며, 제이라헤믈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빠져 있었던 참담한 곤경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큰 소망과 많은 바람을 가지고 왔느니라.
- 4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니, 그는 그들이 다시 그의 의의 길에 세워졌음을 나로 알게 해 주시되, 참으로 이를 아는 심히 큰 기쁨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 5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서도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노라. 그러나 너희에 관한 나의 기쁨이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에 관한 나의 기쁨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헤쳐 지난 다음에야 옴이니라.

*The words of Alma which he delivered to the people in Gideon, according to his own record.*

## Alma 7

Behold my beloved brethren, seeing that I have been permitted to come unto you, therefore I attempt to address you in my language; yea, by my own mouth, seeing that it is the first time that I have spoken unto you by the words of my mouth, I having been wholly confined to the judgment-seat, having had much business that I could not come unto you.

And even I could not have come now at this time were it not that the judgment-seat hath been given to another, to reign in my stead; and the Lord in much mercy hath granted that I should come unto you.

And behold, I have come having great hopes and much desire that I should find that ye had humbled yourselves before God, and that ye had continued in the supplicating of his grace, that I should find that ye were blameless before him, that I should find that ye were not in the awful dilemma that our brethren were in at Zarahemla.

But blessed be the name of God, that he hath given me to know, yea, hath given unto me the exceedingly great joy of knowing that they are established again in the way of his righteousness.

And I trust, according to the Spirit of God which is in me, that I shall also have joy over you; nevertheless I do not desire that my joy over you should come by the cause of so much afflictions and sorrow which I have had for the brethren at Zarahemla, for behold, my joy cometh over them after wading through much affliction and sorrow.

- 6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 같이 그처럼 심하게 믿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줄로 믿으며,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 지지 아니한 줄로 믿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아니한 줄로 믿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신앙으로, 장차 임할 너희의 죄 사유함을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노라.
- 7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차 임할 일이 많이 있으되, 보라, 그 모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음이니—이는 보라, 구속주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는 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8 보라, 내 말은 그가 그의 필멸의 성막에 거하시는데에 우리 중에 오시겠다 함이 아니니, 이는 보라, 영은 그러하리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만큼 내가 아노니, 곧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일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느니라.
- 9 그러나 보라, 영이 나에게 이만큼 이르셨으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너희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 곧 바른 길로 행하라 하라. 이는 보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심이니라.
- 10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 11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 12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But behold, I trust that ye are not in a state of so much unbelief as were your brethren; I trust that ye are not lifted up in the pride of your hearts; yea, I trust that ye have not set your hearts upon riches and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yea, I trust that you do not worship idols, but that ye do worship the true and the living God, and that ye look forwar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with an everlasting faith, which is to come.

For behold, I say unto you there be many things to come; and behold, there is one thing which is of more importance than they all—for behold, the time is not far distant that the Redeemer liveth and cometh among his people.

Behold, I do not say that he will come among us at the time of his dwelling in his mortal tabernacle; for behold, the Spirit hath not said unto me that this should be the case. Now as to this thing I do not know; but this much I do know, that the Lord God hath power to do all things which are according to his word.

But behold, the Spirit hath said this much unto me, saying: Cry unto this people, saying—Repent ye, an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and walk in his paths, which are straight; for behol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the Son of God cometh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behold, he shall be born of Mary, at Jerusalem which is the land of our forefathers, she being a virgin, a precious and chosen vessel, who shall be overshadowed and conceive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nd bring forth a son, yea, even the Son of God.

And he shall go forth, suffering pains and afflictions and temptations of every kind; and this that the word might be fulfilled which saith he will take upon him the pains and the sicknesses of his people.

And he will take upon him death, that he may loose the bands of death which bind his people; and he will take upon him their infirmities, that his bowels may be filled with mercy, according to the flesh, that he may know according to the flesh how to succor his people according to their infirmities.



13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니,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

14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는 영이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 너희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질지니, 그는 세상의 죄를 제하시며,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능하신 이시니라.

15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서 두려워 말고, 쉽게 너희를 에워싸며, 너희를 결박하여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모두 버리고, 참으로 와서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 죄를 기꺼이 회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고자 함을 보이고, 이를 침례의 물에 들어감으로써 오늘 날 그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16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내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그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리라.

17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한 것을 믿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러한 것을 믿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를 믿는 줄을 내가 아는 방도는 내 안에 계시는 영의 나타내심에 의한 것이니, 이제 이에 관하여, 참으로 내가 말한 것에 관하여, 너희의 신앙이 강함으로 나의 기쁨이 크도다.

18 이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들처럼 곤경의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바람을 내가 가졌노라 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나의 바람이 충족되었음을 내가 알았음이라.

19 이는 너희가 의의 길에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았음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았음이니, 참으로 너희가 그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았음이니라.

Now the Spirit knoweth all things; nevertheless the Son of God suffereth according to the flesh that he might take upon him the sins of his people, that he might blot out their transgressions according to the power of his deliverance; and now behold, this is the testimony which is in me.

Now I say unto you that ye must repent, and be born again; for the Spirit saith if ye are not born again ye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come and be baptized unto repentance, that ye may be washed from your sins, that ye may have faith on the Lamb of God, who taketh away the sins of the world, who is mighty to save and to cleanse from all unrighteousness.

Yea, I say unto you come and fear not, and lay aside every sin, which easily doth beset you, which doth bind you down to destruction, yea, come and go forth, and show unto your God that ye are willing to repent of your sins and enter into a covenant with him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witness it unto him this day by going into the waters of baptism.

And whosoever doeth this, and keepeth the commandments of God from thenceforth, the same will remember that I say unto him, yea, he will remember that I have said unto him, he shall have eternal life,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which testifieth in me.

And now my beloved brethren, do you believe these things? Behold, I say unto you, yea, I know that ye believe them; and the way that I know that ye believe them is by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which is in me. And now because your faith is strong concerning that, yea, concerning the things which I have spoken, great is my joy.

For as I said unto you from the beginning, that I had much desire that ye were not in the state of dilemma like your brethren, even so I have found that my desires have been gratified.

For I perceive that ye ar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I perceive that ye are in the path which leads to the kingdom of God; yea, I perceive that ye are making his paths straight.

- 20 내가 깨닫건대 그가 굽은 길로 행하실 수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에서 변경하지도 아니하시며,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혹은 바른 것에서 그른 것으로 돌이키는 흔적도 갖지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그의 진리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라는 것이, 그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 너희에게 알려졌도다.
- 21 또 그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더러움이나 무엇이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왕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이를지라, 참으로 마지막 날에 그러하겠거니와, 더러운 자는 자기의 더러움에 그대로 머물게 되리라.
- 22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일렀음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의무를 깨닫게 하여, 너희로 그의 앞에서 책망할 것 없이 행하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반차를 좇아 너희가 받으심을 얻었느니라.
- 23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 24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
- 25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 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이 흠 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흠 없는 채로 천국에 앉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 2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영을 좇아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에 지극한 열심과 주의를 기울였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심히 기쁘도다.

I perceive that it has been made known unto you, by the testimony of his word, that he cannot walk in crooked paths; neither doth he vary from that which he hath said; neither hath he a shadow of turning from the right to the left, or from that which is right to that which is wrong; therefore, his course is one eternal round.

And he doth not dwell in unholy temples; neither can filthiness or anything which is unclean be received into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I say unto you the time shall come, yea, and it shall be at the last day, that he who is filthy shall remain in his filthiness.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have said these things unto you that I might awaken you to a sense of your duty to God, that ye may walk blameless before him, that ye may walk after the holy order of God, after which ye have been received.

And now I would that ye should be humble, and be submissive and gentle; easy to be entreated; full of patience and long-suffering; being temperate in all things; being diligent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at all times; asking for whatsoever things ye stand in need, both spiritual and temporal; always returning thanks unto God for whatsoever things ye do receive.

And see that ye have faith, hope, and charity, and then ye will always abound in good works.

And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r garments spotless, that ye may at last be brought to sit down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nd the holy prophets who have been ever since the world began, having your garments spotless even as their garments are spotless, in the kingdom of heaven to go no more out.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have spoken these words unto you according to the Spirit which testifieth in me; and my soul doth exceedingly rejoice, because of the exceeding diligence and heed which ye have given unto my word.

27 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위에와, 너희 집들과 땅 위에와, 너희 양 떼와 소 떼와,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너희의 여자들과 너희 자녀들 위에, 너희의 신앙과 선행을 좇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비노라. 이같이 내가 말하였노라. 아멘.

And now, may the peace of God rest upon you, and upon your houses and lands, and upon your flocks and herds, and all that you possess, your women and your children, according to your faith and good work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 And thus I have spoken. Amen.

## 앨마서 8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기록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기드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전에 그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행한 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운 후에, 기드온 땅에서 돌아왔나니, 참으로 그가 그 행한 수고를 떠나 쉬고자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 2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년이 끝났느니라.
- 3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거기서 떠나 여행하여 광야의 변경 서편, 시돈 강 서편의 밀렉 땅으로 넘어 들어가더라.
- 4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밀렉 땅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되, 그가 밀렉 온 땅에서 두루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 편에 연한 그 땅의 변경 모든 곳에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와, 그 온 땅 각처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으니라.
- 6 그리하여 그가 밀렉에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떠나, 밀렉 땅 북편으로 사흘 길을 여행하더니, 그가 앰몬아이하라 하는 성에 이르렀더라.
- 7 이제 니파이인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작은 동리까지, 처음 그 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라 칭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더니, 앰몬아이하 땅 역시 그러하였더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앰몬아이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더라.
- 9 이제 사탄이 앰몬아이하 성 백성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앨마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 Alma 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returned from the land of Gideon, after having taught the people of Gideon many things which cannot be written, having established the order of the church, according as he had before done in the land of Zarahemla, yea, he returned to his own house at Zarahemla to rest himself from the labors which he had performed.

And thus ended the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at Alma departed from thence and took his journey over into the land of Melek, on the west of the river Sidon, on the west by the borders of the wilderness.

And he began to teach the people in the land of Melek according to the holy order of God, by which he had been called; and he began to teach the people throughout all the land of Melek.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came to him throughout all the borders of the land which was by the wilderness side. And they were baptized throughout all the land;

So that when he had finished his work at Melek he departed thence, and traveled three days' journey on the north of the land of Melek; and he came to a city which was called Ammonihah.

Now it was the custom of the people of Nephi to call their lands, and their cities, and their villages, yea, even all their small villages, after the name of him who first possessed them; and thus it was with the land of Ammonihah.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had come to the city of Ammonihah he began to preach the word of God unto them.

Now Satan had gotten great hold upon the hearts of the people of the city of Ammonihah; therefore they would not hearken unto the words of Alma.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마가 영으로 많이 수고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영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위에 부어 주실 것과, 또한 자신이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더라.
- 11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 네가 엘마인 줄 알며, 또 네가 너희의 전통을 좇아, 이 땅 여러 곳에 세운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인 줄도 알거니와, 우리는 네 교회에 속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어리석은 전통을 믿지도 아니하느니라.
- 12 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고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다는 것을 알며, 또 너는 판사직을 니파이하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는 대판사도 아니니라.
- 13 이제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그의 모든 말을 대항하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침 뱉고, 그로 그들의 성에서 쫓겨나게 하매, 그가 거기서 떠나 아론이라 하는 성을 향하여 여행하였더라.
-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에 놀려, 많은 환난과 영혼의 고뇌를 헤치며 그리로 여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같이 슬픔에 놀려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 15 엘마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네가 기뻐할 일이 크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첫 전갈을 받은 때로부터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 전갈을 네게 전한 자니라.
- 16 또 보라, 나는 네가 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 그 성 백성에게 다시 전파할 것을 네게 명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전파하라. 참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하라.

Nevertheless Alma labored much in the spirit, wrestling with God in mighty prayer, that he would pour out his Spirit upon the people who were in the city; that he would also grant that he might baptize them unto repentance.

Nevertheless, they hardened their hearts, saying unto him: Behold, we know that thou art Alma; and we know that thou art high priest over the church which thou hast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the land, according to your tradition; and we are not of thy church, and we do not believe in such foolish traditions.

And now we know that because we are not of thy church we know that thou hast no power over us; and thou hast delivered up the judgment-seat unto Nephiah; therefore thou art not the chief judge over us.

Now when the people had said this, and withstood all his words, and reviled him, and spit upon him, and caused that he should be cast out of their city, he departed thence and took his journey towards the city which was called Aaron.

And it came to pass that while he was journeying thither, being weighed down with sorrow, wading through much tribulation and anguish of soul,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who were in the city of Ammonihah, it came to pass while Alma was thus weighed down with sorrow,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him, saying:

Blessed art thou, Alma; therefore, lift up thy head and rejoice, for thou hast great cause to rejoice; for thou hast been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from the time which thou receivedst thy first message from him. Behold, I am he that delivered it unto you.

And behold, I am sent to command thee that thou return to the city of Ammonihah, and preach again unto the people of the city; yea, preach unto them. Yea, say unto them, except they repent the Lord God will destroy them.

17 이는 보라, 그들은 실로 이 시간에 네 백성의 자유를 멸하고자 궁리하고 있음이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에 반하는 일이니라 하더라.

1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주의 천사로부터 그의 전갈을 받은 후 앰몬아이하 땅으로 속히 돌아와서, 다른 길로, 곧 앰몬아이하 성 남쪽에 있는 길로 성에 들어가니라.

19 이에 그가 성에 들어갈 새 그가 주린지라,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낮은 종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느냐 하매,

20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니파이 인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아노니, 이는 당신이, 천사가 시현 속에서 말하기를 네가 영접하라 한 그 사람임이니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시면 내 음식을 당신께 나누어 드리오리니, 나는 당신이 나와 내 집에 복이 될 줄 아나이다 하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영접해 들이니, 그 사람은 앰올레크라 하며, 이에 저가 떡과 고기를 내어와서 엘마 앞에 놓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 앰올레크와 그의 집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23 또 엘마가 먹고 배부른 후 앰올레크에게 이르되, 나는 엘마요, 전국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니라.

24 또 보라, 내가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이 온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있었으나, 그들이 나를 영접하려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쫓아내었으므로 내가 바야흐로 영원히 이 땅을 등지려 하였었느니라.

25 그러나 보라, 내가 다시 돌이켜 이 백성에게 예언할 것과 또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쳐서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26 이제 앰올레크여, 그대가 나를 먹이며 나를 들었으므로 그대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였으므로 주렸음이니라 하니라.

For behold, they do study at this time that they may destroy the liberty of thy people, (for thus saith the Lord) which is contrary to the statutes, and judgments, and commandments which he has given unto his people.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had received his message from the angel of the Lord he returned speedily to the land of Ammonihah. And he entered the city by another way, yea, by the way which is on the south of the city of Ammonihah.

And as he entered the city he was an hungered, and he said to a man: Will ye give to an humble servant of God something to eat?

And the man said unto him: I am a Nephite, and I know that thou art a holy prophet of God, for thou art the man whom an angel said in a vision: Thou shalt receive. Therefore, go with me into my house and I will impart unto thee of my food; and I know that thou wilt be a blessing unto me and my hous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man received him into his house; and the man was called Amulek; and he brought forth bread and meat and set before Alma.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te bread and was filled; and he blessed Amulek and his house, and he gave thanks unto God.

And after he had eaten and was filled he said unto Amulek: I am Alma, and am the high priest over the church of God throughout the land.

And behold, I have been called to preach the word of God among all this people, according to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prophecy; and I was in this land and they would not receive me, but they cast me out and I was about to set my back towards this land forever.

But behold, I have been commanded that I should turn again and prophesy unto this people, yea, and to testify against them concerning their iniquities.

And now, Amulek, because thou hast fed me and taken me in, thou art blessed; for I was an hungered, for I had fasted many days.

27 이에 엘마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앰올레크와 더불어 여러 날을 머무니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 죄악이 점점 더 중하게 되었더라.

29 이에 말씀이 엘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 또 내 종 앰올레크에게도 이르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시고 이르되—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 중에 이 백성을 징벌하리니, 내가 내 맹렬한 노여움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30 이에 엘마와, 또한 앰올레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백성 중에 나아가매,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31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지라, 그들을 땅 밑 옥에 가둘 수 없었으며, 아무도 능히 그들을 죽일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줄에 결박되어 감옥에 던져지기까지 그들의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을 보이시고자 하심이었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 주께서 주신 영과 권능을 좇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며 예언하기 시작하니라.

And Alma tarried many days with Amulek before he began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did wax more gross in their iniquities.

And the word came to Alma, saying: Go; and also say unto my servant Amulek, go forth and prophesy unto this people, saying—Repent ye, for thus saith the Lord, except ye repent I will visit this people in mine anger; yea, and I will not turn my fierce anger away.

And Alma went forth, and also Amulek, among the people, to declare the words of God unto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they had power given unto them, insomuch that they could not be confined in dungeons; neither was it possible that any man could slay them; nevertheless they did not exercise their power until they were bound in bands and cast into prison. Now, this was done that the Lord might show forth his power i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forth and began to preach and to prophesy unto the peopl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power which the Lord had given them.

엘마의 말과 또한 앰올레크의 말이니, 곧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선포된 것이라. 또한 그들이 투옥되었으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견지심을 입음. 엘마의 기록에 의함.

## 엘마서 9

- 1 그리고 또 나 엘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앰올레크를 데리고 나아가 이 백성 곧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아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나와 더불어 다투기 시작하여 이르되,
  - 2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비록 땅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파한다 해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증거를 믿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더라.
  - 3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는 땅이 반드시 없어질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음이라.
  - 4 그들이 또 이르되, 이 큰 성이 하루에 멸망당하리라고 설혹 네가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네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였더라.
  - 5 이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 6 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관대, 단 한 사람만의 권세 있는 자를 이 백성 가운데 보내어, 그와 같이 크고 기이한 일의 참됨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느냐?
  - 7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나에게 손을 대려 하였으나, 보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고자 담대함을 지니고 섰나니, 참으로 내가 담대히 그들에게 증거하여 이르되,
    - 8 보라,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너희가 어찌 그리 잊었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잊어버렸느냐.
    - 9 우리 조상 리하이가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인도되어 나온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모두 그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The words of Alma, and also the words of Amulek, which were declared unto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Ammonihah. And also they are cast into prison, and delivered by the miraculous power of God which was in them, according to the record of Alma.*

## Alma 9

And again, I, Alma, having been commanded of God that I should take Amulek and go forth and preach again unto this people, or the people who were in the city of Ammonihah, it came to pass as I began to preach unto them, they began to contend with me, saying:

Who art thou? Suppose ye that we shall believe the testimony of one man, although he should preach unto us that the earth should pass away?

Now they understood not the words which they spake; for they knew not that the earth should pass away.

And they said also: We will not believe thy words if thou shouldst prophesy that this great city should be destroyed in one day.

Now they knew not that God could do such marvelous works, for they were a hard-hearted and a stiffnecked people.

And they said: Who is God, that sendeth no more authority than one man among this people, to declare unto them the truth of such great and marvelous things?

And they stood forth to lay their hands on me; but behold, they did not. And I stood with boldness to declare unto them, yea, I did boldly testify unto them, saying:

Behold, O ye wicked and perverse generation, how have ye forgotten the tradition of your fathers; yea, how soon ye have forgotten the commandments of God.

Do ye not remember that our father, Lehi, was brought out of Jerusalem by the hand of God? Do ye not remember that they were all led by him through the wilderness?



- 10 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 조상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으며, 또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것처럼 속히 잊었느냐?
- 11 만일 그의 비길 데가 없는 권능과 그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시기보다 훨씬 오래 전에, 지면에서 끊어져 아마도 끝없는 비참과 재난의 상태에 처해졌으리라.
- 12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그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 참으로 그가 그 분노 중에 너희를 징벌하시리니,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 13 보라, 너희는 그가 리하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고, 또 일렸으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도다.
- 14 이제 나는 레이맨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우리가 보건대 이 일에 주의 말씀이 입증되어, 레이맨인들이 이 땅에서 범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면전에서 끊어짐을 당하였도다.
- 15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진대, 심판 날에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생에서도 그들이 너희보다 실로 더욱 견디기 쉬우리라.
- 16 이는 레이맨인들에게 많은 약속이 내려졌음이니,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조상들의 전통의 연고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그들의 생존을 길게 해 주실 것이요,

And have ye forgotten so soon how many times he delivered our fathers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preserved them from being destroyed, even by the hands of their own brethren?

Yea, and if it had not been for his matchless power, and his mercy, and his long-suffering towards us, we should unavoidably have been cut off from the face of the earth long before this period of time, and perhaps been consigned to a state of endless misery and woe.

Behold, now I say unto you that he commandeth you to repent; and except ye repent, ye can in nowise inherit the kingdom of God. But behold, this is not all—he has commanded you to repent, or he will utterly destroy you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yea, he will visit you in his anger, and in his fierce anger he will not turn away.

Behold, do ye not remember the words which he spake unto Lehi, saying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again it is said that: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b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Now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inasmuch as the Lamanites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s of God, they have been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Now we see that the word of the Lord has been verified in this thing, and the Lamanites have been cut off from his presence, from the beginning of their transgressions in the land.

Nevertheless I say unto you, that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them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if ye remain in your sins, yea, and even more tolerable for them in this life than for you, except ye repent.

For there are many promises which are extended to the Lamanites; for it is because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that caused them to remain in their state of ignorance; therefore the Lord will be merciful unto them and prolong their existence in the land.

- 17 또 어느 시기엔가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게 되어, 그 조상들의 전통이 그른 줄을 알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구원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 18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간악함을 고집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이 와서 너희에게 온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니, 주의 맹렬한 노여움을 좇아 그리되리라.
- 19 이는 주께서 너희가 너희의 죄악 중에 살아서 그의 백성을 멸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보다는 니파이 백성이라 칭하는 그의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것처럼 많은 빛과 것처럼 많은 지식을 얻은 후, 만일 죄와 범법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는 차라리 레이맨인들이 그의 백성을 모두 멸할 것을 용납하시리라.
- 20 참으로 주의 은총을 그토록 크게 받는 백성이 된 후에, 참으로 다른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성보다 더 은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신앙과 기도를 좇아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 21 하나님의 영의 방문을 받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과 또한 많은 은사 곧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성신의 은사와 해석하는 은사를 받고,
- 22 더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건져 내심을 입고, 기근에서와 질병과 각종 온갖 질환에서 구제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점차 강하게 되어 멸망하지 않게 되고, 여러 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입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받아 그들이 온갖 것이 풍족하기까지 번영하게 된 후에—

And at some period of time they will be brought to believe in his word, and to know of the incorrectness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nd many of them will be saved, for the Lord will be merciful unto all who call on his name.

But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ye persist in your wickedness that your days shall not be prolonged in the land, for the Lamanites shall be sent upon you; and if ye repent not they shall come in a time when you know not, and ye shall be visited with utter destruction; and it shall be according to the fierce anger of the Lord.

For he will not suffer you that ye shall live in your iniquities, to destroy his people. I say unto you, Nay; he would rather suffer that the Lamanites might destroy all his people who are called the people of Nephi, if it were possible that they could fall into sins and transgressions, after having had so much light and so much knowledge given unto them of the Lord their God;

Yea, after having been such a highly favored people of the Lord; yea, after having been favored above every other nation, kindred, tongue, or people; after having had all things made known unto them, according to their desires, and their faith, and prayers, of that which has been, and which is, and which is to come;

Having been visited by the Spirit of God; having conversed with angels, and having been spoken unto by the voice of the Lord; and having the spirit of prophecy, and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also many gifts, the gift of speaking with tongues, and the gift of preaching, and the gift of the Holy Ghost, and the gift of translation;

Yea, and after having been delivered of God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by the hand of the Lord; having been saved from famine, and from sickness, and all manner of diseases of every kind; and they having waxed strong in battle, that they might not be destroyed; having been brought out of bondage time after time, and having been kept and preserved until now; and they have been prospered until they are rich in all manner of things—

2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주의 손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복을 받은 이 백성이, 만일 그들이 가진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법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러할 경우, 곧 그들이 범법에 빠질진대 레이맨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

24 이는 보라, 주의 약속이 레이맨인들에게는 내려졌으나, 너희가 범법하는 경우 너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니, 대저 주께서는 너희가 그를 거역하면 너희가 지면에서 온전히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굳게 명하시지 아니하셨더냐?

25 또 이제 너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연유로, 주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하게 하셨느니라.

26 또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오시리니, 그의 영광은 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충만하시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속히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것이라.

27 또 보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28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거둘 때가 가까웠음이니—만일 그 행위가 의로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좇아, 그 영혼의 구원을 거둘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였으면 악마의 권능과 사로잡음을 좇아, 그 영혼의 저주를 거두게 되리라.

29 이제 보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천사의 음성이니라.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this people, who have received so many blessings from the hand of the Lord, should transgress contrary to the light and knowledge which they do have, I say unto you that if this be the case, that if they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it would be far more tolerable for the Lamanites than for them.

For behold, the promises of the Lord are extended to the Lamanites, but they are not unto you if ye transgress; for has not the Lord expressly promised and firmly decreed, that if ye will rebel against him that ye shall utterly be destroyed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And now for this cause, that ye may not be destroyed, the Lord has sent his angel to visit many of his people, declaring unto them that they must go forth and cry mightily unto this people,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igh at hand;

And not many days hence the Son of God shall come in his glory; and his glory shall be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equity, and truth, full of patience, mercy, and long-suffering, quick to hear the cries of his people and to answer their prayers.

And behold, he cometh to redeem those who will be baptized unto repentance, through faith on his name.

Therefore,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for the time is at hand that all men shall reap a reward of their works, according to that which they have been—if they have been righteous they shall reap the salvation of their souls, according to the power and deliverance of Jesus Christ; and if they have been evil they shall reap the damnation of their souls, according to the power and captivation of the devil.

Now behold, this is the voice of the angel, crying unto the people.

30 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형제요, 너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함이니, 너희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내가 보니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심히 완악하게 되었으며, 내가 보니 너희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로다.

3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엘마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보라,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에게 노하였더라.

32 또한 내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에게 성을 내어, 나를 옥에 던져 넣고자, 내게 손을 대려 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때에 그들이 나를 잡아 옥에 던져 넣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셨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울레크가 나아가 서서 그들에게 역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또 이제 앰울레크의 말이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말의 일부분이 이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And now, my beloved brethren, for ye are my brethren, and ye ought to be beloved, and ye ought to bring forth works which are meet for repentance, seeing that your hearts have been grossly hardened against the word of God, and seeing that ye are a lost and a fallen people.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I, Alma, had spoken these words, behold, the people were wroth with me because I said unto them that they were a hard-hearted and a stiffnecked people.

And also because I said unto them that they were a lost and a fallen people they were angry with me, and sought to lay their hands upon me, that they might cast me into prison.

But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not suffer them that they should take me at that time and cast me into prison.

And it came to pass that Amulek went and stood forth, and began to preach unto them also. And now the words of Amulek are not all written, nevertheless a part of his words are written in this book.

## 앨마서 10

- 1 이제 이는 앰울레크가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전한 말이니 이르되,
  - 2 나는 앰울레크로라, 나는 길도나의 아들이니, 길도나는 이스마엘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은 아민 아다이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진 성전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한 바로 그 아민아다이니라.
  - 3 또 아민아다이는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의 후손이니, 리하이는 그 형제들의 손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땅에서 나왔느니라.
  - 4 또 보라, 나는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자 중에 적지 않은 명성을 지닌 자라, 그뿐 아니라 보라, 내게는 친척과 친구가 많으며, 나는 또한 나의 근면한 손으로 많은 부를 얻었노라.
  - 5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과, 그의 비밀과 기이한 권능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보라, 이는 내가 잘못 말함이니, 이는 참으로 이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심 중에 나타난 그의 비밀과 그의 기이한 권능을 내가 많이 보았음이니라.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판사 치세 제십년에 든, 이 제 칠월의 넷째 날까지도 내 마음의 간악함 중에,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해 왔었노라.
  - 7 내가 아주 가까운 한 친척을 찾아보려고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이르되, 앰울레크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네가 주의 한 선지자를 먹여야 할 것임이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거룩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가 여러 날 금식하여, 이제 주립이니, 네가 그를 네 집에 영접하여 먹이라. 그가 너와 네 집을 축복하리니 주의 복이 너와 네 집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더라.

## Alma 10

Now these are the words which Amulek preached unto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Ammonihah, saying:

I am Amulek; I am the son of Giddonah, who was the son of Ishmael, who was a descendant of Aminadi; and it was that same Aminadi who interpreted the writing which was upon the wall of the temple, which was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And Aminadi was a descendant of Nephi, who was the son of Lehi, who came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who was a descendant of Manasseh, who was the son of Joseph who was sold into Egypt by the hands of his brethren.

And behold, I am also a man of no small reputation among all those who know me; yea, and behold, I have many kindreds and friends, and I have also acquired much riches by the hand of my industry.

Nevertheless, after all this, I never have known much of the ways of the Lord, and his mysteries and marvelous power. I said I never had known much of these things; but behold, I mistake, for I have seen much of his mysteries and his marvelous power; yea, even in the preservation of the lives of this people.

Nevertheless, I did harden my heart, for I was called many times and I would not hear; therefore I knew concerning these things, yet I would not know; therefore I went on rebelling against God, in the wickedness of my heart, even until the fourth day of this seventh month, which is in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s I was journeying to see a very near kindre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me and said: Amulek, return to thine own house, for thou shalt feed a prophet of the Lord; yea, a holy man, who is a chosen man of God; for he has fasted many days because of the sins of this people, and he is an hungered, and thou shalt receive him into thy house and feed him, and he shall bless thee and thy hous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shall rest upon thee and thy house.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집을 향하여 돌아왔고, 내가 그리로 가다가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네 집에 영접하라 한 그 사람을 발견하였노니—보라 그는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느니라.
- 9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가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 10 그리고 또 나는 그가 증거한 일들이 참된 줄을 아노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주께서 사심같이,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음이라. 그리고 이 엘마가 내 집에 거하는 동안 주께서 이를 행하셨느니라.
- 11 이는 보라, 그는 내 집을 축복하였나니, 그가 나와 나의 여자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친과 나의 친족을 축복하되, 참으로 나의 온 혈족을 그가 축복하매, 주의 복이 그가 한 말대로 우리에게 머물렀느니라.
- 12 이에 이제 앰올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고소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좇아,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만이 아님을 봄이더라.
-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는 그들에게 질문하여, 자기의 간교한 책략으로 그들을 그 말 중에 사로잡아 그들을 치는 증거를 찾고, 그리하여 그들을 그들의 판사들에게 넘겨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며, 그들이 꾸미거나 그들을 쳐서 증거할 수 있는 죄목을 따라,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옥에 던져지게 하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몇이 있었더라.
- 14 이제 이들은 그들을 멸하기를 꾀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백성들에게 고용되거나 임명되어 판사 앞에서 그들이 재판 받을 때에, 곧 백성들의 범 죄를 재판함에 있어, 법을 베푸는 율법사들이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obeyed the voice of the angel, and returned towards my house. And as I was going thither I found the man whom the angel said unto me: Thou shalt receive into thy house—and behold it was this same man who has been speaking unto you concerning the things of God.

And the angel said unto me he is a holy man; wherefore I know he is a holy man because it was said by an angel of God.

And again, I know that the things whereof he hath testified are true; for behold I say unto you, that as the Lord liveth, even so has he sent his angel to make these things manifest unto me; and this he has done while this Alma hath dwelt at my house.

For behold, he hath blessed mine house, he hath blessed me, and my women, and my children, and my father and my kinsfolk; yea, even all my kindred hath he blessed,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hath rested upon us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he spake.

And now, when Amulek had spoken these words the people began to be astonished, seeing there was more than one witness who testified of the things whereof they were accused, and also of the things which were to come,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which was in them.

Nevertheless, there were some among them who thought to question them, that by their cunning devices they might catch them in their words, that they might find witness against them, that they might deliver them to their judges that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the law, and that they might be slain or cast into prison, according to the crime which they could make appear or witness against them.

Now it was those men who sought to destroy them, who were lawyers, who were hired or appointed by the people to administer the law at their times of trials, or at the trials of the crimes of the people before the judges.

15 이제 이들 율법사들은 백성의 모든 술책과 간계를 배웠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업에 능숙하게 해 주는 것이었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앰올레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말에 책잡히게 하려 하였으니, 곧 자기가 하게 될 말에 모순되게 하려 함이더라.

17 이제 그들은 앰올레크가 그들의 계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매, 그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율법사들과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악마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잡으려고 덫과 올무를 놓고 있음이니라.

18 너희는 의의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초래하여, 실로 이 백성을 온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도다.

19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왕이었던 모사이야가 잘 말하였나니, 그가 나라를 넘겨 주려 할 즈음에, 이를 물려 줄 자가 없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소리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할 적에—참으로 그가 잘 말하였나니 곧 만일 이 백성의 소리가 죄악을 택할 때가 이르면, 즉 만일 이 백성이 범법에 빠질 때가 이르면, 그들의 멸망이 무르익으리라 하였느니라.

20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죄악을 잘 판단하시는도다. 그가 그 천사들의 음성으로 이 백성에게 잘 외치시는도다. 이르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느니라.

21 참으로 그가 그 천사들의 음성으로 잘 외치시는도다. 이르시되, 내가 공평과 정의를 내 손에 들고, 내 백성 가운데로 내려가리라 하시도다.

22 이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너희에게는 지금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로되, 이는 노아의 시대에 백성이 그리되었던 것같이, 홍수에 의한 멸망이 아니요, 기근과 역병과 검에 의한 멸망일 것이니라.

Now these lawyers were learned in all the arts and cunning of the people; and this was to enable them that they might be skilful in their professi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gan to question Amulek, that thereby they might make him cross his words, or contradict the words which he should speak.

Now they knew not that Amulek could know of their designs. But it came to pass as they began to question him, he perceived their thoughts, and he said unto them: O ye wicked and perverse generation, ye lawyers and hypocrites, for ye are laying the foundations of the devil; for ye are laying traps and snares to catch the holy ones of God.

Ye are laying plans to pervert the ways of the righteous, and to bring down the wrath of God upon your heads, even to the utter destruction of this people.

Yea, well did Mosiah say, who was our last king, when he was about to deliver up the kingdom, having no one to confer it upon, causing that this people should be governed by their own voices—yea, well did he say that if the time should come that the voice of this people should choose iniquity, that is, if the time should come that this people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they would be ripe for destruction.

And now I say unto you that well doth the Lord judge of your iniquities; well doth he cry unto this people, by the voice of his angels: Repent y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Yea, well doth he cry, by the voice of his angels that: I will come down among my people, with equity and justice in my hands.

Yea, and I say unto you that if it were not for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who are now in the land, that ye would even now be visited with utter destruction; yet it would not be by flood, as were the people in the days of Noah, but it would be by famine, and by pestilence, and the sword.

23 그러나 너희가 면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기도  
에 의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들을 내어 쫓으면 주께서는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너  
희를 치러 나오실 것이라. 그때 너희가 기근과 역  
병과 검으로 치심을 입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때가 곧 가까이 이르리라.

2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앰올레크  
에게 더욱 노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자가 공의  
로운 우리의 법과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현명한  
울법사들에게 대하여 욕하는도다 하였더라.

25 그러나 앰올레크가 그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더욱 힘차게 외쳐 이르되,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그토록 크  
게 붙잡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에게 스스로  
를 내어 맡겨 그로 너희를 다스릴 권능을 갖게 하  
고, 너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하는 말을 너  
희가 그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26 보라, 내가 너희의 법이 그릇되다 증거하더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너희 말이 내가 너희  
의 법을 거스려 말하였다 하도다. 그러나 내가 그  
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너희의 법을  
인정하여 말함으로써, 너희를 정죄하였느니라.

27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  
의 멸망의 기초가 너희의 울법사들과 너희의 판사  
들의 불의로 놓이기 시작하고 있느니라.

2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올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그에게 소리 질러 이르  
되, 이제 우리는 이 자가 악마의 자식인 줄 아노  
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였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말  
하기를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  
는도다.

29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울법사들과 우리의 판사  
들을 욕 하였도다 하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울법사들이 그를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것을 자기들의 마음 속에  
넣어 두니라.

But it is by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that ye are  
spared; now therefore, if ye will cast out the right-  
eous from among you then will not the Lord stay his  
hand; but in his fierce anger he will come out against  
you; then ye shall be smitten by famine, and by pesti-  
lence, and by the sword; and the time is soon at hand  
except ye repent.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were more  
angry with Amulek, and they cried out, saying: This  
man doth revile against our laws which are just, and  
our wise lawyers whom we have selected.

But Amulek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cried  
the mightier unto them, saying: O ye wicked and  
perverse generation, why hath Satan got such great  
hold upon your hearts? Why will ye yield yourselves  
unto him that he may have power over you, to blind  
your eyes, that ye will not understand the words  
which are spoken, according to their truth?

For behold, have I testified against your law? Ye do  
not understand; ye say that I have spoken against  
your law; but I have not, but I have spoken in favor  
of your law, to your condemnation.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founda-  
tion of the destruction of this people is beginning to  
be laid by the unrighteousness of your lawyers and  
your judge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mulek had  
spoken these words the people cried out against him,  
saying: Now we know that this man is a child of the  
devil, for he hath lied unto us; for he hath spoken  
against our law. And now he says that he has not spo-  
ken against it.

And again, he has reviled against our lawyers, and  
our judg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wyers put it into  
their hearts that they should remember these things  
against him.



31 또 그들 가운데 이름이 지에즈롬이라 하는 자가 있더니, 그는 그들 가운데 가장 노련한 자들 중 하나요, 백성 가운데 많은 일거리를 가진 자로, 이제 앰올레크와 앨마를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더라.

32 이제 이 율법사들의 목적은 이득을 얻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이득을 얻음은 그들의 고용된 정도에 따랐더라.

And there was one among them whose name was Zeezrom. Now he was the foremost to accuse Amulek and Alma, he being one of the most expert among them, having much business to do among the people.

Now the object of these lawyers was to get gain; and they got gain according to their employ.

## 앨마서 11

- 1 이제 모사이야의 법에는 법의 재판관인 각 사람이나, 또는 판사로 임명된 자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 끌려 온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어 있더라.
- 2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 졌는데, 그가 그 빚진 것을 갚고자 아니하면, 그는 판사에게로 고발당하였고, 판사는 권세를 발동하여, 관원을 내보내어 그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 오게 하고, 법과 그를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좇아 그 사람을 재판하였으니, 이리하여 그 사람은 자기가 빚진 것을 억지로 갚게 되거나, 가진 것을 몰수당하거나, 도적이거나 강도로서 백성 가운데서 쫓겨났더라.
- 3 또 판사는 자기의 시간에 따라 자신의 보수로—하루에 금 한 시나인이나, 금 한 시나인과 같은 은 한 시늉을 받았으니, 이는 주어진 법에 따른 것이더라.
- 4 이제 이는 그 값어치를 따라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각기 다른 조각의 명칭이니, 이 명칭은 니파이인들이 붙인 것이다.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세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재지도 아니하였음이니, 그들은 판사 치세 때까지, 각 세대에서, 백성들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그들의 세는 법과 그들의 재는 법을 변경시키다가, 그 법이 모사이야 왕에 의해 확립되었더라.
- 5 이제 그 세는 법은 이와 같으니 금 한 시나인, 금 한 시안, 금 한 슝, 그리고 금 한 립나요,
- 6 은 한 시늉, 은 한 앰노어, 은 한 에스롬, 그리고 은 한 온타이니라.
- 7 은 한 시늉은 금 한 시나인과 같으며, 보리 한 말의 값이거나, 각종 곡물 한 말의 값도 되더라.
- 8 이제 금 한 시안의 금액은 한 시나인 가치의 두 배요,
- 9 또 금 한 슝은 한 시안 가치의 두 배요,
- 10 또 금 한 립나는 이들 모두의 가치에 해당하며,
- 11 또 은 한 앰노어는 두 시늉과 같고,

## Alma 11

Now it was in the law of Mosiah that every man who was a judge of the law, or those who were appointed to be judges, should receive wages according to the time which they labored to judge those who were brought before them to be judged.

Now if a man owed another, and he would not pay that which he did owe, he was complained of to the judge; and the judge executed authority, and sent forth officers that the man should be brought before him; and he judged the man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evidences which were brought against him, and thus the man was compelled to pay that which he owed, or be stripped, or be cast out from among the people as a thief and a robber.

And the judge received for his wages according to his time—a senine of gold for a day, or a senum of silver, which is equal to a senine of gold; and this is according to the law which was given.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different pieces of their gold, and of their silver, according to their value. And the names are given by the Nephites, for they did not reckon after the manner of the Jews who were at Jerusalem; neither did they measure after the manner of the Jews; but they altered their reckoning and their measure, according to the mind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people, in every generation, until the reign of the judges, they having been established by king Mosiah.

Now the reckoning is thus—a senine of gold, a seon of gold, a shum of gold, and a limnah of gold.

A senum of silver, an amnor of silver, an ezrom of silver, and an onti of silver.

A senum of silver was equal to a senine of gold, and either for a measure of barley, and also for a measure of every kind of grain.

Now the amount of a seon of gold was twice the value of a senine.

And a shum of gold was twice the value of a seon.

And a limnah of gold was the value of them all.

And an amnor of silver was as great as two senums.

12 또 은 한 스롬은 네 시눔과 같고,  
 13 또 한 온타이는 이들 모두와 같더라.  
 14 이제 이는 그들의 셈에 있어 작은 수의 가치  
 나—  
 15 한 시블론은 한 시눔의 절반이라, 그러므로 보  
 리 반 말에 한 시블론이요,  
 16 또 한 시블럼은 한 시블론의 절반이요,  
 17 또 한 리아는 한 시블럼의 절반이니라.  
 18 이제 이는 그들의 세는 법을 따른 그들의 수니,  
 19 이제 금 한 앤티온은 세 시블론과 같으니라.  
 20 이제 그 일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단 한가지 목  
 적을 위한 것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 고용된 정  
 도를 따라 보수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온갖 소요와 악행을 야  
 기하게 하여, 그들 앞에 가져오는 송사를 따라, 돈  
 을 벌려 하였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선  
 동하여 엘마와 앰올레크를 대적하게 하였더라.  
 21 이에 이 지에즈롬이 앰올레크에게 질문하기 시  
 작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  
 답해 주겠느냐 하였으니, 이제 지에즈롬은 악마의  
 계략에 노련한 자라, 능히 선한 일을 멸할 만하더  
 라. 이러므로 그가 앰올레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건네는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하였더라.  
 22 이에 앰올레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따른 것일진대 그리하리니, 이는 주의  
 영에 반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지에즈롬이 그에게 말하되, 보  
 라 여기 은 여섯 온타이가 있나니, 만일 네가 지존  
 자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를 다 네게 주리라.  
 23 이제 앰올레크가 이르되, 너 지옥의 자식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의인은 그러한 시험  
 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24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믿느냐?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나, 네가 하나님보다 저 이득을 더 사랑하는  
 도다.

And an ezrom of silver was as great as four  
 senums.

And an onti was as great as them all.

Now this is the value of the lesser numbers of their  
 reckoning—

A shiblon is half of a senum; therefore, a shiblon  
 for half a measure of barley.

And a shiblum is a half of a shiblon.

And a Leah is the half of a shiblum.

Now this is their number, according to their reck-  
 oning.

Now an antion of gold is equal to three shiblons.

Now, it was for the sole purpose to get gain, be-  
 cause they received their wages according to their  
 employ, therefore, they did stir up the people to riot-  
 ings, and all manner of disturbances and wicked-  
 ness, that they might have more employ, that they  
 might get money according to the suits which were  
 brought before them; therefore they did stir up the  
 people against Alma and Amulek.

And this Zeezrom began to question Amulek, say-  
 ing: Will ye answer me a few questions which I shall  
 ask you? Now Zeezrom was a man who was expert in  
 the devices of the devil, that he might destroy that  
 which was good; therefore, he said unto Amulek:  
 Will ye answer the questions which I shall put unto  
 you?

And Amulek said unto him: Yea, if it be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is in me; for I shall  
 say nothing which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Lord. And Zeezrom said unto him: Behold, here are  
 six onties of silver, and all these will I give thee if  
 thou wilt deny the existence of a Supreme Being.

Now Amulek said: O thou child of hell, why tempt  
 ye me? Knowest thou that the righteous yieldeth to  
 no such temptations?

Believest thou that there is no God? I say unto you,  
 Nay, thou knowest that there is a God, but thou  
 lovest that lucre more than him.

25 또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이르기를—큰 값어치가 있는 이 여섯 온타이를 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하였을 때 너는 네 마음에 그것들을 나에게 주지 아니할 뜻을 품고 있었고, 내가 나를 멸할 빌미를 갖도록, 내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다만 너의 원하는 바 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큰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보응을 받으리라.

26 이에 지에즈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27 이에 앰올레크가 이르되, 그러하다,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28 이제 지에즈롬이 이르되, 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있느냐?

29 이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30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이러한 것을 네가 어찌 아느냐?

31 이에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를 내게 알려 주었느니라.

32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오실 그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33 그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니라.

34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겠느냐? 앰올레크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심은 불가능함이니라.

35 이제 지에즈롬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며,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함이니—마치 그가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이 말하였다.

36 이제 앰올레크가 저에게 다시 이르되, 보라 너는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이는 네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말하였다 하여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이 말하였다 함이라.

And now thou hast lied before God unto me. Thou saidst unto me—Behold these six onties, which are of great worth, I will give unto thee—when thou hadst it in thy heart to retain them from me; and it was only thy desire that I should deny the true and living God, that thou mightest have cause to destroy me. And now behold, for this great evil thou shalt have thy reward.

And Zeezrom said unto him: Thou sayest there is a true and living God?

And Amulek said: Yea, there is a true and living God.

Now Zeezrom said: Is there more than one God?

And he answered, No.

Now Zeezrom said unto him again: How knowest thou these things?

And he said: An angel hath made them known unto me.

And Zeezrom said again: Who is he that shall come? Is it the Son of God?

And he said unto him, Yea.

And Zeezrom said again: Shall he save his people in their sins? And Amulek answered and said unto him: I say unto you he shall not, for it is impossible for him to deny his word.

Now Zeezrom said unto the people: See that ye remember these things; for he said there is but one God; yet he saith that the Son of God shall come, but he shall not save his people—as though he had authority to command God.

Now Amulek saith again unto him: Behold thou hast lied, for thou sayest that I spake as though I had authority to command God because I said he shall not save his people in their sins.

- 37 또한 내가 거듭 네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음이요, 그가 말씀하시되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 38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시나?
- 39 앰울레크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도다,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니, 그는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라.
- 40 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 세상에 오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법을 짚어지시리니, 이들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 41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 이는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옴이니라.
- 42 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 43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의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같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명백히 상기하게 되리라.
- 44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And I say unto you again that he cannot save them in their sins; for I cannot deny his word, and he hath said that no unclean thing can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how can ye be saved, except ye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ye cannot be saved in your sins.

Now Zeezrom saith again unto him: Is the Son of God the very Eternal Father?

And Amulek said unto him: Yea, he is the very Eternal Father of heaven and of earth, and all things which in them are;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

And he shall come into the world to redeem his people; and he shall take upon him the transgressions of those who believe on his name; and these are they that shall have eternal life, and salvation cometh to none else.

Therefore the wicked remain as though there had been no redemption made, except it be the loosing of the bands of death; for behold, the day cometh that all shall rise from the dead and stand before God, an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Now, there is a death which is called a temporal death; and the death of Christ shall loose the bands of this temporal death, that all shall be raised from this temporal death.

The spirit and the body shall be reunited again in its perfect form; both limb and joint shall be restored to its proper frame, even as we now are at this time; and we shall be brought to stand before God, knowing even as we know now, and have a bright recollection of all our guilt.

Now, this restoration shall come to all, both old and young, both bond and free, both male and female, both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and even there shall not so much as a hair of their heads be lost; but every thing shall be restored to its perfect frame, as it is now, or in the body, and shall be brought and be arraigned before the bar of Christ the Son, and God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which is one Eternal God,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whether they be evil.

45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죽어야 하는 육신의 사망에 관하여, 또 죽어야 하는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나니, 이는 사망 곧 첫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 그들의 영은 그들의 몸과 결합하여,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이니, 이리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죽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시는 썩음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46 이제 앰울레크가 이 말을 마쳤을 때 백성들이 다시 놀라기 시작하였고, 지에즈롬도 떨기 시작하더라. 이같이 앰울레크의 말이 끝났으니,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기록한 전부니라.

Now, behold, I have spoken unto you concerning the death of the mortal body, and also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mortal body. I say unto you that this mortal body is raised to an immortal body, that is from death, even from the first death unto life, that they can die no more; their spirits uniting with their bodies, never to be divided; thus the whole becoming spiritual and immortal, that they can no more see corruption.

Now, when Amulek had finished these words the people began again to be astonished, and also Zeezrom began to tremble. And thus ended the words of Amulek, or this is all that I have written.

## 엘마서 12

- 1 이제 엘마는 앰올레크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지에즈롬의 거짓말과 속임을 간파해 내었으므로, 앰올레크의 말이 지에즈롬을 잠잠하게 한 것을 보고, 또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입을 열어 그에게 말하며, 앰올레크의 말을 확증하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되, 곧 앰올레크가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전을 해설하기 시작하였더라.
- 2 이제 엘마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은 사방에 돌린 백성에게 들렸으니, 무리가 컸음ियो,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 3 이제 지에즈롬아, 너의 거짓말과 간교함 중에 내가 잡힌 것을 보니, 내가 사람에게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였음이다. 이는 보라, 그는 너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심이니, 너의 생각이 그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내가 보느니라.
- 4 너는 또 너의 계획이 악마의 간교함에 따른 매우 간교한 계획이라, 거짓말하며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우리를 대적하게 하여, 우리를 욕하며 쫓아내게 하려는 것이었던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나니—
- 5 이제 이는 네 대적의 계획이었으며, 그가 네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였도다. 이제 나는 내가 네게 이르는 것이 모두에게 말하는 것인 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 6 또 보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거니와 이는 이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놓은 대적의 올무였나니, 너희를 자기에게 복종시켜, 그의 사슬로 너희를 에워, 그의 사로잡는 능력을 좇아, 너희를 영원한 멸망으로 엮어 내리려 함이니라.
- 7 이제 엘마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지에즈롬이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하였나니, 이는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음ियो, 또 그는 엘마와 앰올레크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음을 깨달았음이라. 이는 예언의 영을 좇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음이다.

## Alma 12

Now Alma, seeing that the words of Amulek had silenced Zeezrom, for he beheld that Amulek had caught him in his lying and deceiving to destroy him, and seeing that he began to tremble under a consciousness of his guilt, he opened his mouth and began to speak unto him, and to establish the words of Amulek, and to explain things beyond, or to unfold the scriptures beyond that which Amulek had done.

Now the words that Alma spake unto Zeezrom were heard by the people round about; for the multitude was great, and he spake on this wise:

Now Zeezrom, seeing that thou hast been taken in thy lying and craftiness, for thou hast not lied unto men only but thou hast lied unto God; for behold, he knows all thy thoughts, and thou seest that thy thoughts are made known unto us by his Spirit;

And thou seest that we know that thy plan was a very subtle plan, as to the subtlety of the devil, for to lie and to deceive this people that thou mightest set them against us, to revile us and to cast us out—

Now this was a plan of thine adversary, and he hath exercised his power in thee. Now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what I say unto thee I say unto all.

And behold I say unto you all that this was a snare of the adversary, which he has laid to catch this people, that he might bring you into subjection unto him, that he might encircle you about with his chains, that he might chain you down to everlasting destruction, according to the power of his captivity.

Now when Alma had spoken these words, Zeezrom began to tremble more exceedingly, for he was convinced more and more of the power of God; and he was also convinced that Alma and Amulek had a knowledge of him, for he was convinced that they knew the thoughts and intents of his heart; for power was given unto them that they might know of these things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8 이에 지에즈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여 열심으로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엘마에게 이르되, 앰울레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 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9 이에 이제 엘마가 이러한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10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느니라.

11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리라. 이제 이것이 지옥의 사슬이 뜻하는 바니라.

12 또 앰울레크가 죽음과 이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일으킴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되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13 그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으면,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스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때 우리의 상태가 참담하리니, 이는 그때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임이라.

And Zeezrom began to inquire of them diligently, that he might know more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he said unto Alma: What does this mean which Amulek hath spoken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all shall rise from the dead, both the just and the unjust, and are brought to stand before God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now Alma began to expound these things unto him, saying: It is given unto many to know the mysteries of God; nevertheless they are laid under a strict command that they shall not impart only according to the portion of his word which he doth grant unto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 heed and diligence which they give unto him.

And therefore, he that will harden his heart, the same receiveth the lesser portion of the word; and he that will not harden his heart, to him is given the greater portion of the word, until it is given unto him to know the mysteries of God until he know them in full.

And they that will harden their hearts, to them is given the lesser portion of the word until they know nothing concerning his mysteries; and then they are taken captive by the devil, and led by his will down to destruction. Now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chains of hell.

And Amulek hath spoken plainly concerning death, and being raised from this mortality to a state of immortality, and being brought before the bar of God, to be judged according to our works.

Then if our hearts have been hardened, yea, if we have hardened our hearts against the word, inasmuch that it has not been found in us, then will our state be awful, for then we shall be condemned.



14 이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임이니,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바위와 산들을 명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그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할 수 있다면 실로 기쁠 것이라.

15 그러나 그럴 수는 없나니, 우리는 반드시 나와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위엄과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모든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곧 그는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우시며, 그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16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사망, 곧 둘째 사망이 임하나니, 이는 영적인 사망이라, 곧 현세적인 사망으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가 또한 영적인 사망을 당할 때이니, 참으로 그는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17 그때가 그들의 고통이 불과 유황의 못 같을 때이니, 그 불꽃이 세세토록 올라가며, 그때가 그들이 사탄의 능력과 사로잡음에 따라, 사슬에 매여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때이니, 저가 자기 뜻대로 이들을 복종시켰음이라.

1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구속받을 수 없음이요, 씻음이 다시없는 고로, 그들이 죽을 수도 없음이니라.

1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치매, 백성들이 더욱 놀라기 시작하였더라.

20 그러나 그들 중의 한 두령인 자로, 앤티오나라 하는 자가 있더니, 그가 나와 엘마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되어,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게 되리라 한 것이 무엇이냐?

For our words will condemn us, yea, all our works will condemn us; we shall not be found spotless; and our thoughts will also condemn us; and in this awful state we shall not dare to look up to our God; and we would fain be glad if we could command the rocks and the mountains to fall upon us to hide us from his presence.

But this cannot be; we must come forth and stand before him in his glory, and in his power, and in his might, majesty, and dominion, and acknowledge to our everlasting shame that all his judgments are just; that he is just in all his works, and that he is merciful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that he has all power to save every man that believeth on his name and bringeth forth fruit meet for repentance.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en cometh a death, even a second death, which is a spiritual death; then is a time that whosoever dieth in his sins, as to a temporal death, shall also die a spiritual death; yea, he shall die as to things pertaining unto righteousness.

Then is the time when their torments shall be as a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ose flame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and then is the time that they shall be chained down to an everlasting destruction, according to the power and captivity of Satan, he having subjected them according to his will.

Then, I say unto you, they shall be as though there had been no redemption made; for they cannot be redeemed according to God's justice; and they cannot die, seeing there is no more corruption.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hese words, the people began to be more astonished;

But there was one Antionah, who was a chief ruler among them, came forth and said unto him: What is this that thou hast said, that man should rise from the dead and be changed from this mortal to an immortal state, that the soul can never die?

- 21 하나님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우리의 시조가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구절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 22 이에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바야흐로 설명하려던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였음을 알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타락에 의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있느니라.
- 23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아담이 그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요, 말씀은 헛되게 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었으리니,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 24 그리고 우리는 사망, 곧 앰올레크가 말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함을 보나니, 이는 현세적 사망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간이 주어졌나니,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있는, 저 끝없는 상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
- 25 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마련된 구속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려니와, 구속의 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이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라.
- 26 또 이제 보라, 만일 우리의 시조가 나아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준비의 상태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요, 그리하여 구속의 계획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 되어, 아무 효력도 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
- 27 그러나 보라,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으로 나아와야 하리니, 곧 우리가 말한 바 끝이 되는, 바로 그 심판이니라.

What does the scripture mean, which saith that God placed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on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lest our first parents should enter and partake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nd live forever? And thus we see that there was no possible chance that they should live forever.

Now Alma said unto him: This is the thing which I was about to explain. Now we see that Adam did fall by the partaking of the forbidden fruit,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us we see, that by his fall, all mankind became a lost and fallen people.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it had been possible for Adam to have partaken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t that time, there would have been no death, and the word would have been void, making God a liar, for he said: If thou eat thou shalt surely die.

And we see that death comes upon mankind, yea, the death which has been spoken of by Amulek, which is the temporal death; nevertheless there was a space granted unto man in which he might repent; therefore this life became a probationary state; a time to prepare to meet God; a time to prepare for that endless state which has been spoken of by us, which is afte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ow, if it had not been for the plan of redemption, which was lai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re could have been no resurrection of the dead; but there was a plan of redemption laid, which shall bring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of which has been spoken.

And now behold, if it were possible that our first parents could have gone forth and partaken of the tree of life they would have been forever miserable, having no preparatory state; and thus the plan of redemption would have been frustrated, and the word of God would have been void, taking none effect.

But behold, it was not so; but it was appointed unto men that they must die; and after death, they must come to judgment, even that same judgment of which we have spoken, which is the end.

- 28 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정하신 후, 보라, 그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것에 관하여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셨으므로,
- 29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과 대화하게 하시매, 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느니라.
- 30 이에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시되, 이를 그들의 신앙과 회개와 그들의 거룩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알리셨더라.
- 31 이리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나니, 그들은 먼저 현세적인 것에 관한 첫 계명을 어기고, 신들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들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스스로를 두어, 곧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이라—
- 3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나니, 그에 따른 형벌은 둘째 사망이라, 곧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는 구속의 계획이 아무 권능을 미칠 수 없음이요, 하나님의 지선하심을 좇아, 공의의 일이 무너지지 않게 때문이니라.
- 3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나니, (이것이 마련된 구속의 계획이라)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진대, 내가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 34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얻고, 자기의 죄 사함에 이르게 되리니, 이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 35 또 누구든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의를 행할 자는, 보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거니와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And after God had appointed that these things should come unto man, behold, then he saw that it was expedient that man should know concerning the things whereof he had appointed unto them;

Therefore he sent angels to converse with them, who caused men to behold of his glory.

And they began from that time forth to call on his name; therefore God conversed with men, and made known unto them the plan of redemption, which had been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his he made known unto them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repentance and their holy works.

Wherefore, he gave commandments unto men, they having first transgressed the first commandments as to things which were temporal, and becoming as gods, knowing good from evil, placing themselves in a state to act, or being placed in a state to act according to their wills and pleasures, whether to do evil or to do good—

Therefore God gave unto them commandments, after having made known unto them the plan of redemption, that they should not do evil, the penalty thereof being a second death, which was an everlasting death as to things pertaining unto righteousness; for on such the plan of redemption could have no power, for the works of justice could not be destroyed, according to the supreme goodness of God.

But God did call on men, in the name of his Son, (this being the plan of redemption which was laid) saying: If ye will repent, and harden not your hearts, then will I have mercy upon you, through mine Only Begotten Son;

Therefore, whosoever repenteth, and hardeneth not his heart, he shall have claim on mercy through mine Only Begotten Son, unto a remission of his sins; and these shall enter into my rest.

And whosoever will harden his heart and will do iniquity, behold, I swear in my wrath that he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36 이제 나의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너희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악이 그를 격동하시게 함으로 그가 그 진노를 너희 위에 내려 보내심이 첫 번 격동하시게 했을 때와 같나니, 참으로 첫 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격동하시게 할 때에도, 그의 말씀대로 되어 너희 영혼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첫 번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씀대로,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

37 그런즉 이제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것들이 참된즉,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 둘째 계명에 있어 주 우리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여 그의 진노를 우리 위에 초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좇아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

And now, my brethren, behold I say unto you, that if ye will harden your hearts ye shall not enter into the rest of the Lord; therefore your iniquity provoketh him that he sendeth down his wrath upon you as in the first provocation, yea, according to his word in the last provocation as well as the first, to the everlasting destruction of your souls; therefore, according to his word, unto the last death, as well as the first.

And now, my brethren, seeing we know these things, and they are true, let us repent, and harden not our hearts, that we provoke not the Lord our God to pull down his wrath upon us in these his second commandments which he has given unto us; but let us enter into the rest of God, which is prepared according to his word.

## 앨마서 13

- 1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앞으로 옮겨 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그때로 돌리고자 하노니, 나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그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제사들을 성임하사, 이러한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 2 또 그 제사들이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성임된 방식은, 그로써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고대하며 구속을 바라야 할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 3 이에 이것이 그들이 성임된 방식이니라—곧 처음에는 선이나 악을 택하도록 버려 둔 바 되었으나,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택하고 나서, 심히 큰 신앙을 행사하므로, 거룩한 부름, 곧 그러한 자들을 위한 예비적인 구속을 따라, 이와 함께 예비된 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 받은 것이라.
- 4 또 이리하여 그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부름에 부름을 받았으나, 한편 다른 이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생각의 눈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자 하였나니,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똑같이 큰 특권을 얻었을 것이니라.
- 5 달리 말하자면 요컨대,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거룩한 부름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요, 예비되신 독생자의 속죄 안에 또 이를 통하여 있는 것이니라—
- 6 또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역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도록 이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에 성임되었나니—

## Alma 13

And again, my brethren, I would cite your minds forward to the time when the Lord God gave these commandments unto his children; and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the Lord God ordained priests, after his holy order, which was after the order of his Son, to teach these things unto the people.

And those priests were ordained after the order of his Son, in a manner that thereby the people might know in what manner to look forward to his Son for redemption.

And this is the manner after which they were ordained—being called and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on account of their exceeding faith and good works; in the first place being left to choose good or evil; therefore they having chosen good, and exercising exceedingly great faith, are called with a holy calling, yea, with that holy calling which was prepared with, and according to, a preparatory redemption for such.

And thus they have been called to this holy calling on account of their faith, while others would reject the Spirit of God on account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blindness of their minds, while, if it had not been for this they might have had as great privilege as their brethren.

Or in fine, in the first place they were on the same standing with their brethren; thus this holy calling being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or such as would not harden their hearts, being in and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Only Begotten Son, who was prepared—

And thus being called by this holy calling, and ordained unto the high priesthood of the holy order of God, to teach his commandments unto the children of men, that they also might enter into his rest—

- 7 이 대신권은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요, 이 반차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어온 것이니, 달리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비된 것이라.
- 8 이제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임되었나니— 곧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의식으로 성임되어,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을 받아들인 것이라. 이 부름과 의식과 대신권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이니라—
- 9 이같이 그들은 아들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가 되나니, 그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시며, 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과연 그러하도다. 아멘.
- 10 이제 내가 그 거룩한 반차, 곧 이 대신권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성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제사가 된 자가 많았느니라. 이는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그들은 멸망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의를 행하기를 택한 것이라.
- 11 그러므로 그들은 이 거룩한 반차를 따라 부름을 받고, 성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씻겨져 희게 되었느니라.
- 12 이제 그들이 성신에 의해 성결하게 되고, 그들의 옷이 희게 된 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 없이 되어, 혐오함이 없이는 죄를 바라볼 수 없었나니, 정결하게 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많되, 심히 대단히 많았더라.
- 13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노라.
- 14 참으로 멜기세덱 시대의 백성들같이 겸손하라, 멜기세덱은 또한 내가 말한 바로 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였나니, 그도 또한 영원히 대신권을 받아들였던 자니라.
- 15 또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나니, 참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쳤느니라.

This high priesthood being after the order of his Son, which order was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or in other words, being without beginning of days or end of years, being prepared from eternity to all eternity,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of all things—

Now they were ordained after this manner—being called with a holy calling, and ordained with a holy ordinance, and taking upon them the high priesthood of the holy order, which calling, and ordinance, and high priesthood, is without beginning or end—

Thus they become high priests forever, after the order of the Son,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who is without beginning of days or end of years, who is full of grace, equity, and truth. And thus it is. Amen.

Now, as I said concerning the holy order, or this high priesthood, there were many who were ordained and became high priests of God; and it was on account of their exceeding faith and repentance, and their righteousness before God, they choosing to repent and work righteousness rather than to perish;

Therefore they were called after this holy order, and were sanctified, and their garments were washed white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Now they, after being sanctified by the Holy Ghost, having their garments made white, being pure and spotless before God, could not look upon sin save it were with abhorrence; and there were many, exceedingly great many, who were made pure and entered into the rest of the Lord their God.

And now, my brethren, I would that ye should humble yourselves before God, and bring forth fruit meet for repentance, that ye may also enter into that rest.

Yea, humble yourselves even as the people in the days of Melchizedek, who was also a high priest after this same order which I have spoken, who also took upon him the high priesthood forever.

And it was this same Melchizedek to whom Abraham paid tithes; yea, even our father Abraham paid tithes of one-tenth part of all he possessed.

- 16 이제 이 의식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은, 이에 의해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그의 반차의 한 예요, 곧 그의 반차이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를 고대하게 하여, 그들로 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 17 이제 이 멜기세덱은 살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나니,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이 점차 중해져, 참으로 그들이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온갖 간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 18 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매, 보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대에 그 땅에 평강을 이루었더라. 이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음이었요, 또 그는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더라.
- 19 이제 그의 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으나, 더 큰 자가 없었나니,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이더라.
- 20 이제 내가 이 일을 상술할 필요가 없나니, 내가 말한 것으로 족하리로다. 보라, 경전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왜곡하면 그로 인하여 너희 스스로가 멸망하리라.
- 2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 그 손을 내뻗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이 회개할 때니, 이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옴이니라.
- 22 또한 주의 음성이 천사들의 입을 의탁하여, 이를 만국에 선포하시나니, 참으로 그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게 하시려 이를 선포하시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그의 온 백성 중에 울리게 하시나니, 곧 지면에 널리 흩어진 자들에게까지라, 그리하여 그 소식이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 23 또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는 명백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졌나니, 이는 우리가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자 됨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크게 은총을 입었나니, 이는 우리의 포도원 모든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됨이로다.

Now these ordinances were given after this manner, that thereby the people might look forward on the Son of God, it being a type of his order, or it being his order, and this that they might look forward to him for a remission of their sins, that they might enter into the rest of the Lord.

Now this Melchizedek was a king over the land of Salem; and his people had waxed strong in iniquity and abomination; yea, they had all gone astray; they were full of all manner of wickedness;

But Melchizedek having exercised mighty faith, and received the office of the high priesthood according to the holy order of God, did preach repentance unto his people. And behold, they did repent; and Melchizedek did establish peace in the land in his days; therefore he was called the prince of peace, for he was the king of Salem; and he did reign under his father.

Now, there were many before him, and also there were many afterwards, but none were greater; therefore, of him they have more particularly made mention.

Now I need not rehearse the matter; what I have said may suffice. Behold, the scriptures are before you; if ye will wrest them it shall be to your own destruction.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unto them, he stretched forth his hand unto them and cried with a mighty voice, saying: Now is the time to repent, for the day of salvation draweth nigh;

Yea, and the voice of the Lord, by the mouth of angels, doth declare it unto all nations; yea, doth declare it, that they may have glad tidings of great joy; yea, and he doth sound these glad tidings among all his people, yea, even to them that ar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the earth; wherefore they have come unto us.

And they are made known unto us in plain terms, that we may understand, that we cannot err; and this because of our being wanderers in a strange land; therefore, we are thus highly favored, for we have these glad tidings declared unto us in all parts of our vineyard.

- 24 이는 보라, 천사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를 선포하고 있음이니, 이는 그가 영광 중에 오실 그대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 25 또 이제 우리는 다만 그의 오심에 관하여 천사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 듣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는 얼마나 속히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대가 옳으니라. 내 생전에 그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 원하나 그대가 이르든지 늦든지 그 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 26 또 주의 오심은 참으로 그가 오실 때, 천사들의 입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게 알려져,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곧 그들이 그들 안에 있던 예언의 영을 좇아, 주께 관하여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 27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지고 바라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 죄를 던져 버리고,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고,
- 28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 29 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라.
- 30 또 주께서 너희에게 회개를 주사, 너희로 그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너희로 지옥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너희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31 또 엘마가 백성에게 이 외에도 많은 말을 하였으나,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For behold, angels are declaring it unto many at this time in our land; and this is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to receive his word at the time of his coming in his glory.

And now we only wait to hear the joyful news declared unto us by the mouth of angels, of his coming; for the time cometh, we know not how soon. Would to God that it might be in my day; but let it be sooner or later, in it I will rejoice.

And it shall be made known unto just and holy men, by the mouth of angels, at the time of his coming, that the words of our fathers may be fulfilled, according to that which they have spoken concerning him, which was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which was in them.

And now, my brethren, I wish from the inmost part of my heart, yea, with great anxiety even unto pain, that ye would hearken unto my words, and cast off your sins, and not procrastinate the day of your repentance;

But that ye would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call on his holy name, and watch and pray continually, that ye may not be tempted above that which ye can bear, and thus be led by the Holy Spirit, becoming humble, meek, submissive, patient, full of love and all long-suffering;

Having faith on the Lord; having a hope that ye shall receive eternal life; having the love of God always in your hearts, that ye may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and enter into his rest.

And may the Lord grant unto you repentance, that ye may not bring down his wrath upon you, that ye may not be bound down by the chains of hell, that ye may not suffer the second death.

And Alma spake many more words unto the people,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 엘마서 14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고, 회개하며, 경전을 상고하기 시작하였더라.
- 2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엘마와 앰올레크를 멸하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지에즈롬에게 한 엘마의 말의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엘마에게 노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앰올레크가 그들에게 거짓말하였으며, 그들의 법과 또한 그들의 율법사들과 판사들에게 대하여 욕하였다 하더라.
- 3 그리고 그들은 또한 엘마와 앰올레크에게 노하였나니, 그들의 간악함에 대하여 이들이 것처럼 명백히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엘마와 앰올레크를 은밀히 처치하려 하였더라.
- 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엘마와 앰올레크를 잡아 단단한 줄로 결박하여 그 땅의 대판사 앞으로 끌어가니라.
- 5 이에 백성들이 나아가 이들에 대하여 증거하되—이들이 그 땅과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법과 그들의 율법사들과 판사들에게 대하여 욕하였으며, 또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으되, 그가 그의 아들을 백성 중에 보내실 것이나,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증거하고, 또 엘마와 앰올레크에 대하여 백성이 그러한 것을 많이 증거하였으니, 이제 이 일은 모두 그 땅의 대판사 앞에서 행하여졌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지에즈롬이 백성들이 한 말에 놀랐고, 또한 자기의 거짓된 말로써 자신이 백성들 가운데 초래한 바, 생각의 눈땀에 관하여 알게 되어, 그 영혼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그가 지옥의 고통에 에워싸이기 시작하였더라.

## Alma 14

And it came to pass after he had made an end of speaking unto the people many of them did believe on his words, and began to repent, and to search the scriptures.

But the more part of them were desirous that they might destroy Alma and Amulek; for they were angry with Alma, because of the plainness of his words unto Zeezrom; and they also said that Amulek had lied unto them, and had reviled against their law and also against their lawyers and judges.

And they were also angry with Alma and Amulek; and because they had testified so plainly against their wickedness, they sought to put them away privily.

But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not; but they took them and bound them with strong cords, and took them before the chief judge of the land.

And the people went forth and witnessed against them—testifying that they had reviled against the law, and their lawyers and judges of the land, and also of all the people that were in the land; and also testified that there was but one God, and that he should send his Son among the people, but he should not save them; and many such things did the people testify against Alma and Amulek. Now this was done before the chief judg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Zeezrom was astonished at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and he also knew concerning the blindness of the minds, which he had caused among the people by his lying words; and his soul began to be harrowed up under a consciousness of his own guilt; yea, he began to be encircled about by the pains of hell.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나에게 죄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도다 하고, 그때로부터 엘마와 앰올레크를 위하여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욕하여 이르되, 너도 귀신 들렸느냐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그들 가운데서 내어 쫓고, 엘마와 앰올레크의 말을 믿는 자들도 모두 내어 쫓았더라. 또 그들이 저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였더라.
- 8 또 그들은 저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불에 던져지게 하고, 그들은 또 거룩한 경전이 포함된 저들의 기록을 가져와, 이도 역시 불에 던져, 그것들이 불에 타 진멸되게 하였더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엘마와 앰올레크를 취하여, 순교의 장소로 끌어내어, 불에 타는 이들의 멸망을 목격하게 하였더라.
- 10 이에 앰올레크가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보고, 그도 또한 고통을 받아, 엘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리이까? 그런즉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여, 화염에서 저들을 구원하사이다 하였더라.
- 11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영이 나를 억제하사 내가 손을 뻗치면 안 된다 하시나니, 이는 보라 주께서 저들을 영광 중에 자기에게로 영접하심이라. 또 주께서 그들로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 곧 백성들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좇아, 저들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 그 진노 중에 그들에게 베푸실 심판이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그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대하여 힘차게 외치리라.
- 12 이제 앰올레크가 엘마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마도 그들이 우리도 사르리이다 하더라.
- 13 이에 엘마가 이르되, 주의 뜻대로 될지니라. 그러나 보라,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n to cry unto the people, saying: Behold, I am guilty, and these men are spotless before God. And he began to plead for them from that time forth; but they reviled him, saying: Art thou also possessed with the devil? And they spit upon him, and cast him out from among them, and also all those who believed in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Alma and Amulek; and they cast them out, and sent men to cast stones at them.

And they brought their wives and children together, and whosoever believed or had been taught to believe in the word of God they caused that they should be cast into the fire; and they also brought forth their records which contained the holy scriptures,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lso, that they might be burned and destroyed by fir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ook Alma and Amulek, and carried them forth to the place of martyrdom, that they might witness the destruction of those who were consumed by fire.

And when Amulek saw the pains of the women and children who were consuming in the fire, he also was pained; and he said unto Alma: How can we witness this awful scene? Therefore let us stretch forth our hands, and exercise the power of God which is in us, and save them from the flames.

But Alma said unto him: The Spirit constraineth me that I must not stretch forth mine hand; for behold the Lord receiveth them up unto himself, in glory; and he doth suffer that they may do this thing, or that the people may do this thing unto them, according to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that the judgments which he shall exercise upon them in his wrath may be just; and the blood of the innocent shall stand as a witness against them, yea, and cry mightily against them at the last day.

Now Amulek said unto Alma: Behold, perhaps they will burn us also.

And Alma said: Be i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But, behold, our work is not finished; therefore they burn us not.

1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불에 던져진 이들의 몸과 또한 그들과 함께 던져진 기록들이 다 타고나서, 그 땅의 대판사가 와서 결박당해 있는 엘마와 엠올레크 앞에 서서, 그 손으로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런 일을 보고도, 또다시 이 백성에게 전파하기를 그들이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지리라고 하겠느냐?

15 보라, 너희가 보나니 불에 던져진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이 너의 신앙에 속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판사가 다시 저들의 뺨을 치고 묻되, 너희는 너희를 위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16 이제 이 판사는 기드온을 죽인 니허의 반차와 신앙을 따른 자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엠올레크가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저들을 때린 후, 관원에게 넘겨 옥에 던져 넣게 하니라.

18 이에 저들이 옥에 던져진 지 사흘 되었을 때, 니허의 신앙에 속한 많은 율법사들과 판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왔으니, 그들이 저들을 보러 옥 있는 데까지 들어와, 여러 말씀에 대하여 저들에게 질문하였으나 저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가 저들 앞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화염에 넘길 권능이 내게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저들에게 말하기를 명하였으나, 저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떠나 자기 길을 갔다가, 다음 날 다시 왔고, 판사가 또한 다시 저들의 뺨을 치더라. 또한 많은 자들이 나아와, 저들을 치며 이르되, 너희가 다시 서서 이 백성을 판단하며 우리의 법을 정죄하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큰 능력을 가졌으면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를 구하지 아니하느냐?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bodies of those who had been cast into the fire were consumed, and also the records which were cast in with them, the chief judge of the land came and stood before Alma and Amulek, as they were bound; and he smote them with his hand upon their cheeks, and said unto them: After what ye have seen, will ye preach again unto this people, that they shall be cast into a lake of fire and brimstone?

Behold, ye see that ye had not power to save those who had been cast into the fire; neither has God saved them because they were of thy faith. And the judge smote them again upon their cheeks, and asked: What say ye for yourselves?

Now this judge was after the order and faith of Nehor, who slew Gideon.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Amulek answered him nothing; and he smote them again, and delivered them to the officers to be cast into prison.

And when they had been cast into prison three days, there came many lawyers, and judges, and priests, and teachers, who were of the profession of Nehor; and they came in unto the prison to see them, and they questioned them about many words; but they answered them noth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judge stood before them, and said: Why do ye not answer the words of this people? Know ye not that I have power to deliver you up unto the flames? And he commanded them to speak; but they answered noth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eparted and went their ways, but came again on the morrow; and the judge also smote them again on their cheeks. And many came forth also, and smote them, saying: Will ye stand again and judge this people, and condemn our law? If ye have such great power why do ye not deliver yourselves?

21 또 그 같은 말을 저들에게 많이 하며, 저들을 향해 그들의 이를 갈고, 저들에게 침을 뱉으며, 또 말하기를,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22 또 그 같은 많은 말을, 참으로 그 같은 온갖 말을 저들에게 하였나니, 이같이 여러 날 동안 저들을 조롱하였더라. 또 음식을 주지 않아 주리게 하였고, 물을 주지 않아 목마르게 하였으며, 또한 저들의 옷을 빼앗으며 저들이 벌거벗었나니, 이같이 저들이 단단한 줄로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

23 이에 저들이 여러 날 동안 이같이 고난을 당한 후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은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 시월 십이일이었더라) 앰몬아이 하 땅의 대판사와 그들의 교사와 그들의 율법사들의 다수가 엘마와 앰올레크가 줄로 결박되어 있는 옥까지 들어가더니,

24 이에 대판사가 저들 앞에 서서, 다시 저들을 때리고,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든 이 줄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대로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리라 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나아가 저들을 치되, 동일한 말을 하며, 마지막 사람까지 그리하니, 맨 마지막 사람이 저들에게 말하고 나자, 하나님의 권능이 엘마와 앰올레크 위에 있으며, 이들이 일어나 자기 발로 서더라.

26 그리고 엘마가 외쳐 이르되, 주여, 이 큰 고난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받아야 하오리이까?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고, 저들을 결박한 줄을 끊으며, 무리가 이를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멸망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감옥의 바깥문에 이르지 못하더니, 땅이 심히 흔들리고, 감옥의 벽이 둘로 갈라져, 땅에 무너지매, 엘마와 앰올레크를 친 대판사와 율법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그 무너짐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라.

And many such things did they say unto them, gnashing their teeth upon them, and spitting upon them, and saying: How shall we look when we are damned?

And many such things, yea, all manner of such things did they say unto them; and thus they did mock them for many days. And they did withhold food from them that they might hunger, and water that they might thirst; and they also did take from them their clothes that they were naked; and thus they were bound with strong cords, and confined in prison.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y had thus suffered for many days, (and it was on the twelfth day, in the tenth month, in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at the chief judge over the land of Ammonihah and many of their teachers and their lawyers went in unto the prison where Alma and Amulek were bound with cords.

And the chief judge stood before them, and smote them again, and said unto them: If ye have the power of God deliver yourselves from these bands, and then we will believe that the Lord will destroy this people according to your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ll went forth and smote them, saying the same words, even until the last; and when the last had spoken unto them the power of God was upon Alma and Amulek, and they rose and stood upon their feet.

And Alma cried, saying: How long shall we suffer these great afflictions, O Lord? O Lord, give us strength according to our faith which is in Christ, even unto deliverance. And they broke the cords with which they were bound; and when the people saw this, they began to flee, for the fear of destruction had come upo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so great was their fear that they fell to the earth, and did not obtain the outer door of the prison; and the earth shook mightily, and the walls of the prison were rent in twain, so that they fell to the earth; and the chief judge, and the lawyers, and priests, and teachers, who smote upon Alma and Amulek, were slain by the fall thereof.

28 또 엘마와 앰올레크는 옥에서 나왔으나,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신앙을 좇아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에 저들이 옥에서 곧바로 나아왔고, 저들을 결박했던 줄에서 풀렸으되, 옥은 무너져, 엘마와 앰올레크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저들은 곧바로 성 안으로 나아왔더라.

29 이제 백성이 큰 소음을 듣고 그 원인을 알고자 하여 무리를 지어 함께 달려왔다가, 엘마와 앰올레크가 옥에서 나오는 것과 감옥의 벽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마와 앰올레크의 면전에서 도망하기를 참으로 염소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두 마리의 사자에게서 도망함같이 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엘마와 앰올레크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And Alma and Amulek came forth out of the prison, and they were not hurt; for the Lord had granted unto them power, according to their faith which was in Christ. And they straightway came forth out of the prison; and they were loosed from their bands; and the prison had fallen to the earth, and every soul within the walls thereof, save it were Alma and Amulek, was slain; and they straightway came forth into the city.

Now the people having heard a great noise came running together by multitudes to know the cause of it; and when they saw Alma and Amulek coming forth out of the prison, and the walls thereof had fallen to the earth, they were struck with great fear, and fled from the presence of Alma and Amulek even as a goat fleeth with her young from two lions; and thus they did flee from the presence of Alma and Amulek.

## 앨마서 15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울레크가 그 성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서, 사이돔 땅으로 나왔더니, 보라 거기서 저들이 앰몬아이하 땅을 떠난 자들, 곧 앨마의 말을 믿은 까닭에 내어 쫓기고 돌에 맞은 모든 백성을 발견하였더라.
- 2 이에 앨마와 앰울레크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또한 자신들에 관해서와, 자신들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더라.
- 3 그리고 지에즈롬 역시 사이돔에서 뜨거운 열로 병들어 누웠으니, 이는 자기의 간악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큰 환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그가 앨마와 앰울레크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이고,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음이라. 이에 이 큰 죄와, 또 그의 다른 많은 죄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혀, 이윽고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가 뜨거운 열로 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 4 이제 그가 앨마와 앰울레크가 사이돔 땅에 있다 함을 듣고, 그 마음이 용기를 얻기 시작하여, 즉시 그들에게 전갈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와 줄 것을 청하니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가 보낸 전갈에 응하여, 즉시 가서 집에 들어가, 지에즈롬에게 이르니, 그가 자기 침상에 있는데, 병들어 뜨거운 열로 쇠진하여 있더라. 또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도 심히 고통을 당하더니,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해 주기를 구하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네가 믿느냐?
- 7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모두 믿나이다.
- 8 이에 앨마가 이르되,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

## Alma 15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Amulek were commanded to depart out of that city; and they departed, and came out even into the land of Sidom; and behold, there they found all the people who had departed out of the land of Ammonihah, who had been cast out and stoned, because they believed in the words of Alma.

And they related unto them all that had happened unto their wives and children, and also concerning themselves, and of their power of deliverance.

And also Zeezrom lay sick at Sidom, with a burning fever, which was caused by the great tribulations of his mind on account of his wickedness, for he supposed that Alma and Amulek were no more; and he supposed that they had been slain because of his iniquity. And this great sin, and his many other sins, did harrow up his mind until it did become exceedingly sore, having no deliverance; therefore he began to be scorched with a burning heat.

Now, when he heard that Alma and Amulek were in the land of Sidom, his heart began to take courage; and he sent a message immediately unto them, desiring them to come unto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immediately, obeying the message which he had sent unto them; and they went in unto the house unto Zeezrom; and they found him upon his bed, sick, being very low with a burning fever; and his mind also was exceedingly sore because of his iniquities; and when he saw them he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besought them that they would heal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said unto him, taking him by the hand: Believest thou in the power of Christ unto salvation?

And he answered and said: Yea, I believe all the words that thou hast taught.

And Alma said: If thou believest in the redemption of Christ thou canst be healed.

- 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믿나이다.
- 10 이에 엘마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우리 하나님이지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앙으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더라.
- 11 이에 엘마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지에즈롬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니라. 이에 이 소문이 사이돔 온 땅에 두루 퍼지니라.
- 12 또 엘마가 지에즈롬에게 침례를 주어 주께로 인도하매, 그가 그때로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 13 또 엘마는 사이돔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별하여, 누구든지 침례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 주께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수가 많았으니, 이는 사이돔 주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침례를 받음이라.
- 15 그러나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할진대, 그들이 여전히 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엘마와 앰올레크의 능력을 모두 악마의 것으로 돌림이요, 이는 그들이 니허의 신앙에 속했던 고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앰올레크는, 앰올레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그의 금과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한 때 그의 친구였던 자들과 또한 그의 부친과 그의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므로,
- 17 그러므로 엘마가 사이돔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큰 억제가 있음을 보되, 참으로 백성들이 그 마음의 교만이 억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하며,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그들의 성소에 함께 모이기 시작하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사탄에게서와, 사망에서와, 멸망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본 후—

And he said: Yea, I believe according to thy words.

And then Alma cried unto the Lord, saying: O Lord our God, have mercy on this man, and heal him according to his faith which is in Christ.

And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Zeezrom leaped upon his feet, and began to walk; and this was done to the great astonishment of all the people; and the knowledge of this went forth throughout all the land of Sidom.

And Alma baptized Zeezrom unto the Lord; and he began from that time forth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Alma established a church in the land of Sidom, and consecrated priests and teachers in the land, to baptize unto the Lord whosoever were desirous to be baptiz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many; for they did flock in from all the region round about Sidom, and were baptized.

But as to the people that were in the land of Ammonihah, they yet remained a hard-hearted and a stiffnecked people; and they repented not of their sins, ascribing all the power of Alma and Amulek to the devil; for they were of the profession of Nehor, and did not believe in the repentance of their sins.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Amulek, Amulek having forsaken all his gold, and silver, and his precious things, which were in the land of Ammonihah, for the word of God, he being rejected by those who were once his friends and also by his father and his kindred;

Therefore, after Alma having established the church at Sidom, seeing a great check, yea, seeing that the people were checked as to the pride of their hearts, and began to humble themselves before God, and began to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t their sanctuaries to worship God before the altar, watching and praying continually, that they might be delivered from Satan, and from death, and from destruction—

18 이제 내가 말한 것같이, 엘마가 이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앰울레크를 데리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넘어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환난 중에 그에게 베풀고, 그를 주 안에서 굳세게 하니라.

1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이 끝났느니라.

Now as I said, Alma having seen all these things, therefore he took Amulek and came over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took him to his own house, and did administer unto him in his tribulations, and strengthened him in the Lord.

And thus ended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 앨마서 16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일년 이월 오일, 곧 그때까지 제이라헤 플라 땅에 많은 평화가 있었고, 수년간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더니, 십일년 이월 오일에 전쟁의 외침이 온 땅에 들리니라.
- 2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광야 쪽을 침범하여, 그 땅 경계로 들어오되, 참으로 앰몬아이하 성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죽이며, 성을 멸하기 시작하였음이라.
- 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미처 그들을 그 땅 밖으로 몰아 내기에 충분한 군대를 일으키기도 전에,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에 있던 백성들과 또한 노아의 경계 부근의 얼마를 멸하고, 다른 자들을 광야로 사로잡아 갔더라.
- 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광야로 사로잡혀 끌려간 자들을 도로 찾기 심히 원하였더라.
- 5 그러므로 니파이 군대의 총대장으로 임명되어 있던 자가, (그의 이름은 조램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리하이와 에이허라)—이제 조램과 그의 두 아들은 앨마가 교회의 대제사인 줄을 알고, 또 그가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음을 들었으므로, 앨마에게로 가서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형제들을 찾아 광야 어디로 들어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알려 줄 것을 그에게 청하였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 문제에 관하여 주께 여쭙았더라. 그리고는 앨마가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레이맨인들이 멀리 맨타이 땅 경계 너머 위쪽, 남편 광야에서 시돈 강을 건너리니, 보라 너희는 시돈 강 동편 거기서 그들을 만날지라, 거기서 주가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힌 네 형제들을 네게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 Alma 16

And it came to pass in the el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on the fifth day of the second month, there having been much peace in the land of Zarahemla, there having been no wars nor contentions for a certain number of years, even until the fifth day of the second month in the eleventh year, there was a cry of war heard throughout the land.

For behol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had come in upon the wilderness side, into the borders of the land, even into the city of Ammonihah, and began to slay the people and destroy the city.

And now it came to pass, before the Nephites could raise a sufficient army to drive them out of the land, they had destroyed the people who were in the city of Ammonihah, and also some around the borders of Noah, and taken others captive into the wilderness.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were desirous to obtain those who had been carried away captive into the wilderness.

Therefore, he that had been appointed chief captain over the armies of the Nephites, (and his name was Zoram, and he had two sons, Lehi and Aha)—now Zoram and his two sons, knowing that Alma was high priest over the church, and having heard that he had the spirit of prophecy, therefore they went unto him and desired of him to know whither the Lord would that they should go into the wilderness in search of their brethren, who had been taken captive by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inquired of the Lord concerning the matter. And Alma returned and said unto them: Behold, the Lamanites will cross the river Sidon in the south wilderness, away up beyond the borders of the land of Manti. And behold there shall ye meet them, on the east of the river Sidon, and there the Lord will deliver unto thee thy brethren who have been taken captive by the Lamanites.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람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군대와 더불어 시돈 강을 건너, 멀리 맨타이의 경계 너머로 행군하여, 시돈 강 동편에 있는 남편 광야로 들어가더라.
- 8 그리고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급습하매, 레이맨인들이 흩어져 광야로 쫓겨 들어갔고,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의 형제들을 취하였더니, 사로잡혔던 자들 중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자기 형제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 9 그리고 이같이 판사 제십일년이 끝나니 레이맨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앰몬아이하 백성은 멸망당하였더라. 참으로 앰몬아이하 사람 중 모든 산 자가 멸망당하였으며, 그들의 큰 성도 또한 멸망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무 커서 하나님도 멸하실 수 없다 하던 것이라.
- 10 그러나 보라, 하루에 그것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으며, 주검들이 개들과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었더라.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 그들의 시체가 지면에 쌓여, 그 위에 덮이는 것이 얇게 덮이니, 이제 그 악취가 심히 컸으므로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앰몬아이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곳은 니허인들의 황무지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죽임을 당한 그들이 니허의 신앙에 속하였으며, 그들의 땅이 황무한 채 있었음이라.
- 1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십사 년까지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다시 오지 아니하매, 이리하여 삼 년 동안 니파이 백성은 온 땅에서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더라.
- 13 또 엘마와 앰울레크는 나아가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지어진, 그들의 여러 성전에서와, 그들의 여러 성소에서, 또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더라.
- 14 또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Zoram and his sons crossed over the river Sidon, with their armies, and marched away beyond the borders of Manti into the south wilderness, which was on the east side of the river Sidon.

And they came upon the armies of the Lamanites, and the Lamanites were scattered and driven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took their brethren who had been taken captive by the Lamanites, and there was not one soul of them had been lost that were taken captive. And they were brought by their brethren to possess their own lands.

And thus ended the eleventh year of the judges, the Lamanites having been driven out of the land, and the people of Ammonihah were destroyed; yea, every living soul of the Ammonihahites was destroyed, and also their great city, which they said God could not destroy, because of its greatness.

But behold, in one day it was left desolate; and the carcasses were mangled by dogs and wild beasts of the wilderness.

Nevertheless, after many days their dead bodies were heaped up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y were covered with a shallow covering. And now so great was the scent thereof that the people did not go in to possess the land of Ammonihah for many years. And it was called Desolation of Nehors; for they were of the profession of Nehor, who were slain; and their lands remained desolate.

And the Lamanites did not come again to war against the Nephites until the four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for three years did the people of Nephi have continual peace in all the land.

And Alma and Amulek went forth preaching repentance to the people in their temples, and in their sanctuaries, and also in their synagogues, which were built after the manner of the Jews.

And as many as would hear their words, unto them they did impart the word of God, without any respect of persons, continually.

15 또 이같이 엘마와 앰올레크와, 또한 이들 외에 이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많은 자들이 나아가, 그 온 땅에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매, 교회의 설립이 그 땅 전역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니파이인들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더라.

16 또 그들 중에 불평등함이 없었더라. 주께서 그 오시는 때에 그들 가운데 가르치실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자녀들의 생각을 예비하시려, 곧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려 온 지면에 그의 영을 쏟으시니—

17 이는 그들로 말씀을 거스려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여, 그들로 신앙 없는 자가 되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가지로서 참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18 이제 백성 가운데 나아간 그 제사들은 일체의 거짓말함과 속임과 시기함과 다툼과 악독과 모욕함, 도적질함, 강탈함, 약탈함, 살인함, 간음을 범함 및 온갖 음란함을 금하도록 가르치며, 이러한 일들이 마땅히 그러서는 아니됨을 외치고—

19 반드시 속히 임할 일을 가르치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도 가르쳤더라.

20 또 백성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곳에 대하여 묻더니, 그가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가르치매, 이를 백성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듣더라.

21 이에 이제 온 땅에 두루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악마에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그대로 그 온 땅에 전파되고, 주께서는 백성들 위에 그의 복을 쏟으시니—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사년이 끝났느니라.

And thus did Alma and Amulek go forth, and also many more who had been chosen for the work, to preach the word throughout all the 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became general throughout the land, in all the region round about, among all the people of the Nephites.

And there was no inequality among them; the Lord did pour out his Spirit on all the face of the land to prepare the minds of the children of men, or to prepare their hearts to receive the word which should be taught among them at the time of his coming—

That they might not be hardened against the word, that they might not be unbelieving, and go on to destruction, but that they might receive the word with joy, and as a branch be grafted into the true vine, that they might enter into the rest of the Lord their God.

Now those priests who did go forth among the people did preach against all lyings, and deceivings, and envyings, and strifes, and malice, and revilings, and stealing, robbing, plundering, murdering, committing adultery, and all manner of lasciviousness, crying that these things ought not so to be—

Holding forth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yea, holding forth the coming of the Son of God, his sufferings and death, and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many of the people did inquire concerning the place where the Son of God should come; and they were taught that he would appear unto them after his resurrection; and this the people did hear with great joy and gladness.

And now after the church had been established throughout all the land—having got the victory over the devil, and the word of God being preached in its purity in all the land, and the Lord pouring out his blessings upon the people—thus ended the four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버리고, 레이맨인들에게 전도하러 니파이 땅으로 올라간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기사. 그들의 고난과 구출—엘마의 기록에 의함.

*An account of the sons of Mosiah, who rejected their rights to the kingdom for the word of God, and went up to the land of Nephi to preach to the Lamanites; their sufferings and deliverance—according to the record of Alma.*

## 엘마서 17

## Alma 17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기드온 땅에서, 남방으로 멀리 맨타이 땅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놀랍게도 제이라헤물라 땅을 향해 여행하고 있던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만났더라.
- 2 이제 이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천사가 처음 엘마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엘마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또 그의 기쁨을 더욱 더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였음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 3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 4 또 그들은 십사 년 동안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었고, 많은 성공을 거두어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단 앞으로 인도되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더라.
- 5 이제 이는 그들의 여행에서 그들에게 수반된 상황이니, 이는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이라, 그들은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노고를 겪었었나니, 곧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피로와, 또한 영으로 많은 애를 씹과 같은 것이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s Alma was journeying from the land of Gideon southward, away to the land of Manti, behold, to his astonishment, he met with the sons of Mosiah journeying towards the land of Zarahemla.

Now these sons of Mosiah were with Alma at the time the angel first appeared unto him; therefore Alma did rejoice exceedingly to see his brethren; and what added more to his joy, they were still his brethren in the Lord; yea, and they had waxed strong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for they were men of a sound understanding and they had searched the scriptures diligently, that they might know the word of God.

But this is not all; they had given themselves to much prayer, and fasting; therefore they had the spirit of prophecy, and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when they taught, they taught with power and authority of God.

And they had been teaching the word of God for the space of fourteen years among the Lamanites, having had much success in bringing many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yea, by the power of their words many were brought before the altar of God, to call on his name and confess their sins before him.

Now these are the circumstances which attended them in their journeyings, for they had many afflictions; they did suffer much, both in body and in mind, such as hunger, thirst and fatigue, and also much labor in the spirit.

6 이제 그들의 여행은 이러하였더라. 나라를 거절하고, 판사 원년에 그 부친 모사이야를 작별하였나니, 나라를 그들의 부친은 그들에게 넘겨 주기 원하였고, 이 또한 백성의 생각이기도 하였으나,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과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물매를 취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더라.

8 이같이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그들이 선택한 그들의 일행과 더불어 광야로 떠났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여러 날 광야를 여행하며,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여 주께서 그의 영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사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르게 아니한 그들 조상의 전통의 비속함을 알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의 영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위안을 받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위안을 받더라.

11 이에 주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 나아가, 나의 말을 확립하라. 그리하되 너희는 오래 참음과 고난 중에 인내하여, 내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지니,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의 마음이 레이맨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용기를 얻었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땅 경계에 도착하였을 때, 주 안에서 그들이 추수의 마감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신뢰하며, 각기 헤어져 서로에게서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시작한 일이 실로 크다고,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Now these were their journeyings: Having taken leave of their father, Mosiah, in the first year of the judges; having refused the kingdom which their father was desirous to confer upon them, and also this was the minds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y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took their swords, and their spears, and their bows, and their arrows, and their slings; and this they did that they might provide food for themselves while in the wilderness.

And thus they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with their numbers which they had selected, to go up to the land of Nephi, to preach the word of God unto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journeyed many days in the wilderness, and they fasted much and prayed much that the Lord would grant unto them a portion of his Spirit to go with them, and abide with them, that they might be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God to bring, if it were possible,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o the knowledge of the baseness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which were not correc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visit them with his Spirit, and said unto them: Be comforted. And they were comforted.

And the Lord said unto them also: Go forth among the Lamanites, thy brethren, and establish my word; yet ye shall be patient in long-suffering and afflictions, that ye may show forth good examples unto them in me, and I will make an instrument of thee in my hands unto the salvation of many soul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hearts of the sons of Mosiah, and also those who were with them, took courage to go forth unto the Lamanites to declare unto them the word of God.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had arrived in the borders of the land of the Lamanites, that they separated themselves and departed one from another, trusting in the Lord that they should meet again at the close of their harvest; for they supposed that great was the work which they had undertaken.

14 그리고 정녕 그 일은 큰일이었나니, 이는 그들이 거칠고 완악하며 흉포한 백성, 니파이인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를 시작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그 마음을 재물에 곧 금과 은과 보석에 두었고, 더욱이 살인하고 약탈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얻기를 구하였나니, 이는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자 함이라.

15 이리하여 그들은 몹시 게으른 백성이었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 조상들의 전통 까닭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들은 회개의 조건하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16 그러므로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그 일을 시작한 까닭은 이것이었나니, 혹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여, 혹 그들로 구속의 계획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

17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져,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좇아, 홀로 그들 가운데 나아갔더라.

18 이제 암몬은 그들 중 우두머리요, 곧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니,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들을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준 후, 곧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후 그들을 떠났나니, 이같이 그들은 각기 따로 그 땅을 두루 여행하였더라.

19 이에 암몬이 이스마엘 땅으로 갔으니, 이 땅은 역시 레이맨인이 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일컫는 곳이라.

20 이에 암몬이 이스마엘 땅에 들어가매, 레이맨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니, 이는 그들의 수중에 든 니파이인들을 모두 결박하여, 왕 앞으로 데려가는 그들의 관례대로더라. 이리하여 그의 뜻과 의향대로, 그들을 죽이든지, 사로잡아 두든지, 옥에 던져 넣든지, 그의 땅에서 쫓아내든지, 왕의 의향에 맡겨졌더라.

And assuredly it was great, for they had undertaken to preach the word of God to a wild and a hardened and a ferocious people; a people who delighted in murdering the Nephites, and robbing and plundering them; and their hearts were set upon riches, or upon gold and silver, and precious stones; yet they sought to obtain these things by murdering and plundering, that they might not labor for them with their own hands.

Thus they were a very indolent people, many of whom did worship idols, and the curse of God had fallen upon them because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notwithstanding the promises of the Lord were extended unto them on the conditions of repentance.

Therefore, this was the cause for which the sons of Mosiah had undertaken the work, that perhaps they might bring them unto repentance; that perhaps they might bring them to know of the plan of redemption.

Therefore they separated themselves one from another, and went forth among them, every man alone, according to the word and power of God which was given unto him.

Now Ammon being the chief among them, or rather he did administer unto them, and he departed from them, after having blessed them according to their several stations, having imparted the word of God unto them, or administered unto them before his departure; and thus they took their several journeys throughout the land.

And Ammon went to the land of Ishmael, the land being called after the sons of Ishmael, who also became Lamanites.

And as Ammon entered the land of Ishmael, the Lamanites took him and bound him, as was their custom to bind all the Nephites who fell into their hands, and carry them before the king; and thus it was left to the pleasure of the king to slay them, or to retain them in captivity, or to cast them into prison, or to cast them out of his land, according to his will and pleasure.

- 21 이에 이리하여 암몬이 이스마엘 땅을 다스리는 왕 앞에 끌려가니, 그의 이름은 라모나이요,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더라.
- 22 이에 왕이 암몬에게 혹 그 땅에서 레이맨인들 중에, 아니면 그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그의 바람인지 묻더라.
- 23 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한동안, 그뿐 아니라 아마도 죽는 날까지 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암몬을 몹시 기뻐하여, 그의 결박을 풀어 주게 하고, 암몬이 자기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취하기를 원하였더라.
- 25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되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관습을 좇아, 그를 다른 종들 가운데 두어 라모나이의 양 떼를 지키게 하였더라.
- 26 이에 그가 왕을 섬겨 사흘을 지낸 후, 저희 양 떼와 더불어 시부스 물이라 하는,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레이맨인 종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 곳은 모든 레이맨인들이 물을 얻으러, 그들의 양 떼를 몰아오는 곳이라—
- 27 그러므로 암몬과 왕의 종들이 이 물 있는 곳으로 그들의 양 떼를 몰아가고 있을 때, 보라 자기 양 떼와 더불어 물에 와 있던 레이맨인 몇몇이 서서, 암몬과 왕의 종들의 양 떼를 흘으니, 그들이 흘으매 양 떼가 여러 길로 도망한지라.
- 28 이제 왕의 종들이 울먹이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우리의 형제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이리니, 그들의 양 떼가 이 사람들의 간악함에 의해 흩어진 연고로 왕이 그들을 죽였느니라 하고, 심히 울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의 양 떼는 이미 흩어졌도다 하더라.

And thus Ammon was carried before the king who was over the land of Ishmael; and his name was Lamoni; and he was a descendant of Ishmael.

And the king inquired of Ammon if it were his desire to dwell in the land among the Lamanites, or among his people.

And Ammon said unto him: Yea, I desire to dwell among this people for a time; yea, and perhaps until the day I die.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Lamoni was much pleased with Ammon, and caused that his bands should be loosed; and he would that Ammon should take one of his daughters to wife.

But Ammon said unto him: Nay, but I will be thy servant. Therefore Ammon became a servant to king Lamoni.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as set among other servants to watch the flocks of Lamoni,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Lamanites.

And after he had been in the service of the king three days, as he was with the Lamanitish servants going forth with their flocks to the place of water, which was called the water of Sebus, and all the Lamanites drive their flocks hither, that they may have water—

Therefore, as Ammon and the servants of the king were driving forth their flocks to this place of water, behold, a certain number of the Lamanites, who had been with their flocks to water, stood and scattered the flocks of Ammon and the servants of the king, and they scattered them insomuch that they fled many ways.

Now the servants of the king began to murmur, saying: Now the king will slay us, as he has our brethren because their flocks were scattered by the wickedness of these men. And they began to weep exceedingly, saying: Behold, our flocks are scattered already.

29 이제 그들이 온 것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연고더라. 이제 암몬이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 기쁨으로 부풀었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이 동료 종들에게 나의 능력, 곧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여, 양 떼를 왕에게로 회복하여, 내 이 동료 종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 말을 믿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30 이제 이러한 것이 암몬이 자기 형제라 칭한 자들의 고난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진 생각이었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자기의 말로 그들을 달래어 이르되, 내 형제들아, 기운을 내라 그리고 양 떼를 찾으러 가자, 우리는 양 떼를 함께 모아 물 있는 곳으로 도로 데려오리니, 이같이 우리가 왕을 위하여 양 떼를 보전하면 그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 떼를 찾으러 가며, 암몬을 따르더니, 그들이 몹시 빠르게 앞으로 내달아 왕의 양 떼를 가로막아, 그것들을 다시 물 있는 곳으로 함께 모았더라.

33 이에 그 사람들이 다시 서서 그들의 양 떼를 흠으려 하거늘,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양 떼를 에워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나는 가서 우리 양 떼를 흠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겠노라 하더라.

34 그러므로 그들이 암몬이 그들에게 명하는 대로 하매, 암몬이 나아가 시부스 물가에 선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니, 저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더라.

35 그러므로 저들이 암몬을 두려워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들 중 하나가 저들 뜻대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주께서 모사이야에게 그 아들들을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저들이 알지 못하였음이요, 주께 관하여도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들은 저들 형제들의 멸망을 기뻐하였나니, 이 연고로 저들은 서서 왕의 양 떼를 흠고자 한 것이더라.

Now they wept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slain. Now when Ammon saw this his heart was swollen within him with joy; for, said he, I will show forth my power unto these my fellow-servants, or the power which is in me, in restoring these flocks unto the king, that I may win the hearts of these my fellow-servants, that I may lead them to believe in my words.

And now, these were the thoughts of Ammon, when he saw the afflictions of those whom he termed to be his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that he flattered them by his words, saying: My brethren, be of good cheer and let us go in search of the flocks, and we will gather them together and bring them back unto the place of water; and thus we will preserve the flocks unto the king and he will not slay 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in search of the flocks, and they did follow Ammon, and they rushed forth with much swiftness and did head the flocks of the king, and did gather them together again to the place of water.

And those men again stood to scatter their flocks; but Ammon said unto his brethren: Encircle the flocks round about that they flee not; and I go and contend with these men who do scatter our flocks.

Therefore, they did as Ammon commanded them, and he went forth and stood to contend with those who stood by the waters of Sebus; and they were in number not a few.

Therefore they did not fear Ammon, for they supposed that one of their men could slay him according to their pleasure, for they knew not that the Lord had promised Mosiah that he would deliver his sons out of their hands; neither did they know anything concerning the Lord; therefore they delighted in the destruction of their brethren; and for this cause they stood to scatter the flocks of the king.



36 그러나 암몬이 서서 그의 물매로 저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여, 참으로 큰 힘으로 저들 가운데 물매로 돌을 던지니, 이같이 암몬이 저들 중 몇을 죽이매 저들이 암몬의 힘에 놀라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해 노하였던지라, 저들은 그를 거꾸러뜨리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저들이 자기들의 돌로는 그를 맞힐 수 없음을 보고, 그를 죽이려 몽둥이를 가지고 나아왔더라.

37 그러나 보라, 암몬을 치려고 그 몽둥이를 치켜드는 자마다, 암몬이 자기 칼로 저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으니, 이는 그가 저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기의 칼날로 저들의 팔을 찢음이라. 그리하여 저들이 놀라기 시작하여, 그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저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그 팔의 힘으로 저들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38 이제 저들 중 여섯이 물매에 쓰러졌으되, 그가 그 칼로 저들의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는 그를 치려고 들린 저들의 팔을 다 쳐서 떨어뜨렸나니, 그 수가 적지 아니하더라.

39 이에 저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나서, 암몬이 돌아오매 그들이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양 떼를 왕의 초장으로 되돌린 다음, 암몬의 칼에 맞아 떨어진 바, 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의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가되,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갔더라.

But Ammon stood forth and began to cast stones at them with his sling; yea, with mighty power he did sling stones amongst them; and thus he slew a certain number of them insomuch that they began to be astonished at his power; nevertheless they were angry because of the slain of their brethren, and they were determined that he should fall; therefore, seeing that they could not hit him with their stones, they came forth with clubs to slay him.

But behold, every man that lifted his club to smite Ammon, he smote off their arms with his sword; for he did withstand their blows by smiting their arms with the edge of his sword, insomuch that they began to be astonished, and began to flee before him; yea, and they were not few in number; and he caused them to flee by the strength of his arm.

Now six of them had fallen by the sling, but he slew none save it were their leader with his sword; and he smote off as many of their arms as were lifted against him, and they were not a few.

And when he had driven them afar off, he returned and they watered their flocks and returned them to the pasture of the king, and then went in unto the king, bearing the arms which had been smitten off by the sword of Ammon, of those who sought to slay him; and they were carried in unto the king for a testimony of the things which they had done.

## 앨마서 18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그의 종들로 하여금 나서서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본 것을 다 증거하게 하더라.
- 2 이에 그들이 모두 그 본 것을 증거하매, 왕이 자기의 양 떼를 보호하는 암몬의 충실함과 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의 큰 힘에 대해 알고 나서, 심히 놀라 이르되, 정녕 이는 사람 이상이로다. 보라, 이는 이 백성에게 그들의 살인으로 인하여, 것처럼 큰 형벌을 보내시는 위대한 영이 아니냐?
- 3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위대한 영인지 혹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그러나 이만큼은 우리가 아노니, 그는 왕의 원수들이 죽일 수 없으며, 그의 노련함과 큰 힘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양 떼를 훔칠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왕에게 벗이 됨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왕이시여, 우리는 사람에게 이처럼 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아니하오니, 이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줄 우리가 압이니이다 하더라.
- 4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는 그가 위대한 영인 줄 아노니, 그가 이때 내려온 것은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로 너희 형제들을 죽인 것같이,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위대한 영이로다.
- 5 이제 이는 라모나이의 전통으로써, 그가 그 부친에게서 받았던 것이니, 곧 위대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그들이 위대한 영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라모나이는 그의 종들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나니,
- 6 이는 물 있는 곳에서 그가 그들을 많이 죽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의 양 떼를 훔침으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그들의 양 떼가 흠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 Alma 18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Lamoni caused that his servants should stand forth and testify to all the things which they had seen concerning the matter.

And when they had all testified to the things which they had seen, and he had learned of the faithfulness of Ammon in preserving his flocks, and also of his great power in contending against those who sought to slay him, he was astonished exceedingly, and said: Surely, this is more than a man. Behold, is not this the Great Spirit who doth send such great punishments upon this people, because of their murders?

And they answered the king, and said: Whether he be the Great Spirit or a man, we know not; but this much we do know, that he cannot be slain by the enemies of the king; neither can they scatter the king's flocks when he is with us, because of his expertness and great strength; therefore, we know that he is a friend to the king. And now, O king, we do not believe that a man has such great power, for we know he cannot be slain.

And now, when the king heard these words, he said unto them: Now I know that it is the Great Spirit; and he has come down at this time to preserve your lives, that I might not slay you as I did your brethren. Now this is the Great Spirit of whom our fathers have spoken.

Now this was the tradition of Lamoni, which he had received from his father, that there was a Great Spirit. Notwithstanding they believed in a Great Spirit, they supposed that whatsoever they did was right; nevertheless, Lamoni began to fear exceedingly, with fear lest he had done wrong in slaying his servants;

For he had slain many of them because their brethren had scattered their flocks at the place of water; and thus, because they had had their flocks scattered they were slain.

- 7 이제 시부스 물가에 서서 백성들의 양 떼를 흘  
는 것은 이 레이맨인들의 관행이었나니, 그리함으  
로써 흩어진 양 떼를 많이 저들 땅으로 몰아가고  
자 함이라. 이는 저들 가운데 있는 약탈의 관행이  
더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그의 종들  
에게 물어 이르되, 것처럼 큰 능력을 지닌 이 사람  
은 지금 어디 있느냐?
- 9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는 왕의  
말을 먹이고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왕은 종들이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일 시각 이전에, 그들에  
게 자신의 말들과 병거들을 예비하고, 자기를 니  
파이 땅으로 인도하라 명했었나니, 이는 그 온 땅  
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에 의해 니파  
이 땅에 큰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이라.
- 10 이제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비하고 있다 함을 듣고, 암몬의 충실  
함으로 인하여 더욱 놀라 이르되, 정녕 이 사람같  
이 충실한 종은 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지 아니  
하였나니, 이는 실로 그가 내 명령을 모두 기억하  
여 시행함이라.
- 11 이제 내가 정녕 아노니 이는 그 위대한 영이라,  
그가 내게로 들어오기를 내가 청하기 원하나, 감  
히 그리할 수 없도다.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왕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말과 병거들을 예비하고 나서, 왕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본즉 왕의 안색이 변하였는지  
라, 그의 면전에서 돌이켜 나오려 하더라.
- 13 이에 왕의 종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랩보  
나여 하거늘, 이는 해석한즉 강력한, 곧 위대한 왕  
이니, 저희 왕들은 강력하다고 여김이라. 그리하  
여 그가 암몬에게 이르되, 랩보나여, 왕께서 당신  
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나이다.
- 14 이러므로 암몬이 왕에게로 돌이켜, 그에게 이르  
되,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들의 시간으로, 한  
시간 동안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  
음이다.

Now it was the practice of these Lamanites to stand by the waters of Sebus to scatter the flocks of the people, that thereby they might drive away many that were scattered unto their own land, it being a practice of plunder among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Lamoni inquired of his servants, saying: Where is this man that has such great power?

And they said unto him: Behold, he is feeding thy horses. Now the king had commanded his servants, previous to the time of the watering of their flocks, that they should prepare his horses and chariots, and conduct him forth to the land of Nephi; for there had been a great feast appointed at the land of Nephi, by the father of Lamoni, who was king over all the land.

Now when king Lamoni heard that Ammon was preparing his horses and his chariots he was more astonished, because of the faithfulness of Ammon, saying: Surely there has not been any servant among all my servants that has been so faithful as this man; for even he doth remember all my commandments to execute them.

Now I surely know that this is the Great Spirit, and I would desire him that he come in unto me, but I durst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mmon had made ready the horses and the chariots for the king and his servants, he went in unto the king, and he saw that the countenance of the king was changed; therefore he was about to return out of his presence.

And one of the king's servants said unto him, Rabbanah, which is, being interpreted, powerful or great king, considering their kings to be powerful; and thus he said unto him: Rabbanah, the king desireth thee to stay.

Therefore Ammon turned himself unto the king, and said unto him: What wilt thou that I should do for thee, O king? And the king answered him not for the space of an hour, according to their time, for he knew not what he should say unto him.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로 인해 왕의 생각을 알게 되니라,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왕의 양 떼와 왕의 종들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와 칼로 그들의 형제 중 일곱을 죽이고, 다른 자들의 팔을 쳐 떨어뜨려서, 왕의 종들과 왕의 양 떼를 지켰음을 왕께서 들으신 연고이니까, 보소서, 왕으로 하여금 기이히 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니이까?

17 왕께 말씀드리거니와, 왕의 기이히 여기심이 그처럼 클 것이 무엇이니이까? 보소서, 나는 사람입니다, 왕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써 왕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이나이다.

18 이제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놀랐으니, 이는 암몬이 능히 그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음을 보았음이라.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라모나니 왕이 그 입을 열어, 암몬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저 위대한 영이오나이까?

19 암몬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20 이에 왕이 이르되, 당신은 내 마음의 생각을 어찌 아나이까? 당신은 담대히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고하며, 또한 무슨 능력으로 내 양 떼를 훔은 나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21 또 이제 만일 당신이 이 일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께 드리리이다. 또 필요하다면, 나의 군대로 당신을 지켜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보다 당신이 더 강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럴지라도 무엇이든지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께 드리리이다.

22 이제 암몬은 지혜롭되, 아무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라모나니에게 이르되,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나이까? 이것이 내가 왕께 원하는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3 이에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모두 믿겠나이다 하니, 이리하여 그가 계책으로 잡힌 바 되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said unto him again: What desirest thou of me? But the king answered him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therefore he perceived the thoughts of the king. And he said unto him: Is it because thou hast heard that I defended thy servants and thy flocks, and slew seven of their brethren with the sling and with the sword, and smote off the arms of others, in order to defend thy flocks and thy servants; behold, is it this that causeth thy marvelings?

I say unto you, what is it, that thy marvelings are so great? Behold, I am a man, and am thy servant; therefore, whatsoever thou desirest which is right, that will I do.

Now when the king had heard these words, he marveled again, for he beheld that Ammon could discern his thoughts; but notwithstanding this, king Lamoni did open his mouth, and said unto him: Who art thou? Art thou that Great Spirit, who knows all things?

Ammon answered and said unto him: I am not.

And the king said: How knowest thou the thoughts of my heart? Thou mayest speak boldly, and tell me concerning these things; and also tell me by what power ye slew and smote off the arms of my brethren that scattered my flocks—

And now, if thou wilt tell me concerning these things, whatsoever thou desirest I will give unto thee; and if it were needed, I would guard thee with my armies; but I know that thou art more powerful than all they; nevertheless, whatsoever thou desirest of me I will grant it unto thee.

Now Ammon being wise, yet harmless, he said unto Lamoni: Wilt thou hearken unto my words, if I tell thee by what power I do these things? And this is the thing that I desire of thee.

And the king answered him, and said: Yea, I will believe all thy words. And thus he was caught with guile.

24 이에 암몬이 담대히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왕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25 이에 그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지라.

26 이에 암몬이 이르되, 왕은 위대한 영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27 이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28 이에 암몬이 이르되,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암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신 이 위대한 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나이까?

2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오나 하늘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30 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니이다.

31 이에 라모나이 왕이 이르되, 그것은 땅 위편에 있나이까?

32 이에 암몬이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모두 다 굽어보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 이는 태초부터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이니이다.

33 이에 라모나이 왕이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나이까?

34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나는 이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그들로 의롭고 참된 것의 지식에 이르게 하도록 그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35 또 그 영의 일부가 내 안에 거하사, 하나님께 있는 나의 신앙과 소망을 따라 내게 지식과 또한 힘을 주시나이다.

36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타락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고하고, 그들의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곧 백성의 기록과 거룩한 경전들을 상세히 말하고, 그의 앞에 진술하였더라.

And Ammon began to speak unto him with boldness, and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at there is a God?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him: I do not know what that meaneth.

And then Ammon said: Believest thou that there is a Great Spirit?

And he said, Yea.

And Ammon said: This is God. And Ammon said unto him again: Believest thou that this Great Spirit, who is God, created all things which are in heaven and in the earth?

And he said: Yea, I believe that he created all things which are in the earth; but I do not know the heavens.

And Ammon said unto him: The heavens is a place where God dwells and all his holy angels.

And king Lamoni said: Is it above the earth?

And Ammon said: Yea, and he looketh down upon all the children of men; and he knows all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for by his hand were they all created from the beginning.

And king Lamoni said: I believe all these things which thou hast spoken. Art thou sent from God?

Ammon said unto him: I am a man; and man in the beginning w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and I am called by his Holy Spirit to teach these things unto this people, that they may be brought to a knowledge of that which is just and true;

And a portion of that Spirit dwelleth in me, which giveth me knowledge, and also power according to my faith and desires which are in God.

Now when Ammon had said these words, he began at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also the creation of Adam, and told him all the things concerning the fall of man, and rehearsed and laid before him the records and the holy scriptures of the people,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prophets, even down to the time that their father, Lehi, left Jerusalem.

37 또한 그들에게 (이는 왕과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음이라)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한 모든 일과, 주림과 갈증으로 겪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수고 등을 자세히 말하였더라.

38 또한 그들에게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모반에 대하여도 자세히 말하되, 참으로 그들의 모반을 그들에게 다 진술하고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경전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더라.

39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은 그들에게 설명하였음이라. 그가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알게 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더라.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이를 왕에게 설명하고 난즉, 왕이 그의 말을 다 믿으니라.

41 이에 그가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니파이 백성에게 베푸신 주의 풍성한 자비를 좇아, 나와 내 백성에게도 베푸소서.

42 이에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가 마치 죽은 듯 땅에 쓰러지더라.

4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들이 그를 취하여 그를 그의 아내에게로 옮겨가서 침상 위에 두매, 그가 마치 죽은 듯이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누웠는지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를 잃음을 크게 슬퍼하며 레이맨인들의 관례를 따라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And he also rehearsed unto them (for it was unto the king and to his servants) all the journeyings of their fathers in the wilderness, and all their sufferings with hunger and thirst, and their travail, and so forth.

And he also rehearsed unto them concerning the rebellions of Laman and Lemuel, and the sons of Ishmael, yea, all their rebellions did he relate unto them; and he expounded unto them all the records and scriptures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down to the present time.

But this is not all; for he expounded unto them the plan of redemption, which w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he also made known unto them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and all the works of the Lord did he make known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 had said all these things, and expounded them to the king, that the king believed all his words.

And he began to cry unto the Lord, saying: O Lord, have mercy; according to thy abundant mercy which thou hast had upon the people of Nephi, have upon me, and my people.

And now,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unto the earth, as if he were dead.

And it came to pass that his servants took him and carried him in unto his wife, and laid him upon a bed; and he lay as if he were dead for the space of two days and two nights; and his wife,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mourned over him, after the manner of the Lamanites, greatly lamenting his loss.

## 앨마서 19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틀 낮 이틀 밤이 지난 후 그들이 바야흐로 그의 몸을 취하여,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에 두려 하였더라.
- 2 이제 왕후가 암몬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로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청하였느니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명함을 받은 대로 행하여 왕후에게로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기 바라는지 알고자 하더라.
- 4 이에 왕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의 종들이 내게 알게 하기를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당신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많은 능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이다.
- 5 그러므로 만일 그러하거든, 들어가서 내 남편을 봐 주소서, 이는 자기 침상에 그가 눕히운지 이틀 낮과 이틀 밤이 되어,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 다른 이들은 말하되 그가 죽었고 그에게서 냄새가 나니, 그를 무덤에 두어야 한다 함이니이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는 그에게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 6 이제 이는 암몬이 바라던 바였으니, 이는 라모나이 왕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그가 알았음이라. 믿지 않음의 어두운 휘장이 그의 마음에서 벗어지고 있으며, 그의 마음을 밝혀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의 선하심의 기이한 빛인 그 빛—참으로 이 빛이 그의 영혼에 그처럼 큰 기쁨을 넣어 주어, 암흑의 구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밝혀졌음을 그가 알았나니, 참으로 이것이 그의 육의 몸을 압도하여, 그가 하나님 안에 이끌려 갔음을 암몬이 알았더라—
- 7 그러므로 왕후가 그에게 요청한 일은 그의 유일한 바람이라. 그리하여 그가 왕후가 요청한 대로 왕을 보려고 들어가, 왕을 보고,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더라.
- 8 이에 왕후에게 이르되,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고 있는즉, 내일이면 다시 일어 나리이다. 그러므로 그를 장사하지 마소서.

## Alma 19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wo days and two nights they were about to take his body and lay it in a sepulchre, which they had made for the purpose of burying their dead.

Now the queen having heard of the fame of Ammon, therefore she sent and desired that he should come in unto her.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did as he was commanded, and went in unto the queen, and desired to know what she would that he should do.

And she said unto him: The servants of my husband have made it known unto me that thou art a prophet of a holy God, and that thou hast power to do many mighty works in his name;

Therefore, if this is the case, I would that ye should go in and see my husband, for he has been laid upon his bed for the space of two days and two nights; and some say that he is not dead, but others say that he is dead and that he stinketh, and that he ought to be placed in the sepulchre; but as for myself, to me he doth not stink.

Now, this was what Ammon desired, for he knew that king Lamoni was under the power of God; he knew that the dark veil of unbelief was being cast away from his mind, and the light which did light up his mind, which was the light of the glory of God, which was a marvelous light of his goodness—yea, this light had infused such joy into his soul, the cloud of darkness having been dispelled, and that the light of everlasting life was lit up in his soul, yea, he knew that this had overcome his natural frame, and he was carried away in God—

Therefore, what the queen desired of him was his only desire. Therefore, he went in to see the king according as the queen had desired him; and he saw the king, and he knew that he was not dead.

And he said unto the queen: He is not dead, but he sleepeth in God, and on the morrow he shall rise again; therefore bury him not.

- 9 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왕후께서 이를 믿으시나이까? 왕후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는 당신의 말씀과 우리 종들의 말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나이다.
- 10 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큰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내가 당신께 이르노니, 여자여,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이처럼 큰 신앙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가 그 시로부터 그가 일어나리라고 암몬이 지정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그 남편의 침상을 지켰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의 말대로, 그가 일어나니라. 그가 일어나자, 여자에게 그 손을 내밀고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으며 그대에게도 복이 있도다.
- 13 이는 그대가 사는 것같이 분명히, 보라,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요, 그가 나아오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이 말을 하고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서 부풀어, 기쁨으로 다시 쓰러지니, 왕후 또한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니라.
- 14 이제 암몬은 그 죄와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인들 가운데,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그토록 많은 애痛的 원인이었던 그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그의 기도대로 주의 영이 부어짐을 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어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그도 역시 기쁨으로 압도되매, 이리하여 그들 셋 모두가 땅에 쓰러지니라.
- 15 이제 그들이 쓰러진 것을 왕의 종들이 보았을 때, 이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임하였음이라. 이는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암몬의 큰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던 자들이 이들이었음이라.

And Ammon said unto her: Believest thou this? And she said unto him: I have had no witness save thy word, and the word of our servants; nevertheless I believe that it shall be according as thou hast said.

And Ammon said unto her: Blessed art thou because of thy exceeding faith; I say unto thee, woman, there has not been such great faith among all the people of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she watched over the bed of her husband, from that time even until that time on the morrow which Ammon had appointed that he should ris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arose, according to the words of Ammon; and as he arose, he stretched forth his hand unto the woman, and said: Blessed be the name of God, and blessed art thou.

For as sure as thou livest, behold, I have seen my Redeemer; and he shall come forth, and be born of a woman, and he shall redeem all mankind who believe on his name. Now,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his heart was swollen within him, and he sunk again with joy; and the queen also sunk down, being overpowered by the Spirit.

Now Ammon seeing the Spirit of the Lord poured out according to his prayers upon the Lamanites, his brethren, who had been the cause of so much mourning among the Nephites, or among all the people of God because of their iniquities and their traditions, he fell upon his knees, and began to pour out his soul in prayer and thanksgiving to God for what he had done for his brethren; and he was also overpowered with joy; and thus they all three had sunk to the earth.

Now, when the servants of the king had seen that they had fallen, they also began to cry unto God, for the fear of the Lord had come upon them also, for it was they who had stood before the king and testified unto him concerning the great power of Ammon.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들이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윽고 레이맨인 여자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땅에 쓰러지니, 그 여자의 이름은 에이비시더라. 그는 그 부친의 놀라운 시현으로 인하여, 주께로 돌이킨지 여러 해가 되었더라—
- 17 그리하여 주께로 돌이켰으나 결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라모나이의 종들이 모두 땅에 쓰러지고, 또한 그의 여주인 왕후와 왕과 암몬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고 생각하기를, 이 기회가 그들 중에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이 광경을 바라봄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이를 백성들에게 알렸더라.
- 18 이에 그들이 왕의 집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니, 큰 무리가 이르러 놀랍게도 왕과 왕후와 그들의 종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이 다 죽은 듯이 거기 누워 있었으며, 그들이 또한 암몬을 보았으니, 보라 그는 니파이인이더라.
- 19 이에 이제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되 이는 왕이 니파이인을 이 땅에 머물도록 용납한 까닭에, 그들에게 곧 왕과 그의 집에 임한 큰 재앙이라 하였더라.
- 20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들을 꾸짖어 이르되, 왕이 시부스 물에서 양 떼를 흘음 당한 그의 종들을 죽인 까닭에, 이 재앙을 자기 집에 초래하였다 하더라.
- 21 그러나 그들 역시 시부스 물에 서서 왕에게 속한 양 떼를 흘은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이는 시부스 물에서 왕의 양 떼를 지키는 동안, 암몬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죽인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암몬에게 노하여 있었음이라.
- 22 이제 그들 중 하나로, 자기 형제가 암몬의 칼로 죽임을 당하였던 자가 암몬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 칼을 뽑아 들고 나아가 그것으로 암몬 위에 떨어지게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더니, 저가 암몬을 치려고 칼을 치켜들자, 보라 저가 쓰러져 죽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in their might, even until they had all fallen to the earth, save it were one of the Lamanitish women, whose name was Abish, she having been converted unto the Lord for many years, on account of a remarkable vision of her father—

Thus, having been converted to the Lord, and never having made it known, therefore, when she saw that all the servants of Lamoni had fallen to the earth, and also her mistress, the queen, and the king, and Ammon lay prostrate upon the earth, she knew that it was the power of God; and supposing that this opportunity, by making known unto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among them, that by beholding this scene it would cause them to believe in the power of God, therefore she ran forth from house to house, making it known unto the people.

And they began to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unto the house of the king. And there came a multitude, and to their astonishment, they beheld the king, and the queen, and their servants prostrate upon the earth, and they all lay there as though they were dead; and they also saw Ammon, and behold, he was a Nephite.

And now the people began to murmur among themselves; some saying that it was a great evil that had come upon them, or upon the king and his house, because he had suffered that the Nephite should remain in the land.

But others rebuked them, saying: The king hath brought this evil upon his house, because he slew his servants who had had their flocks scattered at the waters of Sebus.

And they were also rebuked by those men who had stood at the waters of Sebus and scattered the flocks which belonged to the king, for they were angry with Ammon because of the number which he had slain of their brethren at the waters of Sebus, while defending the flocks of the king.

Now, one of them, whose brother had been slain with the sword of Ammon, being exceedingly angry with Ammon, drew his sword and went forth that he might let it fall upon Ammon, to slay him; and as he lifted the sword to smite him, behold, he fell dead.

23 이제 우리는 암몬이 죽임을 당할 수 없음을 아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부친 모사이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를 보전하리니, 너의 신앙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음이라—그러므로 모사이야가 그를 주께 맡겼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암몬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 든 자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그들이 감히 손을 내밀어 암몬이나 쓰러진 자들 중 아무라도 만지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시 이 큰 능력의 원인이 무엇일지, 또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끼리 기이히 여기기 시작하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암몬은 위대한 영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위대한 영의 보냄을 받은 자라 하였으나,

26 다른 이들은 그들 모두를 꾸짖으며,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 그들을 괴롭히도록 보냄을 받은 괴물이라 하더라.

27 또 어떤 이들은 암몬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위대한 영의 보냄을 받은 자라하고, 또 니파이인들과 항상 함께 있어, 언제나 그들을 자기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은 위대한 영이었다 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것처럼 많이 멸한 것은 이 위대한 영이었다 하더라.

28 이리하여 그들 중에서 논쟁이 심히 격렬해졌더니, 그들이 이같이 쟁론하고 있을 때, 무리를 함께 모이게 한 여자 종이 와서 무리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가서 혹 왕후를 땅에서 일으키고자 왕후의 손을 잡으매, 저의 손이 왕후의 손에 닿자마자, 왕후가 일어나 두 발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무서운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신 복되신 예수여, 복되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Now we see that Ammon could not be slain, for the Lord had said unto Mosiah, his father: I will spare him, and it shall be unto him according to thy faith—therefore, Mosiah trusted him unto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multitude beheld that the man had fallen dead, who lifted the sword to slay Ammon, fear came upon them all, and they durst not put forth their hands to touch him or any of those who had fallen; and they began to marvel again among themselves what could be the cause of this great power, or what all these things could mea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among them who said that Ammon was the Great Spirit, and others said he was sent by the Great Spirit;

But others rebuked them all, saying that he was a monster, who had been sent from the Nephites to torment them.

And there were some who said that Ammon was sent by the Great Spirit to afflict them because of their iniquities; and that it was the Great Spirit that had always attended the Nephites, who had ever delivered them out of their hands; and they said that it was this Great Spirit who had destroyed so many of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And thus the contention began to be exceedingly sharp among them. And while they were thus contending, the woman servant who had caused the multitude to be gathered together came, and when she saw the contention which was among the multitude she was exceedingly sorrowful, even unto tears.

And it came to pass that she went and took the queen by the hand, that perhaps she might raise her from the ground; and as soon as she touched her hand she arose and stood upon her feet, and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O blessed Jesus, who has saved me from an awful hell! O blessed God, have mercy on this people!

30 이 말을 하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또 저가 이렇게 하고 나서 라모나이 왕의 손을 잡으매, 보라 그가 일어나 두 발로 서더라.

31 즉시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는, 나아가 그들을 꾸짖으며, 암몬의 입에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매, 그의 말을 들은 자는 모두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32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가 많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길을 갔더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일어나매 그도 역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고, 라모나이의 모든 종들도 역시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선포하였나니—곧 그들의 마음이 변화 되었으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함이라.

34 또 보라, 많은 자들이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과 대화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말을 믿는 자가 많이 있어, 믿는 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더라.

36 이같이 주의 일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영을 이들 위에 부어 주기 시작하셨나니,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자 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의 팔이 펼쳐짐을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And when she had said this, she clasped her hands, being filled with joy, speaking many words which were not understood; and when she had done this, she took the king, Lamoni, by the hand, and behold he arose and stood upon his feet.

And he, immediately, seeing the contention among his people, went forth and began to rebuke them, and to teach them the words which he had heard from the mouth of Ammon; and as many as heard his words believed, and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But there were many among them who would not hear his words; therefore they went their way.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mmon arose he also administered unto them, and also did all the servants of Lamoni; and they did all declare unto the people the selfsame thing—that their hearts had been changed; that they had no more desire to do evil.

And behold, many did declare unto the people that they had seen angels and had conversed with them; and thus they had told them things of God, and of his righteous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that did believe in their words; and as many as did believe were baptized; and they became a righteous people, and they did establish a church among them.

And thus the work of the Lord did commence among the Lamanites; thus the Lord did begin to pour out his Spirit upon them; and we see that his arm is extended to all people who will repent and believe on his name.

## 앨마서 20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라모나이 왕이 암몬이 자기와 함께 니파이 땅으로 가기를 원하니, 이는 그를 자기 부친에게 보이코자 함이라.
- 2 이에 주의 음성이 암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지 말지니, 보라, 왕이 네 생명을 노릴 것임이니라. 오히려 너는 밌도나이 땅으로 갈지니, 이는 보라, 거기에 네 형제 아론과 또한 물로카이와 앰마가 옥에 갇혀 있음이니라.
- 3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라모나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제와 동역자들이 밌도나이에서 옥에 갇혀 있어,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나이다.
- 4 이제 라모나이가 암몬에게 이르되, 주의 능력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밌도나이 땅으로 가리니, 안티움노라 이름하는 밌도나이 땅의 왕은 내게 친구가 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밌도나이 땅으로 가서, 그 땅의 왕을 잘 달래면, 그가 당신의 형제들을 옥에서 내보내리이다. 이제 라모나이가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이 옥에 갇혀 있다고 누가 당신께 고하더이까?
- 5 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네 형제들을 구하라, 그들이 밌도나이 땅에서 옥에 갇혀 있음이니라 하셨나이다.
- 6 이제 라모나이가 이를 듣고는 그 종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들과 자기의 병거들을 준비하게 하더라.
- 7 그리고 암몬에게 이르되, 오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밌도나이 땅으로 내려가, 거기서 그 왕에게 간청하여 그로 당신의 형제들을 옥에서 내보내게 하겠나이다 하더라.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그리로 여행하다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만나더라.

## Alma 20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established a church in that land, that king Lamoni desired that Ammon should go with him to the land of Nephi, that he might show him unto his father.

And the voice of the Lord came to Ammon, saying: Thou shalt not go up to the land of Nephi, for behold, the king will seek thy life; but thou shalt go to the land of Middoni; for behold, thy brother Aaron, and also Muloki and Ammah are in prison.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mmon had heard this, he said unto Lamoni: Behold, my brother and brethren are in prison at Middoni, and I go that I may deliver them.

Now Lamoni said unto Ammon: I know,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ou canst do all things. But behold, I will go with thee to the land of Middoni; for the king of the land of Middoni, whose name is Antiomno, is a friend unto me; therefore I go to the land of Middoni, that I may flatter the king of the land, and he will cast thy brethren out of prison. Now Lamoni said unto him: Who told thee that thy brethren were in prison?

And Ammon said unto him: No one hath told me, save it be God; and he said unto me—Go and deliver thy brethren, for they are in prison in the land of Middoni.

Now when Lamoni had heard this he caused that his servants should make ready his horses and his chariots.

And he said unto Ammon: Come, I will go with thee down to the land of Middoni, and there I will plead with the king that he will cast thy brethren out of prison.

And it came to pass that as Ammon and Lamoni were journeying thither, they met the father of Lamoni, who was king over all the land.

- 9 이에 보라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내가 내 아들들과 내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저 큰 날에 잔치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 10 또 이르되, 너는 거짓말쟁이의 자손 중 하나인이 니파이인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그에게 자세히 이르니, 이는 그를 노엽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 12 저가 또한 자기 나라에 머물러 그 부친이 예비한 잔치에 그에게로 가지 아니한 까닭을 그에게 다 고하였더라.
- 13 이제 라모나이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이르고 나매, 보라, 그가 놀랍게도 그의 부친은 그에게 노하며 이르되, 라모나이야, 네가 이 니파이인들을 구하려고 가고 있으니, 이들은 거짓말쟁이의 자식들이라. 보라, 그는 우리 조상들을 약탈하였고, 이제 그의 자손들 역시 우리 가운데 와서, 그들의 간교함과 그들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서 우리의 소유를 약탈하려 하느니라 하더라.
- 14 이제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게 암몬을 칼로 죽일 것을 명하고, 또한 그에게 밌도나이 땅으로 가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이스마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였더라.
- 15 그러나 라모나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암몬을 죽이지 아니하겠고,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겠사오며, 도리어 암몬의 형제들을 방면하려 밌도나이 땅으로 가오니, 이는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인 줄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니라.
- 16 이제 그의 부친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노하여, 그를 쳐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자 칼을 빼었더라.
- 17 그러나 암몬이 나서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나 당신보다 그가 쓰러지는 것이 나으리니, 이는 보소서, 그는 이미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음이라. 그러나 이때 만일 당신이 노한 가운데 쓰러지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리이다.

And behold, the father of Lamoni said unto him: Why did ye not come to the feast on that great day when I made a feast unto my sons, and unto my people?

And he also said: Whither art thou going with this Nephite, who is one of the children of a liar?

And it came to pass that Lamoni rehearsed unto him whither he was going, for he feared to offend him.

And he also told him all the cause of his tarrying in his own kingdom, that he did not go unto his father to the feast which he had prepared.

And now when Lamoni had rehearsed unto him all these things, behold, to his astonishment, his father was angry with him, and said: Lamoni, thou art going to deliver these Nephites, who are sons of a liar. Behold, he robbed our fathers; and now his children are also come amongst us that they may, by their cunning and their lyings, deceive us, that they again may rob us of our property.

Now the father of Lamoni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slay Ammon with the sword. And he also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not go to the land of Middoni, but that he should return with him to the land of Ishmael.

But Lamoni said unto him: I will not slay Ammon, neither will I return to the land of Ishmael, but I go to the land of Middoni that I may release the brethren of Ammon, for I know that they are just men and holy prophets of the true God.

Now when his father had heard these words, he was angry with him, and he drew his sword that he might smite him to the earth.

But Ammon stood forth and said unto him: Behold, thou shalt not slay thy son; nevertheless, it were better that he should fall than thee, for behold, he has repented of his sins; but if thou shouldst fall at this time, in thine anger, thy soul could not be saved.

- 18 그리고 또 당신이 참아야 마땅함은, 당신이 만일 당신 아들을 죽인다면, 그가 무죄한 사람인지라,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당신에게 보복이 임할 것임이니,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임이니이다.
- 19 이제 암몬이 그에게 이 말을 하자, 그가 암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릴 줄 아노니, 이는 그를 멸망시키고자 꾀한 것이 너임이로다 하였더라.
- 20 그리고 그 손을 뻗어 암몬을 죽이려 하였으나, 암몬이 그의 공격을 막더니, 또한 그의 팔을 쳐 쓰지 못하게 하였더라.
- 21 이제 왕이 암몬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을 보고, 암몬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 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하였더라.
- 22 암몬이 그의 칼을 치켜들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내 형제들을 옥에서 나가게 해 주지 아니할진대 당신을 치겠나이다 하더라.
- 23 이제 왕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나를 살려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더라.
- 24 이제 암몬이 늙은 왕을 자기 뜻대로 움직였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내 형제들을 옥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고, 또한 라모나이로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며, 그를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랴도 그 자신의 원대로 할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면 당신을 살려 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을 쳐 땅에 엎드려뜨리리다.
- 25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왕이 자기 목숨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더라.
- 26 또 암몬에게 자기를 멸할 뜻이 없음을 보고, 또한 그가 자기 아들 라모나이에 대하여 가진 큰 사랑을 보고, 심히 놀라 이르되, 내가 그대의 형제들을 놓아 주고, 나의 아들 라모나이로 하여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용납하는 이것이,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인즉, 보라, 내가 그대에게 허락하여 내 아들이 이때로부터 영원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겠고, 내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And again, it is expedient that thou shouldst forbear; for if thou shouldst slay thy son, he being an innocent man, his blood would cry from the ground to the Lord his God, for vengeance to come upon thee; and perhaps thou wouldst lose thy soul.

Now when Ammon had said these words unto him, he answered him, saying: I know that if I should slay my son, that I should shed innocent blood; for it is thou that hast sought to destroy him.

And he stretched forth his hand to slay Ammon. But Ammon withstood his blows, and also smote his arm that he could not use it.

Now when the king saw that Ammon could slay him, he began to plead with Ammon that he would spare his life.

But Ammon raised his sword, and said unto him: Behold, I will smite thee except thou wilt grant unto me that my brethren may be cast out of prison.

Now the king, fearing he should lose his life, said: If thou wilt spare me I will grant unto thee whatsoever thou wilt ask, even to half of the kingdom.

Now when Ammon saw that he had wrought upon the old king according to his desire, he said unto him: If thou wilt grant that my brethren may be cast out of prison, and also that Lamoni may retain his kingdom, and that ye be not displeased with him, but grant that he may do according to his own desires in whatsoever thing he thinketh, then will I spare thee; otherwise I will smite thee to the earth.

Now when Ammon had said these words, the king began to rejoice because of his life.

And when he saw that Ammon had no desire to destroy him, and when he also saw the great love he had for his son Lamoni, he was astonished exceedingly, and said: Because this is all that thou hast desired, that I would release thy brethren, and suffer that my son Lamoni should retain his kingdom, behold, I will grant unto you that my son may retain his kingdom from this time and forever; and I will govern him no more—

27 내가 또한 그대의 형제들이 옥에서 나감과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내 나라에 나를 찾아옴을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대 보기를 몹시 원할 것임이로라 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가 한 말과 또한 자기 아들 라모나이가 한 말에 크게 놀랐으므로, 그 말한 것을 배우기 원하였음이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믿도나이 땅을 향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였고, 라모나이가 그 땅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암몬의 형제들이 옥에서 나오게 되니라.

29 또 암몬은 그들을 만났을 때 심히 슬펐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벌거벗었고, 단단한 줄로 결박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피부가 심히 상했음이라. 또한 그들은 굶주림, 갈증,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 인내하였더라.

30 또 일이 된 바로는, 그들의 경우 더 완악하고 더 목이 뻣뻣한 백성의 손에 빠졌었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여, 그들을 쫓아 내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몰아내매, 이윽고 그들이 믿도나이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들이 잡혀 옥에 던지워, 단단한 줄에 결박되어서, 여러 날 옥에 갇혀 있다가, 라모나리와 암몬에게 구출되었더라.

And I will also grant unto thee that thy brethren may be cast out of prison, and thou and thy brethren may come unto me, in my kingdom; for I shall greatly desire to see thee. For the king was greatly astonished at the words which he had spoken, and also at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his son Lamoni, therefore he was desirous to lear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and Lamoni proceeded on their journey towards the land of Middoni. And Lamoni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king of the land; therefore the brethren of Ammon were brought forth out of prison.

And when Ammon did meet them he was exceedingly sorrowful, for behold they were naked, and their skins were worn exceedingly because of being bound with strong cords. And they also had suffered hunger, thirst, and all kinds of afflictions; nevertheless they were patient in all their sufferings.

And, as it happened, it was their lot to have fallen into the hands of a more hardened and a more stiff-necked people; therefore they would not hearken unto their words, and they had cast them out, and had smitten them, and had driven them from house to house, and from place to place, even until they had arrived in the land of Middoni; and there they were taken and cast into prison, and bound with strong cords, and kept in prison for many days, and were delivered by Lamoni and Ammon.

아론과 물로카이와 그들의 형제들이 레이맨인에게 전도한 기사.

*An account of the preaching of Aaron, and Muloki, and their brethren, to the Lamanites.*

## 앨마서 21

## Alma 21

- 1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의 땅 경계에서 서로 헤어졌을 때, 보라 아론은 레이맨인들이 그들 조상들의 출생지를 따라 예루살렘이라 칭하는 땅을 향하여 여행하였으니, 그 곳은 멀리 몰몬의 경계에 접한 곳이었다.
- 2 이제 레이맨인들과 아멜레카이인들과 앰울론 백성은 예루살렘이라 칭하는, 큰 성을 건축했었다.
- 3 이제 레이맨인들 스스로도 족히 완악하였으나, 아멜레카이인들과 앰울론인들은 더욱 완악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간악함과 그 가증함 중에 점점 더 굳어지게 하였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먼저 아멜레카이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되,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아멜레카이인과 앰울론인 중에서 니허인들의 반차를 좇은 자가 많아, 그들이 니허인들의 반차를 따라 회당들을 지었음이라.
- 5 그리하여 아론이 백성에게 전도하려고 그들의 한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할 때, 보라 아멜레카이인 하나가 일어나 그와 다투기 시작하여 이르되, 네가 증거한 바가 무엇이냐? 네가 천사를 보았느냐? 어찌하여 천사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보라 이 백성이 너의 백성만큼 선하지 아니하냐?
- 6 네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도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을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아닌 줄을 네가 어찌 아느냐? 보라, 우리는 성소들을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 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노라 하니라.

Now when Ammon and his brethren separated themselves in the borders of the land of the Lamanites, behold Aaron took his journey towards the land which was called by the Lamanites, Jerusalem, calling it after the land of their fathers' nativity; and it was away joining the borders of Mormon.

Now the Lamanites and the Amalekites and the people of Amulon had built a great city, which was called Jerusalem.

Now the Lamanites of themselves were sufficiently hardened, but the Amalekites and the Amulonites were still harder; therefore they did cause the Lamanites that they should harden their hearts, that they should wax strong in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Aaron came to the city of Jerusalem, and first began to preach to the Amalekites. And he began to preach to them in their synagogues, for they had built synagogues after the order of the Nehors; for many of the Amalekites and the Amulonites were after the order of the Nehors.

Therefore, as Aaron entered into one of their synagogues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as he was speaking unto them, behold there arose an Amalekite and began to contend with him, saying: What is that thou hast testified? Hast thou seen an angel? Why do not angels appear unto us? Behold are not this people as good as thy people?

Thou also sayest, except we repent we shall perish. How knowest thou the thought and intent of our hearts? How knowest thou that we have cause to repent? How knowest thou that we are not a righteous people? Behold, we have built sanctuaries, and we do assemble ourselves together to worship God. We do believe that God will save all men.



- 7 이제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 오실 것을 믿느냐?
- 8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네가 그러한 것을 도무지 알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어리석은 전통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네가 장차 이를 일들에 대하여 안다고 믿지 아니하며, 너의 조상들과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장차 이를 일에 대해 말한 바에 관하여 알았다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더라.
- 9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및 그의 피의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위한 구속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경전을 펼쳐주기 시작하였더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자 아니하더라.
- 11 그러므로 아론은 그들이 자기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회당에서 떠나, 애니-앤티이라 하는 마을로 건너와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 씀을 전파하는 물로카이와, 또한 앰마와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이들과 더불어 쟁론하였더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을 그들이 보았으므로, 그들이 떠나 민도나이 땅으로 넘어와서, 많은 자들에게 말 씀을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믿는 자가 거의 없더라.
-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형제 중 몇몇은 잡혀 옥에 던져졌고, 나머지는 민도나이 땅에서 나와 주변 지역으로 피했더라.
- 14 그리고 옥에 던져진 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더니, 그들이 라모나이와 암몬의 손에 구출되매, 사람들이 그들을 먹이고 입혔더라.
- 15 이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려 다시 나아갔나니, 이같이 그들이 처음으로 옥에서 구출되었고, 이같이 그들이 고난을 겪었더라.

Now Aaron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at the Son of God shall come to redeem mankind from their sins?

And the man said unto him: We do not believe that thou knowest any such thing. We do not believe in these foolish traditions. We do not believe that thou knowest of things to come, neither do we believe that thy fathers and also that our fathers did know concerning the things which they spake, of that which is to come.

Now Aaron began to open the scriptures unto them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and also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at there could be no redemption for mankind save it were through the death and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atonement of his blood.

And it came to pass as he began to expound these things unto them they were angry with him, and began to mock him; and they would not hear the words which he spake.

Therefore, when he saw that they would not hear his words, he departed out of their synagogue, and came over to a village which was called Ani-Anti, and there he found Muloki preaching the word unto them; and also Ammah and his brethren. And they contended with many about the w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saw that the people would harden their hearts, therefore they departed and came over into the land of Middoni. And they did preach the word unto many, and few believed on the words which they taught.

Nevertheless, Aaron and a certain number of his brethren were taken and cast into prison, and the remainder of them fled out of the land of Middoni unto the regions round about.

And those who were cast into prison suffered many things, and they were delivered by the hand of Lamoni and Ammon, and they were fed and clothed.

And they went forth again to declare the word, and thus they were delivered for the first time out of prison; and thus they had suffered.

16 또 그들은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나아가며, 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아말레카이인들의 모든 회당에서, 또는 레이맨인들의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시매, 그들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였나니,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와,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깨닫게 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밌도나 이 땅에서 그들의 기업의 땅인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왔더라.

19 이에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자기에게 수종들거나, 자기의 종 됄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고,

20 이스마엘 땅에 회당들을 짓게 하고, 자기 백성, 곧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였더라.

21 또 그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은 그의 아래에 있는 백성이요, 또 자유로운 백성이라, 그의 부왕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부친이 그에게 이스마엘 땅과 주변의 모든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것을 허락하였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더라.

22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라모나이 왕의 통치하에 있는 땅이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원대로 자유로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좋음을 선포하였더라.

23 또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백성에게 전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의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그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매일 그들을 권면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And they went forth whithersoever they were 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preaching the word of God in every synagogue of the Amalekites, or in every assembly of the Lamanites where they could be admitt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began to bless them, insomuch that they brought many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yea, they did convince many of their sins, and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which were not correct.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and Lamoni returned from the land of Middoni to the land of Ishmael, which was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And king Lamoni would not suffer that Ammon should serve him, or be his servant.

But he caused that there should be synagogues built in the land of Ishmael; and he caused that his people, or the people who were under his reign, shoul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nd he did rejoice over them, and he did teach them many things. And he did also declare unto them that they were a people who were under him, and that they were a free people, that they were free from the oppressions of the king, his father; for that his father had granted unto him that he might reign over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Ishmael, and in all the land round about.

And he also declared unto them that they might have the liberty of worshiping the Lord their God according to their desires, in whatsoever place they were in, if it were in the land which was under the reign of king Lamoni.

And Ammon did preach unto the people of king Lamoni;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teach them all things concerning things pertaining to righteousness. And he did exhort them daily, with all diligence; and they gave heed unto his word, and they were zealous for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 앨마서 22

- 1 이제 암몬이 이같이 라모나이 백성들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론과 그의 형제들의 기사로 돌아가리니, 이는 저가 밌도나이 땅을 떠난 후 영에 이끌려 니파이 땅으로 가되, 곧 이스마엘 땅을 제외한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집으로 갔음이라. 그는 라모나이의 부친이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왕 앞에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보소서, 우리는 왕이 옥에서 구출해 주신 암몬의 형제들이니이다.
- 3 또 이제 왕이시여, 만일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이오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희의 생명은 너희에게 주려니와, 너희가 나의 종 됨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 것을 요구하리니, 이는 네 형제 암몬의 말의 관대함과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간 곤혹하게 되었음이라. 나는 또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밌도나이에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 4 이에 아론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의 영이 그를 다른 길로 부르셨으니, 그는 라모나이의 백성들을 가르치려 이스마엘 땅으로 갔나이다.
- 5 이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의 영에 관하여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보라, 이것이 나를 곤혹하게 하는 것이니라.
- 6 그리고 또한 암몬이 말한 바—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리라 한 이것은 무엇이냐?
- 7 아론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나는 아멜레카이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줄을 알며, 그들이 함께 모여 그를 경배할 성소들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나니, 만일 지금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보라 내가 믿으리라.

## Alma 22

Now, as Ammon was thus teaching the people of Lamoni continually, we will return to the account of Aaron and his brethren; for after he departed from the land of Middoni he was led by the Spirit to the land of Nephi, even to the house of the king which was over all the land save it were the land of Ishmael; and he was the father of Lamoni.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ent in unto him into the king's palace, with his brethren, and bowed himself before the king, and said unto him: Behold, O king, we are the brethren of Ammon, whom thou hast delivered out of prison.

And now, O king, if thou wilt spare our lives, we will be thy servants. And the king said unto them: Arise, for I will grant unto you your lives, and I will not suffer that ye shall be my servants; but I will insist that ye shall administer unto me; for I have been somewhat troubled in mind because of the generosity and the greatness of the words of thy brother Ammon; and I desire to know the cause why he has not come up out of Middoni with thee.

And Aaron said unto the king: Behold, the Spirit of the Lord has called him another way; he has gone to the land of Ishmael, to teach the people of Lamoni.

Now the king said unto them: What is this that ye have said concerning the Spirit of the Lord? Behold, this is the thing which doth trouble me.

And also, what is this that Ammon said—If ye will repent ye shall be saved, and if ye will not repent, ye shall be cast off at the last day?

And Aaron answered him and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at there is a God? And the king said: I know that the Amalekites say that there is a God, and I have granted unto them that they should build sanctuaries, that they may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to worship him. And if now thou sayest there is a God, behold I will believe.

- 8 이에 이제 아론이 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왕이 사십같이 분명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계시나이다.
- 9 이에 왕이 이르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저 위대한 영이시냐?
- 10 이에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그가 그 위대한 영이시니,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왕은 이를 믿으시나이까?
- 11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도다, 위대한 영이 만물을 창조하신 줄 내가 믿노니,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말을 믿으리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왕이 자기 말을 믿을 것임을 보고,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으니, 곧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주셨음과, 범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였음에 대한 것이다.
- 13 또 아론이 그에게 아담의 창조로부터 경전을 해설하며, 그의 앞에 사람의 타락과 그들의 속된 상태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였느니라.
- 14 또 사람은 이미 타락하였으므로 스스로는 아무 것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신앙과 회개 등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며 그가 사망의 줄을 끊으시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과 사망의 쏘는 것이 영광의 소망 중에 삼키운 바 될 것을 설명하였으니,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왕에게 해설하였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에게 이러한 것을 해설하자,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그가 이르되,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하더라.

And now when Aaron heard this, his heart began to rejoice, and he said: Behold, assuredly as thou livest, O king, there is a God.

And the king said: Is God that Great Spirit that brought our fathers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Aaron said unto him: Yea, he is that Great Spirit, and he created all things both in heaven and in earth. Believest thou this?

And he said: Yea, I believe that the Great Spirit created all things, and I desire that ye should tell me concerning all these things, and I will believe thy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aron saw that the king would believe his words, he began from the creation of Adam, reading the scriptures unto the king—how God created man after his own image, and that God gave him commandments, and that because of transgression, man had fallen.

And Aaron did expound unto him the scriptures from the creation of Adam, laying the fall of man before him, and their carnal state and also the plan of redemption, which w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rough Christ, for all whosoever would believe on his name.

And since man had fallen he could not merit anything of himself; but the sufferings and death of Christ atone for their sins, through faith and repentance, and so forth; and that he breaketh the bands of death, that the grave shall have no victory, and that the sting of death should be swallowed up in the hopes of glory; and Aaron did expound all these things unto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Aaron had expounded these things unto him, the king said: What shall I do that I may have this eternal life of which thou hast spoken? Yea, what shall I do that I may be born of God, having this wicked spirit rooted out of my breast, and receive his Spirit,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that I may not be cast off at the last day? Behold, said he, I will give up all that I possess, yea, I will forsake my kingdom, that I may receive this great joy.

16 그러나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이것을 원하시오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절하실진대 참으로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왕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절하니, 참으로 땅 위에 꿇어 엎드려,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18 하나님이시여, 아론이 나에게 일러 하나님이 계시다 하였사오니,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시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하더니, 이제 왕이 이 말을 하고는, 갑자기 쓰러지니 마치 죽은 것 같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들이 달음질하여 왕에게 일어난 일을 왕후에게 다 고하매, 왕후가 들어와 왕에게 이르러, 그가 마치 죽은 것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마치 그들이 왕이 쓰러진 원인이었던 양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노하여, 자기의 종들, 곧 왕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라 하니라.

20 이제 종들은 왕이 쓰러진 까닭을 보았으므로, 감히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 손을 대려 하지 않고, 왕후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들 중 하나가 우리 모두보다 강하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 거꾸러지리이다 하더라.

21 이제 왕후가 종들의 두려움을 보고 그 역시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미칠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그 종들을 명하여 가서 백성들을 부르게 하고, 그들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하였더라.

But Aaron said unto him: If thou desirest this thing, if thou wilt bow down before God, yea, if thou wilt repent of all thy sins, and will bow down before God, and call on his name in faith,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then shalt thou receive the hope which thou desires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aron had said these words, the king did bow down before the Lord, upon his knees; yea, even he did prostrate himself upon the earth, and cried mightily, saying:

O God, Aaron hath told me that there is a God; and if there is a God, and if thou art God, wilt thou make thyself known unto me, and I will give away all my sins to know thee, and that I may be raised from the dead, and be saved at the last day. And now when the king had said these words, he was struck as if he were dead.

And it came to pass that his servants ran and told the queen all that had happened unto the king. And she came in unto the king; and when she saw him lay as if he were dead, and also Aaron and his brethren standing as though they had been the cause of his fall, she was angry with them, and commanded that her servants, or the servants of the king, should take them and slay them.

Now the servants had seen the cause of the king's fall, therefore they durst not lay their hands on Aaron and his brethren; and they pled with the queen saying: Why commandest thou that we should slay these men, when behold one of them is mightier than us all? Therefore we shall fall before them.

Now when the queen saw the fear of the servants she also began to fear exceedingly, lest there should some evil come upon her. And she commanded her servants that they should go and call the people, that they might slay Aaron and his brethren.

- 22 이제 아론이 왕후의 결심을 보고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는 고로, 큰 무리가 함께 모이고, 그들 중에 큰 다툼과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손을 내밀어 왕을 땅에서 일으키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서라 하니, 그가 그 힘을 받으며 두 발로 서더라.
- 23 이제 이 일이 왕후와 많은 종들이 있는데서 이루어지매, 그들이 이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기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더니, 왕이 나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또 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매, 이윽고 그의 온 권속이 주께로 돌이켰더라.
- 24 이제 왕후의 명령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가 함께 모였더니,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큰 불평이 생겼더라.
- 25 왕이 그들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매, 그들이 아론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향하여 누그러졌더라.
-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성들이 누그러진 것을 보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무리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니라.
-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 온 땅에 두루 포고를 보내되, 그의 온 땅에 있는 자기의 모든 백성 및 그 주변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었으니, 그 땅은 동과 서로는 경계가 바다에 닿았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는 좁고 긴 광야 지대를 사이에 두고 나뉘었으며, 이 지대는 다시 동편 바다에서 서편 바다까지 뻗었고, 바닷가의 변경을 둘러, 제이라헤믈라 땅에 인접하여 북편에 있는 광야의 변경 가까이로 뻗었으며, 맨타이의 경계를 지나, 시돈 강의 발원지 가까이로 뻗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뻗어 있었나니—이같이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이 나뉘었더라.

Now when Aaron saw the determination of the queen, he, also knowing the hardness of the hearts of the people, feared lest that a multitude shoul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nd there should be a great contention and a disturbance among them; therefore he put forth his hand and raised the king from the earth, and said unto him: Stand. And he stood upon his feet, receiving his strength.

Now this was done in the presence of the queen and many of the servants. And when they saw it they greatly marveled, and began to fear. And the king stood forth, and began to minister unto them. And he did minister unto them, insomuch that his whole household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Now there was a multitude gathered together because of the commandment of the queen, and there began to be great murmurings among them because of Aaron and his brethren.

But the king stood forth among them and administered unto them. And they were pacified towards Aar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king saw that the people were pacified, he caused that Aaron and his brethren should stand forth in the midst of the multitude, and that they should preach the word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sent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the land, amongst all his people who were in all his land, who were in all the regions round about, which was bordering even to the sea, on the east and on the west, and which was divided from the land of Zarahemla by a narrow strip of wilderness, which ran from the sea east even to the sea west, and round about on the borders of the seashore, and the borders of the wilderness which was on the north by the land of Zarahemla, through the borders of Manti, by the head of the river Sidon, running from the east towards the west—and thus were the Lamanites and the Nephites divided.

28 이제 레이맨인들 중 더욱 게으른 무리들은 광야에서 살며 장막에 거하였나니, 그들은 서편 광야 니파이 땅과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의 서편 곧 해안에 가까운 변경과 서편 니파이 땅 곧 그 조상들의 첫 번 기업의 땅에 두루 퍼졌고, 그리하여 해변을 따라 경계를 인접해 있었더라.

29 또한 동편 바닷가에도 레이맨인들이 많이 있었으니, 니파이인들이 그들을 이리로 몰아 내었었더라. 그리하여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거의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인들은 시돈 강의 발원지에서, 광야와 접하고 있는 그 땅의 북편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나니, 곧 동에서 서까지 광야 쪽을 둘러, 북으로는 그들이 풍요라 일컫는 땅에까지 이르렀더라.

30 또 이는 그들이 황무라 일컫는 땅과 경계를 접하였고, 이는 다시 아주 먼 북방에 있어 사람들이 살았다가 멸망당한 땅에 이르나니, 그 뼈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는 제이라헤믈라 백성이 발견한 땅으로서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니라.

31 또 그들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올라왔더라. 이리하여 북방 땅은 황무라 하였고, 또 남방 땅은 풍요라 하였으니, 이 곳은 각종 온갖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라, 그것들 중 일부는 먹이를 찾아 북방 땅에서 왔었더라.

32 또 이제 풍요와 황무 땅 경계선 위에서, 동에서 서해까지는, 니파이인에게 하루 반 여행할 거리 밖에 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니파이 땅과 제이라헤믈라 땅은 물에 거의 둘러싸여 있었으며, 북방 땅과 남방 땅 사이에는 작은 지협이 있었느니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풍요 땅에 거하였나니, 곧 동에서 서해까지라, 이같이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수비대와 그들의 군대로써, 남쪽에 있는 레이맨인들을 에워싸,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북쪽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북방 땅에 넘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Now, the more idle part of the Lamanites lived in the wilderness, and dwelt in tents; and they were spread through the wilderness on the west, in the land of Nephi; yea, and also on the west of the land of Zarahemla, i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on the west in the land of Nephi, in the place of their fathers' first inheritance, and thus bordering along by the seashore.

And also there were many Lamanites on the east by the seashore, whither the Nephites had driven them. And thus the Nephites were nearly surrounded by the Lamanites; nevertheless the Nephites had taken possession of all the northern parts of the land bordering on the wilderness, at the head of the river Sidon, from the east to the west, round about on the wilderness side; on the north, even until they came to the land which they called Bountiful.

And it bordered upon the land which they called Desolation, it being so far northward that it came into the land which had been peopled and been destroyed, of whose bones we have spoken, which was discovered by the people of Zarahemla, it being the place of their first landing.

And they came from there up into the south wilderness. Thus the land on the northward was called Desolation, and the land on the southward was called Bountiful, it being the wilderness which is filled with all manner of wild animals of every kind, a part of which had come from the land northward for food.

And now, it was only the distance of a day and a half's journey for a Nephite, on the line Bountiful and the land Desolation, from the east to the west sea; and thus the land of Nephi and the land of Zarahemla were nearly surrounded by water, there being a small neck of land between the land northward and the land south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had inhabited the land Bountiful, even from the east unto the west sea, and thus the Nephites in their wisdom, with their guards and their armies, had hemmed in the Lamanites on the south, that thereby they should have no more possession on the north, that they might not overrun the land northward.

34 그러므로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땅과 그 둘러있는 광야 외에는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었으니, 이제 이는 니파이인의 지혜라—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적이었으므로, 그들이 사방에서 괴롭게 함을 용납하지 않고자 함이요, 또한 월할 때에는 도망할 지역을 갖고자 함이더라.

35 이제 나는 이를 이야기하였으니, 암몬과 아론, 옴너와 힘나이 및 그들의 형제들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노라.

Therefore the Lamanites could have no more possessions only in the land of Nephi, and the wilderness round about. Now this was wisdom in the Nephites—as the Lamanites were an enemy to them, they would not suffer their afflictions on every hand, and also that they might have a country whither they might flee, according to their desires.

And now I, after having said this, return again to the account of Ammon and Aaron, Omner and Himni, and their brethren.



## 앨마서 23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그의 온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땅 어느 지역에서든지 암몬이나, 아론이나, 옴너나, 힘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아갈 그들의 형제 중 아무에게도,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더라.
- 2 참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 칙령을 보내어, 이들에게 손을 대어 결박하거나, 옥에 던져 넣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 내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이들로 그들의 집과 또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성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게 하였더라.
- 3 그리하여 저들로 나아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왕과 그의 모든 권속이 주께로 돌이켰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 땅에 두루 자기 백성들에게 포고를 보냈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온 땅에 두루 나아가게 하여 그의 백성들로 그 조상들의 간악한 전통에 관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이 모두 형제임과 그들이 살인하거나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을 범하거나 여하한 간악함도 범해서는 아니됨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더라.
- 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이 포고를 내 보낸 후, 아론과 그의 형제들은 성읍에서 성읍으로, 또 한 예배당에서 다른 예배당으로 나아가며, 그 온 땅에 레이맨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별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였고, 이리하여 저희가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더라.
- 5 또 수천이 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나니, 참으로 수천이 니파이인들의 전통을 믿게 되매, 그들이 현재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기록과 예언들을 가르침 받으니라.

## Alma 23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of the Lamanites sent a proclamation among all his people, that they should not lay their hands on Ammon, or Aaron, or Omner, or Himni, nor either of their brethren who should go forth preaching the word of God, in whatsoever place they should be, in any part of their land.

Yea, he sent a decree among them, that they should not lay their hands on them to bind them, or to cast them into prison; neither should they spit upon them, nor smite them, nor cast them out of their synagogues, nor scourge them; neither should they cast stones at them, but that they should have free access to their houses, and also their temples, and their sanctuaries.

And thus they might go forth and preach the word according to their desires, for the king had been converted unto the Lord, and all his household; therefore he sent his proclamation throughout the land unto his people, that the word of God might have no obstruction, but that it might go forth throughout all the land, that his people might be convinced concerning the wicked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nd that they might be convinced that they were all brethren, and that they ought not to murder, nor to plunder, nor to steal, nor to commit adultery, nor to commit any manner of wickednes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king had sent forth this proclamation, that Aaron and his brethren went forth from city to city, and from one house of worship to another, establishing churches, and consecrating priests and teachers throughout the land among the Lamanites, to preach and to teach the word of God among them; and thus they began to have great success.

And thousands wer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Lord, yea, thousands were brought to believe in the traditions of the Nephites; and they were taught the records and prophecies which were handed down even to the present time.

- 6 또한 주께서 사십같이 분명히, 것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사십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 7 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서나, 그들의 형제 중 아무를 대적하여서도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 8 이제 이들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니,
- 9 이스마엘 땅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과,
- 10 또한 밌도나이 땅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 중 일부와,
- 11 또한 니파이 성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 중 일부와,
- 12 또한 샤일롬 땅에와 쎌론 땅에와 레뮤엘 성과 심나일롬 성에 있던 레이맨 백성 중 일부라.
- 13 이들은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 성읍들의 이름이요, 이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 참으로 그들의 모든 전쟁 무기를 내려놓은 자들이니, 그들은 다 레이맨인이더라.
- 14 또 아멜레카이인들은 다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돌이키지 않았으며, 앰울론인들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은 자기 마음과 또한 어디든지 그 거하는 지역뿐 아니라, 그 모든 고을과 그 모든 성읍에 있는 레이맨인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였더라.
- 15 그러므로 회개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돌이킨 레이맨인들의 성읍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말하였느니라.

And as sure as the Lord liveth, so sure as many as believed, or as many as wer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rough the preaching of Ammon and his brethren, according to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of prophecy, and the power of God working miracles in them—yea, I say unto you, as the Lord liveth, as many of the Lamanites as believed in their preaching, and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never did fall away.

For they became a righteous people; they did lay down the weapons of their rebellion, that they did not fight against God any more, neither against any of their brethren.

Now, these are they who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The people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land of Ishmael;

And also of the people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land of Middoni;

And also of the people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city of Nephi;

And also of the people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land of Shilom, and who were in the land of Shemlon, and in the city of Lemuel, and in the city of Shimnilom.

And these are the names of the cities of the Lamanites which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and these are they that laid down the weapons of their rebellion, yea, all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were all Lamanites.

And the Amalekites were not converted, save only one; neither were any of the Amulonites; but they did harden their hearts, and also the hearts of the Lamanites in that part of the land wheresoever they dwelt, yea, and all their villages and all their cities.

Therefore, we have named all the cities of the Lamanites in which they did repent and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ere converted.

16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과 돌이킨 자들이 이름을 갖기 원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형제와 구별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왕이 아론과 그들의 여러 제사들과 더불어, 그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짙어질 이름에 대하여 의논하였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앗타이-니파이-리하이인이라 하며, 그들은 이 이름으로 일컫고 더 이상 레이맨인이라 일컫지 아니하였더라.

18 또 그들은 매우 근면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니파이인들과도 우호적이었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열었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and those who were converted were desirous that they might have a name, that thereby they might be distinguished from their brethren; therefore the king consulted with Aaron and many of their priests, concerning the name that they should take upon them, that they might be distinguish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lled their names Anti-Nephi-Lehies; and they were called by this name and were no more called Lamanites.

And they began to be a very industrious people; yea, and they were friendly with the Nephites; therefore, they did open a correspondence with them, and the curse of God did no more follow them.

## 앨마서 24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레카이인들과 앰울론인들 및 레이맨인들 중 앰울론 땅에와, 또한 힐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와, 요컨대 주변 모든 땅에 있는 자로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의 이름을 취하지 않았던 레이맨인들이, 아멜레카이인들과 앰울론인들에게 선동되어 그들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되었다.
- 2 또 그들의 증오심이 저들에게 대하여 심히 강렬해져서, 이윽고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스려 모반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가 자기들의 왕 됄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대적하여 무기를 드니라.
- 3 이제 왕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그의 이름을 엔타이-니파이-리하이라 하였더라.
- 4 그리고 왕은 레이맨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죽었더라.
- 5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 및 그와 함께 올라온 모든 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멸하려 하는 레이맨인들의 준비를 보고, 미디안 땅으로 나아왔더니, 거기서 암몬이 그의 모든 형제를 만나고, 그 곳으로부터 그들이 이스마엘 땅으로 왔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라모나이와 또한 그의 형제 엔타이-니파이-리하이와 더불어 회의를 갖고자 함이었더라.
- 6 이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모든 백성 가운데 그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려는 자는 한 명도 없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한 여하한 준비조차 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의 왕도 그들에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더라.
- 7 이제 이는 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선하심 중에 우리의 이 형제, 니파이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간악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Alma 24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malekites and the Amulonites and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land of Amulon, and also in the land of Helam, and who were in the land of Jerusalem, and in fine, in all the land round about, who had not been converted and had not taken upon them the name of Anti-Nephi-Lehi, were stirred up by the Amalekites and by the Amulonites to anger against their brethren.

And their hatred became exceedingly sore against them, even insomuch that they began to rebel against their king, insomuch that they would not that he should be their king; therefore, they took up arms against the people of Anti-Nephi-Lehi.

Now the king conferred the kingdom upon his son, and he called his name Anti-Nephi-Lehi.

And the king died in that selfsame year that the Lamanites began to make preparations for war against the people of God.

Now when Ammon and his brethren and all those who had come up with him saw the preparations of the Lamanites to destroy their brethren, they came forth to the land of Midian, and there Ammon met all his brethren; and from thence they came to the land of Ishmael that they might hold a council with Lamoni and also with his brother Anti-Nephi-Lehi, what they should do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Lamanites.

Now there was not one soul among all the people who had been converted unto the Lord that would take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nay, they would not even make any preparations for war; yea, and also their king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Now,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aid unto the people concerning the matter: I thank my God, my beloved people, that our great God has in goodness sent these our brethren, the Nephites, unto us to preach unto us, and to convince us of the traditions of our wicked fathers.

- 8 또 보라, 그가 그의 영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매, 우리가 이 형제들 곧 니파이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음을 내가 나의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9 또 보라 이 교제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깨닫게 되었음을 내가 또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10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셨음과, 또한 우리가 범한 많은 죄와 살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공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여 주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 참으로 나의 크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노라.
- 11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잃은 바 된 자들이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은즉, 또 이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여 그로 우리의 오점을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음인즉—
- 12 이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제하셨고 우리의 검이 빛나게 되었은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형제들의 피로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말자.
- 13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말자, 우리의 검을 간직하여 그것이 우리 형제들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자. 이는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검을 더럽힌다면,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도 이 검들이 다시는 씻기워 빛나게 될 수 없음이니라.
- 14 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계획을 장래 세대에 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리시려고,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의 천사들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도다.

And behold, I thank my great God that he has given us a portion of his Spirit to soften our hearts, that we have opened a correspondence with these brethren, the Nephites.

And behold, I also thank my God, that by opening this correspondence we have been convinced of our sins, and of the many murders which we have committed.

And I also thank my God, yea, my great God, that he hath granted unto us that we might repent of these things, and also that he hath forgiven us of those our many sins and murders which we have committed, and taken away the guilt from our hearts, through the merits of his Son.

And now behold, my brethren, since it has been all that we could do (as we were the most lost of all mankind) to repent of all our sins and the many murders which we have committed, and to get God to take them away from our hearts, for it was all we could do to repent sufficiently before God that he would take away our stain—

Now, my best beloved brethren, since God hath taken away our stains, and our swords have become bright, then let us stain our swords no more with the blood of our brethren.

Behold, I say unto you, Nay, let us retain our swords that they be not stained with the blood of our brethren; for perhaps, if we should stain our swords again they can no more be washed bright through the blood of the Son of our great God, which shall be shed for the atonement of our sins.

And the great God has had mercy on us, and made these things known unto us that we might not perish; yea, and he has made these things known unto us beforehand, because he loveth our souls as well as he loveth our children; therefore, in his mercy he doth visit us by his angels, that the plan of salvation might be made known unto us as well as unto future generations.

15 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또 이제 보라, 우리의 오점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우리의 검을 빛나게 되었은즉, 이를 감추어 버리고 빛나는 채로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곧 우리가 그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날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피에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증거로 삼자.

16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려 할지라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검을 감추어 버리리니, 참으로 우리는 이를 땅속 깊이 묻고, 빛나는 채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또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면, 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게 되리라.

1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이 말을 마치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칼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쓰이는 모든 무기를 취하고, 이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더라.

18 이에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것이 그들 소견에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되었음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며, 형제에게서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주며, 게으름 가운데 그들의 날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손으로 풍성히 일하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하나님과 성약하였더라.

19 또 이러므로 우리는 이 레이맨인들이 믿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굳건하였고,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까지라도 고난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며, 또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들의 화평의 무기를 묻었음을, 곧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묻었음을 아느니라.

Oh, how merciful is our God! And now behold, since it has been as much as we could do to get our stains taken away from us, and our swords are made bright, let us hide them away that they may be kept bright, as a testimony to our God at the last day, or at the day that we shall be brought to stand before him to be judged, that we have not stained our swords in the blood of our brethren since he imparted his word unto us and has made us clean thereby.

And now, my brethren, if our brethren seek to destroy us, behold, we will hide away our swords, yea, even we will bury them deep in the earth, that they may be kept bright, as a testimony that we have never used them, at the last day; and if our brethren destroy us, behold, we shall go to our God and shall be save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king had made an end of these sayings, and all the people were assembled together, they took their swords, and all the weapons which were used for the shedding of man's blood, and they did bury them up deep in the earth.

And this they did, it being in their view a testimony to God, and also to men, that they never would use weapons again for the shedding of man's blood; and this they did, vouching and covenanting with God, that rather than shed the blood of their brethren they would give up their own lives; and rather than take away from a brother they would give unto him; and rather than spend their days in idleness they would labor abundantly with their hands.

And thus we see that, when these Lamanites were brought to believe and to know the truth, they were firm, and would suffer even unto death rather than commit sin; and thus we see that they buried their weapons of peace, or they buried the weapons of war, for peace.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왕을 멸하고, 그의 대신에 다른 자를 두며, 또한 애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그 땅에서 멸할 목적으로, 니파이 땅으로 올라 오니라.

21 또 이제 저들이 치러 옴을 백성이 보고는 저들을 맞으러 나가서, 저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나니, 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이러한 태도로 있었더라.

22 또 그리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레이맨인들이 그들 중 천다섯을 죽였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가서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이러라.

23 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형제들이 칼에서 도망하거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죽으려 하며, 칼 아래 죽어가는 바로 그 도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24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는 그들을 죽이기를 그만두었고, 그 형제 중 칼 아래 쓰러진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속에서 복받친 자가 많았으니, 이는 저들이 그 행한 일을 뉘우쳤음이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자기의 전쟁 무기를 던져 놓고, 이를 다시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범한 살인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았음이라. 이에 저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팔을 치켜든 자들의 자비에 맡기고, 저들의 형제들같이 엎드렸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 죽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합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의로운 백성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되었음을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느니라.

27 또 그들 중 악한 자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자가 천 명이 넘었으니, 이리므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도록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made preparations for war, and came up to the land of Nephi for the purpose of destroying the king, and to place another in his stead, and also of destroying the people of Anti-Nephi-Lehi out of the land.

Now when the people saw that they were coming against them they went out to meet them, and prostrated themselves before them to the earth, and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thus they were in this attitude when the Lamanites began to fall upon them, and began to slay them with the sword.

And thus without meeting any resistance, they did slay a thousand and five of them; and we know that they are blessed, for they have gone to dwell with their God.

Now when the Lamanites saw that their brethren would not flee from the sword, neither would they turn aside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but that they would lie down and perish, and praised God even in the very act of perishing under the sword—

Now when the Lamanites saw this they did forbear from slaying them; and there were many whose hearts had swollen in them for those of their brethren who had fallen under the sword, for they repented of the things which they had don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hrew down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would not take them again, for they were stung for the murders which they had committed; and they came down even as their brethren, relying upon the mercies of those whose arms were lifted to sla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God were joined that day by more than the number who had been slain; and those who had been slain were righteous people, therefore we have no reason to doubt but what they were saved.

And there was not a wicked man slain among them; but there were more than a thousand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us we see that the Lord worketh in many ways to the salvation of his people.

28 이제 자기 형제를 것처럼 많이 죽인 레이맨인의 대부분은 아멜레카이인과 앰울론인이니, 이들 중 대부분은 니허인들의 반차를 따른 자들이었더라.

29 이제 주의 백성과 합한 자들 중에는 아멜레카이인이나 앰울론인이나, 니허의 반차를 따른 자는 하나도 없었나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실제 후손들이더라.

30 또 이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분별할 수 있나니, 백성이 한때 하나님의 영의 비춤을 받아,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큰 지식을 얻고, 그리고 나서 떨어져 나가 죄와 범법에 빠진 후에는, 그들이 더욱 완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지느니라.

Now the greatest number of those of the Lamanites who slew so many of their brethren were Amalekites and Amulonites, the greatest number of whom were after the order of the Nehors.

Now, among those who joined the people of the Lord, there were none who were Amalekites or Amulonites, or who were of the order of Nehor, but they were actual descendants of Laman and Lemuel.

And thus we can plainly discern, that after a people have been once enlightened by the Spirit of God, and have had great knowledge of things pertaining to righteousness, and then have fallen away into sin and transgression, they become more hardened, and thus their state becomes worse than though they had never known these things.



## 앨마서 25

- 1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레이맨인들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음으로 인하여 더욱 노하였던 지라, 니파이인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때는 더 이상 앗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죽이려 하지 않았더라.
- 2 그러나 그들은 그 군대를 취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의 경계로 넘어 들어가서, 앗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더라.
- 3 또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니파이인들과 여러 번 싸웠으나, 이때는 쫓기고 죽임을 당하였더라.
- 4 또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 중에는, 노아의 제사들이었던 앗울론과 그 형제들의 자손이 거의 다 있었나니, 그들이 모두 니파이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 5 또 남은 자들은 동편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 레이맨인들을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를 찬탈하고, 많은 레이맨인들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 죽게 하였나니—
- 6 이는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많은 손실과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자, 깨우침을 받으며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한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믿으며, 그가 니파이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그들 중 광야에서 돌이킨 자들이 많았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앗울론의 자손의 남은 자들인 그 통치자들이 그들, 곧 이러한 것을 믿는 모든 자를 죽이게 하더라.
- 8 이제 이 순교가 그들의 형제 중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한지라, 광야에서 싸움이 생겨나, 레이맨인들이 앗울론과 그 형제들의 자손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저들을 죽이기 시작하며, 저들이 동편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니라.

## Alma 25

And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those Lamanites were more angry because they had slain their brethren; therefore they swore vengeance upon the Nephites; and they did no more attempt to slay the people of Anti-Nephi-Lehi at that time.

But they took their armies and went over into the borders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fell upon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of Ammonihah and destroyed them.

And after that, they had many battles with the Nephites, in the which they were driven and slain.

And among the Lamanites who were slain were almost all the seed of Amulon and his brethren, who were the priests of Noah, and they were slain by the hands of the Nephites;

And the remainder, having fled into the east wilderness, and having usurped the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Lamanites, caused that many of the Lamanites should perish by fire because of their belief—

For many of them, after having suffered much loss and so many afflictions, began to be stirred up in remembrance of the words which Aaron and his brethren had preached to them in their land; therefore they began to disbelieve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nd to believe in the Lord, and that he gave great power unto the Nephites; and thus there were many of them converted in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rulers who were the remnant of the children of Amulon caused that they should be put to death, yea, all those that believed in these things.

Now this martyrdom caused that many of their brethren should be stirred up to anger; and there began to be contention in the wilderness; and the Lamanites began to hunt the seed of Amulon and his brethren and began to slay them; and they fled into the east wilderness.

- 9 또 보라 저들이 이 날에도 레이맨인들에게 쫓기니라. 이같이 아빈아다이의 말, 곧 그가 자기를 불에 타 죽게 한 제사들의 자손에 대하여 한 말이 이루어지니라.
- 10 이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행하는 일이 장차 임할 일의 예표가 되리라 하였으니,
- 11 이제 아빈아다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라. 이제 이것이 그가 뜻한 바니, 곧 많은 자들이 그가 당한 대로, 불에 타 죽음을 당하리라 함이라.
- 12 또 그가 노아의 제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이 많은 자들을 나와 같은 모양으로 죽게 하겠고, 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들짐승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같이, 널리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보라, 이 말이 입증되었도다.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쫓기며, 수색되며, 매를 맞았음이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이스마엘 땅과 니파이 땅에 거하려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곧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과 합하였더라.
- 14 또 그들도 역시 그 형제들이 한 것같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문었으며,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 힘써 지키더라.
- 15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아직은 이를 지키는 필요가 있었음이라.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은 그의 오심의 예표라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가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될 때까지 저 외형적인 의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음이라.

And behold they are hunted at this day by the Lamanites. Thus the words of Abinadi were brought to pass, which he said concerning the seed of the priests who caused that he should suffer death by fire.

For he said unto them: What ye shall do unto me shall be a type of things to come.

And now Abinadi was the first that suffered death by fire because of his belief in God; now this is what he meant, that many should suffer death by fire, according as he had suffered.

And he said unto the priests of Noah that their seed should cause many to be put to death, in the like manner as he was, and that they should be scattered abroad and slain, even as a sheep having no shepherd is driven and slain by wild beasts; and now behold, these words were verified, for they were driven by the Lamanites, and they were hunted, and they were smitte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they could not overpower the Nephites they returned again to their own land; and many of them came over to dwell in the land of Ishmael and the land of Nephi, and did join themselves to the people of God, who were the people of Anti-Nephi-Lehi.

And they did also bury their weapons of war, according as their brethren had, and they began to be a righteous people; and they did walk in the ways of the Lord, and did observe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Yea, and they did keep the law of Moses; for it was expedient that they should keep the law of Moses as yet, for it was not all fulfilled. But notwithstanding the law of Moses, they did look forward to the coming of Christ, considering that the law of Moses was a type of his coming, and believing that they must keep those outward performances until the time that he should be revealed unto them.

16 이제 그들은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에 의지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을 통하여 소망을 간직하였느니라.

17 또 이제 보라,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와 그들의 형제들은 주께서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또 그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에게 입증하셨음을 보고, 자신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얻은 성공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Now they did not suppose that salvation came by the law of Moses; but the law of Moses did serve to strengthen their faith in Christ; and thus they did retain a hope through faith, unto eternal salvation, relying upon the spirit of prophecy, which spake of those things to come.

And now behold, Ammon, and Aaron, and Omner, and Himni, and their brethren did rejoice exceedingly, for the success which they had had among the Lamanites, seeing that the Lord had granted unto them according to their prayers, and that he had also verified his word unto them in every particular.

## 앨마서 26

- 1 그리고 이제 이는 암몬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니 이러하니라.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동역자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토록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느냐?
- 2 또 이제 내가 묻노니, 무슨 큰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 주셨느냐? 너희는 말할 수 있느냐?
- 3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답하노니,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암흑 속에, 참으로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보라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 4 보라, 그들 수천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느니라.
- 5 보라, 밭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 복되나니, 이는 너희가 낫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였나니, 너희 곡식 단의 수를 불지어다!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 6 참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폭풍에 부딪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회리바람에 쓸려질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폭풍이 올 때 제 자리에 모여져, 폭풍이 그들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든지 참으로 원수가 그들을 휩쓸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광풍에 밀려가지도 아니하리라.
- 7 또 보라, 그들은 추수하는 주인의 손 안에 있나니, 그들은 그의 것이라, 마지막 날에 그가 그들을 일으키시리로다.
- 8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의 찬송을 노래 부르자. 참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자, 이는 그가 영원토록 의를 행하심이라.

## Alma 26

And now, these are the words of Ammon to his brethren, which say thus: My brothers and my brethren, behold I say unto you, how great reason have we to rejoice; for could we have supposed when we started from the land of Zarahemla that God would have granted unto us such great blessings?

And now, I ask, what great blessings has he bestowed upon us? Can ye tell?

Behold, I answer for you; for our brethren, the Lamanites, were in darkness, yea, even in the darkest abyss, but behold, how many of them are brought to behold the marvelous light of God! And this is the blessing which hath been bestowed upon us, that we have been made instruments in the hands of God to bring about this great work.

Behold, thousands of them do rejoice, and have been brought into the fold of God.

Behold, the field was ripe, and blessed are ye, for ye did thrust in the sickle, and did reap with your might, yea, all the day long did ye labor; and behold the number of your sheaves! And they shall be gathered into the garners, that they are not wasted.

Yea, they shall not be beaten down by the storm at the last day; yea, neither shall they be harrowed up by the whirlwinds; but when the storm cometh they shall be gathered together in their place, that the storm cannot penetrate to them; yea, neither shall they be driven with fierce winds whithersoever the enemy listeth to carry them.

But behold, they are in the hands of the Lord of the harvest, and they are his; and he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Blessed be the name of our God; let us sing to his praise, yea, let us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for he doth work righteousness forever.

- 9 이는 만일 우리가 제이라헤물라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었다면, 우리의 이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한 이들이 아직 까지도 우리에게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외인이었을 것임이니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러한 말을 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암몬이여, 염려컨대 너의 기쁨이 정녕 너를 이끌어 자랑하기에 이르는도다 하니라.
- 11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12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참으로 보라, 많은 능한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 13 보라, 얼마나 많은 수천의 우리 형제를 그가 지옥의 고통에서 푸시었는고? 이에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 14 과연 우리에게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할 까닭이 있나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형제들을 지옥의 사슬에서 푸셨음이니라.
- 15 참으로 그들은 영원한 암흑과 멸망에 에워싸여 있었으나, 보라, 그가 그들을 인도하사 그의 영원한 빛에, 참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들이 비길 데 없이 풍성한 그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의 손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도다.

For if we had not come up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these our dearly beloved brethren, who have so dearly beloved us, would still have been racked with hatred against us, yea, and they would also have been strangers to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mmon had said these words, his brother Aaron rebuked him, saying: Ammon, I fear that thy joy doth carry thee away unto boasting.

But Ammon said unto him: I do not boast in my own strength, nor in my own wisdom; but behold, my joy is full, yea, my heart is brim with joy, and I will rejoice in my God.

Yea, I know that I am nothing; as to my strength I am weak; therefore I will not boast of myself, but I will boast of my God, for in his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yea, behold, many mighty miracles we have wrought in this land, for which we will praise his name forever.

Behold, how many thousands of our brethren has he loosed from the pains of hell; and they are brought to sing redeeming love, and this because of the power of his word which is in us, therefore have we not great reason to rejoice?

Yea, we have reason to praise him forever, for he is the Most High God, and has loosed our brethren from the chains of hell.

Yea, they were encircled about with everlasting darkness and destruction; but behold, he has brought them into his everlasting light, yea, into everlasting salvation; and they are encircled about with the matchless bounty of his love; yea, and we have been instruments in his hands of doing this great and marvelous work.

- 16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
- 17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자비로우사 우리의 비참하고, 죄 많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 18 보라, 우리는 실로 노하여, 크게 위협하며 그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나아갔느니라.
- 19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가 우리를 비참한 멸망에 붙이지 아니하셨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그의 공의의 검으로 우리 위에 떨어지게 하사, 우리로 영원한 절망에 처하게 아니하셨느냐?
- 20 오 그 생각에, 내 영혼은 거의 떠날 듯 하도다. 보라, 그가 그의 공의를 우리에게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사망과 비참의 저 영원한 심연을 넘어 건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 21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뉘우치는 자 외에는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22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나니,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까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해 주시리라.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형제들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신 것같이, 수천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시리라.
- 23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제이라헤물라 땅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전도하려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노라 한즉,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 것을 기억하느냐?

Therefore, let us glory, yea, we will glory in the Lord; yea, we will rejoice, for our joy is full; yea, we will praise our God forever. Behold, who can glory too much in the Lord? Yea, who can say too much of his great power, and of his mercy, and of his long-suffering towards the children of men? Behold, I say unto you, I cannot say the smallest part which I feel.

Who could have supposed that our God would have been so merciful as to have snatched us from our awful, sinful, and polluted state?

Behold, we went forth even in wrath, with mighty threatenings to destroy his church.

Oh then, why did he not consign us to an awful destruction, yea, why did he not let the sword of his justice fall upon us, and doom us to eternal despair?

Oh, my soul, almost as it were, fleeth at the thought. Behold, he did not exercise his justice upon us, but in his great mercy hath brought us over that everlasting gulf of death and misery, even to the salvation of our souls.

And now behold, my brethren, what natural man is there that knoweth these things? I say unto you, there is none that knoweth these things, save it be the penitent.

Yea, he that repenteth and exerciseth faith, and bringeth forth good works, and prayeth continually without ceasing—unto such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ies of God; yea, unto such it shall be given to reveal things which never have been revealed; yea, and it shall be given unto such to bring thousands of souls to repentance, even as it has been given unto us to bring these our brethren to repentance.

Now do ye remember, my brethren, that we said unto our brethren in the land of Zarahemla, we go up to the land of Nephi, to preach unto our brethren, the Lamanites, and they laughed us to scorn?

24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레이맨인들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들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 마음은 피 흘리기를 기뻐하며, 그 날들은 극히 가증한 죄악 중에 보내었으며, 그 길은 처음부터 범법자의 길이었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전통이 그릇되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였음이니, 이제 나의 형제들아, 그들의 말이 이러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느니라.

25 더욱이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고 이 땅에서 저들과 저들의 죄악을 멸하자. 염려컨대 저들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를 멸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26 그러나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혹 그들의 영혼을 다소간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왔느니라.

27 이제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너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가서, 네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28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있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고난 중에 인내하여 왔으며, 모든 곤란을 당하였도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자비에 의지하여,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녔나니—세상의 자비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 것이니라.

29 또 우리는 그들의 집에 들어갔으며 그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쳤으며,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의 언덕 위에서도 가르쳤고, 또 그들의 성전과 또 회당에도 들어가 그들을 가르쳤나니, 이에 우리가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침 뱀음 당하고, 뺨을 맞았으며, 또 우리가 돌로 맞고, 잡혀서 단단한 줄로 결박되어, 옥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구출되었느니라.

For they said unto us: Do ye suppose that ye can bring the Lamanites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Do ye suppose that ye can convince the Lamanites of the incorrectness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s stiffnecked a people as they are; whose hearts delight in the shedding of blood; whose days have been spent in the grossest iniquity; whose ways have been the ways of a transgressor from the beginning? Now my brethren, ye remember that this was their language.

And moreover they did say: Let us take up arms against them, that we destroy them and their iniquity out of the land, lest they overrun us and destroy us.

But behold, my beloved brethren, we came into the wilderness not with the intent to destroy our brethren, but with the intent that perhaps we might save some few of their souls.

Now when our hearts were depressed, and we were about to turn back, behold, the Lord comforted us, and said: Go amongst thy brethren, the Lamanites, and bear with patience thine afflictions, and I will give unto you success.

And now behold, we have come, and been forth amongst them; and we have been patient in our sufferings, and we have suffered every privation; yea, we have traveled from house to house, relying upon the mercies of the world—not upon the mercies of the world alone but upon the mercies of God.

And we have entered into their houses and taught them, and we have taught them in their streets; yea, and we have taught them upon their hills; and we have also entered into their temples and their synagogues and taught them; and we have been cast out, and mocked, and spit upon, and smote upon our cheeks; and we have been stoned, and taken and bound with strong cords, and cast into prison; and through the power and wisdom of God we have been delivered again.

30 또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었나니, 이 모든 것은  
혹시라도 몇몇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고자 함  
이었으며, 우리는 혹 우리가 몇몇이라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하였느니라.

31 이제 보라,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 수고의 열매  
를 볼 수 있나니, 그것들이 적으냐?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들이 많으니라. 이뿐 아  
니라 우리는 그들의 형제에게와 또한 우리에게 향  
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실함을 증  
거할 수 있었음이니라.

32 이는 보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하며, 그들의  
형제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땅 속 깊이 묻어 버렸음이니라.

3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온 땅에  
이처럼 큰 사랑이 있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도 있지 아  
니하였음이라.

34 이는 보라, 저들은 저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  
기를 들러 하였고, 스스로가 죽임 당함을 용납하  
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들 중 얼마  
나 많은 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 보라, 이에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죄에 대한 그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갔음을 아노  
라.

35 이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  
냐?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  
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 더욱이 내 기쁨이  
넘쳐, 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에까지 이르렀나  
니, 이는 그에게 모든 권능, 모든 지혜와 모든 명  
철이 있음이요, 그는 모든 것을 깨달으심이며, 그  
는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 자비로우  
신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And we have suffered all manner of afflictions,  
and all this, that perhaps we might be the means of  
saving some soul; and we supposed that our joy  
would be full if perhaps we could be the means of  
saving some.

Now behold, we can look forth and see the fruits  
of our labors; and are they few? I say unto you, Nay,  
they are many; yea, and we can witness of their sin-  
cerity, because of their love towards their brethren  
and also towards us.

For behold, they had rather sacrifice their lives  
than even to take the life of their enemy; and they  
have buried their weapons of war deep in the earth,  
because of their love towards their brethren.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has there been so  
great love in all the land? Behold, I say unto you,  
Nay, there has not, even among the Nephites.

For behold, they would take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they would not suffer themselves to be  
slain. But behold how many of these have laid down  
their lives; and we know that they have gone to their  
God, because of their love and of their hatred to sin.

Now have we not reason to rejoice? Yea, I say unto  
you, there never were men that had so great reason  
to rejoice as we, since the world began; yea, and my  
joy is carried away, even unto boasting in my God;  
for he has all power, all wisdom, and all understand-  
ing; he comprehendeth all things, and he is a merci-  
ful Being, even unto salvation, to those who will re-  
pent and believe on his name.



36 이제 이것이 자랑이라면, 곧 그와 같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며, 영원한 화로부터의 구속임이라. 이스라엘 나무의 한 가지요, 낯선 땅에서 그 몸으로부터 잃은 바 된 이 백성을 생각해 오신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참으로 내가 말하노니,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를 생각해 오신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37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도다. 이제 이는 나의 기쁨이요, 내 큰 감사이니, 또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리로다. 아멘.

Now if this is boasting, even so will I boast; for this is my life and my light, my joy and my salvation, and my redemption from everlasting wo. Yea, blessed is the name of my God, who has been mindful of this people, who are a branch of the tree of Israel, and has been lost from its body in a strange land; yea, I say, blessed be the name of my God, who has been mindful of us, wanderers in a strange land.

Now my brethren, we see that God is mindful of every people, whatsoever land they may be in; yea, he numbereth his people, and his bowels of mercy are over all the earth. Now this is my joy, and my great thanksgiving; yea, and I will give thanks unto my God forever. Amen.

## 앨마서 27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전쟁하러 갔던 그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멸하고자 여러 번 노력하고 나서, 그들의 멸망을 꾀하는 것이 헛된 줄을 알고, 니파이 땅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레카이인들이 그들의 손실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더니, 니파이인들에게서 복수를 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하여 노하도록 부추기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멸하기 시작하니라.
- 3 이제 이 백성은 자신의 무기 들기를 다시 거절하고, 스스로 그 원수들의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하니라.
- 4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것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또 자신들을 것처럼 간절히 사랑한 이들 중에서 자행되는 이 큰 멸망의 행위를 보았을 때—이는 그들이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인 듯 대접을 받았음이라—이러므로 암몬과 그 형제들이 이 큰 멸망의 행위를 보았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왕에게 이르되,
- 5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이 백성을 함께 모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우리의 형제 니파이인들에게로 내려가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피하사이다 하였더라.
- 6 그러나 왕이 저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범한 많은 살인과 죄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이 우리를 멸하리라 하는지라.
- 7 이에 암몬이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 여쭙오리니,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에게로 내려가라 하시면, 가시겠나이까?
- 8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가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내려가, 우리가 그들에게 범한 많은 살인과 죄를 그들에게 보상하기까지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 Alma 27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ose Lamanites who had gone to war against the Nephites had found, after their many struggles to destroy them, that it was in vain to seek their destruction, they returned again to the land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malekites, because of their loss, were exceedingly angry. And when they saw that they could not seek revenge from the Nephites, they began to stir up the people in anger against their brethren, the people of Anti-Nephi-Lehi; therefore they began again to destroy them.

Now this people again refused to take their arms, and they suffered themselves to be slain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ir enemies.

Now when Ammon and his brethren saw this work of destruction among those whom they so dearly beloved, and among those who had so dearly beloved them—for they were treated as though they were angels sent from God to save them from everlasting destruction—therefore, when Ammon and his brethren saw this great work of destruction, they were moved with compassion, and they said unto the king:

Let us gather together this people of the Lord, and let us go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to our brethren the Nephites, and flee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that we be not destroyed.

But the king said unto them: Behold, the Nephites will destroy us, because of the many murders and sins we have committed against them.

And Ammon said: I will go and inquire of the Lord, and if he say unto us, go down unto our brethren, will ye go?

And the king said unto him: Yea, if the Lord saith unto us go, we will go down unto our brethren, and we will be their slaves until we repair unto them the many murders and sins which we have committed against them.

- 9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 중에 노예를 두는 일은, 나의 부친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형제들의 법에 거스리는 것이온즉, 내려가 우리 형제들의 처분에 맡기사이다.
- 10 그러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여쭙어 보라, 만일 그가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가서 주께 여쭙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 12 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에서 나가, 그들로 멸망되지 않게 하라. 이는 사탄이 아말레카이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으므로, 저들이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하여 노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나가라, 또 이 세대에 이 백성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전할 것임이니라.
- 1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가서 왕에게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다 고하였더라.
- 14 이에 그들이 그들의 온 백성, 곧 주의 온 백성을 다 함께 모으고, 또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다 함께 모아 그 땅을 떠나서, 니파이 땅과 제이라헤물라 땅을 나누는 광야로 들어와서는, 그 땅의 경계가 가까이 이르렀더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와 내 형제들이 나아가 제이라헤물라 땅에 들어가리니, 당신들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저들이 당신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려는지 알아보겠나이다.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 앞서 말한 곳에서 그와 그의 형제들이 엘마를 만나니, 보라 이는 기쁜 만남이었더라.
- 17 이제 암몬의 기쁨은 어찌나 컸던지 그가 충만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 되어, 자기 힘이 소진되기에 이르매, 그가 땅에 다시 쓰러지니라.
- 18 이제 이것은 심히 큰 기쁨이 아니더냐? 보라, 이는 바로 진실로 뉘우치고 겸손하게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기쁨이니라.

But Ammon said unto him: It is against the law of our brethren, which was established by my father, that there should be any slaves among them; therefore let us go down and rely upon the mercies of our brethren.

But the king said unto him: Inquire of the Lord, and if he saith unto us go, we will go; otherwise we will perish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went and inquired of the Lord, and the Lord said unto him:

Get this people out of this land, that they perish not; for Satan has great hold on the hearts of the Amalekites, who do stir up the Lamanites to anger against their brethren to slay them; therefore get thee out of this land; and blessed are this people in this generation, for I will preserve them.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mmon went and told the king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d said unto him.

And they gathered together all their people, yea, all the people of the Lord, and did gather together all their flocks and herds, and departed out of the land, and came into the wilderness which divided the land of Nephi from the land of Zarahemla, and came over near the borders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mmon said unto them: Behold, I and my brethren will go forth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ye shall remain here until we return; and we will try the hearts of our brethren, whether they will that ye shall come into their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s Ammon was going forth into the land, that he and his brethren met Alma, over in the place of which has been spoken; and behold, this was a joyful meeting.

Now the joy of Ammon was so great even that he was full; yea, he was swallowed up in the joy of his God, even to the exhausting of his strength; and he fell again to the earth.

Now was not this exceeding joy? Behold, this is joy which none receiveth save it be the truly penitent and humble seeker of happiness.

19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난 엘마의 기쁨이 진실로 컸고, 아론, 음너, 힘나이의 기쁨 또한 그러하였으나, 보라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힘을 지나칠 그러한 것은 아니었더라.

2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그의 형제들을 다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곧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가서 대판사에게 니파이 땅에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고하였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가 그 온 땅에 포고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 곧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받아들임에 대한 그들의 소리를 구하였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보소서, 동편 바닷가에 있어, 풍요 땅과 접하고, 풍요 땅 남쪽에 있는 여어손 땅을 우리가 내어 주리니, 이 여어손 땅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기업을 줄 땅이니이다.

23 또 보소서, 우리가 여어손 땅에 있게 될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어손 땅과 니파이 땅 사이에 우리 군대를 두리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두러워하는 연고이오며, 그들의 이 큰 두려움은 그들의 많은 살인과 그들의 끔찍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라린 회개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왔나이다.

24 이제 보소서, 이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행하여, 그들로 여어손 땅을 기업을 갖게 하겠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재물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돕는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우리의 군대로 그들을 그 적으로부터 지키겠나이다 하였더라.

2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안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게로 돌아가되, 엘마도 함께 하여, 그들이 그 장막을 친 광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였고, 엘마는 또한 암몬과 아론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의 돌이킴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더라.

Now the joy of Alma in meeting his brethren was truly great, and also the joy of Aaron, of Omner, and Himni; but behold their joy was not that to exceed their strength.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conducted his brethren back to the land of Zarahemla; even to his own house. And they went and told the chief judge all the things that had happened unto them in the land of Nephi, among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chief judge sent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the land, desiring the voice of the people concerning the admitting their brethren, who were the people of Anti-Nephi-Lehi.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came, saying: Behold, we will give up the land of Jershon, which is on the east by the sea, which joins the land Bountiful, which is on the south of the land Bountiful; and this land Jershon is the land which we will give unto our brethren for an inheritance.

And behold, we will set our armies between the land Jershon and the land Nephi, that we may protect our brethren in the land Jershon; and this we do for our brethren, on account of their fear to take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lest they should commit sin; and this their great fear came because of their sore repentance which they had, on account of their many murders and their awful wickedness.

And now behold, this will we do unto our brethren, that they may inherit the land Jershon; and we will guard them from their enemies with our armies, on condition that they will give us a portion of their substance to assist us that we may maintain our armies.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mmon had heard this, he returned to the people of Anti-Nephi-Lehi, and also Alma with him, into the wilderness, where they had pitched their tents, and made known unto them all these things. And Alma also related unto them his conversion, with Ammon and Aaron, and his brethren.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일이 그들로 크게 기뻐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여어손 땅으로 내려가, 여어손 땅을 차지하고, 니파이인들에게 암몬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니,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내 그 이름으로 구별되니라.

27 또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그들의 열심으로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28 또 그들은 자기 형제의 피 흘리는 일을 지극히 혐오하였고,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도록 결코 설득될 수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소견으로 인해, 죽음에 대하여는 여하한 정도의 공포도 결코 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이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삼키운 바 된 것이더라.

29 그러므로 그들은 칼과 신월도를 잡고 자기 형제를 치기에 앞서, 그들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일지라도 죽음을 당하고자 한 것이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은 열심이었으며 사랑을 받는 백성, 곧 크게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이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t did cause great joy among them. And they went down into the land of Jershon, and took possession of the land of Jershon; and they were called by the Nephites the people of Ammon; therefore they were distinguished by that name ever after.

And they were among the people of Nephi, and also numbered among the people who were of the church of God. And they were also distinguished for their zeal towards God, and also towards men; for they were perfectly honest and upright in all things; and they were firm in the faith of Christ, even unto the end.

And they did look upon shedding the blood of their brethren with the greatest abhorrence; and they never could be prevailed upon to take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and they never did look upon death with any degree of terror, for their hope and views of Christ and the resurrection; therefore, death was swallowed up to them by the victory of Christ over it.

Therefore, they would suffer death in the most aggravating and distressing manner which could be inflicted by their brethren, before they would take the sword or cimeter to smite them.

And thus they were a zealous and beloved people, a highly favored people of the Lord.

## 앨마서 28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백성이 여어손 땅에 정착하고, 교회가 또한 여어손 땅에 세워지고,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여어손 땅 둘레에,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땅 주위의 모든 국경에 배치되곤 후, 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형제를 뒤따라 광야로 들어왔더라.
- 2 이에 그리하여 격심한 전투가 있었으니,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백성들 간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었던 그러한 전투였으며, 또한 수만의 레이맨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널리 흩어졌더라.
- 3 또한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막대한 살육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레이맨인들은 쫓겨서 흩어졌고, 니파이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 4 또 이제 이는 그 온 땅 도처에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큰 애통과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 때였으니—
- 5 참으로 과부들은 그 남편들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들은 그 아들들로 인하여, 또 딸은 형제로 인하여, 참으로 형제는 아버지로 인하여 애통하는 부르짖음이라. 그리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혈족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애통의 부르짖음이, 온 백성 가운데 들렸느니라.
- 6 또 이제 이는 정녕 슬픈 날, 엄숙한 때요, 많은 금식과 기도의 때이었더라.
- 7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오년이 끝나니라.
- 8 또 이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사라, 니파이 땅에서의 그들의 여정과 그 땅에서의 그들의 수난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불가해한 기쁨과 여어손 땅에서의 형제들의 영접과 안전에 대한 것이니라. 이제 주 곧 만인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 Alma 2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people of Ammon were established in the land of Jershon, and a church also established in the land of Jershon, and the armies of the Nephites were set round about the land of Jershon, yea, in all the borders round about the land of Zarahemla; behol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had followed their brethren into the wilderness.

And thus there was a tremendous battle; yea, even such an one as never had been known among all the people in the land from the time Lehi left Jerusalem; yea, and tens of thousands of the Lamanites were slain and scattered abroad.

Yea, and also there was a tremendous slaughter among the people of Nephi; nevertheless, the Lamanites were driven and scattered, and the people of Nephi returned again to their land.

And now this was a time that there was a great mourning and lamentation heard throughout all the land,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Yea, the cry of widows mourning for their husbands, and also of fathers mourning for their sons, and the daughter for the brother, yea, the brother for the father; and thus the cry of mourning was heard among all of them, mourning for their kindred who had been slain.

And now surely this was a sorrowful day; yea, a time of solemnity, and a time of much fasting and prayer.

And thus endeth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is is the account of Ammon and his brethren, their journeyings in the land of Nephi, their sufferings in the land, their sorrows, and their afflictions, and their incomprehensible joy, and the reception and safety of the brethren in the land of Jershon. And now may the Lord, the Redeemer of all men, bless their souls forever.

- 9 또 이는 니파이인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과 또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의 기사니, 이에 판사 치세 제십오년이 끝났느니라.
- 10 또 제일년부터 제십오년까지 수천 생명의 멸망이 있었나니, 참으로 그 사이 끔찍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났느니라.
- 11 그리하여 수천의 육신이 땅 속에 낮게 누이고, 한편으로는 수천의 육신이 지면 위에서 무더기를 이루어 썩고 있으며, 또한 수천이 그들의 친족을 잃음으로 슬퍼하고 있나니, 이는 주의 약속대로, 그들이 끝없는 재난의 상태에 처하게 됨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음이라.
- 12 한편으로 또 다른 수천은 그들의 친족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진실로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대로, 일으킴을 받아,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 중에, 또 이를 알기까지 하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도다.
- 13 또 이러므로 우리는 죄와 범법과 악마의 권능으로 인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나니,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무로 잡듯 하려고 고안해 낸 간교한 계획에 의해서 오느니라.
- 14 또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큰 부름을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슬픔과 또한 기쁨의 큰 이유를 알게 되나니, 슬픔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말미암으며 기쁨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느니라.

And this is the account of the wars and contentions among the Nephites, and also the wars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nd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is ended.

And from the first year to the fifteenth has brought to pass the destruction of many thousand lives; yea, it has brought to pass an awful scene of bloodshed.

And the bodies of many thousands are laid low in the earth, while the bodies of many thousands are moldering in heaps upon the face of the earth; yea, and many thousands are mourning for the loss of their kindred, because they have reason to fear, according to the promises of the Lord, that they are consigned to a state of endless wo.

While many thousands of others truly mourn for the loss of their kindred, yet they rejoice and exult in the hope, and even know, according to the promises of the Lord, that they are raised to dwell at the right hand of God, in a state of never-ending happiness.

And thus we see how great the inequality of man is because of sin and transgression, and the power of the devil, which comes by the cunning plans which he hath devised to ensnare the hearts of men.

And thus we see the great call of diligence of men to labor in the vineyards of the Lord; and thus we see the great reason of sorrow, and also of rejoicing—sorrow because of death and destruction among men, and joy because of the light of Christ unto life.

## 앨마서 29

- 1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 2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 3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으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
- 4 내가 내 소망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확고한 법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앎이라. 참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배정하시되, 그들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든지, 그들의 뜻에 따라,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법령을 그들에게 반포하심을 내가 아노라.
- 5 또한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거니와, 선과 악을 아는 자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기쁨이든지 양심의 가책이든지, 그의 원대로 주어지는 줄을 내가 아노라.
- 6 이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거늘, 어찌 내가 부름 받은 일 수행하기보다 더 원하리요?
- 7 어찌 내가 천사이기를, 그리하여 땅의 모든 끝에 말할 수 있기를 원하리요?
- 8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바를 좇아, 지혜로써 권고하심을 아느니라.

## Alma 29

O that I were an angel, and could have the wish of mine heart, that I might go forth and speak with the trump of God, with a voice to shake the earth, and cry repentance unto every people!

Yea, I would declare unto every soul, as with the voice of thunder, repentance and the plan of redemption, that they should repent and come unto our God, that there might not be more sorrow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But behold, I am a man, and do sin in my wish; for I ought to be content with the things which the Lord hath allotted unto me.

I ought not to harrow up in my desires the firm decree of a just God, for I know that he granteth unto men according to their desire, whether it be unto death or unto life; yea, I know that he allotteth unto men, yea, decreeth unto them decrees which are unalterable, according to their wills, whether they be unto salvation or unto destruction.

Yea, and I know that good and evil have come before all men; he that knoweth not good from evil is blameless; but he that knoweth good and evil, to him it is given according to his desires, whether he desireth good or evil, life or death, joy or remorse of conscience.

Now, seeing that I know these things, why should I desire more than to perform the work to which I have been called?

Why should I desire that I were an angel, that I could speak unto all the ends of the earth?

For behold, the Lord doth grant unto all nations, of their own nation and tongue, to teach his word, yea, in wisdom, all that he seeth fit that they should have; therefore we see that the Lord doth counsel in wisdom, according to that which is just and true.



- 9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아노니,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노라.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영광으로 여기노라.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흑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
- 10 또 보라, 많은 내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오를 내가 볼 때, 그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노니, 곧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며, 참으로 그때 내가 나를 향하여 펴신 그의 자비하신 팔을 기억하노라.
- 11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내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노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고, 이로써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내가 정녕 알고 있음이라. 참으로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 12 참으로 내가 내 조상들의 포로 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였노니,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 13 참으로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기 교회를 세우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성공을 주셨으니 이로써,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 14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성공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기쁨은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제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하도다.
- 15 보라, 저들이 크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저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 16 이제 내가 이들 내 형제들의 성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끌려 가서, 마치 내 몸에서 나날 듯 하나니, 것처럼 나의 기쁨이 크도다.

I know that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me, and I glory in it. I do not glory of myself, but I glory in that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me; yea, and this is my glory, that perhaps I may be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God to bring some soul to repentance; and this is my joy.

And behold, when I see many of my brethren truly penitent, and coming to the Lord their God, then is my soul filled with joy; then do I remember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yea, even that he hath heard my prayer; yea, then do I remember his merciful arm which he extended towards me.

Yea, and I also remember the captivity of my fathers; for I surely do know that the Lord di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and by this did establish his church; yea, the Lord God,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di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Yea, I have always remembered the captivity of my fathers; and that same God who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 Egyptians did deliver them out of bondage.

Yea, and that same God did establish his church among them; yea, and that same God hath called me by a holy calling, to preach the word unto this people, and hath given me much success, in the which my joy is full.

But I do not joy in my own success alone, but my joy is more full because of the success of my brethren, who have been up to the land of Nephi.

Behold, they have labored exceedingly, and have brought forth much fruit; and how great shall be their reward!

Now, when I think of the success of these my brethren my soul is carried away, even to the separation of it from the body, as it were, so great is my joy.

17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내 형제들에게 허락  
하사, 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며, 또 저  
들의 수고의 결실인 그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사 그  
들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  
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내 말대로, 곧 내가 말한 것같이 이루어지게 하시  
기를 원하노라. 아멘.

And now may God grant unto these, my brethren,  
that they may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yea,  
and also all those who are the fruit of their labors  
that they may go no more out, but that they may  
praise him forever. And may God grant that it may be  
done according to my words, even as I have spoken.  
Amen.

## 앨마서 30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백성이 여어손 땅에 정착하고 난 후,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 땅 백성에 의해 장사되고 난 후—
- 2 이제 그들의 죽은 자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가 큼으로 인함이며, 니파이인의 죽은 자도 세지 아니하였더라—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난 후, 또한 금식과 애통과 기도의 날들 이후 (때는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이었더라) 온 땅에 평화가 지속되기 시작하였더라.
- 3 또한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되,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음이라.
- 4 또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 내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란이 없었느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십칠년 초에도 평화가 지속되었으나,
- 6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칠년 말에 한 사람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 왔으니, 그는 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을 거스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였음이라.
- 7 이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을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할 법을 돕은 엄격히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 것임이었더라.
- 8 이는 이같이 경전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였음이니라.
- 9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였으면, 이는 저의 특권이라. 곧 그보다는 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저의 특권이었으나, 저가 그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처벌할 법은 없었느니라.

## Alma 30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people of Ammon were established in the land of Jershon, yea, and also after the Lamanites were driven out of the land, and their dead were buried by the people of the land—

Now their dead were not number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s; neither were the dead of the Nephites numbered—but it came to pass after they had buried their dead, and also after the days of fasting, and mourning, and prayer, (and it was in the six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ere began to be continual peace throughout all the land.

Yea, and the people did observ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they were strict in observing the ordinances of Go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for they were taught to keep the law of Moses until it should be fulfilled.

And thus the people did have no disturbance in all the six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commencement of the seven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as continual peace.

But it came to pass in the latter end of the seventeenth year, there came a man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he was Anti-Christ, for he began to preach unto the people against the prophecies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prophets,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Now there was no law against a man's belief; for it was strictly contrary to the commands of God that there should be a law which should bring men on to unequal grounds.

For thus saith the scripture: Choose ye this day, whom ye will serve.

Now if a man desired to serve God, it was his privilege; or rather, if he believed in God it was his privilege to serve him; but if he did not believe in him there was no law to punish him.

10 그러나 만일 살인하였으면 사형을 받았으며, 강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도적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간음을 범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나니, 참으로 이 모든 간악함에 대하여 그들은 처벌을 받았더라.

11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을 금하는 법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공평한 입장에 있었느니라.

12 이에 그 이름이 코리호어인, 이 적 그리스도가 (또 법이 그를 도무지 붙들 수 없었으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였나니, 이 같은 방식으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13 오 너희 어리석고 헛된 소망 아래 엮매여 있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로 스스로에게 멩에를 씌우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느냐? 이는 아무도 장차 임할 일을 알 수 없음이니라.

14 보라, 너희가 예언이라 하고, 너희 말에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 내려왔다 하는 이러한 것은, 보라, 그러한 것은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이니라.

15 그것이 확실함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없느니라.

16 너희가 앞을 내다보며 너희의 죄 사함을 본다 하나, 보라, 그것은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요, 너희 생각의 이 혼란은 너희를 인도하여,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일을 믿게 하는 바, 너희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오느니라 하였더라.

17 또 그가 그와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많이 더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But if he murdered he was punished unto death; and if he robbed he was also punished; and if he stole he was also punished; and if he committed adultery he was also punished; yea, for all this wickedness they were punished.

For there was a law that men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crimes. Nevertheless, there was no law against a man's belief; therefore, a man was punished only for the crimes which he had done; therefore all men were on equal grounds.

And this Anti-Christ, whose name was Korihor, (and the law could have no hold upon him) began to preach unto the people that there should be no Christ. And after this manner did he preach, saying:

O ye that are bound down under a foolish and a vain hope, why do ye yoke yourselves with such foolish things? Why do ye look for a Christ? For no man can know of anything which is to come.

Behold, these things which ye call prophecies, which ye say are handed down by holy prophets, behold, they are foolish traditions of your fathers.

How do ye know of their surety? Behold, ye cannot know of things which ye do not see; therefore ye cannot know that there shall be a Christ.

Ye look forward and say that ye see a remission of your sins. But behold, it is the effect of a frenzied mind; and this derangement of your minds comes because of the traditions of your fathers, which lead you away into a belief of things which are not so.

And many more such things did he say unto them, telling them that there could be no atonement made for the sins of men, but every man fared in this life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the creature; therefore every man prospered according to his genius, and that every man conquered according to his strength; and whatsoever a man did was no crime.

18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여자와 또한 남자들을 이끌어 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으며—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하였더라.

19 이제 이 사람이 여어손 땅에도 건너가서, 한때 레이맨인 백성이었던 암몬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려 하였더라.

20 그러나 보라 그들은 다수의 니파이인들보다 현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그 백성 위에 대제사인 암몬 앞으로 끌고 갔음이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그를 그 땅에서 끌고 나가게 한지라, 그가 기드온 땅으로 건너와서, 그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여기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잡혀 결박되어, 그 땅을 다스리는 대제사와 또한 재판사 앞으로 끌려갔음이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제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돌아다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뻐함을 훼방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거스려 말하느냐 하였더라.

23 이제 이 대제사의 이름은 길도나였더라. 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고요,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과 권세를 잡고자, 또 그들을 무지한 가운데 있게 하여, 그들로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네 말에 따라 낮아지게 하고자, 옛날의 제사들이 제정해 놓은 어리석은 의식과 의례 아래 스스로를 엮매도록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고니라.

24 너희는 이 백성이 자유로운 백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속박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저 옛 예언들이 참되다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참된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And thus he did preach unto them, leading away the hearts of many, causing them to lift up their heads in their wickedness, yea, leading away many women, and also men, to commit whoredoms —telling them that when a man was dead, that was the end thereof.

Now this man went over to the land of Jershon also, to preach these things among the people of Ammon, who were once the people of the Lamanites.

But behold they were more wise than many of the Nephites; for they took him, and bound him, and carried him before Ammon, who was a high priest over that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used that he should be carried out of the land. And he came over into the land of Gideon, and began to preach unto them also; and here he did not have much success, for he was taken and bound and carried before the high priest, and also the chief judge over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high priest said unto him: Why do ye go about perverting the ways of the Lord? Why do ye teach this people that there shall be no Christ, to interrupt their rejoicings? Why do ye speak against all the prophecies of the holy prophets?

Now the high priest's name was Giddonah. And Korihor said unto him: Because I do not teach the foolish traditions of your fathers, and because I do not teach this people to bind themselves down under the foolish ordinances and performances which are laid down by ancient priests, to usurp power and authority over them, to keep them in ignorance, that they may not lift up their heads, but be brought down according to thy words.

Ye say that this people is a free people. Behold, I say they are in bondage. Ye say that those ancient prophecies are true. Behold, I say that ye do not know that they are true.

- 25 너희는 이 백성이 한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죄 있고 타락한 백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하여 죄 있지 아니하느니라.
- 26 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말하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또한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나니—
- 27 또 이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좇아,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내고, 마치 속박에 든 것처럼, 그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들의 손의 수고로 너희 스스로를 배불리고자 하며, 그들로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며, 그들로 감히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도다.
- 28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제사들을 거스르려 하여, 감히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자 아니하나니, 저들은 저들의 뜻대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저들의 전통과 저들의 꿈과 저들의 일시적인 생각과 저들의 환상과 저들의 꾸며낸 신비로써, 만일 그들이 저들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곧 지금까지 결코 보인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결코 있지 아니할 존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믿게 하였느니라.
- 29 이제 대제사와 대판사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는, 곧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려 욕하기까지 하려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고자 아니하고, 그를 결박하게 하고 그를 관원들의 손에 넘겨,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보내어, 엘마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대판사 앞으로 데려가게 하였더라.
-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엘마와 대판사 앞에 끌려와서는, 기드온 땅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계속하되, 실로 그가 모독하기를 계속하였느니라.
- 31 또 일어나 엘마 앞에 서서 크게 부풀린 말을 하고, 제사들과 교사들을 거스려 욕하며, 백성들의 수고로 배불리기 위하여, 그들 조상의 어리석은 전통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 낸다고 그들을 비난하였더라.

Ye say that this people is a guilty and a fallen people, because of the transgression of a parent. Behold, I say that a child is not guilty because of its parents.

And ye also say that Christ shall come. But behold, I say that ye do not know that there shall be a Christ. And ye say also that he shall be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thus ye lead away this people after the foolish traditions of your fathers, and according to your own desires; and ye keep them down, even as it were in bondage, that ye may glut yourselves with the labors of their hands, that they durst not look up with boldness, and that they durst not enjoy their rights and privileges.

Yea, they durst not make use of that which is their own lest they should offend their priests, who do yoke them according to their desires, and have brought them to believe, by their traditions and their dreams and their whims and their visions and their pretended mysteries, that they should, if they did not do according to their words, offend some unknown being, who they say is God—a being who never has been seen or known, who never was nor ever will be.

Now when the high priest and the chief judge saw the hardness of his heart, yea, when they saw that he would revile even against God, they would not make any reply to his words; but they caused that he should be bound; and they delivered him up into the hands of the officers, and sent him to the land of Zarahemla, that he might be brought before Alma, and the chief judge who was governor over all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was brought before Alma and the chief judge, he did go on in the same manner as he did in the land of Gideon; yea, he went on to blaspheme.

And he did rise up in great swelling words before Alma, and did revile against the priests and teachers, accusing them of leading away the people after the silly traditions of their fathers, for the sake of glutting on the labors of the people.

32 이제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가 이 백성의 수고로 우리 스스로를 배불리지 아니하는 줄 알고 있나니, 이는 보라 참으로 판사 치세 초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 땅을 두루 많이 여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부양을 위해 내 손으로 일해 왔노라.

33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한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에 대해서 한 시나인만큼도 받은 일이 없으며, 내 형제 중 누구도 판사직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하지 않았으며, 그때에도 우리는 다만 법에 따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만 받았음이니라.

34 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을진대, 진리를 선포하여 우리 형제들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35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네 스스로 우리가 아무 이익도 받지 않는 줄을 알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하느냐? 또 이제 너는 그들의 마음에 그토록 큰 기쁨을 초래하는 우리가 이 백성을 속인다고 믿느냐?

36 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리하니라.

37 이에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느냐?

38 이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39 이제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40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무슨 증거가 네게 있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게는 아무 증거도 없고, 다만 네 말뿐이니라.

41 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또 네게도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거늘, 그래도 네가 이를 부인하겠느냐? 너는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믿느냐?

Now Alma said unto him: Thou knowest that we do not glut ourselves upon the labors of this people; for behold I have labored even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reign of the judges until now, with mine own hands for my support, notwithstanding my many travels round about the land to declare the word of God unto my people.

And notwithstanding the many labors which I have performed in the church, I have never received so much as even one senine for my labor; neither has any of my brethren, save it were in the judgment-seat; and then we have received only according to law for our time.

And now, if we do not receive anything for our labors in the church, what doth it profit us to labor in the church save it were to declare the truth, that we may have rejoicings in the joy of our brethren?

Then why sayest thou that we preach unto this people to get gain, when thou, of thyself, knowest that we receive no gain? And now, believest thou that we deceive this people, that causes such joy in their hearts?

And Korihor answered him, Yea.

And then Alma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at there is a God?

And he answered, Nay.

Now Alma said unto him: Will ye deny again that there is a God, and also deny the Christ? For behold, I say unto you, I know there is a God, and also that Christ shall come.

And now what evidence have ye that there is no God, or that Christ cometh not? I say unto you that ye have none, save it be your word only.

But, behold, I have all things as a testimony that these things are true; and ye also have all things as a testimony unto you that they are true; and will ye deny them? Believest thou that these things are true?

42 보라, 네가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벗어 버려 그로 네게 있을 곳이 없게 하였도다. 이에 악마가 너를 다스릴 권능을 가져, 너를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고자 간계를 꾸미는도다.

43 이에 이제 코리호어가 엘마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표적을 보여 준다면, 참으로 그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준다면, 그리하면 네 말의 참됨을 내가 인정하리라.

44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네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네게 이 모든 네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네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45 또 그러함에도 네가 다니며,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증거하느냐? 그러함에도 네가 이 모든 증거를 거스려 부인하겠느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도다, 네가 내게 표적을 보이기 전에는 내가 부인하리라.

4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슬프도다. 참으로 네가 아직 진리의 영을 물리치고자 하므로, 네 영혼이 멸망을 받을까 함이라.

47 그러나 보라, 네가 너의 거짓말과 네 아첨하는 말로써,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리는 방편이 되는 것보다 네 영혼을 잃는 것이 나으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 부인할진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겠고, 다시는 이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48 이제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아니하노라. 또한 내가 말하노니, 너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리라. 네가 표적을 내게 보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Behold, I know that thou believest, but thou art possessed with a lying spirit, and ye have put off the Spirit of God that it may have no place in you; but the devil has power over you, and he doth carry you about, working devices that he may destroy the children of God.

And now Korihor said unto Alma: If thou wilt show me a sign, that I may be convinced that there is a God, yea, show unto me that he hath power, and then will I be convinced of the truth of thy words.

But Alma said unto him: Thou hast had signs enough; will ye tempt your God? Will ye say, Show unto me a sign, when ye have the testimony of all these thy brethren, and also all the holy prophets? The scriptures are laid before thee, yea, and all things denote there is a God; yea, even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are upon the face of it, yea, and its motion, yea, and also all the planets which move in their regular form do witness that there is a Supreme Creator.

And yet do ye go about, leading away the hearts of this people, testifying unto them there is no God? And yet will ye deny against all these witnesses? And he said: Yea, I will deny, except ye shall show me a sign.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lma said unto him: Behold, I am grieved because of the hardness of your heart, yea, that ye will still resist the spirit of the truth, that thy soul may be destroyed.

But behold, it is better that thy soul should be lost than that thou shouldst be the means of bringing many souls down to destruction, by thy lying and by thy flattering words; therefore if thou shalt deny again, behold God shall smite thee, that thou shalt become dumb, that thou shalt never open thy mouth any more, that thou shalt not deceive this people any more.

Now Korihor said unto him: I do not deny the existence of a God, but I do not believe that there is a God; and I say also, that ye do not know that there is a God; and except ye show me a sign, I will not believe.



49 이제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네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내가 네게 표적으로 주리라. 이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다시는 말을 내지 못할지니라.

50 이제 엘마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엘마의 말대로, 코리호어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51 이에 이제 대판사가 이를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코리호어에게 써서 이르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엘마가 그의 표적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네가 바랐느냐? 네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 그가 다른 자들을 괴롭히기를 바랐느냐? 보라 그가 네게 표적을 보였거늘 이제 네가 더 논박하겠느냐?

52 이에 코리호어가 그 손을 내밀어 써서 이르되,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며, 말 못하는 자가 된 줄을 아노라.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일을 내게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

53 그러나 보라, 악마가 나를 속였나니, 이는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내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을 돌이키라. 이는 그들이 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이니라 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한 내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었느니라. 이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쳤나니, 내가 그것을 가르친 것은 그것이 속된 생각에 기쁨이 되었음이라. 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쳐 이윅고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지라, 그로 인해 내가 그러한 것이 참된 줄 진실로 믿게 되었나니, 이 까닭에 내가 진리에 대항하여 결국 이 큰 저주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도다 하니라.

54 이제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저주가 자기에 게서 떠나도록, 엘마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을 구하였더라.

55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이 저주가 네게서 떠날진대 네가 다시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낼 것인즉,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Now Alma said unto him: This will I give unto thee for a sign, that thou shalt be struck dumb, according to my words; and I say, that in the name of God, ye shall be struck dumb, that ye shall no more have utterance.

Now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Korihor was struck dumb, that he could not have utterance, according to the words of Alma.

And now when the chief judge saw this, he put forth his hand and wrote unto Korihor, saying: Art thou convinced of the power of God? In whom did ye desire that Alma should show forth his sign? Would ye that he should afflict others, to show unto thee a sign? Behold, he has showed unto you a sign; and now will ye dispute more?

And Korihor put forth his hand and wrote, saying: I know that I am dumb, for I cannot speak; and I know that nothing save it were the power of God could bring this upon me; yea, and I always knew that there was a God.

But behold, the devil hath deceived me; for he appeared unto me in the form of an angel, and said unto me: Go and reclaim this people, for they have all gone astray after an unknown God. And he said unto me: There is no God; yea, and he taught me that which I should say. And I have taught his words; and I taught them because they were pleasing unto the carnal mind; and I taught them, even until I had much success, insomuch that I verily believed that they were true; and for this cause I withstood the truth, even until I have brought this great curse upon me.

Now when he had said this, he besought that Alma should pray unto God, that the curse might be taken from him.

But Alma said unto him: If this curse should be taken from thee thou wouldst again lead away the hearts of this people; therefore, it shall be unto thee even as the Lord will.

5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저주가 코리호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가 쫓겨나,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자기의 먹을 것을 구걸하더라.

57 이제 코리호어에게 일어난 일이 즉시로 그 온 땅에 두루 공표되었으니, 참으로 재판사가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포고를 보내어, 코리호어의 말을 믿은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이 동일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까 하니, 급히 회개하라 하였더라.

5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코리호어의 간악함을 깨달았으므로, 모두 다시 주께로 돌이키매, 이로써 코리호어의 방식을 따른 죄악이 끝나고, 코리호어는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며 연명하더라.

5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한 백성, 곧 니파이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조램이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의해 인도되어, 스스로 조램인이라 칭하는 백성 가운데 나아갔더니—그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새, 보라 그가 치어 짓밟혔으니, 곧 그가 죽기까지라.

60 또 이로써 우리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의 종말을 알게 되며, 또 이로써 우리는 악마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급히 지옥으로 끌어내림을 알게 되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curse was not taken off of Korihor; but he was cast out, and went about from house to house begging for his food.

Now the knowledge of what had happened unto Korihor was immediately published throughout all the land; yea, the proclamation was sent forth by the chief judge to all the people in the land, declaring unto those who had believed in the words of Korihor that they must speedily repent, lest the same judgments would come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ll convinced of the wickedness of Korihor; therefore they were all converted again unto the Lord; and this put an end to the iniquity after the manner of Korihor. And Korihor did go about from house to house, begging food for his support.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went forth among the people, yea, among a people who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Nephites and called themselves Zoramites, being led by a man whose name was Zoram—and as he went forth amongst them, behold, he was run upon and trodden down, even until he was dead.

And thus we see the end of him who perverteth the ways of the Lord; and thus we see that the devil will not support his children at the last day, but doth speedily drag them down to hell.

## 앨마서 31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의 종말 이후에, 앨마가 조람인들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있음과 그들의 지도자인 조람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말 못하는 우상에 절하게 한다는 소식을 받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다시 상하기 시작하였더라.
- 2 이는 자기 백성 중의 죄악에 대하여 알게 됨이 앨마에게는 큰 슬픔의 까닭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조람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나누어진 일로 인하여 심히 슬펐더라.
- 3 이제 조람인들은 그들이 앤티오눔이라 일컫는 땅에 함께 모였었나니, 이는 제이라헤플라 땅의 동편이요, 이는 바닷가에 거의 접경하여 놓여 있으며, 이는 여어손 땅의 남쪽이요, 이는 또한 남방 광야에 경계가 닿았으니, 이 광야에는 레이맨인들이 가득하였더라.
- 4 이제 니파이인들은 조람인들이 레이맨인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과, 그것이 니파이인들 편에 큰 손실의 방편이 될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 5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앨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 6 그리하여 그는 암몬과 아론과 옴너를 취하고, 힘나이는 제이라헤플라의 교회에 남겨 두었으나, 앞의 셋과 또한 밀렉에 있던 앰울레크와 지에즈롬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으며, 그가 또한 자기의 아들 중 둘을 취하였더라.
- 7 이제 그의 아들 중 장남은 그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그의 이름은 힐라맨이요, 그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간 자들의 이름은 시블론과 코리안톤이니, 이는 조람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와 함께 조람인들 가운데로 갔던 자들의 이름이니라.

## Alma 31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end of Korihor, Alma having received tidings that the Zoramites were perverting the ways of the Lord, and that Zoram, who was their leader, was leading the hearts of the people to bow down to dumb idols, his heart again began to sicken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people.

For it was the cause of great sorrow to Alma to know of iniquity among his people; therefore his heart was exceedingly sorrowful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the Zoramites from the Nephites.

Now the Zoramites had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in a land which they called Antionum, which was east of the land of Zarahemla, which lay nearly bordering upon the seashore, which was south of the land of Jershon, which also bordered upon the wilderness south, which wilderness was full of the Lamanites.

Now the Nephites greatly feared that the Zoramites would enter into a correspondence with the Lamanites, and that it would be the means of great loss on the part of the Nephites.

And now, as the preaching of the word had a great tendency to lead the people to do that which was just—yea, it had had more powerful effect upon the minds of the people than the sword, or anything else, which had happened unto them—therefore Alma thought it was expedient that they should try the virtue of the word of God.

Therefore he took Ammon, and Aaron, and Omner; and Himni he did leave in the church in Zarahemla; but the former three he took with him, and also Amulek and Zeezrom, who were at Melek; and he also took two of his sons.

Now the eldest of his sons he took not with him, and his name was Helaman; but the names of those whom he took with him were Shiblón and Coriantón; and these are the names of those who went with him among the Zoramites, to preach unto them the word.

- 8 이제 조람인들은 니파이인에게서 이반한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었다.
- 9 그러나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나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켜 준행하려 아니하였으며,
- 10 유혹에 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 하는 교회의 의례를 지키려고도 아니하였음이라.
- 11 참으로 요컨대 그들이 심히 많은 경우에 주의 길을 굽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까닭에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 12 이제 저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보라, 놀랍게도 조람인들이 회당들을 지은 것과 그들이 주의 날이라 칭하는 바, 일 주 중 하루에 함께 모여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 13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회당 중앙에 쌓아 올린 한 자리가 있었음이니, 곧 설 자리라, 높기는 머리보다도 위며, 그 꼭대기는 오직 한 사람을 용납할 만 하더라.
- 14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 그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내뻗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 15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과 당신이 전에도 영이시었고 지금도 영이시며 장차도 영원히 영이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 16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우리 형제들에게서 구별하셨음을 믿사오며, 또 우리는 그 조상들의 유치함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 곧 우리 형제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라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Now the Zoramites were dissenters from the Nephites; therefore they had had the word of God preached unto them.

But they had fallen into great errors, for they would not observ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is statute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Neither would they observe the performances of the church, to continue in prayer and supplication to God daily, that they might not enter into temptation.

Yea, in fine, they did pervert the ways of the Lord in very many instances; therefore, for this cause, Alma and his brethren went into the land to preach the word unto them.

Now, when they had come into the land, behold, to their astonishment they found that the Zoramites had built synagogues, and that they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on one day of the week, which day they did call the day of the Lord; and they did worship after a manner which Alma and his brethren had never beheld;

For they had a place built up in the center of their synagogue, a place for standing, which was high above the head; and the top thereof would only admit one person.

Therefore, whosoever desired to worship must go forth and stand upon the top thereof, and stretch forth his hands towards heaven, and cry with a loud voice, saying:

Holy, holy God; we believe that thou art God, and we believe that thou art holy, and that thou wast a spirit, and that thou art a spirit, and that thou wilt be a spirit forever.

Holy God, we believe that thou hast separated us from our brethren; and we do not believe in the tradition of our brethren, which was handed down to them by the childishness of their fathers; but we believe that thou hast elected us to be thy holy children; and also thou hast made it known unto us that there shall be no Christ.

17 그러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당신은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나, 반면에 우리 사방의 모든 자는 당신의 진노로써 지옥에 던짐을 받도록 선택함을 입었나니, 이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감사드리나이다. 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우리 형제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따라 이끌려 가지 않게 하신 것을 또한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그 전통은 정녕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곧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들을 얽매고 있나이다.

18 이에 다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지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하더라.

1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기도를 듣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랐더라.

20 이는 보라, 모든 사람이 나아가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림이더라.

21 이제 그 자리를 그들은 래미움프툼이라 하였으니, 해석한즉 거룩한 단이라.

22 이제 이 단에서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그에게 택함을 받은 것과 그 형제들의 전통을 좇아 그들을 이끌어 가지 아니하신 것과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장차 임할 일을 믿는데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을,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23 이제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감사를 드린 후,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결코 다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기를, 거룩한 단으로 다시 함께 모여 그들의 방식대로 감사를 드리기까지 그리하더라.

24 이제 엘마가 이를 보고 그 마음이 비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악하고 패역한 백성임을 그가 보았음이라,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금에, 또 은에, 또 온갖 좋은 물품에 있음을 그가 보았더라.

25 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자고하여, 그 교만 중에 크게 자랑하게 되었음을 그가 또한 보았더라.

But thou ar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thou hast elected us that we shall be saved, whilst all around us are elected to be cast by thy wrath down to hell; for the which holiness, O God, we thank thee; and we also thank thee that thou hast elected us, that we may not be led away after the foolish traditions of our brethren, which doth bind them down to a belief of Christ, which doth lead their hearts to wander far from thee, our God.

And again we thank thee, O God, that we are a chosen and a holy people. Amen.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and his brethren and his sons had heard these prayers, they were astonished beyond all measure.

For behold, every man did go forth and offer up these same prayers.

Now the place was called by them Rameumptom, which, being interpreted, is the holy stand.

Now, from this stand they did offer up, every man, the selfsame prayer unto God, thanking their God that they were chosen of him, and that he did not lead them away after the tradition of their brethren, and that their hearts were not stolen away to believe in things to come, which they knew nothing about.

Now, after the people had all offered up thanks after this manner, they returned to their homes, never speaking of their God again until they had assembled themselves together again to the holy stand, to offer up thanks after their manner.

Now when Alma saw this his heart was grieved; for he saw that they were a wicked and a perverse people; yea, he saw that their hearts were set upon gold, and upon silver, and upon all manner of fine goods.

Yea, and he also saw that their hearts were lifted up unto great boasting, in their pride.

26 이에 그가 하늘로 그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종들이 육체로 이 아래에 거하면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토록 큰 간악함을 보게 하시려나이까?

27 하나님이지여, 보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사오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교만 속에 삼키웠나이다. 하나님이지여, 보시옵소서, 그들이 그 입으로는 주께 부르짖사오나, 반면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스스로 큰 체 하기에 이르렀나이다.

28 나의 하나님이지여, 그들의 값비싼 의복과 그들의 작은 고리들과 그들의 팔찌와 그들의 금패물과 그들을 꾸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또 보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에 있거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다른 이들은 멸망할 것인 반면, 우리는 당신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온즉,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이다.

29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하나이다.

30 오 주 하나님이지여, 어느 때까지 이 같은 간악함과 불신앙이 이 백성 가운데 있도록 두려 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내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겠나이까. 이는 내가 연약하옵고, 이 백성 중의 그 같은 간악함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연고니이다.

31 주여, 내 마음이 심히 슬프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나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임할 이 고난들을 인내로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32 주여, 내 영혼을 위로하사, 나와 또한 나와 함께한 내 동역자들에게 성공을 주시겠나이까—참으로 암몬과 아론과 움너와 또한 앰올레크와 지에즈롭과 또한 나의 두 아들들—참으로 이들 모두를, 주여, 주께서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33 저희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임할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And he lifted up his voice to heaven, and cried, saying: O, how long, O Lord, wilt thou suffer that thy servants shall dwell here below in the flesh, to behold such gross wickedness among the children of men?

Behold, O God, they cry unto thee, and yet their hearts are swallowed up in their pride. Behold, O God, they cry unto thee with their mouths, while they are puffed up, even to greatness, with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Behold, O my God, their costly apparel, and their ringlets, and their bracelets, and their ornaments of gold, and all their precious things which they are ornamented with; and behold, their hearts are set upon them, and yet they cry unto thee and say—We thank thee, O God, for we are a chosen people unto thee, while others shall perish.

Yea, and they say that thou hast made it known unto them that there shall be no Christ.

O Lord God, how long wilt thou suffer that such wickedness and infidelity shall be among this people? O Lord, wilt thou give me strength, that I may bear with mine infirmities. For I am infirm, and such wickedness among this people doth pain my soul.

O Lord, my heart is exceedingly sorrowful; wilt thou comfort my soul in Christ. O Lord, wilt thou grant unto me that I may have strength, that I may suffer with patience these afflictions which shall come upon me,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is people.

O Lord, wilt thou comfort my soul, and give unto me success, and also my fellow laborers who are with me—yea, Ammon, and Aaron, and Omner, and also Amulek and Zeezrom, and also my two sons—yea, even all these wilt thou comfort, O Lord. Yea, wilt thou comfort their souls in Christ.

Wilt thou grant unto them that they may have strength, that they may bear their afflictions which shall come upon them because of the iniquities of this people.

34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35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손을 자기와 함께 한 자들 모두의 위에 얹으니, 보라, 그가 그 손을 그들 위에 얹으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라.

37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서로 헤어졌더라.

38 이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사 그들로 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하셨더라. 이제 이는 엘마의 기도대로였나니, 이는 그가 신앙으로 기도한 연고였더라.

O Lord, wilt thou grant unto us that we may have success in bringing them again unto thee in Christ.

Behold, O Lord, their souls are precious, and many of them are our brethren; therefore, give unto us, O Lord, power and wisdom that we may bring these, our brethren, again unto thee.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that he clapped his hands upon all them who were with him. And behold, as he clapped his hands upon them,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after that they did separate themselves one from another, taking no thought for themselves what they should eat, or what they should drink, or what they should put on.

And the Lord provided for them that they should hunger not, neither should they thirst; yea, and he also gave them strength, that they should suffer no manner of afflictions, save it were swallowed up in the joy of Christ. Now this was according to the prayer of Alma; and this because he prayed in faith.

## 앨마서 32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회당에도, 또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한 참으로 그들의 거리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한 후, 저들이 가난한 계층의 백성 가운데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그 의복의 조악함으로 인하여 회당에서 쫓겨났음이니라—
- 3 그리하여 그들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감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리므로 그들은 가난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 형제들에게 찌꺼기같이 여겨졌더라. 이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도 가난하였고, 또한 마음으로도 가난하였더라.
- 4 이제 앨마가 오나이다 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우리가 말하던 자들이요, 그들이 세상의 것에서 가난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다 한 자들이라.
- 5 이에 그들이 앨마에게로 와서, 그들 중 으뜸 되는 자가 앨마에게 말하되, 보소서 나의 이 형제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는 그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되, 참으로 우리의 제사들에게 특히 더 그러함이라. 이는 저들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많이 수고하여 지은 우리의 회당에서 우리를 쫓아내었음이며, 또 저들이 우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쫓아내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음이오니,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 6 이에 이제 앨마가 이를 듣고, 몸을 돌이켜, 자기 얼굴을 바로 그에게로 향하고,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들의 고난이 진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이라.
- 7 그리하여 그가 다른 무리에게 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밀고, 자기가 바라보는 바 진실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 Alma 32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o forth, and began to preach the word of God unto the people, entering into their synagogues, and into their houses; yea, and even they did preach the word in their streets.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uch labor among them, they began to have success among the poor class of people; for behold, they were cast out of the synagogues because of the coarseness of their apparel—

Therefore they were not permitted to enter into their synagogues to worship God, being esteemed as filthiness; therefore they were poor; yea, they were esteemed by their brethren as dross; therefore they were poor as to things of the world; and also they were poor in heart.

Now, as Alma was teaching and speaking unto the people upon the hill Onidah, there came a great multitude unto him, who were those of whom we have been speaking, of whom were poor in heart, because of their poverty as to the things of the world.

And they came unto Alma; and the one who was the foremost among them said unto him: Behold, what shall these my brethren do, for they are despised of all men because of their poverty, yea, and more especially by our priests; for they have cast us out of our synagogues which we have labored abundantly to build with our own hands; and they have cast us out because of our exceeding poverty; and we have no place to worship our God; and behold, what shall we do?

And now when Alma heard this, he turned him about, his face immediately towards him, and he beheld with great joy; for he beheld that their afflictions had truly humbled them, and that they were in a preparation to hear the word.

Therefore he did say no more to the other multitude; but he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cried unto those whom he beheld, who were truly penitent, and said unto them:



- 8 내가 보니 너희는 마음이 겸손하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 9 보라 네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이는 우리가 우리 회당에서 쫓겨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라 하였도다.
-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오직 너희 회당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 11 또 더욱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일 주일에 한 번 밖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서 안된다 생각하느냐?
-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겸손하게 되고, 또 지혜를 배우도록, 너희가 너희의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잘 된 일이라. 이는 너희가 지혜를 배움이 꼭 필요함ियो, 너희가 마음이 낮아지게 된 것이, 너희가 쫓겨나고, 너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은 연고임이니, 이는 너희가 불가불 겸손하게 되었음이니라.
- 13 또 이제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사람이 간혹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면, 회개를 구함ियो, 이제 정녕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임이며, 자비를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 14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이른 것같이, 너희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이 더욱 복있다 생각하지 않느냐?
- 15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참으로 자기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
- 16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보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믿기 전에 말씀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알게 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이 침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I behold that ye are lowly in heart; and if so, blessed are ye.

Behold thy brother hath said, What shall we do?—for we are cast out of our synagogues, that we cannot worship our God.

Behold I say unto you, do ye suppose that ye cannot worship God save it be in your synagogues only?

And moreover, I would ask, do ye suppose that ye must not worship God only once in a week?

I say unto you, it is well that ye are cast out of your synagogues, that ye may be humble, and that ye may learn wisdom; for it is necessary that ye should learn wisdom; for it is because that ye are cast out, that ye are despised of your brethren because of your exceeding poverty, that ye are brought to a lowliness of heart; for ye are necessarily brought to be humble.

And now, because ye are compelled to be humble blessed are ye; for a man sometimes, if he is compelled to be humble, seeketh repentance; and now surely, whosoever repenteth shall find mercy; and he that findeth mercy and endureth to the end the same shall be saved.

And now, as I said unto you, that because ye were compelled to be humble ye were blessed, do ye not suppose that they are more blessed who truly humble themselves because of the word?

Yea, he that truly humbleth himself, and repenteth of his sins, and endureth to the end, the same shall be blessed—yea, much more blessed than they who are compelled to be humble because of their exceeding poverty.

Therefore, blessed are they who humble themselves without being compelled to be humble; or rather, in other words, blessed is he that believeth in the word of God, and is baptized without stubbornness of heart, yea, without being brought to know the word, or even compelled to know, before they will believe.

- 17 참으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 많으니라.
- 18 이제 내가 묻노니, 이것이 신앙이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알고 있으면 믿을 이유가 없음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음이라.
- 19 그럼 이제 단지 믿기만 하거나, 단지 믿을 근거만 가지고 범법에 빠지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더 저주를 받았느냐?
- 20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편이 어떠한 것이, 저 편도 그러하니, 각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 21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 22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노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가 참으로 그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느니라.
- 23 또 이제 그는 천사들로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참으로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리하시거니와, 이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어린아이들이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받는 때가 많으니라.
- 24 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났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서 알기 원하였으니—이제 나는 내가 오직 참된 것을 좇는 것 이외에 너희를 판단하려 한다고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 25 이는 내 말이 너희 곧 너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님이니, 이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될 자가 너희 중에 있는 줄을 내가 진실로 믿음이니라.

Yea, there are many who do say: If thou wilt show unto us a sign from heaven, then we shall know of a surety; then we shall believe.

Now I ask, is this faith? Behold, I say unto you, Nay; for if a man knoweth a thing he hath no cause to believe, for he knoweth it.

And now, how much more cursed is he that knoweth the will of God and doeth it not, than he that only believeth, or only hath cause to believe, and falleth into transgression?

Now of this thing ye must judge. Behold, I say unto you, that it is on the one hand even as it is on the other; and it shall be un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

And now as I said concerning faith—faith is not to have a perfect knowledge of things; therefore if ye have faith ye hope for things which are not seen, which are true.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and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God is merciful unto all who believe on his name; therefore he desireth, in the first place, that ye should believe, yea, even on his word.

And now, he imparteth his word by angels unto men, yea, not only men but women also. Now this is not all; little children do have words given unto them many times, which confound the wise and the learned.

And now, my beloved brethren, as ye have desired to know of me what ye shall do because ye are afflicted and cast out—now I do not desire that ye should suppose that I mean to judge you only according to that which is true—

For I do not mean that ye all of you have been compelled to humble yourselves; for I verily believe that there are some among you who would humble themselves, let them be in whatsoever circumstances they might.

26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이른 것같이—곧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한 것같이—내 말도 그러하니라. 신앙이 완전한 지식이 아닌 것처럼, 내 말의 확실함도, 너희가 처음부터 완전히 알 수는 없느니라.

27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28 이제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

29 이제 보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키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지식으로 다 자란 것은 아니니라.

30 그러나 보라,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반드시 말하기를 씨앗이 좋다 하리니, 이는 보라,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함이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이 너희 신앙을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는 너희의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씨앗인 줄 내가 아노니, 이는 보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함이라 할 것임이니라.

31 또 이제 보라, 너희는 이것이 좋은 씨앗임을 확신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이는 모든 씨앗은 각기 그 닮은 것을 냄이라.

32 그러므로 만일 씨앗이 자라면 이는 좋은 씨앗이 어니와, 만일 자라지 아니하면, 보라 이는 좋은 씨앗이 아니니, 그러므로 버리우느니라.

Now, as I said concerning faith—that it was not a perfect knowledge—even so it is with my words. Ye cannot know of their surety at first, unto perfection, any more than faith is a perfect knowledge.

But behold, if ye will awake and arouse your faculties, even to an experiment upon my words, and exercise a particle of faith, yea, even if ye can no more than desire to believe, let this desire work in you, even until ye believe in a manner that ye can give place for a portion of my words.

Now, we will compare the word unto a seed. Now, if ye give place, that a seed may be planted in your heart, behold, if it be a true seed, or a good seed, if ye do not cast it out by your unbelief, that ye will resist the Spirit of the Lord, behold, it will begin to swell within your breasts; and when you feel these swelling motions, ye will begin to say within yourselves—It must needs be that this is a good seed, or that the word is good, for it beginneth to enlarge my soul; yea, it beginneth to enlighten my understanding, yea, it beginneth to be delicious to me.

Now behold, would not this increase your faith? I say unto you, Yea; nevertheless it hath not grown up to a perfect knowledge.

But behold, as the seed swelleth, and sprouteth, and beginneth to grow, then you must needs say that the seed is good; for behold it swelleth, and sprouteth, and beginneth to grow. And now, behold, will not this strengthen your faith? Yea, it will strengthen your faith: for ye will say I know that this is a good seed; for behold it sprouteth and beginneth to grow.

And now, behold, are ye sure that this is a good seed? I say unto you, Yea; for every seed bringeth forth unto its own likeness.

Therefore, if a seed groweth it is good, but if it groweth not, behold it is not good, therefore it is cast away.

33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시험을 해 보아 씨앗을 심었고, 이에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니, 이로 인해 너희는 그 씨앗이 좋은 줄을 반드시 알리라.

34 또 이제 보라,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냐? 그러하다. 그 일에 있어서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며, 너희의 신앙은 휴면 중에 있도다. 이는 너희가 얇으로 인함이니, 이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한 줄 너희가 알며, 또 그것이 싹이 나서 너희의 이해력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너희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한 줄을, 또한 너희가 얇이라.

35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이니라. 이는 그것이 빛인 연고요, 또 무엇이든지 빛 된 것은 선하니, 이는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너희가 반드시 알리라.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이 빛을 맞보고 난 후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냐?

3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버려 두어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너희가 다만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해 보고자 씨앗을 심을 만큼 너희의 신앙을 행사한 것에 불과함이니라.

37 또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크게 주의하여 이를 가꾸어, 그것으로 뿌리를 얻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이제 보라, 만일 너희가 많은 보살핌으로 나무를 가꾸면, 그것이 뿌리를 얻겠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38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리니, 태양의 열기가 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 내버리느니라.

39 이제 이는 씨앗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요, 그 열매가 탐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그것은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려 아니한 연고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느니라.

40 또 이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느니라.

And now, behold, because ye have tried the experiment, and planted the seed, and it swelleth and sprouteth, and beginneth to grow, ye must needs know that the seed is good.

And now, behold, is your knowledge perfect? Yea, your knowledge is perfect in that thing, and your faith is dormant; and this because you know, for ye know that the word hath swelled your souls, and ye also know that it hath sprouted up, that your understanding doth begin to be enlightened, and your mind doth begin to expand.

O then, is not this real? I say unto you, Yea, because it is light; and whatsoever is light, is good, because it is discernible, therefore ye must know that it is good; and now behold, after ye have tasted this light is your knowledge perfect?

Behold I say unto you, Nay; neither must ye lay aside your faith, for ye have only exercised your faith to plant the seed that ye might try the experiment to know if the seed was good.

And behold, as the tree beginneth to grow, ye will say: Let us nourish it with great care, that it may get root, that it may grow up, and bring forth fruit unto us. And now behold, if ye nourish it with much care it will get root, and grow up, and bring forth fruit.

But if ye neglect the tree, and take no thought for its nourishment, behold it will not get any root; and when the heat of the sun cometh and scorcheth it, because it hath no root it withers away, and ye pluck it up and cast it out.

Now, this is not because the seed was not good, neither is it because the fruit thereof would not be desirable; but it is because your ground is barren, and ye will not nourish the tree, therefore ye cannot have the fruit thereof.

And thus, if ye will not nourish the word, looking forward with an eye of faith to the fruit thereof, ye can never pluck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41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42 또 말씀을 가꾸어 그것으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보라 너희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흰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희며,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43 그때 나의 형제들아,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린 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게 되리라.

But if ye will nourish the word, yea, nourish the tree as it beginneth to grow, by your faith with great diligence, and with patience, looking forward to the fruit thereof, it shall take root; and behold it shall be a tree springing up unto everlasting life.

And because of your diligence and your faith and your patience with the word in nourishing it, that it may take root in you, behold, by and by ye shall pluck the fruit thereof, which is most precious, which is sweet above all that is sweet, and which is white above all that is white, yea, and pure above all that is pure; and ye shall feast upon this fruit even until ye are filled, that ye hunger not, neither shall ye thirst.

Then, my brethren, ye shall reap the rewards of your faith, and your diligence, and patience, and long-suffering, waiting for the tree to bring forth fruit unto you.

## 엘마서 33

- 1 이제 엘마가 이 말을 하고 난 뒤,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말한 이 열매를 얻으려면 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곧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심어야 한다고 그가 말한 씨앗, 곧 말씀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즉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 2 이에 엘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말에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난 까닭에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였으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니, 너희는 경전을 상고해 보아야 하리라. 만일 너희가 경전이 이를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경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 3 너희는 옛 선지자 지노스가 기도 곧 예배에 관하여 무엇이랴 말했는지 읽은 것을 기억하느냐?
- 4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자비로우시나이다. 참으로 내가 내 원수인 자들에 관하여 기도했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게로 돌리셨나이다.
- 5 하나님이시여, 그뿐 아니라 내가 나의 밭에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내가 나의 기도 중에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들으셨나이다.
- 6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주는 내 기도 중에 나를 들으셨나이다.
- 7 또 주여, 내가 나의 골방으로 돌이켜 주께 기도했을 때, 나를 들으셨나이다.
- 8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사람의 들음이 아니요 주의 들으심을 얻고자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리이다.
- 9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회중 가운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 Alma 33

Now after Alma had spoken these words, they sent forth unto him desiring to know whether they should believe in one God, that they might obtain this fruit of which he had spoken, or how they should plant the seed, or the word of which he had spoken, which he said must be planted in their hearts; or in what manner they should begin to exercise their faith.

And Alma said unto them: Behold, ye have said that ye could not worship your God because ye are cast out of your synagogues. But behold, I say unto you, if ye suppose that ye cannot worship God, ye do greatly err, and ye ought to search the scriptures; if ye suppose that they have taught you this, ye do not understand them.

Do ye remember to have read what Zenos, the prophet of old, has said concerning prayer or worship?

For he said: Thou art merciful, O God, for thou hast heard my prayer, even when I was in the wilderness; yea, thou wast merciful when I prayed concerning those who were mine enemies, and thou didst turn them to me.

Yea, O God, and thou wast merciful unto me when I did cry unto thee in my field; when I did cry unto thee in my prayer, and thou didst hear me.

And again, O God, when I did turn to my house thou didst hear me in my prayer.

And when I did turn unto my closet, O Lord, and prayed unto thee, thou didst hear me.

Yea, thou art merciful unto thy children when they cry unto thee, to be heard of thee and not of men, and thou wilt hear them.

Yea, O God, thou hast been merciful unto me, and heard my cries in the midst of thy congregations.

10 또한 내가 쫓겨나 나의 원수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도 나를 들으시되, 참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사, 분노 중에 신속한 멸망으로 그들을 벌하셨나이다.

11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들으셨사오며, 또 나를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주의 아들을 인한 것이오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는 주께 나의 기쁨이 있음이니이다. 이는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내게서 돌이키셨음이니이다 하였음이니라.

12 또 이제 얼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옛 사 람들이 기록한 저 경전들을 믿느냐?

13 보라, 너희가 믿는다면, 지노스가 말한 것을 믿 어야만 할지니, 이는 보라 그가 말하기를, 주의 아 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돌이키셨나이다 하였 음이라.

14 이제 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경전을 읽었는 지 내가 묻고자 하노라. 그리하였다면 어찌 너희 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15 이는 지노스 홀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니, 지노크 역시 이러한 일 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16 이는 보라,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백성 에게 노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아들로 인 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주의 자비를 그들이 깨닫고 자 아니하는 연고로소이다 하였더라.

17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보는 바 두 번째 옛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였거 니와, 백성들이 그의 말을 깨닫고자 아니한 고로 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자가 이들뿐이 아니니라.

19 보라, 모세가 그에 대하여 말하였을 뿐만 아니 라, 보라 광야에서 한 예표가 들려서, 그것을 쳐다 보는 자마다 살게 하였었나니, 이에 많은 사람들 이 보고 살았느니라.

Yea, and thou hast also heard me when I have been cast out and have been despised by mine ene mies; yea, thou didst hear my cries, and wast angry with mine enemies, and thou didst visit them in thine anger with speedy destruction.

And thou didst hear me because of mine afflictions and my sincerity; and it is because of thy Son that thou hast been thus merciful unto me, therefore I will cry unto thee in all mine afflictions, for in thee is my joy; for thou hast turned thy judgments away from me, because of thy Son.

And now Alma said unto them: Do ye believe those scriptures which have been written by them of old?

Behold, if ye do, ye must believe what Zenos said; for, behold he said: Thou hast turned away thy judg ments because of thy Son.

Now behold, my brethren, I would ask if ye have read the scriptures? If ye have, how can ye disbelieve on the Son of God?

For it is not written that Zenos alone spake of these things, but Zenock also spake of these things—

For behold, he said: Thou art angry, O Lord, with this people, because they will not understand thy mercies which thou hast bestowed upon them be cause of thy Son.

And now, my brethren, ye see that a second prophet of old has testified of the Son of God, and because the people would not understand his words they stoned him to death.

But behold, this is not all; these are not the only ones who have spoken concerning the Son of God.

Behold, he was spoken of by Moses; yea, and be hold a type was raised up in the wilderness, that whosoever would look upon it might live. And many did look and live.

20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거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연고라. 그러나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니한 자들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보려고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낮게 하리라고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21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낮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기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올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는 믿지 않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워, 너희 눈길을 던지지 않아 멸망당하겠느냐?

22 만일 그렇다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 이로써 부활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서서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23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고 그것이 부풀기 시작할 때 너희의 신앙으로 이를 가꾸기 바라노라. 그리하면 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비노라. 또 만일 너희가 원하면 참으로 이 모두를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But few understood the meaning of those things, and this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But there were many who were so hardened that they would not look, therefore they perished. Now the reason they would not look is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that it would heal them.

O my brethren, if ye could be healed by merely casting about your eyes that ye might be healed, would ye not behold quickly, or would ye rather harden your hearts in unbelief, and be slothful, that ye would not cast about your eyes, that ye might perish?

If so, wo shall come upon you; but if not so, then cast about your eyes and begin to believe in the Son of God, that he will come to redeem his people, and that he shall suffer and die to atone for their sins; and that he shall rise again from the dead, which shall bring to pass the resurrection, that all men shall stand before him, to be judged at the last and judgment day,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now, my brethren, I desire that ye shall plant this word in your hearts, and as it beginneth to swell even so nourish it by your faith. And behold, it will become a tree, springing up in you unto everlasting life. And then may God grant unto you that your burdens may be light, through the joy of his Son. And even all this can ye do if ye will. Amen.



## 엘마서 34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난 후 땅에 앉으니, 앰울레크가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이르되,
  - 2 내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말하여져 온 것을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우리 중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충분히 가르친 바 된 줄을 아노라.
  - 3 또 너희가 너희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였으매, 이에 그는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얼마간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한 신앙을 갖고 인내하도록 너희를 권면하였나니—
  - 4 참으로 너희가 말씀의 선함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말씀을 심어 볼 만큼의 신앙이라도 가질 것을 권면하였도다.
  - 5 이에 우리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큰 의문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인지 하는 것임을 보았느니라.
  - 6 너희는 또한 많은 경우에, 나의 형제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함을, 너희에게 증명한 것을 보았느니라.
  - 7 나의 형제는 구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온다는 지노스의 말을 인용하였고, 또한 지노크의 말도 인용하였으며, 또한 그는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느니라.
  - 8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이 참됨을 스스로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범법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 Alma 34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had spoken these words unto them he sat down upon the ground, and Amulek arose and began to teach them, saying:

My brethren, I think that it is impossible that ye should be ignorant of the things which have been spoken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who is taught by us to be the Son of God; yea, I know that these things were taught unto you bountifully before your dissension from among us.

And as ye have desired of my beloved brother that he should make known unto you what ye should do, because of your afflictions; and he hath spoken somewhat unto you to prepare your minds; yea, and he hath exhorted you unto faith and to patience—

Yea, even that ye would have so much faith as even to plant the word in your hearts, that ye may try the experiment of its goodness.

And we have beheld that the great question which is in your minds is whether the word be in the Son of God, or whether there shall be no Christ.

And ye also beheld that my brother has proved unto you, in many instances, that the word is in Christ unto salvation.

My brother has called upon the words of Zenos, that redemption cometh through the Son of God, and also upon the words of Zenock; and also he has appealed unto Moses, to prove that these things are true.

And now, behold, I will testify unto you of myself that these things are true. Behold, I say unto you, that I do know that Christ shall come among the children of men, to take upon him the transgressions of his people, and that he shall atone for the sins of the world; for the Lord God hath spoken it.

- 9 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모두가 완악하게 되었고,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은즉,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 10 이는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함이니, 참으로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짐승이나 여하한 새의 희생도 아니라. 이는 그것이 사람이 드리는 희생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필연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
- 11 이제 자기의 피를 희생하여 남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누가 살인하면, 보라 공의로운 우리의 법이 그의 형제의 목숨을 취하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 12 다만 법은 살인한 자의 목숨을 요구하나니, 그러므로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 13 그러므로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하리니, 그렇게 되면 피 흘리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요, 곧 그침이 마땅하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리니, 참으로 일점일획도 남김 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 14 또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
- 15 또 이리하여 그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리라. 이 마지막 희생의 의도는 이것이니, 곧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라.

For it is expedient that an atonement should be made; for according to the great plan of the Eternal God there must be an atonement made, or else all mankind must unavoidably perish; yea, all are hardened; yea, all are fallen and are lost, and must perish except it be through the atonement which it is expedient should be made.

For it is expedient that there should be a great and last sacrifice; yea, not a sacrifice of man, neither of beast, neither of any manner of fowl; for it shall not be a human sacrifice; but it must be an infinite and eternal sacrifice.

Now there is not any man that can sacrifice his own blood which will atone for the sins of another. Now, if a man murdereth, behold will our law, which is just, take the life of his brother? I say unto you, Nay.

But the law requireth the life of him who hath murdered; therefore there can be nothing which is short of an infinite atonement which will suf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refore, it is expedient that there should be a great and last sacrifice, and then shall there be, or it is expedient there should be, a stop to the shedding of blood; then shall the law of Moses be fulfilled; yea, it shall be all fulfilled, every jot and tittle, and none shall have passed away.

And behold, this is the whole meaning of the law, every whit pointing to that great and last sacrifice; and that great and last sacrifice will be the Son of God, yea, infinite and eternal.

And thus he shall bring salvation to all those who shall believe on his name; this being the intent of this last sacrifice, to bring about the bowels of mercy, which overpowereth justice, and bringeth about means unto men that they may have faith unto repentance.

16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17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너희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사,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18 참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

19 참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라.

20 너희가 너희의 들에 있을 때, 참으로 너희의 모든 양 떼를 위해 그에게 부르짖으라.

21 너희의 집에서, 참으로 너희의 모든 권속을 위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에게 부르짖으라.

22 참으로 너희 원수들의 권력을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23 참으로 모든 의의 원수인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24 너희 밭의 작물을 위해 그에게 부르짖어, 그것들로 너희가 형통하게 하라.

25 너희 들판의 양 떼를 위해 부르짖어, 그것들로 증식하게 하라.

26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 또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영혼을 쏟아 내어야만 하느니라.

27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And thus mercy can 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and encircles them in the arms of safety, while he that exercises no faith unto repentance is exposed to the whole law of the demands of justice; therefore only unto him that has faith unto repentance is brought about the great and eternal plan of redemption.

Therefore may God grant unto you, my brethren, that ye may begin to exercise your faith unto repentance, that ye begin to call upon his holy name, that he would have mercy upon you;

Yea, cry unto him for mercy; for he is mighty to save.

Yea, humble yourselves, and continue in prayer unto him.

Cry unto him when ye are in your fields, yea, over all your flocks.

Cry unto him in your houses, yea, over all your household, both morning, mid-day, and evening.

Yea, cry unto him against the power of your enemies.

Yea, cry unto him against the devil, who is an enemy to all righteousness.

Cry unto him over the crops of your fields, that ye may prosper in them.

Cry over the flocks of your fields, that they may increase.

But this is not all; ye must pour out your souls in your closets, and your secret places, and in your wilderness.

Yea, and when you do not cry unto the Lord, let your hearts be full, drawn out in prayer unto him continually for your welfare, and also for the welfare of those who are around you.

28 또 이제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니라.

29 그러므로 너희가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련하는 자가 (아무 가치가 없어) 내 어버리므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는 찌꺼기와 같으니라.

30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받았고, 거룩한 경전이 이러한 것을 증거함을 보았은즉, 너희가 나아와 회개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바라노라.

31 참으로 너희가 나아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32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33 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움이니라.

34 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

And now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say unto you, do not suppose that this is all; for after ye have done all these things, if ye turn away the needy, and the naked, and visit not the sick and afflicted, and impart of your substance, if ye have, to those who stand in need—I say unto you, if ye do not any of these things, behold, your prayer is vain, and availeth you nothing, and ye are as hypocrites who do deny the faith.

Therefore, if ye do not remember to be charitable, ye are as dross, which the refiners do cast out, (it being of no worth) and is trodden under foot of men.

And now, my brethren, I would that, after ye have received so many witnesses, seeing that the holy scriptures testify of these things, ye come forth and bring fruit unto repentance.

Yea, I would that ye would come forth and harden not your hearts any longer; for behold, now is the time and the day of your salvation; and therefore, if ye will repent and harden not your hearts, immediately shall the great plan of redemption be brought about unto you.

For behold, this life is the time for men to prepare to meet God; yea, behold the day of this life is the day for men to perform their labors.

And now, as I said unto you before, as ye have had so many witnesses, therefore, I beseech of you that ye do not procrastinate the day of your repentance until the end; for after this day of life, which is given us to prepare for eternity, behold, if we do not improve our time while in this life, then cometh the night of darkness wherein there can be no labor performed.

Ye cannot say, when ye are brought to that awful crisis, that I will repent, that I will return to my God. Nay, ye cannot say this; for that same spirit which doth possess your bodies at the time that ye go out of this life, that same spirit will have power to possess your body in that eternal world.

35 이는 보라, 만일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의 회개  
의 날을 미루었다면 너희는 악마의 영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는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인 치나니, 그  
러므로 주의 영은 너희에게서 물러나,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며, 악마가 너희를 다스릴 모든 권  
능을 가짐이라.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 상태니라.

36 또 이를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는 거룩하지 않  
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마  
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의인들은 그의 나  
라에 앉아,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신 연고니라.

37 이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말며,

38 성신을 대적하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도리어  
이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티끌에까  
지 스스로 겸손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  
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너희에게 내려주시  
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활하  
기를 원하노라.

39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권면하  
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  
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리하여 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  
여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의 예속된 자가 되지 않  
도록 하라. 이는 보라, 그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지 아니함이니라.

40 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  
면하고자 하노니, 너희는 인내를 가지고, 온갖 고  
난을 참고, 너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자들을 욕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과 같은  
죄인이 될까 하노라.

41 다만 너희는 인내를 갖고, 언젠가 너희의 모든  
고난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는 굳은 소망으로, 그  
러한 고난을 참으라.

For behold, if ye have procrastinated the day of  
your repentance even until death, behold, ye have  
become subjected to the spirit of the devil, and he  
doth seal you his; therefore, the Spirit of the Lord  
hath withdrawn from you, and hath no place in you,  
and the devil hath all power over you; and this is the  
final state of the wicked.

And this I know, because the Lord hath said he  
dwelleth not in unholy temples, but in the hearts of  
the righteous doth he dwell; yea, and he has also said  
that the righteous shall sit down in his kingdom, to  
go no more out; but their garments should be made  
white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desire that ye  
should remember these things, and that ye should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before God, and  
that ye should no more deny the coming of Christ;

That ye contend no more against the Holy Ghost,  
but that ye receive it, and take upon you the name of  
Christ; that ye humble yourselves even to the dust,  
and worship God, in whatsoever place ye may be in,  
in spirit and in truth; and that ye live in thanksgiving  
daily, for the many mercies and blessings which he  
doth bestow upon you.

Yea, and I also exhort you, my brethren, that ye be  
watchful unto prayer continually, that ye may not be  
led away by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that he may  
not overpower you, that ye may not become his sub-  
jects at the last day; for behold, he rewardeth you no  
good thing.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 would exhort  
you to have patience, and that ye bear with all man-  
ner of afflictions; that ye do not revile against those  
who do cast you out because of your exceeding  
poverty, lest ye become sinners like unto them;

But that ye have patience, and bear with those af-  
flictions, with a firm hope that ye shall one day rest  
from all your afflictions.

## 앨마서 35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올레크가 이 말을 마친 후, 그들이 무리에게서 물러나 여어손 땅으로 넘어 왔느니라.
- 2 참으로 또한 나머지 형제들도, 조람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 여어손 땅으로 넘어왔더라.
-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조람인들 가운데 보다 영향력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파된 말씀에 관하여 함께 의논한 후, 말씀으로 인하여 노하니, 이는 그 말씀이 저들의 간계를 무너뜨림이라. 그러므로 저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4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 온 땅에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과 더불어 전파된 말씀에 관하여 의논하였더라.
- 5 이제 그들의 통치자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원하는 바를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은밀히 모든 백성의 생각을 알아내었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모든 백성의 생각을 알아 낸 후,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한 말씀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니, 그들의 수효가 많았고, 그들 역시 여어손 땅으로 넘어왔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니라.
- 8 이제 조람인 백성들이 여어손 땅에 있는 암몬 백성에게 노하였고, 조람인의 두령은 매우 간악한 자더니, 그가 암몬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들에게서 그들의 땅으로 넘어온 자들을 다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더라.
- 9 또 저가 그들에게 대하여 많은 위협을 토하였으나, 암몬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겁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쫓아 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로 넘어온 가난한 조람인들을 모두 받아들여, 그들을 양육하고, 입혔으며, 그들에게 땅을 주어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니라.

## Alma 35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mulek had made an end of these words, they withdrew themselves from the multitude and came over into the land of Jershon.

Yea, and the rest of the brethren, after they had preached the word unto the Zoramites, also came over into the land of Jershon.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more popular part of the Zoramites had consulted together concerning the words which had been preached unto them, they were angry because of the word, for it did destroy their craft; therefore they would not hearken unto the words.

And they sent and gathered together throughout all the land all the people, and consulted with them concerning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Now their rulers and their priests and their teachers did not let the people know concerning their desires; therefore they found out privily the minds of all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had found out the minds of all the people, those who were in favor of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Alma and his brethren were cast out of the land; and they were many; and they came over also into the land of Jershon.

And it came to pass that Alma and his brethren did minister unto them.

Now the people of the Zoramites were angry with the people of Ammon who were in Jershon, and the chief ruler of the Zoramites, being a very wicked man, sent over unto the people of Ammon desiring them that they should cast out of their land all those who came over from them into their land.

And he breathed out many threatenings against them. And now the people of Ammon did not fear their words; therefore they did not cast them out, but they did receive all the poor of the Zoramites that came over unto them; and they did nourish them, and did clothe them, and did give unto them lands for their inheritance; and they did administer unto them according to their wants.

10 이제 이 일이 조람인들을 선동하여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레이맨인들과 섞이며 그들도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기 시작하니라.

11 이에 이리하여 조람인들과 레이맨인들은 암몬 백성과 또한 니파이인들을 칠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라.

12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십칠년이 끝났느니라.

13 이에 암몬 백성은 여어손 땅을 떠나, 밀렉 땅으로 넘어와서, 여어손 땅에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위해 자리를 내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레이맨인들의 군대와 조람인들의 군대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리하여 판사 치세 제 십팔년에 레이맨인과 니파이인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그들의 전쟁에 관한 기사는 이후에 주어지리라.

14 또 엘마와 암몬과 그들의 형제들과 또한 엘마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조람인들을 회개로 인도한 후, 제이라헤몰라 땅으로 돌아왔으며, 또 회개로 인도된 자들은 모두 저들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여어손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위한 땅을 가지며, 또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었더라.

15 이제 엘마는 그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전쟁과 유혈과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으로 인하여 비통하게 되었고, 또 각 성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갔었은즉, 곧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말씀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성을 내기 시작함을 보고, 그의 마음은 심히 슬퍼졌더라.

16 그리하여 그는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따로 그의 지시를 주고자, 그들로 함께 모이게 하였나니, 그 자신의 기록대로 그들에게 준 명령의 기사가 우리에게 있느니라.

Now this did stir up the Zoramites to anger against the people of Ammon, and they began to mix with the Lamanites and to stir them up also to anger against them.

And thus the Zoramites and the Lamanites began to make preparations for war against the people of Ammon, and also against the Nephites.

And thus ended the seven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e people of Ammon departed out of the land of Jershon, and came over into the land of Melek, and gave place in the land of Jershon for the armies of the Nephites, that they might contend with the armies of the Lamanites and the armies of the Zoramites; and thus commenced a war betwixt the Lamanites and the Nephites, in the eigh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an account shall be given of their wars hereafter.

And Alma, and Ammon, and their brethren, and also the two sons of Alma returned to the land of Zarahemla, after having been instruments in the hands of God of bringing many of the Zoramites to repentance; and as many as were brought to repentance were driven out of their land; but they have lands for their inheritance in the land of Jershon, and they have taken up arms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wives, and children, and their lands.

Now Alma, being grieved for the iniquity of his people, yea for the wars, and the bloodsheds, and the contentions which were among them; and having been to declare the word, or sent to declare the word, among all the people in every city; and seeing that the hearts of the people began to wax hard, and that they began to be offended because of the strictness of the word, his heart was exceedingly sorrowful.

Therefore, he caused that his sons should be gathered together, that he might give unto them every one his charge, separately, concerning the things pertaining unto righteousness. And we have an account of his commandments, which he gave unto them according to his own record.

## 엘마서 36

## Alma 36

- 1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네게 맹세하거니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이니라.
- 2 나는 네가 내가 행한 대로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기 바라노니, 이는 그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이라. 그러나 그가 정녕 그들을 그들의 고난 중에 건지셨느니라.
- 3 또 이제 내 아들 힐라맨아, 보라 네가 네 젊음의 때에 있은즉, 그러므로 내가 네게 구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게서 배우라. 이는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
- 4 또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현세적인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고, 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라.
- 5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의 입으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셨나니,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의 합당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니라.
- 6 이는 내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느니라.
- 7 또 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한즉, 마치 우레 소리 와도 같았나니, 우리 발 아래 온 땅이 흔들렸고, 또 우리가 땅에 엎드러졌나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이라.
- 8 그러나 보라, 그 소리가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한 고로, 내가 일어나 서서, 천사를 쳐다보았느니라.

My son, give ear to my words; for I swear unto you,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I would that ye should do as I have done, in remembering the captivity of our fathers; for they were in bondage, and none could deliver them except it was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he surely did deliver them in their afflictions.

And now, O my son Helaman, behold, thou art in thy youth, and therefore, I beseech of thee that thou wilt hear my words and learn of me; for I do know that whosoever shall put their trust in God shall be supported in their trials, and their troubles, and their afflictions, and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And I would not that ye think that I know of myself—not of the temporal but of the spiritual, not of the carnal mind but of God.

Now, behold, I say unto you, if I had not been born of God I should not have known these things; but God has, by the mouth of his holy angel, made these things known unto me, not of any worthiness of myself;

For I went about with the sons of Mosiah, seeking to destroy the church of God; but behold, God sent his holy angel to stop us by the way.

And behold, he spake unto us, as it were the voice of thunder, and the whole earth did tremble beneath our feet; and we all fell to the earth, for the fear of the Lord came upon us.

But behold, the voice said unto me: Arise. And I arose and stood up, and beheld the angel.



- 9 이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스스로는 멸망 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땅에 엎드러졌고, 내가 내 입을 열지 못하고, 내 사지를 쓰지 못한 것이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이었느니라.
- 11 또 천사가 내게 더 말하였으되, 내 형제들은 들었으나, 나는 듣지 못했나니, 이는 내가—그 말 곧 네가 스스로는 멸망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멸망당하지나 않을까 하여 심히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려져 더 이상 듣지 못하였음이니라.
- 12 그러나 내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음이라.
- 13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 14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며, 아니 그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그뿐 아니라 요컨대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 15 오 나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으려, 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내가 추방되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하고 내가 생각하였느니라.
- 16 이에 이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내가 실로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And he said unto me: If thou wilt of thyself be destroyed, seek no more to destroy the church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I fell to the earth; and it was for the space of three days and three nights that I could not open my mouth, neither had I the use of my limbs.

And the angel spake more things unto me, which were heard by my brethren, but I did not hear them; for when I heard the words—If thou wilt be destroyed of thyself, seek no more to destroy the church of God—I was struck with such great fear and amazement lest perhaps I should be destroyed, that I fell to the earth and I did hear no more.

But I was racked with eternal torment, for my soul was harrowed up to the greatest degree and racked with all my sins.

Yea, I did remember all my sins and iniquities, for which I was tormented with the pains of hell; yea, I saw that I had rebelled against my God, and that I had not kept his holy commandments.

Yea, and I had murdered many of his children, or rather led them away unto destruction; yea, and in fine so great had been my iniquities, that the very thought of coming into the presence of my God did rack my soul with inexpressible horror.

Oh, thought I, that I could be banished and become extinct both soul and body, that I might not be brought to stand in the presence of my God, to be judged of my deeds.

And now, for three days and for three nights was I racked, even with the pains of a damned soul.

And it came to pass that as I was thus racked with torment, while I was harrowed up by the memory of my many sins, behold, I remembered also to have heard my father prophesy unto the people concerning the coming of one Jesus Christ, a Son of God, to atone for the sins of the world.

18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19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0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21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아, 나의 고통같이 것처럼 격심하고 것처럼 쓰디쓴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 그뿐 아니라 다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아, 한편으로 나의 기쁨같이 것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22 참으로 나는 우리 조상 리하이가 본 것같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나니, 참으로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

23 그러나 보라, 내 사지가 도로 그 힘을 얻으며, 내가 내 발로 서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느니라.

24 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

25 또한 이제 보라, 내 아들이아,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

26 이는 그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보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내가 맛본 것같이 맛보며, 내가 본 것같이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아는 것같이, 내가 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나니,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Now, as my mind caught hold upon this thought, I cried within my heart: O Jesus, thou Son of God, have mercy on me, who am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am encircled about by the everlasting chains of death.

And now, behold, when I thought this, I could remember my pains no more; yea, I was harrowed up by the memory of my sins no more.

And oh, what joy, and what marvelous light I did behold; yea, my soul was filled with joy as exceeding as was my pain!

Yea, I say unto you, my son, that there could be nothing so exquisite and so bitter as were my pains. Yea, and again I say unto you, my son, that on the other hand, there can be nothing so exquisite and sweet as was my joy.

Yea, methought I saw, even as our father Lehi saw, God sitting upon his throne, surrounded with numberless concourses of angels, in the attitude of singing and praising their God; yea, and my soul did long to be there.

But behold, my limbs did receive their strength again, and I stood upon my feet, and did manifest unto the people that I had been born of God.

Yea, and from that time even until now, I have labored without ceasing, that I might bring souls unto repentance; that I might bring them to taste of the exceeding joy of which I did taste; that they might also be born of God, and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Yea, and now behold, O my son, the Lord doth give me exceedingly great joy in the fruit of my labors;

For because of the word which he has imparted unto me, behold, many have been born of God, and have tasted as I have tasted, and have seen eye to eye as I have seen; therefore they do know of these things of which I have spoken, as I do know; and the knowledge which I have is of God.

27 또 나는 지금까지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옥에서와, 결박에서와,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또한 나는 이제도 그를 신뢰하노니, 그가 여전히 나를 건지시리라.

28 또 나는 그가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사,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아노라. 또한 내가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그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시고, 애굽인들을 홍해에 삼키시고, 또 그의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으며, 또한 시시로 그들을 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음이니라.

29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또한 그의 영원하신 권능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시로 그들을 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나니, 나는 그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항상 기억 속에 간직해 왔느니라. 그러한즉 너희도 내가 한 것같이, 그들의 사로잡혔던 것을 마땅히 기억 속에 간직할지니라.

30 그러나 보라, 내 아들이,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을, 내가 아는 것같이, 너도 알아야 할 것임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임을 내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는 그의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And I have been supported under trials and troubles of every kind, yea, and in all manner of afflictions; yea, God has delivered me from prison, and from bonds, and from death; yea, and I do put my trust in him, and he will still deliver me.

And I know that he will raise me up at the last day, to dwell with him in glory; yea, and I will praise him forever, for he has brought our fathers out of Egypt, and he has swallowed up the Egyptians in the Red Sea; and he led them by his power into the promised land; yea, and he has delivered them out of bondage and captivity from time to time.

Yea, and he has also brought our fathers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he has also, by his everlasting power, delivered them out of bondage and captivity, from time to time even down to the present day; and I have always retained in remembrance their captivity; yea, and ye also ought to retain in remembrance, as I have done, their captivity.

But behold, my son, this is not all; for ye ought to know as I do know,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ye ought to know also, that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be cut off from his presence. Now this is according to his word.

## 앨마서 37

- 1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 힐라맨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내가 맡아 온 기록들을 취하라.
- 2 그리고 내가 또 네게 명하노니 너는 니파이의 판에 내가 해 온 대로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내가 간수해 온 이 모든 것을, 내가 간수해 온 것같이 거룩히 간수하라. 이는 이것이 간수되는 것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서임이라.
- 3 또 이 새긴 것들을 담고 있고, 거룩한 경전의 기록이 있으며, 태초로부터의 우리 선조들의 족보가 실려있는 이 놋쇠판은—
- 4 보라, 우리 조상들이 예언하기를 이것은 간수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갈 것이며,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그에 실린 비밀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주의 손으로 간수되고 보존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 5 또 이제 보라, 이 판이 만일 보존된다고 하면 그 광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니, 과연 그 광채를 유지할 것이며, 참으로 또한 성스러운 기록을 담고 있는 모든 판이 다 그러하리라.
- 6 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 7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고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 8 또 이제 이러한 것이 보존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였나니, 이는 보라, 이러한 것이 이 백성의 기억을 넓혀 주었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음이라.

## Alma 37

And now, my son Helaman, I command you that ye take the records which have been entrusted with me;

And I also command you that ye keep a record of this people, according as I have done, upon the plates of Nephi, and keep all these things sacred which I have kept, even as I have kept them; for it is for a wise purpose that they are kept.

And these plates of brass, which contain these engravings, which have the records of the holy scriptures upon them, which have the genealogy of our forefathers, even from the beginning—

Behold, it has been prophesied by our fathers, that they should be kept and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be kept and preserved by the hand of the Lord until they should go forth unto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that they shall know of the mysteries contained thereon.

And now behold, if they are kept they must retain their brightness; yea, and they will retain their brightness; yea, and also shall all the plates which do contain that which is holy writ.

Now ye may suppose that this is foolishness in me; but behold I say unto you, that by small and simple things are great things brought to pass; and small means in many instances doth confound the wise.

And the Lord God doth work by means to bring about his great and eternal purposes; and by very small means the Lord doth confound the wise and bringeth about the salvation of many souls.

And now, it has hitherto been wisdom in God that these things should be preserved; for behold, they have enlarged the memory of this people, yea, and convinced many of the error of their ways, and brought them to the knowledge of their God unto the salvation of their souls.

- 9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판에 있는 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것처럼 많은 수천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그릇된 전통을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이 기록과 저들의 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였나니, 곧 그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였느니라.
- 10 그런즉 이것이 수천의 레이맨인과 그뿐 아니라 또한 목이 뻣뻣한 수천의 우리 형제들, 곧 죄와 불의 가운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니파이인들을,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방편이 될지 누가 아느냐?
- 11 이제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리라.
- 12 그리고 만일 내가 다만 이것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니, 이는 그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심이며,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임이니라.
- 13 오 기억하라, 내 아들 헬라맨아,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기억하라. 또 그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진대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그러나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 14 또 이제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네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라. 이는 거룩한 것이요, 그가 거룩히 지켜 오신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심이니라.
- 15 또 이제 보라, 내가 예언의 영으로 네게 말하노니,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보라, 거룩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게서 빼앗아가실 것이요, 너는 사탄에게 넘기우리니, 그가 너를 바람 앞의 겨같이 체질하리라.

Yea, I say unto you, were it not for these things that these records do contain, which are on these plates, Ammon and his brethren could not have convinced so many thousands of the Lamanites of the incorrect tradition of their fathers; yea, these records and their words brought them unto repentance; that is, they brought them to the knowledge of the Lord their God, and to rejoice in Jesus Christ their Redeemer.

And who knoweth but what they will be the means of bringing many thousands of them, yea, and also many thousands of our stiffnecked brethren, the Nephites, who are now hardening their hearts in sin and iniquities, to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Now these mysteries are not yet fully made known unto me; therefore I shall forbear.

And it may suffice if I only say they are preserved for a wise purpose, which purpose is known unto God; for he doth counsel in wisdom over all his works, and his paths are straight, and his course is one eternal round.

O remember, remember, my son Helaman, how strict are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e said: If ye will keep my commandments ye shall prosper in the land—but if ye keep not his commandments ye shall be cut off from his presence.

And now remember, my son, that God has entrusted you with these things, which are sacred, which he has kept sacred, and also which he will keep and preserve for a wise purpose in him, that he may show forth his power unto future generations.

And now behold, I tell you by the spirit of prophecy, that if ye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God, behold, these things which are sacred shall be taken away from you by the power of God, and ye shall be delivered up unto Satan, that he may sift you as chaff before the wind.

- 16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이것들을 가지고 행하기를 주께서 네게 명하시는 바대로 하면, (이는 네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든지 모든 일을 주께 간구해야 함이라) 보라, 땅이나 지옥의 능력이 이것들을 네게서 빼앗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므로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심이니라.
- 17 이는 그가 너희에게 하실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임이니, 이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이라.
- 18 이는 그가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 이것들을 보전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이니라.
- 19 또 이제 보라, 한 가지 목적을 그가 이루셨으니, 그 결과 수천의 레이맨인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되었느니라. 또 그가 이것들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가 또한 이것들로 장래 세대에게 여전히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러므로 이것들은 보존될 것이니라.
- 20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아들 힐라맨아, 너는 내 말을 다 이루기에 부지런할지며, 또 너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 21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스몰넉 장의 판에 관하여 네게 말하리니, 너는 그 판들을 간수하라. 그리하여 비밀과 어둠의 일과 그들의 은밀한 일들 곧 멸망당한 저 백성의 은밀한 일들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게 하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살인과 강탈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그들의 모든 간악함과 가증함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게 할지며, 또한 너는 이 해석기들을 보전하라.
- 22 이는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이 암흑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참으로 은밀한 살인과 가증함을 행하기 시작한 것을 보셨음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면에서 멸망당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if ye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do with these things which are sacred according to that which the Lord doth command you, (for you must appeal unto the Lord for all things whatsoever ye must do with them) behold, no power of earth or hell can take them from you, for God is powerful to the fulfilling of all his words.

For he will fulfil all his promises which he shall make unto you, for he has fulfilled his promises which he has made unto our fathers.

For he promised unto them that he would preserve these things for a wise purpose in him, that he might show forth his power unto future generations.

And now behold, one purpose hath he fulfilled, even to the restoration of many thousands of the Lamanites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he hath shown forth his power in them, and he will also still show forth his power in them unto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they shall be preserved.

Therefore I command you, my son Helaman, that ye be diligent in fulfilling all my words, and that ye be diligent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as they are written.

And now, I will speak unto you concerning those twenty-four plates, that ye keep them, that the mysteries and the works of darkness, and their secret works, or the secret works of those people who have been destroyed, may be made manifest unto this people; yea, all their murders, and robbings, and their plunderings, and all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may be made manifest unto this people; yea, and that ye preserve these interpreters.

For behold, the Lord saw that his people began to work in darkness, yea, work secret murders and abominations; therefore the Lord said, if they did not repent they should be destroyed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23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어, 나를 섬기는 내 백성에게 드러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의 행위, 곧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어둠의 일과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24 또 이제 내 아들이, 이 해석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비된 것이니라, 곧 그가 하신 말씀이니 이르시되,

25 내가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낼 것이며,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며, 또 그들의 은밀함과 가증함을 이후에 이 땅을 소유할 모든 국민에게 다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26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나니, 참으로 그들의 은밀한 가증함이 어둠에서 드러나 우리에게 알려졌느니라.

27 또 이제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그들이 은밀한 가증함으로 행한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맹약을 모두 간직하고 또한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기사를 모두 너는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아서, 저들로 이를 알지 못하게 하라. 두렵건대 혹시라도 저들 역시 어둠에 떨어져 멸망당할까 하노라.

28 이는 보라, 이 온 땅에 저주가 있어, 저 모든 어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 곧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을 때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29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의 이 은밀한 계획을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가증함만을 너는 저들에게 알릴지며, 또 너는 그 같은 간악함과 가증함과 살인을 극히 꺼리도록 저들을 가르칠지며, 또 너는 저들에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악함과 가증한 일과 살인의 연고로 멸망당했음을 또한 가르칠지니라.

And the Lord said: I will prepare unto my servant Gazelem, a stone, which shall shine forth in darkness unto light, that I may discover unto my people who serve me, that I may discover unto them the works of their brethren, yea, their secret works, their works of darkness, and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now, my son, these interpreters were prepared that the word of God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ake, saying:

I will bring forth out of darkness unto light all their secret works and their abominations; and except they repent I will destroy them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and I will bring to light all their secrets and abominations, unto every nation that shall hereafter possess the land.

And now, my son, we see that they did not repent; therefore they have been destroyed, and thus far the word of God has been fulfilled; yea, their secret abominations have been brought out of darkness and made known unto us.

And now, my son, I command you that ye retain all their oaths, and their covenants, and their agreements in their secret abominations; yea, and all their signs and their wonders ye shall keep from this people, that they know them not, lest peradventure they should fall into darkness also and be destroyed.

For behold, there is a curse upon all this land, that destruction shall come upon all those workers of darkness,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when they are fully ripe; therefore I desire that this people might not be destroyed.

Therefore ye shall keep these secret plans of their oaths and their covenants from this people, and only their wickedness and their murders and their abominations shall ye make known unto them; and ye shall teach them to abhor such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murders; and ye shall also teach them that these people were destroyed on account of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their murders.

30 이는 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러 그들 가운데 왔던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이에 그들이 살해한 선지자들의 피가 그 살해자인 그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주 저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어둠과 비밀 결사의 일꾼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1 참으로 그뿐 아니라 이 땅은 어둠과 비밀 결사의 일꾼들에게는 영원히 저주받은 바 될지니,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32 또 이제 내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기억하라. 저 은밀한 계획을 이 백성에게 말기지 말고, 그들에게 죄와 불의에 대한 영원한 증오를 가르치라.

33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34 그들을 가르쳐 선한 일에 결코 지치지 말게 하고, 다만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이는 그러한 자라야 자기 영혼에 안식을 찾을 것임이니라.

35 오 기억하라, 내 아들이,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36 참으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네 모든 도움을 구하라. 참으로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37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

For behold, they murdered all the prophets of the Lord who came among them to declare unto them concerning their iniquities; and the blood of those whom they murdered did cry unto the Lord their God for vengeance upon those who were their murderers; and thus the judgments of God did come upon these workers of darkness and secret combinations.

Yea, and cursed be the land forever and ever unto those workers of darkness and secret combinations, even unto destruction, except they repent before they are fully ripe.

And now, my son, remember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trust not those secret plans unto this people, but teach them an everlasting hatred against sin and iniquity.

Preach unto them repentance, and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teach them to humble themselves and to be meek and lowly in heart; teach them to withstand every temptation of the devil, with their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Teach them to never be weary of good works, but to be meek and lowly in heart; for such shall find rest to their souls.

O, remember, my son, and learn wisdom in thy youth; yea, learn in thy youth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a, and cry unto God for all thy support; yea, let all thy doings be unto the Lord, and whithersoever thou goest let it be in the Lord; yea, let all thy thoughts be directed unto the Lord; yea, let the affections of thy heart be placed upon the Lord forever.

Counsel with the Lord in all thy doings, and he will direct thee for good; yea, when thou liest down at night lie down unto the Lord, that he may watch over you in your sleep; and when thou risest in the morning let thy heart be full of thanks unto God; and if ye do these things, ye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38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우리 조상들이 공, 곧 지시기라 칭한 것—즉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리아 호나라 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나침반이요, 주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라—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느니라.

39 보라, 것처럼 신묘한 솜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또 보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 주기 위해 예비되었더라.

40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을 위해 작동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침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할 길을 가리키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으면, 보라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더라.

41 그러할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고로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였으며,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으며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42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으니, 곧 다시 말해 곧바른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43 또 이제 내 아들이, 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림자가 없지 아니함을 네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게을리 한즉 (이제 이러한 일은 현세적인 것이라)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같이, 영적인 일도 그러함이나니라.

44 이는 보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 네게 가리켜 줄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 그들에게 가리켜 준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만큼이나 쉬움이나니라.

And now, my son, I have somewhat to say concerning the thing which our fathers call a ball, or director—or our fathers called it Liahona, which is, being interpreted, a compass; and the Lord prepared it.

And behold, there cannot any man work after the manner of so curious a workmanship. And behold, it was prepared to show unto our fathers the course which they should travel in the wilderness.

And it did work for them according to their faith in God; therefore, if they had faith to believe that God could cause that those spindles should point the way they should go, behold, it was done; therefore they had this miracle, and also many other miracles wrought by the power of God, day by day.

Nevertheless, because those miracles were worked by small means it did show unto them marvelous works. They were slothful, and forgot to exercise their faith and diligence and then those marvelous works ceased, and they did not progress in their journey;

Therefore, they tarried in the wilderness, or did not travel a direct course, and were afflicted with hunger and thirst,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s.

And now, my son, I would that ye should understand that these things are not without a shadow; for as our fathers were slothful to give heed to this compass (now these things were temporal) they did not prosper; even so it is with things which are spiritual.

For behold, it is as easy to give heed to the word of Christ, which will point to you a straight course to eternal bliss, as it was for our fathers to give heed to this compass, which would point unto them a straight course to the promised land.

45 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일에 예표가 있지 아니하냐? 이는 이 지시기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 진로를 따름으로써 약속된 땅에 이르게 하였음같이, 정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임이니라.

46 오 내 아들이, 길이 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지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러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보면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음이니, 우리에게도 그러하도다. 길은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불진대 영원히 살리로다.

47 또 이제 내 아들이,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또 진지하여라. 내 아들이, 잘 있으라.

And now I say, is there not a type in this thing? For just as surely as this director did bring our fathers, by following its course, to the promised land, shall the words of Christ, if we follow their course, carry us beyond this vale of sorrow into a far better land of promise.

O my son, do not let us be slothful because of the easiness of the way; for so was it with our fathers; for so was it prepared for them, that if they would look they might live; even so it is with us. The way is prepared, and if we will look we may live forever.

And now, my son, see that ye take care of these sacred things, yea, see that ye look to God and live. Go unto this people and declare the word, and be sober. My son, farewell.

## 엘마서 38

## Alma 38

- 1 내 아들이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헬라맨에게 일렀던 것같이 네게도 이룸이니,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이니라.
- 2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야, 너의 굳건함과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내가 네게서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노니, 이는 내가 젊었을 때 주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네가 그의 계명 지키기를 계속할 것을 내가 바랍이다. 이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음이니라.
- 3 내 아들이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조램인 백성들 가운데서 보인 너의 충실함과 너의 부지런함과 너의 인내와 너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이미 네게서 큰 기쁨을 얻었느니라.
- 4 이는 네가 결박되어 있던 일을 내가 앎이요, 그뿐 아니라 네가 말씀을 위하여 돌로 맞은 일 또한 내가 앎이다. 네가 또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았음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연고니, 이제 너는 주께서 너를 건지신 줄을 아느니라.
- 5 또 이제 내 아들 시블론아, 나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네가 네 시험과 네 곤경과 네 고난에서 건져 내심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 6 이제 내 아들이야,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이러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이는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 7 그러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 가운데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의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을 내게 선포하게 하셨나니, 과연 내가 한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고, 그가 나와 말한즉, 그의 음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그 음성은 온 땅을 흔들었느니라.

My son, give ear to my words, for I say unto you, even as I said unto Helaman, that inasmuch as ye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prosper in the land; and inasmuch as ye will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ye shall be cut off from his presence.

And now, my son, I trust that I shall have great joy in you, because of your steadiness and your faithfulness unto God; for as you have commenced in your youth to look to the Lord your God, even so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in keeping his commandments; for blessed is he that endureth to the end.

I say unto you, my son, that I have had great joy in thee already, because of thy faithfulness and thy diligence, and thy patience and thy long-suffering among the people of the Zoramites.

For I know that thou wast in bonds; yea, and I also know that thou wast stoned for the word's sake; and thou didst bear all these things with patience because the Lord was with thee; and now thou knowest that the Lord did deliver thee.

And now my son, Shiblon,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as much as ye shall put your trust in God even so much ye shall be delivered out of your trials, and your troubles, and your afflictions, and ye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Now, my son, I would not that ye should think that I know these things of myself, but it is the Spirit of God which is in me which maketh these things known unto me; for if I had not been born of God I should not have known these things.

But behold, the Lord in his great mercy sent his angel to declare unto me that I must stop the work of destruction among his people; yea, and I have seen an angel face to face, and he spake with me, and his voice was as thunder, and it shook the whole earth.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독히 쓴 영혼의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고,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

9 또 이제 내 아들이, 내가 이를 네게 이룬 것은 너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임을 내게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그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시니라. 보라, 그는 진리와 의의 말씀이시니라.

10 또 이제 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같이 나는 네가 가르치기를 계속하기 바라노라. 또 나는 네가 범사에 부지런하고 절제하기를 바라노라.

11 주의하여 네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네 스스로의 지혜나, 네 많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

12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또한 주의하여 네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라.

13 조램인들이 하듯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또 자기의 지혜를 칭찬받기 위하여 기도함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14 하나님이지여, 우리가 우리 형제들보다 나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주여 나의 합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고, 자비하신 가운데 내 형제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라—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합당하지 못함을 늘 인정하라.

15 그리고 주께서 네 영혼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너를 영접하사 그의 나라에 들이시고 평안히 앉게 하시기를 비노라. 내 아들이, 이제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진지하여라. 내 아들이, 잘 있으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most bitter pain and anguish of soul; and never, until I did cry out unto the Lord Jesus Christ for mercy, did I receive a remission of my sins. But behold, I did cry unto him and I did find peace to my soul.

And now, my son, I have told you this that ye may learn wisdom, that ye may learn of me that there is no other way or means whereby man can be saved, only in and through Christ. Behold, he is the life and the light of the world. Behold, he is the word of truth and righteousness.

And now, as ye have begun to teach the word even so I would that ye should continue to teach; and I would that ye would be diligent and temperate in all things.

See that ye are not lifted up unto pride; yea, see that ye do not boast in your own wisdom, nor of your much strength.

Use boldness, but not overbearance; and also see that ye bridle all your passions, that ye may be filled with love; see that ye refrain from idleness.

Do not pray as the Zoramites do, for ye have seen that they pray to be heard of men, and to be praised for their wisdom.

Do not say: O God, I thank thee that we are better than our brethren; but rather say: O Lord, forgive my unworthiness, and remember my brethren in mercy—yea, acknowledge your unworthiness before God at all times.

And may the Lord bless your soul, and receive you at the last day into his kingdom, to sit down in peace. Now go, my son, and teach the word unto this people. Be sober. My son, farewell.

### 엘마서 39

### Alma 39

- 1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네게는 내가 네 형에게 말한 것보다 말할 것이 얼마간 더 있나니, 보라, 너는 네 형의 굳건함과 그의 충실함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그가 부지런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가 네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 2 이는 내가 조람인 백성 가운데서 네 형이 그러한 것만큼 내 말에 유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내가 네게 대하여 책망할 것이 이것이니, 너는 계속하여 나아가 네 힘과 네 지혜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 3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너는 나를 비통하게 하는 일을 하였나니, 이는 내가 네 직무를 저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 레이맨인들의 경계 가운데 있는 시론 땅으로 건너갔음이니라.
- 4 참으로 그는 많은 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나, 내 아들이, 그것이 네게 변명이 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네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였어야 했느니라.
- 5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 6 이는 보라, 만일 네가 성신이 한 번 네 속에 거하실 곳을 가지신 후에 그를 부인하고, 또 네가 그를 부인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보라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니라.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거스려 살인하면,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내 아들이,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 7 또 이제 내 아들이, 나는 네가 것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 8 그러나 보라, 네가 하나님께는 네 범죄를 숨길 수 없나니,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And now, my son, I have somewhat more to say unto thee than what I said unto thy brother; for behold, have ye not observed the steadiness of thy brother, his faithfulness, and his diligence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Behold, has he not set a good example for thee?

For thou didst not give so much heed unto my words as did thy brother, among the people of the Zoramites. Now this is what I have against thee; thou didst go on unto boasting in thy strength and thy wisdom.

And this is not all, my son. Thou didst do that which was grievous unto me; for thou didst forsake the ministry, and did go over into the land of Siron among the borders of the Lamanites, after the harlot Isabel.

Yea, she did steal away the hearts of many; but this was no excuse for thee, my son. Thou shouldst have tended to the ministry wherewith thou wast entrusted.

Know ye not, my son, that these things are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the Lord; yea, most abominable above all sins save it be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 or denying the Holy Ghost?

For behold, if ye deny the Holy Ghost when it once has had place in you, and ye know that ye deny it, behold, this is a sin which is unpardonable; yea, and whosoever murdereth against the light and knowledge of God, it is not easy for him to obtain forgiveness; yea, I say unto you, my son, that it is not easy for him to obtain a forgiveness.

And now, my son, I would to God that ye had not been guilty of so great a crime. I would not dwell upon your crimes, to harrow up your soul, if it were not for your good.

But behold, ye cannot hide your crimes from God; and except ye repent they will stand as a testimony against you at the last day.

- 9 이제 내 아들이,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기 바라노라. 이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오 기억하고, 이를 짊어지며,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라.
- 10 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 형들과 의논하기로 하라. 이는 보라 네가 젊고, 네 형들의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니, 그들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라.
- 11 네 스스로 헛되거나 어리석은 아무 일에도 이끌려 감을 용납하지 말라. 악마로 하여금 다시는 네 마음을 이끌어 가서 저 간악한 창녀들을 따라가게 하지 말라. 보라, 내 아들이, 네가 조렘인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끼쳤는지, 이는 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12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죄악을 삼가라.
- 13 네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악을 행하도록 이끌어가지 말고, 그보다는 그들에게로 돌아가 네 잘못과 네가 행한 저 비행을 시인하라.
- 14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는 보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이니라.
- 15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나는 네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세상의 죄를 제하기 위하여 정녕 오실 이는 그이시니, 참으로 그가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 16 또 이제 내 아들이, 이것이 내가 부름 받은 직무였나니, 곧 이 기쁜 소식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는즉, 곧 다시 말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며 그가 오실 때 말씀을 듣도록 그들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Now my son, I would that ye should repent and forsake your sins, and go no more after the lusts of your eyes, but cross yourself in all these things; for except ye do this ye can in nowise inherit the kingdom of God. Oh, remember, and take it upon you, and cross yourself in these things.

And I command you to take it upon you to counsel with your elder brothers in your undertakings; for behold, thou art in thy youth, and ye stand in need to be nourished by your brothers. And give heed to their counsel.

Suffer not yourself to be led away by any vain or foolish thing; suffer not the devil to lead away your heart again after those wicked harlots. Behold, O my son, how great iniquity ye brought upon the Zoramites; for when they saw your conduct they would not believe in my words.

And now the Spirit of the Lord doth say unto me: Command thy children to do good, lest they lead away the hearts of many people to destruction; therefore I command you, my son, in the fear of God, that ye refrain from your iniquities;

That ye turn to the Lord with all your mind, might, and strength; that ye lead away the hearts of no more to do wickedly; but rather return unto them, and acknowledge your faults and that wrong which ye have done.

Seek not after riches nor the vain things of this world; for behold, you cannot carry them with you.

And now, my son, I would say somewhat unto you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Behold, I say unto you, that it is he that surely shall come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yea, he cometh to declare glad tidings of salvation unto his people.

And now, my son, this was the ministry unto which ye were called, to declare these glad tidings unto this people, to prepare their minds; or rather that salvation might come unto them, that they may prepare the minds of their children to hear the word at the time of his coming.

17 또 이제 내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리라. 보라, 이러한 일이 왜 그렇게 오래 전에 알려져야 하는지 네가 기이히 여기도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때의 영혼이 그가 오실 때의 영혼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

18 구속의 계획이 이 백성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이나 필요하지 아니하냐?

19 주께서 이때에 그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심이 우리 자손들에게나, 또는 그가 오신 이후만큼이나 쉽지 아니하냐?

And now I will ease your mind somewhat on this subject. Behold, you marvel why these things should be known so long beforehand. Behold, I say unto you, is not a soul at this time as precious unto God as a soul will be at the time of his coming?

Is it not as necessary that the plan of redemption should be made known unto this people as well as unto their children?

Is it not as easy at this time for the Lord to send his angel to declare these glad tidings unto us as unto our children, or as after the time of his coming?

## 앨마서 40

- 1 이제 내 아들이야, 여기 내가 네게 얼마간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네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겠음이라.
- 2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후까지는 부활이 없느니라—곧 다른 말로 내가 하고자 하노니, 곧 이 죽어야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느니라.
- 3 보라,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시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 아들이야 부활은 아직 아니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네게 밝혀 주거니와, 그러할지라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비밀이 많이 있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쭙었던 한 가지 일을 네게 보여 주노니—이는 부활에 관해서이니라.
- 4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아올 때가 정해져 있느니라. 이제 이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를 알고 계시느니라.
- 5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아올 때가 한 번 있든지, 또는 두 번째가 있든지, 또는 세 번째가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요, 나로서는 일이 이러함을—곧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함이라.
- 6 이제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 사이에 필연 공백이 있으리라.
- 7 이에 이제 내가 묻고자 하노니 이 죽음의 때로부터 부활을 위해 정해진 때까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 8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한 번 이상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나니, 이는 모두가 한 번에 죽지 아니함이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니,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시간은 다만 사람에게 측정함이 되느니라.

## Alma 40

Now my son, here is somewhat more I would say unto thee; for I perceive that thy mind is worried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or, I would say, in other words, that this mortal does not put on immortality, this corruption does not put on incorruption—until after the coming of Christ.

Behold, he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ut behold, my son, the resurrection is not yet. Now, I unfold unto you a mystery; nevertheless, there are many mysteries which are kept, that no one knoweth them save God himself. But I show unto you one thing which I have inquired diligently of God that I might know—that i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Behold, there is a time appointed that all shall come forth from the dead. Now when this time cometh no one knows; but God knoweth the time which is appointed.

Now, whether there shall be one time, or a second time, or a third time, that men shall come forth from the dead, it mattereth not; for God knoweth all these things; and it sufficeth me to know that this is the case—that there is a time appointed that all shall rise from the dead.

Now there must needs be a space betwixt the time of death and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And now I would inquire what becometh of the souls of men from this time of death to the time appointed for the resurrection?

Now whether there is more than one time appointed for men to rise it mattereth not; for all do not die at once, and this mattereth not; all is as one day with God, and time only is measured unto men.



- 9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있고, 죽음의 때와 부활 사이에는 공백이 있느니라. 이제 이 시간의 공백에 관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주께 여쭙었던 것이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라.
- 10 또 모두가 일어날 때가 이르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때를 모두 알고 계신 줄을 알게 되리라.
- 11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 12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 13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 14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 15 이제 부활 이전, 영혼의 이 행복의 상태와 이 비참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 이해한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참으로 나는 이미 한 말대로 영이나 영혼을 일으킴과 그들을 행복이나 비참에 처하게 하는 그것을, 부활이라 칭하여도 가한 줄로 인정하노라.

Therefore, there is a time appointed unto men that they shall rise from the dead; and there is a space between the time of death and the resurrection. And now, concerning this space of time, what becometh of the souls of men is the thing which I have inquired diligently of the Lord to know; and this is the thing of which I do know.

And when the time cometh when all shall rise, then shall they know that God knoweth all the times which are appointed unto man.

Now, concerning the state of the soul between death and the resurrection—Behold, it has been made known unto me by an angel, that the spirits of all men, as soon as they are departed from this mortal body, yea, the spirits of all men, whether they be good or evil, are taken home to that God who gave them life.

And then shall it come to pass, that the spirits of those who are righteous are received into a state of happiness, which is called paradise, a state of rest, a state of peace, where they shall rest from all their troubles and from all care, and sorrow.

And then shall it come to pass, that the spirits of the wicked, yea, who are evil—for behold, they have no part nor portion of the Spirit of the Lord; for behold, they chose evil works rather than good; therefore the spirit of the devil did enter into them, and take possession of their house—and these shall be cast out into outer darkness; there shall be weeping, and wailing, and gnashing of teeth, and this because of their own iniquity, being led captive by the will of the devil.

Now this is the state of the souls of the wicked, yea, in darkness, and a state of awful, fearful looking for the fiery indignation of the wrath of God upon them; thus they remain in this state, as well as the righteous in paradise, until the time of their resurrection.

Now, there are some that have understood that this state of happiness and this state of misery of the soul, before the resurrection, was a first resurrection. Yea, I admit it may be termed a resurrection, the raising of the spirit or the soul and their consignment to happiness or misery,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16 또 보라 다시 일렸으되, 첫째 부활,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였으니,

17 이제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영혼의 부활과 이들이 행복이나 비참에 처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 뜻하는 바라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느니라.

18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그것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을 자들의 영혼이 육신과 재결합함을 뜻하는 것이니라.

19 이제 앞서 말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재결합되는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두 나아오는 일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는 자들의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족할지니라.

20 이제 내 아들이, 나는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이룬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를 내 의견으로 주노니, 의인들의 영혼과 육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 때에 재결합되느니라.

21 그러나 그것이 그의 부활 때인지 그 이후인지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만큼 내가 말하노니, 곧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이에는 공백이 있고, 영혼은 행복하거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죽은 자들이 나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재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이르리라.

22 참으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저 일들의 회복을 이루느니라.

23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

24 또 이제 내 아들이, 이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그 회복이니—

And behold, again it hath been spoken, that there is a first resurrection, a resurrection of all those who have been, or who are, or who shall be, down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from the dead.

Now, we do not suppose that this first resurrection, which is spoken of in this manner, can be the resurrection of the souls and their consignment to happiness or misery. Ye cannot suppose that this is what it meaneth.

Behold, I say unto you, Nay; but it meaneth the reuniting of the soul with the body, of those from the days of Adam down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Now, whether the souls and the bodies of those of whom has been spoken shall all be reunited at once, the wicked as well as the righteous, I do not say; let it suffice, that I say that they all come forth; or in other words, their resurrection cometh to pass before the resurrection of those who die after the resurrection of Christ.

Now, my son, I do not say that their resurrection cometh at the resurrection of Christ; but behold, I give it as my opinion, that the souls and the bodies are reunited, of the righteous, at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his ascension into heaven.

But whether it be at his resurrection or after, I do not say; but this much I say, that there is a space between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a state of the soul in happiness or in misery until the time which is appointed of God that the dead shall come forth, and be reunited, both soul and body, and be brought to stand before God, an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Yea, this bringeth about the restoration of those things of which has been spoken by the mouths of the prophets.

The soul shall be restored to the body, and the body to the soul; yea, and every limb and joint shall be restored to its body; yea, even a hair of the head shall not be lost; but all thing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oper and perfect frame.

And now, my son, this is the restoration of which has been spoken by the mouths of the prophets—

25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발하리라.

26 그러나 보라, 악인에게는 참담한 죽음이 임하나  
니, 이는 그들이 의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죽음이  
라. 이는 그들이 부정하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  
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  
라. 이에 그들이 쫓겨나, 그들의 수고, 곧 그들의  
악하였던 행위의 열매를 취하도록 정해지나니, 그  
들이 쓴 잔의 찌꺼기를 마시게 되느니라.

And then shall the righteous shine forth in the  
kingdom of God.

But behold, an awful death cometh upon the  
wicked; for they die as to things pertaining to things  
of righteousness; for they are unclean, and no un-  
clean thing can inherit the kingdom of God; but they  
are cast out, and consigned to partake of the fruits of  
their labors or their works, which have been evil;  
and they drink the dregs of a bitter cup.

## 엘마서 41

- 1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이미 말한 바 회복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나니, 이는 보라, 어떤 이들이 경전을 왜곡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길에서 멀리 벗어났음이니라. 또 네 마음도 이 일에 관하여 염려해온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
- 2 내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회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니, 이는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됨이 불가결함이니라. 보라,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을 좇아 사람의 영혼이 그 육신에게로 회복되며, 육신의 각 부분이 그 자체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결하고도 공의로운 일이니라.
- 3 또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과 만일 이 생에서 그 행위가 선하였고, 그 마음의 원하는 바가 선하였으면,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 선한 것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니라.
- 4 또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악으로 회복될 것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되며, 모든 것이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되어—죽어야 하는 것이 일으킴을 받아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일으킴을 받아 끝없는 행복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에 이르러 악마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니, 하나는 이편이요 다른 하나는 저편이라—
- 5 하나는 일으킴을 받아 행복의 소원대로 행복, 곧 그 선의 소원대로 선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그 악의 소원대로 악에 이르나니, 이는 저가 온종일 악을 행하기 원한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밤이 올 때 자기의 보응 곧 악의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 6 또 다른 한편으로도 역시 그러하니, 만일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생애의 끝까지 의를 원했으면, 보상을 받아 의에 이를 것이니라.

## Alma 41

And now, my son, I have somewhat to say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which has been spoken; for behold, some have wrested the scriptures, and have gone far astray because of this thing. And I perceive that thy mind has been worried also concerning this thing. But behold, I will explain it unto thee.

I say unto thee, my son, that the plan of restoration is requisite with the justice of God; for it is requisite that all things should be restored to their proper order. Behold, it is requisite and just, according to the power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at the soul of man should be restored to its body, and that every part of the body should be restored to itself.

And it is requisite with the justice of God that men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if their works were good in this life, and the desires of their hearts were good, that they should also, at the last day, be restored unto that which is good.

And if their works are evil they shall be restored unto them for evil. Therefore, all things shall be restored to their proper order, every thing to its natural frame—mortality raised to immortality, corruption to incorruption—raised to endless happiness to inherit the kingdom of God, or to endless misery to inherit the kingdom of the devil, the one on one hand, the other on the other—

The one raised to happiness according to his desires of happiness, or good according to his desires of good; and the other to evil according to his desires of evil; for as he has desired to do evil all the day long even so shall he have his reward of evil when the night cometh.

And so it is on the other hand. If he hath repented of his sins, and desired righteousness until the end of his days, even so he shall be rewarded unto righteousness.

- 7 이들은 주로 인해 구속받는 자들이요, 참으로 이들이 저 끝없는 흑암의 밤에서 빼내심을 입고 건지심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섰거나 아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보라,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임이니라.
- 8 이제 하나님의 법령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인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리로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되었느니라.
- 9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이, 네가 죄를 범하고자 이제까지 그러한 위험을 범하여 왔거니와, 한 번 더 교리의 그 점들에 있어 네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하는 위험을 범하지 말라.
- 10 회복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네가 죄에서 행복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 11 또 이제 내 아들이, 자연의 상태, 곧 내가 이렇게 말하리니, 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느니라.
- 12 또 이제 보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가, 자연스런 상태의 것을 취하여 그것을 부자연스런 상태에 두는, 곧 그것을 그 본성과 반대되는 상태에 두는 것이냐?
- 13 오 내 아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는 악에 대해서는 악을,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한 것을, 악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악마적인 것을—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의를,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자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는 주의하여 네 형제들에게 자비로우라.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만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그러면 네 보상을 받게 되리라. 참으로 자비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공의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며, 의로운 판단이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또 선이 다시 네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These are they that are redeemed of the Lord; yea, these are they that are taken out, that are delivered from that endless night of darkness; and thus they stand or fall; for behold, they are their own judges, whether to do good or do evil.

Now, the decrees of God are unalterable; therefore, the way is prepared that whosoever will may walk therein and be saved.

And now behold, my son, do not risk one more offense against your God upon those points of doctrine, which ye have hitherto risked to commit sin.

Do not suppose, because it has been spoken concerning restoration, that ye shall be restored from sin to happiness. Behold, I say unto you, wickedness never was happiness.

And now, my son, all men that are in a state of nature, or I would say, in a carnal state, are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in the bonds of iniquity; they are without God in the world, and they have gone contrary to the nature of God; therefore, they are in a state contrary to the nature of happiness.

And now behold, is the meaning of the word restoration to take a thing of a natural state and place it in an unnatural state, or to place it in a state opposite to its nature?

O, my son, this is not the case; but the meaning of the word restoration is to bring back again evil for evil, or carnal for carnal, or devilish for devilish—good for that which is good; righteous for that which is righteous; just for that which is just; merciful for that which is merciful.

Therefore, my son, see that you are merciful unto your brethren; deal justly, judge righteously, and do good continually; and if ye do all these things then shall ye receive your reward; yea, ye shall have mercy restored unto you again; ye shall have justice restored unto you again; ye shall have a righteous judgment restored unto you again; and ye shall have good rewarded unto you again.

15 이는 네가 내보내는 것이 다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이니, 그러므로 회복이란 말은 죄인을  
더욱 온전히 정죄하고, 전혀 그를 의롭다 하지 아  
니하느니라.

For that which ye do send out shall return unto  
you again, and be restored; therefore, the word  
restoration more fully condemneth the sinner, and  
justifieth him not at all.

## 앨마서 42

- 1 또 이제 내 아들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바, 네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곧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라. 이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려 애쓰이니라.
- 2 이제 보라, 내 아들이,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 이는 보라,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사 그들이 취하심을 입을 땅을 갈게 하셨음이니—참으로 그는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 끝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 3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영원히 살까 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사, 그로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4 또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나니, 참으로 시험의 시간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라.
- 5 이는 보라, 만일 아담이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 회개할 기간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무효하게 되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것임이니라.
- 6 그러나 보라, 사람은 죽기로 정해졌고—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졌던 것같이 지면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느니라—이에 사람은 영원히 잃은 바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 7 또 이제 이로써 너는 우리의 시조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좇아 복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 8 이제 보라, 사람이 이 현세적 사망에서 구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함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

## Alma 42

And now, my son, I perceive there is somewhat more which doth worry your mind, which ye cannot understand—which is concerning the justice of God in the punishment of the sinner; for ye do try to suppose that it is injustice that the sinner should be consigned to a state of misery.

Now behold, my son, I will explain this thing unto thee. For behold, after the Lord God sent our first parents forth from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ence they were taken—yea, he drew out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end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tree of life—

Now, we see that the man had become as God, knowing good and evil; and lest he should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the Lord God placed cherubim and the flaming sword, that he should not partake of the fruit—

And thus we see, that there was a time granted unto man to repent, yea, a probationary time, a time to repent and serve God.

For behold, if Adam had put forth his hand immediately, and partaken of the tree of life, he would have lived forever,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having no space for repentance; yea, and also the word of God would have been void, and the great plan of salvation would have been frustrated.

But behold, it was appointed unto man to die—therefore, as they were cut off from the tree of life they should be cut off from the face of the earth—and man became lost forever, yea, they became fallen man.

And now, ye see by this that our first parents were cut off both temporally and spirituall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thus we see they became subjects to follow after their own will.

Now behold, it was not expedient that man should be reclaimed from this temporal death, for that would destroy the great plan of happiness.

- 9 그러므로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고,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현세적 사망과 함께 영적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이 말인즉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으므로, 인류가 이 영적 사망에서 구제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 10 그러므로 그들이 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던지라, 이 시험의 상태는 그들에게 있어 준비를 위한 상태가 되었나니, 곧 예비적 상태가 되었느니라.
- 11 이제 내 아들이야, 기억하라. 만일 구속의 계획이 없다면, (이를 버린다면) 그들이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져 비참하게 되리라.
- 12 또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초한 바, 이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제할 방편이 없었나니,
- 13 그러므로 공의를 좇아 이 시험의 상태, 참으로 이 예비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 이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고는 공의의 일을 폐함이 없이 자비가 효력을 가질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으리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 14 또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였느니라.
- 15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
- 16 이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이 영원한 형벌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이 형벌은 역시 영혼의 생명같이,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써 부가된 것이니라.

Therefore, as the soul could never die, and the fall had brought upon all mankind a spiritual death as well as a temporal, that is, they wer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it was expedient that mankind should be reclaimed from this spiritual death.

Therefore, as they had become carnal, sensual, and devilish, by nature, this probationary state became a state for them to prepare; it became a preparatory state.

And now remember, my son, if it were not for the plan of redemption, (laying it aside) as soon as they were dead their souls were miserable, being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now, there was no means to reclaim men from this fallen state, which man had brought upon himself because of his own disobedience;

Therefore, according to justice, the plan of redemption could not be brought about, only on conditions of repentance of men in this probationary state, yea, this preparatory state; for except it were for these conditions, mercy could not take effect except it should destroy the work of justice. Now the work of justice could not be destroyed; if so, God would cease to be God.

And thus we see that all mankind were fallen, and they were in the grasp of justice; yea, the justice of God, which consigned them forever to be cut off from his presence.

And now, the plan of mercy could not be brought about except an atonement should be made; therefore God himself atoneth for the sins of the world, to bring about the plan of mercy, to appease the demands of justice, that God might be a perfect, just God, and a merciful God also.

Now, repentance could not come unto men except there were a punishment, which also was eternal as the life of the soul should be, affixed opposite to the plan of happiness, which was as eternal also as the life of the soul.



17 이제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어찌 회개할 수 있겠느냐? 만일 율법이 없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형벌이 없이 어찌 율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18 이제 형벌이 부가되었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는 공의로운 율법이 주어졌느니라.

19 이제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만일 사람이 살인하였으면 그는 죽을 것이니라—그가 살인하면 죽을까 두려워하겠느냐?

20 그리고 또한 만일 죄를 금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21 또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면 공의나 자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는 공의나 자비가 피조물에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할 것임이라.

22 그러나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부가되었으며, 회개가 주어졌나니, 이 회개를 자비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가 피조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집행하나니, 율법은 형벌을 가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23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또 속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나니, 이같이 그들이 그의 면전으로 회복되어, 그들의 행위대로 율법과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느니라.

24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25 무엇으로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Now, how could a man repent except he should sin? How could he sin if there was no law? How could there be a law save there was a punishment?

Now, there was a punishment affixed, and a just law given, which brought remorse of conscience unto man.

Now, if there was no law given—if a man murdered he should die—would he be afraid he would die if he should murder?

And also, if there was no law given against sin men would not be afraid to sin.

And if there was no law given, if men sinned what could justice do, or mercy either, for they would have no claim upon the creature?

But there is a law given, and a punishment affixed, and a repentance granted; which repentance, mercy claimeth; otherwise, justice claimeth the creature and executeth the law, and the law inflicteth the punishment; if not so, the works of justice would be destroyed, and God would cease to be God.

But God ceaseth not to be God, and mercy claimeth the penitent, and mercy cometh because of the atonement; and the atonement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bringeth back men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thus they are restored into his presence, to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according to the law and justice.

For behold, justice exerciseth all his demands, and also mercy claimeth all which is her own; and thus, none but the truly penitent are saved.

What, do ye suppose that mercy can rob justice? I say unto you, Nay; not one whit. If so, God would cease to be God.

26 또 이리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예비된, 그의 크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이리하여 사람들의 구원과 구속과 또한 그들의 멸망과 비참이 이루어지느니라.

27 그러므로 내 아들이아,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에게 회복되리라.

28 가령 누가 악을 행하기 원하고, 그 생애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보라, 하나님의 회복을 좇아 악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29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30 오 내 아들이아, 나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함으로써, 네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네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또 이로써 네가 티끌에까지 내려서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

31 또 이제 내 아들이아, 너는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제 내 아들이아, 네 길을 가서 진리와 진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위대한 자비의 계획이 그들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네게 허락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And thus God bringeth about his great and eternal purposes, which were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hus cometh about the salvation and the redemption of men, and also their destruction and misery.

Therefore, O my son, whosoever will come may come and partake of the waters of life freely; and whosoever will not come the same is not compelled to come; but in the last day it shall be restored unto him according to his deeds.

If he has desired to do evil, and has not repented in his days, behold, evil shall be done unto him, according to the restoration of God.

And now, my son, I desire that ye should let these things trouble you no more, and only let your sins trouble you, with that trouble which shall bring you down unto repentance.

O my son, I desire that ye should deny the justice of God no more. Do not endeavor to excuse yourself in the least point because of your sins, by denying the justice of God; but do you let the justice of God, and his mercy, and his long-suffering have full sway in your heart; and let it bring you down to the dust in humility.

And now, O my son, ye are called of God to preach the word unto this people. And now, my son, go thy way, declare the word with truth and soberness, that thou mayest bring souls unto repentance, that the great plan of mercy may have claim upon them. And may God grant unto you even according to my words. Amen.

## 앨마서 43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의 아들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고, 앨마 자신도 쉴 수 없어 역시 나아갔더라.
- 2 이제 우리는 예언과 계시의 영을 좇아 말씀과 진리를 전파한 것 외에, 그들의 전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가르쳤더라.
- 3 그리고 이제 나는 판사 치세 제십팔년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기사로 돌아가노라.
- 4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조렘인들이 레이맨인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제십팔년 초에 니파이인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를 알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여어손 땅에 그 군대를 함께 모았더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천천과 더불어 오되, 저들이 조렘인들의 땅인 앤티오눔 땅으로 들어왔고, 제래헴나라 이름하는 자가 저들의 지휘관이더라.
- 6 그리고 이제 아멜레카이인들은 본시 자체적으로 레이맨인들보다 더욱 간악하고 잔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제래헴나가 레이맨인들 위에 총대장들을 임명하매 그들이 다 아멜레카이인과 조렘인들이었더라.
- 7 이제 이렇게 그가 한 것은 니파이인들에 대한 저들의 증오심을 유지함으로써, 저들을 복종시켜 자기의 의도를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 8 이는 보라, 그의 의도는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는 것이었음이라. 이렇게 그가 한 것은 그들 위에 큰 권력을 잡고자 함이요, 또한 니파이인들을 속박하여 그들을 다스릴 권력을 얻으려 함이었더라.

## Alma 43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sons of Alma did go forth among the people, to declare the word unto them. And Alma, also, himself, could not rest, and he also went forth.

Now we shall say no more concerning their preaching, except that they preached the word, and the truth, according to the spirit of prophecy and revelation; and they preached after the holy order of God by which they were called.

And now I return to an account of the wars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in the eigh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Fo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Zoramites became Lamanites; therefore, in the commencement of the eighteenth year the people of the Nephites saw that the Lamanites were coming upon them; therefore they made preparations for war; yea, they gathered together their armies in the land of Jersh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came with their thousands; and they came into the land of Antionum, which is the land of the Zoramites; and a man by the name of Zerahemnah was their leader.

And now, as the Amalekites were of a more wicked and murderous disposition than the Lamanites were, in and of themselves, therefore, Zerahemnah appointed chief captains over the Lamanites, and they were all Amalekites and Zoramites.

Now this he did that he might preserve their hatred towards the Nephites, that he might bring them into subjection to the accomplishment of his designs.

For behold, his designs were to stir up the Lamanites to anger against the Nephites; this he did that he might usurp great power over them, and also that he might gain power over the Nephites by bringing them into bondage.

- 9 그러나 이제 니파이인들의 의도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지키려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전하고,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과 참으로 또한 그들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더라.
- 10 이는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들게 되면, 무릇 영과 진리로 하나님, 곧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레이맨인들이 다 멸할 줄 그들이 알았음이라.
- 11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형제, 곧 암몬 백성이라 하는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하여 가진 극심한 증오를 알고 있었나니—그러나 이들은 무기를 들려 하지 않았더라, 참으로 이들은 성약을 맺었고 이를 깨뜨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지면 멸망될 것이라.
- 12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위한 땅을 주었더라.
- 13 이에 암몬 백성은 자기들의 재물의 큰 분량을 니파이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군대를 지원하였더라.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홀로 레이맨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무릇 니파이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모든 자들, 곧 아멜레카이인과 조램인 그리고 노아의 제사들의 후손들의 합이라.
- 14 이제 그 후손들은 수효가 거의 니파이인들과 같았나니,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 형제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앤티오눔 땅에 함께 모이매, 보라, 니파이인들의 군대는 여어손 땅에서 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더라.
- 16 이제 니파이인들의 지휘관, 곧 니파이인들 위에 총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제 총대장이 니파이인들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였나니—그 이름이 모로나이였더라.

And now the design of the Nephites was to support their lands, and their houses, and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that they might preserve them from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also that they might preserve their rights and their privileges, yea, and also their liberty, that they might worship God according to their desires.

For they knew that if they should fall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that whosoever should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the true and the living God, the Lamanites would destroy.

Yea, and they also knew the extreme hatred of the Lamanites towards their brethren, who were the people of Anti-Nephi-Lehi, who were called the people of Ammon—and they would not take up arms, yea, they had entered into a covenant and they would not break it—therefore, if they should fall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they would be destroyed.

And the Nephites would not suffer that they should be destroyed; therefore they gave them lands for their inheritance.

And the people of Ammon did give unto the Nephites a large portion of their substance to support their armies; and thus the Nephites were compelled, alone, to withstand against the Lamanites, who were a compound of Laman and Lemuel, and the sons of Ishmael, and all those who had dissented from the Nephites, who were Amalekites and Zoramites, and the descendants of the priests of Noah.

Now those descendants were as numerous, nearly, as were the Nephites; and thus the Nephites were obliged to contend with their brethren, even unto bloodshed.

And it came to pass as the armies of the Lamanites had gathered together in the land of Antionum, behold, the armies of the Nephites were prepared to meet them in the land of Jershon.

Now, the leader of the Nephites, or the man who had been appointed to be the chief captain over the Nephites—now the chief captain took the command of all the armies of the Nephites—and his name was Moroni;

17 또 모로나이는 모든 지휘권과 그들의 전쟁 통수권을 맡았나니, 그가 니파이인들의 군대 위에 총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이 불과 이십오 세이었던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어손의 경계에서 레이맨인들을 만나매, 그의 백성들은 칼과 신월도와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하였더라.

19 또 레이맨인의 군대는 니파이 백성들, 아니 모로나이가 자기 백성을 가슴판과 팔 보호대와 참으로 또한 그들의 머리를 보호할 투구로 준비시킨 것과 또 그들이 두꺼운 옷으로 옷 입은 것을 보고는—

20 이제 제레헴나의 군대는 그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나니, 저들은 다만 저들의 칼과 저들의 신월도, 저들의 활과 저들의 화살, 저들의 돌과 저들의 물매만 가졌고, 저들 허리에 두른 가죽 외에는 벌거벗었더라. 참으로 조람인과 아멜레카이인 외에는 모두가 벌거벗었으며,

21 가슴판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못하였더라—그리하여 저들은 저들의 수효가 니파이인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갑주를 보고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22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여어손의 경계에서 감히 니파이인들을 공격하려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저들이 맨타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여, 앤티오눔 땅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멀리 시돈 강의 발원지를 지나 광야를 둘러 여행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로나이의 군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광야로 떠남과 동시에 모로나이가 정탐을 광야로 보내어 저들의 진을 살피게 하였고, 모로나이는 또한 엘마의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지라, 사람 몇을 그에게로 보내어,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어디로 가서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지 주께 물어 줄 것을 그에게 구하였더라.

And Moroni took all the command, and the government of their wars. And he was only twenty and five years old when he was appointed chief captain over the armies of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met the Lamanites in the borders of Jershon, and his people were armed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And when the armies of the Lamanites saw that the people of Nephi, or that Moroni, had prepared his people with breastplates and with arm-shields, yea, and also shields to defend their heads, and also they were dressed with thick clothing—

Now the army of Zerahemnah was not prepared with any such thing; they had only their swords and their cimeters, their bows and their arrows, their stones and their slings; and they were naked, save it were a skin which was girded about their loins; yea, all were naked, save it were the Zoramites and the Amalekites;

But they were not armed with breastplates, nor shields—therefore, they were exceedingly afraid of the armies of the Nephites because of their armor, notwithstanding their number being so much greater than the Nephites.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y durst not come against the Nephites in the borders of Jershon; therefore they departed out of the land of Antionum into the wilderness, and took their journey round about in the wilderness, away by the head of the river Sidon, that they might come into the land of Manti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they did not suppose that the armies of Moroni would know whither they had gone.

But it came to pass, as soon as they had departed into the wilderness Moroni sent spies into the wilderness to watch their camp; and Moroni, also, knowing of the prophecies of Alma, sent certain men unto him, desiring him that he should inquire of the Lord whither the armies of the Nephites should go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Lamanites.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말씀이 엘마에게 임하매, 엘마가 모로나이의 사자들에게,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광야를 둘러 행군하고 있으며, 이는 저들이 맨타이 땅으로 건너가서, 백성의 더 약한 부분에 공격을 시작하려 함임을 알려 주매, 그 사자들이 가서 그 말을 모로나이에게 전하였느니라.

25 이제 모로나이가, 혹 어떻게라도 레이맨인들의 일부가 여어손 땅에 들어와서 성을 점령할까 하여, 자기 군대의 일부를 그 땅에 남겨 두고 자기의 나머지 군대를 거느리고 맨타이 땅으로 행군하여 가더라.

26 또 그는 그 지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레이맨인을 대적하여 싸워, 그들의 땅과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게 한 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오는 때를 대비하여 준비가 갖추어졌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로 하여금, 광야의 시돈 강 서편 시돈 강 독에 가까운 골짜기에 숨게 하였더라.

28 또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의 진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자 사방에 정탐들을 두었더라.

29 또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의 의도를, 곧 저들의 의도가 그 형제들을 멸하거나, 혹은 속박하여 온 땅 위에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는 것인 줄을 알고 있었고,

30 그리고 또한 니파이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임을 알았던지라, 계책으로 그들을 방어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정탐들로 레이맨인들이 택할 진로를 알아 내었더라.

31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한 편을 골짜기로 인도하여, 그들을 리플라 언덕 동편과 남편에 매복시켰더라.

32 그리고 나머지는 시돈 강 서쪽에 있는 서편 골짜기에, 그리하여 맨타이 땅의 경계로 내려가는 곳에 매복시켰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Alma, and Alma informed the messengers of Moroni, that the armies of the Lamanites were marching round about in the wilderness, that they might come over into the land of Manti, that they might commence an attack upon the weaker part of the people. And those messengers went and delivered the message unto Moroni.

Now Moroni, leaving a part of his army in the land of Jershon, lest by any means a part of the Lamanites should come into that land an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took the remaining part of his army and marched over into the land of Manti.

And he caused that all the people in that quarter of the land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to defend their lands and their country, their rights and their liberties; therefore they were prepared against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caused that his army should be secreted in the valley which was near the bank of the river Sidon, which was on the west of the river Sidon in the wilderness.

And Moroni placed spies round about, that he might know when the camp of the Lamanites should come.

And now, as Moroni knew the intention of the Lamanites, that it was their intention to destroy their brethren, or to subject them and bring them into bondage that they might establish a kingdom unto themselves over all the land;

And he also knowing that it was the only desire of the Nephites to preserve their lands, and their liberty, and their church, therefore he thought it no sin that he should defend them by stratagem; therefore, he found by his spies which course the Lamanites were to take.

Therefore, he divided his army and brought a part over into the valley, and concealed them on the east, and on the south of the hill Riplah;

And the remainder he concealed in the west valley, on the west of the river Sidon, and so down into the borders of the land Manti.

33 그리고 이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군대를 배치하고 나서, 모로나이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모로나이의 군대의 일부가 매복해 있는 언덕 북편으로 올라왔더라.

35 그리고 레이맨인들이 리플라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들어와, 시돈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을 때, 언덕 남편에 매복해 있던 군대는, 그 이름이 리하이라 하는 자에 의해 이끌렸는데, 그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동편 레이맨인들의 후미에서 저들을 에워쌌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후미에서 저들을 공격하는 니파이인들을 보고, 몸을 돌이켜 리하이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였더라.

37 그리고 죽음의 일이 양쪽에서 시작되었으나, 레이맨인들 편에 더욱 가공하였나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신월도로 가하는 강한 가격에 저들의 벗은 몸이 그대로 노출되어, 거의 매번 칠 때마다 죽음이 초래되었음이라.

3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가슴판과 그들의 팔 보호대와 그들의 투구에 의해 신체의 급소들에서 보호되고 있었으니, 곧 신체의 급소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던지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는 그들의 칼과 피를 잃음으로 인해 간혹 한 사람이 쓰러졌더라. 그리하여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죽음의 일을 수행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 가운데 초래되는 큰 멸망을 보고 놀라더니, 이윽고 시돈 강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40 그리고 저들은 리하이와 그의 병사들의 추격을 받고, 리하이에게 쫓겨 시돈 물로 들어가서는 시돈 물을 건넜더라. 이에 리하이가 자기 군대를 시돈 강 독에 머무르고 건너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가 시돈 강 저편 계곡에서 레이맨인들을 맞아, 저들을 급습하여 도륙하기 시작하였더라.

And thus having placed his army according to his desire, he was prepared to meet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came up on the north of the hill, where a part of the army of Moroni was concealed.

And as the Lamanites had passed the hill Riplah, and came into the valley, and began to cross the river Sidon, the army which was concealed on the south of the hill, which was led by a man whose name was Lehi, and he led his army forth and encircled the Lamanites about on the east in their rea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when they saw the Nephites coming upon them in their rear, turned them about and began to contend with the army of Lehi.

And the work of death commenced on both sides, but it was more dreadful on the part of the Lamanites, for their nakedness was exposed to the heavy blows of the Nephites with their swords and their cimeters, which brought death almost at every stroke.

Whil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w and then a man fell among the Nephites, by their swords and the loss of blood, they being shielded from the more vital parts of the body, or the more vital parts of the body being shielded from the strokes of the Lamanites, by their breastplates, and their armshields, and their head-plates; and thus the Nephites did carry on the work of death among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became frightened, because of the great destruction among them, even until they began to flee towards the river Sidon.

And they were pursued by Lehi and his men; and they were driven by Lehi into the waters of Sidon, and they crossed the waters of Sidon. And Lehi retained his armies upon the bank of the river Sidon that they should not cros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nd his army met the Lamanites in the valley,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Sidon, and began to fall upon them and to slay them.

42 이에 레이맨인들이 다시 그들 앞에서 맨타이 땅을 향하여 도망하였으나, 다시 모로나이의 군대와 만나게 되었다.

43 이제 이러한 처지에서 레이맨인들이 실로 맹렬히 싸웠나니, 사람들이 알기로 레이맨인들이 이처럼 심히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운 적이 결코 없었느니라. 과연 처음부터도 없었느니라.

44 또 저들은 저들의 총대장이요 지휘관인 조렘인과 아멜레카이인들에게, 또 저들의 총대장, 곧 저들의 총지휘관이요 사령관인 제래헴나에게 고무되어 참으로 용처럼 싸운지라, 많은 니파이인이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실로 이는 저들이 그들의 투구를 많이 들로 가르고, 그들의 가슴판을 많이 꿰뚫고, 그들의 팔을 많이 쳐서 떨어뜨렸음이라. 이같이 레이맨인들이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쳤더라.

45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더 나은 대의로 고무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군주제나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참으로 그들의 예배 의식과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음이라.

46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라고 느낀 바를 행하고 있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과 또한 그 조상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첫 번째 공격의 죄가 없고, 두 번째도 그러하거든,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47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보호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 이 대의를 위함이었다.

4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의 병사들이 레이맨인들의 맹렬함과 분노를 보고는, 바야흐로 저들에게서 물러나 도망하려 하였는지라, 모로나이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생각들로 그들의 마음을 고무시켰나니—참으로 그들의 땅 그들의 자유, 참으로 그들이 얻을 속박에서의 해방에 대한 생각이라.

And the Lamanites did flee again before them, towards the land of Manti; and they were met again by the armies of Moroni.

Now in this case the Lamanites did fight exceedingly; yea, never had the Lamanites been known to fight with such exceedingly great strength and courage, no, not even from the beginning.

And they were inspired by the Zoramites and the Amalekites, who were their chief captains and leaders, and by Zerahemnah, who was their chief captain, or their chief leader and commander; yea, they did fight like dragons, and many of the Nephites were slain by their hands, yea, for they did smite in two many of their head-plates, and they did pierce many of their breastplates, and they did smite off many of their arms; and thus the Lamanites did smite in their fierce anger.

Nevertheless, the Nephites were inspired by a better cause, for they were not fighting for monarchy nor power but they were fighting for their homes and their libertie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all, yea, for their rites of worship and their church.

And they were doing that which they felt was the duty which they owed to their God; for the Lord had said unto them, and also unto their fathers, that: Inasmuch as ye are not guilty of the first offense, neither the second, ye shall not suffer yourselves to be slain by the hands of your enemies.

And again, the Lord has said that: Ye shall defend your families even unto bloodshed. Therefore for this cause were the Nephites contending with the Lamanites,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their lands, their country, and their rights, and their religio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men of Moroni saw the fierceness and the anger of the Lamanites, they were about to shrink and flee from them. And Moroni, perceiving their intent, sent forth and inspired their hearts with these thoughts—yea, the thoughts of their lands, their liberty, yea, their freedom from bondage.



-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한 목소리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 50 그리고 힘을 가지고 레이맨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레이맨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저들이 시돈 물까지 도망하였더라.
- 51 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수가 더 많았나니 참으로 니파이인들의 수효의 배 이상 더 많았으나, 그럼에도 저들이 쫓겨 시돈 강가의 둑 위 골짜기에 한 무리로 모이기에 이르렀더라.
- 52 그리하여 모로나이의 군대가 강 양편에서 저들을 에워쌌으니, 이는 보라,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이 있었음이라.
- 53 그리하여 제레헴나가 본즉, 시돈 강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이 있고 시돈 강 서편에는 모로나이의 군대가 있어, 자기들이 니파이인들에게 에워싸였는지라,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더라.
- 54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공포를 보고는, 자기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저들의 피 흘리기를 멈추게 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urned upon the Lamanites, and they cried with one voice unto the Lord their God, for their liberty and their freedom from bondage.

And they began to stand against the Lamanites with power; and in that selfsame hour that they cried unto the Lord for their freedom, the Lamanites began to flee before them; and they fled even to the waters of Sidon.

Now, the Lamanites were more numerous, yea, by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the Nephites; nevertheless, they were driven insomuch that they were gathered together in one body in the valley, upon the bank by the river Sidon.

Therefore the armies of Moroni encircled them about, yea, even on both sides of the river, for behold, on the east were the men of Lehi.

Therefore when Zerahemnah saw the men of Lehi on the east of the river Sidon, and the armies of Moroni on the west of the river Sidon, that they were encircled about by the Nephites, they were struck with terror.

Now Moroni, when he saw their terror, commanded his men that they should stop shedding their blood.

## 앨마서 44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멈추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매, 모로나이가 제래헴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제래헴나여, 우리는 피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우리 수중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럼에도 우리는 너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 2 보라, 우리는 권력을 위하여 너희의 피를 흘리고자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라도 속박의 멍에를 씌우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치러 왔고, 또한 너희는 우리의 종교로 인하여 우리에게 노하였도다.
- 3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이제 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또 이제 너희는 우리의 이 신앙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느니라.
- 4 이제 너희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 것을 아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에 충실한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범법에 빠져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께서는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 5 또 이제 제래헴나여, 내가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사 우리로 너희를 이길 힘을 갖게 하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의 종교를 두고, 또 우리의 예배 의식을 두고, 또 우리의 교회를 두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성스러운 부양의 의무를 두고, 우리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에 묶어 두는 저 자유를 두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보전을 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소중한 모든 것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 Alma 44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top and withdrew a pace from them. And Moroni said unto Zerahemnah: Behold, Zerahemnah, that we do not desire to be men of blood. Ye know that ye are in our hands, yet we do not desire to slay you.

Behold, we have not come out to battle against you that we might shed your blood for power; neither do we desire to bring any one to the yoke of bondage. But this is the very cause for which ye have come against us; yea, and ye are angry with us because of our religion.

But now, ye behold that the Lord is with us; and ye behold that he has delivered you into our hands. And now I would that ye should understand that this is done unto us because of our religion and our faith in Christ. And now ye see that ye cannot destroy this our faith.

Now ye see that this is the true faith of God; yea, ye see that God will support, and keep, and preserve us, so long as we are faithful unto him, and unto our faith, and our religion; and never will the Lord suffer that we shall be destroyed except we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and deny our faith.

And now, Zerahemnah,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that all-powerful God, who has strengthened our arms that we have gained power over you, by our faith, by our religion, and by our rites of worship, and by our church, and by the sacred support which we owe to our wives and our children, by that liberty which binds us to our lands and our country; yea, and also by the maintenance of the sacred word of God, to which we owe all our happiness; and by all that is most dear unto us—

- 6 참으로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너희가 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의 피를 찾지 아니하리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서 다시 우리를 치러 오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 7 그러나 이제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우리 수중에 있은즉, 내가 나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로 너희를 급습하여, 너희 몸에 사망의 상처를 입히게 하리니, 너희가 멸절되리라. 그런 다음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 참으로 누가 속박에 들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였더라.
-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을 듣고 제레헴나가 나아와 자기의 칼과 자기의 신월도와, 자기의 활을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 우리의 전쟁 무기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를 너희에게 넘기려니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깨뜨릴 줄을 알고 있는 맹세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의 전쟁 무기를 취하고, 우리의 광야로 떠남을 용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칼을 그대로 지니리니, 우리가 망하든지 아니면 정복하든지 하겠노라.
- 9 보라, 우리는 너희의 신앙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니, 우리는 우리를 너희 손에 붙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노라. 다만 우리는, 너희를 우리의 칼로부터 보호한 것은 너희의 교활함이라 믿노니, 보라, 너희를 보존한 것은 너희의 가슴판과 너희의 방패니라.
- 10 이에 이제 제레헴나가 말하기를 마치매, 모로나이가 그 받았던 칼과 전쟁 무기를 제레헴나에게 돌려주며 이르되, 보라, 우리는 싸움을 끝내리라.

Yea, and this is not all; I command you by all the desires which ye have for life, that ye deliver up your weapons of war unto us, and we will seek not your blood, but we will spare your lives, if ye will go your way and come not again to war against us.

And now, if ye do not this, behold, ye are in our hands, and I will command my men that they shall fall upon you, and inflict the wounds of death in your bodies, that ye may become extinct; and then we will see who shall have power over this people; yea, we will see who shall be brought into bondag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Zerahemnah had heard these sayings he came forth and delivered up his sword and his cimeter, and his bow into the hands of Moroni, and said unto him: Behold, here are our weapons of war; we will deliver them up unto you, but we will not suffer ourselves to take an oath unto you, which we know that we shall break, and also our children; but take our weapons of war, and suffer that we may depart into the wilderness; otherwise we will retain our swords, and we will perish or conquer.

Behold, we are not of your faith; we do not believe that it is God that has delivered us into your hands; but we believe that it is your cunning that has preserved you from our swords. Behold, it is your breastplates and your shields that have preserved you.

And now when Zerahemnah had made an end of speaking these words, Moroni returned the sword and the weapons of war, which he had received, unto Zerahemnah, saying: Behold, we will end the conflict.

11 보라,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나지 않는 한, 너희가 떠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가 우리 수중에 있은즉, 우리가 너희 피를 땅 위에 흘릴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시한 조건에 너희가 따를지니라 하였더라.

12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제레헴나가 자기 칼을 그대로 지니고, 모로나이에게 노하여 앞으로 내달아 모로나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가 그의 칼을 치켜들었을 때, 보라, 모로나이의 병사 중 하나가 그의 칼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니, 그것이 칼자루에서 부러졌더라. 저가 또한 제레헴나를 쳐서 그의 머리 꺾질을 벗기매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 이에 제레헴나가 저들 앞에서 물러나 자기 병사들 속으로 들어갔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곁에 섰다가 제레헴나의 머리 꺾질을 쳐서 벗긴 그 병사가, 머리털을 잡고 그 머리 꺾질을 땅에서 집어 올려, 그것을 자기 칼 끝에 얹고 그들에게 내어 밀며,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14 너희가 너희 전쟁 무기를 넘기고 화평의 언약과 함께 떠나지 아니할진대, 너희 대장의 머리 꺾질인 이 머리 꺾질이 땅에 떨어진 것같이, 너희가 땅에 엎드러지리라 하였더라.

15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칼 위에 있는 머리 꺾질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많았던지라, 많은 자가 나아와 자기의 전쟁 무기를 모로나이의 발에 던지고 화평의 언약을 맺었나니, 언약을 맺은 자마다 다 광야로 떠나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였더라.

1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레헴나가 심히 노하여, 남아 있는 자기의 병사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하고, 더욱 힘있게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였더라.

17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노한지라, 자기 백성들을 명하여 그들을 급습하여 도륙하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레이맨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며, 또한 레이맨인들도 그들의 칼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싸웠느니라.

Now I cannot recall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therefore as the Lord liveth, ye shall not depart except ye depart with an oath that ye will not return again against us to war. Now as ye are in our hands we will spill your blood upon the ground, or ye shall submit to the conditions which I have proposed.

And now when Moroni had said these words, Zerahemnah retained his sword, and he was angry with Moroni, and he rushed forward that he might slay Moroni; but as he raised his sword, behold, one of Moroni's soldiers smote it even to the earth, and it broke by the hilt; and he also smote Zerahemnah that he took off his scalp and it fell to the earth. And Zerahemnah withdrew from before them into the midst of his soldier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oldier who stood by, who smote off the scalp of Zerahemnah, took up the scalp from off the ground by the hair, and laid it upon the point of his sword, and stretched it forth unto them, saying unto them with a loud voice:

Even as this scalp has fallen to the earth, which is the scalp of your chief, so shall ye fall to the earth except ye will deliver up your weapons of war and depart with a covenant of peace.

Now there were many, when they heard these words and saw the scalp which was upon the sword, that were struck with fear; and many came forth and threw down their weapons of war at the feet of Moroni, and entered into a covenant of peace. And as many as entered into a covenant they suffered to depart into the wilderness.

Now it came to pass that Zerahemnah was exceedingly wroth, and he did stir up the remainder of his soldiers to anger, to contend more powerfully against the Nephites.

And now Moroni was angry, because of the stubbornness of the Lamanites; therefore he commanded his people that they should fall upon them and slay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gan to slay them; yea, and the Lamanites did contend with their swords and their might.

18 그러나 보라, 그들의 벗은 피부와 그들의 맨머리는 니파이인들의 날카로운 칼에 그대로 노출되었나니, 참으로 보라, 그들은 찢리고 칼에 맞았으며, 또한 니파이인들의 칼 앞에서 심히 빨리 엎드러져, 참으로 모로나이의 병사가 예언한 대로 쓸어버림을 당하기 시작하였더라.

19 이제 제레헴나가 그들이 바야흐로 모두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고, 모로나이에게 크게 소리질러, 그들의 남은 목숨들을 살려 주면, 결코 다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오지 아니할 것을 그와 그의 백성이 저들과 언약하겠다고 약속하였느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백성 가운데 죽음의 일을 다시 그치게 하고, 레이맨인들에게서 전쟁 무기를 취하고, 그들이 자기와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에는 광야로 떠남을 허락하였더라.

21 이제 그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죽은 자의 수효를 세지 못하였나니,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나 레이맨인들에게나 다 그 죽은 자의 수가 심히 많았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시돈 물에 던지매, 저들이 나아가 깊은 바다에 장사되었더라.

23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군대, 곧 모로나이의 군대는 돌아가, 저들의 집과 저들의 땅에 이르렀더라.

24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팔년이 끝나고, 또 이같이 니파이의 판에 기록된 엘마의 기록이 끝났느니라.

But behold, their naked skins and their bare heads were exposed to the sharp swords of the Nephites; yea, behold they were pierced and smitten, yea, and did fall exceedingly fast before the swords of the Nephites; and they began to be swept down, even as the soldier of Moroni had prophesied.

Now Zerahemnah, when he saw that they were all about to be destroyed, cried mightily unto Moroni, promising that he would covenant and also his people with them, if they would spare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that they never would come to war again against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caused that the work of death should cease again among the people. And he took the weapons of war from the Lamanites; and after they had entered into a covenant with him of peace they were suffered to depart into the wilderness.

Now the number of their dead was not number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number; yea, the number of their dead was exceedingly great, both on the Nephites and on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ast their dead into the waters of Sidon, and they have gone forth and are buried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 armies of the Nephites, or of Moroni, returned and came to their houses and their lands.

And thus ended the eigh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d the record of Alma, which was written upon the plates of Nephi.

힐라맨의 기록에 따른 바, 힐라맨 시대의 니파이 백성과 그들의 전쟁과 불화에 대한 기사니 곧 그가 그의 생애 동안 기록한 것임.

## 앨마서 45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은 주께서 다시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음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심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 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지금까지 기록되어 온 저 기록에 관하여 내가 네게 한 말을 믿느냐?
- 3 이에 힐라맨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 4 이에 앨마가 다시 이르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 5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나이다.
- 6 이에 앨마가 다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 7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 8 그러자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너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로다.
- 9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무엇인가 예언할 것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예언하는 것을 너는 알리지 말지니, 참으로 내가 네게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알려지게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말을 기록하라.
- 10 이것이 그 말이니라. 보라, 바로 이 백성 곧 니파이인들이 내 속에 있는 계시의 영에 의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로부터 사백 년 만에 믿지 않음에 빠져들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The account of the people of Nephi, and their wars and dissensions, in the days of Helaman, according to the record of Helaman, which he kept in his days.*

## Alma 45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were exceedingly rejoiced, because the Lord had again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therefore they gave thanks unto the Lord their God; yea, and they did fast much and pray much, and they did worship God with exceedingly great joy.

And it came to pass in the nine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at Alma came unto his son Helaman and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e words which I spake unto thee concerning those records which have been kept?

And Helaman said unto him: Yea, I believe.

And Alma said again: Believest thou in Jesus Christ, who shall come?

And he said: Yea, I believe all the words which thou hast spoken.

And Alma said unto him again: Will ye keep my commandments?

And he said: Yea, I will keep thy commandments with all my heart.

Then Alma said unto him: Blessed art thou; and the Lord shall prosper thee in this land.

But behold, I have somewhat to prophesy unto thee; but what I prophesy unto thee ye shall not make known; yea, what I prophesy unto thee shall not be made known, even until the prophecy is fulfilled; therefore write the words which I shall say.

And these are the words: Behold, I perceive that this very people, the Nephites, according to the spirit of revelation which is in me, in four hundred years from the time that Jesus Christ shall manifest himself unto them, shall dwindle in unbelief.

11 참으로 또한 그때 그들이 전쟁과 역병과 참으로 기근과 유혈을 보기를, 실로 니파이 백성이 멸절 되기까지 하리라—

12 참으로 또한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어둠의 일과 음란함과 온갖 죄악에 빠질 것으로 인함이라. 참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죄 하는 까닭에,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날로부터 넷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큰 죄악이 이르리라.

13 또 저 큰 날이 이르면, 보라, 지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 더 이상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할 때가 매우 속히 이르느니라.

14 또 누구든지 저 크고 두려운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는 자들은 레이맨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고 그들과 같이 되리니, 주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하리라. 또 그들을 레이맨인들이 추적하기를 그들이 멸절되기까지 하리니,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리라.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이러한 것을 힐라맨에게 이르고 나서, 힐라맨과 또한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의인들을 위하여 땅을 축복하였더라.

16 또 그가 이르되,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땅, 곧 이 땅이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대하여는 저주 받은 바 되어,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었을 때 멸망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요 또 축복이니, 이는 주께서 죄를 조금도 허용하여 보실 수 없으심이라.

17 그리고 이제 엘마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교회, 곧 그때로부터 이후 신앙 안에 굳게 서야 할 모든 자를 축복하였더라.

18 또 엘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렉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같이, 제이라헤물라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Yea, and then shall they see wars and pestilences, yea, famines and bloodshed, even until the people of Nephi shall become extinct—

Yea, and this because they shall dwindle in unbelief and fall into the works of darkness, and lasciviousness, and all manner of iniquities; yea, I say unto you, that because they shall sin against so great light and knowledge, yea, I say unto you, that from that day, even the fourth generation shall not all pass away before this great iniquity shall come.

And when that great day cometh, behold, the time very soon cometh that those who are now, or the seed of those who are now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Nephi, shall no more be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Nephi.

But whosoever remaineth, and is not destroyed in that great and dreadful day, shall be numbered among the Lamanites, and shall become like unto them, all, save it be a few who shall be called the disciples of the Lord; and them shall the Lamanites pursue even until they shall become extinct. And now, because of iniquity, this prophecy shall be fulfille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Alma had said these things to Helaman, he blessed him, and also his other sons; and he also blessed the earth for the righteous' sake.

And he said: Thus saith the Lord God—Cursed shall be the land, yea, this land, unto every nation, kindred, tongue, and people, unto destruction, which do wickedly, when they are fully ripe; and as I have said so shall it be; for this is the cursing and the blessing of God upon the land, for the Lord cannot look upon sin with the least degree of allowance.

And now, when Alma had said these words he blessed the church, yea, all those who should stand fast in the faith from that time henceforth.

And when Alma had done this he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s if to go into the land of Melek.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as never heard of more; as to his death or burial we know not of.

19 보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으나, 보라,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취하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생각건대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2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 초에, 힐라맨이 말씀을 선포하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21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과의 전쟁과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 작은 불화와 소요들로 인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와, 또한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음이라.

22 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은 그 온 땅에, 참으로 니파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 땅의 각 성읍에 두루 다시 교회를 세우러 나아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그 온 땅, 모든 교회 위에 제사들과 교사들을 임명하였더라.

2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교회에 제사와 교사들을 임명한 후에 그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 그들이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아니하고,

24 도리어 그들의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고하여 점차 교만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눈에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저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Behold, this we know, that he was a righteous man; and the saying went abroad in the church that he was taken up by the Spirit, or buried by the hand of the Lord, even as Moses. But behold, the scriptures saith the Lord took Moses unto himself; and we suppose that he has also received Alma in the spirit, unto himself; therefore, for this cause we know nothing concerning his death and burial.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nine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at Helaman went forth among the people to declare the word unto them.

For behold, because of their wars with the Lamanites and the many little dissensions and disturbances which had been among the people, it became expedient that the word of God should be declared among them, yea, and that a regulation should be made throughout the church.

Therefore, Helaman and his brethren went forth to establish the church again in all the land, yea, in every city throughout all the land which was possessed by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appoint priests and teachers throughout all the land, over all the churche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laman and his brethren had appointed priests and teachers over the churches that there arose a dissension among them, and they would not give heed to the words of Helaman and his brethren;

But they grew proud, being lifted up in their hearts, because of their exceedingly great riches; therefore they grew rich in their own eyes, and would not give heed to their words, to walk uprightly before God.



## 앨마서 46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였더라.
- 2 그리고 이제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여 마침내 저들을 도륙하기로 작정하였더라.
- 3 이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노한 자들의 지도자는 크고 힘센 자로 그 이름이 아멜리카이아더라.
- 4 그리고 아멜리카이아는 왕 되기를 원하였고, 노한 그 백성들도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나니, 이들은 대개가 그 땅의 하급 판사들로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더라.
- 5 또 그들은, 만일 자기를 지원하여 자기를 세워 그들의 왕이 되게 하면 그들로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를 삼겠다는 아멜리카이아의 감언에 이끌렸었더라.
- 6 이리하여 교회의 대제사인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교회에 대한 이들의 심히 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멜리카이아에게 이끌려 이반을 일으키게 되었더라.
- 7 또 아멜리카이아의 아첨하는 말을 믿은 자가 교회 안에도 많아, 그들이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이탈해 나갔나니, 레이맨인들에게 거둔 큰 승리와 주의 손에 견지심을 입음으로 인하여 가졌었던 큰 기쁨에도 불구하고, 니파이 백성의 형세는 이같이 심히 불안하고 위험하였더라.
- 8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이 얼마나 속히 주 저희 하나님을 잊는지, 참으로 얼마나 속히 불의를 행하며, 저 악한 자에게 이끌려 가는지를 알 수 있었더라.
- 9 참으로 또한 매우 간악한 사람 하나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생기게 할 수 있는 큰 간악함도 알게 되었더라.

## Alma 46

And it came to pass that as many as would not hearken to the words of Helaman and his brethren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ir brethren.

And now behold, they were exceedingly wroth, inasmuch that they were determined to slay them.

Now the leader of those who were wroth against their brethren was a large and a strong man; and his name was Amalickiah.

And Amalickiah was desirous to be a king; and those people who were wroth were also desirous that he should be their king; and they were the greater part of them the lower judges of the land, and they were seeking for power.

And they had been led by the flatteries of Amalickiah, that if they would support him and establish him to be their king that he would make them rulers over the people.

Thus they were led away by Amalickiah to dissensions, notwithstanding the preaching of Helaman and his brethren, yea, notwithstanding their exceedingly great care over the church, for they were high priests over the church.

And there were many in the church who believed in the flattering words of Amalickiah, therefore they dissented even from the church; and thus were the affairs of the people of Nephi exceedingly precarious and dangerous, notwithstanding their great victory which they had had over the Lamanites, and their great rejoicings which they had had because of their deliverance by the hand of the Lord.

Thus we see how quick the children of men do forget the Lord their God, yea, how quick to do iniquity, and to be led away by the evil one.

Yea, and we also see the great wickedness one very wicked man can cause to take place among the children of men.

10 참으로 우리는 아멜리카이아가, 그 자신 간교한 술책의 사람이요 아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까닭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악을 행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곧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인 자유의 기초를 파괴하기를 꾀하게 하였음을 알고 있느니라.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모로나이가 이 이반의 소식을 듣고, 아멜리카이아에게 노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겹옷을 찢고, 그 한 조각을 취하여, 그 위에—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라고 쓰고 그것을 장대 끝에 비끄러매었더라.

13 그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가슴판과 그의 방패를 단단히 매고 그의 갑옷을 그 허리에 두르고 그 찢은 겹옷을 끝에 매단 장대를 들고 (그는 이를 자유의 기치라 칭하였더라) 땅에 엎드려, 땅을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남아 있는 동안은, 자유의 축복이 자기의 형제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니—

14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 이같이 일컬어졌음이라.

15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충실하였고, 참으로 무릇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 곧 사람들이 일컫는 대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들었나니, 그들을 이같이 일컬었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의 연고더라.

16 그리하여 이때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의와, 그 땅의 자유를 도우시기를 기도한 것이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서, 황무 땅 남쪽의 모든 땅과 또한 요컨대 북방과 남방의 모든 땅을 택함 받은 땅이요, 자유의 땅이라 이름하였더라.

Yea, we see that Amalickiah, because he was a man of cunning device and a man of many flattering words, that he led away the hearts of many people to do wickedly; yea, and to seek to destroy the church of God, and to destroy the foundation of liberty which God had granted unto them, or which blessing God had sent upon the face of the land for the righteous' sak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who was the chief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ephites, had heard of these dissensions, he was angry with Amalickiah.

And it came to pass that he rent his coat; and he took a piece thereof, and wrote upon it—In memory of our God, our religion, and freedom, and our peace, our wives, and our children—and he fastened it upon the end of a pole.

And he fastened on his head-plate, and his breast-plate, and his shields, and girded on his armor about his loins; and he took the pole, which had on the end thereof his rent coat, (and he called it the title of liberty) and he bowed himself to the earth, and he prayed mightily unto his God for the blessings of liberty to rest upon his brethren, so long as there should a band of Christians remain to possess the land—

For thus were all the true believers of Christ, who belonged to the church of God, called by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And those who did belong to the church were faithful; yea, all those who were true believers in Christ took upon them, gladly, the name of Christ, or Christians as they were called, because of their belief in Christ who should come.

And therefore, at this time, Moroni prayed that the cause of the Christians, and the freedom of the land might be favore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poured out his soul to God, he named all the land which was south of the land Desolation, yea, and in fine, all the land, both on the north and on the south—A chosen land, and the land of liberty.

18 또 이르되, 정녕 하나님은 우리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까닭에 멸시받는 우리가 짓밟혀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범법으로 이를 자초하기 전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19 또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 옷의 찢은 조각을 공중에 흔들며 찢은 조각 위에 자기가 쓴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20 보라, 무릇 이 땅 위에 이 기치를 지키기 원하는 자는 다 주의 힘 안에 나아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어, 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공포하고 나자, 보라, 백성들이 그 허리에 그들의 갑옷을 두르고 함께 달려와, 주 저희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표시, 곧 성약으로써 그들의 옷을 찢었나니,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거나, 범법에 빠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들의 옷을 찢은 것같이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함이라.

22 이제 그들이 맺은 성약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이 모로나이의 발에 그들의 옷을 던지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성약하노니, 만일 우리가 범법에 빠진다면, 북방 땅의 우리 형제들 같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라, 참으로 만일 우리가 범법에 빠진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옷을 당신 발에 던져 발 아래 밟히게 한 것같이, 그가 우리를 우리 대적의 발에 던지실지라도 하매,

23 모로나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 야곱 자손의 남은 자들이니라. 참으로 우리는, 그 옷이 그 형제들에게 여러 조각으로 찢기웠던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라, 과연 그러하니 이제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옷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찢길 것이요, 우리는 옥에 던져지거나, 팔리우거나, 죽임을 당하리라.

And he said: Surely God shall not suffer that we, who are despised because we take upon us the name of Christ, shall be trodden down and destroyed, until we bring it upon us by our own transgressions.

And when Moroni had said these words, he went forth among the people, waving the rent part of his garment in the air, that all might see the writing which he had written upon the rent part, and crying with a loud voice, saying:

Behold, whosoever will maintain this title upon the land, let them come forth in the strength of the Lord, and enter into a covenant that they will maintain their rights, and their religion, that the Lord God may bless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proclaimed these words, behold, the people came running together with their armor girded about their loins, rending their garments in token, or as a covenant, that they would not forsake the Lord their God; or, in other words, if they should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God, or fall into transgression, and be ashamed to take upon them the name of Christ, the Lord should rend them even as they had rent their garments.

Now this was the covenant which they made, and they cast their garments at the feet of Moroni, saying: We covenant with our God, that we shall be destroyed, even as our brethren in the land northward, if we shall fall into transgression; yea, he may cast us at the feet of our enemies, even as we have cast our garments at thy feet to be trodden under foot, if we shall fall into transgression.

Moroni said unto them: Behold, we are a remnant of the seed of Jacob; yea, we are a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whose coat was rent by his brethren into many pieces; yea, and now behold, let us remember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or our garments shall be rent by our brethren, and we be cast into prison, or be sold, or be slain.

24 참으로 우리는 요셉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참으로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자. 이는 보라, 그가 요셉의 겹옷의 남은 조각 일부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을 보았음이니, 그가 이르되—내 아들의 옷의 이 남은 조각이 보존된 것같이, 내 아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되어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으리라, 한편 요셉 자손의 나머지는 그의 옷의 남은 조각처럼 멸망하리다.

25 이제 보라, 이 일이 내 영혼을 슬프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 중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을 그 부류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내 아들 안에서 기쁨을 얻는도다 하였느니라.

26 이제 보라, 야곱의 말이 이러하였느니라.

27 그리고 이제 그의 옷처럼 멸망할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인지 누가 아느냐?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리라.

2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자신이 나아가되, 또한 이반이 있는 그 땅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무릇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아멜리카이아 및 떨어져 나가서 아멜리카이아인이라 일컫는 자들을 대적하기 원하는 백성을 다 함께 모았느니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모로나이의 백성이 아멜리카이아인들보다 수효가 많은 것을 보고—그가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그 시작한 일의 대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본지라—그러므로 그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취하고 니파이 땅으로 떠났더라.

Yea, let us preserve our liberty as a remnant of Joseph; yea, let us remember the words of Jacob, before his death, for behold, he saw that a part of the remnant of the coat of Joseph was preserved and had not decayed. And he said—Even as this remnant of garment of my son hath been preserved, so shall a remnant of the seed of my son be preserved by the hand of God, and be taken unto himself, while the remainder of the seed of Joseph shall perish, even as the remnant of his garment.

Now behold, this giveth my soul sorrow; nevertheless, my soul hath joy in my son, because of that part of his seed which shall be taken unto God.

Now behold, this was the language of Jacob.

And now who knoweth but what the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which shall perish as his garment, are those who have dissented from us? Yea, and even it shall be ourselves if we do not stand fast in the faith of Christ.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said these words he went forth, and also sent forth in all the parts of the land where there were dissensions, and gathered together all the people who were desirous to maintain their liberty, to stand against Amalickiah and those who had dissented, who were called Amalickia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malickiah saw that the people of Moroni were more numerous than the Amalickiahites—and he also saw that his people were doubtful concerning the justice of the cause in which they had undertaken—therefore, fearing that he should not gain the point, he took those of his people who would and departed into the land of Nephi.

30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이 더 이상의 세력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 그는 아멜리카이아의 백성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붙잡아 다시 데려오고, 아멜리카이아는 사형에 처하려고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이는 그가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할 것임을 그가 알았음이니, 아멜리카이아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

31 그리하여 모로나이는, 함께 모여 스스로 무장하고 평화를 지키기로 성약을 맺은 그의 군대를 거느림이 적절하다 생각하였던지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에서 아멜리카이아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의 장막을 가지고 광야로 진군해 나갔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의 원대로 행하여 광야로 진군해 나아가서, 아멜리카이아의 군대를 가로막았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소수의 자기 병사들과 함께 도망하였고, 나머지는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워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도로 데려와졌더라.

34 이제 모로나이는 재판사들과 백성의 소리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었으므로, 니파이인들의 군대와 관련하여 그의 뜻대로 그들 위에 권력을 세우고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아멜리카이아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키고자 자유의 대의를 지지하기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되, 자유의 언약을 거부한 자는 소수 밖에 없었더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모든 땅에 있는 각 망대 위에 자유의 기치를 게양하게 하였으니, 이같이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자유의 기를 심었더라.

37 이리하여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그들이 거의 판사 치세 제십구년 말까지 그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였더라.

Now Moroni thought it was not expedient that the Lamanites should have any more strength; therefore he thought to cut off the people of Amalickiah, or to take them and bring them back, and put Amalickiah to death; yea, for he knew that he would stir up the Lamanites to anger against them, and cause them to come to battle against them; and this he knew that Amalickiah would do that he might obtain his purposes.

Therefore Moroni thought it was expedient that he should take his armies, who had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nd armed themselves, and entered into a covenant to keep the peace—and it came to pass that he took his army and marched out with his tents into the wilderness, to cut off the course of Amalickiah in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according to his desires, and marched forth into the wilderness, and headed the armies of Amalickiah.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fled with a small number of his men, and the remainder were delivered up into the hands of Moroni and were taken back into the land of Zarahemla.

Now, Moroni being a man who was appointed by the chief judges and the voice of the people, therefore he had power according to his will with the armies of the Nephites, to establish and to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omsoever of the Amalickiahites that would not enter into a covenant to support the cause of freedom, that they might maintain a free government, he caused to be put to death; and there were but few who denied the covenant of freedom.

And it came to pass also, that he caused the title of liberty to be hoisted upon every tower which was in all the land, which was possessed by the Nephites; and thus Moroni planted the standard of liberty among the Nephites.

And they began to have peace again in the land; and thus they did maintain peace in the land until nearly the end of the nine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38 또한 헬라맨과 대제사들도 교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매, 참으로 그들이 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화평과 기쁨을 누렸느니라.

3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았음을 굳게 믿고 죽는 자들이 많았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기뻐하며 세상에서 나갔더라.

40 또 그 땅에 연중 어떤 계절에 매우 빈번하던 열병으로 죽는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그러나 열병으로 것처럼 많이 죽지는 아니하였나니, 이는 기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걸리기 쉬웠던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초목과 뿌리의 우수한 효능 까닭이었더라—

41 그러나 나이 많아 죽는 자가 많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니 곧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대로니라.

And Helaman and the high priests did also maintain order in the church; yea, even for the space of four years did they have much peace and rejoicing in the churc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who died, firmly believing that their souls were redeemed by the Lord Jesus Christ; thus they went out of the world rejoicing.

And there were some who died with fevers, which at some seasons of the year were very frequent in the land—but not so much so with fevers, because of the excellent qualities of the many plants and roots which God had prepared to remove the cause of diseases, to which men were subject by the nature of the climate—

But there were many who died with old age; and those who died in the faith of Christ are happy in him, as we must needs suppose.

## 앨마서 47

- 1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록에서 아멜리카이아 및 그와 함께 광야로 도망해 들어간 자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보라, 그가 자기와 함께 간 자들을 데리고 니파이 땅에 레이맨인들 가운데 올라가,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인의 왕이 그의 온 땅에, 그의 온 백성 가운데 두루 포고를 보내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다시 함께 모이라 하였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고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왕을 노엽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곧 그들의 대부분이 왕의 명령을 복종하려 하지 않았더라.
- 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들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노한지라, 그 군대 중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대의 지휘권을 아멜리카이아에게 주고, 그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들을 억지로 무장시키게 하였더라.
- 4 이제 보라, 이것은 바로 아멜리카이아가 바라던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기에 심히 간교한 자이었으므로 그 마음에 레이맨인의 왕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음이다.
- 5 이에 이제 그가 레이맨인들 가운데 왕을 지지하는 자들의 지휘권을 가졌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환심 사기를 꾀하였으므로, 오나이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갔으니, 그리로 모든 레이맨인들이 도망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병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멸하려 오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나이다로, 무기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였음이라.
- 6 또 그들은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들 위에 왕과 지도자를 삼았고, 니파이인들을 치러 가는 일에 복종하지 않기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확정하고 있었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앤티파스라 하는 산 꼭대기에 함께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 Alma 47

Now we will return in our record to Amalickiah and those who had fled with him into the wilderness; for, behold, he had taken those who went with him, and went up in the land of Nephi among the Lamanites, and did stir up the Lamanites to anger against the people of Nephi, insomuch that the king of the Lamanites sent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his land, among all his people,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again to go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proclamation had gone forth among them they were exceedingly afraid; yea, they feared to displease the king, and they also feared to go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lest they should lose their liv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ould not, or the more part of them would not,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king.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was wroth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therefore he gave Amalickiah the command of that part of his army which was obedient unto his commands, and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go forth and compel them to arms.

Now behold, this was the desire of Amalickiah; for he being a very subtle man to do evil therefore he laid the plan in his heart to dethrone the king of the Lamanites.

And now he had got the command of those parts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favor of the king; and he sought to gain favor of those who were not obedient; therefore he went forward to the place which was called Onidah, for thither had all the Lamanites fled; for they discovered the army coming, and, supposing that they were coming to destroy them, therefore they fled to Onidah, to the place of arms.

And they had appointed a man to be a king and a leader over them, being fixed in their minds with a determined resolution that they would not be subjected to go against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had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upon the top of the mount which was called Antipas, in preparation to battle.

- 8 이제 왕의 명령을 좇아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멜리카이아의 의도가 아니었나니, 보라, 도리어 레이맨인 군대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그들의 수령이 되어 왕을 폐위시키고 왕국을 차지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더라.
- 9 이에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군대로 하여금 앤티파스 산 가까운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그가 밀사를 앤티파스 산으로 보내어, 산 위에 있는 자들의 지도자에게—그의 이름은 리혼타이더라—저에게 자기가 저와 말하기를 원하니, 산기슭으로 내려와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전갈을 받고는 감히 산기슭으로 내려가려 아니하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내어, 저가 내려와 주기를 요청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내려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세 번째로 다시 보내었더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리혼타이를 산에서 떠나 내려오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 리혼타이의 진 가까이로 가서, 네 번째로 다시 자기의 전갈을 리혼타이에게 보내어 내려오기를 청하되, 저가 그 호위병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을 청하였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그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아멜리카이아에게로 내려오매, 아멜리카이아가 저에게 저의 군대를 거느리고 밤중에 내려와서, 왕이 자기에게 그 지휘권을 준 병사들을 그 진에 있는 채로 포위하기를 청하고, 만일 자기(아멜리카이아)로 전 군대의 부지휘관을 삼겠다 하면 그들을 리혼타이의 손에 넘기겠다 하였느니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아멜리카이아의 병사들을 포위하니, 그들이 새벽에 깨기 전에 리혼타이의 군대에게 포위되었더라.

Now it was not Amalickiah's intention to give them battl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the king; but behold, it was his intention to gain favor with the armies of the Lamanites, that he might place himself at their head and dethrone the king and take possession of the kingdom.

And behold, it came to pass that he caused his army to pitch their tents in the valley which was near the mount Antipa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t was night he sent a secret embassy into the mount Antipas, desiring that the leader of those who were upon the mount, whose name was Lehonti, that he should come down to the foot of the mount, for he desired to speak with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Lehonti received the message he durst not go down to the foot of the mount.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sent again the second time, desiring him to come down. And it came to pass that Lehonti would not; and he sent again the third tim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Amalickiah found that he could not get Lehonti to come down off from the mount, he went up into the mount, nearly to Lehonti's camp; and he sent again the fourth time his message unto Lehonti, desiring that he would come down, and that he would bring his guards with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Lehonti had come down with his guards to Amalickiah, that Amalickiah desired him to come down with his army in the night-time, and surround those men in their camps over whom the king had given him command, and that he would deliver them up into Lehonti's hands, if he would make him (Amalickiah) a second leader over the whole army.

And it came to pass that Lehonti came down with his men and surrounded the men of Amalickiah, so that before they awoke at the dawn of day they were surrounded by the armies of Lehonti.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포위된 것을 보고,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형제들과 합류하게 해 줄 것을 아멜리카이아에게 간청하니, 이제 이는 바로 아멜리카이아가 바라던 일이었음이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의 명과는 반대로 자기의 병사들을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이것은 아멜리카이아가 원한 일이었으니, 곧 왕을 폐위시키려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 17 이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 죽임을 당하면, 부지휘관을 그들의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레이맨인들 사이의 관습이었더라.
-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그의 종 가운데 하나로 하여금 리혼타이에게 첨차로 독약을 먹이게 하매, 필경은 저가 죽었느니라.
- 19 이제 리혼타이가 죽으매, 레이맨인들이 아멜리카이아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사령관을 삼았더라.
-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니파이 땅으로 행군하여, (이는 저가 자기의 원하던 바를 얻었음이라) 수도 니파이 성에 이르렀더라.
- 21 이에 왕이 그 시위병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으러 나왔으니, 이는 아멜리카이아가 자기의 명을 이루었고, 아멜리카이아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군대를 것처럼 많이 모은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 22 그러나 보라, 왕이 그를 맞으러 나올새, 아멜리카이아가 그의 종들로 하여금 나아가 왕을 만나게 하매, 그들이 가서 마치 왕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왕을 존경하려 함같이 왕 앞에 엎드렸더라.
-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레이맨인들의 관습대로 평화의 표시로서 그들을 일으키고자 그 손을 내미니, 이 관습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취한 것이더라.
-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첫째를 땅에서 일으킨 즉, 보라 그가 왕의 심장을 찌르매 왕이 땅에 쓰러졌느니라.
- 25 이제 왕의 종들은 도망하고, 아멜리카이아의 종들은 일어나 소리 높여 외쳐 이르되,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saw that they were surrounded, they pled with Amalickiah that he would suffer them to fall in with their brethren, that they might not be destroyed. Now this was the very thing which Amalickiah desire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elivered his men, contrary to the commands of the king. Now this was the thing that Amalickiah desired, that he might accomplish his designs in dethroning the king.

Now it was the custom among the Lamanites, if their chief leader was killed, to appoint the second leader to be their chief leader.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caused that one of his servants should administer poison by degrees to Lehonti, that he died.

Now, when Lehonti was dead, the Lamanites appointed Amalickiah to be their leader and their chief commander.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marched with his armies (for he had gained his desires) to the land of Nephi, to the city of Nephi, which was the chief city.

And the king came out to meet him with his guards, for he supposed that Amalickiah had fulfilled his commands, and that Amalickiah had gathered together so great an army to go against the Nephites to battle.

But behold, as the king came out to meet him Amalickiah caused that his servants should go forth to meet the king. And they went and bowed themselves before the king, as if to reverence him because of his great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put forth his hand to raise them, as was the custom with the Lamanites, as a token of peace, which custom they had taken from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raised the first from the ground, behold he stabbed the king to the heart; and he fell to the earth.

Now the servants of the king fled; and the servants of Amalickiah raised a cry, saying:

- 26 보라, 왕의 종들이 왕의 심장을 찔러 왕은 쓰러졌고 종들은 달아났도다, 와서 보라 하였느니라.
-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명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여금 행군해 나아가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매,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러 본즉, 왕이 그 영긴 피 가운데 누웠는지라, 아멜리카이아가 짐짓 노한 체하고 이르되, 누구든지 왕을 사랑하였거든 그는 나아가 왕의 종들을 추격하여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을 사랑한 자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나아가 모두 왕의 종들의 뒤를 추격하였더라.
- 29 이제 왕의 종들은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는 것을 보고, 다시 놀라 광야로 도망하여 제이라헤 물라 땅으로 건너가서 암몬 백성에게 합류하였더라.
- 30 또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군대는 그들의 뒤를 추격하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오니, 이리하여 아멜리카이아가 그의 기만 행위로 백성의 마음을 얻었느니라.
-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아멜리카이아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니파이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 3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가 왕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듣고—이는 아멜리카이아가 왕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이 그 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자기가 군대로 그들을 추적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그들은 도망해 버렸음을 알렸음이라—
- 33 그러므로 왕후가 이 전갈을 받고 아멜리카이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의 백성들을 살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또한 자기에게로 들어와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왕의 죽음에 관하여 증거할 증인들을 함께 데려올 것을 그에게 요청하였더라.

Behold, the servants of the king have stabbed him to the heart, and he has fallen and they have fled; behold, come and see.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commanded that his armies should march forth and see what had happened to the king; and when they had come to the spot, and found the king lying in his gore, Amalickiah pretended to be wroth, and said: Whosoever loved the king, let him go forth, and pursue his servants that they may be slain.

And it came to pass that all they who loved the king, when they heard these words, came forth and pursued after the servants of the king.

Now when the servants of the king saw an army pursuing after them, they were frightened again, and fled into the wilderness, and came over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joined the people of Ammon.

And the army which pursued after them returned, having pursued after them in vain; and thus Amalickiah, by his fraud, gained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on the morrow he entered the city Nephi with his armies, and took possession of the city.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queen, when she had heard that the king was slain—for Amalickiah had sent an embassy to the queen informing her that the king had been slain by his servants, that he had pursued them with his army, but it was in vain, and they had made their escape—

Therefore, when the queen had received this message she sent unto Amalickiah, desiring him that he would spare the people of the city; and she also desired him that he should come in unto her; and she also desired him that he should bring witnesses with him to testify concerning the death of the king.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왕을 죽인 바로 그 종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다 데리고, 왕후에게로 들어가 왕후가 좌정한 곳에 이르매, 그들이 다 왕후에게 증거하기를, 왕이 자기 자신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하고, 또 이르되, 저들이 도망하였으니 이것이 저들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이같이 그들의 왕의 죽음에 관하여 왕후를 납득시켰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왕후의 호의를 구하고, 그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라. 이리하여 자기의 기만 행위와, 자기의 간교한 종들의 도움으로 그가 왕국을 얻었나니, 참으로 그는 그 온 땅에서, 레이맨인들과 레뮤엘인들과 이스마엘인들 및 니파이의 다스린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니파이인들의 모든 이반자들로 구성된 모든 레이맨인 백성 가운데서 인정된 왕이었던더라.

36 이제 이 이반자들은, 니파이인들의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견문을 가졌고, 참으로 동일한 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갈라져 나간 후 오래지 아니하여, 레이맨인들보다 더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며, 더 거칠고, 간악하며 흉포하게 되어—레이맨인들의 전통을 답습하고, 나태와, 온갖 음란에 빠지며,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took the same servant that slew the king, and all them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unto the queen, unto the place where she sat; and they all testified unto her that the king was slain by his own servants; and they said also: They have fled; does not this testify against them? And thus they satisfied the queen concerning the death of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sought the favor of the queen, and took her unto him to wife; and thus by his fraud, and by the assistance of his cunning servants, he obtained the kingdom; yea, he was acknowledged king throughout all the land, among all the people of the Lamanites, who were composed of the Lamanites and the Lemuelites and the Ishmaelites, and all the dissenters of the Nephites, from the reign of Nephi down to the present time.

Now these dissenters, having the same instruction and the same information of the Nephites, yea, having been instructed in the same knowledge of the Lord, nevertheless, it is strange to relate, not long after their dissensions they became more hardened and impenitent, and more wild, wicked and ferocious than the Lamanites—drinking in with the traditions of the Lamanites; giving way to indolence, and all manner of lasciviousness; yea, entirely forgetting the Lord their God.

## 앨마서 48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왕국을 얻음과 동시에 니파이인들을 대적하도록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고무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사람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망대에서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레이맨인들에게 말하게 하였더라.
- 2 또 그가 이같이 그들의 마음을 고무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니, 결국 판사 치세 제십구년 말미에, 그가 이제까지의 자기의 계획을 달성하였음으로, 실로 레이맨인의 왕이 되어 그 온 땅과 실로 그 땅의 모든 백성 곧 레이맨인들뿐 아니라 니파이인들까지도 다스리기를 구하였음이라.
- 3 이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을 달성했었나니, 이는 그가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며 그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함으로써, 결국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수많은 무리를 함께 모았음이라.
- 4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을 정복하여 속박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 5 그리하여 그가 조램인 중에서 총대장들을 임명하였으니, 이는 이들이 니파이인들의 병력과 그들의 대피 장소와 그들 성읍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이라. 이러므로 그가 이들을 임명하여 자기 군대의 총대장들을 삼았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진을 취하고, 광야에서 제이라헤물라 땅을 향하여 이동해 나아갔더라.
- 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이처럼 기만과 속임으로 권력을 얻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모로나이는 백성의 마음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더라.
- 8 참으로 그는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강화하며, 작은 보루들, 곧 대피 장소들을 구축하되, 주위로 흙독을 쌓아 올려 그의 군대를 둘러싸고, 또한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 땅의 경계 주위로, 참으로 그 땅 주위를 다 돌아가며 석벽을 쌓아 그들을 둘러쌌더라.

## Alma 4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s soon as Amalickiah had obtained the kingdom he began to inspire the hearts of the Lamanites against the people of Nephi; yea, he did appoint men to speak unto the Lamanites from their towers, against the Nephites.

And thus he did inspire their hearts against the Nephites, insomuch that in the latter end of the nine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he having accomplished his designs thus far, yea, having been made king over the Lamanites, he sought also to reign over all the land, yea, and all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the Nephites as well as the Lamanites.

Therefore he had accomplished his design, for he had hardened the hearts of the Lamanites and blinded their minds, and stirred them up to anger, insomuch that he had gathered together a numerous host to go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For he was determin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number of his people, to overpower the Nephites and to bring them into bondage.

And thus he did appoint chief captains of the Zoramites, they being the most acquainted with the strength of the Nephites, and their places of resort, and the weakest parts of their cities; therefore he appointed them to be chief captains over his ar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took their camp, and moved forth toward the land of Zarahemla in the wilderness.

Now it came to pass that while Amalickiah had thus been obtaining power by fraud and deceit, Moroni, on the other hand, had been preparing the minds of the people to be faithful unto the Lord their God.

Yea, he had been strengthening the armies of the Nephites, and erecting small forts, or places of resort; throwing up banks of earth round about to enclose his armies, and also building walls of stone to encircle them about, round about their cities and the borders of their lands; yea, all round about the land.

- 9 또 그들의 방어 시설이 가장 약한 곳에는 더 많은 수의 병사를 배치하였나니,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방비를 강화하고 그 땅을 견고히 하였더라.
- 10 또 이같이 그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의라 일컫는 바를 지키도록,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 11 또 모로나이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참으로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 영혼이 자유를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형제들이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며,
- 12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특권과 축복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백성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심히 수고하는 사람이었더라.
- 13 참으로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 그는 그 피를 잃기까지라도 자기 백성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더라.
- 14 이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필요하다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스스로를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공격을 가하거나, 결코 검을 치켜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 15 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니, 곧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것, 즉 달리 말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이 처한 위험에 따라, 피하도록 경고하시거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실 것이며,

And in their weakest fortifications he did place the greater number of men; and thus he did fortify and strengthen the land which was possessed by the Nephites.

And thus he was preparing to support their liberty, their lands,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peace, and that they might live unto the Lord their God, and that they might maintain that which was called by their enemies the cause of Christians.

And Moroni was a strong and a mighty man; he was a man of a perfect understanding; yea, a man that did not delight in bloodshed; a man whose soul did joy in the liberty and the freedom of his country, and his brethren from bondage and slavery;

Yea, a man whose heart did swell with thanksgiving to his God, for the many privileges and blessings which he bestowed upon his people; a man who did labor exceedingly for the welfare and safety of his people.

Yea, and he was a man who was firm in the faith of Christ, and he had sworn with an oath to defend his people, his rights, and his country, and his religion, even to the loss of his blood.

Now the Nephites were taught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even to the shedding of blood if it were necessary; yea, and they were also taught never to give an offense, yea, and never to raise the sword except it were against an enemy, except it were to preserve their lives.

And this was their faith, that by so doing God would prosper them in the land, or in other words, if they wer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that he would prosper them in the land; yea, warn them to flee, or to prepare for war, according to their danger;

16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이었더라. 이것이 모로나이의 신앙이었고, 그 마음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니, 피 흘림을 그리 여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자기 백성을 보전함을,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불의를 물리침을 그리 여긴 것이더라.

17 과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18 보라, 그는 모사이아의 아들 암몬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참으로 모사이아의 다른 아들들과도 같고, 또한 엘마와 그의 아들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니, 이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라.

19 이제 보라,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도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었음이라.

20 또 이같이 그들이 나아가매, 그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한지라, 그들이 주의 은총을 크게 입었고, 그리하여 참으로 사 년 동안, 그들 가운데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느니라.

21 그러나 이미 내가 말한 것같이, 제십구년 말미에, 그들 중에는 평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내키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더라.

22 참으로 또한 요컨대, 그들이 매우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여러 해 동안 도무지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And also, that God would make it known unto them whither they should go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and by so doing, the Lord would deliver them; and this was the faith of Moroni, and his heart did glory in it; not in the shedding of blood but in doing good, in preserving his people, yea,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yea, and resisting iniquity.

Yea,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f all men had been, and were, and ever would be, like unto Moroni, behold, the very powers of hell would have been shaken forever; yea, the devil would never have power over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Behold, he was a man like unto Ammon, the son of Mosiah, yea, and even the other sons of Mosiah, yea, and also Alma and his sons, for they were all men of God.

Now behold, Helaman and his brethren were no less serviceable unto the people than was Moroni; for they did preach the word of God, and they did baptize unto repentance all men whosoever would hearken unto their words.

And thus they went forth, and the people did humble themselves because of their words, inasmuch that they were highly favored of the Lord, and thus they were free from wars and contentions among themselves, yea, even for the space of four years.

But, as I have said, in the latter end of the nineteenth year, yea, notwithstanding their peace amongst themselves, they were compelled reluctantly to contend with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Yea, and in fine, their wars never did cease for the space of many years with the Lamanites, notwithstanding their much reluctance.

23 이제 그들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무기 들기를 민망히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그들은 것처럼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는 도구가 됨을 민망히 여겼음이라.

24 그러나 그들은 한때 그들의 형제였다가 그들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 그들을 떠나 레이맨인들에게 합류함으로써, 그들을 멸하려 한 자들의 야만적인 잔혹함에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육 당하도록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더라.

25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가 하나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형제들이 니파이인들의 피를 흘려 놓고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나니, 이는 주의 약속은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것이었음 이더라.

Now, they were sorry to take up arms against the Lamanites, because they did not delight in the shedding of blood; yea, and this was not all—they were sorry to be the means of sending so many of their brethren out of this world into an eternal world, unprepared to meet their God.

Nevertheless, they could not suffer to lay down their lives, that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massacred by the barbarous cruelty of those who were once their brethren, yea, and had dissented from their church, and had left them and had gone to destroy them by joining the Lamanites.

Yea, they could not bear that their brethren should rejoice over the blood of the Nephites, so long as there were any who should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for the promise of the Lord was, if they should keep his commandments they should prosper in the land.

## 앨마서 49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구년 십일월 곧 그 달 십일에, 레이맨인의 군대가 앰몬아이하 땅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이 보이더라.
- 2 그러나 보라, 그 성은 이미 중건되었고, 모로나이가 성의 경계에 인접하여 군대를 배치하여 두매, 저들이 레이맨인들의 화살과 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돌아가며 흙을 쌓아 올렸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돌과 화살을 가지고 싸웠음이라.
- 3 보라, 내가 앰몬아이하 성이 중건되었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일부가 중건되었으며, 레이맨인들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성을 한 번 멸한 적이 있으므로 이 성이 다시 그들에게 쉬운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더라.
- 4 그러나 보라,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이 스스로를 둘러 사방으로 흙 제방을 파 올렸는데, 심히 높아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돌과 그들의 화살을 던져도 소용이 없으며, 저들의 입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들을 습격할 수도 없음이더라.
- 5 이제 이때 레이맨인의 총대장들은, 자신들의 방호 장소를 예비한 니파이인들의 지혜로 인하여 심히 놀랐더라.
- 6 이제 레이맨인의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생각하되, 참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저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그뿐 아니라 그들 역시 방패와 가슴판으로 스스로 예비하였고, 또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운 가죽 옷, 곧 매우 두꺼운 옷으로 스스로 예비하였던지라.
- 7 또 이같이 예비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쉽게 그들의 형제들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게 하거나, 마음대로 죽이며 학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더라.

## Alma 49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eleventh month of the nineteenth year, on the tenth day of the month, the armies of the Lamanites were seen approaching towards the land of Ammonihah.

And behold, the city had been rebuilt, and Moroni had stationed an army by the borders of the city, and they had cast up dirt round about to shield them from the arrows and the stones of the Lamanites; for behold, they fought with stones and with arrows.

Behold, I said that the city of Ammonihah had been rebuilt. I say unto you, yea, that it was in part rebuilt; and because the Lamanites had destroyed it once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people, they supposed that it would again become an easy prey for them.

But behold, how great was their disappointment; for behold, the Nephites had dug up a ridge of earth round about them, which was so high that the Lamanites could not cast their stones and their arrows at them that they might take effect, neither could they come upon them save it was by their place of entrance.

Now at this time the chief captains of the Lamanites were astonished exceedingly, because of the wisdom of the Nephites in preparing their places of security.

Now the leaders of the Lamanites had suppos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s, yea, they supposed that they should be privileged to come upon them as they had hitherto done; yea, and they had also prepared themselves with shields, and with breastplates; and they had also prepared themselves with garments of skins, yea, very thick garments to cover their nakedness.

And being thus prepared they supposed that they should easily overpower and subject their brethren to the yoke of bondage, or slay and massacre them according to their pleasure.



- 8 그러나 보라, 그들로서는 지극히 놀라운게도, 니파이인들은 일찍이 리하이의 자손들 가운데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제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모로나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 곧 아멜리카이아인들은 니파이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방식에 심히 놀랐더라.
- 10 이제 만일 아멜리카이아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니파이 땅에서 내려왔었다면, 아마도 그는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리니, 이는 보라, 그는 자기 백성의 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11 그러나 보라, 아멜리카이아는 싸우러 직접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보라, 그의 총대장들은 감히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일의 경영을 변경시킨 결과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의 대피 장소에 실망하였고 또 저들을 습격할 수 없었음이었다.
- 12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로 퇴각하여 그들의 진을 취하고, 그들이 가서 니파이인들을 치기에는 노아 땅이 다음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여, 노아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더라.
- 13 이는 모로나이가 주변 온 땅의 모든 성읍을 위하여 방비를 강화한 줄을, 곧 방호 보루들을 건축한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노아 땅으로 진군해 나아갔나니, 참으로 그들의 총대장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의 백성을 멸하겠다고 맹세하였더라.
- 14 그러나 보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취약한 곳이었던 노아 성이 이제는 모로나이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앰몬아이하 성의 견고함을 넘어설 정도더라.
- 15 또 이제 보라, 이는 모로나이에게 있는 지혜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을 보고 놀랄 것이며, 노아 성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으므로 그리로 싸우러 진군해 오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이같이 그가 바란 대로 일이 되었더라.

But behold, to their uttermost astonishment, they were prepared for them, in a manner which never had been known among the children of Lehi. Now they were prepared for the Lamanites, to battle after the manner of the instructions of Moroni.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or the Amalickiahites, were exceedingly astonished at their manner of preparation for war.

Now, if king Amalickiah had come down out of the land of Nephi, at the head of his army, perhaps he would have caused the Lamanites to have attacked the Nephites at the city of Ammonihah; for behold, he did care not for the blood of his people.

But behold, Amalickiah did not come down himself to battle. And behold, his chief captains durst not attack the Nephites at the city of Ammonihah, for Moroni had altered the management of affairs among the Nephites, insomuch that the Lamanites were disappointed in their places of retreat and they could not come upon them.

Therefore they retreated into the wilderness, and took their camp and marched towards the land of Noah, supposing that to be the next best place for them to come against the Nephites.

For they knew not that Moroni had fortified, or had built forts of security, for every city in all the land round about; therefore, they marched forward to the land of Noah with a firm determination; yea, their chief captains came forward and took an oath that they would destroy the people of that city.

But behold, to their astonishment, the city of Noah, which had hitherto been a weak place, had now, by the means of Moroni, become strong, yea, even to exceed the strength of the city Ammonihah.

And now, behold, this was wisdom in Moroni; for he had supposed that they would be frightened at the city Ammonihah; and as the city of Noah had hitherto been the weakest part of the land, therefore they would march thither to battle; and thus it was according to his desires.

- 16 또 보라, 모로나이는 리하이로 임명하여 그 병사들의 총대장을 삼았으니, 이는 시돈 강 동편 골짜기에서 레이맨인들과 싸운 바로 그 리하이였더라.
- 17 이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리하이가 그 성을 지휘하는 것을 알고 다시 실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리하이를 심히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총대장들이 그 성을 공격하기로 맹세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군대를 전진시켰더라.
- 18 이제 보라, 입구 부근을 제외하고는 쌓아 올린 독이 높고, 둘러 파 놓은 호가 깊어,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길로도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방호 보루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 19 그리고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무릇 다른 어떤 길로 보루에 들어오고자 기어 오르기를 피하는 자들에게는 돌과 화살을 던져, 그들을 다 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 20 이리하여 저들, 참으로 저들 중 가장 강한 병사들의 무리가, 무릇 출입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방호 장소에 들어오기를 피하는 자들을 저들의 칼과 저들의 물매로 다 쳐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같이 저들은 레이맨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대장들이 니파이인들의 방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 장소 앞으로 그들의 군대를 전진시키고 니파이인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그들이 그때마다 격퇴 당하여, 이윽고 막대한 살육을 당하더라.
- 22 이제 그들이 그 통로로는 니파이인들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저들의 군대에 이르는 한 통로를 얻어 대등한 조건으로 싸우고자 저들의 흙제방을 파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이렇게 하려다가 그들에게 던지는 돌과 화살에 쓸어버림을 당하니, 흙제방을 허물어 내려 그들의 호를 메우는 대신, 호가 그들의 시체와 부상당한 몸으로 메워지더라.

And behold, Moroni had appointed Lehi to be chief captain over the men of that city; and it was that same Lehi who fought with the Lamanites in the valley on the east of the river Sidon.

And now behol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had found that Lehi commanded the city they were again disappointed, for they feared Lehi exceedingly; nevertheless their chief captains had sworn with an oath to attack the city; therefore, they brought up their armies.

Now behold, the Lamanites could not get into their forts of security by any other way save by the entrance, because of the highness of the bank which had been thrown up, and the depth of the ditch which had been dug round about, save it were by the entrance.

And thus were the Nephites prepared to destroy all such as should attempt to climb up to enter the fort by any other way, by casting over stones and arrows at them.

Thus they were prepared, yea, a body of their strongest men, with their swords and their slings, to smite down all who should attempt to come into their place of security by the place of entrance; and thus were they prepare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captains of the Lamanites brought up their armies before the place of entrance, and began to contend with the Nephites, to get into their place of security; but behold, they were driven back from time to time, insomuch that they were slain with an immense slaughter.

Now when they found that they could not obtain power over the Nephites by the pass, they began to dig down their banks of earth that they might obtain a pass to their armies, that they might have an equal chance to fight; but behold, in these attempts they were swept off by the stones and arrows which were thrown at them; and instead of filling up their ditches by pulling down the banks of earth, they were filled up in a measure with their dead and wounded bodies.

23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저들의 적을 이길 모든 힘을 가졌고, 이같이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을 멸하기를 꾀하다가 결국 그들의 총대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천 명이 넘는 레이맨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되,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인들 가운데는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24 통로를 통하여 레이맨인들의 화살에 노출되었던 자로서 부상을 입은 자가 오십 명 가량 있었으나, 저들이 저들의 방패와 저들의 가슴판과 저들의 투구로 몸을 가렸던지라, 저들은 그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 매우 심한 부상이 많았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자기 총대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는 광야로 도망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출생으로는 니파이인인 그들의 왕 아멜리카이아에게 그들의 큰 손실에 대해 알리고자 니파이 땅으로 돌아갔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그가 니파이인들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을 굴복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게하지 못하였음이라.

27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한 모로나이를 저주하여 그의 피를 마시겠다고 맹세하였으니, 이는 모로나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한 까닭이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 백성들은, 그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저들을 건지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29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이 끝났느니라.

30 참으로 또한 힐라맨과 시블론과 코리안톤과 암몬과 그의 형제들, 또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 의하여 성임되어 백성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모든 이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주의와 부지런함을 쏟은 까닭에, 교회는 심히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Thus the Nephites had all power over their enemies; and thus the Lamanites did attempt to destroy the Nephites until their chief captains were all slain; yea, and more than a thousand of the Lamanites were slain; whil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t a single soul of the Nephites which was slain.

There were about fifty who were wounded, who had been exposed to the arrows of the Lamanites through the pass, but they were shielded by their shields, and their breastplates, and their head-plates, insomuch that their wounds were upon their legs, many of which were very sever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their chief captains were all slain they fled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returned to the land of Nephi, to inform their king, Amalickiah, who was a Nephite by birth, concerning their great los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as exceedingly angry with his people, because he had not obtained his desire over the Nephites; he had not subjected them to the yoke of bondage.

Yea, he was exceedingly wroth, and he did curse God, and also Moroni, swearing with an oath that he would drink his blood; and this because Moroni had kept the commandments of God in preparing for the safety of 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of Nephi did thank the Lord their God, because of his matchless power in delivering them from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thus ended the ninete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Yea, and there was continual peace among them, and exceedingly great prosperity in the church because of their heed and diligence which they gave unto the word of God, which was declared unto them by Helaman, and Shiblon, and Corianton, and Ammon and his brethren, yea, and by all those who had been ordained by the holy order of God, being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sent forth to preach among the people.

## 앨마서 50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전쟁을 위하여, 곧 레이맨인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군대로 하여금 판사 치세 이십 년 초에 시작하게 하되,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걸쳐 모든 성읍 주위에 흙더미를 파 올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였음이라.
- 2 또 이러한 흙제방 위에 성읍을 둘러 사람의 키 높이로 목재, 곧 목재로 만든 구조물을 짓게 하였더라.
- 3 또 그러한 목재 구조물 위에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짠 틀을 그 사방으로 둘러진 목재 위에 있게 하매, 그것들이 견고하고 높았더라.
- 4 또 그는 그 끝이 뾰족한 말뚝 구조물 위에 솟아 오른 망대들을 세우게 하고, 그 망대들 위에 안전한 장소를 만들게 하여 레이맨인들의 돌이나 화살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 5 또 그들은 그 꼭대기에서 그들의 뜻대로, 또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돌을 던져 성벽 가까이로 접근하려 하는 자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나니,
- 6 이같이 모로나이가 그들의 적이 올 때를 대비하여 그 온 땅 각 성읍 주위에 견고한 진지를 예비하였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가게 하매, 참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동편 광야에 있던 레이맨인들을 제이라헤물라 땅 남쪽인 저희의 본토로 다 쫓아 보냈더라.
- 8 그리고 니파이 땅은 동해에서 서해까지 곧게 뻗어 있었더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그들 소유의 땅 북편인 동편 광야에서 모두 쫓아내고 나서, 제이라헤물라 땅과 그 주변 땅의 주민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가게 하되, 곧 바닷가의 변경까지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더라.

## Alma 50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Moroni did not stop making preparations for war, or to defend his people against the Lamanites; for he caused that his armies should commence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they should commence in digging up heaps of earth round about all the cities, throughout all the land which was possessed by the Nephites.

And upon the top of these ridges of earth he caused that there should be timbers, yea, works of timbers built up to the height of a man, round about the cities.

And he caused that upon those works of timbers there should be a frame of pickets built upon the timbers round about; and they were strong and high.

And he caused towers to be erected that overlooked those works of pickets, and he caused places of security to be built upon those towers, that the stones and the arrows of the Lamanites could not hurt them.

And they were prepared that they could cast stones from the top thereof, according to their pleasure and their strength, and slay him who should attempt to approach near the walls of the city.

Thus Moroni did prepare strongholds against the coming of their enemies, round about every city in all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caused that his armies should go forth into the east wilderness; yea, and they went forth and drove all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east wilderness into their own lands, which were south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 land of Nephi did run in a straight course from the east sea to the wes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driven all the Lamanites out of the east wilderness, which was north of the lands of their own possessions, he caused that the inhabitants who were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in the land round about should go forth into the east wilderness, even to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possess the land.

- 10 또 남쪽편 그들 소유의 땅 경계에 군대를 배치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어 시설을 세우게 하여 그들의 적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였더라.
- 11 또 이같이 그가 동편 광야에서와, 또한 서편에서 레이맨인들의 견고한 거점을 다 차단하고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 곧 제이라헤믈라 땅과 니파이 땅 사이, 곧 서해로부터 시돈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는 선을 강화하였으니—니파이인들은 북편의 모든 땅, 곧 풍요 땅의 북편 모든 땅을 그 마음대로 차지하였더라.
- 12 이같이 모로나이는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 소유의 땅에서 레이맨인들의 세력과 권력을 끊어버려서, 저들로 그들 소유의 땅에서 아무 권력도 갖지 못하게 하기를 꾀하였으니, 모로나이의 군대는 그의 일이 가져다주는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불어났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한 성읍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성의 이름을 모로나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동해 가까이에 있으며, 남쪽으로 레이맨인의 땅 경계선 가까이에 있더라.
- 14 그들이 또한 모로나이 성과 아론 성 사이, 아론과 모로나이의 경계를 연결하는 곳에 성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여 그 성, 곧 그 땅 이름을 니파이하라 하였더라.
- 15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 같은 해에 북쪽으로 많은 성읍들을 짓기 시작하되, 하나를 특이한 방식으로 지어 리하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북쪽 바닷가의 변방 가까이에 있더라.
- 16 그리고 이같이 제이십년이 끝났느니라.
- 17 또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일년 초에도 이같이 니파이 백성은 번영하는 가운데 있었더라.
- 18 또 그들은 심히 번영하고, 또 심히 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점점 강해졌더라.

And he also placed armies on the south, in the borders of their possessions, and caused them to erect fortifications that they might secure their armies and their people from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thus he cut off all the strongholds of the Lamanites in the east wilderness, yea, and also on the west, fortifying the line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between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 land of Nephi, from the west sea, running by the head of the river Sidon—the Nephites possessing all the land northward, yea, even all the land which was northward of the land Bountiful, according to their pleasure.

Thus Moroni, with his armies, which did increase daily because of the assurance of protection which his works did bring forth unto them, did seek to cut off the strength and the power of the Lamanites from off the lands of their possessions, that they should have no power upon the lands of their possessi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began the foundation of a city,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e city Moroni; and it was by the east sea; and it was on the south by the line of the possessions of the Lamanites.

And they also began a foundation for a city between the city of Moroni and the city of Aaron, joining the borders of Aaron and Moroni;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e city, or the land, Nephihah.

And they also began in that same year to build many cities on the north, one in a particular manner which they called Lehi, which was in the north by the borders of the seashore.

And thus ended the twentieth year.

And in these prosperous circumstances were the people of Nephi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ey did prosper exceedingly, and they became exceedingly rich; yea, and they did multiply and wax strong in the land.

19 또 이리하여 우리는 주의 모든 행하심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자비롭고 또 공의로운지를 알게 되나니,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느니라. 곧 그가 리하이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루시기를,

20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지라,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느니라.

21 이에 우리는 니파이 백성에게 이 약속이 입증된 것을 보나니, 이는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을 그들에게 초래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분쟁이요, 참으로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가증한 일이었음이니라.

22 또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어느 때나 견지심을 입었으나, 한편 그들의 간악한 형제들 수천 명은 속박에 들거나, 칼에 멸망하거나,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레이맨인들과 섞이게 되었음이니라.

23 그러나 보라 니파이의 시대 이래로, 니파이 백성에게 있어서 모로나이의 때, 참으로 곧 이때, 판사 치세 제이십일년보다도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이년도 화평한 가운데 끝났으며, 또한 제이십삼년도 그러하였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사년 초에, 리하이 땅과 모리엔톤 땅에 관하여 그들 중에 일어난 분쟁이 아니었다면 니파이 백성 가운데는 역시 평화가 있었을 것이라, 모리엔톤 땅은 리하이의 경계에 닿아 있으며, 이 두 땅은 바닷가의 변방에 있더라.

And thus we see how merciful and just are all the dealings of the Lord, to the fulfilling of all his words unto the children of men; yea, we can behold that his words are verified, even at this time, which he spake unto Lehi, saying:

Blessed art thou and thy children; and they shall be blessed, inasmuch as they shall keep my commandments they shall prosper in the land. But remember, inasmuch as they will not keep my commandments they shall b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e see that these promises have been verified to the people of Nephi; for it has been their quarrellings and their contentions, yea, their murderings, and their plunderings, their idolatry, their whoredoms, and their abominations, which were among themselves, which brought upon them their wars and their destructions.

And those who were faithful in keeping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ere delivered at all times, whilst thousands of their wicked brethren have been consigned to bondage, or to perish by the sword, or to dwindle in unbelief, and mingle with the Lamanites.

But behold there never was a happier time among the people of Nephi, since the days of Nephi, than in the days of Moroni, yea, even at this time, in the twen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twen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lso ended in peace; yea, and also the twenty and third year.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four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ould also have been peace among the people of Nephi had it not been for a contention which took place among them concerning the land of Lehi, and the land of Morianton, which joined upon the borders of Lehi; both of which were o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26 이는 보라, 모리애틀 땅을 소유한 백성이 리하이 땅의 일부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격한 다툼이 생겨 급기야는 모리애틀 백성이 그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기에 이르렀나니, 이들은 리하이 백성을 칼로 도륙하기로 작정하였더라.

27 그러나 보라, 리하이 땅을 소유한 백성이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도망하여,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지 아니함이었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애틀이라 이름하는 자가 이끄는 모리애틀 백성이, 리하이 백성이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도망한 것을 알고, 모로나이의 군대가 자기들을 엄습하여 자기들을 멸할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였던지라.

29 이에 모리애틀이, 큰 호수들로 뒤덮인 북방 땅으로 도망하여 북방 땅을 차지하려는 뜻을 그들의 마음에 넣었더라.

30 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더라, (그리되었더라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보라, 모리애틀은 성정이 격한 사람이라, 그리하여 저가 한 여종에게 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심히 때렸는지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도망하여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넘어와서, 모로나이에게 그 일에 관해서와, 또한 북방 땅으로 도망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고하였더라.

32 이제 보라, 풍요 땅에 있던 백성은, 아니 그보다도 모로나이는, 그들이 모리애틀의 말을 듣고 그의 백성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그리하여 그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까 염려하였나니, 그 일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기초를 놓게 되고, 참으로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자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더라.

33 그리하여 모로나이는 군대를 그 진과 함께 보내어, 모리애틀의 백성을 가로막아, 그들이 북방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막게 하였더라.

For behold, the people who possessed the land of Morianton did claim a part of the land of Lehi; therefore there began to be a warm contention between them, insomuch that the people of Morianton took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and they were determined by the sword to slay them.

But behold, the people who possessed the land of Lehi fled to the camp of Moroni, and appealed unto him for assistance; for behold they were not in the wrong.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people of Morianton, who were led by a man whose name was Morianton, found that the people of Lehi had fled to the camp of Moroni, they were exceedingly fearful lest the army of Moroni should come upon them and destroy them.

Therefore, Morianton put it into their hearts that they should flee to the land which was northward, which was covered with large bodies of water,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was northward.

And behold, they would have carried this plan into effect, (which would have been a cause to have been lamented) but behold, Morianton being a man of much passion, therefore he was angry with one of his maid servants, and he fell upon her and beat her much.

And it came to pass that she fled, and came over to the camp of Moroni, and told Moroni all things concerning the matter, and also concerning their intentions to flee into the land northward.

Now behold,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Bountiful, or rather Moroni, feared that they would hearken to the words of Morianton and unite with his people, and thus he would obtain possession of those parts of the land, which would lay a foundation for serious consequences among the people of Nephi, yea, which consequences would lead to the overthrow of their liberty.

Therefore Moroni sent an army, with their camp, to head the people of Morianton, to stop their flight into the land northward.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황무 땅 경계에 이르도록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였으나, 거기 곧 바다 가까이로 북방 땅에 이르는 좁은 통로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으니, 참으로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모두 바다에 가까운 곳이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보낸 군대를 이끈 사람은 이름이 티앤클이라 하는 자더니, 그 군대가 모리앤티의 백성을 만나매, 모리앤티의 백성들이 (그의 간악함과 그의 감언이설에 고무되어) 심히 완강한지라, 그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으나, 이 싸움에서 티앤클이 모리앤티를 죽이고, 그의 군대를 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사년이 끝났느니라.

36 또 이같이 모리앤티 백성을 다시 데려와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언약하에 그들을 모리앤티 땅으로 되돌리매, 그들과 리하이 백성 사이에 연합이 생겼고 이에 이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이 다시 평화를 회복한 그 해에, 이 대 대판사 니파이하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판사직을 수행하고 죽었느니라.

38 그러할지라도 그는 엘마와 그의 조상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긴 저 기록들과 저 물건들을 맡으라는 엘마의 뜻을 거절하였나니, 그러므로 엘마가 그것들을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넘겨주었느니라.

39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하의 아들이 그 부친을 대신하여 판사직을 채우도록 임명되니라. 참으로 그는 의롭게 판단하며 백성의 안녕과 자유를 지키며,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성스러운 특권을 허락하며, 참으로 그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대의를 받들고 지키며, 악인을 그 범죄한대로 정의에 붙이기 위하여 맹세와 거룩한 의식으로써 백성 위에 통치자로 총리로 임명되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not head them until they had come to the borders of the land Desolation; and there they did head them, by the narrow pass which led by the sea into the land northward, yea, by the sea, on the west and on the eas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y which was sent by Moroni, which was led by a man whose name was Teancum, did meet the people of Morianton; and so stubborn were the people of Morianton, (being inspired by his wickedness and his flattering words) that a battle commenced between them, in the which Teancum did slay Morianton and defeat his army, and took them prisoners, and returned to the camp of Moroni. And thus ended the twenty and four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were the people of Morianton brought back. And upon their covenanting to keep the peace they were restored to the land of Morianton, and a union took place between them and the people of Lehi; and they were also restored to their land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same year that the people of Nephi had peace restored unto them, that Nephiah, the second chief judge, died, having filled the judgment-seat with perfect uprightness before God.

Nevertheless, he had refused Alma to take possession of those records and those things which were esteemed by Alma and his fathers to be most sacred; therefore Alma had conferred them upon his son, Helaman.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son of Nephiah was appointed to fill the judgment-seat, in the stead of his father; yea, he was appointed chief judge and governor over the people, with an oath and sacred ordinance to judge righteously, and to keep the peace and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to grant unto them their sacred privileges to worship the Lord their God, yea, to support and maintain the cause of God all his days, and to bring the wicked to justice according to their crime.



40     이제 보라, 그의 이름은 페이호랜이니, 페이호  
랜이 그 부친의 자리를 채우고 제이십사년 말에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느니라.

Now behold, his name was Pahoran. And Pahoran  
did fill the seat of his father, and did commence his  
reign in the end of the twenty and fourth year, over  
the people of Nephi.

## 앨마서 51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 초에, 그들이 리하이 백성과 모리앤티온 백성 사이에 그들의 땅에 관하여 평화를 이루고, 제이십오년을 화평한 가운데 시작하였으나,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전적인 화평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대판사 페이호랜에 관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음이라. 이는 보라, 백성 가운데 법률의 몇몇 특정한 사항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음이라.
- 3 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은 법률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용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지라, 법개정에 관한 그들의 청원을 들여보낸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 4 그리하여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가 더 이상 그 땅의 대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할 때, 그 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피를 흘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호랜이 판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왕당파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전복하고 그 땅에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였음이었,
- 6 또 페이호랜이 그 땅의 대판사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유파라 하는 이름을 취한지라, 그들 중의 분열이 이러하였으니, 이는 자유파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의하여 저들의 권리와 저들의 종교의 특권을 지키기로 맹세 곧 언약하였음이었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이 분쟁 문제가 백성의 소리로 해결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자유파를 지지할 때, 페이호랜이 판사직을 유지하니, 이로 말미암아 페이호랜의 형제들과 또한 많은 자유의 백성 가운데 크게 기뻐함이 있었고, 이들이 또한 왕당파들을 잠잠하게 할 때, 저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자유의 대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

## Alma 51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ey having established peace between the people of Lehi and the people of Morianton concerning their lands, and having commenced the twenty and fifth year in peace;

Nevertheless, they did not long maintain an entire peace in the land, for there began to be a contention among the people concerning the chief judge Pahoran; for behold, there were a part of the people who desired that a few particular points of the law should be altered.

But behold, Pahoran would not alter nor suffer the law to be altered; therefore, he did not hearken to those who had sent in their voices with their petitions concerning the altering of the law.

Therefore, those who were desirous that the law should be altered were angry with him, and desired that he should no longer be chief judge over the land; therefore there arose a warm dispute concerning the matter, but not unto bloodsh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who were desirous that Pahoran should be dethroned from the judgment-seat were called king-men, for they were desirous that the law should be altered in a manner to overthrow the free government and to establish a king over the land.

And those who were desirous that Pahoran should remain chief judge over the land took upon them the name of freemen; and thus was the division among them, for the freemen had sworn or covenanted to maintain their rights and the privileges of their religion by a free government.

And it came to pass that this matter of their contention was settled by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voice of the people came in favor of the freemen, and Pahoran retained the judgment-seat, which caused much rejoicing among the brethren of Pahoran and also many of the people of liberty, who also put the king-men to silence, that they durst not oppose but were obliged to maintain the cause of freedom.

- 8 이제 왕을 선호한 자들은 높은 신분의 태생인 자들이었고, 그들은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은 백성들에 대한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의 지지를 얻었더라.
- 9 그러나 보라, 이때는 니파이 백성 가운데 그러한 분쟁이 있기에는 위급한 시기였으니, 이는 보라, 아멜리카이아가 다시 레이맨인 백성의 마음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백성을 대적하게 하고, 그의 땅 모든 지역으로부터 군사들을 함께 모으며, 부지런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음이라, 이는 그가 모로나이의 피를 마시겠다고 맹세했었음이라.
- 10 그러나 보라, 우리는 그가 한 약속이 성급한 것이었음을 보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파이인들을 치러 오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 군대도 준비시켰더라.
- 11 이제 그의 군대는 수천이 니파이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까지 그랬던 것만큼 많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멜리카이아는 놀랄 만큼 큰 군대를 끌어 모았던지라,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더라.
- 12 참으로 아멜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을 거느리고 친히 내려왔으니, 때는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이요, 또 이는 그들이 대판사 페이호랜에 관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때이었다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당파라 일컫는 사람들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마음에 기뻐하여 무기 들기를 거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대판사와, 또한 자유의 백성들에게 심히 노하였던지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를 보고,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의 경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보전하기 위하여 그토록 부지런히 수고해 온 그 백성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심히 노하였더라.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그 영혼이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Now those who were in favor of kings were those of high birth, and they sought to be kings; and they were supported by those who sought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people.

But behold, this was a critical time for such contentions to be among the people of Nephi; for behold, Amalickiah had again stirred up the hearts of the people of the Lamanites against the people of the Nephites, and he was gathering together soldiers from all parts of his land, and arming them, and preparing for war with all diligence; for he had sworn to drink the blood of Moroni.

But behold, we shall see that his promise which he made was rash; nevertheless, he did prepare himself and his armies to come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Now his armies were not so great as they had hitherto been, because of the many thousands who had been slain by the hand of the Nephites; but notwithstanding their great loss, Amalickiah had gathered together a wonderfully great army, insomuch that he feared not to come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Yea, even Amalickiah did himself come down, at the head of the Lamanites. And it was in the twenty and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was at the same time that they had begun to settle the affairs of their contentions concerning the chief judge, Pahora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men who were called king-men had heard that the Lamanites were coming down to battle against them, they were glad in their hearts; and they refused to take up arms, for they were so wroth with the chief judge, and also with the people of liberty, that they would not take up arms to defend their country.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saw this, and also saw that the Lamanites were coming into the borders of the land, he was exceedingly wroth because of the stubbornness of those people whom he had labored with so much diligence to preserve; yea, he was exceedingly wroth; his soul was filled with anger against them.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의 소리와 함께 나라의 통치자에게 청원을 보내어, 그가 이를 읽고, 자기(모로나이)에게 이반자들을 강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16 이는 그의 첫째 임무가 백성 중의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음이니, 이는 보라,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멸망의 한 원인이었음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를 좇아 허락이 내려졌느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명령을 내리되 그의 군대가 왕당파 사람들을 치러 가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리고 그들을 땅에까지 낮추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자유의 대의를 지지하여야 할 것을 명하였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군대가 그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리매, 그들이 모로나이의 병사들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다가 베임을 당하여 땅에 눕혔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칼에 베임을 당한 이반자들이 사천이었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잡혀 옥에 던져졌으니, 이는 이 시기에 그들을 재판할 시간이 없었음이라.

20 그리고 나머지 이반자들은 칼에 맞아 땅에 쓰러지기보다는 자유의 기에 투항한지라, 강제로 그들의 망대 위에와, 그들의 성읍에 자유의 기치를 게양하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게 하였더라.

21 그리고 이같이 모로나이가 왕당파를 종식시키매, 왕당파라는 호칭으로 알려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으며, 또 이같이 그가 고귀한 혈통을 주장하던 무리의 완강함과 교만을 종식시키매, 그들이 낮아져서 그 형제들과 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그들의 자유 곧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되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ent a petition, with the voice of the people, unto the governor of the land, desiring that he should read it, and give him (Moroni) power to compel those dissenters to defend their country or to put them to death.

For it was his first care to put an end to such contentions and dissensions among the people; for behold, this had been hitherto a cause of all their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it was granted accord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commanded that his army should go against those king-men, to pull down their pride and their nobility and level them with the earth, or they should take up arms and support the cause of libert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did march forth against them; and they did pull down their pride and their nobility, insomuch that as they did lift their weapons of war to fight against the men of Moroni they were hewn down and leveled to the eart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four thousand of those dissenters who were hewn down by the sword; and those of their leaders who were not slain in battle were taken and cast into prison, for there was no time for their trials at this period.

And the remainder of those dissenters, rather than be smitten down to the earth by the sword, yielded to the standard of liberty, and were compelled to hoist the title of liberty upon their towers, and in their cities, and to take up arms in defence of their country.

And thus Moroni put an end to those king-men, that there were not any known by the appellation of king-men; and thus he put an end to the stubbornness and the pride of those people who professed the blood of nobility; but they were brought down to humble themselves like unto their brethren, and to fight valiantly for their freedom from bondage.

- 22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같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전쟁과 다툼을 진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레이맨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고 있는 사이, 보라, 레이맨인들이 해안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에 들어왔더라.
-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성에 있던 니파이인들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였던지라, 아멜리카이아가 그들을 몰아 내고 많이 죽였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그 성을 점령하되, 참으로 그들의 방어 시설을 다 점령하였더라.
- 24 이에 모로나이 성에서 도망한 자들이 니파이하 성으로 왔고, 리하이 성의 백성도 스스로 함께 모여, 예비하고 레이맨인들을 맞이하여 싸울 준비가 다 되었더라.
- 2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의 니파이하 성 치러 감을 용납하고자 아니하고, 그들을 해안 가까이에서 머무르게 하되, 각 성읍에 병사들을 남겨 두어 성을 지키며 방어하게 하였느니라.
- 26 또 이같이 저가 계속하여 많은 성읍을 니파이하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애틀 성과 옴너 성과 기드 성과 물레크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 모두는 바닷가에 가까운 동쪽 변방에 있더라.
- 27 또 이같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무수한 군사로 것처럼 많은 성읍들을 아멜리카이아의 계교로써 손에 넣었나니, 이 모두는 모로나이가 방비를 강화하는 방식을 좇아 견고하게 방비가 강화되었으나, 이 모두가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진지를 제공하게 되었더라.
-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풍요 땅의 경계로 진군하였으며, 그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을 몰아 내며 많이 도륙하였느니라.
- 2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티앤클에게 만난 바 되니, 저는 모리애틀이 도망할 때 그를 죽이고 그의 백성을 가로막았던 자더라.

Behold, it came to pass that while Moroni was thus breaking down the wars and contentions among his own people, and subjecting them to peace and civilization, and making regulations to prepare for war against the Lamanites, behold, the Lamanites had come into the land of Moroni, which was i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were not sufficiently strong in the city of Moroni; therefore Amalickiah did drive them, slaying many. And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took possession of the city, yea, possession of all their fortifications.

And those who fled out of the city of Moroni came to the city of Nephihah; and also the people of the city of Lehi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nd made preparations and were ready to receive the Lamanites to battle.

But it came to pass that Amalickiah would not suffer the Lamanites to go against the city of Nephihah to battle, but kept them down by the seashore, leaving men in every city to maintain and defend it.

And thus he went on, taking possession of many cities, the city of Nephihah, and the city of Lehi, and the city of Morianton, and the city of Omner, and the city of Gid, and the city of Mulek, all of which were on the east borders by the seashore.

And thus had the Lamanites obtained, by the cunning of Amalickiah, so many cities, by their numberless hosts, all of which were strongly fortified after the manner of the fortifications of Moroni; all of which afforded strongholds for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marched to the borders of the land Bountiful, driving the Nephites before them and slaying many.

But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met by Teancum, who had slain Morianton and had headed his people in his flight.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아멜리카이아도 가로 막았으니, 때에 그가 풍요 땅과 또한 북방 땅을 점령하고자 그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진군하고 있었더라.

31 그러나 보라 그가 티앤클과 그의 병사들에게 격퇴 당함으로 실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티앤클의 각 병사들은 출중한 전사들이었음이었으니, 그들은 그 힘과 그 전쟁의 기술이 레이맨인들보다 뛰어나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우세를 점하였음 이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계속 쳐서, 날이 어둡기까지 저들을 도륙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클과 그의 병사들은 풍요 땅의 경계에 그들의 장막을 쳤고, 아멜리카이아는 변경 바닷가 해안에 저의 장막을 쳤으니 이처럼 저들이 쫓기었더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티앤클과 그의 종이 몰래 빠져나가 밤중에 나가서 아멜리카이아의 진중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들은 낮 동안의 수고와 더위로 인해 몹시 피로한 까닭에 깊이 잠들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클이 왕의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 저의 심장에 창을 꽂으매, 그가 왕으로 즉사하게 하였으므로 저가 그 종들을 깨우지 못하였더라.

35 이에 그가 다시 몰래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니, 보라, 그의 병사들도 자고 있는지라, 그들을 깨워서 자기의 행한 일을 그들에게 다 고하였더라.

36 또 레이맨인들이 깨어 그들을 공격할까 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하였느니라.

3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이십오년이 끝났고, 이에 이같이 아멜리카이아의 생애가 끝나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headed Amalickiah also, as he was marching forth with his numerous army that he might take possession of the land Bountiful, and also the land northward.

But behold he met with a disappointment by being repulsed by Teancum and his men, for they were great warriors; for every man of Teancum did exceed the Lamanites in their strength and in their skill of war, insomuch that they did gain advantage over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harass them, insomuch that they did slay them even until it was dark. And it came to pass that Teancum and his men did pitch their tents in the borders of the land Bountiful; and Amalickiah did pitch his tents in the borders on the beach by the seashore, and after this manner were they drive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night had come, Teancum and his servant stole forth and went out by night, and went into the camp of Amalickiah; and behold, sleep had overpowered them because of their much fatigue, which was caused by the labors and heat of the day.

And it came to pass that Teancum stole privily into the tent of the king, and put a javelin to his heart; and he did cause the death of the king immediately that he did not awake his servants.

And he returned again privily to his own camp, and behold, his men were asleep, and he awoke them and told them all the things that he had done.

And he caused that his armies should stand in readiness, lest the Lamanites had awakened and should come upon them.

And thus endeth the twenty and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th the days of Amalickiah.

## 앨마서 52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에, 보라, 레이맨인들이 정월 초하루 아침에 깨어, 보라, 아멜리카이아가 자기의 장막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티앤쿰이 그 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 2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북방 땅으로 행군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버리고 그들의 온 군대와 더불어 물레크 성으로 퇴각하여, 그들의 방어 시설 안에 들어가 피하였느니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멜리카이아의 동생이 백성들 위에 왕으로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앰모론이더라. 이리하여 아멜리카이아 왕의 동생 앰모론 왕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임명되었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이 피 흘려 취한 그 성읍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많은 피를 잃지 않고 취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 5 이에 이제 티앤쿰이 본즉 레이맨인들이 그 취한 바 성읍들과 그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또 본즉 그들의 수효가 심히 많은지라, 티앤쿰이 생각하기를 요새지 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 함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 6 마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같이 자기 병사들을 주변에 배치하였더라. 이뿐 아니라 진실로 그는 주위에 벽을 쌓아 올리고 대피 장소를 예비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로나이가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보내왔을 때까지 이같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더라.
- 8 그리고 모로나이는 또한 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포로를 모두 붙잡아 두라 하였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많은 포로를 사로잡았으므로, 레이맨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위한 몸값으로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붙잡아 두고자 함이더라.

## Alma 52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twen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behold, when the Lamanites awoke on the first morning of the first month, behold, they found Amalickiah was dead in his own tent; and they also saw that Teancum was ready to give them battle on that day.

And now, when the Lamanites saw this they were affrighted; and they abandoned their design in marching into the land northward, and retreated with all their army into the city of Mulek, and sought protection in their fortificat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Amalickiah was appointed king over the people; and his name was Ammoron; thus king Ammoron, the brother of king Amalickiah, was appointed to reign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command that his people should maintain those cities, which they had taken by the shedding of blood; for they had not taken any cities save they had lost much blood.

And now, Teancum saw that the Lamanites were determined to maintain those cities which they had taken, and those parts of the land which they had obtained possession of; and also seeing the enormity of their number, Teancum thought it was not expedient that he should attempt to attack them in their forts.

But he kept his men round about, as if making preparations for war; yea, and truly he was preparing to defend himself against them, by casting up walls round about and preparing places of resor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kept thus preparing for war until Moroni had sent a large number of men to strengthen his army.

And Moroni also sent orders unto him that he should retain all the prisoners who fell into his hands; for as the Lamanites had taken many prisoners, that he should retain all the prisoners of the Lamanites as a ransom for those whom the Lamanites had taken.

- 9 그리고 모로나이가 또 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풍요 땅의 방비를 강화하고, 북방 땅으로 가는 협로를 단단히 지켜, 레이맨인들이 그 지점을 손에 넣고 그들을 사방으로 괴롭힐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더라.
- 10 또 모로나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지역을 충실히 지키는 것과, 혹시라도 그들의 손에서 빼앗긴 바 된 성읍들을 계책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지역의 레이맨인들을 많이 괴롭게 할 기회를 찾을 것과, 또한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아니한 주변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방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더라.
- 11 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가기 원하나, 보라, 레이맨인들이 서해에 인접한 땅의 경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그들을 치러 가므로 네게로 갈 수 없도다 하였더라.
- 12 이제 왕(암모론)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떠났고, 또 그 형의 죽음을 왕후에게 알리고, 많은 수의 병사를 모아 가지고, 서해에 인접한 변경의 니파이인들을 치려고 행군해 나아갔었더라.
- 13 또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을 괴롭혀서 그들 병력의 일부를 그 지역으로 이끌어 내려 애쓰는 한편, 그가 취한 성읍들을 점유하도록 남겨 둔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도 동해에 인접한 변경의 니파이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 군대의 힘대로, 니파이인들의 땅을 많이 점령하라 하였더라.
- 14 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이 끝날 때 니파이인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
- 15 그러나 보라, 판사 치세 제이십칠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클이 모로나이의 명령으로—모로나이는 그 땅의 남편과 서편 경계를 방위할 군대를 편성해 놓고, 자기의 군사로 티앤클을 도와 그들이 잃은 성읍들을 되찾고자 풍요 땅을 향하여 그 진군을 시작하였더라—

And he also sent orders unto him that he should fortify the land Bountiful, and secure the narrow pass which led into the land northward, lest the Lamanites should obtain that point and should have power to harass them on every side.

And Moroni also sent unto him, desiring him that he would be faithful in maintaining that quarter of the land, and that he would seek every opportunity to scourge the Lamanites in that quarter, as much as was in his power, that perhaps he might take again by stratagem or some other way those cities which had been taken out of their hands; and that he also would fortify and strengthen the cities round about, which had not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he also said unto him, I would come unto you, but behold, the Lamanites are upon us in the borders of the land by the west sea; and behold, I go against them, therefore I cannot come unto you.

Now, the king (Ammoron) had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had made known unto the queen concerning the death of his brother, and had gathered together a large number of men, and had marched forth against the Nephites on the borders by the west sea.

And thus he was endeavoring to harass the Nephites, and to draw away a part of their forces to that part of the land, while he had commanded those whom he had left to possess the cities which he had taken, that they should also harass the Nephites on the borders by the east sea, and should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s as much as it was in their power,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ir armies.

And thus were the Nephites in those dangerous circumstances in the ending of the twen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But behold, it came to pass in the twenty and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Teancum, by the command of Moroni—who had established armies to protect the south and the west borders of the land, and had begun his march towards the land Bountiful, that he might assist Teancum with his men in retaking the cities which they had lost—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클은 물레크 성에 공격을 가하여, 가능하면 그것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클이 물레크 성에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자기 군대와 더불어 레이맨인들을 치러 진군하여 나아가나, 그가 본즉 그들이 그 요새지에 들어 있는 한 그들을 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지라,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모로나이가 오기를 기다려 자기 군대에 병력을 받아들이고자 풍요로 다시 되돌아왔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칠년 말미에, 모로나이가 그 군대와 더불어 풍요 땅에 도착하였더라.

19 그리고 제이십팔년 초에, 모로나리와 티앤클과 다수의 총대장들이 전쟁 회의를 열고—어떻게 하여야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싸우러 나오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그 요새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이기고 물레크 성을 다시 취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였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물레크 성을 지키는 레이맨인들의 군대에게로, 이름이 야곱인 저들의 지휘관에게 사자를 보내어 저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두 성읍 사이의 평지에서 그들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라, 조램인이었던 야곱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평지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아니하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리는 공평한 입장에서 저들을 만날 가망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레이맨인들을 저들의 요새에서 유인해 낼 한 가지 계획을 결심하였더라.

22 그리하여 그는 티앤클으로 하여금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바닷가 가까이로 행군해 내려가게 하고, 모로나리와 그의 군대는 밤에 물레크 성 서편 광야를 행군하였더라. 이리하여 다음 날 레이맨인들의 파수꾼들이 티앤클을 발견하고는, 달음질하여 그것을 저들의 지휘관 야곱에게 고한지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eancum had received orders to make an attack upon the city of Mulek, and retake it if it were possible.

And it came to pass that Teancum made preparations to make an attack upon the city of Mulek, and march forth with his army against the Lamanites; but he saw that it was impossible that he could overpower them while they were in their fortifications; therefore he abandoned his designs and returned again to the city Bountiful, to wait for the coming of Moroni, that he might receive strength to his army.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did arrive with his army at the land of Bountiful, in the latter end of the twenty and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eighth year, Moroni and Teancum and many of the chief captains held a council of war—what they should do to cause the Lamanites to come out against them to battle; or that they might by some means flatter them out of their strongholds, that they might gain advantage over them and take again the city of Mulek.

And it came to pass they sent embassies to the army of the Lamanites, which protected the city of Mulek, to their leader, whose name was Jacob, desiring him that he would come out with his armies to meet them upon the plains between the two cities. But behold, Jacob, who was a Zoramite, would not come out with his army to meet them upon the plain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having no hopes of meeting them upon fair grounds, therefore, he resolved upon a plan that he might decoy the Lamanites out of their strongholds.

Therefore he caused that Teancum should take a small number of men and march down near the seashore; and Moroni and his army, by night, marched in the wilderness, on the west of the city Mulek; and thus, on the morrow, when the guards of the Lamanites had discovered Teancum, they ran and told it unto Jacob, their leader.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저들의 수효로 인해 생각하기를, 티앤클의 군사 수가 적으므로 그를 이기겠다 하고 티앤클을 치러 진군해 나아오거늘, 티앤클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를 치러 나옴을 보고 북쪽으로 바닷가 가까이로 퇴각해 내려가기 시작하였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가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힘차게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같이 티앤클이 자기들을 헛되이 추격하고 있는 레이맨인들을 이끌어나고 있는 사이, 보라, 모로나이가 자기와 함께 있던 군대의 일부를 명하여 성으로 진군해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게 하였더라.

25 이에 그같이 그들이 행하여 성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자들을 다 죽이니, 참으로 그 전쟁 무기를 내어 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다 죽였더라.

26 또 이리하여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일부로 물레크 성을 점령하는 한편, 자신은 레이맨인들이 티앤클을 추격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을 맞기 위하여 나머지와 더불어 진군하였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풍요 성 가까이 이르기까지 티앤클을 추격하다가 거기서 풍요 성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던 리하이와 소수의 군대에 맞닥뜨렸더니,

28 이에 이제 보라, 레이맨인들의 총대장들이 리하이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음을 보고, 리하이가 자기들을 따라잡기 전에 혹시라도 물레크 성에 닿지 못할까 하여 큰 혼란에 빠져 도망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으나, 리하이의 군사들은 힘이 새로웠음이라.

29 이제 레이맨인들은 모로나이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저들의 후방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고, 저들이 두려워한 모든 것은 리하이와 그의 병사들이었더라.

30 이제 리하이는 저들이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를 만나기까지 저들을 따라잡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Lamanites did march forth against Teancum, supposing by their numbers to overpower Teancum because of the smallness of his numbers. And as Teancum saw the armies of the Lamanites coming out against him he began to retreat down by the seashore, north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he began to flee, they took courage and pursued them with vigor. And while Teancum was thus leading away the Lamanites who were pursuing them in vain, behold, Moroni commanded that a part of his army who were with him should march forth into the city, and take possession of it.

And thus they did, and slew all those who had been left to protect the city, yea, all those who would not yield up their weapons of war.

And thus Moroni had obtained possession of the city Mulek with a part of his army, while he marched with the remainder to meet the Lamanites when they should return from the pursuit of Teancu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pursue Teancum until they came near the city Bountiful, and then they were met by Lehi and a small army, which had been left to protect the city Bountiful.

And now behold, when the chief captains of the Lamanites had beheld Lehi with his army coming against them, they fled in much confusion, lest perhaps they should not obtain the city Mulek before Lehi should overtake them; for they were wearied because of their march, and the men of Lehi were fresh.

Now the Lamanites did not know that Moroni had been in their rear with his army; and all they feared was Lehi and his men.

Now Lehi was not desirous to overtake them till they should meet Moroni and his army.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멀리 퇴각 하기도 전에 니파이인들에게 에워싸였으니, 한편 으로는 모로나이의 군사들에게요, 다른 한편으로 는 리하이의 군사들에게라, 이들은 다 힘이 새롭 고 기운이 넘쳤으나,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오랜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더라.

32 이에 모로나이가 자기의 군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버릴 때까지 저들을 엄습하게 하였느니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곱은 저들의 지휘관이요, 또한 조램인으로서 불굴의 정신을 가졌더니, 저가 레이맨인들을 이끌고 나아와 모로나이를 대 적하여 맹렬한 분노로 싸우게 하였더라.

34 모로나이가 자기들의 행군 진로를 막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결심하고 그들을 도륙하여 물레크 성에 이르는 길을 뚫고자 하였으나, 보라, 모로나이와 그의 군사들은 더 강력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편 모두 심히 큰 분노를 가지고 싸웠고, 양측 모두에 도륙당한 자가 많았으니 과연 그러하였으며, 모로나이는 부상 입고 야곱은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36 또 리하이가 그의 강한 병사들과 더불어 저들의 후미를 맹렬히 압박하매, 후미의 레이맨인들은 저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았고, 저들의 나머지는 큰 혼란에 빠져 어디로 갈지 또는 공격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37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혼란을 보고 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보라, 우리가 너희의 피 흘림을 삼가리라 하였더라.

3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이 말을 듣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저들의 대장들이 다 나아와서 저들의 전쟁 무기를 모로나이의 발에 던지고, 또 저들의 병사들에게도 명하여 저들도 그같이 하게 하였더라.

39 그러나 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자가 많았던지라, 그 칼을 내어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고 저들에게서 그 전쟁 무기를 빼앗고, 강제로 그 형제들과 함께 행군해 나아가 풍요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before the Lamanites had retreated far they were surrounded by the Nephites, by the men of Moroni on one hand, and the men of Lehi on the other, all of whom were fresh and full of strength; but the Lamanites were wearied because of their long march.

And Moroni commanded his men that they should fall upon them until they had given up their weapons of war.

And it came to pass that Jacob, being their leader, being also a Zoramite, and having an unconquerable spirit, he led the Lamanites forth to battle with exceeding fury against Moroni.

Moroni being in their course of march, therefore Jacob was determined to slay them and cut his way through to the city of Mulek. But behold, Moroni and his men were more powerful; therefore they did not give way before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ght on both hands with exceeding fury; and there were many slain on both sides; yea, and Moroni was wounded and Jacob was killed.

And Lehi pressed upon their rear with such fury with his strong men, that the Lamanites in the rear delivered up their weapons of war; and the remainder of them, being much confused, knew not whither to go or to strike.

Now Moroni seeing their confusion, he said unto them: If ye will bring forth your weapons of war and deliver them up, behold we will forbear shedding your blo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had heard these words, their chief captains, all those who were not slain, came forth and threw down their weapons of war at the feet of Moroni, and also commanded their men that they should do the same.

But behold, there were many that would not; and those who would not deliver up their swords were taken and bound, and their weapons of war were taken from them, and they were compelled to march with their brethren forth into the land Bountiful.

40      또 이제 사로잡힌 포로들의 수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보다 더 많았으니, 양측 모두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도 더 많았더라.

And now the number of prisoners who were taken exceeded more than the number of those who had been slain, yea, more than those who had been slain on both sides.

## 앨마서 53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레이맨인 포로들 위에 감시병들을 세우고 그들을 강제하여, 나아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한 니파이인들의 시체도 그리하게 하되, 모로나이가 그들 위에 병사들을 두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 2 또 모로나이가 리하이와 함께 물레크 성으로 가서 그 성의 통제권을 취하여 그를 리하이에게 주었으니, 이제 보라, 이 리하이는 모로나이가 싸운 모든 전투 중 대부분의 전투에서 모로나이와 함께 한 자요 또 그는 모로나이와 같은 자러니,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였더라. 참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모든 니파이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았더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죽은 자와 또한 니파이인들의 죽은 자 장사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을 행군시켜 풍요 땅으로 돌아가게 하매, 티안쿰이 모로나이의 명령으로 풍요 땅 또는 성 주위에 웅덩이를 파는 일을 그들로 시작하게 하였더라.
- 4 또 그들로 웅덩이의 안쪽 독 위에 목재로 흉벽을 만들게 하매, 그들이 목재로 된 흉벽에 대하여 웅덩이로부터 흙을 던져 쌓아 올렸으니, 이같이 저들이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기를 이룩고 목재와 흙으로 된 심히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풍요 성 주위를 두르기까지 한지라.
- 5 이에 이후로 이 성이 영원히 심히 견고한 요새가 되었더라. 또 이 성에서 저들이 레이맨인 포로들을 감시하였으니 참으로 곧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짓게 한 성벽 안에서라. 이제 모로나이는 부득이 레이맨인들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감시하기가 쉽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공격을 가해야 할 때 그의 전 병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던 까닭이더라.

## Alma 53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et guards over the prisoners of the Lamanites, and did compel them to go forth and bury their dead, yea, and also the dead of the Nephites who were slain; and Moroni placed men over them to guard them while they should perform their labors.

And Moroni went to the city of Mulek with Lehi, and took command of the city and gave it unto Lehi. Now behold, this Lehi was a man who had been with Moroni in the more part of all his battles; and he was a man like unto Moroni, and they rejoiced in each other's safety; yea, they were beloved by each other, and also beloved by all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Lamanites had finished burying their dead and also the dead of the Nephites, they were marched back into the land Bountiful; and Teancum, by the orders of Moroni, caused that they should commence laboring in digging a ditch round about the land, or the city, Bountiful.

And he caused that they should build a breastwork of timbers upon the inner bank of the ditch; and they cast up dirt out of the ditch against the breastwork of timbers; and thus they did cause the Lamanites to labor until they had encircled the city of Bountiful round about with a strong wall of timbers and earth, to an exceeding height.

And this city became an exceeding stronghold ever after; and in this city they did guard the prisoners of the Lamanites; yea, even within a wall which they had caused them to build with their own hands. Now Moroni was compelled to cause the Lamanites to labor, because it was easy to guard them while at their labor; and he desired all his forces when he should make an attack upon the Lamanites.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같이 레이 맨인들의 가장 강대한 군대 중 하나에게 승리를 거두고, 니파이 땅에서 레이맨인들의 가장 견고한 요새 중 하나였던 물레크 성을 점령하였으며, 또 이같이 그의 포로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요새도 또한 지었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는 그가 더 이상 레이맨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기 병사들을 시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또한 레이맨인들을 막기 위하여 방어 시설을 만들게 하고, 또한 기근과 고난에서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건지며 그들의 군대를 위한 식량을 마련하게 하였더라.
- 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 가운데 분쟁을 초래한, 그들 가운데 있던 어떤 음모로 말미암아 모로나이가 없는 사이 서해 남방에 있던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니파이인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빼앗더니, 이윽고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성읍을 다수 점령하였느니라.
- 9 이리하여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던 분쟁과 음모로 인하여 그들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
- 10 또 이제 보라, 내가 암몬 백성에 관하여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노니, 이들이 처음에는 레이맨인이었으나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 또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의해 주께로 돌이킨 바 되었고, 또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와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아 왔었느니라.
- 11 또 그들은 그 맹세로 인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지 못했었나니, 이는 그들이 결코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음이요, 또 자기의 맹세대로 그들은 멸망하였으리니, 참으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 대해 가졌던 연민과 극진한 사랑이 아니었던들 그들은 그 형제들의 손에 빠짐을 스스로 감수하였을 것이라.
- 12 이에 이 연고로 그들은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와, 계속 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아 왔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had thus gained a victory over one of the greatest of the armies of the Lamanites, and had obtained possession of the city of Mulek, which was one of the strongest holds of the Lamanites in the land of Nephi; and thus he had also built a stronghold to retain his prisoner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no more attempt a battle with the Lamanites in that year, but he did employ his men in preparing for war, yea, and in making fortifications to guard against the Lamanites, yea, and also delivering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from famine and affliction, and providing food for their armie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Lamanites, on the west sea, south, while in the absence of Moroni on account of some intrigue amongst the Nephites, which caused dissensions amongst them, had gained some ground over the Nephites, yea, insomuch that they had obtained possession of a number of their cities in that part of the land.

And thus because of iniquity amongst themselves, yea, because of dissensions and intrigue amongst themselves they were placed in the most dangerous circumstances.

And now behold, I have somewhat to say concerning the people of Ammon, who, in the beginning, were Lamanites; but by Ammon and his brethren, or rather by the power and word of God, they had been converted unto the Lord; and they had been brought down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had ever since been protected by the Nephites.

And because of their oath they had been kept from taking up arms against their brethren; for they had taken an oath that they never would shed blood more; and according to their oath they would have perished; yea, they would have suffered themselves to have fallen into the hands of their brethren, had it not been for the pity and the exceeding love which Ammon and his brethren had had for them.

And for this cause they were brought down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y ever had been protected by the Nephites.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위험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니파이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보고는 동정심을 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기 원하였더라.

14 그러나 보라, 그들이 바야흐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려 하였을 때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설득으로 제지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세운 바 맹세를 바야흐로 깨뜨리려 하였음이라.

15 또 힐라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영혼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성약을 맺은 모든 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그 형제들이 이 당시 그들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니라.

16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그 원수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쟁 무기를 잡지 않겠다는 성약을 맺지 아니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때에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스스로를 니파이인이라 칭하였더라.

17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되, 참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땅을 지키기로 성약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니파이인들과 그들 자신을 속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을 성약하였더라.

18 이제 보라, 이 성약을 맺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그 전쟁 무기를 잡은 저 청년들이 이천 명이었던라.

19 또 이제 보라, 그들이 지금까지 니파이인들에게 결코 장애가 된 일이 없었던 것같이 이제 이 시기에 또한 큰 힘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잡고 힐라맨이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였음이라.

20 또 그들은 다 청년들이었고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던라.

21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다.

But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saw the danger, and the many afflictions and tribulations which the Nephites bore for them, they were moved with compassion and were desirous to take up arms in the defence of their country.

But behold, as they were about to take their weapons of war, they were overpowered by the persuasions of Helaman and his brethren, for they were about to break the oath which they had made.

And Helaman feared lest by so doing they should lose their souls; therefore all those who had entered into this covenant were compelled to behold their brethren wade through their afflictions, in their dangerous circumstances at this time.

But behold, it came to pass they had many sons, who had not entered into a covenant that they would not take their weapons of war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therefore they di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at this time, as many as were able to take up arms, and they called themselves Nephites.

And they entered into a covenant to fight for the liberty of the Nephites, yea, to protect the land unto the laying down of their lives; yea, even they covenanted that they never would give up their liberty, but they would fight in all cases to protect the Nephites and themselves from bondage.

Now behold, there were two thousand of those young men, who entered into this covenant and took their weapons of war to defend their country.

And now behold, as they never had hitherto been a disadvantage to the Nephites, they became now at this period of time also a great support; for they took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would that Helaman should be their leader.

And they were all young men, and they were exceedingly valiant for courage, and also for strength and activity; but behold, this was not all—they were men who were true at all times in whatsoever thing they were entrusted.

Yea, they were men of truth and soberness, for they had been taught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o walk uprightly before him.

2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서해에 가까운 남방의 그 땅 경계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자 그의 이천 청년 병사의 머리가 되어 진군하였더라.

23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인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팔년이 끝났느니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Helaman did march at the head of his two thousand stripling soldiers, to the support of the people in the borders of the land on the south by the west sea.

And thus ended the twen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 앨마서 54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구년 초에 앰모론이 모로나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포로를 교환할 것을 희망하였느니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요청에 심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 포로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식량으로 자기 백성을 부양하기를 원하였음이었요, 또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군대를 강화하기 원하였음이라.
- 3 이제 레이맨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많이 잡아갔고, 모로나이의 포로 곧 모로나이가 잡았던 포로 가운데는 여자나 아이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모로나이는 가능한 한 레이맨인들에게서 많은 니파이인 포로들을 받아 내고자 한 가지 계책을 정하였더라.
- 4 그리하여 그가 서한을 한 통 써서 앰모론의 종의 편에 보내었으니 곧 모로나이에게 서한을 가져온 그 종이더라. 이제 그가 앰모론에게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 5 보라, 앰모론이여, 나는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여 벌여 온 이 전쟁, 곧 다시 말해 네 형이 그들을 대적하여 벌였고 그가 죽은 후 네가 여전히 계속하고자 결심하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하여 얼마간 네게 썼노라.
- 6 보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전능한 진노의 칼에 관하여 얼마간 네게 말해 주고자 하노니, 네가 회개하고 너의 본토 곧 네 소유의 땅인 니파이 땅으로 네 군대를 거두지 아니할진대, 그 칼은 과연 너희 머리 위에 걸려 있느니라.
- 7 참으로 네가 능히 이러한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내가 이를 네게 이르리라. 참으로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너의 살인하려는 목적을 거두고, 네 군대와 더불어 너의 본토로 돌아가지 아니할진대, 너나 네 형과 같은 그러한 살인자들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 끔찍한 지옥에 관하여 네게 이르리라.
- 8 그러나 네가 일찍이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워 왔으니, 네가 다시 그리할 줄로 내가 기대하여도 좋으리라.

## Alma 54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ninth year of the judges, that Ammoron sent unto Moroni desiring that he would exchange prisoner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felt to rejoice exceedingly at this request, for he desired the provisions which were imparted for the support of the Lamanite prisoners for the support of his own people; and he also desired his own people for the strengthening of his army.

Now the Lamanites had taken many women and children, and there was not a woman nor a child among all the prisoners of Moroni, or the prisoners whom Moroni had taken; therefore Moroni resolved upon a stratagem to obtain as many prisoners of the Nephites from the Lamanites as it were possible.

Therefore he wrote an epistle, and sent it by the servant of Ammoron, the same who had brought an epistle to Moroni. Now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wrote unto Ammoron, saying:

Behold, Ammoron, I have written unto you somewhat concerning this war which ye have waged against my people, or rather which thy brother hath waged against them, and which ye are still determined to carry on after his death.

Behold, I would tell you somewhat concerning the justice of God, and the sword of his almighty wrath, which doth hang over you except ye repent and withdraw your armies into your own lands, or the land of your possessions, which is the land of Nephi.

Yea, I would tell you these things if ye were capable of hearkening unto them; yea, I would tell you concerning that awful hell that awaits to receive such murderers as thou and thy brother have been, except ye repent and withdraw your murderous purposes, and return with your armies to your own lands.

But as ye have once rejected these things, and have fought against the people of the Lord, even so I may expect you will do it again.

- 9 또 이제 보라, 우리는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네가 네 목적을 거두지 아니할진대, 보라, 너는 네가 거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끌어내리리니, 너희가 온전히 멸망당하리라.
- 10 그러나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물러가지 아니할진대, 우리의 군대가 너희를 엄습하리니 너희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성읍들과 우리의 땅을 보전할 것임이요, 또한 우리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의 대의를 지킬 것임이니라.
- 11 그러나 보라, 내 생각에 내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네게 말함이 헛되도다. 또는 내 생각에 너는 지옥의 자식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포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네게 고함으로써 나의 서한을 끝마치려 하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포로 한 명에 대하여, 남자 한 명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넘겨주겠다는 조건이라면 가하리니, 너희가 그리할 것 같으면 내가 교환하리라.
- 12 또 보라, 너희가 이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군대와 더불어 너희를 치러 갈 것이다. 참으로 내가 나의 여자들과 나의 아이들까지도 무장시키고 너희를 치러 가서, 우리의 첫 번 기업의 땅인 너희의 본토까지라도 너희를 따라가리니, 정녕 그때 피에는 피로, 참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음이 될 것이며, 또 너희가 지면에서 멸절되기까지 내가 너희와 싸우리로다.
- 13 보라, 나는 노하였고 나의 백성들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우리를 죽이기를 구하였거니와 우리는 다만 스스로를 지키기를 구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더 이상 우리를 멸하기를 구할진대 우리는 너희를 멸하기를 구할 것이요 또한 우리는 우리 땅, 우리 첫 번 기업의 땅을 구하리로다.
- 14 이제 나는 내 서한을 끝맺노라. 나는 모로나이요 니파이 백성의 지휘관이니라.
- 1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모론이 이 서한을 받고 노하여 모로나이에게 또 다른 서한을 썼으니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And now behold, we are prepared to receive you; yea, and except you withdraw your purposes, behold, ye will pull down the wrath of that God whom you have rejected upon you, even to your utter destruction.

But, as the Lord liveth, our armies shall come upon you except ye withdraw, and ye shall soon be visited with death, for we will retain our cities and our lands; yea, and we will maintain our religion and the cause of our God.

But behold, it supposeth me that I talk to you concerning these things in vain; or it supposeth me that thou art a child of hell; therefore I will close my epistle by telling you that I will not exchange prisoners, save it be on conditions that ye will deliver up a man and his wife and his children, for one prisoner; if this be the case that ye will do it, I will exchange.

And behold, if ye do not this, I will come against you with my armies; yea, even I will arm my women and my children, and I will come against you, and I will follow you even into your own land, which is the land of our first inheritance; yea, and it shall be blood for blood, yea, life for life; and I will give you battle even until you are destroyed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Behold, I am in my anger, and also my people; ye have sought to murder us, and we have only sought to defend ourselves. But behold, if ye seek to destroy us more we will seek to destroy you; yea, and we will seek our land, the land of our first inheritance.

Now I close my epistle. I am Moroni; I am a leader of the people of the Nephites.

Now it came to pass that Ammoron, when he had received this epistle, was angry; and he wrote another epistle unto Moroni,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wrote, saying:

- 16 나는 레이맨인의 왕 앰모론이요 너희가 살해한 아멜리카이아의 동생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피를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군대와 더불어 너희를 치리니 나는 너희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니라.
- 17 이는 보라, 너희의 조상들이 그 형제들에게 부당히 행하여, 다스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그들에게 속하였음에도 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음이니,
- 18 이제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무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복종하여 다스릴 권한을 당연히 지닌 자들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리하면 내가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리라.
- 19 보라, 너희는 나와 내 백성에 대하여 많은 위협을 내뿜었으나, 보라 우리는 너희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 20 그럼에도 나의 전사들을 위한 나의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 기쁘게 너희의 요구대로 포로들을 교환할 것을 허락하노니, 우리는 니파이인들을 우리의 권세에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킬 때까지 영원히 전쟁을 수행하리라.
- 21 또 너희의 말에 우리가 거부하였다 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보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알지 못하며, 너희도 알지 못하거나와 만일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진대, 모르긴 해도 그가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었을 것이라.
- 22 또 만일 악마나 지옥이 있다 할진대, 보라 너희가 살해한 나의 형 곧 너희가 그러한 곳에 갔으리라 고 비친 나의 형과 함께 거하도록 그가 너희를 거기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보라, 이러한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도다.
- 23 나는 앰모론이요, 너희 조상들이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이끌어 낸 조람의 후손이니라.
- 24 또 이제 보라, 나는 담대한 레이맨인이니라. 보라, 이 전쟁을 치뤘 온 것은 그들이 받은 부당함을 갚기 위한 것이며 다스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얻기 위한 것이니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I am Ammoron, the king of the Lamanites; I am the brother of Amalickiah whom ye have murdered. Behold, I will avenge his blood upon you, yea, and I will come upon you with my armies for I fear not your threatenings.

For behold, your fathers did wrong their brethren, insomuch that they did rob them of their right to the government when it rightly belonged unto them.

And now behold, if ye will lay down your arms, and subject yourselves to be governed by those to whom the government doth rightly belong, then will I cause that my people shall lay down their weapons and shall be at war no more.

Behold, ye have breathed out many threatenings against me and my people; but behold, we fear not your threatenings.

Nevertheless, I will grant to exchange prisoners according to your request, gladly, that I may preserve my food for my men of war; and we will wage a war which shall be eternal, either to the subjecting the Nephites to our authority or to their eternal extinction.

And as concerning that God whom ye say we have rejected, behold, we know not such a being; neither do ye; but if it so be that there is such a being, we know not but that he hath made us as well as you.

And if it so be that there is a devil and a hell, behold will he not send you there to dwell with my brother whom ye have murdered, whom ye have hinted that he hath gone to such a place? But behold these things matter not.

I am Ammoron, and a descendant of Zoram, whom your fathers pressed and brought out of Jerusalem.

And behold now, I am a bold Lamanite; behold, this war hath been waged to avenge their wrongs, and to maintain and to obtain their rights to the government; and I close my epistle to Moroni.

## 앨마서 55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서한을 받고 더욱 노하였으니, 이는 앰모론이 스스로의 기만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는 줄을 그가 알고 있었음이라. 참으로 그는 앰모론으로 하여금 니파이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한 것이 정당한 대의가 아니라는 것을 앰모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
- 2 이에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나의 서한에서 말한 것같이 나는 앰모론이 그 목적을 철회하기 전에는 그와 포로를 교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미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력을 갖게 해 주지 아니할 것임이라.
- 3 보라, 레이맨인들이 그 포로로 잡은 바 나의 백성을 어디에 두고 지키고 있는지 그 장소를 내가 아노니, 앰모론이 나의 서한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 한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그에게 해 주어 참으로 그들이 화평을 간청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구하리라 하였느니라.
- 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혹 자기 병사들 가운데 레이맨의 후손인 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들 중에 찾아보게 하였더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하나를 찾았으니, 그의 이름은 레이맨이요 그는 아멜리카리아에게 살해당한 왕의 종들 가운데 하나더라.
- 6 이제 모로나이가 레이맨과 소수의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니파이인들을 지키고 있는 감시병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였으니,
- 7 이제 니파이인들은 기드 성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모로나이가 레이맨을 지명하고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가게 하였더라.
- 8 이에 저녁이 되매 레이맨이 니파이인들을 지키는 감시병들에게로 갔으니, 보라, 그들이 레이맨이 움을 보고 그에게 소리를 지른지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나는 레이맨인이라. 보라 우리는 니파이인들에게서 도망하였고 그들은 자고 있느니라. 또 보라, 우리가 저희의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여기 가져왔느니라 하였더라.

## Alma 55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received this epistle he was more angry, because he knew that Ammoron had a perfect knowledge of his fraud; yea, he knew that Ammoron knew that it was not a just cause that had caused him to wage a war against the people of Nephi.

And he said: Behold, I will not exchange prisoners with Ammoron save he will withdraw his purpose, as I have stated in my epistle; for I will not grant unto him that he shall have any more power than what he hath got.

Behold, I know the place where the Lamanites do guard my people whom they have taken prisoners; and as Ammoron would not grant unto me mine epistle, behold, I will give unto him according to my words; yea, I will seek death among them until they shall sue for peace.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said these words, he caused that a search should be made among his men, that perhaps he might find a man who was a descendant of Laman among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nd one, whose name was Laman; and he was one of the servants of the king who was murdered by Amalickiah.

Now Moroni caused that Laman and a small number of his men should go forth unto the guards who were over the Nephites.

Now the Nephites were guarded in the city of Gid; therefore Moroni appointed Laman and caused that a small number of men should go with him.

And when it was evening Laman went to the guards who were over the Nephites, and behold, they saw him coming and they hailed him; but he saith unto them: Fear not; behold, I am a Lamanite. Behold, we have escaped from the Nephites, and they sleep; and behold we have taken of their wine and brought with us.

- 9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포도주를 우리에게 조금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지쳤은즉 너희가 이같이 포도주를 가져온 것이 기쁘도다 하였더라.
- 10 그러나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때까지 우리의 포도주를 간직해 두자 하였더라. 그러나 이 말은 저희로 더욱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게 할 따름이었으니,
- 1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지쳤은즉 우리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또 니파이인들을 치러 가도록 우리로 힘이 나게 할 포도주는 차차 우리의 배급으로 받게 되리라 하였더라.
- 12 이에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뜻대로 하라 하였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 포도주를 마신즉, 그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마셨으니 이는 진하게 빛은 독주였더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점차 모두 취해 버렸더라.
- 15 이에 이제 그들이 다 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레이맨과 그의 병사들이 보고 모로나이에게 돌아와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보고하매,
- 16 이제 이는 모로나이의 계획대로였더라. 이에 모로나이가 자기 군사들을 전쟁 무기로 예비시켜 두었다가, 레이맨인들이 깊이 잠들어 취해 있는 동안 기드 성으로 가서 갇힌 자들에게 전쟁 무기를 던져 넣어주매, 그들이 다 무장하였더라.
- 17 참으로 모로나이가 그 갇힌 자들을 다 무장시켰을 때,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자에게는 다 무기를 주었고, 또 그 모든 일은 극히 조용한 가운데 행하여졌더라.
- 18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깨웠더라도 보라 저들은 취해 있었으므로, 니파이인들이 저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

Now when the Lamanites heard these words they received him with joy; and they said unto him: Give us of your wine, that we may drink; we are glad that ye have thus taken wine with you for we are weary.

But Laman said unto them: Let us keep of our wine till we go against the Nephites to battle. But this saying only made them more desirous to drink of the wine;

For, said they: We are weary, therefore let us take of the wine, and by and by we shall receive wine for our rations, which will strengthen us to go against the Nephites.

And Laman said unto them: You may do according to your desir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take of the wine freely; and it was pleasant to their taste, therefore they took of it more freely; and it was strong, having been prepared in its strength.

And it came to pass they did drink and were merry, and by and by they were all drunken.

And now when Laman and his men saw that they were all drunken, and were in a deep sleep, they returned to Moroni and told him all the things that had happened.

And now this was according to the design of Moroni. And Moroni had prepared his men with weapons of war; and he went to the city Gid, while the Lamanites were in a deep sleep and drunken, and cast in weapons of war unto the prisoners, inasmuch that they were all armed;

Yea, even to their women, and all those of their children, as many as were able to use a weapon of war, when Moroni had armed all those prisoners; and all those things were done in a profound silence.

But had they awakened the Lamanites, behold they were drunken and the Nephites could have slain them.

19 그러나 보라, 이는 모로나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니 그는 살인이나 유혈을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함을 기뻐하였으며, 이러한 까닭에 그는 자신에게 불의를 초래하지 아니하려고 술에 취해 있는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멸하고자 아니하였더라.

20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그 성의 성벽 안쪽에 있는 저 니파이인 포로들을 무장시키고 성벽 안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음이라.

21 또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와 함께 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서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둘러싸게 하였더라.

22 이제 보라, 이 일이 밤중에 행하여졌으므로 아침에 레이맨인들이 깨어나 본즉, 밖으로는 자기의 니파이인들에게 둘러싸였고, 안으로는 자기의 포로들이 무장을 갖추고 있는지라.

23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이인들이 자기들을 이긴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니파이인들과 싸우는 것이 무모한 줄 깨달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총대장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내놓으라 하고 이를 가지고 나아와 니파이인들의 발에 던지고는 자비를 구하더라.

24 이제 보라, 이것이 모로나이가 원하던 것이라. 그가 그들을 전쟁 포로로 잡고, 성을 점령하고, 니파이인인 포로들을 다 석방하게 하매, 이들이 모로나이의 군대에 합하여 그의 군대에 큰 힘이 되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포로로 잡은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기드 성 주위로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노역을 시작하게 하였더라.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원하는 대로 기드 성을 견고히 하고 나서 그의 포로들을 풍요 성으로 데려가게 하고, 또한 심히 강한 병력으로 그 성을 지키게 하였더라.

But behold, this was not the desire of Moroni; he did not delight in murder or bloodshed, but he delighted in the saving of his people from destruction; and for this cause he might not bring upon him injustice, he would not fall upon the Lamanites and destroy them in their drunkenness.

But he had obtained his desires; for he had armed those prisoners of the Nephites who were within the wall of the city, and had given them power to gain possession of those parts which were within the walls.

And then he caused the men who were with him to withdraw a pace from them, and surroun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Now behold this was done in the night-time, so that when the Lamanites awoke in the morning they beheld that they were surrounded by the Nephites without, and that their prisoners were armed within.

And thus they saw that the Nephites had power over them; and in these circumstances they found that it was not expedient that they should fight with the Nephites; therefore their chief captains demanded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brought them forth and cast them at the feet of the Nephites, pleading for mercy.

Now behold, this was the desire of Moroni. He took them prisoners of war, and took possession of the city, and caused that all the prisoners should be liberated, who were Nephites; and they did join the army of Moroni, and were a great strength to his army.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cause the Lamanites, whom he had taken prisoners, that they should commence a labor in strengthening the fortifications round about the city Gi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fortified the city Gid, according to his desires, he caused that his prisoners should be taken to the city Bountiful; and he also guarded that city with an exceedingly strong force.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모든 술책에도 불구하고 그 잡은 포로들을 다 지켜 보호하였고, 또한 그 탈환한 모든 지역과 유리한 형세도 유지하였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다시 이기기 시작하며,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을 되찾기 시작하였더라.

29 여러 차례 레이맨인들이 밤에 그들을 에워싸려 하였으나, 그러하다가 많은 포로를 잃었더라.

30 또 여러 번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포도주를 먹여 독으로나 혹은 술 취함으로 그들을 멸하려 하였더라.

3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에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저들의 울무에 잡힐 수 없었으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 포로 몇몇에게 먼저 주어보지 않고는 그들의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32 이에 그들이 이같이 조심하여 그들 가운데 독이 베풀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의 포도주가 레이맨인에게 독이 될 것이면 니파이인에게도 역시 독이 될 것임이라, 이같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술을 시험하였더라.

3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모리앤티온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할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이 그 부역으로 모리앤티온 성을 견고하게 하여, 이윽고 그것이 심히 견고한 요새가 되었음이라.

34 또 그들이 끊임없이 새 병력과 또한 새로이 공급하는 식량을 그 성에 투입하고 있었음이라.

35 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 십구년이 끝났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notwithstanding all the intrigues of the Lamanites, keep and protect all the prisoners whom they had taken, and also maintain all the ground and the advantage which they had retak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began again to be victorious, and to reclaim their rights and their privileges.

Many times did the Lamanites attempt to encircle them about by night, but in these attempts they did lose many prisoners.

And many times did they attempt to administer of their wine to the Nephites, that they might destroy them with poison or with drunkenness.

But behold, the Nephites were not slow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in this their time of affliction. They could not be taken in their snares; yea, they would not partake of their wine, save they had first given to some of the Lamanite prisoners.

And they were thus cautious that no poison should be administered among them; for if their wine would poison a Lamanite it would also poison a Nephite; and thus they did try all their liquor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t was expedient for Moroni to make preparations to attack the city Morianton; for behold, the Lamanites had, by their labors, fortified the city Morianton until it had become an exceeding stronghold.

And they were continually bringing new forces into that city, and also new supplies of provisions.

And thus ended the twen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 앨마서 56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년 초 곧 정월 초이튿날, 모로나이가 힐라맨으로부터 그 지역 백성들의 일을 말하는 서신을 받았더라.
- 2 그리고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우리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도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이쪽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우리의 전쟁에 관하여 그대에게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노라.
- 3 보라, 암몬이 니파이 땅에서 인도해 내려온 그 사람들의 이천 명의 아들들이—이제 이들이 우리 조상 리하이의 장자였던 레이맨의 후손들인 줄 그대가 이미 알고 있나니,
- 4 이제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믿지 않음에 관하여 내가 그대에게 말할 필요가 없음은 그대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알고 있음이라—
- 5 그러므로 나로서는 이 이천 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잡고 내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위하여 이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나아왔음을 그대에게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 6 또 이제 그대는 또한 그들의 아버지들이 맺은 바, 곧 피를 흘리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한 그 성약에 관하여도 알고 있도다.
- 7 그러나 제이십육년에 그들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그들이 보고는, 바야흐로 그 맺은 바 성약을 깨뜨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려 하였느니라.
- 8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맺었던 이 성약을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들이 취했던 맹세를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리라 생각하였음이라.

## Alma 56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hir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n the second day in the first month, Moroni received an epistle from Helaman, stating the affairs of the people in that quarter of the land.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wrote, saying: My dearly beloved brother, Moroni, as well in the Lord as in the tribulations of our warfare; behold, my beloved brother, I have somewhat to tell you concerning our warfare in this part of the land.

Behold, two thousand of the sons of those men whom Ammon brought down out of the land of Nephi—now ye have known that these were descendants of Laman, who was the eldest son of our father Lehi;

Now I need not rehearse unto you concerning their traditions or their unbelief, for thou knowest concerning all these things—

Therefore it sufficeth me that I tell you that two thousand of these young men have taken their weapons of war, and would that I should be their leader; and we have come forth to defend our country.

And now ye also know concerning the covenant which their fathers made, that they would not take up their weapons of war against their brethren to shed blood.

But in the twenty and sixth year, when they saw our afflictions and our tribulations for them, they were about to break the covenant which they had made and take up their weapons of war in our defence.

But I would not suffer them that they should break this covenant which they had made, supposing that God would strengthen us, insomuch that we should not suffer more because of the fulfilling the oath which they had taken.



- 9 그러나 보라, 여기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보라, 제이십육년에 나 힐라맨은 이 이천 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그대가 그 지역 백성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앤티푸스를 돕기 위해 유디아 성으로 진군하였도다.
- 10 그리고 나의 이천 아들들을 (이는 그들이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함이라) 앤티푸스의 군대에 합류시키매 이 병력을 앤티푸스가 심히 기뻐하였으니, 이는 보라, 저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에 의해 감소되었었음이라. 이는 그들의 병력이 우리 병사를 허다히 죽인 까닭이니 이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야 하리로다.
- 11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죽었고, 과연 그러하며, 이에 지금 행복하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 12 그리고 또한 레이맨인들도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총대장들이라, 이는 그들이 다른 자들은 아무도 살려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니파이 땅에 있나니 만일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니라.
- 13 또 이제, 이는 레이맨인들이 것처럼 많은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의 피를 흘리고 점령한 성읍들이라. 곧,
- 14 맨타이 땅 곧 맨타이 성과 지에즈롬 성과 쿠메나이 성과 앤티파라 성이니라.
- 15 이는 내가 유디아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들이며, 또 나는 앤티푸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그 힘을 다하여 애쓰며 일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 16 참으로 또한 그들은 사기뿐 아니라 체력도 저하되어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낮으로는 용맹히 싸우고 밤으로는 애쓰며 일하였음이라, 이리하여 그들은 온갖 큰 고난을 다 당하였더라.

But behold, here is one thing in which we may have great joy. For behold, in the twenty and sixth year, I, Helaman, did march at the head of these two thousand young men to the city of Judea, to assist Antipus, whom ye had appointed a leader over the people of that part of the land.

And I did join my two thousand sons, (for they are worthy to be called sons) to the army of Antipus, in which strength Antipus did rejoice exceedingly; for behold, his army had been reduced by the Lamanites because their forces had slain a vast number of our men, for which cause we have to mourn.

Nevertheless, we may console ourselves in this point, that they have died in the cause of their country and of their God, yea, and they are happy.

And the Lamanites had also retained many prisoners, all of whom are chief captains, for none other have they spared alive. And we suppose that they are now at this time in the land of Nephi; it is so if they are not slain.

And now these are the cities of which the Lamanites have obtained possession by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so many of our valiant men:

The land of Manti, or the city of Manti, and the city of Zeezrom, and the city of Cumeni, and the city of Antiparah.

And these are the cities which they possessed when I arrived at the city of Judea; and I found Antipus and his men toiling with their might to fortify the city.

Yea, and they were depressed in body as well as in spirit, for they had fought valiantly by day and toiled by night to maintain their cities; and thus they had suffered great afflictions of every kind.

17 이제 그들은 이 곳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데려온 적은 병력, 곧 나의 저 아들들이 그들에게 큰 희망과 많은 기쁨을 주었음을 그대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18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앤티푸스가 그의 군대에 더 큰 병력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앰모론의 명령으로 강제되어 유디아성을 곧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못하였느니라.

19 이에 이같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니, 이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작은 군대를 멸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같이 우리가 보전되었느니라.

20 그들은 앰모론으로부터 그들이 취한 성읍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같이 제이십육년이 끝났느니라. 그리고 제이십칠년 초에 우리는 우리의 성과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었느니라.

21 이제 우리는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 요새 안에 들어 있는 적에게 공격을 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이 밤에든지 혹은 낮에든지, 우리를 지나쳐 북방에 있는 우리의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레이맨인들의 동향을 살필 정탐들을 주변에 두었느니라.

23 이는 그 성읍들이 그들을 맞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나쳐 간다면 그들의 후미에서 그들을 엄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선두에서 맞닥뜨림과 동시에, 후미에서 그들을 몰아세우기 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실망으로 끝났느니라.

24 그들은 족히 강하지 못하여 패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일지라도 감히 우리 곁을 지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와 함께라도 감히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And now they were determined to conquer in this place or die; therefore you may well suppose that this little force which I brought with me, yea, those sons of mine, gave them great hopes and much joy.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Antipus had received a greater strength to his army, they were compelled by the orders of Ammoron to not come against the city of Judea, or against us, to battle.

And thus were we favored of the Lord; for had they come upon us in this our weakness they might have perhaps destroyed our little army; but thus were we preserved.

They were commanded by Ammoron to maintain those cities which they had taken. And thus ended the twenty and sixth year. And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seventh year we had prepared our city and ourselves for defence.

Now we were desirous that the Lamanites should come upon us; for we were not desirous to make an attack upon them in their stronghold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kept spies out round about, to watch the movements of the Lamanites, that they might not pass us by night nor by day to make an attack upon our other cities which were on the northward.

For we knew in those cities they were not sufficiently strong to meet them; therefore we were desirous, if they should pass by us, to fall upon them in their rear, and thus bring them up in the rear at the same time they were met in the front. We supposed that we could overpower them; but behold, we were disappointed in this our desire.

They durst not pass by us with their whole army, neither durst they with a part, lest they should not be sufficiently strong and they should fall.

25 감히 제이라헤믈라 성을 치러 진군해 내려가지도 못하였고, 감히 시돈 강의 발원지를 건너 니파이하 성으로 가지도 못하더라.

26 그리하여 그들의 병력으로 그들은 그 취한 성읍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2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금년 이월에는, 나의 이천 아들들의 부친들로부터 많은 물자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

28 그리고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이천 명의 병사가 우리에게로 보내어졌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만 명의 병사와 또 그들과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물자로 준비가 갖추어졌느니라.

29 이에 레이맨인들은 우리의 전력이 날로 증가하고 우리를 지원하는 물자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두렵게 여기기 시작하여, 가능하면 우리의 물자와 병력 받는 것을 종식시키고자 출병하기 시작하더라.

30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처럼 불안해 하기 시작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계락을 시행하기 원하였나니, 그러므로 앤티푸스가 명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어린 아들들과 더불어, 마치 우리가 한 이웃 성읍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있는 것같이 한 이웃 성읍으로 진군하게 하였느니라.

31 또 우리는 앤티파라 성 가까이로, 마치 그 너머 바닷가 변경에 있는 성읍으로 가고 있는 듯 진군하게 되어 있었느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마치 우리의 물자를 가지고 가는 것같이, 그 성으로 가기 위하여 진군해 나아갔느니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앤티푸스가 그의 군대의 일부와 함께 진군하여 나아가고, 나머지는 성을 지키도록 남겨 두었으되, 내가 나의 작은 군대와 더불어 나아가 앤티파라 성 가까이 이르기까지는 진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4 또 이제 앤티파라 성에는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한 군대, 참으로 가장 수가 많은 군대가 주둔해 있었느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자기의 정탐들로부터 보고를 받자,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나아가 우리를 향해 진군하여 왔느니라.

Neither durst they march down against the city of Zarahemla; neither durst they cross the head of Sidon, over to the city of Nephihah.

And thus, with their forces, they were determined to maintain those cities which they had taken.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second month of this year, there was brought unto us many provisions from the fathers of those my two thousand sons.

And also there were sent two thousand men unto us from the land of Zarahemla. And thus we were prepared with ten thousand men, and provisions for them, and also for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 Lamanites, thus seeing our forces increase daily, and provisions arrive for our support, they began to be fearful, and began to sally forth, if it were possible to put an end to our receiving provisions and strength.

Now when we saw that the Lamanites began to grow uneasy on this wise, we were desirous to bring a stratagem into effect upon them; therefore Antipus ordered that I should march forth with my little sons to a neighboring city, as if we were carrying provisions to a neighboring city.

And we were to march near the city of Antiparah, as if we were going to the city beyond, i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march forth, as if with our provisions, to go to that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Antipus did march forth with a part of his army, leaving the remainder to maintain the city. But he did not march forth until I had gone forth with my little army, and came near the city Antiparah.

And now, in the city Antiparah were stationed the strongest army of the Lamanites; yea, the most numerou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been informed by their spies, they came forth with their army and marched against us.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북쪽으로 도망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인해 내되,

37 참으로 상당한 거리까지 유인해 내었던지라, 이윽고 그들이 앤티푸스의 군대가 그 힘을 다하여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로나 좌로 돌이지 아니하고 우리 뒤를 곧바로 따르며 행군하였으니, 우리의 짐작으로는 앤티푸스가 그들을 따라잡기 전에 우리를 도륙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으며, 이는 그들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포위당하지 아니하려 함이었으리라.

38 또 이제 앤티푸스는 우리의 위험을 보고는 그의 군대로 하여금 더욱 빨리 행군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보라, 때가 밤이었던고로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앤티푸스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밤 동안 진을 쳤느니라.

3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이 밝기 전에, 보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싸울 만큼 족히 강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나는 나의 어린 아들들이 그들의 수중에 드는 것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행군을 계속하여 광야로 행군해 들어갔느니라.

40 이제 그들은 포위될까 하여 감히 우로나 좌로 돌이키려 아니하였고, 나도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들이 벗어나 버릴 것을 염려하여, 우로나 좌로 돌이키려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우리는 그 날 종일토록 어둡기까지 광야로 도망해 들어갔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가 본즉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4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우리를 멀리 추격하지 아니하여 멈추었으니, 때는 칠월 삼일 아침이었느니라.

43 또 이제 그들이 앤티푸스에게 따라잡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나의 병사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들이 멈춘 것은 우리로 그들을 치러 오게 하여 그들의 올무로 우리를 잡으려 함이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flee before them, northward. And thus we did lead away the most powerful army of the Lamanites;

Yea, even to a considerable distance, insomuch that when they saw the army of Antipus pursuing them, with their might, they did not turn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but pursued their march in a straight course after us; and, as we suppose, it was their intent to slay us before Antipus should overtake them, and this that they might not be surrounded by our people.

And now Antipus, beholding our danger, did speed the march of his army. But behold, it was night; therefore they did not overtake us, neither did Antipus overtake them; therefore we did camp for the night.

And it came to pass that before the dawn of the morning, behold, the Lamanites were pursuing us. Now we were not sufficiently strong to contend with them; yea, I would not suffer that my little sons should fall into their hands; therefore we did continue our march, and we took our march into the wilderness.

Now they durst not turn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lest they should be surrounded; neither would I turn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lest they should overtake me, and we could not stand against them, but be slain, and they would make their escape; and thus we did flee all that day into the wilderness, even until it was dark.

And it came to pass that again, when the light of the morning came we saw the Lamanites upon us, and we did flee before them.

But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not pursue us far before they halted; and it was in the morning of the third day of the seventh month.

And now, whether they were overtaken by Antipus we knew not, but I said unto my men: Behold, we know not but they have halted for the purpose that we should come against them, that they might catch us in their snare;

44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너희 의견에는 어떠하  
나?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가려느냐 하였나니,

45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  
에게 이르거니와 것처럼 큰 용기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나니, 아니 온 니파이인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였노라.

46 내가 일찍이 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한 것같이  
(이는 그들이 모두 매우 젊었음이라) 그들이 바로  
그렇게 내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는 우리가 쓰러지  
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하오니 우  
리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가만  
히 둔다면 우리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니 그런  
즉 우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앤티푸스의  
군대를 이길까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47 이제 그들은 결코 싸워 본 일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  
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자유를 더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  
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48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  
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  
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이천 명과 더  
불어, 돌이켜 우리를 추격하던 이 레이맨인들을  
향하였더니, 이제 보라, 앤티푸스의 군대가 그들  
을 따라잡아 맹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더라.

50 앤티푸스의 군대는 이처럼 짧은 시간에 먼 거리  
를 행군하였음으로 인하여 지쳤던지라, 바야흐로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빠지려 하고 있었나니, 내가  
나의 이천 명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들  
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라.

51 이는 앤티푸스와 그의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의  
급속한 행군으로 말미암아 지친 까닭에, 칼에 쓰  
러졌음이라—그러므로 앤티푸스의 병사들은 그들  
의 지휘관들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레이맨인들 앞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느니라.

Therefore what say ye, my sons, will ye go against  
them to battle?

And now I say unto you, my beloved brother  
Moroni, that never had I seen so great courage, nay,  
not amongst all the Nephites.

For as I had ever called them my sons (for they  
were all of them very young) even so they said unto  
me: Father, behold our God is with us, and he will  
not suffer that we should fall; then let us go forth; we  
would not slay our brethren if they would let us  
alone; therefore let us go, lest they should overpower  
the army of Antipus.

Now they never had fought, yet they did not fear  
death; and they did think more upon the liberty of  
their fathers than they did upon their lives; yea, they  
had been taught by their mothers, that if they did not  
doubt, God would deliver them.

And they rehearsed unto me the words of their  
mothers, saying: We do not doubt our mothers knew  
it.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return with my two  
thousand against these Lamanites who had pursued  
us. And now behold, the armies of Antipus had over-  
taken them, and a terrible battle had commenced.

The army of Antipus being weary, because of their  
long march in so short a space of time, were about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had I not  
returned with my two thousand they would have ob-  
tained their purpose.

For Antipus had fallen by the sword, and many of  
his leaders, because of their weariness, which was  
occasioned by the speed of their march—therefore  
the men of Antipus, being confused because of the  
fall of their leaders, began to give way before the  
Lamanites.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용기를 얻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레이맨인들이 크게 기세를 올려 그들을 추격하고 있을 때, 힐라맨이 그의 이천 명과 더불어 그들의 후미에 임하여 그들을 심히 도륙하기 시작하매, 마침내 레이맨인들의 온 군대가 멈추어 힐라맨에게로 돌이키니라.

53 이제 앤티푸스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 그들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레이맨인들의 후미에 닥쳤느니라.

5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니파이 백성, 곧 앤티푸스의 백성과 나와 나의 이천 병사가 레이맨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도륙하매, 마침내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고 스스로 투항하여 전쟁 포로가 되니라.

55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난 후,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싸운 그 청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을까 염려하며 그들을 세어 보았느니라.

56 그러나 보라, 기쁘게도 그들 중 한 명도 땅에 쓰러진 자가 없었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지닌 듯 싸웠나니, 참으로 사람들이 아는 바로 것처럼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싸운 사람들이 없었으며, 이처럼 큰 능력으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한지라, 이 까닭에 실로 레이맨인들이 투항하여 전쟁 포로가 된 것이더라.

57 이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포로들을 감시하며 그들을 레이맨인들로부터 지킬 장소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들과 앤티푸스의 군사 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병사 일부를 함께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냈으며, 나머지는 내가 취하여 나의 젊은 암몬인들에게 합류시키고 유디아 성으로 행군하여 돌아왔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took courage, and began to pursue them; and thus were the Lamanites pursuing them with great vigor when Helaman came upon their rear with his two thousand, and began to slay them exceedingly, insomuch that the whole army of the Lamanites halted and turned upon Helaman.

Now when the people of Antipus saw that the Lamanites had turned them about, they gathered together their men and came again upon the rear of the Lamanite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e, the people of Nephi, the people of Antipus, and I with my two thousand, did surround the Lamanites, and did slay them; yea, insomuch that they were compelled to deliver up their weapons of war and also themselves as prisoners of war.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surrendered themselves up unto us, behold, I numbered those young men who had fought with me, fearing lest there were many of them slain.

But behold, to my great joy, there had not one soul of them fallen to the earth; yea, and they had fought as if with the strength of God; yea, never were men known to have fought with such miraculous strength; and with such mighty power did they fall upon the Lamanites, that they did frighten them; and for this cause did the Lamanites deliver themselves up as prisoners of war.

And as we had no place for our prisoners, that we could guard them to keep them from the armies of the Lamanites, therefore we sent them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a part of those men who were not slain of Antipus, with them; and the remainder I took and joined them to my stripling Ammonites, and took our march back to the city of Judea.

## 엘마서 57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왕 앰모론으로부터 우리가 잡은 그 포로들을 내가 만일 넘겨주면 그가 안티파라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서한을 받았느니라.
- 2 그러나 나는 왕에게 서한을 보내어 우리는 우리의 병력이 우리 힘으로 안티파라 성을 취하기에 족한 줄로 확신하며, 그 성을 얻기 위하여 포로들을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우리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포로를 넘겨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더라.
- 3 이에 앰모론이 나의 서한을 거절하였으니 이는 그가 포로 교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안티파라 성을 치러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더라.
- 4 그러나 안티파라의 백성들은 그 성을 떠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다른 성읍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성읍들을 견고히 하려 함이었던라. 그리하여 안티파라 성은 우리 수중에 떨어졌느니라.
- 5 이같이 판사 치세 제이십팔년이 끝났느니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십구년 초에 우리는 제이라헤믈라 땅과 그 주변의 땅으로부터 물자의 공급과 또한 우리의 군대에 대한 증원을 받았으니, 곧 육천 명의 수에 이르는 병사와 그 외에 암몬인들의 아들 육십 명이라, 이들 육십 명은 그들의 형제 곧 나의 이천 명으로 된 소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왔었더라.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강하였고, 참으로 우리에게서 가져온 물자도 또한 넉넉하였느니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원하는 바는 쿠메나이 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도다.
- 8 또 이제 보라, 우리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음을 내가 그대에게 보이라. 참으로 우리의 강한 병력으로써, 아니 우리의 강한 병력의 일부로써, 그들이 물자 공급을 받기 얼마 전에 우리는 밤에 쿠메나이 성을 에워쌌느니라.

## Alma 57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 received an epistle from Ammoron, the king, stating that if I would deliver up those prisoners of war whom we had taken that he would deliver up the city of Antiparah unto us.

But I sent an epistle unto the king, that we were sure our forces were sufficient to take the city of Antiparah by our force; and by delivering up the prisoners for that city we should suppose ourselves unwise, and that we would only deliver up our prisoners on exchange.

And Ammoron refused mine epistle, for he would not exchange prisoners; therefore we began to make preparations to go against the city of Antiparah.

But the people of Antiparah did leave the city, and fled to their other cities, which they had possession of, to fortify them; and thus the city of Antiparah fell into our hands.

And thus ended the twen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commencement of the twenty and ninth year, we received a supply of provisions, and also an addition to our army, from the land of Zarahemla, and from the land round about, to the number of six thousand men, besides sixty of the sons of the Ammonites who had come to join their brethren, my little band of two thousand. And now behold, we were strong, yea, and we had also plenty of provisions brought unto us.

And it came to pass that it was our desire to wage a battle with the army which was placed to protect the city Cumeni.

And now behold, I will show unto you that we soon accomplished our desire; yea, with our strong force, or with a part of our strong force, we did surround, by night, the city Cumeni, a little before they were to receive a supply of provisions.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여러 밤을 쿠메나이 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칼을 베고 자며 또 보초를 세웠던지라, 레이맨인들이 밤에 우리를 습격하여 우리를 도륙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이를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들이 이를 시도할 때마다 그들의 피가 흘렀느니라.
- 10 드디어 그들의 물자가 도착하였고, 바야흐로 그들이 밤에 성으로 들어가려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레이맨인이 아니라 니파이인이었던지라, 우리는 그들을 잡고 그들의 물자를 빼앗았느니라.
- 11 또 레이맨인들은 이처럼 그 보급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물자를 취하여 유디아로 보내고 우리의 포로들은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낼 필요가 생겼더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레이맨인들이 구조의 소망을 다 잃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성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쿠메나이 성을 취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달성하였느니라.
-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포로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의 수효가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전 병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니라.
- 14 이는 보라 그들이 큰 수효로 돌파하고 나와서는 돌이나 곤봉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그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곤 하였던지라, 그들이 항복하여 전쟁 포로가 된 이후로 우리는 그들을 이천 명 이상 도륙하였음이라.
- 15 그리하여 우리로서는 그들의 생명을 멸하든지 아니면 손에 칼을 들고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호송해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우리의 물자 또한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못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camp round about the city for many nights; but we did sleep upon our swords, and keep guards, that the Lamanites could not come upon us by night and slay us, which they attempted many times; but as many times as they attempted this their blood was spilt.

At length their provisions did arrive, and they were about to enter the city by night. And we, instead of being Lamanites, were Nephites; therefore, we did take them and their provisions.

And notwithstanding the Lamanites being cut off from their support after this manner, they were still determined to maintain the city; therefore it became expedient that we should take those provisions and send them to Judea, and our prisoners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not many days had passed away before the Lamanites began to lose all hopes of succor; therefore they yielded up the city unto our hands; and thus we had accomplished our designs in obtaining the city Cumeni.

But it came to pass that our prisoners were so numerous that, notwithstanding the enormity of our numbers, we were obliged to employ all our force to keep them, or to put them to death.

For behold, they would break out in great numbers, and would fight with stones, and with clubs, or whatsoever thing they could get into their hands, inasmuch that we did slay upwards of two thousand of them after they had surrendered themselves prisoners of war.

Therefore it became expedient for us, that we should put an end to their lives, or guard them, sword in hand,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also our provisions were not any more than sufficient for our own people, notwithstanding that which we had taken from the Lamanites.



16 이에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전쟁 포로들에 관하여 결정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병사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그들에게 우리의 포로들을 맡겨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게 하였더라.

17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돌아왔더라. 그러나 이제 보라, 우리가 포로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지 못하였나니,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들은 때맞추어 돌아와 우리가 저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음이라. 이는 보라, 앰모론이 새로운 물자의 공급과 또한 수많은 병사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지원하였음이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포로와 함께 보냈던 병사들이 때맞추어 돌아와서, 레이맨인들이 바야흐로 우리를 이기려 할 때에 저들을 저지하였더라.

19 보라, 나의 이천육십 명으로 된 작은 부대가 가장 필사적으로 싸웠나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들 앞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항하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더라.

20 또 나머지 우리 군대가 바야흐로 레이맨인들 앞에서 퇴각하려 하였을 때, 보라, 그 이천육십 명은 굳세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이뿐 아니라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에 내가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들이 내게 이른 그 말을 기억하였느니라.

22 또 이제 보라, 우리가 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은 나의 이 아들들과 포로들을 호송하도록 선발되었던 그 병사들 덕분이니, 이는 레이맨인들을 물리친 것이 그들이었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은 쫓겨 맨타이 성까지 물러갔느니라.

23 또 우리는 우리의 쿠메나이 성을 지켰고, 칼에 다 멸망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느니라.

And now, in those critical circumstances, it became a very serious matter to determine concerning these prisoners of war; nevertheless, we did resolve to send them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therefore we selected a part of our men, and gave them charge over our prisoners to go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But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y did return. And now behold, we did not inquire of them concerning the prisoners; for behold, the Lamanites were upon us, and they returned in season to save us from falling into their hands. For behold, Ammoron had sent to their support a new supply of provisions and also a numerous army of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men whom we sent with the prisoners did arrive in season to check them, as they were about to overpower us.

But behold, my little band of two thousand and sixty fought most desperately; yea, they were firm before the Lamanites, and did administer death unto all those who opposed them.

And as the remainder of our army were about to give way before the Lamanites, behold, those two thousand and sixty were firm and undaunted.

Yea, and they did obey and observe to perform every word of command with exactness; yea, and even according to their faith it was done unto them; and I did remember the words which they said unto me that their mothers had taught them.

And now behold, it was these my sons, and those men who had been selected to convey the prisoners, to whom we owe this great victory; for it was they who did beat the Lamanites; therefore they were driven back to the city of Manti.

And we retained our city Cumeni, and were not all destroyed by the sword; nevertheless, we had suffered great loss.

-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도망한 후,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부상한 나의 병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취하여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도록 하였느니라.
-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이천육십 명 중에는 피를 잃음으로 인하여 기진한 자가 이백 명이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가 다 기뻐하였느니라.
- 26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전된 것은 우리 온 군대에게 놀라운 일이었나니, 참으로 우리의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가 천 명이 됨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이라. 이에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에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노니, 이는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바, 곧 공의로 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기이하신 권능으로 보전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심히 굳건히 믿은 연고더라.
- 27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 28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부상한 병사들을 돌보고, 우리의 죽은 자들과 또한 수많은 레이맨인들의 죽은 자들을 묻고 나서, 보라, 기드에게 그들이 함께 제이라헤플라 땅으로 내려가고자 출발하였던 그 포로들에 관하여 물어 보았느니라.
- 29 이제 기드는 저들을 그 땅까지 호송하도록 지명 받은 부대의 총대장이었더라.
- 30 그리고 이제 기드가 나에게 고한 말이 이러하니라, 보소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포로들과 함께 출발하여 제이라헤플라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니와,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의 진을 살피도록 내보냄을 받은 우리 군대의 정탐들을 만났나이다.
- 31 이에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질러 이르되—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쿠메나이 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나니, 저들이 엄습하여, 참으로 우리 백성을 멸하겠도다 하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Lamanites had fled, I immediately gave orders that my men who had been wounded should be taken from among the dead, and caused that their wounds should be dress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two hundred, out of my two thousand and sixty, who had fainted because of the loss of blood;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goodness of God, and to our great astonishment, and also the joy of our whole army, there was not one soul of them who did perish; yea, and neither was there one soul among them who had not received many wounds.

And now, their preservation was astonishing to our whole army, yea, that they should be spared while there was a thousand of our brethren who were slain. And we do justly ascribe it to the miraculous power of God, because of their exceeding faith in that which they had been taught to believe—that there was a just God, and whosoever did not doubt, that they should be preserved by his marvelous power.

Now this was the faith of these of whom I have spoken; they are young, and their minds are firm, and they do put their trust in God continually.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we had thus taken care of our wounded men, and had buried our dead and also the dead of the Lamanites, who were many, behold, we did inquire of Gid concerning the prisoners whom they had started to go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with.

Now Gid was the chief captain over the band who was appointed to guard them down to the land.

And now, these are the words which Gid said unto me: Behold, we did start to go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with our prisoner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meet the spies of our armies, who had been sent out to watch the camp of the Lamanites.

And they cried unto us, saying—Behol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are marching towards the city of Cumeni; and behold, they will fall upon them, yea, and will destroy our people.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포로들이 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로 인해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켰나이다.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칼로 저들에게 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떼를 지어 우리의 칼에 달려들다가 저들 중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저들 중 나머지는 돌파하여 우리에게서 도망하였나이다.

34 또 보소서, 저들이 도망하고 우리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후에, 우리는 신속히 쿠메나이 성을 향해 행군하였더니, 보소서, 우리가 때맞추어 도착하여 우리 형제들을 도와 성을 지킬 수 있었나이다.

35 또 보소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견지심을 입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음은, 보소서, 우리를 견지신 이 곧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이가 그이심이니이다 하더라.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헬라맨이 기드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를 보전하사 우리로 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노라.

And it came to pass that our prisoners did hear their cries, which caused them to take courage; and they did rise up in rebellion against us.

And it came to pass because of their rebellion we did cause that our swords should come upo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in a body run upon our swords, in the which, the greater number of them were slain; and the remainder of them broke through and fled from us.

And behold, when they had fled and we could not overtake them, we took our march with speed towards the city Cumeni; and behold, we did arrive in time that we might assist our brethren in preserving the city.

And behold, we are again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blessed is the name of our God; for behold, it is he that has delivered us; yea, that has done this great thing for us.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I, Helaman, had heard these words of Gid, I was filled with exceeding joy because of the goodness of God in preserving us, that we might not all perish; yea, and I trust that the souls of them who have been slain have entered into the rest of their God.

## 앨마서 58

- 1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다음 목표는 맨타이 성을 손에 넣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우리의 작은 부대로는 그들을 성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도가 없었나니, 이는 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였던 바를 그들이 기억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여 그들로 그들의 요새를 떠나게 할 수 없었음이라.
- 2 또 그들이 우리의 군대보다 훨씬 더 수가 많았으므로, 우리가 감히 나아가 자기의 요새 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느니라.
- 3 참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되찾은 지역을 지키는 데 우리의 병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병력을 더 받고 또한 새로운 물자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있게 되었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로 인해 내가 우리 땅의 통치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 백성의 사정을 알리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물자와 병력을 받기를 기다렸느니라.
- 5 그러나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나니, 이는 레이맨인들 역시 매일같이 많은 병력과 물자를 받고 있었음이라, 이 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느니라.
- 6 또 레이맨인들은 계락을 써서 우리를 멸하기로 결정하고, 시시로 우리를 치러 진격해 나아왔으나, 우리는 그들의 대피소와 그들의 견고한 요새로 인하여 그들과 접전할 수 없었느니라.
-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식량이 부족하여 바야흐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느니라.
-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천 병사의 군대가 호송하여 온 식량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무수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도움은 이것이 전부니라.

## Alma 58

And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our next object was to obtain the city of Manti; but behold, there was no way that we could lead them out of the city by our small bands. For behold, they remembered that which we had hitherto done; therefore we could not decoy them away from their strongholds.

And they were so much more numerous than was our army that we durst not go forth and attack them in their strongholds.

Yea, and it became expedient that we should employ our men to the maintaining those parts of the land which we had regained of our possessions; therefore it became expedient that we should wait, that we might receive more strength from the land of Zarahemla and also a new supply of provis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I thus did send an embassy to the governor of our land, to acquaint him concerning the affairs of our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wait to receive provisions and strength from the land of Zarahemla.

But behold, this did profit us but little; for the Lamanites were also receiving great strength from day to day, and also many provisions; and thus were our circumstances at this period of time.

And the Lamanites were sallying forth against us from time to time, resolving by stratagem to destroy us; nevertheless we could not come to battle with them, because of their retreats and their stronghold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wait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for the space of many months, even until we were about to perish for the want of food.

But it came to pass that we did receive food, which was guarded to us by an army of two thousand men to our assistance; and this is all the assistance which we did receive, to defend ourselves and our country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our enemies, yea, to contend with an enemy which was innumerable.

- 9 또 이제 우리의 이러한 낭패의 원인, 곧 그들이 우리에게 병력을 더 보내 주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임하여 우리로 패망하게 하며 온전히 멸망당하게 할까 하여 비통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 10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우리 백성의 부양을 위하여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를 보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느니라.
- 11 참으로 그리하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 12 이에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의 적은 병력과 더불어 용기를 내었고, 우리의 적을 정복하며,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유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였느니라.
- 13 이리하여 우리는 맨타이 성에 있는 레이맨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 성에 가까운 광야 편에 우리의 장막을 쳤느니라.
-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우리가 성에 가까운 광야의 변경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탐들을 우리의 주위에 내보내어 우리 군대의 수효와 전력을 알아내고자 하였느니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우리의 수효에 따를진대, 우리가 강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또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와서 우리를 도륙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그들의 보급을 차단할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의 수많은 군사로 쉽게 우리를 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느니라.

And now the cause of these our embarrassments, or the cause why they did not send more strength unto us, we knew not; therefore we were grieved and also filled with fear, lest by any means the judgments of God should come upon our land, to our overthrow and utter destruction.

Therefore we did pour out our souls in prayer to God, that he would strengthen us and deliver us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yea, and also give us strength that we might retain our cities, and our lands, and our possessions, for the support of our people.

Yea,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our God did visit us with assurances that he would deliver us; yea, insomuch that he did speak peace to our souls, and did grant unto us great faith, and did cause us that we should hope for our deliverance in him.

And we did take courage with our small force which we had received, and were fixed with a determination to conquer our enemies, and to maintain our lands, and our possessions, and our wives, and our children, and the cause of our liberty.

And thus we did go forth with all our might against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city of Manti; and we did pitch our tents by the wilderness side, which was near to the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we were in the borders by the wilderness which was near the city, that they sent out their spies round about us that they might discover the number and the strength of our army.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saw that we were not strong, according to our numbers, and fearing that we should cut them off from their support except they should come out to battle against us and kill us, and also supposing that they could easily destroy us with their numerous hosts, therefore they began to make preparations to come out against us to battle.

16 이에 우리가 본즉 저희가 우리를 치러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기드로 하여금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광야에 매복하게 하고, 또한 티움너와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역시 광야에 매복하게 하였느니라.

17 이제 기드와 그의 병사들은 우편에, 다른 자들은 좌편에 있었나니, 그들이 이같이 매복한 후에, 보라, 나는 나머지 나의 군대와 더불어 우리가 처음 우리의 장막을 친 그 같은 장소에 머물러 레이맨인들이 싸우러 나올 때를 대비하였느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우리를 치러 나오는지라, 그들이 와서 바야흐로 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였을 때, 나는 나와 함께 한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광야로 퇴각하게 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심히 빠른 속도로 우리 뒤를 쫓아왔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를 도륙하기 심히 원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고, 우리가 기드와 티움너의 한가운데를 지났으므로 저들이 레이맨인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니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지나가고 나자, 다시 말해 그 군대가 지나가고 나자, 기드와 티움너가 그 숨었던 곳에서 일어나 레이맨인의 정탐들을 끊어 버려 그들이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끊어 버린 후,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수비대를 습격하여 멸하고 성을 점령하였느니라.

22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레이맨인들이 다만 약간의 수비대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온 군대로 하여금 유인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 한 연고이었던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와 티움너가 이같이 하여 그들의 견고한 진지를 점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를 많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우리의 진로를 잡았더라.

And when we saw that they were making preparations to come out against us, behold, I caused that Gid, with a small number of men, should secrete himself in the wilderness, and also that Teomner and a small number of men should secrete themselves also in the wilderness.

Now Gid and his men were on the right and the others on the left; and when they had thus secreted themselves, behold, I remained, with the remainder of my army, in that same place where we had first pitched our tents against the time that the Lamanites should come out to batt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come out with their numerous army against us. And when they had come and were about to fall upon us with the sword, I caused that my men, those who were with me, should retreat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follow after us with great speed, for they were exceedingly desirous to overtake us that they might slay us; therefore they did follow us into the wilderness; and we did pass by in the midst of Gid and Teomner, inasmuch that they were not discovered by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had passed by, or when the army had passed by, Gid and Teomner did rise up from their secret places, and did cut off the spies of the Lamanites that they should not return to the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cut them off, they ran to the city and fell upon the guards who were left to guard the city, insomuch that they did destroy them and di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Now this was done because the Lamanites did suffer their whole army, save a few guards only, to be led away into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Gid and Teomner by this means had obtained possession of their stronghold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took our course, after having traveled much in the wilderness towards the land of Zarahemla.

- 24 이에 레이맨인들은 자기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음을 보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가 심히 두려워하여 다시 광야로 퇴각하기 시작하되,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느니라.
- 25 또 보라, 때는 밤이었고 그들이 그 장막을 쳤으니, 이는 레이맨인의 총대장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이인들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쳐 있으리라 하였음이라, 또 저들의 전 군대를 몰아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으므로 맨타이 성에 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
-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말고 다른 길로 맨타이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였느니라.
- 27 이에 밤 동안의 우리의 이 행군으로 말미암아, 보라, 다음 날에는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앞섰고, 결국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맨타이 성에 도착하였느니라.
- 28 이에 이리하여 이러한 계책으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 맨타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느니라.
-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성 가까이 이르러 우리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심히 놀라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하였느니라.
- 30 참으로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이쪽 지역을 다 벗어나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이 땅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갔느니라.
- 31 또 레이맨인들이 취하였던 그 성읍들은, 그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소유하에 있으며, 레이맨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느니라.
- 32 그러나 보라, 우리의 군대는 것처럼 많은 수의 성읍과 것처럼 큰 점령 지역을 유지하기에는 작도다.

And when the Lamanites saw that they were marching towards the land of Zarahemla, they were exceedingly afraid, lest there was a plan laid to lead them on to destruction; therefore they began to retreat into the wilderness again, yea, even back by the same way which they had come.

And behold, it was night and they did pitch their tents, for the chief captains of the Lamanites had supposed that the Nephites were weary because of their march; and supposing that they had driven their whole army therefore they took no thought concerning the city of Manti.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it was night, I caused that my men should not sleep, but that they should march forward by another way towards the land of Manti.

And because of this our march in the night-time, behold, on the morrow we were beyond the Lamanites, insomuch that we did arrive before them at the city of Manti.

And thus it came to pass, that by this stratagem we di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of Manti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armies of the Lamanites did arrive near the city, and saw that we were prepared to meet them, they were astonished exceedingly and struck with great fear, insomuch that they did flee into the wilderness.

Yea,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Lamanites did flee out of all this quarter of the land. But behold, they have carried with them many women and children out of the land.

And those cities which had been taken by the Lamanites, all of them are at this period of time in our possession; and our fathers and our women and our children are returning to their homes, all save it be those who have been taken prisoners and carried off by the Lamanites.

But behold, our armies are small to maintain so great a number of cities and so great possessions.

33 그러나 보라, 우리는 그 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사, 우리로 우리의 소유였던 성읍들과 땅들을 차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34 이제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병력을 더 주지 아니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로 올라온 병사들도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35 보라, 우리는 혹 그대들이 여의치 못하여 그쪽 지역으로 병력을 이끌어 간 것인지 알지 못하노니,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는 불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36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할진대 정부 안에 어떠한 내분이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병사를 더 보내지 아니함을 우리는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낸 것보다 그들의 수효가 더 많은 줄을 우리가 앞이라.

37 그러나 보라, 이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우리는 우리 군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참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는 것을 믿노라.

38 보라, 이때는 제이십구년 말이니,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도망하였느니라.

39 또 내가 것처럼 크게 칭찬한 암몬 백성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맨타이 성에 있나니,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 칼에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지라,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0 그러나 보라, 그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며,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며, 장차 이를 일에 관한 예언을 굳게 믿고 있느니라.

But behold, we trust in our God who has given us victory over those lands, insomuch that we have obtained those cities and those lands, which were our own.

Now we do not know the caus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grant us more strength; neither do those men who came up unto us know why we have not received greater strength.

Behold, we do not know but what ye are unsuccessful, and ye have drawn away the forces into that quarter of the land; if so, we do not desire to murmur.

And if it is not so, behold, we fear that there is some faction in the government, that they do not send more men to our assistance; for we know that they are more numerous than that which they have sent.

But, behold, it mattereth not—we trust God will deliver us, notwithstanding the weakness of our armies, yea, and deliver us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Behold, this is the twenty and ninth year, in the latter end, and we are in the possession of our lands; and the Lamanites have fled to the land of Nephi.

And those sons of the people of Ammon, of whom I have so highly spoken, are with me in the city of Manti; and the Lord has supported them, yea, and kept them from falling by the sword, insomuch that even one soul has not been slain.

But behold, they have received many wounds; nevertheless they stand fast in that liberty wherewith God has made them free; and they are strict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from day to day; yea, they do observe to keep his statutes, and his judgments, and his commandments continually; and their faith is strong in the prophecies concerning that which is to come.



41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대를 그의 면전에서 지키시기 원하며, 또한 그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나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그대들이 찾는 데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나는 힐라맨이니 엘마의 아들이니라.

And now, my beloved brother, Moroni, may the Lord our God, who has redeemed us and made us free, keep you continually in his presence; yea, and may he favor this people, even that ye may have success in obtaining the possession of all that which the Lamanites have taken from us, which was for our support. And now, behold, I close mine epistle. I am Helaman, the son of Alma.

## 앨마서 59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년에 모로나이가 힐라맨의 서신을 받아 읽고 나서, 힐라맨의 복리, 곧 그가 잃었던 땅들을 손에 넣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으로 인하여 심히 기쁘게 되었다.
- 2 또한 그가 있는 지역의 주변 온 땅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알려, 그들로도 기뻐하게 하였더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즉시 페이호랜에게 서신을 보내어, 군사를 모아 힐라맨, 곧 힐라맨의 군대를 더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것처럼 기적적으로 행동하여 되찾은 지역을 쉽게 지킬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는 이러한 서신을 제이라헤플라 땅에 보내고 나서, 레이맨인들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나머지 소유지와 성읍들을 손에 넣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처럼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라, 모로나이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엔톤 성으로부터 함께 모인 니파이하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을 받았느니라.
- 6 참으로 맨타이 성과 그 주변의 땅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 와서, 이 지역의 레이맨인들과 합세하였었다.
- 7 이리하여 심히 수효가 많아진 데다가 참으로 매일 병력을 받고 있던 차에, 앰모론의 명령으로 그들은 니파이하 백성을 치러 나아와 심히 큰 살육으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더라.
- 8 또 그들의 군대는 수효가 심히 많아 나머지 니파이하 백성들이 부득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나니, 이에 저들이 와서 모로나이의 군대에 합류하였더라.

## Alma 59

Now it came to pass in the thir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fter Moroni had received and had read Helaman's epistle, he was exceedingly rejoiced because of the welfare, yea, the exceeding success which Helaman had had, in obtaining those lands which were lost.

Yea, and he did make it known unto all his people, in all the land round about in that part where he was, that they might rejoice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he immediately sent an epistle to Pahoran, desiring that he should cause men to be gathered together to strengthen Helaman, or the armies of Helaman, insomuch that he might with ease maintain that part of the land which he had been so miraculously prospered in regaining.

And it came to pass when Moroni had sent this epistle to the land of Zarahemla, he began again to lay a plan that he might obtain the remainder of those possessions and cities which the Lamanites had taken from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ile Moroni was thus making preparations to go against the Lamanites to battle, behold, the people of Nephiah, who were gathered together from the city of Moroni and the city of Lehi and the city of Morianton, were attacked by the Lamanites.

Yea, even those who had been compelled to flee from the land of Manti, and from the land round about, had come over and joined the Lamanites in this part of the land.

And thus being exceedingly numerous, yea, and receiving strength from day to day, by the command of Ammoron they came forth against the people of Nephiah, and they did begin to slay them with an exceedingly great slaughter.

And their armies were so numerous that the remainder of the people of Nephiah were obliged to flee before them; and they came even and joined the army of Moroni.

- 9 또 이제 모로나이는 병사들이 니파이하 성으로 보냄을 받아 백성을 도와 그 성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성을 레이맨인들 수중에 함락되기 전에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 탈환하기보다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로나이는 그들이 쉽게 그 성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였더라.
- 10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회복했던 곳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더라.
- 11 그런데 이제 니파이하 성이 잃은 바 된 것을 보고는 모로나이는 심히 슬퍼져서,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형제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 12 이제 이는 그의 총대장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 그들은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의심하며 또한 기이히 여겼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레이맨인들의 성공으로 인함이었더라.
- 13 이에 모로나이는 자기 나라의 자유에 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더라.

And now as Moroni had supposed that there should be men sent to the city of Nephiah, to the assistance of the people to maintain that city, and knowing that it was easier to keep the city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than to retake it from them, he supposed that they would easily maintain that city.

Therefore he retained all his force to maintain those places which he had recovered.

And now, when Moroni saw that the city of Nephiah was lost he was exceedingly sorrowful, and began to doub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whether they should not fall into the hands of their brethren.

Now this was the case with all his chief captains. They doubted and marveled also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and this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Lamanites ov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was angry with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ir indifference concerning the freedom of their country.

## 앨마서 60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다시 그 땅의 통치자 페이호랜에게 편지하였으니,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보라, 나는 이 땅의 대판사요 통치자인 제이라헤믈라 성의 페이호랜과 이 전쟁에 관한 일을 다스리며 보살피도록 이 백성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의 서한을 보내노라.
- 2 이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책망할 말이 얼마간 있음이니, 보라, 그대들 스스로가 알거니와 그대들은 군사를 모아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켜 레이맨인들이 어떤 지역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치러 보내도록 임명되었음이라.
- 3 그러하거늘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거니와, 나 스스로와 또한 나의 병사들과 또한 헬라맨과 그의 병사들은 심히 큰 고난을 겪었나니 참으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와 온갖 고난을 겪었느니라.
- 4 그러나 보라, 우리가 겪은 것이 이것이 전부라 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것이라.
- 5 그러나 보라, 우리 백성 중의 살육이 참으로 컸도다. 참으로 수천 명이 칼에 쓰러졌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우리 군대에 충분한 병력과 그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더라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라. 참으로 우리들에 대한 그대들의 태만이 컸도다.
- 6 이제 보라, 우리는 이 심히 큰 태만의 원인을 알기 원하노라. 참으로 우리는 그대들의 사려를 결한 상태의 원인을 알기 원하노라.
- 7 그대들의 원수들이 그대들 주위에서 죽음의 일을 펼치고 있는데, 참으로 그들이 그대들의 형제 수천 명을 살해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아무 생각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들의 보좌 위에 앉기를 생각할 수 있느냐?
- 8 참으로 그들은 보호를 바라고 그대들을 쳐다보았던 자들로서, 참으로 그들을 돕도록, 참으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강화하여 수천 명을 칼에 쓰러지는 데서 구할 수 있는 위치에 그대들을 앉혀 놓은 자들이니라.

## Alma 60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rote again to the governor of the land, who was Pahoran,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wrote, saying: Behold, I direct mine epistle to Pahoran, in the city of Zarahemla, who is the chief judge and the governor over the land, and also to all those who have been chosen by this people to govern and manage the affairs of this war.

For behold, I have somewhat to say unto them by the way of condemnation; for behold, ye yourselves know that ye have been appointed to gather together men, and arm them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of every kind, and send forth against the Lamanites, in whatsoever parts they should come into our land.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myself, and also my men, and also Helaman and his men, have suffered exceedingly great sufferings; yea, even hunger, thirst, and fatigue, and all manner of afflictions of every kind.

But behold, were this all we had suffered we would not murmur nor complain.

But behold, great has been the slaughter among our people; yea, thousands have fallen by the sword, while it might have otherwise been if ye had rendered unto our armies sufficient strength and succor for them. Yea, great has been your neglect towards us.

And now behold, we desire to know the cause of this exceedingly great neglect; yea, we desire to know the cause of your thoughtless state.

Can you think to sit upon your thrones in a state of thoughtless stupor, while your enemies are spreading the work of death around you? Yea, while they are murdering thousands of your brethren—

Yea, even they who have looked up to you for protection, yea, have placed you in a situation that ye might have succored them, yea, ye might have sent armies unto them, to have strengthened them, and have saved thousands of them from falling by the sword.

- 9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대들이 그대들의 식량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인하여 싸우고 피 흘려 그들의 목숨을 버렸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그대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굶주림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 10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이는 그대들이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만 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이 백성의 복리와 자유를 위해 분발했어야만 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그대들이 그들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 결과 수천 명의 피가 복수를 위하여 그대들의 머리 위에 임하리니, 이는 저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저들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는 아신 바 되었음이니라—
- 11 보라, 혹 그대들은 그대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심히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그가 그대들을 건져 주시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
- 12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가 그처럼 많이 죽임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한 줄 생각하느냐?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칼에 쓰러진 자가 많거니와, 보라, 이는 그대들을 정죄하는 것이니,
- 13 이는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생각하지 말지니,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 14 또 이제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백성의 심히 나태함 곧 우리 정부의 나태함과 그들 형제들을 향한 참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 심히 두렵도다.

But behold, this is not all—ye have withheld your provisions from them, insomuch that many have fought and bled out their lives because of their great desires which they had for the welfare of this people; yea, and this they have done when they were about to perish with hunger, because of your exceedingly great neglect towards them.

And now, my beloved brethren—for ye ought to be beloved; yea, and ye ought to have stirred yourselves more diligently for the welfare and the freedom of this people; but behold, ye have neglected them insomuch that the blood of thousands shall come upon your heads for vengeance; yea, for known unto God were all their cries, and all their sufferings—

Behold, could ye suppose that ye could sit upon your thrones, and because of the exceeding goodness of God ye could do nothing and he would deliver you? Behold, if ye have supposed this ye have supposed in vain.

Do ye suppose that, because so many of your brethren have been killed it is because of their wickedness? I say unto you, if ye have supposed this ye have supposed in vain; for I say unto you, there are many who have fallen by the sword; and behold it is to your condemnation;

For the Lord suffereth the righteous to be slain that his justice and judgment may come upon the wicked; therefore ye need not suppose that the righteous are lost because they are slain; but behold, they do enter into the rest of the Lord their God.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I fear exceedingly that the judgments of God will come upon this people, because of their exceeding slothfulness, yea, even the slothfulness of our government, and their exceedingly great neglect towards their brethren, yea, towards those who have been slain.

15 이는 먼저 우리의 머리에서 시작된 간악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막아내어 그들로 우리를 이길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임이라.

16 참으로 우리 중에 일어났던 전쟁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우리 중에 것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한 이 왕당파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고 있었을 때,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같이 우리의 힘을 합쳤더라면, 참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저 왕당파들이 가졌던 권력과 권세의 욕심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검을 들어 우리 가운데 것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하는 대신, 우리의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적을 치러 나아갔었다면, 참으로 우리가 주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을 치러 나아갔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흩어버렸으리니, 이는 그의 말씀의 성취를 좇아 이루어졌을 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보라, 이제는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있으며, 저들이 칼로 우리 백성, 참으로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해하며, 또한 그들을 사로잡아 가며, 그들로 온갖 고난을 겪게 하고 있나니, 이는 저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 곧 저 왕당파들의 큰 간악함으로 인한 것이니라.

18 그러나 이에 관하여 내가 많이 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그대들 스스로가 권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대들이 또한 그대들 나라의 배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19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이 우리의 심장부에 있어 안전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에, 그대들이 우리를 등한히 해서, 그대들이 식량과 또한 우리의 군대를 강화시킬 군사를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냐?

20 그대들은 주 그대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잊었느냐? 참으로 그대들은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일을 잊었느냐?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견지심을 입은 그 여러 번을 그대들은 잊었느냐?

21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 앉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For were it not for the wickedness which first commenced at our head, we could have withstood our enemies that they could have gained no power over us.

Yea, had it not been for the war which broke out among ourselves; yea, were it not for these king-men, who caused so much bloodshed among ourselves; yea, at the time we were contending among ourselves, if we had united our strength as we hitherto have done; yea, had it not been for the desire of power and authority which those king-men had over us; had they been true to the cause of our freedom, and united with us, and gone forth against our enemies, instead of taking up their swords against us, which was the cause of so much bloodshed among ourselves; yea, if we had gone forth against them in the strength of the Lord, we should have dispersed our enemies, for it would have been done, according to the fulfilling of his word.

But behold, now the Lamanites are coming upon us, taking possession of our lands, and they are murdering our people with the sword, yea, our women and our children, and also carrying them away captive, causing them that they should suffer all manner of afflictions, and this because of the great wickedness of those who are seeking for power and authority, yea, even those king-men.

But why should I say much concerning this matter? For we know not but what ye yourselves are seeking for authority. We know not but what ye are also traitors to your country.

Or is it that ye have neglected us because ye are in the heart of our country and ye are surrounded by security, that ye do not cause food to be sent unto us, and also men to strengthen our armies?

Have ye forgotten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Yea, have ye forgotten the captivity of our fathers? Have ye forgotten the many times we have been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our enemies?

Or do ye suppose that the Lord will still deliver us, while we sit upon our thrones and do not make use of the means which the Lord has provided for us?

22 참으로 이 땅 국경 주변에서 수천이 칼에 쓰러지고 있으며, 참으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대들은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역시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는 수천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으려 하느냐?

23 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죄 없다 여기실 줄로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제 나는 먼저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릇의 바깥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기 바라노라.

24 이에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의 행한 바를 회개하고, 일어나 행하기 시작하여, 우리와 또한 헬라만에게 식량과 군사를 보내어 그로 그가 되찾은 우리 나라의 그 지역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우리로도 이 지역의 우리 소유의 나머지를 또한 회복할 수 있게 아니할진대, 보라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릇의 안, 곧 우리 정부의 고위 지도층을 깨끗하게 하기까지 레이맨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함이 마땅하리로다.

25 또 그대들이 내 서한의 요구를 들어 주어, 나와서 진정한 자유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의 군대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힘쓰며, 그들에게 식량을 보내어 그들을 지원하지 아니할진대, 보라 내가 내 자유파 병사의 일부를 남겨 우리 땅의 이 지역을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그들 위에 남겨 두어, 아무 다른 권세가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26 이는 그들의 심히 강한 신앙과 그들의 환난 중에 보인 그들의 인내로 인함이라—

27 그러한 다음 내가 그대들에게로 가서, 그대들 가운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을진대, 참으로 자유의 불꽃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을진대, 보라 내가 그대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리니, 권력과 권세를 빼앗기 원하는 자들이 멸절되기까지 그리하리로다.

Yea, will ye sit in idleness while ye are surrounded with thousands of those, yea, and tens of thousands, who do also sit in idleness, while there are thousands round about in the borders of the land who are falling by the sword, yea, wounded and bleeding?

Do ye suppose that God will look upon you as guiltless while ye sit still and behold these things? Behold I say unto you, Nay. Now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at God has said that the inward vessel shall be cleansed first, and then shall the outer vessel be cleansed also.

And now, except ye do repent of that which ye have done, and begin to be up and doing, and send forth food and men unto us, and also unto Helaman, that he may support those parts of our country which he has regained, and that we may also recover the remainder of our possessions in these parts, behold it will be expedient that we contend no more with the Lamanites until we have first cleansed our inward vessel, yea, even the great head of our government.

And except ye grant mine epistle, and come out and show unto me a true spirit of freedom, and strive to strengthen and fortify our armies, and grant unto them food for their support, behold I will leave a part of my freemen to maintain this part of our land, and I will leave the strength and the blessings of God upon them, that none other power can operate against them—

And this because of their exceeding faith, and their patience in their tribulations—

And I will come unto you, and if there be any among you that has a desire for freedom, yea, if there be even a spark of freedom remaining, behold I will stir up insurrections among you, even until those who have desires to usurp power and authority shall become extinct.

28 참으로 보라 나는 그대들의 권력이나 그대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이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 나라의 대의를 지키려 내 칼을 잡는 것은 그의 계명에 따른 것이요, 우리가 것처럼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그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9 보라 지금이 그때라, 참으로 그때가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대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그대들의 나라와 그대들의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정의의 검이 그대들 위에 드리워져 있나니, 참으로 또한 그것이 그대들 위에 내려 그대들을 징벌하여 그대들을 온전히 멸망하게 하리로다.

30 보라, 나는 그대들의 원조를 기다리노니, 그대들이 우리에게 구조를 베풀지 아니할진대,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참으로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가서, 칼로 그대들을 쳐, 이 백성이 우리의 자유의 대의를 진작시키는 것을 방해할 능력을 그대들이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리라.

31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대들이 살아서 그대들의 죄악 가운데 강하여져서 그의 의로운 백성을 멸하게 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32 보라, 그대들의 죄악은 그대들이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인 한편, 레이맨인들의 증오심을 초래한 것은 그들 조상의 전통이요, 실로 그 증오심은 우리에게서 이 반해 나간 자들에 의해 배가 되어온 것이거늘, 주께서 그대들은 살려 두시고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러 나오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33 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들의 발 아래 짓밟고 있음을 알고 있느니라. 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통치자로 임명한 자들이 그들의 죄와 불의함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올라가 저희를 대적하여 싸우라 하시더라.

34 또 이제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내가 맺은 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성약을 따라 강권하심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나와 또한 힐라맨에게 그대들의 식량과 그대들의 군사를 속히 보내 주기를 원하노라.

Yea, behold I do not fear your power nor your authority, but it is my God whom I fear; and it is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that I do take my sword to defend the cause of my country, and it is because of your iniquity that we have suffered so much loss.

Behold it is time, yea, the time is now at hand, that except ye do bestir yourselves in the defence of your country and your little ones, the sword of justice doth hang over you; yea, and it shall fall upon you and visit you even to your utter destruction.

Behold, I wait for assistance from you; and, except ye do administer unto our relief, behold, I come unto you, even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smite you with the sword, insomuch that ye can have no more power to impede the progress of this people in the cause of our freedom.

For behold, the Lord will not suffer that ye shall live and wax strong in your iniquities to destroy his righteous people.

Behold, can you suppose that the Lord will spare you and come out in judgment against the Lamanites, when it is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that has caused their hatred, yea, and it has been redoubled by those who have dissented from us, while your iniquity is for the cause of your love of glory and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Ye know that ye do transgress the laws of God, and ye do know that ye do trample them under your feet. Behold, the Lord saith unto me: If those whom ye have appointed your governors do not repent of their sins and iniquities, ye shall go up to battle against them.

And now behold, I, Moroni, am constrained, according to the covenant which I have mad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my God;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adhere to the word of God, and send speedily unto me of your provisions and of your men, and also to Helaman.



35 또 보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그대들에게로 가리니,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림으로 멸망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는 칼로 그리하여야만 하실지라도 그대들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제 그대들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지니라.

36 보라, 나는 모로나이요, 그대들의 총대장이라.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노라. 나는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나라의 자유와 복리를 구하노라. 이같이 나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And behold, if ye will not do this I come unto you speedily; for behold, God will not suffer that we should perish with hunger; therefore he will give unto us of your food, even if it must be by the sword. Now see that ye fulfil the word of God.

Behold, I am Moroni, your chief captain. I seek not for power, but to pull it down. I seek not for honor of the world, but for the glory of my God, and the freedom and welfare of my country. And thus I close mine epistle.

## 앨마서 61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그의 서한을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후, 곧 그는 최고 통치자 페이호랜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더라. 이에 그가 받은 말이 이러하니라.
- 2 땅의 최고 통치자 나 페이호랜은 군대의 총대장 모로나이에게 이 말을 보내노라. 보라,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대의 큰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그대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 3 그러나 보라, 그대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 실로 그들이 일어나, 나와 또한 나의 백성 중 자유파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나니, 또한 일어난 자들의 수효가 심히 많으니라.
- 4 또 이 큰 죄악의 원인이 된 자들은 내게서 판사직을 빼앗고자 하던 자들이니, 그들이 크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많은 백성의 마음을 꺾어내었으며, 이는 우리 중에 흑심한 고난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식량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유파 사람들을 두렵게 한지라, 저들이 그대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하였느니라.
- 5 또 보라, 그들이 그들 앞에서 나를 몰아낸지라, 내가 얻을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 땅으로 피하였더라.
- 6 그리고 보라, 내가 이 지역에 두루 포고를 보내었더니, 보라, 저들이 무기를 잡고, 저들의 나라와 저들의 자유를 지키며, 우리가 받은 악행을 갚아 주고자, 매일 우리에게로 모여들고 있느니라.
- 7 또 저들이 우리에게로 오매,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던 자들을 무시할 만큼 된지라,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 나오지 못하고 있느니라.

## Alma 61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soon after Moroni had sent his epistle unto the chief governor, he received an epistle from Pahoran, the chief governor.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received:

I, Pahoran, who am the chief governor of this land, do send these words unto Moroni, the chief captain over the army. Behold, I say unto you, Moroni, that I do not joy in your great afflictions, yea, it grieves my soul.

But behold, there are those who do joy in your afflictions, yea, insomuch that they have risen up in rebellion against me, and also those of my people who are freemen, yea, and those who have risen up are exceedingly numerous.

And it is those who have sought to take away the judgment-seat from me that have been the cause of this great iniquity; for they have used great flattery, and they have led away the hearts of many people, which will be the cause of sore affliction among us; they have withheld our provisions, and have daunted our freemen that they have not come unto you.

And behold, they have driven me out before them, and I have fled to the land of Gideon, with as many men as it were possible that I could get.

And behold, I have sent a proclamation throughout this part of the land; and behold, they are flocking to us daily, to their arms, in the defence of their country and their freedom, and to avenge our wrongs.

And they have come unto us, insomuch that those who have risen up in rebellion against us are set at defiance, yea, insomuch that they do fear us and durst not come out against us to battle.

8 그들은 제이라헤물라 땅 곧 성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임명하였으며, 그는 레이맨인의 왕에게 편지하여 그와 동맹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맹에서 그는 제이라헤물라 성을 지키기로 맹약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이 성을 지키면 레이맨인들이 이 땅의 나머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이 백성이 레이맨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면, 그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앉게 되리라 함이라.

9 또 이제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나를 비난하였으나, 내가 이를 꾀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고결한 마음을 기뻐하노라. 나 페이호랜은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판사직을 지키려 함은 내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하려 함이라. 내 영혼은 하나님 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도다.

10 또 이제 보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간악함에 대항할 것이다. 레이맨인들이 만일 그들의 땅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리라.

11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일어나 모반을 일으키며 우리를 대적하여 칼을 잡지 아니할진대 우리는 그들의 피도 흘리지 아니하리라.

12 만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가 우리에게 그리하라 명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박의 멍에를 짊어지리라.

13 그러나 보라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적에게 굴복하라 명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우리가 그를 신뢰할진대,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시느니라.

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우리는 악을 대적하자. 그리고 무슨 악이든지, 참으로 모반이나 이반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대적할 수 없는 악은, 우리의 칼로 대적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교회의 커다란 특권과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의 대의 안에서 기뻐하자.

They have got possession of the land, or the city, of Zarahemla; they have appointed a king over them, and he hath written unto the king of the Lamanites, in the which he hath joined an alliance with him; in the which alliance he hath agreed to maintain the city of Zarahemla, which maintenance he supposeth will enable the Lamanites to conquer the remainder of the land, and he shall be placed king over this people when they shall be conquered under the Lamanites.

And now, in your epistle you have censured me, but it mattereth not; I am not angry, but do rejoice in the greatness of your heart. I, Pahoran, do not seek for power, save only to retain my judgment-seat that I may preserve the rights and the liberty of my people. My soul standeth fast in that liberty in the which God hath made us free.

And now, behold, we will resist wickedness even unto bloodshed. We would not shed the blood of the Lamanites if they would stay in their own land.

We would not shed the blood of our brethren if they would not rise up in rebellion and take the sword against us.

We would subject ourselves to the yoke of bondage if it were requisite with the justice of God, or if he should command us so to do.

But behold he doth not command us that we shall subject ourselves to our enemies, but that we should put our trust in him, and he will deliver us.

Therefore, my beloved brother, Moroni, let us resist evil, and whatsoever evil we cannot resist with our words, yea, such as rebellions and dissensions, let us resist them with our swords, that we may retain our freedom, that we may rejoice in the great privilege of our church, and in the cause of our Redeemer and our God.

15 그러므로 그대의 병사를 소수 이끌고 속히 내게로 오라. 나머지는 리하이와 티엔쿰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영을 좇아 그 지역의 전쟁을 지휘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라. 그 영은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 정신이기도 하나라.

16 보라 내가 약간의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었으니, 그대가 내게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17 그대가 이리로 행군하여 오면서 모을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모으라. 그러한 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저 이 반자들을 치러 갈 것이다.

18 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여, 리하이와 티엔쿰에게 보낼 양식을 더 얻도록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러 나아갈 것이요, 그리하여 이 큰 죄악을 종식시키리라.

19 또 이제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의 서한을 받고 기뻐하노니, 이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형제를 치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인지에 관하여 얼마간 염려하고 있었음이라.

20 그러나 그대는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대에게 명하시기를 저들을 치러 가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21 그대는 반드시 리하이와 티엔쿰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 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선 모든 자들을 또한 건지시리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Therefore, come unto me speedily with a few of your men, and leave the remainder in the charge of Lehi and Teancum; give unto them power to conduct the war in that part of the land, according to the Spirit of God, which is also the spirit of freedom which is in them.

Behold I have sent a few provisions unto them, that they may not perish until ye can come unto me.

Gather together whatsoever force ye can upon your march hither, and we will go speedily against those dissenters, in the strength of our God according to the faith which is in us.

And we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y of Zarahemla, that we may obtain more food to send forth unto Lehi and Teancum; yea, we will go forth against them in the strength of the Lord, and we will put an end to this great iniquity.

And now, Moroni, I do joy in receiving your epistle, for I was somewhat worried concerning what we should do, whether it should be just in us to go against our brethren.

But ye have said, except they repent the Lord hath commanded you that ye should go against them.

See that ye strengthen Lehi and Teancum in the Lord; tell them to fear not, for God will deliver them, yea, and also all those who stand fast in that liberty wherewith God hath made them free. And now I close mine epistle to my beloved brother, Moroni.

## 앨마서 62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서한을 받으며 그 마음이 용기를 얻고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는 페이호랜이 충성되어 그가 또한 나라의 자유와 대의를 저버리는 배신자가 아님으로 인함이라.
- 2 그러나 그는 또한 페이호랜을 판사직에서 몰아낸 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요컨대 자기 나라와 또한 자기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자들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페이호랜의 요구대로 소수의 군사를 취하고, 나머지 자기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리하이와 티앤클에게 준 후 기드온 땅을 향해 행군해 가더라.
- 4 그리고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그 곳에 자유의 기를 세워, 기드온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동안 내내 그가 얻을 수 있는 병력을 다 얻었더라.
- 5 그리고 수천 명이 그의 깃발로 모여 들어, 속박에 들지 않고자,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칼을 들었더라.
- 6 이리하여 모로나이가 그 행군하여 오는 동안 내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모으고, 기드온 땅에 이르러, 그의 병력을 페이호랜의 병력과 합하매 그들이 심히 강하게 되니, 곧 자유파의 백성들을 제이라헤플라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 반역자들의 왕 페이쿠스의 군사들보다 더욱 강하게 되었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제이라헤플라 땅으로 내려가서, 성을 치러 나아가 페이쿠스의 군사들을 대면하매, 그들이 교전하게 되었더라.
- 8 이에 보라, 페이쿠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은 잡혀 포로가 된지라, 페이호랜이 판사직에 회복되니라.

## Alma 62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Moroni had received this epistle his heart did take courage, and was fill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because of the faithfulness of Pahoran, that he was not also a traitor to the freedom and cause of his country.

But he did also mourn exceedingly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ose who had driven Pahoran from the judgment-seat, yea, in fine because of those who had rebelled against their country and also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took a small number of men, according to the desire of Pahoran, and gave Lehi and Teancum command over the remainder of his army, and took his march towards the land of Gideon.

And he did raise the standard of liberty in whatsoever place he did enter, and gained whatsoever force he could in all his march towards the land of Gide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ousands did flock unto his standard, and did take up their swords in the defence of their freedom, that they might not come into bondage.

And thus, when Moroni had gathered together whatsoever men he could in all his march, he came to the land of Gideon; and uniting his forces with those of Pahoran they became exceedingly strong, even stronger than the men of Pachus, who was the king of those dissenters who had driven the freemen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had taken possession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nd Pahoran went down with their armies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went forth against the city, and did meet the men of Pachus, insomuch that they did come to battle.

And behold, Pachus was slain and his men were taken prisoners, and Pahoran was restored to his judgment-seat.

- 9 그리고 페이쿠스의 군사들은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또한 붙잡혀 투옥되었던 왕당파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형되었으니, 참으로 페이쿠스의 군사들과 왕당파 사람들로서 무릇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던 자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여졌느니라.
- 10 또 이리하여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된지라, 실로 그들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누구든지 속히 법에 따라 처형되었더라.
- 11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삼십년이 끝나니,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든 자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였더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일년 초에, 모로나이가 즉시 식량과 또한 군사 육천 명을 힐라맨에게 보내게 하여, 그를 도와 그 쪽 지역을 지키게 하였더라.
- 13 또 군사 육천 명의 군대를 충분한 양의 양식과 함께 리하이와 티앤클의 군대에게 보내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에 대비하여 그 땅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시행되었더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많은 군사를 제이라헤믈라 땅에 남겨 두고는, 니파이하 성의 레이맨인들을 전복하기로 작정하고,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갔더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면서, 레이맨인의 많은 군사를 붙들 어,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하고, 저들의 식량과 저들의 전쟁 무기를 취하였더라.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를 취한 후에, 저들로 다시는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저들의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게 하였더라.

And the men of Pachus received their trial, according to the law, and also those king-men who had been taken and cast into prison; and they were executed according to the law; yea, those men of Pachus and those king-men, whosoever would not take up arms in the defence of their country, but would fight against it, were put to death.

And thus it became expedient that this law should be strictly observed for the safety of their country; yea, and whosoever was found denying their freedom was speedily executed according to the law.

And thus ended the thir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Moroni and Pahoran having restored peace to the land of Zarahemla, among their own people, having inflicted death upon all those who were not true to the cause of freedom.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hir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Moroni immediately caused that provisions should be sent, and also an army of six thousand men should be sent unto Helaman, to assist him in preserving that part of the land.

And he also caused that an army of six thousand men, with a sufficient quantity of food, should be sent to the armies of Lehi and Teancum. And it came to pass that this was done to fortify the land against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nd Pahoran, leaving a large body of men in the land of Zarahemla, took their march with a large body of men towards the land of Nephihah, being determined to overthrow the Lamanites in that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as they were marching towards the land, they took a large body of men of the Lamanites, and slew many of them, and took their provisions and their weapons of war.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y had taken them, they caused them to enter into a covenant that they would no more take up their weapons of war against the Nephites.

- 17 그리고 저들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저들을 암몬 백성과 함께 살도록 보내었으니, 저들 곧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의 수효가 사천 명 가량이었더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하 성에 이르러, 니파이하 성에 가까운 니파이하 평지에 그들의 장막을 치니라.
- 19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이 평지에서 자기들과 싸우러 나오기를 바랐으나,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심히 큰 용기를 알고 또 그들의 수효가 많음을 보는 고로 감히 그들을 치러 나오지 못하니라. 그리하여 그 날 저들은 싸우러 나아오지 아니하였더라.
- 20 이에 밤이 되매, 모로나이가 야음을 타고 나아가서, 성 어느 부분에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고 있는가를 탐지해 내기 위해 성벽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동편 입구 가까이에 있고 모두 잠들어 있더라.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로 돌아와, 그들로 하여금 성벽 꼭대기에서 성벽 안쪽으로 내릴 튼튼한 줄과 사다리들을 급히 준비하게 하였더라.
-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의 군사들로 하여금 진군해 나아가서 성벽 꼭대기에 오르게 한 다음, 성의 그 부분 곧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지 아니한 서편으로 내려가게 하였더라.
- 23 이에 그들이 그들의 튼튼한 줄과 그들의 사다리를 써서 밤에 모두 성 안으로 내려가니, 이리하여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성 안에 있더라.
- 24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깨어 모로나이의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윽고 통로를 지나 도망하여 나가는지라.

And when they had entered into this covenant they sent them to dwell with the people of Ammon, and they were in number about four thousand who had not been slai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sent them away they pursued their march towards the land of Nephihah.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come to the city of Nephihah, they did pitch their tents in the plains of Nephihah, which is near the city of Nephihah.

Now Moroni was desirous that the Lamanites should come out to battle against them, upon the plains; but the Lamanites, knowing of their exceedingly great courage, and beholding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s, therefore they durst not come out against them; therefore they did not come to battle in that day.

And when the night came, Moroni went forth in the darkness of the night, and came upon the top of the wall to spy out in what part of the city the Lamanites did camp with their arm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on the east, by the entrance; and they were all asleep. And now Moroni returned to his army, and caused that they should prepare in haste strong cords and ladders, to be let down from the top of the wall into the inner part of the wall.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caused that his men should march forth and come upon the top of the wall, and let themselves down into that part of the city, yea, even on the west, where the Lamanites did not camp with their ar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ll let down into the city by night, by the means of their strong cords and their ladders; thus when the morning came they were all within the walls of the city.

And now, when the Lamanites awoke and saw that the armies of Moroni were within the walls, they were affrighted exceedingly, insomuch that they did flee out by the pass.

25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이 자기 앞에서 도망함을 보고,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저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게 하고, 많은 자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자를 에워싸 포로로 잡으매, 저들의 나머지는 해안 가까이의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으로 도망하였더라.

26 이같이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였으나,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은 많았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 중 포로가 된 많은 자들이 암몬 백성과 연합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28 이에 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저들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었더라.

29 그리하여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이 다 암몬 백성에게 합류하여,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하여, 토지를 경작하며, 온갖 곡식을 재배하며, 각종 가축을 기르매, 이로 인해 니파이인들이 큰 짐을 덜었으니, 참으로 그 결과 그들이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지키는 일을 덜었더라.

3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고 나서 많은 포로를 잡은 것이,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크게 감소시켰고, 또 포로로 잡혔던 니파이인들을 많이 되찾은 것이 모로나이의 군대를 크게 강화하였으므로, 모로나이가 니파이하 땅에서 리하이 땅으로 나아갔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본즉 모로나이가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는지라, 그들이 다시 크게 놀라 모로나이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가 저들을 성읍에서 성읍으로 추격하더니, 이윽고 저들이 리하이와 티앤클에게 만난 바 되었고, 레이맨인들은 리하이와 티앤클에게서 도망하여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으로 내려가, 드디어 모로나이 땅에 이르렀더라.

And now when Moroni saw that they were fleeing before him, he did cause that his men should march forth against them, and slew many, and surrounded many others, and took them prisoners; and the remainder of them fled into the land of Moroni, which was i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Thus had Moroni and Pahoran obtained the possession of the city of Nephiah without the loss of one soul; and there were many of the Lamanites who were slain.

Now it came to pass that many of the Lamanites that were prisoners were desirous to join the people of Ammon and become a fre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as many as were desirous, unto them it was granted according to their desires.

Therefore, all the prisoners of the Lamanites did join the people of Ammon, and did begin to labor exceedingly, tilling the ground, raising all manner of grain, and flocks and herds of every kind; and thus were the Nephites relieved from a great burden; yea, insomuch that they were relieved from all the prisoners of the Lamanites.

Now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fter he had obtained possession of the city of Nephiah, having taken many prisoners, which did reduce the armies of the Lamanites exceedingly, and having regained many of the Nephites who had been taken prisoners, which did strengthen the army of Moroni exceedingly; therefore Moroni went forth from the land of Nephiah to the land of Lehi.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saw that Moroni was coming against them, they were again frightened and fled before the army of Moroni.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nd his army did pursue them from city to city, until they were met by Lehi and Teancum; and the Lamanites fled from Lehi and Teancum, even down upo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until they came to the land of Moroni.



33 이에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모두 함께 모여, 그 결과 모로나이 땅에서 한 무리가 되었더라. 이제 레이맨인의 왕 앰모론도 저들과 함께 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리하이와 티안쿰이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모로나이 땅 변경 주변에 진 치매, 레이맨인들은 남쪽으로 광야에 인접한 변경에, 또 동쪽으로 광야에 인접한 변경에 둘러 싸였더라.

35 이에 이같이 그들이 밤 동안 진을 쳤으니,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과 또한 레이맨인들도 힘든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밤 사이에는 어떠한 계책도 베풀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티안쿰이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가 앰모론에게 심히 노하여, 앰모론과 그의 형 아멜리카이아야말로 바로 것처럼 많은 전쟁과 유혈과 또한 것처럼 많은 기근을 초래해 온 바 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이 크고 오래 가는 전쟁의 원인이라 생각하였음이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안쿰이 그 분노 중에 나아가서 레이맨인들의 진으로 들어가 성벽을 넘어 내려가니라. 이에 그가 줄을 가지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왕을 발견하고 그에게 창을 던지매, 창이 그의 심장 근처를 꿰뚫었더라. 그러나 보라, 왕이 숨지기 전 그의 종들을 깨웠으므로 그들이 티안쿰을 추격하여 그를 죽였더라.

3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리하이가 티안쿰이 죽었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용맹히 싸운 자요, 과연 진정한 자유의 벗이었으며, 또 그는 심히 혹독한 고난을 허다히 겪었음이라. 그러나 보라, 그가 죽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갔느니라.

3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모로나이가 진군하여 나아가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큰 살육으로 살육하였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매 그들이 도망하고 그때에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러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were all gathered together, insomuch that they were all in one body in the land of Moroni. Now Ammoron, the king of the Lamanites, was also with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and Lehi and Teancum did encamp with their armies round about in the borders of the land of Moroni, insomuch that the Lamanites were encircled about in the borders by the wilderness on the south, and in the borders by the wilderness on the east.

And thus they did encamp for the night. For behold,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lso were weary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march; therefore they did not resolve upon any stratagem in the night-time, save it were Teancum; for he was exceedingly angry with Ammoron, insomuch that he considered that Ammoron, and Amalickiah his brother, had been the cause of this great and lasting war between them and the Lamanites, which had been the cause of so much war and bloodshed, yea, and so much famine.

And it came to pass that Teancum in his anger did go forth into the camp of the Lamanites, and did let himself down over the walls of the city. And he went forth with a cord, from place to place, insomuch that he did find the king; and he did cast a javelin at him, which did pierce him near the heart. But behold, the king did awaken his servants before he died, insomuch that they did pursue Teancum, and slew him.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Lehi and Moroni knew that Teancum was dead they were exceedingly sorrowful; for behold, he had been a man who had fought valiantly for his country, yea, a true friend to liberty; and he had suffered very many exceedingly sore afflictions. But behold, he was dead, and had gone the way of all the earth.

Now it came to pass that Moroni marched forth on the morrow, and came upon the Lamanites, insomuch that they did slay them with a great slaughter; and they did drive them out of the land; and they did flee, even that they did not return at that time against the Nephites.

3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일년이 끝났고, 또 이같이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전쟁과 유혈과 기근과 고난을 당하였더라.

40 또 니파이 백성 중에는 살인과 분쟁과 불화와 온갖 죄악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을 위하여, 참으로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4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이는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함이요,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에게 가장 침공당하기 쉬운 지역들을 견고히 하여 충분히 강하게 한 후 제이라헤물라 성으로 돌아갔고, 힐라맨 역시 자기 기업의 곳으로 돌아갔으며, 니파이 백성 중에는 다시 한 번 평화가 이룩되었더라.

43 또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지휘권을 모로나이 하라 이름하는 그의 아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의 여생을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자 자기의 집으로 물러갔더라.

44 또 페이호랜은 그의 판사직에 복귀하였고, 힐라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다시 맡았으니, 이는 것처럼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 내의 일을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음이라.

45 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나아가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백성에게 그들의 간악함을 깨닫게 하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오더라.

4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확립하였더라.

47 참으로 또한 법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져서, 그들의 판사와 그들의 대판사들이 택함을 받았더라.

And thus ended the thir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they had had wars, and bloodsheds, and famine, and affliction, for the space of many years.

And there had been murders, and contentions, and dissensions, and all manner of iniquity among the people of Nephi; nevertheless for the righteous' sake, yea, because of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they were spared.

But behold, because of the exceedingly great length of the war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many had become hardened, because of the exceedingly great length of the war; and many were softened because of their afflictions, insomuch that they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God, even in the depth of humility.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Moroni had fortified those parts of the land which were most exposed to the Lamanites, until they were sufficiently strong, he returned to the city of Zarahemla; and also Helaman returned to the place of his inheritance; and there was once more peace established among the people of Nephi.

And Moroni yielded up the command of his armies into the hands of his son, whose name was Moronihah; and he retired to his own house that he might spend the remainder of his days in peace.

And Pahoran did return to his judgment-seat; and Helaman did take upon him again to preach unto the people the word of God; for because of so many wars and contentions it had become expedient that a regulation should be made again in the church.

Therefore, Helaman and his brethren went forth, and did declare the word of God with much power unto the convincing of many people of their wickedness, which did cause them to repent of their sins and to be baptized unto the Lor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establish again the church of God, throughout all the land.

Yea, and regulations were made concerning the law. And their judges, and their chief judges were chosen.

48 또 니파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하며 심히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또 심히 부하여지기 시작하였더라.

49 그러나 그들은 부나, 그들의 세력이나, 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심히 겸손하였더라.

50 참으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 행하신 것을, 곧 그들을 사망에서와 속박에서와 옥에서와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것과,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신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51 또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 하매, 주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지라, 그들이 강하여지고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오년에 힐라맨이 죽었느니라.

And the people of Nephi began to prosper again in the land, and began to multiply and to wax exceedingly strong again in the land. And they began to grow exceedingly rich.

But notwithstanding their riches, or their strength, or their prosperity, they were not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eyes; neither were they slow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but they did humble themselves exceedingly before him.

Yea, they did remember how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them, that he had delivered them from death, and from bonds, and from prisons, and from all manner of afflictions, and he had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they did pray unto the Lord their God continually, insomuch that the Lord did bless them, according to his word, so that they did wax strong and prosper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ll these things were done. And Helaman died, in the thirty and fif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 앨마서 63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육년 초에, 앨마가 힐라맨에게 넘겨주었던 거룩한 것들을 시블론이 맡았더라.
- 2 또 그는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힘써 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그의 형제 또한 그러하였더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도 죽으매,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삼십육년이 끝났느니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칠년에, 오천사백 명에 이르는 큰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북방 땅으로 갔느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헤이고드는 심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더니, 그가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황무 땅에 인접한 풍요 땅의 변방에서 심히 큰 배를 한 척 짓고, 북방 땅으로 통하는 좁은 지협에 인접한 서쪽 바다에 그 배를 띄우더라.
- 6 또 보라, 많은 니파이인들과 또한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많은 식량을 가지고 출항하여, 북쪽으로 그들의 진로를 잡았으니, 이같이 제삼십칠년이 끝났느니라.
- 7 또 제삼십팔년에 이 사람이 다른 배들을 지었고, 첫 번 배가 또한 돌아오매, 많은 백성이 또 그리로 들어갔고, 그들도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시 북방 땅으로 출발하였더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 대하여 결코 다시는 듣지 못하였나니, 우리는 그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배 한 척이 또 출항하여 나아갔으나,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북방 땅으로 나아간 백성이 많이 있었나니, 이같이 제삼십팔년이 끝났느니라.

## Alma 63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hir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at Shiblön took possession of those sacred things which had been delivered unto Helaman by Alma.

And he was a just man, and he did walk uprightly before God; and he did observe to do good continual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his God; and also did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 died also. And thus ended the thir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irty and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as a large company of men, even to the amount of five thousand and four hundred men, with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into the land which was north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Hagoth, he being an exceedingly curious man, therefore he went forth and built him an exceedingly large ship, on the borders of the land Bountiful, by the land Desolation, and launched it forth into the west sea, by the narrow neck which led into the land northward.

And behold, there were many of the Nephites who did enter therein and did sail forth with much provisions, and also many women and children; and they took their course northward. And thus ended the thirty and seventh year.

And in the thirty and eighth year, this man built other ships. And the first ship did also return, and many more people did enter into it; and they also took much provisions, and set out again to the land north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never heard of more. And we suppose that they wer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it came to pass that one other ship also did sail forth; and whither she did go we know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year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nt forth into the land northward. And thus ended the thirty and eighth year.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구년에, 시블론도 죽고, 코리애틀은 북방 땅으로 나아가간 백성들에게 식량을 전해 주고자 배에 올라 그 땅으로 나아갔더라.
- 11 그러므로 시블론은 죽기 전에, 불가불 저 거룩한 것들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힐라맨이라 칭하는 힐라맨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게 되었다라.
- 12 이제 보라, 힐라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새긴 것은, 엘마가 명하여 나아가게 말라 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되어 이 온 땅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보내어졌느니라.
- 13 그러할지라도 이것들은 거룩하게 보존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가게 되어 있었나니, 그러므로 이 해에 이것들이 시블론이 죽기 전에 힐라맨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레이맨인들에게로 나아가간 이반자들이 어느 정도 있더니, 그들이 다시 충동함을 받아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다라.
- 15 또한 이 같은 해에 그들이 모로나이하의 백성을 대적하여, 아니면 모로나이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으나, 패하여 큰 손실을 입고 그들의 본토로 다시 쫓겨 갔느니라.
- 16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구년이 끝나더라.
- 17 그리고 이같이 엘마와 그의 아들 힐라맨과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시블론의 기사가 끝났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ir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Shiblón died also, and Coriantón had gone forth to the land northward in a ship, to carry forth provisions unto the people who had gone forth into that land.

Therefore it became expedient for Shiblón to confer those sacred things, before his death, upon the son of Helaman, who was called Helaman, being called after the name of his father.

Now behold, all those engravings which were in the possession of Helaman were written and sent forth among the children of men throughout all the land, save it were those parts which had been commanded by Alma should not go forth.

Nevertheless, these things were to be kept sacred, and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refore, in this year, they had been conferred upon Helaman, before the death of Shiblón.

And it came to pass also in this year that there were some dissenters who had gone forth unto the Lamanites; and they were stirred up again to anger against the Nephites.

And also in this same year they came down with a numerous army to war against the people of Moronihah, or against the army of Moronihah, in the which they were beaten and driven back again to their own lands, suffering great loss.

And thus ended the thir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d the account of Alma, and Helaman his son, and also Shiblón, who was his son.

# 힐라맨서

니파이인들에 대한 기사. 그들의 전쟁과 다툼 및 그들의 불화.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 힐라맨의 아들이었던 힐라맨의 기록에 따른 것이요, 또한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따른 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 또한 많은 레이맨인들이 돌이킴. 그들의 돌이킴의 기사. 레이맨인들의 의로움과 니파이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기사. 힐라맨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따른 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요, 이를 힐라맨서라 함. 기타.

## 힐라맨서 1

- 1 그리고 이제 보라,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백성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더라.
- 2 이는 보라, 페이호랜이 죽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간지라, 그러므로 페이호랜의 아들 형제 중 누가 판사직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한 분쟁이 생겼음이라.
- 3 이제 판사직을 두고 다투며, 또한 백성들로도 다투게 한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페이호랜, 페이앤카이, 그리고 페이쿠메나이라.
- 4 이제 페이호랜의 아들들은 이들이 모두가 아니나 (이는 그에게 아들이 많았음이라) 판사직을 두고 다투는 자가 이들이라. 그러므로 이들이 백성을 세 파로 갈라놓았더라.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호랜이 백성들의 소리에 의해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는 대판사와 통치자로 임명되었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쿠메나이는 자기가 판사직을 차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의 소리와 연합하였더라.

# The Book of Helaman

*An account of the Nephites. Their wars and contentions, and their dissensions. And also the prophecies of many holy prophets, before the coming of Chris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Helaman, who was the son of Helaman, and also according to the records of his sons, even down to the coming of Christ. And also many of the Lamanites are converted. An account of their conversion. An account of the righteousness of the Lamanites, and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of the Nephites, according to the record of Helaman and his sons, even down to the coming of Christ, which is called the book of Helaman, and so forth.*

## Helaman 1

And now behol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for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ere began to be a serious difficulty among the people of the Nephites.

For behold, Pahoran had died, and gone the way of all the earth; therefore there began to be a serious contention concerning who should have the judgment-seat among the brethren, who were the sons of Pahoran.

Now these are their names who did contend for the judgment-seat, who did also cause the people to contend: Pahoran, Paanchi, and Pacumeni.

Now these are not all the sons of Pahoran (for he had many), but these are they who did contend for the judgment-seat; therefore, they did cause three divisions among the people.

Nevertheless, it came to pass that Pahoran was appointed by the voice of the people to be chief judge and a governor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Pacumeni, when he saw that he could not obtain the judgment-seat, he did unite with the voice of the people.

- 7 그러나 보라, 페이앰카이와, 백성 중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들은 심히 분노하였더라. 그리하여 페이앰카이는 바야흐로 그 백성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그들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키게 하려 하였더라.
-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바야흐로 이를 행하려 했을 때, 보라, 그가 잡혀 백성의 소리를 좇아 재판관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으니, 이는 그가 모반을 일으켜 백성의 자유를 파괴하려 하였음이다.
- 9 이제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은 그가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노하여, 보라, 키시쿠멘이라 하는 자를 페이호랜의 판사석으로 보내어 페이호랜이 판사석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살해하였더라.
- 10 이에 저가 페이호랜의 종들의 추격을 받았으나, 보라, 키시쿠멘이 어찌나 빨리 도망하였던지 아무도 저를 따라 잡지 못하였더라.
- 11 또 저가 자기를 보낸 자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다 언약을 맺고, 참으로 그들을 지으신 영원하신 이로 맹세하여 키시쿠멘이 페이호랜을 살해한 것을 아무에게도 고하지 않기로 하였더라.
- 12 그러므로 키시쿠멘이 니파이 백성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페이호랜을 살해할 때 변장을 하고 있었음이라. 또 키시쿠멘 및 그와 언약한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든 백성 가운데 섞여 살아 모두 찾아 낼 수 없었으나, 무릇 발견된 자에게는 다 사형이 언도되었더라.
- 13 그리고 이제 보라, 페이쿠메나이가 백성의 소리를 좇아 니파이 백성 위에 대판사와 통치자가 되어 그 형제 페이호랜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의 권리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사십년에 행하여졌고 그 해가 끝났느니라.
- 14 그리고 판사 치세 사십일 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무수한 병사의 군대를 함께 모아 가지고,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활과 화살과 투구와 가슴판과 각종 온갖 방패로 무장시키더라.

But behold, Paanchi, and that part of the people that were desirous that he should be their governor, was exceedingly wroth; therefore, he was about to flatter away those people to rise up in rebellion against their brethren.

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about to do this, behold, he was taken, and was tried accord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and condemned unto death; for he had raised up in rebellion and sought to destroy the liberty of the people.

Now when those people who were desirous that he should be their governor saw that he was condemned unto death, therefore they were angry, and behold, they sent forth one Kishkumen, even to the judgment-seat of Pahoran, and murdered Pahoran as he sat upon the judgment-seat.

And he was pursued by the servants of Pahoran; but behold, so speedy was the flight of Kishkumen that no man could overtake him.

And he went unto those that sent him, and they all entered into a covenant, yea, swearing by their everlasting Maker, that they would tell no man that Kishkumen had murdered Pahoran.

Therefore, Kishkumen was not known among the people of Nephi, for he was in disguise at the time that he murdered Pahoran. And Kishkumen and his band, who had covenanted with him, did mingle themselves among the people, in a manner that they all could not be found; but as many as were found were condemned unto death.

And now behold, Pacumeni was appointed, according to the voice of the people, to be a chief judge and a governor over the people, to reign in the stead of his brother Pahoran; and it was according to his right. And all this was done in the for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had an end.

And it came to pass in the for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the Lamanites had gathered together an innumerable army of men, and armed them with swords, and with cimeters and with bows, and with arrows, and with head-plates, and with breastplates, and with all manner of shields of every kind.

15 그리고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려고 그들이 다시 내려왔더라. 또 그들을 거느린 자는 이름이 코리애투머라 하는 자요, 제이라헤믈라의 후예이며, 또 그는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이반해 나간 자요, 몸집이 장대한 용사더라.

16 그러므로 앰모론의 아들이요, 이름이 투발로드라 하는 레이맨인의 왕은, 코리애투머가 용사인고로 그의 힘과 또한 그의 큰 지혜로 능히 니파이인들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를 보냄으로써 니파이인들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였나니—

17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하고, 그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코리애투머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진군해 내려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정부 내에 있는 것처럼 많은 분쟁과 것처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충분한 수비대를 두지 못했었나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저들의 땅 심장부에 들어와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1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애투머가 그의 허다한 무리를 거느리고 진군해 와서는 그 성 주민들에게 임하였으니, 그들의 진군이 심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지라, 니파이인들이 미처 그 군대를 함께 모을 시간이 없었더라.

20 그리하여 코리애투머가 성 입구에 있는 파수꾼들을 베고 그의 온 군대와 더불어 성 안으로 진군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자 모두를 도륙한지라, 마침내 그 온 성을 점령하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였던페이쿠메나이는 코리애투머 앞에서 도망하여 성벽에 이르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애투머가 그를 벽에 대고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같이 페이쿠메나이의 생애가 끝났느니라.

And they came down again that they might pitch battle against the Nephites. And they were led by a man whose name was Coriantumr; and he was a descendant of Zarahemla; and he was a dissenter from among the Nephites; and he was a large and a mighty man.

Therefore, the king of the Lamanites, whose name was Tubaloth, who was the son of Ammoron, supposing that Coriantumr, being a mighty man, could stand against the Nephites, with his strength and also with his great wisdom, insomuch that by sending him forth he should gain power over the Nephites—

Therefore he did stir them up to anger, and he did gather together his armies, and he did appoint Coriantumr to be their leader, and did cause that they should march down to the land of Zarahemla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because of so much contention and so much difficulty in the government, that they had not kept sufficient guards in the land of Zarahemla; for they had supposed that the Lamanites durst not come into the heart of their lands to attack that great city Zarahemla.

But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did march forth at the head of his numerous host, and came upon the inhabitants of the city, and their march was with such exceedingly great speed that there was no time for the Nephites to gather together their armies.

Therefore Coriantumr did cut down the watch by the entrance of the city, and did march forth with his whole army into the city, and they did slay every one who did oppose them, insomuch that they did take possession of the whole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Pacumeni, who was the chief judge, did flee before Coriantumr, even to the walls of the city.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did smite him against the wall, insomuch that he died. And thus ended the days of Pacumeni.



22 또 이제 코리안투머는 자기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고, 또 니파이인들이 자기들 앞에서 도망하고 도륙당하고 잡히고 옥에 던져진 것과 또 자기가 그 온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를 점령하였음을 보고, 그 마음이 용기를 얻어 바야흐로 그 온 땅을 치러 나아가려 하였더라.

23 이에 이제 그는 제이라헤믈라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큰 군대와 함께 풍요 성을 향하여 진군하였으니, 이는 나아가 칼로 그의 길을 열어 그 땅의 북편 지역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음이라.

24 또 그들의 가장 큰 병력이 그 땅의 중앙부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진군하며 그들이 소수의 무리로 모이는 것 외에는 함께 모일 시간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땅에 베어 쓰러뜨렸더라.

25 그러나 보라, 그 땅 중앙부를 통과하는 코리안투머의 이 진군은, 도륙당한 니파이인들의 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하에게 그들에 대한 큰 우위를 제공하였으니,

26 이는 보라, 모로나이하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그 땅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까지 해 온 것 같이 변경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강한 군대들로 하여금 변경 주변 지역을 지키게 하였음이라.

27 그러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그의 희망대로 겁먹지 아니하고 그 땅의 중앙으로 들어와, 수도인 제이라헤믈라 성을 취하고 나서 진군하여 그 땅의 가장 주요한 지역들을 통과하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크게 살육하며 많은 성읍과 많은 요새들을 점령하고 있었더라.

28 그러나 모로나이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로 리하이로 주변의 군대와 함께 보내어 그들이 풍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게 하였더라.

And now when Coriantumr saw that he was in possession of the city of Zarahemla, and saw that the Nephites had fled before them, and were slain, and were taken, and were cast into prison, and that he had obtained the possession of the strongest hold in all the land, his heart took courage insomuch that he was about to go forth against all the land.

And now he did not tarry in the land of Zarahemla, but he did march forth with a large army, even towards the city of Bountiful; for it was his determination to go forth and cut his way through with the sword, that he might obtain the north parts of the land.

And, supposing that their greatest strength was in the center of the land, therefore he did march forth, giving them no time to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save it were in small bodies; and in this manner they did fall upon them and cut them down to the earth.

But behold, this march of Coriantumr through the center of the land gave Moronihah great advantage over them, notwithstanding the greatness of the number of the Nephites who were slain.

For behold, Moronihah had supposed that the Lamanites durst not come into the center of the land, but that they would attack the cities round about in the borders as they had hitherto done; therefore Moronihah had caused that their strong armies should maintain those parts round about by the borders.

But behold, the Lamanites were not frightened according to his desire, but they had come into the center of the land, and had taken the capital city which was the city of Zarahemla, and were marching through the most capital parts of the land, slaying the people with a great slaughter, both men, women, and children, taking possession of many cities and of many strongholds.

But when Moronihah had discovered this, he immediately sent forth Lehi with an army round about to head them before they should come to the land Bountiful.

29 그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풍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이윽고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후퇴하기 시작하였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퇴각하는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투를 벌일 때 전투가 격심한 혈투가 되었으니, 참으로 많은 자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의 수 가운데 코리안투머도 발견되었더라.

31 또 이제 보라, 레이맨인들은 북으로도, 남으로도, 동으로도, 서로도, 어느 길로도 퇴각할 수 없었으니, 이는 사방으로 니파이인들에게 포위되었음이라.

32 또 이같이 코리안투머가 레이맨인들을 니파이인들 한가운데로 몰아넣은지라, 그들이 니파이인들의 세력 안에 들게 되었고, 그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의 손에 투항하였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다시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유하고, 포로로 잡힌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평안히 그 땅을 떠나게 하였더라.

34 이에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사십일년이 끝났느니라.

And thus he did; and he did head them before they came to the land Bountiful, and gave unto them battle, insomuch that they began to retreat back towards the land of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hah did head them in their retreat, and did give unto them battle, insomuch that it became an exceedingly bloody battle; yea, many were slain, and among the number who were slain Coriantumr was also found.

And now, behold, the Lamanites could not retreat either way, neither on the north, nor on the south, nor on the east, nor on the west, for they were surrounded on every hand by the Nephites.

And thus had Coriantumr plunged the Lamanites into the midst of the Nephites, insomuch that they were in the power of the Nephites, and he himself was slain, and the Lamanites did yield themselves into the hands of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ihah took possession of the city of Zarahemla again, and caused that the Lamanites who had been taken prisoners should depart out of the land in peace.

And thus ended the for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 힐라맨서 2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이년에, 모로나이하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다시 평화를 이루고 난 후, 보라 판사직을 채울 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판사직을 채울 것인가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데 다시 다툼이 생겼더라.
-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의 아들인 힐라맨이 백성의 소리에 의해 판사직을 채우도록 임명되었더라.
- 3 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을 살해한 키시쿠멘이 힐라맨도 멸하려고 몰래 기회를 노렸나니, 그는 그의 간악함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로 언약을 맺은 그의 무리의 지지를 받고 있었더라.
- 4 이는 많은 말과 또한 술수에 심히 능하여 은밀한 살인과 약탈의 행위를 자행하는 개다이엔톤이라 하는 자가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키시쿠멘 무리의 두목이 되었더라.
- 5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또한 키시쿠멘을 꺾어, 만일 그들이 자기를 판사직에 앉혀 준다면 자기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백성 중에서 권능과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하였으므로, 이에 키시쿠멘이 힐라맨을 멸하기를 꾀하였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힐라맨을 멸하려고 판사석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보라 힐라맨의 종 가운데 하나가 밤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변장하여 이 무리가 힐라맨을 멸하려고 세운 그 계획들을 알아내었던지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키시쿠멘을 만나매, 저가 그에게 표시를 주니 그러므로 키시쿠멘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그에게 알게 하고, 그에게 자기를 판사석으로 안내해 주어 힐라맨을 살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 Helaman 2

And it came to pass in the for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fter Moronihah had established again peace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behold there was no one to fill the judgment-seat; therefore there began to be a contention again among the people concerning who should fill the judgment-seat.

And it came to pass that Helaman, who was the son of Helaman, was appointed to fill the judgment-seat, by the voice of the people.

But behold, Kishkumen, who had murdered Pahoran, did lay wait to destroy Helaman also; and he was upheld by his band, who had entered into a covenant that no one should know his wickedness.

For there was one Gadianton, who was exceedingly expert in many words, and also in his craft, to carry on the secret work of murder and of robbery; therefore he became the leader of the band of Kishkumen.

Therefore he did flatter them, and also Kishkumen, that if they would place him in the judgment-seat he would grant unto those who belonged to his band that they should be placed in power and authority among the people; therefore Kishkumen sought to destroy Helaman.

And it came to pass as he went forth towards the judgment-seat to destroy Helaman, behold one of the servants of Helaman, having been out by night, and having obtained, through disguise, a knowledge of those plans which had been laid by this band to destroy Helaman—

And it came to pass that he met Kishkumen, and he gave unto him a sign; therefore Kishkumen made known unto him the object of his desire, desiring that he would conduct him to the judgment-seat that he might murder Helaman.

8 이에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의 모든 마음과 살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목적이며 또한 살인하고 약탈하며 권력을 얻는 것이 어떻게 그의 무리에 속한 모든 자의 목적인지를 알고 나서, (이것이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요 또 그들의 결사였더라)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에게 이르되, 판사석으로 나아가자 하니라.

9 이제 이는 키시쿠멘을 심히 기쁘게 하였나니, 이는 그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이 판사석으로 나아가던 중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의 심장을 찌르매 그가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져 죽으니, 이에 저가 달음질하여 자기의 보고, 듣고, 행한 모든 일을 힐라맨에게 다 고하였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이 도적과 은밀한 살인자의 무리를 법에 따라 처형하고자 그들을 잡으러 보내었더라.

11 그러나 보라, 개다이엔톤은 키시쿠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무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이에 그들이 비밀 통로로 그 땅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으므로, 힐라맨이 그들을 잡으러 보내었을 때 그들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더라.

12 또 이 개다이엔톤에 대하여는 이후에 더 말할 것이니라.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이년이 끝났느니라.

13 그리고 보라, 이 책의 끝 부분에서 이 개다이엔톤이 니파이 백성을 전복하였음을, 참으로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음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14 보라 내 말은 힐라맨서의 끝을 뜻함이 아니요, 내가 기록한 모든 기사를 발췌한 니파이의 책의 끝을 뜻하느니라.

And when the servant of Helaman had known all the heart of Kishkumen, and how that it was his object to murder, and also that it was the object of all those who belonged to his band to murder, and to rob, and to gain power, (and this was their secret plan, and their combination) the servant of Helaman said unto Kishkumen: Let us go forth unto the judgment-seat.

Now this did please Kishkumen exceedingly, for he did suppose that he should accomplish his design; but behold, the servant of Helaman, as they were going forth unto the judgment-seat, did stab Kishkumen even to the heart, that he fell dead without a groan. And he ran and told Helaman all the things which he had seen, and heard, and done.

And it came to pass that Helaman did send forth to take this band of robbers and secret murderers, that they might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law.

But behold, when Gadianton had found that Kishkumen did not return he feared lest that he should be destroyed; therefore he caused that his band should follow him. And they took their flight out of the land, by a secret way, into the wilderness; and thus when Helaman sent forth to take them they could nowhere be found.

And more of this Gadianton shall be spoken hereafter. And thus ended the for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behold, in the end of this book ye shall see that this Gadianton did prove the overthrow, yea, almost the entire destruction of the people of Nephi.

Behold I do not mean the end of the book of Helaman, but I mean the end of the book of Nephi, from which I have taken all the account which I have written.

### 힐라맨서 3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삼년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 다툼은 없었고 다만 교회 안에 약간의 교만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백성 가운데 작은 불화들이 초래되었으나 이 문제는 제사십삼년 말미에 해결되었더라.
- 2 또 제사십사년에도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고 제사십오년에도 다툼은 없었더라.
- 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육년에 실로 많은 다툼과 수많은 불화가 있어, 심히 많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북방 땅으로 나아갔더라.
- 4 이에 그들은 심히 먼 거리를 여행하여 이윽고 큰 호수들과 많은 강들에 이르렀더라.
- 5 그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나아가되, 무릇 이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수많은 주민들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없어지게 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으로 나아갔더라.
- 6 그리고 이제 수목에 관한 것 말고는 그 땅의 아무 지역도 황폐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그 땅에 거했던 백성들의 멸망이 컸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황무하다 하였더라.
- 7 또 지면에 수목이 조금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백성들은 시멘트를 다루는 데 심히 능숙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번성하고 퍼지며, 남방 땅으로부터 북방 땅으로 나아가며 퍼져, 이윽고 남쪽 바다에서 북쪽 바다까지,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하였더라.

### Helaman 3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forty and thir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as no contention among the people of Nephi save it were a little pride which was in the church, which did cause some little dissensions among the people, which affairs were settled in the ending of the forty and third year.

And there was no contention among the people in the forty and fourth year; neither was there much contention in the forty and fifth year.

And it came to pass in the forty and sixth, yea, there was much contention and many dissensions; in the which there were an exceedingly great many who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and went forth unto the land northward to inherit the land.

And they did travel to an exceedingly great distance, insomuch that they came to large bodies of water and many rivers.

Yea, and even they did spread forth into all parts of the land, into whatever parts it had not been rendered desolate and without timber, because of the many inhabitants who had before inherited the land.

And now no part of the land was desolate, save it were for timber; but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who had before inhabited the land it was called desolate.

And there being but little timber upon the face of the land, nevertheless the people who went forth became exceedingly expert in the working of cement; therefore they did build houses of cement, in the which they did dwel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multiply and spread, and did go forth from the land southward to the land northward, and did spread insomuch that they began to c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rom the sea south to the sea north, from the sea west to the sea east.

- 9 또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장막과 시멘트 가  
옥에 거하면서, 무릇 지면에 움돋는 모든 나무를  
자라게 두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가옥과, 참으  
로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성소와 그들의 온갖 건물들을 지을 재목을  
갖고자 하였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북방 땅에 재목이 심히 귀  
하였던지라, 그들이 배 편으로 많이 보내었더라.
- 11 이에 이같이 그들이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목재와 시멘트로 많은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더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출생으로는 레이맨인인 암  
몬 백성 중에서도 이 땅으로 나아간 자들이 많았  
더라.
- 13 그리고 이제 이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행한 바에 대하여 적고 있는 기록이 많이 있어, 그  
기록이 그에 관해 상세하고 분량 또한 매우 많았  
더라.
- 14 그러나 보라, 이 책에는 이 백성의 행한 바를,  
참으로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의 기사와 그들  
의 전쟁과 다툼과 불화와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해운과 그들의 선박 건조와 그들의  
성전 건축과 회당과 그들의 성소의 건축과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도적질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가증한 일과 음  
행들을 백분의 일도 실을 수 없도다.
- 15 그러나 보라, 각양의 많은 책들과 많은 기록들  
이 있고 이들은 주로 니파이인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도다.
- 16 또 이러한 것들은 니파이인들에 의하여 한 세대  
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나니, 곧 그들이  
범법에 빠져 살해당하며, 약탈당하며, 수색당하  
며, 내몰리며, 죽임당하며, 지면에 흩어지며, 레이  
맨인들과 섞여 더 이상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  
지 아니하기에 이르렀으니, 간악하고, 사납고, 흉  
포해져서, 참으로 곧 레이맨인이 되어 버렸음이  
라.

And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northward did dwell in tents, and in houses of cement, and they did suffer whatsoever tree should spring up upon the face of the land that it should grow up, that in time they might have timber to build their houses, yea, their cities, and their temples, and their synagogues, and their sanctuaries, and all manner of their build-ings.

And it came to pass as timber was exceedingly scarce in the land northward, they did send forth much by the way of shipping.

And thus they did enable the people in the land northward that they might build many cities, both of wood and of cemen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of the people of Ammon, who were Lamanites by birth, did also go forth into this land.

And now there are many records kept of the proceedings of this people, by many of this people, which are particular and very large, concerning them.

But behold, a hundredth part of the proceedings of this people, yea, the account of the Lamanites and of the Nephites, and their wars, and contentions, and dissensions, and their preaching, and their prophecies, and their shipping and their building of ships, and their building of temples, and of synagogues and their sanctuaries, and their righteousness, and their wickedness, and their murders, and their robbings, and their plundering, and all manner of abominations and whoredoms, cannot be contained in this work.

But behold, there are many books and many records of every kind, and they have been kept chiefly by the Nephites.

And they have been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the Nephites, even until they have fallen into transgression and have been murdered, plundered, and hunted, and driven forth, and slain, and scattered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mixed with the Lamanites until they are no more called the Nephites, becoming wicked, and wild, and ferocious, yea, even becoming Lamanites.

- 17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기사로 돌아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일은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큰 다툼과 소요와 전쟁과 불화들이 있는 후에 있었느니라.
- 18 판사 치세 제사십육년이 끝났느니라.
-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칠년과 또한 제사십팔년에도 그 땅에 여전히 큰 다툼이 있었느니라.
-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라맨은 정의와 공평으로 판사직을 채웠나니,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며, 그의 부친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장자에게는 니파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고, 막내에게는 리하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더라.
-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팔년 말미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 전쟁과 다툼들이 약간 그치기 시작하였더라.
-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구년에는 그 땅에 지속적인 평화가 확립되어, 다 그러하였으되 오직 도적 개다이앤티온이 그 땅의 보다 주민이 많은 지역들에 세운 비밀 결사가 있었나니, 그 당시에 이들이 정부의 머리로 있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멸망되지 아니하였더라.
-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해에 교회가 심히 크게 번영하여,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하고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더라.
- 25 또 교회의 번영이 심히 크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심히 많아, 대제사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측량할 수 없이 늘었더라.

And now I return again to mine account; therefore, what I have spoken had passed after there had been great contentions, and disturbances, and wars, and dissensions, among the people of Nephi.

The for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end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still great contention in the land, yea, even in the forty and seventh year, and also in the forty and eighth year.

Nevertheless Helaman did fill the judgment-seat with justice and equity; yea, he did observe to keep the statutes, and the judgments, and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e did do that which was right in the sight of God continually; and he did walk after the ways of his father, insomuch that he did prosper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had two sons. He gave unto the eldest the name of Nephi, and unto the youngest, the name of Lehi. And they began to grow up unto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ars and contentions began to cease, in a small degree, among the people of the Nephites, in the latter end of the for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in the for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as continual peace established in the land, all save it were the secret combinations which Gadianton the robber had established in the more settled parts of the land, which at that time were not known unto those who were at the head of government; therefore they were not destroyed out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same year there was exceedingly great prosperity in the church, insomuch that there were thousands who did join themselves unto the church and were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so great was the prosperity of the church, and so many the blessings which were poured out upon the people, that even the high priests and the teachers were themselves astonished beyond measure.

-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일이 번성하여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곧 수만 명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합하게 하였더라.
- 27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느니라.
- 28 실로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아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라.
- 29 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아노니,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악마의 모든 교활과 올무와 간계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악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비참의 심연을 건너게 하리로다—
- 30 그리고 그들의 영혼, 곧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이르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모든 거룩한 조상들과 함께 앉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로다.
- 31 그리고 이 해에 제이라헤믈라 땅에서와 주변 모든 지역, 곧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기쁨이 계속되었더라.
-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구년의 남은 기간에도 평화와 심히 큰 기쁨이 있었고, 또한 판사 치세 제오십년에도 역시 지속되는 평화와 큰 기쁨이 있더라.
- 33 그리고 판사 치세 제오십일년에 역시 평화가 있었으나, 교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니—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 온 것이라—
- 34 이에 그들이 교만으로 자고하여져서,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는 크나큰 악이라, 이로 인하여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헤쳐 나아가게 되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ork of the Lord did prosper unto the baptizing and uniting to the church of God, many souls, yea, even tens of thousands.

Thus we may see that the Lord is merciful unto all who will, in the sincerity of their hearts, call upon his holy name.

Yea, thus we see that the gate of heaven is open unto all, even to those who will believe o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the Son of God.

Yea, we see that whosoever will may lay hold upon the word of God, which is quick and powerful, which shall divide asunder all the cunning and the snares and the wiles of the devil, and lead the man of Christ in a strait and narrow course across that everlasting gulf of misery which is prepared to engulf the wicked—

And land their souls, yea, their immortal souls, at the right hand of God in the kingdom of heaven, to sit down with Abraham, and Isaac, and with Jacob, and with all our holy fathers, to go no more out.

And in this year there was continual rejoicing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in all the regions round about, even in all the land which was possessed by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peace and exceedingly great joy in the remainder of the forty and ninth year; yea, and also there was continual peace and great joy in the fif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n the fif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as peace also, save it were the pride which began to enter into the church—not into the church of God, but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professed to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they were lifted up in pride, even to the persecution of many of their brethren. Now this was a great evil, which did cause the more humble part of the people to suffer great persecutions, and to wade through much affliction.



35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오십이년도 화평한 중에 끝났으되 오직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교만이 들어왔으니,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와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한 연고라, 또 그 교만이 날로 그들 위에 자랐더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삼년에 헬라맨이 죽고, 그의 장자 니파이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써 판사직을 채우되,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부친의 길로 행하였더라.

Nevertheless they did fast and pray oft, and did wax stronger and stronger in their humility, and firmer and firmer in the faith of Christ, unto the filling their souls with joy and consolation, yea, even to the purifying and the sanctification of their hearts, which sanctification cometh because of their yielding their hearts unto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fifty and second year ended in peace also, save it were the exceedingly great pride which had gotten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it was because of their exceedingly great riches and their prosperity in the land; and it did grow upon them from day to day.

And it came to pass in the fifty and thir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Helaman died, and his eldest son Nephi began to reign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fill the judgment-seat with justice and equity; yea, he did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did walk in the ways of his father.

## 힐라맨서 4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오십사년에 교회 내에 많은 불화가 있었고, 또한 백성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어 많은 유혈이 있더라.
- 2 이에 모반한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레이맨인의 왕에게로 가니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고자 애썼으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이반자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더라.
- 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육년에 니파이인들에게서 레이맨인들에게로 올라간 이반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다른 자들과 함께 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하는 데 성공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 해 내내 전쟁 준비를 하였더라.
- 5 그리고 제오십칠년에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내려와 죽음의 일을 시작하여, 참으로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에는 제이라헤믈라 땅과 또한 풍요 땅 근처에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더라.
- 6 이에 니파이인들과 모로나이하의 군대는 풍요 땅으로 쫓겨 들어가서,
- 7 거기서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나니, 곧 서해에서 실로 동해에 이르기까지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북쪽 땅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비를 강화하고 그들의 군대를 배치한 선을 따라 니파이인에게는 하룻길이더라.
- 8 이같이 니파이인들의 이반자들은 레이맨인들의 수많은 군대의 도움으로 남방 땅에 있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소유지를 다 손에 넣었으니,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과 구년에 이루어졌더라.

## Helaman 4

And it came to pass in the fifty and fourth year there were many dissensions in the church, and there was also a contention among the people, insomuch that there was much bloodshed.

And the rebellious part were slain and driven out of the land, and they did go unto the king of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endeavor to stir up the Lamanites to war against the Nephites; but behold, the Lamanites were exceedingly afraid, insomuch that they would not hearken to the words of those dissenters.

But it came to pass in the fif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ere dissenters who went up from the Nephites unto the Lamanites; and they succeeded with those others in stirring them up to anger against the Nephites; and they were all that year preparing for war.

And in the fifty and seventh year they did come down against the Nephites to battle, and they did commence the work of death; yea, insomuch that in the fif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y succeeded in obtaining possession of the land of Zarahemla; yea, and also all the lands, even unto the land which was near the land Bountiful.

And the Nephites and the armies of Moronihah were driven even into the land of Bountiful;

And there they did fortify against the Lamanites, from the west sea, even unto the east; it being a day's journey for a Nephite, on the line which they had fortified and stationed their armies to defend their north country.

And thus those dissenters of the Nephites, with the help of a numerous army of the Lamanites, had obtained all the possession of the Nephites which was in the land southward. And all this was done in the fifty and eighth and ninth years of the reign of the judges.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년에 모로나이아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 땅의 많은 지역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졌던 많은 성읍들을 되찾았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에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지의 절반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더라.
- 11 이제 니파이인들의 이 큰 손실과 그들 중에 있던 큰 살육은, 그들 중에 있는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이 아니었던들 생기지 아니하였으리니, 그 간악함과 가증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 중에도 있었더라.
- 12 또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한 그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나니, 참으로 이는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주린 자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지 아니하며, 벗은 자에게 그들의 옷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겸손한 형제들의 뺨을 치며, 거룩한 것을 조롱하며,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하며, 살인하며, 약탈하며,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간음을 범하며, 큰 다툼을 일으키고, 니파이 땅 곧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이탈해 나갔음으로 인함이었더라—
- 13 또 그들의 이 큰 간악함과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버려둔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번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을 당하며 맞으며 레이맨인들 앞에서 쫓기기를 그들이 그들의 땅을 거의 다 잃기까지 하였더라.
- 14 그러나 보라, 모로나이하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고, 또한 헬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도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또한 그들의 죄악에 관해 서와, 만일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은 회개한 만큼 번영하기 시작하더라.

And it came to pass in the six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Moronihah did succeed with his armies in obtaining many parts of the land; yea, they regained many cities which had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in the six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y succeeded in regaining even the half of all their possessions.

Now this great loss of the Nephites, and the great slaughter which was among them, would not have happened had it not been for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 which was among them; yea, and it was among those also who professed to belong to the church of God.

And it was because of the pride of their hearts, because of their exceeding riches, yea, it was because of their oppression to the poor, withholding their food from the hungry, withholding their clothing from the naked, and smiting their humble brethren upon the cheek, making a mock of that which was sacred, denying the spirit of prophecy and of revelation, murdering, plundering, lying, stealing, committing adultery, rising up in great contentions, and deserting away into the land of Nephi, among the Lamanites—

And because of this their great wickedness, and their boastings in their own strength, they were left in their own strength; therefore they did not prosper, but were afflicted and smitten, and driven before the Lamanites, until they had lost possession of almost all their lands.

But behold, Moronihah did preach many things unto the people because of their iniquity, and also Nephi and Lehi, who were the sons of Helaman, did preach many things unto the people, yea, and did prophesy many things unto them concerning their iniquities, and what should come unto them if they did not repent of their sin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repent, and inasmuch as they did repent they did begin to prosper.

16 이는 모로나이하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이끌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성읍에서 성읍으로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그 재산의 절반과 그들의 모든 땅의 절반을 되찾기에 이르렀음이라.

17 이같이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이 끝났느니라.

18 또 판사 치세 육십이 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레이맨인들로부터 더 이상 소유지를 빼앗을 수 없었던지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의 나머지를 손에 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을 버렸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가 심히 많아 니파이인들로서는 그들을 더 물리칠 힘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이라. 그리하여 모로나이하는 그가 취한 지역을 지키는 데 그의 모든 군대를 사용하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은 혹 자신들이 저서 짓밟히며 살육당하며 멸망당할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21 참으로 그들은 엘마의 예언과 또한 모사이야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목이 뻗뻗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고,

22 또 모사이야의 법, 곧 주께서 그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주게 하신 바를 변경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자신들의 법은 문란해졌고, 자신들은 간악한 백성이 되어 마치 레이맨인들처럼 간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더라.

23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눈 앞에 다가왔더라.

24 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약해졌음과, 주의 영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주지 아니함을 알았더라. 참으로 주의 영은 그들에게서 물러갔나니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For when Moronihah saw that they did repent he did venture to lead them forth from place to place, and from city to city, even until they had regained the one-half of their property and the one-half of all their lands.

And thus ended the six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t came to pass in the six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Moronihah could obtain no more possessions over the Lamanites.

Therefore they did abandon their design to obtain the remainder of their lands, for so numerous were the Lamanites that it became impossible for the Nephites to obtain more power over them; therefore Moronihah did employ all his armies in maintaining those parts which he had taken.

And it came to pass,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number of the Lamanites the Nephites were in great fear, lest they should be overpowered, and trodden down, and slain, and destroyed.

Yea, they began to remember the prophecies of Alma, and also the words of Mosiah; and they saw that they had been a stiffnecked people, and that they had set at naught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at they had altered and trampled under their feet the laws of Mosiah, or that which the Lord commanded him to give unto the people; and they saw that their laws had become corrupted, and that they had become a wicked people, insomuch that they were wicked even like unto the Lamanites.

And because of their iniquity the church had begun to dwindle; and they began to disbelieve in the spirit of prophecy and in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the judgments of God did stare them in the face.

And they saw that they had become weak, like unto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and that the Spirit of the Lord did no more preserve them; yea, it had withdrawn from them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doth not dwell in unholy temples—

25 그러므로 주께서 그 기이하고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그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과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에 빠졌음이라. 또 그들은 레이맨인들의 수가 그들보다 심히 더 많아 주 그들의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자신들이 피치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26 이는 보라, 일 대 일로도 레이맨인들의 힘이 그들의 힘만큼 강하였음이라. 또 이리하여 그들은 이 큰 범법에 빠졌었나니, 실로 이리하여 그들은 여러 해가 못되는 동안에 그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었더라.

Therefore the Lord did cease to preserve them by his miraculous and matchless power, for they had fallen into a state of unbelief and awful wickedness; and they saw that the Lamanites were exceedingly more numerous than they, and except they should cleave unto the Lord their God they must unavoidably perish.

For behold, they saw that the strength of the Lamanites was as great as their strength, even man for man. And thus had they fallen into this great transgression; yea, thus had they become weak,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in the space of not many years.

## 힐라맨서 5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해에, 보라, 니파이가 이름이 시조람이라 하는 자에게 판사직을 넘겨주었더라.
- 2 이는 그들의 법과 그들의 정치 체제가 백성의 소리에 의해 확립되었고, 선을 택하는 자보다 악을 택하는 자가 더 많았으므로 그들의 멸망이 무르익고 있었음이니, 이는 법이 문란해졌음이라.
- 3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고는 법이나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었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치게 된지라, 이에 판사직을 내어놓고 그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하였고, 그의 아우 리하이도 그 남은 평생 동안 그리하기로 하였더라.
- 5 이는 그들이 그 부친 힐라맨이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음이니, 그가 한 말이 이러하니라.
- 6 볼지어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 말을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바라노라. 볼 지어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나온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 7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Helaman 5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same year, behold, Nephi delivered up the judgment-seat to a man whose name was Cezoram.

For as their laws and their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by the voice of the people, and they who chose evil were more numerous than they who chose good, therefore they were ripening for destruction, for the laws had become corrupted.

Yea, and this was not all; they were a stiffnecked people, insomuch that they could not be governed by the law nor justice, save it were to their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had become weary because of their iniquity; and he yielded up the judgment-seat, and took it upon him to preach the word of God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and his brother Lehi also,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For they remembered the words which their father Helaman spake unto them.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spake:

Behold, my sons, I desire that ye should remember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I would that ye should declare unto the people these words. Behold, I have given unto you the names of our first parents who came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this I have done that when you remember your names ye may remember them; and when ye remember them ye may remember their works; and when ye remember their works ye may know how that it is said, and also written, that they were good.

Therefore, my sons, I would that ye should do that which is good, that it may be said of you, and also written, even as it has been said and written of them.

- 8 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얼마간 더 있나니, 그 바람이란 너희가 자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위해 참으로 영원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참으로 저 귀한 영생의 은사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 그 은사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느니라.
- 9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베냐민 왕이 그 백성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 참으로 그가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 10 또한 앰몬아이하 성에서 앰올레크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이는 저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정녕 그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실 것이어니와 그가 오심은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니라.
- 11 또 그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 12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말이 이러하였으되, 참으로 그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또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많이 가르쳤더라.

And now my sons, behold I have somewhat more to desire of you, which desire is, that ye may not do these things that ye may boast, but that ye may do these things to lay up for yourselves a treasure in heaven, yea, which is eternal, and which fadeth not away; yea, that ye may have that precious gift of eternal life, which we have reason to suppose hath been given to our fathers.

O remember, remember, my sons, the words which king Benjamin spake unto his people; yea, remember that there is no other way nor means whereby man can be saved, only through the atoning blood of Jesus Christ, who shall come; yea, remember that he cometh to redeem the world.

And remember also the words which Amulek spake unto Zeezrom, in the city of Ammonihah; for he said unto him that the Lord surely should come to redeem his people, but that he should not come to redeem them in their sins, but to redeem them from their sins.

And he hath power given unto him from the Father to redeem them from their sins because of repentance; therefore he hath sent his angels to declare the tidings of the conditions of repentance, which bringeth unto the power of the Redeemer, unto the salvation of their souls.

And now, my sons, remember, remember that it is upon the rock of our Redeemer, who is Christ, the Son of God, that ye must build your foundation; that when the devil shall send forth his mighty winds, yea, his shafts in the whirlwind, yea, when all his hail and his mighty storm shall beat upon you, it shall have no power over you to drag you down to the gulf of misery and endless wo, because of the rock upon which ye are built, which is a sure foundation, a foundation whereon if men build they cannot fal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se were the words which Helaman taught to his sons; yea, he did teach them many things which are not written, and also many things which are written.

- 14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갔나니, 풍요 성에서 시작하여,
- 15 거기에서 기드 성으로, 또 기드 성에서 물레크 성으로,
- 16 또 참으로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나아가기를, 이윽고 남방 땅에 있는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고, 거기서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들어가 레이맨인들 가운데 나아갔더라.
-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큰 권능으로 전파하여, 니파이인들에게서 넘어간 이반자들 중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한지라, 저들이 나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즉시 니파이인들에게로 돌아와 저들이 행한 잘못을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더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레이맨인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 말해야 할 것도 그들에게 주셨음이라—
- 19 그러므로 그들이 말함으로 레이맨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저들로 깨닫게 한지라, 제이라헤물라 땅과 주변에 있는 레이맨인 팔천 명이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 조상들의 전통의 간악함을 깨닫게 되었더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거기서 나아가 니파이 땅으로 가니라.
-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한 군대에 붙잡혀 옥에 던져지니, 참으로 림하이의 종들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옥이라.
- 22 그리고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옥에 던져져 있는 후, 보라, 저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아가 감옥으로 들어갔더라.

And they did remember his words; and therefore they went forth, keeping the commandments of God, to teach the word of God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beginning at the city Bountiful;

And from thenceforth to the city of Gid; and from the city of Gid to the city of Mulek;

And even from one city to another, until they had gone forth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who were in the land southward; and from thence into the land of Zarahemla, among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preach with great power, insomuch that they did confound many of those dissenters who had gone over from the Nephites, insomuch that they came forth and did confess their sins and were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immediately returned to the Nephites to endeavor to repair unto them the wrongs which they had done.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and Lehi did preach unto the Lamanites with such great power and authority, for they had power and authority given unto them that they might speak, and they also had what they should speak given unto them—

Therefore they did speak unto the great astonishment of the Lamanites, to the convincing them, insomuch that there were eight thousand of the Lamanites who were in the land of Zarahemla and round about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were convinced of the wickedness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and Lehi did proceed from thence to go to the land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taken by an army of the Lamanites and cast into prison; yea, even in that same prison in which Ammon and his brethren were cast by the servants of Limhi.

And after they had been cast into prison many days without food, behold, they went forth into the prison to take them that they might slay them.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지라, 저들이 타 죽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그 손을 그들에게 대지 못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니파이와 리하이는 타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마치 불 가운데 서 있는 듯하였어도 타지 아니하였더라.

24 이에 그들은 불기둥에 둘러싸였으되 그것이 자기들을 태우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었더라.

25 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그 손을 자기들에게 대려 하지 아니하고, 감히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려고도 아니하고 다만 마치 놀라 말 못하는 자가 된 것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음이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나서서 저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는 보라, 이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신 이는 하나님임이라, 이로써 너희가 너희 손을 우리에게 대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보이셨느니라 하더라.

27 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땅이 몹시 흔들리고 감옥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땅에 무너져 내릴 듯이 흔들렸으나, 보라, 무너지지는 아니하더라. 또 보라, 옥에 있던 자들은 레이맨인들과 이반자들인 니파이인들이었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암흑의 구름에 덮이더니, 지극히 엄숙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2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흑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한 음성이 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선한 소식을 선포하게 한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본즉,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and Lehi were encircled about as if by fire, even insomuch that they durst not lay their hands upon them for fear lest they should be burned. Nevertheless, Nephi and Lehi were not burned; and they were as standing in the midst of fire and were not burned.

And when they saw that they were encircled about with a pillar of fire, and that it burned them not, their hearts did take courage.

For they saw that the Lamanites durst not lay their hands upon them; neither durst they come near unto them, but stood as if they were struck dumb with amazement.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and Lehi did stand forth and began to speak unto them, saying: Fear not, for behold, it is God that has shown unto you this marvelous thing, in the which is shown unto you that ye cannot lay your hands on us to slay us.

And behold, when they had said these words, the earth shook exceedingly, and the walls of the prison did shake as if they were about to tumble to the earth; but behold, they did not fall. And behold, they that were in the prison were Lamanites and Nephites who were dissenter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overshadowed with a cloud of darkness, and an awful solemn fear came upo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came a voice as if it were above the cloud of darkness, saying: Repent ye, repent ye, and seek no more to destroy my servants whom I have sent unto you to declare good tidings.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heard this voice, and beheld that it was not a voice of thunder, neither was it a voice of a great tumultuous noise, but behold, it was a still voice of perfect mildness, as if it had been a whisper, and it did pierce even to the very soul—

31 또 그 음성의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보라 땅이 심히 흔들리며 감옥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다시 떨어졌으니, 보라 그들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은 걷히지 아니하더니—

32 또 보라 그 음성이 다시 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음이니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땅이 다시 진동하고 벽이 떨어졌더라.

33 또한 음성이 세 번째로 다시 임하여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기이한 말을 그들에게 하매, 벽이 다시 떨어지고,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들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도망할 수 없었으며,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도 없었더라.

35 이제 그들 중에 출생이 니파이 사람인 자로, 한 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으나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가 하나 있었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몸을 돌려, 보라, 암흑의 구름을 통하여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을 본즉, 보라, 그 얼굴이 실로 천사의 얼굴같이 심히 빛났더라. 또 저가 본즉 그들이 하늘로 그 눈을 들고, 마치 그 보는 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음성을 높이고 있는 듯한 태도로 있는지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이 무리에게 소리쳐 그들로 돌아보게 하였더라. 이에 보라,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므로, 그들이 돌아보고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을 본지라.

38 이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이 모든 일의 뜻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더불어 대화하는 이는 누구이나 하는지라.

39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미나답이라.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화하느니라.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하여야 우리를 뒤덮은 이 암흑의 구름이 걷히겠느냐 하는지라.

And notwithstanding the mildness of the voice, behold the earth shook exceedingly, and the walls of the prison trembled again, as if it were about to tumble to the earth; and behold the cloud of darkness, which had overshadowed them, did not disperse—

And behold the voice came again, saying: Repent ye,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seek no more to destroy my servan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earth shook again, and the walls trembled.

And also again the third time the voice came, and did speak unto them marvelous words which cannot be uttered by man; and the walls did tremble again, and the earth shook as if it were about to divide asund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could not flee because of the cloud of darkness which did overshadow them; yea, and also they were immovable because of the fear which did come upon them.

Now there was one among them who was a Nephite by birth, who had once belonged to the church of God but had dissented from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turned him about, and behold, he saw through the cloud of darkness the faces of Nephi and Lehi; and behold, they did shine exceedingly, even as the faces of angels. And he beheld that they did lift their eyes to heaven; and they were in the attitude as if talking or lifting their voices to some being whom they beheld.

And it came to pass that this man did cry unto the multitude, that they might turn and look. And behold, there was power given unto them that they did turn and look; and they did behold the faces of Nephi and Lehi.

And they said unto the man: Behold, what do all these things mean, and who is it with whom these men do converse?

Now the man's name was Aminadab. And Aminadab said unto them: They do converse with the angels of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said unto him: What shall we do, that this cloud of darkness may be removed from overshadowing us?

41 이에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음성에게 부르짖기를, 곧 엘마와, 앰울레크와, 지에즈롬이 너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너희가 갖게 될 때까지 하여야 하나니,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너희를 뒤덮은 암흑의 구름이 걷히리라.

4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땅을 진동하게 하신 이의 음성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참으로 암흑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부르짖었더라.

4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위로 그 눈을 들어 그들을 뒤덮고 있던 암흑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졌음을 보았을 때,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각자 불기둥에 싸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44 또 니파이와 리하이는 그들 한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저들이 둘러싸였으되, 참으로 저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있는 듯하였으나, 그것이 저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감옥 벽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의 저 기쁨으로 채워졌더라.

45 또 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니, 저들이 마치 불로 채워짐같이 충만하게 되어 기이한 말을 할 수 있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에게 한 음성이 임하니, 참으로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상쾌한 음성이라 이르시되,

47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던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 대한 너희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48 이에 이제, 그들이 이를 듣고 마치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려는 것같이 그 눈을 들더니, 보라, 그들이 보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49 또 이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대략 삼백 명 가량이었으니, 이들은 나아가되 기이히 여기지 말며 의심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더라.

And Aminadab said unto them: You must repent, and cry unto the voice, even until ye shall have faith in Christ, who was taught unto you by Alma, and Amulek, and Zeezrom; and when ye shall do this, the cloud of darkness shall be removed from overshadowing you.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ll did begin to cry unto the voice of him who had shaken the earth; yea, they did cry even until the cloud of darkness was disperse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cast their eyes about, and saw that the cloud of darkness was dispersed from overshadowing them, behold, they saw that they were encircled about, yea every soul, by a pillar of fire.

And Nephi and Lehi were in the midst of them; yea, they were encircled about; yea, they were as if in the midst of a flaming fire, yet it did harm them not, neither did it take hold upon the walls of the prison; and they were filled with that joy which is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And behold, the Holy Spirit of God did come down from heaven, and did enter into their hearts, and they were filled as if with fire, and they could speak forth marvelous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came a voice unto them, yea, a pleasant voice, as if it were a whisper, saying:

Peace, peace be unto you, because of your faith in my Well Beloved, who was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cast up their eyes as if to behold from whence the voice came; and behold, they saw the heavens open; and angels came down out of heaven and ministered unto them.

And there were about three hundred souls who saw and heard these things; and they were bidden to go forth and marvel not, neither should they doubt.

5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며, 그 듣고 본 모든 일을 주변의 모든 지역에 두루 다 선포하매, 그 받은 증거가 크므로 인하여 레이맨인의 대부분이 그 일을 믿으니라.

51 또 믿는 자마다 모두 그들의 전쟁 무기와, 또한 그들의 증오심과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버리더라.

5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땅을 내어 주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o forth, and did minister unto the people, declaring throughout all the regions round about all the things which they had heard and seen, insomuch that the more part of the Lamanites were convinced of them,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 evidences which they had received.

And as many as were convinced did lay down their weapons of war, and also their hatred and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yield up unto the Nephites the lands of their possession.

## 힐라맨서 6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이년이 끝났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레이맨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로움이 니파이인들보다 낫더라.
- 2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 중에는 완악하며 뉘우칠 줄 모르며 심히 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및 그들 가운데 임한 바 모든 전파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다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이라.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 중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더라. 이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며, 큰 기쁨을 누렸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맨인들이 제이라 헤믈라 땅에 내려와,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돌이킨 경위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신앙과 회개를 권면하였더라.
- 5 참으로, 또한 많은 자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전파하여, 그들 중 많은 자로 지극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겸손히 좇는 자가 되게 하였더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맨인들이 북방 땅에 들어갔고, 또한 니파이와 리하이도 백성에게 전파하러 북방 땅에 들어갔더라. 이에 이같이 제육십삼년이 끝났느니라.
- 7 또 보라, 온 땅에 평화가 있어, 니파이인들은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 가운데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그 원하는 지역으로 다녔더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도 니파이인 가운데나 레이맨인 가운데나를 가리지 않고 어디로든지 그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그들은 서로 자유로이 교류를 가지며 마음대로 사고팔며 이익을 얻었더라.

## Helaman 6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six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had ended, all these things had happened and the Lamanites had become, the more part of them, a righteous people, inasmuch that their righteousness did exceed that of the Nephites, because of their firmness and their steadiness in the faith.

For behold, there were many of the Nephites who had become hardened and impenitent and grossly wicked, insomuch that they did reject the word of God and all the preaching and prophesying which did come among them.

Nevertheless, the people of the church did have great joy because of the conversion of the Lamanites, yea, because of the church of God, which had been established among them. And they did fellowship one with another, and did rejoice one with another, and did have great joy.

And it came to pass that many of the Lamanites did come down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did declare unto the people of the Nephites the manner of their conversion, and did exhort them to faith and repentance.

Yea, and many did preach with exceedingly great power and authority, unto the bringing down many of them into the depths of humility, to be the humble followers of God and the Lamb.

And it came to pass that many of the Lamanites did go into the land northward; and also Nephi and Lehi went into the land northward,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thus ended the sixty and third year.

And behold, there was peace in all the land, insomuch that the Nephites did go into whatsoever part of the land they would, whether among the Nephites or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also go whithersoever they would, whether it were among the Lamanites or among the Nephites; and thus they did have free intercourse one with another, to buy and to sell, and to get gain, according to their desire.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곧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모두가 심히 부하게 된지라, 남쪽 땅이나 북쪽 땅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온갖 귀금속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 10 이제 남쪽 땅은 리하이라 하고, 북쪽 땅은 시드기야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몰레크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몰레크를 북쪽 땅으로 또 리하이는 남쪽 땅으로 데려 오셨음이라.
- 11 또 보라, 이 두 땅에 각종 온갖 금과 은과 귀한 광물이 있었고, 또 정교한 장인들이 있어 온갖 광물을 다루며 이를 정련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 부하게 되니라.
- 12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곡물을 풍성하게 재배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심히 창성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땅에서 번성하고 점차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또한 그들은 양 떼와 소 떼와 살진 짐승들을 많이 길렀더라.
- 13 보라 그들의 여자들은 수고하고 길쌈하여, 온갖 옷감 곧 세마포와 각종 옷감을 지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웠더라. 이같이 제육십사년이 평화로운 가운데 지나가니라.
- 14 또 제육십오년에도 그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나니, 참으로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과 예언이 많이 있었더라. 이같이 제육십오년이 지나가니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육년에, 보라, 시조렘이 판사석에 앉았을 때 정체불명의 손에 살해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같은 해에, 백성들에 의해 그의 대신 임명되었던 그의 아들 역시 살해되었더라. 이같이 제육십육년이 끝났느니라.
- 16 그리고 제육십칠년 초에 백성들이 다시 심히 간악해지기 시작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came exceedingly rich, both the Lamanites and the Nephites; and they did have an exceeding plenty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all manner of precious metals, both in the land south and in the land north.

Now the land south was called Lehi, and the land north was called Mulek, which was after the son of Zedekiah; for the Lord did bring Mulek into the land north, and Lehi into the land south.

And behold, there was all manner of gold in both these lands, and of silver, and of precious ore of every kind; and there were also curious workmen, who did work all kinds of ore and did refine it; and thus they did become rich.

They did raise grain in abundance,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nd they did flourish exceedingly,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nd they did multiply and wax exceedingly strong in the land. And they did raise many flocks and herds, yea, many fatlings.

Behold their women did toil and spin, and did make all manner of cloth, of fine-twined linen and cloth of every kind, to clothe their nakedness. And thus the sixty and fourth year did pass away in peace.

And in the sixty and fifth year they did also have great joy and peace, yea, much preaching and many prophecies concerning that which was to come. And thus passed away the sixty and fifth year.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six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behold, Cezoram was murdered by an unknown hand as he sat upon the judgment-seat.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same year, that his son, who had been appointed by the people in his stead, was also murdered. And thus ended the sixty and sixth year.

And in the commencement of the sixty and seventh year the people began to grow exceedingly wicked again.

17 이는 보라, 주께서 세상의 부로 그들을 것처럼 오래 축복하신지라, 그들이 충동함을 받아 분노와 전쟁과 유혈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마음을 저희의 부에 두기 시작하였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서로 남보다 높아지고자 이익 얻기를 구하기 시작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익을 얻고자 은밀한 살인을 범하며, 도적질하며, 약탈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8 또 이제 보라, 살인자와 약탈자들은 키시쿠멘과 개다이앤티온이 조직한 무리였더라. 또 이제 이렇게 되었었나니 니파이인들 가운데에도 개다이앤티온의 무리에 속한 자가 많았더라. 그러나 보라, 이 같은 무리들은 보다 간악한 레이맨인들 가운데 더 많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개다이앤티온의 도적과 살인자들이라 일컬어졌더라.

19 또 판사석에 있는 대판사 시조렘과 그의 아들을 살해하였던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으나, 보라, 그들은 발각되지 아니하였더라.

20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도적들이 있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여, 그 힘이 미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려 하였더라.

21 그러나 보라, 사탄이 대부분의 니파이인의 마음을 충동한지라, 그들은 저 도적단과 연합하고 저들의 언약과 저들의 맹세에 가담하였으니, 저들의 살인과 저들의 약탈과 저들의 도적질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무릇 어떠한 어려움 처지에 놓이더라도 서로 보호하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표시, 곧 그들의 은밀한 표시와 그들의 은밀한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언약에 가입한 형제를 식별하여, 그의 형제가 여하한 간악함을 행할지라도 그의 형제에 의해, 또는 그의 무리에 속하여 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 의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23 또한 이리하여 그들 나라의 법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려 함이었더라.

For behold, the Lord had blessed them so long with the riches of the world that they had not been stirred up to anger, to wars, nor to bloodshed; therefore they began to set their hearts upon their riches; yea, they began to seek to get gain that they might be lifted up one above another; therefore they began to commit secret murders, and to rob and to plunder, that they might get gain.

And now behold, those murderers and plunderers were a band who had been formed by Kishkumen and Gadianton. And now it had co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even among the Nephites, of Gadianton's band. But behold, they were more numerous among the more wicked part of the Lamanites. And they were called Gadianton's robbers and murderers.

And it was they who did murder the chief judge Cezoram, and his son, while in the judgment-seat; and behold, they were not foun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amanites found that there were robbers among them they were exceedingly sorrowful; and they did use every means in their power to destroy them off the face of the earth.

But behold, Satan did stir up the hearts of the more part of the Nephites, insomuch that they did unite with those bands of robbers, and did enter into their covenants and their oaths, that they would protect and preserve one another in whatsoever difficult circumstances they should be placed, that they should not suffer for their murders, and their plunderings, and their steal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have their signs, yea, their secret signs, and their secret words; and this that they might distinguish a brother who had entered into the covenant, that whatsoever wickedness his brother should do he should not be injured by his brother, nor by those who did belong to his band, who had taken this covenant.

And thus they might murder, and plunder, and steal, and commit whoredoms and all manner of wickedness, contrary to the laws of their country and also the laws of their God.

24 또 누구든지 그들 무리에 속한 자로서 무릇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에 대하여 세상에 누설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하였으니, 그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요 개다이엔톤과 키시쿠멘이 주었던 그들의 간악함의 법에 따라서라.

25 이제 보라, 백성을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수단이 될까 하여,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명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말라 한 것이 이 은밀한 맹세와 언약들 이라.

26 이제 보라, 그 은밀한 맹세와 언약들은 힐라맨에게 전달된 기록으로부터 개다이엔톤에게로 나아왔던 것이 아니요, 보라, 우리들의 시조를 꺾어 금단의 열매를 취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개다이엔톤의 마음에 넣었던 것이라—

27 참으로 가인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기를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할지라도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바로 그 존재이니, 그때로부터 저가 가인과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뻤느니라.

28 또한 그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탑을 높게 쌓으려는 생각을 넣은 바로 그 존재요, 또 그는 그 탑으로부터 이 땅에 왔던 백성을 미혹하였던 존재니, 이 온 땅 위에 어둠의 일과 가증한 일을 퍼뜨리기를 저가 백성을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한 바로 그 존재 더라.

29 참으로 이는 개다이엔톤의 마음에 여전히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인의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넣은 바로 그 존재이니, 그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 때에 이르도록 그 일을 야기해 왔느니라.

30 또 보라, 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자라. 또 한 보라, 그는 자기의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인을 계속하며,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심히 간악한 그들의 계획을 대대로 전하는 도다.

And whosoever of those who belonged to their band should reveal unto the world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should be tried, no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ir country, but according to the laws of their wickedness, which had been given by Gadianton and Kishkumen.

Now behold, it is these secret oaths and covenants which Alma commanded his son should not go forth unto the world, lest they should be a means of bringing down the people unto destruction.

Now behold, those secret oaths and covenants did not come forth unto Gadianton from the records which were delivered unto Helaman; but behold, they were put into the heart of Gadianton by that same being who did entice our first parents to partake of the forbidden fruit—

Yea, that same being who did plot with Cain, that if he would murder his brother Abel it should not be known unto the world. And he did plot with Cain and his followers from that time forth.

And also it is that same being who put it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to build a tower sufficiently high that they might get to heaven. And it was that same being who led on the people who came from that tower into this land; who spread the works of darkness and abominations over all the face of the land, until he dragged the people down to an entire destruction, and to an everlasting hell.

Yea, it is that same being who put it into the heart of Gadianton to still carry on the work of darkness, and of secret murder; and he has brought it forth from the beginning of man even down to this time.

And behold, it is he who is the author of all sin. And behold, he doth carry on his works of darkness and secret murder, and doth hand down their plots, and their oaths, and their covenants, and their plans of awful wickednes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ccording as he can get hold upo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31 또 이제 보라, 그가 니파이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지라, 참으로 그들이 심히 간악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의 대부분이 의의 길에서 돌아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 발 아래 짓밟고, 자기의 길로 돌아서며, 자기의 금과 자기의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지었도다.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죄악이 여러 해가 되지 않아 그들에게 임하였나니, 그 대부분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칠년에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33 또 제육십팔년에도 그들의 죄악이 자라, 의인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기에 이르렀더라.

34 이리하여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지며, 그 간악함과 가증함이 더욱 자라기 시작한 한편, 레이맨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의 앞에서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였더라.

35 또 이리하여 주의 영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물러가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그들의 마음의 간악함과 완악함으로 인함이었더라.

36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맨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어 주기 시작하셨음을 보나니, 레이맨인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음이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개다이앤티온 도적단을 수색하였으며, 또 그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지라, 마침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는 이 도적의 무리가 온전히 진멸되었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에 반해서,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강화하고 저들을 지원하기를 저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저들이 니파이인의 온 땅에 퍼지기까지 그리하였고, 또 의로운 자의 대부분을 유혹하기를 이들이 저들의 행위를 믿고 저들의 약탈물에 참여하며 저들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에 저들과 연합하게 되기까지 그리하였더라.

And now behold, he had got great hold upon the hearts of the Nephites; yea, insomuch that they had become exceedingly wicked; yea, the more part of them had turned out of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did trample under their feet the commandments of God, and did turn unto their own ways, and did build up unto themselves idols of their gold and their silver.

And it came to pass that all these iniquities did come unto them in the space of not many years, insomuch that a more part of it had come unto them in the sixty and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ey did grow in their iniquities in the sixty and eighth year also, to the great sorrow and lamentation of the righteous.

And thus we see that the Nephites did begin to dwindle in unbelief, and grow in wickedness and abominations, while the Lamanites began to grow exceedingly in the knowledge of their God; yea, they did begin to keep his statutes and commandments, and to walk in truth and uprightness before him.

And thus we see that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withdraw from the Nephites,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us we see that the Lord began to pour out his Spirit upon the Lamanites, because of their easiness and willingness to believe in his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hunt the band of robbers of Gadianton; and they did preach the word of God among the more wicked part of them, insomuch that this band of robbers was utterly destroyed from among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on the other hand, that the Nephites did build them up and support them, beginning at the more wicked part of them, until they had overspread all the land of the Nephites, and had seduced the more part of the righteous until they had come down to believe in their works and partake of their spoils, and to join with them in their secret murders and combinations.

39 이에 이리하여 저들이 정부의 경영을 도맡고 나서,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저들의 발 아래 밟으며, 치며, 찢으며, 그들에게 저들의 등을 돌렸느니라.

40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이 참혹한 상태에 있고 영원한 멸망이 무르익고 있었음을 아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팔년이 끝났느니라.

And thus they did obtain the sol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insomuch that they did trample under their feet and smite and rend and turn their backs upon the poor and the meek, and the humble followers of God.

And thus we see that they were in an awful state, and ripening for an everlasting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ended the six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의 예언—하나님께서 니파이 백성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분노 중에 그들에게 임하시라,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위협하심. 하나님이 역병으로 니파이 백성을 치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예언함.

*THE PROPHECY OF NEPHI, THE SON OF HELAMAN—God threatens the people of Nephi that he will visit them in his anger, to their utter destruction except they repent of their wickedness. God smiteth the people of Nephi with pestilence; they repent and turn unto him. Samuel, a Lamanite, prophesies unto the Nephites.*

## 힐라맨서 7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구년에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북방 땅에서 제이라헤플라 땅으로 돌아왔더라.
- 2 이는 그가 북방 땅에 있는 백성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으나,
- 3 그들이 그의 모든 말을 배척한지라, 그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없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이라.
- 4 그리고 백성들이 것처럼 심히 간악한 상태에 있고, 저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이 판사직을 채우며—그 땅의 권력과 권세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놓으며, 조금도 그 앞에 올바름이 없으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 5 의인들을 그 의로 인하여 정죄하고, 죄 있는 자와 악인들을 그 돈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행함으로써, 이익과 세상의 영광을 얻으며, 더욱이 더 쉽게 간음을 범하며, 도적질하며, 죽이며, 그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함을 보고—
- 6 이제 이 큰 죄악이 여러 해가 못 되는 동안에 니파이인에게 임하였나니, 니파이가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슬픔으로 복받친지라, 이에 그가 그의 영혼의 고뇌 가운데 부르짖기를,

## Helaman 7

Behold, now it came to pass in the six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the Nephites, that Nephi, the son of Helaman, returned to the land of Zarahemla from the land northward.

For he had been forth among the people who were in the land northward, and did preach the word of God unto them, and did prophesy many things unto them;

And they did reject all his words, insomuch that he could not stay among them, but returned again unto the land of his nativity.

And seeing the people in a state of such awful wickedness, and those Gadianton robbers filling the judgment-seats—having usurped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land; laying aside the commandments of God, and not in the least aright before him; doing no justice unto the children of men;

Condemning the righteous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letting the guilty and the wicked go unpunished because of their money; and moreover to be held in office at the head of government, to rule and do according to their wills, that they might get gain and glory of the world, and, moreover, that they might the more easily commit adultery, and steal, and kill, and do according to their own wills—

Now this great iniquity had come upon the Nephites, in the space of not many years; and when Nephi saw it, his heart was swollen with sorrow within his breast; and he did exclaim in the agony of his soul:

- 7    아아, 내가 내 날들을 나의 조상 니파이가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 나왔던 그 시대에 보낼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약속된 땅에서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때 그의 백성은 쉽게 권함을 받았으며,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죄악을 행하는 데에 더디 이끌렸으며, 주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였도다—
- 8    참으로 만일 그 시대에 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내 형제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 9    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 시대가 내 날들이요, 내 영혼은 내 형제들의 이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차게 되었도다 하더라.
- 10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부르짖은 것이 니파이의 정원에 있는 망대 위에서였고, 그 정원은 제이라헤틀라성에 있는 큰 시장으로 통하는 대로변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의 정원에 있는 망대 위에 섰드렸으니 이 망대는 또한 대로가 지나가는 정원 문 가까이에 있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니파이가 망대 위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달음질하여 그 본 것을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와서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것처럼 크게 슬퍼하는 까닭을 알고자 하더라.
- 12   이에 이제 니파이가 일어나서 본즉 많은 무리의 백성이 함께 모였는지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모였느냐? 나로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게 함이냐?
- 14   참으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심히 슬픈 까닭에,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내고자 나의 망대 위에 올랐음으로 인함이다!

Oh, that I could have had my days in the days when my father Nephi first came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that I could have joyed with him in the promised land; then were his people easy to be entreated, firm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slow to be led to do iniquity; and they were quick to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Lord—

Yea, if my days could have been in those days, then would my soul have had joy in the righteousness of my brethren.

But behold, I am consigned that these are my days, and that my soul shall be filled with sorrow because of this the wickedness of my brethren.

And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it was upon a tower, which was in the garden of Nephi, which was by the highway which led to the chief market, which was in the city of Zarahemla; therefore, Nephi had bowed himself upon the tower which was in his garden, which tower was also near unto the garden gate by which led the highwa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certain men passing by and saw Nephi as he was pouring out his soul unto God upon the tower; and they ran and told the people what they had seen, and the people came together in multitudes that they might know the cause of so great mourning for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And now, when Nephi arose he beheld the multitudes of people who had gathered toge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he opened his mouth and said unto them: Behold, why have ye gathered yourselves together? That I may tell you of your iniquities?

Yea, because I have got upon my tower that I might pour out my soul unto my God, because of the exceeding sorrow of my heart, which is because of your iniquities!

15 또 나의 슬퍼함과 애통해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함께 모여 기이히 여기는도다. 과연 너희는 기이히 여길 필요가 크게 있나니, 참으로 너희가 내어준 바 되어 악마가 너희 마음을 그처럼 크게 사로잡았으며, 너희가 마땅히 기이히 여겨야 하리로다.

16 참으로 어찌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저 아래로 내던져 버리기를 구하는 자의 꾀임에 질 수가 있었느냐?

17 오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셨느냐?

18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한 까닭이라. 참으로 너희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너희는 그로 하여금 너희를 대하여 격노하시게 하였도다.

19 또 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를 모으시는 대신, 보라, 그는 너희를 흩으사 너희로 개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라.

20 오, 어찌 너희가 너희를 구하신 바로 그 날에 너희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느냐?

21 그러나 보라, 이는 이익을 얻기 위함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며, 또한 너희가 금과 은을 얻고자 함이라. 또 너희는 너희 마음을 재물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두고, 이를 위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도적질하며, 너희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는도다.

22 이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까닭에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라, 이 큰 성과 또한 주변에 있는 바 우리 소유의 땅에 있는 저 모든 큰 성읍들이 빼앗긴 바 되어 거기에 너희가 거할 곳이 없게 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지금까지 그리해 오신 것같이 너희 원수에게 대항할 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And because of my mourning and lamentation ye have gathered yourselves together, and do marvel; yea, and ye have great need to marvel; yea, ye ought to marvel because ye are given away that the devil has got so great hold upon your hearts.

Yea, how could you have given way to the enticing of him who is seeking to hurl away your souls down to everlasting misery and endless wo?

O repent ye, repent ye! Why will ye die? Turn ye, turn ye unto the Lord your God. Why has he forsaken you?

It is because you have hardened your hearts; yea, ye will not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yea, ye have provoked him to anger against you.

And behold, instead of gathering you, except ye will repent, behold, he shall scatter you forth that ye shall become meat for dogs and wild beasts.

O, how could you have forgotten your God in the very day that he has delivered you?

But behold, it is to get gain, to be praised of men, yea, and that ye might get gold and silver. And ye have set your hearts upon the riches and the vain things of this world, for the which ye do murder, and plunder, and steal, and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and do all manner of iniquity.

And for this cause wo shall come unto you except ye shall repent. For if ye will not repent, behold, this great city, and also all those great cities which are round about, which are in the land of our possession, shall be taken away that ye shall have no place in them; for behold, the Lord will not grant unto you strength, as he has hitherto done, to withstand against your enemies.

23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이외에, 간악한 자들에게는 그 중 어느 하나에게도 다른 자에게보다 더 나의 힘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보다 레이맨인들의 형편이 더 나을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24 이는 보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의로움이니, 이는 그들이 너희가 받은 그 큰 지식을 거스려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인즉, 참으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완전히 멸망당할 바로 그때, 주는 그들의 날을 길게 하시고 그들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25 참으로 너희 가운데 임한 그 큰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그것 곧 개다이앤티온이 세운 저 비밀 결사와 연합하였도다!

26 참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들어오도록 버려 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임하리니, 너희의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선한 바를 넘어 너희를 치켜 올렸도다!

27 참으로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28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너희 땅을 너희는 빼앗길 것이요, 또한 너희는 지면에서 멸망당하리로다.

29 이제 보라, 내가 내 스스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이러한 일을 아는 것이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님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이 참된 줄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까닭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이 있으리라 증거하노라.

For behold, thus saith the Lord: I will not show unto the wicked of my strength, to one more than the other, save it be unto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and hearken unto my words. Now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behold, my brethren, that it shall be better for the Lamanites than for you except ye shall repent.

For behold, they are more righteous than you, for they have not sinned against that great knowledge which ye have received; therefore the Lord will be merciful unto them; yea, he will lengthen out their days and increase their seed, even when thou shalt be utterly destroyed except thou shalt repent.

Yea, wo be unto you because of that great abomination which has come among you; and ye have united yourselves unto it, yea, to that secret band which was established by Gadianton!

Yea, wo shall come unto you because of that pride which ye have suffered to enter your hearts, which has lifted you up beyond that which is good because of your exceedingly great riches!

Yea, wo be unto you because of you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except ye repent ye shall perish; yea, even your lands shall be taken from you, and ye shall be destroyed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Behold now, I do not say that these things shall be, of myself, because it is not of myself that I know these things; but behold, I know that these things are true because the Lord God has made them known unto me, therefore I testify that they shall be.

## 힐라맨서 8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그 곳에 판사요, 또한 개다이엔톤의 비밀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노하여 니파이를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자를 붙잡아 끌고 가서 그로 그 행한 범죄대로 정죄 받게 아니하느냐?
- 2 어찌하여 너는 이 자를 보면서 그가 이 백성과 우리의 법을 욕하는 것을 듣고 있느냐 하였더라.
- 3 이는 보라, 니파이가 그들의 법이 문란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라. 참으로 니파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기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것은 하나도 그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4 또 그 판사들이 그에게 노한 것은 그가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명백히 말함으로 인함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하여 소리 지를까 하였음이라.
- 5 그리하여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리 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이 자가 우리를 대하여 욕하도록 버려두느냐? 이는 보라, 그가 이 온 백성을 정죄 하되 심지어 우리가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우리의 이 큰 성읍들을 우리가 빼앗겨 그 곳에 우리의 거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음이라.
- 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줄 아노니, 이는 보라, 우리가 강력하고 우리의 성읍들이 크므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조금도 이길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을 충동하여 니파이를 대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 중에 다툼을 일으켰으니, 이는 어떤 이들이 있어 소리치기를, 이 사람을 내버려 두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 Helaman 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Nephi had said these words, behold, there were men who were judges, who also belonged to the secret band of Gadianton, and they were angry, and they cried out against him, saying unto the people: Why do ye not seize upon this man and bring him forth, that he may be condemned according to the crime which he has done?

Why seest thou this man, and hearest him revile against this people and against our law?

For behold, Nephi had spoken unto them concerning the corruptness of their law; yea, many things did Nephi speak which cannot be written; and nothing did he speak which was contrary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ose judges were angry with him because he spake plainly unto them concerning their secret works of darkness; nevertheless, they durst not lay their own hands upon him, for they feared the people lest they should cry out against them.

Therefore they did cry unto the people, saying: Why do you suffer this man to revile against us? For behold he doth condemn all this people, even unto destruction; yea, and also that these our great cities shall be taken from us, that we shall have no place in them.

And now we know that this is impossible, for behold, we are powerful, and our cities great, therefore our enemies can have no power over 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they did stir up the people to anger against Nephi, and raised contentions among them; for there were some who did cry out: Let this man alone, for he is a good man, and those things which he saith will surely come to pass except we repent;

- 8 참으로 보라, 그가 우리에게 증거한 모든 심판이 다 우리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증거한 줄 우리가 앎이로다. 또 보라, 우리의 죄악은 허다하니, 그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같이 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모두 알고 있도다.
- 9 참으로 또한 보라, 그가 만일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일에 관하여 증거할 수 없었으리라 하였음이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를 멸하기를 꾀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 할 수 없어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니, 자기가 어떤 이들의 눈에 호의를 얻은 것과 그로 인해 나머지 백성들이 두려워함을 봄이라.
- 11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더 말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아 이르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홍해의 물을 치게 하시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우리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인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오고, 애굽의 군대 위에는 물이 달혀 그들을 삼킨 것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 12 또 이제 보라,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셨으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중에 쟁론하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에 관하여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느냐?
- 13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말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한 모든 말과 또한 그처럼 큰 능력을 받았던 이 사람 모세가 한 말, 곧 그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한 말도 부인하고 있느니라.
- 14 참으로 그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같이 장차 오실 이도 들리우실 것이라.
- 15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같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으리니, 곧 영원한 저 생명에 이르기까지니라.

Yea, behold, all the judgments will come upon us which he has testified unto us; for we know that he has testified aright unto us concerning our iniquities. And behold they are many, and he knoweth as well all things which shall befall us as he knoweth of our iniquities;

Yea, and behold, if he had not been a prophet he could not have testified concerning those things.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people who sought to destroy Nephi were compelled because of their fear, that they did not lay their hands on him; therefore he began again to speak unto them, seeing that he had gained favor in the eyes of some, insomuch that the remainder of them did fear.

Therefore he was constrained to speak more unto them saying: Behold, my brethren, have ye not read that God gave power unto one man, even Moses, to smite upon the waters of the Red Sea, and they parted hither and thither, insomuch that the Israelites, who were our fathers, came through upon dry ground, and the waters closed upon the armies of the Egyptians and swallowed them up?

And now behold, if God gave unto this man such power, then why should ye dispute among yourselves, and say that he hath given unto me no power whereby I may know concerning the judgments that shall come upon you except ye repent?

But, behold, ye not only deny my words, but ye also deny all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by our fathers, and also the words which were spoken by this man, Moses, who had such great power given unto him, yea, the words which he hath spoken concern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Yea, did he not bear record that the Son of God should come? And as he lifted up the brazen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shall he be lifted up who should come.

And as many as should look upon that serpent should live, even so as many as should look upon the Son of God with faith, having a contrite spirit, might live, even unto that life which is eternal.



- 16 또 이제 보라, 모세만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요, 그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도 다 그러하였도다.
- 17 참으로 보라, 아브라함이 그의 오심에 대하여 보고, 기쁨으로 찬만하여 즐거워하였느니라.
- 18 참으로,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만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안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때 이전에 하나님의 반차로써 곧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나니, 이는 실로 구속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가 오시기 수천 년도 전에 백성들에게 보이시려 함이었느니라.
- 19 또 이제 나는 실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참으로 보라, 선지자 지노스가 담대히 증거하였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노라.
- 20 또 보라, 지노크도, 또 이자이어스도, 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하였나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증거한 바로 그 선지자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아니하리요?
- 21 또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논박하겠느냐? 너희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물레크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시드기야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났음을 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 22 우리 조상 리하이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므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느니라. 니파이도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며, 이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앞을 바라보며, 장차 이를 그의 날을 기뻐하였느니라.
- 23 또 보라, 그는 하나님이지요, 그들과 함께 계시나니,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매, 그들은 그에게 구속을 받았으며, 그들은 장차 이를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렸느니라.

And now behold, Moses did not only testify of these things, but also all the holy prophets, from his days even to the days of Abraham.

Yea, and behold, Abraham saw of his coming, and was filled with gladness and did rejoice.

Yea, and behold I say unto you, that Abraham not only knew of these things, but there were many before the days of Abraham who were called by the order of God; yea, even after the order of his Son; and this that it should be shown unto the people, a great many thousand years before his coming, that even redemption should come unto them.

And now I would that ye should know, that even since the days of Abraham there have been many prophets that have testified these things; yea, behold, the prophet Zenos did testify boldly; for the which he was slain.

And behold, also Zenock, and also Ezias, and also Isaiah, and Jeremiah, (Jeremiah being that same prophet who testified of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now we know that Jerusalem was destroyed according to the words of Jeremiah. O then why not the Son of God come, according to his prophecy?

And now will you dispute that Jerusalem was destroyed? Will ye say that the sons of Zedekiah were not slain, all except it were Mulek? Yea, and do ye not behold that the seed of Zedekiah are with us, and they were driven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But behold, this is not all—

Our father Lehi was driven out of Jerusalem because he testified of these things. Nephi also testified of these things, and also almost all of our fathers, even down to this time; yea, they have testified of the coming of Christ, and have looked forward, and have rejoiced in his day which is to come.

And behold, he is God, and he is with them, and he did manifest himself unto them, that they were redeemed by him; and they gave unto him glory, because of that which is to come.

24 또 이제 보건대 너희가 이러한 일을 알고 있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이 일에 너희가 범죄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증거가 그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음이라.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모든 것을 받았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느니라.

25 그러나 보라, 너희는 진리를 거부하고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올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진노를 쌓는도다.

26 실로 이 시간에도 너희의 살인과 너희의 음행과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원한 멸망이 무르익고 있나니, 참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이 속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27 참으로 보라 멸망은 지금 실로 너희 문턱에 이르렀나니, 참으로 너희는 들어가 판사석에 이르러 살펴보라. 너희의 판사가 살해되어 자기 피 가운데 누워 있나니, 그는 판사직에 앉기를 구하는 자기 형제에게 살해되었느니라.

28 또 보라, 그들은 둘 다 너희의 비밀 결사에 속하였고, 그 결사를 창안한 자는 개다이앤티온과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구하는 저 악한 자니라.

And now, seeing ye know these things and cannot deny them except ye shall lie, therefore in this ye have sinned, for ye have rejected all these things, notwithstanding so many evidences which ye have received; yea, even ye have received all things, both things in heaven, and all things which are in the earth, as a witness that they are true.

But behold, ye have rejected the truth, and rebelled against your holy God; and even at this time, instead of laying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othing doth corrupt, and where nothing can come which is unclean, ye are heaping up for yourselves wrath against the day of judgment.

Yea, even at this time ye are ripening, because of your murders and your fornication and wickedness, for everlasting destruction; yea, and except ye repent it will come unto you soon.

Yea, behold it is now even at your doors; yea, go ye in unto the judgment-seat, and search; and behold, your judge is murdered, and he lieth in his blood; and he hath been murdered by his brother, who seeketh to sit in the judgment-seat.

And behold, they both belong to your secret band, whose author is Gadianton and the evil one who seeketh to destroy the souls of men.

## 힐라맨서 9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그들 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판사석으로 달려갔으니, 간 사람이 참으로 다섯이라. 그들이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2 보라,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여 우리에게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리라. 보라, 우리는 그가 그리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며, 참으로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고도 믿지 아니하거니와, 그러할지라도, 만일 그가 대판사에 관하여 말한 이것, 곧 저가 죽었다 한 말이 참일진대, 우리는 그가 한 다른 말들도 참된 줄 믿으리라 하더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힘을 다하여 달음질하여 들어가 판사석에 이른즉, 보라, 대판사가 엎드러져 자기 피 가운데 누워 있는지라.
- 4 이제 보라, 그들이 이를 보고 심히 놀라 땅바닥에 쓰러졌으니, 이는 니파이가 대판사에 관하여 한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었음이라.
- 5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보고 믿은지라, 니파이가 말한 모든 심판이 백성에게 임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떨고 땅에 쓰러졌더라.
- 6 이제 판사가 살해된 그 즉시—저는 은밀한 복장을 한 그 형제에게 찔렸나니, 그는 도망하였고 종들은 달음질하여 사람들 중에 살인에 대해 소리 높여 고하더라.
- 7 이에 보라 백성들이 판사석 있는 곳으로 함께 모이더니—땅에 쓰러진 그 다섯 사람을 보고 놀라니라.
- 8 또 이제 보라, 이 백성들은 니파이의 정원에 모였던 무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판사를 살해한 자들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지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도망할 수 없었도다 하였더라.

## Helaman 9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Nephi had spoken these words, certain men who were among them ran to the judgment-seat; yea, even there were five who went, and they said among themselves, as they went:

Behold, now we will know of a surety whether this man be a prophet and God hath commanded him to prophesy such marvelous things unto us. Behold, we do not believe that he hath; yea, we do not believe that he is a prophet; nevertheless, if this thing which he has said concerning the chief judge be true, that he be dead, then will we believe that the other words which he has spoken are tru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ran in their might, and came in unto the judgment-seat; and behold, the chief judge had fallen to the earth, and did lie in his blood.

And now behold, when they saw this they were astonished exceedingly, insomuch that they fell to the earth; for they had not believed the words which Nephi had spoken concerning the chief judge.

But now, when they saw they believed, and fear came upon them lest all the judgments which Nephi had spoken should come upon the people; therefore they did quake, and had fallen to the earth.

Now, immediately when the judge had been murdered—he being stabbed by his brother by a garb of secrecy, and he fled, and the servants ran and told the people, raising the cry of murder among them;

And behold the people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unto the place of the judgment-seat—and behold, to their astonishment they saw those five men who had fallen to the earth.

And now behold, the people knew nothing concerning the multitude who had gathered together at the garden of Nephi; therefore they said among themselves: These men are they who have murdered the judge, and God has smitten them that they could not flee from us.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붙잡아 결박한 다음 옥에 던져 넣으니라. 그리고 판사가 죽임을 당하였고, 살해한 자들은 붙들려 옥에 던지웠다는 것을 널리 공포하였더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위대한 대판사의 장례에, 슬퍼하며 금식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고,
- 11 그리하여 니파이의 정원에 있었고 또 그의 말들은 그 판사들도 역시 장례에 함께 모였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백성 중에 물어 이르되, 대판사의 죽음에 관하여 물어보도록 보냄을 받은 그 다섯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보내었다 하는 이 다섯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옥에 던져 넣은 살인자들이 다섯 있느니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그들을 데려오기를 청하매 그들을 데려오니, 보라 그들은 보냄을 받았던 그 다섯이라. 또 보라 판사들이 그 일에 관하여 알고자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 행한 바를 다 고하여 이르되,
- 14 우리가 달음질하여 판사석이 있는 곳에 이르러, 모든 것이 니파이가 증거한 그대로인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 땅에 쓰러졌더니, 우리의 놀란 데서 우리가 회복된즉, 보라 그들이 우리를 옥에 던졌더라.
- 15 이제 이 사람의 살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오직 이만큼을 우리가 아노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음질하여 왔고, 보라 저는 니파이의 말대로 죽어 있었느니라.
- 1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이 일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니파이를 대적하여 크게 소리쳐 이르되, 보라, 우리는 이 니파이가 판사를 죽이기로 누군가와 맹약했던 것이 틀림없으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우리를 그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자요 또 선지자로 높이고자 하였음을 아노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laid hold on them, and bound them and cast them into prison. And there was a proclamation sent abroad that the judge was slain, and that the murderers had been taken and were cast into prison.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 people did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to mourn and to fast, at the burial of the great chief judge who had been slain.

And thus also those judges who were at the garden of Nephi, and heard his words, were also gathered together at the buria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inquired among the people, saying: Where are the five who were sent to inquire concerning the chief judge whether he was dead? And they answered and said: Concerning this five whom ye say ye have sent, we know not; but there are five who are the murderers, whom we have cast into pris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judges desired that they should be brought; and they were brought, and behold they were the five who were sent; and behold the judges inquired of them to know concerning the matter, and they told them all that they had done, saying:

We ran and came to the place of the judgment-seat, and when we saw all things even as Nephi had testified, we were astonished insomuch that we fell to the earth; and when we were recovered from our astonishment, behold they cast us into prison.

Now, as for the murder of this man, we know not who has done it; and only this much we know, we ran and came according as ye desired, and behold he was dead, according to the words of Nephi.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judges did expound the matter unto the people, and did cry out against Nephi, saying: Behold, we know that this Nephi must have agreed with some one to slay the judge, and then he might declare it unto us, that he might convert us unto his faith, that he might raise himself to be a great man, chosen of God, and a prophet.

17 이제 보라, 우리가 이 자를 간파해 내리니, 그가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이 판사를 살해한 진범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다섯은 장례 당일에 풀려났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판사들이 니파이를 대적하여 한 말을 두고 그 판사들을 꾸짖고, 하나씩 하나씩 저들과 쟁론하여 마침내 저들을 부끄럽게 하였더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파이를 붙잡아 결박하여 무리 앞에 끌어오게 하고, 그를 책잡아 그를 고소하여 사형을 받게 하고자 여러 가지로 그를 심문하기 시작하여—

20 그에게 이르되, 너는 공범자로다. 이 살인을 행한 이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에게 고하고, 네 허물을 자백하라. 이르되, 보라 여기 돈이 있나니, 만일 네가 우리에게 고하고 그 맺은 맹약을 인정하면 네 목숨도 네게 주리라 하니라.

21 그러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 너희 우매한 자들, 너희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너희 맹인들과 너희 목이 뻗뻗한 백성들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를 이 죄의 길에 계속 행하도록 버려두실지 아느냐?

22 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시간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큰 멸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피 부르짖고 곡하기 시작하여야 마땅하다.

23 보라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맹약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재판사 시에조람을 살해하게 하였다고 하는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실로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로 이 일에 관하여 알게 한 까닭이니라.

24 또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인하여,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과 맹약하여 그로 이 일을 행하게 하였다 하고, 참으로 내가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였으므로 인하여 너희가 내게 노하여, 내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도다.

25 또 이제 보라, 내가 또 다른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고, 이 일에도 너희가 나를 멸하기를 구하는지 보리라.

And now behold, we will detect this man, and he shall confess his fault and make known unto us the true murderer of this judg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five were liberated on the day of the burial. Nevertheless, they did rebuke the judges in the words which they had spoken against Nephi, and did contend with them one by one, insomuch that they did confound them.

Nevertheless, they caused that Nephi should be taken and bound and brought before the multitude, and they began to question him in divers ways that they might cross him, that they might accuse him to death—

Saying unto him: Thou art confederate; who is this man that hath done this murder? Now tell us, and acknowledge thy fault; saying, Behold here is money; and also we will grant unto thee thy life if thou wilt tell us, and acknowledge the agreement which thou hast made with him.

But Nephi said unto them: O ye fools, ye uncircumcised of heart, ye blind, and ye stiffnecked people, do ye know how long the Lord your God will suffer you that ye shall go on in this your way of sin?

O ye ought to begin to howl and mourn, because of the great destruction which at this time doth await you, except ye shall repent.

Behold ye say that I have agreed with a man that he should murder Seezoram, our chief judge. But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is is because I have testified unto you that ye might know concerning this thing; yea, even for a witness unto you, that I did know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which are among you.

And because I have done this, ye say that I have agreed with a man that he should do this thing; yea, because I showed unto you this sign ye are angry with me, and seek to destroy my life.

And now behold, I will show unto you another sign, and see if ye will in this thing seek to destroy me.

- 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에조람의 형제인 시애틀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 27 이 백성에 관하여 것처럼 많은 재앙을 예언하는 자칭 선지자 니파이가 너와 맹약하고 그에 따라 네가 네 형제인 시에조람을 살해하였느냐 하라.
- 28 이에 보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리라.
- 29 이에 너희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형제를 살해하였느냐 하라.
- 30 이에 그는 두려움을 품고 서서 뭐라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 또한 보라, 그가 너희에게 부인하고, 마치 놀란 채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결백함을 너희에게 주장할 것이다.
- 31 그러나 보라, 너희는 그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의 외투 자락에서 피를 발견할 것이다.
- 32 이에 너희가 이를 보거든 말하기를, 이 피가 어디서 묻었느냐? 이것이 네 형제의 피인 줄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하라.
- 33 그리하면 그가 떨며 창백하게 보이리니, 참으로 마치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 같으리라.
- 34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 두려움과 네 얼굴에 임한 이 창백함으로 인하여, 보라, 우리는 네가 죄 있음을 아노라 하라.
- 35 그리하면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때 그가 너희에게 자백하고, 그가 이 살인을 행하였음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 36 그리고 나면 그가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주신 바 된 것 이외에 이 일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 그리고 나면 너희도 내가 정직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줄을 알리라.
-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가서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그가 한 말이 사실이었더라. 이는 그 말대로 그가 부인하였고, 또한 그 말대로 그가 자백도 하였음이라.

Behold I say unto you: Go to the house of Seantum, who is the brother of Seezoram, and say unto him—

Has Nephi, the pretended prophet, who doth prophesy so much evil concerning this people, agreed with thee, in the which ye have murdered Seezoram, who is your brother?

And behold, he shall say unto you, Nay.

And ye shall say unto him: Have ye murdered your brother?

And he shall stand with fear, and wist not what to say. And behold, he shall deny unto you; and he shall make as if he were astonished; nevertheless, he shall declare unto you that he is innocent.

But behold, ye shall examine him, and ye shall find blood upon the skirts of his cloak.

And when ye have seen this, ye shall say: From whence cometh this blood? Do we not know that it is the blood of your brother?

And then shall he tremble, and shall look pale, even as if death had come upon him.

And then shall ye say: Because of this fear and this paleness which has come upon your face, behold, we know that thou art guilty.

And then shall greater fear come upon him; and then shall he confess unto you, and deny no more that he has done this murder.

And then shall he say unto you, that I, Nephi, know nothing concerning the matter save it were given unto me by the power of God. And then shall ye know that I am an honest man, and that I am sent unto you from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and did, even according as Nephi had said unto them. And behold, the words which he had said were true; for according to the words he did deny; and also according to the words he did confess.

- 38 또 그는 끌려와서 그가 바로 그 살인자임이 입증된지라, 그 다섯은 석방되고, 니파이도 풀려났더라.
- 39 이에 니파이인 중에 니파이의 말을 믿는 자가 더러 있었고, 또 그 다섯의 증거로 인하여 믿는 자도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옥에 있는 동안 돌이켰음이라.
- 40 또 이제 백성들 중에는 니파이를 선지자라 말하는 자가 더러 있었더라.
- 41 또 다른 이들은 말하되, 보라, 그는 신이라, 이는 그가 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고하였고, 또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며, 심지어 우리의 대판사를 살해한 진범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And he was brought to prove that he himself was the very murderer, insomuch that the five were set at liberty, and also was Nephi.

And there were some of the Nephites who believed on the words of Nephi; and there were some also, who believed because of the testimony of the five, for they had been converted while they were in prison.

And now there were some among the people, who said that Nephi was a prophet.

And there were others who said: Behold, he is a god, for except he was a god he could not know of all things. For behold, he has told us the thoughts of our hearts, and also has told us things; and even he has brought unto our knowledge the true murderer of our chief judge.

## 힐라맨서 10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매, 그들이 그들 한 가운데 서 있는 니파이를 홀로 남겨 둔 채, 이리저리 나뉘어 자기 길을 가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 주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을 향하여 자기 길을 가니라.
-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니파이인 백성들의 간악함, 곧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과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불의로 인하여 많이 의기소침하여—그가 이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니파이야,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네게 준 말을 네가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 5 이제 네가 것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말을 좇아 모든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네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 나라.
- 6 보라, 너는 니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볼 지어다, 내가 이를 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네게 선포하노니,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이 백성의 간악함을 좇아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땅을 칠지니라.
- 7 보라,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백성 가운데 권능을 지닐지니라.
- 8 그러므로 만일 네가 이 성전더러 이르기를 그것이 둘로 갈라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 9 또 만일 네가 이 산더러 이르기를 너는 낮아져서 편편하게 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 Helaman 10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arose a division among the people, insomuch that they divided hither and thither and went their ways, leaving Nephi alone, as he was standing in the midst of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went his way towards his own house, pondering upon the things which the Lord had shown unto him.

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thus pondering—being much cast down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of the Nephites, their secret works of darkness, and their murderings, and their plunderings, and all manner of iniquities—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thus pondering in his heart, behold, a voice came unto him saying:

Blessed art thou, Nephi, for those things which thou hast done; for I have beheld how thou hast with unweariness declared the word, which I have given unto thee, unto this people. And thou hast not feared them, and hast not sought thine own life, but hast sought my will, and to keep my commandments.

And now, because thou hast done this with such unweariness, behold, I will bless thee forever; and I will make thee mighty in word and in deed, in faith and in works; yea, even that all things shall be done unto thee according to thy word, for thou shalt not ask that which is contrary to my will.

Behold, thou art Nephi, and I am God. Behold, I declare it unto thee in the presence of mine angels, that ye shall have power over this people, and shall smite the earth with famine, and with pestilence, and destruction, according to the wickedness of this people.

Behold, I give unto you power, that whatsoever ye shall seal on earth shall be sealed in heaven; and whatsoever ye shall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in heaven; and thus shall ye have power among this people.

And thus, if ye shall say unto this temple it shall be rent in twain, it shall be done.

And if ye shall say unto this mountain, Be thou cast down and become smooth, it shall be done.



- 10 또 보라, 만일 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리라 하면 그 일이 이를 것이라.
- 11 그런즉 이제 보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자 곧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치심을 입어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하신다 하라.
- 12 이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니파이에게 하신즉, 그가 멈추어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면에 여기저기 흩어진 무리에게로 돌아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곧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임하게 될 그들의 멸망에 관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더라.
- 13 이제 보라, 니파이가 대판사의 죽음에 관하여 그들에게 고함으로써 행한 저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 14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치심을 입어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하신다 하였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도, 보라,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더니, 그들이 그를 대하여 욕하며, 그들 손을 그에게 대어 그를 옥에 던져 넣고자 하였더라.
- 16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들이 그를 붙잡아 옥에 던져 넣을 수 없었나니, 이는 그가 영에 붙잡혀 그들 가운데에서 데려가졌음이라.
-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가 무리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마침내 이들 그들 모두에게 선포하기까지, 또는 이를 모든 백성 가운데 보낼 때까지 하였더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니, 분쟁이 생기매 스스로 나눠져서 칼로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라.

And behold, if ye shall say that God shall smite this people, it shall come to pass.

And now behold, I command you, that ye shall go and declare unto this people, that thus saith the Lord God, who is the Almighty: Except ye repent ye shall be smitten, even unto destruction.

And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Lord had spoken these words unto Nephi, he did stop and did not go unto his own house, but did return unto the multitudes who were scattered about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began to declare unto them the word of the Lord which had been spoken unto him, concerning their destruction if they did not repent.

Now behold, notwithstanding that great miracle which Nephi had done in telling them concerning the death of the chief judge, they did harden their hearts and did not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Lord.

Therefore Nephi did declare unto them the word of the Lord, saying: Except ye repent, thus saith the Lord, ye shall be smitten even unto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Nephi had declared unto them the word, behold, they did still harden their hearts and would not hearken unto his words; therefore they did revile against him, and did seek to lay their hands upon him that they might cast him into prison.

But behold, the power of God was with him, and they could not take him to cast him into prison, for he was taken by the Spirit and conveyed away out of the midst of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he did go forth in the Spirit, from multitude to multitude, declaring the word of God, even until he had declared it unto them all, or sent it forth among all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ould not hearken unto his words; and there began to be contentions, insomuch that they were divided against themselves and began to slay one another with the sword.

19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칠십일년이 끝났느니라.

And thus ended the seven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 힐라맨서 11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칠십이년에 다통이 증가하더니, 마침내 그 온 땅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전쟁이 있으니라.
- 2 또 이 멸망과 간악함의 일을 이끈 자들은 이 비밀 도적단이었더라. 그리고 이 전쟁은 그 해 내내 지속되었고 제칠십삼년에도 계속되었더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4 주여, 이 백성이 칼로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마시옵고, 주여, 차라리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사, 그들을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혹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리이다 하더라.
- 5 이에 니파이의 말대로 그리된지라, 이에 그 땅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 큰 기근이 있더라. 이리하여 제칠십사년에 기근이 계속되매, 멸망의 일이 칼에 의하여서는 그쳤으나 기근에 의하여서는 심하게 되었더라.
- 6 또 이 멸망의 일은 제칠십오년에도 계속되었더라. 이는 땅이 치심을 당하여 메말랐으므로, 곡물의 시기에 곡물을 내지 못하였음이라. 또 온 땅이 치심을 당함이 니파이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레이맨인들 가운데도 있었던지라, 그들이 치심을 입어 그 땅의 더욱 간악하던 지역에서 수천이 죽었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바야흐로 자기들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고는,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니파이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더라.
- 8 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대판사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탄원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니파이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보소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로 이 기근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시게 하소서. 우리의 멸망에 관하여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까 하나이다 하는 것이었더라.

## Helaman 11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seventy and second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at the contentions did increase, insomuch that there were wars throughout all the land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And it was this secret band of robbers who did carry on this work of destruction and wickedness. And this war did last all that year; and in the seventy and third year it did also last.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year Nephi did cry unto the Lord, saying:

O Lord, do not suffer that this people shall be destroyed by the sword; but O Lord, rather let there be a famine in the land, to stir them up in remembrance of the Lord their God, and perhaps they will repent and turn unto thee.

And so it was done, according to the words of Nephi. And there was a great famine upon the land,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in the seventy and fourth year the famine did continue, and the work of destruction did cease by the sword but became sore by famine.

And this work of destruction did also continue in the seventy and fifth year. For the earth was smitten that it was dry, and did not yield forth grain in the season of grain; and the whole earth was smitten, even among the Lamanites as well as among the Nephites, so that they were smitten that they did perish by thousands in the more wicked parts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saw that they were about to perish by famine, and they began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and they began to remember the words of Nephi.

And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their chief judges and their leaders, that they would say unto Nephi: Behold, we know that thou art a man of God, and therefore cry unto the Lord our God that he turn away from us this famine, lest all the words which thou hast spoken concerning our destruction be fulfilled.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그들의 요청한 말대로 니파이에게 말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백성들이 회개한 것과 굶은 베를 입고 스스로 겸손하여진 것을 보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 10 주여,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나이다. 또 그들이 개다이엔톤의 무리를, 저들이 멸절될 정도로 그들 가운데서 쓸어버린지라, 이에 저들이 저들의 은밀한 계획들을 땅에 묻어 버렸나이다.
- 11 이제 주여, 그들의 이 겸손함으로 인하여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이미 멸하신 그 간악한 자들의 멸망으로 주의 노여움을 가라앉게 하시옵소서.
- 12 주여, 주의 노여움, 곧 주의 맹렬한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이 기근을 이 땅에서 그치게 하시옵소서.
- 13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면에 비를 보내사, 땅으로 그 소산을 내게 하시며,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을 내게 하시옵소서.
- 14 주여, 내가 아뢰기를, 기근이 있게 하사 칼의 해악을 멎게 하시옵소서 하였을 때,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온즉, 이때에도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 15 참으로 주여,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인하여 회개한 것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 16 또한 이제 주여,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지 다시 시험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 만일 그들이 그리하면,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육년에 주께서 그 진노를 백성에게서 돌이키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지라, 이로써 땅이 그 산물의 시기에 그 산물을 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땅이 그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을 내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judges did say unto Nephi,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had been desire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Nephi saw that the people had repented and did humble themselves in sackcloth, he cried again unto the Lord, saying:

O Lord, behold this people repenteth; and they have swept away the band of Gadianton from amongst them insomuch that they have become extinct, and they have concealed their secret plans in the earth.

Now, O Lord, because of this their humility wilt thou turn away thine anger, and let thine anger be appeased in the destruction of those wicked men whom thou hast already destroyed.

O Lord, wilt thou turn away thine anger, yea, thy fierce anger, and cause that this famine may cease in this land.

O Lord, wilt thou hearken unto me, and cause that it may be done according to my words, and send forth rain upon the face of the earth, that she may bring forth her fruit, and her grain in the season of grain.

O Lord, thou didst hearken unto my words when I said, Let there be a famine, that the pestilence of the sword might cease; and I know that thou wilt, even at this time, hearken unto my words, for thou saidst that: If this people repent I will spare them.

Yea, O Lord, and thou seest that they have repented, because of the famine and the pestilence and destruction which has come unto them.

And now, O Lord, wilt thou turn away thine anger, and try again if they will serve thee? And if so, O Lord, thou canst bless them according to thy words which thou hast said.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seventy and sixth year the Lord did turn away his anger from the people, and caused that rain should fall upon the earth, insomuch that it did bring forth her fruit in the season of her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it did bring forth her grain in the season of her grain.

18 이에 보라, 백성들은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 지면에는 기쁨이 충만하였으니, 그들이 더 이상 니파이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큰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더라.

19 또 보라, 그의 아우 리하이도, 의에 관한 것으로는 조금도 그에게 뒤지지 아니하였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이 다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번성하고 퍼지기 시작하여, 이윽고 북방과 남방,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까지 온 지면을 덮기에 이르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육년이 화평한 가운데 끝나더라. 또한 제칠십칠년이 화평한 가운데 시작되더라. 이에 교회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백성의 대부분이 교회에 속하였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큰 평화를 누리더니, 이같이 제칠십칠년이 끝났느니라.

22 또 그들이 제칠십팔년에도 평화를 누렸으되, 다만 선지자들이 확립해 놓은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

23 또 제칠십구년에는 많은 분쟁이 생겼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와, 또 교리의 참된 요점을 아는 그들의 많은 형제들이, 매일 많은 계시를 받아, 이로써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결국 같은 해에 그들의 분쟁을 종식시켰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에, 니파이 백성에게서 이반한 자로서 수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로 넘어가서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자들이 소수 있었고, 또 레이맨인의 실제 후손인 자들이 소수 있어, 이들이 그들 곧 그 이반자들에게 충동되어 노하게 되었더니,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 형제들과 더불어 전쟁을 시작하였더라.

And behold, the people did rejoice and glorify God, and the whole face of the land was filled with rejoicing; and they did no more seek to destroy Nephi, but they did esteem him as a great prophet, and a man of God, having great power and authority given unto him from God.

And behold, Lehi, his brother, was not a whit behind him as to things pertaining to righteousness.

And thus it did co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began to prosper again in the land, and began to build up their waste places, and began to multiply and spread, even until they did cover the whole face of the land, both on the northward and on the southward, from the sea west to the sea eas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venty and sixth year did end in peace. And the seventy and seventh year began in peace; and the church did spread throughout the face of all the land; and the more part of the people, both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did belong to the church; and they did have exceedingly great peace in the land; and thus ended the seventy and seventh year.

And also they had peace in the seventy and eighth year, save it were a few contentions concerning the points of doctrine which had been laid down by the prophets.

And in the seventy and ninth year there began to be much strife. But it came to pass that Nephi and Lehi, and many of their brethren who knew concerning the true points of doctrine, having many revelations daily, therefore they did preach unto the people, insomuch that they did put an end to their strife in that same year.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eigh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the dissenters from the people of Nephi, who had some years before gone over unto the Lamanites, and taken upon themselves the name of Lamanites, and also a certain number who were real descendants of the Lamanites, being stirred up to anger by them, or by those dissenters, therefore they commenced a war with their brethren.

25 이리하여 그들이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산으로, 또 광야와 은밀한 장소들로 퇴각하여 몸을 숨기는지라,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이반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효가 매일 더하여지더라.

26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으로 여러 해가 지나지 못하여, 그들이 심히 큰 도적단이 되었더라. 또 그들이 개다이엔톤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찾아낸지라, 그로 인해 그들이 개다이엔톤의 도적들이 되었느니라.

27 이제 보라, 이 도적들이 큰 재해를 일으켜, 참으로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와 또한 레이맨인 백성 가운데의 큰 멸망을 초래하는지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멸망의 일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들이 강한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광야와 산으로 보내어 이 도적단을 찾아내어 멸하게 하였더라.

29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 그들이 쫓겨 자기 땅으로 돌아왔더라.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이 끝났느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일년 초에 그들이 다시 이 도적단을 치러 나아가, 많은 자들을 멸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많은 멸망이 임하였더라.

31 이에 그들이 다시 광야와 산에서 나와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없었으니, 이는 산과 광야에 들끓는 도적들의 수효가 심히 많음으로 인함 이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이 해가 끝나더라. 이에 도적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점점 강해지더니, 이윽고 니파이인과 또한 레이맨인의 온 군대도 겁내지 않게 된지라, 저들이 온 지면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였더라.

33 참으로 이는 저들이 그 땅 여러 지역을 침범하여 그들에게 큰 멸망을 행하여, 실로 많은 자를 죽이고, 다른 이들은 사로잡아 광야로 끌어갔으니, 참으로 또한 특별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욱 그리하였음이라.

And they did commit murder and plunder; and then they would retreat back into the mountains, and into the wilderness and secret places, hiding themselves that they could not be discovered, receiving daily an addition to their numbers, inasmuch as there were dissenters that went forth unto them.

And thus in time, yea, even in the space of not many years, they became an exceedingly great band of robbers; and they did search out all the secret plans of Gadianton; and thus they became robbers of Gadianton.

Now behold, these robbers did make great havoc, yea, even great destruction among the people of Nephi, and also among the people of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it was expedient that there should be a stop put to this work of destruction; therefore they sent an army of strong men into the wilderness and upon the mountains to search out this band of robbers, and to destroy them.

But behold, it came to pass that in that same year they were driven back even into their own lands. And thus ended the eigh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eighty and first year they did go forth again against this band of robbers, and did destroy many; and they were also visited with much destruction.

And they were again obliged to return out of the wilderness and out of the mountains unto their own lands, because of the exceeding greatness of the numbers of those robbers who infested the mountains and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ended this year. And the robbers did still increase and wax strong, inasmuch that they did defy the whole armies of the Nephites, and also of the Lamanites; and they did cause great fear to come unto the people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Yea, for they did visit many parts of the land, and did do great destruction unto them; yea, did kill many, and did carry away others captive into the wilderness, yea, and more especially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34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이 큰 악이,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더라.

35 그리고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십일년이 끝났느니라.

36 그리고 제팔십이년에 그들은 또다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제팔십삼년에는 그들의 죄악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제팔십사년에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치지 아니하더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오년에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간악함이 점차 더더욱 굳어졌고, 이로써 그들의 멸망은 또다시 무르익고 있었더라.

38 이에 이같이 제팔십오년이 끝났느니라.

Now this great evil, which came unto the people because of their iniquity, did stir them up again in remembrance of the Lord their God.

And thus ended the eighty and first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in the eighty and second year they began again to forget the Lord their God. And in the eighty and third year they began to wax strong in iniquity. And in the eighty and fourth year they did not mend their ways.

And it came to pass in the eighty and fifth year they did wax stronger and stronger in their pride, and in their wickedness; and thus they were ripening again for destruction.

And thus ended the eighty and fifth year.

## 힐라맨서 12

- 1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와 또한 그 변하기 쉬움을 볼 수 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그 크고도 한량없는 선하심 가운데 무릇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 2 참으로, 또한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사, 실로 그들의 밭,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 두시며,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또한 요컨대, 자기 백성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그때가 곧,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그들의 발 아래 밟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실로 이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번영 까닭이라.
- 3 이리므로 주께서 많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그가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그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알게 되리라.
- 4 오 사람의 자녀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어찌 그리 허황되며, 어찌 그리 악하고, 악마적이며, 어찌 그리 죄악 행하기는 속히 하며, 어찌 그리 선 행하기는 더디 하는고! 참으로 저 악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기는 어찌 그리 속히 하는고!
- 5 참으로 어찌 그리 교만 중에 자고하기를 속히 하며, 참으로 어찌 그리 뽐내면서 온갖 불의한 바 행하기는 속히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는 그들이 어찌 그리 더디 하며, 참으로 지혜의 길로 행하기는 어찌 그리 더디 하는고!
- 6 보라,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들을 향한 그의 크신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가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Helaman 12

And thus we can behold how false, and also the unsteadiness of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yea, we can see that the Lord in his great infinite goodness doth bless and prosper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him.

Yea, and we may see at the very time when he doth prosper his people, yea, in the increase of their fields,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in gold, and in silver, and in all manner of precious things of every kind and art; sparing their lives, and delivering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softening the hearts of their enemies that they should not declare wars against them; yea, and in fine, doing all things for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his people; yea, then is the time that they do harden their hearts, and do forget the Lord their God, and do trample under their feet the Holy One—yea, and this because of their ease, and their exceedingly great prosperity.

And thus we see that except the Lord doth chasten his people with many afflictions, yea, except he doth visit them with death and with terror, and with famine and with all manner of pestilence, they will not remember him.

O how foolish, and how vain, and how evil, and devilish, and how quick to do iniquity, and how slow to do good, are the children of men; yea, how quick to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evil one, and to set their hearts upo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Yea, how quick to be lifted up in pride; yea, how quick to boast, and do all manner of that which is iniquity; and how slow are they to remember the Lord their God, and to give ear unto his counsels, yea, how slow to walk in wisdom's paths!

Behold, they do not desire that the Lord their God, who hath created them, should rule and reign over them; notwithstanding his great goodness and his mercy towards them, they do set at naught his counsels, and they will not that he should be their guide.



- 7 오 사람의 자녀들의 보잘 것 없음이 어찌 그리  
크고, 참으로 그들은 땅의 티끌만도 못하다.
- 8 이는 보라, 땅의 티끌은 우리의 크고도 영원하  
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리저리 움직여, 갈라지기가  
지 함이니라.
- 9 참으로 보라, 그의 음성에 언덕들과 산들이 떨  
고 진동하도다.
- 10 또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그것들이 깨어져 참으  
로 골짜기처럼 편편해지느니라.
- 11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온 땅이 진동하  
며,
- 12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기초가 흔들리되  
바로 그 중심까지도 흔들리는도다.
- 13 참으로 또 만일 그가 땅더러 이르시기를—움직  
이라—하시면 그것은 움직이는도다.
- 14 참으로 만일 그가 땅더러 이르시기를—너는 되  
돌아가 낮으로 여러 시간 더 길어지게 하라—하시  
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 15 이리하여 그의 말씀대로 땅이 되돌아가매, 사람  
에게는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듯 보이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보라, 이것이 그러하니 이는 정녕  
움직이는 것이 땅이요 태양이 아님이라.
- 16 또 보라, 또한 그가 만일 큰 깊음의 물들에게 이  
르시기를—너는 마르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  
느니라.
- 17 보라, 만일 그가 이 산더러 이르시기를—너는  
들리워, 이리 와서 저 성읍 위에 떨어져 그것으로  
묻히게 하라—하시면, 보라 그대로 이루어지느  
니라.
- 18 또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보물을 땅에 감추는  
데, 주께서 이르시기를—이를 감춘 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이 저주를 받을 지니라—하실 것 같으  
면, 보라, 그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 19 만일 주께서 말씀하기를—네가 저주를 받아 이  
때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너를 발견하지 못하리  
라—하실 것 같으면, 보라, 아무도 이후로 영원토  
록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O how great is the nothingness of the children of  
men; yea, even they are less than the dust of the  
earth.

For behold, the dust of the earth moveth hither  
and thither, to the dividing asunder, at the command  
of our great and everlasting God.

Yea, behold at his voice do the hills and the moun-  
tains tremble and quake.

And by the power of his voice they are broken up,  
and become smooth, yea, even like unto a valley.

Yea, by the power of his voice doth the whole earth  
shake;

Yea, by the power of his voice, do the foundations  
rock, even to the very center.

Yea, and if he say unto the earth—Move—it is  
moved.

Yea, if he say unto the earth—Thou shalt go back,  
that it lengthen out the day for many hours—it is  
done;

And thus, according to his word the earth goeth  
back, and it appeareth unto man that the sun  
standeth still; yea, and behold, this is so; for surely it  
is the earth that moveth and not the sun.

And behold, also, if he say unto the waters of the  
great deep—Be thou dried up—it is done.

Behold, if he say unto this mountain—Be thou  
raised up, and come over and fall upon that city, that  
it be buried up—behold it is done.

And behold, if a man hide up a treasure in the  
earth, and the Lord shall say—Let it be accursed, be-  
cause of the iniquity of him who hath hid it up—be-  
hold, it shall be accursed.

And if the Lord shall say—Be thou accursed, that  
no man shall find thee from this time henceforth and  
forever—behold, no man getteth it henceforth and  
forever.

- 20 또 보라, 만일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르시기를—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영원히 저주받을 지니라—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 21 또 만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하실 것 같으면, 곧 그리되게 하시리라.
- 22 이에 그가 이 말씀을 하실 자에게 화 있도다. 이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이 말씀을 하실 것 인즉, 저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가 선포 되었느니라.
- 23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자들임이라.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큰 충만하심 가운데, 사람들로 회개와 선한 행위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25 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읽기로 저 큰 마지막 날에 쫓겨날 자들이 있다 하였으니, 과연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
- 26 참으로 그들은 끝없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And behold, if the Lord shall say unto a man—Because of thine iniquities, thou shalt be accursed forever—it shall be done.

And if the Lord shall say—Because of thine iniquities thou shalt be cut off from my presence—he will cause that it shall be so.

And wo unto him to whom he shall say this, for it shall be unto him that will do iniquity, and he cannot be saved; therefore, for this cause, that men might be saved, hath repentance been declared.

Therefore, blessed are they who will repent and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 for these are they that shall be saved.

And may God grant, in his great fulness, that men might be brought unto repentance and good works, that they might be restored unto grace for grace,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I would that all men might be saved. But we read that in the great and last day there are some who shall be cast out, yea, who shall be cas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Yea, who shall be consigned to a state of endless misery, fulfilling the words which say: They that have done good shall have everlasting life; and they that have done evil shall have everlasting damnation. And thus it is. Amen.

### 힐라맨서 13

### Helaman 13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육년에, 니파이인들은 여전히 간악함 중에 참으로 큰 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으나, 반면 레이맨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켜 준행 하였더라.
-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레이맨인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와,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 날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내는지라,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더라.
- 3 그러나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 돌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시는지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성내에 들어오음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성벽 위에 올라 그 손을 내뻗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예언하였더라.
- 5 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레이맨인 사무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 주시는 바 주의 말씀들을 고하노니, 보라, 그가 내 마음에 넣어 주사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공의의 검이 이 백성 위에 걸쳐 있으며, 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공의의 검이 이 백성 위에 떨어진다 하라 하셨느니라.
- 6 참으로 중한 멸망이 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정녕 이 백성에게 임하나니, 회개와 반드시 세상에 오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백성을 구할 수 없느니라.
- 7 또 보라, 주의 한 천사가 이를 내게 선포하였고, 내 영혼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도다. 보라,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도 선포하여 너희로 기쁜 소식을 갖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자 아니하는도다.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e eighty and sixth year, the Nephites did still remain in wickedness, yea, in great wickedness, while the Lamanites did observe stri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year there was one Samuel, a Lamanite, came into the land of Zarahemla, and began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preach, many days, repentance unto the people, and they did cast him out, and he was about to return to his own land.

But behold,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him, that he should return again, and prophesy unto the people whatsoever things should come into his hear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ould not suffer that he should enter into the city; therefore he went and got upon the wall thereof, and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cried with a loud voice, and prophesied unto the people whatsoever things the Lord put into his heart.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I, Samuel, a Lamanite, do speak the words of the Lord which he doth put into my heart; and behold he hath put it into my heart to say unto this people that the sword of justice hangeth over this people; and four hundred years pass not away save the sword of justice falleth upon this people.

Yea, heavy destruction awaiteth this people, and it surely cometh unto this people, and nothing can save this people save it be repentance and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who surely shall come into the world, and shall suffer many things and shall be slain for his people.

An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hath declared it unto me, and he did bring glad tidings to my soul. And behold, I was sent unto you to declare it unto you also, that ye might have glad tidings; but behold ye would not receive me.

- 8 그러므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니파이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말을 제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나의 영을 물러가게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 9 또 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로 침을 당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 10 정녕 내가 내 맹렬한 노여움 중에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너희 원수 중 넷째 세대 중에서 살아서 너희의 온전한 멸망을 볼 자들이 있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그 넷째 세대의 백성은 너희의 멸망을 가져오리라.
- 11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회개하여 내게로 돌이킬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 12 참으로 이 큰 제이라헤믈라 성에 화 있나니, 이는 보라, 그것이 보전되고 있음이 의로운 자들로 말미암음이라. 참으로 이 큰 성에 화 있나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곳에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이 많이 있는 줄을, 참으로 이 큰 성의 대부분이 그러한 줄을 내가 앎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3 그러나 회개할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을 내가 아낄 것임이라. 그러나 보라, 이 큰 성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보라, 내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그것을 멸하게 할 것이다.
- 14 그러나 보라, 이 성이 모면하고 있음은 의인들의 연고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의인들을 쫓아낼 때가 이르나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 너희의 멸망이 무르익으리라. 참으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이 큰 성에 화 있을지어다.
- 15 참으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기드온 성에 화 있을지어다.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 hearts of the people of the Nephites, except they repent I will take away my word from them, and I will withdraw my Spirit from them, and I will suffer them no longer, and I will turn the hearts of their brethren against them.

And four hundred years shall not pass away before I will cause that they shall be smitten; yea, I will visit them with the sword and with famine and with pestilence.

Yea, I will visit them in my fierce anger, and there shall be those of the fourth generation who shall live, of your enemies, to behold your utter destruction; and this shall surely come except ye repent, saith the Lord; and those of the fourth generation shall visit your destruction.

But if ye will repent and return unto the Lord your God I will turn away mine anger, saith the Lord; yea, thus saith the Lord, blessed are they who will repent and turn unto me, but wo unto him that repenteth not.

Yea, wo unto this great city of Zarahemla; for behold, it is because of those who are righteous that it is saved; yea, wo unto this great city, for I perceive, saith the Lord, that there are many, yea, even the more part of this great city, that will harden their hearts against me, saith the Lord.

But blessed are they who will repent, for them will I spare. But behold, if it were not for the righteous who are in this great city, behold, I would cause that fire should come down out of heaven and destroy it.

But behold, it is for the righteous' sake that it is spared. But behold, the time cometh, saith the Lord, that when ye shall cast out the righteous from among you, then shall ye be ripe for destruction; yea, wo be unto this great city,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which are in her.

Yea, and wo be unto the city of Gideon, for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which are in her.

16 참으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주변의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 화 있을지어다.

17 또 보라,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의 연고로, 참으로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8 그리하여 이같이 되리니, 만군의 주, 참으로 우리의 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든지 보물을 땅 속에 감추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주께 감춤이 아닐진대, 이 땅의 큰 저주로 인하여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19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로 그 보물을 내게 감추게 하려 함이니,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의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함이라. 또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또한 그 보물이 저주를 받았나니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아무도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 또 그들이 그들의 보물을 감출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그 마음을 재물에 둔 까닭이요, 그들이 그 마음을 그들의 재물에 두고, 또 그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도망할 때 그들의 보물을 감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감추지 아니할 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또한 그들의 보물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 날에 그들이 침을 입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 보라, 너희 이 큰 성의 백성들아,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며, 너희가 너희 마음을 너희의 재물에 두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의 재물도 저주를 받았다 하심이니라.

Yea, and wo be unto all the cities which are in the land round about, which are possessed by the Nephites,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which are in them.

And behold, a curse shall come upon the land, saith the Lord of Hosts, because of the people's sake who are upon the land, yea,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And it shall come to pass, saith the Lord of Hosts, yea, our great and true God, that whoso shall hide up treasures in the earth shall find them again no more, because of the great curse of the land, save he be a righteous man and shall hide it up unto the Lord.

For I will, saith the Lord, that they shall hide up their treasures unto me; and cursed be they who hide not up their treasures unto me; for none hideth up their treasures unto me save it be the righteous; and he that hideth not up his treasures unto me, cursed is he, and also the treasure, and none shall redeem it because of the curse of the land.

And the day shall come that they shall hide up their treasures, because they have set their hearts upon riches; and because they have set their hearts upon their riches, and will hide up their treasures when they shall flee before their enemies; because they will not hide them up unto me, cursed be they and also their treasures; and in that day shall they be smitten, saith the Lord.

Behold ye, the people of this great city, and hearken unto my words; yea, hearken unto the words which the Lord saith; for behold, he saith that ye are cursed because of your riches, and also are your riches cursed because ye have set your hearts upon them, and have not hearkened unto the words of him who gave them unto you.

22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복에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의 재물을 항상 기억하되, 그에 대해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너희 마음은 주께 이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큰 교만으로 부풀어, 자랑하기에 이르며, 크게 부풀림과 시기함 다툼 악독 핍박과 살인과 온갖 죄악을 행하기에 이르는다.

23 이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의 재물에도 임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24 참으로 이 백성에게 화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쫓아 내며,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온갖 불의를 행하기를 옛적 사람들이 한 것같이 하는 이때가 이르렀으므로 인함이라.

25 또 이제 너희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 우리 조상들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아니하였겠고, 그들을 돌로 치며, 쫓아 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도다.

26 보라 너희는 저들보다 더욱 악하니라.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만일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의 죄와 불의를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너희가 그에게 노하여 그를 쫓아 내며, 그를 멸하기 위하여 온갖 방도를 강구함이니, 참으로 그가 너희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말하기를, 그는 거짓 선지자라, 또 그는 죄인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라 하리라.

27 그러나 보라, 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말하기를, 이를 행하라, 거기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벌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 참으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자금을 따라 행하라, 참으로 너희 눈의 자금을 따라 행하며,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리니—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로다 하리라.

Ye do not remember the Lord your God in the things with which he hath blessed you, but ye do always remember your riches, not to thank the Lord your God for them; yea, your hearts are not drawn out unto the Lord, but they do swell with great pride, unto boasting, and unto great swelling, envyings, strifes, malice, persecutions, and murders, and all manner of iniquities.

For this cause hath the Lord God caused that a curse should come upon the land, and also upon your riches, and this because of your iniquities.

Yea, wo unto this people, because of this time which has arrived, that ye do cast out the prophets, and do mock them, and cast stones at them, and do slay them, and do all manner of iniquity unto them, even as they did of old time.

And now when ye talk, ye say: If our days had been in the days of our fathers of old, we would not have slain the prophets; we would not have stoned them, and cast them out.

Behold ye are worse than they; for as the Lord liveth, if a prophet come among you and declareth unto you the word of the Lord, which testifieth of your sins and iniquities, ye are angry with him, and cast him out and seek all manner of ways to destroy him; yea, you will say that he is a false prophet, and that he is a sinner, and of the devil, because he testifieth that your deeds are evil.

But behold, if a man shall come among you and shall say: Do this, and there is no iniquity; do that and ye shall not suffer; yea, he will say: Walk after the pride of your own hearts; yea, walk after the pride of your eyes, and do whatsoever your heart desireth—and if a man shall come among you and say this, ye will receive him, and say that he is a prophet.

- 28 참으로 너희는 그를 높이고, 너희의 소유에서 취하여 그에게 줄 것인즉, 너희가 너희의 금과 너희의 은에서 취하여 그에게 주며 값진 의복을 그에게 입히리라. 또 그가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며 또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함으로 인하여, 그때 너희가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아니 하리로다.
- 29 오 너희 간악하며 너희 패역한 세대여, 너희 완악하며 너희 목이 뻣뻣한 백성이여, 어느 때까지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실 것이라 생각하려느냐? 참으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리석고 맹인 된 인도자들에게 이끌리고자 하느냐? 참으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택하려 하느냐?
- 30 참으로 보라, 주의 분노가 이미 너희를 대하여 불붙었나니, 보라, 그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셨느니라.
- 31 또 보라, 그가 너희의 재물을 저주하시므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들을 보유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 너희의 궁핍의 날에 너희가 그것들을 간직할 수 없도다.
- 32 또 너희의 궁핍의 날에 너희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너희의 부르짖음이 헛되리니, 이는 너희의 황폐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었음이라. 그때 그 날에 너희가 울며 슬피 부르짖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애통하며 말하기를,
- 33 오 내가 회개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며, 돌로 치며, 쫓아 내지 아니했었더라면 하리라. 참으로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주시던 날에 그를 기억했었더라면, 그러면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잃게 되지는 아니하였으리니, 이는 보라,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음이다.
- 34 보라, 우리가 연장을 여기 놓아두면 내일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보라, 우리가 전투를 위해 칼을 찾은 그 날 우리의 칼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바 되도다.
- 35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감추었거늘 그것들이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도다.

Yea, ye will lift him up, and ye will give unto him of your substance; ye will give unto him of your gold, and of your silver, and ye will clothe him with costly apparel; and because he speaketh flattering words unto you, and he saith that all is well, then ye will not find fault with him.

O ye wicked and ye perverse generation; ye hardened and ye stiffnecked people, how long will ye suppose that the Lord will suffer you? Yea, how long will ye suffer yourselves to be led by foolish and blind guides? Yea, how long will ye choose darkness rather than light?

Yea, behold, the anger of the Lord is already kindled against you; behold, he hath cursed the land because of your iniquity.

And behold, the time cometh that he curseth your riches, that they become slippery, that ye cannot hold them; and in the days of your poverty ye cannot retain them.

And in the days of your poverty ye shall cry unto the Lord; and in vain shall ye cry, for your desolation is already come upon you, and your destruction is made sure; and then shall ye weep and howl in that day, saith the Lord of Hosts. And then shall ye lament, and say:

O that I had repented, and had not killed the prophets, and stoned them, and cast them out. Yea, in that day ye shall say: O that we had remembered the Lord our God in the day that he gave us our riches, and then they would not have become slippery that we should lose them; for behold, our riches are gone from us.

Behold, we lay a tool here and on the morrow it is gone; and behold, our swords are taken from us in the day we have sought them for battle.

Yea, we have hid up our treasures and they have slipped away from us, because of the curse of the land.

36 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던 날에 우리가 회개했었더라면, 이는 보라, 땅이 저주를 받으며 모든 것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보유할 수 없음이로다.

37 보라, 우리는 악귀들에게 둘러싸였나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를 구하는 자의 사자들에게 우리는 에워싸였도다. 보라, 우리의 죄악이 크도다. 주여, 우리에게서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실 수 없으시니이까 하리니, 그 날에 너희가 이같이 말하게 되리로다.

38 그러나 보라, 너희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는 영원히 너무 늦기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었고,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39 오 너희 이 땅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를 바라노라! 또 나는 주의 노여움이 너희에게서 돌아서 떠날 것과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O that we had repented in the day that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us; for behold the land is cursed, and all things are become slippery, and we cannot hold them.

Behold, we are surrounded by demons, yea, we are encircled about by the angels of him who hath sought to destroy our souls. Behold, our iniquities are great. O Lord, canst thou not turn away thine anger from us? And this shall be your language in those days.

But behold, your days of probation are past; ye have procrastinated the day of your salvation until it is everlastingly too late, and your destruction is made sure; yea, for ye have sought all the days of your lives for that which ye could not obtain; and ye have sought for happiness in doing iniquity, which thing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that righteousness which is in our great and Eternal Head.

O ye people of the land, that ye would hear my words! And I pray that the anger of the Lord be turned away from you, and that ye would repent and be saved.



## 힐라맨서 14

- 1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사무엘이 심히 많은 것을 더 예언하였으나 이를 기록할 수 없도다.
- 2 또 보라, 저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노니, 곧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시려 오시느니라.
- 3 그런즉 보라, 그가 오시는 때의 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
- 4 그러므로 한 낮과 한 밤과 또 한 낮이 있으되, 마치 한 낮인 것 같고 밤이 없는 것 같을 것인즉,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는 너희가 해의 뜨는 것과 그 지는 것을 알 터이므로, 그들이 두 낮과 한 밤이 있는 줄 정녕 알 것임이라. 그럼에도 밤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그가 나시기 전날 밤이 되리로다.
- 5 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로다.
- 6 또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이라.
- 7 이에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다 놀라고, 기이히 여겨, 필경은 너희가 땅에 엎드러지리로다.
- 8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같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 9 또 보라, 이같이 주께서 그의 천사로 나를 명하사, 나로 와서 이 일을 너희에게 고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예언할 것을 그가 명하셨느니라. 참으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게 외치기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도다.

## Helaman 14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Samuel, the Lamanite, did prophesy a great many more things which cannot be written.

And behold, he said unto them: Behold, I give unto you a sign; for five years more cometh, and behold, then cometh the Son of God to redeem all those who shall believe on his name.

And behold, this will I give unto you for a sign at the time of his coming; for behold, there shall be great lights in heaven, insomuch that in the night before he cometh there shall be no darkness, insomuch that it shall appear unto man as if it was day.

Therefore, there shall be one day and a night and a day, as if it were one day and there were no night; and this shall be unto you for a sign; for ye shall know of the rising of the sun and also of its setting; therefore they shall know of a surety that there shall be two days and a night; nevertheless the night shall not be darkened; and it shall be the night before he is born.

And behold, there shall a new star arise, such an one as ye never have beheld; and this also shall be a sign unto you.

And behold this is not all, there shall be many signs and wonders in heaven.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ye shall all be amazed, and wonder, insomuch that ye shall fall to the earth.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believe on the Son of God, the same shall have everlasting life.

And behold, thus hath the Lord commanded me, by his angel, that I should come and tell this thing unto you; yea, he hath commanded that I should prophesy these things unto you; yea, he hath said unto me: Cry unto this people, repent an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 10 이제 내가 레이만인으로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너희에게 엄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노하여 나를 멸하기를 구하며, 나를 너희 중에서 쫓아 내었도다.
- 11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성의 성벽 위에 올라왔음이니, 곧 너희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듣고 알게 하며, 또한 너희로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하리라.
- 12 또한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너희로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하여 알게 하여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 13 또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공덕을 통하여 너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 14 또 보라, 거듭 또 다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참으로 그의 죽으심의 표적이라.
- 15 이는 보라,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 그가 정녕 죽으셔야만 함이니, 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불가결한 것이 됨이라.
- 16 참으로 보라, 이 죽으심이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망—저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나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 17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 18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매,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

And now, because I am a Lamanite, and have spoken unto you the words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me, and because it was hard against you, ye are angry with me and do seek to destroy me, and have cast me out from among you.

And ye shall hear my words, for, for this intent have I come up upon the walls of this city, that ye might hear and know of the judgments of God which do await you because of your iniquities, and also that ye might know the conditions of repentance;

And also that ye might know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Father of heaven and of earth, the Creator of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and that ye might know of the signs of his coming, to the intent that ye might believe on his name.

And if ye believe on his name ye will repent of all your sins, that thereby ye may have a remission of them through his merits.

And behold, again, another sign I give unto you, yea, a sign of his death.

For behold, he surely must die that salvation may come; yea, it behooveth him and becometh expedient that he dieth, to bring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thereby men may be brought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Yea, behold, this death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and redeemeth all mankind from the first death—that spiritual death; for all mankind, by the fall of Adam being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re considered as dead, both as to things temporal and to things spiritual.

But behold, the resurrection of Christ redeemeth mankind, yea, even all mankind, and bringeth them back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Yea, and it bringeth to pass the condition of repentance, that whosoever repenteth the same is not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but whosoever repenteth no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and there cometh upon them again a spiritual death, yea, a second death, for they are cut off again as to things pertaining to righteousness.

- 19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두렵건대 이러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정죄 아래에 들고,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 하노라.
- 20 그러나 보라, 내가 또 다른 표적, 곧 그의 죽음의 표적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보라, 그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날에 해가 어두워져서 너희에게 그 빛 발하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과 별들도 그러하리니, 곧 그가 죽음을 당하실 때로부터 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이 땅 위에는 빛이 없으리라.
- 21 참으로 그가 영혼을 버리실 때에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떨 것이며, 이 지면에 있으며 땅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 너희가 지금 알기로 단단하며 곧 그 대부분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인 바위들이 깨어질 것이라.
- 22 참으로 그것들이 둘로 갈라져서, 이후로는 언제까지나 온 지면에, 참으로 땅 위에나 아래에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과 깨진 조각들이 보이리라.
- 23 또 보라, 큰 태풍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산들이 낮아져서 골짜기처럼 될 것이며, 지금 골짜기라 일컫는 많은 곳들이 높이가 큰 산들이 될 것이니라.
- 24 또 많은 대로가 깨뜨려지고, 많은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 25 또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많이 내어 놓을 것인즉, 이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리라.
- 26 또 보라, 이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였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라 하였더라.
- 27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와 또 태풍이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지면을 덮을 것이라 하였더라.

Therefore repent ye, repent ye, lest by knowing these things and not doing them ye shall suffer yourselves to come under condemnation, and ye are brought down unto this second death.

But behold, as I said unto you concerning another sign, a sign of his death, behold, in that day that he shall suffer death the sun shall be darkened and refuse to give his light unto you; and also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re shall be no light upon the face of this land, even from the time that he shall suffer death, for the space of three days, to the time that he shall rise again from the dead.

Yea, at the time that he shall yield up the ghost there shall be thunderings and lightnings for the space of many hours, and the earth shall shake and tremble; and the rocks which are upon the face of this earth, which are both above the earth and beneath, which ye know at this time are solid, or the more part of it is one solid mass, shall be broken up;

Yea, they shall be rent in twain, and shall ever after be found in seams and in cracks, and in broken fragments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yea, both above the earth and beneath.

And behold, there shall be great tempests, and there shall be many mountains laid low, like unto a valley, and there shall be many places which are now called valleys which shall become mountains, whose height is great.

And many highways shall be broken up, and many cities shall become desolate.

And many graves shall be opened, and shall yield up many of their dead; and many saints shall appear unto many.

And behold, thus hath the angel spoken unto me; for he said unto me that there should be thunderings and lightnings for the space of many hours.

And he said unto me that while the thunder and the lightning lasted, and the tempest, that these things should be, and that darkness should c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or the space of three days.

28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니, 이는 이러한 표적들과 이러한 기사들이 이 온 땅 위에 이를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하려 함이요—

29 또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만일 그들이 정죄 받으면 그들은 자기의 정죄를 자초함 이니라.

30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31 그가 너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너희에게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게 하여 주셨은즉, 너희는 선을 행하여 선한 바로 회복될 수 있으며, 또는 선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악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도 있느니라.

And the angel said unto me that many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to the intent that they might believe that these signs and these wonders should come to pass upon all the face of this land, to the intent that there should be no cause for unbelief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this to the intent that whosoever will believe might be saved, and that whosoever will not believe, a righteous judgment might come upon them; and also if they are condemned they bring upon themselves their own condemnation.

And now remember, remember, my brethren, that whosoever perisheth, perisheth unto himself; and whosoever doeth iniquity, doeth it unto himself; for behold, ye are free; ye are permitted to act for yourselves; for behold, God hath given unto you a knowledge and he hath made you free.

He hath given unto you that ye might know good from evil, and he hath given unto you that ye might choose life or death; and ye can do good and be restored unto that which is good, or have that which is good restored unto you; or ye can do evil, and have that which is evil restored unto you.

## 힐라맨서 15

- 1 그런즉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 2 참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여자들이 젖을 먹일 날에 크게 애통할 까닭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도망하려 하여도 피난처가 없을 것임이요, 또 아이를 가진 이들에게 화 있을지니, 이는 저희가 무거워 도망할 수 없으므로 짓밟히고 버려진 바 되어 멸망할 것임이니라.
- 3 참으로 니파이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에게 보여질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보라, 그들이 주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었음이라. 참으로 니파이 백성을 그가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그가 징계하셨으니, 참으로 그들의 죄악의 날에 그가 그들을 징계하셨음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연고라.
- 4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레이맨인들은 그가 미워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끊임없이 악하였던 연고요, 또 이는 그들 조상의 전통의 불의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의 전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러한 의도로 주께서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셨느니라.
- 5 또 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좇아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고 있음을 너희가 보기 원하노라.
- 6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 많은 자가 날마다 그들의 수에 더하여지고 있느니라.

## Helaman 15

And now, my beloved brethren, behold, I declare unto you that except ye shall repent your houses shall be left unto you desolate.

Yea, except ye repent, your women shall have great cause to mourn in the day that they shall give suck; for ye shall attempt to flee and there shall be no place for refuge; yea, and wo unto them which are with child, for they shall be heavy and cannot flee; therefore, they shall be trodden down and shall be left to perish.

Yea, wo unto this people who are called the people of Nephi except they shall repent, when they shall see all these signs and wonders which shall be showed unto them; for behold, they have been a chosen people of the Lord; yea, the people of Nephi hath he loved, and also hath he chastened them; yea, in the days of their iniquities hath he chastened them because he loveth them.

But behold my brethren, the Lamanites hath he hated because their deeds have been evil continually, and this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But behold, salvation hath come unto them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Nephites; and for this intent hath the Lord prolonged their days.

And I would that ye should behold that the more part of them are in the path of their duty, and they do walk circumspectly before God, and they do observe to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and his judgments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Yea, I say unto you, that the more part of them are doing this, and they are striving with unwearied diligence that they may bring the remainder of their brethren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erefore there are many who do add to their numbers daily.

7 또 보라, 너희가 목격하였으므로 너희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그들 중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그 조상들의 간악하고 가증한 전통에 대해 알게 되고, 거룩한 경전, 참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이르게 하며, 그 신앙과 회개가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도록 인도된 자마다—

8 그런즉 이에 이른 자마다,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9 또한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들은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묻어 버렸으며,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하여, 전쟁 무기 들기를 두려워하나니, 참으로 너희는 그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함을 볼 수 있느니라—이는 보라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밟히고 죽임 당함을 스스로 감수하고자 하며, 그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칼을 들고자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라.

10 또 이제 그들이 그 믿는 바 그 일을 믿을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저 그들이 한 번 비침을 받았을 때 그 굳건함으로 인하여, 보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시리니—

11 참으로 그들이 설혹 믿지 않음에 빠져들지라도 우리 조상들과 또한 선지자 지노스와 그 밖의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다 시금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될 것에 관하여 말한 때가 이르기까지 주께서는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시리라—

12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에 주의 약속이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이르렀은즉, 그들이 받을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면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수색되며, 치심을 입고 널리 흩어지며,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And behold, ye do know of yourselves, for ye have witnessed it, that as many of them as ar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to know of the wicked and abominabl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and are led to believe the holy scriptures, yea, the prophecies of the holy prophets, which are written, which leadeth them to faith on the Lord, and unto repentance, which faith and repentance bringeth a change of heart unto them—

Therefore, as many as have come to this, ye know of yourselves are firm and steadfast in the faith, and in the thing wherewith they have been made free.

And ye know also that they have buried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fear to take them up lest by any means they should sin; yea, ye can see that they fear to sin—for behold they will suffer themselves that they be trodden down and slain by their enemies, and will not lift their swords against them, and this because of their faith in Christ.

And now, because of their steadfastness when they do believe in that thing which they do believe, for because of their firmness when they are once enlightened, behold, the Lord shall bless them and prolong their days, notwithstanding their iniquity—

Yea, even if they should dwindle in unbelief the Lord shall prolong their days, until the time shall come which hath been spoken of by our fathers, and also by the prophet Zenos, and many other prophet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our brethren, the Lamanites, again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Yea, I say unto you, that in the latter times the promises of the Lord have been extended to our brethren, the Lamanites; and notwithstanding the many afflictions which they shall have, and notwithstanding they shall be driven to and fro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be hunted, and shall be smitten and scattered abroad, having no place for refuge, the Lord shall be merciful unto them.

- 13 이것은 그들이 또다시 참된 지식, 곧 그들의 구속주시오 그들의 크고 참되신 목자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 그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에 따른 것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보다 그들이 더 나으리라.
- 15 이는 보라, 너희에게 보이신 능한 일들을 그들에게, 참으로 그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에 빠져든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너희 스스로 알 수 있거니와 그들이 결코 다시 믿지 않음에 빠져들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라.
- 16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의 날에 그들로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17 또 이제 보라, 니파이인 백성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회개하여 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많은 능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또한 주께서 사십같이 정녕 이 일들이 있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And this is according to the prophecy, that they shall again be brought to the true knowledge, which is the knowledge of their Redeemer, and their great and true shepherd, and be numbered among his sheep.

Therefore I say unto you, it shall be better for them than for you except ye repent.

For behold, had the mighty works been shown unto them which have been shown unto you, yea, unto them who have dwindled in unbelief because of the traditions of their fathers, ye can see of yourselves that they never would again have dwindled in unbelief.

Therefore, saith the Lord: I will not utterly destroy them, but I will cause that in the day of my wisdom they shall return again unto me, saith the Lord.

And now behold, saith the Lord, concerning the people of the Nephites: If they will not repent, and observe to do my will, I will utterly destroy them, saith the Lord, because of their unbelief notwithstanding the many mighty works which I have done among them; and as surely as the Lord liveth shall these things be, saith the Lord.

## 힐라맨서 16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사무엘이 성벽 위에서 한 말을 들은 자가 많더라. 이에 그의 말을 믿은 자들이 다 나아가서 니파이를 찾았고, 저들이 나아와 그를 발견하매 그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침례 받기를 원하였더라.
- 2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에게 노하였더라. 이에 성벽 위에 있는 그에게 돌을 던졌고, 또한 많은 자들이 성벽 위에서 서 있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더라. 그러나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살로 그를 맞히지 못하더라.
- 3 이제 그들이 그를 맞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니, 이에 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니파이에게로 떠나갔더라.
- 4 이는 보라, 니파이가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예언하며, 가르침을 베풀고, 회개를 외치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백성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있었음이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 5 또 그가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 일들이 이를 때에, 그 일들이 그들에게 미리 알린 바 되었음을, 그들로 알고 기억하게 하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을 믿은 자들은 모두 침례 받기 위하여 그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들은 와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더라.
- 6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살로는 그를 맞힐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의 대장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 놈을 잡아 결박하라. 이는 보라, 그가 귀신 들렸음이니,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돌이나 우리의 화살로 그를 맞힐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를 잡아 결박하여 그를 없이하라 하였더라.

## Helaman 1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who heard the words of Samuel, the Lamanite, which he spake upon the walls of the city. And as many as believed on his word went forth and sought for Nephi; and when they had come forth and found him they confessed unto him their sins and denied not, desiring that they might be baptized unto the Lord.

But as many as there were who did not believe in the words of Samuel were angry with him; and they cast stones at him upon the wall, and also many shot arrows at him as he stood upon the wall; but the Spirit of the Lord was with him, insomuch that they could not hit him with their stones neither with their arrows.

Now when they saw that they could not hit him, there were many more who did believe on his words, insomuch that they went away unto Nephi to be baptized.

For behold, Nephi was baptizing, and prophesying, and preaching, crying repentance unto the people, showing signs and wonders, working miracles among the people, that they might know that the Christ must shortly come—

Telling them of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that they might know and remember at the time of their coming that they had been made known unto them beforehand, to the intent that they might believe; therefore as many as believed on the words of Samuel went forth unto him to be baptized, for they came repenting and confessing their sins.

But the more part of them did not believe in the words of Samuel; therefore when they saw that they could not hit him with their stones and their arrows, they cried unto their captains, saying: Take this fellow and bind him, for behold he hath a devil; and because of the power of the devil which is in him we cannot hit him with our stones and our arrows; therefore take him and bind him, and away with him.



- 7 이에 그들이 나아가 그 손을 그에게 대려 하매, 보라, 그가 성벽에서 몸을 아래로 던져 그들 땅을 벗어나 도망하여, 바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동족 가운데서 전파하며 예언하기 시작하였더라.
- 8 이에 보라, 니파이인들이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듣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제반사가 이러하였더라.
- 9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 팔십육년이 끝났느니라.
- 10 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십칠년도 끝났으니, 백성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교만과 간악함 중에 있었으며, 소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중히 행하였더라.
- 11 또 판사 치세 제팔십팔년에도 형편이 이러하였더라.
- 12 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십구년에도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더욱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행하기 시작한 것 외에는 백성들의 제반사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더라.
- 13 그러나 판사 치세 제구십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큰 표적과 기사가 백성에게 주어지고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더라.
- 14 또 천사들이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매, 이 해에 경전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니라.
- 15 그럼에도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을 가리지 않고 신앙이 지극한 자들 외에는 모든 백성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하며, 그들 스스로의 힘과 그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 16 것처럼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그들이 옳게 알아맞혔을지 모르나, 보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이 말한 이 크고 기이한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느니라 하였더라.
- 17 또 그들이 그들끼리 의논하며 쟁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And as they went forth to lay their hands on him, behold, he did cast himself down from the wall, and did flee out of their lands, yea, even unto his own country, and began to preach and to prophesy among his own people.

And behold, he was never heard of more among the Nephites; and thus were the affairs of the people.

And thus ended the eighty and six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d also the eighty and seve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 more part of the people remaining in their pride and wickedness, and the lesser part walking more circumspectly before God.

And these were the conditions also, in the eighty and eigh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And there was but little alteration in the affairs of the people, save it were the people began to be more hardened in iniquity, and do more and more of that which was contrary to the commandments of God, in the eighty and nin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But it came to pass in the nine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there were great signs given unto the people, and wonders; and the words of the prophets began to be fulfilled.

And angels did appear unto men, wise men, and did declare unto them glad tidings of great joy; thus in this year the scriptures began to be fulfilled.

Nevertheless, the people began to harden their hearts, all save it were the most believing part of them, both of the Nephites and also of the Lamanites, and began to depend upon their own strength and upon their own wisdom, saying:

Some things they may have guessed right, among so many; but behold, we know that all these great and marvelous works cannot come to pass, of which has been spoken.

And they began to reason and to contend among themselves, saying:

18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닿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러하고, 그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일진대,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19 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렘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20 그러나 보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먼 원방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루어질 어떤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간악한 전통임을 아노니,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가두어 둘 수 있음은, 그 일의 참됨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없음이니라.

21 또 그들은 저 악한 자의 간교함과 불가사의한 술수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불가사의를 이름으로, 계속하여 우리로 그들의 말을 좇는 종이 되게 하며 또한 그들을 좇는 종이 되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음이라. 또 우리가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맡길진대, 그들이 우리의 평생에 이같이 우리를 무지함 속에 가두어 두리라 하였더라.

22 또 이외에도 백성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을 그 마음에 많이 상상해 내었으며, 또 그들이 많이 평온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탄이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충동하였음이라. 참으로 그가 두루 다니며 온 지면에 소문과 분쟁을 퍼뜨렸으니, 이는 그가 선한 일과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23 또 주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들과 또 그들이 행한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온 지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더라.

24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십년이 끝났느니라.

25 이에 이같이 헬라맨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의한 헬라맨서가 끝났느니라.

That it is not reasonable that such a being as a Christ shall come; if so, and he be the Son of God, the Father of heaven and of earth, as it has been spoken, why will he not show himself unto us as well as unto them who shall be at Jerusalem?

Yea, why will he not show himself in this land as well as in the land of Jerusalem?

But behold, we know that this is a wicked tradition, which has been handed down unto us by our fathers, to cause us that we should believe in some great and marvelous thing which should come to pass, but not among us, but in a land which is far distant, a land which we know not; therefore they can keep us in ignorance, for we cannot witness with our own eyes that they are true.

And they will, by the cunning and the mysterious arts of the evil one, work some great mystery which we cannot understand, which will keep us down to be servants to their words, and also servants unto them, for we depend upon them to teach us the word; and thus will they keep us in ignorance if we will yield ourselves unto them, all the days of our lives.

And many more things did the people imagine up in their hearts, which were foolish and vain; and they were much disturbed, for Satan did stir them up to do iniquity continually; yea, he did go about spreading rumors and contentions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that he might harden the hearts of the people against that which was good and against that which should come.

And notwithstanding the signs and the wonders which were wrought among the people of the Lord, and the many miracles which they did, Satan did get great hold upon the hearts of the people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us ended the ninetieth year of the reign of the judges over the people of Nephi.

And thus ended the book of Helaman, according to the record of Helaman and his sons.

## 제 3 니파이

### 니파이서

니파이는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또 힐라맨은 엘마의 아들인 힐라맨의 아들이요, 엘마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치세 첫해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의 후예인 엘마의 아들이었더라.

### 제 3 니파이 1

-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일년이 지나갔고, 때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이 되는 때이었으며, 레이코니우스가 그 땅의 대판사요 통치자로 있던 해였더라.
- 2 그리고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면서, 그의 장자인 그의 아들 니파이에게 놋쇠판과 기록되어 온 모든 기록과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거룩하게 보존되어 온 모든 것을 맡겼었더라.
- 3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땅을 떠났으되,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 없으며, 그의 아들 니파이가 그 대신에 기록 곧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였느니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이년 초에, 보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백성 가운데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이라.
- 5 그러나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이 더러 있더라.
- 6 이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기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 하더라.

## Third Nephi

### The Book of Nephi

the Son of Nephi, Who Was the Son of Helaman

*And Helaman was the son of Helaman, who was the son of Alma, who was the son of Alma, being a descendant of Nephi who was the son of Lehi, who came out of Jerusalem in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Zedekiah, the king of Judah.*

### 3 Nephi 1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ninety and first year had passed away and it was six hundred years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and it was in the year that Lachoneus was the chief judge and the governor over the land.

And Nephi, the son of Helaman, had departed out of the land of Zarahemla, giving charge unto his son Nephi, who was his eldest son, concerning the plates of brass, and all the records which had been kept, and all those things which had been kept sacred from the departure of Lehi out of Jerusalem.

Then he departed out of the land, and whither he went, no man knoweth; and his son Nephi did keep the records in his stead, yea, the record of t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commencement of the ninety and second year, behold, the prophecies of the prophets began to be fulfilled more fully; for there began to be greater signs and greater miracles wrought among the people.

But there were some who began to say that the time was past for the words to be fulfilled, which were spoken by Samuel, the Lamanite.

And they began to rejoice over their brethren, saying: Behold the time is past, and the words of Samuel are not fulfilled; therefore, your joy and your faith concerning this thing hath been vain.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라, 믿는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 근심하기 시작하더라.
- 8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굳건하게 살폈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자 하였더라.
- 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날을 구별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진대 그 전통을 믿는 모든 자를 다 죽이기로 하였더라.
- 1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자기 백성의 이 간악함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슬펐던지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백성, 곧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멸망당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날 종일토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매,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13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 14 보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 모든 것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아울러 행하기 위함이니—아버지의 뜻이라 함은 나로 인함이요, 아들의 뜻이라 함은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라. 이에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지리라 하시니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에게 임한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보라 해가 저도 어둡지 아니함이라, 이에 백성들은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아니하므로 놀라기 시작하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make a great uproar throughout the land; and the people who believed began to be very sorrowful, lest by any means those things which had been spoken might not come to pass.

But behold, they did watch steadfastly for that day and that night and that day which should be as one day as if there were no night, that they might know that their faith had not been vain.

Now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a day set apart by the unbelievers, that all those who believed in those traditions should be put to death except the sign should come to pass, which had been given by Samuel the prophet.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Nephi, the son of Nephi, saw this wickedness of his people, his heart was exceedingly sorrowful.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ent out and bowed himself down upon the earth, and cried mightily to his God in behalf of his people, yea, those who were about to be destroyed because of their faith in the tradition of their father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ried mightily unto the Lord all that day; and behold,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him, saying:

Lift up your head and be of good cheer; for behold, the time is at hand, and on this night shall the sign be given, and on the morrow come I into the world, to show unto the world that I will fulfil all that which I have caused to be spoken by the mouth of my holy prophets.

Behold, I come unto my own, to fulfil all things which I have made known unto the children of m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o do the will, both of the Father and of the Son—of the Father because of me, and of the Son because of my flesh. And behold, the time is at hand, and this night shall the sign be giv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ords which came unto Nephi were fulfilled, according as they had been spoken; for behold, at the going down of the sun there was no darkness; and the people began to be astonished because there was no darkness when the night came.

16 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이는 주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르렀으므로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세운 큰 멸망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17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속히 나타나 시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요컨대 북쪽 땅에나 남쪽 땅에나 서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심히 크게 놀라 땅에 엎드려졌더라.

18 이는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증거한 것과 주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른 것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이에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 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오히려 마치 한낮인 것같이 밝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순리대로 다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주어졌던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 줄 알았더라.

20 또 참으로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더라.

21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때로부터 사탄은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그 본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대부분이 믿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또한 다른 여러 사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매, 이에 큰 죄 사함이 있었느니라. 이리하여 백성들은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더라.

And there were many, who had not believed the words of the prophets, who fell to the earth and became as if they were dead, for they knew that the great plan of destruction which they had laid for those who believed in the words of the prophets had been frustrated; for the sign which had been given was already at hand.

And they began to know that the Son of God must shortly appear; yea, in fine, all the people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rom the west to the east, both in the land north and in the land south, were so exceedingly astonished that they fell to the earth.

For they knew that the prophets had testified of these things for many years, and that the sign which had been given was already at hand; and they began to fear because of their iniquity and their unbelief.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no darkness in all that night, but it was as light as though it was mid-da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un did rise in the morning again, according to its proper order; and they knew that it was the day that the Lord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sign which had been given.

And it had come to pass, yea, all things, every whit,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it came to pass also that a new star did appear, according to the word.

And it came to pass that from this time forth there began to be lyings sent forth among the people, by Satan, to harden their hearts, to the intent that they might not believe in those signs and wonders which they had seen; but notwithstanding these lyings and deceivings the more part of the people did believe, and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went forth among the people, and also many others, baptizing unto repentance, in the which there was a great remission of sins. And thus the people began again to have peace in the land.

24 그리고 다툼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몇몇이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전으로 증명하려 한 일 뿐이었다. 이제 이 일에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경전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2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곧 돌이키게 되어 그들이 범한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는 율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졌음이라. 참으로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며, 참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일점일획이라도 없애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나니, 그리하여 이 같은 해에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그들의 과오를 고백하였더라.

26 이에 이같이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중에 제구십이년이 지나 가니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삼년도 평화로운 가운데 지나갔으되, 다만 산에 거하며 그 땅에 출몰하던 개다이앤티온 도적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거지가 심히 견고하여 백성들이 그들을 토벌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살인을 범하며 백성 가운데 많은 살육을 행하였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사년에 그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로 도망하는 니파이인 이반자들이 많이 있었음이라. 이 일은 그 땅에 남은 니파이인들에게 많은 슬픔을 초래하였더라.

29 또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많은 슬픔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에게 있는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며 점차 나이 들어 강하여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는, 몇몇 조람인들에 의해,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아침하는 말로 인해, 이 끌려 가서 저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에게 가담하였음이라.

30 또 이같이 레이맨인들도 고난을 받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의로움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라.

And there were no contentions, save it were a few that began to preach, endeavoring to prove by the scriptures that it was no more expedient to observe the law of Moses. Now in this thing they did err, having not understood the scriptures.

But it came to pass that they soon became converted, and were convinced of the error which they were in, for it was made known unto them that the law was not yet fulfilled, and that it must be fulfilled in every whit; yea, the word came unto them that it must be fulfilled; yea, that one jot or tittle should not pass away till it should all be fulfilled; therefore in this same year were they brought to a knowledge of their error and did confess their faults.

And thus the ninety and second year did pass away, bringing glad tidings unto the people because of the signs which did come to pass,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all the holy prophe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inety and third year did also pass away in peace, save it were for the Gadianton robbers, who dwelt upon the mountains, who did infest the land; for so strong were their holds and their secret places that the people could not overpower them; therefore they did commit many murders, and did do much slaughter among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ninety and fourth year they began to increase in a great degree, because there were many dissenters of the Nephites who did flee unto them, which did cause much sorrow unto those Nephites who did remain in the land.

And there was also a cause of much sorrow among the Lamanites; for behold, they had many children who did grow up and began to wax strong in years, that they became for themselves, and were led away by some who were Zoramites, by their lyings and their flattering words, to join those Gadianton robbers.

And thus were the Lamanites afflicted also, and began to decrease as to their faith and righteousness,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rising generation.

### 제 3 니파이 2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제구십오년도 지나갔고,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더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하여—
- 2 그 마음에 어떤 헛된 것을 상상하기를,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또 악마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사탄이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의 교리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게 하였더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간악함과 가증함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여, 표적이나 기사가 더 이상 주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사탄은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간악함을 행하게 하였더라.
- 4 이같이 제구십육년이 지나갔고, 제구십칠년도 그러하였으며, 제구십팔년도 그러하였으며, 제구십구년도 그러하였더라.
- 5 이에 니파이 백성의 왕이었던 모사이야의 시대 이래로 백 년이 지나갔더라.
- 6 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로는 육백구 년이 지나갔더라.
- 7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표적이 주어진 때로부터는 구 년이 지나갔느니라.
- 8 이제 니파이인들은 표적이 주어진 이 시기,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그들의 때를 세기 시작하였나니 그러므로 구 년이 지나갔느니라.
- 9 그리고 기록을 맡은 니파이의 부친인 니파이는 제이라헤플라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더라.

### 3 Nephi 2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passed away the ninety and fifth year also, and the people began to forget those signs and wonders which they had heard, and began to be less and less astonished at a sign or a wonder from heaven, insomuch that they began to be hard in their hearts, and blind in their minds, and began to disbelieve all which they had heard and seen—

Imagining up some vain thing in their hearts, that it was wrought by men and by the power of the devil, to lead away and deceive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thus did Satan get possession of the hearts of the people again, insomuch that he did blind their eyes and lead them away to believe that the doctrine of Christ was a foolish and a vain th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began to wax strong in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they did not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ny more signs or wonders given; and Satan did go about, leading away the hearts of the people, tempting them and causing them that they should do great wickedness in the land.

And thus did pass away the ninety and sixth year; and also the ninety and seventh year; and also the ninety and eighth year; and also the ninety and ninth year;

And also an hundred years had passed away since the days of Mosiah, who was king over the people of the Nephites.

And six hundred and nine years had passed away since Lehi left Jerusalem.

And nine years had passed away from the time when the sign was given, which was spoken of by the prophets, that Christ should come into the world.

Now the Nephites began to reckon their time from this period when the sign was given, or from the coming of Christ; therefore, nine years had passed away.

And Nephi, who was the father of Nephi, who had the charge of the records, did not return to the land of Zarahemla, and could nowhere be found in all the land.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이 그들 중에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고, 제십년도 이같이 지나갔으며, 제십일년도 죄악 가운데 지나가니라.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삼년에 온 땅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이 심히 많아져서, 백성을 심히 많이 죽이고, 심히 많은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온 땅에 심히 많은 죽음과 큰 살육을 만연시키므로,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생겼음이라.

12 이리하여 주께로 돌이킨 모든 레이맨인들이 다 그 형제인 니파이인들과 연합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교회의 특권과 그들의 예배의 특권과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지키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이 저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삼년이 지나기 전에 니파이인들은 심히 치열하였던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온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과 연합한 그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15 또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져 그들의 피부가 니파이인들처럼 희게 되었더라.

16 그리고 그들의 청년들과 그들의 딸들은 심히 아름다워졌으며, 그들은 니파이인 가운데 헤아림을 받고,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같이 제십삼년이 끝났느니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사년 초에, 도적들과 니파이 백성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심히 치열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 백성들이 도적들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였던지라, 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산과 그들의 은신처로 몰아 내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did still remain in wickedness, notwithstanding the much preaching and prophesying which was sent among them; and thus passed away the tenth year also; and the eleventh year also passed away in iniquity.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irteenth year there began to be wars and contentions throughout all the land; for the Gadianton robbers had become so numerous, and did slay so many of the people, and did lay waste so many cities, and did spread so much death and carnage throughout the land, that it became expedient that all the people, both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should take up arms against them.

Therefore, all the Lamanites who had become converted unto the Lord did unite with their brethren, the Nephites, and were compelled, for the safety of their lives and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to take up arms against those Gadianton robbers, yea, and also to maintain their rights, and the privileges of their church and of their worship, and their freedom and their liberty.

And it came to pass that before this thirteenth year had passed away the Nephites were threatened with utter destruction because of this war, which had become exceedingly sore.

And it came to pass that those Lamanites who had united with the Nephites were numbered among the Nephites;

And their curse was taken from them, and their skin became white like unto the Nephites;

And their young men and their daughters became exceedingly fair, and they were numbered among the Nephites, and were called Nephites. And thus ended the thirteenth year.

And it came to pass in the commencement of the fourteenth year, the war between the robbers and the people of Nephi did continue and did become exceedingly sore; nevertheless, the people of Nephi did gain some advantage of the robbers, insomuch that they did drive them back out of their lands into the mountains and into their secret places.



18 또 이같이 제십사년이 끝났느니라. 그리고 제십오년에 그들이 니파이 백성을 치러 나아왔는데, 니파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많은 분쟁과 불화로 인하여, 개다이앤티톤 도적들이 그들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니라.

19 이같이 제십오년이 끝나고, 이같이 백성들은 많은 고난의 상태에 처하였으며, 멸망의 칼이 그들 위에 걸린지라, 바야흐로 그들이 이로써 치심을 입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일은 곧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And thus ended the fourteenth year. And in the fifteenth year they did come forth against the people of Nephi; and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of Nephi, and their many contentions and dissensions, the Gadianton robbers did gain many advantages over them.

And thus ended the fifteenth year, and thus were the people in a state of many afflictions; and the sword of destruction did hang over them, insomuch that they were about to be smitten down by it, and this because of their iniquity.

### 제 3 니파이 3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부터 제십육년에 그 땅의 통치자 레이코니우스가, 도적단의 지도자요 수령인 자로부터 서한을 받았는데 그 쓴 말이 이러하였으니, 곧 이르기를,
- 2 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의 으뜸 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여, 보라,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권리와 자유라 생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건함과 그대의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하여 심히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리노니, 참으로 그대들은, 마치 어떤 신의 손으로 지지를 받고 있거나 한 것처럼, 그대들의 자유와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의 나라 곧 그대들이 그렇게 일컫는 바를 잘 지키는도다.
- 3 그러나 지극히 고귀한 레이코니우스여, 그대가 내 명령을 받드는 그 많은 용감한 병사들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처럼 어리석고 허황되다니 나의 보기에 가련한 일이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무장을 갖추고—내려가 니파이인들을 엄습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는 말을 큰 열망을 지니고 기다리고 있다.
- 4 또 나는 그들의 불굴의 투지를 알고 있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시험하였으며, 그대들이 그들에게 행한 많은 부당함으로 인하여 그대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바 그들의 영원한 증오를 알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대들을 치러 내려간다면 그대들을 온전히 멸하리다.
- 5 그러므로 내가 이 서한을 쓰고,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은, 그대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굳건함과 싸움터에서 보인 그대들의 고귀한 정신으로 인함이라.
- 6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쓰노니, 나의 백성이 칼로 그대들을 엄습하여 멸망이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대들이 나의 이 백성들에게 그대들의 성읍과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바치기를 원하노라.
- 7 곧 달리 말하자면 그대들 스스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은밀한 일을 익히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처럼 되라—결코 우리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모든 재산의 동업자가 되라.

### 3 Nephi 3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n the sixteenth year from the coming of Christ, Lachoneus, the governor of the land, received an epistle from the leader and the governor of this band of robbers; and these were the words which were written, saying:

Lachoneus, most noble and chief governor of the land, behold, I write this epistle unto you, and do give unto you exceedingly great praise because of your firmness, and also the firmness of your people, in maintaining that which ye suppose to be your right and liberty; yea, ye do stand well, as if ye were supported by the hand of a god, in the defence of your liberty, and your property, and your country, or that which ye do call so.

And it seemeth a pity unto me, most noble Lachoneus, that ye should be so foolish and vain as to suppose that ye can stand against so many brave men who are at my command, who do now at this time stand in their arms, and do await with great anxiety for the word—Go down upon the Nephites and destroy them.

And I, knowing of their unconquerable spirit, having proved them in the field of battle, and knowing of their everlasting hatred towards you because of the many wrongs which ye have done unto them, therefore if they should come down against you they would visit you with utter destruction.

Therefore I have written this epistle, sealing it with mine own hand, feeling for your welfare, because of your firmness in that which ye believe to be right, and your noble spirit in the field of battle.

Therefore I write unto you, desiring that ye would yield up unto this my people, your cities, your lands, and your possessions, rather than that they should visit you with the sword and that destruction should come upon you.

Or in other words, yield yourselves up unto us, and unite with us and become acquainted with our secret works, and become our brethren that ye may be like unto us—not our slaves, but our brethren and partners of all our substance.

8 또 보라,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아니면,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내달에는 내가 명하여 나의 군대로 하여금 그대들을 치러 내려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대들을 도륙할 것이요, 또한 그대들이 멸절하기까지 그 칼로 그대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9 또한 보라, 나는 길디안하이요, 이 개다이엔톤 비밀 단체의 통치자라. 이 단체와 그 행하는 바는 내가 알기로 선한 것이요, 이는 오래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라.

10 그리고 레이코니우스여,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또 바라노니 그대들은 피 흘림이 없이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넘겨주어, 나의 이 백성이 그들의 권리와 정권을 회복하게 하라. 그들은 그대들이 간악하게도 그들의 다스릴 권리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대들에게서 이탈해 나온 자니, 그대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의 부당함을 갚아주리로다. 나는 길디안하이니라.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코니우스가 이 서한을 받고 심히 놀랐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의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길디안하이의 대담함과 또한 백성들을 위협하며 아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부당함을 갚겠다 하는 대담함으로 인함이니, 그들은 오직 저 간악하고 가증한 도적들에게로 이탈해 감으로써 스스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것이었더라.

12 이제 보라, 이 레이코니우스 통치자는 의인이었고, 일개 도적의 요구와 위협에 놀랄 자가 아니었으므로, 도적들의 수령인 길디안하이의 서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이 그들을 치러 올 때를 대비하여 주께 부르짖게 하였더라.

And behold, I swear unto you, if ye will do this, with an oath, ye shall not be destroyed; but if ye will not do this, I swear unto you with an oath, that on the morrow month I will command that my armies shall come down against you, and they shall not stay their hand and shall spare not, but shall slay you, and shall let fall the sword upon you even until ye shall become extinct.

And behold, I am Giddianhi; and I am the governor of this the secret society of Gadianton; which society and the works thereof I know to be good; and they are of ancient date and they have been handed down unto us.

And I write this epistle unto you, Lachoneus, and I hope that ye will deliver up your lands and your possessions,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at this my people may recover their rights and government, who have dissented away from you because of your wickedness in retaining from them their rights of government, and except ye do this, I will avenge their wrongs. I am Giddianhi.

And now it came to pass when Lachoneus received this epistle he was exceedingly astonished, because of the boldness of Giddianhi demanding the possession of the land of the Nephites, and also of threatening the people and avenging the wrongs of those that had received no wrong, save it were they had wronged themselves by dissenting away unto those wicked and abominable robbers.

Now behold, this Lachoneus, the governor, was a just man, and could not be frightened by the demands and the threatenings of a robber; therefore he did not hearken to the epistle of Giddianhi, the governor of the robbers, but he did cause that his people should cry unto the Lord for strength against the time that the robbers should come down against them.

13 참으로 그는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 및 그들의 땅을 제외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곳으로 함께 모으게 하였더라.

14 또 그들 주위로 방어시설을 구축하며 그 견고함이 심히 커지도록 하였더라. 또 그는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군대, 곧 니파이인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모든 자들의 군대를 수비대로 주위에 배치하여 그들을 살피게 하고, 주야로 그들을 도적들로부터 지키게 하였더라.

15 참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한, 너희가 결코 저 개다이엔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입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16 이에 레이코니우스의 말과 예언이 심히 크고 놀라워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되니라, 그들이 레이코니우스의 말대로 행하고자 그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코니우스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군대에 총대장들을 임명하여, 도적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러 내려올 때 그들을 지휘하게 하였더라.

18 이제 모든 총대장들 중에서 으뜸이요 니파이인들의 전 군대의 총사령관이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기드긴도나이더라.

19 이제 모든 니파이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간악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시와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닌 어떠한 자를 그들의 총대장들로 임명하는 것이 관습이었나니, 그러므로 이 기드긴도나이는 대판사가 또한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들 중의 한 큰 선지자였더라.

20 이제 백성들이 기드긴도나에게 말하기를,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산과 광야로 올라가서 도적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Yea, he sent a proclamation among all the people, that they should gather together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eir substance, save it were their land, unto one place.

And he caused that fortifications should be built round about them, and the strength thereof should be exceedingly great. And he caused that armies, both of the Nephites and of the Lamanites, or of all them who were numbered among the Nephites, should be placed as guards round about to watch them, and to guard them from the robbers day and night.

Yea, he said unto them: As the Lord liveth, except ye repent of all your iniquities, and cry unto the Lord, ye will in nowise be delivered out of the hands of those Gadianon robbers.

And so great and marvelous were the words and prophecies of Lachoneus that they did cause fear to come upon all the people; and they did exert themselves in their might to do according to the words of Lachoneus.

And it came to pass that Lachoneus did appoint chief captains over all the armies of the Nephites, to command them at the time that the robbers should come down out of the wilderness against them.

Now the chiefest among all the chief captains and the great commander of all the armies of the Nephites was appointed, and his name was Gidgiddoni.

Now it was the custom among all the Nephites to appoint for their chief captains, (save it were in their times of wickedness) some one that had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also prophecy; therefore, this Gidgiddoni was a great prophet among them, as also was the chief judge.

Now the people said unto Gidgiddoni: Pray unto the Lord, and let us go up upon the mountains and into the wilderness, that we may fall upon the robbers and destroy them in their own lands.

21 그러나 기드긴도나이가 저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 갈진대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 한가운데서 스스로 예비하며, 우리의 모든 군대를 함께 모은 다음, 그들을 치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사심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주는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칠년 말미에, 레이코니우스의 포고가 그 땅 온 지면에 두루 나아가매, 그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육축과 그들의 모든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소유를 취하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행군해 나아가 이윽고 그들의 적에게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로 정해진 장소로 나아갔더라.

23 그리고 정해진 땅은 제이라헤믈라 땅 및 제이라헤믈라 땅과 풍요 땅 사이에 있는 땅으로써, 곧 풍요 땅과 황무 땅 사이의 경계선까지더라.

24 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로서 그 땅에 함께 모인 백성이 심히 많았더라. 이제 레이코니우스는 북방 땅에 임한 큰 저주로 인하여 이들을 남방 땅에 함께 모이게 하였더라.

25 이에 그들이 그들의 적을 대항하여 스스로 방비를 강화하고, 한 땅에서 한 무리가 되어 거하였고, 레이코니우스가 한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으며, 그들의 적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내려올 때, 그들을 건져 주시도록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

26 또 그들은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이에 기드긴도나이는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가 지시하는 방식을 좇아 갑주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게 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였더라.

But Gidgiddoni saith unto them: The Lord forbid; for if we should go up against them the Lord would deliver us into their hands; therefore we will prepare ourselves in the center of our lands, and we will gather all our armies together, and we will not go against them, but we will wait till they shall come against us; therefore as the Lord liveth, if we do this he will deliver them into our hands.

And it came to pass in the seventeenth year, in the latter end of the year, the proclamation of Lachoneus had gone forth throughout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ey had taken their horses, and their chariots, and their cattle, and all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their grain, and all their substance, and did march forth by thousands and by tens of thousands, until they had all gone forth to the place which had been appointed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And the land which was appointed was the land of Zarahemla, and the land which was between the land Zarahemla and the land Bountiful, yea, to the line which was between the land Bountiful and the land Desolation.

And there were a great many thousand people who were called Nephites, who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in this land. Now Lachoneus did cause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in the land southward, because of the great curse which was upon the land northward.

And they did fortify themselves against their enemies; and they did dwell in one land, and in one body, and they did fear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Lachoneus, insomuch that they did repent of all their sins; and they did put up their prayers unto the Lord their God, that he would deliver them in the time that their enemies should come down against them to battle.

And they were exceedingly sorrowful because of their enemies. And Gidgiddoni did cause that they should make weapons of war of every kind, and they should be strong with armor, and with shields, and with bucklers, after the manner of his instruction.

### 제 3 니파이 4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팔년 말미에 저 도적들의 군대가 전쟁을 예비하고 작은 산들로부터 또 산들과 광야와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신처에서 내려오며 진격해 나오기 시작하여 남쪽 땅과 북쪽 땅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니파이인들이 버린 모든 땅과 황폐한 채 버린 바 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니라.
- 2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이 버린 그 땅에는 들 짐승이나 사냥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 광야를 제외하고는 도적들이 사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 3 이에 도적들은 양식이 결핍하여, 광야에서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고,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으고, 한 무리가 되어 있었음이라.
- 4 그러므로 도적들에게는, 나아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지 아니하고는, 약탈하여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니파이인들은 한 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수요가 심히 크고, 또 스스로를 위해 식량과 말과 소와 각종 양 떼를 저축한 것이 칠 년 동안 지낼 만하였으매, 이 기간에 그들이 도적들을 지면에서 멸하기를 희망하였으니, 이같이 제십팔년이 지나가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구년에 길디안하이는 니파이인들을 치러 올라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나니, 이는 약탈하고 빼앗고 살인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음이라.
- 6 또 그들은 니파이인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도륙할까 두려워하여, 곡식을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지면에 감히 퍼지지도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길디안하이는 자기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이 해에 니파이인들을 치러 올라가게 하였더라.

### 3 Nephi 4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latter end of the eighteenth year those armies of robbers had prepared for battle, and began to come down and to sally forth from the hills, and out of the mountains, and the wilderness, and their strongholds, and their secret places, and began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s, both which were in the land south and which were in the land north, and began to take possession of all the lands which had been deserted by the Nephites, and the cities which had been left desolate.

But behold, there were no wild beasts nor game in those lands which had been deserted by the Nephites, and there was no game for the robbers save it were in the wilderness.

And the robbers could not exist save it were in the wilderness, for the want of food; for the Nephites had left their lands desolate, and had gathered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eir substance, and they were in one body.

Therefore, there was no chance for the robbers to plunder and to obtain food, save it were to come up in open battle against the Nephites; and the Nephites being in one body, and having so great a number, and having reserved for themselves provisions, and horses and cattle, and flocks of every kind, that they might subsist for the space of seven years, in the which time they did hope to destroy the robbers from off the face of the land; and thus the eighteenth year did pass away.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nineteenth year Giddianhi found that it was expedient that he should go up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for there was no way that they could subsist save it were to plunder and rob and murder.

And they durst not spread themselves upon the face of the land insomuch that they could raise grain, lest the Nephites should come upon them and slay them; therefore Giddianhi gave commandment unto his armies that in this year they should go up to battle against the Nephites.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싸우러 올라왔고, 때는 유월이었으며, 보라, 그들이 싸우러 올라온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나니, 그들은 도적들의 방식을 좇아 몸에 두르되, 그 허리에는 양가죽을 둘렀으며, 몸은 피로 물들었으며, 그 머리는 밀었고, 그 위에 투구를 썼는지라, 그들의 갑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피로 물들여 있음으로 인하여 긴디안하이의 군대의 모양이 크고 두려웠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긴디안하이의 군대의 모양을 보고, 다 땅에 엎드려,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을 주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긴디안하이의 군대가 이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이인들이 저들의 군대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엎드러졌다 하였음이라.

10 그러나 이 일에 저들이 실망하였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보호를 간구하였던 것임이라. 그러므로 긴디안하이의 군대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주의 힘을 입고서 저들을 맞이하였더라.

11 이에 이 유월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실로 크고 두려웠나니, 참으로 그 살육이 실로 크고 두려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리하이의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큰 살육이 결코 있지 아니하였더라.

12 또 긴디안하이가 행한 위협과 맹세에도 불구하고, 보라, 니파이인들이 저들을 쳐서 패하게 하며, 저들이 니파이인들 앞에서 후퇴하였는지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ome up to battle; and it was in the sixth month; and behold, great and terrible was the day that they did come up to battle; and they were girded about after the manner of robbers; and they had a lamb-skin about their loins, and they were dyed in blood, and their heads were shorn, and they had head-plates upon them; and great and terrible was the appearance of the armies of Giddianhi, because of their armor, and because of their being dyed in blo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Nephites, when they saw the appearance of the army of Giddianhi, had all fallen to the earth, and did lift their cries to the Lord their God, that he would spare them and deliver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armies of Giddianhi saw this they began to shout with a loud voice, because of their joy, for they had supposed that the Nephites had fallen with fear because of the terror of their armies.

But in this thing they were disappointed, for the Nephites did not fear them; but they did fear their God and did supplicate him for protection; therefore, when the armies of Giddianhi did rush upon them they were prepared to meet them; yea,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ey did receive them.

And the battle commenced in this the sixth month; and great and terrible was the battle thereof, yea, great and terrible was the slaughter thereof, insomuch that there never was known so great a slaughter among all the people of Lehi since he left Jerusalem.

And notwithstanding the threatenings and the oaths which Giddianhi had made, behold, the Nephites did beat them, insomuch that they did fall back from before them.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긴도나이가 자기의 군대에게 명하여 멀리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을 추격하게 하고, 도중에 저들의 수중에 드는 자를 하나도 살려 두지 말게 하매, 이에 그들이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을 추격하며 저들을 도륙하였으니, 곧 기드긴도나이의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하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담대히 서서 싸우던 긴디안 하이는, 추격을 받으며 도망하다가 많이 싸웠음으로 인하여 지쳐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에 도적 긴디안하이의 마지막이 이러하였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는 그들의 안전한 장소로 되돌아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구년이 지나갔고, 도적들은 싸우러 다시 오지 아니하였으며, 제이십년에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6 그리고 제이십일년에 저들이 싸우러 올라오지는 아니하였으나, 니파이 백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자 사방으로 올라왔으니, 이는 저들 생각에 저들이 만일 니파이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면, 또 만일 그들을 그들의 모든 외부의 이점으로부터 차단한다면 저들의 원대로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으리라 하였음이라.

17 이제 저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지도자를 임명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켄나라이하더라. 그러므로 이 포위를 행하게 한 것은 바로 켄나라이하이였더라.

18 그러나 보라, 이것은 니파이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나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 비축해 둔 식량이 많았던지라, 도적들로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조급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래 포위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음이라.

19 또 도적들 중에는 식량이 부족하였음이니, 보라, 그들은 광야에서 얻은 고기, 곧 그들이 연명할 고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냥할 들짐승이 희소하여지매 도적들은 바야흐로 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Gidgiddoni commanded that his armies should pursue them as far as the borders of the wilderness, and that they should not spare any that should fall into their hands by the way; and thus they did pursue them and did slay them, to the borders of the wilderness, even until they had fulfilled the commandment of Gidgiddoni.

And it came to pass that Giddianhi, who had stood and fought with boldness, was pursued as he fled; and being weary because of his much fighting he was overtaken and slain. And thus was the end of Giddianhi the robb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Nephites did return again to their place of security. And it came to pass that this nineteenth year did pass away, and the robbers did not come again to battle; neither did they come again in the twentieth year.

And in the twenty and first year they did not come up to battle, but they came up on all sides to lay siege round about the people of Nephi; for they did suppose that if they should cut off the people of Nephi from their lands, and should hem them in on every side, and if they should cut them off from all their outward privileges, that they could cause them to yield themselves up according to their wishes.

Now they had appointed unto themselves another leader, whose name was Zemnarihah; therefore it was Zemnarihah that did cause that this siege should take place.

But behold, this was an advantage to the Nephites; for it was impossible for the robbers to lay siege sufficiently long to have any effect upon the Nephites, because of their much provision which they had laid up in store,

And because of the scantiness of provisions among the robbers; for behold, they had nothing save it were meat for their subsistence, which meat they did obtain in the wilder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ild game became scarce in the wilderness insomuch that the robbers were about to perish with hunger.



21 또 니파이인들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진군해 나가서, 그들의 적을 엄습하여 수천씩 수만씩 베더라.

22 이리하여 켈나라이하의 백성들은 밤낮으로 저들에게 임하는 큰 파멸로 인하여 저들의 계획을 버리고 물러나기를 원하게 된지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켈나라이하가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나, 북방 땅의 극한 지역으로 진군하게 하였더라.

24 이에 이제 기드긴도나이는 저들의 계획을 간파하였고, 또 양식의 결핍과 저들 가운데 행하여진 큰 살육으로 말미암은 저들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밤중에 그의 군대를 내보내어 저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저들의 퇴각로에 그의 군대를 배치하였더라.

25 또 이를 그들이 밤중에 행하여 도적들을 앞질러 행군한지라, 다음 날 도적들이 저들의 행군을 시작하였을 때, 저들은 저들의 앞과 저들의 뒤 양쪽에서 니파이인들의 군대에게 만난 바 되었더라.

26 또한 남쪽에 있던 도적들도 저들의 퇴각 장소에서 차단되었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드긴도나의 명령으로 행하여졌더라.

27 이에 니파이인들에게 항복하여 포로된 자들이 여러 수천이었고, 그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8 또 그들의 지도자 켈나라이하는 붙잡혀 나무에 달리웠으니, 곧 그가 죽기까지 그 꼭대기에 달리웠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죽기까지 매달고 나서 나무를 찍어 땅에 쓰러뜨리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29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의로움과 마음의 거룩함으로 보전하시라, 그들로 하여금 권세와 비밀 결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륙하기를 구하는 모든 자를 땅에 찍어 쓰러뜨리게 하시기를, 이 자가 땅에 찍혀 쓰러뜨림 당한 것 같게 하실 지로다 하니라.

And the Nephites were continually marching out by day and by night, and falling upon their armies, and cutting them off by thousands and by tens of thousands.

And thus it became the desire of the people of Zemnarihah to withdraw from their design, because of the great destruction which came upon them by night and by day.

And it came to pass that Zemnarihah did give command unto his people that they should withdraw themselves from the siege, and march into the furthest parts of the land northward.

And now, Gidgiddoni being aware of their design, and knowing of their weakness because of the want of food, and the great slaughter which had been made among them, therefore he did send out his armies in the night-time, and did cut off the way of their retreat, and did place his armies in the way of their retreat.

And this did they do in the night-time, and got on their march beyond the robbers, so that on the morrow, when the robbers began their march, they were met by the armies of the Nephites both in their front and in their rear.

And the robbers who were on the south were also cut off in their places of retreat. And all these things were done by command of Gidgiddoni.

And there were many thousands who did yield themselves up prisoners unto the Nephites, and the remainder of them were slain.

And their leader, Zemnarihah, was taken and hanged upon a tree, yea, even upon the top thereof until he was dead. And when they had hanged him until he was dead they did fell the tree to the earth, and did cry with a loud voice, saying:

May the Lord preserve his people in righteousness and in holiness of heart, that they may cause to be felled to the earth all who shall seek to slay them because of power and secret combinations, even as this man hath been felled to the earth.

30 또 그들이 기뻐하며 다시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호를 구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의로움 가운데 보호하시옵소서 하니라.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곧 그들을 보전하시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32 참으로 그들이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산나 하고, 또 외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 지로다 하였더라.

33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또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심을 입은 것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았더라.

And they did rejoice and cry again with one voice, saying: May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protect this people in righteousness, so long as they shall call on the name of their God for prote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break forth, all as one, in singing, and praising their God for the great thing which he had done for them, in preserving them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Yea, they did cry: Hosanna to the Most High God. And they did cr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God Almighty, the Most High God.

And their hearts were swollen with joy, unto the gushing out of many tears, because of the great goodness of God in delivering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they knew it was because of their repentance and their humility that they had been delivered from an everlasting destruction.

### 제 3 니파이 5

- 1 그리고 이제 보라, 니파이인들의 모든 백성 중에는 말씀을 전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산 영혼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가 알았음이라.
- 2 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대로 주어진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필연 틀림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된 일들로 인하여 모든 일이 말한 바 된 대로 반드시 될 것임을 알았더라.
- 3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음행을 다 버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
- 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도적들을 모두 포로로 잡은지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들의 포로들을 옥에 던져 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였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기로 성약을 맺으려 하는 자들은 다 놓여 자유롭게 되었더라.
- 5 그러나 성약을 맺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마음에 저 은밀한 살인을 계속하여 품는 자들은 모두, 참으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들은 모두 정죄받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더라.
- 6 이에 이같이 그들이 저 간악하고, 은밀하며, 가증한 결사들을 다 종식시켰으니, 그 속에 것처럼 많은 간악함이 있었고, 그토록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더라.
- 7 그리고 이같이 제이십이년이 지나갔고, 제이십삼년도, 또 제이십사년도, 또 제이십오년도 지나갔으니, 이같이 이십오 년이 지나갔느니라.
- 8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크고 기이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나니, 참으로 이 책에는 이십오 년 동안 것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을 그 백분의 일도 담을 수 없도다.

### 3 Nephi 5

And now behold, there was not a living soul among all the people of the Nephites who did doubt in the least the words of all the holy prophets who had spoken; for they knew that it must needs be that they must be fulfilled.

And they knew that it must be expedient that Christ had come, because of the many signs which had been given,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because of the things which had come to pass already they knew that it must needs be that all things should come to pass according to that which had been spoken.

Therefore they did forsake all their sins, and their abominations, and their whoredoms, and did serve God with all diligence day and night.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taken all the robbers prisoners, insomuch that none did escape who were not slain, they did cast their prisoners into prison, and did cause the word of God to be preached unto them; and as many as would repent of their sins and enter into a covenant that they would murder no more were set at liberty.

But as many as there were who did not enter into a covenant, and who did still continue to have those secret murders in their hearts, yea, as many as were found breathing out threatenings against their brethren were condemned and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And thus they did put an end to all those wicked, and secret, and abominable combinations, in the which there was so much wickedness, and so many murders committed.

And thus had the twenty and second year passed away, and the twenty and third year also, and the twenty and fourth, and the twenty and fifth; and thus had twenty and five years passed away.

And there had many things transpired which, in the eyes of some, would be great and marvelous; nevertheless, they cannot all be written in this book; yea, this book cannot contain even a hundredth part of what was done among so many people in the space of twenty and five years;

- 9 그러나 보라, 이 백성의 모든 행사를 담고 있는 기록들이 있으며, 더 간략하기는 하되 참된 기사가 니파이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 10 그러므로 나는 니파이의 판이라 불리우는 판에 새겨져 있는 니파이의 기록을 따라 이러한 것에 대한 나의 기록을 만들었느니라.
- 11 또 보라, 나는 내가 손수 만든 판에 기록을 만드노라.
- 12 또 보라, 나는 몰몬이라 하는 자니, 이는 몰몬 땅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그 땅은 엘마가 백성 가운데 교회, 곧 그들의 범법 후 그들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땅이니라.
- 13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 14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떠난 거룩한 자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성취되게 하고자,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의 기록을 내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나니—
- 15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일어났던 일의 작은 기록이라.
- 16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내 앞에 있었던 이들이 남긴 기사로부터 나의 기록을 만들며,
- 17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눈으로 본 일들의 기록을 만드노라.
- 18 또 나는 내가 만드는 기록이 바르고 참된 기록인 줄 아노라.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따라 우리가 능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도다.
- 19 또 이제 나는 나 자신에 관한 나의 말을 마치고, 내 앞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나의 기사를 계속하여 기술하고자 하노라.

But behold there are records which do contain all the proceedings of this people; and a shorter but true account was given by Nephi.

Therefore I have made my record of these things according to the record of Nephi, which was engraven on the plates which were called the plates of Nephi.

And behold, I do make the record on plates which I have made with mine own hands.

And behold, I am called Mormon, being called after the land of Mormon, the land in which Alma did establish the church among the people, yea, the first church which was established among them after their transgression.

Behold,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 have been called of him to declare his word among his people, that they might have everlasting life.

And it hath become expedient that I,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at the prayers of those who have gone hence, who were the holy ones, should be fulfilled according to their faith, should make a record of these things which have been done—

Yea, a small record of that which hath taken place from the time that Lehi left Jerusalem, even down until the present time.

Therefore I do make my record from the accounts which have been given by those who were before me, until the commencement of my day;

And then I do make a record of the things which I have seen with mine own eyes.

And I know the record which I make to be a just and a true recor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things which, according to our language, we are not able to write.

And now I make an end of my saying, which is of myself, and proceed to give my account of the things which have been before me.

20 나는 물론이요 리하이의 순수한 후손이라. 내게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있나니, 그는 우리의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주와 주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나와 내 백성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주셨음이라.

21 정녕 그는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셨느니라.

22 또 리하이의 자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도다.

23 참으로 또한 정녕 그는 다시 요셉 자손의 남은 자를 주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리라.

24 또 정녕 주께서 사십같이, 그는 온 지구상에 널리 흩어진 야곱 자손의 모든 남은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아들이실 것이요,

25 또 그가 야곱의 온 집과 더불어 성약 하셨음과 같이, 그가 야곱의 집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이 그가 친히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리니, 이에 야곱의 온 집을 회복하사 그가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리라.

26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알게 되리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그들이 땅 사방에서 모여져, 그들이 흩어져 떠났었던 그들의 본토에 이르리니, 참으로 주께서 사십같이 이 일이 있으리라. 아멘.

I am Mormon, and a pure descendant of Lehi. I have reason to bless my God and my Savior Jesus Christ, that he brought our fathers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and no one knew it save it were himself and those whom he brought out of that land) and that he hath given me and my people so much knowledge unto the salvation of our souls.

Surely he hath blessed the house of Jacob, and hath been merciful unto the seed of Joseph.

And insomuch as the children of Lehi have kept his commandments he hath blessed them and prospered them according to his word.

Yea, and surely shall he again bring a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to the knowledge of the Lord their God.

And as surely as the Lord liveth, will he gather in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ll the remnant of the seed of Jacob, who are scattered abroa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as he hath covenanted with all the house of Jacob, even so shall the covenant wherewith he hath covenanted with the house of Jacob be fulfilled in his own due time, unto the restoring all the house of Jacob unto the knowledge of the covenant that he hath covenanted with them.

And then shall they know their Redeemer, who is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then shall they be gathered in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unto their own lands, from whence they have been dispersed; yea, as the Lord liveth so shall it be. Amen.

### 제 3 니파이 6

- 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백성들이 제이십육년에, 각기 그 가족 그 양 떼와 그 소 떼 그 말들과 그 소들과 무릇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다 돌아갔더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식량을 다 먹어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먹지 아니한 모든 것, 곧 각종 모든 곡물과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북쪽과 남쪽 북방 땅과 남방 땅에 있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더라.
- 3 또 그들이, 그 땅의 평화를 지키기로 언약을 맺은 도적들 중 그대로 레이맨인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수효를 따라 땅을 주어 스스로 일함으로써 살아 갈 수단을 갖게 하여 주었나니, 이리하여 그들이 그 온 땅에 평화를 이룩하였더라.
- 4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번영하며 점차 강대하여지기 시작하였고, 제이십육년과 칠년이 지나가매 그 땅에 훌륭한 질서가 있었으니,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좇아 그들의 법을 만들었더라.
- 5 이제 백성들이 범법에 빠지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하여 번영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일이 온 땅에 하나도 없었도다.
- 6 그리고 이제 땅에 이 큰 평화를 이룩한 이들은 기드긴도나이와, 판사 레이코니우스와, 지도자로 임명된 자들이었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성읍들이 새로이 건축되었고, 많은 오래된 성읍들이 수축되었더라.
- 8 또 성읍과 성읍 또 땅과 땅 그리고 각처를 연결하는 많은 대로가 쌓아 올려지고, 많은 길이 만들어졌더라.
- 9 이같이 제이십팔년이 지나가고, 백성들은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더라.

### 3 Nephi 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the Nephites did all return to their own lands in the twenty and sixth year, every man, with his family, his flocks and his herds, his horses and his cattle, and all things whatsoever did belong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had not eaten up all their provisions; therefore they did take with them all that they had not devoured, of all their grain of every kind, and their gold, and their silver, and all their precious things, and they did return to their own lands and their possessions, both on the north and on the south, both on the land northward and on the land southward.

And they granted unto those robbers who had entered into a covenant to keep the peace of the land, who were desirous to remain Lamanites, lands, according to their numbers, that they might have, with their labors, wherewith to subsist upon; and thus they did establish peace in all the land.

And they began again to prosper and to wax great; and the twenty and sixth and seventh years passed away, and there was great order in the land; and they had formed their laws according to equity and justice.

And now there was nothing in all the land to hinder the people from prospering continually, except they should fall into transgression.

And now it was Gidgiddoni, and the judge, Lachoneus, and those who had been appointed leaders, who had established this great peace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cities built anew, and there were many old cities repaired.

And there were many highways cast up, and many roads made, which led from city to city, and from land to land, and from place to place.

And thus passed away the twenty and eighth year, and the people had continual peace.

-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십구년에 백성 중에 얼마간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하여 자고하여 교만하며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큰 핍박을 하기에 이르렀더라.
- 11 이는 그 땅에 많은 상인과 또한 많은 율법사와 많은 관리들이 있었음이라.
- 12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부와 그들의 배움을 위한 기회를 따라 계층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어떤 이들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무지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 부로 인하여 큰 학식을 얻었더라.
- 13 어떤 이들은 교만 중에 자고하였고, 다른 이들은 심히 겸손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욕을 욕으로 갚는 한편, 다른 이들은 욕과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되 돌이켜 다시 욕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 14 이리하여 온 땅에 큰 불평등이 생겨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이윽고 제삼십년에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킨 소수의 레이맨인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 땅의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라.
- 15 이제 백성들의 이 죄악의 까닭은 이것이었으니—사탄이 큰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하여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하고, 교만으로 부풀게 하며, 그들을 유혹하여, 권능과 권세와 부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게 하였음이라.
- 16 이에 이같이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평화를 누린 것은 불과 몇 해에 지나지 아니하였더라.

But it came to pass in the twenty and ninth year there began to be some disputings among the people; and some were lifted up unto pride and boastings because of their exceedingly great riches, yea, even unto great persecutions;

For there were many merchants in the land, and also many lawyers, and many officers.

And the people began to be distinguished by ranks, according to their riches and their chances for learning; yea, some were ignorant because of their poverty, and others did receive great learning because of their riches.

Some were lifted up in pride, and others were exceedingly humble; some did return railing for railing, while others would receive railing and persecution and all manner of afflictions, and would not turn and revile again, but were humble and penitent before God.

And thus there became a great inequality in all the land, insomuch that the church began to be broken up; yea, insomuch that in the thirtieth year the church was broken up in all the land save it were among a few of the Lamanites who were converted unto the true faith; and they would not depart from it, for they were firm, and steadfast, and immovable, willing with all diligence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Now the cause of this iniquity of the people was this—Satan had great power, unto the stirring up of the people to do all manner of iniquity, and to the puffing them up with pride, tempting them to seek for power, and authority, and riches, and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And thus Satan did lead away the hearts of the people to do all manner of iniquity; therefore they had enjoyed peace but a few years.

17 또 이리하여 제삼십년 초에—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넘겨져 악마의 유혹에 끌려 다니되, 어디든지 그가 끌고 가기 원하는 데로 끌려 다니며, 무슨 죄악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였는지라—이러므로 이 제삼십년 초에 그들은 심히 간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더라.

18 이제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었음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더라.

19 이제 때는 레이코니우스의 아들 레이코니우스의 시대였나니, 이는 레이코니우스가 그 부친의 자리를 채우고 그 해에 백성들을 다스렸음이라.

20 이에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그 온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가르침을 베풀며 백성들의 죄와 악을 담대히 증거하였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증거하였나니 저들은 그 죽으심과 고난을 담대히 증거하였더라.

21 이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심히 노한 자들이 백성 중에 많았더라. 또 노한 자들은 주로 대판사들 및 대제사와 율법사였던 자들이라, 참으로 율법사 되는 모든 자가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노하였더라.

22 이제 아무 율법사나 판사나 대제사라도 그들의 정죄가 그 땅의 통치자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할 권능을 가질 수 없었더라.

23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되 담대히 증거한 자들 중에, 잡혀서 판사들에 의해 은밀히 사형에 처해진 자들이 많았으니,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 이후까지 그 땅의 통치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24 이제 보라, 그 땅의 통치자에게서 권능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짐은 그 땅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던지라—

And thus, in the commencement of the thirtieth year—the people having been delivered up for the space of a long time to be carried about by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whithersoever he desired to carry them, and to do whatsoever iniquity he desired they should—and thus in the commencement of this, the thirtieth year, they were in a state of awful wickedness.

Now they did not sin ignorantly, for they knew the will of God concerning them, for it had been taught unto them; therefore they did wilfully rebel against God.

And now it was in the days of Lachoneus, the son of Lachoneus, for Lachoneus did fill the seat of his father and did govern the people that year.

And there began to be men inspired from heaven and sent forth, standing among the people in all the land, preaching and testifying boldly of the sins and iniquities of the people, and testifying unto them concerning the redemption which the Lord would make for his people, or in other words,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y did testify boldly of his death and sufferings.

Now there were many of the people who were exceedingly angry because of those who testified of these things; and those who were angry were chiefly the chief judges, and they who had been high priests and lawyers; yea, all those who were lawyers were angry with those who testified of these things.

Now there was no lawyer nor judge nor high priest that could have power to condemn any one to death save their condemnation was signed by the governor of the land.

Now there were many of those who testified of the things pertaining to Christ who testified boldly, who were taken and put to death secretly by the judges, that the knowledge of their death came not unto the governor of the land until after their death.

Now behold, this was contrary to the laws of the land, that any man should be put to death except they had power from the governor of the land—



25 그러므로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게 한 이 판사들에 대한 원망이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그 땅의 통치자에게 올라왔더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잡혀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 받기 위하여 판사 앞에 끌려 나왔으니, 백성들이 정해 둔 법에 따른 것이었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판사들에게 많은 친구와 친족이 있으며, 남은 자, 곧 참으로 거의 모든 율법사들과 대제사들이 함께 모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판사들의 친족들과 연합하더라.

28 이에 그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 곧 옛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저 언약이라. 그 언약은 모든 이를 대적하여 연합하도록 악마가 베풀어 준 것이더라.

29 그리하여 그들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연합하며 또 언약 맺기를 저들을 멸하고, 살인죄를 범한 자들을 바야흐로 법에 따라 집행되려 하는 정의의 손길에서 건지기로 하였더라.

30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나라의 법과 권리를 무시하였고, 그들은 또 통치자를 멸하며, 그 땅 위에 왕을 세워 그 땅으로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열왕에게 복종하게 하기로 서로 언약하였더라.

Therefore a complaint came up unto the land of Zarahemla, to the governor of the land, against these judges who had condemned the prophets of the Lord unto death, not according to the law.

Now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taken and brought up before the judge, to be judged of the crime which they had done, according to the law which had been given by the people.

Now it came to pass that those judges had many friends and kindreds; and the remainder, yea, even almost all the lawyers and the high priests,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and unite with the kindreds of those judges who were to be trie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y did enter into a covenant one with another, yea, even into that covenant which was given by them of old, which covenant was given and administered by the devil, to combine against all righteousness.

Therefore they did combine against the people of the Lord, and enter into a covenant to destroy them, and to deliver those who were guilty of murder from the grasp of justice, which was about to be administere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y did set at defiance the law and the rights of their country; and they did covenant one with another to destroy the governor, and to establish a king over the land, that the land should no more be at liberty but should be subject unto kings.

### 제 3 니파이 7

- 1 이제 보라, 나는 그들이 그 땅 위에 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그러나 이 같은 해, 곧 제삼십년에 그들이 그 땅의 대판사를 판사석 위에서 멸하였나니, 참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 2 또 백성들은 서로 나뉘어져, 각기 그 가족과 그 친척과 친구를 따라 서로 갈라져 부족을 이루었으니, 이같이 그들이 그 땅의 정부를 무너뜨렸더라.
- 3 또 부족마다 각기 그들 위에 두령 혹은 지도자를 지명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 부족이 되었고 또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 4 이제 보라, 많은 가족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갖지 아니한 자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들은 심히 커졌더라.
- 5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들 중에 아직은 전쟁이 없었더라. 이 모든 죄악이 백성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사탄의 권능에 스스로를 내준 까닭이었더라.
- 6 또 정부의 규례가 파괴되었으니, 선지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친구와 친척들의 비밀 결사로 인함이다.
- 7 또 그들이 그 땅에서 큰 분쟁을 일으킨지라, 백성 중 보다 의로운 편도 거의 다 간악하여졌으니, 참으로 그들 중에 의로운 자가 몇 명 되지 아니하더라.
- 8 이리하여 육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백성이 그들의 의로움에서 돌아섰으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감같이, 또는 돼지가 진흙탕에 돌아가 뒹굴같이 되더라.
- 9 이제 백성들에게 것처럼 큰 죄악을 초래한 이 비밀 결사가 함께 모여, 자기들이 야곱이라 일컫는 자를 자기들의 머리에 두고,
- 10 또 그를 자기들의 왕이라 칭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가 이 간악한 무리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두 목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그 목소리를 내었던 자더라.

### 3 Nephi 7

Now behold, I will show unto you that they did not establish a king over the land; but in this same year, yea, the thirtieth year, they did destroy upon the judgment-seat, yea, did murder the chief judge of the land.

And the people were divided one against another; and they did separate one from another into tribes, every man according to his family and his kindred and friends; and thus they did destroy the government of the land.

And every tribe did appoint a chief or a leader over them; and thus they became tribes and leaders of tribes.

Now behold, there was no man among them save he had much family and many kindreds and friends; therefore their tribes became exceedingly great.

Now all this was done, and there were no wars as yet among them; and all this iniquity had come upon the people because they did yield themselves unto the power of Satan.

And th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were destroyed, because of the secret combination of the friends and kindreds of those who murdered the prophets.

And they did cause a great contention in the land, insomuch that the more righteous part of the people had nearly all become wicked; yea, there were but few righteous men among them.

And thus six years had not passed away since the more part of the people had turned from their righteousness, like the dog to his vomit, or like the sow to her wallowing in the mire.

Now this secret combination, which had brought so great iniquity upon the people, did gather themselves together, and did place at their head a man whom they did call Jacob;

And they did call him their king; therefore he became a king over this wicked band; and he was one of the chiefest who had given his voice against the prophets who testified of Jesus.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수효로는 백성의 부족들만큼 강하지 아니하였나니, 부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기 그 부족대로 그들의 법을 제정한 것 외에는 서로 연합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적이었더라,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언약을 맺은 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있어서는 일치하였더라.

12 그리하여 야곱은 저들의 적이 저들보다 수효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저가 그 무리의 왕인지라, 그러므로 저의 백성에게 그 땅의 북방 먼 지역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저들을 위하여 한 왕국을 세우되, 이반자들이 저들에게 합류하여 (이는 저가 저들에게 아첨하기를 이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백성의 부족들과 다름 만큼 족히 강하여지기까지 그리할 것을 명하며 저들이 그리하였더라.

13 저들의 행군이 어찌나 신속하였던지 저들이 나아가 백성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기까지 그 행군을 저지할 수 없었더라. 이같이 제삼십년이 끝나니 니파이 백성의 제반사가 이러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일년에 그들 곧 모든 사람이 각기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좇아 부족들로 나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싸우려 가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법과 그들의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일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두목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에 따라 제정되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매우 엄격한 법을 세웠으므로 그 결과 어느 정도는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렸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주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바 되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 가운데서 내어 쫓았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천사와 또한 주의 음성의 방문을 받고, 그리하여 천사들을 보고, 목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하여 알도록 능력을 입고, 또한 그들이 속히 의로움에서 떠나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자가 된지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not so strong in number as the tribes of the people, who were united together save it were their leaders did establish their laws, every one according to his tribe; nevertheless they were enemies; notwithstanding they were not a righteous people, yet they were united in the hatred of those who had entered into a covenant to destroy the government.

Therefore, Jacob seeing that their enemies were more numerous than they, he being the king of the band, therefore he commanded his people that they should take their flight into the northernmost part of the land, and there build up unto themselves a kingdom, until they were joined by dissenters, (for he flattered them that there would be many dissenters) and they become sufficiently strong to contend with the tribes of the people; and they did so.

And so speedy was their march that it could not be impeded until they had gone forth out of the reach of the people. And thus ended the thirtieth year; and thus were the affairs of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irty and first year that they were divided into tribes, every man according to his family, kindred and friends; nevertheless they had come to an agreement that they would not go to war one with another; but they were not united as to their laws, and their manner of government, for they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inds of those who were their chiefs and their leaders. But they did establish very strict laws that one tribe should not trespass against another, insomuch that in some degree they had peace in the land; nevertheless, their hearts were turned from the Lord their God, and they did stone the prophets and did cast them out from among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having been visited by angels and also the voice of the Lord, therefore having seen angels, and being eye-witness, and having had power given unto him that he might know concerning the ministry of Christ, and also being eye-witness to their quick return from righteousness unto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16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생각의 눈  
땀으로 인하여 비통하여져서—그 같은 해에 그들  
가운데 나아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 사함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였  
더라.

17 이에 그가 많은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으되 그  
모두를 기록할 수 없으며, 그 일부로는 충분치 아  
니할 터인즉 그러므로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아니할  
노라. 또 니파이가 권능과 큰 권세로 성역을 베풀  
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하였으  
니, 이는 실로 그가 자기들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연고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  
이 심히 컸던지라, 천사들이 매일 그에게 성역을  
베풀었으므로 그들이 능히 그의 말을 아니 믿을  
수 없었음이다.

19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고, 심지어 그의 형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매, 저가 백성에게 돌로 침을 입고 죽음을  
당한 후였더라.

20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의 능  
력으로 인하여 그에게 노하였더라. 그가 또한 예  
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보는 데서 많은 기적을  
더 행하였더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일년이 지나매,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 소수 밖에 없었으나, 돌이  
킨 자들은 모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  
에 있는 바,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그들을 방문하  
였음을 백성들에게 진실로 나타내었더라.

22 또 귀신 내어 쫓음을 받은 자들과 자기의 병과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침 받은 자들도 모두 하나  
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 고침을 받았음을 백성  
들에게 진실로 밝히 나타내었으며, 또 그들이 백  
성 가운데서 표적도 보이고 또 얼마간의 기적을  
행하였더라.

23 이같이 제삼십이년도 또한 지나갔더라. 또 니파  
이는 제삼십삼년 초에 백성들에게 부르짖었나니,  
그는 회개와 죄 사함을 저희에게 전파하였더라.

Therefore, being grieved for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 blindness of their minds—went forth  
among them in that same year, and began to testify,  
boldly,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through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he did minister many things unto them; and  
all of them cannot be written, and a part of them  
would not suffice, therefore they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And Nephi did minister with power and  
with great authorit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angry with him,  
even because he had greater power than they, for it  
were not possible that they could disbelieve his  
words, for so great was his faith on the Lord Jesus  
Christ that angels did minister unto him daily.

And in the name of Jesus did he cast out devils and  
unclean spirits; and even his brother did he raise  
from the dead, after he had been stoned and suffered  
death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saw it, and did witness of it, and  
were angry with him because of his power; and he  
did also do many more miracles, in the sight of the  
people, in the name of Jes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thirty and first year  
did pass away, and there were but few who were con-  
verted unto the Lord; but as many as were converted  
did truly signify unto the people that they had been  
visited by the power and Spirit of God, which was in  
Jesus Christ, in whom they believed.

And as many as had devils cast out from them, and  
were healed of their sicknesses and their infirmities,  
did truly manifest unto the people that they had been  
wrought upon by the Spirit of God, and had been  
healed; and they did show forth signs also and did do  
some miracles among the people.

Thus passed away the thirty and second year also.  
And Nephi did cry unto the people in the commence-  
ment of the thirty and third year; and he did preach  
unto them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24 이제 나는 회개하게 된 자로서 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을 또한 너희로 기억하게 하고자 하노라.

25 그러므로 니파이에 의해 이 봉사의 직분에 성임된 자들이 있어, 저들에게로 오는 그러한 자들은 다 물로 침례를 받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죄 사함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보이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행하는 것이었더라.

26 이에 이 해 초에 많은 자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고 이같이 이 해의 대부분이 지나가니라.

Now I would have you to remember also, that there were none who were brought unto repentance who were not baptized with water.

Therefore, there were ordained of Nephi, men unto this ministry, that all such as should come unto them should be baptized with water, and this as a witness and a testimony before God, and unto the people, that they had repented and received a remission of their sins.

And there were many in the commencement of this year that were baptized unto repentance; and thus the more part of the year did pass away.

### 제 3 니파이 8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기록에 따를진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록이 참된 줄 아노니, 이는 보라, 이 기록을 한 이가 의인이었음이라—이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이었요,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니라—
- 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이 우리의 때를 계산함에 있어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진대 제삼십삼년이 지나갔더라.
- 3 그리고 백성들은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 참으로 지면 위에 사흘 동안 어둠이 있으리라 한 그때를 심히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하였느니라.
- 4 그런데 것처럼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크게 의심하는 일과 논쟁하는 일이 생겼더라.
-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 정월 곧 그달 사 일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그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 6 또한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고, 극심한 우레가 있어 온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였더라.
- 7 또 심히 강렬한 번개가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 8 또 제이라헤믈라 성에는 불이 붙었더라.
- 9 또 모로나이 성은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그 주민들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 10 또한 땅이 모로나이하 성 위로 솟아오르매, 성이 있던 자리에는 큰 산이 생겼더라.
- 11 또 남방 땅에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더라.

### 3 Nephi 8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ccording to our record, and we know our record to be true, for behold, it was a just man who did keep the record—for he truly did many miracles in the name of Jesus; and there was not any man who could do a miracle in the name of Jesus save he were cleansed every whit from his iniquity—

And now it came to pass, if there was no mistake made by this man in the reckoning of our time, the thirty and third year had passed away;

And the people began to look with great earnestness for the sign which had been given by the prophet Samuel, the Lamanite, yea, for the time that there should be darkness for the space of three days over the face of the land.

And there began to be great doubtings and disputations among the people, notwithstanding so many signs had been given.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irty and fourth year, in the first month, on the fourth day of the month, there arose a great storm, such an one as never had been known in all the land.

And there was also a great and terrible tempest; and there was terrible thunder, insomuch that it did shake the whole earth as if it was about to divide asunder.

And there were exceedingly sharp lightnings, such as never had been known in all the land.

And the city of Zarahemla did take fire.

And the city of Moroni did sink into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 inhabitants thereof were drowned.

And the earth was carried up upon the city of Moronihah, that in the place of the city ther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there was a great and terrible destruction in the land southward.

- 12 그러나 보라 북방 땅에는 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나니, 보라, 태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온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하였음이라.
- 13 또 대로가 깨뜨려지고, 평평한 길들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한 곳들이 거칠게 되었더라.
- 14 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가라앉았으며, 많은 성읍이 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윽고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더라.
- 15 또 남은 성읍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손상이 심히 컸고, 그 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았더라.
- 16 또 회리바람에 휩쓸려 간 자들이 더러 있었으되, 그들이 휩쓸려 갔다는 것만 알 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 17 또 이같이 태풍과 우레와 번개와 땅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형되었더라.
- 18 또 보라 바위들은 둘로 갈라지고, 그것들이 온 지면 위에 깨어졌더라, 그 깨진 조각들과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이 온 땅 위에 발견되었더라.
-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레와 번개와 폭풍과 태풍과 땅의 진동이 멎자—보라 이러한 일이 대략 세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시간이 더 길었다고도 하나,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이 대략 세 시간 동안에 행하여졌더라—그리고 나서, 보라, 지면 위에 어둠이 있느니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 그 주민들 중 쓰러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으며,

But behold, there was a more great and terrible destruction in the land northward; for behold, the whole face of the land was changed, because of the tempest and the whirlwinds, and the thunderings and the lightnings, and the exceedingly great quaking of the whole earth;

And the highways were broken up, and the level roads were spoiled, and many smooth places became rough.

And many great and notable cities were sunk, and many were burned, and many were shaken till the buildings thereof had fallen to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were slain, and the places were left desolate.

And there were some cities which remained; but the damage thereof was exceedingly great, and there were many in them who were slain.

And there were some who were carried away in the whirlwind; and whither they went no man knoweth, save they know that they were carried away.

And thus the face of the whole earth became deformed, because of the tempests, and the thunderings, and the lightnings, and the quaking of the earth.

And behold, the rocks were rent in twain; they were broken up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insomuch that they were found in broken fragments, and in seams and in cracks,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thunderings, and the lightnings, and the storm, and the tempest, and the quakings of the earth did cease—for behold, they did last for about the space of three hours; and it was said by some that the time was greater; nevertheless, all these great and terrible things were done in about the space of three hours—and then behold, there was darkness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thick darkness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insomuch that the inhabitants thereof who had not fallen could feel the vapor of darkness;

- 21 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햇불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종고 심히 마른 나무로도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 22 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것처럼 심하였음 이더라.
-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 이 사흘 동안 계속되매,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크게 애곡하는 일과 슬피 부르짖는 일과 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임한 어둠 과 큰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음함이 컸더 라.
- 24 이에 한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 니,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형제들 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 큰 성 제이라헤믈 라 안에서 불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 25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고 애통하는 소리 가 들려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 리가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리하였더라면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아름다 운 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 요, 저 큰 성 모로나이하 안에 묻혀버리지 아니하 였으리라 하였나니, 이같이 백성들의 슬피 부르짖 음이 크고 참담하였더라.

And there could be no light, because of the darkness, neither candles, neither torches; neither could there be fire kindled with their fine and exceedingly dry wood, so that there could not be any light at all;

And there was not any light seen, neither fire, nor glimmer, neither the sun, nor the moon, nor the stars, for so great were the mists of darkness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it did last for the space of three days that there was no light seen; and there was great mourning and howling and weeping among all the people continually; yea, great were the groanings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darkness and the great destruction which had come upon them.

And in one place they were heard to cry, saying: O that we had repented before this great and terrible day, and then would our brethren have been spared, and they would not have been burned in that great city Zarahemla.

And in another place they were heard to cry and mourn, saying: O that we had repented before this great and terrible day, and had not killed and stoned the prophets, and cast them out; then would our mothers and our fair daughters, and our children have been spared, and not have been buried up in that great city Moronihah. And thus were the howlings of the people great and terrible.



### 제 3 니파이 9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땅의 온 지면 위에, 땅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 외치기를,
- 2 이 백성에게 화, 화, 화가 있도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민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하여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다.
- 3 보라,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와 그 주민을 내가 불로 살라버렸노라.
- 4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를 내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노라.
- 5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 주민을 내가 흙으로 덮어, 내 면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였노라.
- 6 또 보라, 길갈 성을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로 땅 속 깊이 묻히게 하였노라.
- 7 참으로 또한 오니하 성과 그 주민들과 또 모쿰 성과 그 주민들과 또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도 그리하고, 내가 물로 그 대신에 올라오게 하여 나의 면전에서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 8 또 보라, 개디앤다이 성과 개디옴나 성과 야곱 성과 김김노 성 이 모두를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자리에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을 만들었으며, 그 주민들을 내가 땅 속 깊이 묻어 버려, 내 면전에서 그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 3 Nephi 9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a voice heard among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upon all the face of this land, crying:

Wo, wo, wo unto this people; wo unto the inhabitants of the whole earth except they shall repent; for the devil laugheth, and his angels rejoice, because of the slain of the fair sons and daughters of my people; and it is because of their iniquity and abominations that they are fallen!

Behold, that great city Zarahemla have I burned with fir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behold, that great city Moroni have I caused to be sunk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 inhabitants thereof to be drowned.

And behold, that great city Moronihah have I covered with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to hide their iniquities and their abominations from before my face, tha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saints shall not come any more unto me against them.

And behold, the city of Gilgal have I caused to be sunk, and the inhabitants thereof to be buried up in the depths of the earth;

Yea, and the city of Oniha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the city of Mocom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waters have I caused to come up in the stead thereof, to hide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from before my face, tha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saints shall not come up any more unto me against them.

And behold, the city of Gadiandi, and the city of Gadiomnah, and the city of Jacob, and the city of Gimjimno, all these have I caused to be sunk, and made hills and valleys in the places thereof; and the inhabitants thereof have I buried up in the depths of the earth, to hide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from before my face, tha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saints should not come up any more unto me against them.

- 9 또 보라, 야곱 왕의 백성이 거하던 저 큰 성 예이코부갯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그 간악함이 온 땅의 모든 간악함보다 넘어섰음은 그들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로 인함이라, 대저 내 백성의 화평과 이 땅의 정부를 파괴한 것이 그들이었은즉,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불사름을 입게 하여 그들을 나의 면전에서 멸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 10 또 보라, 레이맨 성과 야슈 성과 갓 성과 키시쿠멘 성과 그 주민들을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이는 선지자들을 쫓아내며,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친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이라.
- 11 또 그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어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가 불을 내려 보내어 그들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나의 면전에서 가리워지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들을 쳐서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2 또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허다한 큰 멸망으로 내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였도다.
- 13 그들 중에 보다 의로웠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면한 너희 모두여,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 14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도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 15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nd behold, that great city Jacobugath, which was inhabited by the people of king Jacob, have I caused to be burned with fire because of their sins and their wickedness, which was above all the wickedness of the whole earth, because of their secret murders and combinations; for it was they that did destroy the peace of my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the land; therefore I did cause them to be burned, to destroy them from before my face, tha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saints should not come up unto me any more against them.

And behold, the city of Laman, and the city of Josh, and the city of Gad, and the city of Kishkumen, have I caused to be burned with fir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because of their wickedness in casting out the prophets, and stoning those whom I did send to declare unto them concerning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And because they did cast them all out, that there were none righteous among them, I did send down fire and destroy them, that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might be hid from before my face, tha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saints whom I sent among them might not cry unto me from the ground against them.

And many great destructions have I caused to come upon this land, and upon this peopl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O all ye that are spared because ye were more righteous than they, will ye not now return unto me, and repent of your sins, and be converted, that I may heal you?

Yea, verily I say unto you, if ye will come unto me ye shall have eternal life. Behold, mine arm of mercy is extended towards you, and whosoever will come, him will I receive; and blessed are those who come unto me.

Behold, I am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in them are. I was with the Father from the beginning.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and in me hath the Father glorified his name.

- 16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되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오에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니라.
- 17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었나니, 또 그와 같이 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에게도 내가 그리하여 줄 것은, 보라, 나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르며 내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짐이라.
- 18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 19 그런즉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참으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폐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20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 21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 22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I came unto my own, and my own received me not. And the scriptures concerning my coming are fulfilled.

And as many as have received me, to them have I given to become the sons of God; and even so will I to as many as shall believe on my name, for behold, by me redemption cometh, and in me is the law of Moses fulfilled.

I am the light and the life of the world.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ye shall offer up unto me no more the shedding of blood; yea, your sacrifices and your burnt offerings shall be done away, for I will accept none of your sacrifices and your burnt offerings.

And ye shall offer for a sacrifice unto me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And whoso cometh unto me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him will I baptize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even as the Lamanites, because of their faith in me at the time of their conversion, were baptized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and they knew it not.

Behold, I have come unto the world to bring redemption unto the world, to save the world from sin.

Therefore, whoso repenteth and cometh unto me as a little child, him will I receive,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Behold, for such I have laid down my life, and have taken it up again; therefore repent, and come unto me ye ends of the earth, and be saved.

### 제 3 니파이 10

- 1 그리고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의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증거하였으며, 이 말씀 후에 여러 시간 동안 그 땅에 정적이 있으니,
- 2 이는 백성들의 놀라움이 심히 컸던지라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의 친척을 잃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피 울기를 그쳤음이라. 그러므로 여러 시간 동안 온 땅에 정적이 있으니라.
-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에게 다시 한 음성이 임할 때 모든 백성이 듣고 그것을 증거하였으니, 이르시되,
- 4 야곱의 후손이요 실로 이스라엘 집에 속한 너희 곧 무너진 이 큰 성읍들의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양육한 것이 몇 번이나.
- 5 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6 너희 곧 내가 살려 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라도 하리라.
- 7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성약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 너희의 거하는 처소가 황폐하게 되리라.
-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라,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다시 울며 슬피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사흘이 지나가고, 아침에 지면에서 어둠이 걷히고, 땅이 진동하기를 그치고, 바위가 갈라지기를 그치고, 두려운 신음 소리가 그치고, 모든 요란한 소리가 지나가더라.

### 3 Nephi 10

And now behold, it came to pass that all the people of the land did hear these sayings, and did witness of it. And after these sayings there was silence in the land for the space of many hours;

For so great was the astonishment of the people that they did cease lamenting and howling for the loss of their kindred which had been slain; therefore there was silence in all the land for the space of many hour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came a voice again unto the people, and all the people did hear, and did witness of it, saying:

O ye people of these great cities which have fallen, who are descendants of Jacob, yea,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how oft have I gathered you as a hen gathereth her chickens under her wings, and have nourished you.

And again, how oft would I have gathered you as a hen gathereth her chickens under her wings, yea, O ye people of the house of Israel, who have fallen; yea, O ye people of the house of Israel, ye that dwell at Jerusalem, as ye that have fallen; yea, how oft would I have gathered you as a hen gathereth her chickens, and ye would not.

O ye house of Israel whom I have spared, how oft will I gather you as a hen gathereth her chickens under her wings, if ye will repent and return unto me with full purpose of heart.

But if not, O house of Israel, the places of your dwellings shall become desolate until the time of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to your father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people had heard these words, behold, they began to weep and howl again because of the loss of their kindred and frien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did the three days pass away. And it was in the morning, and the darkness dispersed from off the face of the land, and the earth did cease to tremble, and the rocks did cease to rend, and the dreadful groanings did cease, and all the tumultuous noises did pass away.

10 또 땅이 다시 서로 봉합되어 서매, 살아남은 백성들의 애통하는 일과 우는 일과 통곡하는 일이 그치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곡이 변하여 그들의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되니라.

11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경전이 여기까지 이루어지니라.

12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백성 중 보다 의로웠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로 치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며 또 살아남은 자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니—

13 또 이들은 살아남아서 땅 속에 가라앉아 묻히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깊은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불에 살라지지도 아니하였고, 깔려 죽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회리바람에 휩쓸려 가지도 아니하였고, 연무와 암흑의 안개에 압도되지도 아니하였더라.

14 이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며, 경전을 가진 자는 그것을 상고하여 보고, 불과 연기와 태풍과 회리바람과 땅이 열려 그들을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죽음과 멸망과 이 모든 일이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닌지 알지어다.

15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있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16 참으로 선지자 지노스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또한 지노크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 자손의 남은 자인 우리에게 관하여 특별히 증거하였음이라.

17 보라, 우리 조상 야곱도 요셉 자손의 남은 자에 관하여 증거하였나니, 보라, 우리가 요셉 자손의 남은 자가 아니냐? 또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온 놋쇠판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nd the earth did cleave together again, that it stood; and the mourning, and the weeping, and the wailing of the people who were spared alive did cease; and their mourning was turned into joy, and their lamentations into the praise and thanksgiving unto the Lord Jesus Christ, their Redeemer.

And thus far were the scriptures fulfilled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prophets.

And it was the more righteous part of the people who were saved, and it was they who received the prophets and stoned them not; and it was they who had not shed the blood of the saints, who were spared—

And they were spared and were not sunk and buried up in the earth; and they were not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y were not burned by fire, neither were they fallen upon and crushed to death; and they were not carried away in the whirlwind; neither were they overpowered by the vapor of smoke and of darkness.

And now, whoso readeth, let him understand; he that hath the scriptures, let him search them, and see and behold if all these deaths and destructions by fire, and by smoke, and by tempests, and by whirlwinds, and by the opening of the earth to receive them, and all these things are not unto the fulfilling of the prophecies of many of the holy prophets.

Behold, I say unto you, Yea, many have testified of these things at the coming of Christ, and were slain because they testified of these things.

Yea, the prophet Zenos did testify of these things, and also Zenock spake concerning these things, because they testified particularly concerning us, who are the remnant of their seed.

Behold, our father Jacob also testified concerning a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And behold, are not we a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And these things which testify of us, are they not written upon the plates of brass which our father Lehi brought out of Jerusalem?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 말에, 보라, 살아남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지던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이 큰 은혜 보이심을 입고, 그들 머리 위에 큰 복 부어 주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되—

19 그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나니, 그의 성역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나의 말을 마치노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ending of the thirty and fourth year, behold, I will show unto you that the people of Nephi who were spared, and also those who had been called Lamanites, who had been spared, did have great favors shown unto them, and great blessings poured out upon their heads, inso-much that soon after the ascension of Christ into heaven he did truly manifest himself unto them—

Showing his body unto them, and ministering unto them; and an account of his ministry shall be given hereafter. Therefore for this time I make an end of my sayings.

우리가 풍요 땅에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니파이 백성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느니라.

### 제 3 니파이 11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의 큰 무리가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함께 모여, 서로 기이히 여기며 놀라워하며, 일어난 크고 기이한 변화를 서로에게 보이더라.
- 2 또한 그 죽으심에 관한 표적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 3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 5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 6 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 그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 7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Jesus Christ did show himself unto the people of Nephi, as the multitude were gathered together in the land Bountiful, and did minister unto them; and on this wise did he show himself unto them.*

### 3 Nephi 11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a great multitude gathered together, of the people of Nephi, round about the temple which was in the land Bountiful; and they were marveling and wondering one with another, and were showing one to another the great and marvelous change which had taken place.

And they were also conversing about this Jesus Christ, of whom the sign had been given concerning his death.

And it came to pass that while they were thus conversing one with another, they heard a voice as if it came out of heaven; and they cast their eyes round about, for they understood not the voice which they heard; and it was not a harsh voice, neither was it a loud voice; nevertheless, and notwithstanding it being a small voice it did pierce them that did hear to the center, insomuch that there was no part of their frame that it did not cause to quake; yea, it did pierce them to the very soul, and did cause their hearts to burn.

And it came to pass that again they heard the voice, and they understood it not.

And again the third time they did hear the voice, and did open their ears to hear it; and their eyes were towards the sound thereof; and they did look steadfastly towards heaven, from whence the sound came.

And behold, the third time they did understand the voice which they heard; and it said unto them:

Behold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in whom I have glorified my name—hear ye him.

-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 드니, 보라, 그들이 본즉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서시매, 온 무리의 눈이 그에게로 향하였으나, 그들이 감히 서로에게라도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천사라 생각하였음이다.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 10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 11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가 다 땅에 엎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고 그들 중에 예언되었음을 그들이 기억하였음이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 14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
- 16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And it came to pass, as they understood they cast their eyes up again towards heaven; and behold, they saw a Man descending out of heaven; and he was clothed in a white robe; and he came down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the eyes of the whole multitude were turned upon him, and they durst not open their mouths, even one to another, and wist not what it meant, for they thought it was an angel that had appeared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spake unto the people, saying:

Behold, I am Jesus Christ, whom the prophets testified shall come into the world.

And behold, I am the light and the life of the world; and I have drunk out of that bitter cup which the Father hath given me, and have glorified the Father in taking upon me the sins of the world, in the which I have suffered the will of the Father in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the whole multitude fell to the earth; for they remembered that it had been prophesied among them that Christ should show himself unto them after his ascension into heav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pake unto them saying:

Arise and come forth unto me, that ye may thrust your hands into my side, and also that ye may feel the prints of the nails in my hands and in my feet, that ye may know that I am the God of Israel, and the God of the whole earth, and have been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multitude went forth, and thrust their hands into his side, and did feel the prints of the nails in his hands and in his feet; and this they did do, going forth one by one until they had all gone forth, and did see with their eyes and did feel with their hands, and did know of a surety and did bear record, that it was he, of whom it was written by the prophets, that should come.

And when they had all gone forth and had witnessed for themselves, they did cry out with one accord, saying:



- 17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  
배하였느니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말씀  
하시고 (이는 니파이가 무리 중에 있었음이라) 저  
에게 명하사 나아오라 하시더라.
- 19 이에 니파이가 일어나 나아가서 주 앞에 절하  
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 20 이에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일어나라 하신대,  
저가 일어나 주 앞에 섰더라.
- 21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권능  
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시더라.
- 22 다시 주께서 다른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을 그들에  
게 주셨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같이 침례를 베풀어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도록  
하라.
-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  
의 말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거든,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보라, 너희는 물에 내려가 서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라.
- 24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  
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 25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  
라. 아멘.
- 26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  
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
- 27 이에 이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줄지  
니라.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임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 28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같이 너희는  
침례를 베풀어,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  
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  
운데 없게 하라.

Hosanna! Blessed be the name of the Most High  
God! And they did fall down at the feet of Jesus, and  
did worship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pake unto Nephi (for  
Nephi was among the multitude) and he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come forth.

And Nephi arose and went forth, and bowed him-  
self before the Lord and did kiss his feet.

And the Lord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arise. And he arose and stood before him.

And the Lord said unto him: I give unto you power  
that ye shall baptize this people when I am again as-  
cended into heaven.

And again the Lord called others, and said unto  
them likewise; and he gave unto them power to bap-  
tize. And he said unto them: On this wise shall ye  
baptize; and there shall be no disputations among  
you.

Verily I say unto you, that whoso repenteth of his  
sins through your words, and desireth to be baptized  
in my name, on this wise shall ye baptize them—  
Behold, ye shall go down and stand in the water, and  
in my name shall ye baptize them.

And now behold, these are the words which ye  
shall say, calling them by name, saying:

Having authority given me of Jesus Christ, I bap-  
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Amen.

And then shall ye immerse them in the water, and  
come forth again out of the water.

And after this manner shall ye baptize in my  
name; for behold,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Ghost are one; and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and the  
Father and I are one.

And according as I have commanded you thus  
shall ye baptize. And there shall be no disputations  
among you, as there have hitherto been; neither  
shall there be disputations among you concerning  
the points of my doctrine, as there have hitherto  
been.

29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버지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30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31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교리를 선포하리로다.

32 또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33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34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3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교리요, 나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

36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고, 성신은 그에게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리니, 아버지와, 나와, 성신은 하나임이니라.

37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단코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느니라.

38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For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hath the spirit of contention is not of me, but is of the devil, who is the father of contention, and he stirreth up the hearts of men to contend with anger, one with another.

Behold, this is not my doctrine, to stir up the hearts of men with anger, one against another; but this is my doctrine, that such things should be done away.

Behol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will declare unto you my doctrine.

And this is my doctrine, and it is the doctrine which the Father hath given unto me; and I bear record of the Father, and the Father beareth record of me, and the Holy Ghost beareth record of the Father and me; and I bear record that the Father commandeth all men, everywhere, to repent and believe in me.

And whoso believeth in me, and is baptized, the same shall be saved; and they are they who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whoso believeth not in me, and is not baptized, shall be damne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is is my doctrine, and I bear record of it from the Father; and whoso believeth in me believeth in the Father also; and unto him will the Father bear record of me, for he will visit him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And thus will the Father bear record of me, and the Holy Ghost will bear record unto him of the Father and me; for the Father, and I, and the Holy Ghost are one.

And again I say unto you, ye must repent, and become as a little child, and be baptized in my name, or ye can in nowise receive these things.

And again I say unto you, ye must repent, and be baptized in my name, and become as a little child, or ye can in nowise inherit the kingdom of God.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40 또 누구든지 이보다 더 많거나 적게 선포하여, 이를 나의 교리로 세울진대, 그는 악에서 오는 자요,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자라, 그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들에게 부딪칠 때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러한 자들을 받으리라.

41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나아가, 내가 이른 말을 땅 끝까지 선포하라.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is is my doctrine, and whoso buildeth upon this buildeth upon my rock,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them.

And whoso shall declare more or less than this, and establish it for my doctrine, the same cometh of evil, and is not built upon my rock; but he buildeth upon a sandy foundation, and the gates of hell stand open to receive such when the floods come and the winds beat upon them.

Therefore, go forth unto this people, and declare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unto the ends of the earth.

### 제 3 니파이 12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르심을 입고 침례를 베풀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의 수가 열둘이었더라) 보라, 무리에게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였나니,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보라, 내가 불과 성신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줄 안 후에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 2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말을 믿을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희의 말을 믿고, 지극히 겸손하여져서 침례를 받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불과 성신으로 방문을 받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받겠음이라.
- 3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4 또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 6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
- 7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8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9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10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3 Nephi 12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unto Nephi, and to those who had been called, (now the number of them who had been called, and received power and authority to baptize, was twelve) and behold, he stretched forth his hand unto the multitude, and cried unto them, saying: Blessed are ye if ye shall give heed unto the words of these twelve whom I have chosen from among you to minister unto you, and to be your servants; and unto them I have given power that they may baptize you with water; and after that ye are baptized with water, behold, I will baptize you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therefore blessed are ye if ye shall believe in me and be baptized, after that ye have seen me and know that I am.

And again, more blessed are they who shall believe in your words because that ye shall testify that ye have seen me, and that ye know that I am. Yea, blessed are they who shall believe in your words, and come down into the depths of humility and be baptized, for they shall be visited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and shall receive a remission of their sins.

Yea,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who come unto m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again, blessed are all they that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An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And blessed are all they who d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And blessed are all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And blessed are all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blessed are all they who are persecuted for my name'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11 또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12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할 것임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같이 핍박하였음이니라.
- 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니라.
- 1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 15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 16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17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루려 함이니라.
- 18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서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이니라.
- 19 또한 보라, 너희로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로 오게 하려고,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보라, 계명이 너희 앞에 있고, 율법이 이루어졌도다.
- 20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 너희에게 명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 21 옛적 사람들이 말하였다고 너희가 들었고, 또한 너희 앞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였으나,

And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For ye shall have great joy and be exceedingly glad, for great shall be your reward in heaven; for so persecuted they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give unto you to b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shall lose its savor wherewith shall the earth be salted? The salt shall be t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o be trodden under foot of me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give unto you to be the light of this people. A city that is set on a hill cannot be hid.

Behold,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Nay, but on a candlestick, and it giveth light to all that are in the house;

Therefor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this people,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ink not that I am co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am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

For verily I say unto you, one jot nor one tittle hath not passed away from the law, but in me it hath all been fulfilled.

And behold, I have given you the law and the commandments of my Father, that ye shall believe in me, and that ye shall repent of your sins, and come unto me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Behold, ye have the commandments before you, and the law is fulfilled.

Therefore come unto me and be ye saved; for verily I say unto you, that except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which I have commanded you at this time, ye shall in no case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by them of old time, and it is also written before you, that thou shalt not kill, and whosoever shall kill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of God;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 네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25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화해하라. 어느 때에라도 그가 너를 잡으면 네가 옥에 던지울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시나인까지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옥에 있으면서 한 시나인이라도 갚을 수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27 보라, 옛적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간음을 범하지 말라 하였도다.

2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29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러한 것이 하나도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30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옴이니라.

31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그에게 줄 것이라 하였도다.

3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간음을 범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33 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으나,

3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her shall be in danger of his judgment. And whosoever shall say to his brother, Raca, shall be in danger of the council; and whosoever shall say, Thou fool, shall be in danger of hell fire.

Therefore, if ye shall come unto me, or shall desire to come unto me, and rememberest that thy brother hath aught against thee—

Go thy way unto thy brother, and first be reconciled to thy brother, and then come unto me with full purpose of heart, and I will receive you.

Agree with thine adversary quickly while thou art in the way with him, lest at any time he shall get thee, and thou shalt be cast into prison.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thou shalt by no means come out thence until thou hast paid the uttermost senine. And while ye are in prison can ye pay even one senin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Nay.

Behold, it is written by them of old time, that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hath committed adultery already in his heart.

Behold, I give unto you a commandment, that ye suffer none of these things to enter into your heart;

For it is better that ye should deny yourselves of these things, wherein ye will take up your cross, than that ye should be cast into hell.

It hath been written, that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let him give her a writing of divorcement.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saving for the cause of fornication, causeth her to commit adultery; and whoso shall marry her who is divorced committeth adultery.

And again it is written, thou shalt not forswear thyself, but shalt perform unto the Lord thine oaths;

But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swear not at all; neither by heaven, for it is God's throne;

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예, 예, 아니오,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보다 더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니라.  
 38 또 보라, 기록되었으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도다.  
 3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40 또한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그에게 너의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 리를 동행하라.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보라, 또한 기록되었으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4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 위에와 선인 위에 뜨게 하심이라.  
 46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던 옛적의 것들이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느니라.  
 47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48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Nor by the earth, for it is his footstool;  
 Neither shalt thou swear by thy head, because thou canst not make one hair black or white;  
 But let your communication be Yea, yea; Nay, nay; for whatsoever cometh of more than these is evil.  
 And behold, it is written,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But I say unto you, that ye shall not resist evil, but whosoever shall smite thee on thy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And if any man will sue thee at the law and take away thy coat, let him have thy cloak also;  
 And whosoever shall compel thee to go a mile, go with him twain.  
 Give to him that asketh thee, and from him that would borrow of thee turn thou not away.  
 And behold it is written also, that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nd hate thine enemy;  
 But behold I say un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em that curse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and pray for them who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That ye may b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for he maketh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Therefore those things which were of old time, which were under the law, in me are all fulfilled.  
 Old things are done away, and all things have become new.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be perfect even as I, or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is perfect.

### 제 3 니파이 13

- 1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 2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3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 4 너의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
- 5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
- 7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심이니라.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
- 10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11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 12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3 Nephi 13

Verily, verily, I say that I would that ye should do alms unto the poor; but take heed that ye do not your alms before men to be seen of them; otherwise ye have no reward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erefore, when ye shall do your alms do not sound a trumpet before you, as will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streets, that they may have glory of men.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But when thou doest alms let not thy left hand know what thy right hand doeth;

That thine alms may be in secret; and thy Father who seeth in secret, himself shall reward thee openly.

And when thou prayest thou shalt not do as the hypocrites,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corners of the streets, that they may be seen of men.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But thou, when thou prayest, enter into thy closet, and when thou hast shut thy door, pray to thy Father who is in secret; and thy Father, who seeth in secret, shall reward thee openly.

But when ye pray, use not vain repetitions, as the heathen, for they think that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speaking.

Be not ye therefore like unto them, for your Father knoweth what things ye have need of before ye ask him.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13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14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  
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16 더욱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금식하  
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함이니  
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  
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  
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  
어 네게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  
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  
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21 이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을  
것임이니라.

22 눈은 몸의 빛이니,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순전  
하면, 네 온 몸에 빛이 가득하리라.

23 그러나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에 어둠이  
가득하리니, 그러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  
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  
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For, if ye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your heav-  
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e forgive not men their trespasses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Moreover, when ye fast be not as the hypocrites, of  
a sad countenance, for they disfigure their faces that  
they may appear unto men to fast.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But thou, when thou fastest, anoint thy head, and  
wash thy face;

That thou appear not unto men to fast, but unto  
thy Father, who is in secret; and thy Father, who  
seeth in secret, shall reward thee openly.

Lay not up for yourselves treasures up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oth corrupt, and thieves break  
through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oth corrupt,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through nor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But if thine eye be evil,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If, therefore,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 2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낫지 아니하냐?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30 그러한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의 신의가 적지 아니할진대 그와 같이 너희도 입히시리라.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심이니라.
- 33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함이니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looked upon the twelve whom he had chosen, and said unto them: Remember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For behold, ye are they whom I have chosen to minister unto this people. Therefore I say unto you,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e shall eat, or what ye shall drink; nor yet for your body, what ye shall put on. Is not the life more than meat, and the body than raiment?

Behold the fowls of the air, for they sow not, neither do they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eth them. Are ye not much better than they?

Which of you by taking thought can add one cubit unto his stature?

And why take ye thought for raiment?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toil not, neither do they spin;

And yet I say un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Wherefore, if God so clothe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nd tomorrow is cast into the oven, even so will he clothe you, if ye are not of little faith.

Therefore take no thought,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erewithal shall we be clothed?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eth that ye have need of all these things.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the morrow shall take thought for the things of itself. Sufficient is the day unto the evil thereof.

### 제 3 니파이 14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에게로 돌이키사, 다시 그들에게 그 입을 열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 3 또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 4 또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 5 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내어 던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어 던지리라.
-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 9 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 10 또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로 너희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임이니라.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 3 Nephi 14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turned again to the multitude, and did open his mouth unto them again, saying: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Judge not, that ye be not judged.

For with what judgment ye judge, ye shall be judged; and with what measure ye mete, it shall be measured to you again.

And why beholdest thou the mote that is in thy brother's eye, but considerest not the beam that is in thine own eye?

Or how wilt thou say to thy brother: Let me pull the mote out of thine eye—and behold, a beam is in thine own eye?

Thou hypocrite, first cast the beam out of thine own eye; and then shalt thou see clearly to cast the mote out of thy brother's eye.

Give not that which is holy unto the dogs, neither cast ye your pearls before swine, lest the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gain and rend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seek, and ye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every one that asketh, receiveth; and he that seeketh, findeth; and to him that knocketh, it shall be opened.

Or what man is there of you, who, if his son ask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 a fish, will he give him a serpent?

If ye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un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give good things to them that ask him?

Therefore, all things whatsoever ye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ye even 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Enter ye in at the strait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which leadeth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o go in thereat;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와,

23 이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비유하리니—

25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니라.

26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에 비유되리니—

27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Because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eth un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ravening wolves.

Ye shall know them by their fruits. Do men gather grapes of thorns, or figs of thistles?

Even so every good tree bringeth forth good fruit; but a corrupt tree bringeth forth evil fruit.

A good tree cannot bring forth evil fruit, neither a corrupt tree bring forth good fruit.

Every tree that bringeth not forth good frui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Wherefore, by their fruits ye shall know them.

Not every one that saith unto me, Lord, Lord, sh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thy name, and in thy name have cast out devils, and in thy name done many wonderful works?

And then will I profess un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e that work iniquity.

Therefore, whoso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I will liken him un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upon a rock—

And the rain descended,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upon that house; and it fell not, for it was founded upon a rock.

And every one that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not shall be likened unto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upon the sand—

And the rain descended,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upon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the fall of it.

### 제 3 니파이 15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가르친 바를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 중에 기이히 여기며,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으니, 이는 그들이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 3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한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준 바 되었던 율법은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 5 보라, 내가 곧 율법을 준 그요, 내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약한 그로라. 그러므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끝났느니라.
- 6 보라, 내가 선지자들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 7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옛 것이 지나갔다 하였음으로 인하여, 장차 이를 일에 관하여 말한 것을 폐하지 아니하는도다.
- 8 이는 보라,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성약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에서 끝났음이라.
- 9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
-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이는 이들이 진실로 나를 증거하였음이니라.

### 3 Nephi 15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ended these sayings he cast his eyes round about on the multitude, and said unto them: Behold, ye have heard the things which I taught before I ascended to my Father; therefore, whoso remembe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him will I raise up at the last day.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aid these words he perceived that there were some among them who marveled, and wondered what he would concerning the law of Moses; for they understood not the saying that old things had passed away, and that all things had become new.

And he said unto them: Marvel not that I said unto you that old things had passed away, and that all things had become new.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e law is fulfilled that was given unto Moses.

Behold, I am he that gave the law, and I am he who covenanted with my people Israel; therefore, the law in me is fulfilled, for I have come to fulfil the law; therefore it hath an end.

Behold, I do not destroy the prophets, for as many as have not been fulfilled in me, verily I say unto you, shall all be fulfilled.

And because I said unto you that old things have passed away, I do not destroy that which hath been spoken concerning things which are to come.

For behold, the covenant which I have made with my people is not all fulfilled; but the law which was given unto Moses hath an end in me.

Behold, I am the law, and the light. Look unto me, and endure to the end, and ye shall live; for unto him that endureth to the end will I give eternal life.

Behold, I have given unto you the commandments; therefore keep my commandments. And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for they truly testified of me.

- 1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에게 이르시되,
- 12 너희는 내 제자요, 너희는 요셉 집의 남은 자들이니 이 백성의 빛이니라.
- 13 또 보라, 이는 너희의 기업의 땅이요 아버지께서 이를 너희에게 주셨도다.
- 14 그리고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 15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 16 이만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그들에게 이르라 하셨나니,
- 17 곧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것이라.
- 18 그러나 이제 목이 뻣뻣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도록 아버지로부터 명하심을 받았느니라.
- 19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지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갈라져 나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 20 또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아버지께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에게서 갈라 놓으셨으되, 그들이 저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 21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said unto those twelve whom he had chosen:

Ye are my disciples; and ye are a light unto this people,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Joseph.

And behold, this is the land of your inheritance; and the Father hath given it unto you.

And not at any time hath the Father given me commandment that I should tell it unto your brethren at Jerusalem.

Neither at any time hath the Father given me commandment that I should tell unto them concerning the other tribes of the house of Israel, whom the Father hath led away out of the land.

This much did the Father command me, that I should tell unto them:

That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And now, because of stiffneckedness and unbelief they understood not my word; therefore I was commanded to say no more of the Father concerning this thing unto them.

But,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 Father hath commanded me, and I tell it unto you, that ye were separated from among them because of their iniquity; therefore it is because of their iniquity that they know not of you.

And verily, I say unto you again that the other tribes hath the Father separated from them; and it is because of their iniquity that they know not of them.

And verily I say unto you, that ye are they of whom I said: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22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돌이키게 될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23 또 그들은 내 말 곧 그들이 내 음성을 들으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어느 때라도 이방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을—곧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또 나를 보았나니, 너희는 나의 양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And they understood me not, for they supposed it had been the Gentiles; for they understood not that the Gentiles should be converted through their preaching.

And they understood me not that I sai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y understood me not that the Gentiles should not at any time hear my voice—that I should not manifest myself unto them save it were by the Holy Ghost.

But behold, ye have both heard my voice, and seen me; and ye are my sheep, and ye are numbered among those whom the Father hath given me.

### 제 3 니파이 16

- 1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땅에도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가 다니며 성역을 베푸는 그 주변 땅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나니,
- 2 이는 내가 말하는 그들은 아직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요, 나도 그들에게 아무 때에라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3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로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나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라는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 4 이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이러한 말을 기록하여,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백성, 곧 내가 성역을 베풀 때에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기록할 이 말씀이 보존되었다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면에 흩어질 그들 자손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도되어 들어오도록, 곧 인도되어 그들의 구속주인 나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라.
- 5 그때에 내가 그들을 땅의 사방에서 모아들이며,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리라.
- 6 또 이방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 7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일에 진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이러한 일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알려지리로다.

### 3 Nephi 16

An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I have other sheep, which are not of this land, neither of the land of Jerusalem, neither in any parts of that land round about whither I have been to minister.

For they of whom I speak are they who have not as yet heard my voice; neither have I at any time manifested myself unto them.

But I have received a commandment of the Father that I shall go unto them, and that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shall be numbered among my sheep, that there may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therefore I go to show myself unto them.

And I command you that ye shall write these sayings after I am gone, that if it so be that my people at Jerusalem, they who have seen me and been with me in my ministry, do not ask the Father in my name, that they may receive a knowledge of you by the Holy Ghost, and also of the other tribes whom they know not of, that these sayings which ye shall write shall be kept and shall be manifested unto the Gentiles, that through the fulness of the Gentiles, the remnant of their seed, who shall be scattered forth upon the face of the earth because of their unbelief, may be brought in, or may be brought to a knowledge of me, their Redeemer.

And then will I gather them in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nd then will I fulfil the covenant which the Father hath made unto all the people of the house of Israel.

And blessed are the Gentiles, because of their belief in me, in and of the Holy Ghost, which witnesses unto them of me and of the Father.

Behold, because of their belief in me, saith the Father, and because of the unbelief of you, O house of Israel, in the latter day shall the truth come unto the Gentiles, that the fulness of these things shall be made known unto them.



- 8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방인들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 있도다—그들이 이 땅 위에 나아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흘었으며,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밭 아래 밟힘을 당하였을지라도,
- 9 또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아버지의 심판으로 인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 후에,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며, 그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들 중에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한 후에—
- 10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복음을 대적하여 범 죄하며,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하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모든 나라 위에와, 온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자고하며, 온갖 거짓말과 속임과 악행과 온갖 위선과 살인과 사제술과 음행과 은밀한 가증함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 날에, 만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할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복음의 충만함을 그들에게서 취하리라.
- 11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내 백성에게 세운 바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니라.
- 12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이방인들이 너를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을 네게 보이나,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세운 나의 성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나의 충만한 복음의 지식에 이르게 되리도다.
- 13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여, 만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진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들이 나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 14 또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들을 짓밟음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도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But wo, saith the Father, unto the unbelieving of the Gentiles—for notwithstanding they have come forth upon the face of this land, and have scattered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have been cast out from among them, and have been trodden under feet by them;

And because of the mercies of the Father unto the Gentiles, and also the judgments of the Father upon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after all this, and I have caused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to be smitten, and to be afflicted, and to be slain, and to be cast out from among them, and to become hated by them, and to become a hiss and a byword among them—

And thus commandeth the Father that I should say unto you: At that day when the Gentiles shall sin against my gospel, and shall reject the fulness of my gospel, and shall b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above all nations, and above all the people of the whole earth, and shall be filled with all manner of lyings, and of deceits, and of mischiefs, and all manner of hypocrisy, and murders, and priestcrafts, and whoredoms, and of secret abominations; and if they shall do all those things, and shall reject the fulness of my gospel, behold, saith the Father, I will bring the fulness of my gospel from among them.

And then will I remember my covenant which I have made unto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I will bring my gospel unto them.

And I will show unto thee, O house of Israel, that the Gentiles shall not have power over you; but I will remember my covenant unto you, O house of Israel, and ye shall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fulness of my gospel.

But if the Gentiles will repent and return unto me, saith the Father, behold they shall be numbered among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I will not suffer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to go through among them, and tread them down, saith the Father.

15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돌이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아니할진대,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여, 참으로 내가 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저들을 짓밟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이 이후로는 아무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던지워 내 백성의 발 아래 밟힐 따름인 그 맛을 잃은 소금 같으리로다.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이같이 내게 명하사—나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어 저희 기업을 삼게 하셨느니라.

17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르되,

18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일 것이요. 소리를 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라.

19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발하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20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But if they will not turn unto me, and hearken unto my voice, I will suffer them, yea, I will suffer my people, O house of Israel, that they shall go through among them, and shall tread them down, and they shall be as salt that hath lost its savor, which is t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o be trodden under foot of my people, O house of Israel.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us hath the Father commanded me—that I should give unto this people this land for their inheritance.

And then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shall be fulfilled, which say:

Thy watchmen shall lift up the voice; with the voice together shall they sing, for they shall see eye to eye when the Lord shall bring again Zion.

Break forth into joy, sing together, ye waste places of Jerusalem; for the Lord hath comforted his people, he hath redeemed Jerusalem.

The Lord hath made bare his holy arm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 제 3 니파이 17

- 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때가 가까웠도다.
- 2 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희에게 말하도록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 3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 4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심이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시더라.
- 6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 7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 8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줄 내가 앎이니,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

### 3 Nephi 17

Behol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looked round about again on the multitude,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my time is at hand.

I perceive that ye are weak, that ye cannot understand all my words which I am commanded of the Father to speak unto you at this time.

Therefore, go ye unto your homes, and ponder upon the things which I have said, and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that ye may understand, and prepare your minds for the morrow, and I come unto you again.

But now I go unto the Father, and also to show myself unto the lost tribes of Israel, for they are not lost unto the Father, for he knoweth whither he hath take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cast his eyes round about again on the multitude, and beheld they were in tears, and did look steadfastly upon him as if they would ask him to tarry a little longer with them.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my bowels are filled with compassion towards you.

Have ye any that are sick among you? Bring them hither. Have ye any that are lame, or blind, or halt, or maimed, or leprous, or that are withered, or that are deaf, or that are afflicted in any manner? Bring them hither and I will heal them, for I have compassion upon you; my bowels are filled with mercy.

For I perceive that ye desire that I should show unto you what I have done unto your brethren at Jerusalem, for I see that your faith is sufficient that I should heal you.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 10 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무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 있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더라.
-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 12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 주었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더니, 무리를 명하사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속으로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스라엘 집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번민하나이다.
- 15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 위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니, 이제 그 기도하신 것을 능히 기록할 수 없으되, 그의 기도를 들은 무리가 증거 하였도다.
- 16 이에 그들의 증거함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
- 17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떠한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had thus spoken, all the multitude, with one accord, did go forth with their sick and their afflicted, and their lame, and with their blind, and with their dumb, and with all them that were afflicted in any manner; and he did heal them every one as they were brought forth unto him.

And they did all, both they who had been healed and they who were whole, bow down at his feet, and did worship him; and as many as could come for the multitude did kiss his feet, insomuch that they did bathe his feet with their tear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ommanded that their little children should be brought.

So they brought their little children and set them down upon the ground round about him, and Jesus stood in the midst; and the multitude gave way till they had all been brought unto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all been brought, and Jesus stood in the midst, he commanded the multitude that they should kneel down upon the grou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knelt upon the ground, Jesus groaned within himself, and said: Father, I am troubled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of the house of Israel.

And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he himself also knelt upon the earth; and behold he prayed unto the Father, and the things which he prayed cannot be written, and the multitude did bear record who heard him.

And after this manner do they bear record: The eye hath never seen, neither hath the ear heard, before, so great and marvelous things as we saw and heard Jesus speak unto the Father;

And no tongue can speak, neither can there be written by any man, neither can the hearts of men conceive so great and marvelous things as we both saw and heard Jesus speak; and no one can conceive of the joy which filled our souls at the time we heard him pray for us unto the Father.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 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일어서셨으나, 무리의 기쁨 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압도되어 있는지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고, 그들더러 일어나라 하시더라.

20 이에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매,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21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 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께 기도하시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23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24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 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 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 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25 이에 무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것은 그들 각 사람이 모두 친히 보고 들었음이라. 또 그들은 수효가 대 략 이천오백 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made an end of praying unto the Father, he arose; but so great was the joy of the multitude that they were overcome.

And it came to pass that Jesus spake unto them, and bade them arise.

And they arose from the earth, and he said unto them: Blessed are ye because of your faith. And now behold, my joy is full.

And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he wept, and the multitude bare record of it, and he took their little children, one by one, and blessed them, and prayed unto the Father for them.

And when he had done this he wept again;

And he spake unto the multitude, and said unto them: Behold your little ones.

And as they looked to behold they cast their eyes towards heaven, and they saw the heavens open, and they saw angels descending out of heaven as it were in the midst of fire; and they came down and encircled those little ones about, and they were encircled about with fire; and the angels did minister unto them.

And the multitude did see and hear and bear record; and they know that their record is true for they all of them did see and hear, every man for himself; and they were in number about two thousand and five hundred souls; and they did consist of men, women, and children.

### 제 3 니파이 18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시니라.
- 2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
- 3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 4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 5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임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 6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 7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의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시게 하시니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다.
- 10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요,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 3 Nephi 18

And it came to pass that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bring forth some bread and wine unto him.

And while they were gone for bread and wine, he commanded the multitude that they should sit themselves down upon the earth.

And when the disciples had come with bread and wine, he took of the bread and brake and blessed it; and he gave unto the disciples and commanded that they should eat.

And when they had eaten and were filled, he commanded that they should give unto the multitude.

And when the multitude had eaten and were filled, he said unto the disciples: Behold there shall one be ordained among you, and to him will I give power that he shall break bread and bless it and give it unto the people of my church, unto all those who shall believe and be baptized in my name.

And this shall ye always observe to do, even as I have done, even as I have broken bread and blessed it and given it unto you.

And this shall ye do in remembrance of my body, which I have shown unto you. And it shall be a testimony unto the Father that ye do always remember me. And if ye do always remember me ye shall have my Spirit to be with you.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said these words, he commanded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take of the wine of the cup and drink of it, and that they should also give unto the multitude that they might drink of i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o, and did drink of it and were filled; and they gave unto the multitude, and they did drink, and they were filled.

And when the disciples had done this, Jesus said unto them: Blessed are ye for this thing which ye have done, for this is fulfilling my commandments, and this doth witness unto the Father that ye are willing to do that which I have commanded you.

- 11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 12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라.
- 13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칠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으리라.
- 14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주라 하신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 1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 16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 18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 19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 20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 21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And this shall ye always do to those who repent and are baptized in my name; and ye shall do it in remembrance of my blood, which I have shed for you, that ye may witness unto the Father that ye do always remember me. And if ye do always remember me ye shall have my Spirit to be with you.

And I give unto you a commandment that ye shall do these things. And if ye shall always do these things blessed are ye, for ye are built upon my rock.

But whoso among you shall do more or less than these are not built upon my rock, but are built upon a sandy foundation; and when the rain descends, and the floods come, and the winds blow, and beat upon them, they shall fall, and the gates of hell are ready open to receive them.

Therefore blessed are ye if ye shall keep my commandments, which the Father hath commanded me that I should give unto you.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e must watch and pray always, lest ye be tempted by the devil, and ye be led away captive by him.

And as I have prayed among you even so shall ye pray in my church, among my people who do repent and are baptized in my name. Behold I am the light; I have set an example for you.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unto his disciples, he turned again unto the multitude and said unto them:

Behol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e must watch and pray always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for Satan desireth to have you,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Therefore ye must always pray unto the Father in my name;

And whatsoever ye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which is right,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behold it shall be given unto you.

Pray in your families unto the Father, always in my name, that your wives and your children may be blessed.

- 22 또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일지며,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아무라도 너희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여 너희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 23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쫓아 내지 말라. 또 만일 그들이 자주 너희에게로 오거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 24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다 목격하였느니라.
- 25 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게 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들게 하느니라.
- 2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 27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또 한가지 계명을 주노라.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른 계명들을 이루어야 하리로다.
- 28 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 29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라.
- 30 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 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And behold, ye shall meet together oft; and ye shall not forbid any man from coming unto you when ye shall meet together, but suffer them that they may come unto you and forbid them not;

But ye shall pray for them, and shall not cast them out; and if it so be that they come unto you oft ye shall pray for them unto the Father, in my name.

Therefore, hold up your light that it may shine unto the world. Behold I am the light which ye shall hold up—that which ye have seen me do. Behold ye see that I have prayed unto the Father, and ye all have witnessed.

And ye see that I have commanded that none of you should go away, but rather have commanded that ye should come unto me, that ye might feel and see; even so shall ye do unto the world; and whosoever breaketh this commandment suffereth himself to be led into temptation.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turned his eyes again upon the disciples whom he had chosen, and said unto them:

Behol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give unto you another commandment, and then I must go unto my Father that I may fulfil other commandments which he hath given me.

And now behold, this is the commandment which I give unto you, that ye shall not suffer any one knowingly to partake of my flesh and blood unworthily, when ye shall minister it;

For whoso eateth and drinketh my flesh and blood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s soul; therefore if ye know that a man is unworthy to eat and drink of my flesh and blood ye shall forbid him.

Nevertheless, ye shall not cast him out from among you, but ye shall minister unto him and shall pray for him unto the Father, in my name; and if it so be that he repenteth and is baptized in my name, then shall ye receive him, and shall minister unto him of my flesh and blood.



31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32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 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을 지켜 너희가 정죄 아래 들지 않게 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정죄하시는 자에게 화가 있음이니라.

34 또 내가 이러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논쟁으로 인함이니,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35 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느니라.

3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손을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37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무리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고 나자, 구름이 와서 무리를 덮으매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더라.

39 그리고 그들이 덮여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보고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음을 증거하였느니라.

But if he repent not he shall not be numbered among my people, that he may not destroy my people, for behold I know my sheep, and they are numbered.

Nevertheless, ye shall not cast him out of your synagogues, or your places of worship, for unto such shall ye continue to minister; for ye know not but what they will return and repent, and come unto me with full purpose of heart, and I shall heal them; and ye shall be the means of bringing salvation unto them.

Therefore, keep these sayings which I have commanded you that ye come not under condemnation; for wo unto him whom the Father condemneth.

And I give you these commandments because of the disputations which have been among you. And blessed are ye if ye have no disputations among you.

And now I go unto the Father, because it is expedient that I should go unto the Father for your sake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made an end of these sayings, he touched with his hand the disciples whom he had chosen, one by one, even until he had touched them all, and spake unto them as he touched them.

And the multitude heard not the words which he spake, therefore they did not bear record; but the disciples bare record that he gave them power to give the Holy Ghost. And I will show unto you hereafter that this record is tru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touched them all, there came a cloud and overshadowed the multitude that they could not see Jesus.

And while they were overshadowed he departed from them, and ascended into heaven. And the disciples saw and did bear record that he ascended again into heaven.

### 제 3 니파이 19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무리가 흩어져,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 2 그리고 무리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그가 또한 다음 날에도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는 사실이 아직 채 어둡기도 전에 즉시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느니라.
- 3 참으로 또 그뿐 아니라 밤새 예수께 관하여 널리 알려졌으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많이 한지라 많은 자들이, 참으로 심히 큰 수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실 곳에 다음 날 가 있려고 그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더라.
-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보라, 니파이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디모데라 이름하는 그의 아우와, 또한 요나라 이름하는 그의 아들과 또한 매도나이와 그 형제 매도나이하와 쿠멘과 쿠메논하이와 예레미야와 셈논과 요나와 시드기야와 이사야—이제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더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 무리 한가운데 섰느니라.
- 5 또 보라, 무리가 심히 크지라 저들은 그들을 열두 떼로 나누게 하더라.
- 6 또 이 열둘이 무리를 가르쳤으니, 보라, 저들이 무리로 하여금 지면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 7 또 이 제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 8 또 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베폰 후에, 보라, 저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 3 Nephi 19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ascended into heaven, the multitude did disperse, and every man did take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did return to his own home.

And it was noised abroad among the people immediately, before it was yet dark, that the multitude had seen Jesus, and that he had ministered unto them, and that he would also show himself on the morrow unto the multitude.

Yea, and even all the night it was noised abroad concerning Jesus; and insomuch did they send forth unto the people that there were many, yea, an exceedingly great number, did labor exceedingly all that night, that they might be on the morrow in the place where Jesus should show himself unto the multitude.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when the multitude was gathered together, behold, Nephi and his brother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whose name was Timothy, and also his son, whose name was Jonas, and also Mathoni, and Mathonihah, his brother, and Kumen, and Kumenonhi, and Jeremiah, and Shemnon, and Jonas, and Zedekiah, and Isaiah—now these were the names of the disciples whom Jesus had chosen—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forth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 multitude.

And behold, the multitude was so great that they did cause that they should be separated into twelve bodies.

And the twelve did teach the multitude; and behold, they did cause that the multitude should kneel dow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should pray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And the disciples did pray unto the Father also in the name of Jes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rose and ministered unto the people.

And when they had ministered those same words which Jesus had spoken—nothing varying from the words which Jesus had spoken—behold, they knelt again and prayed 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 9 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
- 10 또 저들이 이같이 기도하고 나서 물가로 내려가매 무리가 저들을 따랐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느니라.
- 12 또 그가 물에서 올라와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매 성신이 저들 위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성신과 불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 14 또 보라 저들은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였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지라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였으며, 또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 저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을 때에, 보라,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저들에게 성역을 베풀시더라.
-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하사 땅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사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
- 18 또 보라,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되, 저들이 예수께 기도하며, 그를 저들의 주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더라.
-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떠나 저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이르시되,
- 20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믿음으로 인함이니이다.
- 21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And they did pray for that which they most desired; and they desired that the Holy Ghost should be given unto them.

And when they had thus prayed they went down unto the water's edge, and the multitude followed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was baptized.

And he came up out of the water and began to baptize. And he baptized all those whom Jesus had chosen.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all baptized and had come up out of the water, the Holy Ghost did fall upon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And behold, they were encircled about as if it were by fire; and it came down from heaven, and the multitude did witness it, and did bear record; and angels did come down out of heaven and did minister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hile the angels were ministering unto the disciples, behold,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and ministered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pake unto the multitude, and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kneel down again upon the earth, and also that his disciples should kneel down upon the earth.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all knelt down upon the earth, he commanded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pray.

And behold, they began to pray; and they did pray unto Jesus, calling him their Lord an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Jesus departed out of the midst of them, and went a little way off from them and bowed himself to the earth, and he said:

Father, I thank thee that thou hast given the Holy Ghost unto these whom I have chosen; and it is because of their belief in me that I have chosen them out of the world.

Father, I pray thee that thou wilt give the Holy Ghost unto all them that shall believe in their words.

22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신을 주셨사오며,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시며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고로,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또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까닭이니이다.

23 또 이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를 위함이오니, 그들로 나를 믿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보라, 저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에게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얼굴빛이 저들에게 비취매, 보라, 저들이 예수의 얼굴과 또한 그 옷과 같이 희더라. 또 보라, 그 희기가 모든 흰 것보다 희었으니, 참으로 그 흰 것처럼 흰 것이 땅 위에 도무지 있을 수 없더라.

26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더라.

27 이에 다시 저들에게서 돌이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여 이르시되,

28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택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도 저들이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된 것같이 저들의 말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Father, thou hast given them the Holy Ghost because they believe in me; and thou seest that they believe in me because thou hearest them, and they pray unto me; and they pray unto me because I am with them.

And now Father, I pray unto thee for them, and also for all those who shall believe on their words, that they may believe in me, that I may be in them as thou, Father, art in me, that we may be on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thus prayed unto the Father, he came unto his disciples, and behold, they did still continue, without ceasing, to pray unto him; and they did not multiply many words, for it was given unto them what they should pray, and they were filled with desire.

And it came to pass that Jesus blessed them as they did pray unto him; and his countenance did smile upon them, and the light of his countenance did shine upon them, and behold they were as white as the countenance and also the garments of Jesus; and behold the whiteness thereof did exceed all the whiteness, yea, even there could be nothing upon earth so white as the whiteness thereof.

And Jesus said unto them: Pray on; nevertheless they did not cease to pray.

And he turned from them again, and went a little way off and bowed himself to the earth; and he prayed again unto the Father, saying:

Father, I thank thee that thou hast purified those whom I have chosen, because of their faith, and I pray for them, and also for them who shall believe on their words, that they may be purified in me, through faith on their words, even as they are purified in me.

- 29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로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나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 30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시니, 보라, 저들이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 미소하시니, 보라, 저들이 참으로 예수와 같이 희더라.
-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가서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나,
- 32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혀로써 말할 수 없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도다.
- 33 또 무리가 듣고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닫더라.
- 34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기이하였던지라,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도다.
-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큰 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런고로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
- 3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것처럼 큰 일을 그들 중에서 본 자가 없고, 너희의 들은 바 것처럼 큰 일을 그들이 듣지 못하였도다 하시니라.

Father, I pray not for the world, but for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eir faith, that they may be purified in me, that I may be in them as thou, Father, art in me, that we may be one, that I may be glorified in them.

And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came again unto his disciples; and behold they did pray steadfastly, without ceasing, unto him; and he did smile upon them again; and behold they were white, even as Jesu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ent again a little way off and prayed unto the Father;

And tongue cannot speak the words which he prayed, neither can be written by man the words which he prayed.

And the multitude did hear and do bear record; and their hearts were open and they did understand in their hearts the words which he prayed.

Nevertheless, so great and marvelous were the words which he prayed that they cannot be written, neither can they be uttered by man.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made an end of praying he came again to the disciples, and said unto them: So great faith have I never seen among all the Jews; wherefore I could not show unto them so great miracles, because of their unbelief.

Verily I say unto you, there are none of them that have seen so great things as ye have seen; neither have they heard so great things as ye have heard.

### 제 3 니파이 20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리 하셨더라. 또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게 하셨느니라.
- 2 또 그들에게 일어나 그들의 발로 설 것을 명하시매,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발로 섰느니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다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시더라.
- 4 또 그들이 먹은 후에 그들에게 명하사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라 하셨느니라.
- 5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기를 다하며, 예수께서 또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셨느니라.
- 6 이제 제자들이나 무리가 가져온 떡이나 포도주가 없었더라.
- 7 그러나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셨느니라.
- 8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 9 이제 무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된지라,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그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예수께 영광을 돌리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으되, 보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인 이 백성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계명을 마저 다 이루노라.
- 11 너희는 내가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라고 너희에게 말하며 이른 것을 기억하나니—보라, 그의 말이 기록되어 너희 앞에 있는즉, 그러므로 그것을 상고하라—

### 3 Nephi 20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ommanded the multitude that they should cease to pray, and also his disciples.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cease to pray in their hearts.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arise and stand up upon their feet. And they arose up and stood upon their fee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rake bread again and blessed it, and gave to the disciples to eat.

And when they had eate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break bread, and give unto the multitude.

And when they had given unto the multitude he also gave them wine to drink, and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give unto the multitude.

Now, there had been no bread, neither wine, brought by the disciples, neither by the multitude;

But he truly gave unto them bread to eat, and also wine to drink.

And he said unto them: He that eateth this bread eateth of my body to his soul; and he that drinketh of this wine drinketh of my blood to his soul; and his soul shall never hunger nor thirst, but shall be filled.

Now, when the multitude had all eaten and drunk, behold, they were filled with the Spirit; and they did cry out with one voice, and gave glory to Jesus, whom they both saw and hea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all given glory unto Jesus, he said unto them: Behold now I finish the commandment which the Father hath commanded me concerning this people,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Ye remember that I spake unto you, and said that when the words of Isaiah should be fulfilled—behold they are written, ye have them before you, therefore search them—

-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성약이 이루어지리하다.
- 13 또 지면에 널리 흩어질 남은 자들이 그때, 동에서와 서에서, 또 남에서와 북에서 모여들어, 그들을 구속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리라.
- 14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기업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게 명하셨느니라.
- 15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게 될 축복 이후에, 그들이 내 백성을 흠은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 16 그때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너희가 그들 중에 나아갈 것인즉, 너희는 수많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있음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 17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리리니, 네 모든 원수가 끊어지리라.
- 18 또 내가 내 백성을 함께 모으기를, 사람이 자기의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하리라.
- 19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더불어 성약을 세우신 내 백성을, 참으로 내가 네 뿔을 철이 되게 하며, 네 굽을 놋이 되게 할 것임이라. 또 네가 많은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인즉, 내가 그들의 소득을 성별하여 주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성별하여 온 땅의 주께 드리리라. 보라, 이를 행하는 자는 나이니라.
- 20 또 이렇게 되리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나의 공의의 칼이 그들 위에 걸려 있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들 위에, 참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 위에 떨어지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21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내 백성을 굳게 세우리라.

An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when they shall be fulfilled then is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which the Father hath made unto his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then shall the remnants, which shall b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the earth, be gathered in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and from the south and from the north; and they shall be brought to the knowledge of the Lord their God, who hath redeemed them.

And the Father hath commanded me that I should give unto you this land, for your inheritance.

And I say unto you, that if the Gentiles do not repent after the blessing which they shall receive, after they have scattered my people—

Then shall ye,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Jacob, go forth among them; and ye shall be in the midst of them who shall be many; and ye shall be among them as a lion among the beasts of the forest, and as a young lion among the flocks of sheep, who, if he goeth through both treadeth down and teareth in pieces, and none can deliver.

Thy hand shall be lifted up upon thine adversaries, and all thine enemies shall be cut off.

And I will gather my people together as a man gathereth his sheaves into the floor.

For I will make my people with whom the Father hath covenanted, yea, I will make thy horn iron, and I will make thy hoofs brass. And thou shalt beat in pieces many people; and I will consecrate their gain unto the Lord, and their substance unto the Lord of the whole earth. And behold, I am he who doeth it.

And it shall come to pass, saith the Father, that the sword of my justice shall hang over them at that day; and except they repent it shall fall upon them, saith the Father, yea, even upon all the nations of the Gentil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 will establish my people, O house of Israel.

22 또 보라, 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세워 내가 너희 조상 야곱과 세운 성약을 이루리니,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능이 이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23 보라, 나는 모세가 일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일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릇 그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 그이니라.

2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따라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25 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6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로 하여금 각각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임으로 말미암음이라—

27 또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 그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리니, 이르시되,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이에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성신을 부어 주시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복이 그들로 만인 위에 용사가 되게 하여 내 백성을 즐기기에 이르리로다.

28 또 그들이 이 땅의 백성에게 채찍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 만일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내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And behold, this people will I establish in this land, unto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which I made with your father Jacob; and it shall be a New Jerusalem. And the powers of heaven shall be in the midst of this people; yea, even I will be in the midst of you.

Behold, I am he of whom Moses spake, saying: A prophet shall the Lord your God raise up unto you of your brethren, like unto me; him shall ye hear in all things whatsoever he shall say unto you.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 soul who will not hear that prophet shall be cut off from among the people.

Verily I say unto you, yea, and all the prophets from Samuel and those that follow after, as many as have spoken, have testified of me.

And behold, ye are the children of the prophets; and ye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ye are of the covenant which the Father made with your fathers, saying unto Abraham: And in thy seed shall all the kindreds of the earth be blessed.

The Father having raised me up unto you first, and sent me to bless you in turning away every one of you from his iniquities; and this because ye are the children of the covenant—

And after that ye were blessed then fulfilleth the Father the covenant which he made with Abraham, saying: In thy seed shall all the kindreds of the earth be blessed—unto the pouring out of the Holy Ghost through me upon the Gentiles, which blessing upon the Gentiles shall make them mighty above all, unto the scattering of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they shall be a scourge unto the people of this land. Nevertheless, when they shall have received the fulness of my gospel, then if they shall harden their hearts against me I will return their iniquities upon their own heads, saith the Father.



29 그리고 내가 내 백성과 더불어 세운 성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그들과 성약하기를 나의 정한 때에 내가 그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예루살렘 땅이니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30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내 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르면,

31 또 그들이 나를,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

32 그때 그들의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로다.

33 그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함께 모으시고,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34 그때 그들이 기쁨을 발하리니—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35 아버지께서 열방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아버지의 구원을 보리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36 또 그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니, 시온이여, 깰지어다. 다시 깨어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니라.

37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 버릴지어다.

38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너희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팔았으니,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참으로 그 날에 그들은 내가 곧 말하는 그인 줄 알리로다.

And I will remember the covenant which I have made with my people; and I have covenanted with them that I would gather them together in mine own due time, that I would give unto them again the land of their fathers for their inheritance, which is the land of Jerusalem, which is the promised land unto them forever, saith the Father.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 time cometh, when the fulness of my gospel shall be preached unto them;

And they shall believe in me, that I am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nd shall pray unto the Father in my name.

Then shall their watchmen lift up their voice, and with the voice together shall they sing; for they shall see eye to eye.

Then will the Father gather them together again, and give unto them Jerusalem for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Then shall they break forth into joy—Sing together, ye waste places of Jerusalem; for the Father hath comforted his people, he hath redeemed Jerusalem.

The Father hath made bare his holy arm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the Father; and the Father and I are one.

And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at which is written: Awake, awake again, and put on thy strength, O Zion; put on thy beautiful garments, O Jerusalem, the holy city, for henceforth there shall no more come into thee the uncircumcised and the unclean.

Shake thyself from the dust; arise, sit down, O Jerusalem; loose thyself from the bands of thy neck, O captive daughter of Zion.

For thus saith the Lord: Ye have sold yourselves for naught, and ye shall be redeemed without money.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my people shall know my name; yea, in that day they shall know that I am he that doth speak.

40 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것이요,

41 또 그때 한 외침이 나아가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갈지어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42 이는 주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이므로, 너희가 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43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44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랐음 같이—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45 그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자기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4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정녕 이르리라. 그때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이 성약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때 예루살렘에 다시 내 백성이 거하게 되리니, 그 곳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되리로다.

And then shall they say: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that bringeth good tidings unto them, that publisheth peace; that bringeth good tidings unto them of good, that publisheth salvation; that saith unto Zion: Thy God reigneth!

And then shall a cry go forth: Depart ye, depart ye, go ye out from thence, touch not that which is unclean; go ye out of the midst of her; be ye clean that bear the vessels of the Lord.

For ye shall not go out with haste nor go by flight; for the Lord will go before you, and the God of Israel shall be your rearward.

Behold, my servant shall deal prudently; he shall be exalted and extolled and be very high.

As many were astonished at thee—his visage was so marred, more than any man, and his form more than the sons of men—

So shall he sprinkle many nations; the kings shall shut their mouths at him, for that which had not been told them shall they see; and that which they had not heard shall they consider.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all these things shall surely come, even as the Father hath commanded me. Then shall this covenant which the Father hath covenanted with his people be fulfilled; and then shall Jerusalem be inhabited again with my people, and it shall be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 제 3 니파이 21

- 1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어, 이러한 일들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할 때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곧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때라.
- 2 또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표적으로 주는 것이니라—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이후로 나 스스로, 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신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할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이 백성에 관하여, 또 그들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나의 이 백성에 관하여 알게 될 때에,
- 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지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너희에게로 나아올 때에,
- 4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능으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서 너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바 곧 그의 성약이 이루어지게 함은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임이라.
- 5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과 이후에 너희 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죄악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에 빠져들 너희 자손에게로 나아올 때에,
- 6 이는 아버지께서 이같이 하사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서 나아오는 것이 마땅함이요, 이리하여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이고자 하심은 이 까닭이니, 곧 이방인들로 하여금 만일 저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것 같으면,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의 교리의 참된 요점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 3 Nephi 21

And verily I say unto you, I give unto you a sign, that ye may know the time when these things shall be about to take place—that I shall gather in, from their long dispersion,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shall establish again among them my Zion;

And behold, this is the thing which I will give unto you for a sign—for verily I say unto you that when these things which I declare unto you, and which I shall declare unto you hereafter of myself,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ich shall be given unto you of the Father, shall be made known unto the Gentiles that they may know concerning this people who are a remnant of the house of Jacob, and concerning this my people who shall be scattered by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en these things shall be made known unto them of the Father, and shall come forth of the Father, from them unto you;

For it is wisdom in the Father that they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land, and be set up as a free people by the power of the Father, that these things might come forth from them unto a remnant of your seed, that the covenant of the Father may be fulfilled which he hath covenanted with his people, O house of Israel;

Therefore, when these works and the works which shall be wrought among you hereafter shall come forth from the Gentiles, unto your seed which shall dwindle in unbelief because of iniquity;

For thus it behooveth the Father that it should come forth from the Gentiles, that he may show forth his power unto the Gentiles, for this cause that the Gentiles, if they will not harden their hearts, that they may repent and come unto me and be baptized in my name and know of the true points of my doctrine, that they may be numbered among my people, O house of Israel;

- 7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네 자손이 이러한 일들을 알기 시작할 때에—그것이 저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들이 알리로다.
- 8 또 그 날이 이르면, 열왕이 입을 봉하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이니라.
- 9 이는 그 날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 그 일이 그들 중에서 크고 기이한 일일 터이므로, 사람이 이를 그들에게 선포할 지라도, 그들 중에 이를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으리라.
- 10 그러나 보라, 내 종의 생명은 나의 손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비록 그들로 인하여 그가 상함을 입을지라도, 그들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또 내가 그를 낮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계보다 큼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것임이라.
- 11 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곧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게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사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게 하실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성약의 백성인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 12 또 야곱의 남은 자인 나의 백성은 이방인들 중에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이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 13 그들의 손이 그들의 대적들 위에 들리리니, 그들의 모든 원수가 끊어지리라.
- 14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방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 날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군마를 너희 중에서 끊을 것이며 너희 병거들을 부술 것이요,
- 15 또 내가 네 땅의 성읍들을 끊어 버리며, 너의 모든 요새를 헐어내릴 것이요,
- 16 또 내가 마술을 너의 땅에서 끊어 버리리니, 네게 점쟁이가 다시는 없게 될 것이요,

And when these things come to pass that thy seed shall begin to know these things—it shall be a sign unto them, that they may know that the work of the Father hath already commenced unto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which he hath made unto the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when that day shall come, it shall come to pass that kings shall shut their mouths; for that which had not been told them shall they see; and that which they had not heard shall they consider.

For in that day, for my sake shall the Father work a work, which shall be a great and a marvelous work among them; and there shall be among them those who will not believe it, although a man shall declare it unto them.

But behold, the life of my servant shall be in my hand; therefore they shall not hurt him, although he shall be marred because of them. Yet I will heal him, for I will show unto them that my wisdom is greater than the cunning of the devil.

Therefore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will not believe in my words, who am Jesus Christ, which the Father shall cause him to bring forth unto the Gentiles, and shall give unto him power that he shall bring them forth unto the Gentiles, (it shall be done even as Moses said) they shall be cut off from among my people who are of the covenant.

And my people who are a remnant of Jacob shall be among the Gentiles, yea, in the midst of them as a lion among the beasts of the forest, as a young lion among the flocks of sheep, who, if he go through both treadeth down and teareth in pieces, and none can deliver.

Their hand shall be lifted up upon their adversaries, and all their enemies shall be cut off.

Yea, wo be unto the Gentiles except they repent; for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saith the Father, that I will cut off thy horses out of the midst of thee, and I will destroy thy chariots;

And I will cut off the cities of thy land, and throw down all thy strongholds;

And I will cut off witchcrafts out of thy land, and thou shalt have no more soothsayers;

- 17 너의 새긴 우상과 너의 주상을 내가 너의 가운데서 끊어 버리리니, 네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요,
- 18 또 내가 너의 숲을 너의 가운데서 뽑아 버리고, 그와 같이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임이니라.
- 19 또 모든 거짓말과 속임과 시기함과 다툼과 사제술과 음행이 없어지게 되리라.
- 20 이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을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릴 것임이라.
- 21 또 내가, 참으로 이방인에게 함같이, 그들에게 보복과 분노로 갚으리니, 그 같은 것을 그들이 듣지 못하던 것일 것이라.
- 22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들은 성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 23 또 그들은 내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로서 오게 될 모든 자를 도와, 그들로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한 성을 세우게 할 것이라.
- 24 또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을 도와 온 지면에 흩어진 그들을 모여들게 하리니, 곧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
- 25 또 그때 하늘의 권능이 그들 중에 내려올 것이요, 나도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 26 또 그때 아버지의 일이 그 날에 시작되리니, 곧 이 백성의 남은 자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아버지의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 인도해 내셨던 잃어버린 지파들 가운데서 시작되리라.
- 27 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시작되어, 그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사,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리라.

Thy graven images I will also cut off, and thy standing images out of the midst of thee, and thou shalt no more worship the works of thy hands;

And I will pluck up thy groves out of the midst of thee; so will I destroy thy citi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all lyings, and deceivings, and envyings, and strifes, and priestcrafts, and whoredoms, shall be done away.

For it shall come to pass, saith the Father, that at that day whosoever will not repent and come unto my Beloved Son, them will I cut off from among my people, O house of Israel;

And I will execute vengeance and fury upon them, even as upon the heathen, such as they have not heard.

But if they will repent and hearken unto my words, and harden not their hearts, I will establish my church among them, and they shall come in unto the covenant and be numbered among this the remnant of Jacob, unto whom I have given this land for their inheritance;

And they shall assist my people, the remnant of Jacob, and also as many of the house of Israel as shall come, that they may build a city, which shall be called the New Jerusalem.

And then shall they assist my people that they may be gathered in, who ar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in unto the New Jerusalem.

And then shall the power of heaven come down among them; and I also will be in the midst.

And then shall the work of the Father commence at that day, even when this gospel shall be preached among the remnant of this people. Verily I say unto you, at that day shall the work of the Father commence among all the dispersed of my people, yea, even the tribes which have been lost, which the Father hath led away out of Jerusalem.

Yea, the work shall commence among all the dispersed of my people, with the Father to prepare the way whereby they may come unto me, that they may call on the Father in my name.

28 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시작 되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모일 길을 예비하시리라.

29 이에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나아가려니와, 그들이 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행하며 내가 그들의 후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Yea, and then shall the work commence, with the Father among all nations in preparing the way whereby his people may be gathered home to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And they shall go out from all nations; and they shall not go out in haste, nor go by flight, for I will go before them, saith the Father, and I will be their rearward.

### 제 3 니파이 22

- 1 또 그대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발하며, 크게 외칠지어다. 황무한 자의 자식이 결혼한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 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2 네 장막의 터를 넓히며, 그들로 네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게 하되,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네 자손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 4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놓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는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네 청년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5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며, 네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임 이니라.
- 6 이는 네가 버려졌을 때 주께서 너를 부르시기를, 마치 버림받아 마음이 비통하게 된 여인, 곧 청년 때의 아내를 부르심같이 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너를 모을 것이라.
- 8 내가 작은 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네게서 가리웠으나, 영원한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주네 구속주의 말이니라.
- 9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으니, 이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음이니라.
- 10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성약은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3 Nephi 22

And then shall that which is written come to pass: Sing, O barren, thou that didst not bear; break forth into singing, and cry aloud, thou that didst not travail with child; for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than the children of the married wife, saith the Lord.

Enlarge the place of thy tent, and let them stretch forth the curtains of thy habitations; spare not, lengthen thy cords and strengthen thy stakes;

For thou shalt break forth on the right hand and on the left, and thy seed shall inherit the Gentiles and make the desolate cities to be inhabited.

Fear not, for thou shalt not be ashamed; neither be thou confounded, for thou shalt not be put to shame; for thou shalt forget the shame of thy youth, and shalt not remember the reproach of thy youth, and shalt not remember the reproach of thy widowhood any more.

For thy maker, thy husband,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and thy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the God of the whole earth shall he be called.

For the Lord hath called thee as a woman forsaken and grieved in spirit, and a wife of youth, when thou wast refused, saith thy God.

For a small moment have I forsaken thee, but with great mercies will I gather thee.

In a little wrath I hid my face from thee for a moment, but with everlasting kindness will I have mercy on thee, saith the Lord thy Redeemer.

For this, the waters of Noah unto me, for as I have sworn that the waters of Noah should no more go over the earth, so have I sworn that I would not be wroth with thee.

For the mountains shall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but 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thee, neither shall the covenant of my peace be removed, saith the Lord that hath mercy on thee.

11 너 고난을 받고 광풍에 요동하고도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을 놓으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놓으리라.

12 또 홍보석으로 네 창문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모든 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니라.

13 그리고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 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

14 너는 의로 설 것이라. 너는 학대로부터 멀어지 리니, 이는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임이며, 공포로 부터도 네가 멀어지리니 이는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임이라.

15 보라, 그들이 정녕 함께 모여 너를 대적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리로 다.

16 보라, 불 가운데 숯불을 붙여 자기가 쓸 만한 기구를 만들어 내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진멸자도 내가 지었느니라.

17 무릇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무릇 재판 때에 너를 대하여 욕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주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말미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O thou afflicted, tossed with tempest, and not comforted! Behold, I will lay thy stones with fair colors, and lay thy foundations with sapphires.

And I will make thy windows of agates, and thy gates of carbuncles, and all thy borders of pleasant stones.

And all thy children shall be taught of the Lord; and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In righteousness shalt thou be established; thou shalt be far from oppression for thou shalt not fear, and from terror for it shall not come near thee.

Behold, they shall surely gather together against thee, not by me; whosoever shall gather together against thee shall fall for thy sake.

Behold, I have created the smith that bloweth the coals in the fire, and that bringeth forth an instrument for his work; and I have created the waster to destroy.

No weapon that is formed against thee shall prosper; and every tongue that shall revile against thee in judgment thou shalt condemn. This is the heritage of the servants of the Lord, and their righteousness is of me, saith the Lord.



### 제 3 니파이 23

- 1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이 일을 상고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
- 2 이는 정녕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불가불 이방인에게도 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 3 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리로다.
- 4 그러므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들을 기록하라. 아버지의 때와 뜻을 좇아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리라.
- 5 또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지자들을 상고하라.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이가 많음이니라.
- 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받은 모든 경전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 그들에게 이르시되, 불지어다, 너희가 갖고 있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너희가 기록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기록하여 온 그 기록을 가져오라 하시더라.
- 8 이에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으매, 예수께서 눈길을 던져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 3 Nephi 23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ye ought to search these things. Yea, a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e search these things diligently; for great are the words of Isaiah.

For surely he spake as touching all things concerning my people which are of the house of Israel; therefore it must needs be that he must speak also to the Gentiles.

And all things that he spake have been and shall be, even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he spake.

Therefore give heed to my words; write the things which I have told you; and according to the time and the will of the Father they shall go forth unto the Gentiles.

And whosoever will hearken unto my words and repenteth and is baptized, the same shall be saved. Search the prophets, for many there be that testify of these things.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aid these words he said unto them again, after he had expounded all the scriptures unto them which they had received, he said unto them: Behold, other scriptures I would that ye should write, that ye have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Nephi: Bring forth the record which ye have kept.

And when Nephi had brought forth the records, and laid them before him, he cast his eyes upon them and said:

Verily I say unto you, I commanded my servant Samuel, the Lamanite, that he should testify unto this people, that at the day that the Father should glorify his name in me that there were many saints who should arise from the dead, and should appear unto many, and should minister unto them. And he said unto them: Was it not so?

- 10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 1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찌 이냐 하시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일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매, 그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이 기록되었느니라.
- 1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분부하사 그가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더라.

And his disciples answered him and said: Yea, Lord, Samuel did prophesy according to thy words, and they were all fulfilled.

And Jesus said unto them: How be it that ye have not written this thing, that many saints did arise and appear unto many and did minister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remembered that this thing had not been written.

And it came to pass that Jesus commanded that it should be written; therefore it was written according as he commanded.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expounded all the scriptures in one, which they had writte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ach the things which he had expounded unto them.

### 제 3 니파이 24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바, 곧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말씀이 기록된 후에 예수께서 그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말씀하셨느니라—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의 기뻐하는 바 성약의 사자라, 보라, 저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2 그러나 그의 오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 3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의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하리라.
- 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와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 5 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러 심판할 것인즉, 내가 마술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을 그 값으로 압제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6 대저 나는 주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 7 실로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요 하도다.

### 3 Nephi 24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write the words which the Father had given unto Malachi, which he should tell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y were written he expounded them.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he did tell unto them, saying: Thus said the Father unto Malachi—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me, and the Lord whom ye seek sha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even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e delight in; behold, he shall come, saith the Lord of Hosts.

But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eth? For he is like a refiner's fire, and like fuller's soap.

And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and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and purge them as gold and silver, that they may offer unto the Lord an offering in righteousness.

Then shall the offering of Judah and Jerusalem be pleasant unto the Lord, as in the days of old, and as in former years.

And I will come near to you to judgment; and I will be a swift witness against the sorcerers, and against the adulterers, and against false swearers, and against those that oppress the hireling in his wages, the widow and the fatherless, and that turn aside the stranger, and fear not me, saith the Lord of Hosts.

For I am the Lord, I change not; therefore ye sons of Jacob are not consumed.

Even from the days of your fathers ye are gone away from mine ordinances, and have not kept them. Return unto me and I will return unto you, saith the Lord of Hosts. But ye say: Wherein shall we return?

-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 9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 10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11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있는 너희의 포도나무도 기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12 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13 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주 앞에서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킨 것과 우리가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 15 또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참으로 간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건짐을 입는다 하노라 함이니라.
- 16 그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주 서로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느니라.
- 17 이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 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Will a man rob God? Yet ye have robbed me. But ye say: Wherein have we robbed thee? In tithes and offerings.

Ye are cursed with a curse, for ye have robbed me, even this whole nation.

Bring ye all the tithes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meat in my house; and prove me now herewith, saith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you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you out a blessing that there shall not be room enough to receive it.

And 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r sakes, and he shall not destroy the fruits of your ground; neither shall your vine cast her fruit before the time in the fields, saith the Lord of Hosts.

And all nations shall call you blessed, for ye shall be a delightsome land, saith the Lord of Hosts.

Your words have been stout against me, saith the Lord. Yet ye say: What have we spoken against thee?

Ye have said: It is vain to serve God, and what doth it profit that we have kept his ordinances and that we have walked mournfully before the Lord of Hosts?

And now we call the proud happy; yea, they that work wickedness are set up; yea, they that tempt God are even delivered.

Then they that feared the Lord spake often one to another, and the Lord hearkened and heard; and a book of remembrance was written before him for them that feared the Lord, and that thought upon his name.

And they shall be mine, saith the Lord of Hosts, in that day when I make up my jewels; and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th his own son that serveth him.

Then shall ye return and discern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between him that serveth God and him that serveth him not.

### 제 3 니파이 25

- 1 이는 보라, 가마솥같이 타는 날이 이를 것임이니, 모든 교만한 자와, 또한 모든 간악히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아들이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날 것이라.
-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를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 5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 6 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 3 Nephi 25

For behold, the day cometh that shall burn as an oven; and all the proud, yea, and all that do wickedly, shall be stubble; and the day that cometh shall burn them up, saith the Lord of Hosts, that it sha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But unto you that fear my name, shall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ye shall go forth and grow up as calves in the stall.

And ye shall tread down the wicked; for they sha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in the day that I shall do this, saith the Lord of Hosts.

Remember ye the law of Moses, my servant, which I commanded unto him in Horeb for all Israel, with the statutes and judgments.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he shall turn the heart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 제 3 니파이 26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무리에게 설명하시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느니라.
- 2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니라.
- 3 또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곧 실로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며, 천지가 없어 질 때까지 참으로 땅 위에 임할 모든 일을 설명하셨으니,
- 4 곧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큰 마지막 날까지라—
- 5 만일 그 행위가 의로우면 영생의 부활로,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비와, 공의와, 거룩함을 좇아, 하나는 이 편에 다른 하나는 저 편에 있어 서로 대응하느니라.
- 6 이제 예수께서 진실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백분의 일도 이 책에 기록할 수 없으나,
- 7 보라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대부분이 니파이의 판에 실려 있도다.
- 8 이에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적은 부분인 이것을 내가 기록하였노니, 내가 이를 기록하였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것이 이방인들에게서 이 백성에게로 다시 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 9 또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이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을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로다.

### 3 Nephi 26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told these things he expounded them unto the multitude; and he did expound all things unto them, both great and small.

And he saith: These scriptures, which ye had not with you, the Father commanded that I should give unto you; for it was wisdom in him that they should be given unto future generations.

And he did expound all things, even from the beginning until the time that he should come in his glory—yea, even all things which should come upon the face of the earth, even until the elements should melt with fervent heat, and the earth should be wrapt together as a scroll, and the heavens and the earth should pass away;

And even unto the great and last day, when all people, and all kindreds, and all nations and tongues shall stand before God, to be judged of their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whether they be evil—

If they b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everlasting life; and if they b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being on a parallel, the one on the one hand and the oth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ercy, and the justice, and the holiness which is in Christ, who was before the world began.

And now there cannot be written in this book even a hundredth part of the things which Jesus did truly teach unto the people;

But behold the plates of Nephi do contain the more part of the things which he taught the people.

And these things have I written, which are a lesser part of the things which he taught the people; and I have written them to the intent that they may be brought again unto this people, from the Gentiles, according to the words which Jesus hath spoken.

And when they shall have received this, which is expedient that they should have first, to try their faith, and if it shall so be that they shall believe these things then shall the greater things be made manifest unto them.

- 10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아니할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징죄 받게 되리라.
- 11 보라, 내가 니파이의 판에 새겨진 것을 모두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리로다 하신지라.
- 12 그러므로 나 몰몬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노니, 이제 나 몰몬은 나의 말을 마치고 내게 명하신 것을 계속하여 기록하노라.
- 13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진실로 삼 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자주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자주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앞서 말한 무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 주시매,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참으로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보다 더욱 큰 일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의 혀를 풀어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두 번째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저는 자를 다 고치시며, 그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온갖 치료를 그들 중에 행하시며,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권능을 보이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 16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여,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으되, 아무도 그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더라.
-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무릇 그들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다 침례를 베풀며 가르치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니라.

And if it so be that they will not believe these things, then shall the greater things be withheld from them, unto their condemnation.

Behold, I was about to write them, all which were engraven upon the plates of Nephi, but the Lord forbade it, saying: I will try the faith of my people.

Therefore I, Mormon, do write the things which have been commanded me of the Lord. And now I, Mormon, make an end of my sayings, and proceed to write the things which have been commanded me.

Therefore, I would that ye should behold that the Lord truly did teach the people, for the space of three days; and after that he did show himself unto them oft, and did break bread oft, and bless it, and give it unto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teach and minister unto the children of the multitude of whom hath been spoken, and he did loose their tongues, and they did speak unto their fathers great and marvelous things, even greater than he had revealed unto the people; and he loosed their tongues that they could utter.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 had ascended into heaven—the second time that he showed himself unto them, and had gone unto the Father, after having healed all their sick, and their lame, and opened the eyes of their blind and unstopped the ears of the deaf, and even had done all manner of cures among them, and raised a man from the dead, and had shown forth his power unto them, and had ascended unto the Father—

Behold, it came to pass on the morrow that the multitude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nd they both saw and heard these children; yea, even babes did open their mouths and utter marvelous things; and the things which they did utter were forbidden that there should not any man write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disciples whom Jesus had chosen began from that time forth to baptize and to teach as many as did come unto them; and as many as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were filled with the Holy Ghost.

18 또 그들 중 많은 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기록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And many of them saw and heard unspeakable things, which are not lawful to be written.

19 또 그들은 서로 가르치며, 성역을 베풀었고, 또 그들 중에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각 사람이 서로 의롭게 대하였더라.

And they taught, and did minister one to another; and they had all things common among them, every man dealing justly, one with another.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범사를 행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do all things even as Jesus had commanded them.

21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And they who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were called the church of Christ.



### 제 3 니파이 27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의 제자들이 여행하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더라.
- 2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음이라.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 3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 4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이냐?
- 5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6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 7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 8 내 이름으로 일컬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 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다.

### 3 Nephi 27

And it came to pass that as the disciples of Jesus were journeying and were preaching the things which they had both heard and seen, and were baptizing in the name of Jesus, it came to pass that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and were united in mighty prayer and fasting.

And Jesus again showed himself unto them, for they were praying unto the Father in his name; and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said unto them: What will ye that I shall give unto you?

And they said unto him: Lord, we will that thou wouldst tell us the name whereby we shall call this church; for there are disputations among the people concerning this matter.

And the Lord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y is it that the people should murmur and dispute because of this thing?

Have they not read the scriptures, which say ye must take upon you the name of Christ, which is my name? For by this name shall ye be called at the last day;

And whoso taketh upon him my name, and endureth to the end, the same shall be saved at the last day.

Therefore, whatsoever ye shall do, ye shall do it in my name; therefore ye shall call the church in my name; and ye shall call upon the Father in my name that he will bless the church for my sake.

And how be it my church save it be called in my name? For if a church be called in Moses' name then it be Moses' church; or if it be called in the name of a man then it be the church of a man; but if it be called in my name then it is my church, if it so be that they are built upon my gospel.

-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은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일컫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 내 이름으로 그리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 10 또 만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거기에 자기의 일을 보이실 것이리라.
- 11 그러나 만일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그 곳에서는 다시 돌아옴이 없느니라.
- 12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 이는 그들이 찍히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 13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 14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यो,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15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 16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 17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 그는 또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니라.

Verily I say unto you, that ye are built upon my gospel; therefore ye shall call whatsoever things ye do call, in my name; therefore if ye call upon the Father, for the church, if it be in my name the Father will hear you;

And if it so be that the church is built upon my gospel then will the Father show forth his own works in it.

But if it be not built upon my gospel, and is built upon the works of men, or upon the works of the devil,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joy in their works for a season, and by and by the end cometh, and they ar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from whence there is no return.

For their works do follow them, for it is because of their works that they are hewn down; therefore remember the things that I have told you.

Behold I have given unto you my gospel, and this is the gospel which I have given unto you—that I came into the worl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because my Father sent me.

And my Father sent me that I might be lifted up upon the cross; and after that I had been lifted up upon the cross, that I might draw all men unto me, that as I have been lifted up by men even so should men be lifted up by the Father, to stand before me, to be judged of their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whether they be evil—

And for this cause have I been lifted up; therefore,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Father I will draw all men unto me, that they may be judged according to their work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 repenteth and is baptized in my name shall be filled; and if he endureth to the end, behold, him will I hold guiltless before my Father at that day when I shall stand to judge the world.

And he that endureth not unto the end, the same is he that is also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from whence they can no more return, because of the justice of the Father.

- 18 또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라. 이로 인하여 그는 주신 말씀을 이루시나니, 거  
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  
느니라.
- 19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  
로 그 옷을 빨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 20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  
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  
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  
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  
라.
- 2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  
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  
임이니라.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 22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  
나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울 것임이라.
- 23 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 24 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해 기록되어 온 것같  
이, 장차 있을 이 백성의 일을 기록하라.
- 25 이는 보라,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  
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게 알려지겠음이라.
- 26 또 보라, 만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기록되나  
니, 그러므로 기록될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 27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좇아 너  
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  
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  
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  
라야 하느니라.
- 28 또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  
라.

And this is the word which he hath given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for this cause he fulfilleth the  
words which he hath given, and he lieth not, but ful-  
filleth all his words.

And no unclean thing can enter into his kingdom;  
therefore nothing entereth into his rest save it be  
those who have washed their garments in my blood,  
because of their faith, and the repentance of all their  
sins, and their faithfulness unto the end.

Now this is the commandment: Repent, all ye ends  
of the earth, and come unto me and be baptized in  
my name, that ye may be sanctified by the reception  
of the Holy Ghost, that ye may stand spotless before  
me at the last day.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is is my gospel; and  
ye know the things that ye must do in my church; for  
the works which ye have seen me do that shall ye also  
do; for that which ye have seen me do even that shall  
ye do;

Therefore, if ye do these things blessed are ye, for  
ye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Write the things which ye have seen and heard,  
save it be those which are forbidden.

Write the works of this people, which shall be,  
even as hath been written, of that which hath been.

For behold, out of the books which have been  
written, and which shall be written, shall this people  
be judged, for by them shall their works be known  
unto men.

And behold, all things are written by the Father;  
therefore out of the books which shall be written  
shall the world be judged.

And know ye that ye shall be judges of this people,  
according to the judgment which I shall give unto  
you, which shall be just. Therefore, what manner of  
men ought ye to be? Verily I say unto you, even as I  
am.

And now I go unto the Father. And verily I say  
unto you, whatsoever things ye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shall be given unto you.

29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30 또 이제, 보라, 너희와 또한 이 세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이 세대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그리하니,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1 보라, 나는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 있는 그들을 뜻함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32 그러나 보라, 이 세대로부터 넷째 세대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노니, 이는 그들이 멸망의 아들같이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 감이라. 이는 그들이 은과 금 및 좁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해 갈 것을 받고 나를 팔 것임이니,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리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이를 발견하는 이가 적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행하는 자가 많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까지 그리로 행함이니라 하셨느니라.

Therefore, ask, and ye shall receive;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he that asketh, receiveth; and unto him that knocketh, it shall be opened.

And now, behold, my joy is great, even unto fulness, because of you, and also this generation; yea, and even the Father rejoiceth, and also all the holy angels, because of you and this generation; for none of them are lost.

Behold, I would that ye should understand; for I mean them who are now alive of this generation; and none of them are lost; and in them I have fulness of joy.

But behold, it sorroweth me because of the fourth generation from this generation, for they are led away captive by him even as was the son of perdition; for they will sell me for silver and for gold, and for that which moth doth corrupt and which thieves can break through and steal. And in that day will I visit them, even in turning their works upon their own head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ended these sayings he said unto his disciples: Enter ye in at the strait gate; for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but wide is the gate, and broad the way which leads to death, and many there be that travel therein, until the night cometh, wherein no man can work.

### 제 3 니파이 28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명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 2 이에 그들이 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드려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수명에 이르도록 산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끝나고, 우리가 속히 주께로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던지라.
- 3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 일을 원하였으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칠십이 세가 된 후에는 내게로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리로다 하시더라.
- 4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더라.
- 5 이에 저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거늘, 이는 저들이 그 원하는 바를 감히 그에게 이야기하지 못함이라.
- 6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에 나와 함께 하던 내 사랑 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던 것을 원하였도다.
- 7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 8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되리로다.

### 3 Nephi 28

And it came to pass when Jesus had said these words, he spake unto his disciples, one by one, saying unto them: What is it that ye desire of me, after that I am gone to the Father?

And they all spake, save it were three, saying: We desire that after we have lived unto the age of man, that our ministry, wherein thou hast called us, may have an end, that we may speedily come unto thee in thy kingdom.

And he said unto them: Blessed are ye because ye desired this thing of me; therefore, after that ye are seventy and two years old ye shall come unto me in my kingdom; and with me ye shall find rest.

And when he had spoken unto them, he turned himself unto the three, and said unto them: What will ye that I should do unto you, when I am gone unto the Father?

And they sorrowed in their hearts, for they durst not speak unto him the thing which they desired.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I know your thoughts, and ye have desired the thing which John, my beloved, who was with me in my ministry, before that I was lifted up by the Jews, desired of me.

Therefore, more blessed are ye, for ye shall never taste of death; but ye shall live to behold all the doings of the Father unto the children of men, even until all things shall be fulfill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Father, when I shall come in my glory with the powers of heaven.

And ye shall never endure the pains of death; but when I shall come in my glory ye shall be changed in the twinkling of an eye from mortality to immortality; and then shall ye be blessed in the kingdom of my Father.

- 9 그리고 또 너희가 육체로 거하는 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아니하리니, 이 모두를 내가 행할 것은 너희가 내게 원한 일로 인함이라. 이는 너희가 세상이 있는 동안 사람의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기 원하였음이라.
- 10 이로 인하여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에 앉으리니,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같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너희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 11 또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아버지께서는 나로 인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신을 주시느니라 하시니라.
-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머물게 될 셋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를 그의 손가락으로 건드리시고 떠나시더라.
- 13 이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느니라.
- 14 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셨고, 그들이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
- 15 또 그들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들이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변형처럼, 곧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육의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였음이라.
- 16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땅 위에서 성역을 베풀되,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인하여 그 보고 들은 것은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 17 또 이제 그들이 그들의 변형의 날로부터, 죽을 몸으로 있는 것인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있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 18 주어진 기록에 의하여 이만큼 내가 아노니—그들이 지면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는 자들을 모두 교회에 연합하게 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니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을 받았더라.

And again, ye shall not have pain while ye shall dwell in the flesh, neither sorrow save it be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all this will I do because of the thing which ye have desired of me, for ye have desired that ye might bring the souls of men unto me, while the world shall stand.

And for this cause ye shall have fulness of joy; and ye shall sit down in the kingdom of my Father; yea, your joy shall be full, even as the Father hath given me fulness of joy; and ye shall be even as I am, and I am even as the Father; and the Father and I are one;

And the Holy Ghost beareth record of the Father and me; and the Father giveth the Holy Ghost unto the children of men, because of m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touched every one of them with his finger save it were the three who were to tarry, and then he departed.

And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y were caught up into heaven, and saw and heard unspeakable things.

And it was forbidden them that they should utter; neither was it given unto them power that they could utter the things which they saw and heard;

And whether they were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they could not tell; for it did seem unto them like a transfiguration of them, that they were changed from this body of flesh into an immortal state, that they could behold the things of God.

But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again minister upon the face of the earth; nevertheless they did not minister of the things which they had heard and seen, because of the commandment which was given them in heaven.

And now, whether they were mortal or immortal, from the day of their transfiguration, I know not;

But this much I know, according to the record which hath been given—they did go forth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did minister unto all the people, uniting as many to the church as would believe in their preaching; baptizing them, and as many as were baptized did receive the Holy Ghost.

- 19 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둘로 갈라지매 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더라.
- 20 또 그들이 땅 속에 던지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견져 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만큼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느니라.
- 21 그리고 세 번 그들이 풀무에 던지웠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 22 또 두 번 그들이 들짐승의 굴에 던지웠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 양과 장난함같이 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매, 그들이 주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그 세대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라.
- 24 이제 나 몰몬은 잠시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라.
- 25 보라, 내가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아니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감취었음이라.
- 26 그러나 보라, 나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은 내게 성역을 베풀었도다.
- 27 또한 보라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이방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라.
- 28 그들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리로다.
- 29 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 중에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 데려오리니, 이는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며,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And they were cast into prison by them who did not belong to the church. And the prisons could not hold them, for they were rent in twain.

And they were cast down into the earth; but they did smite the earth with the word of God, insomuch that by his power they were delivered out of the depths of the earth; and therefore they could not dig pits sufficient to hold them.

And thrice they were cast into a furnace and received no harm.

And twice were they cast into a den of wild beasts; and behold they did play with the beasts as a child with a suckling lamb, and received no harm.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they did go forth among all the people of Nephi, and did preach the gospel of Christ unto all people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they were converted unto the Lord, and were united unto the church of Christ, and thus the people of that generation were blessed, according to the word of Jesus.

And now I, Mormon, make an end of speaking concerning these things for a time.

Behold, I was about to write the names of those who were never to taste of death, but the Lord forbade; therefore I write them not, for they are hid from the world.

But behold, I have seen them, and they have ministered unto me.

And behold they will be among the Gentiles, and the Gentiles shall know them not.

They will also be among the Jews, and the Jews shall know them not.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the Lord seeth fit in his wisdom that they shall minister unto all the scattered tribes of Israel, and unto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and shall bring out of them unto Jesus many souls, that their desire may be fulfilled, and also because of the convincing power of God which is in them.

- 30 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만일 예수  
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수 있으  
리라.
- 31 그러므로 만백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지리라.
- 32 참으로 저 심판의 날 이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여지  
리니,
- 33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기이한 일을 진  
술하는 모든 경전이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이 기필코 반드시 이를 것임  
을 알리로다.
- 34 또 예수의 말씀과 또한 그가 택하사 그들 가운  
데 보내신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것임이  
라.
- 35 또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  
게 더 좋았으리니, 너희는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사람의 발 아래 밟히셨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  
를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 36 또 이제 보라, 주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에게 관하여 내가 말하기  
를, 그들이 죽어야 할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  
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였으  
나—
- 37 보라, 내가 기록한 이후로 주께 여쭙었더니, 주  
께서 내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은즉,
- 38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  
고서는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게 되었도  
다.

And they are as the angels of God, and if they shall  
pray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they can  
show themselves unto whatsoever man it seemeth  
them good.

Therefore, great and marvelous works shall be  
wrought by them, before the great and coming day  
when all people must surely stand before the  
judgment-seat of Christ;

Yea even among the Gentiles shall there be a great  
and marvelous work wrought by them, before that  
judgment day.

And if ye had all the scriptures which give an ac-  
count of all the marvelous works of Christ, ye would,  
according to the words of Christ, know that these  
things must surely come.

And wo be unto him that will not hearken unto the  
words of Jesus, and also to them whom he hath cho-  
sen and sent among them; for whoso receiveth not  
the words of Jesus and the words of those whom he  
hath sent receiveth not him; and therefore he will  
not receive them at the last day;

And it would be better for them if they had not  
been born. For do ye suppose that ye can get rid of  
the justice of an offended God, who hath been tram-  
pled under feet of men, that thereby salvation might  
come?

And now behold, as I spake concerning those  
whom the Lord hath chosen, yea, even three who  
were caught up into the heavens, that I knew not  
whether they were cleansed from mortality to im-  
mortality—

But behold, since I wrote, I have inquired of the  
Lord, and he hath made it manifest unto me that  
there must needs be a change wrought upon their  
bodies, or else it needs be that they must taste of  
death;

Therefore, that they might not taste of death there  
was a change wrought upon their bodies, that they  
might not suffer pain nor sorrow save it were for the  
sins of the world.



39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거룩하며, 땅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지 못하리라.

40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날에 더 큰 변화를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Now this change was not equal to that which shall take place at the last day; but there was a change wrought upon them, insomuch that Satan could have no power over them, that he could not tempt them; and they were sanctified in the flesh, that they were holy, and that the powers of the earth could not hold them.

And in this state they were to remain until the judgment day of Christ; and at that day they were to receive a greater change, and to be received into the kingdom of the Father to go no more out, but to dwell with God eternally in the heavens.

### 제 3 니파이 29

- 1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사 이 말씀들이 그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바, 그들을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에 관한 성약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 알지니라.
- 2 또 너희는 거룩한 선지자들로 하신 주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줄 알지니, 너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오심을 늦추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음이라.
- 3 또 하신 말씀이 헛되다고 너희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보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실 것임이라.
- 4 또 이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에 나아옴을 볼 때에,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주의 행하심을 경멸히 여기지 말지니, 이는 그의 공의의 칼이 그의 오른손에 있어, 보라, 그 날에 너희가 그의 행하심을 경멸할진대 그것으로 속히 너희에게 닥치게 하실 것임이니라.
- 5 주의 행하심을 경멸하는 자에게 화 있도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부인할 자에게 화 있도다!
- 6 참으로 주의 계시를 부인하며, 주께서 더 이상 계시로나 예언로나 은사로나 방언으로나 병 고침으로나 성신의 권능으로 일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자에게 화 있도다!
- 7 또한 그 날에 이득을 얻고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있을 수 없다 할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이같이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비를 얻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 처럼 될 것임이라!
- 8 참으로 또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비웃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말지니,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세우신 바 자기의 성약을 기억하심이요, 그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실 것임이니라.

### 3 Nephi 29

And now behold, I say unto you that when the Lord shall see fit, in his wisdom, that these sayings shall come unto the Gentiles according to his word, then ye may know that the covenant which the Father hath made with the children of Israel, concerning their restoration to the lands of their inheritance, is already beginning to be fulfilled.

And ye may know that the words of the Lord, which have been spoken by the holy prophets, shall all be fulfilled; and ye need not say that the Lord delays his coming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ye need not imagine in your hearts that the words which have been spoken are vain, for behold, the Lord will remember his covenant which he hath made unto his people of the house of Israel.

And when ye shall see these sayings coming forth among you, then ye need not any longer spurn at the doings of the Lord, for the sword of his justice is in his right hand; and behold, at that day, if ye shall spurn at his doings he will cause that it shall soon overtake you.

Wo unto him that spurneth at the doings of the Lord; yea, wo unto him that shall deny the Christ and his works!

Yea, wo unto him that shall deny the revelations of the Lord, and that shall say the Lord no longer worketh by revelation, or by prophecy, or by gifts, or by tongues, or by healings, or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Yea, and wo unto him that shall say at that day, to get gain, that there can be no miracle wrought by Jesus Christ; for he that doeth this shall become like unto the son of perdition, for whom there was no mercy, according to the word of Christ!

Yea, and ye need not any longer hiss, nor spurn, nor make game of the Jews, nor any of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for behold, the Lord remembereth his covenant unto them, and he will do unto them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th sworn.

9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려,  
그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  
한 심판을 행하시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Therefore ye need not suppose that ye can turn the  
right hand of the Lord unto the left, that he may not  
execute judgment unto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which he hath made unto the house of Israel.

### 제 3 니파이 30

- 1 너희 이방인들아, 귀를 기울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그가 내게 명하사 나로 너희에 관하여 말하게 하신 것이니, 이는 보라 그가 내게 명하사 나로 기록하게 하심이라 이르시되,
- 2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과 또 너희의 음행과 또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의 살인과 또 너희의 사제술과 또 너희의 시기함과 또 너희의 다툼과 또 너희의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의 죄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 3 Nephi 30

Hearken, O ye Gentiles, and hear the words of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ich he hath commanded me that I should speak concerning you, for, behold he commandeth me that I should write, saying:

Turn, all ye Gentiles, from your wicked ways; and repent of your evil doings, of your lyings and deceivings, and of your whoredoms, and of your secret abominations, and your idolatries, and of your murders, and your priestcrafts, and your envyings, and your strifes, and from all you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and come unto me, and be baptized in my name, that ye may receive a remission of your sins, and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that ye may be numbered with my people who are of the house of Israel.

## 제 4 니파이

### 니파이서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그의 기록에 따른 니파이 백성의 기사.*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이 지나가고, 또 제삼십오년도 지나가매, 보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변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로 와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느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육년에는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 3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칠년이 지나갔으되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 5 또 예수의 제자들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맹인으로 그 시력을 얻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온갖 기적을 행하되,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들이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 6 이에 이같이 제삼십팔년이 지나가고 또한 제삼십구년과 제사십일년과 제사십이년이 지나가며, 참으로 사십구 년이 지나가기에 이르고 또한 제오십일년과 제오십이년이 지나가서, 참으로 오십구 년이 지나가기에 이르렀더라.

## Fourth Nephi

### The Book of Nephi

Who Is the Son of Nephi—One of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 account of the people of Nephi, according to his rec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thirty and fourth year passed away, and also the thirty and fifth, and behold the disciples of Jesus had formed a church of Christ in all the lands round about. And as many as did come unto them, and did truly repent of their sins,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and they did also receive the Holy Ghost.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irty and sixth year, the people were all converted unto the Lord,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both Nephites and Lamanites, and there were no contentions and disputations among them, and every man did deal justly one with another.

And they had all things common among them; therefore there were not rich and poor, bond and free, but they were all made free, and partakers of the heavenly gif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thirty and seventh year passed away also, and there still continued to be peace in the land.

And there were great and marvelous works wrought by the disciples of Jesus, insomuch that they did heal the sick, and raise the dead, and cause the lame to walk, and the blind to receive their sight, and the deaf to hear; and all manner of miracles did they work among the children of men; and in nothing did they work miracles save it were in the name of Jesus.

And thus did the thirty and eighth year pass away, and also the thirty and ninth, and forty and first, and the forty and second, yea, even until forty and nine years had passed away, and also the fifty and first, and the fifty and second; yea, and even until fifty and nine years had passed away.

- 7 또 주께서는 저들을 땅에서 심히 번영하게 하시니라, 참으로 저들이 불탄 성읍들이 있던 곳에 다시 성읍들을 세웠더라.
- 8 참으로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를 저들이 다시 건축되게 하였더라.
- 9 그러나 많은 성읍이 가라앉아, 물이 그 대신에 올라왔으므로, 이러한 성읍들은 새롭게 할 수 없었더라.
- 10 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은 점점 강하여지고, 심히 빠르게 번성하며, 심히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었더라.
- 11 또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더라.
- 12 그리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의례와 의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좇아 행하며,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능한 기적들이 행하여졌더라.
-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일년이 지나가고, 또한 제칠십이년도 지나가고, 마침내 제칠십구년이 지나가고 참으로 백 년이 지나매, 예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이, 머물게 될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고, 그들 대신에 다른 제자들이 성임되었으며,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느니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 16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And the Lord did prosper them exceedingly in the land; yea, insomuch that they did build cities again where there had been cities burned.

Yea, even that great city Zarahemla did they cause to be built again.

But there were many cities which had been sunk, and waters came up in the stead thereof; therefore these cities could not be renewed.

And now,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of Nephi did wax strong, and did multiply exceedingly fast, and became an exceedingly fair and delightsome people.

And they were married, and given in marriage, and were blessed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the promises which the Lord had made unto them.

And they did not walk any more after the performances and ordinances of the law of Moses; but they did walk after the commandments which they had received from their Lord and their God, continuing in fasting and prayer, and in meeting together oft both to pray an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no contention among all the people, in all the land; but there were mighty miracles wrought among the disciples of Jesu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eventy and first year passed away, and also the seventy and second year, yea, and in fine, till the seventy and ninth year had passed away; yea, even an hundred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disciples of Jesus, whom he had chosen, had all gone to the paradise of God, save it were the three who should tarry; and there were other disciples ordained in their stead; and also many of that generation had passed awa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as no contention in the land, because of the love of God which did dwell in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there were no envyings, nor strifes, nor tumults, nor whoredoms, nor lyings, nor murders, nor any manner of lasciviousness; and surely there could not be a happier people among all the people who had been created by the hand of God.

17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었더라.

18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셨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며 백십 년이 지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그리스도로부터 첫째 세대가 지나갔고 온 땅에는 다툼이 없었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마지막 기록을 기록하던 니파이가 (그는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더라) 죽으매, 그의 아들 아모스가 그를 대신하여 이를 기록하되, 저도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더라.

20 이에 저가 팔십사 년 동안 이를 기록하였으며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었으나, 다만 백성 중 소수의 부류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일이 있었나니 이리하여 땅에 다시 레이맨인이 생기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모스도 죽고, (때는 주께서 오신 때로부터 백구십사 년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모스가 그를 대신하여 기록을 계속하되, 그도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으며 이는 또한 니파이의 책 곧 이 책에도 기록되었느니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 년이 지나매, 소수를 제외하고는 둘째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니라.

23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백성들이 번성하여, 이윽고 온 지면에 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번영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24 그리고 이제 이 제이백일년에 그들 가운데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자들이 생겨,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온갖 좋은 진주와, 세상의 좋은 것으로 꾸밈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25 또 그때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소유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아니하였더라.

There were no robbers, nor murderers, neither were there Lamanites, nor any manner of -ites; but they were in one, the children of Christ, and heirs to the kingdom of God.

And how blessed were they! For the Lord did bless them in all their doings; yea, even they were blessed and prospered until an hundred and ten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first generation from Christ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contention in all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Nephi, he that kept this last record, (and he kept it upon the plates of Nephi) died, and his son Amos kept it in his stead; and he kept it upon the plates of Nephi also.

And he kept it eighty and four years, and there was still peace in the land, save it were a small part of the people who had revolted from the church and taken upon them the name of Lamanites; therefore there began to be Lamanites again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Amos died also, (and it was an hundred and ninety and four years from the coming of Christ) and his son Amos kept the record in his stead; and he also kept it upon the plates of Nephi; and it was also written in the book of Nephi, which is this book.

And it came to pass that two hundred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second generation had all passed away save it were a few.

And now I, Mormon, would that ye should know that the people had multiplied, insomuch that they were spread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at they had become exceedingly rich, because of their prosperity in Christ.

And now, in this two hundred and first year there began to be among them those who were lifted up in pride, such as the wearing of costly apparel, and all manner of fine pearls, and of the fine things of the world.

And from that time forth they did have their goods and their substance no more common among them.

26 또 그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기 시작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십 년이 지나갔을 때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나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의 복음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나니, 그 결과 그들이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금지된 자에게 성스러운 것을 베풀었더라.

28 그리고 이 교회가 죄악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능으로 인하여 심히 번성하였더라.

29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들의 겸손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또 이들 중에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으로 인하여 이들을 멸시하였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여 저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옥들이 둘로 갈라지매, 저들이 나아가 그들 가운데 큰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31 그러나 이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구한 것 같이 저들을 죽이기를 구하였더라.

32 이에 그들이 저들을 불 풀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아왔더라.

33 또한 저들을 들짐승의 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더불어 장난함같이 들짐승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들 중에서 나아왔더라.

And they began to be divided into classes; and they began to build up churches unto themselves to get gain, and began to deny the true church of Chris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wo hundred and ten years had passed away there were many churches in the land; yea, there were many churches which professed to know the Christ, and yet they did deny the more parts of his gospel, insomuch that they did receive all manner of wickedness, and did administer that which was sacred unto him to whom it had been forbidden because of unworthiness.

And this church did multiply exceedingly because of iniquity, and because of the power of Satan who did get hold upon their hearts.

And again, there was another church which denied the Christ; and they did persecute the true church of Christ, because of their humility and their belief in Christ; and they did despise them because of the many miracles which were wrought among them.

Therefore they did exercise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disciples of Jesus who did tarry with them, and they did cast them into prison; but by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which was in them, the prisons were rent in twain, and they went forth doing mighty miracles among them.

Nevertheless, and notwithstanding all these miracles, the people did harden their hearts, and did seek to kill them, even as the Jews at Jerusalem sought to kill Jesus, according to his word.

And they did cast them into furnaces of fire, and they came forth receiving no harm.

And they also cast them into dens of wild beasts, and they did play with the wild beasts even as a child with a lamb; and they did come forth from among them, receiving no harm.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은 제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려 많은 교회를 짓고,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예수의 백성을 쳤으나, 예수의 백성은 도로 치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그들이 매년 믿지 않음과 간악함 중에 빠져 들어가, 이윽고 이백삼십 년이 지나기에 이르렀더라.

3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 곧 제이백삼십일년에 백성 가운데 큰 나뉘미 있었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한 백성이 일어났으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레이맨인들이 야곱인이라, 또 요셉인이라, 또 조렘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있었더라.

3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들 중에는 머물기로 된 예수의 세 제자가 있었더라) 니파이인, 그리고 야곱인, 그리고 요셉인, 그리고 조렘인이라 일컬어졌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복음을 저버린 자들은 레이맨인이라, 또 레뮤엘인이라, 또 이스마엘인이라 일컬어졌으니, 이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이 아니요,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 것이라, 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도다.

39 또 이는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라. 이에 그들은 레이맨인들이 처음부터 니파이의 자손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4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사십사 년이 지났고, 백성들의 제반사가 이러하였으며, 또 백성 중 보다 간악한 부류가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그 수효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41 또 그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온갖 귀한 것으로 교회를 장식하였으니, 이같이 이백오십 년이 지나고, 또 이백육십 년도 지나갔더라.

Nevertheless, the people did harden their hearts, for they were led by many priests and false prophets to build up many churches, and to do all manner of iniquity. And they did smite upon the people of Jesus; but the people of Jesus did not smite again. And thus they did dwindle in unbelief and wickedness, from year to year, even until two hundred and thirty years had passed away.

And now it came to pass in this year, yea, in the two hundred and thirty and first year, there was a great division among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year there arose a people who were called the Nephites, and they were true believers in Christ; and among them there were those who were called by the Lamanites—Jacobites, and Josephites, and Zoramites;

Therefore the true believers in Christ, and the true worshipers of Christ, (among whom were the three disciples of Jesus who should tarry) were called Nephites, and Jacobites, and Josephites, and Zoram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ho rejected the gospel were called Lamanites, and Lemuelites, and Ishmaelites; and they did not dwindle in unbelief, but they did wilfully rebel against the gospel of Christ; and they did teach their children that they should not believe, even as their fathers, from the beginning, did dwindle.

And it was because of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 of their fathers, even as it was in the beginning. And they were taught to hate the children of God, even as the Lamanites were taught to hate the children of Nephi from the beginn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wo hundred and forty and four years had passed away, and thus were the affairs of the people. And the more wicked part of the people did wax strong, and became exceedingly more numerous than were the people of God.

And they did still continue to build up churches unto themselves, and adorn them with all manner of precious things. And thus did two hundred and fifty years pass away, and also two hundred and sixty years.

4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중 간악한 부류들이 또다시 개다이엔톤의 은밀한 맹세와 결사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43 또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백성들도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허황되어졌더라.

44 그리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시작하였더라.

4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 년이 지나매,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심히 간악하여졌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개다이엔톤 도적들이 온 지면에 퍼져,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은 금과 은을 풍성하게 저축해 두고, 온갖 물품으로 서로 무역하였더라.

4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오 년이 지나간 후에, (백성들은 여전히 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모스가 죽고, 그의 아우 앰마론이 그의 대신에 기록을 계속하였더라.

4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이십 년이 지났을 때, 앰마론이 성신의 강권하심을 받고,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었으니—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제삼백이십년이 되는 해에 이르기까지—참으로 거룩한 바 대대로 전달되어 내려온 모든 성스러운 기록이라.

49 이에 그가 기록을 주께 감추었나니, 이는 주의 약속과 예언대로 그 기록이 야곱 집의 남은 자들에게로 다시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 앰마론의 기록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icked part of the people began again to build up the secret oaths and combinations of Gadianton.

And also the people who were called the people of Nephi began to be proud in their hearts, because of their exceeding riches, and become vain like unto their brethren, the Lamanites.

And from this time the disciples began to sorrow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ree hundred years had passed away, both the people of Nephi and the Lamanites had become exceedingly wicked one like unto ano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robbers of Gadianton did spread over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ere were none that were righteous save it were the disciples of Jesus. And gold and silver did they lay up in store in abundance, and did traffic in all manner of traffic.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ree hundred and five years had passed away, (and the people did still remain in wickedness) Amos died; and his brother, Ammaron, did keep the record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ree hundred and twenty years had passed away, Ammaron, being constrained by the Holy Ghost, did hide up the records which were sacred—yea, even all the sacred records which had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ich were sacred—even until the three hundred and twentieth year from the coming of Christ.

And he did hide them up unto the Lord, that they might come again unto the remnant of the house of Jacob, according to the prophecies and the promises of the Lord. And thus is the end of the record of Ammaron.

# 몰몬서

## 몰몬서 1

- 1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 2 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출 즈음에 내게로 와서, (때에 내가 십 세 가람 되어 내 백성의 배우는 방식을 좇아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앰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즉,
- 3 그러므로 네가 이십사 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내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네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앰툼 땅으로 가서 시므라 칭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새긴 것들을 주께 감추어 두었노라.
- 4 또 보라, 네가 니파이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내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 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하였느니라.
- 5 이에 나 몰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느니라) 앰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였느니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곧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데려가시더라.
- 7 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았느니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람인으로 이루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었더라.
- 9 이제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은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졌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었더라.

# The Book of Mormon

## Mormon 1

And now I, Mormon, make a record of the things which I have both seen and heard, and call it the Book of Mormon.

And about the time that Ammaron hid up the records unto the Lord, he came unto me, (I being about ten years of age, and I began to be learned somewhat after the manner of the learning of my people) and Ammaron said unto me: I perceive that thou art a sober child, and art quick to observe;

Therefore, when ye are about twenty and four years old I would that ye should remember the things that ye have observed concerning this people; and when ye are of that age go to the land Antum, unto a hill which shall be called Shim; and there have I deposited unto the Lord all the sacred engravings concerning this people.

And behold, ye shall take the plates of Nephi unto yourself, and the remainder shall ye leave in the place where they are; and ye shall engrave on the plates of Nephi all the things that ye have observed concerning this people.

And I, Mormon, being a descendant of Nephi, (and my father's name was Mormon) I remembered the things which Ammaron commanded me.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ing eleven years old, was carried by my father into the land southward, even to the land of Zarahemla.

The whole face of the land had become covered with buildings, and the people were as numerous almost, as it were the sand of the sea.

And it came to pass in this year there began to be a war between the Nephites, who consisted of the Nephites and the Jacobites and the Josephites and the Zoramites; and this war was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nd the Lemuelites and the Ishmaelites.

Now the Lamanites and the Lemuelites and the Ishmaelites were called Lamanites, and the two parties were Nephites and Lamanites.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은 시돈 물가, 제이라 헤믈라의 경계에서 그들 중에 시작되었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심히 많은 수효의 군사를 함께 모으매, 그 수가 삼만이 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해에 여러 번 싸웠고, 이 싸움에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많이 살육하였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매,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었고 대략 사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유혈이 없었더라.
- 13 그러나 간악함이 온 지면에 만연한지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기적의 일과 병고침의 역사가 그쳤더라.
- 14 또 그들의 간악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5 그리고 나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였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 16 이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애썼으나, 나의 입이 닫혀져,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고의로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이라,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더라.
- 17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땅은 그들로 인해 저주를 받았도다.
- 18 또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던 이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이 땅에 들끓으매,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물을 땅에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신 고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그들이 보유할 수 없었으며 다시 간직할 수도 없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ar began to be among them in the borders of Zarahemla, by the waters of Sid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had gathered together a great number of men, even to exceed the number of thirty thous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have in this same year a number of battles, in which the Nephites did beat the Lamanites and did slay many of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withdrew their design, and there was peace settled in the land; and peace did remain for the space of about four years, that there was no bloodshed.

But wickedness did prevail upon the face of the whole land, insomuch that the Lord did take away his beloved disciples, and the work of miracles and of healing did cease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people.

And there were no gifts from the Lord, and the Holy Ghost did not come upon any,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unbelief.

And I, being fifteen years of age and being somewhat of a sober mind, therefore I was visited of the Lord, and tasted and knew of the goodness of Jesus.

And I did endeavor to preach unto this people, but my mouth was shut, and I was forbidden that I should preach unto them; for behold they had wilfully rebelled against their God; and the beloved disciples were taken away out of the land, because of their iniquity.

But I did remain among them, but I was forbidden to preach unto them,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the land was cursed for their sake.

And these Gadianton robbers, who were among the Lamanites, did infest the land, insomuch that the inhabitants thereof began to hide up their treasures in the earth; and they became slippery, because the Lord had cursed the land, that they could not hold them, nor retain them again.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요술과 마술과 마법이 있고, 저 악한 자의 권능이 온 땅에 역사되어, 참으로 아빈아다이와 또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모든 말이 성취되기에 이르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sorceries, and witchcrafts, and magics; and the power of the evil one was wrought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even unto the fulfilling of all the words of Abinadi, and also Samuel the Lamanite.

## 몰몬서 2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매, 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격이 컸던지라, 그러므로 니파이 백성들이 나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 곧 그들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였더라.
- 2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십육 세 때에 니파이인들의 군대 우두머리가 되어 레이맨인들을 치러 나아갔으니, 그러므로 삼백이십육 년이 지났느니라.
-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이십칠년에 레이맨인들이 심히 큰 기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군대를 두렵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싸우려 아니하고 북쪽 지방을 향하여 퇴각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앤골라 성에 이르러 그 성을 점령하고, 레이맨인들을 대항하여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성의 방비를 강화하였으나, 우리의 모든 방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그 성에서 몰아 내었느니라.
- 5 그리고 저들이 또한 다윗 땅에서도 우리를 몰아 내었느니라.
- 6 이에 우리가 행군해 나아가 바닷가에 가까운 서편 경계에 있는 여호수아 땅에 이르렀느니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백성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을 모아 한 무리가 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 8 그러나 보라, 땅에는 도적들과 레이맨인들이 가득하였고, 나의 백성 위에 걸려 있는 큰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지라, 그러므로 니파이인들 측이거나 또한 레이맨인들 측이거나를 막론하고 온 지면에 피와 대살육이 퍼졌으니, 이는 온 지면에 걸친 하나의 완전한 혁명이었더라.

## Mormon 2

And it came to pass in that same year there began to be a war again between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And notwithstanding I being young, was large in stature; therefore the people of Nephi appointed me that I should be their leader, or the leader of their armies.

T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in my sixteenth year I did go forth at the head of an army of the Nephites, against the Lamanites; therefore three hundred and twenty and six years had passed away.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twenty and seventh year the Lamanites did come upon us with exceedingly great power, insomuch that they did frighten my armies; therefore they would not fight, and they began to retreat towards the north countrie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come to the city of Angola, and we di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and make preparations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Laman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fortify the city with our might; but notwithstanding all our fortifications the Lamanites did come upon us and did drive us out of the city.

And they did also drive us forth out of the land of David.

And we marched forth and came to the land of Joshua, which was in the borders west by the seashore.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gather in our people as fast as it were possible, that we might get them together in one body.

But behold, the land was filled with robbers and with Lamanites; and notwithstanding the great destruction which hung over my people, they did not repent of their evil doings; therefore there was blood and carnage spread throughout all the face of the land, both on the part of the Nephites and also on the part of the Lamanites; and it was one complete revolution throughout all the face of the land.

- 9 그리고 이제 레이맨인들에게 한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론이라, 저가 사만 사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치러 왔더라. 이에 보라, 내가 사만 이천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군대로 저를 물리치매 저가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삼백삼십 년이 지나갔느니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며,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 땅에 있는 도적들과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마법과 마술로 인하여 아무도 자기의 것을 간직할 수 없었음이라.
- 11 이리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온 땅에 애곡하는 일과 애통하는 일이 생겼으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특히 더 그러하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애곡함과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주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다시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속으로 기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13 그러나 보라 나의 이 기쁨은 헛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슬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 받은 자들의 슬퍼함이었음이라.
- 14 또 그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칼로 싸우려 하였느니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슬픔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과 함께 지나가 버림을 보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 수천이 그들의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베어져,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인 것을 보았음이라. 이같이 삼백사십사 년이 지나갔더라.

And now, the Lamanites had a king, and his name was Aaron; and he came against us with an army of forty and four thousand. And behold, I withstood him with forty and two thousand. And it came to pass that I beat him with my army that he fled before me. And behold, all this was done, and three hundred and thirty years had passed awa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began to repent of their iniquity, and began to cry even as had been prophesied by Samuel the prophet; for behold no man could keep that which was his own, for the thieves, and the robbers, and the murderers, and the magic art, and the witchcraft which was in the land.

Thus there began to be a mourning and a lamentation in all the land because of these things, and more especially among the people of Nephi.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 Mormon, saw their lamentation and their mourning and their sorrow before the Lord, my heart did begin to rejoice within me, knowing the mercies and the long-suffering of the Lord, therefore supposing that he would be merciful unto them that they would again become a righteous people.

But behold this my joy was vain, for their sorrowing was not unto repentance, because of the goodness of God; but it was rather the sorrowing of the damned, because the Lord would not always suffer them to take happiness in sin.

And they did not come unto Jesus with broken hearts and contrite spirits, but they did curse God, and wish to die. Nevertheless they would struggle with the sword for their lives.

And it came to pass that my sorrow did return unto me again, and I saw that the day of grace was passed with them, both temporally and spiritually; for I saw thousands of them hewn down in open rebellion against their God, and heaped up as dung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thus three hundred and forty and four years had passed away.

-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사십오년에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예이손 땅에 이르도록 추격을 받았고, 그 곳에 이르러서야 후퇴를 멈출 수 있었느니라.
- 17 이제 예이손 성은 기록이 파괴되지 않도록 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춘 땅에서 가까웠더라. 이에 보라, 내가 앰마론의 말대로 가서 니파이의 판을 취하여 앰마론의 말대로 기록을 만들었느니라.
- 18 그리고 니파이의 판에는 모든 간악함과 가증함을 전부 기술하였으나, 이 판에는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전부 기술하기를 삼갔노니, 이는 보라, 내가 족히 사람의 길을 볼 수 있게 된 이래로 끊임없는 간악함과 가증함의 광경이 내 목전에 있어 왔음이라.
- 19 또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평생에 그들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음이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들리울 것을 아노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 백성들이 다시 수색을 당하며 쫓겼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쫓겨서 이윽고 북방 땅으로 와서 셜이라 하는 땅에 이르렀느니라.
-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셜 성의 방비를 강화하고,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백성들을 모아들었나니, 이는 혹시라도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고자 함이었느니라.
-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사십육년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니라.
-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레이맨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싸우도록 크게 힘써 그들을 격려하였더라.
- 24 이에 내 말이 그들을 일깨워 어느 정도 기운이 나게 한지라, 그들이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forty and fifth year the Nephites did begin to flee before the Lamanites; and they were pursued until they came even to the land of Jashon, before it was possible to stop them in their retreat.

And now, the city of Jashon was near the land where Ammaron had deposited the records unto the Lord, that they might not be destroyed. And behold I had gone according to the word of Ammaron, and taken the plates of Nephi, and did make a record according to the words of Ammaron.

And upon the plates of Nephi I did make a full account of all the wickedness and abominations; but upon these plates I did forbear to make a full account of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for behold, a continual scene of wickedness and abominations has been before mine eyes ever since I have been sufficient to behold the ways of man.

And wo is m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for my heart has been filled with sorrow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ll my days; nevertheless, I know that I shall be lifted up at the last day.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is year the people of Nephi again were hunted and driven. And it came to pass that we were driven forth until we had come northward to the land which was called Shem.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fortify the city of Shem, and we did gather in our people as much as it were possible, that perhaps we might save them from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ree hundred and forty and sixth year they began to come upon us again.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speak unto my people, and did urge them with great energy, that they would stand boldly before the Lamanites and fight for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houses, and their homes.

And my words did arouse them somewhat to vigor, insomuch that they did not flee from before the Lamanites, but did stand with boldness against them.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삼만의 군사로 오만의 군사를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처럼 굳세게 그들 앞에 섰던지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도망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군대로 그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다시 만나매, 그들을 파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주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졌었느니라.

27 이에 나의 마음은 그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말미암은 내 백성의 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슬퍼하였으나, 그러나 보라, 우리는 레이맨인들과 개다이앤티온 도적들을 대적하여 나아가 이윽고 다시 우리의 기업의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28 그리고 제삼백사십구년이 지나가고, 제삼백오십년에 우리는 레이맨인들과 개다이앤티온 도적들과 조약을 맺고 우리의 기업의 땅을 분할하였느니라.

29 이로써 레이맨인들은 참으로 남방 땅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에 이르기까지의 북방 땅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남방 땅을 모두 레이맨인들에게 주었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contend with an army of thirty thousand against an army of fifty thousand.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stand before them with such firmness that they did flee from before u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fled we did pursue them with our armies, and did meet them again, and did beat them; nevertheless the strength of the Lord was not with us; yea, we were left to ourselves, that the Spirit of the Lord did not abide in us; therefore we had become weak like unto our brethren.

And my heart did sorrow because of this the great calamity of my peopl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their abominations. But behold, we did go forth against the Lamanites and the robbers of Gadianton, until we had again taken possession of the lands of our inheritance.

And the three hundred and forty and ninth year had passed away. And in the three hundred and fiftieth year we made a treaty with the Lamanites and the robbers of Gadianton, in which we did get the lands of our inheritance divided.

And the Lamanites did give unto us the land northward, yea, even to the narrow passage which led into the land southward. And we did give unto the Lamanites all the land southward.

### 몰몬서 3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십 년이 더 지나도록 레이 맨인들이 다시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보라, 나는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을 시켜 전쟁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땅과 그들의 무기를 예비하게 하였느니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외치기를—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침례를 받고, 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 3 이에 내가 이 백성에게 외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그들은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가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또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년이 지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모두 삼백육십 년이 지난 후에, 레이맨인의 왕이 내게 한 서한을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게 알려 주었느니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 땅에, 남방 땅으로 통하는 협로 가까이 있는 변경의 한 성으로 함께 모이게 하였느니라.
- 6 또 그 곳에 우리가 우리의 군사를 배치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막아 그들이 우리의 땅을 조금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전 병력으로 그들에 대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느니라.
-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일년에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황무 성으로 내려왔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 우리가 그들을 무찌른지라, 그들이 다시 저희의 본토로 돌아갔느니라.
- 8 또 제삼백육십이년에 그들이 싸우러 다시 내려왔으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수 많이 도륙하였으며, 그들의 죽은 자들은 바다에 던져졌느니라.

### Mormon 3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not come to battle again until ten years more had passed away. And behold, I had employed my people, the Nephites, in preparing their lands and their arms against the time of batt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say unto me: Cry unto this people—Repent ye, and come unto me, and be ye baptized, and build up again my church, and ye shall be spared.

And I did cry unto this people, but it was in vain; and they did not realize that it was the Lord that had spared them, and granted unto them a chance for repentance. And behold they did harden their hearts against the Lor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is tenth year had passed away, making, in the whole, three hundred and sixty years from the coming of Christ, the king of the Lamanites sent an epistle unto me, which gave unto me to know that they were preparing to come again to battle against us.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cause my people that they should gather themselves together at the land Desolation, to a city which was in the borders, by the narrow pass which led into the land southward.

And there we did place our armies, that we might stop the armies of the Lamanites, that they might not get possession of any of our lands; therefore we did fortify against them with all our force.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first year the Lamanites did come down to the city of Desolation to battle against u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at year we did beat them, insomuch that they did return to their own lands again.

And in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second year they did come down again to battle. And we did beat them again, and did slay a great number of them, and their dead were cast into the sea.

- 9 이에 이제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행한 이 큰 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고 하늘 앞에 맹세하기 시작하였더라.
- 10 또 그들은 하늘과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기를,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 그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겠다고 하였더라.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은 이때로부터, 이 백성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령관과 지도자가 되기를 완전히 거절하였느니라.
- 12 보라, 내가 그들을 이끌되, 그들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전쟁도 여러 번 치렀었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했었고, 내 영혼은 온종일 그들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쏟아 낸 바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 13 또 세 번이나 내가 그들을 그들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4 이에 그들이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들의 원수들에게로 올라가 싸워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 하였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5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을 것이어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을 구원한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그들이 지면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원수들을 치러 올라가기를 온전히 거절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지켜만 보는 증인처럼 서서 장차 이를 일을 증거한 영의 나타내심을 좇아,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었느니라.

And now, because of this great thing which my people, the Nephites, had done, they began to boast in their own strength, and began to swear before the heavens that they would avenge themselves of the blood of their brethren who had been slain by their enemies.

And they did swear by the heavens, and also by the throne of God, that they would go up to battle against their enemies, and would cut them off from the fac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I, Mormon, did utterly refuse from this time forth to be a commander and a leader of this peopl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

Behold, I had led them, notwithstanding their wickedness I had led them many times to battle, and had loved them, according to the love of God which was in me, with all my heart; and my soul had been poured out in prayer unto my God all the day long for them; nevertheless, it was without faith,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rice have I deliver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nd they have repented not of their sins.

And when they had sworn by all that had been forbidden them by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hat they would go up unto their enemies to battle, and avenge themselves of the blood of their brethren, behold the voice of the Lord came unto me, saying:

Vengeance is mine, and I will repay; and because this people repented not after I had delivered them, behold, they shall be cut off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it came to pass that I utterly refused to go up against mine enemies; and I did even as the Lord had commanded me; and I did stand as an idle witness to manifest unto the world the things which I saw and heard, according to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which had testified of things to come.

- 17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며, 또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곧 역사하심이 시작되어 너희가 바야흐로 너희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 할 때,
- 18 참으로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끝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참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시 그의 제자로 삼으신 열둘에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너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 19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열둘에게 역시 심판받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록하노니, 이들 열둘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열둘에게 심판을 받으리다.
- 20 또 이 일들을 영이 내게 나타내시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함은 이 까닭으로 인함이니, 곧 너희, 참으로 아담의 온 인간 가족에 속하는 각 사람이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너희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요,
- 21 또한 너희 중에 너희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주의 성약의 백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는 물론,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니라는 또 다른 증거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 22 그리고 나는 너희 땅의 모든 끝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Therefore I write unto you, Gentiles, and also unto you, house of Israel, when the work shall commence, that ye shall be about to prepare to return to the land of your inheritance;

Yea, behold, I write unto all the ends of the earth; yea, unto you, twelve tribes of Israel, who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your works by the twelve whom Jesus chose to be his disciples in the land of Jerusalem.

And I write also unto the remnant of this people, who shall also be judged by the twelve whom Jesus chose in this land; and they shall be judged by the other twelve whom Jesus chose in the land of Jerusalem.

And these things doth the Spirit manifest unto me; therefore I write unto you all. And for this cause I write unto you, that ye may know that ye must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seat of Christ, yea, every soul who belongs to the whole human family of Adam; and ye must stand to be judged of your works, whether they be good or evil;

And also that ye may believ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ich ye shall have among you; and also that the Jews,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shall have other witness besides him whom they saw and heard, that Jesus, whom they slew, was the very Christ and the very God.

And I would that I could persuade all ye ends of the earth to repent and prepare to stand before the judgment-seat of Christ.

## 몰몬서 4

-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삼년에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황무 땅에서 나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더라.
- 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황무 땅으로 다시 쫓겨 돌아왔는데, 그들이 아직 지쳐 있을 때 힘이 새로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에게 임하여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더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고, 많은 니파이인들을 죽이고, 많은 포로를 잡았더라.
- 3 또 나머지는 도망하여 티앤크 성의 주민들에게 합류하니라. 이제 티앤크 성은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에 있었고 또한 황무 성에서도 가깝더라.
- 4 또 그들이 침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에게로 올라간 연고니, 이는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을 것임이라.
- 5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심판은 간악한 자들에게 닥칠 것이요, 간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간악한 자들로 말미암나니, 이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간악한 자들임이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티앤크 성을 치러 올 준비를 하였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사년에 레이맨인들이 티앤크 성도 점령하려고 티앤크 성을 치러 왔었느니라.
-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격퇴당하여 니파이인들에게 쫓겨 물러가매, 니파이인들은 자기들이 레이맨인들을 몰아 내었음을 보고 다시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더니,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황무 성을 다시 점령하였더라.
- 9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양측에 곧 니파이인들이나 레이맨인들이나 다 죽임을 당한 자가 수천이었느니라.

## Mormon 4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third year the Nephites did go up with their armies to battle against the Lamanites, out of the land Desola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the Nephites were driven back again to the land of Desolation. And while they were yet weary, a fresh army of the Lamanites did come upon them; and they had a sore battle, insomuch that the Lamanites di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Desolation, and did slay many of the Nephites, and did take many prisoners.

And the remainder did flee and join the inhabitants of the city Teancum. Now the city Teancum lay in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it was also near the city Desolation.

And it was because the armies of the Nephites went up unto the Lamanites that they began to be smitten; for were it not for that, the Lamanites could have had no power over them.

But, behold, the judgments of God will overtake the wicked; and it is by the wicked that the wicked are punished; for it is the wicked that stir up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unto bloodsh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make preparations to come against the city Teancum.

And it came to pass in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fourth year the Lamanites did come against the city Teancum, that they might take possession of the city Teancum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repulsed and driven back by the Nephites. And when the Nephites saw that they had driven the Lamanites they did again boast of their own strength; and they went forth in their own might, and took possession again of the city Desolation.

And now all these things had been done, and there had been thousands slain on both sides, both the Nephites and the Lamanites.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육년이 지나가고 레이맨인들이 또다시 싸우려고 니파이인들을 공격하였으나, 이때까지도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들의 간악함을 고집하였느니라.
- 11 이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가리지 않고 백성 가운데 있었던 피와 대살육의 참혹한 광경을 능히 혀로 묘사하거나, 혹은 사람이 글로써 완전히 묘사할 수 없으며, 각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진지라 그들이 끊임없이 유혈을 기뻐하였더라.
- 12 또 주의 말씀에 의하건대 이 백성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처럼 큰 간악함은, 리하이의 모든 자손 중에서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온 집 가운데서도 결코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는 저들의 수효가 니파이인들의 수효보다 더 많았음이었더라.
- 14 또한 저들이 티앤크 성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서 그 주민들을 그 곳에서 몰아 내고, 여자와 아이들을 많이 포로로 잡고는 그들을 저들의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더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칠년에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음으로 인하여 노하여, 심히 큰 분노로 레이맨인들을 치러 가서, 다시 레이맨인들을 파하고, 저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 16 이에 제삼백칠십오년에 이르기까지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이인들을 치러 오지 아니하였더라.
- 17 또 이 해에 저들이 저들의 전 병력을 거느리고 니파이인들을 치러 내려왔으니,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저들을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 18 그리고 이때로부터 니파이인들은 전혀 레이맨인들을 이기지 못하였고, 해 앞의 이슬같이 저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
-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치러 내려오매 황무 땅에 심히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더니, 저들이 니파이인들을 격파하였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sixth year had passed away, and the Lamanites came again upon the Nephites to battle; and yet the Nephites repented not of the evil they had done, but persisted in their wickedness continually.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tongue to describe, or for man to write a perfect description of the horrible scene of the blood and carnage which was among the people, both of the Nephites and of the Lamanites; and every heart was hardened, so that they delighted in the shedding of blood continually.

And there never had been so great wickedness among all the children of Lehi, nor even among all the house of Israel,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Lord, as was among this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take possession of the city Desolation, and this because their number did exceed the number of the Nephites.

And they did also march forward against the city Teancum, and did drive the inhabitants forth out of her, and did take many prisoners both women and children, and did offer them up as sacrifices unto their idol god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sixty and seventh year, the Nephites being angry because the Lamanites had sacrificed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that they did go against the Lamanites with exceedingly great anger, insomuch that they did beat again the Lamanites, and drive them out of their lands.

And the Lamanites did not come again against the Nephites until the three hundred and seventy and fifth year.

And in this year they did come down against the Nephites with all their powers; and they were not numbered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

And from this time forth did the Nephites gain no power over the Lamanites, but began to be swept off by them even as a dew before the su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come down against the city Desolation; and there was an exceedingly sore battle fought in the land Desolation, in the which they did beat the Nephites.

20 이에 그들이 저들 앞에서 다시 도망하여 보아스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심히 담대하게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이 두 번째로 다시 오기까지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21 그러나 저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니파이인들은 쫓기며 심히 큰 살육으로 살육 당하였으며,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또다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느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또다시 고을과 마을의 모든 주민을 데리고 저들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23 이에 이제 나 몰몬은 레이맨인들이 바야흐로 그 땅을 전복하려 함을 보고, 시므 산으로 가서 앰마론이 주께 감추어 둔 기록을 모두 취하였느니라.

And they fled again from before them, and they came to the city Boaz; and there they did stand against the Lamanites with exceeding boldness, in-somuch that the Lamanites did not beat them until they had come again the second time.

And when they had come the second time, the Nephites were driven and slaughtered with an exceedingly great slaughter; their women and their children were again sacrificed unto idol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Nephites did again flee from before them, taking all the inhabitants with them, both in towns and villages.

And now I, Mormon, seeing that the Lamanites were about to overthrow the land, therefore I did go to the hill Shim, and did take up all the records which Ammaron had hid up unto the Lord.

## 몰몬서 5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그들을 돕지 아니하겠단 맹세를 뉘우치매, 그들이 다시 그들 군대의 지휘권을 내게 주었으니, 이는 마치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난에서 건질 수 있을 것같이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음이라.
- 2 그러나 보라, 나는 희망을 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를 부름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싸웠음이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요단 성으로 피하고 나서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나, 보라, 저들이 도로 쫓겨가고 그때에는 그 성을 취하지 못하였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왔으나 우리가 성을 지켰고, 니파이인들이 지킨 다른 성읍들이 또한 있었으니 이 요새들이 저들을 차단하여, 저들이 우리 앞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와 우리 땅의 주민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주민들을 모아들이지 못한 땅들은 모두 레이맨인들에게 멸망되어, 그들의 고을과 마을과 성읍은 불에 살라졌으니 이같이 삼백칠십구 년이 지나니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팔십년에 이르러 레이맨인들이 다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온지라, 우리가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으나 모두 허사라, 이는 저들의 수효가 심히 많아서 저들이 니파이 백성을 저들의 발 아래 짓밟았음이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다시 도망하였으되, 그 도망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빨랐던 자들은 피하였고, 그 도망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빠르지 못하였던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여 멸망당하였느니라.

## Mormon 5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go forth among the Nephites, and did repent of the oath which I had made that I would no more assist them; and they gave me command again of their armies, for they looked upon me as though I could deliver them from their afflictions.

But behold, I was without hope, for I knew the judgments of the Lord which should come upon them; for they repented not of their iniquities, but did struggle for their lives without calling upon that Being who created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amanites did come against us as we had fled to the city of Jordan; but behold, they were driven back that they did not take the city at that tim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against us again, and we did maintain the city. And there were also other cities which were maintained by the Nephites, which strongholds did cut them off that they could not get into the country which lay before us, to destroy the inhabitants of our land.

But it came to pass that whatsoever lands we had passed by, and the inhabitants thereof were not gathered in, were destroyed by the Lamanites, and their towns, and villages, and cities were burned with fire; and thus three hundred and seventy and nine years passed away.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three hundred and eightieth year the Lamanites did come again against us to battle, and we did stand against them boldly; but it was all in vain, for so great were their numbers that they did tread the people of the Nephites under their feet.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again take to flight, and those whose flight was swifter than the Lamanites' did escape, and those whose flight did not exceed the Lamanites' were swept down and destroyed.



8 또 이제 보라, 나 몰몬은 내 눈 앞에 놓였던 것과 같은 피와 대살육의 것처럼 끔찍한 광경을 사람들 앞에 내보여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며, 감추인 모든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나야만 하고—

9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지식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와, 또한 이 백성들을 흠여 자기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헤아려지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나아와야 함을 알고 있는지라—그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계명으로 인하여, 또한 이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무 큰 슬픔을 갖지 않게 하고자, 감히 내가 본 것을 전부 기술하려 아니하고 작은 요약을 하노라.

10 또 이제 보라, 이를 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와, 또한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염려하며, 자신들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으며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고하노라.

11 이는 그러한 자라야 이스라엘 집의 재앙을 슬퍼하리라는 것을 내가 앎이니, 참으로 그들은 이 백성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요, 이 백성이 예수의 팔에 안기도록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슬퍼하리다.

12 이제 이러한 것은 야곱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이같이 기록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알려진 바, 간악함이 이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것임이요, 또 이는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아오기 위하여 주께 감추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13 또 이것이 내가 받은 계명이라, 보라, 주께서 그의 지혜로 적절하게 여기시는 때에 이 기록이 주의 계명을 좇아 나아올 것이라.

And now behold, I, Mormon, do not desire to harrow up the souls of men in casting before them such an awful scene of blood and carnage as was laid before mine eyes; but I, knowing that these things must surely be made known, and that all things which are hid must be revealed upon the housetops—

And also that a knowledge of these things must come unto the remnant of these people, and also unto the Gentiles, who the Lord hath said should scatter this people, and this people should be counted as naught among them—therefore I write a small abridgment, daring not to give a full account of the things which I have seen, because of the commandment which I have received, and also that ye might not have too great sorrow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is people.

And now behold, this I speak unto their seed, and also to the Gentiles who have care for the house of Israel, that realize and know from whence their blessings come.

For I know that such will sorrow for the calamity of the house of Israel; yea, they will sorrow for the destruction of this people; they will sorrow that this people had not repented that they might have been clasped in the arms of Jesus.

Now these things are written unto the remnant of the house of Jacob; and they are written after this manner, because it is known of God that wickedness will not bring them forth unto them; and they are to be hid up unto the Lord that they may come forth in his own due time.

And this is the commandment which I have received; and behold, they shall come forth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when he shall see fit, in his wisdom.

14 또 보라, 이 기록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리니—곧 그들에게 예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하려 함이요, 아버지께서 그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의 크고도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사, 유대인들 또는 온 이스라엘의 집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여 그의 성약을 이루시게 하려 함이라.

15 또한 이 백성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에게 나아갈 그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백성이 흠을 당하여 우리 가운데 일찍이 있었던 것, 참으로 심지어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이상으로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더러우며 혐오스런 백성이 될 것임이라, 또 이는 그들의 믿지 않음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함이니라.

16 이는 보라, 주의 영은 이미 그들의 조상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이리저리 쫓김이니라.

17 한때 그들은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었도다.

18 그러나 이제는 보라, 그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다남이 마치 겨가 바람 앞에 날림 같고, 또는 배가 돛이나 닻도 없이, 또는 배를 조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물결 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같으니 실로 그들이 그와 같도다.

19 또 보라 주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복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류해 두셨느니라.

20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흠을 당하고 난 후에, 보라, 그때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와 이스라엘의 온 집에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실 것이니라.

21 또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올린 바 의인들의 기도도 기억하시리라.

And behold, they shall go unto the unbelieving of the Jews; and for this intent shall they go—that they may be persuaded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at the Father may bring about, through his most Beloved, his great and eternal purpose, in restoring the Jews, or all the house of Israel, to the land of their inheritance, which the Lord their God hath given them, unto the fulfilling of his covenant;

And also that the seed of this people may more fully believe his gospel, which shall go forth unto them from the Gentiles; for this people shall be scattered, and shall become a dark, a filthy, and a loathsome people, beyond the description of that which ever hath been amongst us, yea, even that which hath been among the Lamanites, and this because of their unbelief and idolatry.

For behold, the Spirit of the Lord hath already ceased to strive with their fathers; and they are without Christ and God in the world; and they are driven about as chaff before the wind.

They were once a delightsome people, and they had Christ for their shepherd; yea, they were led even by God the Father.

But now, behold, they are led about by Satan, even as chaff is driven before the wind, or as a vessel is tossed about upon the waves, without sail or anchor, or without anything wherewith to steer her; and even as she is, so are they.

And behold, the Lord hath reserved their blessings, which they might have received in the land, for the Gentiles who shall possess the land.

But behold,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ey shall be driven and scattered by the Gentiles; and after they have been driven and scattered by the Gentiles, behold, then will the Lord remember the covenant which he made unto Abraham and unto all the house of Israel.

And also the Lord will remember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which have been put up unto him for them.

- 22 또 그 때에 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 23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의 크신 명령에 땅이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24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의 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그의 공의 중에 나오사 너희를 치실까 하며—두렵건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이 사자처럼 너희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를 갈기갈기 찢되 건질 자 없을까 하노라.

And then, O ye Gentiles, how can ye stand before the power of God, except ye shall repent and turn from your evil ways?

Know ye not that ye are in the hands of God? Know ye not that he hath all power, and at his great command the earth shall be rolled together as a scroll?

Therefore, repent ye, and humble yourselves before him, lest he shall come out in justice against you—lest a remnant of the seed of Jacob shall go forth among you as a lion, and tear you in pieces, and there is none to deliver.

## 몰몬서 6

- 1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보다 앞서 진군하여 나아갔느니라.
- 2 또 나 몰몬은 레이맨인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쿠모라라 칭하는 한 작은 산 옆 쿠모라 땅에 함께 모으고 거기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였느니라.
-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내가 요청한 일을 내게 수락하니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쿠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가서 쿠모라 산 근처 사방에 우리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많은 물과 강들과 샘들이 있는 땅에 있었으며, 이 곳에서 우리는 레이맨인들에게 대하여 우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느니라.
- 5 이에 삼백팔십사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백성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였느니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여 한무리가 되게 하고 나서, 보라, 나 몰몬은 늙었고 이것이 내 백성의 마지막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며,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달되어 내려온 거룩한 기록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 받았던지라, (이는 레이맨인들이 이를 파괴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나는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나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내가 준 이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는 주의 손으로 내게 맡겨졌던 모든 기록을 쿠모라 산에 감추었느니라.
-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우는 저 끔찍한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그들을 맞기를 기다렸느니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매,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에 공포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 Mormon 6

And now I finish my record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my people,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march forth before the Lamanites.

And I, Mormon, wrote an epistle unto the king of the Lamanites, and desired of him that he would grant unto us that we might gather together our people unto the land of Cumorah, by a hill which was called Cumorah, and there we could give them batt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king of the Lamanites did grant unto me the thing which I desired.

And it came to pass that we did march forth to the land of Cumorah, and we did pitch our tents around about the hill Cumorah; and it was in a land of many waters, rivers, and fountains; and here we had hope to gain advantage over the Lamanites.

And when three hundred and eighty and four years had passed away, we had gathered in all the remainder of our people unto the land of Cumorah.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we had gathered in all our people in one to the land of Cumorah, behold I, Mormon, began to be old; and knowing it to be the last struggle of my people, and having been commanded of the Lord that I should not suffer the records which had been handed down by our fathers, which were sacred,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amanites, (for the Lamanites would destroy them) therefore I made this record out of the plates of Nephi, and hid up in the hill Cumorah all the records which had been entrusted to me by the hand of the Lord, save it were these few plates which I gave unto my son Moroni.

And it came to pass that my people, with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did now behol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marching towards them; and with that awful fear of death which fills the breasts of all the wicked, did they await to receive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to battle against us, and every soul was filled with terror because of the greatness of their numbers.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는 칼과 활과 화살과 도끼와 온갖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엄습하였느니라.
-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병사들, 곧 참으로 나와 함께 하였던 나의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러졌고, 나는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엎드러졌으나, 저들이 나를 지나치고 내 생명에 끝을 내지 아니하였느니라.
- 11 이에 저들이 우리 중 스물넷을 제외한 (이 가운데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있었느니라) 나의 모든 백성을 베어 엎드러뜨리고 지나간 후, 우리 백성의 죽은 자 뒤에 살아남은 우리는,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진으로 돌아가고 난 뒤 쿠모라 산 꼭대기에서, 내가 그 앞에서 이끌었던 나의 백성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러진 것을 보았더라.
- 12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이끌었던 나의 백성 만 명도 보았더라.
- 13 또 보라 기드긴도나의 만 명도 엎드러졌고, 그 도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
- 14 또 레이마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길갈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림하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예니움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쿠메나이하와 모로나이하와 앤티오눔과 시블롬과 셈과 야슈도 각기 그들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밖에도 각기 그 만 명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 자가 십 명 더 있었나니, 참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스물넷과 또한 남쪽 지방으로 도피한 자 몇몇과 레이맨인들에게로 도망하여 넘어간 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의 백성이 엎드러져 그들의 살과 뼈와 피가 그들을 살육한 자들의 손으로 버린 바 되어, 땅 위에서 썩고 부스러져서,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 16 이에 내 백성의 살육 당한 자들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찢기운지라 내가 부르짖기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fall upon my people with the sword, and with the bow, and with the arrow, and with the ax, and with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And it came to pass that my men were hewn down, yea, even my ten thousand who were with me, and I fell wounded in the midst; and they passed by me that they did not put an end to my life.

And when they had gone through and hewn down all my people save it were twenty and four of us, (among whom was my son Moroni) and we having survived the dead of our people, did behold on the morrow, when the Lamanites had returned unto their camps, from the top of the hill Cumorah, the ten thousand of my people who were hewn down, being led in the front by me.

And we also beheld the ten thousand of my people who were led by my son Moroni.

And behold, the ten thousand of Gidgiddonah had fallen, and he also in the midst.

And Lamah had fallen with his ten thousand; and Gilgal had fallen with his ten thousand; and Limhah had fallen with his ten thousand; and Jeneum had fallen with his ten thousand; and Cumenihah, and Moronihah, and Antionum, and Shiblom, and Shem, and Josh, had fallen with their ten thousand eac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ten more who did fall by the sword, with their ten thousand each; yea, even all my people, save it were those twenty and four who were with me, and also a few who had escaped into the south countries, and a few who had deserted over unto the Lamanites, had fallen; and their flesh, and bones, and blood lay upon the face of the earth, being left by the hands of those who slew them to molder upon the land, and to crumble and to return to their mother earth.

And my soul was rent with anguish, because of the slain of my people, and I cried:

17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주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었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

18 보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들, 너희가 엎드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엎드러졌고, 나는 너희를 잃음을 애통해 하노라.

19 오 너희 아름다운 아들과 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남편과 아내,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너희가 엎드러질 수 있음은 어쩍이냐!

20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갔고 나의 슬픔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수 없도다.

21 그러나 너희의 죽어야 하는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지금 썩어 부스러지고 있는 이 몸들이 반드시 속히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될 날이 속히 이르나니,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의로우면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간 너희 조상들과 함께 복이 있도다.

22 오 이 큰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갔고, 아버지, 곧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태를 아시나니, 그는 그의 공의와 자비를 좇아 너희에게 행하시느니라.

O ye fair ones, how could ye have departed from the ways of the Lord! O ye fair ones, how could ye have rejected that Jesus, who stood with open arms to receive you!

Behold, if ye had not done this, ye would not have fallen. But behold, ye are fallen, and I mourn your loss.

O ye fair sons and daughters, ye fathers and mothers, ye husbands and wives, ye fair ones, how is it that ye could have fallen!

But behold, ye are gone, and my sorrows cannot bring your return.

And the day soon cometh that your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and these bodies which are now moldering in corruption must soon become incorruptible bodies; and then ye must stand before the judgment-seat of Christ, to be judged according to your works; and if it so be that ye are righteous, then are ye blessed with your fathers who have gone before you.

O that ye had repented before this great destruction had come upon you. But behold, ye are gone, and the Father, yea, the Eternal Father of heaven, knoweth your state; and he doeth with you according to his justice and mercy.

## 몰몬서 7

- 1 그리고 이제 보라,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주실진대, 그들로 그들 조상들의 일에 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희, 곧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니라.
- 2 너희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을 알라.
- 3 너희는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 4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말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다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
- 5 너희는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 너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사 이로써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고 또한 그의 안에서 사망의 쏘는 것이 삼키운 바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알라.
- 6 이에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매, 이로써 사람은 반드시 일으킴을 받아 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 7 또 그가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으매, 이로써 심판 날에 그의 앞에서 죄 없는 것으로 발견되는 자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얻고,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함께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 8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와서 이방인들로부터 너희에게로 나아올 기록 안에 들어 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 Mormon 7

And now, behold, I would speak somewhat unto the remnant of this people who are spared, if it so be that God may give unto them my words, that they may know of the things of their fathers; yea, I speak unto you, y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and these are the words which I speak:

Know ye that ye are of the house of Israel.

Know ye that ye must come unto repentance, or ye cannot be saved.

Know ye that ye must lay down your weapons of war, and delight no more in the shedding of blood, and take them not again, save it be that God shall command you.

Know ye that ye must come to the knowledge of your fathers, and repent of all your sins and iniquitie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that he is the Son of God, and that he was slain by the Jews, and by the power of the Father he hath risen again, whereby he hath gained the victory over the grave; and also in him is the sting of death swallowed up.

And he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whereby man must be raised to stand before his judgment-seat.

And he hath brought to pass the redemption of the world, whereby he that is found guiltless before him at the judgment day hath it given unto him to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in his kingdom, to sing ceaseless praises with the choirs above, unto the Father, and unto the Son, and unto the Holy Ghost, which are one God, in a state of happiness which hath no end.

Therefore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and lay hold upon the gospel of Christ, which shall be set before you, not only in this record but also in the record which shall come unto the Gentiles from the Jews, which record shall come from the Gentiles unto you.

- 9 이는 보라, 이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도 믿을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된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라.
- 10 그리고 너희는 또한 너희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가 첫번 성약의 백성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는 줄을 알리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주의 본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먼저 물로, 그리고 나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진대, 심판의 날에 너희가 잘되리로다. 아멘.

For behold, this is written for the intent that ye may believe that; and if ye believe that ye will believe this also; and if ye believe this ye will know concerning your fathers, and also the marvelous works which were wrought by the power of God among them.

And ye will also know that ye are a remnant of the seed of Jacob; therefore ye are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the first covenant; and if it so be that ye believe in Christ, and are baptized, first with water, then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following the example of our Savior, according to that which he hath commanded us, it shall be well with you in the day of judgment. Amen.



## 몰몬서 8

- 1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몬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보라, 나는 기록할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나의 부친에게서 명을 받은 것이니라.
- 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쿠모라에서의 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방 땅으로 도피하였던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수색당하여 결국은 모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 3 또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나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노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갔고, 나는 나의 부친의 명령을 이루노니,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 4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고 이 기록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다.
- 5 보라, 나의 부친이 이 기록을 만드셨고 또 그의 도를 기록하셨나니, 보라, 내가 판에 여백이 있으면 나도 그 의도를 기록할 것이나, 판에 여백이 없고, 또 광석도 내게 없으니, 이는 내가 홀로 있음이라. 나의 부친과 나의 모든 친족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나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나를 살려 두실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 6 보라,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 때로부터 사백 년이 지나갔노라.
- 7 또 보라, 레이맨인들은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을 성읍에서 성읍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참으로 그들이 더 이상 없기까지 수색하여 죽였나니, 그들의 무너짐이 컸도다. 참으로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의 멸망됨이 크고 기이하도다.
- 8 또 보라, 이를 행한 것은 주의 손이라. 또한 보라, 레이맨인들도 서로 싸우고 있어, 이 땅의 온 지면이 일련의 끊임없는 살인과 피흘림의 장이 되어, 아무도 이 전쟁의 끝을 알지 못하는도다.
- 9 또 이제 보라, 내가 그들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땅 위에는 생존한 자가 레이맨인들과 도적들 밖에 없음이라.

## Mormon 8

Behold I, Moroni, do finish the record of my father, Mormon. Behold, I have but few things to write, which things I have been commanded by my father.

And now it came to pass that after the great and tremendous battle at Cumorah, behold, the Nephites who had escaped into the country southward were hunted by the Lamanites, until they were all destroyed.

And my father also was killed by them, and I even remain alone to write the sad tale of the destruction of my people. But behold, they are gone, and I fulfil the commandment of my father. And whether they will slay me, I know not.

Therefore I will write and hide up the records in the earth; and whither I go it mattereth not.

Behold, my father hath made this record, and he hath written the intent thereof. And behold, I would write it also if I had room upon the plates, but I have not; and ore I have none, for I am alone. My father hath been slain in battle, and all my kinsfolk, and I have not friends nor whither to go; and how long the Lord will suffer that I may live I know not.

Behold, four hundred years have passed away since the coming of our Lord and Savior.

And behold, the Lamanites have hunted my people, the Nephites, down from city to city and from place to place, even until they are no more; and great has been their fall; yea, great and marvelous is the destruction of my people, the Nephites.

And behold, it is the hand of the Lord which hath done it. And behold also, the Lamanites are at war one with another; and the whole face of this land is one continual round of murder and bloodshed; and no one knoweth the end of the war.

And now, behold, I say no more concerning them, for there are none save it be the Lamanites and robbers that do exist upon the face of the land.

10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곧 백성들의 간악함이 심히 커서 주께서 백성들과 함께 남아 있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땅 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11 그러나 보라, 나의 부친과 나는 그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성역을 베풀었느니라.

12 또 누구든지 이 기록을 받고, 그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이를 비난하지 아니할 자, 그는 이보다 더욱 큰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모로나이라, 가능하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수 있기를 원하노라.

13 보라,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라. 나는 몰몬의 아들이요, 나의 부친은 니파이의 후손이니라.

14 또 나는 이 기록을 주께 감추는 바로 그 사람이니라.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그 판은 아무 가치가 없나니, 이는 그가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는 그것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 기록은 큰 가치가 있나니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15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낼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영광을, 또는 오래 흠어져 있었던 주의 옛 성약의 백성의 복리를 전념하여 구하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이라.

16 또한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겠음이라. 참으로 이것은 땅에서 나올 것이요, 어두운 데서 비취어 백성들에게 알려지리니,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7 또 만일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일지라, 그러나 보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이다.

And there are none that do know the true God save it be the disciples of Jesus, who did tarry in the land until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was so great that the Lord would not suffer them to remain with the people; and whether they be upon the face of the land no man knoweth.

But behold, my father and I have seen them, and they have ministered unto us.

And whoso receiveth this record, and shall not condemn it because of the imperfections which are in it, the same shall know of greater things than these. Behold, I am Moroni; and were it possible, I would make all things known unto you.

Behold, I make an end of speaking concerning this people. I am the son of Mormon, and my father was a descendant of Nephi.

And I am the same who hideth up this record unto the Lord; the plates thereof are of no worth, because of the commandment of the Lord. For he truly saith that no one shall have them to get gain; but the record thereof is of great worth; and whoso shall bring it to light, him will the Lord bless.

For none can have power to bring it to light save it be given him of God; for God wills that it shall be done with an eye single to his glory, or the welfare of the ancient and long dispersed covenant people of the Lord.

And blessed be he that shall bring this thing to light; for it shall be brought out of darkness unto light,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yea, it shall be brought out of the earth, and it shall shine forth out of darkness, and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people; and it shall be done by the power of God.

And if there be faults they be the faults of a man. But behold, we know no fault; nevertheless God knoweth all things; therefore, he that condemneth, let him be aware lest he shall be in danger of hell fire.

18 또 내게 보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맞으리라고 말하는 자—그는 주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이다.

19 이는 보라, 성급하게 판단하는 자는 도로 성급하게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 이는 저의 행위를 따라 저의 샅이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치는 자는 주께로 말미암아 도로 침을 입으리로다.

20 경전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사람은 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지니, 이는 심판이 내 것이요, 보복도 나의 것인 즉, 내가 갚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 또 주의 일을 대적하며, 주의 성약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집을 대적하여 분노와 다툼을 내뿜으며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일을 무너뜨리리라. 그리하면 주는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할 자—그는 찍혀 불에 던지울 위험에 처하여 있나니,

22 이는 주의 영원한 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갈 것임이니라.

23 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하라. 보라, 내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노라.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땅을 소유하였다가 나보다 앞서 간 그 성도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참으로 티끌에서부터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그는 그들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하시리라.

24 또 그는 그들의 기도를 아시나니, 곧 그들의 기도가 그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던 줄을 아시며, 또 그는 그들의 신앙도 아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산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또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땅을 진동하게 할 수 있었으며, 또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써 그들이 옥들로 땅에 무너지게 하였음이라. 참으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극렬한 풀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으며, 들짐승이나 독사들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느니라.

25 또 보라, 그들의 기도는 또한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자도 위한 것이었더라.

And he that saith: Show unto me, or ye shall be smitten—let him beware lest he commandeth that which is forbidden of the Lord.

For behold, the same that judgeth rashly shall be judged rashly again; for according to his works shall his wages be; therefore, he that smiteth shall be smitten again, of the Lord.

Behold what the scripture says—man shall not smite, neither shall he judge; for judgment is mine, saith the Lord, and vengeance is mine also, and I will repay.

And he that shall breathe out wrath and strifes against the work of the Lord, and against the covenant people of the Lord who are the house of Israel, and shall say: We will destroy the work of the Lord, and the Lord will not remember his covenant which he hath made unto the house of Israel—the same is in danger to be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For the eternal purposes of the Lord shall roll on, until all his promises shall be fulfilled.

Search the prophecies of Isaiah. Behold, I cannot write them. Yea,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ose saints who have gone before me, who have possessed this land, shall cry, yea, even from the dust will they cry unto the Lord; and as the Lord liveth he will remember the covenant which he hath made with them.

And he knoweth their prayers, that they were in behalf of their brethren. And he knoweth their faith, for in his name could they remove mountains; and in his name could they cause the earth to shake; and by the power of his word did they cause prisons to tumble to the earth; yea, even the fiery furnace could not harm them, neither wild beasts nor poisonous serpents, because of the power of his word.

And behold, their prayers were also in behalf of him that the Lord should suffer to bring these things forth.

26 아무도 이것이 나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이것들이 반드시 나아올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것들이 나아올 터인 즉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임이라. 또 이는 기적이 폐하여졌다 하는 날에 나아올 것이요, 참으로 마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는 것같이 나아올 것이라.

27 또 비밀 결사와 어둠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피가 주께 부르짖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28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며,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기에 이르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29 참으로 이것은 타국 땅에 불과 태풍과 연무가 있음을 듣게 되는 날에 나타나리니,

30 또 그 때에 또한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게 되리라.

31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과 속임과 음행과 온갖 가증함이 있을 것이라.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어찌하든지 상관 없이 없나니, 이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임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쓰디 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여 있음이라.

32 참으로 이것은, 내게로 오라, 너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에 나아오리라.

33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하며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익을 얻고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형시켜 너희 영혼에 정죄를 자초하고자 하였느냐?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라. 이는 보라,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이룸이니라.

And no one need say they shall not come, for they surely shall, for the Lord hath spoken it; for out of the earth shall they come, by the hand of the Lord, and none can stay it; and it shall come in a day when it shall be said that miracles are done away; and it shall come even as if one should speak from the dead.

And it shall come in a day when the blood of saints shall cry unto the Lord, because of secret combinations and the works of darkness.

Yea, it shall come in a day when the power of God shall be denied, and churches become defiled and be lifted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yea, even in a day when leaders of churches and teachers shall rise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even to the envying of them who belong to their churches.

Yea, it shall come in a day when there shall be heard of fires, and tempests, and vapors of smoke in foreign lands;

And there shall also be heard of wars, rumors of war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Yea, it shall come in a day when there shall be great pollutions upon the face of the earth; there shall be murders, and robbing, and lying, and deceivings, and whoredoms, and all manner of abominations; when there shall be many who will say, Do this, or do that, and it mattereth not, for the Lord will uphold such at the last day. But wo unto such, for they are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in the bonds of iniquity.

Yea, it shall come in a day when there shall be churches built up that shall say: Come unto me, and for your money you shall be forgiven of your sins.

O ye wicked and perverse and stiffnecked people, why have ye built up churches unto yourselves to get gain? Why have ye transfigured the holy word of God, that ye might bring damnation upon your souls? Behold, look ye unto the revelations of God; for behold, the time cometh at that day when all these things must be fulfilled.

34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35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36 또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행하며, 다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며, 시기함과 다툼과 악독과 꾀박과 온갖 죄악을 행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며, 너희의 교회는 참으로 모두가 너희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오염된 줄을 아노라.

37 이는 보라, 너희가 돈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좋은 옷과 너희의 교회 장식함을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이라.

38 오 썩을 것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파는 너희 오염물들, 너희 위선자들, 너희 교사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저 비참보다 끝없는 행복의 가치가 더 크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세상의 칭찬으로 인함이나?

39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꾸미면서도,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40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이익을 얻고자 너희의 비밀 결사를 만들어 과부들로 주 앞에 애통하게 하며, 또한 고아들로 주 앞에 애통하게 하며, 또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남편의 피가 너희의 머리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땅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게 하느냐?

41 불지어다, 복수의 검이 너희 위에 걸려 있어, 그가 성도들의 피를 너희에게 갚으실 때가 곧 이르나니,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가 더 오래 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Behold, the Lord hath shown unto me great and marvelous things concerning that which must shortly come, at that day when these things shall come forth among you.

Behold, I speak unto you as if ye were present, and yet ye are not. But behold, Jesus Christ hath shown you unto me, and I know your doing.

And I know that ye do walk in the pride of your hearts; and there are none save a few only who do not lift themselves up in the pride of their hearts, unto the wearing of very fine apparel, unto envying, and strifes, and malice, and persecutions, and all manner of iniquities; and your churches, yea, even every one, have become polluted because of the pride of your hearts.

For behold, ye do love money, and your substance, and your fine apparel, and the adorning of your churches, more than ye love the poor and the needy, the sick and the afflicted.

O ye pollutions, ye hypocrites, ye teachers, who sell yourselves for that which will canker, why have ye polluted the holy church of God? Why are ye ashamed to take upon you the name of Christ? Why do ye not think that greater is the value of an endless happiness than that misery which never dies—because of the praise of the world?

Why do ye adorn yourselves with that which hath no life, and yet suffer the hungry, and the needy, and the naked, and the sick and the afflicted to pass by you, and notice them not?

Yea, why do ye build up your secret abominations to get gain, and cause that widows should mourn before the Lord, and also orphans to mourn before the Lord, and also the blood of their fathers and their husbands to cry unto the Lord from the ground, for vengeance upon your heads?

Behold, the sword of vengeance hangeth over you; and the time soon cometh that he avengeth the blood of the saints upon you, for he will not suffer their cries any longer.

## 몰몬서 9

- 1 그리고 이제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노라.
- 2 보라, 너희는 너희를 징벌하시는 날에 믿으려느냐—보라, 주께서 오실 때, 곧 참으로 땅이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우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저 큰 날에,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저 큰 날에—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겠느냐?
- 3 그때에도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그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의 율법을 항상 그릇되게만 취급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너희의 영혼이 찢기는 듯 할 때,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느냐?
-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더러움을 자각하며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은, 지옥에서 정죄 받은 영혼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라.
- 5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게 될 때, 너희에게 꺼지지 아니할 화염이 불붙게 될 것임이라.
- 6 그러할진대 오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께로 돌이키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리하여 혹시라도 저 큰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흠 없고 정결하며 아름답고 흰 자로 발견되게 하라.
- 7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방언으로 말함도 없고, 방언을 통변함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 8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한 자요, 읽었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 Mormon 9

And now, I speak also concerning those who do not believe in Christ.

Behold, will ye believe in the day of your visitation—behold, when the Lord shall come, yea, even that great day when the earth shall be rolled together as a scroll,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yea, in that great day when ye shall be brought to stand before the Lamb of God—then will ye say that there is no God?

Then will ye longer deny the Christ, or can ye behold the Lamb of God? Do ye suppose that ye shall dwell with him under a consciousness of your guilt? Do ye suppose that ye could be happy to dwell with that holy Being, when your souls are racked with a consciousness of guilt that ye have ever abused his laws?

Behold, I say unto you that ye would be more miserable to dwell with a holy and just God, under a consciousness of your filthiness before him, than ye would to dwell with the damned souls in hell.

For behold, when ye shall be brought to see your nakedness before God, and also the glory of God, and the holiness of Jesus Christ, it will kindle a flame of unquenchable fire upon you.

O then ye unbelieving, turn ye unto the Lord; cry mightily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that perhaps ye may be found spotless, pure, fair, and white, having been cleansed by the blood of the Lamb, at that great and last day.

And again I speak unto you who deny the revelations of God, and say that they are done away, that there are no revelations, nor prophecies, nor gifts, nor healing, nor speaking with tongues, and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Behold I say unto you, he that denieth these things knoweth not the gospel of Christ; yea, he has not read the scriptures; if so, he does not understand them.

- 9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흔적도 없으심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느냐?
- 10 또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변화하며 변하는 흔적을 가진 신을 생각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생각한 것이라.
- 11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리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라.
- 12 보라, 그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이 왔으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버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 구속이 왔느니라.
- 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의 면전으로 도로 데려옴을 입나니, 참으로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을 이루며, 부활은 끝없는 잠에서의 구속을 이룸이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 이에 그들이 무론 대소하고 나아와, 이 영원한 사망의 줄에서 (이 사망은 현세적 사망이라) 구속함을 입고 풀려나서 모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 14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리고 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게 될 때가 오느니라.
- 15 이제 너희, 곧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신을 스스로 생각한 너희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끝이 왔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For do we not read that God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in him there is no variability neither shadow of changing?

And now, if ye have imagined up unto yourselves a god who doth vary, and in whom there is shadow of changing, then have ye imagined up unto yourselves a god who is not a God of miracles.

But behold, I will show unto you a God of miracles, even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it is that same Go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in them are.

Behold, he created Adam, and by Adam came the fall of man. And because of the fall of man came Jesus Christ, even the Father and the Son; and because of Jesus Christ came the redemption of man.

And because of the redemption of man, which came by Jesus Christ, they are brought back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yea, this is wherein all men are redeemed, because the death of Christ bringeth to pass the resurrection, which bringeth to pass a redemption from an endless sleep, from which sleep all men shall be awakened by the power of God when the trump shall sound; and they shall come forth, both small and great, and all shall stand before his bar, being redeemed and loosed from this eternal band of death, which death is a temporal death.

And then cometh the judgment of the Holy One upon them; and then cometh the time that he that is filthy shall be filthy still; and he that is righteous shall be righteous still; he that is happy shall be happy still; and he that is unhappy shall be unhappy still.

And now, O all ye that have imagined up unto yourselves a god who can do no miracles, I would ask of you, have all these things passed, of which I have spoken? Has the end come yet? Behold I say unto you, Nay; and God has not ceased to be a God of miracles.

- 16 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 하지 아니하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뉘 능히 깨닫겠느냐?
- 17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있게 되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기적이 아니었다 말하겠느냐?
- 18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또 사도들의 손으로도 많은 능한 기적들이 이루어졌느니라.
- 19 그리고 그때 만일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고도 오히려 불변하시는 존재이시겠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 그리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실 것이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니라.
- 20 또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그치시는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지며, 바른 길에서 떠나 그들이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
- 21 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시리니, 이 약속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니라.
- 22 이는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될 그의 제자들에게와, 또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무리가 듣는 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23 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 24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나으리라.

Behold, are not the things that God hath wrought marvelous in our eyes? Yea, and who can comprehend the marvelous works of God?

Who shall say that it was not a miracle that by his word the heaven and the earth should be; and by the power of his word man was created of the dust of the earth; and by the power of his word have miracles been wrought?

And who shall say that Jesus Christ did not do many mighty miracles? And there were many mighty miracles wrought by the hands of the apostles.

And if there were miracles wrought then, why has God ceased to be a God of miracles and yet be an unchangeable Being? And behold, I say unto you he changeth not; if so he would cease to be God; and he ceaseth not to be God, and is a God of miracles.

And the reason why he ceaseth to do miracles among the children of men is because that they dwindle in unbelief, and depart from the right way, and know not the God in whom they should trust.

Behold, I say unto you that whoso believeth in Christ, doubting nothing, whatsoever he shall ask the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it shall be granted him; and this promise is unto all, even unto the ends of the earth.

For behold, thus sai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unto his disciples who should tarry, yea, and also to all his disciples, in the hearing of the multitude: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And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damned;

And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in my name shall they cast out devils;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they shall take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thing it shall not hurt them;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2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내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말을 확증하여 주리라 하셨음이니라.

26 이제 보라, 누가 주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그의 하시는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느냐? 누가 일어나 주의 전능한 권능을 대적하겠느냐? 누가 주의 하시는 일을 멸시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업신여기겠느냐? 불지어다, 주의 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는 너희가 기이히 여기고 멸망할 것임이니라.

27 오 그러할진대 경멸하지 말며, 기이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옛적과 같이 시작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와, 그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28 너희의 시험의 날에 지혜로우라.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리라.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29 합당하지 않게 침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끝까지 견디면 결단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30 보라, 내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함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갖게 될 줄 내가 압이라.

31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의 전에 기록한 이들을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희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And whosoever shall believe in my name, doubting nothing, unto him will I confirm all my words, even unto the ends of the earth.

And now, behold, who can stand against the works of the Lord? Who can deny his sayings? Who will rise up against the almighty power of the Lord? Who will despise the works of the Lord? Who will despise the children of Christ? Behold, all ye who are despisers of the works of the Lord, for ye shall wonder and perish.

O then despise not, and wonder not, but hearken unto the words of the Lord, and ask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for what things soever ye shall stand in need. Doubt not, but be believing, and begin as in times of old, and come un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before him.

Be wise in the days of your probation; strip yourselves of all uncleanness; ask not, that ye may consume it on your lusts, but ask with a firmness unshaken, that ye will yield to no temptation, but that ye will serve the true and living God.

See that ye are not baptized unworthily; see that ye partake not of the sacrament of Christ unworthily; but see that ye do all things in worthiness, and do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if ye do this, and endure to the end, ye will in nowise be cast out.

Behold, I speak unto you as though I spake from the dead; for I know that ye shall have my words.

Condemn me not because of mine imperfection, neither my father, because of his imperfection, neither them who have written before him; but rather give thanks unto God that he hath made manifest unto you our imperfections, that ye may learn to be more wise than we have been.

32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게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좇아 변경된 바, 우리 중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33 또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리에게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34 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느니라.

35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든 우리 형제들의 피가 우리 옷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더라.

36 또 보라, 우리의 형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원한 이러한 일, 곧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복되는 일은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성도의 기도에 따른 것이라.

37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

And now, behold, we have written this record according to our knowledge, in the characters which are called among us the reformed Egyptian, being handed down and altered by us, according to our manner of speech.

And if our plates had been sufficiently large we should have written in Hebrew; but the Hebrew hath been altered by us also; and if we could have written in Hebrew, behold, ye would have had no imperfection in our record.

But the Lord knoweth the things which we have written, and also that none other people knoweth our language; and because that none other people knoweth our language, therefore he hath prepared means for the interpretation thereof.

And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we may rid our garments of the blood of our brethren, who have dwindled in unbelief.

And behold, these things which we have desired concerning our brethren, yea, even their restoration to the knowledge of Christ, are according to the prayers of all the saints who have dwelt in the land.

And may the Lord Jesus Christ grant that their prayers may be answered according to their faith; and may God the Father remember the covenant which he hath made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may he bless them forever, through faith o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 이더서

야벳인들의 기록이니, 모사이야 왕 시대에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한 스물넉 장의 판에서 취한 것이라.

## 이더서 1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어서 이 북쪽 지방에서 주의 손에 멸망당한 저 옛 주민들의 기사를 진술하리로다.
- 2 또 나는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한 바 이더서라 칭하는 스물넉 장의 판에서 나의 기사를 취하니라.
- 3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 기록의 첫 부분, 곧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말해 주며, 그때로부터 큰 탑에 이르기까지의 기사와, 무엇이든지 그때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즉—
- 4 그러므로 나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은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 일들이 판에 있는즉, 누구든지 이를 발견하는 자는 온전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니라.
- 5 그러나 보라, 나는 온전한 기사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만 탑으로부터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기사의 일부분을 내가 진술하노라.
- 6 이와 같이 그 기사를 내가 진술하노니, 이 기록을 기록한 자는 이더였고, 그는 코리엔토어의 후손이더라.
- 7 코리엔토어는 모론의 아들이요,
- 8 모론은 이템의 아들이요,
- 9 이템은 에이하의 아들이요,
- 10 에이하는 셋의 아들이요,
- 11 셋은 시블론의 아들이요,
- 12 시블론은 콤의 아들이요,
- 13 콤은 코리엔툼의 아들이요,
- 14 코리엔툼은 앰니개다의 아들이요,
- 15 앰니개다는 아론의 아들이요,

# The Book of Ether

*The record of the Jaredites, taken from the twenty-four plates found by the people of Limbi in the days of King Mosiah.*

## Ether 1

And now I, Moroni, proceed to give an account of those ancient inhabitants who were destroyed by the hand of the Lord upon the face of this north country.

And I take mine account from the twenty and four plates which were found by the people of Limhi, which is called the Book of Ether.

And as I suppose that the first part of this record, which speaks concern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also of Adam, and an account from that time even to the great tower, and whatsoever things transpired among the children of men until that time, is had among the Jews—

Therefore I do not write those things which transpired from the days of Adam until that time; but they are had upon the plates; and whoso findeth them, the same will have power that he may get the full account.

But behold, I give not the full account, but a part of the account I give, from the tower down until they were destroyed.

And on this wise do I give the account. He that wrote this record was Ether, and he was a descendant of Coriantor.

Coriantor was the son of Moron.

And Moron was the son of Ethem.

And Ethem was the son of Ahah.

And Ahah was the son of Seth.

And Seth was the son of Shiblön.

And Shiblön was the son of Com.

And Com was the son of Coriantum.

And Coriantum was the son of Amnigaddah.

And Amnigaddah was the son of Aaron.

16 아론은 헷의 후손이니 헷은 히아아돔의 아들이  
 17 요,  
 18 히아아돔은 리브의 아들이요,  
 19 리브는 키시의 아들이요,  
 20 키시는 코롬의 아들이요,  
 21 코롬은 레위의 아들이요,  
 22 레위는 킴의 아들이요,  
 23 킴은 모리애틀의 아들이요,  
 24 모리애틀은 리플레이키시의 후손이요,  
 25 리플레이키시는 세즈의 아들이요,  
 26 세즈는 헷의 아들이요,  
 27 헷은 콤의 아들이요,  
 28 콤은 코리애틀의 아들이요,  
 29 코리애틀은 이머의 아들이요,  
 30 이머는 오머의 아들이요,  
 31 오머는 술의 아들이요,  
 32 술은 키브의 아들이요,  
 33 키브는 오라이하의 아들이요, 오라이하는 야렛  
 의 아들이더라.  
 34 이 야렛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그의 진노 중에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시던 때에, 그의 형제와 각  
 자의 가족과 함께, 몇몇 다른 자들과 그들의 가족  
 과 함께 큰 탑으로부터 나아온 자요, 주의 말씀대  
 로 백성들은 흩어졌느니라.  
 35 그리고 야렛의 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던지라, 그의 형제 야렛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의 말  
 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  
 시지 않게 하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  
 짓으매, 주께서 야렛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러  
 므로 야렛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니, 야렛과  
 그의 형제가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37 이에 야렛이 그 형제에게 일렀으되, 주께 다시  
 부르짖으라. 혹 주께서 우리의 친구되는 자들에게  
 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  
 하게 아니하시리라.

And Aaron was a descendant of Heth, who was the  
 son of Hearthom.

And Hearthom was the son of Lib.

And Lib was the son of Kish.

And Kish was the son of Corom.

And Corom was the son of Levi.

And Levi was the son of Kim.

And Kim was the son of Morianton.

And Morianton was a descendant of Riplakish.

And Riplakish was the son of Shez.

And Shez was the son of Heth.

And Heth was the son of Com.

And Com was the son of Coriantum.

And Coriantum was the son of Emer.

And Emer was the son of Omer.

And Omer was the son of Shule.

And Shule was the son of Kib.

And Kib was the son of Orihah, who was the son  
 of Jared;

Which Jared came forth with his brother and their  
 families, with some others and their families, from  
 the great tower, at the time the Lord confounded the  
 language of the people, and swore in his wrath that  
 they should be scatter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e peo-  
 ple were scattered.

And the brother of Jared being a large and mighty  
 man, and a man highly favored of the Lord, Jared,  
 his brother, said unto him: Cry unto the Lord, that  
 he will not confound us that we may not understand  
 our word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did  
 cry unto the Lord, and the Lord had compassion  
 upon Jared; therefore he did not confound the lan-  
 guage of Jared; and Jared and his brother were not  
 confounded.

Then Jared said unto his brother: Cry again unto  
 the Lord, and it may be that he will turn away his  
 anger from them who are our friends, that he con-  
 found not their language.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들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다시 말하여 이르되, 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지 주께 물어보라. 만일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진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온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누가 아느냐? 또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가 주께 충실하여 그 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도록 하자 하였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야렛의 입으로 말한 바 된 대로 주께 부르짖었더라.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이르시되,

41 가서 각종 네 양 떼의 암수와 또한 각종 땅의 씨앗과 네 가족들과 또한 네 형제 야렛과 그의 가족과 또한 네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과 야렛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모으라.

42 네가 이같이 하고 나서 너는 그들을 이끌고 북편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 앞에 행하여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들어가겠노라.

43 또 거기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과 네 형제의 자손과 너와 함께 갈 자들의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한 큰 나라를 일으키리니, 온 지구상에 내가 네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일으킬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으리라. 이같이 내가 네게 행할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내가 내게 부르짖었음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did cry unto the Lord, and the Lord had compassion upon their friends and their families also, that they were not confounded.

And it came to pass that Jared spake again unto his brother, saying: Go and inquire of the Lord whether he will drive us out of the land, and if he will drive us out of the land, cry unto him whither we shall go. And who knoweth but the Lord will carry us forth into a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the earth? And if it so be, let us be faithful unto the Lord, that we may receive it for our inheritanc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did cry unto the Lord according to that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mouth of Jar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hear the brother of Jared, and had compassion upon him, and said unto him:

Go to and gather together thy flocks, both male and female, of every kind; and also of the seed of the earth of every kind; and thy families; and also Jared thy brother and his family; and also thy friends and their families, and the friends of Jared and their families.

And when thou hast done this thou shalt go at the head of them down into the valley which is northward. And there will I meet thee, and I will go before thee into a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the lands of the earth.

And there will I bless thee and thy seed, and raise up unto me of thy seed, and of the seed of thy brother, and they who shall go with thee, a great nation. And there shall be none greater than the nation which I will raise up unto me of thy seed, up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thus I will do unto thee because this long time ye have cried unto me.

## 이더서 2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과 그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과 또한 야렛과 그의 형제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함께 모은 바, 그들의 각종 양 떼의 암수와 함께 북편의 골짜기로 (그 골짜기의 이름은 니므롯이니 저 영걸한 사냥꾼을 따라 일컫는 것이더라) 내려갔느니라.
- 2 또 그들이 올무를 놓아 공중의 새도 잡았으며, 또 그들이 용기를 하나 준비하여, 거기에 물고기도 담아서 가져갔더라.
- 3 그리고 그들이 또한 데세레트도 가져갔으니, 이는 해석한즉 꿀벌이라. 이같이 그들이 벌 떼와, 땅 위에 있는 온갖 것, 각종 씨앗을 가져갔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므롯 골짜기로 내려오매 주께서 내려오사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셨으나, 그가 구름 가운데 계셨던지라, 야렛의 형제가 주를 보지 못하였더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되, 참으로 사람이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구름 가운데 서서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여행해야 할지 지시해 주셨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끊임없이 주의 손으로 지시하심을 받으며, 광야를 여행하고, 거룻배들을 지어 타고, 많은 물을 건넜더라.
- 7 또 주는 그들이 바다 건너 광야에서 멈추기를 용납하고자 아니하시고, 그들로 나아가 참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위하여 보존하신 바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더라.
- 8 또 그는 그의 진노 중에 야렛의 형제에게 맹세하사, 그때로부터 이후 영원토록 누구든지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그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 Ether 2

And it came to pass that Jared and his brother, and their families, and also the friends of Jared and his brother and their families, went down into the valley which was northward, (and the name of the valley was Nimrod, being called after the mighty hunter) with their flocks which they had gathered together, male and female, of every kind.

And they did also lay snares and catch fowls of the air; and they did also prepare a vessel, in which they did carry with them the fish of the waters.

And they did also carry with them deseret, which, by interpretation, is a honey bee; and thus they did carry with them swarms of bees, and all manner of that which was upon the face of the land, seeds of every ki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come down into the valley of Nimrod the Lord came down and talked with the brother of Jared; and he was in a cloud, and the brother of Jared saw him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go forth into the wilderness, yea, into that quarter where there never had man be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go before them, and did talk with them as he stood in a cloud, and gave directions whither they should trave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travel in the wilderness, and did build barges, in which they did cross many waters, being directed continually by the hand of the Lord.

And the Lord would not suffer that they should stop beyond the sea in the wilderness, but he would that they should come forth even unto the land of promise, which wa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which the Lord God had preserved for a righteous people.

And he had sworn in his wrath unto the brother of Jared, that whoso should possess this land of promise, from that time henceforth and forever, should serve him, the true and only God, or they should be swept off when the fulness of his wrath should come upon them.

- 9 이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함이니라.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 10 이는 보라,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쓸어버림을 당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임이니라.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기까지는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 11 또 너희 이방인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나아옴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하려 함이요—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 가득함이 임하기까지 너희의 죄악 중에 계속 행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이 땅의 주민들이 행하여 온 것같이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너희 위에 초래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 12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 13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시매,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곳 이름을 모리안쿠머라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되 사 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 년 말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로 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서서 그와 말씀하시되, 세 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And now, we can behold the decrees of God concerning this land, that it is a land of promise; and whatsoever nation shall possess it shall serve God, or they shall be swept off when the fulness of his wrath shall come upon them. And the fulness of his wrath cometh upon them when they are ripened in iniquity.

For behold, this is a land which i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wherefore he that doth possess it shall serve God or shall be swept off; for it is the everlasting decree of God. And it is not until the fulness of iniquity among the children of the land, that they are swept off.

And this cometh unto you, O ye Gentiles, that ye may know the decrees of God—that ye may repent, and not continue in your iniquities until the fulness come, that ye may not bring down the fulness of the wrath of God upon you as the inhabitants of the land have hitherto done.

Behold, this is a choice land, and whatsoever nation shall possess it shall be free from bondage, and from captivity, and from all other nations under heaven, if they will but serve the God of the land, who is Jesus Christ, who hath been manifested by the things which we have written.

And now I proceed with my record; for behol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bring Jared and his brethren forth even to that great sea which divideth the lands. And as they came to the sea they pitched their tents;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Moriancumer; and they dwelt in tents, and dwelt in tents upon the seashore for the space of four years.

And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four years that the Lord came again unto the brother of Jared, and stood in a cloud and talked with him. And for the space of three hours did the Lord talk with the brother of Jared, and chastened him because he remembered not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15 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 그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될 것임이니라 하시더라.

16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일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지어 온 거룻배의 방식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와 또한 그의 동료들이 가서 일하여, 주의 지시를 좇아, 그들이 지었던 방식을 따라 거룻배들을 지으매, 그 배들은 작으며, 물 위에서 가볍기가 참으로 마치 물 위에 뜬 새의 가벼움 같았더라.

17 또 그 배들은 아주 물샷틈없이 지어져 마치 접시처럼 물을 가들만 하였으며, 그 바닥도 물샷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옆면도 물샷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양끝은 뾰족하였으며, 그 위도 물샷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길이는 나무 하나의 길이였으며, 그 문도 닫으면 물샷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룻배들을 만들었나이다.

19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오리이까? 또한 우리가 죽게 되오리니, 이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임이니이다.

20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위와 또한 아래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네가 공기가 부족할 때 너는 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을지니라. 또 만일 물이 네게로 들어오거든, 보라, 너희는 구멍을 막아서 넘치는 물에 잠겨 죽지 않게 할지니라.

And the brother of Jared repented of the evil which he had done, and di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for his brethren who were with him. And the Lord said unto him: I will forgive thee and thy brethren of their sins; but thou shalt not sin any more, for ye shall remember that my Spirit wi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wherefore, if ye will sin until ye are fully ripe ye shall be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these are my thoughts upon the land which I shall give you for your inheritance; for it shall be a land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And the Lord said: Go to work and build, after the manner of barges which ye have hitherto buil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did go to work, and also his brethren, and built barges after the manner which they had buil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the Lord. And they were small, and they were light upon the water, even like unto the lightness of a fowl upon the water.

And they were built after a manner that they were exceedingly tight, even that they would hold water like unto a dish; and the bottom thereof was tight like unto a dish; and the sides thereof were tight like unto a dish; and the ends thereof were peaked; and the top thereof was tight like unto a dish; and the length thereof was the length of a tree; and the door thereof, when it was shut, was tight like unto a dis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cried unto the Lord, saying: O Lord, I have performed the work which thou hast commanded me, and I have made the barges according as thou hast directed me.

And behold, O Lord, in them there is no light; whither shall we steer? And also we shall perish, for in them we cannot breathe, save it is the air which is in them; therefore we shall perish.

And the Lord said unto the brother of Jared: Behold, thou shalt make a hole in the top, and also in the bottom; and when thou shalt suffer for air thou shalt unstop the hole and receive air. And if it be so that the water come in upon thee, behold, ye shall stop the hole, that ye may not perish in the flood.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 행하였더라.

22 그리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배를 예비하였사오나,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23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임이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24 이는 보라, 산 같은 파도가 너희 위에 부딪치므로 너희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고래 같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해 올리리니, 이는 바람이 내 입에서 나아갔으며, 비와 넘치는 물도 내가 보내었음이라.

25 이에 보라,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노니, 이는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 그러한즉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did so, according as the Lord had commanded.

And he cried again unto the Lord saying: O Lord, behold I have done even as thou hast commanded me; and I have prepared the vessels for my people, and behold there is no light in them. Behold, O Lord, wilt thou suffer that we shall cross this great water in darkness?

And the Lord said unto the brother of Jared: What will ye that I should do that ye may have light in your vessels? For behold, ye cannot have windows, for they will be dashed in pieces; neither shall ye take fire with you, for ye shall not go by the light of fire.

For behold, ye shall be as a whale in the midst of the sea; for the mountain waves shall dash upon you. Nevertheless, I will bring you up again out of the depths of the sea; for the winds have gone forth out of my mouth, and also the rains and the floods have I sent forth.

And behold, I prepare you against these things; for ye cannot cross this great deep save I prepare you against the waves of the sea, and the winds which have gone forth, and the floods which shall come. Therefore what will ye that I should prepare for you that ye may have light when ye are swallowed up in the depths of the sea?

### 이더서 3

- 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제 예비된 배의 수가 여덟이었더라) 심히 높으므로 사람들이 셸렘이라 일컫는 산으로 나아가, 한 바위로 부터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 이에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주께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2 주여, 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치는 물에 둘러싸일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여 보시옵고, 주 앞에서 주의 종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는 거룩하사 하늘에 거하시오며,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 압이니이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천성이 끊임없이 악하게 되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우리로 주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는 주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3 주여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몰아 내시매, 우리가 이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있었나이다. 그러하올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주여,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백성에게서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암흑 중에 이 격노하는 깊음을 건너 나아가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바위에서 녹여 낸 이것들을 보시옵소서.
- 4 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
- 5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 Ether 3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Jared, (now the number of the vessels which had been prepared was eight) went forth unto the mount, which they called the mount Shelem, because of its exceeding height, and did molten out of a rock sixteen small stones; and they were white and clear, even as transparent glass; and he did carry them in his hands upon the top of the mount, and cried again unto the Lord, saying:

O Lord, thou hast said that we must be encompassed about by the floods. Now behold, O Lord, and do not be angry with thy servant because of his weakness before thee; for we know that thou art holy and dwellest in the heavens, and that we are unworthy before thee; because of the fall our natures have become evil continually; nevertheless, O Lord, thou hast given us a commandment that we must call upon thee, that from thee we may receive according to our desires.

Behold, O Lord, thou hast smitten us because of our iniquity, and hast driven us forth, and for these many years we have been in the wilderness; nevertheless, thou hast been merciful unto us. O Lord, look upon me in pity, and turn away thine anger from this thy people, and suffer not that they shall go forth across this raging deep in darkness; but behold these things which I have molten out of the rock.

And I know, O Lord, that thou hast all power, and can do whatsoever thou wilt for the benefit of man; therefore touch these stones, O Lord, with thy finger, and prepare them that they may shine forth in darkness; and they shall shine forth unto us in the vessels which we have prepared, that we may have light while we shall cross the sea.

Behold, O Lord, thou canst do this. We know that thou art able to show forth great power, which looks small unto the understanding of men.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그의 손을 내어미사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주 앞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이라.
- 7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땅에 엎드러진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러졌느냐?
- 8 이에 저가 주께 여짜오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 9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네가 이것 외에 본 것이 더 있느냐?
- 10 이에 저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주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 11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할 말을 믿느냐?
- 12 또 저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을 내가 아오니,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
- 13 또 저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자신을 저에게 보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들을 아는 고로 타락에서 구속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옴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노라.
- 14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brother of Jared had said these words, behold, the Lord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touched the stones one by one with his finger. And the veil was taken from off the eyes of the brother of Jared, and he saw the finger of the Lord; and it was as the finger of a man, like unto flesh and blood; and the brother of Jared fell down before the Lord, for he was struck with fear.

And the Lord saw that the brother of Jared had fallen to the earth; and the Lord said unto him: Arise, why hast thou fallen?

And he saith unto the Lord: I saw the finger of the Lord, and I feared lest he should smite me; for I knew not that the Lord had flesh and blood.

And the Lord said unto him: Because of thy faith thou hast seen that I shall take upon me flesh and blood; and never has man come before me with such exceeding faith as thou hast; for were it not so ye could not have seen my finger. Sawest thou more than this?

And he answered: Nay; Lord, show thyself unto me.

And the Lord said unto him: Believest thou the words which I shall speak?

And he answered: Yea, Lord, I know that thou speakest the truth, for thou art a God of truth, and canst not lie.

And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behold, the Lord showed himself unto him, and said: Because thou knowest these things ye are redeemed from the fall; therefore ye are brought back into my presence; therefore I show myself unto you.

Behold, I am he who was prepar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o redeem my people. Behold, I am Jesus Christ. I am the Father and the Son. In me shall all mankind have life, and that eternally, even they who shall believe on my name; and they shall become my sons and my daughters.

- 15 그러나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나니,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참으로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 16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네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 17 또 이제 나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나는 기록된 이 일들을 모두 기술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같이 그 동일한 몸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영으로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 18 또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던 것이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 모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서 저에게 보이신 많은 큰 일들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 19 또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할 수 없었나니, 이에 저가 예수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이를 저가 보았을 때 저가 두려움으로 엎드러졌으니, 이는 그것이 주의 손가락인 줄을 저가 알았음이라. 이에 저가 더 이상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알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함이었더라.
- 20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휘장 안이 금한 바 될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저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더라.
-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가 육신으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이르기까지, 네가 보고 들은 이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한즉 너는 내가 보고 들은 일들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지니라.
- 22 또 보라, 네가 내게 나아올 때, 너는 그것을 기록하고 봉하여,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할지니, 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기록할지니라.

And never have I showed myself unto man whom I have created, for never has man believed in me as thou hast. Seest thou that ye are created after mine own image? Yea, even all men were created in the beginning after mine own image.

Behold, this body, which ye now behold, is the body of my spirit; and man have I created after the body of my spirit; and even as I appear unto thee to be in the spirit will I appear unto my people in the flesh.

And now, as I, Moroni, said I could not make a full account of these things which are written, therefore it sufficeth me to say that Jesus showed himself unto this man in the spirit, even after the manner and in the likeness of the same body even as he showed himself unto the Nephites.

And he ministered unto him even as he ministered unto the Nephites; and all this, that this man might know that he was God, because of the many great works which the Lord had showed unto him.

And because of the knowledge of this man he could not be kept from beholding within the veil; and he saw the finger of Jesus, which, when he saw, he fell with fear; for he knew that it was the finger of the Lord; and he had faith no longer, for he knew, nothing doubting.

Wherefore, having this perfect knowledge of God, he could not be kept from within the veil; therefore he saw Jesus; and he did minister unto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aid unto the brother of Jared: Behold, thou shalt not suffer these things which ye have seen and heard to go forth unto the world, until the time cometh that I shall glorify my name in the flesh; wherefore, ye shall treasure up the things which ye have seen and heard, and show it to no man.

And behold, when ye shall come unto me, ye shall write them and shall seal them up, that no one can interpret them; for ye shall write them in a language that they cannot be read.

23 또 보라, 이 두 돌을 내가 네게 주리니, 너는 이것도 내가 기록할 것과 함께 인봉할지니라.

24 이는 보라, 내가 기록할 언어를 내가 이미 혼잡하게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이 돌들로 내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리로다.

25 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렛의 형제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땅의 모든 주민들과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를 보이시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저의 보는 데서 그들을 감추지 아니하셨더라.

26 이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저가 주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보이실 수 있다고 주를 믿을 것 같으면—그것을 저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무것도 저에게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신 줄을 저가 알았음이다.

27 또 주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인봉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리라 하셨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저로 저가 받은 두 돌도 인봉하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시기까지 그것을 보이지 말게 하셨더라.

And behold, these two stones will I give unto thee, and ye shall seal them up also with the things which ye shall write.

For behold, the language which ye shall write I have confounded; wherefore I will cause in my own due time that these stones shall magnify to the eyes of men these things which ye shall write.

And when the Lord had said these words, he showed unto the brother of Jared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which had been, and also all that would be; and he withheld them not from his sight, even unto the ends of the earth.

For he had said unto him in times before, that if he would believe in him that he could show unto him all things—it should be shown unto him; therefore the Lord could not withhold anything from him, for he knew that the Lord could show him all things.

And the Lord said unto him: Write these things and seal them up; and I will show them in mine own due time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commanded him that he should seal up the two stones which he had received, and show them not, until the Lord should show them unto the children of men.

## 이더서 4

- 1 또한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명하사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산을 내려가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게 하시되, 주가 십자가 위에 들리시기까지 그것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감을 금하셨으니, 이 까닭에 모사이야 왕은 이를 간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기까지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였더라.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는 이 일을 드러낼 것을 명하셨더라.
- 3 또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모두 믿지 않음에 빠져 들었고, 레이맨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지라, 그러므로 나는 이를 다시 땅에 감추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 4 보라, 내가 이 판에 야렛의 형제가 본 바로 그 일을 기록하였노니,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일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 5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였으며, 또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인봉하게 하시고, 또한 명하시기를 그 해석도 인봉하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좇아 해석기들을 인봉하였도다.
- 6 이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음이라.
- 7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내 안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로 야렛의 형제가 행한 것같이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그 날에, 그때 내가 야렛의 형제가 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나의 모든 계시를 그들에게 밝혀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Ether 4

And the Lord commanded the brother of Jared to go down out of the moun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write the things which he had seen; and they were forbidden to come unto the children of men until after that he should be lifted up upon the cross; and for this cause did king Mosiah keep them, that they should not come unto the world until after Christ should show himself unto his people.

And after Christ truly had showed himself unto his people he commanded that they should be made manifest.

And now, after that, they have all dwindled in unbelief; and there is none save it be the Lamanites, and they have rejected the gospel of Christ; therefore I am commanded that I should hide them up again in the earth.

Behold, I have written upon these plates the very things which the brother of Jared saw; and there never were greater things made manifest than those which were made manifest unto the brother of Jared.

Wherefore the Lord hath commanded me to write them; and I have written them. And he commanded me that I should seal them up; and he also hath commanded that I should seal up the interpretation thereof; wherefore I have sealed up the interpreter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For the Lord said unto me: They shall not go forth unto the Gentiles until the day that they shall repent of their iniquity, and become clean before the Lord.

And in that day that they shall exercise faith in me, saith the Lord, even as the brother of Jared did, that they may become sanctified in me, then will I manifest unto them the things which the brother of Jared saw, even to the unfolding unto them all my revelations, saith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Father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in them are.

- 8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적하여 다툼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러한 것을 부인할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그들에게 내가 더 큰 일들을 보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곧 말하는 그임이니라.
- 9 이에 나의 명령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나의 말에 땅이 진동하며, 나의 명령에 땅의 주민들이 불에 없어지듯 멸망하리라.
- 10 또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마지막 날에 말하는 이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임이니라.
- 11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내 영의 나타냄으로 방문하리니, 그가 알고 증거할 것이라. 이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가 이러한 것들이 참된 줄을 알 것임이니, 이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함이니라.
- 12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로부터이니, 나에게서가 아니고는 선이 아무에게서도 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곧 사람들을 모든 선으로 인도하는 자니,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곧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 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아버지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 13 너희 이방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큰 일, 곧 믿지 앎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지식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 14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너희를 위하여 간직해 두셨는지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그것이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믿지 앎으로 인함이니라.

And he that will contend against the word of the Lord, let him be accursed; and he that shall deny these things, let him be accursed; for unto them will I show no greater things, saith Jesus Christ; for I am he who speaketh.

And at my command the heavens are opened and are shut; and at my word the earth shall shake; and at my command the inhabitants thereof shall pass away, even so as by fire.

And he that believeth not my words believeth not my disciples; and if it so be that I do not speak, judge ye; for ye shall know that it is I that speaketh, at the last day.

But he that believeth these things which I have spoken, him will I visit with the manifestations of my Spirit, and he shall know and bear record. For because of my Spirit he shall know that these things are true; for it persuadeth men to do good.

And whatsoever thing persuadeth men to do good is of me; for good cometh of none save it be of me. I am the same that leadeth men to all good; he that will not believe my words will not believe me—that I am; and he that will not believe me will not believe the Father who sent me. For behold, I am the Father, I am the light, and the life, and the truth of the world.

Come unto me, O ye Gentiles, and I will show unto you the greater things, the knowledge which is hid up because of unbelief.

Come unto me, O ye house of Israel, and it shall be made manifest unto you how great things the Father hath laid up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it hath not come unto you, because of unbelief.

15 보라, 너희로 너희의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와 마음의 완악함과 생각의 눈먼 데에 머물게 하였던 믿지 않음의 휘장을 너희가 찢어 버리는 그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너희에게 감추어져 온 크고도 기이한 일들이—참으로 너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때,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6 그때 내가 나의 종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나의 계시가 만민의 눈에 밝혀지리라. 기억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이 과연 나타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알지니라.

17 그러므로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 너희는 이 온 땅 위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된 줄을 알라.

18 그러므로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복음을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임이라. 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19 또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에 충실한 자로 밝혀진 그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들리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이니라. 불지어다 이를 말한 자는 나이니라. 아멘.

Behold, when ye shall rend that veil of unbelief which doth cause you to remain in your awful state of wickedness, and hardness of heart, and blindness of mind, then shall the great and marvelous things which have been hid up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rom you—yea, when ye shall call upon the Father in my name,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then shall ye know that the Father hath remembered the covenant which he made unto your fathers, O house of Israel.

And then shall my revelations which I have caused to be written by my servant John be unfolded in the eyes of all the people. Remember, when ye see these things, ye shall know that the time is at hand that they shall be made manifest in very deed.

Therefore, when ye shall receive this record ye may know that the work of the Father has commenced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Therefore, repent all ye ends of the earth, and come unto me, and believe in my gospel, and be baptized in my name; for he that believeth and is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damned; and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 in my name.

And blessed is he that is found faithful unto my name at the last day, for he shall be lifted up to dwell in the kingdom prepared for him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behold it is I that hath spoken it. Amen.



## 이더서 5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 기억을 좇아 내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내가 인봉한 것을 너희에게 일렀은즉, 그러므로 이에 손을 대어 번역하려 하지 말라. 이는 그 일이 너희에게는 금지되었음이니, 다만 차차 그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 때 허락되리라.
- 2 또 보라, 너희는 이 기록을 드러내도록 돕게 될 자들에게 이 판들을 보여 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리라.
- 3 또 세 사람에게 이 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질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 4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니, 세 증인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증거하시는 그의 말씀을 보일 이 기록이—이 모두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대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 5 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될 것이니라.
- 6 그리고 이제 내게 이 같은 일을 전할 권세가 없다면,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볼 때에 내가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가 알 것임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이니라. 아멘.

## Ether 5

And now I, Moroni, have written the words which were commanded me, according to my memory; and I have told you the things which I have sealed up; therefore touch them not in order that ye may translate; for that thing is forbidden you, except by and by it shall be wisdom in God.

And behold, ye may be privileged that ye may show the plates unto those who shall assist to bring forth this work;

And unto three shall they be shown by the power of God; wherefore they shall know of a surety that these things are true.

And in the mouth of three witnesses shall these things be established; and the testimony of three, and this work, in the which shall be shown forth the power of God and also his word, of which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Ghost bear record—and all this shall stand as a testimony against the world at the last day.

And if it so be that they repent and come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they shall be received into the kingdom of God.

And now, if I have no authority for these things, judge ye; for ye shall know that I have authority when ye shall see me, and we shall stand before God at the last day. Amen.

## 이더서 6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야렛과 그 형제의 기록을 진술하리로다.
- 2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야렛의 형제가 산으로 가지고 올라온 돌들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후에 야렛의 형제가 산에서 내려와, 그 돌들을 예비된 배 안에 두되 양 끝에 하나씩 두었더니, 보라, 그 것들이 배를 밝히더라.
- 3 이에 이같이 주께서 돌들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사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어, 그들로 암흑 중에 큰 물을 건너지 않게 하셨느니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서 먹고 지낼 만한 온갖 양식과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이 데리고 갈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새를 막론하고 그 양식을 준비한 후에—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들의 배 곧 거룻배에 올라, 스스로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로 출항하여 나아갔더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부는 맹렬한 바람을 일으키시매, 그로 인해 그들이 바람 앞에서 바다 물결 위에 요동하였더라.
-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 위에 부서지는 산 같은 파도와, 또한 맹렬한 바람이 일으키는 크고 무서운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에 묻혀졌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깊은 바다에 묻혔을 때에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물이 없었으니, 그들의 배는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음이요, 또한 그 배들은 물샐틈없기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물에 둘러싸였을 때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을 다시 물 위로 이끌어 내셨더라.

## Ether 6

And now I, Moroni, proceed to give the record of Jared and his brother.

For it came to pass after the Lord had prepared the stones which the brother of Jared had carried up into the mount, the brother of Jared came down out of the mount, and he did put forth the stones into the vessels which were prepared, one in each end thereof; and behold, they did give light unto the vessels.

And thus the Lord caused stones to shine in darkness, to give light unto men, women, and children, that they might not cross the great waters in dark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prepared all manner of food, that thereby they might subsist upon the water, and also food for their flocks and herds, and whatsoever beast or animal or fowl that they should carry with them—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done all these things they got aboard of their vessels or barges, and set forth into the sea, commending themselves unto the Lord their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God caused that there should be a furious wind blow upon the face of the waters, towards the promised land; and thus they were tossed upon the waves of the sea before the wi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many times buried in the depths of the sea, because of the mountain waves which broke upon them, and also the great and terrible tempests which were caused by the fierceness of the win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were buried in the deep there was no water that could hurt them, their vessels being tight like unto a dish, and also they were tight like unto the ark of Noah; therefore when they were encompassed about by many waters they did cry unto the Lord, and he did bring them forth again upon the top of the waters.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에 밀려 나아갔더라.
- 9 이에 그들이 주께 찬송을 부르되, 참으로 야렛의 형제는 주께 찬송을 부르며, 온종일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였고, 밤이 되어도 그들은 주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 10 또 이같이 그들이 밀려 나아가매, 바다의 아무 괴물도 그들을 깨뜨릴 수 없었고, 그들을 상하게 할 고래도 없었으며, 물 위에서나 물 속에서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빛이 있었더라.
- 11 이에 이같이 그들이 물 위에서 삼백사십사 일을 밀려 나아가가더라.
- 12 그리고 약속된 땅의 해안에 상륙하였나니, 그들이 약속된 땅의 해안에 그들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땅 위에 엎드려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친절하신 자비로 인하여 주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더라.
-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 위에 나아가 땅을 갈기 시작하였더라.
- 14 또 야렛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 그들을 예이콤과 길가와 메이하와 오라이하라 하였더라.
- 15 또 야렛의 형제도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 16 그리고 야렛과 그 형제의 친구는 수효가 대략 스물두 명이라. 그들도 약속된 땅으로 오기 전에 아들과 딸들을 낳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많아졌더라.
- 17 또 그들은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높은 곳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더라.
-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지면에 퍼지며, 번성하며 땅을 갈기 시작하여, 그 땅에서 점차 강해졌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wind did never cease to blow towards the promised land while they were upon the waters; and thus they were driven forth before the wind.

And they did sing praises unto the Lord; yea, the brother of Jared did sing praises unto the Lord, and he did thank and praise the Lord all the day long; and when the night came, they did not cease to praise the Lord.

And thus they were driven forth; and no monster of the sea could break them, neither whale that could mar them; and they did have light continually, whether it was above the water or under the water.

And thus they were driven forth, three hundred and forty and four days upon the water.

And they did land upon the shore of the promised land. And when they had set their feet upon the shores of the promised land they bowed themselves down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did humble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did shed tears of joy before the Lord, because of the multitude of his tender mercies over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nt forth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began to till the earth.

And Jared had four sons; and they were called Jacom, and Gilgah, and Mahah, and Orihah.

And the brother of Jared also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the friends of Jared and his brother were in number about twenty and two souls; and they also begat sons and daughters before they came to the promised land; and therefore they began to be many.

And they were taught to walk humbly before the Lord; and they were also taught from on hig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began to spread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to multiply and to till the earth; and they did wax strong in the land.

- 19 또 야렛의 형제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곧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았던지라, 그가 야렛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백성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알아보도록 하자 하였더라.
- 20 이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니, 이제 야렛의 형제의 아들과 딸의 수효는 스물두 명이요, 야렛의 아들과 딸의 수효는 열둘인데, 그에게 아들은 넷이었더라.
-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계수하고, 저들을 계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행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저들에게 물어 보았더라.
-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저들 위에 왕을 삼아 줄 것을 원하였더라.
- 23 그러나 이제 보라, 이는 그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저들에게 이르되 정녕 이 일은 사로잡힘으로 인도하는도다 하였더라.
- 24 그러나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저들을 용납하여 저들로 왕을 갖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택하라 하니라.
-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야렛의 형제의 자를 택하매, 그의 이름은 페이개그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거절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그의 부친이 그를 강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의 부친이 그리하고자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도 강제하여 그들의 왕을 삼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더라.
-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페이개그의 형제를 모두 택하였으나, 그들도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아들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하고자 아니한지라, 이에 오라이하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위에 왕이 되었더라.

And the brother of Jared began to be old, and saw that he must soon go down to the grave; wherefore he said unto Jared: Let us gather together our people that we may number them, that we may know of them what they will desire of us before we go down to our graves.

And accordingly the people were gathered together. Now the number of the sons and the daughters of the brother of Jared were twenty and two souls; and the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of Jared were twelve, he having four son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number their people; and after that they had numbered them, they did desire of them the things which they would that they should do before they went down to their grav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desired of them that they should anoint one of their sons to be a king over them.

And now behold, this was grievous unto them. And the brother of Jared said unto them: Surely this thing leadeth into captivity.

But Jared said unto his brother: Suffer them that they may have a king. And therefore he said unto them: Choose ye out from among our sons a king, even whom ye will.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hose even the first-born of the brother of Jared; and his name was Pagag. And it came to pass that he refused and would not be their king. And the people would that his father should constrain him, but his father would not; and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constrain no man to be their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hose all the brothers of Pagag, and they would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neither would the sons of Jared, even all save it were one; and Orihah was anointed to be king over the people.

28 이에 그가 다스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번영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었더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죽고 그의 형제도 죽으니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가 주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그의 부친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자기의 백성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쳤더라.

And he began to reign, and the people began to prosper; and they became exceedingly rich.

And it came to pass that Jared died, and his brother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Orihah did walk humbly before the Lord, and did remember how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his father, and also taught his people how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their fathers.

## 이더서 7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가 그의 모든 날 동안 그 땅에서 공의로 판결하였고, 그의 날은 심히 많았더라.
- 2 또 그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참으로 그가 서른한 명을 낳았고 그 중에 아들 스물셋이 있었더라.
-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그의 노년에 키브를 낳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고 키브는 코리호어를 낳았더라.
- 4 그리고 코리호어가 서른두 살 때 그 부친을 모반하여, 니허 땅으로 건너가서 거하였고, 저가 아들과 딸을 낳으매 그들이 심히 아름다워진지라, 그러므로 코리호어가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어 자기를 좇게 하였더라.
- 5 이에 저가 군대를 함께 모은 후에 왕이 거하는 모론 땅으로 올라가서 그를 사로잡으니, 이에 그들이 사로잡힘에 들게 되리라 한 야렛의 형제의 말이 이루어졌느니라.
- 6 이제 왕이 거하던 모론 땅은 니파이인들이 황무라 칭하는 땅에서 가깝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심히 나이 많게 되기까지 키브와 그의 백성이 그의 아들 코리호어 아래에서 사로잡힌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나 키브가 아직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그의 노년에 술을 낳았더라.
-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술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였고, 술이 점점 강하여져서, 사람의 힘으로 볼 때 용사가 되었으며, 그가 또한 판단함이 비상하였던지라.
- 9 그러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녹여내어, 그가 이끌어 낸 자들을 위하여 강철로 칼을 만들고, 칼로 그들을 무장시킨 후에 니허성으로 돌아와, 그 형제 코리호어와 싸워 이로써 왕국을 얻고 왕국을 그 부친 키브에게로 회복시켰더라.
- 10 이에 이제 술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그 부친이 그에게 왕국을 넘겨준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 Ether 7

And it came to pass that Orihah did execute judgment upon the land in righteousness all his days, whose days were exceedingly many.

And he begat sons and daughters; yea, he begat thirty and one, among whom were twenty and three son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also begat Kib in his old age. And it came to pass that Kib reigned in his stead; and Kib begat Corihor.

And when Corihor was thirty and two years old he rebelled against his father, and went over and dwelt in the land of Nehor; and he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they became exceedingly fair; wherefore Corihor drew away many people after him.

And when he had gathered together an army he came up unto the land of Moron where the king dwelt, and took him captive, which brought to pass the saying of the brother of Jared that they would be brought into captivity.

Now the land of Moron, where the king dwelt, was near the land which is called Desolation by the Nephites.

And it came to pass that Kib dwelt in captivity, and his people under Corihor his son, until he became exceedingly old; nevertheless Kib begat Shule in his old age, while he was yet in captivity.

And it came to pass that Shule was angry with his brother; and Shule waxed strong, and became mighty as to the strength of a man; and he was also mighty in judgment.

Wherefore, he came to the hill Ephraim, and he did molten out of the hill, and made swords out of steel for those whom he had drawn away with him; and after he had armed them with swords he returned to the city Nehor, and gave battle unto his brother Corihor, by which means he obtained the kingdom and restored it unto his father Kib.

And now because of the thing which Shule had done, his father bestowed upon him the kingdom; therefore he began to reign in the stead of his father.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공의로 판결하였으며, 백성들의 수가 심히 많아진고로 그가 그 왕국을 그 온 지면에 뻗어나가게 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execute judgment in righteousness; and he did spread his kingdom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for the people had become exceedingly numerous.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술도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Shule also begat many sons and daughters.

13 또 코리호어가 자기의 행한 많은 악을 회개한지라, 술이 자기의 왕국에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더라.

And Corihor repented of the many evils which he had done; wherefore Shule gave him power in his kingdom.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에게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고, 코리호어의 아들 중에는 이름이 노아라 하는 아들이 있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hor had many sons and daughters. And among the sons of Corihor there was one whose name was Noah.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가 술 왕과 자기 부친 코리호어를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의 형제 코호어와 또한 자기의 모든 형제와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내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Noah rebelled against Shule, the king, and also his father Corihor, and drew away Cohor his brother, and also all his brethren and many of the people.

16 또 그는 술 왕과 싸워 그들의 첫번 기업의 땅을 얻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And he gave battle unto Shule, the king, in which he did obtain the land of their first inheritance; and he became a king over that part of the land.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다시 술 왕과 싸워, 술 왕을 잡고, 그를 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he gave battle again unto Shule, the king; and he took Shule, the king, and carried him away captive into Moron.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바야흐로 그를 사형에 처하려 하였을 때, 술의 아들들이 밤에 노아의 집에 숨어 들어가 저를 죽이고, 옥문을 부수고 그 아버지를 이끌어내어, 그를 그 왕국의 자기 보좌에 앉혔더라.

And it came to pass as he was about to put him to death, the sons of Shule crept into the house of Noah by night and slew him, and broke down the door of the prison and brought out their father, and placed him upon his throne in his own kingdom.

19 그리하여 노아의 아들이 저의 대신에 저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그들이 다시는 술 왕을 이길 세력을 얻지 못하였고, 술 왕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심히 번영하여 점점 강대해졌더라.

Wherefore, the son of Noah did build up his kingdom in his stead; nevertheless they did not gain power any more over Shule the king, and the people who were under the reign of Shule the king did prosper exceedingly and wax great.

20 이에 나라가 나뉘어, 두 왕국이 있게 되었으니, 술의 왕국과 노아의 아들 코호어의 왕국이라.

And the country was divided; and there were two kingdoms, the kingdom of Shule, and the kingdom of Cohor, the son of Noah.

21 또 노아의 아들 코호어가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술을 공격하여 싸우게 하였으나, 이 싸움에서 술이 그들을 이기고 코호어를 죽였더라.

And Cohor, the son of Noah, caused that his people should give battle unto Shule, in which Shule did beat them and did slay Cohor.

22 이제 코호어에게는 니므롯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니므롯이 코호어의 왕국을 술에게 바치고 술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된지라, 그리하여 술이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렸고, 그는 술의 왕국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23 또한 술의 통치 때에 백성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의 간악함과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저주를 초래하고 있어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니라.

2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들을 조롱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술 왕은 선지자들을 욕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였더라.

25 또 한 법을 그 온 땅에 두루 시행하여, 선지자들에게 어디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권능을 주었으니, 이 까닭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더라.

26 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회개한지라 주께서 그들을 살려 주시매,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술이 그의 노년에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27 이에 술의 시대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고, 그는 주께서 그의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곧 큰 깊음을 건너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리하여 그는 그의 모든 날 동안 공의로 판결하였더라.

And now Cohor had a son who was called Nimrod; and Nimrod gave up the kingdom of Cohor unto Shule, and he did gain favor in the eyes of Shule; wherefore Shule did bestow great favors upon him, and he did do in the kingdom of Shule according to his desires.

And also in the reign of Shule there came prophets among the people, who were sent from the Lord, prophesying that the wickedness and idolatry of the people was bringing a curse upon the land, and they should be destroyed if they did not repent.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did revile against the prophets, and did mock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king Shule did execute judgment against all those who did revile against the prophets.

And he did execute a law throughout all the land, which gave power unto the prophets that they should go whithersoever they would; and by this cause the people were brought unto repentance.

And because the people did repent of their iniquities and idolatries the Lord did spare them, and they began to prosper again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Shule begat sons and daughters in his old age.

And there were no more wars in the days of Shule; and he remembered the great things that the Lord had done for his fathers in bringing them across the great deep into the promised land; wherefore he did execute judgment in righteousness all his days.



## 이더서 8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오머를 낳으매, 오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오머는 야렛을 낳았으며, 야렛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 2 또 야렛이 그 부친을 모반하여, 헛 땅에 가서 거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간교한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언으로 꺾어 이룩고 왕국의 절반을 얻기에 이르렀더라.
- 3 그리고 저가 왕국의 절반을 얻은 후에는 그 부친을 대적하여 싸워, 그 부친을 사로잡아 가서, 그로 사로잡힌 중에 지내게 하였더라.
- 4 이에 이제 오머의 통치 시대에 그가 그의 날의 절반을 사로잡힌 중에 있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아들과 딸을 낳으매 그 중에 에스롬과 코리안투머가 있더라.
- 5 이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야렛의 소위로 인하여 심히 노한지라, 마침내 한 군대를 일으켜 야렛을 대적하여 싸우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밤에 저를 쳤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야렛의 군대를 도륙하고 나서 바야흐로 저를 또한 죽이려 하였으나, 저가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을 간청하고 그리하면 나라를 자기 부친에게 바치겠다 한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저의 목숨을 살려 주었더라.
- 7 그러나 이제 야렛은 나라를 잃었음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게 되었으니, 이는 저가 그 마음을 나라와 세상의 영광에 두었음이라.
- 8 이제 야렛의 딸은 심히 능란하더니,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나라를 그 아버지에게 되찾아 줄 계획을 꾸미려고 생각하였더라.

## Ether 8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t Omer, and Omer reigned in his stead. And Omer begat Jared; and Jared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Jared rebelled against his father, and came and dwelt in the land of Heth.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flatter many people, because of his cunning words, until he had gained the half of the kingdom.

And when he had gained the half of the kingdom he gave battle unto his father, and he did carry away his father into captivity, and did make him serve in captivity;

And now, in the days of the reign of Omer he was in captivity the half of his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t sons and daughters, among whom were Esrom and Coriantumr;

And they were exceedingly angry because of the doings of Jared their brother, insomuch that they did raise an army and gave battle unto Jar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ive battle unto him by nigh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slain the army of Jared they were about to slay him also; and he pled with them that they would not slay him, and he would give up the kingdom unto his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rant unto him his life.

And now Jared became exceedingly sorrowful because of the loss of the kingdom, for he had set his heart upon the kingdom and upon the glory of the world.

Now the daughter of Jared being exceedingly expert, and seeing the sorrows of her father, thought to devise a plan whereby she could redeem the kingdom unto her father.

- 9 이제 야렛의 딸이 심히 아름다웠던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아버지께 것처럼 많은 슬픔이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큰 깊음을 건너 가져온 기록을 읽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소서, 옛 사람들에 관한 바, 곧 그들이 그들의 은밀한 계획으로 나라와 큰 영광을 얻었다 한 기사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 10 그러므로 이제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킴노오의 아들 에이키시를 부르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아내로 원하오리니, 그런즉 만일 그가 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줄 것을 아버지께 원하오면,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르시기를, 네가 왕 곧 내 부친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를 주리라 하소서 하였더라.
- 11 이제 오머는 에이키시의 친구였던지라, 그러므로 야렛이 사람을 보내어 에이키시를 부르매 야렛의 딸이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하는지라, 이에 그가 저를 아내로 원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야렛에게 이르되, 저를 내게 아내로 달라 하더라.
- 12 이에 야렛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왕, 곧 내 부친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저를 내게 주리라 하였더라.
-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자기의 모든 친족을 야렛의 집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청할 일에 대하여 내게 충실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겠느냐 하였더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하늘들과 또한 땅과 저희의 머리로 맹세하여,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청한 도움에서 일탈하는 자는 그 머리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을 무엇이랴도 누설하는 자, 그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에이키시와 맹약하매, 에이키시가 역시 권력을 추구하던 옛적 사람들이 준 맹세, 곧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가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맹세를 그들에게 하였더라.

Now the daughter of Jared was exceedingly fair. And it came to pass that she did talk with her father, and said unto him: Whereby hath my father so much sorrow? Hath he not read the record which our fathers brought across the great deep? Behold, is there not an account concerning them of old, that they by their secret plans did obtain kingdoms and great glory?

And now, therefore, let my father send for Akish, the son of Kimnor; and behold, I am fair, and I will dance before him, and I will please him, that he will desire me to wife; wherefore if he shall desire of thee that ye shall give unto him me to wife, then shall ye say: I will give her if ye will bring unto me the head of my father, the king.

And now Omer was a friend to Akish; wherefore, when Jared had sent for Akish, the daughter of Jared danced before him that she pleased him, insomuch that he desired her to wife. And it came to pass that he said unto Jared: Give her unto me to wife.

And Jared said unto him: I will give her unto you, if ye will bring unto me the head of my father, the king.

And it came to pass that Akish gathered in unto the house of Jared all his kinsfolk, and said unto them: Will ye swear unto me that ye will be faithful unto me in the thing which I shall desire of you?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ll sware unto him, by the God of heaven, and also by the heavens, and also by the earth, and by their heads, that whoso should vary from the assistance which Akish desired should lose his head; and whoso should divulge whatsoever thing Akish made known unto them, the same should lose his life.

And it came to pass that thus they did agree with Akish. And Akish did administer unto them the oaths which were given by them of old who also sought power, which had been handed down even from Cain, who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16 또 그러한 것은 이러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머물게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도와 권력을 얻게 하며, 살인하게 하며, 약탈하게 하며, 거짓말하게 하며, 온갖 간악함과 음행을 범하게 하려 하여 악마의 능력에 의해 보존되었던 것이더라.

17 또 이러한 옛 일들을 찾아볼 것을 야렛의 마음에 넣은 것은 야렛의 딸이요, 야렛은 이를 에이키시의 마음에 넣은지라, 그러므로 에이키시가 이를 그의 친족과 친구들에게 주어, 그럴듯한 약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옛적 사람들같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으니, 이러한 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증하고 간악한 것이라.

19 이는 주께서는 비밀 결사로 일하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피를 흘림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이를 금하셨음이라.

20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그들의 맹세와 결사의 방식을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으며,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내가 알게 되었음이라.

21 또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의 멸망과 또한 니파이 백성의 멸망을 초래하였음이라.

22 또 무릇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비밀 결사를 옹호하여 이로 나라에 만연하게 하기에 이를진대, 보라, 그들은 멸망당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들이 흘릴 그의 성도들의 피가 그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땅에서부터 항상 그에게 부르짖도록 버려두시지는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고 버려두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And they were kept up by the power of the devil to administer these oaths unto the people, to keep them in darkness, to help such as sought power to gain power, and to murder, and to plunder, and to lie, and to commit all manner of wickedness and whoredoms.

And it was the daughter of Jared who put it into his heart to search up these things of old; and Jared put it into the heart of Akish; wherefore, Akish administered it unto his kindred and friends, leading them away by fair promises to do whatsoever thing he desir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rmed a secret combination, even as they of old; which combination is most abominable and wicked above all, in the sight of God;

For the Lord worketh not in secret combinations, neither doth he will that man should shed blood, but in all things hath forbidden it, from the beginning of man.

And now I, Moroni, do not write the manner of their oaths and combinations, for it hath been made known unto me that they are had among all people, and they are had among the Lamanites.

And they have caused the destruction of this people of whom I am now speaking, and also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of Nephi.

And whatsoever nation shall uphold such secret combinations, to get power and gain, until they shall spread over the nation, behold, they shall be destroyed; for the Lord will not suffer that the blood of his saints, which shall be shed by them, shall always cry unto him from the ground for vengeance upon them and yet he avenge them not.

23     그러한즉, 너희 이방인들아,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이는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이러한 살인 결사들이 너희를 이김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요—또 그 일, 참으로 곧 그 멸망의 일이 너희에게 임함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도록 용납할진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검이 너희 위에 내려서 너희를 덮으며 멸할 것이라.

24     그러한즉,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생김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 있을 이 비밀 결사로 인하여 너희는 깨어나 너희의 참담한 처지를 깨달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로 인하여 그 비밀 결사에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그 비밀 결사 위에, 또한 그것을 세운 자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티끌에서부터 부르짖음이니라.

25     이는 이렇게 됨이니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세우는 자는 모든 땅과 국민과 나라의 자유를 뒤엎기를 꾀하는 자요, 그러한 것은 만백성의 멸망을 가져옴이라, 이는 그것이 악마에 의하여 세워짐이니 그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참으로 우리의 시조를 낳은 바로 그 거짓말쟁이니, 참으로 처음부터 사람으로 살인을 범하게 한 바로 그 거짓말쟁이라, 그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며 그들을 돌로 치며 그들을 쫓아내었느니라.

26     그리하여 나 모로나이는 악이 사라지게 하며,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할 때가 이르게 하도록, 또 그들이 설득을 받아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되어 모든 의의 근원으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Wherefore, O ye Gentiles, it is wisdom in God that these things should be shown unto you, that thereby ye may repent of your sins, and suffer not that these murderous combinations shall get above you, which are built up to get power and gain—and the work, yea, even the work of destruction come upon you, yea, even the sword of the justice of the Eternal God shall fall upon you, to your overthrow and destruction if ye shall suffer these things to be.

Wherefore, the Lord commandeth you, when ye shall see these things come among you that ye shall awake to a sense of your awful situation, because of this secret combination which shall be among you; or wo be unto it, because of the blood of them who have been slain; for they cry from the dust for vengeance upon it, and also upon those who built it up.

For it cometh to pass that whoso buildeth it up seeketh to overthrow the freedom of all lands, nations, and countries; and it bringeth to pass the destruction of all people, for it is built up by the devil, who is the father of all lies; even that same liar who beguiled our first parents, yea, even that same liar who hath caused man to commit murder from the beginning; who hath hardened the hearts of men that they have murdered the prophets, and stoned them, and cast them out from the beginning.

Wherefore, I, Moroni, am commanded to write these things that evil may be done away, and that the time may come that Satan may have no power upo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but that they may be persuaded to do good continually, that they may come unto the fountain of all righteousness and be saved.

## 이더서 9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와 그의 친구들의 비밀 결사로 말미암아, 보라, 그들이 오머의 왕국을 전복하였더라.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오머에게와, 또한 그의 멸망을 꾀하지 아니한 그의 아들과 딸에게 자비를 베푸셨더라.
- 3 이에 주께서 꿈에 오머에게 경고하사 그 땅을 떠나라 하신지라, 오머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그 땅을 떠나 여러 날을 여행하여 시므산 근처에 이르러, 그 길을 지나 니파이인들이 멸망당한 곳 근처로 와서, 그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나아가 바닷가에 가까운 애블롬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에, 그와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야렛과 그 가족을 제외한 그의 모든 권속이 그 장막을 쳤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간악한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백성들 위에 왕이 되매, 저가 그 딸을 에이키시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그 장인의 생명을 찾으며, 그가 고대인들의 맹세로 맹세하게 한 자들에게 청하매, 저희가 그의 장인의 목을, 저가 자기 보좌에 앉아 저의 백성을 접견하고 있을 때 취하였더라.
- 6 이는 이 간악한 비밀 단체의 퍼짐이 심히 커서 온 백성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야렛이 자기의 보좌 위에서 살해당하였고, 에이키시가 저의 대신에 다스리더라.
-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자기 아들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던지라, 그를 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거의, 혹은 전혀 주지 아니하여 마침내 죽게 하였더라.
- 8 이에 이제 죽음을 당한 자의 형제가, (그의 이름은 니므라더라) 그 아버지가 그의 형제에게 행한 바로 인하여 그 아버지에게 노하였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므라가 소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 땅에서 도망하여 와서 오머와 함께 거하였더라.

## Ether 9

And now I, Moroni, proceed with my record. Therefore, behold, it came to pass that because of the secret combinations of Akish and his friends, behold, they did overthrow the kingdom of Omer.

Nevertheless, the Lord was merciful unto Omer, and also to his sons and to his daughters who did not seek his destruction.

And the Lord warned Omer in a dream that he should depart out of the land; wherefore Omer departed out of the land with his family, and traveled many days, and came over and passed by the hill of Shim, and came over by the place where the Nephites were destroyed, and from thence eastward, and came to a place which was called Ablom, by the seashore, and there he pitched his tent, and also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all his household, save it were Jared and his family.

And it came to pass that Jared was anointed king over the people, by the hand of wickedness; and he gave unto Akish his daughter to wife.

And it came to pass that Akish sought the life of his father-in-law; and he applied unto those whom he had sworn by the oath of the ancients, and they obtained the head of his father-in-law, as he sat upon his throne, giving audience to his people.

For so great had been the spreading of this wicked and secret society that it had corrupted the hearts of all the people; therefore Jared was murdered upon his throne, and Akish reigned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Akish began to be jealous of his son, therefore he shut him up in prison, and kept him upon little or no food until he had suffered death.

And now the brother of him that suffered death, (and his name was Nimrah) was angry with his father because of that which his father had done unto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Nimrah gathered together a small number of men, and fled out of the land, and came over and dwelt with Omer.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의 원하는 바를 좇아 온갖 불의를 행하기로 그에게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키시가 다른 아들들을 낳으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더라.

11 이제 에이키시의 백성들은 참으로 에이키시가 권력을 얻기 원하듯 이익을 얻기 원하였던지라, 그러므로 에이키시의 아들들이 저희에게 돈을 주어 그로써 백성의 태반을 이끌어 내어 자기들을 좇게 하였더라.

12 이에 에이키시의 아들들과 에이키시와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더니, 참으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백성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오머의 집과 함께 도망한 자들과 삼십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망한지라.

13 그리하여 오머가 다시 그의 기업의 땅으로 회복되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머가 늙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그가 그 노년에 이머를 낳고, 이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여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하였더라.

15 또 이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후에 그가 이 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보고 죽었으니, 그가 심히 많은 날을 보았어도, 그 날들은 슬픔에 찬 날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리며 그 부친의 발자취를 따르더라.

16 이에 주께서 다시 그 땅에서 저주를 거두기 시작하시니, 이머의 다스림하에 이머의 집이 심히 번영하여, 육십이 년 동안에 저들이 심히 강하여 지더니, 이윽고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어—

17 온갖 과일과 곡식과 비단과 세마포와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갖게 되었고,

18 또한 온갖 축우, 곧 황소와 암소와 양과 돼지와 염소와 또한 사람의 식용으로 쓸 여러 다른 종류의 짐승을 갖게 되었더라.

19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말과 나귀도 있었으며, 거기 코끼리와 쿠렐롬과 쿠뎀도 있었으니, 이 모두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요, 특히 코끼리와 쿠렐롬과 쿠뎀이 더욱 그러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kish begat other sons, and they won the hearts of the people, notwithstanding they had sworn unto him to do all manner of iniquity according to that which he desired.

Now the people of Akish were desirous for gain, even as Akish was desirous for power; wherefore, the sons of Akish did offer them money, by which means they drew away the more part of the people after them.

And there began to be a war between the sons of Akish and Akish, which lasted for the space of many years, yea, unto the destruction of nearly all the people of the kingdom, yea, even all, save it were thirty souls, and they who fled with the house of Omer.

Wherefore, Omer was restored again to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nd it came to pass that Omer began to be old; nevertheless, in his old age he begat Emer; and he anointed Emer to be king to reign in his stead.

And after that he had anointed Emer to be king he saw peace in the land for the space of two years, and he died, having seen exceedingly many days, which were full of sorrow. And it came to pass that Emer did reign in his stead, and did fill the steps of his father.

And the Lord began again to take the curse from off the land, and the house of Emer did prosper exceedingly under the reign of Emer; and in the space of sixty and two years they had become exceedingly strong, insomuch that they became exceedingly rich—

Having all manner of fruit, and of grain, and of silks, and of fine linen, and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precious things;

And also all manner of cattle, of oxen, and cows, and of sheep, and of swine, and of goats, and also many other kinds of animals which were useful for the food of man.

And they also had horses, and asses, and there were elephants and cureloms and cumoms; all of which were useful unto man, and more especially the elephants and cureloms and cumoms.

20 이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이 땅에 그의 복을 부으셨고, 그는 또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땅을 소유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이를 소유할 지니라 하셨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그들이 멸망되리라. 이는 그러한 자들 위에 내가 나의 가득한 진노를 쏟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 이에 이머가 그의 평생에 공의로 판단하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코리안툼을 낳아 코리안툼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하였더라.

22 그리고 그가 코리안툼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한 뒤 사 년을 살며, 그 땅에 평화를 보았고, 또한 그가 참으로 의의 아들을 보고, 그의 날을 기뻐하며 영광스러워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그가 평안히 죽었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툼이 그 부친의 발자취를 따르며, 많은 큰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그의 평생에 백성에게 선한 바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심히 나이 많기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내가 백이 세가 되어 죽은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툼이 그의 노년에 한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아들과 딸을 낳은지라, 이리하여 그가 백사십이 세가 되기까지 살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콤을 낳으매, 콤이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저가 사십구 년을 다스렸으며, 저가 헛을 낳았고 또한 다른 아들과 딸들도 낳았더라.

26 이에 백성들은 다시 온 지면에 퍼졌고, 땅 위에는 또다시 심히 큰 간악함이 생겼으며, 헛은 그의 부친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옛적의 은밀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자기 부친의 왕위를 폐하였으니, 이는 저가 자기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대신에 다스렸음이라.

And thus the Lord did pour out his blessings upon this land, which was choice above all other lands; and he commanded that whoso should possess the land should possess it unto the Lord, or they should be destroyed when they were ripened in iniquity; for upon such, saith the Lord: I will pour out the fulness of my wrath.

And Emer did execute judgment in righteousness all his days, and he begat many sons and daughters; and he begat Coriantum, and he anointed Coriantum to reign in his stead.

And after he had anointed Coriantum to reign in his stead he lived four years, and he saw peace in the land; yea, and he even saw the Son of Righteousness, and did rejoice and glory in his day; and he died in peace.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 did walk in the steps of his father, and did build many mighty cities, and did administer that which was good unto his people in all his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he had no children even until he was exceedingly old.

And it came to pass that his wife died, being an hundred and two years old.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 took to wife, in his old age, a young maid, and begat sons and daughters; wherefore he lived until he was an hundred and forty and two years ol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begat Com, and Com reigned in his stead; and he reigned forty and nine years, and he begat Heth; and he also begat other sons and daughters.

And the people had spread again over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ere began again to be an exceedingly great wickedness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Heth began to embrace the secret plans again of old, to destroy his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dethrone his father, for he slew him with his own sword; and he did reign in his stead.

28 이에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되—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 땅 위에 임할 것이라. 참으로 한 큰 기근이 있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멸망당할 것이라 하였더라.

29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저들을 쫓아내며, 저들 가운데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게 버려 두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헷 왕의 명을 좇아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고, 흉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심히 빠르게 멸망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비가 있지 아니함이라.

31 또 땅 위에 독사들도 나와 많은 사람들을 물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의 양 떼가 독사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이 제이라헤물라라 칭하는 남방 땅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것들 가운데 도중에 죽은 것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남방 땅까지 도망한 것들이 더러 있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뱀들로 그것들을 더 이상 뒤쫓지 않게 하시고, 다만 길을 막아 백성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지나가기를 꾀하는 자들은 독사에게 물려 앞드리지게 하셨더라.

3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짐승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며, 도중에 쓰러진 것들의 시체를 먹되, 이윽고 그것들을 다 먹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충분히 스스로 겸손하였을 때 주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니,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북쪽 지방과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 소산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보전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And there came prophets in the land again, crying repentance unto them—that they must prepare the way of the Lord or there should come a curse upon the face of the land; yea, even there should be a great famine, in which they should be destroyed if they did not repent.

But the people believed not the words of the prophets, but they cast them out; and some of them they cast into pits and left them to peris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all these thing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king, Het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began to be a great dearth upon the land, and the inhabitants began to be destroyed exceedingly fast because of the dearth, for there was no rai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re came forth poisonous serpents also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did poison many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ir flocks began to flee before the poisonous serpents, towards the land southward, which was called by the Nephites Zarahemla.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were many of them which did perish by the way; nevertheless, there were some which fled into the land southwa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did cause the serpents that they should pursue them no more, but that they should hedge up the way that the people could not pass, that whoso should attempt to pass might fall by the poisonous serpent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did follow the course of the beasts, and did devour the carcasses of them which fell by the way, until they had devoured them all. Now when the people saw that they must perish they began to repent of their iniquities and cry unto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humbled themselves sufficiently before the Lord he did send rai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 people began to revive again, and there began to be fruit in the north countries, and in all the countries round about. And the Lord did show forth his power unto them in preserving them from famine.



## 이더서 10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헷의 후손인 세즈는—이는 헷과 그의 모든 권속이 세즈를 제외하고는 기근으로 다 멸절되었음이라—그리하여 세즈는 와해된 백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즈가 그 조상들의 패망을 기억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이는 저가 주께서 야렛과 그의 형제를 인도하여 깊은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음이라, 이에 저가 주의 길로 행하였고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 3 그러나 이름이 세즈인 저의 장자가 저를 모반하였더라. 그러나 세즈가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도적의 손에 매맞은 지라, 이에 그의 부친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더라.
-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부친이 그 땅에 많은 성읍을 세웠고, 백성들은 다시 온 지면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세즈가 나이 심히 많기까지 살며 리플레이키시를 낳고 죽으매, 리플레이키시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더라.
-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리플레이키시가 주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많은 처와 첩을 두고, 또 지기 힘든 그것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음이라. 참으로 저는 중한 세금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그 세금으로 많은 광대한 건물들을 건축하였더라.
- 6 또 자기를 위하여 심히 아름다운 보좌를 세웠으며, 또 많은 옥을 지어 징세에 응하려 아니하는 자를 옥에 던져 넣고, 세를 바칠 능력이 없는 자도 옥에 던져 넣었으며, 그들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게 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였더라.
- 7 이리하여 저가 저의 모든 좋은 물품을 얻었으니, 참으로 자기의 정금을 저가 옥에서 정제하게 하였고, 또 온갖 정교한 수공일을 옥에서 하게 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자기의 음행과 가증한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더라.

## Ether 10

And it came to pass that Shez, who was a descendant of Heth—for Heth had perished by the famine, and all his household save it were Shez—wherefore, Shez began to build up again a broken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Shez did remember the destruction of his fathers, and he did build up a righteous kingdom; for he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done in bringing Jared and his brother across the deep; and he did walk in the ways of the Lord; and he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his eldest son, whose name was Shez, did rebel against him; nevertheless, Shez was smitten by the hand of a robber, because of his exceeding riches, which brought peace again unto his fa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his father did build up many cities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the people began again to spread over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Shez did live to an exceedingly old age; and he begat Riplakish. And he died, and Riplakish reigned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Riplakish did not do that which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for he did have many wives and concubines, and did lay that upon men's shoulders which was grievous to be borne; yea, he did tax them with heavy taxes; and with the taxes he did build many spacious buildings.

And he did erect him an exceedingly beautiful throne; and he did build many prisons, and whoso would not be subject unto taxes he did cast into prison; and whoso was not able to pay taxes he did cast into prison; and he did cause that they should labor continually for their support; and whoso refused to labor he did cause to be put to death.

Wherefore he did obtain all his fine work, yea, even his fine gold he did cause to be refined in prison; and all manner of fine workmanship he did cause to be wrought in prison.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afflict the people with his whoredoms and abominations.

- 8 또 저가 사십이 년 동안 다스린 후에 백성들이 일어나 저를 모반하매, 그 땅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 이윽고 리플레이키시는 죽임을 당하고, 그 후예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더라.
-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해 후에 모리애틀이 (그는 리플레이키시의 후예라) 쫓겨난 자들의 군대를 모아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싸워서 많은 성읍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었느니라. 또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져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더니, 그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어, 스스로 그 온 땅의 왕이 되었더라.
- 10 또 그가 스스로 왕이 된 후에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눈에 은혜를 입으매,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 11 이에 저가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행하였으나, 자신에게는 아니하였나니 그의 많은 음행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애틀이 많은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의 다스림하에 백성들이 심히 부하게 되어, 건물과 금과 은과 곡물 재배와 양 떼와 소 떼 및 저희에게로 회복된 것들이 다 풍부하였더라.
- 13 또 모리애틀은 심히 많은 수를 누리다가, 그때 킴을 낳았고 킴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며, 저가 팔 년을 다스리고 저의 부친이 죽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킴이 의로운 가운데 다스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저가 주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더라.
- 14 이에 저의 형제가 일어나 저를 모반하여 저를 사로잡으매, 저가 저의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있었고, 사로잡힌 중에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저의 노년에 레위를 낳고 죽었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위가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사십이 년 동안 사로잡힌 중에 지내다가, 그 땅의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라를 취하였더라.

And when he had reigned for the space of forty and two years the people did rise up in rebellion against him; and there began to be war again in the land, insomuch that Riplakish was killed, and his descendants were driven out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 space of many years, Morianton, (he being a descendant of Riplakish) gathered together an army of outcasts, and went forth and gave battle unto the people; and he gained power over many cities; and the war became exceedingly sore, and did last for the space of many years; and he did gain power over all the land, and did establish himself king over all the land.

And after that he had established himself king he did ease the burden of the people, by which he did gain favor in the eyes of the people, and they did anoint him to be their king.

And he did do justice unto the people, but not unto himself because of his many whoredoms; wherefore he was c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Morianton built up many cities, and the people became exceedingly rich under his reign, both in buildings, and in gold and silver, and in raising grain, and in flocks, and herds, and such things which had been restored unto them.

And Morianton did live to an exceedingly great age, and then he begat Kim; and Kim did reign in the stead of his father; and he did reign eight years, and his father died. And it came to pass that Kim did not reign in righteousness, wherefore he was not favored of the Lord.

And his brother did rise up in rebellion against him, by which he did bring him into captivity; and he did remain in captivity all his days; and he begat sons and daughters in captivity, and in his old age he begat Levi; and he died.

And it came to pass that Levi did serve in captivity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for the space of forty and two years. And he did make war against the king of the land, by which he did obtain unto himself the kingdom.

16 그리고 저가 스스로 나라를 취하고 나서는 주가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한지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영하였으며, 저가 장수하며, 아들과 딸을 낳았고, 저가 또한 코롬을 낳으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대신에 왕이 되게 하였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롬이 그의 평생에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많은 날을 본 후에 나머지 세상 사람과 같이 죽으매, 키시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키시도 죽고, 리브가 그의 대신에 다스리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또한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고, 리브의 시대에 독사가 진멸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냥하러 남방 땅으로 갔으니, 이는 그 땅이 수풀의 짐승들로 뒤덮였음이라. 또한 리브 자신도 큰 사냥꾼이 되었더라.

20 또 그들은 바다가 육지를 나누는 곳 근방, 좁은 지협 근방에 한 큰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21 또 남방 땅은 사냥감을 얻기 위하여 광야로 보존하였고, 북방 땅은 온 지면이 주민들로 뒤덮였더라.

22 또 그들은 심히 근면하였고, 서로 사고팔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

23 또 그들은 온갖 광석을 다루어,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온갖 금속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땅에서 캐내었던지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과 은과 철과 동의 광석을 얻기 위해 쌓아 올린 흙이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으며, 그들은 또 온갖 세공 일을 하였더라.

24 또 그들에게는 비단과 세마포가 있었으며, 그들은 옷을 입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우고자 온갖 옷감을 만들었더라.

25 또 땅을 경작하기 위한 온갖 도구, 곧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두며 김을 매며, 또한 타작을 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만들었더라.

26 또 온갖 도구를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짐승을 부렸더라.

And after he had obtained unto himself the kingdom he did that which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people did prosper in the land; and he did live to a good old age, and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he also begat Corom, whom he anointed king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Corom did that which was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all his days; and he begat many sons and daughters; and after he had seen many days he did pass away, even like unto the rest of the earth; and Kish reigned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Kish passed away also, and Lib reigned in his stead.

And it came to pass that Lib also did that which was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in the days of Lib the poisonous serpents were destroyed. Wherefore they did go into the land southward, to hunt food fo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 land was covered with animals of the forest. And Lib also himself became a great hunter.

And they built a great city by the narrow neck of land, by the place where the sea divides the land.

And they did preserve the land southward for a wilderness, to get game. And the whole face of the land northward was covered with inhabitants.

And they were exceedingly industrious, and they did buy and sell and traffic one with another, that they might get gain.

And they did work in all manner of ore, and they did make gold, and silver, and iron, and brass, and all manner of metals; and they did dig it out of the earth; wherefore, they did cast up mighty heaps of earth to get ore,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iron, and of copper. And they did work all manner of fine work.

And they did have silks, and fine-twined linen; and they did work all manner of cloth, that they might clothe themselves from their nakedness.

And they did make all manner of tools to till the earth, both to plow and to sow, to reap and to hoe, and also to thrash.

And they did make all manner of tools with which they did work their beasts.

- 27 또 그들은 온갖 전쟁 무기를 제조하고, 심히 정교한 솜씨의 온갖 물품을 만들었더라.
- 28 그들보다 더 복을 받고 또 주의 손으로 더 번영하게 하심을 입은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또 그들은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니라.
-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많은 해를 살며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또한 히아아돔을 낳았더라.
-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히아아돔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나, 히아아돔이 이십사 년을 다스린 후에, 보라, 저가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해를 사로잡힌 가운데 지냈으니, 참으로 저의 여생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 31 또 저가 헛을 낳으매 헛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살았으며, 헛이 아론을 낳으매, 아론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앰니개다를 낳으매, 앰니개다도 또한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코리안툼을 낳으매 코리안툼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콤을 낳았더라.
-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콤이 나라의 절반을 이끌어 내어, 사십이 년 동안 나라의 절반을 다스렸고, 저가 앰기드 왕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매,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싸우더니, 이 기간 동안 콤이 앰기드를 이기고, 나라의 나머지에 대한 권력을 얻었더라.
- 33 또 콤의 시대에 그 땅에 도적들이 생겼으니, 그들이 옛 계획을 받아들여, 고대인들의 방식을 좇아 맹세를 하고, 나라를 멸하기를 다시 꾀하더라.
- 34 이제 콤이 그들을 대적하여 많이 싸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하였더라.

And they did make all manner of weapons of war. And they did work all manner of work of exceedingly curious workmanship.

And never could be a people more blessed than were they, and more prospered by the hand of the Lord. And they were in a land that was choice above all lands, for the Lord had spoken it.

And it came to pass that Lib did live many years, and begat sons and daughters; and he also begat Hearthom.

And it came to pass that Hearthom reigned in the stead of his father. And when Hearthom had reigned twenty and four years, behold, the kingdom was taken away from him. And he served many years in captivity, yea, even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And he begat Heth, and Heth lived in captivity all his days. And Heth begat Aaron, and Aaron dwelt in captivity all his days; and he begat Amnigaddah, and Amnigaddah also dwelt in captivity all his days; and he begat Coriantum, and Coriantum dwelt in captivity all his days; and he begat Com.

And it came to pass that Com drew away the half of the kingdom. And he reigned over the half of the kingdom forty and two years; and he went to battle against the king, Amgid, and they fought for the space of many years, during which time Com gained power over Amgid, and obtained power over the remainder of the kingdom.

And in the days of Com there began to be robbers in the land; and they adopted the old plans, and administered oaths after the manner of the ancients, and sought again to destroy the kingdom.

Now Com did fight against them much; nevertheless, he did not prevail against them.

## 이더서 11

- 1 또한 콤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큰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그들의 살인과 간악함을 버리지 아니할진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더라.
- 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콤에게로 피하여 보호를 구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멸하기를 피하였음이라.
- 3 이에 저들이 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고, 그는 그 여생 동안 내내 복을 받았더라.
- 4 이에 그가 장수하며 시블롬을 낳으매, 시블롬이 그의 대신에 다스렸으나, 시블롬의 형제가 저를 대적하여 모반한지라, 그 온 땅에 심히 큰 전쟁이 시작되었더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의 형제가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모든 선지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였더라.
- 6 또 온 땅에는 큰 재난이 있었으니, 이는 저들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땅과 또한 그 백성 위에 큰 저주가 임할 것과 또 지상에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큰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의 뼈가 지면 위에 흙무더기같이 될 것임을 증거했었음이라.
- 7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간악한 결사로 인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 그리하여 그 온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기근과 역병이 임하기 시작하여, 이윽고 큰 멸망이 있매, 그 같은 것이 지상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으니, 이 모든 일이 시블롬의 시대에 일어났더라.
- 8 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더라.
-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이 죽임을 당하였고, 셋이 사로잡힌 바 되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거하였더라.

## Ether 11

And there came also in the days of Com many prophets, and prophesied of the destruction of that great people excep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unto the Lord, and forsake their murders and wicked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rophets were rejected by the people, and they fled unto Com for protection, for the people sought to destroy them.

And they prophesied unto Com many things; and he was blessed in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And he lived to a good old age, and begat Shiblom; and Shiblom reigned in his stead. And the brother of Shiblom rebelled against him, and there began to be an exceedingly great war in all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Shiblom caused that all the prophets who prophesied of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should be put to death;

And there was great calamity in all the land, for they had testified that a great curse should come upon the land, and also upon the people, and that there should be a great destruction among them, such an one as never had bee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ir bones should become as heaps of earth upon the face of the land except they should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they hearkened not unto the voice of the Lord, because of their wicked combinations; wherefore, there began to be wars and contentions in all the land, and also many famines and pestilences, inasmuch that there was a great destruction, such an one as never had been known upon the face of the earth; and all this came to pass in the days of Shiblom.

And the people began to repent of their iniquity; and inasmuch as they did the Lord did have mercy on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Shiblom was slain, and Seth was brought into captivity, and did dwell in captivity all his days.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들 에이하가 나라를 얻고 저의 평생에 백성을 다스렸으되, 저가 자기 시대에 온갖 죄악을 행하여 그로써 많은 피를 흘렸으며, 저의 날 수는 얼마 되지 아니하였더라.

11 또 이렘이 에이하의 후예로 나라를 얻었으나, 저도 자기 시대에 간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렘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예언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실 것을 예언하였더라.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지라, 선지자들이 애통해 하며 백성 중에서 물러나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렘이 그 평생에 간악함으로 판결하였고, 또 저가 모론을 낳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론이 그의 대신에 다스리되, 모론이 주 앞에 간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저 비밀 결사로 인하여, 백성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고, 죄악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용맹한 자가 일어나 모론을 대적하여 싸우더니, 이 싸움에서 저가 나라의 절반을 전복하였고 이에 저가 여러 해 동안 나라의 절반을 지켰더라.

16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론이 저를 타도하고 다시 나라를 얻었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용맹한 자가 일어났으니, 저는 야렛의 형제의 후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모론을 폐하고 나라를 얻은지라, 이러므로 모론이 그 남은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고, 저가 코리안토어를 낳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토어가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Ahah, his son, did obtain the kingdom; and he did reign over the people all his days. And he did do all manner of iniquity in his days, by which he did cause the shedding of much blood; and few were his days.

And Ethem, being a descendant of Ahah, did obtain the kingdom; and he also did do that which was wicked in his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days of Ethem there came many prophets, and prophesied again unto the people; yea, they did prophesy that the Lord would utterly destroy them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except they repented of their iniquiti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hardened their hearts, and would not hearken unto their words; and the prophets mourned and withdrew from among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Ethem did execute judgment in wickedness all his days; and he begat Moron.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 did reign in his stead; and Moron did that which was wicked before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arose a rebellion among the people, because of that secret combination which was built up to get power and gain; and there arose a mighty man among them in iniquity, and gave battle unto Moron, in which he did overthrow the half of the kingdom; and he did maintain the half of the kingdom for many years.

And it came to pass that Moron did overthrow him, and did obtain the kingdom agai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arose another mighty man; and he was a descendant of the brother of Jare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did overthrow Moron and obtain the kingdom; wherefore, Moron dwelt in captivity all the remainder of his days; and he begat Coriantor.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or dwelt in captivity all his days.

20 또 코리안토어의 시대에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크고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요,

21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대로, 그의 권능으로 다른 백성을 보내사, 또는 인도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22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비밀 단체와 간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배척하였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토어가 이더를 낳고,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다가 죽었더라.

And in the days of Coriantor there also came many prophets, and prophesied of great and marvelous things, and cried repentance unto the people, and except they should repent the Lord God would execute judgment against them to their utter destruction;

And that the Lord God would send or bring forth another people to possess the land, by his power, after the manner by which he brought their fathers.

And they did reject all the words of the prophets, because of their secret society and wicked abominat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or begat Ether, and he died, having dwelt in captivity all his days.

## 이더서 12

- 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의 시대는 코리애투머의 시대에 있었고, 코리애투머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던다.
- 2 또 이더는 주의 선지자였나니, 그리하여 이더가 코리애투머의 시대에 나아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안에 있는 바 주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음이라.
- 3 이에 그가 아침부터 참으로 해가 지기까지 외치며, 백성들을 권면하기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어 회개에 이르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나니—
- 4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아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가 백성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함이었던다.
- 6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 7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이니,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음이라.
- 8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사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들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 Ether 12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days of Ether were in the days of Coriantumr; and Coriantumr was king over all the land.

And Ether was a prophet of the Lord; wherefore Ether came forth in the days of Coriantumr, and began to prophesy unto the people, for he could not be restrained because of the Spirit of the Lord which was in him.

For he did cry from the morning, even until the going down of the sun, exhorting the people to believe in God unto repentance lest they should be destroyed, saying unto them that by faith all things are fulfilled—

Wherefore, whoso believeth in God might with surety hope for a better world, yea, even a place at the right hand of God, which hope cometh of faith, maketh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which would make them sure and steadfast, always abounding in good works, being led to glorify God.

And it came to pass that Ether did prophesy great and marvelous things unto the people, which they did not believe, because they saw them not.

And now, I, Moroni, would speak somewhat concerning these things; I would show unto the world that faith is things which are hoped for and not seen; wherefore, dispute not because ye see not, for ye receive no witness until after the trial of your faith.

For it was by faith that Christ showed himself unto our fathers, after he had risen from the dead; and he showed not himself unto them until after they had faith in him; wherefore, it must needs be that some had faith in him, for he showed himself not unto the world.

But because of the faith of men he has shown himself unto the world, and glorified the name of the Father, and prepared a way that thereby others might be partakers of the heavenly gift, that they might hope for those things which they have not seen.



- 9 그런즉 너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 10 보라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부르심을 받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느니라.
- 11 그런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주어 졌도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12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 13 보라, 옥을 땅에 무너지게 한 것도 엘마와 앰올레크의 신앙이었느니라.
- 14 보라, 레이맨인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불과 성신으로 침례 받게 한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이었느니라.
- 15 보라, 레이맨인들 가운데 것처럼 큰 기적을 이룬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이었느니라.
- 16 참으로 또한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자들과 또한 후에 있는 자들, 곧 무릇 기적을 행한 모든 자들이 신앙으로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 17 그리고 세 제자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약속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 18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 19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일지라도 그 신앙이 이처럼 심히 강하였던 자가 많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휘장 안을 금할 수 없었던지라, 그들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더라.

Wherefore, ye may also have hope, and be partakers of the gift, if ye will but have faith.

Behold it was by faith that they of old were called after the holy order of God.

Wherefore, by faith was the law of Moses given. But in the gift of his Son hath God prepared a more excellent way; and it is by faith that it hath been fulfilled.

For if there be no faith among the children of men God can do no miracle among them; wherefore, he showed not himself until after their faith.

Behold, it was the faith of Alma and Amulek that caused the prison to tumble to the earth.

Behold, it was the faith of Nephi and Lehi that wrought the change upon the Lamanites, that they were baptized with fire and with the Holy Ghost.

Behold, it was the faith of Ammon and his brethren which wrought so great a miracle among the Lamanites.

Yea, and even all they who wrought miracles wrought them by faith, even those who were before Christ and also those who were after.

And it was by faith that the three disciples obtained a promise that they should not taste of death; and they obtained not the promise until after their faith.

And neither at any time hath any wrought miracles until after their faith; wherefore they first believed in the Son of God.

And there were many whose faith was so exceedingly strong, even before Christ came, who could not be kept from within the veil, but truly saw with their eyes the things which they had beheld with an eye of faith, and they were glad.

20 또 보라, 우리는 이 기록에서 이들 중 하나가 야렛의 형제이었음을 보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내미셨을 때 그것을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저에게 하신 자기의 말씀으로 인함이요, 그 말씀은 저가 신앙으로 얻은 것이더라.

21 또 야렛의 형제가 주의 손가락을 본 후에, 야렛의 형제가 신앙으로 얻은 약속으로 인하여,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아무것도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그리하여 그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음은 저를 더 이상 휘장 바깥에 머물게 할 수 없으셨음이라.

22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셨나니, 곧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23 이에 내가 주께 고하되, 주여, 우리의 기록함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를 비웃으리이다. 이는 주여, 주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에 능하게 하셨사오나, 우리로 기록함에는 능하게 하지 아니하셨음이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음이니이다.

24 또 주께서는 우리 손의 둔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조금밖에는 기록할 수 없게 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우리로 야렛의 형제처럼 기록함에 능한 자가 되게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로 하여금 저가 기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함이니이다.

25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을 크고 힘있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게 하셨사온즉,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으며, 우리 글의 나열로 인하여 실족하오니, 이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26 그리고 내가 이같이 고하자,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And behold, we have seen in this record that one of these was the brother of Jared; for so great was his faith in God, that when God put forth his finger he could not hide it from the sight of the brother of Jared, because of his word which he had spoken unto him, which word he had obtained by faith.

And after the brother of Jared had beheld the finger of the Lord, because of the promise which the brother of Jared had obtained by faith, the Lord could not withhold anything from his sight; wherefore he showed him all things, for he could no longer be kept without the veil.

And it is by faith that my fathers have obtained the promise that these things should come unto their brethren through the Gentiles; therefore the Lord hath commanded me, yea, even Jesus Christ.

And I said unto him: Lord, the Gentiles will mock at these things, because of our weakness in writing; for Lord thou hast made us mighty in word by faith, but thou hast not made us mighty in writing; for thou hast made all this people that they could speak much, because of the Holy Ghost which thou hast given them;

And thou hast made us that we could write but little, because of the awkwardness of our hands. Behold, thou hast not made us mighty in writing like unto the brother of Jared, for thou madest him that the things which he wrote were mighty even as thou art, unto the overpowering of man to read them.

Thou hast also made our words powerful and great, even that we cannot write them; wherefore, when we write we behold our weakness, and stumble because of the placing of our words; and I fear lest the Gentiles shall mock at our words.

And when I had said this, the Lord spake unto me, saying: Fools mock, but they shall mourn; and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 meek, that they shall take no advantage of your weakness;

27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28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또 그들에게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29 이에 나 모로나이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어 이르되, 주여, 주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좇아 역사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30 이는 야렛의 형제가 지린 산더러 이르기를 옮기우라 하매—그것이 옮겨졌음이며, 저가 만일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역사하시나이다.

31 이는 그와 같이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이니, 이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주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음이니이다.

32 또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의 거처 가운데 사람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사, 이로써 사람이 보다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한 기억하나이다. 그러하온즉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나이다.

33 그리고 또 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사오며, 이는 주께서 생명을 다시 취하사,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34 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내가 아오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삽나이다.

And if men come unto me I will show unto them their weakness. I give unto men weakness that they may be humble; and my grace is sufficient for all men that humble themselves before me; for if they humble themselves before me, and have faith in me, then will I make weak things become strong unto them.

Behold, I will show unto the Gentiles their weakness, and I will show unto them that faith, hope and charity bringeth unto me—the fountain of all righteousness.

And I, Moroni, having heard these words, was comforted, and said: O Lord, thy righteous will be done, for I know that thou workest unto the children of men according to their faith;

For the brother of Jared said unto the mountain Zerin, Remove—and it was removed. And if he had not had faith it would not have moved; wherefore thou workest after men have faith.

For thus didst thou manifest thyself unto thy disciples; for after they had faith, and did speak in thy name, thou didst show thyself unto them in great power.

And I also remember that thou hast said that thou hast prepared a house for man, yea, even among the mansions of thy Father, in which man might have a more excellent hope; wherefore man must hope, or he cannot receive an inheritance in the place which thou hast prepared.

And again, I remember that thou hast said that thou hast loved the world, even unto the laying down of thy life for the world, that thou mightest take it again to prepare a place for the children of men.

And now I know that this love which thou hast had for the children of men is charity; wherefore, except men shall have charity they cannot inherit that place which thou hast prepared in the mansions of thy Father.

35     그러하온즉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 이다 하였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네게는 상관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네 연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38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방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뿐 아니라 또한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작별을 고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라,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

39     또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예수를 뵈었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것에 관하여 내 자신의 언어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같이 명백하게 스스로 낮추시어 내게 말씀하신 줄을 알게 되리로다.

40     또 나의 기록하기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만 기록하였도다.

41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자 하노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며 또 거하시게 하라. 아멘.

Wherefore, I know by this thing which thou hast said, that if the Gentiles have not charity, because of our weakness, that thou wilt prove them, and take away their talent, yea, even that which they have received, and give unto them who shall have more abundantly.

And it came to pass that I prayed unto the Lord that he would give unto the Gentiles grace, that they might have charity.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Lord said unto me: If they have not charity it mattereth not unto thee, thou hast been faithful; wherefore, thy garments shall be made clean. And because thou hast seen thy weakness thou shalt be made strong, even unto the sitting down in the place which I have prepared in the mansions of my Father.

And now I, Moroni, bid farewell unto the Gentiles, yea, and also unto my brethren whom I love, until we shall meet before the judgment-seat of Christ, where all men shall know that my garments are not spotted with your blood.

And then shall ye know that I have seen Jesus, and that he hath talked with me face to face, and that he told me in plain humility, even as a man telleth another in mine own language, concerning these things;

And only a few have I written, because of my weakness in writing.

And now, I would commend you to seek this Jesus of whom the prophets and apostles have written, that the grace of God the Father, and also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Holy Ghost, which beareth record of them, may be and abide in you forever. Amen.

## 이더서 13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 2 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요, 또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간 후에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를 섬기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과,
- 3 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터요, 주의 거룩한 성소의 터임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라.
- 4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 5 그리고 저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리하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그것이 훼파된 후에 중건되어 주께 거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음이라. 그러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요—
- 6 또 새 예루살렘은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표가 있었느니라.
- 7 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러므로 요셉 집의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이 이르러 땅이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다시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 Ether 13

And now I, Moroni, proceed to finish my record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of whom I have been writing.

For behold, they rejected all the words of Ether; for he truly told them of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of man; and that after the waters had receded from off the face of this land it became a choice land above all other lands, a chosen land of the Lord; wherefore the Lord would have that all men should serve him who dwell upon the face thereof;

And that it was the place of the New Jerusalem, which should come down out of heaven, and the holy sanctuary of the Lord.

Behold, Ether saw the days of Christ, and he spake concerning a New Jerusalem upon this land.

And he spake also concerning the house of Israel, and the Jerusalem from whence Lehi should come—after it should be destroyed it should be built up again, a holy city unto the Lord; wherefore, it could not be a new Jerusalem for it had been in a time of old; but it should be built up again, and become a holy city of the Lord; and it should be built unto the house of Israel—

And that a New Jerusalem should be built up upon this land, unto the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for which things there has been a type.

For as Joseph brought his father down into the land of Egypt, even so he died there; wherefore, the Lord brought a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out of the land of Jerusalem, that he might be merciful unto the seed of Joseph that they should perish not, even as he was merciful unto the father of Joseph that he should perish not.

Wherefore, the remnant of the house of Joseph shall be built upon this land; and it shall be a land of their inheritance; and they shall build up a holy city unto the Lord, like unto the Jerusalem of old; and they shall no more be confounded, until the end come when the earth shall pass away.

- 9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는 옛 것과 같을 것이로되 오직 옛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 10 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거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된 자들임이요, 또 저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요셉 자손의 남은 자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임이라.
- 11 그리고 그때에 또한 옛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그 주민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음이요, 또 그들은 흠을 당하였다가 땅의 사방에서와, 북쪽 지방에서 모음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임이라.
- 12 또 이러한 일들이 이를 때 말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이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있다 하는 경전이 이루어지리로다.
- 13 또 내가 더 기록하려 하였으나 금하시는도다. 그러나 이더의 예언은 크고 놀라웠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쫓아낸지라, 그가 낮으로는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밤으로는 나아가 백성들에게 임할 일들을 살폈더라.
- 14 또 그가 바위굴에 거할 때 이 기록의 나머지를 만들었고, 밤으로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멸망을 살폈더라.
-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중에서 쫓겨난 바로 그 해에 백성 가운데 큰 전쟁이 시작되니, 이는 앞서 말한 은밀하고 간악한 그들의 계획으로 코리안투머를 멸하기를 구하는 용맹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음이라.
- 16 그러나 이제 코리안투머는 그 자신, 모든 전술과 세상의 모든 간교함을 연구하였던지라, 그러므로 자기를 멸하기를 구하는 자들과 싸웠더라.

And there shall b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d they shall be like unto the old save the old have passed away, and all things have become new.

And then cometh the New Jerusalem; and blessed are they who dwell therein, for it is they whose garments are white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y are they who are numbered among the remnant of the seed of Joseph, who were of the house of Israel.

And then also cometh the Jerusalem of old; and the inhabitants thereof, blessed are they, for they have been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y are they who were scattered and gathered in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nd from the north countries, and are partakers of the fulfilling of the covenant which God made with their father, Abraham.

And when these things come, bringeth to pass the scripture which saith, there are they who were first, who shall be last; and there are they who were last, who shall be first.

And I was about to write more, but I am forbidden; but great and marvelous were the prophecies of Ether; but they esteemed him as naught, and cast him out; and he hid himself in the cavity of a rock by day, and by night he went forth viewing the things which should come upon the people.

And as he dwelt in the cavity of a rock he made the remainder of this record, viewing the destructions which came upon the people, by night.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at same year in which he was cast out from among the people there began to be a great war among the people, for there were many who rose up, who were mighty men, and sought to destroy Coriantumr by their secret plans of wickedness, of which hath been spoken.

And now Coriantumr, having studied, himself, in all the arts of war and all the cunning of the world, wherefore he gave battle unto them who sought to destroy him.

- 17 그러나 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저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코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컨대 온 지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중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 18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가 바위굴에 거한 첫해에, 나라를 얻고자 코리엔투머를 대적하여 싸우는 저 비밀 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더라.
-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엔투머의 아들들도 많이 싸우고 많은 피를 흘렸더라.
- 20 이에 둘째 해에 주의 말씀이 이더에게 임하여 저로 코리엔투머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시되, 만일 그와 그의 모든 권속이 회개하면, 주께서 그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며 백성들을 살려 주실 것이어니와—
- 21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 곧 그 자신을 제외한 그 모든 권속이 멸망당할 것이요, 또 그는 전에 말한 바 다른 백성이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만 살게 될 것이며, 코리엔투머는 그들에 의해 매장될 것이며, 코리엔투머를 제외하고 모든 영혼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더라.
- 2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엔투머도, 그의 권속도, 백성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전쟁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이더를 죽이려 하였으나, 저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바위굴에 다시 숨었더라.
-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가 일어나, 또한 코리엔투머와 싸워 그를 이긴지라, 이에 제삼년에 그를 사로잡힘에 들게 하였더라.
- 24 또 코리엔투머의 아들들이 제사년에 세이레드를 이기고, 다시 나라를 얻어 그들의 아버지에게 주었더라.
- 25 이제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나 각 사람이 자기의 무리와 함께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 싸웠더라.

But he repented not, neither his fair sons nor daughters; neither the fair sons and daughters of Cohor; neither the fair sons and daughters of Corihor; and in fine, there were none of the fair sons and daughters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who repented of their sins.

Wherefore, it came to pass that in the first year that Ether dwelt in the cavity of a rock,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slain by the sword of those secret combinations, fighting against Coriantumr that they might obtain the kingdo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sons of Coriantumr fought much and bled much.

And in the second year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ther, that he should go and prophesy unto Coriantumr that, if he would repent, and all his household, the Lord would give unto him his kingdom and spare the people—

Otherwise they should be destroyed, and all his household save it were himself. And he should only live to see the fulfilling of the prophecies which had been spoken concerning another people receiving the land for their inheritance; and Coriantumr should receive a burial by them; and every soul should be destroyed save it were Coriantumr.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repented not, neither his household, neither the people; and the wars ceased not; and they sought to kill Ether, but he fled from before them and hid again in the cavity of the rock.

And it came to pass that there arose up Shared, and he also gave battle unto Coriantumr; and he did beat him, insomuch that in the third year he did bring him into captivity.

And the sons of Coriantumr, in the fourth year, did beat Shared, and did obtain the kingdom again unto their father.

Now there began to be a war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every man with his band fighting for that which he desired.

- 26 또 온 땅에 도적과 요컨대 온갖 간악함이 있었  
더라.
-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세이레드  
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대  
적하여 싸우러 가더니, 그들이 큰 노여움 중에 만  
나되 그들이 길갈 골짜기에서 만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더라.
-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가 삼 일 동안  
저를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그를 이기고, 그를 추격하여 이읍고  
헤실론 평지에 이르렀더라.
-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평지에서 세이레드가 다  
시 코리안투머와 싸우더니, 보라, 그가 코리안투  
머를 이겨 저를 다시 길갈 골짜기로 몰아 내었더  
라.
- 30 또 길갈 골짜기에서 코리안투머가 다시 세이레  
드와 싸워, 이 싸움에서 세이레드를 이기고 그를  
죽였더라.
- 31 그리고 세이레드가 코리안투머의 다리에 부상  
을 입힌지라, 저가 이 년 동안을 다시 싸우러 가지  
못하였으며, 이 기간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그들을 만류하는 자가 하나도 없  
었더라.

And there were robbers, and in fine, all manner of  
wickedness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was exceed-  
ingly angry with Shared, and he went against him  
with his armies to battle; and they did meet in great  
anger, and they did meet in the valley of Gilgal; and  
the battle became exceedingly sore.

And it came to pass that Shared fought against  
him for the space of three days.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beat him, and did pursue him until  
he came to the plains of Heshlon.

And it came to pass that Shared gave him battle  
again upon the plains; and behold, he did beat  
Coriantumr, and drove him back again to the valley  
of Gilgal.

And Coriantumr gave Shared battle again in the  
valley of Gilgal, in which he beat Shared and slew  
him.

And Shared wounded Coriantumr in his thigh,  
that he did not go to battle again for the space of two  
years, in which time all the people upon the face of  
the land were shedding blood, and there was none to  
restrain them.



## 이더서 14

- 1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큰 저주가 그 온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나니, 이에 만일 사람이 그의 연장이나 그의 검을 그의 선반에든지, 혹은 그가 보관하고자 하는 장소에 두면, 보라, 다음 날에는 그가 그것을 찾을 수 없었으니, 것처럼 땅에 임한 저주가 컸더라.
- 2 그리하여 사람마다 그 손으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빌려 오려고도 아니하고, 빌리려고도 아니하였으며, 각 사람은 자기 소유와 자기의 목숨과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오른손에 자기의 칼자루를 잡고 있었더라.
- 3 그리고 이제 이 년 후에, 그리고 세이레드의 죽음 이후에, 보라, 세이레드의 형제가 일어나 코리애티머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으나, 이 싸움에서 코리애티머가 그를 이기고 에이키시 광야까지 그를 추격하였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의 형제가 에이키시 광야에서 저와 싸우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져서 여러 수천이 칼에 엎드러지니라.
-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애티머가 광야를 에워싸게 한지라, 이에 세이레드의 형제가 밤에 진군하여 광야를 벗어나 코리애티머의 군대 일부를 그들이 술에 취하여 있을 때 도륙하더라.
- 6 그리고 모론 땅으로 나아가 스스로 코리애티머의 보좌에 앉았더라.
-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애티머가 이 년 동안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 광야에 거하였고, 그 동안 자기의 군대에 큰 병력을 받았더라.
- 8 이제 길르앗이라 이름하는 세이레드의 형제도 비밀 결사로 인하여 자기의 군대에 큰 병력을 받았더라.
- 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보좌 위에 앉았을 때 그의 대제사가 그를 살해하였더라.
-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비밀 결사에 속한 자 하나가 비밀 통로에서 그를 살해하고 나라를 얻으며, 그의 이름은 리브요, 리브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라, 모든 백성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더라.

## Ether 14

And now there began to be a great curse upon all the land because of the iniquity of the people, in which, if a man should lay his tool or his sword upon his shelf, or upon the place whither he would keep it, behold, upon the morrow, he could not find it, so great was the curse upon the land.

Wherefore every man did cleave unto that which was his own, with his hands, and would not borrow neither would he lend; and every man kept the hilt of his sword in his right hand, in the defence of his property and his own life and of his wives and children.

And now, after the space of two years, and after the death of Shared, behold, there arose the brother of Shared and he gave battle unto Coriantumr, in which Coriantumr did beat him and did pursue him to the wilderness of Akis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rother of Shared did give battle unto him in the wilderness of Akish; and the battle became exceedingly sore, and many thousands fell by the sword.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did lay siege to the wilderness; and the brother of Shared did march forth out of the wilderness by night, and slew a part of the army of Coriantumr, as they were drunken.

And he came forth to the land of Moron, and placed himself upon the throne of Coriantumr.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dwelt with his army in the wilderness for the space of two years, in which he did receive great strength to his army.

Now the brother of Shared, whose name was Gilead, also received great strength to his army, because of secret combinations.

And it came to pass that his high priest murdered him as he sat upon his throne.

And it came to pass that one of the secret combinations murdered him in a secret pass, and obtained unto himself the kingdom; and his name was Lib; and Lib was a man of great stature, more than any other man among all the people.

-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의 원년에, 코리안투머가 모른 땅으로 올라와 리브를 대적하여 싸우니라.
-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브와 더불어 싸우매, 리브가 그의 팔을 쳐 그가 부상을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투머의 군대가 리브를 압박하매 리브가 바닷가의 변경으로 도망하였더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저를 추격하매, 리브가 바닷가에서 그에게 공격을 가하였더라.
-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코리안투머의 군대를 치매, 그들이 에이키시 광야로 다시 도망하였느니라.
-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격하였고, 코리안투머는 자기가 도망하여 간 그 지역에서 리브 앞에서 도망할 때 모든 백성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었더라.
- 16 또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러서는 그가 리브에게 공격을 가하여 저를 치되, 곧 저가 죽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그 대신에 리브의 동생이 와서 코리안투머를 대적한지라,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더니, 이에 코리안투머가 리브의 형제의 군대 앞에서 다시 도망하였더라.
- 17 이제 리브의 형제의 이름은 시즈라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코리안투머의 뒤를 추격하며, 많은 성읍들을 뒤엎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도륙하며 성읍들을 불태운지라.
- 18 이에 시즈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갔으니, 참으로 한 외침이 그 땅에 두루 나아가기를—누가 시즈의 군대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 앞의 땅을 쓸어 버리는도다 하더라.
-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온 땅에 걸쳐 백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군대를 이루기 시작하였더라.
- 20 또 그들이 나뉘어져서 그들 중 일부는 시즈의 군대로 도망하고, 그들 중 일부는 코리안투머의 군대로 도망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in the first year of Lib, Coriantumr came up unto the land of Moron, and gave battle unto Lib.

And it came to pass that he fought with Lib, in which Lib did smite upon his arm that he was wounded; nevertheless, the army of Coriantumr did press forward upon Lib, that he fled to the borders upon the seashore.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pursued him; and Lib gave battle unto him upon the seashore.

And it came to pass that Lib did smite the army of Coriantumr, that they fled again to the wilderness of Akish.

And it came to pass that Lib did pursue him until he came to the plains of Agosh. And Coriantumr had taken all the people with him as he fled before Lib in that quarter of the land whither he fled.

And when he had come to the plains of Agosh he gave battle unto Lib, and he smote upon him until he died; nevertheless, the brother of Lib did come against Coriantumr in the stead thereof, and the battle became exceedingly sore, in the which Coriantumr fled again before the army of the brother of Lib.

Now the name of the brother of Lib was called Shiz. And it came to pass that Shiz pursued after Coriantumr, and he did overthrow many cities, and he did slay both women and children, and he did burn the cities.

And there went a fear of Shiz throughout all the land; yea, a cry went forth throughout the land—Who can stand before the army of Shiz? Behold, he sweepeth the earth before him!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began to flock together in armies, throughout all the face of the land.

And they were divided; and a part of them fled to the army of Shiz, and a part of them fled to the army of Coriantumr.

- 21 또 전쟁이 것처럼 크고 오래 지속되었었고, 유혈과 대살육의 광경이 이처럼 오랫동안지라, 온 지면이 죽은 자의 시체로 뒤덮였더라.
- 22 그리고 전쟁이 심히 신속하고 빨랐던지라, 남아서 죽은 자를 묻을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피흘림에서 피흘림으로 진군하여 나아가며, 남녀와 아이들의 주검으로 지면에 널리게 버려두어, 살을 먹는 벌레들의 밥이 되게 한지라.
- 23 이에 그 악취가 지면에, 참으로 그 온 땅에 나아갔고, 그리하여 그 악취로 인하여 백성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였더라.
- 24 그러할지라도 시즈가 코리안투머 추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죽임을 당한 자기 형제의 피와, 또 이더에게 임한 바 코리안투머는 칼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코리안투머에게 갇기로 맹세하였었음이라.
- 25 이에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그의 가득한 진노 중에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동쪽으로 코리안투머를 추격하여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가 삼 일 동안 시즈에게 공격을 가하였더라.
- 27 이에 시즈의 군대 중에서 패망함이 심히 처참하였던지라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코리안투머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코리호어 땅으로 도망하며, 그들 앞의 주민들을, 곧 그들에게 합류하려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었더라.
- 28 그리고 코리호어의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매, 코리안투머는 셔르 골짜기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셔르 골짜기는 콤노어 산에서 가깝더니, 그러므로 코리안투머가 자기 군대를 콤노어 산 위에 함께 모으고, 시즈의 군대에게 나팔을 불어 나아와 싸울 것을 청하였더라.

And so great and lasting had been the war, and so long had been the scene of bloodshed and carnage, that the whole face of the land was covered with the bodies of the dead.

And so swift and speedy was the war that there was none left to bury the dead, but they did march forth from the shedding of blood to the shedding of blood, leaving the bodies of both men, women, and children strewed upon the face of the land, to become a prey to the worms of the flesh.

And the scent thereof went forth upon the face of the land, even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wherefore the people became troubled by day and by night, because of the scent thereof.

Nevertheless, Shiz did not cease to pursue Coriantumr; for he had sworn to avenge himself upon Coriantumr of the blood of his brother, who had been slain, and the word of the Lord which came to Ether that Coriantumr should not fall by the sword.

And thus we see that the Lord did visit them in the fulness of his wrath, and their wickedness and abominations had prepared a way for their everlasting destruction.

And it came to pass that Shiz did pursue Coriantumr eastward, even to the borders by the seashore, and there he gave battle unto Shiz for the space of three days.

And so terrible was the destruction among the armies of Shiz that the people began to be frightened, and began to flee before the armies of Coriantumr; and they fled to the land of Corihor, and swept off the inhabitants before them, all them that would not join them.

And they pitched their tents in the valley of Corihor; and Coriantumr pitched his tents in the valley of Shurr. Now the valley of Shurr was near the hill Comnor; wherefore, Coriantumr did gather his armies together upon the hill Comnor, and did sound a trumpet unto the armies of Shiz to invite them forth to battle.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왔으나 다시 쫓겨갔고, 그들이 두 번째 왔으나 두 번째도 다시 쫓겨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번째 다시 오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졌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코리안투머를 내리쳐 그에게 깊은 상처를 많이 입힌지라, 코리안투머가 그 피를 잃고 혼절하여 마치 죽은 것같이 떠메어져 갔더라.

31 이제 양측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손실이 심히 커서 시즈가 자기 백성에게 명하여 코리안투머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forth, but were driven again; and they came the second time, and they were driven again the second tim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came again the third time, and the battle became exceedingly sore.

And it came to pass that Shiz smote upon Coriantumr that he gave him many deep wounds; and Coriantumr, having lost his blood, fainted, and was carried away as though he were dead.

Now the loss of men, women and children on both sides was so great that Shiz commanded his people that they should not pursue the armies of Coriantumr; wherefore, they returned to their camp.

## 이더서 15

-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그 부상이 회복되었을 때, 이더가 자기에게 한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더라.
- 2 그는 이미 이백만에 가까운 자기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슬퍼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이백만의 용사와,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 3 그는 자기가 행한 악을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여,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 이에 그의 영혼은 애통하며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즈에게 서한을 써서 백성들을 살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그리하면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 나라를 넘겨주겠다 하였더라.
-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그의 서한을 받고 코리안투머에게 서한을 써서, 만일 그가 스스로를 넘겨주어서 자기가 그를 그 자신의 칼로 죽이게 한다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하였더라.
-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안투머의 백성은 충동함을 받아 시즈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고, 시즈의 백성은 충동함을 받아 코리안투머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시즈의 백성이 코리안투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 7 이에 코리안투머가 자신이 바야흐로 엎드려지려 함을 보고 시즈의 백성 앞에서 다시 도망하였더라.
-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플리앵쿰 물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석한즉, 크다, 즉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 물에 이르러서 그들의 장막을 쳤고, 시즈도 자기의 장막을 그 가까이에 친지라, 그러므로 다음 날 그들이 싸우게 되었더라.
-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심히 맹렬한 싸움을 싸웠더니, 이 싸움에서 코리안투머가 다시 부상을 입어, 피를 잃고 실신하였더라.

## Ether 15

And it came to pass when Coriantumr had recovered of his wounds, he began to remember the words which Ether had spoken unto him.

He saw that there had been slain by the sword already nearly two millions of his people, and he began to sorrow in his heart; yea, there had been slain two millions of mighty men, and also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

He began to repent of the evil which he had done; he began to remember the words which had been spoken by the mouth of all the prophets, and he saw them that they were fulfilled thus far, every whit; and his soul mourned and refused to be comforted.

And it came to pass that he wrote an epistle unto Shiz, desiring him that he would spare the people, and he would give up the kingdom for the sake of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Shiz had received his epistle he wrote an epistle unto Coriantumr, that if he would give himself up, that he might slay him with his own sword, that he would spare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people repented not of their iniquity; and the people of Coriantumr were stirred up to anger against the people of Shiz; and the people of Shiz were stirred up to anger against the people of Coriantumr; wherefore, the people of Shiz did give battle unto the people of Coriantumr.

And when Coriantumr saw that he was about to fall he fled again before the people of Shiz.

And it came to pass that he came to the waters of Ripliancum, which, by interpretation, is large, or to exceed all; wherefore, when they came to these waters they pitched their tents; and Shiz also pitched his tents near unto them; and therefore on the morrow they did come to batt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ght an exceedingly sore battle, in which Coriantumr was wounded again, and he fainted with the loss of blood.

-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의 군대가 시즈의 군대를 압박하여 저들을 이기고, 저들로 자기들 앞에서 도망하게 한지라, 저들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오개드라 하는 곳에 저들의 장막을 쳤더라.
-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의 군대는 레이마 산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나의 부친 몰몬이 성스러운 기록들을 주께 감춘 바로 그 산이더라.
-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터를 제외하고 그 온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니라.
-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터는 백성들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았고, 또 그가 본즉 코리안투머를 위하는 백성은 코리안투머의 군대로 함께 모이고, 시즈를 위하는 백성은 시즈의 군대로 함께 모이더라.
- 14 그리하여 그들이 사 년 동안 백성을 함께 모으고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얻으며 받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받고자 함이었던더라.
-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각자 자기의 원하는 군대로 다 함께 모인 후에—남녀와 아이를 가리지 않고 전쟁 무기로 무장하고, 방패와 가슴판과 투구를 갖추고, 전쟁의 복장을 한 채—그들이 싸우고자 서로를 대하여 진군해 나아가 그 날 종일토록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그들이 지쳐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갔고, 그들이 그 진영으로 물러간 후에는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를 잃음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며 애곡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곡함이 심히 컸던지라, 그 소리가 심히 공기를 찢었더라.
-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싸우러 가매, 그 날이 크고 두려웠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밤이 오매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들을 잃음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애곡이 공기를 찢었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ies of Coriantumr did press upon the armies of Shiz that they beat them, that they caused them to flee before them; and they did flee southward, and did pitch their tents in a place which was called Ogath.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army of Coriantumr did pitch their tents by the hill Ramah; and it was that same hill where my father Mormon did hide up the records unto the Lord, which were sacre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gather together all the people upon all the face of the land, who had not been slain, save it was Ether.

And it came to pass that Ether did behold all the doings of the people; and he beheld that the people who were for Coriantumr were gathered together to the army of Coriantumr; and the people who were for Shiz were gathered together to the army of Shiz.

Wherefore, they were for the space of four years gathering together the people, that they might get all who were upon the face of the land, and that they might receive all the strength which it was possible that they could receive.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were all gathered together, every one to the army which he would, with their wives and their children—both men, women and children being armed with weapons of war, having shields, and breastplates, and headplates, and being clothed after the manner of war—they did march forth one against another to battle; and they fought all that day, and conquered not.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t was night they were weary, and retired to their camps; and after they had retired to their camps they took up a howling and a lamentation for the loss of the slain of their people; and so great were their cries, their howlings and lamentations, that they did rend the air exceedingly.

And it came to pass that on the morrow they did go again to battle, and great and terrible was that day; nevertheless, they conquered not, and when the night came again they did rend the air with their cries, and their howlings, and their mournings, for the loss of the slain of their people.

-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다시 시즈에게 서한을 써서, 저에게 다시 싸우러 오지 말고, 나라를 취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 19 그러나 보라, 주의 영은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이미 그치셨고,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데로 내어준 바 되어 멸망당하게 되었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싸우러 갔더라.
-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날 온종일 싸웠고, 밤이 오매 그들은 그들의 칼을 베고 잤더라.
- 21 또 다음 날에도 그들은 참으로 밤이 오기까지 싸웠더라.
- 22 그리고 밤이 오매 그들은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노여움에 취하여, 다시 그들의 칼을 베고 잤더라.
- 23 또 다음 날에 그들이 다시 싸웠고, 밤이 오매 그들이 모두 칼에 엎드러졌고, 다만 코리안투머의 백성 오십이 명과 시즈의 백성 육십구 명만이 있었더라.
-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밤에 그들의 칼을 베고 자고,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싸우되, 그 날 종일 그들의 칼과 그들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다하여 싸웠더라.
- 25 또 밤이 오매 시즈의 백성 삼십이 명과 코리안투머의 백성 이십칠 명이 남았더라.
-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먹고 자고, 다음 날 죽을 준비를 하였으니,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큰 크고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시간 동안 싸우고 피를 잃어 기진하였더라.
-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의 병사들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얻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바야흐로 도망하고자 하였으나, 보라, 시즈가 일어났고, 그의 병사들도 일어나더니, 저가 그 분노 중에 맹세하되 코리안투머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칼에 죽을 것을 맹세하였더라.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wrote again an epistle unto Shiz, desiring that he would not come again to battle, but that he would take the kingdom, and spare the lives of the people.

But behold, the Spirit of the Lord had ceased striving with them, and Satan had full power over the hearts of the people; for they were given up unto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 blindness of their minds that they might be destroyed; wherefore they went again to battl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ght all that day, and when the night came they slept upon their swords.

And on the morrow they fought even until the night came.

And when the night came they were drunken with anger, even as a man who is drunken with wine; and they slept again upon their swords.

And on the morrow they fought again; and when the night came they had all fallen by the sword save it were fifty and two of the people of Coriantumr, and sixty and nine of the people of Shiz.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slept upon their swords that night, and on the morrow they fought again, and they contended in their might with their swords and with their shields, all that day.

And when the night came there were thirty and two of the people of Shiz, and twenty and seven of the people of Coriantumr.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ate and slept, and prepared for death on the morrow. And they were large and mighty men as to the strength of me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fought for the space of three hours, and they fainted with the loss of blo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men of Coriantumr had received sufficient strength that they could walk, they were about to flee for their lives; but behold, Shiz arose, and also his men, and he swore in his wrath that he would slay Coriantumr or he would perish by the sword.

29 그리하여 저가 그들을 추격하더니, 다음 날 그들을 따라잡으매, 그들이 다시 칼로 싸웠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와 시즈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칼에 엎드러졌을 때, 보라, 시즈가 피를 잃어 기진하였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가 자기 칼을 의지하고, 잠시 쉰 후에, 시즈의 머리를 쳐서 베었느니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즈의 머리를 쳐서 벤 후에, 시즈가 그 손을 짚고 일어나다가 엎드려져서는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죽었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안투머도 땅에 엎드려져서, 마치 생명이 없는 자같이 되었던지라.

33 이에 주께서 이더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아가라 하시었으매, 그가 나아가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그 백분의 일도 나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하였을 때의 모양으로 그것을 감추었더라.

34 이제 이더가 기록한 마지막 말이 이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았을진대, 주께서 나로 변화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육체로 주의 뜻을 겪게 하시든지 상관없도다. 아멘.

Wherefore, he did pursue them, and on the morrow he did overtake them; and they fought again with the swo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y had all fallen by the sword, save it were Coriantumr and Shiz, behold Shiz had fainted with the loss of bloo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Coriantumr had leaned upon his sword, that he rested a little, he smote off the head of Shiz.

And it came to pass that after he had smitten off the head of Shiz, that Shiz raised up on his hands and fell; and after that he had struggled for breath, he died.

And it came to pass that Coriantumr fell to the earth, and became as if he had no life.

And the Lord spake unto Ether, and said unto him: Go forth. And he went forth, and beheld that the words of the Lord had all been fulfilled; and he finished his record; (and the hundredth part I have not written) and he hid them in a manner that the people of Limhi did find them.

Now the last words which are written by Ether are these: Whether the Lord will that I be translated, or that I suffer the will of the Lord in the flesh, it mattereth not, if it so be that I am saved in the kingdom of God. Amen.



# 모로나이서

## 모로나이서 1

- 1 이제 나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또 나는 레이맨인들이 나를 멸할까 하여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노라.
- 2 이는 보라, 그들의 전쟁은 그들끼리 심히 격렬하며,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하는 모든 니파이인을 죽임이라.
- 3 그러나 나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헤매노라.
- 4 그러한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가 더 기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었음이라.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혹 이것이 주의 뜻을 좇아 장차 언젠가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 The Book of Moroni

## Moroni 1

Now I, Moroni, after having made an end of abridging the account of the people of Jared, I had supposed not to have written more, but I have not as yet perished; and I make not myself known to the Lamanites lest they should destroy me.

For behold, their wars are exceedingly fierce among themselves; and because of their hatred they put to death every Nephite that will not deny the Christ.

And I, Moroni, will not deny the Christ; wherefore, I wander whithersoever I can for the safety of mine own life.

Wherefore, I write a few more things, contrary to that which I had supposed; for I had supposed not to have written any more; but I write a few more things, that perhaps they may be of worth unto my brethren, the Lamanites, in some future day,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 모로나이서 2

- 1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들 곧 그 택하신 열둘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
- 2 또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지니, 너희가 이렇게 한 후에는 너희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신을 줄 권능을 갖게 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를 줄지니, 이는 그와 같이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 3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니, 무리는 이를 듣지 못하였으되, 제자들은 이를 들었으며, 그들이 안수하는 자에게는 모두 성신이 내리셨느니라.

## Moroni 2

The words of Christ, which he spake unto his disciples, the twelve whom he had chosen, as he laid his hands upon them—

And he called them by name, saying: Ye shall call on the Father in my name, in mighty prayer; and after ye have done this ye shall have power that to him upon whom ye shall lay your hands, ye shall give the Holy Ghost; and in my name shall ye give it, for thus do mine apostles.

Now Christ spake these words unto them at the time of his first appearing; and the multitude heard it not, but the disciples heard it; and on as many as they laid their hands, fell the Holy Ghost.

### 모로나이서 3

- 1 교회의 장로라 일컫는 제자들이 제사와 교사를 성  
임한 방법이라—
- 2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그 손을 저들에게 얹고 이르되,
-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  
사로 성임하노라)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  
암아 얻는 죄 사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 4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  
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좇아 제사와 교사를 성임  
하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써  
저들을 성임하였더라.

### Moroni 3

The manner which the disciples, who were called the  
elders of the church, ordained priests and teachers—

After they had prayed unto the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they laid their hands upon them, and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ordain you to be a  
priest (or if he be a teacher, I ordain you to be a  
teacher) to preach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through Jesus Christ, by the endurance of faith on  
his name to the end. Amen.

And after this manner did they ordain priests and  
teachers, according to the gifts and callings of God  
unto men; and they ordained them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ich was in them.

## 모로나이서 4

- 1 그들의 장로와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교회에 베푸는 방식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아 이를 베푸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식이 참된 줄 아노라. 이에 장로 또는 제사가 이를 베풀되—
- 2 그들이 교회로 더불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르되,
- 3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 Moroni 4

The manner of their elders and priests administering the flesh and blood of Christ unto the church; and they administered it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Christ; wherefore we know the manner to be true; and the elder or priest did minister it—

And they did kneel down with the church, and pray to the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saying:

O God, the Eternal Father, we ask thee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Christ, to bless and sanctify this bread to the souls of all those who partake of it; that they may eat in remembrance of the body of thy Son, and witness unto thee, O God, the Eternal Father, that they are willing to take upon them the name of thy Son, and always remember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which he hath given them, that they may always have his Spirit to be with them. Amen.

## 모로나이서 5

- 1 포도주를 베푸는 방식이라—보라 그들이 잔을 들고 이르되,
- 2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 Moroni 5

The manner of administering the wine—Behold, they took the cup, and said:

O God, the Eternal Father, we ask thee,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Christ, to bless and sanctify this wine to the souls of all those who drink of it, that they may do it in remembrance of the blood of thy Son, which was shed for them; that they may witness unto thee, O God, the Eternal Father, that they do always remember him, that they may have his Spirit to be with them. Amen.

## 모로나이서 6

- 1 그리고 이제 내가 침례에 관하여 말하노라. 보라, 장로, 제사, 그리고 교사들이 침례를 받았으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이 없이 침례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 2 누구라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진실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음을 교회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게 아니하였느니라.
- 3 또 아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 4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
- 5 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 6 또 그들은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 7 또 그들 중에 죄악이 있지 못하도록 엄격히 주시하였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함이 드러나면, 교회의 증인 셋이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 8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
- 9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

## Moroni 6

And now I speak concerning baptism. Behold, elders, priests, and teachers were baptized; and they were not baptized save they brought forth fruit meet that they were worthy of it.

Neither did they receive any unto baptism save they came forth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and witnessed unto the church that they truly repented of all their sins.

And none were received unto baptism save they took upon them the name of Christ, having a determination to serve him to the end.

And after they had been received unto baptism, and were wrought upon and cleans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ey were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the church of Christ; and their names were taken, that they might be remembered and nourished by the good word of God, to keep them in the right way, to keep them continually watchful unto prayer, relying alone upon the merits of Christ, who wa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their faith.

And the church did meet together oft, to fast and to pray, and to speak one with another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ir souls.

And they did meet together oft to partake of bread and wine, in remembrance of the Lord Jesus.

And they were strict to observe that there should be no iniquity among them; and whoso was found to commit iniquity, and three witnesses of the church did condemn them before the elders, and if they repented not, and confessed not, their names were blotted out, and they were not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Christ.

But as oft as they repented and sought forgiveness, with real intent, they were forgiven.

And their meetings were conducted by the church after the manner of the workings of the Spirit,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or as the power of the Holy Ghost led them whether to preach, or to exhort, or to pray, or to supplicate, or to sing, even so it was done.

## 모로나이서 7

-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 나의 부친 몰몬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하노니, 이는 그가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로 지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이라.
- 2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너희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때에 너희에게 말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그의 부르심의 은사로 인한 그의 기록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3 그런즉 나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며,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때로부터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안식하게 될 때까지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소망을 얻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 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의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한 중에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 일을 판단하노라.
- 5 이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함이라. 이는 만일 그들의 행위가 선할진대 그들도 선함이나라.
- 6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음이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나라.
- 7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지 아니함이나라.
- 8 보라, 사람이 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김을 받느니라.
- 9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

## Moroni 7

And now I, Moroni, write a few of the words of my father Mormon, which he spake concerning faith, hope, and charity; for after this manner did he speak unto the people, as he taught them in the synagogue which they had built for the place of worship.

And now I, Mormon, speak unto you, my beloved brethren; and it is by the grace of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and his holy will, because of the gift of his calling unto me, that I am permitted to speak unto you at this time.

Wherefore, I would speak unto you that are of the church, that are the peaceable followers of Christ, and that have obtained a sufficient hope by which ye can enter into the rest of the Lord, from this time henceforth until ye shall rest with him in heaven.

And now my brethren, I judge these things of you because of your peaceable walk with the children of men.

For I remember the word of God which saith by their works ye shall know them; for if their works be good, then they are good also.

For behold, God hath said a man being evil cannot do that which is good; for if he offereth a gift, or prayeth unto God, except he shall do it with real intent it profiteth him nothing.

For behold, it is not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For behold, if a man being evil giveth a gift, he doeth it grudgingly; wherefore it is counted unto him the same as if he had retained the gift; wherefore he is counted evil before God.

And likewise also is it counted evil unto a man, if he shall pray and not with real intent of heart; yea, and it profiteth him nothing, for God receiveth none such.

- 10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 11 이는 보라, 쓴 샘이 좋은 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샘이 쓴 물을 낼 수 없음이라.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 종이 될 수 없도다.
- 12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 13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는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15 이는 보라, 나의 형제들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너희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음이요, 또 판단하는 길은 어두운 밤과 낮의 빛을 구별함같이 명백하여 너희가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음이니라.
- 16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Wherefore, a man being evil cannot do that which is good; neither will he give a good gift.

For behold, a bitter fountain cannot bring forth good water; neither can a good fountain bring forth bitter water; wherefore, a man being a servant of the devil cannot follow Christ; and if he follow Christ he cannot be a servant of the devil.

Wherefore, all things which are good cometh of God; and that which is evil cometh of the devil; for the devil is an enemy unto God, and fighteth against him continually, and inviteth and enticeth to sin, and to do that which is evil continually.

But behold, that which is of God inviteth and enticeth to do good continually; wherefore, every thing which inviteth and enticeth to do good, and to love God, and to serve him, is inspired of God.

Wherefore, take heed, my beloved brethren, that ye do not judge that which is evil to be of God, or that which is good and of God to be of the devil.

For behold, my brethren, it is given unto you to judge, that ye may know good from evil; and the way to judge is as plain, that ye may know with a perfect knowledge, as the daylight is from the dark night.

For behold, the Spirit of Christ is given to every man, that he may know good from evil; wherefore, I show unto you the way to judge; for every thing which inviteth to do good, and to persuade to believe in Christ, is sent forth by the power and gift of Christ; wherefore ye may know with a perfect knowledge it is of God.



17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

18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19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20 그러면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21 이에 이제 나는 내가 말하겠다 한 저 신앙에 이르러,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22 대저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시나니, 보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이 임할 것을 드러내게 하셨느니라.

23 또한 하나님은 친히 그 입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24 또 보라,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어도 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타락한 고로 저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임할 수 없으리다.

But whatsoever thing persuadeth men to do evil, and believe not in Christ, and deny him, and serve not God, then ye may know with a perfect knowledge it is of the devil; for after this manner doth the devil work, for he persuadeth no man to do good, no, not one; neither do his angels; neither do they who subject themselves unto him.

And now, my brethren, seeing that ye know the light by which ye may judge, which light is the light of Christ, see that ye do not judge wrongfully; for with that same judgment which ye judge ye shall also be judged.

Wherefore, I beseech of you, brethren, that ye should search diligently in the light of Christ that ye may know good from evil; and if ye will lay hold upon every good thing, and condemn it not, ye certainly will be a child of Christ.

And now, my brethren, how is it possible that ye can lay hold upon every good thing?

And now I come to that faith, of which I said I would speak; and I will tell you the way whereby ye may lay hold on every good thing.

For behold, God knowing all things, being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behold, he sent angels to minister unto the children of men, to make manifest concerning the coming of Christ; and in Christ there should come every good thing.

And God also declared unto prophets, by his own mouth, that Christ should come.

And behold, there were divers ways that he did manifest things unto the children of men, which were good; and all things which are good cometh of Christ; otherwise men were fallen, and there could no good thing come unto them.

25 그리하여 천사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님의 입에서 나아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  
하였고, 그리하여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러하였느니라.

26 또 그가 오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  
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으로 저희가 하  
나님의 아들들이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  
같이 분명히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하  
셨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  
앙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  
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  
셨느니라.

27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하  
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의 자녀들  
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함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쳤느냐?

28 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셨고, 그를 믿  
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굳게 붙들 것인즉, 그러므  
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영  
원토록 하늘에 거하시느니라.

29 이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이를 행하  
셨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쳤느냐? 보라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  
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 그치지 아니하  
였느니라.

30 이는 보라,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여, 그의 명하  
시는 말씀을 좇아 성역을 베풀며, 경건의 모든 모  
양 중에 강한 신앙과 굳건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  
게 스스로를 보임이니라.

31 또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  
게 하며,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  
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  
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라.

Wherefore, by the ministering of angels, and by  
every word which proceeded forth out of the mouth  
of God, men began to exercise faith in Christ; and  
thus by faith, they did lay hold upon every good  
thing; and thus it was until the coming of Christ.

And after that he came men also were saved by  
faith in his name; and by faith, they become the sons  
of God. And as surely as Christ liveth he spake these  
words unto our fathers, saying: Whatsoever thing ye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which is good, in  
faith believing that ye shall receive, behold, it shall  
be done unto you.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have miracles  
ceased because Christ hath ascended into heaven,  
and hath sat down on the right hand of God, to claim  
of the Father his rights of mercy which he hath upon  
the children of men?

For he hath answered the ends of the law, and he  
claimeth all those who have faith in him; and they  
who have faith in him will cleave unto every good  
thing; wherefore he advocateth the cause of the chil-  
dren of men; and he dwelleth eternally in the heav-  
ens.

And because he hath done this, my beloved  
brethren, have miracles ceased? Behold I say unto  
you, Nay; neither have angels ceased to minister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behold, they are subject unto him, to minister  
according to the word of his command, showing  
themselves unto them of strong faith and a firm  
mind in every form of godliness.

And the office of their ministry is to call men unto  
repentance, and to fulfil and to do the work of the  
covenants of the Father, which he hath made unto  
the children of men, to prepare the way among the  
children of men, by declaring the word of Christ  
unto the chosen vessels of the Lord, that they may  
bear testimony of him.

32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길을 예비하사, 성신이 그 권능을 좇아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이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시느니라.

33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

34 또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35 이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이 참될진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참됨을 마지막 날에 권능과 큰 영광으로 너희에게 보이시려니와, 만일 이러한 것이 참되다면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

36 또는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또는 그가 그들에게서 성신의 권능을 거두셨느냐? 또는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가 그리하시겠느냐?

37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요, 모든 것이 헛됨이라.

38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를진대,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그러면 신앙이 또한 그친 것이요, 이에 사람의 상태가 참담하리니, 이는 그들이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음이라.

39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더 나은 줄로 판단하노니, 이는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내가 판단함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니라.

And by so doing, the Lord God prepareth the way that the residue of men may have faith in Christ, that the Holy Ghost may have place in their hearts, according to the power thereof; and after this manner bringeth to pass the Father, the covenants which he hath made unto the children of men.

And Christ hath said: If ye will have faith in me ye shall have power to do whatsoever thing is expedient in me.

And he hath said: Repent all ye ends of the earth, and come unto me, and be baptized in my name, and have faith in me, that ye may be saved.

And now, my beloved brethren, if this be the case that these things are true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and God will show unto you, with power and great glory at the last day, that they are true, and if they are true has the day of miracles ceased?

Or have angels ceased to appear unto the children of men? Or has he withheld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rom them? Or will he, so long as time shall last, or the earth shall stand, or there shall be one man upon the face thereof to be saved?

Behold I say unto you, Nay; for it is by faith that miracles are wrought; and it is by faith that angels appear and minister unto men; wherefore, if these things have ceased wo be unto the children of men, for it is because of unbelief, and all is vain.

For no man can be saved, according to the words of Christ, save they shall have faith in his name; wherefore, if these things have ceased, then has faith ceased also; and awful is the state of man, for they are as though there had been no redemption made.

But behold, my beloved brethren, I judge better things of you, for I judge that ye have faith in Christ because of your meekness; for if ye have not faith in him then ye are not fit to be numbered among the people of his church.

40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41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

42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43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44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45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6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47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딜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And again, my beloved brethren, I would speak unto you concerning hope. How is it that ye can attain unto faith, save ye shall have hope?

And what is it that ye shall hope for? Behold I say unto you that ye shall have hope through the atonement of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to be raised unto life eternal, and this because of your faith in him according to the promise.

Wherefore, if a man have faith he must needs have hope; for without faith there cannot be any hope.

And again, behold I say unto you that he cannot have faith and hope, save he shall be meek, and lowly of heart.

If so, his faith and hope is vain, for none is acceptable before God, save the meek and lowly in heart; and if a man be meek and lowly in heart, and confesse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Jesus is the Christ, he must needs have charity; for if he have not charity he is nothing; wherefore he must needs have charity.

And charity suffereth long, and is kind, and envieth not, and is not puffed up, seeketh not her own, is not easily provoked, thinketh no evil, and rejoiceth not in iniquity but rejoiceth in the truth, beareth all things, believeth all things, hopeth all things, endureth all things.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if ye have not charity, ye are nothing, for charity never faileth. Wherefore, cleave unto charity, which is the greatest of all, for all things must fail—

But charity is the pure love of Christ, and it endureth forever; and whoso is found possessed of it at the last day, it shall be well with him.

48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  
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  
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  
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  
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pray unto the  
Father with all the energy of heart, that ye may be  
filled with this love, which he hath bestowed upon  
all who are true followers of his Son, Jesus Christ;  
that ye may become the sons of God;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that we may have this hope; that we  
may be purified even as he is pure. Amen.

## 모로나이서 8

- 1 나 모로나이에게 쓰신 나의 부친 몰몬의 서한이니, 내가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내게 쓰신 것이요, 내게 쓰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 2 내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생각하시고, 그의 성역과 그의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너를 부르셨으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 3 내가 나의 기도 중에 항상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가 그의 무한한 선하심과 은혜로써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너를 지키실 것을 구하노라.
  - 4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야, 나를 심히 비통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논쟁이 일어남은 나를 비통하게 함이라.
  - 5 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진대, 너희 중에 너희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 이니라.
  - 6 이에 이제 내 아들이야, 나는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여 이 큰 잘못이 너희에게서 제하여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서한을 썼음 이니라.
  - 7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나서 즉시 그 문제에 관하여 여쭙었더니, 주의 말씀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8 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며, 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도다 하셨느니라.

## Moroni 8

An epistle of my father Mormon, written to me, Moroni; and it was written unto me soon after my calling to the ministry. And on this wise did he write unto me, saying:

My beloved son, Moroni, I rejoice exceedingly that your Lord Jesus Christ hath been mindful of you, and hath called you to his ministry, and to his holy work.

I am mindful of you always in my prayers, continually praying un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his Holy Child, Jesus, that he, through his infinite goodness and grace, will keep you through the endurance of faith on his name to the end.

And now, my son, I speak unto you concerning that which grieveth me exceedingly; for it grieveth me that there should disputations rise among you.

For, if I have learned the truth, there have been disputations among you concerning the baptism of your little children.

And now, my son, I desire that ye should labor diligently, that this gross error should be removed from among you; for, for this intent I have written this epistle.

For immediately after I had learned these things of you I inquired of the Lord concerning the matter.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saying:

Listen to the words of Christ, your Redeemer, your Lord and your God. Behold, I came into the world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the whole need no physician, but they that are sick; wherefore, little children are whole, for they are not capable of committing sin; wherefore the curse of Adam is taken from them in me, that it hath no power over them; and the law of circumcision is done away in me.

- 9 이에 이와 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줌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인 줄을 내가 아노라.
- 10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 11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12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 13 그런즉 만일 어린아이들이 침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진대, 이들이 반드시 끝없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 1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나니, 이는 그에게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음이라. 그런즉 그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다가 끊어 버림을 당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 15 이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침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아이는 침례 없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한다 생각하는 그 간악함이 끔찍함이라.
- 16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And after this manner did the Holy Ghost manifest the word of God unto me; wherefore, my beloved son, I know that it is solemn mockery before God, that ye should baptize little children.

Behold I say unto you that this thing shall ye teach—repentance and baptism unto those who are accountable and capable of committing sin; yea, teach parents that they must repent and be baptized, and humble themselves as their little children, and they shall all be saved with their little children.

And their little children need no repentance, neither baptism. Behold, baptism is unto repentance to the fulfilling the commandments unto the remission of sins.

But little children are alive in Christ, ev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f not so, God is a partial God, and also a changeable God, and a respecter to persons; for how many little children have died without baptism!

Wherefore, if little children could not be saved without baptism, these must have gone to an endless hell.

Behold I say unto you, that he that supposeth that little children need baptism is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in the bonds of iniquity; for he hath neither faith, hope, nor charity; wherefore, should he be cut off while in the thought, he must go down to hell.

For awful is the wickedness to suppose that God saveth one child because of baptism, and the other must perish because he hath no baptism.

Wo be unto them that shall pervert the ways of the Lord after this manner, for they shall perish except they repent. Behold, I speak with boldness, having authority from God; and I fear not what man can do; for perfect love casteth out all fear.

17 이에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노니, 그러므로 모든 아이가 내게는 다 같도다. 그리하여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18 이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변하시는 존재도 아니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라.

19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비를 부인하는 것은 끔찍한 간악함이니, 이는 그들이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안에 모두 살아 있음이라.

20 또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라.

21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의 위협에 처해 있음이라. 내가 담대히 이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희를 정죄하리로다.

22 이는 보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으며, 율법 밖에 있는 자도 모두 그러함이니, 구속의 능력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런즉 정죄 받지 아니한 자, 곧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는 회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에게 침례란 무익한 것이요—

23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의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며, 죽은 행실을 신뢰하는 일이니라.

24 보라,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나니, 회개란 정죄 아래와 깨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이라.

25 그리고 회개의 첫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와서 계명을 이룸에 이르며, 계명을 이룸은 죄 사함을 가져오니라.

And I am filled with charity, which is everlasting love; wherefore, all children are alike unto me; wherefore, I love little children with a perfect love; and they are all alike and partakers of salvation.

For I know that God is not a partial God, neither a changeable being; but he is unchangeable from all eternity to all eternity.

Little children cannot repent; wherefore, it is awful wickedness to deny the pure mercies of God unto them, for they are all alive in him because of his mercy.

And he that saith that little children need baptism denieth the mercies of Christ, and setteth at naught the atonement of him and the power of his redemption.

Wo unto such, for they are in danger of death, hell, and an endless torment. I speak it boldly; God hath commanded me. Listen unto them and give heed, or they stand against you at the judgment-seat of Christ.

For behold that all little children are alive in Christ, and also all they that are without the law. For the power of redemption cometh on all them that have no law; wherefore, he that is not condemned, or he that is under no condemnation, cannot repent; and unto such baptism availeth nothing—

But it is mockery before God, denying the mercies of Christ, and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and putting trust in dead works.

Behold, my son, this thing ought not to be; for repentance is unto them that are under condemnation and under the curse of a broken law.

And the first fruits of repentance is baptism; and baptism cometh by faith unto the fulfilling the commandments; and the fulfilling the commandments bringeth remission of sins;



- 26 또 죄 사함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며,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인하여 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이 보혜사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디느니라.
- 27 보라, 내 아들이, 내가 만일 레이맨인들을 치러 곧 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네게 쓰리로다. 볼지어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의 멸망이 되었도다.
- 28 내 아들이, 회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보라, 나는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는지 두려워하노라. 이 지역에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폐하기를 꾀하고 있으며, 그들은 성신을 부인하고 있다.
- 29 또 내 아들이, 것처럼 큰 지식을 저버린 후에, 그들이 반드시 곧 멸망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또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리라.
- 30 내 아들이, 내가 다시 네게 쓰든지, 아니면 다시 너를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 아멘.

And the remission of sins bringeth meekness, and lowliness of heart; and because of meekness and lowliness of heart cometh the visitation of the Holy Ghost, which Comforter filleth with hope and perfect love, which love endureth by diligence unto prayer, until the end shall come, when all the saints shall dwell with God.

Behold, my son, I will write unto you again if I go not out soon against the Lamanites. Behold, the pride of this nation, or the people of the Nephites, hath proven their destruction except they should repent.

Pray for them, my son, that repentance may come unto them. But behold, I fear lest the Spirit hath ceased striving with them; and in this part of the land they are also seeking to put down all power and authority which cometh from God; and they are denying the Holy Ghost.

And after rejecting so great a knowledge, my son, they must perish soon, unto the fulfilling of the prophecies which were spoken by the prophets, as well as the words of our Savior himself.

Farewell, my son, until I shall write unto you, or shall meet you again. Amen.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몰몬의 두 번째 서한.

## 모로나이서 9

- 1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네게 쓰거니와, 내가 비통한 일에 대하여 얼마간 쓰노라.
- 2 이는 보라, 내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격심한 싸움을 치렀으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고, 아아켄투스는 칼에 엎드러졌고, 루램과 에므론도 그리되었으며,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병사들을 허다히 잃었음이라.
- 3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나는 레이맨인들이 이 백성을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사탄이 그들을 끊임없이 충돌하여 피차에 노하게 함이라.
- 4 보라, 내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되, 내가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면 그들이 떨며 나에게 노를 품고, 내가 엄히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므로 나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을까 두려워하노라.
- 5 이는 것처럼 심히 그들이 분노하여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잃어 버렸고, 끊임없이 피와 복수에 목말라 하고 있음이라.
- 6 그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이는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임이요, 우리에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7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백성의 고난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노라. 내가 애모론으로부터 받은 지식에 의하면, 보라, 레이맨인들에게는 그들이 세라이자 망대에서 잡은 포로가 많이 있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The second epistle of Mormon to his son Moroni.*

## Moroni 9

My beloved son, I write unto you again that ye may know that I am yet alive; but I write somewhat of that which is grievous.

For behold, I have had a sore battle with the Lamanites, in which we did not conquer; and Archeantus has fallen by the sword, and also Luram and Emron; yea, and we have lost a great number of our choice men.

And now behold, my son, I fear lest the Lamanites shall destroy this people; for they do not repent, and Satan stirreth them up continually to anger one with another.

Behold, I am laboring with them continually; and when I speak the word of God with sharpness they tremble and anger against me; and when I use no sharpness they harden their hearts against it; wherefore, I fear lest the Spirit of the Lord hath ceased striving with them.

For so exceedingly do they anger that it seemeth me that they have no fear of death; and they have lost their love, one towards another; and they thirst after blood and revenge continually.

And now, my beloved son, notwithstanding their hardness, let us labor diligently; for if we should cease to labor, we should be brought under condemnation; for we have a labor to perform whilst in this tabernacle of clay, that we may conquer the enemy of all righteousness, and rest our souls in the kingdom of God.

And now I write somewhat concerning the sufferings of this people. For according to the knowledge which I have received from Amoron, behold, the Lamanites have many prisoners, which they took from the tower of Sherrizah; and there were men, women, and children.

- 8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그들이 죽이고, 여자들에게는 그 남편의 살을 먹이며,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살을 먹이고, 물도 조금씩밖에는 주지 아니하는도다.
- 9 그러나 레이맨인들의 이 큰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리애틀에 있는 우리 백성의 가증함보다 더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보라, 많은 레이맨인의 딸들을 저들이 포로로 잡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결과 정조를 그들에게서 빼앗은 후에—
- 10 그리고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육신을 괴롭게 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저들이 이렇게 한 후에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들짐승처럼 그들의 살을 먹되, 용감함의 표시로 저들이 그리 행함이라.
- 11 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문명이 없는 백성인들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 12 (불과 수년이 지나갔을 뿐이니 그들은 개화되고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거늘)
- 13 그러나 내 아들이야, 것처럼 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 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을 멈추시기를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으리요?
- 15 보라, 내 마음이 부르짖기를 이 백성에게 화 있도다.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러 나오사 그들의 죄와 간악함과 가증함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우시옵소서 하는도다.
- 16 그리고 또 내 아들이야, 세라이자에 남아 있는 과부와 그 딸들이 많이 있으되, 레이맨인들이 가져가버리지 아니한 그 식량을 보라, 지네파이의 군대가 가져가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찾아 어디로든지 방황하게 버려둔지라, 많은 늙은 여자들이 길가에서 기진하여 죽는도다.
- 17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군대는 약하고,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세라이자와 나 사이에 있으니, 아론의 군대에게로 도망했던 자들은 모두 그들의 끔찍한 포악함에 희생되었느니라.

And the husbands and fathers of those women and children they have slain; and they feed the women upon the flesh of their husbands, and the children upon the flesh of their fathers; and no water, save a little, do they give unto them.

And notwithstanding this great abomination of the Lamanites, it doth not exceed that of our people in Moriantum. For behold, many of the daughters of the Lamanites have they taken prisoners; and after depriving them of that which was most dear and precious above all things, which is chastity and virtue—

And after they had done this thing, they did murder them in a most cruel manner, torturing their bodies even unto death; and after they have done this, they devour their flesh like unto wild beasts,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and they do it for a token of bravery.

O my beloved son, how can a people like this, that are without civilization—

(And only a few years have passed away, and they were a civil and a delightsome people)

But O my son, how can a people like this, whose delight is in so much abomination—

How can we expect that God will stay his hand in judgment against us?

Behold, my heart cries: Wo unto this people. Come out in judgment, O God, and hide their sins, and wickedness, and abominations from before thy face!

And again, my son, there are many widows and their daughters who remain in Sherrizah; and that part of the provisions which the Lamanites did not carry away, behold, the army of Zenephi has carried away, and left them to wander whithersoever they can for food; and many old women do faint by the way and die.

And the army which is with me is weak; and the armies of the Lamanites are betwixt Sherrizah and me; and as many as have fled to the army of Aaron have fallen victims to their awful brutality.

- 18 오 내 백성의 사악함이어! 그들에게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도다. 보라, 나는 사람일 뿐이요, 사람의 능력을 가졌을 뿐인지라, 나의 명령을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도다.
- 19 또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 중에 완강하여져서, 하나같이 포악하여,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하며, 선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지라,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 땅에서 겪는 고난이 극심하여 필설로 다할 수 없도다.
- 20 이제 내 아들이, 나는 이 처참한 광경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 백성의 간악함을 네가 알며, 그들은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들의 간악함은 레이맨인들의 간악함보다 더한 줄을 네가 아느니라.
- 21 보라 내 아들이, 나를 치실까 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천거할 수 없도다.
- 22 그러나 보라,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께 너를 천거하노니, 나는 네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노라. 또 나는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살려 두셔서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온전한 멸망을 목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가 앎이라.
- 23 또 만일 그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야렛인들과 같으리니, 이는 피와 복수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라.
- 24 또 만일 그들이 멸망할진대,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에게로 넘어갔고 또한 많은 자가 더 그들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즉, 그러므로 만일 네가 살아남고, 내가 죽어 너를 보지 못하거든, 대략 몇 가지를 기록하라. 그러나 내가 곧 너를 볼 줄로 확신하노니, 이는 네게 넘겨 줄 거룩한 기록을 내가 갖고 있음이니라.

O the depravity of my people! They are without order and without mercy. Behold, I am but a man, and I have but the strength of a man, and I cannot any longer enforce my commands.

And they have become strong in their perversion; and they are alike brutal, sparing none, neither old nor young; and they delight in everything save that which is good; and the suffering of our women and our children upon all the face of this land doth exceed everything; yea, tongue cannot tell, neither can it be written.

And now, my son, I dwell no longer upon this horrible scene. Behold, thou knowest the wickedness of this people; thou knowest that they are without principle, and past feeling; and their wickedness doth exceed that of the Lamanites.

Behold, my son, I cannot recommend them unto God lest he should smite me.

But behold, my son, I recommend thee unto God, and I trust in Christ that thou wilt be saved; and I pray unto God that he will spare thy life, to witness the return of his people unto him, or their utter destruction; for I know that they must perish except they repent and return unto him.

And if they perish it will be like unto the Jaredites, because of the wilfulness of their hearts, seeking for blood and revenge.

And if it so be that they perish, we know that many of our brethren have deserted over unto the Lamanites, and many more will also desert over unto them; wherefore, write somewhat a few things, if thou art spared and I shall perish and not see thee; but I trust that I may see thee soon; for I have sacred records that I would deliver up unto thee.

25 내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이 너를 비통하게 하여 너를 억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26 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My son, be faithful in Christ; and may not the things which I have written grieve thee, to weigh thee down unto death; but may Christ lift thee up, and may his sufferings and death, and the showing his body unto our fathers, and his mercy and long-suffering, and the hope of his glory and of eternal life, rest in your mind forever.

And may the grace of God the Father, whose throne is high in the heavens, and our Lord Jesus Christ, who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his power, until all things shall become subject unto him, be, and abide with you forever. Amen.

## 모로나이서 10

- 1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얼마간 기록하되,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이 주어진 이래로 사백이십 년 이상이 지나갔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노라.
- 2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으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인봉하노라.
- 3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대,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 4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 5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 6 또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바르고 참된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랴도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계심을 인정하느니라.
- 7 이에 너희가 성신의 권능으로 그가 계심을 알리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써 역사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니라.
- 8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고,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오이니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지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 9 이는 보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 Moroni 10

Now I, Moroni, write somewhat as seemeth me good; and I write unto my brethren, the Lamanites; and I would that they should know that more than four hundred and twenty years have passed away since the sign was given of the coming of Christ.

And I seal up these records, after I have spoken a few words by way of exhortation unto you.

Behold, I would exhort you that when ye shall read these things, if it be wisdom in God that ye should read them, that ye would remember how merciful the Lord hath been unto the children of men, from the creation of Adam even down until the time that ye shall receive these things, and ponder it in your hearts.

And when ye shall receive these things, I would exhort you that ye would ask God, the Eternal Father, in the name of Christ, if these things are not true; and if ye shall ask with a sincere heart, with real intent, having faith in Christ, he will manifest the truth of it unto you,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ye may know the truth of all things.

And whatsoever thing is good is just and true; wherefore, nothing that is good denieth the Christ, but acknowledgeth that he is.

And ye may know that he i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wherefore I would exhort you that ye deny not the power of God; for he worketh by power, according to the faith of the children of men, the same today and tomorrow, and forever.

And again, I exhort you, my brethren, that ye deny not the gifts of God, for they are many; and they come from the same God. And there are different ways that these gifts are administered; but it is the same God who worketh all in all; and they are given by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of God unto men, to profit them.

For behold, to one is given by the Spirit of God, that he may teach the word of wisdom;

10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11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12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능한 기적 행함을,

13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에 관하여 예언함을,

14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천사들과 성역을 베푸는 영들을 봄을,

15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온갖 방언을,

16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언어들과 각종 방언 통역함을 주심이니,

17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니라.

18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19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과, 내가 말한 이 모든 영적인 은사가 사람의 자녀들의 믿지 않음을 따라서가 아니고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임을 기억하라.

20 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

21 또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22 또 만일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너희가 반드시 절망하리니,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도다.

2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라도 다 행할 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And to another, that he may teach the word of knowledge by the same Spirit;

And to another, exceedingly great faith; and to another, the gifts of healing by the same Spirit;

And again, to another, that he may work mighty miracles;

And again, to another, that he may prophesy concerning all things;

And again, to another, the beholding of angels and ministering spirits;

And again, to another, all kinds of tongues;

And again,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languages and of divers kinds of tongues.

And all these gifts come by the Spirit of Christ; and they come unto every man severally, according as he will.

And I would exhort you, my beloved brethren, that ye remember that every good gift cometh of Christ.

And I would exhort you, my beloved brethren, that ye remember that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that all these gifts of which I have spoken, which are spiritual, never will be done away, even as long as the world shall stand, only according to the unbelief of the children of men.

Wherefore, there must be faith; and if there must be faith there must also be hope; and if there must be hope there must also be charity.

And except ye have charity ye can in nowise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neither can ye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if ye have not faith; neither can ye if ye have no hope.

And if ye have no hope ye must needs be in despair; and despair cometh because of iniquity.

And Christ truly said unto our fathers: If ye have faith ye can do all things which are expedient unto me.

24 이에 이제 내가 땅의 모든 끝에 말하노니—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가 폐하여지는 날이 이르면 그것은 믿지 않음으로 인함일 것이니라.

25 또 만일 그러할진대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너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을 것임이니, 이는 만일 너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역사할 것임이니라.

26 또 이러한 것을 폐하고 죽을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27 이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룸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기록한 나의 말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외치는 자같이 참으로 티끌에서 말하는 자같이 너희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실 것임이니라.

28 내가 이러한 것을 선포하여 예언을 이루노니, 보라,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올 것이요, 그의 말씀은 대대로 울려 퍼질 것이니라.

29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참됨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30 또 내가 거듭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31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또한 시온의 딸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네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혼란하게 되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

And now I speak unto all the ends of the earth—that if the day cometh that the power and gifts of God shall be done away among you, it shall be because of unbelief.

And wo be unto the children of men if this be the case; for there shall be none that doeth good among you, no not one. For if there be one among you that doeth good, he shall work by the power and gifts of God.

And wo unto them who shall do these things away and die, for they die in their sins, and they cannot be saved in the kingdom of God; and I speak it according to the words of Christ; and I lie not.

And I exhort you to remember these things; for the time speedily cometh that ye shall know that I lie not, for ye shall see me at the bar of God; and the Lord God will say unto you: Did I not declare my words unto you, which were written by this man, like as one crying from the dead, yea, even as one speaking out of the dust?

I declare these things unto the fulfilling of the prophecies. And behold, they shall proceed forth out of the mouth of the everlasting God; and his word shall hiss fort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God shall show unto you, that that which I have written is true.

And again I would exhort you that ye would come unto Christ, and lay hold upon every good gift, and touch not the evil gift, nor the unclean thing.

And awake, and arise from the dust, O Jerusalem; yea, and put on thy beautiful garments, O daughter of Zion; and strengthen thy stakes and enlarge thy borders forever, that thou mayest no more be confounded, that the covenants of the Eternal Father which he hath made unto thee, O house of Israel, may be fulfilled.



32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로다.

33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

34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내가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쉬리로다. 그리하여 나의 영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고, 내가 공중에서 승리자로 나아와,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의 기쁜 심판대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끝

Yea, come unto Christ, and be perfected in him, and deny yourselves of all ungodliness; and if ye shall deny yourselves of all ungodliness, and love God with all your might, mind and strength, then is his grace sufficient for you, that by his grace ye may be perfect in Christ; and if by the grace of God ye are perfect in Christ, ye can in nowise deny the power of God.

And again, if ye by the grace of God are perfect in Christ, and deny not his power, then are ye sanctified in Christ by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Christ, which is in the covenant of the Father u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that ye become holy, without spot.

And now I bid unto all, farewell. I soon go to rest in the paradise of God, until my spirit and body shall again reunite, and I am brought forth triumphant through the air, to meet you before the pleasing bar of the great Jehovah, the Eternal Judge of both quick and dead. Amen.

*The End*